2025년도

회 의 록



완도군의회

Wando County Council

목 차

완도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 1

의장 발간사 ····· 2

제9대 완도군의회 의원 구성 현황 ····· 4

Ⅰ. 제326회 완도군의회(임시회) ····· 7

개회식 ····· 9

제1차 본회의회의록 ····· 12

제2차 본회의회의록 ····· 28

제3차 본회의회의록 ····· 37

제4차 본회의회의록 ····· 46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51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61

Ⅱ. 제327회 완도군의회(임시회) ····· 69

개회식 ····· 71

제1차 본회의회의록 ····· 72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77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80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89

Ⅲ. 제328회 완도군의회(임시회) ····· 93

개회식 ····· 95

제1차 본회의회의록 ····· 98

제2차 본회의회의록 ····· 106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111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119

Ⅳ. 제329회 완도군의회(임시회) ····· 125

개회식 ····· 127
제1차 본회의회의록 ····· 130
제2차 본회의회의록 ····· 184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192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194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207

Ⅴ. 제330회 완도군의회(정례회) ····· 215

개회식 ····· 217
제1차 본회의회의록 ····· 220
제2차 본회의회의록 ····· 229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239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249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275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286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289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312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326

Ⅵ. 제331회 완도군의회(임시회) ····· 337

개회식 ····· 339
제1차 본회의회의록 ····· 342
제2차 본회의회의록 ····· 397
제3차 본회의회의록 ····· 440
제4차 본회의회의록 ····· 471

제5차 본회의회의록 ····· 491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498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501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507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515

Ⅶ. 제332회 완도군의회(임시회) ····· 529

개회식 ····· 531
제1차 본회의회의록 ····· 533
제2차 본회의회의록 ····· 539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544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550

Ⅷ. 제333회 완도군의회(임시회) ····· 557

개회식 ····· 559
제1차 본회의회의록 ····· 562
제2차 본회의회의록 ····· 610
제3차 본회의회의록 ····· 675
제4차 본회의회의록 ····· 742
제5차 본회의회의록 ····· 795
제6차 본회의회의록 ····· 821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 829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832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838

Ⅸ. 제334회 완도군의회(제2차 정례회) ····· 847

개회식 ····· 849

제1차 본회의회의록 ····· 852

제2차 본회의회의록 ····· 861

제3차 본회의회의록 ····· 874

제4차 본회의회의록 ····· 881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887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891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916

제1차 추경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925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943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1000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1023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1068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1097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 1099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 1156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 1208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 1245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 1303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 1353

완도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완도군의회 의원은 군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군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하나. 군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군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하나. 군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군민의 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공익 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하나.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하나. 완도군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발 간 사



완도군의회 의장

김 양 훈

존경하는 완도군민 여러분! 희망과 도약의 발걸음 속에 군민과 함께한 완도군의회의 의정활동을 담은 「2025년도 완도군의회 회의록」을 발간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회의록은 군민의 뜻을 대변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고민해 온 의정활동의 기록이자, 지방자치의 소중한 역사입니다. 또한 군민 여러분과의 약속을 실천해 나가는 과정이 투명하게 담긴 공적 기록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완도군의회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습니다. 군민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속가능한 해양치유산업 육성, 농수산업 경쟁력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군민 중심의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번 회의록에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비롯한 각종 의안 심사와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 전반의 내용이 충실히 수록되어 있습니다. 본 회의록이 군민 여러분께 열린 의정을 실현하는 소통의 자료이자,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귀중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완도군의회는 군민의 신뢰와 기대에 부응하며, 더 낮은 자세로 군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군민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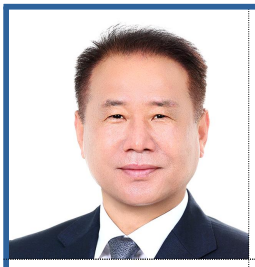
회의록 발간에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26년 6월

완도군의회 의장 김 양 훈

Ⅰ 제9대 완도군의회 의원

가 선거구(완도읍, 노화읍, 소안면, 보길면)



조 영 식

직 위 의원
연락처 061-550-5942



박 재 선

직 위 행정자치위원장
연락처 061-550-5947



박 성 규

직 위 부의장
연락처 061-550-5946



최 정 욱

직 위 의원
연락처 061-550-5944

나 선거구(금일읍, 고금면, 금당면, 생일면)



조 인 호

직 위 의원
연락처 061-550-5945



김 양 훈

직 위 의장
연락처 061-550-5941

다 선거구(군외면, 신지면, 약산면, 청산면)



허 궁 희

직 위 의원
연락처 061-550-5910



박 병 수

직 위 산업건설위원장
연락처 061-550-5948

비례대표



지 민

직 위 의회운영위원장
연락처 061-550-5943

II 제9대 후반기 의장단 구성현황

의 장	부의장	재임기간
		’24. 7. 4. ~ ’26. 6. 30.
김 양 훈	박 성 규	

III 제9대 후반기 위원회 구성현황

구분	위원장	위 원		
의회운영 위 원 회	 지 민	 조 인 호	 최 정 욱	 허 궁 희
행정자치 위 원 회	 박 재 선	 조 영 식	 조 인 호	 지 민
산업건설 위 원 회	 박 병 수	 박 성 규	 최 정 욱	 허 궁 희

제326회 완도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26회 완도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개회식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2월 5일(수) 오전 10시 개식

장 소 본회의장

제326회 완도군의회(임시회) 개회식순

1. 개식
2. 국기에 대한 경례
3. 애국가 제창
4.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5. 개회사
6. 폐식

(사회 : 의회행정팀장 김귀창)

(10시00분 개식)

○의회행정팀장 김귀창

안녕하십니까? 의회행정팀장 김귀창입니다.

지금부터 제326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자리에 앉은 채로 예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이어서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반주에 맞춰 1절을 힘차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다음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김양훈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김양훈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신우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희망과 도약을 상징하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고, 뜻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해, 완도군의회는 군민 여러분과 함께 호흡하며 지역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군정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의정 활동에 헌신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완도군의회는 '군민이 신뢰하는 든든한 의회'라는 의정 구호 아래 군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완도군의 미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새해에도 최선을 다하겠으며, 다음 네 가지 사항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군민과 소통하며 공감하는 열린 의회를 실현하겠습니다. 군민의 뜻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과 협력의 창구를 확대하고,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듣고, 그 의견을 정책으로 연결하여 군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의회를 이루겠습니다. 둘째, 지역 발전을 위한 희망찬 미래를 그려나가겠습니다.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등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서민생활 안정대책 등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각종 정책을 면밀히 살펴보고,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에 매진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건설을 비롯한 대규모 국책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군민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복지와 교육, 의료 환경을 세심히 살펴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농·축·어업 지원을 강화해 지역 주민들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겠으며, 기후 위기에 대응하여 해양환경 보전과 지속 가능한 어업 발전을 위한 정책도 끊임없이 고민하겠습니다. 넷째,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신뢰에 보답하겠습니다. 군민의 소중한 목소리를 대변하고, 그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아울러, 군민이 공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시하며, 군민 여러분께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11일까지 7일간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올 한해를 계획하고 운영하기 위한 군정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민생 조례안을 처리하게 됩니다. 올해 우리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되는 각종 현안사업들에 대하여 꼼꼼하게 살펴주시고,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세심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완도군의회는 군민의 뜻을 최우선으로 삼고, 새해에도 끊임없이 군민들과 소통하며, 현장에서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겠습니다.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군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의회로 완도군의 발전에 이바지하겠습니다. 2025년 을사년 새해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며, 군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회행정팀장 김귀창

이상으로 제324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0시04분 폐식)

제326회 완도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2월 5일(수)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

1. 제326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ㅇ 기획예산실
   - ㅇ 인구일자리정책실
   - ㅇ 해양치유담당관
   - ㅇ 관광과
   - ㅇ 행정지원과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

1. 제326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ㅇ 기획예산실
   - ㅇ 인구일자리정책실
   - ㅇ 해양치유담당관
   - ㅇ 관광과
   - ㅇ 행정지원과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양훈**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완도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박병수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박병수 의원

새해를 맞아 처음으로 개회한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군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신우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군외·신지·약산·청산면을 지역구로 둔 완도군의회 박병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청산도 구들장논 세계중요 농업유산 보전 관리 및 개선방안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발언기회를 주신 김양훈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연말 미국 NASA에서 '완도의 해조류 양식이 대기 중 탄소를 흡수해 저장하는 블루카본 역할을 한다'는 발표는 완도의 해조류 양식의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군민의 한 사람으로 매우 기쁜 일이었습니다. 세계가 인정한 블루카본 가치는 향후 완도의 해조류 양식산업 활성화로 이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완도군은 설군 이래 완도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유무형적 자원의 가치를 국내외적으로 알리고 인정받아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난 2014년, 척박한 섬에서 선조들이 지혜롭게 토지를 이용한 전통농업시스템인 청산도 구들장논을 유엔식량농업기구로부터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받은 사실은 매우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청산도 구들장논이 세계 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이후 구들장논 보전협의회는 완도군과 함께 최선을 다해 보존 관리 활동을 해왔으며, 농림부장관으로부터 표창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보전관리는 주민들만의 힘으로 유지관리 해나가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청산도 또한 고령화와 인구감소 그리고 구들장논 후계농 연결의 어려움에 있어서 예외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2월에 청산도 구들장논 세계중요 농업유산 지정 10주년을 기념하여 군민과 중국, 일본 등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한 기념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청산도 구들장논의 가치는 여전히 높지만 청산도 주민들이 지속가능하게 보존 관리 활동을 추진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보존 관리 활동은 주민들의 힘만으로는 어렵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고 정부와 완도군의 지원도 더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엔 지정만 되면 주민들이 직접 보존 관리를 할 수 있겠다고 자신했지만 주민들의 힘 외에도 행정의 관심과 지원 또한 군민들의 지지가 있을 때 농업유산이 지속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을 거듭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완도군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가 제정되어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되었습니다만 여전히 정책적 관심과 의지, 그리고 예산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물론 농업유산의 보전관리가 예산만 가지고는 어렵다고 봅니다. 청산도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경작활동으로 이어질 때 가능할 것입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청산농협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청산도 주민이 곧 조합원이기 때문입니다.

다행스럽게 지난 주 우리 지역(해남·완도·진도) 국회의원이신 박지원 의원님께서 청산

도를 다녀가셨습니다. 이때 본 의원이 박지원 국회의원님께 청산도 구들장논 보전관리 실태에 대하여 설명 드리고 국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매년 시행하는 구들장논 오너(Owner)제도에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국회의원들의 참여를 요청 드렸더니 첫 번째로 오너(Owner)제도에 참여하고 홍보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울러 관련 부처와도 협의하여 지속적인 지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이제는 우리 완도군에서 이에 걸맞은 노력을 해주시길 요청합니다. 우선 청산도 구들장논 농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농산물 가공품 개발과 새로운 브랜딩 활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농업유산과 연계한 청산도 관광 프로그램도 개발되어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청산도 구들장논 농업이 지속가능 해지려면 전통 농업을 통한 주민들의 기본 소득이 유지될 때 가능할 것입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부터 도·군의원 그리고 완도군의 행정과 군민이 함께할 때 세계중요농업유산 청산도 구들장논의 가치는 더 빛날 것입니다. 군민 여러분! 2025년 새해 더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양훈

박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에 대해 면밀히 검토 후 제안사항은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 필요하다면 제도개선을 통해 군민들의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최정환

사무과장 최정환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민 의회운영위원장님 외 7명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2025년 1월 20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 의안제출 현황입니다. 의원발의로 「완도군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이 집행부에서는 「완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등 8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1. 제326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양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26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25년 2월 5일부터 11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순서에 따라 박재선 의원과 박병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지민 의원 외 7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관련 서류를 검토해 주시고 의회운영위원회 지민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지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지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350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의회에서는 군정에 대한 추진사항을 파악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통하여 군민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제326회 임시회 기간 중 군정 주요업무 보고 및 청취를 위하여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양훈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지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원간담회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여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4시 30분 회의계속)

○의장 김양훈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

4. 2025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 및 청취의 건

(의장 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 및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기획예산실, 인구일자리정책실, 해양치유담당관, 관광과, 행정지원과 순으로 부서장의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완도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에 따라 의원의 질의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같은 규칙 제32조에 따라 동일 의제에 대해서는 2회에 한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장께서는 요점 위주로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참조)

· 2025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의장 김양훈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양훈

다음은 인구일자리정책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일자리정책실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참조)

· 2025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의장 김양훈

인구일자리정책실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욱 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페이지요. 청년공공임대주택 건립에 대해서 그 문제점 및 대책이 나와 있는데 거기 내에 지금 키즈카페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지금 예산 부족으로 문제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어떤 내용인가요?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키즈카페를 조성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청년공공임대주택이 지방소멸 대응기금 광역계정에서 90억, 기초계정에서 60억에서 150억 원을 가지고 에 60세대를 건립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건축 단가라든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서 지금 150억 원을 가지고는 우리가 계획하는 아마 60세대는 건립이 지금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지금 준공을 앞두고 있는 해남에서 당초 계획이 150억이었는데 군비 12억을 투자해서 162억을 투자하고도 40세대 정도 지었습니다. 저희 현재 예산으로 보면 아마 40세대 조금 더 짓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청년공공임대주택 건립이 당초 계획한 세대 수를 맞추기가 어렵다는 그런 의미고요. 키즈카페는 청년공공임대주택과 연계해 한 층을 청년어린이 키즈카페로 운영할 계획을 그렇게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욱 의원

이걸 예산 부서로 축소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죠?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그렇습니다.

○최정욱 의원

예. 그 규모는 전체 1층을 지금 말하나요?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한 층을 키즈카페로 활용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최정욱 의원

꼭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주택, 청년들의 인구정책의 기본적인 건데 다들 애들 데리고 갈 데가 없어 해남 목포로 지금 다 이동하는 걸 잘 아시죠?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최정욱 의원

그래서 이런 것부터 잘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27페이지요.

지역 인재육성 장학사업 해 가지고 제가 몇 차례 군정 질문도 했고 했었는데 어쩐가요? 우리 지역인재를 위해서 장학사업도 좀 예전에 비해서 변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용역을 그때 했다고 했던 것 같은데 어떤가요? 뭐 어떤 그때와 다른 점이 있다면 뭐 다른 거 있는가요?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용역을 해서 특히 수고 같은 경우는 완전히 학제 자체를 개편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신청했는데 작년에는 아쉽게도 결과를 얻지 못했지만 올해 다시 지금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지금 3개 학과가 있는데 그것 전체적으로 다시 학과를 개편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완도읍을 비롯한 일부 체도권은 학생들이 방과 후에도 다닐 수 있는 사설 학원들이 있지만 도서 지역은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방과 후에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그 강남 인강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학원 강사들이 출연하는 강남 인강을 저렴한 가격에 우리 학생들이 원하면 누구든지 가정에서 그런 강의를 수강할 수 있도록 올해는 그렇게 도입할 계획입니다.

○최정욱 의원

학과 개편 3개과를 한다면 우리 지역에 필요한 인재 육성에 관해서 말한 건가요?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그렇습니다.

○최정욱 의원

그건 좀 더 같이 토론을 다음에 해 보기로 하고 한 가지 또 제안을 하겠는데요. 우리가 학생들이 지금 태어나서, 우리 완도에서 태어났지만 다들 지역에서 태어나서 학교 가기까지 도시로 가기까지 완도 체도권을 다 모르고 가요. 저 역시도 의원이 아니었다면 아마 각 읍면에 순회를 못 했을 겁니다. 이제 그런 것도 우리 하나의 지금 교육인데 우리 지역에 학생들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라도 우리 읍면에 각 역사나 읍면의 유래 같은 것도 한번 순회를 하는 걸로 그런 교육 제도가 어떤가, 교육청하고 의논해서 안 되면 지원이 필요하다면 우리 장학사업 이럴 때 그런 데다 투자해서 좀 학생들이 우리 지역에 그래도 적어도 역사와 지역 유래 정도는 한 번쯤은 가서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또한 해설사들이 다 지역마다 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동승해서 그런 해설을 전적으로 하면서 한 번쯤 그런 교육도 한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쩝니까?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지금 여기 장학사업 계획에 보면 하단에 보면은 완도 교육자치 협력지구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 사업이 그 마을 학교 같은 거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 고금초등학교에서는 우리 지역 바로 알기라고 해 가지고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보길이라든지 소안이라든지 신지라든지 타 지역 자기가 태어나고 학교 다니는 지역 말고 다른 지역까지 가서 그런 우리 지역 바로알기 사업을 운영을 한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교육청과 협력을 해서 이런 사업들을 좀 확대할 수 있도록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욱 의원

저는 그게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우리 장학사업도 이제는 좀 변해야 된다고 봐요. 꼭 참고해 주시고 또 한 가지 그 교사들이 신입 교사들이 와요. 오면은 그 교사들도 한 번쯤 그런 프로그램에 의해서 우리 지역 알기 위해서 한 번쯤 그런 거를 순회하는 것도 한번 좋지 않을까 우리 완도를 알리기도 되고, 어떤 그런 교육적인 문제도 되고 어떤가요? 그런 것도.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예. 그것도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했던 적도 일부 있었는데요. 이건 아마 학교 일정하고 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교육청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욱 의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양훈

조인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호 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쪽 외국인 계절 근로자에 대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작년에 2,519명 배정 받았죠?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예. 그렇습니다.

○조인호 의원

아까 실장님도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그 인권 침해가 심하다고 지금 그런 여론이 많던데 어느 쪽에서 좀 많습니까?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이 인권 침해는 많이 들어가 있는 읍면에서 숫자가 일부에서 그런 사례들이 일부 발견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처음에 근로자들이 들어오면 고용주하고 근로자 교육할 때 이런 사례가 발생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혹시 이런 사례가 발생하면 고용주한테는 앞으로는 근로자 배치를 제한한다라고 기준을 정해 갖고 통보를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우리 고용주들의 인식이 부족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한 경우들이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인호 의원

임금 체불은 어떻습니까?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임금 체불도 거의 지금 없어졌는데 그래도 한두 건씩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인호 의원

지금 부식 관련돼 가지고도 민원이 많이 생긴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예?

○조인호 의원

먹는 부식.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예. 일부에서는 근로자들이 자기들끼리 이제 단톡 방같이 커뮤니티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사장님은 먹는 걸 잘 안 줘 먹을 게 없어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그런 게 나타나는데 혹시라도 조금 심각한 상황이 나타나면 저희들이 개입을 해서 고용주한테 개선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조인호 의원

자기네끼리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끼리 공유를 하더라고요.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그렇습니다. 공유를 합니다.

○조인호 의원

이제 그 부분이 언론에 보도가 되면 또 지역의 이미지도 큰 손상을 입을 것 같아요. 지금 계절 근로자 담당하는 인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지금 팀장하고 7급 하나, 그다음에 9급 2명, 공무직 2명 그렇게 있습니다.

○조인호 의원

그 인원 가지고 지금 해 나갈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지금 현재 인력 가지고는 저희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도입하다 보니까 완도까지 들어와서 현장에 배치하는 것까지는 어렵게 하고 있고, 또 중간 중간에 근로자를 배치시키면 이게 도저히 적응 못한다든지 고용주가 자기가 원하는 만큼 근로자가 일을 못하면 다른 지역으로 또 재배치 요청을 합니다. 이런 민원 해결하는데 급급하고, 방금 말씀하셨던 근로자들이 현장에 가서 적응을 어떻게 하는지 임금이라든지 임금 체불이라든지 뭐 폭행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는 더 현장 가서 확인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인력 갖고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인호 의원

이제 군수님도 계시는데, 부군수 새로 오셨고, 우리 완도가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하려면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없으면 완도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인원도 중요하지만 외국인계절과 관련

된 인원을 증원해 가지고 우리 지역의 농어민들이 좀 편안하게 이렇게 자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예를 들어서 실장님 우리 지금 사고 난 외국인들 아니겠습니까?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예.

○조인호 의원

그러면 이제 우리 읍면에 관련 수산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하고 우리 담당했던 군청 담당 직원들하고 소통은 잘 됩니까?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예. 그런 부분들은 그런 사항이 있으면 바로 바로 저희들하고 공유하고 소통이 바로 됩니다.

○조인호 의원

그리고 한 번 이렇게 인권 침해한 업체로는 근로자를 이용하면 안 됩니다.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인권 침해뿐만 아니고 임금 체불 여러 가지 저희들이 그 제한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인호 의원

읍면에서 고질적인 그런 부분들은 지금 우리 실장님도 체크하고 있죠?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한 번 그런 사례가 발생되면 그 뒤로는 일정 기간 동안 인력 배정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조인호 의원

그 부분은 꼭 지켜주십시오.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인호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양훈

지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민 의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좀 전에 저희 최정욱 의원님께서 여쭤보셨는데 제가 이해를 좀 잘 못한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13페이지 청년공공임대주택 건립에서 문제점 및 대책에 이게 사업 규모 축소 우려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아래 칸에 청년 공공임대주택 내 키즈카페의 조성 사업량을 조정하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원래 기존에 계획하고 있던 거는 어떤 거였나요?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당초에 저희들이 키즈카페가 지소멸대응기금사업으로 사업을 할 계획이었는데 당초에는 공공도서관, 공공도서관하고 연계해서 그 키즈카페를 그쪽 공간으로 같이 넣어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공도서관 건립 계획이 생각보다 늦어지다 보니 키즈 카페 준공 시간이 같이 늦어질 수밖에 없고, 착공이 지연될 것이 예상이 돼서 그러면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청년공공임대 주택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하는 게 오히려 더 빨리 완공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이쪽하고 연계시키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서관하고 같이 키즈카페를 진행을 하는 게 아니고 청년 공공임대주택과 키즈카페를 같이 조성을 하신다는 거죠?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그렇죠. 한 건물에 한 층을 한층 한 층을.....

○지민 의원

원래는 이제 도서관과 같이 하면 공간 자체가 좁아지는데 오히려 더 커질 수도 있는 부분이네요. 이제 그 부분은 하여튼 간에 같이 이 사업에 조금 속도를 내기 위해서 저희에서 지금 청년 공공임대주택하고 같이 연계해서 한 공간에 지금 건립할 계획을 그렇게 수립해

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민 의원

여기 키즈카페 조정을 한다고 돼 있어서 저는 이게 좀 키즈카페가 축소가 돼 버리지 않을까.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그러진 않습니다.

○지민 의원

이게 우리 지역 주민들의 또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키즈카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 때문에 또 이동을 또 많이 해서 또 다녀오는 애기들도 많고 해서 그래서 한번 염려스러워서 한번 여쭤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양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치유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치유담당관**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참조)

· 2025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의장 김양훈

해양치유담당관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양훈

박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의원

한두 가지만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작년 또 7월에 임시회에서 군정 질문을 통해서 지적했던 약산 치유의 숲 내 해양 치유 시설이 있죠?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예. 그렇습니다.

○박병수 의원

거기에 그 관로 시설이 그때 당시에 훼손이 돼 가지고 그걸 보수를 하라고 그랬는데 그게 보수가 됐는가요?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일단 보완할 것은 지금 보완을 다 했고요. 이제 산림휴양과랑 협의하는 과정에 실내에 좀 약간 더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지금 2월 중순까지 해서 그 시설을 마지막 보완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부터 이제 3월부터는 휴양과에서 정상 프로그램을 운영할 그런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병수 의원

지금 업무보고에는 제가 작년에 했던 감사에서 지적했던 그 내용하고 그 외에 그 뭡니까? 그 업무 보고 사항은 없어요?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예. 그렇습니다.

○박병수 의원

업무 추진 사항은. 또 산림과에도 그 업무가 들어간 건 아니죠?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산림과에서는 이제 전체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부분이 들어갈 걸로.....

○박병수 의원

들어가 있는가요?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그 부분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박병수 의원

지금 보니까 산림과에도 이 업무보고가 안 들어 있고 해양치유담당관실에도 이것이 없어요. 업무가 작년도에 지적했던 사항만 이렇게

정상화 조치한다 정상화됐다 자체 보수 필요하다 이렇게만 지금 결과가 나와 있지, 실제 작년 제가 지적을 하고, 이 업무보고를 제가 챙기기 위해서 제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현장을 다녀왔는데 아직까지도 안 돼 있어요. 그럼 그 작년에 지적했던 사항들 그 외의 사항들이 또 보완을 해야 할 사항들이 또 새로 발생을 했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이제 내부에 천장이 약간 처짐이 있는 그 부분을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의원

그러니까 천장이 그렇게 물이 어떻게 해서 그런 것이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가 그 공사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그게 22년도에 준공된 거고요. 그 천장은 신축성 있게 되어 있는 천장 구조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따뜻한 수증기가 올라가면 그게 이제 팽창을 하게 되고 또 수축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인데 그게 이제 산림휴양과 쪽에서는 오히려 그게 더 위험하니 천장을 더 보수를 요구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2월 중순까지 해서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병수 의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보고서에 보면 이렇게 2025년 1월에 조치 예정이라고 해놨는데 또 2월로 넘어가죠. 작년도에는 이거 바로 해갖고 업무 이관을 한다고 보고를 했었거든요.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보완을 다 하고 산림휴양과 담당직원하고, 우리 팀장하고 같이 이제 산림휴양과 팀장하고 이 부분은 다 마무리가 됐다 이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겠다 했는데 이제 또 운영을 실질적으로 안 하고 있다 보니까 한 달 뒤에 또 다른 이상 현상이 나타나서 계속 그것을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형태가 계속 이루어졌고요. 이제 3월부터 정상 운영을 하게 된다고 하면 운영하면서 또 애로사항이 있거나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수시로 보완해서 운영에 차질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박병수 의원

방송실 자료 한번 보여주세요. 작년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처리 결과를 이렇게 제가 받았어요. 받았는데 모든 게 전부 다 종결된 걸로 완료했거든요. 어떻습니까? 이거 다 됐습니까? 그러면.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아니, 미비한 부분이 계속 이제 하나하나 또 그때 됐다고 양 부서가 협의했던 부분들이 시간이 경과되면 또 뭐 이런 보완할 것이 있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수시로 저희들이 대처를 해야 나가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박병수 의원

여기 공사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처음에 공사를 신축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그 운영도 못하고 계속 문제점만 발생하고 있잖아요.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이제 운영을 의원님 이제 못한 게 아니고 건립이 되어 있는데 운영할 시스템이 갖춰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 건물을 인수를 받으려고 보니까 산림휴양과에서 상당히 애로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도 해양치유센터도 건립을 해가지고 바로 운영을 하면서 수시로 문제 있는 부분은 보완을 해 나가거든요. 이게 운영을 하면서 보완을 해 나가면 되는데 운영을 하지 않고 지금 프로그램 운영할 인력도 배치가 안 돼 있고, 예산도 확보가 안

돼 있는 부분이 한 2년 동안 지속되었던 거죠.

○박병수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운영에 관한 사항이고 공사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 이야기예요.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이제 공사는 완벽하게 되지를 않는 그런 하자가 있는……

○박병수 의원

그러니까 왜 지금까지 그렇게 방치하고 놔두냐는 얘기예요.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계속 보완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박병수 의원

또 예산은 계속 들어가죠. 거기에 따라서요. 그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는가요?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하자 보수 받을 부분은 받고, 또 기간이 연장 끝난 부분은 예산 투입해서 보완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의원

이거 또 사진 하나, 다시 다른 사진 하나 보내주세요. 지금 보세요. 저 천장이 이렇게 풍선처럼 부풀어 있습니다. 보셨는가요?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예. 봤습니다.

○박병수 의원

다음 사진. 지금 새 건물이 저 정도입니다. 지금 오픈도 하기 전에 저 정도로 지금 하고 관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담당관 어쩌십니까? 지금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해수를 이용하는 시설에 저희들도 이제 센터도 이용을 해 봅니다마는 해수는 녹하고 상당히 이제 취약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관리를 하면서 닦아주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안 이루어졌다고 보고요. 센터는 저희들도 계속 보수를 해 주거든요.

○박병수 의원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저렇게 방치할 겁니까?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이제 저 부분은 뭐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보완하고 지금 운영을 주체가 되어 있는 산림휴양과에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박병수 의원

산림휴양과장님 계신가요? 인수인계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지금 현재 인수인계 그 부분은 저희들하고 전혀 지금 안 돼 있고요. 일부 이렇게 파손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이렇게 수리를 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속도가 좀 나지 않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인수할 단계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병수 의원

서로 말이 안 맞잖아요. 지금 과장님 어떠십니까? 담당관님.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산림휴양과 팀장하고 얘기를 나눴던 지원팀의 김광호 팀장으로부터 좀 얘기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수 의원

예. 계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공단지원팀장 김광호

예. 공단 지원팀장입니다. 이제 보통 아까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바닷물을 사용하는 시설들은 계속 유지 관리를 하면서 가동을

해야 됩니다. 방금 보셨던 녹 같은 부분도 한 번 바닷물이 먹기 시작하면 초창기 때는 한 번 닦아주면 녹이 제거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닦지 않고 놔두면 녹은 계속 확산이 되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지하에 가 있는 모터라든가 해수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유지가 되지 않고 가동을 하고 중단되어 있는 상태가 길어진다고 하면 모든 시스템은 다 망가집니다. 그래서 이제 정상 운영을 하지 않더라도 시범 운영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기계를 유지 관리해 주지 않은 상태라고 하면 오래 갈수 가 없죠.

○박병수 의원

그럼 언제까지 이걸 그대로 두고 갈 건가요?

○공단지원팀장 김광호

시스템 자체는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 문제점이 방금 보셨던 천장재 같은 경우는 위에 있는 설비 하나가 지금 묶여 있는 게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만 떼어내면은 약간은 이제 처짐은 발생이 되지만 안전상이라든가 미관상이라든가 기능상의 문제가 없습니다.

○박병수 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기술적인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다른 손님들이 들어가서 저걸 봤을 때 저걸 불안해서 들어가겠냐는 얘기예요.

○공단지원팀장 김광호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다음 주에 그 부분을 처리하기로 지금 준비가 된 상태.....

○박병수 의원

다음 주에 하시겠어요? 어떻습니까? 저 부군수님 언제 현장을 저하고 한번 같이 가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같이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가보시게요. 아무튼 그분은 지금 3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났는데 그렇게 방치하고 그런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뭐입니까? 도대체가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조속히 보완해서 바로 업무 이관이 돼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알겠습니다.

○박병수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그 해양치유관리공단 인력 현황을 보면 지금 정원이 51명, 현원이 63명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지금 오전에 해양치유공단에서 업무 현황 보고를 할 때 정원이 40명, 현원이 37명 이렇게 보고가 돼 있어요. 어떤 게 맞는 겁니까?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거기에는 정규직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이제 기간제까지 다 포함해서 인력 현황을 잡다 보니까 지금 현행 63명이라는 말씀입니다.

○박병수 의원

그러면 인력 관리는 그럼 그쪽에서는 하지 않는가요? 지금 공단에서는.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아니, 인력 관리를 하는데 오전에 업무 보고를 했던 그 인력의 현황표 작성을 이제 공단 측에서 기간제를 빼고 작성을 했다는 거죠.

○박병수 의원

아니, 그러니까 군하고 공단하고 이것이 서로 복잡하게 나온다면 안 맞잖아요, 인력 관리를. 여기 전부 다 인력이라는 것은 전부 다 예산하고 같이 연결해야 한는 거 아닙니까?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예. 맞습니다.

○박병수 의원

그런데 여기는 맞고 여기는 빼고 여기는 버티고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이제 앞으로는 상호 소통해서 일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수 의원

첫 번째 금년 들어 첫 번째 업무 보고입니다. 이런 부분을 좀 신중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예. 알겠습니다.

○박병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양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해양치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15분 회의계속)

다음은 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

○관광과장 오현철

(참조)

· 2025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의장 김양훈

관광과장으로부터 보고받는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두 가지 것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12페이지 해안도로 관광경관 명소화 사업에 대해서 지금 추진 배경을 보면 국립난대수목원에서 청해포구 해신세트장 구간이라고 돼 있는데 완도의 군외면 소재지는 완도의 관문이면서 수목원이 자리하고 있는 가장 가까운 곳입니다. 그리고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시작했던 지점이고요. 그런데 왜 소재지권을 빼고 저쪽 서부 쪽으로 먼저 들어가는 것인가 그거 한번 간단히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관광과장 오현철

그곳은 지금 현재 우리 노을길 조성을 지역개발과 쪽에서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와 연계돼서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그 지점부터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박병수 의원

그렇게 시작점을 원동 소재지 바로 완도대교를 건너면 시작점이 그렇게 불이 꺼져가고 낙후돼 있는데 서부 시작점은 경관도를 가기 위한 시작점, 그런데 왜 그걸 빼고 수목원에서 바로 그쪽으로 받게 그렇게 이제 계획을 하고 있냐는 얘기예요.

○관광과장 오현철

아니요. 지역개발과 기존 사업을 좀 더 같이 좀 확대하고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지금 사업 구간을 그렇게 지금 잡았고 기존에 그쪽에 시설돼 있는 시설물들을 새로 구축하거나 그러지 않고 업그레이드를 해서 쉽게 사업비 집행이라든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구간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박병수 의원

지금 며칠 전에 제가 군수님 면담을 한번 했어요. 면담을 했는데 군수님 지시사항으로 지금 지역개발과로 지금 업무가 지금 나와 있죠?

○관광과장 오현철

예. 그렇습니다.

○박병수 의원

그거 보니까 3억, 그 관광객 수용을 위한 기반시설 3억, 3억 갖고 못 하겠어요. 또 수목원 그 뭡니까? 거리 가로정비 4억 원 또 뭐입니까? 원동시가지 도시재생 사십여 이런 규모 있게 사업을 해서 완도의 관문이면서 수목원하고 제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소재지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좀 관심을 갖고 과장님이 이런 부분들을 좀 챙겨주시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과장 오현철

예. 의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이 사업 추진하면서 혹시 잔여사업 부분이 남거나 아니면 거기다 투자를 할 것이고, 새로운 어떤 공모사업으로 부분들이 있다라면 지역개발과 아니면 또 저희 과 산림휴양과까지 콜라보해서 그런 부분들을 진행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수 의원

지금 어쩝니까? 뭐 설계는 다 계획이 나왔는가요?

○관광과장 오현철

예. 이제 1단계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승인까지 지금 최종적으로 나왔습니다.

○박병수 의원

그럼 용역 결과가 나왔다 이 말씀이죠.

○관광과장 오현철

계획은 최종 승인받았고 지금은 단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의원

그 자리에는 어떤 사람이 참여한 심의 그런 거 보고회 안 한가요?

○관광과장 오현철

아, 그것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전체적인 사업 계획을 승인을 하고.....

○박병수 의원

아니, 그러니까 보고 그러니까 승인받을 때 올릴 때 군에서는 군수님한테 보고 안 한가요?

○관광과장 오현철

군수님한테 다 보고를 드려서 계획이 올라간 겁니다.

○박병수 의원

아니 다른 조그마한 용역 결과도 전부 다 하더라고 보면 의원들도 참여하고 실과에 참여하고 해서 보고를 하는데 그 제가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군외면이에요. 군외면 출신인데 저는 이걸 한지 어쩐지 모를 정도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관광과장 오현철

의원님 이제 이것은 업무 회피가 아니고요. 제가 이 사업은 제가 오기 전에 이미 문체부 사업 남부권관광개발사업에 3단계까지 포함을 다 시켜놔서 1단계부터 추진하는 그런 부분들이었습니다.

○박병수 의원

그럼 용역 결과가 끝나고 승인받아서 이렇게 한다 이 말씀이죠?

○관광과장 오현철

예. 그렇습니다.

○박병수 의원

그럼 입찰 단계인가요?

○관광과장 오현철

지금 현재 기술 평가까지 마쳐서 지금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의원

용역을 하고 있으면 이런 부분들을 해신세트장 그쪽으로 갈 게 아니라 수목원에서 군외면 쪽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인가 어떠십니까?

○관광과장 오현철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고요. 기존 계획된 그런 부분

들을 변경하는 그런 절차들은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수 의원

확인 한번 해 주십시오. 한번 확인을 한번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요. 제가 작년도에 군정 질문을 통해서 한번 청산도 구들장, 구들장이 아니라 청산도 관광에 대해서 주요 관광지에 대한 시설물 정비에 대해서 제가 조목조목 일일이 사진 찍어서 전부 다 지금 사진을 여기서 영상으로 다 처리를 했어요.

거기에 따른 그 계획을 작년에 좀 제출해 주라고 했는데 그것이 지금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는지 금년에 지금 그 행사가 완도의 방문에 슬로걷기 축제, 또 슬로시티 총회 있잖아요, 시장 총회. 이런 큰 행사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청산도를 전부 다 들을 걸로 이제 보는데 그런 그 주요 시설물이 정비가 되고 있는 것인가, 정비 계획이 있는 것인가 어떠신가요?

○관광과장 오현철

지금 정비 계획을 하고 지역개발과하고 같이 현장을 다 실사를 해서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고요. 먼저 해야 될 부분들은 저희가 청산면에 지금 현재 예산을 재배정해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설물 정비 계획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의원님께 별도로 저희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병수 의원

그때 지적했던 그 훼손됐거나 중복됐거나 퇴색됐거나 뭐 있을 자리에 없는 그런 간판이나 시설물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오현철

예. 그러겠습니다, 의원님.

○박병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양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참조)
· 2025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의장 김양훈

행정지원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에 대해「완도군의회 회의규칙」제26조에 따라 경미한 자구나 오류의 정정은 제가 위임받아 처리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산회)

○출석의원(9인)

김양훈	박성규	지민
박재선	박병수	조인호
최정욱	허궁희	조영식

○출석공무원

군수	신우철
부군수	이범우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세무회계과장	김희수
민원봉사과장	우홍래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경제교통과장	이정국
관광과장	오현철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체육진흥과장	최광윤
농업축산과장	박창희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수산경영과장	김 일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안전총괄과장	이홍용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보건의료원장	한광일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수호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최정환
의회행정팀장	김귀창
속 기 사	정현중

제326회 완도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2월 6일(목)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25년 군정주요업무 보고 및 청취의 건(계속)

부의된 안건

1. 2025년 군정주요업무 보고 및 청취의 건(계속)
   - ㅇ 세무회계과
   - ㅇ 민원봉사과
   - ㅇ 건설과
   - ㅇ 주민복지과
   - ㅇ 가족행복과
   - ㅇ 경제교통과
   - ㅇ 문화예술과
   - ㅇ 체육진흥과
   - ㅇ 농업축산과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양훈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

1. 2025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 및 청취의 건(의장 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 및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세무회계과, 민원봉사과, 건설과, 주민복지과, 가족행복과, 경제교통과,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농업축산과,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부서장의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세무회계과**

○세무회계과장 김희수

(참조)
· 2025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의장 김양훈

세무회계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장 우홍래

(참조)
· 2025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의장 김양훈

민원봉사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건설과장 김진원

(참조)
· 2025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의장 김양훈

건설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참조)
· 2025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의장 김양훈

주민복지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아, 지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민 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여기 듣다 보니까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겨가지고 5페이지 양성평등 정책 지원에서요. 여기 안심스크린하고 안심벨 설치가 지금 예정이 돼 있어요. 환경수질과하고 협업을 해서 근데 여기 안심스크린은 뭐예요? 그거 나중에 한번 자료 한번 주시고요. 혹시 여기 그 안심벨이라 하면 어디에 설치를 하신다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화장실 내에.....

○지민 의원

화장실 내에 현재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것도 있죠?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예. 있습니다.

○지민 의원

그럼 이제 안심벨이라면 또 이제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도 또 안심벨을 또 하잖아요.

그거하고는 또 다르죠.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저기서 이거 같이 해야 됩니다.

○지민 의원

같이 이제 그러면 이 거리에 우리 좀 귀갓길 같은 데 우리 타 지역이나 도시 같은 데 보면 이렇게 가로등 같은 데도 이렇게 안심벨이 있더라고요. CCTV하고 연결이 돼서 그러면 지금 여기 화장실에 안심벨이 있는 거는 누르면 만약에 어디로 어디하고 연결이 되나요?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119하고 연결됩니다.

○지민 의원

아, 저기 바로 소방서하고 경찰서하고 그쪽은 아니고 소방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예.

○지민 의원

알겠습니다. 잘 확인해 봐 주시고 설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양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0분 회의계속)

다음은 가족행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행복과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참조)

· 2025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의장 김양훈

가족행복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 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보고서 13페이지 경로당 활성화 추진에 따른 경로당 운영비 지원 관련해서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완도군의 경로당 개소수가 310개소 정도 돼요. 운영 지원에 관련한 예산이 16억 8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그 경로당하고 경로복지센터에 지급되는 운영비가 다르죠?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예.

○지민 의원

그 한 개소당 운영비 지원은 얼마 정도 됩니까?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지금 저희가 경로당 운영비 지원을 그 균등지원을 부터 15만 5천 원, 14페이지 표를 보시면 균등 지원은 15만 5천 원이고, 차등 지원은 2만 원에서 40만 원 이 이제 균등 지원에서 추가로 이렇게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지민 의원

예. 경로복지센터 또.....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아, 경로복지센터.....

○지민 의원

경로복지센터는 얼마 1개소에 얼마 들어가나요?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잠깐만요. 경로복지센터 저희가 경로 경로복지센터는 운영비를 월 지급액이 36만 원을 지금 지급, 아니, 아닌데..... 잠깐 운영비는 매월 지금 12만 8천 원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연 지급액이 지금 복지센터가 운영비랑 같이.....

○지민 의원

그거는 나중에 자료로 한 번 더 주세요.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예, 예.

○지민 의원

이제 제가 이제 여쭤보고자 하고자 하는 거는 우리 항상 정산 관련해서 제가 한 2년 전에도 한번 제안을 한 번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께서 우리 정산하는 걸 굉장히 좀 많이 어려워하시잖아요. 아직도 계속 어려워하시죠?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예.

○지민 의원

이게 정산 서류 관련해서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전에 또 제가 제안을 드렸던 거는 우리 일자리하고 연계를 해서 그 정산 도우미 이렇게 각 마을별로 경로당별로 한번 돌면 어떨까라고 말씀도 한번 드렸어요. 근데 혹시 또 정산을 받으면 담당 공무원들도 할 일이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제 제안을 다른 걸로 해서 또 한번 더 해보려고 하거든요.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아, 예.

○지민 의원

일단 사진 한번 올려주세요. 요즘에 최근 들어 가지고 저 안동경로당에서 간편 회계 서식을 이렇게 보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도 행정안전부에서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또 상을 받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안동시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 간편 회계 서식인데 여기 또 이제 우리 과장님 들어보셨어요?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들어는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군도 지금 저 지민 의원님께서 제안을 하셔가지고 그때 해서 작년부터 저희도 이제 내 경로당 운영을 위한 안내 책자를 제작을 해서 경로당마다 책자를 배부해 지금 비치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순차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이 책자를 교육시키면서 이것에 맞춰서 저기 경로당 정산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서식까지 다 해가지고 준 부분이 이제 서식만 채우면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지금 저희 군도 의원님이 제안하셔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안동이 지금 우수 사례로 저기 선정이 됐다고 하면 어떤 부분으로 저렇게 됐는지 저희도 한번 알아보고.

○지민 의원

완도 거하고 비교를 해봤어요. 완도는 이렇게 칸을 채워서 금전출납부처럼 쫙 이렇게 써 내려가는 서식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안동 거는 이렇게 우리 난방비 무슨 안에 부식비, 회의비 이러한 항목들을 미리 써 가지고 서식 자체에다가 넣어놓고 어르신들이 그 네모칸 안에 체크만 할 수 있도록 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옆에다가 이 금액만 쓰고 통장 사본과 영수증만 제출을 하게끔 되어 있어서 일단은 이렇게 그 어르신들이 전체 내역을 통장하고 똑같이 막 써 내려가지는 않아도 되잖아요.

그래서 많이 이게 편하겠더라고요. 대략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항목이 여기 다 돼 있고 거기에 뭐, 뭐, 뭐, 뭐 이렇게 항목만 표시하게끔 그래서 이제 이게 또 많이 편할 듯싶어서 우리 군에도 또 이러한 것도 같이 한번 보면서 어떤 게 더 나을까 우리도 이제 많이 편해지기는 했어요. 같이 이제 접목을 해 가지고 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예. 저희가 안동시 걸 조사를 좀 해서 접목을 잘 시켜보겠습니다.

○지민 의원

그리고 여기 책 보다가 궁금한 게 갑자기 있어서 이것도 13페이지인데요. 개선 방향에서 문해프로그램 시범 운영이라고 돼 있어요.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지금 경로당에서 대부분 우리가 요가 프로그램 선생님들이 율동이나 그런 위주로 했다면 올해는 그 인지 그 치매 환자 예방 차원에서 인지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그림 그리기나 그런 식으로 지금.....

○지민 의원

그림 그리기나.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예, 예. 이제 한글은 지금 평생학습에서 좀 하고 있다 처음에 초안 잡기는 한글 교육도 같이 병행을 해보려고 그랬는데 그 평생학습에서 우리 경로당하고 좀 중복이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은 이제 미술 그림 그리기 이걸로 좀 바꿔서 시행을 올해 처음으로 한번 시도를 해 봅니다. 군수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고 해서.....

○지민 의원

그래서 저는 이게 문해프로그램인가 싶어서 한번 여쭤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양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가족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

○경제교통과장 이정국

(참조)

· 2025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의장 김양훈

경제교통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에는 없고 그간 1월달에 민원 들어온 것들도 있고 해서 민원 위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난 우리 본예산에 운수업계 보조금 터미널 공공운영비 지원 1,800만 원 삭감됐죠?

○경제교통과장 이정국

예.

○조영식 의원

이게 지금 우리군에서 오래도록 지금 지원해 왔죠? 그럼 삭감된 건 이번이 처음이고요.

○경제교통과장 이정국

예.

○조영식 의원

벌써부터 이용객들의 불편과 주민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데 혹시 접해본 적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정국

터미널이 지금 이 사업비는 1,800만 원은 완도읍 버스터미널뿐만 아니라 군외, 고금까지 지금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거 이 지원 사업은 어떤 공공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물 사용료라든가 전기 사용료를 지원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좀 저희들이 좀 업체하고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식 의원

지금 대화 나눠봤습니까? 업체하고.

○경제교통과장 이정국

좀 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경영 자기들도 이 업체들이 경영이 악화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하게 되면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이 돌아갈 것 같습니다.

○조영식 의원

그러면 공공운영비가 완도 버스터미널만이 아니고 원동도, 고금도 다 포함돼 가지고 금액이 소액인데 삭감이 됐었어요. 처음이라고 그러고 화장지도 배치되어 있지 않고, 화장실 청소도 아주 불결해서 환경이 매우 불량하다고 들었습니다. 업체하고 잘 대화를 나누시고 버스터미널 현대화사업 있죠, 이번에 3천만 원. 그거 하면서 일단 이런 민원 해소를 좀 하시기를 제안 드리고요. 또 필요하다면 추경에 얼마 되지 않는 돈이니까 반영토록 좀 제안 드립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정국

예. 이 사업은 저희 군뿐만 아니라 전 시군이 좀 지금 현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영식 의원

보면 완도 같은 경우는 택시부도 같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택시부하고 또 이용객들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관내 업체하고 마찰도 좀 일어난 것 같고, 또 불만도 심하게 쌓이고 있으니까 아까 제안 드린 그 현대화사업에서 일부 좀 해서 쓰고 나중에 추경 때 필요하다면 반영토록 적극 부탁드립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정국

예. 알겠습니다. 최소한 민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식 의원

예,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양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지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 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전에 그 완도행복충전소 이렇게 주차 건립 관련해서 이제 그게 시행이 된다면 주민들의 민원이라든지 이게 좀 많이 들어올 건데 이게 대비를 하고 있냐라고 한번 여쭤본 적도 있고요. 근데 지금 오늘 내용에 보니까 행복충전소 저기 현대아파트 쪽에 있는 거는 임시주차장으로 지금 공설운동장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좀 거리가 있지 않나요?

○경제교통과장 이정국

예. 맞습니다.

○지민 의원

좀 그러죠?

○경제교통과장 이정국

예.

○지민 의원

예전에 제가 그 지나리 공설운동장 쪽에서 현대 아파트 쪽으로 올라가려면 그 세차장인가 그쪽 뒤에 그 조그만 샛길이 있잖아요. 그 쪽 앞에 이제 진아리채라든지 현대아파트 쪽 주민들이 그쪽을 이제 많이 이용을 하는데 이제 횡단보도 관련해 가지고 제가 이제 한번 문의를 한 번 드렸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야 확보가 저쪽 넘어오는 쪽에서 안 되니까 시야 확보가 안 돼서 횡단보도 이제 설치가 좀 불가하고 그래서 그런 방지턱하고 저희가 이제 오른쪽 커브 돌아가는 쪽에 그 점멸등을 한번 일단 점멸등이 있으면 일단 좀 운전자들이 좀 조심을 하니까 근데 아직 점멸등은 설치가 아직 안 됐어요. 혹시 근데 지금 또 반사경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지금 기억이 안 나거든요. 반사경도 있었으면 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도로가 커브도 많이 지고 양쪽에 지금 인도가 없잖아요. 근데 또 아래쪽에 이제 주차를 임시 주차장을 쓰면서 올라오려고 하면 이게 좀 많이 불편하기도 하고, 그 쪽이 좀 위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좀 될 거 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정국

실질적으로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현대 아파트 부분이 좀 저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나 현대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과 대표하고 좀 저희들이 사전에 만났습니다. 어쩔 수 밖에 없는 이 교통 불편에 대한 그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한의 어떤 공사를 하면서 현장의 안내 유도 요원들도 배치를 하겠지만 주민들에 대한 불편에 대한 부분들은 좀 사전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공사를 빨리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민 의원

지금 12월 정도에 끝난다고 해도 아직도 한 10개월 정도 됐잖아요. 이제 꽤나 긴 시간인데 이제 그쪽에 또 뭐죠? 안전지대에다가 또 차를 또 주차해 놓으신 분들도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나다니고 길을 건너려고 하고 또 이제 그 횡단보도 신호등이 아래쪽에 있다 보니까 진아리채 쪽에서 무단횡단을 또 하는 경우가 또 많이 있거든요.

거리는 짧지만 그래서 차 사이에 걸어 다니다 보면 사고의 위험률도 좀 많고 그러니 그쪽에 이제 안전지대라든지 커브 쪽에 이렇게 차 세워진 세차장 뒤편으로 이렇게 차가 세워진 그러면 아랫길에서 들어오는 사람이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 세워진 차들이라든지 좀 차를 세워 놓지 않게 해주시고 필요한 부분에 반사경이라든지 아니면 그 노란색 점멸등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점멸등이라든지 그러면 운전자들이 이제 오면서 주의를 일단은 하게 되니까 그러한 준비들도 좀 같이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제교통과장 이정국

그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민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양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참조)

· 2025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의장 김양훈

문화예술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4시 51분 회의중지)

(15시 10분 회의계속)

다음은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

○체육진흥과장 최광윤

(참조)

· 2025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의장 김양훈

체육진흥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축산과

○농업축산과장 직무대리 이욱

(참조)

· 2025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의장 김양훈

농업축산과장 직무대리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산회)

○출석의원(9인)

김양훈 박성규 지민
박재선 박병수 조인호
최정욱 허궁희 조영식

○출석공무원

군수	신우철
부군수	이범우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세무회계과장	김희수
민원봉사과장	우홍래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경제교통과장	이정국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체육진흥과장	최광윤
농업축산과장	박창희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수산경영과장	김 일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건설과장	김진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보건의료원장	한광일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수호

○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최정환

의사운영팀장 서을식

속 기 사 정현중

제326회 완도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2월 7일(금)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25년 군정주요업무 보고 및 청취의 건(계속)
2.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5년 군정주요업무 보고 및 청취의 건(계속)
   - ㅇ 농업기술센터
   - ㅇ 해양정책과
   - ㅇ 수산경영과
   - ㅇ 산림휴양과
   - ㅇ 환경수질관리과
   - ㅇ 지역개발과
   - ㅇ 안전총괄과
   - ㅇ 보건행정과
   - ㅇ 건강증진과
   - ㅇ 시설관리사업소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양훈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5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 및 청취의 건(의장 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 및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은 농업기술센터, 해양정책과, 수산경영과, 산림휴양과, 환경수질관리과, 지역개발과, 안전총괄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시설관리사업소 순으로 부서장의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참조)
· 2025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의장 김양훈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욱 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 듣다가 한 가지 설명 내용에 들어서 안 그래도 그 관심을 좀 갖고 있었는데 그 14페이지에 특화작목 육성 및 농산물 가공 활성화에 아까 전에 그 설명하면서 몇 가지 품목을 나열하면서 맥주까지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생각을 들었거든요. 그 어떤 내용이 좀 들어 있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이 내용도 군수님께서 지시사항 중에 한 가지인데요. 이제 저희들이 비파를 이용해서는 비파와인과 비파막걸리를 지금 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비파맥주나 이런 것들은 아직 개발이 안 된 상태여서 이 비파 맥주까지 개발하면 세 종류가 이렇게 개발이 되게 될 것이고, 두 가지는 비파와인하고 비파막걸리는 지금 호응도가 좋아서 점점 소비량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유자는 청유자나 아니면 유자 이파리를 이용을 해서 주스나 이렇게 음료로 이렇게 같이 개발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따로 서면으로 해서 우리 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욱 의원

요즘에 전국적으로 수제맥주가 많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 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예.

○최정욱 의원

우리 인근만 해도 지금 영암, 강진, 순천, 장흥 이런 쪽으로 지금 준비를 다 하고 있고 실제 순천이나 영암은 이미 사업 받아서 하고 있고, 강진도 지금 발표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이게 이제 이런 것이 우리 대중성이 거든요, 이런 제품들을. 그래서 저 우리 지금 수제맥주가 일부 OEM을 줘서 가져와서 일부 완도에서 하고 있어요. 이제 그걸 해서 한 번쯤 하려면 우리 지역 특산품을 이용한 수제맥주가 필요하지 않겠냐 해서 지금 완도 유자 1차적으로 했는데 호응이 좀 좋은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마침 이런 거 있어서 저도 그쪽에 한번 체험하러 한번 가본 적도 있고, 지금 관심 갖고 보고는 있습니다만 마침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셔서 했으니까 이런 거는 관심 있게 갖고 지금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 또 많이 인터넷 검색 해봤을 때 젊은 청년들이 이걸 개발해서 같이 해가지고 많이 성공사례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지역별로. 이런 걸로 인해서 지역과 또 그걸로 인해서 관광객들 체험 와서 또 즐기고 먹고 가는 이런 우리 이게 또 가능하고 여러 가지 지금 이게 뜨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이 더 깊이 관심을 갖고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예. 관광과 연계한 그런 상품들을 집중적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최정욱 의원

그리고 OEM 방식보다는 직접 제작하는 그런 수제맥주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욱 의원

꼭 꼭 그렇게 가야 됩니다. 우리 지역에서 직접 해야만이 명분도 있고, 설득력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갖고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양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정책과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참조)
· 2025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의장 김양훈

해양정책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해양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1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0분 회의계속)

○의장 김양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산경영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경영과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참조)
· 2025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의장 김양훈

수산경영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규 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 양식어장정비를 통한 효율적인 어장 관리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심사평가제가 2020년도에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돼서 지금 5년째 되고 있죠?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그렇습니다.

○박성규 의원

지금 유예 기간을 걸쳐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죠?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올해부터 시행합니다.

○박성규 의원

이렇게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다 보니까 우리 어민들이 이 제도에 대해서 잘 알지 궁금하거든요. 그동안 교육을 했다든지 홍보나 했다든지 그런 결과가 있으면 조금 말씀해 주시

기 바랍니다.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지금 양식산업발전법이 2020년에 제정을 해가지고요. 지금 법에는 지금 이제 심사평가제가 있었는데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이제 좀 제정이 늦어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2024년도에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양식 면허 심사 평가에 대한 절차 규칙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작년에 24년 8월달에 강진에서 지금 1차 현장 설명회를 개최를 했었고요. 지금 우리군에서도 지금 어촌계에 공문시달을 통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금 2월이나 3월 중에 지금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어업인 교육이 지금 계획 중에 있고 우리군에서도 지금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순회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박성규 의원

5년 동안 유효기간을 줬기 때문에 그 전에 홍보가 많이 됐어야 됩니다. 우리 어촌계장들은 잘 알겠지만 일반 어민들은 잘 모릅니다. 그렇죠?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그렇습니다.

○박성규 의원

평가 대상이 지금 150곳입니다. 지금 현재네 그럼 면회 만료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지금 저희들이 이제 평가 대상이 150건인데 어장 환경평가가 102건이고, 심사평가가 48건입니다. 지금 평가 대상 어업권 같은 경우는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기간에 면허의 유효기간이 종료되는 면허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죠?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그렇습니다.

○박성규 의원

그럼 만약 평가에서 부적합 통보를 받은 면허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재를 하나요?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지금 심사평가 대상은 지금 이제 어장환경평가하고 관리실태 분야에 대한 평가가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어장환경평가 같은 경우는 어장환경 개선조치를 통해서 이제 구제가 가능한데 지금 관리 실태 분야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점수제로 나눠져 있거든요. 점수가 있거든요. 감점 요인이 있다 보니까 이것은 어업인들이 어장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불법어업이나 이런 부분으로 적발이 됐을 경우에는 지금 감점 요인이 있어서 하여튼 이런 부분은 주의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성규 의원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했지만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평가를 하죠?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그렇습니다.

○박성규 의원

그러면 이제 실제 면허는 있는데 면허지를 탈 이탈해서 어장 재배치가 안 된 어장은 어떻게 평가를 받습니까, 그러면?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지금 이제 면허지가 이탈된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이 그 행정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으면 이제 관리실태 평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감점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높은 배점을 받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적발이 되다 보면 그 부분은 이게 서류가 남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은 어업인들이 어장 정비를 통해서 이탈이 안 되도록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박성규 의원

그리고 예를 들어 어장환경평가가 등급이 3등급일 경우는 어장 청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그렇습니다.

○박성규 의원

그리고 또 양식 시설량을 10% 줄이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3등급이 나왔을 때.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3등급이 나왔을 경우에는 이제 환경평가가 3등급일 경우에는 이제 개선조치를 통해서 이제 가능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6월까지 아마 이제 심사평가가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이제 만약에 3, 4등급이 나왔을 경우에는 개선 조치를 하면 어장 청소라든가 어장 내 시설물 위치를 이동한다든가 또 폐기물을 수거한다든가 그런 조치를 하면 개선조치를 하고 나서 다시 국립수산과학원에 제출을 하게 되면 아마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성규 의원

그러니까 4등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그렇습니다.

○박성규 의원

이 바닥을 가르거나 폐기물을 수거하거나 또 그게 지적이 되면 3개월간 어장 휴장을 해야 돼 양식 시설도 70%를 또 줄이는 조치가 내려진다고 합니다.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그렇습니다.

○박성규 의원

이런 부분들을 우리 어민들한테 잘 좀 홍보를 해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알겠습니다.

○박성규 의원

처음 시행되는 제도다 보니 분명히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홍보 계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읍면 순회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어촌계 돌아다니면서 읍면 돌아다니면서 홍보하고 지도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규 의원

면허지가 만료된 어장지가 많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일이 없도록 꼼꼼히 좀 챙겨주시고요. 우리 김 면허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김을 작년도부터 재작년 때부터 물김 값이 비싸서 검은 반도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물김 마른김감은 서울에서는 한 장당 150원씩 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금값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 물김이 좀 많이 생산돼서 지금 물김을 버리는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 가슴 아픈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해양수산부에서 그동안 면허를, 신규 면회를 안 내줬어요, 한 번도.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그렇습니다.

○박성규 의원

그런데 작년에 신규 면회를 내줬어요.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이제 신규 면허.....

○박성규 의원

어쨌든 신규 면허라고 보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완도에 163건에 1만 3,150ha가 면허지예요. 그런데 작년에 신규 면허가 1,988ha입니다. 2,000ha가 신규 면허가 났어요.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신규 면허가 2,000ha가 난 것은 아니고요. 신규 면허가 신규 면허는 한 245ha가 났고 이제 그 연구.....

○박성규 의원

시험장 양식하는 데 다 포함해서.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예. 그렇습니다.

○박성규 의원

어차피 여기다 어민들이 시설을 했기 때문에 신규로 봐야죠. 이거는 어차피 다 시설을 했기 때문에 1ha에 몇 줄씩 건조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지금 보통 이제 외해 같은 경우는 뭐 한 다섯 줄, 물이나 다섯 줄, 네 줄 다섯 줄 정도로 지금 시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규 의원

평균 한 일곱 여덟 줄을 하죠, 1ha에.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이제 이 규격상으로는 18책이면 이제 보통 9줄까지 시설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제 외해 같은 경우 수심이 좀 깊은 것 같은 경우는 한 다섯 줄 정도로 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규 의원

그래서 2,000ha면 8줄 계산하면 1만 6,000줄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양식 면허지는 늘어나고 시설량도 늘어났는데 김 공장은 늘어난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 김이 물김 값이 폭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근데 김 공장은 하나도 신설이 안 되고 있는데 면에만 내줘 갖고 한 2만 1,600줄 정도를 더 시설하게 해놓고 또 불법 면허는 얼마나 됩니까? 불법 면허는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불법면허는 면적을 말씀하시는.....

○박성규 의원

이거 보니까 불법 면허도 보니까 군외 사후도가 150ha, 신지 동고 해역이 760ha, 신지 동촌 해역이 360ha, 금일 해역에 1,700ha가 불법으로 하고 있어요. 소안면 해역에 1,800ha, 노화읍 서리 해역에 500ha, 그럼 불법 면허에다가 신규 면허에다 다 포함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면허지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물김 값이 폭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조치를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일단은 이제 외해에 이렇게 대규모로 지금 시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중점적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전라남도하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전라남도하고 저희 군하고 지금 완도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는 금일도 지역에 지금 어업지도선을 상시 정박을 해 놓고 지금 단속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튼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시설되기 전에 하여튼 그런 부분을 조금 파악을 해 가지고 하여튼 시설이 안 되게끔 시설하면은 사실 철거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시설 전에 그런 부분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규 의원

전복 양식 불법 면허지에서 이번에 단속을 강화했어요. 그런데 단속해서 걸린 사람들이 벌금을 얼마나 하는 줄 아십니까? 천만 원씩 나왔습니다. 천만 원씩 벌금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불법 면허에서 단속에 걸려서 천만 원씩 지금 부과를 받았어요.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시 한 번 김 활성화 처리대 연구 교수 200ha, 김해의 시험 양식 800ha라고 이거 좀 양식어업권 변경이죠?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변경 인가입니다.

○박성규 의원

이런 부분은 내년에 계속 김 양식을 하게끔 합니까, 그러면?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이 부분은 조금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금 이제 김 가격이 워낙 좋다 보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많이 또 수요를 원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점차 좀 저희들이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규 의원

신규 면허에 대해서는 좀 불법 면허, 신규 면허에 대해서는 신중한 고민이 좀 필요합니다.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박성규 의원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양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산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휴양과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참조)
· 2025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의장 김양훈

산림휴양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산림휴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장 이홍용

(참조)
· 2025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의장 김양훈

안전총괄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수질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수질관리과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참조)
· 2025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의장 김양훈

환경수질관리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환경수질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참조)
· 2025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의장 김양훈

지역개발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3시 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5시 05분 회의계속)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과장 정계창

(참조)
· 2025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의장 김양훈

보건행정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

○건강증진과장 김현주

(참조)
· 2025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의장 김양훈

건강증진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수호

(참조)
· 2025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의장 김양훈

시설관리사업소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군정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2.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정활동 자료수집을 위하여 2월 10일 하루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우리 지역에 내일까지 강풍을 동반한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집행부에서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

포합니다.

(15시 46분 산회)

○출석의원(9인)

김양훈　박성규　지민
박재선　박병수　조인호
최정욱　허궁희　조영식

○출석공무원

군수	신우철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세무회계과장	김희수
민원봉사과장	우홍래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경제교통과장	이정국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체육진흥과장	최광윤
농업축산과장	박창희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수산경영과장	김　일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건설과장	김진원
안전총괄과장	이홍용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보건의료원장	한광일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수호

○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최정환
의사운영팀장 서을식
속　　기　사　정현중

제326회 완도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4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2월 11일(화)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완도군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
2. 완도군청 및 읍면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완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2025년 완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5. 완도군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6. 완도군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완도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8. 완도군 안전보안관 및 해상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9. 생일면 119지역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부의된 안건

1. 완도군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2. 완도군청 및 읍면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3. 완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4. 2025년 완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완도군수 제출)
5. 완도군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지민 의원)
6. 완도군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영식 의원)
7. 완도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8. 완도군 안전보안관 및 해상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9. 생일면 119지역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완도군수 제출)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양훈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완도군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상정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1. 완도군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2. 완도군청 및 읍면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3. 완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4. 2025년 완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완도군수 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완도군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완도군청 및 읍면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완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완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자치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해 주시고 행정자치위원회 박재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박재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박재선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351호 완도군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351호 완도군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 고령화, 인구 유출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자녀 양육 가구의 실질적인 요구를 반영한 지원책으로 출산기본수당을 지원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아동의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군수의 책무,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방법, 성과평가, 운영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52호 완도군청 및 읍면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변경사항과 읍면사무소 도로명 주소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53호 완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규정에 따라 다양한 행정수요와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부서간 분장사무 및 소관 사무를 규칙으로 위임하고자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59호 2025년 완도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취득·처분을 위하여 2025년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집행부에서 제출된 공유재산 계획 변경안의 주된 내용으로는 생일면사무소 공용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외국인 문화쉼터 조성에 따른 건물 신축, 국립해양수산박물관 인근부지 확보를 위한 토지교환, 다도해일출공원 확대조성사업에 따른 부지매입, 편백숲 산림공원 진입로 부지매입으로 토지 8필지 2만

4,741제곱미터, 7억 100만원, 건물 1동 18억 5,300만 원의 재산을 취득하고 토지 2필지 2,314제곱미터, 3억 1,700만 원의 재산을 처분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계획 변경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 과정을 거쳐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양훈

다음은 질의 및 토론 할 순서입니다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박재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한 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완도군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도군청 및 읍면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완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 완도군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지민 의원 발의)
2. 완도군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영식 의원 발의)
3. 완도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4. 완도군 안전보안관 및 해상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5. 생일면 119지역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도군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완도군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완도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완도군 안전보안관 및 해상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생일면 119지역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해 주시고 산업건설위원회 박병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병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병수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354호 완도군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354호 완도군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완도군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 자원재활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사회를 정착시키고자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군수

및 군민의 책무, 교육 및 홍보, 장려금, 보상금 등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55호 완도군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음주운전으로 초래되는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줄이고자 음주운전 예방활동과 음주운전 사고 시 피해를 회복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군수 등의 책무, 음주운전 예방계획 및 예방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56호 완도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상권의 활력 증진을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골목형 상점가 지정 절차, 기준, 신청, 취소,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나 조례안 제2조제3항 '완도사랑상품권'의 근거 조례를 명확히 규정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가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함에 있어 문구를 일부 정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57호 완도군 안전보안관 및 해상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완도군 안전문화 및 해상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주민 중심으로 활성화하여, 지역사회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전보안관과 해상안전보안관 위촉 및 활동 대표단 구성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나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안 제6조와 제7조의 문구를 일부 정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60호 생일면 119지역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생일면 119지역대 청사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및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해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응급의료가 취약한 생일면 도서지역에 119청사를 신축하여 신속한 소방서비스 제공하고, 군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 과정을 거쳐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양훈

다음은 질의 및 토론 할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박병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한 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완도군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도군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도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완도군 안전보안관 및

해상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생일면 119지역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7일간의 회기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를 통해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397건을 청취하고, 9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군정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사항은 해당 의원님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한 안건에 대해「완도군의회 회의규칙」제26조에 따라 경미한 자구나 오류의 정정은 제가 위임받아 처리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6회 완도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산회)

○출석의원(9인)

김양훈 박성규 지민
박재선 박병수 조인호
최정욱 허궁희 조영식

○출석공무원

군수	신우철
부군수	이범우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세무회계과장	김희수
민원봉사과장	우홍래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경제교통과장	이정국
관광과장	오현철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체육진흥과장	최광윤
농업축산과장	박창희
수산경영과장	김 일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건설과장	김진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보건의료원장	한광일
시설관리사업소장	전호용

○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최정환
의사운영팀장 서을식
속 기 사 정현중

제326회 완도군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2월 5일(수)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완도군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
2. 완도군청 및 읍면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3. 완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4. 완도군 중기기본인력 운영 계획 보고 건
5. 2025년 완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부의된 안건

1. 완도군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2. 완도군청 및 읍면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3. 완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4. 완도군 중기기본인력 운영 계획 보고 건(완도군수 제출)
5. 2025년 완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완도군수 제출)

(13시 30분 개의)

○위원장 박재선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완도군 출생 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1. 완도군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먼저 의안번호 제3351호 완도군 출생 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351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인구일자리정책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입니다. 의안번호 제3351호 완도군 출생 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출생 기본수당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여 전남에 출생 신고를 하고, 완도군에 주소를 둔 아동에게 1세부터 18세까지 매월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며, 출생 시점부터 양육비 등 지출이 절실한 학령기까지 수당을 지원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와 제4조에서는 출생 기본수당의 정의 지급 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 출생 수당은 매월 25일 출생 아동 또는 보호자에게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라남도에서도 매월 10만 원의 출생 수당을 별도로 지원할 계획이므로 1인당 매월 20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또한 안 제6조와 안 제7조는 지급 신청 및 결정, 지급 중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조에서는 성과 평가 제9조, 제15조에서는 완도군 출생 기본수당 지급 운용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민

의안번호 제3351호 완도군 출생 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 자녀 양육의 실질적인 요구를 반영한 지원책이며, 완도군 출생 기본수당을 지급하여 출산율을 장려하고 아동의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정인호 인구일자리정책실장의 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으나 기본 출생 기본수당은 장기적으로 매년 30억 원 이상의 군비가 수반되어 군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출생 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욱 의원님.

○최정욱 위원

실장님 2024년은 작년부터 출생 아동에서부터 시작한 거죠?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그렇습니다.

○최정욱 위원

그전에 낳은 사람들 억울하겠는데요.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이거는 이제 전라남도에서 시책 사업으로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한 것이기 때문에요. 전라남도에서 반절 부담하고, 시군에서 반절 부담해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시작 시점이 있다 보니 이거는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최정욱 위원

그럼 1인당 20만 원이 되겠네요.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그렇습니다. 매월 20만 원씩 18세까지 지급합니다.

○최정욱 위원
위원회 구성은 왜 한가요? 예를 들자면 이거는 딱 작년부터 난 출생아 기준으로 해서 지급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위원회에서 따로 결정하고 하는 게 있는가요?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혹시 신청자 중에서 혹시 그런 애매모호한 사항이 있다든지 이게 지급이라든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최정욱 위원
예를 들자면 객지에서 들어왔거나 그런 것 때문에 그런가요?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예. 그렇습니다.
○최정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선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지민 의원님.
○지민 위원
이게 좀 전에 2024년도 1월 1일 이후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이제 딱 첫 돌이 만 1세 되는 날부터 지급은 되는 거죠?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그렇습니다. 지금 출생 후 11개월부터 최초 1회가 지급이 됩니다.
○지민 위원
여기 이제 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 그리고 이제 그다음 번 지급 대상에서 만 출생 아동이 1세가 되는 날부터 이렇게 지급이 된다라고 돼 있어서 이게 홍보라든지 신청서를 받을 때 만 1세라는 거를 꼭 표시를 한번 해 주면 어떨까 딱 기본적으로 24년도 1월 1일부터 이제 태어난 아동에게는 다 이제 적용이 된다라고도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홍보를 할 때 더 세밀하게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민 위원
그리고 여기 이제 예산의 범위에서 10만 원의 한도는 이제 도에서 지원을 해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금액이 쓰여진 거죠?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그렇습니다. 도비에서 10만 원, 군비에서 10만 원 해서 매월 20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선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인구일자리정책실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 안건에 대해 축조 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 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의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축조 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351호 완도군 출생 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의의 없습니까?
의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

2. 완도군청 및 읍면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3. 완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4. 완도군 중기기본인력 운영 계획 보고 건(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안번호 제3352호 완도군청 및 읍면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3353호 완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3358호 완도군 중기기본인력 운영 계획 보고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352호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행정지원과 천종실입니다. 의안번호 제3352호 완도군청 및 읍면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개정사항과 도로명 주소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 목적에서 지방자치법 제6조를 9조로 변경하고, 별표에서 신지면사무소, 청산면사무소, 소안면사무소, 보길면사무소의 도로명 주소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지번주소와 위치는 변동사항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완도군청 및 읍면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민

의안번호 3352호 완도군청 및 읍면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변경 사항과 읍면사무소 도로명 주소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일부 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천종실 행정지원과 등 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청 및 읍면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선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의원님.

○박병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개정안에 보면, 읍면사무소 소재지 개정안에 보면 지금 몇 군데 읍면이 지금 안 되는 데가 있어요. 마을길, 원동길, 청산길 그렇게 된 데는 됐는데 완도읍도 이제 개포로 길로 한다든가 그렇게 이제 하든가 그쪽에 길로 나올 거예요. 금일로도 무엇입니까? 소재지 길 그렇게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군내면도 지금 보면 원동 1길, 2길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청해진서로로 이렇게 나오니까 이것을 잘 찾기가 어려워요. 소재지에 그 마을길이 있지 않습니까?

원동 군외면사무소가 원동1길에 위치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청해진서로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조사를 해서 일제 개정을 시키든가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고금면사무소는 이제 뭐 도남길 이거 맞은 것 같고, 약산로도 마찬가지고, 지금 금당로, 읍면로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서 개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이 부분은 담당자한테 보고를 한번..... 이게 지금 주소명도로가 현재 도로명주소가 맞는 것인지 지금 거 맞는다고? 이게 전체적인 도로명주소가 맞다고? 민원봉사과에서 지금 도

로명주소가 맞는 걸로 지금.....

○박병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맞는데 찾기 쉽고 부르기 쉽게 하는 것이 지금 많이 개정을 했었습니까? 옛날에는 면 지역 단위로 해서 크게 큰 틀에서 로로 해갖고 번지를 줬는데 지금 그 후로 마을 단위 길로 해서 몇 번 길, 몇 번 길 무슨 길 했잖아요. 초평길, 원동길 대문길 그전에 동부, 서부로 나눠서 청해진동로 청해진서로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찾기가 엄청 어려웠어요. 그랬던 것을 마을길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딱 정리가 됐는데 군외면사무소는 청해진서로 해 버리까 어딘지를 몰라요, 이것은.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전체적으로 한번 좀 점검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선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354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행정지원과장은 계속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계속해서 의원번호 제3353호 완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서 조례 체계를 간결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사무 분장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1장은 총칙을, 제2장은 본청, 제3장은 직속기관, 제4장은 사업소, 제5장 및 제6장은 읍면과 사업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실 담당과의 분장 사무를 대강이 정해져 있습니다. 분장 사무는 규칙의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개정안에서는 삭제를 하고 전반적으로 조례 문구와 별표의 도로명 주소 변경 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완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민

의안번호 3353호 완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규정에 따라 다양한 행정 수요와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부서 간 분장 사무 및 소관 사무를 규칙으로 위임하고자 전부 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천종실 행정지원과장의 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358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행정지원과장은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의안번호 제3358호 완도군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중기지방 재정계획과 연계해서 5년간의 인력

계획을 작성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원 관리 기관별 직종, 직급별 인력 운영 계획,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 인력 증감에 따른 인건비 편성 현황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력 운영 전망입니다. 우리 군의 인구는 외국인을 포함하여 5만원을 유지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의 복잡 다양화와 개인별 맞춤 행정 서비스 제공 요구 등으로 인해서 신규 행정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행정 수요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에서는 5년간 기존 인력을 동결하였습니다. 기존 인건비 내에서 기능 세태 및 행정 수요 감소 분야의 인력을 신규 행정수요에 재배치하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지역 실정을 반영한 조직 개편을 통해 조직의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으로 우리 군은 5만 명 이상 타 지자체 평균에 비해서 부서 및 팀 숫자가 적은 편입니다.

다음 정원 관리 기관별 직종, 직급별 인력 운용 계획입니다.

2026년 12월까지 10명을 전라남도에 별도 정원 승인 신청해서 2028년 완도국제해조류 박람회에 인력을 직무 파견하고자 합니다.

인력 구성과 파견 인원은 행사 주체인 전라남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결혼이 없는 조직 운영을 목표로 국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 및 기존 인건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선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의원님.

○박병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10명을 정원 증원을 한다는 얘기죠, 10명을?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예, 예. 별도 정원으로 해서요.

○박병수 위원

지금 앞으로 그러면 이제 해양치유담당관실이 지금 어쨌든 그대로 인력 운영이 된가요?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이제 그 부분은 조직 개편을 통해서 지금 아직은 구체적으로 조직을 없애겠다는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러면 지금 치유공단이 또 별도로 설립이 돼 가지고 거기에 인력이 운영이 되고 인건비가 지금 지급이 되고 있고 해양치유담당관에서 그러면 역할은 뭐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그 부분은 공단이 안정이 되고 그랬을 때 저희들도 장래에는 해양치유담당관은 조직 개편을 통해서 정리가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 부분은 조직이 안정화될 때까지는 존치가 돼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시기는 언제까지라고 저희도 이제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박병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인력을 증원을 한다고 했을 때는 그런 부분을 잘 고려를 해서 앞으로의 예측 수요 가능한 그런 인력 증원이라든가 감축이 돼야지 그런 것 없이 그걸 그대로 놔두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그런 막연한 답변은 좀 안 맞은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그런 해양치유담당관 같은 경우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었는데요. 새로운 행정 수요가 발생했을 때 그쪽으로 인력을 조정하고 행정 수요가..... 행정 수요가 떨어진 그런 부분은 다시

재배치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이제 인구도 감소하고, 행정 수요 환경이 많이 변하고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리고 이제 행정 환경이 변화하면서 그 뭡니까? 오래된 업무들 그런 업무들을 좀 정리를 하면은 거기에 따른 인력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그런 게 좀 조정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도 조직 개편이라든가 조직 진단을 할 때는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고려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행정 수요가 줄어드는 그런 부분은 통폐합시키고 새로운 행정 수요가 있는 데는 증가시켜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선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선

행정지원과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축조 심사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 심사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의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의의가 없으므로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한 축조 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352호 완도군청 및 읍면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의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53호 완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의의 없습니까? 의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58호 완도군 중기 기본 인력 운영 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서는 의결 대상이 아니므로 보고를 종료하겠습니다.

---

5. 2025년 완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안번호 제3359호 2025년 완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359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희수

세무회계과장 김희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359호 2025년 완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25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총괄 내역입니다.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반영할 안건들의 취득 내역으로는 기존 현황 대비 토지가 8필지의 면적 2만 4,741제곱미터, 7억 100만 원과 건물 1동에 481제곱미터 18억 5,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 처분으로는 토지 2필지에 면적 2,314제곱미터 3억 1,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장 세부 내용입니다. 이번 공지사항 관리 계획안에 반영할 안건은 생일면사무소 공영주차

장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 등 총 5건으로 토지 취득 8필지, 건물 취득 1동, 토지 처분 2필지입니다. 사업별 세부 설명은 해당 부서장이 나와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완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관별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희수

이어서 안건번호 제1호 생일면사무소 공용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해 12월 읍면장 연석회의 시 생일면에서 건의한 사항으로 면사무소를 내방하는 민원인들의 편의와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생일면사무소와 인접한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해당 토지는 생일면 유서리 352번지 외 1필지로 면적은 3,141제곱미터, 부지 매입에 따른 소요 예산은 8,019만 6천 원입니다. 다음장 현황 도면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선

세무회계과장님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회계과장과 관계 공무원께서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구일자리정책실장 나오셔서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입니다. 다음은 제2호 외국인 문화 쉼터 조성에 따른 건물 신축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 가정 등 외국 출신 거주민을 위한 문화 쉼터 조성으로 체류 외국인의 안정적 정착과 적응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노화읍 도청리 881-30번지에 18억 5,200만 원을 투입하여 다목적실, 교육실, 공유주방, 운동실 등의 외국인 문화 쉼터를 금년 6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외국인 문화 쉼터 조성이 완료되면 관내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황 도면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외국인 문화 쉼터 조성에 따른 건물 신축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선

인구일자리정책실장에 대해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일자리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구일자리정책실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재선

이어서 해양정책과장 나오셔서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해양정책과장 김현란입니다. 국립해양수산박물관 인근 부지 확보를 위한 토지 교환입니다. 우리군 10대 핵심 과제 중 하나인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 관련 인근 부지 확보를 위해서 군유지와 사유지를 교환하고자 합니다. 교환 취득 대상지는 완도읍 죽청리 42-2번지의 1,653제곱미터입니다. 교환 처분 대상지는 완도읍 죽청리 942번지 943-3번지이며, 2,314.1제곱미터입니다. 상호 교환 시 교환 차액 2,940만 9천 원을 사유지 소유주가 완도군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현황 도면 및 세부 내역은 다음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양정책과 소관 공유재산 관

리계획 변경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선

해양정책과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정책과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산림휴양과장 나오셔서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산림휴양과장 박은재입니다. 산림휴양과 소관 완도군 공유재산 심의 안건은 완도의 다도해 일출공원 확대 조성 사업에 따른 부지 매입 등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호 완도 다도해 일출공원 확대 조성 사업에 따른 부지 매입 건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 주민과 관광객을 위한 체험과 휴식 등 다양한 테마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군유지가 협소하여 개발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 지속적인 매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매입 대상은 완도읍 군내리 산 1232번지 등 4필지이며 유지가 군유지와 연접하여 활용 가치가 높은 부지로 향후 산책로, 경관숲 등 공원 확대 조성 사업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예상 감정 영역은 2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호.....

○위원장 박재선

한 건씩.....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다음은 의안번호 제5호 편백숲 산림공원 확대 조성 사업에 따른 부지 매입입니다.

편백숲 산림공원은 편백나무 숲을 중심으로 산책로와 휴식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군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로 매입 대상지는 현재 소가용리 방향 진입로로 이용 중에 있을 뿐만 아니라 공원과 주택 단지 사이에 사생활 보호를 위해 차폐 공간 부지 매입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취득 대상은 완도읍 가용리 292-6번지 토지 1필지로 감정평가액은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선

산림휴양과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휴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휴양과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 심사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 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의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축조 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359호 2025년 완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8분 산회)

○출석위원(8인)

박재선　박성규　지　민
박병수　조인호　최정욱
허궁희　조영식

○출석공무원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세무회계과장	김희수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 **전문위원** : 박영민

○ **속 기 사** : 정현중

제326회 완도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2월 5일(수)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완도군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2. 완도군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완도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4. 완도군 안전보안관 및 해상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5. 생일면 119지역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부의된 안건

1. 완도군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지민 의원 발의)
2. 완도군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영식 의원 발의)
3. 완도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4. 완도군 안전보안관 및 해상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5. 생일면 119지역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완도군수 제출)

(13시 59분 개의)

○위원장 박병수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안번호 제3354호 완도군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이 되겠습니다.

1. 완도군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지민 의원 발의)

먼저 의안번호 제3354호 완도군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354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지민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 위원

지민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354호 완도군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환경 오염을 사전에 차단하고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 가능한 자원 순환형 사회를 정착시키고 환경 보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와 안 제3조에서 군수 및 군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자원 재활용 집행 계획 수립 및 시행을,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교육 및 홍보와 장려금, 보상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미

의안번호 제3354호 완도군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도군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여 지속 가능한 자원 순환형 사회를 정착시키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지민 위원님의 제안 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 주축에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지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 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 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유 없습니까?
이유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적조 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354호 완도군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 위원 여러분 이유 없습니까?
이유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완도군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영식 의원 발의)

다음은 의안번호 제3355호 완도군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355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조영식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 위원

조영식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 3355호 완도군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완도 군민의 안전 확보와 생명 보호를 위해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예방의 필요성을 알리고, 음주운전으로 초래되는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 군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음주운전 예방 계획 및 예방 활동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미

의안번호 제3355호 완도군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음주 운전으로 초래되는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음주운전 예방 활동과 음주운전 사고 시 피해를 회복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영식 위원님의 제안 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음주 운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조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 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 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유 없습니까?
이유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축적 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355호 완도군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유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완도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안번호 제3356호 완도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 보도 제3356호의 서류를 검토해 주시고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정국

경제교통과장 이정국입니다. 의안번호 제3356호 경제교통과에서 제출한 완도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기준을 지자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함에 따라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여 관내 골목 상권 내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확대하고 추후 국도비 공모 사업 지원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은 2,000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0개 이상 밀집하고 있는 지역 내에 하나의 상인회를 조직해야 하며, 골목형 상점가 신청, 지정 취소,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은 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미

의안번호 제3356호 완도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상권의 활력 증진을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이정국 경제교통과장의 제안 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은 없으나 조례안 제2조 제3항에 완도사랑상품권의 근거 조례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고, 조례안 제2조 제5항과 관련하여 지난해 법제처에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함에 있어 관련 부처의 보고 등이 아닌 통보하도록 함에 따라 배부해 드린 검토의견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민 위원

과장님 혹시 여기 골목형상점가하고 일반상점가하고 차이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정국

일반상점가는 일반이고,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을 밀집지역에 한 10개 이상이면 국도비라든가 이런 공모사업을 가져갈 가지고 지원할 수 있고요. 또한 온누리 상품권을 이 대상자들한테 가맹점에게 지급 가능할수록, 판매 소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민 위원

온누리상품권은 이제 시장에서만 사용을 할 수 있는데 골목형상점가에서는 사용을 같이 사용을 할 수.....

○경제교통과장 이정국

아니요. 시장도 우리가 지금 10개 이내의 어떤 지정이 돼야만 온누리상품권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조례안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완도군이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이 활성화가 좀 덜 됐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을 제정한 겁니다.

○지민 위원

그리고요. 그러면 이제 그러한 혜택이 조금 약간 다르니까 지정이 되는 곳하고 안 되는 곳하고 차이가 좀 있잖아요. 근데 여기 2조 1항에 보니까 완도군수는 직권으로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골목형상점을 지정을 할 때 이게 무조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거든요. 이렇게 직권으로 한다라고 하면.....

○경제교통과장 이정국

이제 직권도 이 조례안에 있습니다마는 이 골목회, 상인회가 구성이 돼야 됩니다. 저희가 직권으로 한 게 아니라 여기 조례안에도 있지만 상인회가 구성이 되면 저희가 그거를 지정할 수 있도록 좀 많이 활성화하겠습니다.

○지민 위원

그래서 이제 이게 직권으로라는 말이 조금 그래서 한번 이제 여쭤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 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유 없습니까? 이유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축조 심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356호 완도군 골

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검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유 없습니까? 이유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완도군 안전보안관 및 해상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5. 생일면 119지역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안번호 제3357호 완도군 안전보안관 및 해상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제 3360호 생일면 119지역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357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홍용

안전총괄과장 이홍용입니다. 의안번호 제3357호 완도군 안전보안관 및 해상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 제3항에 따라 관내 안전 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군민의 안전 의식을 제고하고 안전문화 운동을 진행시키기 위해 안전보안관 및 해상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에 대한 주민 의식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보안관 및 해상 안전보안관이란 안전 문화 활동을 실천하고 해상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완도군수가 위촉하며, 주요 활동으로는 지역 주민의 안전 의식과 지역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수행하게 됩니다. 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으며, 대표단을 대표와 부대표 각 10명씩을 포함한 30명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운영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미

의안번호 제3357호 완도군 안전보안관 및 해상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도군 안전 문화 및 해상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주민 중심으로 활성화하여 지역사회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이홍용 안전총괄과장의 제안설명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은 없으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배부해 드린 검토 의견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안전보안관 및 해상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은 의안번호 제3365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안전총괄과장은 계속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홍용

다음은 의안번호 제3360호 생일면 119지역대 청사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응급 의료가 취약한 생일도 도서지역에 신속한 소방 서비스를 제공을 위해 119지역대 청사를 신축하여 구급차 및 소방 인력을 배치하여 완도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예방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완도군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생일면 유서리 130번지 외 1필지를 무상대여하고 전라남도 완도소방서에서 사업비 17억 원으로 건축 면적 400제곱미터, 지상 2층 규모로 생일면 119 지역대 청사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심의 내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 11항에 의거하여 완도군 행정재산의 토지에 전라남도 완도소방서에서 영구시설물 축조에 따른 군의회 동의안입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에 의거하여 행정재산을 공공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으므로 생일면 119지역대 청사 신축과 관련하여 우리군 토지의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가 타당하고 사료되오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축조 심사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마는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 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유 없습니까?

이유가 없으므로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한 축조 심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357호 완도군 안전보안관 및 해상 안전 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검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유 없습니까?

이유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65호 생일면 119지역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유 없습니까?

이유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산회)

○출석위원(8인)

박병수　박성규　지　민
박재선　조인호　최정욱
허궁희　조영식

○출석공무원

경제교통과장　이정국
안전총괄과장　이홍용

○ 전문위원 : 최영미

○ 속 기 사 : 정현중

회 의 록 서 명

(제326회 임시회 회의록)

「지방자치법」 제84조제2항 및 「완도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서명함.

직 위	성 명	서 명	비 고
의 장	김 양 훈		
서명의원	박 재 선		
서명의원	박 병 수		
사무과장	최 영 미		

제327회 완도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27회 완도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개회식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2월 17일(월) 오전 10시 개식

장 소 본회의장

제327회 완도군의회(임시회) 개회식순

1. 개식
2. 국기에 대한 경례
3. 애국가 제창
4.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5. 폐식

(사회 : 의사운영팀장 서을식)

(10시00분 개식)

○의사운영팀장 서을식

안녕하십니까? 의사운영팀장 서을식입니다.

지금부터 제327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자리에 앉은 채로 예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이어서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반주에 맞춰 1절을 힘차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다음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이상으로 제327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0시02분 폐식)

제327회 완도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2월 17일(월)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327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제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6.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7. 완도군 민생회복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제327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완도군수 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지민 의원 외 7명)
5. 제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완도군수 제출)
6.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완도군수 제출)
7. 완도군 민생회복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양훈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3고(高) 현상’으로 얼어붙은 민생경제와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군민 여러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민생회복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긴급안건 처리

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최정환

사무과장 최정환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긴급 안건 처리를 사유로 완도군수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2025년 2월 12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 의안제출 현황입니다. 집행부에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양훈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1. 제327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27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25년 2월 17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순서에 따라 조인호 의원과 조영식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관련 서류를 검토해 주시고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지민 의원 외 7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관련 서류를 검토해 주시고 의회운영위원회 지민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지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정회한 후 1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1시 30분 회의계속)

○의장 김양훈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

5.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완도군수 제출)

6.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완도군수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관련 서류를 검토해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영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영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영식 의원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됨에 따라 제32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8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364호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6,306억 5,838만 8,000원이며, 일반회계가 6,038억 9천 519만 4,000원이고, 특별회계는 267억 6,319만 4,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91억 8,7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안은 증감액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3페이지부터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65호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우리 군에서 운용중인 기금은 7개 기금으로 2025년도 말 현재액은 359억 9,900만 7,000원 입니다. 기금 총 수입은 18억 905만 8,000원이고, 지출은 98억 580만원으로 2024년도 말 대비 총 79억 9,674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 6페이지부터 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기금의 건전성 확보와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지난 몇 년간 우리는 예상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경기 침체 등으로 지역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삶은 더욱 힘들어졌고, 생계부담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 군민을 대상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단순한 재정 지출이 아니라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지역 공동체를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하여 군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 과정을 거쳐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양훈

다음은 질의 및 토론 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영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한 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완도군 민생회복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도군 민생회복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해 주시고 산업건설위원회 박병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병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병수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368호 완도군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된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으로 생활비 부담이 커진 완도군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군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 지급대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 과정을 거쳐 심사한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양훈

다음은 질의 및 토론 할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박병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완도군 민생회복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에 긴급히 처리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으로 군민 여러분의 생활안정과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327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출석의원(9인)

김양훈	박성규	지민
박재선	박병수	조인호
최정욱	허궁희	조영식

○출석공무원

군수	신우철
부군수	이범우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세무회계과장	김희수
민원봉사과장	우홍래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경제교통과장	이정국
관광과장	오현철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체육진흥과장	최광윤
농업축산과장	박창희
수산경영과장	김 일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건설과장	김진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보건의료원장	한광일

시설관리사업소장 전호용

○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최정환

의사운영팀장 서을식

속 기 사 정현중

제327회 완도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2월 17일(월)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완도군수 제출)
2.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완도군수 제출)

(10시 15분 개의)

○위원장 조영식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를 개의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및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2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완도군수 제출)

먼저 의안번호 제3365호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괄 사항과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변경 계획에 대하여 기획예산실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기획예산실장 한희석입니다. 2025년도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은 2025년도 제1회 추경 민생회복지원금을 편성하고자 일반 회계로의 기금 전출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3쪽 총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는 기금별 세부 보고 내용과 같아 생략하고

11쪽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계획 변경에 대한 제안설명으로 대체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운용 총칙입니다.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재정 안정화 계정은 경기 변동에 따른 세입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여유 자금을 비축하고 활용하는 데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해 활용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기금 조성액 116억 8,928만 원과 금년도 수입 총액 2억 3천만 원을 합한 2025년 기금 수입 계획 금액은 119억 1,928만 원이며, 금번 1회 추경에 민생회복지원금으로 91억 8,720만 원을 활용하고 나면 2025년도 말 최종 조성액은 27억 3,20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자금 운영 계획입니다. 먼저 자금 수지 총괄입니다. 2025년도 수입 계획은 당초 계획 대비 변경 사항은 없겠습니다. 다음 지출 계획입니다. 재정안정화 기금의 당초 예치금 항목에서 민생 회복 지원금으로 활용될 재원은 일반 회계 전출금 항목으로 91억 8,720만 원을 변경하여 계상했으며, 이후 2025년도 재정안정화기금의 최종 예치금은 27억 3,208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8쪽 연도별 기금 조성과 집행 현황, 20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앞서 설명드린 총관 내용과 동일해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식

기획예산실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 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 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 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365호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안번호 제3364호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희수

(참조)
·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위원장 조영식

세무회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참조)
·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위원장 조영식

행정지원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 심사와 토론을 한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 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 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364호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27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산회)

○출석위원(8인)

조영식　박재선　박성규
지　민　박병수　조인호
최정욱　허궁희

○출석공무원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세무회계과장	김희수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 **전문위원** : 박영민
○ **전문위원** : 최영미
○ **속 기 사** : 정현중

제327회 완도군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2월 17일(월)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완도군 맨발 걷기 사업 운영 위탁 동의안

부의된 안건

1. 완도군 맨발 걷기 사업 운영 위탁 동의안(완도군수 제출)

(10시 25분 개의)

○위원장 박재선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은 안도군 맨발 걷기 사업 운영 위탁 동의안 1건이 되겠습니다.

---

1. 완도군 맨발 걷기 사업 운영 위탁 동의안(완도군수 제출)

그러면 의안번호 제3367호 완도군 맨발 걷기 사업 운영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367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현주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현주입니다. 의안번호 제3366호 완도군 맨발 걷기 사업 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맨발 걷기 어싱을 즐기는 지역 주민과 관광객의 증가 추세에 따라 어싱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해 군민이 쉽게 접근하고 건강 증진을 기여할 수 있도록 완도군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위탁 운영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민건강증진법, 지방자치법, 완도군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신지명사십리 해수욕장과 주변 황톳길 일원에서 추진하게 될 사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위탁 내용으로는 해양치유 자원과 연계해 지역사회 맨발 걷기 저변 확산과 맨발 걷기 붐을 조성하고 차별화된 아이디어 프로그램의 개발, 운영, 언론에 홍보함으로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뿐만 아니라 관광객 유치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장 저희 과 의견입니다.

맨발 걷기 천혜의 환경과 풍부한 치유 자원을 활용해 민간이 직접 스스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 추진함으로 사업에 홍보 효과와 참여율이 높아지고 군정 핵심 사업에 대한 관심과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맨발 걷기 운영의 활성화와 주민의 실질적 참여 제고를 위해 민간에 위탁해 추진하고자 하오니 동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맨발 걷기 사업 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선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호 위원님.

○조인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이것까지도 우리가 민간 위탁을 해야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현주

이제 저희 완도군 건강증진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 증진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지명사십리 같은 경우는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관광객을 참여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게 일자리로 연결되게 하며, 지역 핵심 사업을 부각시키고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들 하는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거 이외에 좀 더 확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조인호 위원

본 위원 생각은 건강증진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계속 했으면 더 효과가 더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이 위탁을 누구한테 준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현주

지금 위탁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공고에 의해서 신청하는 단체 신청하게 되면 심의위원회 선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지금 단체가 선정된 건 아닙니다.

○조인호 위원

짜고 치고 이런 건 없죠?

○건강증진과장 김현주

예, 예. 위탁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공고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조인호 위원

시중에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어오기에 본 위원이 지금 저한테 이제 이야기가 들어와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현주

아니, 어느 단체든지 희망하는 단체는 접수 가능합니다.

○조인호 위원

그 공고를 내가지고 다른 잡음이 안 나오게끔 잘 하세요.

○건강증진과장 김현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선

최정욱 위원님.

○최정욱 위원

과장님 이걸 직접 하는 게 어때요? 이런 거는.

○건강증진과장 김현주

직접 하기에는 저희가,

○최정욱 위원

훨씬 인지도가 있을 것 같은데.

○건강증진과장 김현주

저희가 조금 인력이 부족하고요. 저희 행정에서 참여를 하게 되면 지역 주민에 대한 한계가 있습니다. 대상자가 지역 주민일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그쪽에서 하는 이유는 그쪽에 해양치유산업을 활성화시키고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과간의 협력을 통해서 사업의 확장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최정욱 위원

그러니까 관광객들을 유치한다면서요?

○건강증진과장 김현주

그게 이제 저희 과에서 본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에 위탁을 하게 되면 민간은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사업을 추진하면서 외부에서 오시는 관광객이나 타 지역 사람들도 충분히 수용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민간에 위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페스티벌도 저희 지역 주민만 참여하는 행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뿐만 아니라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하는 차원들이 그런 목적성을 같이 겸하여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간에 위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민간이 스스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그것을 현장에서 실행하고 그런 역량을 키워주기 위한 목적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최정욱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박재선

조영식 위원님.

○조영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간 위탁이라는 것이 전문성 부족하거나 추진이 어려울 때 민간 위탁을 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현주

예. 그렇습니다.

○조영식 위원

그러면 민간 위탁하면 보통 3년에서 5년 이렇게 하는데 지금 작년에 약 3개월 추진하고 올해 9개월 하는데 내년에는 또 재위탁합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현주

올해 사업을 추진해서 이게 주민들이 충분히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맨발 걷기 부흥과 또 관광객 유치와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로 사업의 확장성을 나타내면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직 100% 하겠다라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조영식 위원

이게 본 과에서 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상정되기 전에 일단 공문으로 위탁 공고를 하셨죠?

○건강증진과장 김현주

예.

○조영식 위원

첫 번째 하고 재공고하셨죠?

○건강증진과장 김현주

예, 예. 그렇습니다.

○조영식 위원

혹시 1차에 권고했을 때 수탁 기관이 나타나지 않아서 그랬나요?

○건강증진과장 김현주

1개 단체가 저기 접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1개 가지고는 저희가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재공고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조영식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오늘까지 재공고 중이죠?

○건강증진과장 김현주

예.

○조영식 위원

2월 17일까지요?

○건강증진과장 김현주

예. 그렇습니다.

○조영식 위원

그런데 지금 의회의 동의도 받기 전에 1월 9일날 일반 공고를 내고요. 또 2차 공고를 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께서 알고 계셨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현주

제가 그 부분에 대한 행정 절차를 잘 파악을 해서 절차 이행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조영식 위원

그래놓고 지금 기획예산실에서는 저희 의회에게 선정인을 추천해 달라고 또 공문까지 발송을 했어요. 지금 현재 오늘까지 2차 공고를 하는 날인데 공고가 끝나기도 전에 저희들에게 의회 추천 심사위원회 추천해 달라고 공문까지 발송한 것에 대해서는 절차상 문제가 있는데 기획예산실장님이 계셨으면 좀 한마디 하려고 했더니 안 계시니까 뭐 김채호 우리 팀장님 한마디 해 보실랍니까?

○정책기획팀장 김채호

약간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조영식 위원

최근에 이제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의회는 모든 게 간담회도 사전에 거치고 해서 또 동의안 특히 올라올 때는 의회하고 상의해서 절차 문제를 정확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현주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조영식 위원

작년에 2천만 원이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현주

예.

○조영식 위원

작년에 좀 성과가 있어 어떻게 판단하고 성과 분석을 하고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현주

그래도 작년에 저희가 1호 치유길을 선포를 했습니다, 민간단체에서 진행을 하시면서. 그리고 또 가을섬 여행 기간 동안에 페스티벌을 진행하면서 지역 주민 참여뿐만 아니라 또 외부에서 맨발 걷기를 뭐야 선진적으로 하고 있는 곳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참여를 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작년에 우리가 대구교대 교수님이시고 맨발학교 교장님이신 권택환 교수님을 초청해서 강의를 하셨고 또 작년 하반기 동안에 걷기 지도자를 활용해서 또 그곳에서 걷기가 이루어졌고요. 또 하반기에는 챌린지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참가자를 접수하여서 자율적으로 걷기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또 그 언론이나 또 현수막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신지명 사십리에 걷기를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영식 위원

작년에 2천만 원 갖고 했는데 올해 사업비가 2,800만 원 증액해 가지고 4,850만 원 들었죠. 저 예산서를 지금 올렸죠?

○건강증진과장 김현주

예. 그렇습니다.

○조영식 위원

그럼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150% 정도가 증액이 됐거든요.

2,000에서 4,850만 원. 그럼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말씀해 주실랍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현주

작년에는 사업 기간이 짧았습니다. 작년 9월부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기간이 짧았고 올해는 1년에 1년 사업을 목표로 하고 있

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이 주로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경우에 사람 활동량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집중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다 보니까 사업비를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조영식 위원

그러면 이제 사업도 이렇게 증액 예산안이 증액이 되고 했으면 또 내실 있게 또 이렇게 짜임새 있게 예산서를 또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좀 놀란 점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4,854만 원 정도의 예산이 다 소모성 위주예요. 이걸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강증진과장 김현주

이제 저희가 민간에 위탁하다 보니까 민간에서 좀 더 자율적으로 좀 대상자들을 자율적으로 오셔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비중을 조금 더 뒀던 것 같습니다.

○조영식 위원

민간에서 위탁 하니까 또 그럼 선진지 견학은 왜 필요하신가요?

○건강증진과장 김현주

또 선진지 견학 같은 경우는 저희 완도군이 맨발 학교, 올해는 맨발 학교를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활성화돼 있지 않고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좀 더 선진적으로 잘하고 있는 곳에 가서 좀 배우고 눈으로 보고 체험하게끔 유도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조영식 위원

보니까 또 다과회비 같은데 간담회비, 다과비 또 밑에 활동비에서 재료비에서 차 음료 구입비 이 부분도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현주

이제 대상자를 모집해 가지고 교육을 할 때 라든가 다과, 그다음에 챌린지나 걷기 교실을 할 때 그에 따른 기념품 제공 또는 페스티벌 할 때 기념품 제공, 이게 이제 민간에서 하다 보니까 좀 더 민간의 입장에서는 오시는 분들한테 좀 풍성하게 주고 싶어라 하는 마음이 생기실 것 같아서 그래야 참여율도 좀 높아질 것 같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좀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조영식 위원

또 예산서에 보면 저기 풀대 놀이 등 풀대 대여비가 있죠?

○건강증진과장 김현주

예.

○조영식 위원

그러면 이거는 해마다 이렇게 대여를 해야 되는가요? 맨발 걷기를 하는데 왜 풀대 대여비를 또 주고 대여를 해야 되는가요?

○건강증진과장 김현주

이제 맨발 걷기를 우리가 4시간, 2시간, 4시간 또는 2박 3일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단순히 그 맨손으로 걷기만 하는 게 목적은 아닙니다. 거기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유도하고 그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도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대여비를 저희가 넣게 되었습니다.

○조영식 위원

저기 축제나 무대 방송 있잖아요. 네 그 1,040만 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해마다 이 돈은 소모품으로 이렇게 계속 들여야 되는 돈입니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예산 수중에 1,040만 원, 장비 임대료 해마다 이 장비를 임대해야 된다는 결론인가요? 지금.

○건강증진과장 김현주

저희가 페스티벌을 하게 되면 완토리니에서 올해 가을섬 여행 작년에 거기서 진행하면서 같이 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어디에서 이제 이게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단일 행사로 진행하게 되면 아무래도 음향 장비나 이런 장비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세웠고요. 우리가 이 페스티벌을 지속적으로 계속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앞으로도 예산을 세우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올해 뭐 이게 효과가 없다든가 그러면 다음에는 좀 더 고민해 볼 사항입니다.

○조영식 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제안 하나 드릴게요. 이게 지금 오늘까지 재공고 날짜하고 2월 17일까지요. 공고한 다음에 간담회를 다시 해서 추천위원회, 선정위원회 위원도 추천해 달라고 하시고요. 재검토가 좀 필요해 보이는데 재검토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걸 꼭 결정해야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현주

저희가 지금 행정절차 이행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저희 먼저 사전에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죄송하고 사과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래도 사업을 좀 확대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면 좀 더 그래도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너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조영식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150%가 증액돼 가지고 연세가 올라왔는데 내년에도 또 이럴 개연성이 충분하잖아요. 의욕을 갖고 하는데 지금 초를 치자고 지금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작년에 2천만 원 갖고도 성과 충분하게 성과를 냈다고 하는데 올해는 150%가 증액이 돼가지고 4,850만 원이라, 2,850만 원이 증액되고 올라왔어요. 그러면은 여기 계신 분들 금액은 얼마 안 될지 모르지만은 의아해 할 거 아니에요? 150%라는 예산을 증액해 갖고 왔다. 그러면 위원들이 그냥 와서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다 그 성과가 2천만 원 갖고도 충분히 했다고 하는데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위탁까지 시킨다는데 아마 의아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 조인호 위원이나 최정욱 위원이 방금 위탁에 대한 문제점인 제기를 한 것 같은데 과장님 이 부분은 다음에 한번 다시 재검토하면 어쩌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현주

이게 사업이 작년에 하반기에 사업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반기 9월부터 사업을 추진해서 4개월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해서 짧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케이스였고요. 올해는 이제 3월달부터 해서 1년 정도의 사업을 추진하고 봄에서 여름으로 가는 시기 따뜻한 계절이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동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대를 했고요. 이제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사람이 움직여서 사람을 불러서 홍보하고 추진을 한다는 게 이 예산이 결코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결코 많은 예산이 아니고 작년에 최소한으로 줄여서 이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올해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좀 더 내실하게 신경 써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조영식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제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100원에서 200원 올라가고 100% 올라가고 이게 100억에서 200억 올라오고 금액 차이가 문제냐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150% 증액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위원님실에 돌아다니면서 한번 설명해 줄 의향은 있으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현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식 위원

진작 그랬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현주

죄송합니다.

○조영식 위원

3월부터 9개월 동안 작년에는 3개월을 시작했는데 올해는 3월부터 바로 촉박하니 시작을 해야 된다니까 저도 따로 이야기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재검토를 안 하신다 하면 오늘부터라도 바로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현주

예. 위원님들께 방문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절차를 이행했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에 미숙했던 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조영식 위원

그리고 건강증진과장님과 기획예산실도 분명히 앞으로는 의회에 무슨 선정위원회 추천을 한다는 공문을 보내거나 할 때는 정확히 시간, 날짜 따져서 의회에 무시하는 처사가 없이 적법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공문을 보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선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의 없습니까?

○최정욱 위원

이거 우리 지금 의회 승인 얻기 전에 지금 이미 진행이 돼 있었다고 지금 조영식 위원이 한 것 같은데 맞은가요? 이런 거는, 이런 거는 하면 안 돼요. 우리 의회 권한을 우리가 스스로 포기한 거예요. 우리 의회가 지킬 건 권한을 갖고 가야지, 적어도 우리 의회의 승인도 받지 않고 미리 한다는 건 우리 의회 존재 가치가 없는 거지, 이제 예산이 많고 적은 거는 우리가 조금 더 기왕 해주려면 잘하라고 해줄 수는 있겠지만 그런 우리 의회에 먼저 거쳐야 것을 무시하고 먼저 했다라는 이런 거는 우리가 용납해서는 안 돼요. 그럼 우리 의회가 스스로 이거를 포기하는 것이지, 우리 권한을. 이런 거 한 번씩 집어줘야지, 예전에도 우리가 8대 때 그런 일이 있어 갖고 한 번 잡았던 기억이 있었는데 이렇게 안 하면 또 이게 이런 식으로 계속 가요. 이건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 것이 그렇게 됐다면 한 번쯤 경종도 울려야 되고, 의회 차원에서 이런 거는 한 번쯤 우리가 제동을 걸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 이게 뭐 당장 우리 군이 어떻게 잘못되거나 이런 것 같으면 우리가 심사숙고 또 해서 그렇게라도 해본다 하지만 이건 뭐 잠시 좀 늦춘다고 해서 이것이 잘못되고 그런 일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제 의견입니다, 이건.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선

다른 위원님들은요.

○조인호 위원

한 말씀 하겠습니다. 방금 최정욱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한 달 늦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모든 절차가 완벽하게 된 뒤 의회에서 동의를 해야 의원들도 할 말이 있고 뒷소리를 우리가 안 듣지, 이것도 정리가 안 되는 상태에 뻔히 알면서 이걸 묵인해준 것도 우리 의원들한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십시오.

○위원장 박재선

또 다른 위원님은..... 표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먼저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같이 동의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서 표결하겠습니까? 그렇죠?

○조인호 위원

그러니까 방법은 모든 절차가 안 돼야 끝나는 대로 하고 동의하면 우리가 해 준다 이 말이야 그것도 안 되는 상태에서 해주면 의회가 있으나 마나죠.

○위원장 박재선

그 이제 이 부분은 전문위원님 앞으로 이렇게 이제 상정될 때 이런 절차가 있으면 이 자체를 올리지 마세요, 그러면. 그래야 여기서 위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우리가 저희들이 할 얘기가 아니지, 서로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잖아요. 이 안건이 이렇게 먼저 진행이 되고 저희들한테 올라와서 또 위원들끼리 또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앞으로는 이렇게 절차가 먼저 진행이 돼버리면 절대 상정을 하지 마세요.

○전문위원 박영민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절차 진행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들이 인지를 했으면 그 안건에 올리지 않았을 건데 저희들이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더 관심을 갖고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최정욱 위원

적어도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적어도 의장하고 정도는 서로 상의를 해야 돼요.

○전문위원 박영민

아니, 이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그전에도 이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반려를 했거든요.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의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사전에 그런 절차를 준수를 해서 하라고 저희들이 몇 번은 반려를 했는데 이번 안건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저쪽에서 이렇게 공고를 하고 했던 그런 사실을 제가 알지 못했습니다. 만약 알았다면 당연히 이제 이 안건에 상정을 안 했을 건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미리 파악하지 못하고 이렇게 안건을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조영식 위원

저도 한마디하겠습니다. 여기 자리에서 또 지적할 건 지적하고, 의회의 권위를 세울 때는 또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질의하면서 이제 또 과장님께 위원님들하고 전부 다 찾아뵙고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고 하라고까지 해서 답을 또 들었지 않습니까? 또 기획예산실에 또 한마디 전했으니까 이게 또 내년에 또 이 사업이 또 재위탁 이 안이 올라올 것 같아요. 그때 아마 심도 있게 정확한 적법절차를 따라서 지적하시고 방금 과장님이 성의를 보여서 각 위원실에 또 이해를 구하고 설명을 하면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여기서 뒤집어 놓으면 그것 또한 우리 또 의회에 왔다 갔다 하는 행정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제 제안입니다마는 이 선에서 위원님들한테 위원실에 찾아가서 설명하는 자세히 설명하는 선에서 한번 이번에 이 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의가 없었으면 하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욱 위원

하려면 아예 우리가 봐줘보든가 여기서 하지 그걸 갖고 의원실에 돌아다니면서 설명한다는 이것도 안 맞고, 우리가 기왕 이것이 지적되었고 의회의 권위와 이건 절차상의 문제 우리 위원들이 스스로 가질 권리예요. 이게 그런데 이 권리를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보다 아예 여기서 차라리 끄는 게 낫지 이

건 뭐 다시 뭐 직원들을 돌아다니면서 설명하고 차라리 아예 여기서 우리가 통과를 시켜줘야지 그건 저는 아니다고 봅니다. 제 의견은 여기서 우리는 절차상 이런 문제가 있는 건 우리 권위를 지키자는 것이지 이거 통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영식 위원

그러면 전문위원님 혹시 뭐 3월달부터 행사를 추진한다는데 시기가 좀 촉박하잖아요.

○전문위원 박영민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한두 달 늦춰진다 해서 이 사업의 당초 목적이나 그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조영식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박재선

그러면 다음 기회로 할까요? 그러니까요. 다음 회기 때 하는 거지 저희들이 무작정 중간에 저희들이 해 주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오라는 얘기지.

○조인호 위원

여기서 모든 절차가 끝난 다음에 해 주자는 이 말이요. 그래야 의회가 명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위원장 박재선

그럼 그렇게 할까요? 그럼 더 이상 의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367호 완도군 맨발걷기 사업 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의 없습니까?

의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출석위원(8인)

박재선　박성규　지　민
박병수　조인호　최정욱
허궁희　조영식

○출석공무원

건강증진과장　김현주

○ 전문위원 : 박영민

○ 속 기 사 : 정현중

제327회 완도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2월 17일(월)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완도군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완도군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0시 52분 개의)

○위원장 박병수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안번호 제3368호 완도군 민생회복 지원금 지원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

1. 완도군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3368호 완도군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368호의 서류를 검토해 주시고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정국

경제교통과장 이정국입니다. 의안번호 제3368호 완도군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본 조례안은 민생 경제의 어려움에 처한 완도 군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 기준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하며 지급 대상으로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자, 외국인의 경우 결혼 이민자 및 영주권 취득자가 되겠습니다.

또한 민생회복지원금은 완도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목적 및 정의,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등의 등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미

의안번호 제3368호 완도군 민생회복 지원금 지원 조례안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된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생활비 부담이 커진 완도군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이정국 경제교통과장의 제안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민생회복 지원금 지원 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 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 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유 없습니까?

이유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축조 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368호 완도군 민생회복 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안 원안대로 가결하고 있는데 의원 여러분 이유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

○출석위원(8인)

박병수　박성규　지　민
박재선　조인호　최정욱
허궁희　조영식

○출석공무원

경제교통과장　이정국

○ 전문위원 : 최영미

○ 속 기 사 : 정현중

회 의 록 서 명

(제327회 임시회 회의록)

「지방자치법」 제84조제2항 및 「완도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서명함.

직 위	성 명	서 명	비 고
의 장	김 양 훈		
서명의원	조 인 호		
서명의원	조 영 식		
사무과장	최 영 미		

제328회 완도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28회 완도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개회식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3월 10일(월) 오전 10시 개식

장 소 본회의장

제328회 완도군의회(임시회) 개회식순

1. 개식
2. 국기에 대한 경례
3. 애국가 제창
4.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5. 폐식

(사회 : 의사운영팀장 서을식)

(10시00분 개식)

○의사운영팀장 서을식

안녕하십니까? 의사운영팀장 서을식입니다.

지금부터 제328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자리에 앉은 채로 예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이어서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반주에 맞춰 1절을 힘차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다음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김양훈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김양훈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신우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국정이 어수선하고, 좋지

않은 경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완도군의회는 군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집행부와 함께 협력하고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군민 여러분께서도 조금만 더 인내하시고 힘을 내시면 반드시 좋은 날이 찾아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더불어, 비회기 중에도 민생 현장을 살피고, 완도군의 미래 비전을 위한 정책 개발과 군민 현장 방문 등 의정 연구 활동을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해양수산부 주관 '2025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공모에 선정되고, '2025 완도 방문해 선포식'과 '군민 행복 정책토크' 등 군정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바쁜 일정을 보내고 계시는 신우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우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현재 지역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군민들의 삶도 쉽지 않은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2025 완도 방문의 해'를 선포하고, 다가오는 4월에는 '청산도 슬로걷기축제', 5월에는 '장보고 수산물 축제', 6월에는 '국제슬로시티연맹 시장 총회' 등 중요한 행사들이 계속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완도~제주를 잇는 한일고속 골드스텔라호의 신규 취항으로 완도를 찾는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어 이는 완도가 재도약하고 글로벌 도시로 자리 잡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그런 만큼 이러한 행사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실천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런 대규모 행사들은 군민들의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완도군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모든 부서가 협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번 회기에서는 군민생활 현장 방문과 민생 관련 조례안을 심의하게 됩니다. 현장 중심의 정책을 통해 군민들의 실질적인 요구와 필요를 반영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회기를 통해 완도군이 직면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고, 군민들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나누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심의하고 논의하는 모든 정책이 군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완도군의회는 언제나 군민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군민 여러분의 의견과 제안은 저희 의정활동의 중요한 지침이 됩니다.

군민의 목소리가 반영된 정책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항상 귀 기울이고 있으며,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또한, 군민 여러분의 행복을 위한 노력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더욱 나아질 수 있도록 완도군의회 9명의 의원들은 한마음으로 힘차게 전진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회기를 통해 완도군의 미래를 향한 새로운 한 걸음을 내딛을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운영팀장 서을식

이상으로 제328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0시04분 폐식)

제328회 완도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3월 10일(월)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조인호)
▣ 5분 자유발언(허궁희)
1. 제328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군민생활현장 방문의 건
5.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안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조인호)
▣ 5분 자유발언(허궁희)
1. 제328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군민생활현장 방문의 건(지민 의원 외 8명)
5.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안(최정욱 의원 외 8명)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4분 개의)

○의장 김양훈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완도군의회 회의규칙 제

33조의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조인호, 허궁희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인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조인호 의원)

○조인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완도군의회 조인호 의원입니다. 희망찬 푸른 뱀의 해를 맞아, 우리 삶에 지혜와 풍요가 가득하길 기원하며 출발한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한 분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군이 각종 대규모 행사를 준비하며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지난 시간, 군민과 공무원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으로 얻었던 '국립난대수목원'과 '국립해양수산박물관' 등 대형 국책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도서민의 염원이던 약산~금일 연륙교사업 예비타당성 선정이라는 또 한 번의 쾌거를 이룩해 냈습니다. 이와 같은 결실을 맺기까지 각 분야에서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온 신우철 군수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외부에서 지원을 아끼시지 않은 박지원 국회의원님, 김영록 전남도지사님과 중앙부처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약산~금일 연륙교사업 예비타당성 선정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며, 발언 기회를 주신 김양훈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1968년 육지와 완도를 잇는 완도교가 준공되었을 때, 그 의미는 단순히 하나의 교량이 놓였다는 차원을 넘어섰습니다. 연륙교는 육지와 도서를 연결하는 중요한 시설물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는 도서민들의 오랜 갈망과 염원도 함께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도서 지역 주민들은 육지와의 연결을 통해 경제적 기회와 더 나은 삶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섬에서 태어난 영향으로 그동안 의정활동도 도서민들의 교통 편의성 개선에 역점을 두고 관광, 물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적인 인프라로써 연륙·연도 사업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약산~금일 연륙사업 예비타당성 선정은 우리 지역 주민들의 염원이 현실로 이뤄지는 첫 번째 과정으로 그 의미가 매우 남다르고 가슴 또한 벅차오릅니다. 이번 약산~금일 연륙교 사업의 예비타당성 선정은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기회를 얻게 된 것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 사업은 단순히 다리를 놓는 것을 넘어서, 완도군과 인근 섬들 간의 경제적 연결성을 극대화하고, 관광 및 물류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번 예비타당성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군민과 공무원들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면밀한 계획과 철저한 준비도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난관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공무원들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단순히 행정적 준비에 그치지 않고, 주민들의 협조와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일입니다. 약산-금일 연륙교를 포함한 연륙교 사업은 단지 교통망 개선에 그치지 않고, 남해안 관광벨트 구축이라는 큰 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남해안은 이미 그 아름다움과 자연경관으로 유명하지만 아직까지도 관광 인프라는 그 잠재력을 모두 발휘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연륙사업은 남해안 관광벨트의 핵심이며, 관광객들이 도서 지역을 더 쉽게 접근하고 여러 섬을 하나의 큰 관광지로 묶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사업이 다양한 섬으로 어우러져 있는 지역적 특성을 살린다면, 섬은 더 이상 단순한 휴양지나 관광지가 아닌 지역 경제를 견인하는 중요한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질 때 완도군은 남해안 관광벨트의 중심지로 자리 잡을 것이며, 관광산업의 활성화, 관련 산업의 발전, 일자리 창출 등 다방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입니다. 완도군의 미래는 우리 군민과 공무원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업들을 완도군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회로 활용해야 합니다. 공무원들은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데 있어 탁월한 전문성을 발휘해야 하며, 군민들은 이러한 사업이 자신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협력해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맞이할 것입니다. 그동안 겪어온 어려움은 이제 우리에게 큰 기회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완도군의 발전을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역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완도군의 미래는 밝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는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나은 세상, 더 밝은 미래를 위해 약산~금일 연륙사업 예비타당성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뿐만 아니라, 정치권과 중앙부처 등 우리의 대외적 인적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아울러, 공무원 여러분의 부단한 노력과 빈틈없는 준비 또한 당부드립니다. 함께 그려나갈 우리의 미래에 희망을 품고, 계속해서 나아가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양훈

조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궁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허궁희 의원)

○허궁희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신우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지, 군외, 약산, 청산을 지역구로 둔 허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25 완도방문의 해' 맞아 완도관광의 개선 방안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발언기회를 주신 김 양 훈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최근 국내외 정치·경제적 혼란으로 군민들의 삶이 더욱 고단해지고 있습니다. 얇아진 주머니 사정은 차가운 겨울바람처럼 매섭지만 하루빨리 우리 일상에 희망의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민선 8기 반환점을 돌아선 지금 완도군은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인구절벽, 지역소멸, 경기침체라는 난제를 해결하고 더 큰 도약을 향해 함께 힘을 모아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의 상황을 조금이나마 극복할 수 있으며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관광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특색을 살린 관광 산업은 지역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의 매출 증가 등 우리 지역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또한 관광은 다양한 산업과 연계되어 모든 분야의 성장에도 기여하며,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브랜드를 널리 알릴 수 있습니다. 더욱이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특화된 문화를 가진 완도군이야말로 관광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브랜드 가치를 더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올해 우리군은 '완도 방문의 해'를 선포하여 관광을 통한 지역 경제 활력을 모색하고 있으며, '2025 국제슬로시티연맹 시장 총회'와 '제6회 섬의 날 행사' 등 대규모 행사를 앞두고 있어 우리 지역은 절호의 기회

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 지역 성장의 발판으로 삼아야 할 것이며 다음과 같이 몇 가지 관광 활성화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관광 자원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연계성을 강화하여 1박 2일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군은 방문객들이 단순히 찾아와 이용만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단편적인 관광 프로그램에 의존해왔습니다. 이제는 방문객들을 매료할 수 있는 관광 연계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1박 2일 상품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합니다. 완도수목원, 해신세트장, 정도리구계등, 완도타워, 상황봉 등 다양한 관광 인프라에 자연을 결합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체험 후 치유를 받을 수 있는 신지권역의 해양치유센터, 해양기후치유센터, 해양문화치유센터를 연계하면서 완도읍 상권과 연계한 관내 숙박 할인권 제공을 통해 체류형 1박 2일 관광객 상품을 개발하여 생활인구를 늘려가야 합니다. 둘째, 관광 프로그램에 주민 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합니다. 지역 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과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체계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단편적으로 행정에서 정해놓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지역의 문화와 자원을 관광 콘텐츠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자기 표현의 기회가 많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남 거제시에는 인구 50여 명의 이수도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어업과 낚시꾼을 상대로 그럭저럭 생계를 이어갔지만 최근에는 1박 3식을 관광상품으로 제공하면서 평일엔 3백여 명, 주말에는 천여 명이 찾는다고 합니다. 이수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은 점심과 저녁, 다음 날 아침 식사에 숙박까지 10만 원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 음식 장만에 부담을 느끼는 중장년층에게 인기가 많고 젊은층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민박만 17가구에 달하고, 지난해에만 13만여 명이 다녀갔다고 합니다. 셋째, 방문객의 트렌드에 맞는 완도 시그니처 축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현재 완도 장보고수산물축제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수산물 홍보에 기여하고 있지만, 축제의 정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완도만의 독특한 시그니처를 개발하여 축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방문객을 매료시켜야 합니다. 경북 구미시는 농심라면 생산 공장이 위치하고 있다는 점을 착안해 공장에서 '갓 튀긴 라면'을 판매하거나 독특한 레시피의 이색라면을 판매하여 관광객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즉, 라면 축제가 구미의 새로운 시그니처로 자리를 잡았다는 겁니다. 이처럼 완도의 특산물을 활용한 이색적인 축제를 개최하거나, 완도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넷째, 완도만의 아름다운 섬을 활용하여 사계절 내내 방문객들이 끊이지 않도록 섬 관광을 상품화해야 합니다. 우리 완도군은 천혜의 자연경관과 유서 깊은 역사, 그리고 타지자체와 차별화된 문화가 공존하는 아름다운 섬들을 품고 있습니다. 특히, 노화·보길·소안·청산·생일·금당은 각기 다른 매력을 지니고 있고 사계절 내내 관광객을 맞이할 수 있는 잠재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으며, 바쁜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과 가족단위로 놀러올 수 있는 매력적인 관광지이자 힐링 관광지입니다. 이젠 단순히 지인들의 소개와 SNS 검색을 통해 찾아오는 '방문객 맞이'가 아닌 집행부에서 사계절 축제를 추진 할 수 있는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방문객 맞이 계절별 맞춤형 여행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합니다. 봄에는 청산도의 청보리밭과 유채꽃 그리고 보길도의 윤선도 원림

을 활용한 생태 관광, 여름에는 섬 해수욕장을 활용한 해양레저 관광, 가을에는 청산도의 코스모스 축제와 소안도의 단풍이 어우러진 역사·문화 관광과 MBC에서 방영 중인 “푹 쉬면 다행이야”를 착안한 섬 체험 관광, 겨울에는 노화·보길의 해돋이 감상과 함께 해산물 축제 그리고 생일·금당은 천혜의 바다경관과 함께 하는 낚시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사계절 내내 방문객들이 섬 투어(tour)를 할 수 있도록 완도를 매력적인 관광지로 만들어야 합니다. 관광 활성화는 지역 경제를 성장시키고 지역의 가치를 널리 알리며,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전략입니다. 제가 제안한 사항들은 관광 활성화가 단기적인 경제적 효과를 넘어 지역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하드파워’에 의존한 단편화된 관광정책이 아닌 현재 관광인프라에 완도만의 차별화되고 내실 있는 관광 정책으로 “소프트파워”를 키워나가야 합니다. 또한 축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기획이 필요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참고하여 차별화된 관광 정책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 특성을 살린 마케팅 전략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과 실행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양훈

허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에 대해검토한 후 제안사항은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 필요하다면 제도개선을 통해 군민들의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정환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민 의회운영위원장님 외 7명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2025년 2월 28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 의안제출 현황입니다. 의원발의로 완도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이 집행부에서는 완도해양치유의 날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양훈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1. 제328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28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25년 3월 10일부터 3월 19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순서에 따라 지민 의원과 최정욱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세

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완도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인호 의원을 대표 검사위원으로 하고 조승호, 박희선, 이성용, 황창령, 박기제, 이상 다섯 분을 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군민생활현장 방문의 건(지민 의원 외 8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민생활현장 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관련 서류를 검토해 주시고 의회운영위원회 지민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지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민생활현장 방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안(최정욱 의원 외 8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관련 서류를 검토해 주시고 최정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신 후 건의안을 낭독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욱 의원

최정욱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373호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벼 재배면적 강제감축 정책을 발표한 정부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고, 쌀 소비 촉진 및 농민들의 안정적인 소득 보전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건의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안

2024년 12월, 정부는 쌀 과잉 생산 해소를 명분으로 벼 재배면적 8만ha를 감축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완도군은 벼 재배면적 1,480ha 중 13.5%에 해당하는 187ha를 감축해야 하는 지침을 받았습니다.

이는 우리 지역 농민들에게 심각한 생계 위협을 초래하며, 농업 기반이 흔들리는 중대한 정책입니다.

정부는 벼 재배면적 감축을 '자율 감축'이라는 이름으로 발표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지자체에 강력한 감축 목표를 부여하고, 감축 실적이 부진할 경우 공공비축미 배정에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방침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농민들에게 사실상 강제적인 벼 재배면적 감축을 강요하는 정책으로, 농민들의 자율성과 선택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조치입니다.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감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보다는, 지자체와 농민 간 갈등을 조장하며, 강제로 감축을 추진하려는 위험한 정책입니다. 또한, 정부가 주장하는 벼 재배면적 감축이 과잉 생산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지만, 이는 단기적인 가격 문제를 해결하려는 임시방편적인 조치에 불과합니다. 쌀 생산은 단기간에 변동할 수 없는 특성이 있으며, 쌀 생산에 의존하는 농민들의 경제적 기반을 위협하는 정책은 절대적으로 잘못된 접근입니다. 벼 농사는 지역 농업의 핵심이며,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데, 정부의 벼 재배면적 강제 감축은 농민들

의 삶과 직결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외면한 채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은 2022년 기준 46%로, 이는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에 해당합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식량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벼 재배면적을 감축하는 정책은 국가의 식량 안보를 더욱 위태롭게 만들 것입니다. 기후위기와 국제적 불안정성으로 인해 세계 곡물 시장의 상황은 불확실하고, 이에 따라 식량 공급망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불확실한 글로벌 환경에서 쌀 자급률을 더욱 낮추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결정입니다. 실제로 일본은 최근 쌀 부족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25년 만에 식량·농업·농촌기본법을 대폭 개정하며,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일본과 같은 위기를 맞을 수 있음을 인식하고, 국가의 식량 자립을 위한 정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부의 벼 재배면적 감축은 단기적인 쌀값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어도, 농업 기반을 약화시키고, 지역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뿐입니다. 우리 완도군의 경우, 벼 농사 외에도 다양한 농업 기반이 있지만, 벼 농사를 위협하는 정책이 지속되면 전체 농업 생태계와 지역 경제가 위축될 것입니다. 특히, 쌀 농사는 국가 식량안보의 근본이며,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정부는 벼 재배면적 감축을 통해 농민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쌀 소비 촉진과 효율적인 수급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정책과 농민들의 안정적인 소득 보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농업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벼 재배면적 감축이 아닌, 쌀 소비와 생산을 활성화시키는 정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에 완도군의회는 정부가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농민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쌀 산업 정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하나. 벼 재배면적 강제 감축 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농민들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쌀 소비 촉진 및 농민들의 안정적인 소득 보전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라. 하나. 국가 식량 안보를 강화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쌀 산업 정책을 수립하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고려한 정책을 추진하라. 2025년 3월 10일

완도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양훈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정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6.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활동과 군민생활현장 방문을 위하여 3월 11일부터 3월 18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8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1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

○출석의원(9인)

김양훈 박성규 지민
박재선 박병수 조인호
최정욱 허궁희 조영식

○출석공무원

군수	신우철
부군수	이범우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세무회계과장	김희수
민원봉사과장	우홍래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경제교통과장	이정국
관광과장	오현철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체육진흥과장	최광윤
농업축산과장	박창희
수산경영과장	김 일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건설과장	김진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보건의료원장	한광일
시설관리사업소장	전호용

○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최정환
의사운영팀장 서을식
속 기 사 정현중

제328회 완도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3월 19일(수)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완도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2. 완도해양치유의 날 조례안
3. 완도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 사업 선정 동의안
5. 완도청소년 문화의집·완도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완도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
6. 완도군 맨발걷기 사업 운영 위탁 동의안
7. 완도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완도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수시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완도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완도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조인호 의원 발의)
2. 완도해양치유의 날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3. 완도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4.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 사업 선정 동의안(완도군수 제출)
5. 완도청소년 문화의집·완도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완도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완도군수 제출)
6. 완도군 맨발걷기 사업 운영 위탁 동의안(완도군수 제출)
7. 완도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8. 완도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9.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수시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완도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양훈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완도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상정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1. **완도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조인호 의원 발의)**
2. **완도해양치유의 날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3. **완도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4.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 사업 선정 동의안(완도군수 제출)**
5. **완도청소년 문화의집·완도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완도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완도군수 제출)**
6. **완도군 맨발걷기 사업 운영 위탁 동의안(완도군수 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완도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완도해양치유의 날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완도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 사업 선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완도청소년 문화의집·완도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완도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완도군 맨발걷기 사업 운영 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자치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해 주시고 행정자치위원회 박재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박재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박재선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375호 완도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375호 완도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양육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지원기준, 지원대상, 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지원중지 및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76호 완도해양치유의 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완도군 해양치유의 날을 7월 6일로 정하고 해양치유에 대한 의미와 가치에 대해 홍보하여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대내외 널리 알리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77호 완도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운영 중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를 가족센터로 통합하여 복지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과 전달체계 일원화를 통해 포괄적인 가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안 제7조 3항에 위탁계약 기간은 상위법에 따라 민간위탁 5년을 5년 이내로 수정하고, 단서조항은 재위탁의 개념이 아니라 기간연장을 의미하며, 민간위탁의 기한연장은 새로운 민간위탁에 해당되어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78호 완도군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 사업 선정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완도군 고향사랑기부제 제1호 ‘지정기부 사업’으로 우리 군

에 신규 창단된 유소년야구단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자 완도군 BC유소년야구단 육성 지원안을 선정하여 고향사랑기부금법 제8조의 2에 따라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사업의 목적과 필요성에 따라 사업 선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79호 완도청소년문화의집·완도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완도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사단법인 꿈틀과 체결한 완도청소년문화의집, 완도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완도군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 위탁운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청소년 활동과 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다양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소년들이 건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해 민간위탁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80호 완도군 맨발걷기 사업 운영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해수욕장에서 맨발걷기를 즐기는 지역주민과 방문객이 증가 추세에 있어 맨발걷기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맨발걷기 운영의 활성화와 군민과 방문객들의 실질적 참여 제고를 위해 민간위탁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 과정을 거쳐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양훈

다음은 질의 및 토론 할 순서입니다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박재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한 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완도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도해양치유의 날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도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 사업 선정 동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도청소년 문화의집·완도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완도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도군 맨발걷기 사업 운영 위탁 동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완도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8. 완도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9.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수시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완도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도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완도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수시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해 주시고 산업건설위원회 박병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박병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병수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381호 완도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381호 완도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완도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관광상품 개발과 관광객 유치를 위한 체계적이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광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관광진흥사업 추가, 관광진흥사업 지원, 지원 제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82호 완도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안 제5조 제2항 위원회 설치와 관련하여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위원회 구성시 성별 균형 유지를 위한 조문을 추가하였고, 조례안 제9조 제7항 가로수 조성 등에 관한 승인과 관련하여 상위법령인 원인자 부담금 납부 기간을 조례에 정하도록 개정 되었으나, 본 조례안에 납부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기간을 명확히 규정하고, 체계적인 징수를 위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83호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수시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약산 당목항의 항내 기본시설을 확충하고 파랑에 대비한 정온수역을 확보 및 어업기능시설의 정비 등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공유수면 매립계획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찬성의견으로 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 과정을 거쳐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양훈

다음은 질의 및 토론 할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박병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한 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완도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완도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

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수시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6개 읍·면에 대한 군민생활현장을 방문하고,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현장방문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읍·면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도서지역의 사업 현장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현장방문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을 검토하여 조치계획은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3월 말부터 감사원과 전라남도의 종합 감사가 시작됩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감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한 안건에 대해 「완도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경미한 자구나 오류의 정정은 제가 위임받아 처리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8회 완도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산회)

○출석의원(9인)

김양훈　박성규　지민
박재선　박병수　조인호
최정욱　허궁희　조영식

○출석공무원

군수	신우철
부군수	이범우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세무회계과장	김희수
민원봉사과장	우홍래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경제교통과장	이정국
관광과장	오현철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체육진흥과장	최광윤
농업축산과장	박창희
수산경영과장	김 일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건설과장	김진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보건의료원장	한광일
시설관리사업소장	전호용

○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최정환
의사운영팀장 서을식
속　기　사 정현중

제328회 완도군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3월 10일(월)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완도군 맨발 걷기 사업 운영 위탁 동의안
2. 완도군 아이 돌봄 지원 조례안
3. 완도 해양치유의 날 조례안
4. 고향사랑기부제 지정 기부 사업 선정 동의안
5. 완도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완도 청소년 문화의 집 완도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완도군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 민간 위탁 관리 동의안

부의된 안건

1. 완도군 맨발 걷기 사업 운영 위탁 동의안(완도군수 제출)
2. 완도군 아이 돌봄 지원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3. 완도 해양치유의 날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4. 고향사랑기부제 지정 기부 사업 선정 동의안(완도군수 제출)
5. 완도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6. 완도 청소년 문화의 집 완도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완도군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 민간 위탁 관리 동의안(완도군수 제출)

(16시02분 개의)

○위원장 박재선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은 완도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등 6건이 되겠습니다.,

1. 완도군 맨발 걷기 사업 운영 위탁 동의안

(완도군수 제출)

먼저 의안번호 제3380호 완도군 맨발 걷기 사업 운영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일 하단에 있는 의안 번호 제3380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현주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현주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2월 임시회에서 위탁 동의 없이 절차가 먼저 진행되었던 점 다시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3380호 완도군 맨발 걷기 사업 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신지명사십리 해수욕장에서 맨발 걷기 어싱을 즐기는 지역 주민과 관광객의 증가 추세에 따라 어싱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군민이 쉽게 접근하고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추진하기 위해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위탁 운영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 완도군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근거해 신지명사십리 해수욕장 일원에서 추진하게 될 사업입니다.

위탁 내용으로는 해양치유자원과 연계해 지역사회 맨발 걷기 저변 확산과 붐을 조성하고, 기존 맨발 걷기와 차별화된 아이디어 프로그램의 개발, 운영, 언론에 홍보함으로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뿐만 아니라 관광객 유치로 이어져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위탁 기간은 당해연도 1년 이내입니다.

다음 장 저희 과 의견입니다. 맨발 걷기 천혜의 환경을 활용, 민간이 직접 스스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추진함으로 사업의 홍보 효과와 참여율이 높아지고 군정 핵심 사업에 대한 관심과 치유객 유치,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업의 활성화와 주민의 실질적 참여 제고를 위해 민간에 위탁해 추진하고자 하오니 동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맨발 걷기 사업 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선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호 위원님.

○조인호 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의회에서 위탁 동의는 이제 위원님들 알아서 하실 건데 이 주무과가 여기 건강증진과에서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해양치유담당관 옆에서 같이 해야 하든지 관광과에서 해야 되는지 우리가 동의는 해주되 동의 되면은 이건 조건부로 업무 이관하는 걸로 해서 해야지, 이것은 지금 직원도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현주

관광과랑 해양치유담당관실하고 해서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우리가 동의를 해 준 대신 위탁을 이제 거기서 한 걸로 해야 동의가 된다고..... 근데 임의대로 제가 여기서 결정해서 말씀.....

○조인호 위원

여기서 주무과장이 그 정도는 답변을 하고 해야죠, 책임감을 가지고.

○위원장 박재선

다른 과에서 안 받아주면요? 다른 과에서 안 받아주면.....

○조인호 위원

우리가 안 받아주고 그러면 의회에서 이런 결정을 해줘야 돼요. 우리가 또 무조건 놔놓은 게 아니고, 이거 아무 관련도 없는 과에서

이걸 가져가 가지고 지금..... 그 부분을 답변 한번 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김현주

저희 과는 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증진사업 차원에서 걷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걷기 사업을 하는데 한 일환으로써 신지명사십리에서 걷기 사업을 이번에 추진하게 됐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저희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하려면 인력도 있어야 되지만 또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그곳을 방문하는 관광객이나 또 타 지역 사람들이 참여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치유산업과 지역의 핵심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이 사업을 그러면 우리가 할 수가 없기에 위탁을 해서 민간에서 추진하게 하자라는 차원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저희 입장에서야 저희과 입장에서야 다른 과로 이관을 하면 좋겠지만 이거를 제가 임의대로 다른 과에 이관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현재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번에 혹시 조직 개편 자료에 기초 진단 자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올려놔가지고 좀 이관 부분에 대해서 이관이 될 수 있도록 일단은 자료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확답은 드리기가 참 애매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조인호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의회에서 입장이 이렇더라고 정확히 명확히 전달을 하세요. 전달을 할 수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현주

두 개 과에다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선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한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토론을 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조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수정안대로 할까요? 아니면 원안대로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를 통과시킨 것은 원안대로 하는 걸로 하고, 그것을 이제 실과에서 실과로 이제 얘기하는 것은 조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얘기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의안번호 제3380호 완도군 맨발 걷기 사업 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

2. 완도군 아이 돌봄 지원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안번호 제3375호 완도군 아이 돌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375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조인호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호 위원

조인호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375호 완도군 아이 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가정 가정의 아이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 가

정 양립을 통한 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4조와 5조에서는 지원 기준 및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6조에는 지원 신청서 및 지원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7조와 8조에서는 지원 중지 및 회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민

의안번호 제3375호 완도군 아이 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 법령인 아이 돌봄 지원법에 따라 아이 돌봄 서비스 본인 부담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 및 양육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인호 위원님 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아이 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인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선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 심사와 토론한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 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축조 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375호 완도군 아이 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

3. 완도 해양치유의 날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안번호 제3376호 완도 해양치유의 날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376호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해양치유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입니다. 의안번호 제3376호 완도 해양치유의 날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해양치유산업의 선도 지자체로서 해양치유자원과 해양치유시설을 활용한 해양치유산업을 대내외에 널리 홍보하고, 해양 치유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7월 6일을 해양치유 날로 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완도 해양치유 날 지정, 이에 따른 기념식 및 기념행사 개최입니다. 또한 기념행사의 대응을 위해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완도 해양치유의 날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민

의안번호 제3376호 완도 해양치유의 날 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도군 해양치유의 날을 7월 6일로 정하고 해양치유에 대한 의미와 가치에 대해 홍보하여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환옥 해양치유담당관의 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 해양치유의 날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치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치유담당관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 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 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축조 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376호 완도 해양치유의 날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

4. 고향사랑기부제 지정 기부 사업 선정 동의안(완도군수 제출)

다음 의안번호 제3378호 고향사랑기부제 지정 기부 사업 선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378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행정지원과장 천종실입니다. 의안번호 제3378호 고향사랑 기부제의 지정 기부 사업 선정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앞서 2월달에 의원간담회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고향사랑 기부제의 기부자가 본인의 기부금이 사용되기를 원하는 사업에 직접 기부할 수 있는 지정기부 사업으로 우리 군에서는 완도군 BC 유소년 청소년 야구단 육성 지원 사업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2024년도에 창단된 완도군 BC 유소년 청소년 야구단은 레슨비 등 관련 운영비를 학부모들의 자부담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각종 대회 출전 시 추가 비용 부담 등으로 학부모의 재정적 부담이 큰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관내 청소년 스포츠 활성화 기여 등 신규 창단된 유소년 야구단의 지속적인 운영을 응원하고자 이 사업을 지정 기부사업으로 선정하고자 우리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모금 기간은 금년도 6월 31일까지 상반기까지이며 목표 금액은 4천만 원입니다. 목표 금액에 따른 기초 산출, 기초 및 야구단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재정 기부 사업의 취지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이미지를 제작하여 고향 사랑 이음에 등록하고 3월 17일부터 모금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모금 기간이 4개월로 다소 짧지만 학부모들의 학부모들께서 제안한 사항으로 기한 내에 목표 금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우리 군과 수혜자가 중심이 되어 홍보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관련 지침에 따른 지정 기부 사업이 사업비 반영 사항과 2025년 고향사랑 기금 운용 계획을 계획 변경은 붙임 참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실제 모금액 8억 7,400만 원, 2025년도 목표 모금액 10억 원 등은 수입 계획에도 변경하여야 하나 결산검사 이후에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을 재변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고향사랑 기부제 지정 기부 사업 선정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선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선

행정지원과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378호 고향사랑 기부제 지정 기부 사업 선정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 완도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안번호 제3377호 완도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377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주민복지과장 추교훈입니다. 의안번호 제3377호 완도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 등 가족 유형에 상관없이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가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가족센터를 건립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가족센터 역할과 기능, 효율적 운영 방안, 또 시설 위수탁 등 관리 운영 세부 사항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이용자에 대한 편의와 센터의 체계적 운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가족 센터 설치 목적과 설치 및 위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시설은 가족센터 공동 유아 나눔터, 교육실, 다목적 소통 공간, 편의 공간 및 그 밖의 시설로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는 가족센터의 기능과 수행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제7조와 제8조, 제9조에서는 시설의 운영 위탁, 운영,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취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민

의안번호 제3377호 완도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운영 중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를 가족센터로 통합하여 복지 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과 전달 체계 일원화를 통해 포괄적인 가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추교훈 주민복지과장의 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 제7조제3항의 위탁기간은 상위법에 따라 민간위탁 5년에서 5년 이내로 수정하고, 단서조항은 기간 연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간 연장은 새로운 민간 위탁에 해당되어 의회의 승인 대상이 되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검토 의견과 같이 수정한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향후 센터 운영비는 물가 상승 등 요인으로 매년 35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복지 예산에 대한 군비 부담 증가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그 전무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정안대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 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 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축조 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377호 완도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

6. 완도 청소년 문화의 집 완도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완도군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안번호 제3379호 완도 청소년 문화의 집 완도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완도군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379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가족행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가족행복과장 박미정입니다. 의안번호 제3379호 청소년시설 민간 위탁 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사단법인 꿈틀과 체결한 3개소 청소년 시설, 완도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 민간위탁 기간 만료가 도래됨에 따라 시설의 지속적인 관리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완도군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민간 위탁 운영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관련 근거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청소년 활동진흥법 제16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완도군 사무의 민간 위탁 관리 조례 제4조 등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위탁 개요입니다. 위탁 시설 대상은 완도 청소년 문화의 집, 완도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및 완도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며, 시설 위치는 완도 개포로 159번길-41 완도군 청소년 문화의 집입니다. 참고로 청소년 시설 종사자는 총 16명으로 시설별로 청소년 문화의 집은 관장 포함 8명,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센터장 포함 6명,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통합 운영으로 2명이 종사 중이며, 연간 시설 이용자는 2만 5,930명입니다. 연간 예상은 11억 4,100만 원으로 주요 재원은 국도비 보조금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탁 범위와 운영 주요 사업은 청소년 시설 관리 운영 전반 사항으로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보급과 청소년 대상 각종 사업 운영 등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 위탁 방법입니다. 재위탁 신청에 따른 완도군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의거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 선정 및 위·수탁 협약

을 체결합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체결일로부터 5년입니다. 하지만 학교 밖 청소년 센터는 지정 기간을 3년으로 명시하고 있어 학교 밖 지원센터는 체결일로부터 3년입니다. 책임의 한계입니다. 책임의 한계는 수탁 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 기관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 지도 감독입니다. 청소년 시설 운영에 관해서는 관련법 및 관계 규정에 따라 감독하고 수탁기관의 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합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청소년 시설의 운영은 관리의 효율성, 운영의 활성화, 사업 전문화를 위하여 민간 위탁함이 타당하니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소년 시설 3개소의 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재선

가족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족행복과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379호 완도 청소년 문화의 집 완도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및 완도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민간 위탁 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산회)

○출석위원(8인)

박재선　박성규　지　민
박병수　조인호　최정욱
허궁희　조영식

○출석공무원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건강증진과장	김현주

○ **전문위원** : 박영민
○ **속 기 사** : 정현중

제328회 완도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3월 10일(월)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완도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완도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수시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 완도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2. 완도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3.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수시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완도군수 제출)

(16시28분 개의)

○위원장 박병수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안번호 제3381호 완도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되겠습니다.

---

1. 완도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먼저 의안번호 제3381호 완도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 보도 3381호의 서류를 검토해 주시고 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오현철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오현철입니다. 의안번호 제3381호 완도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우리 군 해양치유와 산림 치유, 섬 테마별 관광 자원을 연계한 관광 상품 개발과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진흥 사업 추진으로 생활 인구 유입 및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

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5조 1항부터 제4항까지는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속 가능한 관광 발전을 위하여 관광 진흥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 마련을 하고,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관광종합개발 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6조 관광진흥사업은 관광진흥사업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을 기존 6개 사업 외에 관광객 유치 사업, 관광 홍보 및 관광 상품 개발, 관광 개발 및 자원화 사업, 지역 축제 활성화 사업, 주민 주도 관광 활성화 사업 등 신규 11개 사업을 추가하여 관광진흥 사업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7조는 관광진흥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제1항과 제2항은 관광 사업 진흥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 사업자, 관광 사업자 단체 및 개인 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제3항과 제4항은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광 설명회, 박람회 참여자, 각종 관광객 참여 이벤트 등 관광객 유치 및 관광자원 홍보를 위해 관광 기념품 및 홍보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지원 제외 사항으로 제4항 제출된 서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 지원을 제외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보조금 지원으로 안 제6조 관광진흥 사업 신설에 따라 보조금 지원 대상을 안 제7조의 지원 대상인 관광사업자, 관광 사업자 단체 및 개인 사업자로 통일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미

의안번호 제3381호 완도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군 관광자원을 연계한 관광 상품 개발과 관광객 유치를 위한 체계적이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오현철 관광과장의 제안 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와 내용상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 심사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 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유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축조 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381호 완도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유 없습니까? 이유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완도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안번호 제3382호 완도군 도시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382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산림휴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산림휴양과장 박은재입니다. 의안번호 제3382호 완도군 도시 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후에는 도시 숲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완도군 도시 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상위 법령과 조례 간의 통일성과 자치 법규의 정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 내용으로는 상위법에 따라 도시 숲 등의 조성 관리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현행하고 가로수 원인자 부담금 징수 방법을 상위 조문을 임용하여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완도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미

의안번호 제3382호 완도군 도시 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도시 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박은재 산림휴양과장의 제안 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 조례안 제5조제2항 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검토 의견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조례안 제9조제7항 가로수 조성 등에 관한 승인과 관련하여 상위 법령의 원인자 부담금 납부기간을 조례에 정하도록 개정되었으나 본 조례안에는 납부 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체계적인 징수를 위하여 지방세징수법 제14조에 근거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 의견과 같이 30일 이내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도시 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주요 내용에 보면 가로수 조성 등 원인자 부담금 징수 방법이 신설이 됐는데 이 내용 한번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로수 승인을 해놓고요. 부담금을 지시를 했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부담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신설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상위 법령에서 또 이 부분이 신설이 됐고요.

○위원장 박병수

가로수를 심는데 군에서 행정에서 심어서 조성한 게 아니라 그 원인자 부담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해당이 된 거예요?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가로수를 조성을 해놨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을 이설을 한다든지 그럴 부분에 이제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도 간간이 이제 발생하다 보니까 그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그러니까 그 도시 주변이나 어디 도로변에 집, 상가 주변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해당이 된 것 같은데 그런가요?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예.

○위원장 박병수

그 가로수를 집어넣는데 이제 방해가 되니까 그걸 저 나무를 죽인다든가 안 그러면 자른다든가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떤가요?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그런 부분은 이제 저희들 승낙 없이 할 경우에는 이제 사법 처리를 하는 것이고요.

대부분 가로수가 쉽게 돼 있는데 차후에 이렇게 주택을 신축한다든지 상가를 신축한 경우에 이렇게 진입로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그런 부분만 저희들이 이제 승인을 해 주고 있는 경우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산림휴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휴양과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 심사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 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유 없습니까? 이유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축조 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382호 완도군 도시 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검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수시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안번호 제3383호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수시 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383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지역개발과장 이기석입니다. 의안번호 제3383호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회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국가 어항인 약산 당목항 건설공사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따라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약산 당목항은 2021년 국가어항으로 지정된 항으로 현재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11월 오는 11월 설계를 완료하고 2026년 내년 3월 450억 규모로 공사 발주 예정에 있습니다.

매립 주요 내용으로는 방파제 390m, 물량장 88m이며 공유수면 매립 면적은 673평방미터로 약 2천여 평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본 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 위원 여러분 이유 없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

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383호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수시 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대로 찬성의견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유 없습니까? 이유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산회)

○출석위원(8인)

박병수　박성규　지　민
박재선　조인호　최정욱
허궁희　조영식

○출석공무원

관광과장	오현철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 **전문위원** : 최영미

○ **속 기 사** : 정현중

회 의 록 서 명

(제328회 임시회 회의록)

「지방자치법」 제84조제2항 및 「완도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서명함.

직 위	성 명	서 명	비 고
의 장	김 양 훈		
서명의원	지 민		
서명의원	최 정 욱		
사무과장	최 영 미		

제329회 완도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29회 완도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개회식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4월 24일(목) 오전 10시 개식

장 소 본회의장

제329회 완도군의회(임시회) 개회식순

1. 개식
2. 국기에 대한 경례
3. 애국가 제창
4.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5. 폐식

(사회 : 의사운영팀장 서을식)

(10시00분 개식)

○의사운영팀장 서을식

안녕하십니까? 의사운영팀장 서을식입니다.

지금부터 제329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자리에 앉은 채로 예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이어서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반주에 맞춰 1절을 힘차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다음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김양훈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김양훈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신우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제329회 임시회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완연한

봄기운이 감도는 4월, 새 생명이 움트는 이 계절처럼 우리 군정도 활력과 희망으로 가득하길 기대합니다. 아울러 비회기 중에도 지역 현안 해결과 의원 연구단체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주관 '2024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전라남도 주관 '2024년 지방세 이월체납액 줄이기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더불어 완도 특산품의 해외시장 개척과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 운영, '장보고 수산물 축제' 준비, 오늘부터 개최되는 '2025 전국생활체육 대축전' 준비와 감사원감사, 전라남도 종합감사 수감으로 바쁜 일정을 보내고 계시는 신우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봄철 건조하고 강한 바람으로 인해 전국에 대형 산불이 발생하여 많은 피해를 입혔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엊그제 비가 촉촉히 내렸지만, 우리 지역 역시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산불 위험이 높은 시기입니다.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완도의 아름다운 산림을 지키기 위해 행정의 철저한 예방 활동과 군민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집행부는 비상상황에 대비해 빈틈없는 대응 체계를 유지해 주시고, 군민들께서도 야외활동 시 화기 사용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속가능한 전복산업 발전과 산불 대응 상황을 점검하는 군정 질문 답변을 비롯해, 완도군의 상징인 군목을 변경하는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하게 됩니다. 의회는 군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할 책무가 있습니다. 집행부는 군정질문에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주시고, 조례안과 각종 안건에 대해서도 충분한 설명과 자료 제공으로 의회와 긴밀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완도를 대표하는 전복산업이 홍수출하 시기와 내수경기 침체로 인한 전복가격 하락과 유통과정의 불합리한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복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정책적 지원과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임시회를 시작하면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회기 중 언론을 통해 제기된 업무보고와 관련된 허위보고 논란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의회와 집행부 모두 이 사안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과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의회의 업무보고와 각종 회의는 군민의 알 권리와 권위를 보호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앞으로 모든 업무와 보고는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철저히 검토되고,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보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와 점검을 당부드립니다. 완도군의회는 군민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군민을 위한 최선의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의회와의 협력을 통해 군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행정을 실현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완도군의회는 언제나 군민과 함께하며,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군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는 완도 발전의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지

지를 부탁드리며,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운영팀장 서을식

이상으로 제328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0시09분 폐식)

제329회 완도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4월 24일(목)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329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해양치유산업의 제도 정비 및 국가 정책재정 지원 촉구 건의안
5. 군정 질문 및 답변의 건
   - ㅇ 부군수
   - ㅇ 수산경영과장
   - ㅇ 보건행정과장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29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외 8명 발의)
4. 해양치유산업의 제도 정비 및 국가 정책재정 지원 촉구 건의안(박재선 의원 외 8명 발의)
5 군정 질문 및 답변의 건(의장 제의)
- **ㅇ 부군수**
- **ㅇ 수산경영과장**
- **ㅇ 보건행정과장**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9분 개의) **○의장 김양훈**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정환

의회사무과장 최정환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민 의회운영위원장님 외 7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4월 16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 의안제출 현황입니다. 의원발의로 「완도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4건의 안건이 집행부에서는 「완도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13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양훈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1. 제329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29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25년 4월 24일부터 5월 1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순서에 따라 박재선 의원과 박병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외 8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386호의 서류를 검토해 주시고 의회운영위원회 지민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지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386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완도군의회에서는 군정에 대한 질문을 통해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군민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군정에 반영하고자,지방자치법」 제51조와 완도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양훈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지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해양치유산업의 제도 정비 및 국가 정책재정 지원 촉구 건의안(박재선 의원 외 8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해양치유산업의 제도정비 및 국가 정책·재정 지원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406호의 서류를 검토해 주시고 박재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신 후 건의안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 의원

박재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406호, 「해양치유산업의 제도 정비 및 국가정책·재정 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국내 최초로 해양치유센터를 건립하여 청정해양자원을 활용한 해양치유산업을 통해 국민건강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미흡하여 본격적인 확산과 정착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완도군의회에서 국가차원의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건의하기 위하여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제안안을 낭독하겠습니다. 해양치유산업의 제도 정비 및 국가 정책·재정 지원 촉구 건의안 완도군은 국내 최초로 해양치유센터를 건립하고 해양치유지구 지정을 추진 중인 지역으로 청정 해양자원을 활용한 해양치유산업을 통해 국민 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나아가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다양한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완도군이 추진하는 '완도형 해양치유모델'은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지방소멸 등 복합적인 사회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융합형 산업모델로서, 향후 국가 단위 치유산업 정책의 표준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해양치유산업은 제도적·정책적 기반이 미흡하고, 재정 지원 체계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본격적인 확산과 정착에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완도군의회는 해양치유산업의 제도 정비와 국가 차원의 정책적·재정적 지원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다음과 같이 건의드립니다. 해양치유 프로그램은 만성질환 예방, 심리 회복, 노인 건강 증진 등 실질적인 효과가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행위로 인정받지 못해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능하며, 공공의료체계와의 연계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해양치유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시범 적용을 도입하고, 보완대체의학 범주 내에서 제도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또한 병·의원 및 보건소 등 기존 의료체계와 연계가 가능하도록 제도 기반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치유산업의 과학적 효과 검증과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해양수산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해양기반 국민건강 증진기술'에 관한 R&D 과제를 기획하고, 국립 해양치유연구기관을 설립하거나 기존 연구기관과의 연계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아울러, 해양치유 콘텐츠 운영 인력 및 치유코디네이터 양성을 위한 국비 교육과정을 지역 대학과 연계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재정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완도군은 해양기후·산림·농업자원을 융합한 치유 인프라를 바탕으로 해양치유센터, 기후치유센터 등을 운영하며 '완도형 해양치유모델'을 구축해가고 있습니다. 이 모델을 해양수산부 주관의 국가 시범사업으로 지정하여 효과성을 검증하고, 타 지자체로의 확산을 위한 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해양치유산업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등 안정적인 재정을 기반으로 치유산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합니다. 현재 해

양치유산업은 법률적 근거가 미비하여 산업 분류 및 부처 간 정책 연계에 어려움이 있으며, 산림치유·농업치유 등 유사 산업과의 연계도 제한적입니다. 이에 해양치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명확히 하고, 해양수산부·보건복지부·산림청·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가 협력할 수 있는 융합형 산업정책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해양치유사업에 대해 공공의료·환경자원·지역경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계획 수립과 평가체계를 제도화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과제들을 신속히 추진함으로써 해양치유산업이 국민 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러한 제도적 기반과 정책적·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완도군의 해양치유산업은 물론, 전국적으로 해양치유산업의 발전 가능성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는 해양치유산업이 실패한 정책으로 전락할 위험을 의미하며, 그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은 매우 클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완도군의회는 해양치유산업의 제도 정비와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적·재정적 지원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검토를 건의드립니다.

하나, 해양치유서비스의 건강보험 시범 적용과 의료 연계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해양치유산업에 대한 국가 주도의 연구개발투자와 전문 인력 양성 체계를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완도형 해양치유모델'을 국가 시범사업으로 지정하고, 해당 모델이 타 지자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해양치유산업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부처 간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융합형 산업정책 체계를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해양치유산업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국가 차원의 재정적 지원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4월 24일 완도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양훈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재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 군정 질문 및 답변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양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정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군정 질문 및 답변은 군정 현안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군민의 알권리를 실현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의사진행요령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의원님별로 일괄질문을 실시하고, 집행부 답변을 들은 후, 일문일답으로 보충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완도군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발언시간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고, 의제 외의 발언은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동일 의제에 대하여 2회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발언 횟수와 시간 범위 내에서 질문해 주시고 보충질문은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성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규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완도군민 여러분! 김양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신우철 군수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성규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이번 임시회에서 위기에 처해있는 완도전복산업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대하고 이 위기를 헤쳐나갈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군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행부에 성실한 답변과 최선의 대안마련을 위한 소통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수산경영과장에게 전복1번지 완도 지속가능한 생존전략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완도군 전복산업은 어업의 중추이자 지역경제의 핵심기반입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동안 급격한 기후변화 전복가격하락, 홍수출하등 여러가지 어려움에 직면하여 전복양식허가 생계가 위협을 받고있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4월 9일 전복산업발전을 위한 어업인 결의대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복협회 회장님의 절절한 호소문 중에 한 문구가 머릿속에 남아있어 읽어보겠습니다. “주변의 봄꽃들은 화사하게 피었지만 전복양식 어가의 마음은 아직 한겨울” 이라고 했습니다. 이 짧은문구에 많은 내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식처럼 키운 전복을 생산원가도 못 건지는 현실, “출하날짜를 잡아주겠다”는 명목으로 덤을 요구하는 유통의 횡포, 말 한마디 못하고 당해야만 하는 전복양식 어가의 현실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됩니다. 전복협회장님의 말씀처럼 더이상 비운하지말고 하나로 뭉쳐야 하고 행정과 의회가 그 버팀목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생산자와 유통간 상생 또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생산자는 고생한만큼 정당한 가격을 받을 수 있어야하고 유통업자 역시 시장논리에 맞게 적절한 가격과 소비자에 맞는 경쟁력을 갖춰야합니다. 생산과 유통소비가 하나의 체계로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행정의 지원과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다가오는 미래변화에 능동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하여 완도전복산업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오늘 답변을 통해 완도 전복산업이 직면한 위기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지속가능한 생존전략과 생산유통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수산경영과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양훈

박성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양훈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신우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민 의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중대한 갈림길에 서있습니다. 다가오는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은 변화와 개혁을 이야기하지만 정작 군민한분, 한분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힘은 이 자리, 이 현장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군민의 삶에 실질적인 참여를 만드는 정책은 거창한 말보다 당장 아플때 병원에 갈 수 있는지, 어르신들이 노년을 준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와 가장 기본적인 일상에서 출발해야합니다. 완도군은 54개의 유인도를 가진 도서해양군입니다. 이러한 지리적 특성상 공

중보건의는 지역기초진료의 핵심축이 되어왔지만 여성 의사증가 복무기간단축 의정갈등등으로 전국적으로 공중보건의의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행히 올해 완도군은 37명의 공중보건의를 배치 받았지만 앞으로의 상황을 고려할 때 향후 공중보건의사의 인력대체를 위한 장기적방안 수립이 필요합니다. 또한 완도군에는 의원이 한곳도 없는 읍면이 4곳, 보건진료소조차 없는 섬이 20여곳에 달합니다. 그나마 운영중인 보건지소나 진료소도 인력이 부족해 기능제한, 시설노후문제를 안고있습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완도군에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병원을 찾는일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불가능에 가까운 현실이 되어버린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아파도 참고 산다. ” 그런 말이 섬지역 어르신들의 입에서 쉽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근본적인 점검과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보건행정과장님께 의료취약지 해소를 위한 보건의료 인프라대상방안에 대해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자리에서 완도군에 보고드릴 정책이 실효성있게 점검되고 군민모두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양훈

지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군민이 신뢰하는 든든한 의회를 펼치고 계시는 김양훈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신우철 군수님을 포함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병수 의원입니다. 지방자치시대란 중앙정부중심의 통치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주민이 지역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해결하는 민주적 체계를 말합니다. 또한 민주주의심화와 국민주권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주민이 정책의 수동적 수혜자가 아니라 정책결정과 실행의 주체가 되어야한다는 필요성으로 읍·면·리단위 말단 행정조직에서도 주민의 참여의견을 반영하도록 즉,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의 장으로서 주민자치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역문제 등 지역특성에 따라 주민 스스로의 참여와 판단아래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행정기관의 일방적인 집행보다 주민의 참여를 통해 정책수용성을 높였고 다양한 계층의 주민이 협의·협력하며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공동체의식을 강화하며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높여왔습니다. 자치역량이 높아질수록 주민은 자신의 권리뿐 아니라 책임감도 인식하게 되는, 이는 곧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시민의식 즉 시의적절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능력이 민주주의의 실질적 기반입니다. 성숙한 시민의식은 민주주의를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며,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키는 원동력일 것입니다. 지난해 겨울 우리는 갑자기 불어닥친 추운날씨와 더불어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 반민주적으로 더 혹독한 시기를 보내야했습니다. 불법적인 계엄의 극복과정에서 보여준 시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수행은 절대권력인 국민의 의사를 거스른게 어떤 결과를 낳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불법적이고 반민주적인 행태를 이겨내는 힘은 주민들이 자치역량에서 출발한 높은 시민의식의 발로가 아니었나싶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방자치를 활성화하고 민주주의를 더욱 탄탄히 실현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주민들이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이 기구는 지역발전의 중심이자 민주주의의 현장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군정질문을 통해 우리군의 주민자치위원회구성과 운영현

황은 어떠한지,주민자치위원회의 자격기준은 무엇이며,공정성과 대표성이 보장되고 있는지, 주민자치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운영실정은 어떠한지, 향후 발전방향은 무엇인지 묻고싶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주민자치의 내실 있는 운영과 주민들의 자치역량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길 바라며 이러한 노력이 곧 지방자치의 진정한 실행이고 우리지역의 시민의식과 공동체강화를 더욱 굳건히 하는일이라 믿고,본의원의 질문에 대해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양훈

박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궁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궁희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군민의 작은 소리도 귀기울이며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양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신우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허궁희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3월 대형산불로 인해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분 아픔을 군민모두와 함께 나누며 더 이상의 희생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완도는 청정한 자연환경을 자랑하며 푸른산과 바다 그리고 아름다운섬들이 어우러진 고장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소중한 자연조차 기후의 변화에 의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봄과 가을철 대기는 더욱 건조해졌고 알 수 없는 강풍도 잦아지면서 산불위험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3월 21일 산청군을 시작으로 전국에 발생한 산불은 불과 일주일 사이 피해면적이 서울면적의 80%에 이르는 480,000ht에 이르렀으며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소중한 문화유산이 소실되는등 참담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안타까운점은 이처럼 반복되는 대형산불의 원인이 대부분 입산자의 실화로 담뱃불, 불법소각, 캠핑장 취사등 인간의 부주의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연재난이라는 인재로 일어난 점에서 우리모두가 깊이 반성하고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할 때입니다. 산불은 한순간에 우리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으며 복구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 그리고 군민의 고통이 따릅니다. 산불은 발생한 이후의 대응도 중요하지만 사전예방과 신속한 조기진화 그리고 주민과의 유기적협력 책임마련이 핵심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군정질문을 통해 우리군이 변하는 기후변화에 따라 산불위험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으며 예방중심의 산불관리 체계구축을 위해 실질적인 대책수립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자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군민의 안전을 행정의 최우선가치라고 생각하여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성있는 산불대응 방안을 제시해주기 바라며 책임감 있고 성실한 답변을 통해 군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양훈

허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군수님 나오셔서 한건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부군수 이범우

안녕하십니까? 부군수 이범우입니다.

존경하는 박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실태』에 대해 답변 드리겠

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현황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어 자치역량을 발휘하여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함으로써 지역공동체 가치 회복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완도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2년도를 마지막으로, 12개 전 읍면에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이 완료되었으며, '25년 4월 8일 기준으로 위원장 및 고문을 포함한 총 306명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전체 위원 중 약 35% 정도가 여성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등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자격 및 위촉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조례 제17조에 따라 위원회 구성에 따른 위원수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총25인 이내로 구성됩니다. 고문은 별도로 3인 이내, 읍면이 속한 선거구에서 선출된 군의원은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습니다. 당연직이 아닌 위촉직고문은 당해 읍면사무소의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자를 위촉하여야 합니다. 위원 자격은 읍면사무소 관할 구역에서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 각급 학교, 이장 대표, 교육·언론·문화·예술·기타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자, 공개모집 방법에 의해 선출된 후보자를 자격대상으로 읍면장이 위원을 위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합니다. 위원의 해촉은 조례 제20조에 해당되는 경우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읍면장이 해촉 할 수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역량강화를 위한 운영 현황 및 주요 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 역량강화 추진을 위해 찾아가는 읍면 주민자치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2년부터 '25년까지 연1회 이상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자, 위원회별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교육기관과 총 4500만원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약1,000명의 주민자치위원들에게 역량강화 교육을 제공하였습니다. 올해에는 금당면을 마지막으로, 4월 말까지 주민자치 역량강화 교육을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주민자치 선진지 견학 지원입니다. '22년부터 '24년까지 13회, 총 32백만원의 선진지 견학 예산을 지원하였으며,타지역의 주민자치 우수사례 등을 벤치마킹하여, 우리지역에 우수한 정책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올해는 추경을 통해 선진지 견학 예산을 반영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완도군 주민자치협의회 출범입니다. 완도군 주민자치협의회는 '지역공동체 가치 회복 및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우리군과 상생·협력하는 협의체입니다. '23년 12개 읍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정책간담회를 통해 주민주도 풀뿌리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완도군 주민자치협의회 출범을 논의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23년 8월 완도군 주민자치협의회가 출범하였으며, '24년 5월 제1대, 제2대 회장단 이·취임식이 개최되었습니다. 군과 주민자치협의회가 상호·협력하여 지역을 대표하는 주민대표 창구 역할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치협의회가 구성된 후 위원회의 소통과 화합이 증대되어 전남도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프로그램에 7년 연속 선정되었으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다양한 공모사업을 발굴·선정하는 등 자치 역량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남도-시군

주민자치 역량강화 워크숍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타 지역과 교류를 통해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24년 워크숍에서는 완도읍 주민자치위원회 우수사례를 발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읍면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실적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산도 슬로시티축제와 으뜸마을 만들기를 연계한 진산마을 폐교활용 사진전을 추진하고'완도 방문의해'를 맞이하여 타 지역 주민자치위원회가 완도를 방문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 실적으로는 '전남도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프로그램 사업'에 보길도 표고버섯 나눔 및 판매사업, 청산도 여성 국제 예술학교가 선정되었으며,'전남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약산 지역 초중고 독서지원사업 등 다양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6월부터 선진지 견학,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완도 방문의해 홍보, '26 Pre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지원등 군정발전을 위해 군과 읍면 주민자치위원회가 함께 상생·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실태』에 대해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양훈

박병수 의원님의 본안 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박병수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의원

부군수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병수 의원입니다. 1998년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정부의 정원을 축소한다는 행정개혁과정에서 읍,면,동 등의 남는공간에 문화 복지 여가등을 위한 각종 시설을 설치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민들의 삶의질을 높이고 지역의 현황과 지역발전등을 활발히 논의하는 참여자치공간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했습니다. 이 주민자치센터에는 읍·면·동사무별로 주민자치 운영위원회가 구성 운영되었고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시범 실시 과정을 거쳐 2003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되면서 주민자치활동이 본격화되었는데, 우리군도 이런 추세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중인 것으로 알고있는데 부군수님 운영현황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범우

우리군 주민자치위원회는 앞서말씀 드린바와 같이 '지역공동체 가치 회복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완도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2년도 군외면을 마지막으로, 전 읍면에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이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4월 기준으로 위원장(12명) 및 고문(31명)을 포함한 총 306명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병수 의원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기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별표 현황을 보니까 기간이 12월 31일로 되어있는데 유일하게 모 읍면만 12월 19일인데 여기에 따른 이유가 있습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범우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할 것같습니다. 확인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병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읍면에 구성된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로 어떤 활동을 합니까?

○부군수 이범우

주민자치위원회는 「완도군 주민자치센터 설

치 및 운영조례」 제16조에 따라 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박병수 의원

본 의원도 주민자치위원회가 지역주민과 행정의 가교역할을 하고 때로는 행정을 주민 스스로 메워가면서 지역주민의 자치역량을 키우고 있어 지방자치의 한 축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우리군 주민자치위원회가 타 지자체 활동과 비교해서 차별성을 갖는 부분이 있습니까?

○부군수 이범우

도서지역으로 이루어진 우리군은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전문교육기관을 통해 '찾아가는 주민자치 역량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부터 읍면의 지역특성을 반영한 '완도군 주민자치센터 맞춤형 프로그램 공모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2016년부터 시작된 '전라남도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프로그램 공모사업''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등 지금까지 36개의 공모사업에 선정·발굴하여 "2억7,4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고,전라남도 역점시책 사업인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에도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연속 우수시군으로 선정되었십니다. 이는 우리군 주민자치위원회가 타지역에 비해 차별성을 갖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병수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 군이 전라남도 주관한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프로그램에 7년 연속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부군수 이범우

예. 맞습니다.

○박병수 의원

2017년 완도읍을 시작으로 2019년부터 2025년까지 7년연속 여러 읍면이 공모사업이 선정되었는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취약계층을 위한 밑반찬 나누기 및 문화혜택 기회제공 좁은 환경개선사업과 공원환경정비등 우리고장 가꾸기, 보이스피싱 예방 및 안전교육,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폰과 컴퓨터 활용 방법등 폭넓은 활동뿐 아니라 내용도 참신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만큼 군민들이 주민자치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많다는 방증인데 앞으로 이런 주민자치위원회 역량을 더 끌어올리고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의 뒷받침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군수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부군수 이범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앞으로 우리군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역량강화를 위해 위원 대상 전문교육 강화, 각종 공모사업 컨설팅 지원과 주민자치 한마음대회 개최 등 완도군 주민자치협의회와 상생·협력을 통해 행정적인 뒷받침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박병수 의원

예. 주민자치위원회가 지방자치의 한축으로 모범 쪽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회 구성의 다양성 주민공동체의식 지역발전에 의한 주민들의 연대의식등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주민자치위원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부군수 이범우

예. 기본적인 자격은 읍면에 거주하면서 봉사정신과 덕망이 높고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수 의원

행안부에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준칙

및 완도군의 완도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조례를 살펴보면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3인 이내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읍·면장은 당해 읍·면사무소의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추천 또는 선출된 후보자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하며 고문은 읍·면장이 위촉하되, 당연직이 아닌 고문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당해 읍·면사무소의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자를 위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군수님 제가 방금 언급한 내용이 맞습니까?

○부군수 이범우

예. 의원님이 언급하신 내용이 조례에 규정되어있습니다.

○박병수 의원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말한 위촉에 의미를 부군수님은 알고계십니까?

○부군수 이범우

예, 한자어로 위촉은 위(맡길 위), 촉(부탁할 촉)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업무를 부탁하여 맡기는 것' 을 의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병수 의원

맞죠. 국어사전에 '위촉'은 '어떤 일을 남에게 부탁하여 맡게 함' 이라고 되어 있으며, 법률 용어를 다루는 법안 실무를 살펴보면, 위원을 지명할 때 행정기관의 장이 자신이 속한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위원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직을 명하는"지명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민간을 위원으로 하는 경우에는 상대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위촉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부군수 이범우

예. 부군수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박병수 의원

그 대표적인 예로 「완도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를 살펴보면, 당연직 위원은 각 실장·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 군수가 위촉한다라고 돼있습니다. 이처럼 위원회 등의 구성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과 외부인사를 '지명'과 '위촉'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앞서 제가 언급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나 고문을 행정기관의 장인 읍면장이 본인을 위촉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군수 이범우

고문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당해 읍·면사무소의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자를 위촉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자치위원회 역량강화를 위해 고문으로서 능력을 갖추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위촉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읍면장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관련 조례에 따라 근거하는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병수 의원

본의원의 생각은 조례를 위반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말이 틀립니까? 읍면장이 본인을 위촉한다면 어떻게 되냐 생각해보세요. 어떻습니까?

○부군수 이범우

저도 조례를 잘 검토를 해봤습니다. 위반했다기보다는 '적절치 않다. '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의원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보

시기바랍니다.

○부군수 이범우

예. 알겠습니다.

○박병수 의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관내 주민 중에서 위촉하게 돼있는데, 읍면장인 본인이 본인을 지명도 아니고 위촉하는 게 관련 규정이나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궁금한데, 방금 말씀하신것과 같죠? 그런데 이런 행위가 실제 일부 읍면에서 실행되고,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데 그 실태를 알고계십니까?

○부군수 이범우

예. 알고 있습니다.

○박병수 의원

만약 이러한 게 사실이면 행정을 관장하는 공무원으로서 행정실무 용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저지른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행정기관의 장이 자신을 주민자치센터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여러 가지 법적·윤리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군수님 어떤가요?

○부군수 이범우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앞으로 읍면장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조례등을 적법하게 이행하고 법적 제도적 인식 개선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올바르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수 의원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키우게 할 행정기관의 장이 위원회에 직접 참여하여 개입하는 것은 제도의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주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무책임한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국 이런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수반할 수 밖에 없는데 첫째, 자기결정의 불공정성입니다. 주민자치를 위해 설립된 위원회에서 행정기관의 장이 본인을 위원이나 고문으로 참여하는 것은 자칫 공정성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책임의 모호성입니다. 위원회의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행정기관의 장이 자신이 위원이나 고문으로 참여하는 경우 그 결정의 책임이 모호해질 수 있습니다. 본인이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동시에 두가지 장으로서 책임을 질 경우 결정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게 어려운일 일수 있습니다. 셋째, 법적 제한입니다. 공공기관에서 특정직의 인물이 자신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을 제안하는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직자의 경우 동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법령이나 규정상 자기위촉이 금지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넷째, 외부의 신뢰도 하락입니다.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설립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행정기관의 장이 위원으로 참여하면 외부의 사람들이 그 위원회의 결정을 신뢰하지 않을 위험이있습니다. 특히 정치적이나 행정적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섯 째, 위원회의 목적과 역할우선입니다. 위원회의 주요목적은 객관적인 판단을 통해 주민자치역량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관의장이 위원으로 참여하면 위원회의 역할이 그자체로 왜곡될 수 있고 독립적인 의견을 제시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기관의장이 명확한 근거가 없음에도 자신을 위원이나 고문으로 위촉하는 것은 공정성, 법적규정 그리고 윤리적문제와 조직의 신뢰를 헤칠 위험이 있어 신중하게 다뤄야할 문제입니다. 본의원이 언급한 내용에 대해 부군수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범우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앞으

로 그런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민자치위원회의 지도를 세심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수 의원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읍면별로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됐지만 일부 읍면을 제외한 나머지 읍면은 프로그램 운영이나 활동실적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읍면별 주민자치위원회가 고르게 발전할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가요?

○부군수 이범우

예. 맞습니다. 읍면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와 소통하고 의견수렴을 통해,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발굴하여 읍면별 주민자치위원회가 고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박병수 의원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타 지자체와 교류 및 협력을 추진하는 것은 지역간 상생발전과 주민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중요한 전략일 것 같습니다. 다른 지자체의 우수사례와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운영역량과 지자체의 질을 향상시키고 다양한지역의 경험을 접하며 지역특성에 맞는 자치모델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타지자체의 성과에 상호학습과 동기부여로 더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군 주민자치센터의 타 지자체 교류실적은 어떤 것인지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범우

완도읍을 비롯한 6개 읍면이 제주시 추자면과 담양군 수북면을 포함한 13개 지자체 지역와 업무협약 및 자매결연을 통해 매년 1~2회 상호방문 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의원

주민자치 교류실적을 보니 완도군을 제외한 나머지 읍의 실적은 부족한 것같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간 네트워크 형성은 지역주민의 자치운영강화뿐 아니라 지역상품의 판로확대로 새로운 소비시장을 개척하는 경제적 효과도 발생할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 1읍면당 1-2개 정도로 타 지자체 주민자치위원회와 교류 활성화를 권장하면 좋을 것 같은데 부군수님 생각은 어떤가요?

○부군수 이범우

의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2025년 완도 방문의해를 맞이하여 타 지자체 주민자치위원회와 교류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완도군 주민자치협의회와 협의해 적극 검토·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수 의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교류협력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상호 간 워크숍이나 문화교류 등 정기적인 교류프로그램이나, 유사한 관심사에 대한 공동의 자치사업 기획과 실행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나아가 오프라인 네트워크에서 벗어나 온라인 플랫폼이나 SNS를 활용한 정보공유와 커뮤니티 활성화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도 고려해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범우

예. 알겠습니다.

○박병수 의원

주민자치위원회는 민간이 함께 만든 협치의 공동체라는말이 있습니다. 지자체의 행정집행과 지역주민의 자치교육은 궁극적으로 주민들의 행복발전과 공정을 향한 것으로 서로가 별개가 아니라 함께 가야한다는 것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능동적으로 주민자치를 구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의 문제를 공유하며 집단지성으로 함께 해결하는 과정에서 공감과 연대를 바탕으로 공동체를 강화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확산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의제의

출발은 공정하고 합리적이나 공동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이러한 사항을 모두 헤아려 주민자치위원회가 지역주민의 자치행정을 강화하고 건전한 시민의식으로 이어져 지역사회을 발전시키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부군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범우

예.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읍면 주민자치위원회와 같이 협력해서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 등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수 의원

부군수님, 본안 질문과 관련은 없지만 모처럼 군정발전에 대해 깊이있는 시간을 갖는 김에 본의원이 의정활동과 관여해 접한 주민들의 여론을 전달해보겠습니다. 올 봄 완도군은 불법경영과 대통령 탄핵정국으로 인한 어수선한 국내정서로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풀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전국민을 대상으로 민생회복 지원금을 선제적으로 지원했습니다. 계절적 영향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시기에 추진한 민생회복지원금은 국민들의 가벼운 주머니를 채워주며 모처럼 얼굴에 웃음꽃을 피게 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군 전체 지급대상 4만 5,582명중 1,924명이 미신청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미신청 사유를 살펴보면 병원입원, 장기출타 ,인지부족 등 안타까운 사연이 많습니다. 지난 코로나19 시기에 우리군은 군민들에게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하고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원을 받지못한 군민들을 구제하기 위해 한차례 기한을 연장해서 많은분들로부터 호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제가 읍면에 다니다보니 미신청에 대한 고지를 원하는 군민들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난 재난지원금의 사례에 비추어 민생회복지원금도 이러한 사례와 접해서 정책의 수혜를 보다 많은 군민들이 받을 수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 부군수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범우

예.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연장건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동의합니다. 다만 지금 타 시군도 연장사례가 없고, 또 종료시기가 20여일이 지난 시점에서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해볼 때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지원금사례가 발생하면 저희들도 집행률제고에 홍보등을 통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수 의원

제가 지금 타 시군 사례를 자료를 안 가져왔습니다만 타 자치단체에서는 5일, 10일 연장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부군수 이범우

아, 그렇습니까?

○박병수 의원

예.

○부군수 이범우

한 번 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박병수 의원

파악을 해보시고 군민들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외받은, 못받은 사람들은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있어요. 권고를 했다고 하는데 권고로 끝날 사항이 아닙니다. 권고를 그 사람들이 보겠습니까? 그 부분을 감안해서 심도 있게 반영토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범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수 의원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칩니다.

○의장 김양훈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영식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 의원

부군수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안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한가지 검토해 달라고 부탁말씀 드리면서 혹시 주민자치회라고는 들어봤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주민자치회가 있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처음 들어보시나요?

○부군수 이범우

조례를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조영식 의원

주민자치위원회는 25인 이내의 지금 인원구성 때문에 검토해달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25인 이내죠. 주민자치회는 50인 이상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가기를, 선진로컬로 가기를 주민자치위원들이 갈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남 장성, 광주, 순천의 주민자치회는 50인 이상으로 되어있거든요? 우리군 조례는 총 25인 이내로 구성된다고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가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검토해달라"라는 말씀드리면서 주민자치회로 가면 예산의 범위도 달라지고 공모사업할 수 있는게 많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가 차별화 되어있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가는게 우리가 가야할 일이에요. 그래서 '위원회구성이 총 25인 이내로 구성한다' 이 대목이 앞으로 걸림돌이 되니 주민자민자치회로 가기위한 검토를 해달라고 말씀드립니다.

○부군수 이범우

예. 알겠습니다.

○조영식 의원

검토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담당하는 실과도 있을텐데 제가 2023년도 광주, 장성, 여수, 순천을 보니까 그분들이 상당한 주민자치위원회보다 주민자치회, 50인 이상 구성되어 자부심이 상당하더라고요. 또 예산도 달라지고하니까 검토해서 이부분에 대해서 숙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범우

조례가 개정이 필요하면 검토해서 주민자치회로 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식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양훈

부군수님 계속해서 허궁희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범우

다음은 허궁희 의원님의 산불대응 체계 개선방안 마련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5년간 산불 발생건수 및 주요원인에 관한 사항입니다. 최근 5년간 우리 군에서 발생한 산불은 총 8건이며 이로 인한 피해 면적은 0. 94ha입니다. 연도별 산불발생 건수는 '21년 이후 총 8건이며 '25년은 현재까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주요원인은 쓰레기소각 3건, 입산자실화 2건, 담뱃불 1건, 원인미상 2건 등으로 대부분 인위적 요인에 의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불법 소각단속 및 처벌내용입니다.

산림 연접지역에서의 불법 소각 행위는 「산림보호법」 제57조 제3항 규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대상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차량 가두방송과 마을 홍보방송 등으로 지속적인 계도 관리를 하고 있지만 농촌 실정상 농산 폐기물 소각, 마을 간이 쓰레기장에서의 무단 소각 등이 발생하여 최근 5년간 총 5건을 단속, 과태료 21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완도군 산불 대응 체계 및 장비현황입니다. 우리 군은 산불 대응을 위해 매년 11월 1일부터 이듬해 5월 15일까지 산불방지종합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산불발생 시에는 진화장비와 인력이 즉시 투입될 수 있도록 완도경찰서, 해경, 소방서, 산림조합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 발생 시에는 현장 조사와 복구계획 수립등을 신속히 추진토록 부서별·기관별 업무 분담을 통해 추진하는 등 사후대책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3월 22일 15시 30분 국가 산불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발령됨에 따라 해제 시까지 우리 군은 재난안전대책본부 체제로 전환하고 군 소속 공무원 4분의 1 이상 비상근무를 실시하였으며 경보별 조치기준에 의하여 입산통제구역 지정 고시와 관내 등산로를 전면 폐쇄하고 임차 헬기를 통한 공중감시 활동과 산림 연접지 불법 소각 행위 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마을 앰프 방송과 차량 가도 방송을 매일 수시로 전개하는 등 산불예방 활동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현재까지 우리 군은 올해에 단 1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장비현황입니다. 우리 군은 임차 헬기 1대와 진화차 28대, 동력펌프 45대 등을 비롯한 총 11종 2,123점의 산불 진화 장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0페이지, 산림인접지역 CCTV 현황 및 감시인력 산불발생 시 조기발견으로 산불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감시가 용이한 상왕봉 등 8개소에 고정형 CCTV를 설치하여 실시간 산불대응센터에서 감시 중이며 모든 카메라는 200만 화소 해상도에 원격 회전 제어가 가능한 장비로 산불 조기 발견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68명과 택시, 택배기사 등 민간인 산애(山愛) 감시원 28명 등 총 96명이 산불 감시와 진화 인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완도군은 완도군청 외 4개 민방위 경보시설과 완도군청 외 3개 지진해일 경보시설, 총 9개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또한, 재난경보 알림의 취약함을 해결하고자 재난 발생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달하기 위한 스마트마을 방송 시스템을 운영 중입니다. 산불 재난 발생시 상황 전파하여 스마트폰 및 옥외스피커를 통한 주민 대피 방송 안내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 대피와 관련해서는, 산불 재난이 발생하면 군민들은 완도군 비상대피 계획에 따라 대피시설로 지정된 12개소에 각 마을 민방위 유도대원들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이동하게 됩니다. 우리 군은 앞으로도 사전 감시 체계, 즉각 대응이 가능한 인력과 장비, 그리고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아 사계절 안전한 산림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양훈

허궁희 의원님의 본안 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허궁희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궁희 의원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부군수님 우리군은 토지의 65% 이상이 산림이고, 섬이라는 지리적 특수성 상 산불 발생시 진화와 대피가 매우 어려워 산불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부군수 이범우

동의합니다.

○허궁희 의원

최근 타 지역에서 입산자의 부주의와 강풍 그리고 산림 관리 미흡으로 인해 대형산불이 발생했으며, 작은 불씨 하나가 수십 헥타르의 산림을 태워버렸습니다. 특히, 우리 군은 산림치유를 위한 국립난대수목원 조성을 준비하고 있어 산불로 인한 피해는 군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지역 경제와도 직결되어 있어서 더더욱 산불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 시점에서 우리 완도군의 산불 발생 실태를 되짚어보고 대응 체계를 전반을 면밀히 점검·보완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부군수님, 최근 산불로 인해 12개 읍면 산불대응 현장 점검을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부군수 이범우

의원님 말씀처럼 우리군도 국가 산불 위기경보 '심각' 단계 발령에 따라 지난 3월 29일부터 제가 직접 청산면, 완도읍, 군외면, 약산면 등 읍면을 방문해 산불 대응 현장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허궁희 의원

참 잘하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아직까지 한건도 산불 발생이 안된 계기가 된 것같습니다. 답변서를 보시면, 완도군 최근 5년 산불 발생건수가 평균 2건 정도 산불이 발생 했죠?

○부군수 이범우

예. 그렇습니다.

○허궁희 의원

요인은 쓰레기 소각, 입산자의 실화, 담뱃불 등이네요, 그런데 미상 2건인데 이건 행정에서 파악을 못했더라고요?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군수 이범우

예. 2건이 있습니다. 1건의 경우에는 고압선 스파크에 의한 발화로 추정되나 정확한 원인 규명이 현재 되지 않았고 나머지 1건은 산림내 발화건으로 인지하고 있는데 가해자를 검거하지 못하여 입산자에 의한 실화인지 방화인지 판단이 어려워 정확한 발화 원인을 규명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허궁희 의원

앞으로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범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궁희 의원

그리고 산불이 봄철 영농 준비기간에 집중됩니다. 그렇다면 사전 예방 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부군수 이범우

의원님 말씀처럼 봄철은 영농 준비와 산불 조심기간이 중첩되는 시기로, 불법 소각이나 부주의로 인한 산불 발생 위험이 매우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마을방송과 차량 가두방송을 전개하고 산불전문 예방진화대원을 담당구역에 배치해서 불법 소각에 대한 집중단속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허궁희 의원

예. 잘 알고계십니다. 또한, 5년간 불법 소각 단속 건수와 적발 건수 그리고 행정처분 및 과태로 부과 건수가 2021년에는 4건에 200만원, 2022년은 1건에 10만원인데 그 이후에는 실적이 없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군수 이범우

열심히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만 농사하신 분들이 소각을 많이 줄이고 있다는 관점으로 생각합니다.

○허궁희 의원

그러면 그만큼 예방의 만전을 기했다고 답변하십니까?

○부군수 이범우

예. 그렇습니다.

○허궁희 의원

앞으로 더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불법 단속체계가 읍면 자율에 맡겨진 구조인가요, 군 차원에서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까?

○부군수 이범우

평상시에는 불법 소각 단속은 읍면별로 자율적으로 수행되는 구조이고 산불재난위기경보 심각 단계 발령시에는 군차원에서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허궁희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화면 한번 띄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하동 산불시 24시간 만에 진화가 되었는데 임도가 잘 갖춰져 있어 인력과 장비가 손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 큰 도움이 됐다는 내용이거든요? 우리군도 산불진화 임도 정비 및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부군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부군수 이범우

우리군 역시 산불진화임도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연차별로 계획에 따라 적극 확대해나가고 앞으로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허궁희 의원

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부군수 이범우

예. 그렇습니다.

○허궁희 의원

전문가 연구에 따르면, 임도로부터 거리가 1m 멀어질수록 산불 피해 면적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산불진화 임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읍면 산불위험 지역을 전수조사를 해서 단계적으로 산불임도 사업을 계획하여 반영해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부군수 이범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궁희 의원

이어서, 부군수님 우리군은 산림간벌과 간벌목 처리를 어떻게 해가는지 답변해주시겠습니까?

○부군수 이범우

간벌사업은 과거 산불발생지역과 민가 또는 대단위 경작지 위주로 산불예방 숲가꾸기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간벌목에 대하여는 불쏘시개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간벌목 수집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 예산확보에 도움을 주시면 사업비를 확보해 간벌목처리에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궁희 의원

완도군도 침엽수림과 혼합림으로 구성되어 있고, 소나무는 불이 잘 붙을 뿐만 아니라 오래 지속되는 특성이 있어 산불이 발생하면 급속히 확산될 우려가 큽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간벌을 해주시고 그 내용을 의회에 보고도 해주시면 아마 예산확보에 도움이 될 겁니다.

○부군수 이범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궁희 의원

또한, 산불 취약지를 대상으로 숲가꾸기사업을 하고 있죠?

○부군수 이범우

예. 그렇습니다. 24년에는 77ha를 추진하였고 올해에는 61ha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허궁희 의원

많이 추진하고 있네요?

○부군수 이범우

예. 그렇습니다.

○허궁희 의원

대상 지역을 더욱더 확대하고 방치된 간벌목이나 재선충처리목 등은 신속하게 처리해주시고 우리군 현실에 적합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주시면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부군수 이범우

예. 알겠습니다.

○허궁희 의원

그리고 우리군 산불 진화용 임대헬기가 1대 있죠? 타 시군에 비해서 부족함은 없나요?

○부군수 이범우

현재 대부분의 시군은 3개 시군 이상으로 권역별로 헬기를 공동으로 임차하여 운영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군은 임차헬기 1대를 단독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타 시군대비 빠른 대응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허궁희 의원

최근 산불진화의 한계점을 교훈삼아 대형산불 시 확산을 방지할 대형 소방헬기 지원 체계를 간소화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현재 어떤 방식으로 지원 요청이 나오는지 답변해주십시오.

○부군수 이범우

우리군 단독으로 임차헬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산불발생시 즉시 활동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형산불이 확산우려가 있을 시는 전남도에 산림청 헬기를 지원 요청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허궁희 의원

네. 산림보호법 제15조 제1항에서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산림보호 등을 위해 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사람과 차량 출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완도군에도 입산통제기간 및 화기물 소지 금지기간을 지정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엄격한 군민 행동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부군수 이범우

예.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실행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궁희 의원

또한, 매년 군민들의 실화에 의한 산불 발생 심각성을 깊이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도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겠습니까?

○부군수 이범우

예.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읍면하고 산불진화대원 산불과 관련된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화도록 해서 산불이 한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궁희 의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산림인접민가, 논, 밭 등에서 이루어진 불법 소각으로 인한 산불 사례를 영상으로 제작하여, 읍면 이장회의 시 방영하여 직접 안내하고 계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농협과 산림조합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전 군민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계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군수 이범우

전적으로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실제 사례를 접목해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궁희 의원

그리고 최근 대형산불로 경남 산청에서 60대 산불진화대원 3명과 인솔 공무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보

셨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군 산불진화대원은 본청, 읍면 나누어서 아까 96명 정도 확보하고 있다고 했죠? 그럼 그분들의, 산불진화대원 근무기간과 보수조건을 말씀해주시겠습니까?

○부군수 이범우

예.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의 근무기간은 매년 산불조심기간인 봄철과 가을철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수는 1일 8만 240원이며, 5일 연속 근무 시 주휴수당이 지급되고, 주말 또는 공휴일 근무 시에는 휴일수당으로 1. 5배의 수당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허궁희 의원

하루 8만 240원 최저시급이네요. 이분들이 산불에 대한 전문성은 가지고 있지 않죠?

○부군수 이범우

예. 약간 전문성은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허궁희 의원

그러면 채용은 읍면의 재량에 따라 하고 있나요?

○부군수 이범우

예. 현재는 읍면 재량에 따라 고용하고 있습니다.

○허궁희 의원

그래요. 우리 진화대원의 하루 일당 너무 낮습니다. 국비가 부족하면 군비를 추가적으로 도입하더라도 전문성을 갖춘 분들을 확보를 하고 이들의 처우개선도 해줘야 앞으로 이런 분들이 근무를 희망할거에요. 이런 부분도 한번 우리군에서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범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궁희 의원

그리고 산불진화대원들 자체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읍면을 가보면 산불차량부터 해서 산불장비가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점검 하셔서 장비관리교육이랑 노후화된 산불장비를 즉시 보강조치 해줘야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부분도 다시한번 점검해 보시기바랍니다.

○부군수 이범우

예. 알겠습니다.

○허궁희 의원

이어서 완도군 산불감시 CCTV는 8개 시설되어 있다고 아까 보고 했죠?

○부군수 이범우

예. 그렇습니다.

○허궁희 의원

그러면 보고에 빠진 금일, 청산, 보길, 금당은 빠진 이유가 뭡니까?

○부군수 이범우

청산, 보길의 경우에는 국립공원과의 협의가 진행중에 있어서 설치하지 못했고, 나머지는 산림면적, 접근성, 산불발생이력, 인구 분포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확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궁희 의원

적극 검토해 보시기바랍니다. 그리고 산불CCTV는 입산자 확인용 CCTV가 아닌데 통합관제센터랑 연계가 안 되어 있는 거죠? 앞으로는 복합관제센터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입산 입구 쪽에 CCTV가 설치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주십시오.

○부군수 이범우

예. 맞습니다. 산불 예방을 위해서는 입산주요 지점에 대한 실시간 감시체계구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궁희 의원

산불위험지역에는 예산을 빠르게 세워서라

도 설치해주시고 부족한 곳은 추가 설치해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산불 집중 단속기간에는 산림 인접 지역 배치를 잘 하셔서 감시인력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범우

예. 알겠습니다.

○허궁희 의원

또한 우리군도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활동하는 지역자율방재단이 있죠?

○부군수 이범우

예. 있습니다.

○허궁희 의원

이분들 연령대가 어떻게 되며 소방서와 함께 협력체계는 잘 구성이 되어있습니까?

○부군수 이범우

자율방재단은 12개 읍면, 265명으로 구성되어있는데요. 연령대는 대부분 50대, 60대 남성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화재나 산불등에 사회재난 발생시에 자율방재단은 산불 대피 방송 안내, 산불진화 및 복구를 위해 완도군 소방서와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 상시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허궁희 의원

화면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화면은 대전 유성구가 올해 1월에 전국 지자체 최초로 청년자율방재단을 발족했다는 보도입니다. 청년이 주축이 된 자율방재단은 기존 자율방재단과 함께 상호 보완하여 활동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우리군도 기존 자율방재단에 청·장년층을 좀 더 확충하여 재난발생 시 실질적인 대응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군수 이범우

의원님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허궁희 의원

화면 한번 더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 부분은 재난발생문자가 127건이 쏟아졌지만, 어르신들은 화면을 보다시피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해가 컸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구형 3G폰을 쓰기도 하고 그러다보니까 확인이 잘 안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재난문자가 여러 곳에서 많이 오니까 관심이 없다는겁니다. 그래서 우리군은 답변서를 보면 주민경보 및 대피시스템은 민방위 경보시설과 스마트마을방송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어요.

○부군수 이범우

예. 그렇습니다.

○허궁희 의원

그럼 그외에 다른 방법은 생각해보신적 없으십니까?

○부군수 이범우

각종 재난을 대비하여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재난경보에 따라 경보시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재난경보는 관련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호우, 폭설, 태풍, 지진등에 예상될 경우 발령되는 경보입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청률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스마트마을방송시스템 또한 운영 중에 있고, 이 시스템이 산불재난 및 긴급상황시 실시한 문자 및 음성방송을 통해서 개별 스마트폰으로 전달되며 군민들이 대피시설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허궁희 의원

그런데 스마트방송 가입자 수가 현재 어느 정도 되는지 조사를 해보셨나 모르겠지만 저

희들이 조사에 따르면 35% 밖에 되지 않아요. 그럼 나머지 분들은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한번 마련을 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주문을 해봅니다.

○부군수 이범우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궁희 의원

고령층을 중심으로 재난문자는 사실 큰 효력를 발생하지 않고요. 나이드신분들은 청각중심의 알림이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눈이 어두워서 글씨를 잘못보니까 글로 보내는것 보다는 소리로 알림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범우

그 부분도 단순한 메시지를 보내는것이 중요한것이 아니라 전달되고 이해하고 행동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음성중심의 알림 두 번째로 명확하게 내용을 구성하고 또한 세 번째로는 인근 가족이나 마을단위 전달체계마련등 이런 것을 세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궁희 의원

본의원도 마을 방송의 중요성을 더욱더 살리고 즉각성, 반복성, 이해도 높은 문장을 표준화되게 만들어가지고 이장중심 대피안내 매뉴얼과 대피 리더체계 확립이 대안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님께서 평소에 생각하고 계신 내용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범우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청각중심의 이런 대피시스템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완도군은 대피소 위치 등을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있으며 일단은 대피공간의 혼잡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각 마을이장에게 정확한 임무를 부여하여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취약부분을 상시점검해서 대피하는데 메뉴체계를 확립해서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궁희 의원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산불은 예측이 어려운 자연재해지만, 철저한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완도군은 산불대응체계를 보다 강화하고, 주민과 협력하여 실질적인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금도 산불예방 집중기간입니다. 특히, 고령 인구가 많은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경보 시스템과 대피 계획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실질적인 처벌과 예방 조치를 강화하여 주민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본의원이 제안했던 부분들은 하나하나씩 조치해주시기 바라며, 완도군은 산불 대응 매뉴얼을 재정비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산불 예방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를 마칩니다.

○의장 김양훈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를위하여 정회한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회의)

○의장 김양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수산경영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수산경영과장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안녕하십니까? 수산경영과장 방현수입니다.

먼저 1쪽, 박성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복1번지 완도 지속가능한 생존전략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완도군 전복산업현황 및 최근 5년간 추이입니다. 2024년 12월말 기준 완도군 전복양식현황은 2,300어가에 77만 4,872건을 시설하고 있으며 1만 6,000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우리군 전복 평균산지 가격은 10미 기준 2020년 3만원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3만 8,000원으로 상승하였다가 2023년부터 2만 3,000원대로 하락했습니다.

전복 가격 하락의 주요원인으로는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부진 및 생산량 증가 등의 영향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쪽입니다. 국내외 연도별 전복소비촉진 및 마케팅 추진현황 및 성과입니다.

국내시장개척현황입니다.

완도전복의 소비와 판로를 위하여 6시내고향, 생생정보 등 지상파 TV 방송 지원과 대형마트 소비판촉 등을 통하여 최근 5년간 1,323톤 486억 6,000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또한 전복이 가장 많이 출하되는 노화, 보길지역에 명절기간 화물차량 증차지원으로 금년 설명절에는 21년 대비 전복 발송 건수가 15% 증가로 도서민의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대형프랜차이즈 외식기업과의 협업으로 다양한 메뉴를 출시, 직영점 및 편의점에 판매하도록 다양한 분야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해외시장개척추진현황입니다.

최근 5년간 해외로 수출된 완도 활전복은 2020년 대비 미국에서 지속적인 구매로 61%로까지 상승되었습니다.

냉동전복은 308%, 전복가공품은 166% 증가되어 완도전복의 해외수출량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추진성과입니다.

장보고한상수상자와 월드옥타와의 지속적인 네트워크 유대관계를 유지하여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라오스 등 신시장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 열린 비엔나 엑스포에서 전복가공품으로 5개소에 350만불의 수출계약을 맺었습니다.

또한 2017년부터 참여하고 있는 미국 LA 한인축제에 참여하여 전복 가공품의 현장판매 및 참관 방문하는 현지수산바이어를 통하여 미국 동부권 한양마트, H마트 등에서 지속적으로 전복을 수입하고 있으며 2024년 캐나다 전복 300만불 수출계약 및 네덜란드 코넬마트에도 냉동전복 선적 등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어서 4쪽, 완도전복주식회사 추진성과입니다.

2024년 매출액은 302억원 1489톤으로 계속되는 경기불황으로 인한 소비시장위축과 산지전복 가격 하락으로 전복 판매량과 판매액이 감소하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2024년 가공전복 매출은 56억원을 달성하여 전년대비 24%가 증가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다양한 가공제품을 개발하고 국내외 신규판로를 확보하여 가공전복 취급 비중확대를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과 국내외 소비시장의 개척으로 전복소비촉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덤 문화개선과 대금결제일 기일 단축 등 어업인 보호대책을 지속추진하여 유통질서개선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전복가두리 감축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차년도 사업추진은 전복가두리 양식비율이 높은 노화, 보길을 대상으로 사업자를 모집하여 65어가에 5,933칸 모집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사업 신청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완도군 전복양식 단속실적입니다.

21년부터 25년까지 전복가두리 불법어업 단속실적은 총 102건으로 행정처분 대상은 총 56건, 사건 송치실적은 46건입니다.

이어서 6쪽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양식시설에 대한 전수실태조사를 통해 초과 이탈된 시설에 대해서는 자진철거 및 이설 등 어업권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추진코자 하며 우심해역 집단민원 발생지역에 대해서는 유관기관 합동단속 및 행정대집행을 통해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원칙으로 어업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수출하 등 전복양식어가 경영안정을 위한 대책입니다.

경영안정 대책으로 지난 4월 4일 전복양식 어업인과 유통업체간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전복생산자 유통업체 대표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전복수급안정과 유통질서 확립에 대한 논의를 지속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3년 이후 활전복 매출은 감소추세이나 가공전복의 매출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장에서 선호하는 가공제품 중심으로 판매역량을 집중하고 수출확대와 대형마트, 편의점 등 신규판매처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홍수출하 대비 국내외 마케팅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주식회사 얌샘과 업무협약으로 4월말 전복 계란말이김밥 외 3종을 전국 240여개 가맹점에 출시할 계획이며 매년 60톤의 전복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미국, 캐나다를 중심으로 냉동전복과 손질전복, 마켓 입점지원 확대에 주력하겠습니다.

전복시즌과 홍수출하시기에는 집중적으로 맞춤형 기획전 운영과 온라인 판로확대로 매출을 극대화하고 해양치유 및 완도방문의 해와 연계하여 다양한 미디어마케팅으로 판매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성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전복 1번지 완도지속가능한 생존전략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양훈

박성규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박성규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규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도 전복산업이 힘들다는 걸 잘 알고 계시죠?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그렇습니다.

○박성규 의원

저도 의원 생활 오래 했습니다마는 이처럼 힘든 때가 없습니다. 어민들의 한숨소리가 들립니다. 그렇죠?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그렇습니다.

○박성규 의원

과장님이나 군수님께서는 잦은 출장으로 인하여 어민들 상대하기가 많은 시간이 할애가 안 됩니다마는 저희들은 매일같이 어민들을

만납니다.

그러면 다 죽겠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보면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경기침제로 인해서 전복이 안 팔리고 있고요. 가격은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무사에 어민들 파산회생하려고 접수한 사람들이 수백명 접수했고, 파산도 안 되고, 회생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름값이 없어서 사채를 빌리고 다니고요. 또 집이 압류되고, 가두리가 압류되고 배가 압류되는 실정입니다. 완도전복산업이 무너지면 여러 가지가 무너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미역, 다시마, 육상양식 사료,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저출산에 접어들었는데 전복산업이 무너지면 완도 경기라든지 인구는 절벽으로 떨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맞습니다.

○박성규 의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군수님께서 사활을 걸고 전복산업을 살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맞습니다.

○박성규 의원

그런데 업무가 바쁘다고 그래서 어민들 상대하는 것이 좀 뜸하기도 하고요. 전복산업이 중요한지를 잘 모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박성규 의원

다른 사업도 중요하겠지만 특히 전복산업이 2,300어가 하고 있죠?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그렇습니다.

○박성규 의원

엄청난 큰 규모의 사업입니다. 과장님께서 신규로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군수님하고 대화도 많이 하시고요. 중앙정부하고 대화를 많이 하셔서 전복산업이 살아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알겠습니다.

○박성규 의원

방송실 자료화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저것이 2023년 31억, 2024년 73억, 올해 70억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우리 어민들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군에서 뭘 지원하고 있냐, 전혀 지원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73억씩 31씩 지원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민들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홍보를 많이 하셔야 합니다. 전복가두리 감축사업도 올해 처음 시작하고요. 유통상자도 다 지원하고 있고, 또 과장님 수산물로컬노미 상품개발사업 이건 뭡니까?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로컬노미는 지역내에 있는 특산품을 홍보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업체라든가 대규모 업체를 통해서 얌샘김밥이라든가 그런데를 통해서 새로운 신상품 개발을 해가지고 홍보 판촉하는 사업입니다.

○박성규 의원

경영안전자금은 2,300어가인데 2,000가구 어가만 받고 나머지는 왜 못 받았습니까?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경영안정자금도 저희들이 신청을 통해서 받고 있는데 그 부분은 체크해 보겠습니다, 아직 못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박성규 의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사업은 업체가 어디 업체입니까? 20억인데요.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저희들이 지금 산지가공 같은 경우에는 따로 사업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현재 가공전복, 손질전복, 순살전복 그쪽을 추진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성규 의원

그러면 20억, 14억을 지원을 하고 6억은 자부담해서 회사를 선정하려는 말입니까, 앞으로?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아직 신청은 안 받았습니다.

○박성규 의원

신청은 아직 안 받았습니까?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예산이 당초에 작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올해 본예산에 계상을 해 놨었는데 지금 아직 도비가 조금 부족해서 그것은 도비가 확보되는 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성규 의원

이 사업도 중요한 사업입니다. 요즘은 활전복보다는 가공전복을 원하기 때문에 이런 큰 업체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죠?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그렇습니다.

○박성규 의원

이보다 더 큰 업체가 들어와야 됩니다. 20억 갖고는 안 됩니다. 100억짜리 업체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쪽에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방금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31억, 73억, 70억을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복산업은 최악의 상태죠?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박성규 의원

완도전복산업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근본적인 원인이 과장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아무래도 생산량 증가에 따른 가격하락하고 경기침체라고 생각합니다. 전복 치패장에 히트펌프 도입, 전복양식기술은 예전보다 엄청 발달을 하다 보니까 사육기간도 짧아지고 생산량도 지금 늘어났지만 경기침체로 금리가 상승해서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고 전복 소비가 줄어서 산지가격이 하락돼서 어업인들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규 의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경기침체도 있고요. 홍수출하도 있고, 전복을 기르는 시간이 3년, 4년 걸리는데 지금 1년도 안 걸리고, 1년짜리도 팔고, 1년 반짜리도 팔고 그러다 보니까 양이 많이 나오죠?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그렇습니다.

○박성규 의원

그러다보니까 가격이 많이 하락돼 있어요. 지금은 17% 정도, 1만 6,000원, 20미가 1만 6,000원 17% 정도 하락했습니다.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박성규 의원

그러면 지금 어가들은 이 정도 수준으로 떨어지면 생계 위협을 받는다고 그래요. 본전도 안 된다고 그럽니다.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그렇습니다.

○박성규 의원

그리고 국·내외 시장개척 추진 성과 답변자료를 보면 수출량은 늘고, 판매실적도 늘어나는데 어민들 계속 힘들어해요. 그건 가격하락

이여서 그렇죠?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그렇습니다. 가격하락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박성규 의원

홍수출하하고요. 과장님, 지난 4월 4일날 군수님 주재 생산자하고 유통간담회가 있었죠?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있었습니다.

○박성규 의원

그때 무슨 내용이 오고 갔는지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지금 전복 생산자 측에서는 산지가격 하락으로 어업인들이 큰 어려움에 처해있다는 내용을 말씀하셔가지고 유통업체에서 덤 문화 근절, 정당한 거래원칙을 지켜달라는 것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하셨고요. 유통 쪽에서는 산지가격은 유통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고 어업인들이 단합하면 따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돼서 전복산업연합회를 주축으로 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금 세부적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박성규 의원

생산자 측에서는 20미 전복 기준으로 최소 2만원을 받아야 본전치기라고 합니다. 그렇죠?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박성규 의원

그런데 현재는 1만 6,000원 수준에 형성됐어요. 전복산업 붕괴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가격 하락 원인은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박성규 의원

공급과 수요에 따른 시장경제에 의한 단가죠?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그렇습니다.

○박성규 의원

그리고 일부 유통업자들이 다른 소비체를 확보하기 위해서 단가를 내린 양도 있죠?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박성규 의원

그리고 어민들은 폐사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여름에 판매하다보니까 이 같은 가격하락에 원인이 있습니다. 군에서 생산자 단가 통일에 대한 정책이나 지원방안이 있습니까?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지금 저희들이 산지단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개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문제로 이런 부분이 직접적으로 개입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다만 생산자하고 유통이 계속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자리를 계속 만들어서 중간자 입장에서 저희들이 양측이 협의되게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규 의원

생산자 측에서 자구책으로 불법양식 자진철거, 입식량 조절, 가두리 감축사업 등 어장정화사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요즘 가두리 감축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죠?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그렇습니다.

○박성규 의원

우선 본예산에 4억 했고요. 추경에 6억을 해서 10억을 한다고 합니다.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박성규 의원

가두리 감축사업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매우 큽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당초 이 사업 목적이 전복가두리를 적합한 수준으로 감축을 해서 지속가능한 전복생산을 도모함으로써 경쟁력 강화와 양식어가 소득증대에 기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올해는 가장 전복이 많이 생산되고 있는 노화, 보길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 감축목표는 4,500칸인데요. 신청은 68어가에 5,900여칸이 신청돼서 지금 담당팀장이 현장 나가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감축 신청 어촌계에 대해서는 신규 가두리 금지 확약서를 지금 받고 있고, 매년 저희들이 KMI 위성판독자료를 확인하여 계속 가두리가 늘어나는 사례가 없도록 그런 부분은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박성규 의원

문제점은 감축할 경우 신규가두리가 들어온단 말입니다. 빈자리에 신규사업이 들어오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알겠습니다.

○박성규 의원

물론 어민 스스로 하지 않는 게 맞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후관리입니다.

그렇죠?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박성규 의원

행정 차원에서 사후관리계획이 있으면 금방 말씀했지만 간단하게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사후관리는 계속 저희들이 매년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위성판독자료도 있고, 저희들이 드론을 활용해서 사업지부에 대해서는 계속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어촌계에서 가두리 신규 진입을 못하도록 그렇게 확약서를 받아서 그 부분도 이행여부도 계속 지속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박성규 의원

행정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되긴 됩니다마는 전복협회와 협력하여 또 어촌계하고 협력해서 신규 가두리 설치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줘야 합니다.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알겠습니다.

○박성규 의원

어촌계하고 홍보를 많이 하세요. 전복협회하고 협력해서요.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박성규 의원

본 의원은 이 사업이 시설감축하는 목적도 있습니다만 이탈된 시설에 대해서도 정리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설에 따른 비용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혹시 어민들 가두리 감축에 대한 부담을 덜고, 참여도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설 비용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까?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그 부분은 아직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성규 의원

그래서 감축을 하고, 또 면허지로 이탈된 것 가지고……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그 부분은 어장 재배치 저희들이 사업을 하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이설하는 비용은 조금 어렵고, 어장에 대한 재배치 부분은 할 수가 있는데 이설비용은 조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성규 의원

이설에 따른 비용도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민들 줄 한망 사기도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자재값도 많이 오르고요. 예를 들어서 줄 같은 경우도 땅 같은 경우도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비용을 군에서 생각을 해서 확보하는 방안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박성규 의원

과장님 본 의원이 최근 입수한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방송실 자료화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요약해서 보여드리거든요. 보도자료를 요약해서 보면 전라남도가 9만 5,000칸을 감축, 제도개선, 시군과 공동으로 30억 투입, 가두리 시설 철거 폐기비용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혹시 가두리 이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잘 모르고 계시죠?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이거 지금 작년 12월말에 전남도의회 신의준 의원이 발언한 전복양식시설 개선 촉구 건의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전남도 친환경수산과에서 계획을 수립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에서도 전라남도에다가는 감축사업비를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 다음 주 중으로 도의회에서도 이것이 반영이 되면 예산이 추가로 아마 내려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박성규 의원

지금 완도군에서는 10억을 확보했어요. 30억을 가두리시설 철거폐기 비용을 지원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다른 시군도 참여를 합니까?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참여도 해남이나 진도 같은 경우도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성규 의원

과장님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완도가 시발점으로 했기 때문에 다른 타 시군도 5억이라도 10억이라도 투자해서 감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2027년까지 자율감축을 유도하고, 국비 총 300억원을 마련한다는데 이 부분은 전라남도하고 소통이나 협의한 것이 있습니까?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아직까지 정확한 세부계획이나 이런 부분은 아직 된 것은 없고요. 그 부분은 도하고 같이 내용은 협의해서 그 부분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규 의원

그래서 전복의 고장 완도가 제일 세가 크지 않습니까?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박성규 의원

그래서 전복을 감축사업을 하는데 완도가 선구자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300억을 국비를 확보한다고 하는데 우리 완도에서는 10억 갖고 감축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같이 협력해서 300억을 확보해서 감축사업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알겠습니다.

○박성규 의원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시장경제의 원리가 수

요에 비해 공급이 지나치게 많으면 가격이 하락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그렇습니다.

○박성규 의원

물론 이 시기에는 소비 촉진 진행 행사도 많이 하지만 이 같은 방법은 일시적인 수요 진작 효과를 기대할 뿐 현재보다 높은 가격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시설량 감축을 통해 전복 공급량을 조절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맞습니다.

○박성규 의원

이번에 시장 감축사업은 순군비 10억으로 추진하시고 앞으로 도비, 국비 최대한 확보하여 보다 많은 전복생산어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군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알겠습니다.

○박성규 의원

그리고 과장님 제가 차광막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재선 때 차광막사업을 순 예비비를 5억을 확보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그리고 그 뒤로 의회에서는 의원생활을 안 했습니다마는 6년 동안 지원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순군비가 한 6억이고, 국비 합쳐서 10억을 차광막만 샀어요. 10억 어치 차광막을 사면 얼마만큼 되는지 아십니까? 덩어리로 아파트 하나 정도는 돼요, 10억어치 하면. 그런데 효과가 있었습니까?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지금 실질적으로 전복가두리 차광막 저희들도 설치사업을 했는데 차광막 설치 시 수온 낮추는 효과는 없고, 어떻게 보면 먹이를 공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다는 국립수산과학원의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차광막을 설치하는데 지금 어려움도 있고, 바람 불고 날리다 보니까 어업인들이 거의 사용을 많이 안 하는 그렇게 됐었고, 또 그걸 또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실질적으로 본 사업의 목적에 맞지 않은 그렇게 시행이 됐었습니다.

○박성규 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100명일 때 나눠주면 1명이나 덮을까 말까하는 사업을 왜 6년 동안 합니까? 안 된 사업은 중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그런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박성규 의원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보면 차광막 업체를 살리기 위한 사업도 아니지 않습니까?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그렇습니다.

○박성규 의원

그리고 수온은 내려가지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물이 흐르기 때문에 수온이 전혀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차광막 덮어놓은 사람들은 전복이 밤인지 낮인지 모르고 먹이만 먹다 보니까 더 폐사가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차광막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산에 바다에 창고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다른 용도로 쓰고요. 다른 용도로 쓰면 좋겠죠. 안 쓰는 것도 많아요. 이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6년 동안 해야 되겠습니까? 군비로.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검토해서 사업이 조금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규 의원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는 신중하게 검토해서 안 된 사업은 그때그때 차단해야 될 거 아닙니까?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알겠습니다.

○박성규 의원

이거 잘못된 사업이죠?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박성규 의원

절대로 해선 안 될 사업입니다.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박성규 의원

그리고 전복생산자 측에서 전복 사이즈 묶음 방식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애매하게 크기를 나누지 말고 대, 중, 소로 나눠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대, 중, 소로.....

○박성규 의원

우리 생산자들은 원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생산자 및 유통단체와 함께 전복 사이즈 묶음 표준화 방안을 논의했거나 논의한 계획이 있습니까? 혹시라도.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지금 그 부분은 제가 잘 내용은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파악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규 의원

이 부분은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야 잘 알지만 도시 사람들은 미수를 잘 모릅니다. 대, 중, 소로 하면 쉽게 아는데 몇 미, 몇 미 하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완도에서 이 기준을 명확하게 표준화한다면 대한민국 전복 대표 생산지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크기 표준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니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생산자와 유통간 소통창구인 협의체를 아까 구성했다고 했죠?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그렇습니다.

○박성규 의원

이 부분은 우리 군수님께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시죠?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그렇습니다.

○박성규 의원

협의체 구성은 완료가 됐습니까?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생산자 측하고, 유통하고, 그렇게 10명씩 해서 협의체 구성을 했습니다.

○박성규 의원

간담회 후 생산자와 유통업체하고 한번 만나 보셨어요?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지속적으로 만나보진 못했는데 생산자 측이나 유통 쪽 양쪽으로 유선으로는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박성규 의원

여하튼 자주 만나 보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최근에 입수한 자료를 보면 생산자 측에서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거래조건을 통보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하며, 20미를 1만 6,000원에 통합단가로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계시죠?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박성규 의원

지금 현재 전복협회와 유통과 협의는 어느 정도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현재.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21일날 최저가격, 그 가격에 대해서 산지단가가 생산자하고 유통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최종협상은 20미 기준으로 해서 1만 6,000원으로 지금 결정이 됐고요. 16미, 17미를 분리했고, 20미 아래 단가 터울도 기준 2,000원에서 1,000원으로 줄였고, 표준편차는 상차 무게도 지금 합의를 했습니다.

○박성규 의원

지속적인 협의체 운영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군에서 큰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박성규 의원

이 협의체는 군수님뿐만 아니라 본 의원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복산업의 생사가 걸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죠?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그렇습니다.

○박성규 의원

1회성이 아닌 정례화 시켜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데 많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알겠습니다.

○박성규 의원

과장님, 지난 4월 9일 지속가능한 전복사업을 위한 어업인 결의대회가 있었습니다. 전라남도 7개 시·군 전복생산어가 약 1,500명이 참석을 했을 정도 북적북적했습니다. 과장님 이날 어디에 계셨죠?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저는 그때 교육중이여서.....

○박성규 의원

그러니까 잘못된 거 아닙니까? 날짜를 잡을 때 국회의원도 참석하시고, 군수님도 참석하시고, 실무담당 과장님이 계셔야 될 거 아닙니까? 최소한 과장님이 계셔야 되고, 군수님도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민들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날짜를 조정해야 되죠.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박성규 의원

그런데 국회의원도 안 계시고, 군 의원도 안 계시고, 실무과장도 안 계시고, 어민들 한숨소리만 들리고 어민들의 악한 소리를 들어봤습니까?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그거 관련해서 생산자연합회에서 국회의원님하고 군수님 일정 맞추려고 논의는 했었습니다. 했는데 일정조정이 어려워서 그렇게.....

○박성규 의원

당기든지 늦추든지 간에 국회의원도 오실 때.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앞으로.....

○박성규 의원

군수님도 계실 때, 군수님 해외출장이고 우리 과장님은 교육중이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날짜를 대단히 잘못 잡았다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박성규 의원

방송실 자료화면 보여주세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전복어가 단합하여 최저단가 지켜내자, 전복

출하 중단한다, 단결만이 살길이다, 생산자의 피와 땀, 돈 요구 웬말이냐, 우리 요구 관철될 때까지 전복출하 중단한다.

○박성규 의원

결의대회 행사장 사방에 걸려있는 현수막들입니다. 어민들의 분노와 화가 실려 있는 문구들이죠?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그렇습니다.

○박성규 의원

이 문구를 보고 과장님 읽어보셨기 때문에 생각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어민들의 절박한 내용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생산자들의 어려움에 대한 단합된 의지라든가 이런 부분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박성규 의원

본 의원도 결의장에서 축사도 했지만 분위기는 정말 험악했습니다. 전복산업에 대한 많은 생각과 고민을 갖게 한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오신 분들이 소리치고 술 먹고 난장판도 피우고 했습니다. 이럴 때 국회의원님도 계시고, 군수님 계시고, 우리 과장님도 보셨어야 됐는데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일정 잡을 때 꼭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알겠습니다.

○박성규 의원

과장님 완도전복주식회사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전복주식회사는 지금 저희들이 덤 문화개선과 대금 결제, 유통구조 개선하고, 시장개척, 가공식품개발 등 여러 가지 완도전복산업을 살리기 위해서 주식회사를 지금 저희들이 설립을 하고 했습니다.

○박성규 의원

주식회사는 상법상 주식회사죠?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그렇습니다.

○박성규 의원

그렇기 때문에 이익도 남겨야 되고, 어민도 보호해야 합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덤문화라든지 결제라든지 앞장서서 주식회사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박성규 의원

보면 매출감소도 있었어요, 주식회사가.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박성규 의원

생산자단가 하락, 유통단절 문제점에 불과하고 유통안전기능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 과장님, 전복주식회사의 목적대로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생산자 이익을 위해서 가격 하락할 경우에는 4, 5일 정도 늦게 반영하고, 인상 시에는 반영, 그 정책수준 꾸준히 유지하고 있고요. 홍수출하 추진해서 가급적이면 많은 어가들에게 구매기회를 제공하고 이런 부분들은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덤 문화라든가 그런 부분도 차에다가 덤을 받지 않겠다는……

○박성규 의원

다른 데는 몰라도 우리 완도군이 30%로 지분이 돼 있죠?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그렇습니다.

○박성규 의원

어민이 1,200명이 출자를 했어요.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박성규 의원

그러면 주식회사가 앞장서서 덤문화를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덤은 안 받습니다.

○박성규 의원

다른 유통하고 똑같이 하면 되겠습니까?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아니, 덤은 안 받습니다.

○박성규 의원

대금결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데는 한두 달 걸린다고 해도 바로 줘야 됩니다. 사실은 전복산업 제일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대금 외상으로 가져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 농수산물 외상으로 가져가는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전복만 한두 달씩, 3개월씩, 5개월씩 외상 가져갑니다. 전복주식회사는 군에서 지원을 받았고, 정부로부터 많이 지원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대금결제를 바로 바로 해야 됩니다. 일주일이 아니라 하루 가져가면 바로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일도 협상할 때 전복주식회사가 어영부영 저대로 협상에 임하지 않았어요. 제일 먼저 협상에 임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복주식회사는 다른 사람 눈치만 보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야 맞겠습니까?

과장님.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어업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박성규 의원

그래서 지금 자료를 보면 최근 3년 매출은 400억, 500억, 또 302억으로 25%나 감소를 했어요. 군이 지급을 보조하고 있고요.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우리 어민들은 의심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식회사가 돌아가는 사항을 수시로 읍면에 가시면 보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알겠습니다.

○박성규 의원

주주가 그렇게 많이 있으니까요. 방송실 자료화면 더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우리 전복주식회사에 지원하는 내역입니다.

○박성규 의원

잘 아시죠?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그렇습니다.

○박성규 의원

보시다시피 2011년부터 현재까지 군에서 약 80억 보조사업을 지원했어요. 심지어 차도 사주고 가공공장 만들어주고 했죠?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그렇습니다.

○박성규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안전궤도에 안 들어왔습니까?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열심히 구조조정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대한 정상화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매출이나 이런 부분은 전복 가격 하락에 따라서 매출이 부진해 지고 그렇지만 가공 쪽으로 많이 선회를 해서 가공 같은 경우는 판매량이라든가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주식회사 쪽은 가공이나 원물보다는 가공이나 이런 쪽으로 고차 가공 쪽으로 계속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박성규 의원

원물도 많이 하고 가공공장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직원도 그전에는 50명에서 절반으로 감축을 했죠?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그렇습니다.

○박성규 의원

그러면 잘 될 거 아닙니까? 인건비만 얼마 줬습니까? 절반으로 줄였는데..... 이렇게 거액의 공공자본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회계라든지 감사, 마케팅 전략에 대한 감독 체계가 부족하다는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덤문화 대금결제, 생산자하고 어촌계하고 과장님하고 소통을 잘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고요.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어민들이 1,200명이 적게는 몇 십 만원에서 많게는 억대 이상 주주참여를 했죠?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그렇습니다.

○박성규 의원

회사가 여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지금까지 이렇게 순이익이 해마다 단기 순이익이 마이너스가 될 때도 있고, 큰 이익은 아니지만 플러스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익이 확 많이 늘어나거나 그러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박성규 의원

그렇게 일반 지원은 안 해도 전복업자들이 많이 번다고 소문이 났는데 우리 주식회사는 그렇게 지원을 하는데 돈을 못 번답니까?

심지어 별 걸 다해주는데도 그래서 출자하신 분들이 지금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수천만 원을 출자해 놓고 1억도 투자해 놓고, 돈이 없어서 사채를 빌려줄 정도인데 이 출자금을 손해보듯이 하겠다 좀 내주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째서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주식회사 그렇게 하게 되면 아무래도 자본비율이 낮아지게 되니까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세세하게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기들은 주식회사를 살리려고 처음에는 다 1,200가구가 했으니까 절반 거의 많이 했잖아요. 완도어업인들이 절반 가까이 했어요. 절반 넘게 주주 참여를 했는데 이거를 찾아가려고 해도 못 찾아가지 않습니까?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지금 그렇습니다. 상장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박성규 의원

회사가 잘되면 어민들한테 돈을 돌려줄 수 있도록 해주고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알겠습니다.

○박성규 의원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덤문화 정비가 안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애지중지 키운 전복값 덤으로 더 주지 않으면 제 값 못 받는다는 구조 자체입니다. 덤이 굉장히 문제죠?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박성규 의원

전복주식회사가 유통계획이나 설립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원인을 진단하고 제도개선을 할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전복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덤문화는 생산어가들의 애로사항입니다. 애로사항으로서 반드시 개선되어야 되고, 생산자들도 이구동성

으로 시정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전복주식회사는 추가 덤을 받지 않는 것으로 선언을 했고, 이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는 구매차량에 대해서 완도전복주식회사는 추가덤을 요구하지도 받지도 않습니다라는 표어를 부착하고 지금 현재 운행하고 있고요. 앞으로 주식회사에서 앞장서서 덤문화 근절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박성규 의원

오래된 관행이죠? 덤 문화가 하루아침에 없어지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행정이 손을 놓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행정이 앞장서서 덤문화 없앨 수 있도록 중재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알겠습니다.

○박성규 의원

세계인구 1인당 연간 수산물 소비량, 우리나라 1인당 수산물 연간 소비량이 얼마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세계 기준으로해서는 2kg 정도, 우리나라는 63kg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규 의원

그렇죠. 세계는 20.7kg, 우리나라는 63. 3kg도 아주 많이 먹고 있어요, 수산물을. UN 식량농업기구 FAO가 2022년 발간한 세계어업양식동향서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인구 1인당 수산물 연간 소비량은 2022년도에 20. 7%로 소비량이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 역시 2022년 한국농어촌경제연구원에서 조사한 식품수급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국민 1인당 연간 수산물 소비량은 63. 3kg를 먹고 있습니다. 세계 평균 3배입니다. 많이 먹고 있죠?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그렇습니다.

○박성규 의원

우리나라는 몇 년 전부터 세계주요국 중 1인당 수산물 소비 1위라고 합니다. 2017년 평균소비량 72.7kg 이후 조금씩 감소하는 건 있어요. 그런데 일본 역시 한때는 일본이 수산물 제일 많이 먹었죠. 그런데 최근에 20년 사이에 수산물이 반토막 났어요. 절반 밖에 안 먹었어요, 일본도. 우리나라도 그러라는 법이 없습니다.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알겠습니다.

○박성규 의원

전반적으로 우리 수산물 소비량이 감소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1인 가구나 맞벌이부부가 증가하면서 편의성 중심의 즉석동결식품, 소포장, 밀키트, 가정간편식품을 선호하는 소비트렌드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박성규 의원

지난해 KMI에서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해양수산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수산물은 육고기에 비해 건강음식이라는 항목이 61. 8%로 가장 높았고요. 또 먹기 편하게 가공된 수산물이 더 좋다는 항목이 59. 4%로 두 번째 로 높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설문조사 결과를 말씀드린 이유는 전복은 현재 대부분 활전복으로 거론되고 있어요. 바쁜 현대인을 살아가는 요즘 사람들에게는 손질에 대한 불편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군에서도 활전복 산업의 한계를 극복하

고, 전복산업의 전반적인 성장과 활성화를 위해 순살전복산업을 집중육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어요.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그렇습니다.

○박성규 의원

전복 고차원 상품개발하는데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그렇습니다.

○박성규 의원

이렇듯 가공을 통한 판매비중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순살전복 활성화와 전복 고차원 상품개발에 대한 전략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지금 저희들이 2023년부터 히트상품개발이라는 것으로 해서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해서 매년 2개소 이상씩 업체를 선정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미래먹거리세대에 대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전복 고차가공을 편리하게 상품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전복차우더라든가 김치리조또, 크림전복 등 여러 가지 신규제품들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성규 의원

2022년부터 수산가공, 히트상품개발 지원사업을 군비로 지원하고 계시죠?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그렇습니다.

○박성규 의원

업체당 얼마씩 지원하고 있어요?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7,0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성규 의원

업체당 7,000만원 지원하고 자부담은 20% 하고 있죠?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박성규 의원

1년에 몇 군데 합니까?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지금 2개소하고 있습니다.

○박성규 의원

선정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지금 히트상품 개발은 전남바이오진흥원 해양바이오연구센터에서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사업자 모집선정 사업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신규 간편식 제품개발 및 시제품 개발하는데 70% 정도 사용이 되고요. 전문가 컨설팅이나 마케팅비, 디자인개발비 이런 부분이 30% 정도 예산으로 소요되고 있습니다.

업체 선정할 때 잡음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알겠습니다.

○박성규 의원

그러면 이거 제품개발비만 지원합니까? 홍보비는 어떻게 합니까?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홍보비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홍보비가 30%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성규 의원

소비자 입맛에 맞게 잘 만들어서 가공제품은 원물소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만 우리 지역 가공업체들이 모두 영세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든 가공품이 잘 팔 수 있도록 홍보나 행사비 지원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알겠습니다.

○박성규 의원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전복 홍수출하시기가 3월에서 7월이죠?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박성규 의원

이럴 때 순살전복하기가 가장 좋습니다.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그렇습니다.

○박성규 의원

사실 지금도 사갈 때죠?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박성규 의원

이때 많이 사서 우리가 명절 때나 여름복날이나 추석 때나 팔 수 있도록 지금 5월, 6월달 되면 홍수출하가 되지 않습니까? 다른 회사들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또 전복주식회사가 앞장서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홍수출하가 안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알겠습니다.

○박성규 의원

음식도 세살버릇 여든 간다고 합니다. 전복 등 수산물은 어르신들이 많이 드신다고 선호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어요. 그래서 미래의 소비층은 영유아, 청소년층, 수산물 습관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알겠습니다.

○박성규 의원

생애주기별 소비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홍보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복소비활성화를 위해서 어린이들 특히 성장기에 있는 어린이들이나 특히 청년들이 조금 이분들에 대한 맞춤형 소비에 대한 가이드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성규 의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활전복 소비한계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전복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소비 트렌드 변화에 따른 맞춤형 편의제품을 개발하여 전략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공제품 수요가 많아지면서 당연히 활전복 소비도 늘어나리라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미래세대를 고려한 전복소비 활성화 전략계획을 수립하여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서에 보면 최근 5년간 전복소비 마케팅 결과 온라인 판매실적이 가장 높은데 대형오픈마켓과 연계한 온라인마케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전라남도 출연기관 쇼핑몰이 있고 남도장터하고 한국우편사업진흥원에 우체국 쇼핑몰 중심으로 2, 3회 정도 프로모션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성규 의원

우체국 쇼핑몰이나 쿠팡에 그렇게 하고 계시죠?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박성규 의원

우리군 대표쇼핑몰인 완도청정마켓 있죠?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그렇습니다.

○박성규 의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니까 타 사이트에 비해서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상품 촬영

과 이미지 편집을 위탁업체에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입점업체에서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지금 입점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성규 의원

온라인마케팅 특성상 제품을 직접 보고 고르는 게 아니라 상품이미지를 보고 고를 수밖에 없는 구조죠?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그렇습니다.

○박성규 의원

구매욕구가 실제로 주문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쇼핑몰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알겠습니다.

○박성규 의원

해외시장개척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에서는 2014년부터 국내소비시장 한계를 극복하고 해외시장개척을 시작했습니다.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그렇습니다.

○박성규 의원

답변서에 보면 활전복에 비해 냉동전복과 가공품 수출이 증가했는데 아까 설명을 해 주셨죠?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박성규 의원

장보고한상어워드수상자를 연계한 프로모션도 많이 하고 계신데 실제로 수상자들 중에 수산업에 유통가공쪽에 관련된 분들이 계십니까?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장보고한상수상자분이 오십 분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서 10여명은 수산물유통가공업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베트남에 고상구 회장님이라든가 라오스에 오세훈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라오스하고 베트남에 완도특산품을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규 의원

그분들을 잘 활용해서 우리 수산물이 잘 팔릴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군수님 미국 갔다 오셨죠?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그렇습니다.

○박성규 의원

특산품 1,860만불 수출계약을 했다 했죠?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그렇습니다.

○박성규 의원

장한상 세계대회 유치 홍보도 하고요?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그렇습니다.

○박성규 의원

해외시장개척 성과가 수출이 아닌 수출계약 즉, MOU 체결만 하잖아요, 원래는.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그렇습니다.

○박성규 의원

실제로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가서 MOU 체결만 하면 뭐합니까? 수출 연결하는데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MOU 체결은 양측 수출업체하고 수출하는 업체하고 처음 시작 전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수출이 MOU를 체결하고 나서도 한 6개월 이상 계속 소통을 통해서 수출계약을 체결을 하게 되는데 1, 2년 늦어지는 사

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MOU 체결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수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규 의원

실제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꼭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박성규 의원

바로 하라는 것은 안 되지만 5, 6개월 걸릴 수도 있고, 1년 걸릴 수 있겠지만 폐기처분되는 경우가 있어요. MOU 체결만 하고,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 전복은 주로 어느 나라로 많이 수출된 줄 알고 계시죠?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박성규 의원

대부분 일본으로 많이 수출하고 있죠?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그렇습니다.

○박성규 의원

베트남, 미국이요. 그리고 가공품은 미국, 일본, 대만, 베트남, 라오스로 많이 되고요. 그리고 신시장개척은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등으로 유럽시장에도 하고 있죠? 유럽시장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알겠습니다.

○박성규 의원

국내시장 소비한계를 극복하고자 해외시장 개척에 공을 들이고 계시는데요. 급변하는 해외시장변화와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여 지역가공업체 수출업체 전복 제공뿐만 아니라 가이드라인 제시를 잘 해서 잘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알겠습니다.

○박성규 의원

우리군 해외마케팅 활동은 단지 가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팔리고 남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진짜 성과입니다.

어민들이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그렇습니다.

○박성규 의원

가기만 하면 뭐하겠습니까? 팔고 어민들한테 소득이 들어가야 맞지 않습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생산자들도 불법양식은 자진철거한다고 했습니다. 군에서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습니까? 앞으로 단속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지금 김 생산시기 종료에 따라서 전라남도하고 완도해경하고 같이 전복불법가두리시설 단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국내소비부진 등으로 생산단가 하락에 따른 양식어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고자 전복가두리 감축사업과 연안어장 재배치사업을 통해서 면허지 내 설치를 유도하고 그 외 시설물을 철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홍보를 통해서 어업질서를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규 의원

단속을 강화하여 깨끗한 청정바다만들기에 앞장서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박성규 의원

완도전복산업은 단순히 수산업이 아니라 우리 군민의 삶이며, 완도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나 전복산업은 가격붕괴, 유통왜곡, 수급불균형, 고수온과 환경변화는 복합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생산자는 제값도 못 받고 유통은 덤을 요구하며, 시장질서를 흔드는 상황에서 지금 완도전복산업은 버티기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알고 계시죠?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박성규 의원

이번 군정에서 4차, 5차 산업과 같은 고차원적 산업에 집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산업의 전제는 바로 1차 산업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박성규 의원

1차 산업이 무너지면 아무리 좋은 화려한 산업을 쌓아올려도 그것은 공중누각에 불과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복1번지 완도는 이제 위기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습니다. 생산자와 유통, 그리고 행정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오늘 과장님께 무거운 숙제를 줘서 죄송합니다마는 의회와 꾸준히 피드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양훈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정욱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욱 의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박성규 의원님께서 조목조목 잘 말씀해 주시고 지적해 주셨는데 아주 지금이 중요한 시기라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과연 올해는 어떤 대책으로 해서 노력을 해 보겠다 이런 답이 나온 게 없어서 그런 생각이 있으면 여기서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대책은 저희들이 따로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생산자하고 유통하고 같이 만나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저희들이 전복가두리 감축을 통해서 생산량을 줄이는 그런 부분을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욱 의원

우리가 좀 달라졌다면 특이하게 다른 사업이나 기존에 해오던 사업이에요. 특별하게 하는 사업이 아니고 꾸준히 해오던 사업이고, 단지 우리가 여기서 가두리감축사업은 특별한 건데 이건 우리가 장기성을 갖고 가야 되는 일이고, 지금 올해가 어려운 게 뭐냐면 예전에는 홍수출하가 있었던 일이에요, 매번. 있었는데 가을이 되면 대신에 전복가격이 올라가면서 전복이 달렸는데 작년에는 어떻게 됐냐면 홍수출하된 다음에도 전복이 계속 정체돼서 판매가 어려웠다는 얘기예요, 아시고 계신가요?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최정욱 의원

그러면서 올해 계속 이때쯤이면 아주 한참 잘 나갈 때죠. 그런데 정체돼서 계속 온데다 조금 있으면 홍수출하가 같이 겹쳐질 거란 얘기예요. 거기다가 경기 자체도 어렵고, 그렇다면 자칫 잘못하면 작년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홍수출하나 나가는 양도 그렇고 이런 것

에 대한 대비가 돼야지, 예전 항상 했던 홍수 출하 대비, 이건 대비가 아니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하면 지금 상황을 올해는 극복할 것인가, 결국은 홍보 열심히 해서 판매하는데 어떻게 하면 군민들에게 알려서 많이 판매를 해야 될까라는 쪽에 중점을 둬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협의체 구성을 했다고 했는데 이것도 매년 했던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전에도 여러 번 건의를 했는데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걸 했으면 1주일, 2주에 한 번씩 한다든가 지금부터 어려운 비상시기에는 자꾸 만나서 자꾸 토론을 해야 돼요. 문제는 어떻게 서로가 어려운가, 유통은 무엇이 어려운가 해서 그런 개선점을 갖고 토의를 해서 우리 행정에서 지원할 부분은 지원하고, 이게 과장이 아닌 군수님 주재로 해야 된다고요.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알겠습니다.

○최정욱 의원

그리고 일정을 딱 정해놓고 하시라고요. 또 때 되면 한다고 해서 한참 조용하면 넘어가고 그러지 말고, 그래서 군수님이 출타하면 부군수님 주재로 하는 것이고, 부군수님 출타해서 없으면 과장이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날을 정해놓고 꾸준히 이걸 대화하고 어민들하고 해야 어떤 방법이 설령 못하더라도 그런 마음이라도 읽고, 어려움을 들어줬을 때 어민들이 조금이라도 힘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다릅니다. 과장님 심각성을 알고 하시라고요.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알겠습니다.

○최정욱 의원

어민들 빚 1,000만원에 월 50 이자를 써요. 은행비율이 열 몇 배를 주고 쓴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한계가 온 거예요, 이런 정도면. 이런 거 간파 잘해서 올해는 정말 위기라는 생각을 가지고 대비를 해서 박성규 의원님이 여러 가지 했습니다마는 더 이상 안 합니다마는 작년과는 올해가 다르다, 그러니까 이거는 비상체계로 생각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잘 알겠습니다.

○최정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양훈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산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정계창

보건행정과장 정계창입니다. 지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료취약지 해소를 위한 보건의료 인프라 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읍면별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현황입니다.

우리군 보건기관은 보건지소 12개소와 보건진료소 18개소를 포함 30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종사인력은 공중보건의사 34명, 보건진료소장 및 직원 56명 등 90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기관 진료인원 및 진료수입 현황입니다.

2024년도 보건기관 진료인원은 보건지소 2만 3,950명, 보건진료소 1만 2,166명 등 3만 6,116명이며, 진료수입은 보건지소 5억 300만원, 보건진료소 2억 800만원 등 총 7억 110만원입니다.

진료인원의 차이는 전산착오 등을 2024년도에 현행화한 자료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이어서 2페이지, 연도별 공중보건의사 배치 현황입니다.

지난 해 공중보건의사 배치는 2023년도 대비 의과 2명과 한의과 1명 등 3명이 부족하여 의과는 체도권 진료수요가 적은 군외보건지소와 약산보건지소에 한의과는 보길보건지소에 미배치하고 이동진료 및 원격진료로 의료공백을 최소화하였습니다.

금년도 공중보건의사 배치는 의과 1명이 감소되어 금년 4월 의사 1명을 채용, 보건의료원에 배치하고 의료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읍면별 의료기관현황입니다.

우리군에는 병원 1개소, 의원 22개소, 한의원 7개소, 치과 12개소 등 42개 민간의료기관이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의료취약지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 총 3개 사업이며, 소아청소년과 운영지원에 2억 5,000만원, 외래산부인과 운영지원에 2억원, 의료취약지 인공심장실 지원사업에 3억원 등 총 7억 5,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료취약지 지원사업으로 인하여 지난 해 소아청소년과 1만 4,361명, 외래산부인과 7,219명, 인공심장실 6,798명 등 2만 8,378명이 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도별 취약지 원격협진사업 추진입니다.

원격협진사업을 위해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7개소, 보건진료소 18개소, 민간의료기관 4개소 등 30개 보건과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원격지는 보건의료원 포함 12개소이며, 수혜지는 보건지소 4개소와 보건진료소 18개소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원격협진진료실적입니다.

22년 1,215건, 23년 3,431건, 24년 1,141건입니다.

2003년 대비 원격협진 진료실적이 낮은 이유는 국비지원시범사업 만료로 2024년부터 순군비로 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마는 예산부족으로 참여실적이 저조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순군비로 2023년 수준의 예산을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수요자에 따라 예산을 추가확보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서지역 응급의료체계 구축현황입니다.

먼저 응급의료 자동심장충격기 설치현황입니다.

구비의무기관 127개소와 다중이용시설 176개소 등 303개소에 설치하고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응급의료헬기착륙장 설치현황입니다.

응급헬기착륙장은 13개소입니다.

그중 야간헬기 운영이 가능한 곳은 6개소입니다.

이외에도 임계점 24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응급의료 운송수단 현황입니다.

구급차 12대, 해경선 8척, 닥터헬기 1대 외에도 완도소방서 나르미선 16대가 지정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 도서지역 응급환자 이송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문제점 및 개선방안입니다.

기상악화시 선박과 헬기운항 제한으로 도서지역 응급환자 발생시 후송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형병원과 연계한 원격의료진료시스템을 확대하고 지속적인 응급처치 훈련강화 및 주민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도서지역 응급환자 대응력 강화를 위해 완도군과 해양경찰서 소방서와의 응급의료 이송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응급의료협의체 정례화를 통하여 응급의료체계를 수시 검토해 개선하여 우리 지역에 적합한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해 나갔습니다. 이상으로 지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료취약지 해소를 위한 보건의료 인프라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양훈

지민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지민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성 의사 증가와 군복무 기간 등 구조 원인에다가 의정갈등이 더해지면서 전국적으로 공중보건의가 10% 줄었고, 전라남도의 경우 2024년도에 534명이었는데 올해는 477명으로 11% 정도가 감소가 되었어요. 그래서 완도는 의료취약지가 많아서 공중보건의사가 기초진료권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보건행정과장 정계창

예. 그렇습니다.

○지민 의원

본 의원도 이번 공중보건의 배치와 관련해서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또 완도는 다행히 37명을 배치를 받았는데 이 부분 운영상 문제는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계창

현재 저희 완도군의 체도권 외에 도서지역 같은 경우는 야간응급으로 대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공중보건의사가 최우선 순위로 배정된 곳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 1명이 공중보건의사가 미채용돼 있고, 현재도 2023년도 대비 2명이 덜 채용된 상황입니다. 앞으로 대비해서 물론 채용의사 수급조건을 고민도 해야겠지만 이제 공중보건의사가 갈수록 주는 상황에서 채용의사만 계속 의지할 수 없는 상태이고, 또 체도권에 대해서 보건지소 기능의 개편을 위해서 보건복지부, 전라남도, 또 각 지자체 현재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고 대책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 군만의 특수적인 부분들을 좀 더 고민을 해서 거기를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민 의원

이번에 채용의사가 채용이 됐어요?

○보건행정과장 정계창

예. 그렇습니다.

○지민 의원

채용의사 공고를 보니까 기간이 올해 12월 31일로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기간이 짧게 돼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계창

일반 부분 같은 경우에는 1년, 2년 채용 부분이 현재 기간제근로자 계약 부분이고, 또 금년 예산, 금년 예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는 12월까지 채용되고 있고, 공중보건의사 수급 조절시간이 4월 보편적으로 초과됩니다. 그래서 내년 초까지는 가장 큰 문제가 금년 현재 공중보건의사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의대 정원 동결로 인해서 복귀하는 형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공중보건의사가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적어서 1명 채용에도 5명이 응시할 정도로 접근성은 좋았습니다마는 내년 상황은 수급이 원활치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현재 의사선생님이 원격진료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자문위원이기도 하시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내년까지 계실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민 의원

일단은 이게 기간이 올해까지 돼 있어서 내년에 공고를 내고 다시 또 채용을 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정계창

예. 그렇습니다.

○지민 의원

그러면 이 채용 의사는 어디로 배치가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정계창

현재 채용 의사는 2023년 대비 2명이 부족한 상황이여서 보건지소라든가 보건의료원에서도 진료 외에는 원격협진이라든가 재택진료라든가 그다음에 보건사업에 따른 각종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채용의사부분 급여수준이 있고, 저희 행정의 원활을 위해서 금년도에는 도서낙도 순회 진료까지도 제도와 협정계약조건에 넣어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보건의료원 1과에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민 의원

보건의료원으로요?

○보건행정과장 정계창

예. 그렇습니다.

○지민 의원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내년이나 내후년에도 장담을 할 수 없잖아요, 배치가 된다는 것에. 그래서 단기적으로 공중보건의사 감소세에 대응을 하고, 장기적으로 공중보건의사 대처할 수 있는 보건지소에 상시 근무할 수 있는 진료의사를 점진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이 부분에 장기적인 대책에 대해서 혹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계창

현재는 저희가 금년에 일반의는 월 2천입니다. 전문의 분들을 지자체라든가 병원에서 3억에서 4억을 줘도 현재……

○지민 의원

연?

○보건행정과장 정계창

예. 그렇죠. 오지 않은 경우가 허다합니다. 저희도 보건…… 물론 의사를 채용해서 전체를 배치하면 좋겠지만 거기에 따른 재택진료라든가 본 처방 외에는, 보건진료소에서는 본 처방 외에 원격진료로 인한 만성질환자 약 수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각적인 방면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라남도, 보건복지부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 군뿐만 아니라 전라남도 오지라든가 섬 지역에 처해 있는 상황이라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민 의원

완도군 보건 분야 가장 큰 문제는 의사 확보에 문제가 있고, 다른 농어촌도 마찬가지 문제일 것 같고요. 또 이렇게 의사 공고를 내도 섬 근무를 기피하는 경우가 많아요. 거의 다 기피를 하고 있죠? 일단은 지원자가 없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왜 이렇게 지원자가 없냐.

○보건행정과장 정계창

예. 그렇습니다.

○지민 의원

지원자가 없어서라는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왜 지원을 안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계창

자세하게 아직 파악은 해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다른 지자체라든가 강원도라든가 다른 지자체에서 수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은퇴 의사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은퇴 의사에 대해서는 수급

요건이나 전체적인 데이터가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이라 아직은 조심스럽게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민 의원

저도 왜 이렇게 지원을 안 할까 저희는 저희가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좋은 곳인데 왜 안 할까 생각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기기들이 원체 좋게 나오니까 검색도 해 보고, 또 이것저것 찾아보고 했더니 거주환경이라든지 근무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오는 거 있더라고요. 일단은 우리 지역은 거리가 멀고, 또 섬지역으로 돼 있다 보니 개선을 하기 위해서 지원자가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군만의 특별한 주거나 교통, 근무환경 개선이라든지 획기적으로 인센티브를 많이 준다든지 그런 실질적인 정책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거든요. 예산도 이게 당연히 예산도 수반되어야 되니까 여러 가지 제반사항 때문에 단기간에 또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군 보건의료 진료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장기적인 방안 수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정계창

의원님 말씀처럼 대도시권하고는 준할 수 없겠지만 저희 지역의 주거교통이나 근무환경 개선에 장기적인 계획이나 세부계획으로 해서 충분히 예산 부분이라든가 종합적인 검토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민 의원

여러 모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 읍·면에 의원 없는 곳이 어디 어디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정계창

의원급이 없는 부분이 체도권은 약산이고요. 금당, 생일, 보길이 현재는 의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청산 같은 경우 푸른뫼중앙의원 2023년 9월에 휴업에 들어갔지만 경영난 악화로 아마 법인 청산절차에서 재개원은 하지 않을 것 같고요. 의과 부분에 대해서는 청산까지 포함해서 5개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민 의원

그러면 이곳에 군민들이 이동을 해서 나와서 진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대략 어떤 부분에 대한 진료를 많이 받고 있던가요?

○보건행정과장 정계창

보건지소에는 기본적인 만성질환자들의 고정적인 약품, 약들하고요. 그런 부분이 강하고요. 또 외부로 나가신 분들은 물리치료라든가 영양제 처방이라든가 본인의 수요도에 따라서 나오는 편입니다.

○지민 의원

그렇죠? 일단 완도가 고령화가 많기 때문에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또 특히 이분들은 일반 영양제라든지 수액이라든지 물리치료를 받으러 많이 나오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정계창

그렇습니다.

○지민 의원

그래서 지금 현재 금당, 생일, 약산에서는 물리치료를 하고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정계창

예. 금당에는 기존에 물리치료를 하고 있고, 생일은 지난해 수요에 따라서 증축을 하고, 물리치료사를 정규물리치료사가 없기 때문에 기간제로 채용을 했습니다마는 그게 시골에 기간제 인건비로는 오지 않습니다, 물리치료 자격증 가지신 분들이. 금년도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정액제로 해서 현재 4월에 다행히 1명이 채용돼서 현재 생일에 물리치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민 의원

그래서 그외 다른 보건지소에서는 물리치료

를 하고 있지 않고요.

○보건행정과장 정계창

예. 그렇습니다.

○지민 의원

그리고 영양제나 수액도 저희가 안 넣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정계창

예.

○지민 의원

그게 혹시 이유가 무엇인지 법적인 제재가 있어서 그러는지?

○보건행정과장 정계창

영양제 처방 부분에 대해서는 영양제 처방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 진료실하고 상시감시 체제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간호사나 의사가 필요하고요. 또 만약에 수액처방 중에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인근에 조치할 수 있는 응급실을 가진 중앙병원들이 인접해 있어야만 가능한데 현재 보건지소에서는 실질적인 모든 인력이라든가 운영 형태라든가 모든 게 어렵습니다. 대신에 응급상황이 발생됐을 때 처방할 수 있는 수액은 처방하고 있습니다.

○지민 의원

일반적인 수액**……**

○보건행정과장 정계창

영양제 부분에는 어렵지만**……**

○지민 의원

영양제는 어렵고.

○보건행정과장 정계창

탈수증세라든가.

○지민 의원

어떤 증상에 대한 처방 수액은 할 수 있다.

○보건행정과장 정계창

응급상황에서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민 의원

그러면 일단 시설하고 인력관리 문제도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정계창

그 두 가지 부분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민 의원

상시모니터링도 해야 되고.

○보건행정과장 정계창

상황이 발생했을 때 큰 병원으로 움직일 수 있는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체계까지 갖춰져야 운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민 의원

수액처방이라든지 영양제처방이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렵다고 하면 물리치료를 확보할 수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정계창

예.

○지민 의원

그래서 인원이라든지 물리치료사들을 인원들을 확보를 해서 이걸 보건지소에서 한다면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정계창

물리치료실 부분은 특히 의원급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점진적으로 아까 지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취약계층일수록 거동이 불편해서 나오지도 못합니다. 저희 내부적으로도 장기적인 부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민 의원

이걸 차근차근 점차적으로 한꺼번에 하면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그러니까 1개소씩이라도 점차적으로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정계창

예. 알겠습니다.

○지민 의원

그리고 다음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청산면

의원 휴업이 23년도……

○보건행정과장 정계창

23년도 9월부터.

○지민 의원

9월부터 휴업에 들어갔어요. 거의 2년 가까이 되죠?

○보건행정과장 정계창

예. 그렇습니다.

○지민 의원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을 한다고 했는데 인가허가가 났는지 상황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정계창

청산푸른뫼의원 이후로 청산주민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의료법인 사회복지 협동조합 인가를 위해서 지난해 보건복지부에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에서는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입니다. 그래서 거기 의료목적사업 운영에 대한 자산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모든 걸 검토해서 4월에 불허가가 떨어졌습니다. 청산면 측에서는 다시 서류를 보완해서 재신청을 현재 한 상태입니다.

그 결과가 5월 중순에 나올 것으로 저희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민 의원

청산면 푸른뫼의원 관련해서 행정에서 이렇다 할 추진사항도 없이 벌써 한두 해가 후딱 지나갔는데 앞으로 그때 당시 때 우리 보건행정과에서 지원했었던 일이 있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계창

의료에 대해서는 지원하기는 어렵고요. 예를 들어 우리 완도에 응급상황이라든가 취약지역 병원에 대해서는 지원체계가 있습니다마는 개인의원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신에 푸른뫼의원 휴업한 이후로는 청산면에 약품을 107여종을 더 추가로 보충을 해서 만성질환자에 대한 모든 조건에 대해서는 다 소화를 해 내고 있습니다. 현재도 내고 있고요. 푸른뫼의원을 이용하신 주민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영양제라든가 물리치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만족감이 떨어져서 실질적인 저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만성질환자에 대한 의료조건에서는 저희가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만성질환자에 대해서는 쭉 약을 먹어왔고, 특별하게 변경사항이 없을 거니까 우리지역에 청산 같은 경우는 거리가 멀잖아요, 배를 타고 1시간을 가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 지역에 병원이 없다는 것이 주민들은 많이 불안했을 것 같고, 그런 사항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또 많이 답답해서 오죽 답답했으면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을 해서 병원까지 하려고 했을까? 그러한 생각도 들어요. 존경하는 박병수 의원님께서 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 답변에서도 여러 차례 질의를 했던 사항이고, 청산면 주민들이 지금까지 계속 건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산 주민들이 애타게 원하는 그러한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 앞으로 청산면에 대해서 지원하시려는 계획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계창

지금 현재 5월 15일날 사회복지협동조합 최종결정이 나고요. 현재 청산면에 운영 중 물리치료 부분에 대해서는 한의원이 1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데 그 한의원이 언제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거기에 물리치료실을 증축을 하거나 구비를 해서 생일이나 금당처럼 주민만족도 제고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그 부분까지도 현재 고민 중에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회복지협동조합 인가 결정 후에 추가로 주민들 의견을 한 번 더 수요조사를 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민 의원

일단 5월 15일날 결정이 나야지 알 수 있겠네요. 그런데 혹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채용의사 1명을 채용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정계창

예.

○지민 의원

혹시 그 채용의사를 청산면으로 보내서 채용할 수 있을까요? 배치를.

○보건행정과장 정계창

아까 의원님 질의하셨을 때 제가 답변 드렸듯이 저희 완도군은 공중보건의사가 2023년 대비 2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금년에도 1명이 부족해서 3명이 부족한 상황에서 재택진료라든가 그다음에 보건사업이라든가 추진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본 사업들은 그러니까 현재 그 부분을 보건의료원이 환자 진료를 하고 공중보건의사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 부분은 협조도 덜 합니다.

이 부분은 채용하는 조건에 방문보건이나 보건사업하고 그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제 보건의료원 1과에 배치할 수밖에 없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 의원

청산에 할 수도 있죠? 이걸 군에서 시설하고 만약에 안 된다고 했을 때 이게 더 길어지잖아요. 군에서 시설하고 장비를 지원해서 의원 형태 진료소를 임시로 개소를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는데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계창

참고로 공중보건의사 인턴 3년차입니다. 청산면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가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고요. 또 정형외과 전문의입니다. 어르신들에게는 그래도 가장 적합한 의사라고 생각합니다.

○지민 의원

그리고 다음 질문 더 드려볼게요. 우리 완도군이 54개 유인도서로 이루어져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정계창

예. 맞습니다.

○지민 의원

그리고 보건진료소조차 없는 섬이 50% 이상 반 이상 정도 되죠?

○보건행정과장 정계창

예.

○지민 의원

그래서 의료기관이 없는 도서지역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계창

지금 현재 유인도로 등록된 곳은 54개소입니다. 그중 완도읍 이런 체도권 본도를 제외하고 달도라든가 노화 장사도 보길하고 중간에 있는 그 외 40개소가 됩니다. 소랑도까지 빼면 39개소가 되는데요. 현재 보건의료의사는 무의낙도 순회진료 관련 부분을 8개소를 반기에 운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전남 511호 병원선 순회진료가 매분기 32개 도서를 순회해서 현재 진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민 의원

그래서 현재 원격진료도 많이 하고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정계창

18개 보건진료소하고 보건지소 의사가 상주하지 않은 보건지소 4군데에 대해서는 원격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지민 의원

여기는 보통 보면 만성질환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만성질환자 약을 꾸준하게 똑같은 약을 처방을 받는 분들한테는 되게 괜찮은 방법이기는 한데 이게 또 원격진료니까 직접 찾아가서 진료를 해주는 것보다는 당연히 못하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정계창

예. 그렇습니다.

○지민 의원

전에 완도군에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방문보건진료를 했어요. 24년도에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도 추진을 한 적이 있고요.

○보건행정과장 정계창

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민 의원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계창

예.

○지민 의원

반응은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계창

재택진료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집안에 와서 한 부분하고요. 또 참여의사 부분이 전담의사가 있는 부분이면 활용도가 높습니다마는 저희 공중보건의사가 항상 접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저희는 지난해에는 저희 원장님 포함 일부 참여의사하고 완도권, 신지권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적은 인원으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요도나 만족도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년에 채용된 의사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재택진료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부분에 많은 부분을 재택진료에 할애를 해서 거기에 따른 수요도나 만족도나 앞으로 방향이라든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더 나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방문보건진료를 하는데 진료소가 있는 곳까지만 방문진료를 하죠?

○보건행정과장 정계창

예.

○지민 의원

그래서 진료소나 아무것도 없는 섬들은 어떻게 할까 아예 방문도 안 하는 건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까 511호 전남병원선 말씀하셨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정계창

예.

○지민 의원

그런데 그것도 분기별로니까 서른 몇 군데가 되니까 이걸 돌려고 보면 석달에 한번이니까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 많아요. 전에 또 그래서 백일도 주민분이 인터뷰를 한 그 영상이 있는데 병원에 한번 가려면 꼭두새벽에 일어나서 아침 일찍 여객선을 타고 또 완도항에 내려서 택시를 잡아타고 가는데 병원선이 와서 진료를 봐주니 너무 고맙다, 그런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섬생활은 참는 게 일상이라고 하셨거든요. 눈물을 흘리셨다고 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래서 의료는 특혜가 아니고 인간이 살아가는데 기본 권리예요. 그래서 기본권리조차 받지 못하는 도서지역에 어르신들이 많고, 또 보호를 받아야 하는 어르신들이 참는 게 일상이라고 하니 그것도 참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 지역 완도군의 현실이라고 하니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한번 해보고자 해요. 여기저기 검색을 해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다 우리군에 접목을 하기 보다는 요점 요점 우리군에 맞게끔 이걸 변형을 시켜서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어서 농식품부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 또 농협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농촌왕진버스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이게 또 작년에 청산면에 왔었는데 원광대병원하고 협약을 해서 추진을 했다고 합니다. 혹시 들어보셨죠?

○보건행정과장 정계창

이제 원광대뿐만 아니라 일선 그래도 읍면 단위 교회라든가 거기에 맞는 외래 의과자원

봉사가 저희 완도군에 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지민 의원

자원봉사를 많이 오는 걸로 들었고요. 크게 많이 이런 저런 검사를 해주는 것은 아니고 기본진료하고 돋보기를 나눠주는 정도였다고 하고 어르신들은 너무 고마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예로는 지방소멸 대응기금 있잖아요. 지방소멸 곡성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을 해서 찾아가는 전담 건강버스를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혹시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 몇 군데 하고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정계창

찾아가는 건강버스 외에도 다양하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민 의원

병원이 없는 의료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 의료장비를 탑재한 대형버스가 마을을 직접 방문해서 무료로 의료서비스를 제공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 우리 지역 특성하고 고령화율을 고려를 할 때 이와 유사한 모델을 우리 지역 현실에 맞게 변형을 해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계창

지민 의원님께서도 처음에 의뢰를 하셨듯이 공중보건의사가 안정적으로 수급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원격협진만으로는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부분에 대해서 버스가 됐든 아니면 선박이 됐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을하고 우리 지역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것이 지금부터 고민을 같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민 의원

이게 꼭 이렇게 큰 버스라든가 큰 선박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더라도 일단은 의사가 확보가 된다고 하면 이분들은 왕진 다닌다는 것처럼 읍면을 돌아다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정계창

예. 그렇습니다.

○지민 의원

그런 거를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을 해서 비용을 좀 쓰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혹시 인구일자리정책실장님 계신가요?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예.

○지민 의원

혹시 보건의료개선이 인구소멸을 막는 가장 근본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의료 부분이 취약하기 때문에 대성병원에 인공심장실 신축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이게 문제는 대응기금을 투자하려면 사업계획이 구체화돼야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버스는 육지는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는 아마 모도까지는 들어갈 수 있는데 부속도서까지는 버스는 못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군민들이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계획이 구체화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민 의원

꼭 버스가 아니고 우리 지역에 맞는 어떠한 방법을 찾아서 그렇게 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라고요. 신중하게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예. 알겠습니다.

○지민 의원

그리고 또 다른 곳 담양에서는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해서 거동이 불편하고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적절하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거동불편 어르신 병원동행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 담양이니까 광주랑 가깝잖아요. 광주권역까지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완도같은 경우는 의료기관이 많이 없고 또 배를 타고 길게는 1시간 정도 타고 나와야 되는데 고령인구도 많고 또 혼자 계신 분들도 많잖아요, 독거노인이 많으시니까. 그래서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계창

현재 우리 거동불편어르신은 아니여도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름 택시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의원님이 제안해 주신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물론 예산뿐만 아니라 인력까지 그다음에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당목이라든가 금당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화흥포라든가 청산 그래서 수요도 한 번 더 당장은 어렵더라도 조사를 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저희 지역사업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 적극 검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민 의원

검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은 강화군이나 옹진군에서는 1섬1주치병원이라는 민간협력진료사업을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추진을 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군하고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 우리군에는 큰 대형병원하고 협약돼 있는 게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계창

현재 대형병원하고도 어렵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원격진료사업 부분에도 지금 관외병원하고 저희하고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가장 큰 게 빈 부분에 대해서는 대성병원하고 완도권 의원님들하고요. 의원 원장님들하고 그다음에 보건지소에 지금 섬지역에도 2명씩 공중보건의사가 야간 고정배치돼 있습니다.

이분들이 참여해서 원격진료를 하고 있는 형태라 1섬1주치병원은 당장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지민 의원

고민을 해 주시고요. 어렵다고만 하지 마시고 추진도 해보려고 노력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계창

예. 알겠습니다.

○지민 의원

그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현재 인공심장실 확충사업 하고 있죠?

○보건행정과장 정계창

예. 하고 있습니다.

○지민 의원

이것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추진이 되고 있지 않다는 거 알고 계시죠?

○보건행정과장 정계창

잠정적인 부분이 크게 두 가지 있습니다. 기존에 했던 돌을..... 파쇄해 놓은 돌에 주인의 소유권 때문에 약간 논쟁은 있었고요. 두 번째는 도시지역 안에 화약으로 발파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우리 주거지역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당초 설계가 화약요건으로 하지만 경찰서 협의 결과 그게 화약발파는 불허가 돼

서 다시 쪼개가지고 하는 공법으로 변형, 설계 과정에 있고요. 1차적인 부분은 현재 다음 주부터 공사는 들어갑니다.

그 상황이 두세 달 정도 길어지기 때문에 공사기간은 길어질 걸로 생각합니다.

○지민 의원

여기 초기에 부지를 선정을 할 때 이런 사항이 있다는 걸 파악이 안 됐었을까요?

○보건행정과장 정계창

초기에 저희들이 기부체납 받은 형태이기 때문에 소유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저희도..... 저희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돌을 옮기는 과정에 민원 현장을 보고 저희한테 이의를 제기한 상황이라 인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민 의원

예산도 이제 증가가 됐어요.

○보건행정과장 정계창

예.

○지민 의원

또 앞으로도 예산이 증가가 되나요?

○보건행정과장 정계창

현재 당초 사업목적보다는 훨씬 우리가 지금 건축자재비라든가 모든 비용들이 초과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초 계획보다는 많이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기본적인 인공심장실 순수 이용할 수 있는 요건만 갖추고 그 외 부대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큰 부분이 인공심장실 이용하고 있는 환자들이 현재 대성병원인공심장실이 열악합니다.

최대한 빨리 병원 운영을 저희한테 요구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 먼저 이행을 하고 나머지 부대시설 부족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민 의원

아까 우리 자료에도 보니까 매년 이렇게 투석하시는 분들 숫자는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완공만 기다리고 꽤 기간이 된 것 같은데 기다리는 인구가 많고 그래서 빨리 완공이 되고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관리감독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정계창

알겠습니다.

○지민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의료는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생존권이에요. 그렇죠? 특히 도서 고령 지역에서의 의료서비스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권리로 보장이 되어야 하고요. 이게 섬에 산다는 이유로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의료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일 또한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의료취약지 해소를 위해서 단기대응을 넘어서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보건의료체계 개편에 대해서 과장님의 실천적 의지를 기대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계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민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양훈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5시 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운영 및 의정활동 자료수집을 위하여 4월 25일부터 4월 30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군정 질문 답변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 해당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9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

○출석의원(9인)

김양훈 박성규 지민
박재선 박병수 조인호
최정욱 허궁희 조영식

○출석공무원

군수	신우철
부군수	이범우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세무회계과장	김희수
민원봉사과장	우홍래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경제교통과장	이정국
관광과장	오현철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체육진흥과장	최광윤
농업축산과장	박창희
수산경영과장	김 일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건설과장	김진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보건의료원장	한광일
시설관리사업소장	전호용

○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최정환
의사운영팀장 서을식
속 기 사 정현중
속 기 사 임은주

제329회 완도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5월 1일(목)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완도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완도군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3. 완도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4. 완도군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5. 완도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완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완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완도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완도군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완도군 보건의료원 수가 및 구급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완도군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완도군 가족센터 민간위탁동의안
13. 완도군 사단법인 장보고글로벌재단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14. 완도군 장보고연구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15. 완도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완도해조류박람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완도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완도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조인호 의원 외 8명 발의)

2. 완도군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박재선 의원 발의)

3. 완도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허궁희 의원 발의)

4. 완도군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조영식 의원 발의)
5. 완도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6. 완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7. 완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8. 완도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9. 완도군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0. 완도군 보건의료원 수가 및 구급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1. 완도군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2. 완도군 가족센터 민간위탁동의안(완도군수 제출)
13. 완도군 사단법인 장보고글로벌재단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4. 완도군 장보고연구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5. 완도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6. 완도해조류박람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7. 완도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양훈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완도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17건의 안건을 상정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완도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조인호 의원 외 8명 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완도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해 주시고 의회운영위원회 지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지민입니다.

지난 4월 24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388호 「완도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설치한 완도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공정하고, 전문적인 자문을 위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규칙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한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양훈

다음은 질의 및 토론 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

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지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도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완도군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박재선 의원 발의)
3. 완도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허궁희 의원 발의)
4. 완도군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조영식 의원 발의)
5. 완도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6. 완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7. 완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8. 완도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9. 완도군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0. 완도군 보건의료원 수가 및 구급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1. 완도군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2. 완도군 가족센터 민간위탁동의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도군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완도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완도군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완도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완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완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완도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완도군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완도군 보건의료원 수가 및 구급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완도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완도군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자치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서를 검토해 주시고 행정자치위원회 박재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박재선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389호「완도군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등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389호「완도군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완도군의 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 중인 시설이나 단체 등에 군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보조금 및 보조사업의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공정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적용범위, 지원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운영표지판의 설치, 관리감독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90호「완도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을 한 국가유공자를 예우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우선주차구역 이용 등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완도군민의 애국심을 고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설치장소 및 설치기준·방법, 우선주차구역의 이용 및 위반차량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91호 「완도군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족돌봄청소년·청년 및 그 가족에 대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 협력체계 구축 및 중복지원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92호 「완도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완도군 상징물관리 조례 제3조 제6호에 명시된 군목을 동백나무에서 완도호랑가시로 변경하고자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93호 「완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가 일부 개정되어 공무원 복무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의 3 선거 관련 사무수행 공무원의 휴무가 신설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94호 「완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6급 이하 직급별 정원을 통합하여 인력 ·조직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탄력적인 조직운영에 기여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95호 「완도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을 현행화하고 건축제도 및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96호 「완도군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도로명 주소 사용 의무화에 따라 관련 주소를 현행화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97호 「완도군 보건의료원 수가 및 구급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본 조례안은 관계법령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 제5조 개정에 따라 조례 규율범위를 변경하고 위임사항을 반영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98호 「완도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본 조례안은 임산부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고자 만든 교통카드 대신 교통비를 현금으로 지원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조항을 신설 및 정비하여 자녀 출산과 양육 정책을 내실화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05호 「완도군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완도군 가족센터를 관리·운영함에 있어 지역중심의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게 전문적인 상담 및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제 4조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통합 가족 서비스 제공으로 가족의 성장과 행복한 삶을 지원하고 운영의 활성화와 사업의 전문화 확보를 위해 민간위탁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 과정을 거쳐 심사한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양훈

다음은 질의 및 토론 할 순서입니다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박재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한 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완도군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도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도군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도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완도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완도군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완도군 보건의료원 수가 및 구급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완도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완도군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3. 완도군 사단법인 장보고글로벌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4. 완도군 장보고연구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5. 완도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6. 완도해조류박람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7. 완도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완도군 사단법인 장보고글로벌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완도군 장보고연구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완도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완도해조류박람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완도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서를 검토해 주시고 산업건설위원회 박병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병수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399호 완도군 사단법인 장보고글로벌 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99호 완도군 사단법인 장보고글로벌 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과 의안번호 제3400호 완도군 장보고연구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두 조례안은 장보고 선양사업이 다양화되고, 장보고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수요 확대에 따라 유사한 자치법규인 「완도군 장보고대사 선양사업 지원 조례」로 통합 운영하고자 폐지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01호 완도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체육회 등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는 근거를 마련하면서 공유재산의 대부, 사용, 수익의 내용, 조건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정하도록 개정되었으나 명시되지 않아,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02호 완도해조류박람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완도군의 대표적 해양자원인 해조류의 가치와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완도해조류박람회 운영과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추진위원회 설치, 주최 및 주관, 위원회의 기능, 구성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안 제6조 위원회 구성 시 군수가 위원을 위촉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제6조 제3항 제4호에 위원장으로 규정되어 있어 군수가 위촉하도록 수정하였으며, 제7조 제1항 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에도 제7조 제3항에 임기를 박람회 예산 정산을 완료한 날 까지로 이중으로 규정하고 있어 제3항을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03호 완도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 현장에서 작업 중 발생하는 안전재해를 예방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적용대상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예방위원회, 예방계획 및 지원사업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 과정을 거쳐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할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박병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한 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완도군 사단법인 장보고글로벌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완도군 장보고연구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완도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완도해조류박람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완도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8일간의 회기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군정 질문·답변을 통해 군정 현안사항을 점검하고, 민생조례안 등 17건의 부의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회의 결과를 토대로 현안업무를 비롯한 각종 정책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이번주 토요일, 장보고 수산물축제가 개막합니다.
행사장이 바닷가와 인접해 있고 해상에서도 진행된 만큼,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와 운영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수산물의 우수성이 널리 홍보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군민 모두가 함께 어우러지는 화합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한 안건에 대해「완도군의회 회의규칙」제26조에 따라 경미한 자구나 오류의 정정은 제가 위임받아 처리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9회 완도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출석의원(9인)

김양훈　박성규　지민
박재선　박병수　조인호
최정욱　허궁희　조영식

○출석공무원

군수	신우철
부군수	이범우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세무회계과장	김희수
민원봉사과장	우홍래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경제교통과장	이정국
관광과장	오현철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체육진흥과장	최광윤
농업축산과장	박창희
수산경영과장	김　일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건설과장	김진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보건의료원장	한광일
시설관리사업소장	전호용

○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최정환
의사운영팀장 서을식
속　　기　사 정현중
속　　기　사 임은주

제329회 완도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4월 24일(목)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완도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의된 안건

1. 완도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조인호 의원 외 8명)

(15시15분 개의)

○위원장 지민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

1. 완도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조인호 의원 외 8명)

그러면, 의안번호 제3388호 「완도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388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조인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호 위원

조인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388호, 「완도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의원의 윤리성 강화를 도모하고, 윤리적 사안에 대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자문을 위해 윤리심사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칙에 반영하여 의회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본 개정규칙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0조에는 윤리심사 자문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는 동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는 자문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는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민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민

의안번호 제3388호 「완도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경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의 관한 사항을 심사하여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윤리심사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인호 의원님의 설명내용안과 규칙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인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민

다음은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 ·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축조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388호 「완도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출석위원(8인)

지민 박재선 박성규
박병수 조인호 최정욱
허궁희 조영식

○ 전문위원 : 박영민
○ 속 기 사 : 정현중
○ 속 기 사 : 임은주

제329회 완도군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4월 24일(목)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완도군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2. 완도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3. 완도군 가족돌봄청소년· 청년 지원 조례안
4. 완도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완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완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완도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완도군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9. 완도군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완도군 보건의료원 수가 및 구급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완도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완도군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박재선 의원 발의)
2. 완도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허궁희 의원 발의)
3. 완도군 가족돌봄청소년· 청년 지원 조례안(조영식 의원 발의)
4. 완도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5. 완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6. 완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7. 완도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8. 완도군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완도군수 제출)
9. 완도군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0.완도군 보건의료원 수가 및 구급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1.완도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5시21분 개의)

○위원장 박재선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완도군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이 되겠습니다.

---

1. 완도군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박재선 의원 발의)

먼저, 의안번호 제3389호「완도군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389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지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 위원

지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389호「완도군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완도군에 보조금 지원되었거나 지원중인 시설이나 단체등에 군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서 보조금 및 보조사업에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공정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적용범위 지원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제6조 제7조에서는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운영, 표지판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 제11조에서는 지원표지판 등에 철거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관리감독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민

의안번호 제3389호「완도군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도군으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시설·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 사항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해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도모하여 공익에 입각한 운영 ·관리를 유도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지민 의원님의 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완도군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지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 ·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389호「완도군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완도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허궁희 의원 발의)

다음은, 의안번호 제3390호「완도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390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허궁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궁희 위원

허궁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390호「완도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을 한 국가유공자를 예우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우선주차구역 이용 등의 편의를 제공함으로 완도군민의 애국심을 고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군수의 책무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안 제5조와 6조에서는 설치장소 및 설치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제8조에서는 우선주차구역의 이용 및 위반차량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민

의안번호 제3390호「완도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게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등 방문 시 주차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복지증진 향상과 예우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허궁희 의원님의 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완도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390호「완도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완도군 가족돌봄청소년· 청년 지원 조례안(조영식 의원 발의)

다음은, 의안번호 제3391호「완도군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391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조영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 위원

예. 조영식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391호「완도군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완도군의 가족돌봄 청소년과 청년 및 그 가족에 대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 군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안 제7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 및 중복지원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민

의안번호 제3391호 「완도군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가족 구성원을 돌보고 있는 청소년과 청년에 대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영식 의원님의 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 ·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391호 「완도군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완도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안번호 제3392호 「완도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392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기획예산실장 한희석입니다. 의안번호 제3392호 「완도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완도군의 군목을 현행 동백나무에서 완도 호랑가시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동백나무는 그간 완도군을 상징해온 수종으로 의미가 있지만 현재 전국 27개 시군에서 동일하게 군목으로 지정하고 있고 완도만의 고유성과 차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완도에 자생하며 완도라는 지명을 이름

에 담고있는 희귀수종인 완도 호랑가시를 군목으로 새롭게 지정하고자 합니다. 완도 호랑가시는 감탕나무와 호랑가시나무의 자연 교잡한 종으로 조화와 화합, 사랑과 행복을 상징하는 뜻깊은 나무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완도군 상징물 관리 조례 」 제3조 6호 중 동백나무를 완도호랑가시나무로 변경하고 별표6의 관련 내용을 이에 맞춰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조례개정은 완도군에 상징물로서 정체성과 브랜드가치를 새롭게 재정립하고 군민의 자긍심을 제고시키는데 기여할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내용은 「완도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민

의안번호 제3392호 「완도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도군 상징물 관리 조례에 명시된 군목을 동백나무에서 완도호랑가시로 변경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한희석 기획예산실장의 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선

기획예산실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 ·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392호 「완도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 완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6. 완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안번호 제3393호 「완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394호 「완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393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예. 행정지원과장 천종실입니다. 의안번호 제3393호 「완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지방공무원복무에 관한 예규의 변경 사항를 반영하고 선거업무 종사자의 특별휴가를 개정해 근무자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19조 특별휴가에서

육아시간 사용가능 대상 자녀의 나이 및 사용 범위를 기존 5세 이하를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기존 24개월을 36개월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육아시간 사용시 시간외 근무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선거업무종사자등 군정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별표1 경조사 및 휴가 일수표에서 배우자 출산시 10일을 20일로 다태아를 출산시는 25일로 변경하고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사망한 경우 기존 1일을 3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완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재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민

의안번호 제3393호 「완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가 일부 개정되어 공무원 복무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 또한, 선거 관련 사무 수행 공무원의 휴무가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천종실 행정지원과장의 설명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394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행정지원과장은 계속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의안번호 제3394호 「완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유입니다. 6급이하 직렬별 정원을 통합운영하여 인력과 조직관리에 유연성과 효율성을 증대시켜 탄력적인 조직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별표1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상 6급이하 직급별 인원이 소속별, 직급별 세분화, 고정화 되어있는 것을 6급이하 직급별 인원을 통합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변경의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및 「완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3조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전남 22개 시군중 18개시군 6급이하 정원을 통합운영하고 있고 전국 대다수의 지자체에서 6급이하 정원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6급이하 직급별,소속별 정원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완도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으로 기준을 운영해 조례와 규칙으로 이중으로 되어있는 것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완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민

의안번호 제3394호 「완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별표 1)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에 명시된 6급이하 직급별 정원을 통합하여 탄력적인 조직운영에 기여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천종실 행정지원과장의 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6급 이하 직렬을 통합해서 운영한다는 이 말씀이죠? 왜 이런 이유가 있는가요?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그게 2013년도에 기준안이 내려왔는데 그간 조례안을 개정하지 않았습니다. 조직개편을 한다고하면 규칙하고 이중으로 되어있습니다. 규칙을 보시면 그 내용이 다시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조례에 명시할 필요가 없다고해서 개정을 하려고합니다.

○박병수 위원

지금 다른 자치단체 정원 현황이 나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예.

○박병수 위원

지금 완도군과 함평군만 의회하고 분리되어 있고 다른데는 통합이 되어있는데 그렇게 놔둔 이유가 뭔가요?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의회하고...

○박병수 위원

완도군하고 정원자료를 보면 6급이하가 현재 이렇게 나오잖아요. 의회사무과와 같이 분리되어있어요. 함평도 그렇게 분리되어있고... 나머지 시군은 의회사무과와 같이 통합이 되어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함평군만 그런 게 아니고 고흥군,강진군도 그렇게 하고있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팀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팀장 김건규

예. 의회를 아직 분리해 놓지 않은 지자체는 예전에 변경사항을 아직 변경해 놓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는 22년도에 의회가 인사권이 분리되면서 조례도 변경을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변경을 해야 한다면 이번 기회에 분리를 시켜줘야... 왜 다른 데는 다 분리가 되어있는데 완도군하고 함평이야... 남의동네니까 놔두지만, 우리 완도군은 통합운영을 하고 있는데 분리를 해놨냐는 말입니다. 이 표를 봐보세요. 목포시를 봐봅시다. 6급 이하 1,272명 통합돼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예.

○박병수 위원

목포시 봅니다. 5급이하 1,272명이 다 통합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완도군은 분리되어 있잖아요. 왜 완도군만 놔두고 조례를 개정하냐는 이야기에요.

○행정지원팀장 김건규

점점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해야 하는 것을 아직 그 지자체가 하고 있지 않은 것

입니다. 다섯곳의 시군은 분리를 해가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지금 통합한다고 안 했어요?

○전문위원 박영민

의원님 통합은 6급 이하 통합입니다. 6급 이하 통합은 우리가 앞에서 행정지원과장이 설명했던 정원 외 관한 규정에 규칙으로 하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걸 규칙으로 지금 바꿔놓은 것이고 6급 이하의 세부적인 사안은 규칙으로 별도로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내용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조례에서만 통합으로 관리한다는 것뿐이지, 내용은 규칙에서 마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의회 정원은 우리가 기관이 분리가 되어있기 때문에 별도 정원관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박병수 위원

지금 별표1에 현행은 본청기관과 직속기관, 사업소 분리를 해놨잖아요.

○전문위원 박영민

예.

○박병수 위원

지금 개정안을 보면 본청과 사업소·읍면 출장소까지 통합이었어요. 그런데 의회 사무과는 15명으로 해서 지금 분리해놨잖아요. 목포시는 6급 이하 1,272명, 전체 포함해서 1,272명.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차이가 뭐냐?” 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그거는 의회가 인사권이 독립 되었잖습니까? 그래서 다른 시군은 지금 분리를 해야 하는데 분리를 안한 상황이고요. 저희 군은 분리를 한 건입니다.

○박병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먼저 하고 있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럼 내가 착각하고 있었네요.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선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393호 「완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94호 「완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7. 완도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안번호 제3395호 「완도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395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우홍래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우홍래입니다.

의안번호 제3395호 「완도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건축법 및 농지법 수행규칙개정에 따라 법령에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가설건축물 신고 대상을 추가하고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지법 개정에 따른 농촌 체류형 쉼터를 가설건축물 신고대상으로 추가하였으며 일조권 적용을 위한 기준건축물의 높이를 9미터에서 10미터로 완화하였고 공개농지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완도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민

의안번호 제3395호 「완도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 법령인 「건축법」과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을 현행화하고, 건축 제도 및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고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우홍래 민원봉사과장의 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395호 「완도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8. 완도군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안번호 제3405호 「완도군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405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의안번호 제3405호 「완도군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역 중심의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형태의 가족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완도군 가족센터를 신축하였습니다. 앞으로 가족센터시설 관리에 있어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를 위하여 민간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관련 근거는 완도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와 완도군 사무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제4조입니다. 시설 위치는 완도읍 신기리길 56-67이며 시설 규모는 지상 4층으로 연면적 1,998 제곱미터입니다. 층별 주요시설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이다. 위탁범위는 완도군 가족센

터 관리 및 운영 전반이며 민간 위탁 기간은 위탁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현 가족센터 사무를 관장하고 있는 민간위탁 완료일까지 위탁하고자 합니다. 주무과 의견은 시설관리효율과 운영 등의 활성화 사업의 전문 확보를 위해 현재 완도군 가족센터 사물 관장하고 있는 민간에 위탁관리 운영함이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선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405호 「완도군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9. 완도군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안번호 제3396호 「완도군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396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가족행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가족행복과장 박미정입니다. 의안번호 제3396호 「완도군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도로명 주소법 제19조에 의거 주소 표기 및 위치안내시 도로명주소 사용 의무에 따라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도로명주소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완도군 청소년 야영장 위치 표기를 지번 주소인 군외면 불목리 685번지 외에서 도로명주소인 군외면 청해진북로 556-11 외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민

의안번호 제3396호 「완도군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도로명주소 사용 의무화에 따라 관련 주소를 현행화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박미정 가족행복과장의 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족행복과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396호 「완도군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0. 완도군 보건의료원 수가 및 구급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안번호 제3397호 「완도군 보건의료원 수가 및 구급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397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정계창

보건행정과장 정계창입니다. 의안번호 제3397호 「완도군 보건의료원 수가 및 구급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에 건강진단 규칙 제5조 개정에 따른 조례의 위임사항을 정비하여 위임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수수료를 125쪽 완도군보건의료원 수가 및 구급차 운영조례 별표1에 따라 징수하고자 하는 내용을 신설하여 징수업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완도군 보건의료원 수가 및 구급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민

의안번호 제3397호 「완도군 보건의료원 수가 및 구급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 법령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 개정에 따라 조례 규율 범위를 변경하고 위임사항을 반영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정계창 보건행정과장의 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보건의료원 수가 및 구급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397호 「완도군 보건의

료원 수가 및 구급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1. 완도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안번호 제3398호 「완도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398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현주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현주입니다. 의안번호 제3398호 「완도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관내 사용처가 제한적인 임산부 교통카드에 지원 방법을 개선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모성과 영유아에 건강 보호와 건강한 출산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 20만 원 지원하던 임산부 교통카드를 현금교통비로 지원을 개정하고 안 제11조에 풍진 항체가 없는 가임기 여성에 기형아 출산 사전 예방을 위해 풍진 예방 접종비 지원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3조 지원사업에 가임기 남녀의 건강관리를 포함하고 그밖에 조례개정에 따른 필요한 용어를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완도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합니다.

○위원장 박재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민

의안번호 제3398호 「완도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임산부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고자 만든 교통카드 대신 교통비를 현금으로 지원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조항을 신설·정비하여 자녀 출산과 양육을 내실화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김현주 건강증진과장의 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 ·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398호 「완도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산회)

○출석위원(8인)

박재선　박성규　지　민
박병수　조인호　최정욱
허궁희　조영식

○출석공무원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민원봉사과장	우홍래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보건행정과장	정계창
건강증진과장	김현주

○ **전문위원** : 박영민
○ **속 기 사** : 정현중
○ **속 기 사** : 임은주

제329회 완도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4월 24일(목)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완도군 사단법인 장보고글로벌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2. 완도군 장보고연구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3. 완도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완도해조류박람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완도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완도군 사단법인 장보고글로벌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완도군수 제출)
2. 완도군 장보고연구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완도군수 제출)
3. 완도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4. 완도해조류박람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5.완도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5시58분 개의)

○위원장 박병수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안번호 제3399호 「완도군 사단법인 장보고글로벌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등 5건이 되겠습니다.

1. 완도군 사단법인 장보고글로벌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완도군수 제출)
2. 완도군 장보고연구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완도군수 제출)

먼저 의안번호 제3399호 「완도군 사단법인 장보고글로벌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제3400호 「완도군 장보고연구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위원 여러

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399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문화예술과장 한지영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399호 「완도군 사단법인 장보고글로벌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장보고 선양사업에 세부 사업이 다양화 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장보고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수요 확대에 따라 유사한 자치법규인 「완도군 장보고대사 산양사업지원조례」로 통합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완도군 사단법인 장보고글로벌재단 지원 조례 폐지입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사단법인 장보고글로벌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미

의안번호 제3399호「완도군 사단법인 장보고글로벌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보고 선양사업이 다양화되고 장보고 관련단체에 대한 지원 수렵확대에 따라 지난 2024년 10월 25일 시행된 「완도군 장보고 대사 선양사업 지원 조례」로 통합 운영하고자 폐지 하는 것으로, 한지영 문화예술과장의 제안설명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검토결과, 장보고 선양 사업과 관련한 입법목적과 사업 대상이 유사하여 기존 유사조례 통합으로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폐지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사단법인 장보고글로벌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400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계속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다음은 의안번호 제3400호 「완도군 장보고연구회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보고선양사업의 세부사업이 다양화 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장보고관련단체에 대한 지원수요확대에 따라 유사한 자치법규인 완도군 장보고 대사 선양사업지원조례로 통합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원조례에 대한 폐지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장보고연구회 지원 폐지 조례」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미

의안번호 제3400호 「완도군 장보고연구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본 조례안은 장보고 선양사업이 다양화 되고 장보고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수요 확대에 따라 유사한 자치법규인 「완도군 장보고 대사 선양사업 지원 조례」로 통합운영하고자 폐지하는 것으로 한지영 문화예술과장의 제안설명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장보고 선양사업과 관련한 입법 목적과 사업 대상이 유사하여 기존 유사조례 통합으로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완도군 장보고연구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 계신가요?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399호 「완도군 사단법인 장보고글로벌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400호 「완도군 장보고연구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완도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안번호 제3401호 「완도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401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최광윤

체육진흥과장 최광윤입니다. 의안번호 제3401호 「완도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신설조항을 확인하여 군 체육회와 군 장애인 체육회의 공유재산 무상 대부 및 위탁운영 수의계약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체육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것입니다. 계속해서 주요내용입니다. 군 체육회와 군 장애인체육회 공유재산 무상 대부 근거 및 위탁운영 수의계약 조항을 신설하여 완도군 체육진흥협의회 운영을 비상설 규정으로 명문화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칙으로 군 체육회와 군 장애인 체육회 공유재산 무상대부 및 무상수의계약 조항은 2025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완도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수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미

의안번호 제3401호 「완도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최광윤 체육진흥과장의 제안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지방자치 단체가 지방체육회등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는 등의 근거를 마련하면서, 공유재산의 대부 사용, 수익의 내용, 조건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정하도록 개정되었으나, 본 조례안에 명시되지 않아 조례안 제22조 제5항을 신설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의견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전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 위원

이 조례안 개정안이 2025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 된다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최광윤

금년에 체육회 사고철을 쓰고있지 않습니까? 이 법을 개정하게 된다면 무상으로 감면을 해 줘야 하는데 그 기간을 1월 1일부터 해야 됩니다. 작년 것을 했습니다. 금년에 감면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조영식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긴 있네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최광윤

아직 조례가 개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 부분를 받아야 되는데... 금년부터 시행을 하고자 있습니다.

○조영식 위원

그러니까 1월1일부터 시행을 먼저 하고 조례는 늦게 개정해서 소급 적용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하게 신경 써서 조례가 먼저 개정이 되고 그다음에 소급 적용 없이 제때 맞춰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최광윤

늦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병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401호 「완도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검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완도해조류박람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안 번호 제3402호 「완도해조류박람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402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해양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안정책과장 김현란

해양정책과장 김현란입니다. 의안번호 제3402호 「완도해조류박람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그동안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는 완도군 해조류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추진하였습니다. 2026년 완도해조류박람회에는 기존 조직위원회가 아니라 우리 군 자체적으로 소규모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민간주도형 완도해조류박람회 추진 위원회 신설 및 운영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드리자면 제1조에서는 완도군에서 개최하는 완도해조류박람회는 운영과 준비에 필요한 사항을 이적한다는 목적을 명시하고 제2조에서는 박람회의 명칭을 완도해조류박람회로 정하고 3조와 4조에서는 군수가 박람회 추진을 위해 완도해조류추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부터 7조까지는 위원회의 기능 구성이 임기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위원회는 박람회 기획예산편성 관계 기관 협력 등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부터 10조까지는 위원의 임기해촉, 위원장의 직무 해임 운영에 관한 규정은 위원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구 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제11조부터 제12조는 박람회의 재정 운용 및 군의 행정·재정적 지원에 대한 사항이며 제13조는 박람회 사업계획서와 정상적으로 제출하는 시기와 절차를 명시하여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고 있으며 제14조에서는 입장객에 대한 근거 조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5조 및 제16조에서는 위험 및 참여자에 대한 실비보상과 수당 지급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제17조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운영 세칙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도해조류박람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미

의안번호 제3402호 「완도해조류박람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도군의 대표적 해양자원인 해조류의 가치와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완도해조류박람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지원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김현란 해양정책과장의 제안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 조례안 제6조 위원회 구성시 군수가 위원을 위촉하도록 규정되었으나 제6조 제3항 제4호에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규정되어있어 군수가 위촉하도록 수정하고 제7조 위원회의 임기를 1년으로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에도 제3항에 임기를 박람회 예산정산의 완료한 날까지로 이중으로 규정하고 있어 제3항을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완도해조류박람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해양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정책과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402호 「완도해조류박람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검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 완도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안번호 제3403호 「완도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403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복선입니다.

의안번호 제3403호 「완도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사업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민의 안전과 보건 증진을 위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업인의 안전재해 실태조사 등을 기초로 재해예방 계획수립 재해예방을 위한 교육 농·작업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업추진 그리고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양성 및 활용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완도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제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영미

의안번호 제3403호 「완도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 현장에서 작업 중에 발생하는 안전재해를 예방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이복선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제안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전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403호 「완도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검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

○출석위원(8인)

박병수　박성규　지　민
박재선　조인호　최정욱
허궁희　조영식

○출석공무원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체육진흥과장	최광윤
해안정책과장	김현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 **전문위원** : 최영미

○ **속 기 사** : 정현중

○ **속 기 사** : 임은주

회 의 록 서 명

(제329회 임시회 회의록)

「지방자치법」 제84조제2항 및 「완도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서명함.

직 위	성 명	서 명	비 고
의 장	김 양 훈		
서명의원	박 재 선		
서명의원	박 병 수		
사무과장	최 영 미		

제330회 완도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30회 완도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개회식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6월 9일(월) 오전 10시 개식

장 소 본회의장

제330회 완도군의회(정례회) 개회식순

1. 개식
2. 국기에 대한 경례
3. 애국가 제창
4.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5. 폐식

(사회 : 의사운영팀장 서을식)

(10시00분 개식)

○의사운영팀장 서을식

안녕하십니까? 의사운영팀장 서을식입니다.

지금부터 제330회 완도군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자리에 앉은 채로 예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이어서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반주에 맞춰 1절을 힘차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다음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김양훈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김양훈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신우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제330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온몸을 바쳐 나라를 지켜내신 순국선열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직도 아물지 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보훈가족 여러분께도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비회기 중에도 군민과 함께 호흡하며, 진짜 완도,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국토교통부 「민관 상생 투자 협약 사업」 공모에서 노화·보길지역이 '완도 치유의 예술 섬' 조성 사업에 선정된 것과, 해양수산부의 일반농산어천개발사업 공모에서 9년 연속 선정되고, 2025 국가 대표 브랜드 대상에서 '가장 방문하고 싶은 도시' 부문 대상을 수상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더불어, 지난 달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와 '장보고 수산물 축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해 주신 신우철 군수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치유의 예술 섬' 공모사업은 민간업체와 협력하여 진행된 만큼, 철저한 준비를 통해 노화· 보길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또한, '가장 방문하고 싶은 도시'로 완도군이 선정된 만큼, 방문객 맞이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우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올해도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침수 피해는 군민들의 삶에 큰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해를 비롯해 몇 번의 침수는 뼈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일부 배수시설을 개선하였지만, 근본적인 해결에 힘써주시길 당부 말씀 드립니다. 또한, 다가오는 '2025년 국제슬로시티연맹 시장 총회' 또한 완도군의 위상을 높일 소중한 기회입니다.
국내·외에서 귀한 분들이 완도를 방문하시는 만큼 행사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청렴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립니다.
최근 도감사에 이어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며 직원 여러분의 심적 부담이 크실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지금이야말로 내부 자정의 기회로 삼아야 할 때입니다. 부조리한 관행은 과감히 개선하고, 책임 있는 행정이 완도군 발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7일간 열리는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민생 조례안을 처리하게 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결산검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시고 예산 낭비는 없는지, 필요한 사업이 시행되지 못해 예산이 불용된 사례는 없는지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가경정 예산안과 민생 조례안은 세심하게 심사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제21대 대통령이 취임하고 새로운 정부가 구성되었습니다. 완도군의원들은 이번 대선에서 제시된 완도군의 공약들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군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끝난줄만 알았던 코로나19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여름철 재유행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군민 여러분께서는 개인 위생관리와 함께 유행에 대비해 감염에 취약한 노약자들의 마스크착용을 당부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진단키트와 백신 확보 등 재유행에 따른 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여름이

오기도 전에 날씨가 매우 무덥습니다. 군민 여러분께서는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운영팀장 서을식

이상으로 제330회 완도군의회 정례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0시04분 폐식)

제330회 완도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6월 9일(월)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330회 완도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휴회의 건(6. 10. ~ 12.)

부의된 안건

1. 제330회 완도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완도군수 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외 8명 발의)
5. 휴회의 건(6. 10. ~ 12.)(의장 제의)

(10시06분 개의)

○의장 김양훈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완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완도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박병수, 허궁희, 조영식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병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박병수)

○박병수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양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우철 군수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 군외면 출신 박병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23년 6월 이 자리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인사

행정 개선’이라는 주제로 이 자리에서 발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완도군이 추진 중인 행정기구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군민 사회 전반에 적지 않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행정기구 개편은 단지 직제 몇 개를 조정하는 절차적 조치가 아닙니다. 이는 군정의 철학과 방향을 가늠하는 기준이자, 군민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입니다. 따라서 그 추진 과정은 보다 신중해야 하며, 그 내용은 군민의 관점에서 설계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오늘 지적하고자 하는 핵심 문제는 세 가지 입니다. 첫째, 조직개편안의 신뢰성과 정합성이 부족합니다.

5월 20일, 완도군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며 농업기술센터에 지도관 1명을 감원하는 안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나 불과 3일 뒤인 23일, 변경 사유도 명시하지 않은 변경 예고안이 공표되었습니다. 물론 행정은 유연성을 필요로 하지만, 인사와 조직 개편은 단순한 구조조정이 아닌 군민 신뢰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번복은 조직개편의 타당성 자체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키며, 사전 검토와 내부 조율이 충분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남깁니다. 둘째, 해조류박람회 추진단 신설은 조직 확대의 명분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2028년 국제해조류박람회 개최를 앞두고, 그 사전행사인 Pre박람회를 준비하기 위해 5급 과 단위의 추진단을 신설한다는 것에 대해 해당 박람회는 정식 국제 행사도 아닌 시범 행사에 불과합니다.

예산 규모도 장보고수산물축제보다 조금 많은 24억 원 수준에 행사 기간도 6일에 불과하며, 본 박람회의 경우에도 국제 행사 승인 시점은 2026년 하반기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진단 신설은 Pre박람회 이후인 2026년에 해도 늦지 않으며, 현재 시점에서 과단위 조직을 신설할 명분은 충분하지 않다고 봅니다. . 현재 인구는 줄고 재정은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 과 신설이 과연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결정인지, 아니면 내부 직제 조정과 인사 적체 해소를 위한 조직 만들기인지, 군민들 사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셋째, 이번 조직개편 과정은 주민 의견 수렴과 참여 절차가 철저히 배제된 상태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완도군은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군민들이 사전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기회는 거의 없었습니다. 설문조사도, 설명회도, 공청회도 없었습니다. 정책 수요자인 군민은 늘 결과만 통보받고, 결정 과정에서는 배제돼 왔습니다. 더욱이, 이번 조직개편 관련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3조에 따라 20일 이상 충분히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차 공고는 단 6일, 재공고는 불과 5일이라는 매우 짧은 기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군민이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제출할 기회를 사실상 제한한 것으로, 절차적 정당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문제입니다. 이는 행정의 구조적 폐쇄성과 지방자치의 실질적 결핍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참여 없는 자치는 자치가 아니며, 그것은 곧 행정에 대한 신뢰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제도적 개선을 요구합니다. 첫째, 모든 조직개편안은 사전 타당성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고 군민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결정 배경과 논거를 투명하게 제시함으로써 신뢰를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조직개편 공청회를 제도화해야 합니다. 행정절차법 제45조 제1항에 근거하여 주민 의견을 직접 수렴하고, 그 결과를 군의회에도 보고하는 체계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아울러 입법예고는 법정 기한인 20일 이상 철저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셋째, ‘군민 + 전문가 + 의회’가 함께 참여하는 조직진단위원회

를 구성하여 매년 조직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의회와 집행부 모두의 책무를 분명히 하고, 상호 견제의 틀을 마련하는 조치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 여러분. 조직은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조직이 누구를 위해, 어떤 철학과 방향을 갖고 운영되는가는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를 위한 개편인가?'라는 질문에 답하지 못한 조직개편은 결국 내부 이익 조정에 불과하며, 진정한 행정 혁신으로 이어질 수 없습니다. 군민이 참여하고, 군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 구조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조직개편보다 우선시되어야 할 일입니다. 조직은 바꾸는 것이지만, 신뢰는 쌓는 것입니다. 집행부는 오늘 본 의원이 드린 제언과 문제의식에 대해 성실히 검토해 주시고, 그 결과를 군민과 의회에 공유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양훈

박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궁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허궁희)

○허궁희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양훈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우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허궁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모든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난 3년간 우리가 지나온 어두운 시간을 되짚고, 새롭게 열릴 희망의 길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5분 자유발언을 하겠으며, 발언기회를 주신 김양훈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는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퇴행적 민주주의와 소통부재, 반헌법적 통치 행태를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는 탄압받았고, 언론이 위축되었으며, 권력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구조로 변질되었습니다. 또한, 검찰권의 남용과 비판 세력에 대한 무차별적 탄압 그리고 12·3 불법계엄은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했던 국민들에게 치욕과 분노를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은 위대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거리로 나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웠고, 총 보다 강한 투표로 이를 증명해주셨습니다. 바로 그 결과,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었고, 우리 완도군은 전국 득표율 1위인 89. 90%라는 압도적인 지지로 이 뜻에 함께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 수치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폭주에 대한 완도군민들의 분노이며, 동시에 이재명 정부에 대한 희망과 기대의 표출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출범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상식과 공정, 민생 중심의 정치로의 "복원"을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정부의 출범이라는 전환점 앞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시기는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의 문을 활짝 열어주며, 새로운 시대, 새로운 정부와 함께 지역사회의 역량을 하나로 끌어모아, 우리 완도군은 대도약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이 대도약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군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역 발전의 주체로 나서야 하며, 공무원은 행정 전문가로서의 소명의식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일하고, 의회는 견제와 협력을 균형 있게 수행하며 미래지향적 정책을 함께 설계했을 때 진정한 대도약이 시작됩니다. 이재명 정부는 완도군에 다음과 같은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완도~고흥 해안관광도로 지원호남고속철도 완도 연장 검토 K해조류 기반 기후변화 대응 플랫폼 조성스마트 해양 치유 허브 조성해조류 특화 해양바이오산업 클러스터 조성이 공약들

은 단순한 개발 계획이 아닙니다. 완도군의 미래 산업 구조를 새롭게 짜고, 청장년들이 떠나지 않아도 되는 일자리를 만들며, 고령화 속에서도 지속 가능한 삶을 영위하게 할 동력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공약들을 실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중앙정부와의 유기적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완도군은 전담 TF를 구성하고, 공약이행 로드맵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국회와 부처, 대통령실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예산과 정책을 실질적으로 확보해 나가야 합니다. 둘째, 민관협력 기반을 확대해야 합니다.

해양바이오, 관광, 기후대응 분야에 관련된 민간기업과 학계, 연구기관과의 협업 구조를 마련해 지역에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지역주민의 참여를 제도화해야 합니다. 각 공약과 관련된 주민 설명회, 정책자문단, 주민위원회를 통해 행정과 정책 실행 과정에 군민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합니다.

더욱이, 완도군이 안고 있는 주요 현안사업들도 반드시 함께 해결해나가야 합니다.

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마트 수산 지원 정책 지역 청년 정착을 위한 창업 및 주거 지원, 농수산물 유통 인프라 확장, 완도형 고령자 복지주택 건립, 아이살기 좋은 완도만들기 프로젝트, 도서지역 의료체계 강화 및 공공의료 확충, 해양쓰레기 처리, 시설 확충 등 해양환경 개선 등 이러한 사업들은 정부 공약과 맞물려 추진 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여 시너지를 발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해양바이오 산업 클러스터는 해조류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어민 소득을 올릴 뿐만 아니라, 관련 기업 유치를 통해 청년 일자리 문제도 함께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변화는 누군가 해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정부의 무관심 속에 소외되었던 우리 지역이었던 것이 정말 서글프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책 중심에 설 수 있는 대도약의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이 기회를 살릴 수 있느냐는 바로 우리 모두의 역량과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중앙의 변방'이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의 중심'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완도는 무한한 해양자원과 세계 최고 수준의 해조류 산업 기반, 천혜의 자연환경이라는 강점을 가진 지역입니다. 이를 지역 미래 산업으로 전환하는 것은 결코 꿈이 아닙니다. 이재명 정부의 철학은 '국가가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완도군은 그 철학의 실험장이자 성공의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제안드립니다. 지금부터 집행부에서는 완도군 차원의 공약이행 전담 추진본부를 구성하고 의회와 함께 '공약이행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정기적으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군민 참여 플랫폼을 확대하여 모든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즉각 실천해주십시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지난 어둠의 시간을 지나며, '민주주의는 투쟁으로 지켜야 한다. '는 진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제는 그 투쟁의 결실을 지역 발전으로 되돌려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정부, 새로운 기회 앞에서 과감하게 도전하고, 치열하게 협력해야 합니다. 이제는 '가능성'이라는 말보다 '실행'이라는 단어가 더 중요한 시점입니다. 지역에 한 분 한 분이 협력하고 지혜를 모아야 하며, 완도공동체의 모든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야 할 때입니다. 완도의 미래는 우리들 손에 달려 있습니다. 새 시대의 도전 앞에서 우리는 두려움보다 기대를, 갈등보다 연대를 통해 우리 완도군이 한 단계 더 도약하고, 더 크게 성장하는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길 진심으로 소망합니

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양훈

허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영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조영식)

○조영식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양훈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그리고 신우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영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완도군 체육행정의 혁신”이라는 큰 틀에서 스포츠를 지역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삼는 “스포츠 비즈니스”의 본격적인 준비를 제안하기 위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며, 발언기회를 주신 김양훈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스포츠는 단순한 여가활동을 넘어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핵심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 스포츠 이벤트 개최는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관광산업과 연계되어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합니다.

또한, 스포츠 산업의 발전은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5만명 남짓의 경남 고성군은 주력산업인 조선업이 붕괴되자, 민선8기에 스포츠산업을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3년 간 35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248개의 대회를 유치해 213만 명의 방문객과 421억 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하였습니다. 이는 스포츠 행정의 전문화, 전용 조직의 구성, 엘리트와 생활체육을 아우르는 통합적 접근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완도군도 스포츠 인프라가 하나! 둘! 갖춰지고 있어 고무적이긴 합니다만, 여전히 행정조직 미흡, 유기적인 기획력 부족, 도서지역이라는 한계로 인해 스포츠 비즈니스를 추진하기엔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완도군은 전국 최고 수준의 해양환경과 청정자원을 보유한 지역으로 타지자체와 차별화 된 전략을 갖추고 체계적인 준비를 한다면 완도형 스포츠 비즈니스 모델 확립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정책 방향과 행정 추진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스포츠 비즈니스 추진을 위한 체계적인 조직과 인력풀을 구성해야합니다. 2025년 정부의 체육분야 예산규모는 1조 6, 751억 원으로 2024년 예산대비 3. 6% 587억 원 증액, 예산 편성 부분 중 가장 많은 증액을 보였습니다. 이는 정부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스포츠에 관광을 결합한 스포츠 산업에 비중을 두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부의 스포츠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타당성 분석, 편익추정, 정책 연계성 검토 등 발 빠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군의 체육행정 부서인 체육진흥과는 각종대회 지원, 생활체육 지원, 체육시설 관리 등 획일적이고 단편적인 공공서비스 행정 역할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히, 스포츠 산업과 관련된 스포츠 마케팅팀은 팀장 1명, 팀원 1명으로 구성되어 대규모 전지훈련 유치, 해양레포츠 대회 개최, 스포츠관광 기획 등 지역경제활성화형 체육행정 추진은 사실상 어려운 행정구조입니다. 따라서 체육진흥과를 스포츠산업과로 개편해야 합니다. 그리고 산하에 스포츠마케팅, 해양레포츠, 공모사업 추진 등 기능 중심의 팀을 신설해야 합니다. 또한, 각 팀에 전문성을 갖춘 임기제 공무원을 과감히 채용하여 실무 역량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전문 조직 개편 없이는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과감한 조직개편이야 말로 완도스포츠산업의 경쟁력을 키울 초석이 될 것입니다. 둘째, 해양특화 스포츠 종목 개발과 함께 정례적인 대회를 유치해야 합니다. 완도는 비교우위적인 청정 해역과 섬 자원을 보유하고 있

습니다. 이를 적극 활용한 완도만의 정례적인 전국대회를 유치해야합니다. 예를들면, 해양철인 3종경기, 해상 마라톤, 아일랜드 트레킹 등 완도형 스포츠 종목을 개발하여 정례적인 전국 대회를 유치해 전 국민이 찾아 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분명, 연간 수만 명의 방문객 유입이 가능질 것이며, 자연스럽게 숙박 및 음식점 등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로 이어지고 지역상권이 활성화될 것입니다. 셋째, 스포츠 참가자들이 머물 수 있도록 체류형 관광 콘텐츠를 개발해야합니다. 우리군은 각종 대규모 대회를 유치했지만 실상 스포츠 참자가들은 대회가 끝나면 각 지역으로 돌아가 많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아직도 우리군은 머물 수 있는 관광 콘텐츠가 타지자체에 비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젠 참가자가 단순히 경기만 하고 떠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체류하면서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완도관광협의회와 체육회 그리고 민간 여행사와 함께 협력하여 대회 참가자에게 완도 해양치유센터 체험과 요트 투어, 섬 투어, 해조류·전복 음식 만들기 체험, 숙박 할인 등 완도형 관광 패키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분명, 체류일수 증가, 가족 단위 관광 유입에 따른 생활인구가 큰 폭으로 증가될 것입니다. 넷째, 유휴시설 활용을 통한 스포츠 인프라를 확충해야합니다. 매년 전지훈련 수요는 꾸준히 유지되어 오고 있지만 완도군의 지역 특성상 숙박시설과 전문적인 훈련 인프라가 부족하여 프로팀이나 대규모 생활체육인 수용이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공유지를 확보하여 스포츠 인프라를 신축하기에도 많은 어려움이 공존합니다. 최근 정부는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에 대응하고자 공유재산을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자체에 이관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도 발빠르게 대처하고 전라남도와 전라남도교육청과 적극 협의해 사용되지 않는 폐교나 유휴 공공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스포츠 전지훈련 캠프장, 저비용 체류형 숙소, 스포츠 교육센터를 조성해야합니다. 분명, 지금보다 더 많은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 실업팀 등 스포츠팀 유치가 가능해질 것이며, 비수기 때에는 지역 관광수요를 전지훈련 수요로 대체하고 관광의 계절적 한계를 보완하여 연중 내내 지역 활성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이제는 단순히 체육시설을 짓고, 대회를 유치하는 수준을 넘어서야 합니다.

스포츠산업을 통해 경제를 일으키고 청장년층을 불러들이며 완도의 정체성을 알리는 완도형 스포츠 비즈니스 모델을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완도가 스포츠로 다시 뛰고, 경제로 살아나는 날을 기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양훈

조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에 대해 검토 후 제안사항은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진행사항은 해당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최정환

의회사무과장 최정환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완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5월 28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위원회 회부 사항입니다. 의원발의로 「완도군의회 지방공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이, 집행부에서는 「완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등 13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결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접수 사항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결산안 3건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이 제출되어 금일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이 의결된 후 동 위원회로 회부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양훈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1. 제330회 완도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30회 완도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25년 6월 9일부터 6월 15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순서에 따라 조인호 의원과 조영식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415호의 서류를 검토해 주시고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기획예산실장 한희석입니다. 의안번호 3415호 202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금년에 변경되거나 추가된 국도비 보조사업를 반영하고, 지역점사업추진과 지역경제활성화등 민생관련사업들을 적기에추진하고자 지방자치법 제 145조의 규정에 의거해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하였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역, 1,000만 원 이상 주요 자체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증감내역, 계속비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입니다. 예산 규모는 7,402억 7,515만 8,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096억 1,67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7,108억 2,089만 3,000원으로 1,069억 2,569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94억 5,426만 5,000원으로 26억 9,107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7,108억 2,089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069억 2,569만 9,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재원별 증감 내용입니다. 먼저, 지방세는 전환사업 지방소비세 보전분으로 2억 2,536만 9,000원,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4억 9,51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82억 1,974만 7,000원 등 88억 4,729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2025년도 예측분과 특교세 4,000만 원, 지방소멸대응기금 10억 원 등을 반영하여 227억 756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7억 원, 국·도비 보조금 394억 9,939만 2,000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024년도 순세계잉여금과 공단 전입금 반영 등 349억 4,608만 6,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규모는 세입예산과 동일하게 1,069억 2,569만 9,000원 증액된 7,108억 2,089만 3,000원입니다. 기능

별 세부 증감내역은, 일반공공행정 106억 8,220만 3,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 23억 8,258만 7,000원, 교육비 7,753만 2,000원, 문화 및 관광비 117억 7,650만 8,000원, 환경비 128억 2,903만 5,000원 ,사회복지비 63억 6,625만 6,000원, 보건비 26억 5,455만원, 농림해양수산비 335억 9,865만 7,000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비 24억 5,245만 8,000원, 교통 및 물류 56억 2,225만 7,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비 137억 8,023만 2,000원, 기타비용 27억 342만 4,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성질별 세부 증감내역은, 인건비, 39억 2,811만 원, 물건비 113억 9,560만 4,000원, 경상이전비 129억 3,675만 3,000원, 자본지출비 732억 8,997만 1,000원, 내부거래 26억 3,303만 2,000원, 예비비및기타 27억 4,222만 9,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현황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은 총 4,138억 2,581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군비 부담 포함하여 488억 3,381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의 경우 국고보조사업은 2,818억 1,597만 8,000원으로 255억 7,697만 3,000원이 증액 되었으며, 도비 보조사업은 1,039억 921만 6,000원으로 222억 5,684만 5,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10억 원이 증액된 111억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170억 61만 9,000원으로 변동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25쪽부터 54쪽까지 국도비 보조사업 세부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주요 자체사업 현황입니다. 1천만 원 이상 주요 자체사업은 총 600개 사업에 509억 5,985만 3,000원이 신규반영 되었거나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57쪽부터 74쪽까지 주요 사업조서와 예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증감 내역입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294억 5,426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6억 9,107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각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전입금과 순세계 잉여금 등으로 24억 2,550만 8,000원, 주택자금융자에서 1억 1,617만 6,000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에서 327만 3,000원 감액되었으며, 의료급여기금에서 6,566만 원 증액, 농공지구단지 조성관리에서 순세계잉여금 및 부지 매각대금 등으로 8,7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계속비 사업 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 총 83개 사업으로 당초 사업비 5,875억 4,007만 1,000원에서 105억 5,161만 4,000원이 증액된 5,980억 9,168만 5,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5개 사업으로 당초 사업비 778억 7,600만 원에서 변동 없습니다. 세부내역은 제안설명서 7쪽부터 21쪽까지 계속비 사업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양훈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외 8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409호의 서류를 검토해 주시고 의회운영위원회 지민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지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지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409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완도군수로부터 제출된 2024회계연도 결산안과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지방자치법

」제64조 및「완도군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양훈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지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 휴회의 건(6. 10. ~ 12.)(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6월 10일부터 6월 12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0회 완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1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출석의원(9인)

김양훈	박성규	지민
박재선	박병수	조인호
최정욱	허궁희	조영식

○출석공무원

군수	신우철
부군수	이범우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세무회계과장	김희수
민원봉사과장	우홍래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경제교통과장	이정국
관광과장	오현철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체육진흥과장	최광윤
농업축산과장	박창희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건설과장	김진원
안전총괄과장	이홍용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복선
보건의료원장	한광일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수호

○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최정환
의사운영팀장	서을식
속 기 사	임은주

제330회 완도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6월 13일(금)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4.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
5.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6. 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7. 완도군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
8. 완도군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설치 및 운영
9. 완도군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완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완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12. 완도군 해양바이오 공동협력연구소 민간위탁 운영(재계약) 동의안
13. 2025년 완도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14. 금당행복의집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운영 위탁 동의안
15. 완도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6. 완도군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안
17. 완도군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완도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완도군 보길도 윤선도원림 관람료 징수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완도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완도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완도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완도군수 제출)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완도군수 제출)
3.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완도군수 제출)
4.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완도군수 제출)
5.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완도군수 제출)
6. 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의회 사무과)
7. 완도군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의회 사무과)

8. 완도군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설치 및 운영(박재선 의원 발의)
9. 완도군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정욱 의원 발의)
10. 완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1. 완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완도군수 제출)
12. 완도군 해양바이오 공동협력연구소 민간위탁 운영(재계약) 동의안(완도군수 제출)
13. 2025년 완도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완도군수 제출)
14. 금당행복의집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운영 위탁 동의안(완도군수 제출)
15. 완도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지민 의원 발의)
16. 완도군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안(허궁희 의원 발의)
17. 완도군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8. 완도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9. 완도군 보길도 윤선도원림 관람료 징수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20. 완도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21. 완도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22. 완도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0시30분 개의)

○의장 김양훈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완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22건의 안건을 상정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완도군수 제출)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완도군수 제출)
3.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완도군수 제출)
4.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완도군수 제출)
5.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완도군수 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해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정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정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정욱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411호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심사결과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2024 회계연도 세입 결산 회계별 규모는 예산액 6,996억 1,095만 4,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1,606억 5,542만 8,000원을 합한 8,602억 6,638만 2,000원입니다. 다음으로, 2024 회계연도 세출 결산 회계별 규모입니다. 예산현액은 8,602억 6,638만 2,000원으로 이 중 6,985억 4,044만 6,000원을 지출하고, 1,238억 5,477만 3,000원은 2024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177억 788만 5,000원이고, 집행잔액은 378억 7,708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41억 7,705만 2,000원입니다. 재원·성질별 결산현황과 공유재산 및 물품증감현황은 4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세입세출외 현금 현황 및 보조금 집행현황은 7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결산내역 및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작성한 결산검사 의견서를 토대로 하여,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재정집행의 신뢰성 제고와 합리적인 예산운영에 중점을 두고 심도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쳐 본안건을 심사한 결과, “지방기금의 효율적 운영·관리 철저” 등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총 20건의 개선 및 권고사항과 우수사례 1건을 채택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12호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입니다. 지난해 예비비 지출은 해양정책과 등 8개 부서에서 총 17건에 12억 9,175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소나무재선충병 대처와 호우피해 복구 및 2차 피해 예방사업 등 불가피한 지출요인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였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보고서 11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13호 「2024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입니다.

우리군은 2024년에 옥외광고정비기금 등 7개 기금을 운용 하였으며, 2023년말 조성액은 367억 7,560만 2,000원이었습니다. 2024년도에 79억 3,417만 8,000원이 조성되고, 2억 7,246만 4,000원을 사용하여 2024년말 현재액은 444억 3,731만 6,000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보고서 1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기금의 고유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다고 판단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14호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변경안」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15페이지입니다.우리 군에서 운용중인 기금은 8개 기금으로 2025년도 말 현재액은 368억 1,827만 1,000원입니다. 기금 총 수입은 29억 4,305만 8,000원이고, 지출은 105억 6,210만 원으로, 2024년도 말 대비 총 76억 1,904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 16페이지부터 1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기금의 건전성 확보와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15호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18페이지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7,402억 7,515만 8,000원 이며, 일반회계가 7,108억 2,089만 3,000원이고, 특별회계는 294억 5,426만 5,000원으로, 1회 추경 대비 1,096억 1,67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20페이지,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이번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세입은 증액이나 삭감은 없으나 세출 예산액 일부를 삭감하기로 결정하여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2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능별로는 환경 분야에서 2,0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서 4,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예비비에서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성질별로는 자본지출 분야에서 6,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 분야에서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심사조서 등 세부적인 내용은 27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번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지역 역점사업 추진과 군민의 삶에 필요한 민생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해 예산 확보를 위한 매우 중요한 과정이었습니다 올해 우리는 새로운 정부의 출범과 함께 중앙정부의 재정기조에도 변화가 일고 있는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군 역시 결코 넉넉지 않은 재정

여건 속에서,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만큼의 예산이 집행되어야 하는 시점입니다. 제한된 자원 안에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선, 재정의 전략화, 우선순위의 명확화, 그리고 성과중심의 집행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집행부에서는 향후 예산편성 시 정확한 사전 예측과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더욱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당부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향 후 개선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끝으로 예산안 심사기간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 과정을 거쳐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린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양훈

다음은 질의 및 토론 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정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한 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6. 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의회 사무과)
7. 완도군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 (의회 사무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완도군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서를 검토해 주시고 의회운영위원회 지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지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지민 의원입니다.
지난 9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 내용으로는 자녀 돌봄, 육아 등 특별휴가 지원대상 및 범위를 확대하고,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등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완도군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군민이 신뢰하는 든든한 의회'를 실현하고자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양훈

다음은 질의 및 토론 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지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한 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도군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8. 완도군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설치 및 운영(박재선 의원 발의)
9. 완도군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정욱 의원 발의)
10. 완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1. 완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완도군수 제출)
12. 완도군 해양바이오 공동협력연구소 민간위탁 운영(재계약) 동의안(완도군수 제출)
13. 2025년 완도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완도군수 제출)
14. 금당행복의집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운영위탁 동의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완도군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완도군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완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완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완도군 해양바이오 공동협력연구소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 완도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의사일정 제14항 금당행복의집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운영 위탁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자치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해 주시고 행정자치위원회 박재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박재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박재선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419호 「완도군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419호 「완도군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완도군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일상생활에 대한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위기가구 발굴·지원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설치, 구성 및 운영, 지원대상 가구, 사업추진,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20호「완도군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바람직한 인성을 갖춘 군민을 육성하고 인성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적용대상, 재정지원, 전문 인력의 양성,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21호「완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규 행정 수요 대응을 위한 조직개편 및 조직의 효율성과 기능 강화를 위해 부서의 직제를 조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22호「완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직 개편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는 문제점이 없으나, 전체 정원 총량에는 변동없이 조직신설에 따른 일반직 5급 및 6급 정원 조정과 6급 및 7급의 정원 비중을 효율적으로 소폭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23호「완도군 해양바이오 공동협력연구소 민간위탁 운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민간위탁 운영중인 해양바이오 공동협력연구소의 민간위탁 계약 만료일이 도래되어「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 재계약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해양수산, 바이오분야 부설연구소 및 스타트업을 유치하고 입주기업 육성 및 지원 분야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민간위탁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24호「2025년 완도군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입니다. 본 계획 변경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와「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취득·처분을 위하여 2025년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집행부에서 제출된 공유재산 계획 변경안의 주된 내용으로는,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에 따른 폐교 잔여부지 매입, 완도 화흥 간척지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따른 토지 매입, 소안 응급의료 헬기이착륙장 건설에 따른 토지 매입, 어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망남항 부지 매입, 완도 가용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따른 부지매입, 완도 미르채 센텀시티 아파트 준공에 따른 진출입로 및 주차장 기부채납으로 토지 26필지 5만 997.7제곱미터, 19억 600만 원 건물 1동 5,300만 원의 재산을 취득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계획 변경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25호「금당행복의집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운영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해 사회적협동조합의 위탁해지 요청에 의해, 금당행복의집 위탁운영 기간이 2025년 7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민간위탁 운영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제공 및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 역량을 갖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 과정을 거쳐 심사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양훈

다음은 질의 및 토론 할 순서입니다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박재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한 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완도군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완도군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완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완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완도군 해양바이오 공동협력연구소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 완도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금당행복의집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운영 위탁 동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5. 완도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지민 의원 발의)
16. 완도군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안(허궁희 의원 발의)
17. 완도군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8. 완도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9. 완도군 보길도 윤선도원림 관람료 징수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20. 완도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21. 완도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22. 완도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완도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완도군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완도군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완도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완도군 보길도 윤선도원림 관람료 징수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완도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완도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완도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해 주시고 산업건설위원회 박병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박병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병수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완도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먼저, 의안번호 제3426호 완도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 및 민간에서 활용되는 현수막을 친환경 소재로 사용을 촉진하고, 사용이후 발생되는 폐현수막 재활용을 지속적으로 장려하여,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 하고자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군수 및 사업자의 책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27호 완도군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완도군 산림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고, 효율적인 예방과 진화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군수의 책무 산불방지대책 수립 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28호 완도군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른 용어정비와 행정안전부 인감증명서 감축계획에 따른 구비서류를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29호 완도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과 관련된 위원회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의 방법 중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에게 실시하는 성폭력 예방 교육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라 대면에 의한 교육이 포함되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30호 완도군 보길도 윤선도원림 관람료 징수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관련 자치법규 정비 권고사항에 따라 상위법령과 용어가 일치하도록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근거한 용어정비는 타당하지만, 조례안의 근거법령이 「문화재 보호법」에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2024년 5월 17일 시행됨에 따라 조례안 제1조 및 제3조의 인용 근거법령을 정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31호 완도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완도군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선수등급을 체계화하고 연봉상한액을 인상하여, 우수선수 유지와 신규인재 영입을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시군 역도실업팀에 비해 연봉과 수당 등이 열악하여 선수등급과 연봉상한액 인상을 통해 우수선수를 영입해야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지만, 부칙 제2조 적용례 별표2 연봉의 심의범위만 소급적용을 하였으나, 별표1 단원의 등급산정기준도 함께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32호 완도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관련 자치법규 정비 권고사항에 따라 상위법령과 용어가 일치하도록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33호 완도군 재난관리

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금의 용도를 재난예방에 대한 조치가 가능토록 개정하고, 기금 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기준을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 과정을 거쳐 심사한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양훈

다음은 질의 및 토론 할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박병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한 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완도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완도군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완도군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완도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완도군 보길도 윤선도원림 관람료 징수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완도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완도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완도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이번 회기에 처리한 안건에 대하여 「완도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자구 정리는 의장인 제가 위임받아 처리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중요한 안건을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현안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정례회기 동안 협력해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제주를 시작으로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주말에 많은 비가 예상된 만큼 집행부에서는 비 피해가 없도록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

랍니다.
이상으로 제330회 완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출석의원(9인)

김양훈 박성규 지민
박재선 박병수 조인호
최정욱 허궁희 조영식

○출석공무원

부군수	이범우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경제교통과장	이정국
관광과장	오현철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체육진흥과장	최광윤
농업축산과장	박창희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건설과장	김진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보건의료원장	한광일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수호

○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최정환
의사운영팀장 서을식
속 기 사 임은주

제330회 완도군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6월 9일(월)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4.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5. 2024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6.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

부의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안)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안)
3.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완도군수 제출)
4.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완도군수 제출)
5. 2024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완도군수 제출)
6.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완도군수 제출)

(15시 54분 개의)

○박병수 위원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완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방법은 「완도

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회 위원장은 사전 간담회에서 위원 여러분이 추천하고 충분히 협의한 바와 같이 최정욱 위원을 제330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최정욱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됐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최정욱 위원장은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박병수 위원, 최정욱 위원장과 사회교대)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05분 회의계속)

○위원장 최정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정욱입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자유로운 소통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본 위원회 소관 안건의 심사가 원활히 진행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방법 역시 위원장 선임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사전 간담회에서 위원 여러분들이 추천하고 충분히 협의한 바와 같이 허궁희 위원을 추천하여 제330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허궁희 위원이 간사로 선임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4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과 관련하여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셨던 조인호 위원님으로부터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조인호 위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호 위원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조인호 의원입니다.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8일까지 20일간 실시한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산검사는 세입·세출 결산서와 부속서류에 대하여 서면검사와 현지 확인 등을 병행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8,540억 1,550만 2,000원으로 예산현액 8,602억 6,638만 2,000원 대비 62억 5,08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 결산액은 세입결산액의 약 82%인 6,985억 4,044만 6,000원으로 결산상 차인잔액은 1,554억 7,505만 6,000원입니다. 이 중 명시이월비 304억 5,048만 6,000원 사고이월비 90억 2,087만 4,000원 계속비 843억 8,341만 3,000원과 보조금 반납금 177억 788만 5,00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41억 7,705만 2,000원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에 대하여 모두 확인한 바 적정하게 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2024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결산입니다. 2024회계년도 예비비는 소나무 재선충병 대처와 호우피해 복구 및 2차 피해 예방사업 등 총 17건에 14억 3,901만 9,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2억 9,175만 5,000원을 지출하고, 1억 4,549만 9,000원을 이월하였으며, 176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은 2024회계년도 기금결산 입니다. 우리군은 옥외광고정비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생활폐기물처리시설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청사신축기금, 고향사랑기금 등 총 7개의 기금을 운용 중입니다. 2023년말 기금 조성액은 367억 7,560만 2,000원이었으며, 2024년에 79억 3,417만 8,000원이 조성되고, 2억 7,246만 4,000원을 사용하여 2024년 말 현재액은 444억 3,731만 6,000원입니다. 끝으로 24페이지 개선 및 권고사항 입니다. 이번 결산검사에 따른 개선 및 권고사항은 "지방기금의 효율적 운영·관리 철저" 등 총 20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26페이지부터 8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우수사례로 정확한 공유재산 데이터 구축을 통해 양질의 공유재산 서비스를 제공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자산관리에 기여한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기반 조성 1건을 채택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결산 내용은 관련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인호 위원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희수

세무회계과장 김희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411호 2024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2024년도 세입 · 세출 결산 회계별 규모 외 6개 항목으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쪽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 회계별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8,602억 6,638만 2,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8,591억 1,402만 4,000원 중 수납액은 8,540억 1,550만 2,000원이고, 불납결손액은 11억 5,040만 5,000원이며, 미수납액은 39억 4,811만 5,000원입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의 징수결정액은 8,300억 8,370만 6,000원으로 이 중 8,253억 4,879만 원이 수납되고, 불납 결손액은 11억 5,040만 5,000원, 미수납액은 35억 8,451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290억 3,031만 8,000원을 징수결정하여, 286억 6,671만 2,000원을 수납하였고, 3억 6,360만 5,000원은 미수납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8천 602억 6,638만 2,000원으로 이 중 6,985억 4,044만 6,000원을 지출하고, 1,238억 5,477만 3,000원은 2025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177억 788만 5,000원이고, 집행잔액은 378억 7,078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41억 7,705만 2,000원입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6,724억 1,670만 원을 지출하고, 1,216억 9, 865만 9,00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177억 750만 2,000원을 반납하여, 375억 7,004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61억 2,374만 6,000원을 지출하고, 21억 5,611만 4,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은 38만 3,000원을 반납하고, 2억 9,773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액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재원별, 성질별 결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8,253억 4,879만 원으로 이중 지방세가 262억 2,054만 원이고, 세외수입이 223억 7,523만 4,000원, 교부세 2,863억 2,247만 6,000원, 조정교부금 159억 5,245만 2,000원, 보조금 2,749억 9,387만 6,000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1,914억 7,521만 3,000원입니다. 특별회계 내역은 보고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

액은 6,724억 1,670만 원으로 인건비가 816억 1,758만 4,000원이고, 물건비 509억 7,221만 3,000원, 경상이전 2,566억 3,714만 4,000원, 자본지출 2,517억 8,789만 3,000원, 내부거래 165억 7,226만 8,000원, 예비비 및 기타 148억 2,959만 8,000원입니다. 특별회계 내역은 보고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채무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우리군 2024년 말 현재 채무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5쪽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23년말 공유재산 총 평가액은 9,053억 2,035만 1,000원이었으나 2024년도에 1,438억 4,241만 6,000원이 증가되고 558억 9,560만 7,000원이 감소되어 2024년말 현재 공유재산 총 평가액은 9,932억 6,716만 원입니다. 이 중 행정재산이 9,320억 4,283만 2,000원이고, 일반재산은 612억 2,432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23년말 물품 총 건수는 1천 227건에 100억 8,919만 5,000원이었으나 2024년도에 71건에 2억 9,794만 8,000원을 취득하고 1건 939만 원에 처분하여 2024년말 현재 물품 보유 및 평가액은 1,297건에 103억 7,775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6쪽 세입세출외 현금 종류별 현재액 현황입니다. 2023년말 세입세출외현금 현재액은 37억 9,487만 5,000원이었으나, 2024년도에 209억 7,576만 9,000원이 수납되고 190억 1,993만 9,000원이 지출되어 2024년말 현재액은 57억 5,070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예산액은 2,791억 7,110만 1,000원으로 이 중 2,808억 3,197만 7,000원을 수령하여, 2,253억 9,077만 원을 집행하고, 391억 1,0 80만 4,00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63억 9,273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7쪽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의 경우 2,749억 9,387만 7,000원을 수령하여, 이 중 2,204억 512만 4,000원을 집행하고, 382억 5,873만 3,00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63억 9,235만 3,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58억 3,810만 원을 수령하여 이 중 49억 8,564만 6,000원을 집행하고, 8억 5,207만 1,00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8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욱

세무회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 제4항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세무회계과장은 계속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희수

다음은 의안번호 제3412호 2024회계연도 예비비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2024년 예비비 지출은 17건으로 14억 3,901만 9,000원이 지출 결정되어, 12억 9,175만 5,000원을 지출하였으며, 1억 4,549만 9,000원은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176만 4,000원입니다. 자세한 지출내역은 2쪽부터 3쪽까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욱

세무회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 제5항 「2024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세무회계과장은 계속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희수

다음은 의안번호 제3413호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쪽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2023년

말 기금 조성액은 7개 기금에 367억 7,560만 2,000원이었으며, 2024년도에 79억 3,417만 8,000원이 조성되고, 2억 7,246만 4,000원이 사용되어, 2024년말 현재액은 444억 3,731만 6,000원입니다. 각 기금별 결산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2025년 3월 20일부터 4월 8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던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 20건에 대해서는 별도 배부해드린 조치계획에 따라 시정 또는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욱

세무회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회계과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4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기금별 설명에 앞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 총괄사항에 대하여 기획예산실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입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은, 2024년도 기금 결산에 따른 예치금 잔액 반영과 공유재산관리기금 신설 및 2023년도 기금성과분석 결과 제출 등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5쪽, 2025년도 총괄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우리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한 총 8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중 법적의무기금은 고향사랑기금, 식품진흥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과 통합계정, 청사신축기금, 공유재산관리기금, 생활폐기물처리시설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2025년도 수입계획은 전입금 4억 6,000만 원, 보조금 2억 2,500만 원, 예치금 회수 444억 3,731만 3,000원, 이자수입 11억 6,705만 8,000원, 기타수입 10억 9,100만 원으로 총 473억 8,037만 1,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13억 7,490만 원, 예치금 368억 1,827만 1,000원 기타지출 91억 8,720만 원

으로, 수입계획과 동일한, 총 473억 8,037만 1,000원입니다. 다음 7쪽, 연도말 기금 조성액입니다. 2024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444억 3,731만 3,000원입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은 수입이 29억 4,305만 8,000원 지출이 105억 6,210만 원으로, 수입이 지출보다 76억 1,904만 2,000원 감소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2025년도 말까지 예상되는 기금의 총 조성규모는, 368억 1,827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93쪽, 2023회계연도 기금성과분석 결과 입니다. 우리군 2023회계연도 기금성과분석 점수는 74점으로, 총 7개 분야 중 사업비 집행률, 기금 수입·지출 관리 적정성 등 4개 항목에서 가점을 받았으나, 사업비 편성 비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타회계 의존율 항목에서 다소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사업비 편성 비율과 타회계 의존율 항목에 대한 권고대상 기금은 청사신축기금과 생활폐기물처리시설 기금으로, 향후, 우리 실 소관인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으로 일괄예탁 운용하여, 해당 항목에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항목에 대한 권고대상 기금은 청사신축기금, 재난관리기금, 생활폐기물처리시설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정비하여 민간전문가의 비중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소관위원회 개최 시, 민간전문가를 반드시 50% 이상 참여 운영토록 하는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 총괄보고를 마치고 기금별 세부운용계획은 기금 운용부서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욱

기획예산실장 이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변경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이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3쪽, 운용총칙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경기변동에 따른 세입의 불확실성에 대비한 여유자금의 비축과 활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현황입니다. 2024년에 확정된 전년도말 최종 기금 조성액은 116억 9,534만 4,000원으로, 이를 포함한 수입 총액은 119억 2,534만 4,000원입니다. 또, 기타지출 91억 8,720만 원을 제외한 현재 예치금은 27억 3,814만 4,000원으로 지출총액은 수입총액과 같습니다. 다음 15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2025년도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액 116억 9,534만 4,000원 이자수입 2억 3,000만 원이며, 수입총액은 119억 2,534만 4,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을 보면, 지난 1회 추경시 민생회복지원금 재원으로 91억 8,720만 원을 전출해, 현재 가용할 수 있는 기금 조성액은 27억 3,814만 4,000원입니다. 다음 18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20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앞서 설명드린 총괄 내용과 같으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욱

기획예산실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고향사랑기금」 변경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천종실입니다.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변경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3쪽, 운용총칙입니다. 고향사랑기금 기금 조성현황입니다. 2025년도말 고향사랑기금 조성액은 수입과

지출 계획을 반영한 16억 5,6 47만 9,000원입니다. 다음 24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2025년도 수입계획은 19억 7,507만 9,000원입니다. 당초 기정액에서 2024년 실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 등 재무결산 반영 및 2025년 전라남도 기금사업 도비 보조금 등 3억 8,897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25년도 지출계획은, 당초 기정액에서 답례품비 증액 및 “노화읍 마을 공동 빨래방 조성” 기금 사업비 추가 반영 등 비융자성 사업비 3억 1,860만 원을 제외한 수입금 전액을 예치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25쪽, 2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7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액, 30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앞에서 설명 드린 내용과 동일하여 보고를 생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욱

행정지원과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청사신축기금」 변경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희수

세무회계과 소관 2025년도 기금운영계획 2차 변경안 중 청사신축운영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 운용총칙입니다. 청사신축기금으로 완도군 청사신축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완도군 신 청사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기금조성액은 일반회계 전입금을 포함하여 이자수익 2억 5,923만 8,000원으로 총 조성액은 92억 5,620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34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총괄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 수입계획으로 89억 9,696만 4,000원을 예치금으로 회수하였으며 이에 대한 이자수익은 2억 5,923만 8,000원으로 수입액은 총 92억 5,620만 2,000원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 지출계획은 예치금으로 92억 5,062만 2,000원입니다. 다음 35쪽 수입계획입니다. 예치금회수 89억 9,696만 4,000원, 이자 수입이 2억 5,923만 8,000원으로 총 12억 5,610만 2,000원입니다. 다음 36쪽 지출계획입니다. 청사신축기금 예치금으로 92억 5,620만 2,000원입니다. 다음 37쪽 연도별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연도별기금조성액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이자수익으로 2021년도 77억 9,000만 원, 2022년도 37억 5,500만 원, 2023년도 55억 6,737만 3,000원, 2024년도 1억 5,291만 8,000원, 2025년도 2억 5,923만 8,000원으로 총 175억 2,452만 9,000원입니다. 다음 38쪽 집행현황입니다. 비융자성 사업비로 2021년도 48억 1,627만 7,000원, 2022년도 24억 7,033만 3,000원, 2023년도 5억 8,171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전 92억 5,621만 2,000원은 이체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24년도 말 현재액 89억 9,696만 4,000원으로 2025년도 지출계획에 따라 2억 5,923만 8,000원을 예치함으로써 2025년도말 예치금은 촉 92억 5,600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경 청사신축기금운영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욱

세무회계과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기금」 변경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계속해서 「공유재산관리기금」 변경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세무회계과장 김희수

다음으로 2025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3쪽 운용총칙입니다. 공유재산관리기금은 지난 12월 재정된 완도군 공유재산 관리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설치하여 운용하고자 합니다. 2025년도 기금조성액은 공유재산 매각수익금 임대료등을 포함하여 5억 4,940만 원입니다. 다음 45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총괄 입니다. 25년도 수입계획으로 기타수입으로 5억 3,600만 원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1,340만 원으로 총 수입액은 5억 4,940만 원입니다. 2025년도 지출계획은 예치금으로 5억 4,940만 원 다음 46쪽 수입계획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국유재산임대료 600만 원과 공유재산임대료 1억 5,000만 원, 이자수입이 1,340만 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매각수입금 3억 5,500만 원, 그리고 변상금 2,500만 원으로 총 5억 4,940만 원입니다. 다음 47쪽 지출계획입니다. 공유재산관리기금 예치금으로 총 5억 4,940만 원입니다. 48쪽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5년 신규설치로 총 조성액은 5억 4,940만 원입니다. 다음 50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전액 예치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5년도 공유재산관리기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욱

세무회계과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과장 나오셔서「식품진흥기금」변경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오현철

관광과장 오현철입니다. 2025년 제2회 추경예산 식품직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53쪽입니다. 식품의 안정성 및 군민 영양 수준향상을 위해 조성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 말 식품진흥기금조성액은 1억 1,143만 5,000원입니다. 2025년 기금조성계획으로 예치금 회수에 50만 7,000원이 증액된 1억 1,143만 5,000원, 예금이자는 40만 원 감액된 2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25년도 음식문화개선 물품구입비로 2,000만 원 변동없이 지출할 예정이고 2025년말 조성예상액은 1,260만 원 감액된 9,883만 5,000원입니다. 자금운영계획 및 연도별 기금조성현황들은 54쪽부터 59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02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욱

관광과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수질관리과장 나오셔서「생활폐기물처리시설기금」변경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질과장 위남환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입니다. 93페이지 환경수질관리과 소관 2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 생활폐기물처리 설치기금은 24년도 12월 기준 조성액은 204억 3,437만 5,000원입니다. 이기금은 생활폐기물처리를 위한 소각물, 매립자, 재활용시설, 음식물처리시설등 생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와 관리를 위한 지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25년도말 조성액은 12월말 조성

액의 예금이자 6억 502만 원을 확보한 210억 3,939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욱

환경수질관리과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질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옥외광고정비기금」 변경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진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진원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2회 기금운영 변경 계획안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쪽, 운용 총칙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의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억 1,092만 4,000원이며, 2025년도 수입 총액은 1억 200만 원, 지출 총액은 2억 2,000만 원입니다. 올 말까지 기금조성 총액은 9,292만 4,000원입니다. 다음 74쪽,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2025년도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1억 원 예치금 회수액은 2억 1,092만 4,000원으로 본예산 8,573만 6,000원 대비 1억 2,518만 8,000원이 증액된 금액이며, 이자수입 200만 원입니다. 2회 추경은 본예산 대비 1억 2,518만 8,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76쪽, 지출계획입니다. 총지출은 본예산 지출액 대비 1억 2,518만 8,000원이 증액된 3억 1,292만 4,000원이며, 비융자성 사업비 본예산 대비 1억 2,000만 원이 증액된 2억 2,000만 원 중 사무관리비 30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700만 원으로 목 편성하여 총 2,000만 원으로 「2025 폐현수막 재활용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시설비 2억 원으로 지정게시대 확충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예치금 본예산 대비 518만 8,000원이 증액된 9,292만 4,000원입니다. 이어서 77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부터~79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앞서 설명 드린 총괄 내용과 동일하여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2회 기금운영 변경 계획안 옥외광고정비기금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욱

건설과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재난관리기금」 변경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홍용

안전총괄과장 이홍용입니다. 25년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3쪽 운영총칙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 67조 및 완도군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조례에 따라 재난예방을 수습하기 위해 2004년도부터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6억 319만 2,000원이며 25년 수입총액은 6억 원이며 지출총액은 8억 1,63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3억 8,689만 2,000원입니다. 84쪽 자금운영계획 자금수지총괄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2025년도 전입금 3억 6,000만 원을 적립하여 보조금 2억 1,000만 원 ,예치금 회수액 16억 319만 2,000원 이자수익 3,000만 원으로 총 22억 329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완도군시설물 내진률제고를 위한 시설물 내진 성능효과용역 3회분을 증액하여 비융자성 사업비 8억 1, 630만 원

과 예치금 13억 8,689만 2,000원으로 총 22억 329만 2,000원입니다. 85쪽부터 86쪽까지 기금편성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7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2025년도까지 조성액은 총 56억 9,563만 4,000원입니다. 88쪽입니다. 2025년도까지 집행액은 43억 874만 2,000원이며 잔액은 13억 8천 689만 2,000원입니다. 89쪽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자금운용계획 보고내용과 동일하여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욱

안전총괄과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 과정에서 검사위원님들께서 지적한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 성의 있는 시정과 개선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0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6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산회)

○출석위원(8인)

최정욱	박재선	박성규
지 민	박병수	조인호
허궁희	조영식	

○출석공무원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세무회계과장	김희수
관광과장	오현철
환경수질과장	위남환
건설과장	김진원
안전총괄과장	이홍용

○ **전문위원** : 박영민

○ **전문위원** : 최영미

○ **속 기 사** : 임은주

제330회 완도군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6월 10일(화)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완도군수 제출)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보고**
-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 **기획예산실**
- **인구일자리정책실**
- **해양치유담당관**
- **행정지원과**
- **민원봉사과**
- **주민복지과**
- **가족행복과**
- **농업축산과**
- **경제교통과**
- **관광과**
- **문화예술과**
- **체육진흥과**
- **해양정책과**
- **수산경영과**
- **산림휴양과**
- **안전총괄과**
- **시설관리사업소**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정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

1.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완도군수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집행부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협의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인건비·여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계속비 신규 및 변경사업 그리고 국도비 신규 및 변경사업과 순군비 증액사업은 5백만 원 이상에 대해서만 예산 설명을 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부서별 제안설명에 앞서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에 따른 총괄사항에 대하여 기획예산실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괄보고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기획예산실장 한희석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 2회 추경예산안은 군정역점시책과 현안사업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에 주력하는 등 주민생활안정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예산에 최우선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또 본예산 편성 이후에 추가되거나 변경된 국도비사업을 조성하고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분을 의무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자체수입입니다.

지방세 등 균특재난사업 지방소비세 보존금을 반영해 2억 2,500만 원 증액하였고 세외수입은 자산매각대금, 임대료, 이자수입, 기타수입 등으로 88억 4,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존세입은 보통교부세 2025년도 예측추가분과 특별교부세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반영해 227억 800만 원, 조정교부금 7억 원, 국도비 보조금 394억 9,900만 원을 각각 증액반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는 2024년도 순세계잉여금 138억, 국도비 반납액 177억, 해양치유공단 이자입수입 34억 등을 반영하여 총 345억 4,6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상수도사업에서 일반회계 전입금과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24억 2,500만 원, 주택자금융자 1억 1,600만 원, 의료급여기금 6,500만 원, 농공지구 조성관리 8,7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 300만 원이 감액되어 총 26억 9,1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예산 규모는 기정액 6,306억 원 대비 1,096억 원이 증가한 7,402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입과 같은 7,402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1,069억 원이 증액된 7,108억 원, 특별회계는 27억 원이 증액된 294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국도비보조금과 군비 부담금과 같은 법적 의무적 경비와 순군비 자체사업 예산으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 의무경비를 살펴보면 국도비보조금은 2,820억 원을 반영하여 412억 원이 증

액되었고 국도비보조금 반영에 따른 군비 부담금은 76억 3,500만 원이 증액된 1,147억 원입니다. 국도비사용잔액반납금은 27억 4,200만 원을 반영해 국도비사업 관련 예산은 총 488억 3,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는 25년도 초과수당 단가적용과 수당 추가반영 등으로 35억 3,800만 원, 업무추진비 400만 원, 의회월정수당 600만 원, 적극행정과 민원행정 우수공무원 포상 등 포상금 2,000만 원, 연금부담금 등 6,0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3억 6,000만 원,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상수도사업 22억 1,500만 원, 농공단지 5,200만 원, 의료급여기금 6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적 의무적 경비는 총 5,190억 원으로 579억 3,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순군비 사업예산입니다.

이번 추경에 부서와 읍면에서 요구한 순군비예산은 예비비와 국도비반납금 특별회계 제외한 875여억 원이고, 자체심사는 물론 보조금위원회와 용역과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법령과 조례, 기타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요구액의 56%인 490억 원을 최종반영한 바 있습니다. 경상예산은 효율적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고 적기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위주로 우선 편성했고, 총액한도액이 적용되는 지방보조금의 경우 올해 한도 범위 내에서 예산을 증액하여 본예산 편성에 115억 대비 27억 원 증액된 142억 원을 최종편성하였습니다.

경상비 중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는 73억 2,000만 원, 행사실비지원 등 일반보조금은 71억 등 총 144억을 증액하였습니다. 경상비가 증액된 주요 원인은 청사 전기요금과 농어촌 가로등 요금 등 법적 공과금과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 어르신 이·미용 목욕비 지원 등 추가반영, 치유페이 증액, 출산장려금 지원 등의 공공시설비, 편의시설유지비와 관광활성화예산, 주민교통편의 및 복리사업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자체사업비는 재원범위 내에서 지역여건과 읍면별 형평성, 시급성을 우선 고려하였고, 추경예산인 점을 감안해 대규모 신규투자사업은 다음 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한편 금년 하반기에 추진가능한 사업은 즉각 반영해 예산의 형평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투자심사, 부지확보, 토지매입 동의 등의 사전행정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절차가 완료된 후에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 시설비 220억 원, 민간자본이전비용 32억 원, 연구개발비 20억 원, 재료비 5억 원, 자산취득비 11억 7,000만 원 등 총 308억 5,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상수도사업에서 지방상수도 통합위탁 운영계획과 가뭄지역 면허처리 등으로 24억 원, 주택자금융자 1억 1,600만 원, 의료개발기금 6,500만 원, 농공단지는 침수로 정비 등으로 8,7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주민소득지원은 300만 원이 감액된 총 26억 9,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내용은 각 부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욱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제안설명을 들으면서 궁금한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

면 질의시간에 질의하여 주시고,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잘 체크해 두셨다가 축조심사 때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세무회계과장 김희수

(참조)
·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위원장 최정욱

세무회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세무회계과

○세무회계과장 김희수

(참조)
·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위원장 최정욱

세무회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 위원님.

○박재선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 예산서하고는 상관이 없는데요. 노화 넙도 출장소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거기는 이제 어차피 추경에는 못 하는데 본예산에는 그걸 반영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세무회계과장 김희수

박 위원님께서 전에도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이 본예산부터 이렇게 편성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좀 예산상의 문제가 좀 있어서 아마 편성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내년 본예산에는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선 위원

과장님 한번 가 보셨죠? 출장소는 가보셨죠?

○세무회계과장 김희수

예.

○박재선 위원

너무 열악하고 지금 다 부서졌어요.

○세무회계과장 김희수

맞습니다.

○박재선 위원

이제 보수해도 사실은 그게 제대로 되지 않아요. 이제 그 부분을 내년도에는 좀 반영돼서 그 출장소가 운영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세무회계과장 김희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욱

박성규 위원님.

○박성규 위원

저도 예산하고 상관없습니다마는 앞전에 설명했습니다마는 우리 군청 앞에 주차장 건물 매입해서 주차장 만든다고 했는데 그 진행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희수

지금 현재 전체 부지의……

○재산관리팀장 문병민

감정평가를 했고요. 간담회 소유자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가 좀 양이 많아서 16일날 두 필지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예산이 좀 없어서 이번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동의서를 다 받아 놓을 계획입니다.

○박성규 위원

추경에 안 되지만 본예산을 확보하겠다는 말씀이죠?

○세무회계과장 김희수

예산은 지금 확보는 안 돼 있고요.

○세무회계과장 김희수

다음 내년도요.

○세무회계과장 김희수

일단 아직 내년도 예산을 아직 편성을 안 했기 때문에 일단은 그 부지에 대한 동의서가 우선이고, 또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하기가 어렵다면 점차적으로 우선 매입이 필요한 부분들을 먼저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성규 위원

그리고 행정선 건조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희수

다목적 행정선 말씀하신가요?

○박성규 위원

예.

○세무회계과장 김희수

다목적 행정선은 저희들도 위원님께 미리 사전에 설명을 한 번 드렸어야 되는데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해 일단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장정화선 부분을 저희들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다목적 행정선 저희 과에서 추진을 했지만 그런 전례를 밟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이 업체 선정되기까지도 그런 과정이 굉장히 문제가 있었었는데 여하튼 공기 내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워낙에 지금 조선업체들이 영세합니다. 그래서 그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해서 이렇게 보니까 저희들도 이제 진행하는 과정을 보니까 저희들 이렇게 사업 오더를 받으면 이 사업비를 가지고 전차 공사에 이렇게 지금 조선업체들이 다 그런 형태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급 부분도 저희들도 종사를 하면서도 그런 부분들을 좀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회사가 도저히 저희들이 봤을 때는 진행이 어렵다 싶어서 지금 계약을 해지를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조달청에.

○박성규 위원

정상적으로 추진이 안 되고 있었구만요. 그럼 언제 진수할지도 모르겠네요.

○세무회계과장 김희수

진수를 저희들이 그래서 당초 계획은 원래 5월달이었는데 그게 도저히 안 된다 싶어서 계약을 해지를 지금 요청을 해놓은 상태고, 조달청에서 지금 현재 지금 행정절차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마 해지는 곧 될 것 같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금년 중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금년에 지금 예산을 또 추경예산에 편성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다음 업체를 바로 선정을 해서 금년 중에는 마무리될 수 있도록 또 저희들이 지금 장비 업체들하고 간담회를 해 가지고 모든 장비들은 지금 막 수입 장비들도 있고 해서 그 업체들로 하여금 우리가 회의를 해서 3자 대면 회의를 해서 장비 부분은 자체적으로 보관을 해 달라, 12월까지. 그것은 나머지 부분은 우리군에서 책임지고 이렇게 인수를 하겠다 그런 약속을 해놓은 상태라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조달청 계약 해지 통보가 온 대로 해서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규 위원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세무회계과장 김희수

총 예산이 56억입니다.

○박성규 위원

56억입니까? 그럼 이번에 추경에 17억 원을 확보했고요.

○세무회계과장 김희수

예.

○박성규 위원

이걸로 끝납니까? 또 필요합니까?

○세무회계과장 김희수

이 정도로 끝날 것 같습니다. 약간 군에서는 좀 약간의 손해가 있지만 저희 업체에서 우리 선급금 공제조합에도 이렇게 지금 청구를 해 놓은 상태고, 계약보증금도 조달청에서 확보를 지금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손해배상 청구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군에서 손해는 좀 발생할 수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성규 위원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지금 얼마나 걸렸습니까? 한 2년 걸렸어요?

○세무회계과장 김희수

처음 시작부터 한다 하면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진행한 것은 작년 11월부터 했었으니까요.

○박성규 위원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희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욱

또 다른 분 계십니까? 세무회계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희수

위원장님 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정욱

예.

○세무회계과장 김희수

발언 기회 한번 주시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이제 추경 설명을 끝으로 제 공직생활 37년의 마침표를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그동안 제가 2년 6개월 가장 최근에 이제 세무회계과장으로 재직한 기간 동안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해드리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왕성한 의정 활동으로 우리 군 발전에 더욱더 잘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의 건수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욱

우리 과장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ㅇ 기획예산실

다음은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참조)

·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위원장 최정욱

기획예산실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완도 관문 상징물 신규 건립에 10억 원을 지금 감액했죠?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예.

○위원장 최정욱

그거 아직 확신이 안 떨어졌다는데 먼저 감액해요?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원체 재원이 없어서 일단은 저희들이 용역 발주를 했고, 용역에 지금 현재 진행 상황 보고를 받아보니 그 구조물로는 좀 가능하겠다라는 서면답변을 받은 상태라 그 놈을 근거로 지금 삭감 조치를 했고요. 아마 그 서면 내용으로 보면 그 구조물 안전성에 충분히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최정욱

그러면 거의 뭐 결정 그렇게 난 걸 봐도 되겠네요.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최정욱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기획예산실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고맙습니다.

ㅇ 인구일자리정책실

○위원장 최정욱

다음은 인구일자리정책실장이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참조)

·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위원장 최정욱

인구일자리정책실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규 위원님.

○박성규 위원

노화 노소보 어울림 마당이요. 기간제근로자를 뽑지 않습니까?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예.

○박성규 위원

그러면 시설 총괄 매니저는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까?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기본적인 자격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전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인데 그거는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고요. 우리 지금 청년센터 완생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뽑을 계획입니다.

○박성규 위원

그러면 시설 돌봄 공간 인력도 자격증이 있어야 되겠네요.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그렇습니다.

○박성규 위원

그리고 청소 인력은 자격증이 없어도 되고요.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노화 쪽하고 보길 쪽에 확인해 본 결과 기본적으로 이런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박성규 위원

전부 신규 채용이죠?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그렇습니다.

○박성규 위원

이렇게 채용할 때 잘 봐서 좀 어려운 사람들을 좀 채용을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력을 채용할 때 보면은 부모님도 다 계시고 또 며느리들이 근

무하고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그런 데서 근무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채용할 때 좀 어려운 사람들을 봐서 채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동일한 자격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을 우선 감안해서 채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욱

조영식 위원님.

○조영식 위원

실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229쪽에 평생학습예술제 이게 올해 처음 하는 거 아니죠? 작년에도 했죠?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매년 연말에 하고 있습니다.

○조영식 위원

그런데 왜 이 추경을 염두에 두고 본예산에 원래 편성 안 하고 추경 했습니까?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이 행사 자체가 하반기 개최가 되고 있고, 우리 신속 집행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이게 추경 예산을 편성하도록 예산 부서하고 협의가 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조영식 위원

아, 언젠가 2023년에는 추경이 없어가지고 그러면 또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보통 우리가 정리 추경이 11월달에 편성이 되기 때문에 항상 이거는 연말에 행사를 개최하기 충분히.....

○조영식 위원

제가 이 부분에 작년에도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가능하면 본예산을 편성을 해라 한 번 경험을 했잖아요. 그렇죠?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솔직히 질책도 많이 받고 한 걸로 아는데 돈은 얼마 안 되는데 해마다 계속되는 예술제인데 한 번 추경이 없어가지고 정리 추경에 가까스로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심사숙고 좀 해 주십시오. 예단하지 마시고 신속집행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불과 한 2년 전에 짧은 시간 내에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리고 사무감사 때나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신속집행 핑계 대 가지고 자꾸 이렇게 추경에 예산 편성하는 것은 좀 안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예. 그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적극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식 위원

가능하면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욱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인구일자리정책실장과 관계공무원을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해양치유담당관

다음은 해양치유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치유담당관

(참조)

·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위원장 최정욱

해양치유담당관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238페

이지에 보면 완도 해양치유관리공단 위탁 사업 해가지고 3억 했잖아요.

○해양치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정욱

근데 우리가 그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담당관님 분명히 그때 물어봤을 때 그 대행업이라고 하다고 했잖아요, 그때 위탁이 아닌. 근데 왜 여기는 위탁이라고 이렇게 쓰나요? 위탁하고 대행하고 전혀 다른데.

○해양치유담당관

이제 부기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 기재를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정욱

이게 우리가 확실히 해줘야 되는 게 우리 의회에서 위원들도 그걸 각인하고 알아야 되고 누가 물어봐서 대답 잘못하면 우리가 무능하게 된 것이니까 참고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치유담당관

예.

○위원장 최정욱

그리고 그 센터 인피니티풀 이제 조성은 26억 6,500 이거 가지면 된가요? 또 필요한 거.....

○해양치유담당관

아, 저기 명시 이월된 6억이 더 있어서 총 사업비는 33억 원입니다.

○위원장 최정욱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우리 해양치유담당관과 관계공무원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0분 회의계속)

○위원장 최정욱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참조)

·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위원장 최정욱

행정지원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감사합니다.

ㅇ 민원봉사과

○위원장 최정욱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우홍래

(참조)

·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위원장 최정욱

민원봉사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주민복지과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참조)
·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위원장 최정욱

주민복지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복지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가족행복과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참조)
·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위원장 최정욱

가족행복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예.

○위원장 최정욱

독거노인 통합 서비스 시스템 운영 사업비 이게 뭐예요? 감액 3,000 했다가 감액한 게.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부속도서에 대해서 행안부 2023년에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도에서 공모 사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에서 완도군하고 신안군 두 군데를 줬었는데 그 수행기관이 한전MCS 주식회사였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공모 사업을 해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그래서 감액 조치됐습니다.

○위원장 최정욱

그리고 우리 집행반납액에서 보면은……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최정욱

327페이지에 2023년 노인맞춤돌봄 국비집행 반납 해갖고 5억이 넘는데 노인맞춤돌봄이란 어떤 사업이에요?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그 맞돌 지금 저기 지역자활센터에서 지금 수행하고 있는데 그 장기요양등급을 받기 전에 그 사람들 돌봄을 생활지원사들이 방문하면서 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안부 살피기.

○위원장 최정욱

이런 건 활성화시킬……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지금 활성화 엄청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정욱

근데도 이렇게 많이 반납해야 된가요?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아, 저기 좀 책정이 좀 많이 돼서……

○위원장 최정욱

책정이?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예, 예. 사업비 책정이 좀 많이 돼가지고.

○위원장 최정욱

그 다음은 316페이지요.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성장 지원사업 이건 또 뭐예요?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저희가 작년에 공모사업을 이 부분을 했거든요. 공모사업에서 당첨, 선정이 됐는데 그 조건이 지방소멸기금을 포함해서 이 사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설비를 지금 인구감소청산 지원사업을 해가지고 청소년 문화공

간을 좀 리모델링하는 그런 시설비 사업입니다.

○위원장 최정욱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가족행복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을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농업축산과

○농업축산과장 직무대리 이욱

(참조)
·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위원장 최정욱

농업축산과장 직무대리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세 가지만 좀 확인할게요. 405페이지 하단에 시설비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본계획 수립 이거 용역비인가요? 4억인데.

○농업축산과장 직무대리 이욱

예.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 사업 기간이 언제까지죠?

○농업축산과장 직무대리 이욱

1년간 잡혔습니다.

○박병수 위원

1년간 그러면 하반기 해가지고 내년도에 사업비 가능한가요?

○농업축산과장 직무대리 이욱

예.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 총 사업비가 7억 5,000인가요? 7억, 75억 얼마죠? 75억인가요, 전체 사업비가?

○농업축산과장 직무대리 이욱

계속비 말씀하시는 거.....

○박병수 위원

예, 전체 사업비.

○농업축산과장 직무대리 이욱

예. 그렇습니다. 71억.

○박병수 위원

71억. 그리고 또 한 가지는 414페이지 하단에 보면 다목적 소형 농기계 지원인데 1억 2,100만 원이 감액이 됐거든요. 감액 사유가 있는가요?

○농업축산과장 직무대리 이욱

도비가 감액.....

○박병수 위원

도비가 감액이 돼서?

○농업축산과장 직무대리 이욱

사업비 자체가.....

○박병수 위원

지금 농가에서는 소형 농기계 이것을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한 반절밖에 안 해줬다고 그렇게 상당히 아우성이던데 이걸 또 감액을 해 준다고 그러면 상당히 시끄럽겠는데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다른 것들은 다른 예산들은 도비를 감액했더라도 군비를 좀 더 보태서라도 해줘야 되는데 도비 줄였다고 또 군비까지 줄여야 되면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농업축산과장 직무대리 이욱

예. 알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리고 또 이제 417페이지 저 상단에 보면 맞춤형 농기계 구입 지원이 있는데 이것이 5,000만 원이 증액됐죠?

○농업축산과장 직무대리 이욱

이것은 군 자체사업.....

○박병수 위원

5,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이것하고 같이 연관이 된가요?

○농업축산과장 직무대리 이욱

예. 연관된 사업입니다.

○박병수 위원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욱

허궁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허궁희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뭔 얘기인지 알죠?

○농업축산과장 직무대리 이욱

예. 알고 있습니다.

○허궁희 위원

왜냐하면 수억 들여서 그 돈사를 매입을 했으면 활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건물이 거기 4동이 그대로 있어요, 한 동만 철거하고.

○농업축산과장 직무대리 이욱

예. 그렇습니다.

○허궁희 위원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부서로 이관하려고 하지 말고 축산과에서 매입을 했으니까 정리를 하세요. 그래서 그 비싼 땅을 그렇게 놀려놓지 말고 거기가 지금 가보면 들개, 들고양이에다가 무서워서 못 가요. 그 주변에 농사 짓는 사람들이 자꾸 얘기해요. 그래서 거기를 체험장으로 쓰든 무엇으로 쓰든 그 정리가 돼야 쓸 거 아니에요.

○농업축산과장 직무대리 이욱

예. 그래서 이번……

○허궁희 위원

실질적으로 철거비는 얼마 안 들어요.

○농업축산과장 직무대리 이욱

이번 임대형 스마트팜 수직농장 시설을 거기다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허궁희 위원

그러니까 땅을 만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철거를 하세요.

○농업축산과장 직무대리 이욱

예. 알겠습니다.

○허궁희 위원

참고하세요.

○농업생산팀장 김동균

있는 시설에다가 외부 시설 보완해가지고 철거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요.

○허궁희 위원

철거비는 실질적으로 내가 업체에 알아보니까 얼마 안 들어요.

○농업생산팀장 김동균

근데 이제 저희들이 시범 사업을 하는 수직농장이 내부 시설도 진행하면……

○허궁희 위원

그게 그렇게 활용을 하던가요. 그 비싼 땅을 사놓고 몇 년째 거기 방치를 해놓고 있으니까 밑에 그 돈사는 완전히 낡아서 그건 철거해야 되겠더라고요.

○농업축산과장 직무대리 이욱

예. 알겠습니다.

○허궁희 위원

양철로 된 데, 참고하세요.

○농업축산과장 직무대리 이욱

예.

○허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욱

조영식 위원님.

○조영식 위원

과장님, 414쪽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지원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혹시 제가

800여만 원이 감액됐는데 이거 요구가 없어서 그런가요? 414쪽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지원에서.

○농업축산과장 직무대리 이욱

도비사업이 감액돼서 내려왔고요, 지금.

○조영식 위원

그 사유가 감액된 사유는 알겠는데 우리 군민들이나 사용자들이 호응이나 요구하는 면이 없냐 이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농업축산과장 직무대리 이욱

많습니다.

○조영식 위원

많죠. 이런 부분 돈은 얼마도 안 되는데 원하는 사용자들이 많거든요. 좀 잘 생각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직무대리 이욱

예. 알겠습니다.

○조영식 위원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그렇지만 군민들이, 많은 분들이 원하고 있어요. 마을마다 가보면 또 특히 여성분들이 많이 원하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직무대리 이욱

알겠습니다.

○조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욱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두 가지 물어볼게요. 424페이지에 연구용역비에 지속 가능한 완도형 먹거리 종합발전 계획 수립용역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무슨 뜻이에요? 지금 정부합동평가하고 공공급식센터 설립을 위해서 사전에 저희들이 용역을 추진해서.

○위원장 최정욱

어디를, 어디를요?

○농업축산과장 직무대리 이욱

먹거리 종합계획입니다.

○위원장 최정욱

그러니까 먹거리라는 게 어떤 먹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직무대리 이욱

저희들 농산물 전체적인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정욱

우리 지금 먹거리라는 게 농토에 대한, 곡식에 대한 먹거리를 말한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직무대리 이욱

쌀부터 해서 과수, 채소.....

○위원장 최정욱

그거를요? 알았어요. 그다음에 그 436페이지에 축산 복지센터 건립 지원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농업축산과장 직무대리 이욱

지금 고금에서 지금 한우협회 사무실입니다.

○위원장 최정욱

고금 뭐요?

○농업축산과장 직무대리 이욱

한우협회 사무실이요. 전에 그 거점소독시설을 추진하면서 한우협회 사무실이 지금 없어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최정욱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없습니까? 농업축산과장과 관계공무원을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36분 회의계속)

○위원장 최정욱

위원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ㅇ 경제교통과

○경제교통과장 이정국

(참조)
·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위원장 최정욱

경제교통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 위원

과장님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여쭤보겠는데요. 333페이지 아래쪽 하단에 보면 신규 대출 이자 지원해서 40억이 대출금액 40억에 대한 3%의 이자를 지원을 해주는 거죠?

○경제교통과장 이정국

예.

○지민 위원

그래서 1억 2,000만 원이요?

○경제교통과장 이정국

예.

○지민 위원

예산을 책정을 해놓고 한 달도 안돼서 금액이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경제교통과장 이정국

예.

○지민 위원

그때 9,000만 원을 세웠을 때 지금은 3,000만 원을 세워도 금액이 우리 소상공인들 대출하려고 파산신고 해놓은 게 쌓여 있다고 하는데 솔직히 이 금액에 대해서는 몇 몇 분들에게 도움이 되겠지만 적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만 드립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정국

약간 적습니다마는 그래도 이 범위안에서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민 위원

보증수수료도 마찬가지고요?

○경제교통과장 이정국

예.

○지민 위원

그리고 337페이지 상단에 보면 2025년 글로벌 에너지 캠페인광고는 무엇입니까?

○경제교통과장 이정국

이것은 목포MBC에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홍보 마케팅 광고비입니다.

○지민 위원

무조건 해야되는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이정국

저희과에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홍보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예산을 넣었습니다.

○지민 위원

340페이지 보면 송정역에서 해양치유센터와 연계해서 시외버스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죠? 그거 하루에 몇 회 운영을 합니까?

○경제교통과장 이정국

하루에 2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민 위원

시간대는 어떻게 되나요?

○경제교통과장 이정국

지금 오전에 와서 오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민 위원

그럼 송정에서 출발하는 건 몇 시인가요?

○경제교통과장 이정국

아침 8시 쯤 출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민 위원

6시요?

○경제교통과장 이정국

8시.

○지민 위원

오전 8시요? 제가 생각하기에 '오전 8시에 송정에서 타면 위에서 오는 분들이 8시쯤에 광

주에 도착하시는 분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고 대략 월 평균 몇 명 정도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이정국

정확한 인원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민 위원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욱

또 질의하실 다른 분 계십니까?

경제교통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ㅇ 관광과

○관광과장 오현철

(참조)

·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위원장 최정욱

관광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364페이지 재료비, 대나무 낚시 체험 재료비는 축제예산에 포함이 안되는 별도의 예산인가요?

○관광과장 오현철

예. 그렇습니다. 저희 행사보조비가 아니라 저희과 재료비로.....

○박병수 위원

아니, 행사를 하는데 장보고수산물축제에 프로그램에 안 들어가나요?

○관광과장 오현철

프로그램 시설비에 대한것은 들어가 있고요. 전복이라든가, 물고기 구입은 재료비에서.....

○박병수 위원

이런 예산을 같이 포함을 해서 축제예산을 잡아줘야지..... 따로 3,500만 원이 들어간 이유가 뭐에요?

○관광과장 오현철

지금 그 기간쯤에 많은 인원들이 와서 저희가 기획했던 물고기라든가 전복, 이 부분이 부족해서 저희가 추가로 투입한 어떤 예산이었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러니까 예산절차가 맞는가요?

○관광과장 오현철

그런 부분은 절차상.....

○박병수 위원

365페이지 하단 봅시다. 슬로우길축제 대비 서편제 일원 환경정비공사가 있죠? 축제가 끝났죠?

○관광과장 오현철

예.

○박병수 위원

축제가 끝났는데 대비한다는 이야기가 무슨말인가요?

○관광과장 오현철

의원님, 축제가 끝났는데 불가피하게 먼저 좀 선행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다른 기존에 있는.....

○박병수 위원

지금 예산실장님 계신가요? 이 절차가 맞아요? 어때요?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예산이 확보가 된 상태에서 집행을 해야하는데 불가피하게 발생해서 의회에 보고를 한 다음에 선조치하고 후 예산을 세워서 절차를 거쳐야하는데 시급성 때문에 선집행하고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는 행태로 보고드리게 됐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박병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366페이지 해안도로 관광명소화 사업이 군비 15억 7,0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무슨 이유가 있나요?

○관광과장 오현철

지금 현재 저희가 국비 매칭사업인데 행정절차라든가 시간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군비부분을 감해서 다른데다 예산을 활용하는 그런.....

○박병수 위원

총 사업비는 변경이 없다는 이야기죠?

○관광과장 오현철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욱

지민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민 위원

364페이지에 슬로시티 시민강사양성교육이라고 있는데 무엇입니까?

○관광과장 오현철

슬로시티 학술원에서 주관하는 정책사업이고요. 저희가 1차 슬로우시티 시민강사를 16명을 양성했었습니다. 2차 교육을 특수적으로 실행해야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지민 위원

여기 369페이지 보니까 해수욕장 수영경계선 설치라고 있거든요? 신지 명사십리가 400만 원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또 물놀이 경계선이라고 있거든요? 물놀이 경계선과 수영경계선이 다른 겁니까?

○관광과장 오현철

예. 그렇습니다.

○지민 위원

또 1,000만 원이 되어있어서 어떤게 다른지 싶어서 여쭤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관광과장 오현철

수영 경계선은 좀 더 가깝게 나가는 거고요. 물놀이시설은 유아라든가 연령이 낮은 별도로.....

○지민 위원

오히려 유아나 별로도 작은 공간일거 같은데 비용이 더 많이 드네요?

○관광과장 오현철

공간들이 부모들과 같이 한꺼번에 같은 공간에 있어야해서 광범위합니다.

○지민 위원

그리고 373페이지 보시면 읍면별 해양치유 특화음식 경연대회를 장보고축제 때 했죠?

○관광과장 오현철

이 부분은 전복거리를 저희가 지원한 사업입니다.

○지민 위원

장보고축제 때도 음식경연대회를 했었어요. 이상입니다.

○조영식 위원

가을섬여행축제에 대해서 확인차원에서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아주 잘 들었습니다. 우리군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관광과장 오현철

2억 6,000만 원입니다.

○조영식 위원

2억 6,000만 원입니까? 관광과만 그러겠죠?

○관광과장 오현철

다른 어떤 공연이나 이런 부분들을 서포트해주는 그런 부서에서 그 기간에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은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영식 위원

저는 자꾸 3억 4,000만 원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기획예산실에서 오전에 가을섬 여행 축제 홍보비 해서 7,500만 원, 2,000만 원 증액된 7,500만 원을 했거든요? 기획 예산실에서 하는 겁니까? 아님 관광과에서 하는 겁니까?

○관광과장 오현철

이제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홍보는 일원

화시켜서 기획예산 홍보팀에서 축제와 관련해서.....

○조영식 위원

관광문제가지고 가을섬 여행 축제가 3년 내내 어느 의원님들에게도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7,500만 원이 관광홍보비로 적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획예산실은 관광홍보비해서 5,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증액된 7500만 원을 보고하고 아무말도 안했습니다. 관광과에서 당연히 나올거라고 생각을 안하나요? 2억 6,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올라오면 가을섬 여행 축제에 그냥 관광과에서는 2억 6,000만 원이라고 올라오고 기획예산실에서는 따로 7,500만 원이 잡혀있다는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의원님 제가 조금 부가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영식 위원

예.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당초에 저희들이 홍보예산이 부서에 편성을 해서 우리 최정욱 의원님이나 홍보의 효율성을 위해 전체적으로 홍보를 기획예산실에서 일원화 시켜라.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이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홍보예산에 2,000만 원을 증액을 시켰는데 표기를 가을섬 축제 광고 이렇게 다양하게 표기를 해야 하는데 가을섬여행 축제만을 위해서 7,500만 원이라고 저희들이 잘못표기가 됐습니다.

○조영식 위원

여러 가지로 표기 문제가 있는데 기획예산실장님께서 사죄를 하는데 이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안 나오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그런 부분은 죄송하게 됐습니다.

○조영식 위원

그래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박성규 위원

박병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우리 대나무체험 있지 않습니까? 올해 수산물축제를 대성공이라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과장 오현철

의원님들께서 힘을 실어주셔서 저도 따른 어떤 연도보다도 훨씬 더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박성규 위원

다른 해보다 군수님께서도 만족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대나무 체험하는데 수산경영인들이 했죠?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인원들이 참석을 해서 줄서있고 2시간씩 기다렸다가 체험을 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고기가 다 떨어지고 해서 부랴부랴 추가로 투입을 했죠? 그런데 행사가 끝나고는 해양정책과에서 책임을 안지고 관광과에서도 책임을 안지고 고기값 지급을 해야 하는데 전혀 지급을 안 한다고 서로 핑계를 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고깃값 줄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까?

○관광과장 오현철

예. 그렇습니다.

○박성규 위원

그러면 축제 끝난지가 언제인데 이제 예산을 세워서 언제 준다는 말입니까?

○관광과장 오현철

실행되면 저희가 바로 결제하겠습니다.

○박성규 위원

그래서 업자들한테 계속 시달린다는 겁니다. 군에서 축제한 비용을 그렇게 고기값을 못 주고하면 되겠습니까? 미리 예산을 세우든지 빨리 선지급을 했었어야지. 이제 와서 전복업자한테 시달리고 고기업자한테 시달리고 그렇거든요? 추경이 끝나면 바로 빠른 시일 내 지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욱

더 다른 분 계십니까? 관광과장님과 관계공무

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ㅇ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참조)
·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위원장 최정욱
문화예술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 위원
관심과 성원 부탁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387쪽 장보고 최경주배 골프대회 작년에도 예산이 5,000만 원 들었나요?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작년에는 군비로 지원을.....

○담당주무관 서명지
작년에는 장보고 최경주배 골프대회 보조사업으로 지원하지 않고 완도군에서 직접 행사운영비로 진행 했었습니다.

○조영식 위원
이게 지금 장보고 최경주배 최경주 초청해서 장보고 장한상수상자들과 같이 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올해는 장한상어워드 시상식이 제10회가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의미 있게 완도에서 개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골프대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영식 위원
예. 의미있게 하십시오. 385쪽 시설비 가리포진 자원화사업입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이게 토지매입비 1억 8,000만 원하면 이게 완전히 매입이 다 된겁니까?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지금 시설이 들어가는 토지는 매입이 다 됩니다. 그런데 아직 진입로 부분이 아직 공사가 남아있습니다.

○조영식 위원
이게 몇 년째 이러고 있죠? 토지 매입 때문에 말씀도 많고 사업도 진척이 안 되고.....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예. 맞습니다.

○조영식 위원
노력을 더하셔서 2~3년 걸려서 자꾸 토지매입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건물로 들어가는 토지가 매입되면 건물진입로 부분도 신경써서 사업이 빨리 진행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예. 노력하겠습니다.

○지민 위원
386페이지에 도담도담 작은도서관 옥상방수공사가 있거든요? 생활문화센터에 매년방수공사를 하는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예.

○지민 위원
여기는 도담도담도서관 쪽만 하신다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내부에 비가 흘러 내리는 흔적도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생활문화센터에서 저희가 국제슬로시티시장총회도 예정 되어있기 때문에 방수공사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지민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도담도담이 반대 왼쪽이잖아요? 오른쪽에 정면 들어가 입구 쪽에 보시면 바로 위에서 물이 한 방울씩 계속 떨어지는 곳이 있어요. 바닥에 물이 고여서 계속 있는데 한번 확인을 한번 해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생활문화센터가 오래되다보니까 사실은 전반

적으로 방수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예산이 다 반영이 안 되다보니까 1차 작은도서관.....

○지민 위원

이왕 하려면 한꺼번에 제대로 되게 해서 꼼꼼히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조금씩 하다 보니 빈공간이 생기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387페이지 보면 조계종 총무원장 초청행사비가 있거든요? 여기 강연비가 1,000만 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총무원장님을 저희가 완도에서 신흥사에 주지스님으로 계셨잖습니까? 그래서 모시고 완도군민들과 다른 불교계 인사들 모시고 강연을 한번 하려고 하는데 이 정도 드린다고하더라고요?

○지민 위원

그리고 아래쪽을 보면 초청 행사에 40명을 초대를 하는데 25만 원씩 들어요? 이건 어떤 분을 초대하시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예. 불교계 산하라든지 이분이 오시면 주변 조계종 관련 단체분들이 많이 오신다고하시거든요? 그래서 모시고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지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욱

문화예술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ㅇ 체육진흥과

○체육진흥과장 최광윤

(참조)

·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위원장 최정욱

체육진흥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체육진흥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5시 40분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27분 회의중지)

(15시 40분 회의계속)

○위원장 최정욱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ㅇ 해양정책과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참조)

·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위원장 최정욱

해양정책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455페이지 시설비 완도청산 야간운항 항로 어장측량에서 측량을 하고나면 다른 절차는 뭐가 필요한가요?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지금 측량을 하고나면 측량에 따라서 그 항로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나오거든요? 측량을 했을 때 어떤 어장이 걸치는지 다른 항로와는 겹치지 않는지가 나오니까 그랬을 때 대체적으로는 어장이 철거를 해야 한다거나 그런 것을 어업인들하고 협의를 해서 철거나 그런 부

분을 진행을 해야 합니다.

○박병수 위원

어장철거와 항로만 개발이 되면은 바로 야간 운행이 가능한가요?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예. 그렇습니다. 철거가 가능하고 어업인들과 협의가 다 끝나면 저희가 선사하고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한지 선사하고 협상이 필요한 부분이고 예산이 얼마드는지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하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박병수 위원

내년에도 가능하겠네요?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저희가 지금 생일도를 했는데 측량을 해놓고 보니까 생일도 야간운행을 해야하는데 6개 어장이 걸려요. 그런데 하나는 생일도고 나머지는 금일이 다보니까 대화접근이 쉽지 않아서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서서히 어업인들하고 절충을 해나가야 하는 상황이면서 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러면 용역을 하면 금년 하반기는 가능하겠네요?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일단 저희가 하반기 측량이 완료가 되면 곧바로 측량하면서 어업인들을 같이 대동시키거든요? 본인 어장이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확인을 같이 해야 하니까 측량할 때 일단 공간을 두고 측량을 할 때 꼭 이쪽으로 가야하느냐……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협의를 해서 최종으로 측량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어업인들과 협의를 진행해야 되고 다만 보니까 낮에 다닐 때 하고 밤에 다닐 때 하고 확보해야 하는 부분이 두 배 정도 크게 커브를 도는곳이 더 크게 필요로 해서 그런 부분은 협의가 잘 된다면 그런 것은 예산이 뒷받침이 되면 되니까.

○박병수 위원

예. 아무튼 잘해서 섬주민들이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규 위원

462페이지요. 완도해조류센터 리모델링 추진한다고 했는데요. 어디다 할 겁니까?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완도 해조류센터는 2층에 전시실이 있고, 10년 전에 3층 건물을 완공했을 때 사무실로 이용을 했었고 4층은 카페테리아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층은 전시실, 3층은 사무실, 4층은 카페테리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박람회를 하면서 이 용도로 썼거든요. 그 이후로 박람회를 안 하는 기간 동안에 다르게 쓰다가 지금 현재는 2층 전시실도 이제 계속해서 현재에 맞게 내년에 박람회를 대비해서 리모델링이 들어갈 거고요. 그것은 박람회 전시연출부분 예산에 포함시켜서 할 거니까 여기에 5천만 원은 3층과 4층이 거의 한번도 리모델링을 안했기 때문에 방치되어 있어서 3층 리모델링을 해서 체험실로 해조류 체험이라든지 어린이들이 오면 체험을 한다든지 체험실로 꾸미고 4층은 카페테리아로 해서 수출상담을 한다든지 외부접견인이 온다던지 하면 거기를 휴게공간이나 대화공간으로 쓸 수 있게 최소한의 경비로 리모델링을 할 생각입니다.

○박성규 위원

원래는 시설사업소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관리는 시설사업소에서 해야 하는 부분인데.

○박성규 위원

시설사업소에서 예산을 세워야하는 부분이 아닙니까?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사실은 그럴수도 있는데 저희가 내년에 써야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박성규 위원

해조류박람회 전시연출 12억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전시연출사업은 12억 원을 했는데 올해 전시연출 계약을 해야 시설 설계를 하고 설치를 하기 때문에 내년 박람회 계약예산입니다. 그 위에보면 대행사 용역 3억 원은 이것도 사실은 저희가 12억 원 정도가 필요한데 우선 차수계약을 하기로 하고 우선

반영했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박성규 위원

올해 계약을 해야하기 때문에 미리 추경을 세웠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넙도 배가 다니는 진행 사항을 우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넙도배는 지난 해강운수가 3회차 운영했던 구간인데 의원님들이 지원해주셔서 예비비로 투입해서 화물선을 넣었습니다. 화물선을 50일 동안 운영하는 과정 그 사이에 넙도 주민들하고 해수부하고 해수청하고 저희와 같이해서 그 이후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을 했어요. 일단은 대안이 나오기를 지금 섬사랑2호가 모도 다니는 배가 새 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섬사랑2호가 이번 주부터 운행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배로 일단은 10월까지는 그 배가 폐기하지 않고 우선은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사용기간이 그래서 해수청에서 그렇게 하기로했고 그 사이에 배를 횡간도로 바꾸냐는 이런 의견들이 노화도 농협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아떨어져서 결론은 일단은 모도 다녔던 섬사랑2호가 해수청에서 넙도군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그대로 하기로 하고 그 이후에 그러면 10월까지 그렇게 하는데 그 이후는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지 않습니까? 그 이후는 제가 연구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계속 번번히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공영제로 가야되지 않겠나..... 저희가 국가에 에 대한 공영제를 국비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거를 기다리고 있을 수 없으니까 군비로라도 공영제로 한번 해보자. 그 공영제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 배를 구입을 하던 임대를 하던 해가지고 적자가 나서 안 다니려고 하는 항로에 배를 넣어주고 운영사를 저희가 계약을 해서 저희가 대신 운영해주 게 하는 방식입니다. 준공영제 방식 도있는데 준공영제는 선사가 다니는데 적자가 나서 안 다닌다고 하면 그 적자를 우리가 보상을 해주는 방식으로 해서 다니게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개 항로가 있는데 완도군 전체의 항로에 대해서 진단을 해보고 운영을 해서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해 나갈지 계획을 할려고 이번 예산에 검토를 한 상태입니다. 해수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례적으로 공영제를 같이 해보자고 해서 해수부에서도 다음 단계에 우리군만 예산이 확보가 돼서 진행을 한다고 하면 10월까지 끝난 다음에 50% 부담을 하고 우리군 50%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확정은 아닙니다마는 실무자들끼리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박성규 위원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요 섬사랑호를 받지 않는다고 했었죠?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처음엔 작아서 그랬습니다.

○박성규 위원

작아서 섬사랑호를 2번해야 증액해도 넙도 주민들께서는 “받지 않을란다. 그냥 없는대로 다닐란다.” 그렇게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그 문제에 대해서 어제까지 노화주민들께서 노화 농협하고 같이 계속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노화농협의 조건을 다 맞춰 준다고 하더라도 노화농협에서 안된다는 이유가

지금 배가 총 3대가 있는데 한 대가 정기점검을 차례차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3호, 5호가 땅끝하고 넙도를 다니고 있는 배가 한 대가 수리가 들어갔거든요. 수리 들어간 배를 대신해서 노화 카훼리7호가 띄어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넙도주민들이 원하는 조건을 우리군에서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노화농협자체에서 수용을 운행이 어렵다고해서 이제 넙도이장님이랑 이사님이랑 본인들도 '아 이거는 노화농협에서 안 된다.' 는걸 인지를 한 상태여서 그러면 본인들이 주민들한테 설명하고 일단은 "섬사랑호라도 다니게 하는게 좋겠다." 고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박성규 위원

그럼 합의를 봤습니까?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예.

○박성규 위원

그럼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욱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해양정책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경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ㅇ 수산경영과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참조)

·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위원장 최정욱

수산경영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 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여쭤볼게요. 저희가 469페이지를 하단에 보면 구명조끼금액을 삭감을 했어요.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2,860만 원...

○박재선 위원

올 10월부터 해양경찰서에서 어민들 전체 단속을 하는거 아시죠?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알고있습니다.

○박재선 위원

"구명조끼 안입으면 누구든지 다 잡겠다."고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큰 구명조끼를 입고 있으면 그거입고 사실은 일을 못하는거 아시죠? 요즘에는 간단하게 구명조끼를 입어야하는데 가격이 비싸더라고요? 인원수마다 의무적으로 입어야 한답니다. 10월부터.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박재선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삭감을 해버리면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저희들이 삭감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요. 원래는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예산을 세워놨었는데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도서사고예방시스템안에 구명조끼 사업비가 들어 있었거든요. 이것 때문에 따로 빼서.....

○박재선 위원

가격이 비싸서 어민들이 배마다 전체 의무적으로 입어야한데요. 작업하는 사람마다 다 입어야하고 그 조끼를 입지않으면 딱지를 끊는다고 해요. 10월부터 정해졌다고 해요. 이 보급사업은 어민들에 가격이 비싸다보니까 어느 정도 해줘야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좀 더 수요라든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 사업을 한지는 오래됐거든요. 지금 한 10년정도 됐거든요. 구명조끼라든가 레이다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는 사업인데

한번 더 수요파악을 해보고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박재선 위원

제가 어민들한테 들어보면 실제적으로 GPS, 그런 부분은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명조끼는 실제적으로 배 선주들이 전부 구입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배 검사 맡을 때 의무적으로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하는거지 제가 알기로는 군에서 그렇게 보조해서 하는거는 제가 못 봤거든요? 일부는 있었겠죠? 그런 부분인데 10월에는 전체적으로 다 바꾼다고 하니 걱정돼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구명조끼 부분은 조사를 해보고 수요가 있다고하면 좀 더 예산을 더 해달라고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규 위원

과장님 작년에 본예산에 가두리감축사업 편성됐죠? 진행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지금 가두리 방수사업 예산신청을 마무리했고요. 대상자도 확정을 했습니다. 지금 철거하고 해체하는 그거 관련해서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성규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4억이 감축이 되어있어요. 480페이지 가두리감축사업 세부사업계획에 4억 300만 원 감액되어있는 부분은 어떤 건가요? 제일 하단에.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이거는 목변경을 해서 기타 보상금으로 변경을 하고 1억 2,000만 원정도 증액해서.....

○박성규 위원

사업을 시행할 겁니까?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그렇습니다.

○박성규 위원

그러면 지금 가두리 폐업지원금도 5억 2,700만 원, 철거비 해체비 1억 2,000만 원? 그리고 폐기물 처리비 8,500만 원?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지금 8억 5,000만 원 도비 지원사업인데요. 도에서는 보상금 명목으로 지침사항으로 폐업지원금으로 하기는 어렵다고 해서 폐기물 처리비하고 해체비로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박성규 위원

8억 5,000만 원은 도비 입니까?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3대 7로 됩니다. 지금 군비7, 도비3 으로.

○박성규 위원

하여튼 빨리해서 벌써 6월 달입니다. 조속히 감축을 할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알겠습니다.

○박성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재선 위원

과장님 방금 박성규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전에 해수구 과장님들 오셨을 때.....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박재선 위원

아시죠? 과장님도 아시죠?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박재선 위원

그 폐기물 처리하는 비용은 해수부에서 좀 한다. 우리군에서는 저희들이 자발적으로 감축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할 테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알겠습니다.

○조영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80페이지 물김

채취망 규격화 지원사업 전액삭감 됐죠?
이유가 뭡니까?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이게 지금 도비가 확보가 안되서 전라남도에서도 이 사업자체를 저희들이 작년도 예산에 맞춰서 해놨었는데 확정된 부분이 전라남도에서 예산자체가 안 돼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감했습니다. 이게 매칭사업이라서.
○조영식 위원
매칭사업이라서 도비가 확보가 안되서 군비까지 전액 삭감했다는……자율적으로 이거 군에서는 추진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물김 양이 나오면 구격화가 되어야지 그냥.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아니. 그건 아니고요. 이게 물김이 지금 현재 120키로 마대로 입항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김 채취망 규격화는 1톤정도 들어가는 마대를 전체적으로 쓰자고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공공장과 협의가 원만히 잘 안된 걸로 알고있습니다.
○조영식 위원
기존에 쓰고 있는 거는 문제가 없죠?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조영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욱
473페이지에 수산물TV홈쇼핑 방송수수료지원은 삭감이 되어있는데. 전복홍보 아닌가요?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전복이요?
○위원장 최정욱
TV홈쇼핑 수수료지원이……맞죠?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정욱
지금 아주 중요한 시기에 전복판매 홍수출하된 시기인데 오히려 더 늘려야할 때 삭감돼면 어떻게 해요?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이게 지금 일몰제가 되어서 삭감 한 건데요. 이것하고……
○위원장 최정욱
담당 팀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경영팀장 김정삼
이 부분은 전년도에 비해서 군에서 항상 본예산을 편성한단 말입니다. 도에서 이 부분은 확정이 돼서 일몰사업으로 진행을 안하기 때문에 저희도 삭감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정욱
도에서 안와서 삭감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수산경영팀장 김정삼
예.
○위원장 최정욱
이거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수산경영팀장 김정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정욱
그럼 우리 군에서도 계획을 세워야죠.
○수산경영팀장 김정삼
예. 다른 부분에서 이 부분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정욱
따로 잡고 있다고요?
○수산경영팀장 김정삼
예.
○위원장 최정욱
또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지민 위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480페이지 하단을 보면 전복 폐사방지를 위한 AI산소발생 장치 유효성검증사업이라고 어거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이거는 지금 전라남도 과학원에다가 전복가두리 하단에 산소발생기를 설치를 해서 파이프

라인으로 산소공급을 생성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금일도와 보길도와 2개소에 시험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과학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민 위원

481페이지 전복 조형물 이전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걸 어디에 있는걸 옮기신다는 건가요?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항만 터미널에 있는것을 완토리니 쪽으로 옮기려고 계획합니다.

○지민 위원

완토리니? 그러면 그 아래쪽에 참담치섭종자 보급사업에 50%, 4,000만 원이 있거든요? 이걸 기존에 했던 사업인가요?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아닙니다. 신규로 금일쪽에 참담치를 종자사업을 할 수 있는곳이 있거든요? 전복같은 경우가 어려움이 있다보니까 다양화를 위해서 접목해보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민 위원

전복 양식이 많고 어려움이 많아서 새로운 사업을 해서 해보고자 하는거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욱

수산경영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휴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ㅇ 산림휴양과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참조)

·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위원장 최정욱

산림휴양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휴양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ㅇ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장 이홍용

(참조)

·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위원장 최정욱

안전총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 위원

과장님 한가지 묻겠습니다. 571쪽 민방위복 구입비가 있는데요. 초록색입니까? 아니면 노란색입니까? 정부가 바뀌어서 이거 1,320벌이라고 되어있어서.

○안전총괄과장 이홍용

지금 이게 기존에 있는 노란복도 사용 가능하고요. 지난 윤석열정부에서 사용한 초록색으로 변경된 민방위복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있는 것은 노후화되어 있고 동복, 하복, 춘추복, 세가지 유형으로 구입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규자라든지 복직자, 전입자 등이 사용할 추가비용으로 해서 1,000만 원을 예산했습니다.

○지민 위원

어떤 걸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홍용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초록색으로 구입을 했었기 때문에 초록색으로 할 것 같습니다.

○지민 위원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욱

또 다른 분 계십니까? 안전총괄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ㅇ 시설관리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수호

(참조)

·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위원장 최정욱

시설관리사업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0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6월 11일 수요일 오후 1시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산회)

○출석위원(8인)

최정욱 박재선 박성규
지 민 박병수 조인호
허궁희 조영식

○출석공무원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세무회계과장	김희수
경제교통과장	이정국
관광과장	오현철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건설과장	김진원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체육진흥과장	최광윤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안전총괄과장	이홍용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안전총괄과장	이홍용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수호

○ **전문위원** : 박영민

○ **전문위원** : 최영미

○ **속 기 사** : 정현중

○ **속 기 사** : 임은주

제330회 완도군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6월 11일(수)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부의된 안건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완도군수 제출)

- **환경수질관리과**
- **지역개발과**
- **건설과**
- **농업기술센터**
- **보건행정과**
- **건강증진과**
- **의회사무과**

(13시 30분 개의)

○위원장 최정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러면「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부서별 제안설명을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질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수질관리과**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참조)

·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위원장 최정욱

환경수질관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질문할게요. 525 페이지 시설비 군외당인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서 4억 5,6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감액이 된 이유가 뭔가요?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시설비를 조기에 집행을 해야하는데 아직도 설계가 늦게 들어와서 일단 감액시키고 내년도에 다시 세울 것으로 협의가 끝났습니다.
○박병수 위원
예산이 아주 감액된 것이 아니고.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그렇습니다. 일단은 추진이 미뤄진데는 감액을 먼저 했다가 다시 내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영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였습니다. 514쪽 전기자동차 급속 충전기 보급사업에서 전기차 배터리 화재전용 소화기 구입비가 2,5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말 그대로 전기차에 대한 화재가 발생시...
○조영식 위원
배치하는 건가요?
○환경수질과장 위남환
그렇습니다. 전기차 구입할때 소화기를 배치합니다.
○조영식 위원
일괄로 알고 있는 소화기로 배치용...
○환경수질과장 위남환
그렇습니다.
○조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민 위원
과장님 520페이지에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이동식CCTV 설치사업으로 2,000만 원 있거든요? 기존에 완도읍에 CCTV가 몇 개 있습니까?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지금 무단 쓰레기 단속 CCTV는 별도로 없고 저희들이
○지민 위원
조그마한 것 있고...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그렇습니다. 통합으로 하고 있는데..
○지민 위원
그거하고 다른거에요?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저희들이 무단으로 버리는데가 너무 많다보니까 저희들이 집중으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지민 위원
제가 봤던게 무단쓰레기 단속 CCTV라고 봤었거든요. 그런거 비슷한거 아닌가요?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예. 맞습니다.
○지민 위원
그런거 맞죠? 그러면 지금까지는 하나도 없었고 처음으로 심한곳에 설치하시는 거에요?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정확한 개수는 모르겠는데 설치하기는 했었습니다.
○지민 위원
몇 개 있죠?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예. 그렇습니다.
○지민 위원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건 그게 좀 작으니까 길가에 있더라고요? 카메라 방향이 어떻게 어떻게 비춰지는지 확인을 안해서 모르겠지만, 바로 앞에다가 주차를 해놓고, 거기에 무단쓰레기 단속 CCTV인데 이게 제대로 분리가 안되는 쓰레기를 파란봉지에다 버려놓고, 제가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었을거에요. 그런데 단속하는 CCTV 앞에 다가 버리는 것은 진짜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이런거 설치를 할 때 좀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할 수 있

게끔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예. 알겠습니다.

환경수질관리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ㅇ 지역개발과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참조)

·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위원장 최정욱

지역개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지역개발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제안설명을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ㅇ 건설과

○건설과장 김진원

(참조)

·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위원장 최정욱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기술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ㅇ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담당관 고영권

(참조)

·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위원장 최정욱

농업기술센터기술담당관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589쪽 국화전시회장 조형물 제작 있죠? 5,000만 원?

○농업기술담당관 고영권

예.

○조영식 위원

5,000만 원 설명도 안하고 증액됐다고 해서 그냥 지나가는건가 싶어서 여쭙겠습니다. 이게 2024년도에 그때 25년도 국화축제를 예상해서 1억 원을 해줬거든요? 그때 그걸로 끝나는줄 알았어요. 답도 그렇게 했고 "더이상 조형물 제작이 없냐"고 물었을 때 전 소장님께서 "이걸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추경에 5,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농업기술담당관 고영권

저희들이 작년에는 주 전시장을 한 곳으로 선정해서 운영했는데 올해는 세 군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해양치유센터하고 해변공원, 완도타워까지 해서 세 군데를 운영하다보니까 조형물 예산은 다시 또 부족한 편입니다.

○조영식 위원

기존 것은 사용하면 안됩니까? 계속 사용하는 거죠? 그때 답이 어떻게 나왔냐면 "해조류박람회하고 완도타워하고 두 군데 해야하니까 1억이 필요합니다."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설명도 안하고 5,0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자꾸 해마다 해야 되는건가요? 조형물 제

작을?

○농업기술담당관 고영권

조형물 제작은 저희들이 원하는 수요에 비하면 지금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영식 위원

그런데 왜 그때는 답을 그렇게 했을까요? 회의록이나 녹취록을 찾아봐야할까요?

○농업기술담당관 고영권

그때 당시로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주 메인장소로 있을 경우에는...

○조영식 위원

그때 답이 2025년도에 쓴다고 2024년도에 그 답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추경이 또 올라와서 제가 그때 질문이 부실했던가 그날 답을 정확히 하면서 답이 부실했던가 둘 중에 하나이지 않겠습니까?

○농업기술담당관 고영권

그건 아니고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올해 세 군데를 하다보니까 한 개분 이 더 늘어난 거라고...

○조영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설명을 했으면 이런 질문을 안 할거 아닙니까? 안하고 지나가는거에요. 돈이 5,000만 원인데...

○농업기술담당관 고영권

다음부터는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영식 위원

적은 액수도 아니고 5,000만 원에 대해서 필요하다고하니까..... 이해는 가는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담당관 고영권

예. 알겠습니다.

○조영식 위원

대답할때는 신중하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지민 위원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582페이지에 국제농업박람회 남도정원 홍보포토존 설치 이거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농업기술담당관 고영권

이거는 각 시군에서 전시하는.

○지민 위원

시군별로 정원 만드는거를 말하는 건가요?

○농업기술담당관 고영권

예. 각 시군별 로 쭉 전시하게 되어있습니다.

○지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물어보고 싶은거는 590페이지 치유상품디저트 브랜드 상품화사업 이거 본예산일 때 세 곳이었잖아요. 두 군데는 감액이 됐는데 그때 본예산보면서 이사업에 관련해서 사업설명안내서를 갖다주라고 했거든요? 그거 관련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담당관 고영권

예. 알겠습니다.

○지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욱

농업기술센터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ㅇ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과장 정계창

(참조)

·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위원장 최정욱

보건행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ㅇ 건강증진과

○건강증진과장 김현주

(참조)
·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위원장 최정욱
건강증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정욱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611페이지에 완도섬미술관 조성사업이 뭐에요?

○건강증진과장 김현주
이번에 공모사업에 선정된 완도치유예술섬 조성사업입니다.

○위원장 최정욱
예술섬이란 어디를 말하는 거에요?

○건강증진과장 김현주
노화권역입니다. 기본하고 공모설계 할 예산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의원 안계십니다.
건강증진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ㅇ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최정환

(참조)
·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위원장 최정욱
의회사무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우리 예산심의할 때 경제교통과 333페이지에 2025년을 2024년으로 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노란우산 가입장려금 지원 말씀하신가요?

○위원장 최정욱
노란우산..... 우리 의원님들 알고 계세요. 2025년인데 2024년으로 잘못된거니까요.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정욱
지금까지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세목별, 부기별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축조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위원님별로 각각 개별 축조심사를 실시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 위원님들께서는 삭감대상 조서를 작성하여 15시 00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별 개별 축조심사와 삭감대상 조서 목록 작성을 위해 15시 0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회의중지)
(15시 05분 회의계속)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13시 06분 기록중지)
(13시 07분 기록재개)

위원 여러분께서는 전문위원이 정리한 1차 축조심사 결과를 보시고 재검토가 필요하거나 삭감해야 할 예산이 더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1차

삭감대상 사업에 대하여 부서별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오현철

저희가 개최한 치맥 페스티벌은 저희가 공간적인 부분, 장소성 그 다음에 시기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한꺼번에 연합할 수 있는 부분으로 찾아서 많이 고민을 해서 체육진흥과에서 행사라든가 협의해서 알차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이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민 위원

과장님 다름아니고 '이런 페스티벌은 많이 있을수록 좋다.' 라고 생각하는데 작년에 행사 처음 진행하면서 타지역의 치맥페스티벌을 많이 봤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이용권을 맥주 마시는 이용권을 잔 당 얼마에 하는게 아니라 1인당 얼마 기본 만 원에 해서 무제한으로 먹을수 있도록 했는데 작년에 우리했을 때 얼마였죠? 5,000원이었나요?

○관광과장 오현철

저희는 일정금액을 정해서 무제한으로 할 수 있는 공간적인 부분이 안되서 개별적으로 건건이 금액을 하는 걸로..

○지민 위원

작년에 작은 잔에 금액이 좀 있어서 몇 모금 하면 없어지는데 비용이 너무 비쌌다. 타지역에는 이용권을 해서 손목에 띠를 줘서 만 원씩 지불해서 맥주를 먹고 안주값만 지불하면 됐었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올해는 어떻게 행사를 진행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관광과장 오현철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년 경우에는 단체 같은곳에서 운영 부분을 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직접 제조하고 있는 연결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또 활동하고 있는 어떤 단체라는가 역할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위축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콜라보 할수있는 부분을 많이 고민해서 말씀 주신것처럼 고민을 하겠습니다.

○지민 위원

타 지역에서 페스티벌을 열었던 곳에 자문을 구해보시고 좋은 행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허궁희 위원

저는 작년에 우리가 경험을 했을때 행사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질타를 당했다는 것이 한가지가 있죠? 왜 전복을 빼고했나? 이 명칭을 바꾸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지역이 전복이 너무 소비가 안되서 어려움을 겪고있으니 조건을 거세요. 입점하는 곳에 전복과 닭을 같이 튀기든지 조건을 걸어서 우리 어민들이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치맥파티가 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욱

과장님 거기에 전복치맥이라고 전복 글자를 넣으면 안되요? 전복치맥 페스티벌이라고해서? 그 이야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관광과장 오현철

지금 청산도에서 복닭복닭을 하고있거든요. 시설 규모가 확보되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정욱

그건 잘 생각해서 주민들도 다 말을 하니까... 관광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치유담당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입니다. 먼저 자료를 배부를 해드리고 자료를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발걷기축제개최 계획입니다. 행사는 7월12

일 오후 5시부터 저녁 8시 30분까지 계획을 잡았습니다. 참석인원은 군민과 관광객 관련 동호인들 예상 1천여 명이고 사업비는 7천만 원입니다. 행사내용은 보시면 맨발걷기 축제와 치유체험 등을 운영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부 행사내용은 시간계획을 보시면 치유체험존은 오전 10시 부터 오후 6시까지 해변 필라테스나 머드팩 체험, 모래찜질, 꽃차시음 등이 있고 식전공연으로 힐링 음악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공식행사에서는 해양치유날 지정선포식하고 2부 행사로 완도 맨발걷기대회를 하게 됩니다. 중간에 일반 강연도 포함되어 있고 걷기가 끝난 이후에는 경품 추천으로해서 행사를 마무리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축제 경기에 7,000만 원에 대해서는 축제 용역비가 한 5,000만 원정도 되고 해양치유 체험존 및 행정부스운영이 1,500백만 원정도 됩니다. 7,000만 원 가지고 본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욱

해양치유담당관의 보충설명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 위원

지금 우리 해양치유맨발걷기사업이 건강증진과에서 하고 있어요.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예. 그렇습니다.

○지민 위원

이걸 또 해양치유담당관에서 하시더라고요?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건강증진과에서는 군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증진과의 업을 수호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서 군민제외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것은 저희 해양치유담당관에서 그렇게 한계를 지었습니다.

○지민 위원

이게 전국 행사이기도하고 우리 다른 전국행사 체육행사라든지하면 기본 마라톤대회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마라톤대회같은 경우에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완주를 하면 기록증 어떤 상패같은거도 주기도 하는데 우리 맨발걷기는 참가증이라든지 상패라든지 이 런걸 만드는 거는 없나요?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인증서를 증정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민 위원

시기는 언제쯤 되나싶어서 물어보려고했더니 7월 달 한참 더울때라서 관광객들도 많이 참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신지명사십리 개정일과 맞춰서 진행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민 위원

예. 그러신것같아요.그래서 저는 7,000만 원 가지고 전국행사를 할 수 있을까? 이것도 홍보를 어떻게 해야 전국에서 많은 인원들이 오게할 수 있을까? 그런 거에 걱정이 됐는데 7,000만 원으로 할 수 있다니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선포식 안했나요?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치유의 길 선포식을 했을 겁니다. 치유의 날은 지정은 7월 6일로 치유날을 지정했는데 걷기대회를 할 때 선포식을 할 계획입니다.

○지민 위원

걷기축제가 필요하죠?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필요합니다.

○지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정욱

해양치유담당관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548페이지 약산면 100세 하우스 주변정비공사입니다. 이 부분은 면단위하고 체육관 주변 전부 다 포함이 됐습니다. (청취불능) 거기에 도로상황이 안 좋겠습니다. 복구철거 등 포함해서 3억이 들었고요. 지금 100세 하우스 주변정비공사로 정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욱

지역개발과장의 보충설명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해조류박람회 대행사 용역비 관련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크게 전시연출 분야는 12억 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시설 조성, 무대제작, 화장실 등 3억 6,100만 원 정도 전시연출에서 해조류센터 리모델링 주제관 콘텐츠 제작이 6억 5,000만 원, 이렇게 해서 11억 원 정도해서 하고 예비비를 군에서 12억 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운영비에 대해서도 총 12억 원을 생각하고 있는데 공식 행사 부분에 6,700만 원 각종 이벤트 행사를 말하는데 그건 한 4억 1,000만 원정도 그리고 행사 운영안내나 안전 여러 가지 인력이 집중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2억 2,000만 원 정도 행사 위치나 홍보등 예를 들어 국제기구나 산업국제단체 방문를 홍보에 3억 3,000만 원정도 해서 총 예비비 포함해서 12억 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욱

해양정책과장의 보충설명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용역비가 3억 원이고 전시연출비가 12억 원이죠? 여기에 따른 견적이라든가 사업계획이라든가 계획서에 나와있나요?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예. 저희가 26Pre국제해조류박람회 기본계획에 수립용역을 했습니다. 용역결과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예산을 견적을 받아온 겁니다.

○박병수 위원

견적을 받아서 이렇게 나온 거란 거죠?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예. 다만 실제로 실행 용역은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다소 변경될 수 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병수 위원

더 줄어들 수 있나요?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물론 현지상황을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제안받아서 계획을 세웠지만 저의 경험상 실제로 막상하려고 보면 추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병수 위원

기획서 저한테 한 부 보내주세요.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예. 알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리고 제가 이것과 연관은 없습니다마는 도서지역에 지금 여객선이 다니고 있죠? 고마도, 사후도에 제가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여름에 에어컨이 없고 화장실이 없어서 오줌 눌 곳이 없다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예산이 빠졌더라고요?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그 예산을 제가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했는데 충분하게 확보를 못 했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러니까 그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는데요? 화장실 조그마한 배 뒤쪽에 칸 만들면 될 것이고 에어컨이 얼마인가요? 돈 백만 원이면 못 한가요? 1, 200만 원?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1,600만 원을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이걸로는 화장실까지는 올해 두 개의 배에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일단 에어컨이나 기본적인 것은 하고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다음 예산 편성을 할 때 화장실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제가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재정 형편상 일부만 반영을 했고...

○박병수 위원

군 재정이 소규모 조그만 것 가지고 주민들이 그렇게 불편을 해소를 다 못하고 이런 큰 사업은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 부분은 1,600만 원 예산이 세웠다고 하면 지금 우선 급한 데가 고마도가 주민들이 거리가 있고 나이가 드신 노인들이 이동을 해요 오줌을 눌 곳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예. 알겠습니다.

○조영식 위원

과장님 방금 다음 15억 가지고 부족하니 증액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죠?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이미 행사...

○조영식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방금 보고한 자료라도 보내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저에게도 기획서를 주시면 나중에 증액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걸 보고 나서 판단을 하게끔 해야 감액을 시킬지 큰 액수 12억, 15억 하면 감액 확률이 더 많지 않을까요?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제가 용역 최종보고서를 보내드리고 최종보고서 안에 예산기획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표시해서 드리겠습니다.

○조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저는.

○위원장 최정욱

해양정책과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경영과장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경영팀장 김정삼

안녕하십니까? 수산경영팀장 김정삼입니다. 저희 과장님 공식행사 참석하셔서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올려드렸던 전복 모형조형물 이전에 대해서 2017년에 항만 터미널에 설치한 조형물입니다. 이번에 완토리니 공원으로 이전하여 복을 기원하는 장소로 꾸미기를 위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최정욱

수산과장님 보충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민 위원

신지면 완토리니로 이전을 한다고 들었어요. 완토리니 공간 자체가 조금 예쁘잖아요.유럽풍 분위기로 예쁜데, 전복조형물을 항만 터미널에 설치하고 민원이 좀 들어왔죠? 모양 자체를 가지고? 그 전복조형물로 딱히 예쁜 것 같지 않은데 그 이쁜 완토리니에 갖다 놓게 된다면 '거기 분위기와 맞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수산경영팀장 김정삼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일부 민원이 있어서 21년도 4월에 조형물을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형물 밑에 받침대가 파란색으로 되어있어서 완토리니 파란색과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민 위원

그렇게 파랗지 않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봤는데 '그렇게 파랗거나 거기와 별로 어울리지 않는다.' 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장소를 생각을 해보고 전복이라는 게 우리가 전복하면 노화하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노화나 보길도 그쪽이 전복이 유명하니까 그쪽 어디 쪽으로도 생각을 해보고 어울리는 장소가 어디 있을까요? 복주머니를 형상해서 복

을 기원하는 것을 해서 한다고 하니까 여러 군데를 장소를 생각해서 거기다 이미지로 넣어서 어울리는지도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고 한 번씩 옮기려면 비용이 얼마 안 된 돈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한번 옮길 때 제대로 어울리는 공간으로 옮겼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리거든요?

○수산경영팀장 김정삼

노화전복체험마을에 이미 다른 전복조형물 크게 있거든요?

○지민 위원

거기도 그렇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노화도 배에서 딱 내리면 청별항이 있잖아요. 청변에서 내리면 반대쪽 팔각정 있는 곳이라든가 그쪽에 땅들이 굉장히 넓어요. 그곳에 어울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고 다른 곳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조형물이 들어가고 만들고자 하는 곳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꼼꼼하게 더 생각을 해보고 이미지도 만들어보고 했으면 좋겠기에 그렇게 하려면 올해 안에는 안 되겠죠?

○수산경영팀장 김정삼

당초 계획은 완토리니로 옮겨서 연초에 해맞이 행사 때 복을 기원하는 완도로...

○지민 위원

그것을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봐야 할 것 같아요. 완토리니로 옮긴다고하는 것은 그 분위기와 전복하고 분위기는 너무 안 맞는거 같거든요? 복을 기원하는 뜻은 좋으나 분위기 자체나 그 모양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서 한번 곰곰이 다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안 되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선 위원

방금 지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어제 설명을 듣고 얘기를 들었는데 노화 동천항에 내리면 실질적으로 볼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북호리 마을은 마을 안에 들어간 입구에 있고 그렇게 있는데 여러 얘기하면서 이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장소가 "완도 안토리니는 어울리지 않다."는 얘기가 의원들끼리 나왔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한 거고 "노화 동천항에 있으면 아무래도 더 전복의 고장이니 더 낫지 않을까?" 그 얘기가 나오는 거니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욱

우리가 저기하고 안 맞아서 옮기려고 한 거죠? 그 지역 어디에다 조형물을 하느냐에 따라 그것도 어울리고 안 어울리고 한 건데 지금 우리 지민 의원님과 박재선 의원님 말씀과 같이 전복은 고향이 노화예요. 노화도에 딱 내렸을 때 상징적으로 비췄을 때 거기와 맞는 것이니까 오늘 의견이 전부 "옮기면 그쪽으로 옮겨라."하는 의견이고 집합적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과장님과 논의하십시오.

○수산경영팀장 김정삼

예. 알겠습니다.

수산경영과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축조심사 결과에 대하여 부서별 보충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삭감대상 조서를 보시면서 2차 축조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축조심사 한 결과에 대하여 관련내용을 전문위원이 정리할 때까지 잠시 휴식을 위하여 15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45분 회의계속)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최종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삭감액 조서를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논의해야 할 삭감 대상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대로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삭감액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삭감액은 세입예산은 집행부 원안대로 하고
세출예산은 2건에 6,000만 원을 삭감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추경예산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덕분에 원만하게 본 위원회가 운영된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0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산회)

○출석위원(8인)

최정욱　박재선　박성규
지　민　박병수　조인호
허궁희　조영식

○출석공무원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관광과장	오현철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건설과장	김진원
농업기술담당관	고영권
보건행정과장	정계창
건강증진과장	김현주
수산경영팀장	김정삼
의회사무과장	최정환

○ **전문위원** : 박영민
○ **전문위원** : 최영미
○ **속 기 사** : 임은주

제330회 완도군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6월 9일(월)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완도군의회 지방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완도군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 조례안
3. 완도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완도군의회 지방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궁희 의원 외 8명 발의)
2. 완도군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 조례안(허궁희 의원 외 8명 발의)
3. 완도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김양훈 의원 발의)

(13시58분 개의)

○위원장 지민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완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

1. 완도군의회 지방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궁희 의원 외 8명 발의)
2. 완도군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 조례안(허궁희 의원 외 8명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도군의회 지방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완도군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허웅희 위원님 나오셔서 1건씩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궁희 위원

허궁희 위원입니다. 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관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가정 친화적인 공직 문화를 조성하고 공직자 사기 진작 및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6조의 3항에는 자녀 돌봄, 육아 등 특별휴가 지원대상 및 범위를 5세 이하에서 8세 이하 또는 2학년 이하로 자녀 1인당 24개월에서 36개월로 개정하였고, 안 제16조제8항에는 육아시간 사용 시 시간 외 근무 사용은 가능하나 모성 보호 시간 사용 시에는 시간의 근무 사용이 불가한 것으로 개정하였으며, 별표4 경조사별 휴가 일수표에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한 번에,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는 25일로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민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민

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허궁희 위원님의 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궁희 위원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궁희 위원

완도군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청렴도 향상과 부패 방지를 위해 완도군의회 소속 공직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 의무를 규정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6조에는 청렴도 향상과 부패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는 청년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반부패 청렴 활동 연구 및 조사 사업 등 추진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청렴도의 진단과 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민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민

완도군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렴도 향상과 부패 방지를 위해 완도군의회 소속 공직자의 직무 수행 의무와 의정활동 등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허궁희 위원님의 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축조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도군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완도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김양훈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도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 실시한 완도군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결과를 완도군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조례 제12조 제1항에 따라 의결 절차 없이 보고하는 안건으로 서면 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출장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산회)

○출석위원(8인)

지민　　박재선　　박성규
박병수　　조인호　　최정욱
허궁희　　조영식

○ 전문위원 : 박영민

○ 속 기 사 : 정현중

제330회 완도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6월 9일(월)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완도군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완도군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완도군 해양바이오 공동협력연구소 민간 위탁 운영 동의안
4. 완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완도군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5년 완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7. 금당 행복의 집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운영 위탁 동의안

부의된 안건

1. 완도군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박성규 의원 발의)
2. 완도군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정욱 의원 발의)
3. 완도군 해양바이오 공동협력연구소 민간 위탁 운영 동의안(완도군수 제출)
4. 완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5. 완도군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6. 2025년 완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완도군수 제출)
7. 금당 행복의 집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운영 위탁 동의안(완도군수 제출)

(14시05분 개의)

○위원장 박재선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은 완도군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7건이 되겠습니다.

1. 완도군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박성규 의원 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완도군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박성규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규 위원

박성규 위원입니다. 완도군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일상생활에 대한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기여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안 제6조에서는 지원대상 가구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 안 제8조에서는 업무의 위탁 및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선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민

완도군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읍·면별로 복지 기동대를 편성하여 주거 환경 개선, 소규모 수리 등 촘촘한 생활복지 안전망을 구축해 우리 지역 내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보호하고 이를 통해 함께 사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박성규 위원님의 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선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의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도군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완도군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정욱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도군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최정욱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욱 위원

최정욱 의원입니다. 완도군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바람직한 인성을 갖춘 국민을 육성하고 인성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그 지

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적용 대상 및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와 7조에는 인성교육 실시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제9조에서는 전문인력의 양성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선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민

완도군 인성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인성 교육의 체계적인 실시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더불어 살아가는데 있어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제고하고 건강하고 밝은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최정욱 의원님의 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선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의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완도군 인성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의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완도군 해양바이오 공동협력연구소 민간 위탁 운영 동의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도군 해양바이오 공동협력연구소 민간 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결정 제3항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해양치유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안녕하십니까?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입니다. 해양치유담당관 소관 의안번호 3423호 완도군 해양바이오 공동협력연구소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민간위탁 운영 중인 해양바이오 공동협력연구소의 계약 만료일이 도래됨에 따라 연구소의 안정적인 운영과 입주 기업 유치에 노력을 기울이는 점을 고려하여 완도군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와 완도군 해양바이오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에 따라 2년 연장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완도군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지난 5월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지난 2년간의 운영 실적과 앞으로 추진 계획에 대해 평가하여 재계약 적격 및 심의 의결을 가결한 바 있습니다.

민간위탁 연장 기간은 25년 7월 1일부터 27년 6월 30일까지며, 위·수탁 계약이 체결되면 하반기 운영비 1억 원을 교부할 계획입

니다.

연구소 주요 사업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양바이오 공동협력연구소 민간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선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치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치유담당관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의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완도군 해양바이오 공동협력연구소 민간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완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5. 완도군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완도군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 제4항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행정지원과장 천종실입니다. 의안번호 제3421호 완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신규 행정수요 대응을 위한 조직 개편 및 조직 활성화를 위한 직제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관광과를 관광실로 변경하고, 2026년 Pre해조류박람회 및 2028년 국제해조류박람회 준비 부서인 해조류박람회추진단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부칙으로 개편에 따른 다른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완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재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민

완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신규 행정 수요에 대처하고, 조직의 효율성과 기능 강화를 위해 일부 부서 직제를 신설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천종실 행정지원과장의 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선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Pre국제해조류박람회 준비 사업 기간이 6일간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예.

○박병수 위원

예산은 6억, 아니..... 24억 원이고.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예.

○박병수 위원

지금 그러면 장보고축제, 장보고수산물축제 예산은 얼마나 된가요?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글쎄요. 그 예산은 제가.....

○박병수 위원

금년에 한 12억 정도 내가 들어간 걸로 알았는데 그리고 기간도 거의 한 4일 했죠?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예.

○박병수 위원

그러면 별 차이가 없는데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과 단위를 둔다 이것이 제 생각은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기본계획 수립도 준비가 돼 있고,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도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가 돼 있다고 지금 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규모가 작은 이런 행사를 하는데 굳이 그렇게 과를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지금 현재 해조류박람회 추진팀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죠? 지금 몇 명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2명 있습니다. 2명이 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예.

○박병수 위원

그 팀에 2명을 둘 수 있는가요? 원래 그 팀 단위는 3명 정도 팀장을 포함해서 3명 그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제가 작년 말에 해조류박람회 관련 팀장을 만들면서 7월 1일자 인사에는 현재 해조류박람회추진단을 설립하기 때문에 그동안의 준비 단계로 팀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지금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2명만 뒀다는 얘기죠.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예.

○박병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모든 걸 준비 과정에 있고 준비를 했단 말입니다. 계획도 수립이 돼 있고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굳이 과 단위를 이렇게 신설해서 조직을 만들 게 아니라 그 인원 그 팀에다 인원을 좀 보강해서 하면 어쩌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2028년 국제해조류박람회가 지금 선정이 언제 된가요? 선정 된다고 했을 때.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그 일정은 아직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런가요?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그 관계는 해조류박람회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지금 해양정책과장이 같이 있기 때문에.....

○박병수 위원

아니, 지금 제가 이제 파악하기는 국제해조류 박람회 2026년 7월 그 선정 예정이 된다고 했어요. 선정 예정이 된다. 그것도 이제 그때 가봐야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었어요.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그러니까 저번에도.....

○박병수 위원

선정이 안 됐을 때 그거는 또 생각해 보셨는가요?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그 안 됐을 때를 가정하고 일을.....

○박병수 위원

이렇게 한다면 3년이 남아 있어요, 3년이. 아직도 그런 걸 봤을 때 좀 본 위원은 추진상황을 지켜보고 대응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내년 하반기에 조직 구성해도 2년이 남습니다. 준비 기간이 그리고 2027년 상반기에 조직을 구성해도 준비 기간이 지금 몇 번 해왔던 것에 비하면 한 1년 4개월 정도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따른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장보고축제하고 지금 비교를 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장보고축제가 예산이 12억 정도 그리고 Pre박람회가 24억 정도 그리고 기간이 4일, 그리고 Pre박람회는 6일, 그런데 장보고축제는 기존에 계획해서 해왔던 사회단체하고 공무원을 중심으로 운영해 왔었고, Pre박람회는 그동안에 저희들이 두 번을 해조류박람회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경험을 살려서 물론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장보고축제는 지역행사이고, Pre박람회는 국제행사 정도의 규모로 하기 때문에 충분히 기간도 필요하고 인력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게 이제 다른 나라 국제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일정, 그리고 국제학술대회,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보면 수출상담회 이런 부분은 사전에 많이 협약을 하고 그리고 찾아다니면서 그런 걸 기본적인 것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박람회하고 장보고축제하고 비교를 한다는 것은 그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내년 말에 한다 그리고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과거의 박람회는 우리군이 국제 행사를 신청하면 가능 했었는데 이번부터는 법이 바뀌어서 광역단체를 통해서 박람회를 국제박람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계 그리고 지금 전라남도에다가 해 준다는 확정된 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보면. 그리고 섬을 가지고 있는 해조류를 양식하고 있는 거제나 삼천포 그리고 그런데도 충분히 저희들이 박람회를 두 번 하면서 성공한 사례를 보고 그쪽에서도 유치하려고 노력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저런 것을 위해서는 선점을 하는 의미 그리고 대비를 하는 의미 이런 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레임덕 이런 걸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 앞으로도 말씀드렸었는데 2014년도 김종식 군수가 3선을 마지막 하면서 2014년도 해조류박람회를 했습니. 그때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이걸 왜 할까라고 하는 의구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그렇게 같이 공감하시겠지만 성공적인 박람회이었다고 이렇게 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성공적으로 박람회가 되니까 2회 2017년도 박람회를 한 것이고,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해조류도 물론 마찬가지이고, 블루카본 이런 걸 해서 중점적으로 한번 우리 완도군을 선제적으로 우리가 해보자라는 게 있었고, 지금까지 Pre박람회에 관련해서도 계속 진행해 왔던 것도 있고요. 위원님들도 용역보고회에서도 같이 참여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충분히 감안하셨으면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입니다.

○박병수 위원

아무튼 제 생각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참고하시고, 또 한 가지만 더

제가 확인을 할게요. 지금 조례 개정안을 보면 그 참고사항에 비용추계서가 있죠?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라고 했는데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제36조에 기구와 정원 조례의 제안과 의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해당 지방의회에 제안할 때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라고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예.

○박병수 위원

그런데 지금 제출한 사유서를 보면은..... 잠깐만요. 지금 내용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울 때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한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지금 군에서는 조직 개편을 하면서 과를 신설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예.

○박병수 위원

그럼 과장 1명이 얼마 들어갈까요? 대충 인건비.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대충 한 8,000에서.....

○박병수 위원

팀이 몇 개 들어가죠?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4개 들어갑니다.

○박병수 위원

4개 들어가죠?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예.

○박병수 위원

그렇게 했을 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법에서는 제3조 비용추계서의 작성 대상이라 하면은 완도군수 또는 완도군의회 의원이나 완도군의회 위원회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따른 내용을 보면 첫 번째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 3억 원 미만일 때 이런 사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것을 이런 것도 이렇게 형식적으로 지금 첨부를 해 놓은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그 부분은 그 위원님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무 담당자가 답변을 좀, 제가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서요.

○박병수 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과장한테 지금 질문을 한 것인데 이걸 실무자한테 물어보면 실무자하고 질문 답변을 받으라는 얘기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을 파악을 못해서.....

○박병수 위원

아니,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내용을 파악을 해가지고 답변을 해야지.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죄송합니다.

○박병수 위원

이거 팀장이 답변 한번 해보세요.

○행정팀장 김건규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가 하나 생겼을 때에 이제 들어가는 비용은 과를 운영하는 운영비와 인건비 부분으로 나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는 해양정책과에서 이번 추경안에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고

요. 인건비가 증액되는 부분은 6급에서 5급으로 승진을 했을 경우 연간 한 300만 원 정도 밖에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 호봉제 공무원이 연봉제로 바뀌면 그 당해 연도에는 증액분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6급 팀장이 생긴다고 했을 때의 증액분은 무보직 현재 6급이기 때문에 증액분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수 위원

거기에 따른 사무실 관리비, 인건비만 해당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방금 인건비만 말씀드렸습니다.

○박병수 위원

아니,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게 비용추계서를 하면은 인건비도 있을 것이고, 관리 비용도 있을 것이고, 운영비도 있을 것이고, 다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거기 과를 운영하는데 예산이 안 들어가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예. 들어가죠.

○박병수 위원

3억 미만인가요, 그러면? 그걸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가 보니까 이런 해당 사항을 적용해 놨기 때문에 제가 지적한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시고 이걸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알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욱 위원님.

○최정욱 위원

우리 과장님 설명 9차 이 앞번부터 해서 잘 들었거든요. 또 이제 박병수 위원님 지금 계속 질의한 것에 대해서 잘 들었고 다만 이제 우리가 내년 6월에 우리 지자체 선거가 끝나요. 그러면 도지사도 바뀌고, 우리군수도 바뀌어요.

그렇게 되면 그 차기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와 또 어떤 그 사람의 또 다른 조직 개편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리고 도지사도 역시나 이게 도지사가 되면 이 사업에 대한 물론 아까 과장님이 말했지만 선점을 차지해서 한다 하지만 혹시라도 그 도지사가 생기면서 또 시·군, 어느 시·군에 또 어떤 방점을 찍을 수도 있거든요, 이게. 우리가 전혀 아니라고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맞습니다.

○최정욱 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이걸 잘 짚자고 하는 것이고, 또 지자체장이 돼서 적어도 어느 숨통을 틔어주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계획대로 가게끔 어떤 걸 우리가 만들어가면서 해줘야지. 딱 이렇게 해버리면 다음 차기 군수가 만에 하나 됐을 때 이런 것도 좀 깊이 생각하는 그런 것도 줘야 되고 그래서 그걸 좀 팀을 좀 더 보강하는 쪽으로 해서 저도 운영을 해 봤으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내년 6월 넘어서 어떤 걸 하더라도 그때 조직 개편을 위해서 더 보강하고 뭘 하더라도 그렇게 늦지 않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 과장님 깊게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이제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우리 해양정책과장님 한번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 과정이라든지 시기를 두고 왜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해양정책과장입니다. 지난번 때도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지금 단계는 우리 과에 박람회 추진팀이 있어 가지고 26박람회와 28박람회 준비 용역만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26박람회 추진을 위한 기본 계획 용역은 이제 완료가 됐는데 이 박람회는 이번 하반기 예산이 확보가 돼야 본격적으로 전시 연출이나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용역사를 다시 선정하고, 또 그에 관련된 수출 상담회라든지 내년에 할 또 해조류 심포지엄 학술대회 같은 것들을 할 그런 일들을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분주하게 움직여야 될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케팅도 동시에 해야 될 상황이고, 28박람회는 지금 용역이 진행 중인데 최종 용역 보고는 이달 아니면 다음 달 초쯤에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 용역보고서가 나왔다고 해서 계획서가 다 된 건 아니고 도하고 같이 최종적으로 기본계획 수립을 해서 해수부를 통해서 올해 연말까지는 기재부까지 도착을 해야 됩니다. 이제 이 과정에 여러 가지 역할들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전남도는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전남도 자체적으로 28일 박람회 준비단을 지금 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이 박람회를 추진하기 위해서 조례를 지금 제정하기 위한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도 자료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5월달에 박람회가 끝나면 이제 이래저래 같이 박람회를 치르고 나면 이 박람회의 그 조직들이 그대로 내년 하반기에는 국제행사 승인이 됐을 때, 승인이 되면 바로 전남도하고 같이 사무국이 꾸려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전라남도 조직위원회가 내년 하반기에 구성되면서 전라남도에서 사무국이 꾸려지면 저희 이제 박람회를 추진했던 추진단이 그쪽으로 좀 파견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덧붙일게요. 지금 총무과장이 조직관리부서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맞습니다.

○박병수 위원

조직관리부서에서 이런 것들 판단하지 않아요?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이제 저희들은 건의가 들어와서 조직을 관리하고 있고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자는 겁니다.

○박병수 위원

아니, 그런 구체적인 사항이 그런 것을 조직이 이렇게 신설하는데 조직을 신설하는데 과장이 그런 것도 검토 없이 주무과에다 그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맞나요?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더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제가 담당 부서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라고 하는 거죠.

○박병수 위원

아니, 완도군에서 조직이 필요하다고 지금 한 것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예.

○박병수 위원

그런데 왜 다른 부서에서 이걸 말씀을 하시니까.....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조직은 제가 말씀드렸었고요.

○박병수 위원

조직이 필요한 것은 행정지원과에서 조직 관리를 하고 있고, 조직을 신설한다고 하니까 답변을 해야죠. 왜 다른 부서에서 답변을 하냐고 맞는가요?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일을 진행할 건지.

○박병수 위원

아니, 절차를 그렇게 행정 절차라는 것은 조직 관리 인사 관리 그런 것도 하고 있잖아요, 업무 업무량 파악.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그 부분이 부족했다면 제가 죄송합니다.

○박병수 위원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보고를 할 때는 고민을 좀 하고 공부 좀 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알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선

최정욱 위원님.

○최정욱 위원

과장님 만에 하나 이걸 우리 수산정책과나 이걸 하면은 도에서 확실히 우리 완도에다 주겠다라는 그 확신은 받을 수 있어요, 지금?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저희들이 확신을 받을 수 있다는 감히 말씀을 못 드리죠. 지금 그러니까 이런 준비 단계에서 우리군에서 이제 철도 차게 준비해야만이.....

○최정욱 위원

이제 그 설명은 내가 누차 들어서 알고 다만 우리는 그래도 의회예요. 의회란 적어도 해줄 때 정말 우리도 뭔가를 갖고 의회에도 답을 해 주고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지자체장들이 바뀌짐으로 인해서 도지사 여기 바뀌지면서 어떤 변화가 올지 그 누구도 장담을 못해요. 그걸 선점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는 의지는 내가 충분히 이해는 하나 그렇게 됐을 때도 이제 감안 안 할 수 없어 의회는 이런 문제가 없이 이게 토론이 된다면 하는데 그걸 문제 삼아 다들 걱정돼서 하는 과정의 승인은 그 정도는 우리도 갖고 해야 되니까 하지 마라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의회도 하지 마라는 건 아니에요. 다만, 그거는 좀 지금의 과가 아닌 뭐라도 해서 더 보강하더라도 해서 해 가면 좋겠다 당장 한 것이 아니니, 그러면서 내년 6월이면 이게 판도가 다 바뀌지고 새로운 게 나오거든 그때 가도 나는 우리가 충분하니 그렇지 않다 해도 준비할 우리 공무원들의 능력이 안 되는 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거지 우리 능력이 없어서 한다면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내가 이제 그걸 확신을 준다면 우리도 당연히 뭐 그렇다면야 우리가 감안하더라도 할 수가 있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다면 우리도 생각을 깊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위원님 제가 확신할 수 있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말씀을 들으시고 한번 공감이 가시면 한번 생각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2014년, 2017년 해조류박람회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시·군에서 국제박람회를 이렇게 승인을 얻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광역자치단체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국적으로 해조류 박람회 했던 것은 우리 완도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해수부하고 계속 이렇게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는

데 지금 우리 완도군만 해수부하고 박람회에 관련해서는 앞서가는 시·군은 없습니다. 그리고 광역 자체에서는 전라남도만큼 앞서가는 광역 자체도 없습니다.

이런다고 봤을 때는 저희들은 확신하건데 박람회는 우리가 완도로 오지 않겠나 저는 확신합니다.

○위원장 박재선

조인호 위원님.

○조인호 위원

과장님, 방금 그 말씀을 최정욱 위원이 처음 질문할 때 자신한다고 이야기를 해야 설득이 되는 거지 의회는 설득을 하려면 이렇게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알겠습니다.

○조인호 위원

그리고 열심히 해라. 이제 그때 가서 결과를 보는 거지 처음부터 이렇게 뭐 정치인 같으면 이거 오락가락하지만은 우리 공무원들은 책임감을 가져도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알겠습니다.

○조인호 위원

의회에 오면 설득력을 어떤 말을 해서 위원들을 설득할까 그걸 좀 염두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지금 Pre박람회를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지금 얼추 준비는 돼 가고 있는 상태죠, 지금?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인호 위원

군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군수님은 반드시 해야 된다. 그리고 28년 박람회도 우리 완도군에서 반드시 유치돼야 된다 그런……

○조인호 위원

그럼 군수님도 이렇게 위원들이 반대가 심하고 이렇게 자꾸 질문을 하면 한 번쯤 와가지고 군수님도 설명을 해야 돼요, 이런 부분은..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그런 부분은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인호 위원

그렇게 전하고요. 이제 우리 최정욱 위원님이나 우리 박병수 동료 위원께서 이제 하는 말 참고하시고 이거 정 설득이 안 되고 위원들이 이해가 안 되면 군수님도 한번 와서 간담회를 이렇게 추진 한번 해보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알겠습니다.

○조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식 위원님.

○조영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첫 번째 4급, 5급 직제 변경은 뭐 별 무리가 없는 것 같네요. 누가 질문도 안 하고 그래서…… 이번에 조례안이 통과가 안 되면 여기도 지금 4급, 5급 직제 변경 관광실 이것도 무효가 되는가요? 그러겠죠? 이 안에 주요내용이 같이 올랐으니까.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예. 전반적인 내용을 다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영식 위원

2026년 Pre해조류박람회는 5월에 아까 해양정책과장님 답변이 그러는데 5월달에 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예.

○조영식 위원

그럼 결국은 한 10여 개월 남았네요.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예.

○조영식 위원

혹시 팀으로 행사 준비하기엔 한계가 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그 각 과에가 4개 팀이 있고, 또 새로운 업무인 Pre박람회를 하기 위해서 팀을 만들어서 한다 그러면 누군가가 이걸 관리를 해야 되고 부서장이 과부하가 걸리지 않겠나 그리고 이제 새로운 업무이기 때문에 이게 또 그런 부분이 기존의 업무하고 또 구분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조영식 위원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추진단을 구성하면 몇 명 정도로?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최소 4개 팀, 12명 이상.....

○조영식 위원

혹시 인원에 대해서 충원이나 이런 게 가능합니까?

먼저 그러기 전에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군에 지금 결원 공무원, 결원이 지금 몇 명이나.....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결원이 지금 23명 돼 있고요. 지금 2022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22년도에는 50에서 60명 결원이 계속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아시다시피 작년 같은 경우는 경채 특히 시설직 공채를 해버리면 합격을 전혀 못하기 때문에 경채를 해서 지금 한 15명 정도 이렇게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지금 결원이 23명 돼 있습니다.

○조영식 위원

그러면 23명이면 또 여기서 12명, 15명이 필요하면 읍·면에서 또 파견이나 차출시켜야 되겠네요.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이제 그리고 저희들이 금년도 충원계획이 약 45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읍·면이라든지 부서의 결원이 최소화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영식 위원

올해 그러면 40명에서 45명이 충원이 되니까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신규 채용을 합니다.

○조영식 위원

앞으로 결원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예. 그렇습니다.

○조영식 위원

행정지원과장이니까 확실하게 지금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지금 대답하신 거 맞죠?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맞습니다.

○조영식 위원

만약에 지금 지난 1년 넘게 군수님께서 행사장만 가면 2026년, 28년에 해조류박람에 대해서 엄청난 홍보를 하고 해왔거든요. 26년 때는 Pre대회를 하고, 28년 때 본 대회를 하는데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어요. 그럼 만약에 여기서 지금 조례안 이게 이 추진단 때문에

구성이 안 된다면 아마 이게 사업 접어야 됩니까? 이 일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글쎄요. 계속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이 추진단이 신설이 안 되면 그 업무하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겠나 그리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게 이어져서 그런 성공률이 유치하는 데 성공률이 더 낮아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영식 위원

그러면 이 조직이 꼭 지금 이 시점에 추진단을 해야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저는 시기가 그렇다고 봅니다.

○조영식 위원

시기가 꼭 한 달 후에 임시회 때 이 조례안을 다시 해가지고 서로 합의 과정을 거치고 해서 할 방법은 없나요? 꼭 지금 7월 1일자 때문에 이런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근데 굳이 한 달 간격 사이를 두고 그렇게 또 하는 거.....

○조영식 위원

제가 지금 조정하는 역할을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한 달 사이에 위원님들 이렇게 또 오늘 사실은 아까 행정기구 조직 개편, 조직 활성화에 대해서 박병수 위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한 거 들었죠?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예.

○조영식 위원

그런데 몇 시간 만에 지금 이것 갖고 이렇게 논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4, 5급 직제 변경 이거는 위원님들끼리 각자의 의견이 없으니 이거는 조례안을 통과시키더라도 나중에 따로 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Pre해조류추진단에 관련된 것은 시기를 좀 두고 한 달 후에나 해도 서로 간에 이야기를..... 전문위원 혹시 이게 가능한가요?

○전문위원 박영민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상임위에서 이제 수정가결하고 부결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수정가결을 할 경우에는 이게 이제 본회의장에 상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통과가 되면 단체장은 거의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재의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상임위에서 부결이 된 경우에는 재의 요구는 할 수는 없고, 다음 임시회 때 단체장이 별도로 발의를 해야 됩니다. 그 두 가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조영식 위원

지금 과장님, 장시간, 이렇게 장시간 시간이 많이 흐르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저희 기조는 집행부에서 뭘 하면 해보라는 쪽에 긍정적으로 생각한 게 저희 기조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한테까지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한 번, 두 번 오늘 두 번째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다 똑같은 내용으로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을 한번 심사 숙고해보면 어떻겠느냐 자꾸 7월 1일자 인사 그 날짜를 두고 이야기하면은 결국 며칠 안 남았는데 이야기가 안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제 생각에 어떤가요?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근데 이거는 이제 이 조례는 사전에 오늘 박병수 위원님께서 5분 발언을 하기 전에 미리 제출된 조례안이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 내용을 담을 수 없다는 것은 이게 이제 인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계속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어찌 보면 군수님께서 의지를 갖고 박람회를, Pre박람회 유치해 보겠다. 그리고 2028년도

박람회를 유치해 보겠다는 의지를 갖고 또 우리 직원들도 열심히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 주셔 가지고 새로운 조직이 만들어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위원님도 지켜보시면서 잘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해 주시면 2018년도 국제해조류박람회가 완도군으로 와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입니다.

○조영식 위원

한 가지만 딱 물을게요. 답변 간단히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님 추진단이 구성되면 읍·면에서 파견, 차출 이런 정확히 그런 거 없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이제 부서에서 위원 차출해야죠. 전혀 없다고는 제가 말씀 못 드리죠.

○조영식 위원

아니, 하반기 때 하면은 아까 다 충원이 된다면서요.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충원하고 이제 그래서 보충하고 그렇다 그 말이죠.

○조영식 위원

충원하면 읍·면에서 차출해 가지고 이 추진단으로 인해서 결원이 안 생기게 읍·면에 인원 충원.....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결원은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식 위원

그 최소화라는 단어가 참 애매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4년도, 17년도 우리가 했잖아요. 그때는 수산경영과에서 TF팀으로 하나 만들어서만 운영했었죠. 그때 당시에는 수산경영과 밖에 없었죠? 완도군에.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그때는 해조류사업소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준비를 해가지고 해조류박람회추진단이 생긴 걸로.....

○위원장 박재선

TF팀을 따로 만들어서 했었죠?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재선

근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수산과에서 해양정책과로 2개로 나눠놨어요. 근데 나눠놓고도 지금 우리가 인원이 부족해서 추진단을 또 만든다는 얘기죠?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그렇습니다. 박람회 추진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얘기죠

○위원장 박재선

근데 이제 우리가 수산경영과 해조류팀이 있었는데 과에서 있었는데 팀을 더 만들어서 좀 운영하는 방법도 우선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아까 최정욱 위원님이나 박병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팀을 더 만들어서 계속 운영을 하다 이제 그때 임박하면 그때 TF팀을 만들어서 추진단을 만들든 그때 하는 게 안 나은가요?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제가 이제 말씀드렸었는데요. 이거는 어차피 국제행사이기 때문에 국내행사하고는 성격이 굉장히.....

○위원장 박재선

그 팀이 들어가 있으면 과장이 대표로 있을 거 아닙니까? 과에. 그렇죠? 없는 것이 아니

지 않습니까? 그 과의 과장이 맡아서 하다가 팀에 연계해 주고 그러고 나서 내년도에 지방선거가 끝나고 뭐 하면 그때 다시 정상적으로 정말 되겠다 싶으면 그때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지금 보면은 해양정책과장님이 말씀하셨었는데 지금 도에서는 도 조례를 만들어서 완도군에서 적극적으로 하니까 해조류박람회를 추진하고자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아마 선제적으로 우리는 해양정책과에서는 도하고 얘기할 때 우리는 7월 1일자로 조직이 만들어지니 열심히 한번 해보자라고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런 조직이 안 만들어지고 하면 도하고 완도군의 신뢰는 완전히 무너진 것이고요. 그리고 이에 따라서 박람회 유치는 더 힘들어지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박재선

일단 알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행정지원과장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의안번호 제3422호 완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현재 박람회 추진단 설치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별첨 정원 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에서 본청 5급이 17명에서 18명으로 1명이 증가되고, 6급 이하는 667명에서 666명으로 감소가 됩니다.

또한 별표 완도군 지방공무원 직급 종류별 정원 책정 기준에서 6급을 27%에서 28% 이내로 1% 증가시키고 7급을 33% 이내에서 32% 이내로 1% 감소시키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완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재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민

완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 조직 개편에 따른 정원 조정과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을 조정하는 것으로 전체 정원 총원 변동 없이 조직 신설에 따른 일반직 5급 및 6급 정원과 7 6급 및 7급 정원 비중을 소폭 조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총정실 행정지원과 등의 내용 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책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선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욱 위원님.

○최정욱 위원

과장님 이거 우리 그 조례가 돼야 이거 해당되죠?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맞습니다.

○최정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선

더 이상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선

행정지원과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의의가 없으므로 상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최정욱 위원님, 박병수 위원님 지금 이것을 원안대로 해야 되나요? 수정안대로 해야 되나요? 위원들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최정욱 위원

이제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가 2회를 해 보면서도 첫 회는 정말 기대에 부풀어 했는데 2회 때 했을 때 완도군에서 호응을 그렇게 크게 얻지는 못했어요. 우리 국제해조류박람회 하면서 우리 직원들 정말 고생들 거의 한 달 그때 아마 했을 거예요.

아마 그런 과정인데 이제 물론 무슨 행사든지 우리가 해야 맞아요. 해야 맞는데 또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준비를 해야 되고 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저도 생각은 해요. 다만 지금의 우리가 이제 솔직히 그러잖아요. 지자체장이나 도지사가 바뀌지면 그 도지사의 생각도 꼭 우리 완도에다 주라는 생각을 갖지 않을 거라고 그때 다른 시·군에서 로비가 들어가고 시작을 하게 되면 이게 우리가 했던 것도 아마 경쟁으로 붙게 될 거라고 근데 이제 이게 확실한 그런 것도 아닌데 팀을 봐요. 우리 전문위원한테 물어보겠지만 우리가 팀에 인원을 많이 보충할 수는 있죠? 한 6명 정도.

○전문위원 박영민

그거는 인원 제한은 없습니다.

○최정욱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차라리 나는 그 팀에다가 사람을 좀 보충해서 여러 사람을 더 하더라도 해가지고 그 필요한 사람만큼의 그 팀에서 하면 되지 않을까 굳이 과를 해서 한 것과 그 팀을 한다 해도 우리 공무원들이 주어진 일에 주 못 할 이유가 없어요.

꼭 과로 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왜냐하면 또 과장을 하나를 더 해놓게 되면 다음 지자체장이 누가 되더라도 이게 갑갑해요, 사실은. 하나 줄이더라도 인사권을 자기가 했을 때 뭔가 완도를 어떻게 발전시키겠다 어떤 계획을 갖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게 하나가 딱 막혀 있어 보면 이 사람 하나를 또 어떻게 차라리 그때 한 TO를 맞춰서 뭘 해야 될 수도 있을 거 못할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렇지 꼭 하고 안 하고, 또 행정에서 하는 저런 준비성은 나도 나쁘다고 보지는 않아요. 문제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가야지 또 우리는 위원이에요. 위원이면 적어도 견제하는 입장으로 해서 우리가 제안도 해 주고 아닌 것은 좀 막아줄 필요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했습니다.

○위원장 박재선

박병수 위원님 똑같은 생각입니까?

○박병수 위원

지금 박재선 위원장님도 그 말씀을 하셨고 우리 최정욱 위원님 두 분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고요. 지금 우리가 두 번 세 번 치렀지 않습니까? 세 번 치렀어요? 지금 두 번 치렀는가요? 한 번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두 번 치렀죠.

처음에 할 때는 이제 수산경영과 1개 과에서 다 이걸 해 왔어요. 그리고 1년 4개월 전부터 준비를 해서 해 왔고, 지금 우리군에 지

금 수산경영과가 있고 해양정책과가 있는데 지금 업무가 한계가 이거 너무 나눠져 가지고 이 합쳐서 한다고 하면 모르겠지만은 해양정책과에서도 저기 TF팀이 들어간다고 하면 그 박람회 팀이 거기에 이제 개로 해서 한다고 하면 못 할 일이 없습니다.

과장이 왜 그걸 챙겨 들고 하면 못 하겠어요 그리고 지금 최정욱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지금 내년이면 다 바뀌지잖아요. 바뀐 뒤 미리서 이것이 해가지고 과만 덜렁 만들어 놓고 이것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따른 책임 한계도 있을 것이다. 저는 그래서 팀으로 해서 1개 과에 해양정책과가 됐든 어디 지금 현재 들어가 소속된 거기에 인력 보강을 해서 좀 했으면 어쩌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선

저희들이 이게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등에 보면 제36조제2항에 보면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회에서 수정하고자 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미리 이렇게 들어야 된다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현재는 방금 저희들이 행정지원과장의 의견을 들었는데 그러면 이거 수정안으로 하게 되면 지금 우선은 군수님의 의견이 이렇게 저희들한테 회신이 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저희가 의회가 지금 바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들어보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진행하면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수정안대로 무조건 한 것보다는 회신을 군수님의, 지자체장 의견을 좀 듣고 저희들이 마지막에 저희 저희들이 회기 동안에 오면 잠깐 더 한 번 듣고 얘기하는 걸로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박영민

참고로 절차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집행부에서 지금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기구를 축소하거나 정원을 조정할 경우는 단체장의 답변을 듣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수정할 계획으로 그렇게 하신다면 저희들이 의정지원팀에서 군수님의 답변을 내일 오전까지 제출을 받도록 하고 그 답변을 통해서 별도로 그 행안위를 별도로 한 번 더 개최를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재선

오늘은 그렇게 하고 회기 기간 동안 지자체장의 의견을 듣고 저희들이 마지막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수정안대로 하고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완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전문위원 박영민

가결 하지 마시고요. 집행부 답변이 올 때까지 보류한 걸로 두 건 다.....

○위원장 박재선

그러면 제4항과 제5항은 집행부의 의견이 올 때까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

6. 2025년 완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5년 완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결정 제6항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희수

세무회계과장 김희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424호 202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202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고자 합니다.

먼저 총괄 내역입니다.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반영할 안건들의 취득 내역으로는 기존 현황 대비 토지가 26필지 면적 5만 997.7제곱미터 19억 600만 원과 건물 1동에 330제곱미터 5,3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처분 내역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부 내역입니다. 2025년 공지사항 관리계획안에 반영할 안건은 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에 따른 폐교 잔여부지 매입 등 총 6건으로 토지 취득 26필지, 건물 취득 1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 설명은 해당 부서장이 나와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관 부서의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협축산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직무대리 이욱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직무대리 이욱입니다. 2025년 완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안건번호 제1호 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에 따른 불목 폐교 잔여부지 4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활력 플러스 사업은 지역의 농촌 자원과 민간 조직을 활용한 특화 산업 육성, 공동체 활성화 등으로 농촌의 자립적 성장 기반 구축에 목적이 있습니다. 해당 부지는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을 위해 2021년 7월 불목 분교 폐교 부지인 군내면 불목리 241번지 전체를 매입하고자 하였으나 천경도서관 건물 및 부지는 기증자와 협의가 되지 않아 분할하여 이를 제외하고 매입하였습니다. 2024년 12월 완도교육지원청에서 잔여부지 매매 의사가 있어 신활력 플러스 사업과 추후 연계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농촌치유거점센터 사후 관리 등 장기적 관점에서 해당 부지를 매입하여 관리하고자 합니다. 취득 재산은 군외면 불목리 242- 12번지 토지 1필지 1,803평방미터, 건물 1동 330평방미터 소요 예산은 1억 7,600만 원입니다. 현황 도면과 취득 대상 내역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선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직무대리와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진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호 완도 화흥 간척지 파크 골프장 조성 사업에 따른 토지 매입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목적은 완도 화흥 간척 대상지의 잠재성을 분석하여 지역 주민 및 방문객들을 위한 건강 증진, 관광 자원 확대를 위한 파크골프장 등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는 소재지 정도리 879-1외 12필지로 사업 예산은 공사비 22억 보상비 12억입니다. 사업 기간은 26년부터 28년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부지 정리 및 토목 공사 배수시설, 또 부대시설로 클럽하우스와 드론 이착륙장 등이 되겠습니다. 구분은 토지 취득으로 토지

13필지에 4만 2,014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부대 비용 포함 12억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선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시라인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쪽이 그러면 용도 지역은 저촉이 안 된가요?

○건설과장 김진원

예. 저촉 안 됩니다.

○박병수 위원

무슨 지역인가요, 그쪽이?

○건설과장 김진원

지금 거기가 생산관리지역이라고 돼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생산관리지역.. 농업진흥지역은 아니죠?

○건설과장 김진원

예.

○박병수 위원

그럼 폭은 몇 미터 되나요?

○건설과장 김진원

폭이 약 50m의 길이는 약 1km 정도 됩니다.

○박병수 위원

50m에 6km?

○건설과장 김진원

예.

○박병수 위원

그러면 그 홀이 몇 홀 정도 나오죠?

○건설과장 김진원

18홀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렇게 하는데 18홀 정도 좀 어중간하네요. 그래도 몇 개 홀이 돼야만 좀 그 규모 있게 해야만 그래도 국제대회라든가 우리 전국대회도 개최할 수 있고, 그런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될 텐데 땅값은 감정가가 지금.....

○건설과장 김진원

탁상 감정했을 때 한 평방미터당 2만 5,000원 정도 나오거든요.

○박병수 위원

7만 5,000원인가요?

○건설과장 김진원

그러면 12억 원 이내에서 부대 비용 포함해서 12억 정도 하면 충분합니다.

○박병수 위원

12억 정도. 아니, 예산이 여기서 30억 안 된가요?

○위원장 박재선

34억.

○박병수 위원

34억으로 나왔죠. 공사비까지 해서.

○건설과장 김진원

예.

○박병수 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선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부지에 생산관리지역이라 했는데 지금 m는 1km인데 넓이가 지금 폭이 50m라 했죠?

○건설과장 김진원

예.

○위원장 박재선

더 매입할 수는 없는가요?

○건설과장 김진원

일단 저희들이 1단계로 지금 농림부하고 기재부로 돼 있단 말입니다. 그걸 우선 매입하고 추후에 이제 더 추가 매입하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선

아니, 다음에 또 한다 하면 땅값이 계속 올라가서 못 사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어차피 이왕 할 거면 18홀은 사실은 완도읍 전체라고 보면 좀 적잖아요. 최하 27홀은 저는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왕 할 거면 땅 매입을 좀 더 해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중에 이거 땅 매입 또 해야지 하는 것은 제가 봐서는 불가능해요.

○건설과장 김진원

일단 저희 부서에서는 그 간척지라서 우리 건설과에서 이 업무를 보고 있거든요.

다음에 이제 일단 이 필지 우선 매입하고, 체육진흥과하고 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선

그 부분을 한번 처음부터 할 때 잘 검토를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선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5시 1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5분 회의계속)

○위원장 박재선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정계창

안건번호 제3호 소안 응급의료 헬기 이착륙장 건설에 따른 토지 매입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소안 헬기 착륙장은 규격이 협소하고, 주변에 위험 시설물인 통신 기지국이 위치하고 있어 중대형 헬기의 야간 운용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이에 국비와 도비 포함 4억 원을 확보하고 이전 확장 부지 선정과 적합성 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대상 지역은 완도군 소안면 진산리 1048 외 한 필지입니다.

취득 면적은 2,713평방미터이며 취득 예산은 5,700만 원입니다.

의료 취약지인 도서지역 야간 응급환자 발생 시 응급 의료 헬기를 통한 신속한 병원 후송 조치로 군민 생명 보호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선

보건행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지역개발과장 이기석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건번호 제4호가 되겠습니다. 어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망남항 부지 매입입니다. 부지는 완도읍 군내리 3-9번지 망남리 새마을 물양장이 되겠습니다. 토지는 1필지로 1,163평방미터로 약 350평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8,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선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산림휴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산림휴양과장 박은재입니다. 안건 번호 제5호 완도 가용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따른 부

지 매입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산림휴양 수요 충족과 변화하는 여행 관광 트렌드에 맞춘 산림 휴양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립난대수목원과 해양 치유와 연계한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완도 가용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대상지 진입부에 있는 토지 취득 건입니다.

금번 취득 대상은 완도읍 중도리 산 1-26번지 외 1필지에 1,394제곱미터로 소유자는 전라남도입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총 소요예산은 1,100만 원이 되겠으며, 현황 도면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선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휴양과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정국

경제교통과장 이정국입니다. 안건번호 제6호 완도 미르채 센텀시티 아파트 준공에 따른 진·출입로 및 주차장 기부 체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르채 아파트를 준공하면 주거 밀집 지역 교통 혼잡이 우려되므로 당초 건축심의위원회의 교통 불편 해소 방안에 따라서 시선유도봉, 방지턱 설치 등 진·출입로 정비와 아파트 단지 외에 40면의 주차장을 조성한 후 시공사로부터 기부 체납을 수용하여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대상 필지는 완도읍 군내리 1119-2 외에 6필지로 1,910제곱미터입니다. 재산가액은 4억 3,800만 원이며, 각각 도로 4필지에 462제곱평방미터, 주차장 3필지에 1,448제곱미터입니다. 기부 체납 수용 후 주차장은 경제교통과에서, 진·출입로는 지역개발과로 관리 부서별 재산을 등록하여 유지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선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 과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의의가 없으므로 본 변경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25년 완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의 없습니까?

의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7. 금당 행복의 집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운영 위탁 동의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금당 행복의 집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운영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결정 제7항에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가족행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가족행복과장 박미정입니다. 의안번호 제3422호 금당 행복의 집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 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금당 행복의 집을 운영 중인 청해사회적협동조합이 위탁 해지를 요청함에 따라 위탁 기간이 오는

25년 7월 30일자로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완도군 사무의 민간 위탁 관리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새로운 수탁기관 선정 및 위탁 운영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본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위탁 근거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및 지방자치법, 그리고 우리군 노인 전문 요양시설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등입니다. 위탁 개요입니다. 위탁 대상 시설은 금당면 해변 공원로에 위치한 금당 행복의 집으로 연면적 196평방미터 규모의 구인 생활 시설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탁 사무는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시설급여 제공, 업무, 시설의 전반적인 운영과 관리, 개인정보 보호 그리고 장기요양 서비스 향상을 위한 제반 사항이 포함됩니다. 위탁 방법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개 모집하며, 위탁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입니다. 수탁자 선정입니다. 완도군 사무에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5조 및 제7조에 따라서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엄정한 심사를 통해 수탁 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책임 한계입니다. 수탁 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 기관에 있습니다. 수탁기관이 위법하거나 부정하게 사물을 처리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계약 해지도 가능하도록 지도 감독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금당 행복의 집은 도서 지역의 어르신들에게 장기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설치한 중요한 시설입니다.

앞으로 더욱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사회복지 분야의 경험과 역량을 갖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함으로써 이용 어르신의 복지 향상과 지역사회 돌봄 체계 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금당 행복의 집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선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호 위원님.

○조인호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제 7월 31일 31일 자로 해지되면 그러면 또 다른 업체에서 또 이렇게 들어오면 어떻게 할까요?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아니, 우리가 이제 공고를 이제 여기 동의안이 통과되면 막 바로 우리가 공고를 좀 띄우겠습니다.

○조인호 위원

공고를 띄워서 또 하지도 못한 사람들이 와서 과거 같이 5년 동안 그렇게 해보면 어떻게 할 겁니까?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이제 섬이라는 여건 때문에 금당이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5년간은 이렇게 중도에 포기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조인호 위원

그러니까 금당에서 거주한 분이 해야 이게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걸 참고해서 하시라고 한 말이에요.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선

또 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가족행복과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토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의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결정 제7항 금당 행복의 집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의 없습니까?

의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

○출석위원(8인)

지민　　박재선　　박성규
박병수　　조인호　　최정욱
허궁희　　조영식

○출석공무원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세무회계과장	김희수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농업축산과장 직무대리	이　욱
건설과장	김진원
보건행정과장	정계창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경제교통과장	이정국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수호

○ **전문위원** : 박영민

○ **속 기 사** : 정현중

제330회 완도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6월 10일(월)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완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완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완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2. 완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3시30분 개의)

○위원장 박재선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1차 회의에서 보류되었던 「완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되겠습니다.

---

1. 완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먼저, 「완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완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군수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신우철

먼저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도 이렇게 2차 행정자치 위원회를 개회해주신 김양훈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내년도에 좋은 일들이 있을 걸로 크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2028년 계획하고 있는 국제해조류 박람회를 앞두고 Pre대회를 26년에 개최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26년에 Pre대회를 개최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제해조

류박람회가 완도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지금 전남도 내 지자체에서 갖고 있는 과거의 해조류를 소재로 한 박람회는 완도에서 줄곧 2014년, 2017년 그리고 2021년, 개최 계획을 세웠으나 그때 코로나감염병 때문에 우리가 연기가 됐고 이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못하고 광역단위로 하기 때문에 중간에 할 수도 있었음에도 계속 지연돼서 28년까지 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끌고 갔냐? "그건 완도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서 지금 4개의 지자체가 "완도에서 두 번 했으면 말지. 또 하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6년에 Pre대회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해조류박람회 개최지의 정말 당위성이 "우리 완도가 왜 있는가? 왜 완도라야 되는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선점해야 될 것이 있다. 이렇게 해서 Pre대회 때 우리가 멋진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아..... 역시 해조류의 고장 완도에서 해야 해조류박람회는 성공할 수 가 있다." 이런 것을 심어주자는 것이고 저쪽에서 주장하는 것은 이제 광역단위로 해조류박람회를 개최하게 된다면 왜 굳이 완도에 정말 접근성이 좋고 박람회 개최 이후에 거기에 시너지효과를 볼 수 있는 곳 목포, 여수 그리고 김이 완도보다 더 많이 생산되는 고흥, 그 다음에 신안 등과 같이 26, 28년도에 개최하는 해조류박람회에 대해서 전부다 욕심을 내고 있다. 지금 우리와 똑같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국립 해양수산박물관을 완도에 유치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와 협의해서 추진을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8개의 지자체가 발칵 뒤집어져서 치열한 경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현실입니다. 이렇게 될 때 그러면 과연 28년에 개최될 해조류박람회는 우리가 한다는 자신할 수 있겠느냐? 이게 지금 상당히 심각한 고민거리입니다. 그래서 26년에 우리가 개최하는 예비대회를 통해서 "더 이상 해조류박람회는 넘보지 말라. " 이런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을 하자! 하는 의지가 담겨있다. 그래서 어떤 노력을 또 했느냐? 이때 어설프게 Pre대회를 개최를 하면 "거봐라. 이번에 완도에서 개최한 것 보니까 형편없더라. 그러니 목포나 여수로 가야 한다." 라는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무엇을 우리는 개최하려고 하면 장보고한상어워드, 즉 수상자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협의회가 내년도에는 중국에서 세계대회를 개최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 세계대회를 완도에서 개최하려고 여기 두 분 전직 허궁희 의장님, 현직 김양훈 의장님 이 현장에서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세계대회를 각국이 유치하려고 하는데 지난 대회 때 우리가 이번만큼은 우리 완도로 해줘야 됩니다. 이런 의미에 대해서 가까스로 우리가 완도로 유치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기간에 뭘 하느냐?"그렇다면 세계에 보여지는 완도로 오는데 굉장히 도움을 줄 것이다. 장한상수상자 협의회가 이번에는 우리가 미국에 뉴욕에 가고 워싱턴과 비엔나에 가고 그 짧은 시간에 1, 860만 달러, 1, 980만 달러 수출계약을 할 수 있었던 게 뭐냐? 이와 같이 장한상수상자 협의회들이 도움을 줬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이와 같이 장한상수상자 협의회 세계대회를 완도에서 개최함으로써 세계에서 내로라하는 바이어들을 완도로 초빙을 해서 여기에서 수출상담회를 개최를 해보자. 이렇게 됐을 때 해조류와 그 다음에 전복수출에 우리가 판로를 열 수가 있다.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그동안 의 세계 수산물 시장을 일본이 석권을 했는데 이것을 계기로 해서 일본이 아니고 이제 완도를 비롯한 우리나라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26년에 Pre대회를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여기에다가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뭐냐면 NASA를 가고 에너지부를 가고 했던 게 지금 블루카본과 관

련해서 25년 말에 IPCC에서 기후변화와 관련된 국제기구에서 행정을 25년 말에 만든다고 하면 26년부터 후속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우리 완도가 기초자치단체의 중심이 돼서 움직이는 것을 국가에다 어떻게 전달하겠나? 그런 참모습을 이게 앞으로 미래에 다가올 것에 대한 준비를 기초자치단체인 완도에서 하고 있구나? 이런 모습을 보임으로써 앞으로 기본소득이 될 수 있는 블루카본으로 탄소세거래가 이루어질 때 거기에 후속 조치가 이루어져야 거래가 됩니다. 블루카본 인증을 받는다고 해서 바로 거래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이 25년 도입니다. 그렇다면 28년, 진짜 대회보다도 더 강화된 조직과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준비가 되어야 우리 완도의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다. 저는 중간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심하게 반대하지 말자." 이것은 결국 우리한테 마이너스다. 현실로 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 예측합니다. 앞으로는 세계시장이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다. 그래서 16년도부터 준비해온 것이 한국식 김이다. 이제 김으로 통하지 않습니까? K 김입니다. 이런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게 2026년, 바로 Pre대회이다. 그리고 장한상수상자 세계대회가 함께 이루어지는 블루카본과 관련된 이런 것이 함께 되기 때문에 이번에 현명하신, 훌륭하신 우리 의원님들께서 26년 Pre대회와 관련해서 이렇게 강한 의지를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질문사항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위원장 박재선

예. 박병수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박병수 위원

예. 군수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어제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 내용에도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군민 간에 목소리를 종합해서 정리해서 집행부에 전달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지금 2026년 Pre국제해조류 박람회를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굳이 이렇게 과 신설을 해서 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지금 기존에 우리가 해조류박람회 추진팀이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고 거기에 인력보강을 해서 일개 해양정책과라든가 다른 부서에다 조직을 보강을 해서 해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지금 국제해조류박람회가 이 앞번에 전례를 보면 한 1년 4개월 여의 준비기간을 거쳤음에도 다 성공적으로 행사를 잘 치렀거든요? 그런데 굳이 3년 정도 남아있는데 이렇게 미리 과를 신설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군수가 '이것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정책 결정을 판단해서 할 사항이고 또 이것이 설령 안됐을 때는 이런 보고들이 조직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지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저 개인적인 의견은 이번 Pre박람회는 TF팀을 만들어서 일개 과에 업무와 연관된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배치를 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군수 신우철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6년도 Pre대회에서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몇 번 강조했던 부분은 28년 본대회라 하더라도 그보다 더 가치가 있고 필요한 게 26년 대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대회를 갖추는데는 해조류박람회 Pre대회 예비계획뿐 만이 아니고 장한상수상자가 세계에 나가 있는 이 사람들의 협조 요청을 또 받아야 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면 협조 요청을 받으므로 세계에 지금까지 거래하고 있는 바이어들을 우리 완도로 불러들이는 부분,

여기에다가 아까 IPCC에서 금년말에 인증을 받아놓으면 그 이후에 후속 조치에 관한 내용, 이게 어느 팀 안에서 갖춰 질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8년에 갖는 국제해조류박람회 본대회보다도 내년에 가질 Pre대회가 해조류박람회 Pre대회와 장한상수상자협의회 세계대회와 그다음에 블루카본 인증후에 우리 완도에 기본소득으로 작용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여러 문제, 그다음에 우리나라 수산물이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이런 것들이 지금 다섯 가지 정도의 중요한 것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이런 대회이다..... 이런 계획을 사실상 본대회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그런 부분이다..... 그런데 팀 가지고 되겠습니까? 여기에서보다도 구체적이고 그다음에 앞을 내다보고 준비를 해서, 그때 예비대회를 통해서 정말 수출상장 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수산물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면서도 앞으로 다가올 미래산업들에 대한 이런 것을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보면 보다도 구체적이고 더 세계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조직화된 그런 상태에서 일을 해나가야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현실로 다가올 수 있다고 이것을 성취해낼 수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

군수님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 조직을 보면 수출 상담 홍보를 하는 부서도 있고요. 또 이렇게 해양 바이오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도 있고, 또 시장개척, 장한상수상업무를 전부 다 보고 있거든요? 다 분산되어 있지 않습니까?

○군수 신우철

거기까지 제가 다 고려를 한 겁니다.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나만 예를 들더라도 해조류박람회를 개최하는데 과거에 해조류박람회를 개최한 목적, 해조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해조류에 대한 소비 촉진,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해외시장개척을 위한 것이 해조류박람회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2014년, 2017년도에 두 번 개최를 하면서 아쉬웠던 부분, 국제해조류박람회라고 하면 국제해조류박람회에 참여한 관람객들의 5%가 외국인이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 우리가 늘 아쉬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해외시장개척과 우리나라 수산물이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이런 동기부여를 갖는다면 지금의 조직 갖고는 어렵다. 그래서 이거를 모두 체계화된 그런 시스템하에서 개최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28년에 본대회를 두고도 그렇습니다. 28년에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국제대회는 완도에서 해야 된다는 그런 준칙이 성립되지 않는 사항. 그렇다면 '전라남도에 어떤 노력을 해야 할 것이냐? 그러니까 26년에 우리가 쐐기를 박자. 앞으로 해조류박람회와 관련해서는 다른 데서 넘보지 마라.' 이런 의지를 나타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26년도이다. 26년도에 개최하면서 단순한 해조류박람회에 그 목적과 더불어서 우리나라 수산물이 해외시장을 선점하는 문제, 또 블루카본 인증받은 후에 우리가 취해야 할 후속 조치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군민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홍보를 하고 때로는 중앙정부에도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기회로 삼자는데 Pre대회 목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런 조직을 꼭 필요로 해서 조직을 만든다고 하면 지금 현재 우리 군조직이 기능이 쇠퇴됐거나, 업무가 중복이 됐거나,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거기를 통폐합 한다던가? 축소를 해서, 과를 조직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조직들은 놔두면서 이렇게 신설한다 하니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완도군 정원이 23

명이 감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차피 정원충당도 해야 할 텐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어차피 읍면에서 또 파견이나 일정 보고 조치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읍면에 행정은 모든 것이 마비가 됩니다. 그랬을 때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 따르는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한다. 그것도 '검토를 좀 해주십사' 생각이 듭니다.

○군수 신우철

우리 박 위원님께서 인사업무를 봤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지금 조직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할 때 몇 사람이 참여를 할 것 같습니까? 읍·면에서 차출하고 여기서 차출하고 업무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그런 조직을 만들겠습니까? 옛날에 인사를 담당해 보셨으니까 지금 구상을 한다고 해서 그런 지장이 있을 것 같습니까? 그건 충분히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예. 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선

최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욱 위원

군수님 우리 의회까지 와서 직접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자체장으로서 당연히 앞으로 우리 완도군의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추진하는 것은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하는데 다만 군수님의 했던 말은 그전에 우리 행정 실장님이 해서 다 알고 있고, 또 우리 박병수 위원님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저는 서론 다 빼고 핵심을 말씀드리면 밖에서 보거나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게 첫 번째는 자리 하나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고, 두 번째는 내년에 지자체장이 바뀜으로써 이렇게 해놨을 때 그 사람이 하는 역할이 또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큰 틀에서 보자면 두 가지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지금 우리가 팀은 얼마든지 짜서 여기 사업하는데 어려움 없이 하게끔 우리가 얼마든지 지원을 하되, 과만큼은 고려를 하는 게 좋지 않은 이유는 과 하나가 생김으로 인한 어떤 방금 말했던 자리를 만드는 것에 대한 의구심이 깔려있다 보니까 자꾸 다른 말도 나오고 하는데 그것이 주로 많이 깔려있거든요? 이거는 감추고 말고 할 것이 없이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군수 신우철

예. 충분히 그런 기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겠죠? '본대회는 28년인데 예비하는데 무슨 과 단위 조직이 필요하냐? 그때 가서 하면 되지' 이 Pre대회 성격을 단순한 예비대회로 보니까 충분히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군민들에게 지금 Pre대회 때 이와 같이 세계한상수상자 협의회, 세계대회가 여기에서 열리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수산물이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고 우리 해조류가 블루카본 인증을 받은 후에 이와 같은 환경이 우리한테 주어지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충분히 설명해 드렸다면 그런 염려나 기우가 없으셨겠죠. 그러나 우리의 홍보에 문제가 있다. 이건 솔직히 우리가 인정을 하고 그러나 본대회에 보다 더 준비하는 대회가 바로 예비대회다. 그리고 26년에 지자체장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 필요합니다. 이 중요성을 못 느낀 사람이 어떻게 28년에 가서 그런 것을 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26년에 우리나라에 해조류를 비롯한 수산물이 세계시장에 선점 하는데 그다음에 해조류박람회를 꾸준히 완도에서 개최하도록 이것은 당위성을 확보하는데, 그러면서도 블루카본으로 인증 받게 된 후에 기본소득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데 중요하다. 라고 기초를 닦아놓으면 다음에 누가 되더라도 닦아놓은 기초를 무시하고 갈 수

는 없는 거 아닙니까? 지역민들한테 소득과 연결되는 저는 그런 측면에서도 이번 대회가 본대회보다 더 가치 있는 꼭 필요한 그런 대회라고 생각합니다.

○최정욱 위원

예. 군수님 또 이렇게 함으로써 "선점을 먼저 하자." 그 취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군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감으로 해서 확실히 2028년도에 축제를 우리 완도가 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까?

○군수 신우철

그렇습니다. 예비대회를 통해서 제가 지금 궁리하고 있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국제행사를 받아봤기 때문에 그렇죠. 국제행사를 받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Pre대회, 예비대회라고 붙인 이유도 그 해조류박람회 해놓고 하면 되는데 왜 국제해조류박람회 Pre대회라고 하느냐? 예비성격을 갖고, 본대회는 '반드시 완도라야 된다.' 는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대신에 이 기간 동안에 보여줌으로써 다른 데서 흉내를 못 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조류박람회도 해수부와 충분히 논의를 해서 "우리나라 해양박물관은 있지만 수산박물관은 없다. 그러니 수산에 중심지인 완도에서 수산박물관이 생겨야 한다"고 하니까 해수부도 OK. 그렇다면 완도에 필요성을 느낀다고 해서 왔는데 전라남도에서 이제 우리가 하겠다고 하니까 8개의 지자체가 막 달려들었던 경험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뭘 하고 있느냐? 이거는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게 좋은데 여론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설문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의 방법입니다. 설문조사를 해서 해조류박람회는 완도로 가야한다는 것을 이끌어 내는 것처럼 단계적으로 스텝바이스텝으로 단계적으로 하고 있어서 26년 Pre대회 개최 후에 지켜보십시오. 틀림없습니다. 완도로 반드시 갖고 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최정욱 위원

군수님 행정의 장으로서 입장과 의회 즉 우리는 감시 견제하는 기관이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런 질문도 하고 염려도 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의회도 뒤로는 의원들의 책임도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군수 신우철

절대로 여러 가지 계획들이 들어있습니다.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기회를 주시면 아주 멋진 결과를 도출해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선

또 질의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조인호 의원님 말씀 하십시오.

○조인호 위원

군수님이 바쁜 시간을 내서 위원회를 참석하셨는데 우리가 Pre대회를 한다고 군수님 축사를 하실 때마다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 와서 처음부터 군수님 간담회를 한다든지 티타임으로 자세히 설명을 하고 나서 그런 부분을 했으면 더 쉽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가져보고요. 앞으로 군수님이 내년 6월이면 할 일이 끝납니다마는 또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 신우철

그 부분은..... 그런데 오늘 참 느끼는 게 자꾸 그만둔다. 그만둔다고 하시는데 (웃음) 그러니까 우리는 더 열심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 중요성을 느끼고 이것은 지속가능하게 끌고 가야만 될 것이라는 의지를 풍길 수 있도록 내년 계획이 더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더 큰 규모인 조직을 가지면서 미래지향적인 그런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이것은 제 의지도 의지이지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인호 위원

이왕 이렇게 하기로 군수님 생각을 하셨으면은 최선을 다해서 행사를 잘해야 다음 우리 완도군의 미래가 밝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멀리 보시고 이 부분을 우리 담당 과장이 책임감을 가지고 특히 직원들이 합산이 되어야 합니다. 직원들은 또 먼 산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교육부터 시켜서 Pre박람회가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선

예. 조영식 의원님.

○조영식 위원

지난 3년 동안 군수님이 소회의실에 오셔서 이런 자리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초선이라 그런가 반갑습니다. 설명도 잘 들었고요. 몇 월쯤 Pre 박람회를 개최하실 예정입니까?

○군수 신우철

5월달.....

○조영식 위원

5월달이요. 군수님 임기 내에 있는 거죠? 6월까지 임기니까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입장인데요. 어제 우리 행정지원과장에게 인원 충원 없이 파견, 차출 없이 인원 충원한다는 답도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염려스러운 것은 어제 본회의장에서 의원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중심 무게를 두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몇 시간 만에 여기에 올라와서 물론 정례회에 조직개편 조례안이 미리 상정이 올라와 있었겠지만 차후에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그게 절차적인 문제를 이야기를 했어요. 왜 공고를 20일 하게 되었는데 2주만 하고 이런 절차적인 문제 그것도 충분히 인정을 했습니다. 적어도 이쯤이 되면 의원 5분 자유발언에 무게감을 주고 절차적인 문제를 지켜 되지 않겠냐? 다른 것은 행정의 뜻대로 하시되 그렇게 갑자기 의원님이 소신이 있게 5분 자유발언을 했는데 불과 몇 시간 만에 논의가 되면서 여기서 완도 라이브 신문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절차적인 문제, 5분 자유발언은 문제가 없다. 이제는 행정에서 답을 할 때이다." 이렇게 했는데 바로 오늘 신문에 나왔는데 오늘 오후에 이 자리가 마련되었고 만약에 행정의 뜻대로 분위기가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는 제가 염려하고 싶은 것은 5분 자유발언이 그냥 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시간을 갖고 절차적인 문제를 이야기했으면 거기에서 대해서 절차를 따라주면 오해되는 부분들도 또 우리가 속된 말로 스무스하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5분 발언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안 지켜진다면 절차를 무시하고 안 지켜진다면 그래서 제가 이 이 자리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꼭 7월 1일 자로 해야 하냐? 다음 7월달 임시회 때 하면 어떤가 하고, 7월 1일자로 못을 박아놓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을 해서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이런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을 헛되이 듣거나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무게중심을 여기에 두고 싶습니다.

○군수 신우철

예. 의원님들의 말씀대로 중요시 되어야 하고 또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것을 신속하게 받아들이고 거기에 알맞은 절차를 이행해야 된다는데는 공감합니다. 다만 7월 1일 자를 이야기했던 것은 이게 조직개편안은 조직의 인사가 뒷받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한이 그렇게 나온 것이니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조영식 위원

군수님 이 조례안이 꼭 이번 정례회 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군수 신우철

인사가 중간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조영식 위원

아니. 8월 1일 자로 신설하는 부서 아닙니까?

○군수 신우철
이런 게 있습니다. 인사를 한 자리를 하면 여러 자리가 같이 움직여야 하지 않습니까?
○조영식 위원
그래서……
○군수 신우철
그래서 정기인사 때 맞춰서 해야 합리적인 인사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조영식 위원
합리적인 인사 공감합니다. 그래서 방금 최정욱 위원님이 말씀했던 이런 뉘앙스가 풍긴다는 거죠. 절차도 지키지 않고 이 자리에서 갑자기 통과되면 다 짜놓은 각본대로 해놓고 올려서 또 하물며 본회의장에서 의원이 5분 자유발언까지 해서 절차상의 문제를 지켰는데, 그거를 하지 않고 7월에 바로 인사를 짜놓고 하는 느낌을 의원들도 지울 수가 없는데 군민들도 지울 수 없다는 거죠.
○군수 신우철
7월에 인사를 짜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다만 이 조직개편안이 마련된 후에 인사를 하더라도 한 사람을 움직이려면 여러 사람이 같이 움직여야 하는데 인사특성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왕이면 조직개편을 그 전에 마련해서 정기인사 때 가버리면 훨씬 합리적인 인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짜놓고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짤 수도 없는 게 인사검토도 안 하고 있는 상황에……
○조영식 위원
그런 느낌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이 최정욱 의원님과 우리 의원들의……
○군수 신우철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와 집행부 간에 발 빠른 소통이 됐으면 의원님들께서도 이런 의문점을 안 가질 수 있었을 텐데 그건 아쉽게 생각합니다.
○조영식 위원
그럼 완도 라이브에서 쓴 "이제는 행정에서 답할 차례다." 라고 하면 이게 이대로 끝나면 모든 답이 될까요?
○군수 신우철
거기서 그런 것이 있어서는 아니지만, 제가 요청을 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현직 군수의 강한 의지를 들어볼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기회를 주신 거고, 저도 여러분들한테 소상히 설명해 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쪽에 가야 옳을 것 같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조영식 위원
사설에 썼던 답은 충분히 군수님의 답은 의원들이나 이 자리에서 소회의실에서 충분히 답이 됐습니다. "이제 행정에서 답할 차례다." 고 하면 그 뜻은 지금의 의회가 이게 답을 이대로 돼버린다면 의회는 어떤 거예요? 나는 혼돈이 오는데, 이 자리에서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의회는 식물의회 아닌가요? 5분 자유발언에서 절차를 가지고 논의를 했는데 이 절차를 준하지 않고, 이걸 그대로 군수님이 와서 설명 듣고 행동이 취해진다면 이것 또한 의회를 상당히 제가 지금 격해 있어서 말도 제대로 안 나옵니다.
○군수 신우철
그만큼 또 얘기가 진행됐기 때문에 행정부 수장인 군수가 와서 의원님들께 더 자세하고 더 의지를 나타내는 그런 이야기를 해서 또 의원님들이 충분히 이해가 갔다면, 오히려 더 좋은 케이스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영식 위원
예. 잘 이해가 됐습니다.
○위원장 박재선
다른 의원님 또 계십니까?
군수님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의회와 행정과 소통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신우철
예. 그런 부분은 솔직히 동의하고요. 앞으로

우리 의회에 충분한 설명절차를 거쳐서 의원님들이 무엇이든 간에 의문점을 갖지 않도록 특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선

예.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조영식 위원

제가 마지막에 했던 말을 심사숙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마디 첨부합니다. 이대로 끝나면 다 통과시켜줄 거죠? 가부로 결정해야 됩니까? 거수로 결정해야 합니까?

○박병수 위원

가부로 결정해야죠.

○조영식 위원

저는 찬성합니다. 그러나 의회 자존심은 지켜나가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절차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 문제가 절차를 반드시 이행을 했을 때, 20일 공고를 해야 하는데 6일 해놓고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해주려면 우리 의회는 자존심을 좀 지키고 5분 자유발언을 의회 직원들이 써준 거를 읽는 것 밖에 되지 않습니까? 저는 왠지 모르게 자존심이 상했어요, 우리 의회에 대해서. 그래서 찬성을 해주면서도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신경 좀 써주시고 꼼꼼히 따져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선

예. 조인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인호 위원

5분 발언을 위원들이 해야 하는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어제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했는데 전문위원님, 이 조례안이 안 올라와야 돼요. 이것은 죽도 밥도 아닌 거에요. 5분 발언을 했는데 조례안이 올라오는 건 5분 발언을 하나 마나지.....

○전문위원 박영민

5분 발언을 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안건이 우리한테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조인호 위원

그러면 5분 발언을 의장이 다음 기회에 하시라고 하고 7월에 하게끔 유도를 해서 그런 역할들이 전혀 안 된 거예요. 장난도 아니고 조영식 의원이 하는 이야기가 맞아요. 의원들이 5분 발언을 했으면 논의를 안 해야죠. 다음 기회에 논의를 하자고 하든지. 그래야 언론에서도 의회가 제대로 지키고 있구나 하지..... 5분 발언을 해놓고 이걸 같이 해버리니까 의회도 뭣도 아니고 계속 언론사에서 자꾸 보도를 할 것이에요. 앞으로는 의장님이 안 계십니다마는 5분 발언을 무조건 하라는 것이 아니고 시기가 이러니까 다음 달에 한다든지 해야 하는데 그 조절이 안 된 거 같아요. 전문위원도 그렇고 앞으로는 좀 심사숙고 하세요.

○전문위원 박영민

예. 알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했던 것은 제가 완도신문을 봤어요. 신문을 보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구나' 해서 제가 준비를 한 것인데. 지금 이 시기에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아무 의미도 없어서 제가 그때 준비를 해서 한 것인데 어제 아침에 하고 바로 올라온 것 자체가 문제가 됐는데 그것도 어차피 먼저 접수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여기서 토론을 해서 우리가 부결할 것이냐? 통과를 시킬 것이냐? 그걸 결정하면 될 것 같아요.

○전문위원 박영민

그 부분은 여기서 논의를 하면 될 것 같습니

다.

○위원장 박재선

예. 최정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정욱 위원

솔직히 조영식 의원 말도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된 자체는 우리 의회의 어떤 권위를 우리가 스스로 내린 거와 같은데, 사실은 그때 우리가 이것도 군수님은 아예 부르지 않고 토론해서 결정을 했어야 되는데 군수님을 오게 한 것 자체부터가 군수님께 중요성을 이미 들었어요. 지자체장이 앞으로 우리 군에 대해서 어떤 비전을 발표하겠다고 본인이 직접 와서 했는데 또 우리가 그걸 반대하는 것은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함부로 부르는 게 아닌데 이미 불러서 군수님의 의지와 본인의 앞으로 축제에 대한 중요성 이런 걸 본인이 직접 말했고 우리가 문제점을 다 지적한 것도 본인이 다 감수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른 이상, 여기에 세웠진 이상, 저는 이미 마음을 비웠습니다. 그래서 해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재선

박성규 의원은 어떻습니까?

○조인호 위원

제가 먼저 말씀하겠습니다. 박병수 의원님도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했는데 이거는 동료들이 이렇게 해서 해야 하는데 이 시점이 좀 엇박자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왕 이렇게 됐으니까 축제 잘하게끔 해서 우리가 잘 감시하고 격려해서 잘하게끔 하는 것이 계획적인 의회라고 생각합니다.

○허궁희 위원

제 의견은 앞에서 좋은 말씀을 다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할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지금 오늘 이렇게 벌어진 일은 우리가 뭔가 우리 의회 스스로 미숙함이 있었어요.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접수가 됐으면 5분 자유발언은 다음에 한다든지 미뤘어야 해요. 우리 전문위원님들과 과장님들도 그걸 인정을 해야 해요. 왜 그러냐면 그것만 안 했다면 설명을 안 들어도 좋고, 들어도 좋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접수가 되고 나서 자유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 안에 잘못이 이루어지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오늘 대화를 하게 만들었고 이런 과정 전체가 잘못된 거에요. 우리 의회 스스로 좋은 기회로 삼고 앞으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해요. 어떤 일이 됐든 간에 작은 일이더라도. 그래서 우리 스스로 반성하기로 하고 지금 조영식 의원님이 대표로 어려워서 못할 이야기를 과감하게 이야기 해준 것에 대해서 저는 이 자리에서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가 우리 스스로가 못한 것은 누구 탓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 스스로 반성하는 기회를 가지고 대다수는 행사를 잘 치르게 해보자는 취지로 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거수했단 것도 어리석은 자리인 것 같고 잘 심도 있게 해서 마무리 해줬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민 위원

저는 한마디로 말해서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군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군수님의 생각을 들어보고자 의회로 오셨잖아요. 그런데 내년에 Pre대회가 더 가치가 있고 필요한 대회라고 했는데 그래서 인력이 더 필요하다고 했는데 예전에 2017년도나 국제해조류박람회를 치렀을 때도 TF팀이나 조직위원회가 있었고 또 지금 팀의 제한된 인원도 없고 얼마든지 보충을 해서 이 팀을 꾸려갈 수가 있다고 했는데, 지금 내년에 치러지는 그 행사가 솔직히 눈에 보이지도 않고 어떻게 치러질지도 모르겠고 그 평가가 또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겠고 잘 치러지면 좋겠지만, 잘 치러지는 것에 대해서는 다 똑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그 평가가 이뤄지는 다음에 국제박람회가 완도에서 해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나올 건데 또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건 내년에 우리 지자체장이 바뀔 수 있잖아요. 그분들의 의지와 이런 부분과 많이 상관이 될 것 같아서 저는 그냥 팀의 인원을 좀 많이 보충을 해서 충분하게 잘할 수 있는, 또 한편으로 듣기로는 '과를 안 만들어주면 열심히 안 하겠다.' 이런 생각도 좀 보였었거든요? 공무원분들께서 하려고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잘할 수 있잖아요. 과를 만드는 것보다는 팀 보충을 많이 하면 안 될까? 과를 만들어 놓은 것보다는 만약에 이게 안 되면 또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러면 내년에 더 좋은 가치가 있고 필요한 대회를 만들어 놓고 나서 그 후에 박람회 기간까지 1년 몇 개월 정도의 기간이 있죠? 그 기간에 미리 이 행사를 멋지게 했는데 그 기간에 기존에 있었던 것을 그대로 조금 더 보충해서 할 수 있을 거잖아요. 별로 할 일도 없을 것 같고 비슷하게 해가니까 그래서 저는 반대입니다.

○위원장 박재선

박성규 의원님은요?

○박성규 위원

사실은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군수님께서도 오셔서 자기 입장을 충분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사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리가 복잡합니다. 따지고 보면 박람회를 몇 번 해봤는데 우리 수산물하고 연관이 별로 없더라고요. 다시마값이 좋거나, 미역값이 좋거나, 김값이 좋거나, 전복값이 좋거나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아무쪼록 한다고 하니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동의를 해줬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재선

박병수 의원님은요?

○박병수 위원

저는 이미 말씀을 다 드렸고 동료 의원님들도 말씀 해주셨지만 저는 어차피 제가 이것을 제안을 했기 때문에 저는 조건부로 승인을 했으면 좋겠다. 팀으로. 과 신설이 아닌 조건부 승인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가능한가요?

○전문위원 박영민

예를 들어 팀으로 하게 되면 단체장 고유의 사항이라 의회의결 동의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만약에 의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은 부결하는 거로 해야 합니다.

○박병수 위원

저는 부동의입니다.

○조영식 위원

제가 염려스러워서 "시기를 꼭 정례회 때 해야 하느냐……다음 임시회 때 해도 괜찮지 않느냐?"라고 여쭤봤는데 정례인사 때 해야 한다고 답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 자꾸 염려스러운 걸 말씀을 드리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선거직이라 내년 지방선거에 자율적인 분은 한 분도 없어요. 이번에 해줘서 책임도 같이 지면 되는 거고 잘못됐을 때 책임도 같이 지고 잘했을 때 박수가 올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되는 거지 내년 지방선거에 새로운 군수, 새로운 군의원, 그 이야기를 저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까지는 책임에 따른 한계이니까 분명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있을 것이고 그 책임을 지면 됩니다. 그것뿐이지, 내년 지방선거는 아마 생각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여기 이 자리에 내년에 또 오실 분도 계시고, 안 오실 분도 계시지만 그분들이 또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5월에 열린다고 하니 지금 얼마 남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와신상담하니까 미리 찬성해놓고 여러 가지를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각자 부결, 가결 마음을 정해서 할 것이고, 하나 더 염려스러운 것은 서로의 잘못, 잘잘못을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 의회에서는 당연히 의회직이고, 의회 근무하시는 공직자 되시는 분들은 5분 자유발언 본회의장이 있을 것이 먼저고 조례안이 올라온

것은 중간에 중첩이 되어 있으면 중간에 충분히 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을 거다. 짧지만 그래서 누구 책임도 아니고 앞으로 마음의 중심을 갖고 책임감을 갖고 일해주시고 의원님 입장에서는 5분 자유발언이 본회의장에 있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저는 과감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박영민

의원님 저희도 직원 입장에서는 절차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조율이 안되면 찬성 반대를 표결을 할 수 밖에 없는데 지금은 행안위 위원만 표결을 할 수 있고 나머지 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본회의장에서 관련 법상 지방의회 의장이 안건을 상정하거나 일반의원님 찬성 3분의 1 이상으로 부결된 안건을 다시 상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절차적인 부분입니다. 다만 기존에 있는 절차적인 부분이 있었으므로 이제 의원님들끼리 이견 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를 이뤄서 통일된 답안을 도출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재선

저희가 이것을 절차상을 밟으면 똑같은 입장이 될 거고 행자위에서 이것을 투표를 하고 또 여기서 잘못되면 본회의장에서 하고 이런 것은 저는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안에서 저희들이 해결을 해야지 박병수 위원님하고 지민 위원님께서는 반대하는 표가 나왔고, 나머지 위원님들은 찬성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여기서 해결하는 것이 맞지 전체 있는 데서..... 그래서 욕을 얻어먹어도 같이 먹고, 칭찬을 받아도 같이 받아야 맞지..... 각자 나뉘면 되겠습니까?

지민 위원님과 박병수 위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박병수 위원

부동의로 하세요.

○위원장 박재선

우리가 여기서 부결을 해주던 가결을 해주던 결정을 해줘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다시 또 정례회기간 13일인데 또 열려서 다시 해야 하거든요. 또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어차피 똑같은 내용이면 여기서 마무리하는데 낫지 않을까요?

○지민 위원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막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재선

박병수 의원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해줄 땐 해주고 질타할 땐 질타하고.

○조영식 위원

나도 솔직히 반대한다고 처음부터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지자체장을 여기에 세워놓고 그 분이 적극적으로 “군을 위해서 한다.” 라고까지 다 했는데 그걸 우리가 “안돼” 라고 하기가 불러서 세운 자체가 이미 그때부터 당연한 데다 “책임지겠다. 끝까지 자기가 가겠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반대해서 잘못되면 의회가 안 해줘서 또 그랬다고 할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원래가 지자체장을 세울 때는 함부로 세운 것이 아닌데 그런 것도 감안해야 됩니다.

○지민 위원

요청사항에 월 별 보고를 해달라고.....

○위원장 박재선

아까 얘기했듯이 행정지원과 뿐만이 아니고 모든 과들이 전부 우리의회에 필요한 보고를 소통을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최정욱 위원

원래 우리가 조직개편을 하면 항상 몇 개월 전부터 하라고 몇 년 전부터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꼭 닥쳐서 이렇게 해요.

○박병수 위원

지금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행정감사는 자료

가 있지만 군정 질문, 제안 답변 이런 것은 주민자치 위원회와 관련해 민생 회복지원금과 관련해 답이 없으니까 우리 완도군 행정이 의회를 얼마나 무시를 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직접 반성해야 합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회기가 끝나면 끝난 거예요.

○조영식 위원

그건 우리 의회 의원들이 반성해야 될 것이죠. 우리가 부족하니까 그런 거지 우리가 제대로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조인호 위원

만약에 자료를 제출을 않으면 우리 전문위원들도 다 있으니까 전문위원들 하면 되지.

○전문위원 박영민

저희 직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챙기고 있는데 아마 몇 가지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조영식 위원

위원장님. 잠깐 산회해서 각자 이야기를 하고 한다던가 이런 논의를 해보시죠? .

○위원장 박재선

박병수 의원님만 말씀해 주십시오.

○박병수 위원

저는 부동의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알아서 하십시오.

○위원장 박재선

예. 나머지 의원님들은 그대로 하시는 거죠? 그럼 가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완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완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완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완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재선

지금 현재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수정안대로.

○전문위원 박영민

위원님 죄송한데 수정안이 최종적으로 행정지원과와 협의를 해서 의회 정원을 한 사람 더 늘리기로 하고 본청직원 한 사람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재선

따로 별칙2를 보면 수정안대로 이렇게 가결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완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산회)

○출석위원(8인)

박재선　박성규　지　민

박병수　조인호　최정욱
허궁희　조영식

○출석공무원

완도 군수　신우철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 **전문위원** : 박영민

○ **속 기 사** : 임은주

제330회 완도군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6월 9일(월)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완도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완도군 산불 방지 및 지원 조례안
3. 완도군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완도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 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완도군 보길도 윤선도원림 관람료 징수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완도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전남 어촌지역 시장군수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
8. 완도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완도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완도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지민 의원 발의)
2. 완도군 산불 방지 및 지원 조례안(허궁희 의원 발의)
3. 완도군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4. 완도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 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5. 완도군 보길도 윤선도원림 관람료 징수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6. 완도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7. 전남 어촌지역 시장군수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완도군수 제출)
8. 완도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9. 완도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4시05분 개의)

○위원장 박병수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완도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이 되겠습니다.

---

1. 완도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지민 의원 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완도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지민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 위원

지민 의원입니다. 완도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원 낭비를 줄이고 환경을 보존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및 탄소 중립 실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 군수 및 사업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을,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재정 지원 및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미

완도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 및 민간에서 활용되는 현수막을 친환경 소재로 사용을 촉진하고 사용 이후 발생되는 폐현수막 재활용을 지속적으로 장려하여 탄소 중립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지민 의원님의 제안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유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도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완도군 산불 방지 및 지원 조례안(허궁희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도군 산불 방지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 결정 제2항의 서류를 검토해 주시고 허궁희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궁희 위원

허궁희 위원입니다. 완도군 산불 방지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완도군 산불 방지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불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산불 방지 대책 수립을,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산불 방지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미

완도군 산불 방지 및 지원 조례안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도군 산림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고 효율적인 예방과 진화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허궁희 위원님의 제안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산불 방지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궁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수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의 축조심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완도군 산불 방지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완도군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4. 완도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 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도군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완도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 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결정 제3항의 서류를 검토해 주시고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정국

경제교통과장 이정국입니다. 의안번호 제3428호 완도군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 인감증명서 요구 사

무 전수조사 및 감축 계획에 따라 구비 서류로 인감 증명서를 제출하는 조문을 정비하여 민원인의 서류 제출을 최소화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본 조례안 제4조제1항제3호에서는 현재 사용하지 않는 민원서류 명칭에 대하여 정비하였고, 제4조제1항제5호 및 별지 제1호 서식에서는 법인이 아닌 사업자의 경우 인감 증명서 대신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미

완도군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따른 용어 정비와 행정안전부 인감 증명서 감축 계획에 따른 구비 서류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이정국 경제교통과장의 제안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 제4항의 서류를 검토해 주시고, 경제교통과장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정국

이어서 의안번호 제3428호 완도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 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으로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 사업자와 특별 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택시 운수 종사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본 조례 제5조제5항의 경우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특별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고, 제22조에 교육내용에 관한 사항은 교통이동 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 교통약자 서비스에 관한 교육, 성폭력 예방교육에 대해서 교육기관 의뢰 및 실시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미

완도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과 관련된 위원회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이종국 경제교통과장의 제안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 교통 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의 방법 중 특별 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에게 실시하는 성폭력 예방 교육은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라 대면에 의한 교육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 의견과 같이 조례안 제22조 제2항에 단서 조항을 신설하도록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해 축조심사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유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결정 제3항 완도군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유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도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 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검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 완도군 보길도 윤선도원림 관람료 징수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도군 보길도 윤선도원림 관람료 징수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 제5항의 서류를 검토해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문화예술과장 한지영입니다. 의안번호 제3430호 완도군 보길도 윤선도원림 관람료 징수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 관련 법령과 자치법규 간 용어를 통일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 법령, 즉 장애인 복지법 등 규정에 따라 장애인 수첩을 장애인 등록증으로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보길도 윤선도원림 관람료 징수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미

완도군 보길도 윤선도원림 관람료 징수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관련 자치법규 정비 권고 사항에 따라 상위 법령과 용어가 일치하도록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한지영 문화예술과장의 제안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 상위 법령에 근거한 용어 정비는 타당하지만 본 조례안의 근거 법령이 문화재보호법에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2024년 5월 17일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안 제1조와 제3조의 인용 상위 법령을 배부해 드린 검토 의견과 같이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보길도 윤선도원림 관람료 징수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축조심사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 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완도군 보길도 윤선도원림 관람료 징수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검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유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6. 완도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도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 제6항의 서류를 검토해 주시고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최광윤

체육진흥과장 최광윤입니다. 의안번호 제3431호 완도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수선수 전출 방지와 신규 우수선수 영입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고 타 지자체와 선수 연봉차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여 선수들의 사기 진작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안 별표1 등급 산정 기준을 5등급에서 6등급으로 변경하여 등급 차이를 명확히 하고, 별표2 연봉 심의 범위를 인상 조정하였습니다.

전국체전 이상의 경기에 출전하여 상위 입상 선수에 대하여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고, 별표3 명절수당, 별표4 숙박비, 별표5 포상금 지급 기준에서 기타 국제대회 및 전국체전, 전국체육대회의 포상금을 표와 같이 각각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6조 제2항에서 단서를 신설하여 위촉직 위원일 경우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

부칙으로 별표2 연봉의 심의 범위 개정 규정은 25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청 직장운동 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미

완도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도군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선수 등급을 체계화하고 연봉 상한액을 인상하여 우수 선수 유지와 신규 인재 영입을 위해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최광훈 체육진흥과장의 제안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 타 시군 역도 실업팀에 비해 연봉과 수당 등이 열

악하여 선수 등급과 연봉 상한액 인상을 통해 우수 선수를 영입해야 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지만 부칙 제2조 적용 내에서 별표의 연봉의 심의 범위만 소급 적용을 하였으나 배부해 드린 검토 의견과 같이 별표1 단원의 등급 산정 기준도 함께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완도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검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7. 전남 어촌지역 시장군수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남 어촌지역 시장군수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 제7항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해양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해양정책과장 김현란입니다. 의안번호 제3434번 전남 어촌지역 시장군수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입니다. 전라남도 내 어촌 특성을 가진 16개 시·군간 연대와 협력을 통해 어촌지역의 현안상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해 공동협의 처리하는 전남 어촌지역 시장군수협의회가 설립되어 지속적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2025년 상반기 본회의 정례회의에서 어 전남 어촌 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폐지 동의안이 전체 회원 시군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77조에 의거 협의회 폐지 시 관계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전남 어촌지역 시장군수협의회 폐지를 보고드립니다.

향후 계획은 협의회 폐지 고시 절차 이행 이후 기존 지자체별 지급했던 분담금의 잔액을 지자체별 균등 배분 후에 세입 조치 예정입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양정책과 소관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본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정책과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전남 어촌지역 시장군수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에 대해서는 의결 대상이 아니므로 보고로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

8. 완도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완도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 제8항의 서류를 검토해 주시고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진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432호 완도군 건축물 관리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장애인 관련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의 정비 계획과 관련하여 자치법규의 원활한 집행과 법령, 자치법규 간 용어 통일을 위해 상위 법령의 대처용어로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 법령 규정에 따른 용어 정비가 필요하여 안 제2조 제3호 항목의 신체 장애자용이라는 용어를 신체 장애인용이라는 대처용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완도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미

완도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관련 자치법규 정비 권고 사항에 따라 상위 법령과 용어가 일치하도록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김진원 건설과장의 제안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완도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검토한 원안대로 가결하였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9. 완도군 재난관리기금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완도군 재난관리기금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 제9항의 서류를 검토해 주시고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홍용

안전총괄과장 이홍용입니다. 의안번호 제3433호 완도군 재난관리기금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최근 재난에 대한 안전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재난안전관리기금 심의위원회 자

격 요건 등을 개정하고, 조직 개편에 따른 현행과 맞지 않는 조항을 일부 수정하여 내실 있는 재난관리기금을 운용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긴급 대응이 아닌 사전 예방이 가능토록 개정하였고, 심의위원회의 인원 수를 10명 이하로 지정하였으며, 심의위원의 자격을 기금 및 재난 업무와 관련한 부서의 장, 그리고 기금 등의 재정에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또 방제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로 자격 요건을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리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미

완도군 재난관리기금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금의 용도를 재난 예방에 대한 조치가 가능토록 개정하고 기금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기준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이홍용 안전총괄과장의 제안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재난관리기금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축조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완도군 재난관리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

○출석위원(8인)

박병수　박성규　지　민
박재선　조인호　최정욱
허궁희　조영식

○출석공무원

경제교통과장	이정국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체육진흥과장	최광윤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건설과장	김진원
안전총괄과장	이홍

○ 전문위원 : 최영미

○ 속 기 사 : 정현중

회 의 록 서 명

(제330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지방자치법」 제84조제2항 및 「완도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서명함.

직 위	성 명	서 명	비 고
의 장	김 양 훈		
서명의원	조 인 호		
서명의원	조 영 식		
사무과장	최 영 미		

제331회 완도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31회 완도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개회식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7월 14일(월) 오전 10시 개식

장 소 본회의장

제331회 완도군의회(임시회) 개회식순

1. 개식
2. 국기에 대한 경례
3. 애국가 제창
4.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5. 폐식

(사회 : 의사운영팀장 서을식)

(10시00분 개식)

○의사운영팀장 서을식

안녕하십니까? 의사운영팀장 서을식입니다.

지금부터 제331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자리에 앉은 채로 예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이어서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반주에 맞춰 1절을 힘차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다음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김양훈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김양훈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신우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무더위로 지치기 쉬운 계절인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

습니다. 제9대 후반기 의회가 출범한 지도 어느덧 1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완도군의회는 '군민이 신뢰하는 든든한 의회'를 목표로, 군민 곁에서 소통하며 대의기관으로서의 막중한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또한 군민의 안전과 복지 향상을 위해 예산을 확보하고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함께 노력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임기 동안에도 의원님들과 함께 초심으로 돌아가, 늘 그래왔듯이 군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국제슬로시티연맹 시장총회'와'청해진유적 학술회의'가 불안정한 날씨에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국제슬로시티연맹 회원 도시들과의 교류가 활발히 이뤄졌고, 슬로시티 운동의 가치 확산은 물론, 완도군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글로벌 위상 제고에 큰 발판이 되었습니다.

특히 완도가 가진 해양치유와 문화자원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국제행사 준비에 애써주신 신우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주말 해수욕장 개장에 맞춰 개최된 맨발걷기 축제와 해양치유 크로스핏 대회, 치맥 페스티벌 역시 군민과 관광객들의 큰 호응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함께 애써주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해수욕장 개장 기간동안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한편, 7월 1일자로 단행된 조직개편과 정기인사 이후 직원들의 불만과 사기 저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신뢰받는 조직 운영을 위해서는 예측 가능한 공정한 인사 원칙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합니다. 불신을 키우는 인사는 곧 완도군 행정의 동력을 떨어뜨리고 그 피해는 온전히 군민들에게 돌아갑니다. 집행부는 직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인사의 기준과 절차를 더욱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양치유관리공단 노동조합 출범이라는 중대한 변화도 있었습니다. 완도군의 전략산업으로 시작한 공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노동조합이 출범하게 된 배경을 가볍게 보지 마시고, 조합과 진정성 있는 협력 속에서 공단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오는 8월 8일 '제6회 섬의 날' 행사 개최를 앞두고 있습니다. 완도군이 보유한 섬의 가치와 중요성을 넘어 완도군을 널리 알리는 좋은 기회인만큼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제331회 임시회에서는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민생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심의 안건과 실적보고를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계획한 사업들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무더위가 유난히도 기승을 부리는 7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예방은 물론, 섬지역 식수대책과 농·수·축산업 등 각 분야별 피해 예방에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도군의회도 무더위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어르신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고,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각 분야에서 더욱 힘

을 보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운영팀장 서을식

이상으로 제331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0시04분 폐식)

제331회 완도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7월 14일(월) 10시00분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박재선)
▣ 5분 자유발언(박병수)
1. 제331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이재명 정부 국정철학 실현을 위한 완도군 지역공약 국정 반영 건의안
5. 군정 질문 및 답변(답변: 부군수)
6.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청취의 건
 ㅇ기획예산실(18)
 ㅇ인구일자리정책실(21)
 ㅇ관광실(25)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박재선)
- 완도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안
▣ 5분 자유발언(박병수)
- 완도군 관광실 개편에 따른 기대와 당부
1. 제331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지민 의원 외 8명 발의)
4. 이재명 정부 국정철학 실현을 위한 완도군 지역공약 국정 반영 건의안(박성규 의원 외 8명 발의)
5. 군정 질문 및 답변(의장 제의)
- 답변: 부군수
6.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청취의 건
ㅇ기획예산실(18)
ㅇ인구일자리정책실(21)
ㅇ관광실(25)

(10시04분 개의)

○의장 김양훈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완도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박재선, 박병수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재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박재선)

○박재선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양훈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우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재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사회문제 중 하나인 지역소멸 위기 속에서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안”에 대해 5분 발언 하고자 하며, 발언기회를 주신 김양훈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마을공동체란 단순한 주민 모임이나 취미 활동의 집합체가 아닌 사람 간의 유대와 연대, 상호 돌봄의 가치를 바탕으로 지역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주민 스스로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주민 주도의 실천적 조직”입니다. 마을공동체가 붕괴되면 무관심, 고립, 고령화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이는 곧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마을공동체의 활성화는 단순한 지역 사업이 아닌 주민자치와 지속가능한 지역사회의 핵심 기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마을공동체는 마을 스스로 생활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면서 끈끈하게 형성되는 이웃의 관계망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그리고 생활인구, 유입인구가 점점 늘어나는 현 상황에서 낯선 분들이 마을에 안착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완도군도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공동체 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군은 전라남도에 의존한 단순 공모성 사업으로 취미성 활동, 공동체 간 교류부족, 단기성 · 일회성 프로젝트 등 많은 문제점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단순 공모성 행정을 통한 마을공동체 사업이 아닌 ‘얼마나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완도형 마을공동체를 만들어가냐’에 집중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마을공동체의 활성화을 위해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마을공동체의 성장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테마형 마을공동체 형성과 예산을 확대해야 합니다. 올해 완도군의 공동체 지원 예산은 13개소 7,200만 원입니다. 사업의 주체는 새마을회, 주민자치위원회, 청년회 등 기존에 구성된 마을단위 조직으로 사업비 대부분 활동비 지원으로 쓰여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활동비는 마을공동체의 본질적인 목적으로 쓰여지기 보다는 단순 소비성 예산으로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마을공동체에서는 주민들의 친목 도모를 위한 식사 모임이나 체험 활동에 지원금을 사용하는 사례가 다수입니다. 이는 공적 자금의 효율적 사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일회성 행사나 단기 프로젝트 위주의 활동도 많아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발전으로 이어지지 못합니다. 따라서 마을공동체의 성장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우리군 12개 읍면 마다 특색을 살린 테마형 마을을 조성하고 마을공동체에 대한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군 선도사업인 치유사업을 모티브로 웰니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치유형 마을은 은퇴자와 프리랜서, 유투버의 정착을 도울 것이고, 예술가 마을은 창작 공간과 공동체 문화를 조성해 예

술인의 거주를 유도하며 스마트 농수산 마을은 청년 농수산인과 귀농·귀촌 희망자의 유입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마을공동체의 사회적 자본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마을공동체는 단순한 주민 모임을 넘어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삶의 질을 만들어 가는 핵심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동체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면서 동시에 경제적 가치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를 들면 앞에서 제안했던 테마형 마을에 완도군의 특색있는 특산물을 활용한 비교적 가공하기 쉬운 가공식품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마을기업이나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변모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보조금에 의존하는 형태에서 벗어나 자립적이고 지속가능한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이며, 마을공동체 사업의 본질적인 목적일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활동은 지역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주민들의 일자리를 제공하며, 동시에 지역의 특색을 살린 상품으로 완도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현재 도시재생사업, 어촌뉴딜 등 보조사업으로 추진하여 관리가 되지 않은 건물이 마을 곳곳에 많습니다. 이곳에 마을공동체가 운영하는 소득사업으로 대체한다면 타지자체에 완도군의 매력을 알리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을공동체가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함으로써 모든 군민이 함께 성장하고 행복을 나누는 진정한 의미의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전문적인 마을활동가를 양성해야 합니다. 마을공동체의 성패는 '사람'에 달려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마을공동체 사업은 기존에 만들어진 대표자가 주민 자발성에 기반해 운영되지만 지속가능성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마을 활동가를 양성해 마을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해가고자 하는 노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민 스스로 마을의 10년, 50년, 100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과제를 찾고 활동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마을계획 수립 및 지원을 할 수 있는 마을활동가를 군에서 직접 양성하고 파견해야 합니다. 전문 마을활동가 양성은 단순한 직업 훈련이 아니라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핵심 인재 육성사업입니다. 완도군도 선제적으로 육성사업에 체계화하고 제도화 한다면 마을공동체의 성장과 자립형 지역사회, 활력 넘치는 농어촌이 실현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완도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마을공동체가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함께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단순한 복지적 이념을 넘어 창의적 노력이 어우러질 때 마을공동체는 성장하고 지역사회 전체의 회복력은 높아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완도군의회는 필요한 제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집행부에서도 본의원이 제안했던 사항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살아가는 것"을 다시 배우는 일, 그것이 마을공동체가 오늘날 우리 사회에 던지는 가장 근본적인 메시지입니다. 이러한 목소리가 우리 생활 주변 곳곳에서 실현되고 더 나은 완도군을 만들어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지지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양훈

박재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박병수)

○박병수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양훈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우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군외, 신지, 약산, 청산면을 지역구로 둔 박병수 의원입니다. 짧은 장마가 끝나고 연일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군민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이번 완도군의 관광실 확대개편을 맞아 관광산업의 중요성, 지역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새롭게 출범하는 관광실에 대한 기대와 당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발언기회를 주신 김양훈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7월 1일 완도군의 행정조직 개편으로 기존 관광과가 관광실로 확대개편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개편은 '관광이 곧 지역경제다'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관광을 통한 지역 활력 회복과 군민 소득 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반가운 변화입니다. 관선과 민선 지방자치제를 시행한 이후 수산업을 지역 경제의 핵심 산업으로 하는 완도군이 기존 5급 사무관이 맡아온 관광과를 4급 서기관이 맡는 관광실로 승격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할 것입니다. 관광과에서 관광실로 승격하면서 행정사무의 범위가 크게 바뀐 것은 아니지만 4급 서기관이 관리책임을 맡는다는 것은 완도군이 행정적 권한과 책임을 격상시켜 더 적극적으로 완도의 관광산업을 활성화시켜 나가겠다는 집행부의 의지라고 판단됩니다. 특히 초대 관광실장으로, 그동안 해양치유산업 추진 등 완도군 행정 내부에서도 신규사업 기획 경험과 실행 역량이 뛰어난 안환옥 실장이 부임한 것은 관광행정에 새로운 변화와 혁신의 계기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크게 기대를 하게 됩니다. 완도 관광은 올해 '완도 방문의 해'와 '완도 치유페이' 지원을 통해 관광경기를 부양하고 있지만 관광업에 종사하신 분들은 여전히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완도군의 관광실 출범을 적극 응원하면서 군민을 대신하여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관광실은 완도 관광산업을 바라보는 '인식'의 틀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실에서 추진하는 관광정책이 봄철 슬로걷기축제부터 장보고 수산물축제, 여름 해수욕장개장, 가을 빛 여행 등 단순히 축제나 이벤트성 기획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고 행사 기간에 지역 경기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인식에서 벗어나기 바랍니다. 이제 완도군에서 관광산업이야말로 수산업과 함께 완도경제를 이끌어가는 두 개의 수레바퀴 역할로 성장시켜 나가겠다는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은 이제 전복·김을 중심으로 하는 수산업과 함께 완도 지역경제의 견인차로 동반 성장시켜 나가겠다는 정책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둘째, 관광실은 관광산업의 기획과 시행과정에서도 전략적 변화가 필요합니다.앞으로 관광실은 기존 공모사업이나 관행적인 축제의 반복에서 벗어나 완도군 관광환경을 단단하게 구축하기 위한 전략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완도군에서 시행한 관광정책과 사업은 대부분 행정 중심, 그리고 예산을 통한 보조사업 중심으로 시행되다 보니 사업의 성과나 역량이 주민협의체나 지역 관광사업체에 남아있지 않고 대부분 일회성 사업으로 소진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군 보다 관광산업이 잘 시행되고 있는 시· 군들을 보면 정책과 제도, 예산도 좋지만 무엇보다 지역 안에서 관광사업체, 관광협의회, 주민협의체 그리고 관광산업을 지원하는

조직의 역량이 더 앞서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앞으로 관광실에서 신규사업이나 기존 사업을 시행할 때는 기존처럼 행정 중심의 일방적인 사업시행에서 벗어나 다소 더디더라도 지역관광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민간 중심의 정책 시행을 통해 사업 성과가 민간사업체의 역량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청산도 슬로걷기축제에서 주민들이 직접 주민관광청을 운영하고 주민들의 노력의 결과로 한국관광공사에서 시행하는 관광DMO로 성장해 나가는 것은 좋은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끝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관광실의 첫 업무는 군민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부터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도군의 관광산업이 쇠퇴하기 시작하면서 많은 군민들은 우려와 함께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완도군 관광행정과 소통하기 힘들었다고들 합니다. 결국 행정중심의 관광정책 수립과 시행이 오늘의 완도 관광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새롭게 시작하는 관광실의 첫 업무로 지역상가나 관광사업체를 찾아가 소통하면서 현재의 정확한 현황을 진단하고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완도 관광의 새로운 방향 모색을 위해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지역주민, 지역관광사업체, 관광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완도군민 관광 대토론회를 제안합니다. 이런 토론회야 말로 관광실이 군민들과 소통하며 완도의 새로운 관광행정의 변화와 혁신을 시작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제는 행정의 노력에 더해, 우리군민의 협조와 참여가 함께할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관광객을 친절히 맞이하고, 우리 지역의 자원을 자랑스럽게 알리며, 함께 깨끗한 관광환경을 만들어간다면 완도는 반드시 '가고 싶은 섬', '머무르고 싶은 도시'가 될 것입니다. 이번 관광실 확대 개편이 단순한 조직 변화에 그치지 않고,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관광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며, 본 의원 또한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양훈

박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에 대해 검토 후 제안사항은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진행사항은 해당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영미

의회사무과장 최영미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민 의회운영위원장님 외 7명의 의원님들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ㅊ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7월 7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위원회 회부사항입니다. 의원발의로 완도군의회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완도군수로부터 완도군 정책실명제 및 정책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박재선, 박병수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으며, 박병수 의원님의 군정 질문·답변 요구서가 제출되어 제1차 본회의에서 질문·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양훈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1. 제331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31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25년 7월 14일부터 7월 23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순서에 따라 지민 의원과 최정욱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지민 의원 외 8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439호의 서류를 검토해 주시고 의회운영위원회 지민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지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지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439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완도군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 군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 및 완도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양훈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지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이재명 정부 국정철학 실현을 위한 완도군 지역공약 국정 반영 건의안(박성규 의원 외 8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이재명 정부 국정철학 실현을 위한 완도군 지역공약 국정 반영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453호의 서류를 검토해 주시고 박성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신 후 건의안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규 의원

박성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452호, 이재명 정부 국정철학 실현을 위한 완도군 지역공약 국정 반영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완도군은 대한민국이 보유한 청정 해양자원이 밀집된 지역으로 해양치유·기후변화 대응·바이오산업 등 다양한 국가 전략사업의 거점이 될 수 있는 역량을 두루 갖추고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고령화와 인구유출, 의료·교통 인프라 부족 등으로 지역소멸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 현실 또한 부정할 수 없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최근 국정기획위원회가 5개년 국정운영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이재명 정부의 국정 방향에 우리군 5대 지역공약 과제가 반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국정철학 실현을 위한 완도군 지역공약 국정 반영 건의안

제21대 이재명 대통령 정부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회복과 성장', '선진국다운 가치관', '국민의 행복 추구'를 핵심 키워드로 국정운영 5개년 청사진을 그리고 있는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의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된 지금, 그 국정 비전에 완도군의 지역 전략과제들이 함께 반영되기를 기대하며 5만 군민들의 염원을 담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 이한주 위원장이 "정부는 이미 출발했고, 계획과 실천이 거꾸로 된 상황"이라며, "현장에 내려가 머리를 맞대는 국정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신 것처럼, 완도군의회는 이러한 철학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완도군은 바로 그 현장 중심형 국정운영의 대표적인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지역입니다.

완도군은 대한민국이 보유한 마지막 청정 해양자원이 밀집된 곳으로, 해양치유 산업, 해조류 기반 기후변화 대응 플랫폼, K-해양치유 융복합 허브, 해양바이오 클러스터, 남해안 관광 및 교통망 연계 등 다양한 국가전략 사업의 중심축이 될 수 있는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고령화, 인구유출, 응급의료 부족, 교통망 단절 등으로 인해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강조한 '경제 회복'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이 수도권에 국한되지 않고 지방 곳곳에서도 실현되기 위해서는 완도군과 같은 중소 해양도시에 대한 전략적인 국정 반영과 지원이 절실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5대 지역공약 과제를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해주시기를 정중히 건의 드립니다.

하나. '완도~고흥 해안관광도로 건설'입니다.

섬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성을 증진하고, 물류망 확충을 통해 해양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연륙·연도교 연결 사업입니다. 이 구간은 목포에서 부산까지 이어지는 남해안권 관광 · 물류축의 핵심 연결지점으로 영·호남을 잇는 동서 연계의 상징이자 국토균형발전의 대표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완도 경유) 서울~제주 고속철도 건설'입니다.

항공에 의존하던 제주 수송 한계를 극복하고, 수도권-호남-제주권을 연결하는 친환경 대중교통망을 구축함으로써 지역소멸 대응과 국토 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경제 효과 43조 원, 고용 창출 33만 명 이상으로 기대 효과가 매우 큽니다.

셋째. 'K-해조류 기반 기후변화 대응 플랫폼 구축'입니다.

해조류를 활용한 블루카본(Blue Carbon) 인증 체계 구축과 외해 양식어장 개발을 통해 탄소중립과 해양기후위기 대응이 가능한 플랫폼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특히 해상풍력 유휴공간을 활용한 외해양식은 어촌경제 회복과 해양환경 개선의 해법이 될 것입니다. 이를 체계적으로 연구·관리할 수 있는 국가 해양기후 연구기관 설립 또한 시급합니다.

넷째. '스마트 융복합 K-해양치유 허브 조성'입니다.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국민 건강증진, 복지비용 절감, 해양관광산업의 동시 발전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완도군은 이미 관련 자원과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국가 해양치유 거점으로서의 성장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이

는 연안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다섯째. ‘해조류 특화 해양바이오산업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국내 최대 해조류 생산지인 완도는 해양바이오 산업 원료 공급에 독보적 경쟁력을 지닌 지역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의약품, 식품, 화장품 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확장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이 시급하며,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청년 고용 확대와 지역소멸 위기 대응에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국회 시정연설에서 “경제 회복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진정한 경제 회복은 수도권뿐 아니라 지역이 함께 살아날 때 실현 가능합니다. 완도군은 해양, 수산, 바이오, 관광, 복지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정부 국정철학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현장입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60일의 국정기획위원회 활동 속에서도, 완도군이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대표 사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위 전략 과제들의 반영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7월 14일 완도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양훈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성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 군정 질문 및 답변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정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군정 질문 및 답변은 군정 현안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군민의 알권리를 실현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의사진행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고, 집행부 답변을 들은 후, 일문일답으로 보충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완도군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발언시간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고, 의제 외의 발언은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동일 의제에 대하여 2회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발언 횟수와 시간 범위 내에서 질문해 주시고 보충질문은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박병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군민이 신뢰하는 든든한 의회를 펼치고 계시는 김양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신우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병수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공직사회 내 갑질 논란과 인사 운영의 공정성, 나아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군정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공직사회 내에서의 갑질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닙니다. 이는 조직 문화의 병폐이며, 소수의 권한 남용이 다수의 사기를 저하시켜 조직 전체의 신뢰와 효율성을 해칩니다. 상명하복이라는 구조 속에서 발생하는 일방적인 지시는 정당한 의견 개진조차 위축시키며, 결국 창의성과 자율성의 부재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갑질로 인해 당사자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자존감의 손상을 겪게 되며, 이는 공직자로서의 사명감과 직무 수행 의욕을 떨어뜨립니다. 나아

가 이러한 문제는 지역사회 전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신뢰받는 공직자가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군정에 대한 신뢰가 생길 수 없으며, 군민의 참여와 협조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능력과 성과에 기반한 인사, 사적인 감정이나 줄 세우기식 인사에서 벗어나 객관적 기준과 합리적인 절차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누구나 노력하면 인정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조직문화를 건강하게 만들고, 군민에게 봉사하는 진정한 공직자의 길을 가능케 합니다. 그리고 일과 가정의 양립은 공직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 조직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육아와 가족 돌봄을 병행할 수 있는 유연한 근무제, 공정한 휴가 사용, 그리고 육아나 가족돌봄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다는 인식이 조직내부에 확고히 자리 잡아야 합니다. 그것이 실현되지 않을 경우, 조직 내 다양성 부족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뒤따르게 됩니다. 공정한 인사는 단순한 행정이 아니라 정의의 실현입니다. 우리 지역사회는 공정한 절차와 존중받는 문화 속에서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군정의 방향 또한, 사람 중심의 행정, 신뢰 기반의 조직, 그리고 지역민이 함께하는 소통 행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군정질문을 통해 완도군청 내 갑질 신고 여부와 결과, 갑질피해 예방을 위한 집행부 노력, 인사부서의 인사기준, 직원들의 인사상담 실적 및 반영사항, 완도군공무원노조와 인사 관련 협약사항을 묻고 싶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공직사회가 군민을 위한 최전선이고, 조직의 건강성 없이는 어떤 지역발전도 있을 수 없으며, 갑질 없는 조직·공정한 인사·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환경을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군정과 지역사회를 더욱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인식하고,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양훈

박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범우

박병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완도군 공직사회 내 갑질 근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완도군 직장 내 괴롭힘 현황입니다. 최근 완도군 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언론 보도 3건, 인사 상담 1건으로 총 4건을 인지하여 갑질 의혹에 대해 조사를 하였습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직원의 사실 확인에 따른 주요 내용은 상급자의 폭언, 인격 무시, 업무 간섭이나 업무 질책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거나 휴직을 고민하는 등 하위 직원을 대하는 상급자, 동료, 직원 간 존중받지 못한 잘못된 의사소통 방식에서 비롯되었다고 봅니다. 이에 따른 상세 내용은 답변서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1명 주의, 4명은 타 부서로 전부 조치하였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처리 절차는 피해자가 신고 또는 이를 인지하였을 때 피해자의 상담 등 사실 확인을 하고 이에 따라 당사자 간 분리 합의, 징계, 정식 조사 등 적절한 조치 절차 후 모니터링과 사후 관리를 통해 추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완도군 지창 내 괴롭힘 예방 노력 실적입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서약서, 징구, 갑질 사례, 반부패 교육 등 청렴 자기학습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장 내 갑질 예방 및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을 5급 이상 부서장, 서무팀장,

승진자 대면 교육 등 또한 매주 목요일 간부의 영상 교육을 통해서 청년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신고자로부터 신뢰를 확보하고 익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갑질 비리 익명 신고 시스템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4년 25년 승진자 현황입니다. 2024년 승진자는 5급 4명, 6급 4명, 7급 4명, 7급 16명, 8급 31명 총 64명이며, 25년 승진자는 5급 8명, 6급 22명, 7급 34명, 8급 50명으로 총 114명입니다. 승진 세부 현황은 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원님께서 궁금하신 완도군 인사운영 기본 원칙의 단서 조항에 따른 인사 명단입니다. 2년간 을지 배치 유예자는 29명이며, 전보 인사는 288명입니다.

전보 사유는 신규자, 퇴직자 발생에 따른 순환 전보 인사 상담 내용 반영에 따른 전보 인사입니다. 세부 내용은 별표 2와 별표 3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완도군 근무 평정 방식 절차 및 방식입니다. 근무성적 평정은 보건의료원과 본청 내 보건의료원 외 부서 평가로 나누어집니다. 보건의료원 외 부서에서는 1차적으로 각 부서장이 직원들에 대해서 근무 성적 평정을 한 후 평가를 취업해서 부군수인 제가 최종 순위를 확인합니다. 보건의료원의 경우에는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부서장의 근무 성적을 평가한 후에 보건의료원장님의 최종 순위를 확인합니다.

확인자가 최종 순위를 확인 후에는 위원장 부군수로 위원장이 있는 완도군 근무성적평정 위원회에서 경력, 업무 난이도,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최종 순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노동조합 단체 협약에 따른 인사 기준 반영 실적 현황입니다. 완도군 노동조합과 2024년에 체결한 단체 협약 내용 반영 여부입니다. 인사 예고 실시 등 10개 항목에 대해 단체 협약 내역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박병수 의원님이 질의하신 군정 질문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양훈

박병수 의원님의 발언 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박병수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의원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최근 지역 신문에 보도된 직장 내 갑질 문제와 하반기 인사에 대해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논란이 되고 있는 직장 내 갑질 문제입니다. 요즘 완도군청에서 갑질 논란으로 시중의 여론이 뜨겁습니다. 이러한 갑질 피해가 발생되면 신고와 처리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부군수 이범우

일단 갑질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직원이 발생하면 우리 새올행정시스템이나 우리 홈페이지에 갑질 신고하는 시스템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신고가 접수되면 상담을 먼저 하게 됩니다. 상담을 통해 가지고 사실 확인을 위해 조사를 하고, 그 조사를 통해서 만약에 상급자가 갑질 피해가 있다고 판정이 되면 저희들이 주의나 징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피해자 직원에 대해서는 신변보호나 또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비밀 보호 유지도 하고 적절한 근무 장소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의원

그럼 현재 완도군청에 갑질 피해로 신고된 내용이 있습니까?

○부군수 이범우

정식적으로 신고한 내용은 없습니다.

○박병수 의원

없죠. 보고서에 보면은 신고된 건이 없다고 나와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왜 나오는 건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부군수 이범우

아마도 이제 의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업무 추진을 하면서 상급자 간의 어떤 이해 충돌 과정이 있는데 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직원이 다른 직원들에게 호소하는 과정에서 여러 경로로 확대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병수 의원

그렇다면 인지 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에. 그러면 언론에 지금 3탄까지 이게 보도가 되었죠? 그렇게 해서 인지가 된 것입니까? 안 그러면 의회에서 이것을 챙겨서 조사를 한 것입니까?

○부군수 이범우

아니요. 그전부터 인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수 의원

인지가 됐습니까?

○부군수 이범우

예.

○박병수 의원

그러면 지금 언론에 보도된 것은 잘못이 아니죠?

○부군수 이범우

그렇습니다. 이제 일부 이제 인지가 되었고, 그런 부분이 이제 밖으로 호소하는 과정에서 됐기 때문에 크게 뭐 그것이 틀렸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박병수 의원

그렇다면 언론 3탄까지 이렇게 보도가 됐을 때 군에서는 그렇게 방관한 겁니까?

그냥 무시해버린 겁니까? 언론에 나오는 것을.

○부군수 이범우

절대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사실 확인을 위해서 피해 상담자를 상담도 했고요. 상담자를 통해 가지고 실제로 그 부분의 의견을 들었고 그래가지고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그 상급자에 대해서도 일부 불러서 주의 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병수 의원

그러면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부군수 이범우

그렇습니다.

○박병수 의원

그럼 처리 결과는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됐습니까?

○부군수 이범우

그래서 지금 일부 직원들은 지금 전보 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또 순환 전보를 하게 되고 그 피해를 입었던 당사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전보라든지 그다음에 또 다른 경로를 통해 가지고 적절히 조치를 취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병수 의원

그런데 제가 이제 하급 직원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직원들은 사적인 심부름을 업무처럼 지시하거나 또는 업무에 대한 반복적인 공개 질책, 또 과중한 업무 몰아주기를 갑질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말이 나도는 것은 아직도 직장 내에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현재까지 갑질 신고가 없었다는 것은 직원들이 신고 후 직장 생활에 대한 부담 때문에 신고를 주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부군수 이범우

예. 충분히 그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직원들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병수 의원

그러죠. 이러한 사례가 세대 간 갈등인지 갑질인지 오해의 경계선이 불분명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조직 내부에서는 상명하복의 잔재와 소통 부재가 있음이 반증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피해 당사자에 대한 보호도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 차원의 관리와 배려도 필요하지만 직원의 권익과 복지를 위하여 활동하고 있는 공무원 노조도 그 위치에 걸맞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이번 갑질 논란과 관련하여 집행부 감사 부서가 조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완도군 공무원노동조합과 공동으로 관련 내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라는 요구를 합니다. 이달 중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록 제출하실 수 있죠?

○부군수 이범우

예. 그렇습니다.

○박병수 의원

갑질은 단순한 권익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존중이 사랑인 조직 소통이 단절된 직장에서 피어나는 불신의 꽃입니다. 이제는 완도군이 직장 문화를 쇄신하고 건전하게 발전시켜 응축된 에너지를 군정 발전에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이에 따른 견해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범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갑질 문제에 대해서는 상하 간의 소통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우리 상급자부터 직원들을 배려하고, 또 소통하고, 또 그런 문화를 먼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하급자도 상급자와 같은 서로 이해하는 그런 소통과 신뢰의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수 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인사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해 묻겠습니다. 영상실 영상 한번 띄워주세요. 먼저 운전 6급 승진 인사인데요. 지금 최초 임용과 현 직급 연수 이렇게 한번 표를 보시면서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1일자 6급인 승진 인사를 보면 행정직은 평균 6년 9개월, 사회복지직은 9년 11개월 만에 승진하였는데 운전직은 이 표에서 보시다시피 2명이나 5년 5개월 만에 승진을 했습니다.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부군수 이범우

6급 승진의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박병수 의원

영상 띄워놓으세요.

○부군수 이범우

승진 인사는 당연히 승진자, 퇴직자의 직렬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거를 감안해서 인사를 했는데요. 다만 이제 운전직 7급에서 6급 2명 승진한 부분은 공로연수가 3명이 들어가 있어서 인사를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어쨌든 보직 인사 6급 승진 인사에 대해서는 좀 다양하게 승진 인사가 배정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수 의원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최초 임용이 10년 6월이고요. A, B 10년 6월입니다. C는 19년 5월, D는 28년 10월, E는 25년 10월입니다. 지금 이런 걸 봤을 때 이것이 공정한 인사라고 보는 것인지 이런 부분 우리 부군수님 인사위원장이죠?

○부군수 이범우

예. 그렇습니다.

○박병수 의원

이런 걸 보지 않고 이렇게 인사를 합니까? 이거 뭐 특별한 특혜라고 지금 밖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군수 이범우

아마도 인사 부서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인사를 하고 저희 인사위원장으로서 그런 부분을 검토를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사항 운전직 승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여튼 퇴직자의 다른 직렬에 퇴직자라든지 그다음에 공로연수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고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로연수자가 이번에 3명 생겨서 승진자들을 승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병수 의원

직렬이 운전직이면 상식적으로 의전차량을 운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람, 또 청소차 추운 겨울에 운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누가 더 고생을 하실까요? 그런 사람 좀 배려가 안 된가요?

○부군수 이범우

사실 운전하신 분들은 다 고생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분들을 다 배려하지 못한 점.....

○박병수 의원

그러니까 사무실과 의전 차량 운전하는 사람과 날씨 이 폭염 속에서 겨울에 새벽부터 엄동설한에 나와서 운전하는 사람이고 또 경력도 25년, 28년, 19년 이렇게 됐는데 이런 것은 좀 고려해야 되지 않는가요?

○부군수 이범우

맞습니다. 이거는 그런 부분을 이제 전적으로 경력 부분도 분명히 중요하고 어느 부분에도 굉장히 좀 일을 열심히 하는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이번 운전 6급 승진자 2명이 얼마나 빨리 승진했으면 나이도 한참 적고 한마디로 경력도 경륜도 경력도 필요 없고 인사 부서 승진 장치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범우

알겠습니다.

○박병수 의원

다음은 5급 승진의결 인사 영상 한번 띄워 주세요. 직원 5급 승진 인사 중 가장 말이 많은 인사라는 것에 공감하십니까?

○부군수 이범우

예.

○박병수 의원

공감하시죠? 말이 많죠?

○부군수 이범우

예.

○박병수 의원

연륜도 경력도 군정 기여도도 무시한 2층만을 위한 인사평에 대해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박병수 의원

못 들어봤습니까?

○부군수 이범우

예.

○박병수 의원

지금 완도군은 수산군이라 하지만 인구 수로 따지면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보다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7월 1일자 인사를 보면 농업인을 홀대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군수님 생각 어떠신가요?

○부군수 이범우

행정직에 4명이 승진 의결되었기 때문에 일

부 농업직 면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되죠? 동의하시죠?

○부군수 이범우

예.

○박병수 의원

부군수님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농업 직렬의 농업축산과장 직무대리를 9개월 정도 했으면은 이번 인사에서 행정직 1명을 줄이더라도 농업 직렬 중에서 승진을 의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부군수 이범우

예.

이번 인사가 끝나는데도 그런 부분을 고려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정기 인사에서 5급 승진 의결 4명 했는데 승진 요인이 4명입니까? 맞습니까? 4명.

○부군수 이범우

이번 하반기 때요?

○박병수 의원

예.

○부군수 이범우

예, 예.

○박병수 의원

승진 4명이죠?

○부군수 이범우

예.

○박병수 의원

지난 330회 임시회 때 행정기구 개편으로 5급 정원 1명이 늘었죠?

○부군수 이범우

예. 그렇습니다.

○박병수 의원

그리고 3명이 공로연수에 들어갔죠?

○부군수 이범우

공로연수..... 예. 맞습니다.

○박병수 의원

3명이 공로연수, 지금 행정직 5급 1명이 농업기술센터로 전부가 되었습니다.

○부군수 이범우

예. 맞습니다.

○박병수 의원

1명 포함하면 5명의 승진 요인이 발생된다고 하는데 부군수님 생각 어떠신가요?

○부군수 이범우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박병수 의원

그건 아닌가요?

○부군수 이범우

예. 그렇습니다. 지금 4명 승진하고요.

○박병수 의원

그럼 한 명이 떠 있네요.

○부군수 이범우

지금 저 직무대리로 간 저기 기술센터 소장은 승진 향후에 그게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요. 지정 직무대로 간 상황이고요. 그것이 승진 요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병수 의원

지역 신문에 따르면 이번 7일자 인사에서 최고의 악수가 비리 공무원 농업축산과 복귀라는 언론 보도 혹시 내용 보셨습니까?

○부군수 이범우

예. 알고 있습니다.

○박병수 의원

알죠? 문제가 있어 1년 전 농업기술센터 노화읍으로 갔다가 이번 인사에 농업축산과로 들어왔는데 1년 만에 복귀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이유가 있습니까?

○부군수 이범우

그..... 을지에서 본청으로 들어간 전보에 대해서는 사실 징계 처분자가 1년 동안 근무하면서 충분히 좀 반성을 하고 어떤 역할을 많

이 했다고 보고 사실은 군청에 돌아와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또 하는 역할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직원의 역량과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인사를 했다고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병수 의원

문책 사유로 해서 1년 만에 다 사유가 해소됐다는 얘기죠?

○부군수 이범우

그렇습니다.

○박병수 의원

그럼 다른 사람도 다른 직원도 그런 경우가 있는가요?

○부군수 이범우

다른..... 다른 직원들 몇 명도 그렇게 해서 직원 본청 복귀를 인사를 했습니다.

○박병수 의원

군청 내부에서는 5급 승진 한 자리가 지금 남아 갖고 있죠? 애매한 상태라고들 합니다.

○부군수 이범우

예. 그렇습니다.

○박병수 의원

그거 들었어요? 본회의 노파심은 설마 이번 인사에 특정인을 승진시키기 부담스러워서 6개월 후에 승진시키기 위해 자리를 비워둔 것이 아닌가 하는 청내 여론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범우

알겠습니다.

○박병수 의원

지난 하반기 인사에서 일반직 5급이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발령된 근거를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화면 올려주세요. 방송화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범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 소장 인사와 관련해서는 우리 완도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을 준용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2조에는 담당 팀장이 또는 위에 담당관이 대리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아마도 이제 법정 대리라고 소위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것보다도 사실은 군정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전임 직무대리로 적임자를 찾아서 그 우리 임용권자가 승진 임용 범위 내에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인사를 했습니다.

○박병수 의원

제2조 권한대행 및 대리 규정에 따르면 보조, 보좌기관의 결원, 출장, 그 밖의 사고에서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또는 실장, 담당관, 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출장이나 교육 등을 말하는 것이지, 공석으로 자리를 비워 있을 때도 해당되는 것인지 부군수님 말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범우

공석 부분이 아니고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시에는 분명히 3조 규정에 따라서 지정 대리를 준용해서 인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병수 의원

그러면 부군수님 생각이 맞으시다면 전남도나 행안부에 질의를 해 보시고 답변서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그렇게 해주십시오.

○부군수 이범우

예. 알겠습니다.

○박병수 의원

또 방송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정원 기준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4405호입니다. 제16조 지방 농촌진흥기구 1호, 7호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8항을 보면 농업기술원과 농업기술센터에 두는 원

장, 소장, 국장, 부장과 과장, 담당관 등의 직급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를 보십시오. 3호에 보면 직속기관 지방 농촌진흥 그리고 제16조 8항 관련 해서 농업기술원 좌측입니다. 우측 농업기술센터를 보면 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 과장 담당관은 지방농촌지도관 여기서 과장이라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의 소장과 과장, 담당관에 해당 정원에 필요한 경우에는 여기서 일반직 복수직과 일반직 복수직이라 과장이라는 것은 시군 본청의 농업 행정과 관련된 과의 기능과 통폐합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부군수 이범우

예. 그렇습니다.

○박병수 의원

그리고 여기서 과장이 해당이 안 됩니다. 지금 통폐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부군수 이범우

예.

○박병수 의원

그러면 부군수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하고 완도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행 규칙 중 어느 것이 상위법인가요?

○부군수 이범우

당연히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정원 규정에 관한 규정이 상위거든요.

○박병수 의원

대통령이 상위법이죠. 그리고 명백히 법령을 위반했다고 보는데 당시 인사 실무자, 팀장, 부서장을 어떻게 조치할 계획인지 본 의원은 법령 위반 사항이므로 징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야 된다고 보는데 부군수님 의지가 어떤 것인지 답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범우

그 부분은 상위 법령에 우리 대통령의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하위의 규정을 둘 수 있게끔 위임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한대행 직무대리에 관한 규칙에 위임해서 그에 따라서 이제 승진 임용을 할 수 있는데요. 아까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센터 소장 직무대리의 직렬과 관련해서는 하위 임용령에 또 규정을 둠으로써 그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2조에 보면은 승진 임용이나 전보 또 이런 것들은 당연히 저런 절차를 임용 준수를 해야 되는데 그 외에 그 외에 직무대리 인사의 경우는 임용 행위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병수 의원

그러면 지금 맞다는 얘기입니까? 잘못됐다는 것입니까?

○부군수 이범우

맞게 인사를 했다고 봅니다.

○박병수 의원

맞다고요?

○부군수 이범우

예. 그렇습니다.

○박병수 의원

책임지십시오.

○부군수 이범우

예. 알겠습니다.

○박병수 의원

또 이제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하반기 인사에서 전보 제한자 288명 전보했다고 했죠?

○부군수 이범우

예. 그렇습니다.

○박병수 의원

전보 제한자에 대한 전보 기준은 어떤 법령을 기준으로 했는가요?

○부군수 이범우

전보는 필수 보직 기간이 필수 제한이 2년입니다. 다만……

○박병수 의원

그러니 2년이죠. 영상 한번 띄워주세요. 여기 보면은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해당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에 이제 전보 제한 없이 할 수가 없습니다.

○부군수 이범우

예. 그렇습니다.

○박병수 의원

그럼 지금 현재 288명이나 했는데 전보, 아니 조직 개편 부서는 관광과가 관광실로 해조류박람회추진단 2개죠?

○부군수 이범우

예. 그렇습니다.

○박병수 의원

거기 이외에 그 직원들이 다른 데로 전보된 이유는 뭡니까?

○부군수 이범우

전보 관련해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서 지역을 감안해서 저희들은 1년을 축소해서 별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주로 신규 채용 인력을 배치하는 과정에서 일부 을지 배치 근무자들이 본청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일부 6개월이나 또 1년 미만에 전보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사실은 갑질 피해라든지 직원 고충 상담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부득이하게 을지를 보내는 경우에도 을지 근무자들이 다시 들어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좀 1년 이하의 전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병수 의원

이것도 지방공무원 임용령, 대통령령이죠?

○부군수 이범우

예. 그렇습니다.

○박병수 의원

대통령령으로 이제 정해져 있는 것인데 이렇게 전보 제한을 두는 것은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 그런 부분들 직원들이 자꾸 6개월마다 1년마다 옮겨 입으면 업무 파악이 안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한테 돌아갑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부군수 이범우

예. 맞습니다.

○박병수 의원

맞죠? 그래서 전보 제한 기준을 둔 것 아닙니까?

○부군수 이범우

예. 맞습니다.

○박병수 의원

아니, 그런다고 해 가지고 3개월짜리 6개월짜리 그런 인사가 전보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영상 다시 한 번 띄워주세요. 보세요. 그 밖의 임용권자가 보직 관리에 전보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연간 전체 전보 인원의 100분의 10 이내로 한정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부군수 이범우

예.

○박병수 의원

그런데 이런 것을 법령을 무시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게 질서가 서겠습니까, 조직이?

○부군수 이범우

아까도 의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그런 인사를 하다 보면은 좀 적재적소에 보직 관리 특히 유보처럼 보직 관리를 위해

전보할 필요한 사항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특히 그 외에도 효율적 군정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또 적재적소 자리 배치가 필수 인력을 배치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이 좀 전보 인사에 관련해서는 그렇게 인사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병수 의원

전보 인사에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군 본청 내 6급 팀장들이 선호하는 보직, 혹시 일명 꿀보직이라 불리는 자리가 두 자리에 있다고 하는데 부군수님 알고 계신가요? 꿀보직.

○부군수 이범우

잘 모르겠습니다.

○박병수 의원

모르겠습니까? 부군수님 모르지만 청내에서 소문이 파다합니다. 완전히 관심을 끄고 계신 것인가 답답합니다. 그 보직들은 업무와 관련해서 거의 신경 쓸 일이 없어 본청뿐만 아니라 읍면 직원들도 그 자리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7월 1일자 인사에서 그 꿀보직 자리에 당시 실세 6급 팀장 배우자들이 그 두 자리를 독차지했다고 하는데 부군수님 혹시 알고 계신가요?

○부군수 이범우

아마도 그 내용은.....

○박병수 의원

제가 잘 잘 파악을 못했습니까?

○부군수 이범우

예. 그렇습니다.

○박병수 의원

한번 파악을 한번 해 보십시오. 공직 내부에서 말들이 많습니다. 그런 중요한 보직에서 근무한 공직자들이 자기 식구나 챙기는 인사, 먼저 솔선수범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부군수 이범우

맞습니다. 뭐 그런 부분을 앞으로도 좀 개선해 나가고 혹시 뭐 그런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조직 내에서는 군정의 전체적으로 흐름을 봐서는 그런 인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박병수 의원

한번 챙겨보십시오. 다음은 본청 내 팀장들이 부서 실과 서무팀장 정도 가려면 보통 몇 년 정도 걸립니까?

○부군수 이범우

그건 하여튼 좀 오랜 시간 동안 저기 근무를 하면서 서무팀장으로 가는 것은 참 오랫동안.....

○박병수 의원

그렇죠.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팀장 보직은 보통 5~6년 이상 돼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7월 1일자 인사에서 선배들 다 제치고 2년 반 만에 서무팀장으로 또 영전한 팀장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아신가요?

○부군수 이범우

그것도 제가 확인 한번.....

○박병수 의원

그것도 파악 한번 해 보십시오. 당시 실세 6급 팀장이라고 합니다. 참고하십시오. 다음 임기 말 보훈 인사라는 말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이런 인사를 할 수가 있죠? 인사는 원칙과 기준이 있는데 인사 때마다 원칙과 기준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말씀이 많습니다. 부군수님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범우

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사위원장으로서 보훈 또는 뭐 제 식구 감싸기 인사를 외부에서는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어쨌

든 우리 조직 내에서는 군정의 안정과 또는 조직 기여도 또는 성과를 중심으로 인사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병수 의원

가장 중요하죠, 그게.

○부군수 이범우

예. 그렇습니다.

○박병수 의원

그런데 왜 이런 내부에서 이런 일들이 나오고 있죠? 이런 말들이 내부에서 나옵니다.

○부군수 이범우

아무래도 이제 본인들이 좀 승진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든지 또 피해를 봤다든지 그런 경우는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병수 의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흔히들 조직사회는 인사는 만사라고들 합니다. 신바람 나고 일할 맛 나는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대우받는 인사 운영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사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공직 사회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 질문 마치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 이범우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양훈

조영식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 의원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근무 평정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부군수님 인사는 인사권자의 고유 권한이라고 생각하시죠?

○부군수 이범우

예.

○조영식 의원

거기에 동의하시죠?

○부군수 이범우

예. 그렇습니다.

○조영식 의원

부군수님 공직사회에서 근무성적평정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근평.

○부군수 이범우

근평을 하는 이유는 승진자를 결정하기 위한 전 단계입니다. 그래서 근무 성적을 평정해서 그것을 평정해서 승진자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영식 의원

근평을 하는 이유는 궁극적 목적은 공평성,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부군수 이범우

예. 그렇습니다.

○조영식 의원

아무래도 공정해야 차후에 어떤 이의 제기나 이런 문제가 없겠죠. 그러면 우리군 근평은 어디 팀에서 담당합니까? 어디 부서에서.

○부군수 이범우

근평은 행정지원과에서 해서 저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종적으로 근평위원회 위원장인 제가 최종 그 순위를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조영식 의원

최종 순위는 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죠? 거기서 결정도 하고요.

○부군수 이범우

예. 그렇습니다.

○조영식 의원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근무성적평가위원회 제1항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대상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 평가점수를 정하고 근무성적평가결과의 조정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승진 후보자의 명부 작성 단위 기관별로 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가자가 평가 단위별로 근무성적평가, 즉 근평을 부여하고 나서 그 결과를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제출하면 위원회는 전체 평가 대상 공무원들을 평가 단위에서 제출한 평가 등급에 따라 나누고 등급 내에서 평가 대상 공무원들을 상대 평가하여 순위를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 행정 인사는 이런 절차를 따르고 있나요?

○부군수 이범우

아, 예 철저히 따르고 있습니다.

○조영식 의원

혹시 어떻게 구성돼 있습니까? 완도군 평가위원회.

○부군수 이범우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인 제가 위원장이고요. 기획예산실장, 관광실장 그다음에 인구 정책실장, 행정지원과까지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조영식 의원

규정에 보면은 평가 대상 공무원의 상급 또는 상급 감독자 중에서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5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되 상급자 또는 상급 감독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2명 이상으로도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군은 다섯 분 하니까 뭐 이게 구속 요건은 충분하네요.

○부군수 이범우

예. 그렇습니다.

○조영식 의원

혹시 근평에 있어서 승진 후보자가 명부를 작성해야 하는데 작성 방법을 혹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부군수 이범우

아마도 이제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나온 근평 결과하고 그다음에 경력을 합산해서 승진 서열 명부를 작성해서 공개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영식 의원

좋은 설명이었고요.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7조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방법 1항 승진후보자 명부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공무원에 대하여 100점을 총평정점으로 만점으로 하여 작성하되, 명부의 평정은 근무성적평정점 70점, 경력평정점 30점을 각각 만점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5급 공무원은 연구관 및 지도관을 포함하여 최근 3년 이상, 6, 7급 공무원은 연구사 및 지도사 포함하여 최근 2년 이상, 8급 이하 공무원은 최근 1년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작성하고 있는 거 맞죠?

○부군수 이범우

예. 그렇습니다.

○조영식 의원

혹시 그러면 근평에 있어서 직제 순으로 높은 점수를 받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기획예산실, 인구……

○부군수 이범우

아, 그런 건 없습니다.

○조영식 의원

아, 없습니까?

○부군수 이범우

예. 직렬별 전체 총괄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식 의원

직제 순으로 근평을 주는 게 아니라고 업무량, 경력, 성과, 업무 난이도를 전문적으로 분석해서 준다는 거죠?

○부군수 이범우

예. 그렇습니다.

○조영식 의원

혹시 근평을 인사부서에서 마음대로 수정할 수 있습니까?

○부군수 이범우

인사 부서에서 그러지는 못합니다.

○조영식 의원

못 하겠죠?

○부군수 이범우

그렇습니다.

○조영식 의원

최종 결론은 최종 순위는 아까 근평성적평가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부군수님 최근에 공직사회에서 이제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대한 생각이 좀 어떤 줄 아신가, 간략하게 아까 우리 박병수 의원님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인사팀에서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인사팀이 마음대로 한다는 것들은 보통 이럴 때 나오거든요.

인사의 공정성이 의심될 때나 적법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생각될 때 이런 말들이 나오거든요.

○부군수 이범우

그 부분은 외부에서 어떻게 느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근무성적평정위원회를 참여하면서 사실은 이제 아까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로 4개 부서 실장님, 과장님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외에 또 부서들의 또 근평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최대한 다른 부서의 근평 문제는 위원장이 제가 많이 챙기고 같이 또 참여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영식 의원

인사가 이제 100%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불합리한 인사 문제가 터질 때마다 이런 이야기는 계속 후담으로 나올 수 있겠죠. 그렇게 5명이나 또 평가위원회가 구성돼 있으니 만전을 기해서 이런 말들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부탁드립니다.

○부군수 이범우

예. 알겠습니다.

○조영식 의원

혹시 근평 순위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보다 먼저 승진할 수 있습니까?

○부군수 이범우

배수 안에 들면 승진할 수 있습니다, 승진 배수 안에.

○조영식 의원

그래서 인사권자의 인사는 고유권한이겠죠. 그렇다면 하나 더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최근 인사 때 근평 4위를 받았는데 근평 6위가 먼저 승진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사위원장이셨으니까 이 부분을 접해봤는지 혹시 또.....

○부군수 이범우

예. 있습니다.

○조영식 의원

있습니까? 실명 거론할 수도 없고 그러죠?

○부군수 이범우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또 그런 부분을 좀 잘 반영해서 근무 성적 평가라든지 또 군정기여도 또는 군정의 적합성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잘 고려하고 판단해서 근무 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식 의원

그러니까 인사권자가 인사의 고유 권한이긴 하나, 근무성적평가위원의 평가가 자주 뒤바뀐다면 인사의 공정성,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죠? 아까 4위 받았던 분.

○부군수 이범우

예. 그렇습니다.

○조영식 의원

그러니까 그분한테 적절하게 그런 분들은 설명과 이해를 구해야 되겠죠?

○부군수 이범우

예. 그렇습니다.

○조영식 의원

그런 거 전혀 안 하나요? 간략하게 대답해도 됩니다.

○부군수 이범우

추후에..... 저기 좀 그런 부분이 있는 직원분에 대해서는 또 저 포함해서 주의해서 또 저런 말씀을 하고 그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영식 의원

예측 가능한 인사 기준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부군수 이범우

예. 동의합니다.

○조영식 의원

부군수님 인사 발령을 온나라시스템 공지사항에 아까 게재를 한다고 했습니다.

○부군수 이범우

예. 게재합니다.

○조영식 의원

혹시 한 번 게재된 인사 발령은 번복할 수 없나요?

○부군수 이범우

아, 없습니다.

○조영식 의원

아, 번복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고, 뭐 근거 규정이 있습니까?

○부군수 이범우

한 번 인사라는 것이 그저 발령이지 않습니까? 그 어떤 강제적인 조항을 띤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조영식 의원

령을 내리면 번복할 수 없다. 그렇다면 혹시 불공정하고 투명하지 못한 잘못된 인사에 대해서 바로잡을 수 있는 사후 시스템이 전혀 없겠네요.

○부군수 이범우

그 부분은.....

○조영식 의원

이게 문제가 아닐까요?

○부군수 이범우

그 부분은 뭐 제가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추후 이제 인사나 추후 인사가 있을 시에 좀 그런 부분을 좀 반영하는 그런 또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는 부분이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영식 의원

그러니까 인사발령 후 부당한 조치에 대한 시정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아까 령이라고 했죠? 령, 령을 내린다는 그런 표현도 부군수님이 쓰신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누가 봐도 문제가 된 인사 조치는 내부 감사 후 정정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기본이라 생각되어지는데 혹시 동의하십니까, 제 말씀에? 아직도 령이라는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부군수 이범우

아마도 이제 령이라고 표현하기도 어쨌든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기에는 그 인사에 대해서 쉽지 않은 인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조영식 의원

그러면 앞으로 이제 부군수님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인사평가위원회한테 물어본 게 아니고 인사권자인 군수님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이런 내용들 만들어 주십사 하고.

○부군수 이범우

제가 인사위원장이니까.....

○조영식 의원

인사위원장이신데 최종 인사권자는 아닐 거 아니에요?

○부군수 이범우

예. 그렇습니다.

○조영식 의원

일단 다음에 한 번 더 논의하기로 하고요. 문제에 대해서는 즉시 하십시오.

○부군수 이범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분히 무슨 말 뜻인지 알겠습니다.

○조영식 의원

필요 시 해당 조치를 원상복구하거나 책임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고 관련 사례는 교육 자료로 공유하여 재발 방지를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후 대책이 있어야 조직 문화가 개선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부군수님께 제안을 하나 할게요. 이번 기회에 공무원 인사공정성 평가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뭐 새올시스템이나 온나라시스템에 아까 뭐 게재한다고 하니까요. 공무원 인사에 대한 이의 제기 청구를 개설하여 인사 후 민원이 제기된 인사에 대해 사유서 등을 작성할 수 있게 하여 인사팀에서 합리적인 답변을 할 수 있게 하고, 행정, 의회, 노조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 인사 공정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정기 인사가 있을 시 인사 부서에서 합리적인 답변을 하지 못할 경우 잘못된 인사에 대한 신고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감사나 조사를 착수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사례에 대해서는 정기 보고서를 발간하여 교육 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인데 부군수님 혹시 동의하십니까? 혹시……

○부군수 이범우

아마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인사 후에 직원들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의견 수렴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분들한테 충분히 이해하고 설득시키는 과정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감사라든지 또는 향후 조치가 필요한 부분은 아마 우리 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영식 의원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감사나 조사는 특별하게 방금 부군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법과 이런 게 따라야 되겠지만 그전에 제가 나열했던 부분들은 법과 이런 걸 따르지 않아도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조속히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과 올해 인사운영 계획을 수정하여 결과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범우

예. 알겠습니다.

○조영식 의원

다음은 혹시 승진자 전보규정에 대해서 몇 가지만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답을 짧게 해도 좋습니다. 혹시 승진자, 5급 승진자, 사무관이죠. 혹시 전보 인사 규정이 있습니까?

○부군수 이범우

전보 인사……

○조영식 의원

을지라든가 갑지 몇 개월.

○부군수 이범우

그것 좀 확인해서 한번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영식 의원

업무 특성상 전문 직렬 빼고는 승진자 전보 기준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같이 확인 좀 해 주십시오.

○부군수 이범우

확인해 보고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영식 의원

누구는 5급 승진해 가지고 을지로 전보되고, 누구는 또 5급 승진해서 본청에 있다면 아까 이런 규정이 정확히 없다면 그게 형평성에 좀 반하겠죠?

○부군수 이범우

예. 그렇습니다.

○조영식 의원

정확한 규정이 없다면, 규정이 있으면 규정에 따르면 되는데 5급 승진자에 대한 전보 기준도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 주시기를 한번 서로 검토해 보죠, 이거는.

○부군수 이범우

예. 알겠습니다.

○조영식 의원

다음은 을지 배치 유해자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유예자입니다. 을지 배치 유예자. 혹시 을지 배치 유예 기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신가요?

○부군수 이범우

아마도 이제 개인의 고충이라든지 특히 신규 또는 업무의 연속성, 또 현장에 우리 본청에서 또 군정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일부 유예를 해 가지고 군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영식 의원

그러니까 보직 관리든 인사 관리 운영상 부득이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해 주겠죠.

○부군수 이범우

예. 맞습니다.

○조영식 의원

혹시 인사 관리 운영상 부득이하다고 판단된 경우라고 하셨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 너무 모호해가지고 인사권에 있어 권력 남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동의하시죠?

○부군수 이범우

예. 그렇습니다.

○조영식 의원

너무 모호하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부군수 이범우

을지 배치 유예자도 기준과 내부 지침을 만들고 인사 부서에서 리스트를 만들어 순차적으로 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 의원

누구는 6개월에 을지 배치시키고 누구는 몇 년이 지나도 배치 유예를 미뤄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부군수 이범우

예. 알겠습니다.

○조영식 의원

승진에 따른 을지 배치를 안 갔던 분들도 조금 전에 말했던 그런 분들도 인사 원칙상 인사팀에서 리스트를 관리를 하셔가지고 을지 배치하시고 이 부분을 꼭 지켜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범우

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식 의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문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양훈

최정욱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욱 의원

부군수님 수고하십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금 들어보면 우리 부군수님이 전혀 지금 문제없는 그 답변을 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부군수 이범우

인사 부분에 대해서요?

○최정욱 의원

한 가지 우리 본 건물 앞에 크게 플래카드 걸어져 있죠.

○부군수 이범우

예. 그렇습니다.

○최정욱 의원

이것이 공정한 인사입니까 하고요. 아마 그 공무원 노조에서 붙인 것 같은데.

○부군수 이범우

예. 공무원 노조에서 했습니다.

○최정욱 의원

인사는 외부에 아까 자꾸 외부라고 말을 자주 하던데 공무원 노조가 외부라고 보십니까?

○부군수 이범우

외부는 아니고 저희들하고 같이.

○최정욱 의원

그렇죠?

○부군수 이범우

단체라고 봅니다.

○최정욱 의원

적어도 공무원 노조의 어떤 그 불만이나 어떤 내용은 그 누구보다 아마 잘 알 겁니다.

○부군수 이범우

예. 그렇습니다.

○최정욱 의원

그렇죠. 직접 당사자들이고 그래서 그런데도 저기에 대한 큰 문제는 없습니까? 저런 거에 봤을 때.

○부군수 이범우

저희들도 그 의식을 갖고 있고요. 공무원 노조가 현수막을 게첨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공무원 노조하고 같이 의견을 조율하고 같이 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최정욱 의원

이제 박병수 의원님과 조영식 의원님이 디테일하게 질문을 했기 때문에 다 생략하고 핵심적으로만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적어도 공무원 노조가 저럴 때는 문제가 있다고 봐야죠. 그런데 전혀 문제 없다라는 건 그 말 인식 자체가 좀 그래서 그런 거고 공무원 노조가 저렇게 대문짝 하게 걸어놨을 때는 깊이 생각을 좀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인사는 원래 100% 만족할 수 없어요. 지금까지도 인사가 이런 인사는 자꾸 있었죠. 없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도 지금 한 7년 의원직을 하면서 보면 다만 지금의 일에서 이렇게 많이 나올 때는 뭔가를 깊이 생각은 좀 해봐야죠. 언제는 이런 인사가 없는 건 아니죠. 그런데 이제 지금의 시점이 이럴 때에 나와서 이제 군수님 일어서 버렸습니다마는 내가 군수님한테 좀 뭐 좀 몇 가지 좀 여쭤보려고 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그 밖에서도 여론들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인사를 그 지자체 장의 인사가 어떤 걸 보냐에 따라 우리 지역 군이 어떻게 돌아가겠구나 아 앞으로의 남은 임기 동안 우리군에 어떤 기대를 주고 우리군을 그만큼 안정적으로 끌고 가겠구나 이걸 단적으로 보여준 게 인사거든요. 그래서 밖에서 볼 때는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그런 건데 지금의 사실은 이제 임기가 11개월 정도 남다 보니까 아마 이런 것도 더 나오지 않았을까 이제 또 저에게도 민원이 몇 가지 들어와 있어요. 인사에 대한 것도 있고 또는 이제 그런 것도 제가 행정사무 감사할 때도 또 볼 겁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밖에서 이렇게 돌고 외부에서도 있는가 반면 공무원 노조에서도 저렇게 걸고 우리가 또 의원들이 느낄 때도 아 이건 매끄럽지 않은 인사라는 거를 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인식의 변화 문제가 있는 거 없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더더구나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이게 잘못된 레임덕의 어떤 그런 거를 받게 됨으로 해서 주민과의 행정과의 갈등과 신뢰가 서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결국은 그것은 우리군의 주민들한테 행정서비스도 멀어지고 서로 불신하게 되면 결국 우리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 주민들한테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군수님 안 계시니까 부군수님 인사권자가 아닌 때 다만 지금부터라도 뭐가 문제인지 잘해 가지고 이걸 바로잡고 또 그런 인적 쇄신이나 또 공무원 노조나 밖에서 볼 때 그래도 지금 뭔가 노력하고 있구나 이런 걸 안 보여주면 앞으로의 우리 1년은 정말 안 좋게 우리군이 가겠구나 이런 걸 다 누구나 느끼게 되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제 지자체장이 느껴야 되겠지만 부군수님이 잘 전달하셔가지고 지금부터라도 좀 그런 문제가 나오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게 잘 서로 이해하고 갈 수 있을까 또 밖에서 온 주민들이나 어떻게 보면 이것이 괜찮을까 이런 거를 좀 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범우

예. 알겠습니다.

○최정욱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양훈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간담회와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3시에 속개하여 군정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5시00분 회의계속)

○의장 김양훈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

6.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청취의 건(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6항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기획예산실, 인구일자리정책실, 관광실 순으로 부서장의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완도군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의원의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동일 의제에 대해서는 2회에 한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장께서는 요점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참조)

·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의장 김양훈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궁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궁희 의원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 13페이지 적극적인 국도비 확보 대응 방안 마련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2026년 국도비 확보를 위해 기재부 중앙부처 국회 방문이 4월에서 6월에 걸쳐 이

루어졌다고 이렇게 했는데 방문 성과는 어떻습니까?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저희들이 상반기에 집중하고 있는 것은 우리군의 핵심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규모 SOC 사업이 고속철도라든지 완도 고흥 해양관광도로 또 국책 사업인 해양수산 박물관이라든지 국립 수목원 조성 이런 지역 현안 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상반기에 저희들이 국회와 또 정부 부처의 방문 활동을 좀 진행을 했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허궁희 의원

이렇게 두 달, 3개월에 걸쳐서 여러 곳을 방문을 하셨는데요. 좋은 결과가 있다니까 기대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내년도에 저희들이 지금 정부 예산에 반영한 체크리스트를 좀 확보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현안 사업들이 대부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는 결과도 있고 그래서 그 예산이 기재부 최종 예산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해 나가겠습니다.

○허궁희 의원

그리고 건의사항을 보면 99건에 249억 2,493억 원 정도인데 작년에 비해서 뭐 금액 차이가 있는가요? 아니면.....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저희들이 이제 작년과 분석을 해보면 이제 건수는 전환 사업하고 균특 사업에서 건수는 조금 줄었는데요. 실질적으로 건의 금액은 제 기억으로는 한 30, 한 40억 정도 더 늘어서 지금 건의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궁희 의원

또한 일반 국고 사업 중에 11건 중 신규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고 기재부에는 11건 중 몇 건 정도 사전 타당성 검토가 승인될 것으로 예상하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저희들이 이제 26년도에 반영할 국고 건의사항 발굴 보고회를 통해서 총 11건의 정책을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신규 사업은 저희들이 해조류 바이오 스마트 팩토리 구축 사업을 올해 이제 신규 사업으로 보고 현재 추진하고 있고, 우리 해양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양수산 기후변화 대응 센터 또 블루카본 실증 연구센터, 올해도 특별히 수산경영과에서 하고 있는 전복 가두리 감축 사업들 정도가 내년도 저희들이 신규 사업으로 보고 있고, 지금 현재 기재부에서 우리가 예산안을 좀 보니까 바이오 스마트 팩토리 사업하고 우리 해양수산 기후변화 대응 센터 그 예산이 좀 반영되어 있고요. 또 나머지 해양수산 박물관이라든지 광주 완도 고속도로 이런 사항들이 지금 정부 예산에 반영돼 있어서 마지막까지 그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궁희 의원

아무쪼록 모든 건의 사업들이 빠짐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궁희 의원

그리고 제가 저번 임시회 5분 발언에서 공약이행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었는데 현재 진행 사항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궁희 의원

허궁희 의원님께서 그 공약이행특별위원회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더불어서 조금 우리군에서 좀 더 역동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을 주셨고 그와 관련해서 아마 취지의 말씀이 중앙부처하고 유기적으로 협력 체계를 구축해라라는 말씀도 있으셨고 또 그거를 기반으로 민간을 또 어떻게 협력할 거며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참여할 거냐 이런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이번 정부가 갑자기 들어서다 보니까 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바로 지금 진행하다 보니까 현재 공약 자체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현재 총괄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행보다는 현재 국정과제에 어떻게 반영할 것에 대한 노력을 좀 포인트를 잡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좀 두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지역 주민 참여에 대한 특별 이행위원회는 좀 시기를 좀 조정하면서 저희들이 의원님 주신 그 메시지를 잘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궁희 의원

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완도군 현안사업 새 정부의 국정과제 반영 활동은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저희들이 이제 의원님도 오전에 정부에 지역공약 반영 건의안까지 해 주셨고요.

의원님도 알고 계시다시피 저희들이 지역공약이 두 건의 대규모 SOC 호남 고속철도와 해안 관광도로 2건의 SOC하고 지금 우리군이 제일 지금 고민하고 있는 지역 현안 사업 해양치유 산업과 또 우리 바이오 또 해저 의류 특화 기후변화 대응 플랫폼 이렇게 지금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발 빠르게 지금 군수님 모시고 이제 국회 또 중앙부처 방문해서 우리군의 사업들을 좀 피력을 해왔고요.

특히 이제 국정기획위원회에 군수님이 가지고 계신 인적 네트워크를 좀 활용해서 저희들 자료가 좀 다 국정기획위원회에 지금 올라가 있고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트랙은 국정과제에 반영이 다소 조금 안 되더라도 저희들은 이재명 정부의 지역 공약이라는 그 타이틀 하나만 갖고 각 중앙부처에 접근해서 우리군의 핵심 사업들이 각 부처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도 함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궁희 의원

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실장님 내년 지방선거로 인해서 우리 공직자들은 벌써부터 적극적인 노력보다는 소극적인 행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향후 민성 9기가 새롭게 출범될 때 더욱더 군정이 탄력을 받아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국도비 확보에 전략적 대응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각 부서하고 함께 고민해서 아마 기획예산실의 목적이 아마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홀함이 없이 각 부서장님과 함께 내년도 정부 예산에 최선을 다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궁희 의원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양훈

조영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 의원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계속된 사업하고 긴급 사업 1건에 대해서 3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쪽 공직자 정책 개발 역량 제고 워크숍 1회, 컨설팅 1회, 2회 했는데 2024년도 전년도는 6회 또 지난 보고 시에는 9회 워크숍 2회, 특강 2회 컨설팅 5회를 한다고

보고를 했거든요. 전반기에 많이 부진한데 부진한 이유가 어떻게 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저희들이 이제 계획을 갖고 했는데요. 일단은 컨설팅은 수시로 할 예정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실과에다가 부서 직원들이 일하는 과정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전문가 컨설팅을 좀 하자 그런 사업 목록을 저희 기획계에 지금 제출하라고 부탁을 좀 드렸고요. 그에 따라서 하반기에 전체 컨설팅을 꾸준히 좀 진행할 예정이고요. 워크샵은 지금 노조하고 저희들하고 좀 나눠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 계획은 하반기에 워크숍 한 번 더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영식 의원

지금 추진실적보고인데 지난 보고시보다 너무 저조하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예. 좀 더 분발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조영식 의원

4쪽 중간에 항공 매니패스트 본부 주관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올해 A등급 받았죠?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예. 그렇습니다.

○조영식 의원

9년 연속 A등급 받았더라고요.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예, 예. 작년에는 SA 받았습니다. 올해는 조금……

○조영식 의원

작년에 SA 받아가지고 여기 전국 기초단체장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도 받았죠?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그렇습니다.

○조영식 의원

물론 A등급이나 또 슈퍼 A등급, SA등급이나 A등급 9년 동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너무 잘했어요. 그런데 올해 A등급으로 하향되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혹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작년에 비해서 올해.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이제 매니페스토본부에서 이제 해년마다 평가를 하는데요.

이제 핑계 아닌 핑계를 대려면 그 기간을 연속으로 주지 않는다.

이제 등급 평가를 이제 그런 말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냉철하게 봤을 때는 공약의 정책 이행률, 이행률이 다소 부진한 사업이 몇 건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좀 받지 않았나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들이 올해 초에 저희들이 부서하고 또 보건수 주제로 공약 이행이 좀 부진한 부서는 별도 대책 보고회를 통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영식 의원

그러면 내년에는 또 10년 연속 A등급 이상 또 A등급에서 SA등급으로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예.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 내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식 의원

성과 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식 의원

또…… 11페이지 효율적 재원 분배를 통한 민생경제 회복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이재명 정부에서 7월 정부 추경으로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이 지급됐는데요. 혹시

우리군 국비 편성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저희들이 지금 정확한 금액은 아직 인원 수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측한 금액은 150억 정도라고 편성을 지금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국비가 한 90% 그리고 나머지 한 10% 한 15억 정도가 지방비인데 이 지방비가 도비 부담분이 현재 어떻게 결정되지 않아서 거기에 맞춰서 군비를 포함해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식 의원

그러면 예측은 150억 하는데 도비가 편성이 되면 더 하향되겠네요.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150억 중에 국비가 90%니까요. 나머지 15억 정도는 아니 150억에 10%니까 한 15억 정도는 지방비 그중에서 15억 중에서 도비가 저희들이 예측하기에는 한 50% 정도 한 7억 5,000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군비도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영식 의원

올 초에 또 민생 회복 지원금 우리가 또 지원해 지급해 본 경험이 있죠?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예. 그렇습니다.

○조영식 의원

실장님 지원 금액과 지원 방식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마련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하고요. 실질적 집행은 지금 경제교통과에서 현재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영식 의원

그러면 경제교통과장님 계신가요? 혹시 이 내용 지원 방식이나 지원 금액 아는 대로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방금 제가 확실히 잘못 들어서 한번 다시 말씀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민생 회복 소비 쿠폰에 대한 지급.....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예. 소비 쿠폰은 우리군이 7월 21일부터 지급하게 되는데요. 카드형하고 지류형하고 같이 공급을 합니다. 우리군 총액은 한 150억 원 정도 되고요. 국비가 90% 도비 5% 군비 5%가 되겠습니다.

○조영식 의원

좌우지간 그건 과장님 일어나셨으니까 이제 소비 쿠폰에 대해 우리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동의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예. 그렇습니다. 많이 홍보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많이 소비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조영식 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도 동의하시죠?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예, 예. 그렇습니다.

○조영식 의원

지원 금액과 지원 방식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따 이유도 설명해 드릴게요. 대상은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하고 지원 금액은 1인당 15만 원에서 50만 원 소득별 맞춤형 지원 및 단계적 지급 지원 방식은 1차 전 국민 1인당 15만 원에서 40만 원 우선 지급하고 2차 전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 원 추

가 지급합니다.

1차는 7월 21일부터 9월 12일, 2차는 9월 22일부터 10월 31일 신청 방법은 온라인 카드사 지역사랑 상품권 홈페이지 앱 콜센터 또 ARS 오프라인에서는 제휴은행 영업점, 읍면동 주민센터 사용처는 지역 사용 상품권 가맹점이나 신용 체크 선불카드 연 매출 30억 이하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방송이나 매스컴에 통해서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용 기간은 2025년 11월 3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많은 글을 홍보하고 있지만 우리 국민들께서 11월 30일 기간이 지나서 사용하지 못한 일이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방금 이 자리에서 지금 여쭤보고 다시 한 번 부탁드린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와 같이 저희들이 최대한 국민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또 신청 접수에 좀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노력들을 같이 좀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조영식 의원

다시 한 번 또 강조합니다. 군민들에게는 카드 충전이 아니라 완도 지역사랑상품권을 교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우리군에서 적극적으로 소비를 할 수 있게 행정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요.

방문객들은 방문객들을 대상으로는 우리군에 찾아와 소비 쿠폰을 쓸 수 있도록 특단의 단기 정책을 만들어 카드로 사용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실장님 다시 한 번 재차 묻겠습니다. 동의하시죠?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예. 그렇습니다.

○조영식 의원

마무리 발언 할게요. 아무쪼록 실장님께서 간부회의 때 적극적으로 부서 간 협의하여 적극적 행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조영식 의원

그리고 방송실 사진 한 장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보이십니까?

사진은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한 사용 가능 매장 스티커입니다.

실장님과 경제교통과장님께서는 사용처에 대한 스티커 부착도 알아보기 쉽게 크게 만들어 시행 전 모든 운명 사용 가능 업체에 부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실 수 있죠?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예, 예. 경제교통과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조영식 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예. 고맙습니다.

○의장 김양훈

박성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규 의원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재정 집행률 실적 제고입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보면은 해남군 같은 경우는 5,040억 중 3,270억 원을 집행해서 상반기 1등을 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예, 예.

○박성규 의원

그런데 우리 완도군은 재정 집행률 상반비 목표율과 집행률은 어떻게 됩니까?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어떻게 저희들이 올해 상반기 목표액이 전체 6,300 예산 중에 대상액이 한 4천억 정도 된 것 같고요. 그중에 저희들이 상반기에 집행한 게 51.45%이니까 한 2,080억 그 정도 집행을 해서 조금 목표 달성에는 좀 못했습니다.

○박성규 의원

목표액이 6,369억 원에서 4,140억 65%가 목표액이었는데 현재 집행이 2,954억 46% 정도 됩니다.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저희들이 이제 상반기 실적 낼 때는 당초 목표액이 65%였다가 이게 너무 무리다 해서 행안부가 목표 조정을 좀 했거든요, 54.5%로 그렇게 목표 수정을 했는데 지금 현재 아마 의원님이 말씀하신 건 현재까지 집행 실적을 좀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박성규 의원

부진한 이유가 그겁니까?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이제 부진한 이유는 전체 예산 중에 저희들이 이제 매월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어 일단은 51.45%를 집행했는데 하위권은 아니지만 중위권에 속하긴 하지만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진한 이유를 보면 우리군에 지금 대부분 대규모 현안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계속비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국책 사업 또 사업비가 많은 사업들이 많은데 이월 사업 이런 사업들이 지금 현재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행정 절차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절차상의 이런 어려움 때문에 지금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집행이 좀 부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규 의원

예산 집행은 공직자의 적극 행정의 한 부분이죠?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예. 그렇습니다.

○박성규 의원

지역 경제를 또 활력을 이끌어내는 선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예. 그렇습니다.

○박성규 의원

그래서 하반기에는 특단의 결정을 내려서 좀 올라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그렇게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성규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양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예. 감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6시00분 회의계속)

○의장 김양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구일자리정책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참조)

·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의장 김양훈

인구일자리정책실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호 의원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외국인 계절 근로자 인권 교육 및 사례집 발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4월 미국 관세 당국에서 염전 노예 등 인권 침해 이유로 신안 소금의 통관을 보류하면서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인권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예. 우리나라의 인권 단체를 통해서 지금 우리 서남해안 지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인권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인호 의원

지금 어느 정도 파악이 됐습니까?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인권단체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기 때문에 인권단체의 정보가 저희들한테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저희들은 지금 중앙부처랑 같이 합동으로 그 관련된 대비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인호 의원

최근 미국에서 전 세계 나라로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죠.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그렇습니다.

○조인호 의원

이 와중에도 외국인 계절근로 인권 문제가 촉발되면서 우리군에 생산되고 있는 전복이나 김 수출 타격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미국에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인권 실태를 파악한다고 그래서요. 지금 해양수산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전라남도 우리군이 지금 2회에 걸쳐서 대책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속으로 고용주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 교육도 실시하고 또 사례집도 배부하고 현장 전수조사도 하고 하는 실적을 지금 거두고 있습니다.

○조인호 의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침해 사례는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가장 중요한 건 임금 체불이고요. 시간에 휴일수당 미지급 그다음에 강제 출국 종용, 또 성폭행, 폭언, 또 부적절한 숙소나 음식 제공 등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인호 의원

외국인 계절 근로자 인권 침해 중에서 모든 게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임금 체불이 가장 시급히 근절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고용주와 근로자 간에 쌍방이 해결하거나 고용노동부에서 임금을 체불한 고용주에게 고발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 수산물 수출 영향을 줄 정도로 라면 우리군에서도 체불된 임금을 선지급하고 고용주에게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된다고 보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이거는 인권에 대한 부분은 단순히 고용주하고 외국인 근로자한테 맡겨둘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그런 사항도 하나의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국제적 문제가 돼서 우리 지역에 생산된 수산물 수출에 타격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선제적 대응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인호 의원

본 의원이 계속해서 주장했던 외국인 관리팀이 지난 7월 1일 인사로 신설되어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인 관리팀이 신설되면서 근무하는 직원 몇 명 정도 증원되었으며, 또 앞으로 팀 운영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의원님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에 외국인 관리팀이 신설이 됐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력은 충원되지 않았고 팀장만 새로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 이 인력을 가지고 지금 체계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외국인들에 대한 전체적인 통계라든지 현황이나 이런 걸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외국인들이 체류하거나 적응하거나 정착할 수 있도록 단계적인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외국인들하고 우리 내국인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문화 외국인 친화적인 정책이 앞으로는 우리 지역에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것도 준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인호 의원

앞으로도 외국인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정착해서 또 지역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인호 의원

다음 한 가지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상반기에 우리 현장 방문 때 솔섬 카페 있죠? 공사에 관련한 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3월 방문했을 때 카페 외관은 어느 정도 지어졌는데 아직도 오픈 소식이 없어 궁금해 하는 군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답변 한 번 해 주십시오.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거기 당초에 민간 투자자가 카페하고 거기 다가 민박 2동을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도 아직 마무리가 안 된 상태고, 우리군에서 지원을 도비까지 합쳐서 하기로 됐던 부분이 송곡에 있는 물양장 주차장 시설하고 그다음에 송곡하고 송도에 부잔교 시설을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육지 같으면 이렇게 민간 투자가 이루어지면 도로라든지 상하수도는 군에서 지원을 많이 하는데 거기는 섬이다 보니까 오히려 교통편 지원이 필요하다 싶어서 지원하는데 거기 도비가 늦어지다 보니까 사업 준공이 좀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인호 의원

그럼 올해 안에는 준공은 힘들겠네요.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지금 거의 우리군에서 지원하는 부잔교 물양장 사업은 거의 마무리가 됐고요.

민간이 지금 카페하고 민박 마무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약 8월 중에 오픈할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조인호 의원

아, 8월 중에 오픈하신다고요?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그렇습니다.

○조인호 의원

전국 최초로 무인 카페라고 처음이죠?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그렇습니다. 무인도 카페는 지금 처음입니다.

○조인호 의원

우리군에서 지원되고 도비도 받아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최대한 빨리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인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양훈

최정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욱 의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인구 감소 대응 인구정책 추진에 관계돼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4대 전략 해 가지고 12개..... 4대 전략 12개, 실천 과제 72개 사업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 계신다고 돼 있죠?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예.

○최정욱 의원

여기 있는데 아마 인구 감소 정책 추진이 아마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은 우리 인구 정책은 좋은 일자리 교육 주거 이 세 가지가 해결 안 되고는 안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예. 맞습니다.

○최정욱 의원

맞죠. 거기에 대해서 뭐 그런 정책에 대한 우리 실과에서 많이 하고 있죠.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예.

거기 좀 우리 이제는 한 번쯤은 우리 그 평가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 정책에 대한 인구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있는데 과연 얼마나 실효성 있고 그 사업은 잘 되어 가고 있는지 안 그러면 어떤 개선도 해야 되고 그러지 않을까요?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그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4대 분야라고 했는데 생활 인구 확대라든지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정주기반 확충 이런 쪽으로 지금 여기다가 미래 인재 양성까지 포함해서 그게 4대 전략입니다.

그런데 거기 세부 항목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실효성 있게 집행이 되고 효과가 있는가 이런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매년 분석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정욱 의원

이제 우리 의원들도 사실 그 평가에 대한 궁금하기는 하나 제대로 한번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은 우리가 그 평가를 좀 해봐야 좋겠다.

다음에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욱 의원

2025년 8월에 저출생 대응 완도형 시책 발굴 확정 및 추진 이렇게 되는데 확정이라는 게 어떤 내용인가요? 3페이지에 보면 추진 계획에.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이거는 지금 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전문 기관하고 용역을 체결해서 지금 사업을 거기에 대한 곡은 어떤 걸 담을 것인지 타 지역의 사례라든지 우리 지역 현실에 맞는 여러 가지 시책들을 지금 다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8월달에 최종 확정한다

이렇게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정욱 의원

그럼 그 영역 회사의 평가는 누가 다시 듣고 토론 토의한가요?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저희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종 보고는 아직 안 했고요. 지금 중간 단계 점검을 했고 필요하시면 의원님들 같이 참여해서 같이 한 번 최종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최정욱 의원

이제 그런 거 나오면 우리 지역 주민도 그렇고 전문가들 좀 많이 토론해서 좋은 귀향 세운 거 저 많은 알고 많은 대안도 좀 들어보고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최정욱 의원

그리고 보면 18페이지에..... 18페이지하고 19페이지 우리 치유산업 민간 투자 유치 활성화 이런 거에 지금 계속 리조트나 이런 거 유치한다고 지금 아마 제가 지금 거의 의원 생활 7년 이상 합니다마는 할 때마다 지금 매년 보고는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또 어느 때는 보면 한 4~5년이나 됐을까요? LA에 가서 현지에서 MOU 체결해갖고 투자 유치를 받아왔다 해가지고 260억인가 바로 할 것까지 했는데 그거는 지금 아예 이제 우리 업무 보고에도 빠지고 없었고 없어져 버렸고 그런 게 주로 많은데 우리 이거 실질적으로 되지 않은 거는 빼야 되지 않은가 이게 과연 될까요? 어쩝니까? 지금 내가 몇 번째 물어보는데.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해양치유 레저 리조트 같은 경우는 어차피 우리군 땅하고 민간 투자자가 샀던 땅을 교환해서 행정 절차인 지구 단위까지 이제 다 고시가 끝났고 민간 투자자 준비만 좀 되면 이건 착수할 수 있는 단계인데 지금 건설 경기하고 경기 침체가 이렇게 복합돼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지금 투자 비용을 마련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하고 민간 투자자하고 대형 운영사를 사전에 협의를 선정을 해서 같이 협력해서 풀어가는 방법이 좋겠다 싶어서 그쪽에 포인트를 주고 지금 현재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이제 이런 게 괜히 우리 투자심리에 기대를 하게 돼 있거든요. 안 되면 자꾸 이런 게 또 신뢰가 뭐 하고 그러니까 또한 이 투자자들은 사업가들이에요.

여기에 했을 때 자기들의 투자 효과가 그런 걸 많이 보게 돼 있어요.

쉽게 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또 한화 리조트 같은 것도 안 된다라고 지금 소문이 많이 돌거든요. 그건 또 어떤 내용인가요?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거기는 지금 한화에서 투자 사업 제안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해서 도에 제출했고 도에서 검토가 끝난 상태고요. 실무회의를 5회에 걸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도 지금 과수 연구소 부지를 어떤 형태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고 하나 더 남아 있고 또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를 활용해서 하기로 돼 있는데 그러려면 사전에 SPC 설립하는데 전체 투자 비용이 1,835억일 경우에 전체 투자 비용의 10%인 183억을 SPC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는 그중에 전체 비용의 8% 범위까지 투자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조정하는 부분들이 좀 민

감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 공공 부분하고 민간이 같이 협력해서 풀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그 부분에서 시간이 좀 걸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정욱 의원

이제 밖에 소문은 그렇게 많이 돌고 있거든요. 지금 아마 최고 고위직에서 아마 이건 어렵다라는 이렇게 판단을 내렸다라는 소문도 돌고, 이런 거 우리 실장님은 전혀 아닙니까? 그런 내용은.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아직 저희들한테까지는 도에서도 2~3주 전에 국장님이 와서 이 부분을 군수님하고 협의를 하고 가신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아닌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기대를 많이 했던 거거든요.

○최정욱 의원

우리군에서는 군민들이나 다 금방 될 것 같이 다들 그렇게까지 알고 있는데 이런 소문이 돈 만큼 잘 좀 파악해 주시고 뭐든지 좀 귀향한 거 이제는 제대로 된 내용을 갖고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양훈

박재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 의원

실장님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년 인구가 참 힘들죠? 어떻습니까? 제가 해마다 이렇게 실장님한테 여쭤보는데.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구조적으로 우리 인구에서 가장 문제가 청년 인구가 적고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많다는 것이 우리 인구 측면에서 보면 구조적 문제점 중에 하나입니다.

○박재선 의원

그러면 우리 완도군 청년 기본 조례가 19세부터 49세까지 돼 있죠?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예.

○박재선 의원

그러면 그걸 좀 바꿀 수는 있습니까?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지금 도 내에서 이 청년 인구 기준을 다 달리하고 있는데요. 지금 가장 폭을 넓혀놓은 기준이 19세부터 49세까지입니다.

○박재선 의원

아니 다름이 아니라 왜 얘기를 물어보냐면 저 5페이지에 보면요.

업무 보고할 때는 인원수가 11,450명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 책자에 보면 11,235명으로 돼 있어요. 벌써 불과 몇 개월 차이 안 됐는데 한 200명 이상이 지금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계속 이렇게 없어지는데 완도군의 청년들이 갈 수 있는 또 양질의 일자리가 좀 있어야 이게 해결이 될 건데 그래서 우리가 청년들을 위해서 투자하고 또 임대 주택하고 다 하는데 청년 인구는 계속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만도는 결국은 대학교가 없기 때문에 고등학교까지 졸업하면 다른 지역으로 지금 교육을 위해서 나갈 수밖에 없고 다시 나갔던 청년들이 되돌아와야 되는데 되돌아올 수 있도록 하려면 일단 일자리가 필요하고 어떤 주거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근데 저희 완도 같은 경우는 일자리도 그렇

게 많지 않고 또 하나는 주거 같은 경우는 주택 보급률이 우리 완도는 84%입니다.

완도읍은 79%고요. 인근 해남, 강진, 영암이나 이런 것들은 다 100%가 넘습니다.

이게 우리 지역 주택에 대한 주거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큰 문제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재선 의원

방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자체마다 이 조례를 변경할 수 있어요.

그러면 청년 인구의 나이 수를 좀 나이를 좀 변경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완도군의 인구가 청년 인구 세대가 그만큼 줄어들지 않는다라는 게 뭐가 있어야 되는데 계속 가면 갈수록 줄어만 들지 예산은 계속 투입하지 답이 없다라는 저는 생각을 해요.

아까 소회의실에서 잠깐 얘기했었는데 군 관리계획 잠깐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35년 또 되니까 인구가 5만 5천으로 늘어나더라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4만 한 5~6천 되죠?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예. 4만 5천 정도 됩니다.

○박재선 의원

근데 그 30년 후에 5만 5천이 늘어난다고 군 관리 계획에는 그렇게 아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벌써 만 명이 더 늘어나야 되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지 좀 궁금하기도 해요, 사실은. 군 관리 계획에는 아까 잠깐 소회의실에서 얘기될 때 그렇게 나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우리 젊은 층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그 중간에 소외된 분들이 더 많잖아요. 그분들을 같이 연계성 있게 하면 어떤가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의원님 말씀은 청년의 지금 대상 기준 폭을 좀 더 넓혀보자 그런 의미이신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전남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지금 이 폭을 넓혀놓은 기준이거든요.

넓혀놓은 기준인데 여기보다 더 넓혀놓는 기준은 없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너무 인위적이라는 어떤 그런 평가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게 좋을 건지 지금 이 기준에 놓고 조금 청년의 정책을 통해서 청년들을 더 이게 우리 지역으로 정착을 유도할 것인지 이 부분은 한번 더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선 의원

예.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에도 이제 제가 사무감사 때도 몇 번 얘기했었는데 교육 특구에 대해서 한번 지금 결과가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교육 특구는 작년에 저희들이 예비 특구 지정이 돼서 본 특구 지정 신청을 다시 했고요. 지금 교육부에서 1차 평가가 끝나고 지금 지방시대 위원회 평가가 17일부터 23일 사이에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시대 위원회 평가에서 큰 문제가 없다라면 지금 조심스럽습니다만 이달 말까지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재선 의원

제가 좀 얘기는 좀 들었어요. 이제 그래서 교육특구가 작년에는 해남이 됐잖아요.

인근에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완도가 작년에 했는데 떨어져가지고 올해는 좀 좋은 얘기가 좀 들리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결과가 지금 나왔는지 아니면 아직 그런 보고가 없어서 어떠한지 그러면 교육 특가가 이제 책정이 되면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교육 특구는 교육 교부세 그다음에 그 도비 군비 포함해서 대략 지원된 금액만 4년간 153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해 가야 되는데요.

우리군이 추진할 사업도 있고 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할 사업들이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대부분 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할 사업비이기 때문에 확정이 되면 다시 실행 계획을 다시 이렇게 짜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서로 조율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선 의원

혹시 이제 교육 특구로 되면 교육청하고 또 완도군하고 해서 짜임새 있게 또 4년 동안 지워준 기간이니까 금액은 150억 정도 된다 하는데 그 금액과 우리가 용이하게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그렇습니다.

○박재선 의원

그 부분을 실장님께서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 또한 계속 이게 교육 특구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실장님한테 여쭤본 거니까요.

다음에 또 필요한 사업이 있을 때 같이 공유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예. 감사합니다.

○박재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양훈

박성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규 의원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완도에서 살아보기 사업 추진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면은 자료에 보면 사업비는 1억 5천만 원 이상이 투입됐고요.

농촌에서 살아보기 1기 사업에 14가구 19명이 참여했는데 그중 적임자는 한 가구 1명으로 매우 저조한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지금 작년 재작년에는 6명씩 전입했는데 이거는 이제 상반기 하반기 다 운영한 결과가 그렇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지금 한 명인데요. 이 부분은 조금 더 하반기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더 많은 분들이 우리군으로 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규 의원

살아보기 대상자 간담회를 4번 정도 추진하셨던데 그때 나왔던 제안이나 건의사항이나 불편 사항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이분들이 주장하는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귀촌인들 좀 지원을 좀 확대해 달라 이제 특히나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군의 주택 보급률이 낮아서 빈집도 활용할 수 있는 빈집이 많이 없고 그래서 모듈러 주택을 좀 확대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건의가 있었고 또 하나는 귀촌인들 지원할 때 지금 현재 65세까지로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지원 기준을 한 70세로 지금 우리가 인구 평균 수명이 늘어나기 때문에 70세로 연장했으면 좋겠다라는 이 세 가지 정도가 가장 큰 핵심 건

의 사항이었습니다.

○박성규 의원

지금 65세면 나이가 너무 젊지 않습니까?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사업 설계가 65세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연장이 가능한 것인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규 의원

검토해서 가능하면 65세 이상도 70세도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예.

○박성규 의원

그리고 농촌마을 체험 휴양마을이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8개소가.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여기는 군외 신학, 그다음에 불모, 그다음에 신지 울모래, 고금 청학, 그다음에 청산 상석 이렇게 5개소입니다.

○박성규 의원

8개소가 아니고 5개.....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어촌 체험 마을은 그다음에 이제 그 노화 북고, 그다음에 보호, 그다음에 신지 명사십리가 신규로 하나 더 됐습니다.

○박성규 의원

이거 홍보가 안 돼서 잘 몰라요. 어디가 어디가 있는지 전혀 모르거든요.

좀 홍보를 잘해서 노화에 있다든지 군외에 있다든지 홍보를 좀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규 의원

그리고 매출액이 한 600명 정도 방문 했죠?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예, 예.

○박성규 의원

매출액이 1억 600만 원 정도요.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예. 그렇습니다.

○박성규 의원

가장 높은 상품이 뭡니까? 거기서 어떤 게 제일 잘 팔리고.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이게 제일 좋은 이게 매출 중에서 많이 차지한 비중은 그 지역 특산품 판매하는 그런 겁니다. 지금 일부 신학 같은 경우는 특산품 판매 매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제일 많은 매출액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성규 의원

그리고 이제 종료 후에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정착을 지원하는 후속 시스템이 또 있습니까?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휴양마을에 들어와서 우리 완도의 매력을 느끼셔서 추가적으로 더 계시고 싶으신 분들은 살아보기 참여를 유도하고 있고 살아보기는 최대 두 달이거든요.

그래서 끝나서 실제 정착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귀농의 집 또는 귀어의 집을 통해서 또 거기는 6개월에서 9개월까지 사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차근차근 유도를 해 가고 있습니다.

○박성규 의원

실장님 후속 시스템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하거나 정착을 유도해서 많은 기여 귀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양훈

허궁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궁희 의원

실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마는 간단하게 제가 한 가지 확인 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이 전국 1위 3,277명이라는 계절 근로자를 배정받았죠?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예. 그렇습니다.

○허궁희 의원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해서 많은 계절 근로자를 배정받았습니다마는 우리 지금 고용주들께서는 이게 부족해서 불법 체류자들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죠.

특히나 우리 농공단지에 위치하고 있는 미역 공장이나 톳 공장 여기에서는 지금 불법 체류자들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가 발생이 됐냐면요. 계약서를 1년 단위로 이렇게 10개월씩 끊어서 했답니다. 그런 게 그런데 퇴직금을 좀 안 주려고 아끼려고 그렇게 편법을 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사람들이 이 3년째 군마다 나가 가지고 일명 해결사라는 사람들을 앞세워서 퇴직금 내놔라 협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귀찮아서 일부는 타협해서 그냥 일정 금액에 해결을 한 그 업체들도 있고 일부 업체에서는 이건 억울하니까 나는 못 주겠다 그래서 지금 법적으로 가는 업체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내용 알고 계신지 실장님?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그 얘기까지는 제가 못 들었고요. 농단지 쪽에 특히 미역 가공 기초 원식 가공하신 분들이 계절 근로자는 쓸 수는 있습니다. 쓸 수는 있는데 한 어업인당 최대 5명밖에 못 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 거기서 필요한 인력은 50명, 60명인데 계절 근로자가 더 많이 쓸 수 있으면 좋겠는데 못 쓰기 때문에 이거는 제도적으로 개선해 달라고 이미 해수부 쪽에 요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퇴직금 1년 이상 계약에서 이 부분은 제가 이 얘기까지는 못 들었습니다.

○허궁희 의원

그래서 우리 이제 이번에 이제 팀 개설도 되고 했으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서 우리 국민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적극 한번 개입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제가 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된 동기입니다.

한번 점검해 보시고 우리 행정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적극 개입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일단 상황을 파악해서요. 저희 군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궁희 의원

예. 적극 행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양훈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실장 안환옥

(참조)

·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의장 김양훈

관광실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 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26페이지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 맨발 걷기길 유지 관리와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은 맨발 걷기 최적지이고 작년에 대한민국 맨발 걷기 치유길 1호로 또 선포가 되었어요. 그리고 또 1회 명사십리 치유길 맨발 걷기 페스티벌도 개최를 했고 그리고 올해 또 엊그저께 토요일이죠. 해양치유 맨발걷기축제 했었어요.

○관광실장 안환옥

예. 맞습니다.

○지민 의원

혹시 그 실장님께서는 우리 치유길 1호 한 번 걸어보셨나요?

○관광실장 안환옥

예. 이제 치유센터에 근무하면서 그 황톳길을 걸은 적이 있습니다.

○지민 의원

여기 대한민국 맨발 걷기 치유길 1호인 여기 황톳길이 이렇게 황토가 좀 많이 씻겨 내려갔어요. 그래서 또 일부 길에는 또 작은 돌들도 있고 그리고 또 돌출이 되어 있어서 걷기에 좀 되게 불편하게 또 느끼신다고 이런 민원들이 좀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제 걸어보셨다면 그 황톳길이 좀 느낌이 좀 어떠셨는지 한번 말씀 한번 해 주세요.

○관광실장 안환옥

좀 딱딱한 부분도 있고, 돌도 약간 있기는 있었는데 그렇게 제가 걸을 때는 그렇게 불편함이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행사하기 전에 저희들이 에어컴프레서로 그 위에 있는 나뭇가지들이나 돌들을 싹 이렇게 하고 또 물도 좀 뿌려줘서 촉촉하게 해서 걷기에 좋게끔 좀 정비를 좀 한 바가 있습니다.

○지민 의원

여기 맨발 걷기는 이제 발바닥으로 직접 이렇게 땅을 직접 밟는 것이 혈액 순환도 잘 되고 이런 건강에도 이렇게 지압 효과가 있어서 참 좋다라고 해서 이렇게 또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또 우리군 역의 치유길에는 마사토나 모래나 자갈이 좀 섞여 있어서 이런 좀 유지관리가 좀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관광실장 안환옥

다시 한 번 현장에 둘러보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좀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민 의원

우리 여기 황톳길은 맨발로 걸어야 되는 곳이죠?

○관광실장 안환옥

그렇습니다.

○지민 의원

맨발로 걸어야 된다고 지정이 돼 있어요. 근데 엊그저께 이제 토요일 날 우리 맨발 걷기 대회를 하는데 거기 맨발로 걸어가는 길을 걷고 또 이제 그 신발을 신은 분들은 여기 이제 데크길을 걸어야 되잖아요. 그게 맞죠?

○관광실장 안환옥

예.

○지민 의원

근데 이제 어떠한 안내판도 없이 맨발로 걸어야 되는데 그 황톳길 위를 좀 전에 물도 좀

뿌려 놓으셨으면 약간 조금 뭐라 하죠? 찌걱찌걱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을 텐데 운동화를 신고 계속 걸어가시는 분이 있었대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꽤 여럿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같이 걸어가시는 분들 중에 여기를 원래 맨발로 걸어야 되는데 신발을 신고 걸으니까 꽤 불편한 감정이 좀 있었겠죠.

근데 이제 옆에 당연히 우리 축제를 하는데 직원들도 많이 좀 있어야 되고 이거 행사 진행을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된다 이렇게 안내를 좀 해야 되는 분들도 좀 있어야 되는데 안내도 좀 안 되고 이거를 좀 제지를 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좀 불쾌하더라 이런 말씀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또 실장님께서도 또 앞으로도 이제 평상시에도 아마 그런 운동화를 신고 신발을 신고 걸으시는 분들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렇게 안내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걸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실장 안환옥

예. 그러겠습니다.

○지민 의원

그리고 우리 또 최적의 명소이고, 또 옆에 우리 해양치유센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화 치유 센터도 같이 있어서 최상위 우리 완도에서 우리 전국에서 가장 좋은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서 좀 잘 유지 관리가 좀 되어서 최고의 장소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실장 안환옥

예, 예. 관심을 갖겠습니다.

○지민 의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28페이지 방문의 해맞이 선진 음식 문화 조성, 여기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식당에 위생복을 다 나눠줬죠? 앞치마.

○관광실장 안환옥

예.

○지민 의원

근데 혹시 이제 그 앞치마를 받아보시고 우리 식당에 계신 분들 이제 음식 조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바쁘시잖아요. 바쁘신데 또 이제 이게 앞치마가 등이 있는 데가 x자로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x자로 돼 있는 앞치마 같은 경우에는 머리를 먼저 끼우고 팔을 양쪽으로 이렇게 해서 입어야 되니까 입는 것 자체도 굉장히 불편하고 또 이제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물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앞치마도 요 앞부분에 이렇게 방수가 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좀 방수가 또 안 되니까 옷이 또 다 어차피 그 앞치마 입으나 마나 한 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왕에 이렇게 이제 좀 마련을 해 준 거니까 이렇게 조금 좀 잘 쓰고 또 필요하고 또 정말 정말 이게 잘 만들었다 정말 고맙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직접 쓰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까라는 여론을 좀 들어보시고 이런 걸 좀 제작을 해서 만들어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실장 안환옥

예. 알겠습니다.

○지민 의원

그리고 한 가지 간단하게 또 말씀드릴게요. 우리 그 희망한다 SNS 기자단들이 우리 여기 맛집을 다니시면서 여기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SNS에 좀 많이 올렸어요.

근데 이제 그걸 보면서 조금 아쉬운 점이 뭐였냐면 우리 SNS 기자단 분들이 우리 요즘에 홍보하면은 이렇게 해시태그라는 걸 좀 많이 쓰잖아요.

근데 우리 그 기자단들도 해시태그에 조금 공통으로 만들어지는 뭔가가 좀 있으면 어떨까 샵 완도군, 샵 완도 미식여행, 샵 완도 맛집 뭐 이렇게 똑같이 공통적인 문구를 써가지고 우리 검색하는 사람들이 완도 맛집을 검색을 누르게 되면 엄청 많은 것들이 나오고 또 우리가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올렸잖아요.

그런 거를 한꺼번에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다양하게 볼 수 있게끔 이런 것들을 좀 교육을 시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관광실장 안환옥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민 의원

실장님 점검 한번 해 주시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양훈

허궁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궁희 의원

실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명사십리 해수욕장이 개장이 됐죠?

○관광실장 안환옥

예.

○허궁희 의원

다양한 축제와 함께 풍성하게 개장했는데 그때 관광객들이 얼마쯤 왔다고 파악이 됐는가요?

○관광실장 안환옥

1만 3천 명 입장을 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허궁희 의원

예. 많이 왔더라고요. 다양한 행사와 함께 관광객들이 북적거리니까 행사장에 왔었던 분들이 너무나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맨발 걷기하고 크로스핏 대회는 젊은 참가자들이 명사십리 해변을 달리고 운동하는 모습이 특히 인상 깊게 저희들도 봤습니다. 특히 이제 MZ세대들이 인스타나 페이스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MZ세대들을 공 공략하려면 자연스럽게 명사십리 해수욕장 후보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질문 드리자면 MZ세대를 겨냥한 홍보 콘텐츠나 SNS 마케팅 전략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실장 안환옥

지금 뭐 제가 와서 바로 어떤 마케팅 방법을 좀 고민해 볼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그 부분은.....

○허궁희 의원

그럼 다음에 서류로 한번..... 저하고 대화 한번 하시죠.

○관광실장 안환옥

고민을 해서 의원님께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궁희 의원

참고로 이제 이렇게 강원도 양양군은 서핑 천국이라고 이미 이렇게 젊은 사람들한테는 많이 이렇게 홍보가 됐어요.

그래서 양양군이 SNS로 자연스럽게 태그대에서 지역 홍보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는 곳 중에 하나랍니다. 참고해서 한번 활용을 해 보시기 바라고요.

○관광실장 안환옥

예. 알겠습니다.

○허궁희 의원

그리고 이제 해수욕장 개장과 함께 관광객들 안전이 최우선인데요. 아까 이제 교육을 시켜서 이렇게 이렇게 이제 근무를 세웠다고 했는데 요즘은 문제가 뭐냐 하면 피서지 그러면 이제 음주 문화입니다.

이제 음주 수영이랄지 야간 해수욕 당정 이렇게 해수욕장에 이렇게 막 야간에도 들어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일몰 시간에는 못 들어가게 이렇게 규제를 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을 했고 어떻게 또 대처를 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실장 안환옥

이제 인명구조대원들이 이제 근무 시간 내에는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순찰을 하고 있는데요. 야간 때에는 인명 구조 요원들이 이제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군청에서 부서에서 인원을 당직 형태로 해서 근무 조치를 야간 근무를 하게 돼 있는데 안내 방송을 수시로 진행을 하면서 계도를 해 나가고 있고요.

입수하면 안 된다. 그다음에 야간에 폭죽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그 안내 멘트를 지속적으로 지금 계도를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허궁희 의원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건 개장을 앞두고 화장실과 샤워실 등 편의시설 정비와 개보수를 했는데 청결 유지를 위해 청소는 어디서 하고 몇 시간마다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인 것은 파악이 안 됐으면 다음에 한번 얘기를 해 줘도 됩니다마는 이 문제가 제일 민원이 많습니다.

사실은 해마다 저희들한테 몇 건씩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물었습니다.

○관광실장 안환옥

해수욕장 이제 개장이 되게 되면 근무 인원들은 안 좋은 요원 40명을 채용을 하고 미화 요원들 30명을 채용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주차장 관리 요원 5명, 간호 요원 2명 이렇게 해서 각각 역할에 맞는 인력들을 채용을 해서 배치를 해서 각 화장실별로 1번부터 9번까지 화장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화장실별로 이 인원들을 배치를 시키고 청소를 수시로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허궁희 의원

그러면은 이제 우리 화장실이나 주위 청소 부분은 이렇게 청결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관광실장 안환옥

예. 그렇습니다.

○허궁희 의원

그렇게 좀 관리 좀 잘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해수욕장 관리 부분에서 우리 모래밭에 소나무가 쭉 식재 돼 있죠?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예. 맞습니다. 근데 보고 뭐 못 느끼셨어요? 제 멋대로 자라 있습니다.

○관광실장 안환옥

그것도 제가 가서 파악을 하고 저희 이제 팀장한테 수목 소나무 정전을 할 수 있게끔 전문 업체에다 한번 와서 보고 시기적으로 지금 해야 되는 거냐 해수욕장 개장이 끝난 다음에 해야 되는 거냐 그다음에 사업비는 얼마 정도 들 거냐 이런 부분을 좀 파악을 하라고 지시를 해 놓은 바 있습니다.

○허궁희 의원

예. 왜 그러냐면 항상 보면 아쉬운 게 그 좀 손질 좀 해놓으면 정말 좋은 소나무들인데 너무 아쉬운 점이 있어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

서 말씀드렸고요.

한 가지 더 지적을 하자면 우리 해당화를 많이 쉽게 해놨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걷기 저기 할 때 봤습니다. 근데 관리가 너무 안 돼 있어요.

혹시 보셨어요?

○관광실장 안환옥

저도 봤습니다.

○허궁희 의원

그거 뭐 반절 이상은 고사한 걸로 제 눈에는 들어오더라고요.

○관광실장 안환옥

예.

○허궁희 의원

그래서 한번 재정비를 해서 그래도 명사십리 그러면은 상당히 그 이름이 나 있고 좀 가보고 싶어 한 곳인데 그런 점은 너무 아쉽더라.

사실은 제가 사진을 찍어 와서 올리려 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렇게 관광실로 또 승격이 됐고 아직 업무 파악이 안 된 것 같아서 그것은 제가 좀 저기했습니다.

○관광실장 안환옥

그것도 저도 이제 가서 봤는데 23년도에 신지면 분이 기증을 해 가지고 거기다 식재를 했다고 팻말까지 있는 걸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순백이라는 나무도 있는데 그걸 좀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서 이제 좀 중점적으로 제가 좀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허궁희 의원

예. 꼭 관리를 잘해서 다시 찾는 관광객들이 많이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기회가 됐으니까 제가 이제 이 이 부분하고는 좀 동떨어진 얘기입니다마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완도 방문의 해라고 이렇게 선포식까지 했어요.

그런데 우리 완도의 관광객이 됐든 지역민이 됐든 좀 늦게 이렇게 외출을 했다가 오게 되면 저녁 식사할 곳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완도가 아무리 잘했더라도 그건 좀 아쉬운 점이 있다는 거죠.

뭐 실장님도 그런 걸 느끼셨는가요?

○관광실장 안환옥

아, 저는 그걸 이제 저희 지역이니까 저는 못 느꼈는데요. 일단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그걸 들은 바는 있습니다.

○허궁희 의원

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냐면요. 앞전에 우리 슬로시티 행사 때도 그런 얘기가 저한테는 들어왔어요. 저녁 밥을 못 먹고 계속 그 다른 이렇게 음식으로 대체를 했다 그래서 참 아쉽구나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래도 우리 완도 하면 음식문화는 아주 맛있고 좋은 음식이 많다고 이렇게 평이 나 있는데 저녁을 못 먹고 이렇게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아쉽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을 좀 더 우리 관광실에서 이제 개선을 해서 우리 완도 찾는 관광객이 됐든 지역민이 됐든 간에 그런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실장 안환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궁희 의원

이상으로 보충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양훈

박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의원

관광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실장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오전에 5분 발언을 통해서 완도 관광산업에 대해 그동안 보고 느꼈던 사

항에 대해서 국민을 대신해서 전달을 해드렸습니다마는 국민들의 기대와 그 관광 환경이 변화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세 가지만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5페이지 지역 관광 DMO 운영 활성화 사업인데요. 금년 2월에 문체부 주관으로 지역관광 추진 DMO 사업이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됐죠? 청산 농협에서.

○관광실장 안환옥

예.

○박병수 의원

이건 주민들이 이렇게 공모 사업 공모에 응모해 가지고 선정된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관심을 갖고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관광실장 안환옥

예.

○박병수 의원

지금 현재 한국관광공사에서 그 예산이 지금 스톱 돼 갖고 있죠?

○관광실장 안환옥

예. 그렇습니다.

○박병수 의원

지금 보면은 금년 6월에 완도군 관광협의회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를 지원한 걸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지원이 됐는가요?

○관광실장 안환옥

예. 됐습니다.

○박병수 의원

군비로 지원되는가요?

○관광실장 안환옥

예. 그렇습니다.

○박성규 의원

그러면 앞으로 국비 관계는 그러면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가요?

○관광실장 안환옥

관광공사에서는 전라남도 감사의 결과를 좀 지켜보고 그 추이를 지켜보고 난 다음에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좀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버스 운영 부분 그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른 대안이 있는 건지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 건지 좀 세부적으로 좀 검토를 더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박병수 의원

그러니까 사업은 2월 연초에 이렇게 선정이 됐는데 이렇게 중단돼 가지고 진행이 안 된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아무튼 저 그 도부 감사관실에 그런 감사 처분 지시가 왜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 것인가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이것이 다른 사업들하고 연계돼 있기 때문에 그것 감사로 해서 이런 다른 사업을 또 진행을 못 한다면 우리 지역적으로 상당히 손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좀 관심을 갖고 한번 챙겨 주십시오.

○관광실장 안환옥

알겠습니다.

○박병수 의원

그리고 9페이지 해완도로 관광경관 명소화 사업인데요. 이건 업무 파악이 아직 덜 돼서 지금 지금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추진 배경을 보면 국립난대 수목원과 청해포구 해선 세트장 구간이에요. 그런데 사업 위치를 보면은 완도군 국도 77호 및 군외면 삼두리 일원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앞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도 이걸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그게 상당히 변경하기가 어렵다는 그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완도의 관문이 군외면 소재지입니다. 원동 그리고 농촌 중심지 활성화의 시작점이고 또 그 군외면의 소재지

이고 그런데 그쪽이 빠졌어요.

어차피 그쪽을 통해서 수목원을 가고 그 경관도로를 전부 다 진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 원동 소재지부터 군외면 갈문리 구간을 빼놓는가 그것을 그 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면 좀 변경을 해서 이 사업이 그 경관도로로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군비를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요?

○관광실장 안환옥

그럴 것 같습니다.

○박병수 의원

그러니 그 부분도 국비를 어떻게 더 확보할 수 있으면 국비를 확보한다든가 다른 정치적인 그런 부분들을 좀 활용할 수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그 계획을 변경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심을 갖게 해 주십시오.

○관광실장 안환옥

예. 의원님의 그 말씀은 우리 직원들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고요. 이 부분이 변경이 어렵다고 하면 다른 어떤 대체 사업이 있는 건지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병수 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음은 14페이지 남파랑길 쉼터 및 걷기 프로그램 운영에 지금 1억 2,800만 원이 지금 휴게공간 관광안내 등 숙박 시설로 이렇게 사업비가 나오는데 이 내용에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관광실장 안환옥

이 사업은 그러면 관광시설 팀장님 혹시.....

○박병수 의원

한번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관광시설팀장 곽경주

관광시설팀장 곽경주입니다. 의원님 제가 방금 질문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병수 의원

남파랑길 쉼터 및 걷기 프로그램 운영에 그 사업 개요에 보면 사업 위치가 군외면 원동1길 8번지거든요. 남파랑길 86-88코스인데 쉼터 현황에 휴게공간이 있고, 관광 안내 숙박 시설이 있어요. 이 내용이 뭔지 1억 2,800이에요, 사업비는.

○관광시설팀장 곽경주

쉼터 현황에서 이제 그 첫마을 권역 협동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원동 소재지에 그 펜션형 한옥이 있습니다. 한옥 앞에 보면은 판매장이 있습니다. 거기 판매장 안에가 저희 남파랑길 쉼터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쪽의 위치를 지금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박병수 의원

이건 국도비로 국비 군비가 투자가 되네요. 그 근거가 있는가요? 이 법적 근거가.

○관광시설팀장 곽경주

저희들이 이제 이게 문체부 사업으로 매년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건물을 신축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군비가 투입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저희들이 기존의 남파라기 코스 중에서 어 건물을 쉽게 좀 접할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한 그런 건물을 선택을 해서 저희가 지정을 했습니다. 지정 신청은 문체부에다 저희들이 올렸던 사항입니다.

○박병수 의원

여기 그럼 금년부터 지원되고 있는가요?

○관광실장 안환옥시설팀장 곽경주

남파랑길 사업은 지금 5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의원

걷기 코스는 내가 조성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이 사업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관광시설팀장 곽경주

사업 시작은 2019년도부터 시작된 걸로 그

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병수 의원

이 사업비를 계속 지원하고 있는가요?

○관광시설팀장 곽경주

지원받고 있습니다. 매년 지원받고 있습니다.

○박병수 의원

참 대단하시네요. 이 부분은 지금 이제 첫마을 권역 사업으로 이 사업을 조성이 됐는데 그때 74억 투자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외지 사람이 와서 이걸 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 주민들은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좁은 건물까지 와서 그렇게 자기가 개인이 와서 이렇게 이제 모든 곳을 저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이런 국도 국비 군비까지 이렇게 지원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군민들이 아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관광시설팀장 곽경주

첫마을 권역 사업, 첫마을 권역 사업은 건설과에서 농촌개발 쪽에서 농촌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신축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수 의원

아니, 처음에는 건설과에서 했어요. 그런데 왜 관리는 또 여기 관광실에서 하죠?

○관광시설팀장 곽경주

저희들이 쉼터로만 지정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거기에 지역 특산물 판매장이 있는데 판매장 내에 저희들이 마땅한 그런 건축물이 없기 때문에 판매장 내에 쉼터로 기능을 지정을 해놓은 겁니다.

○박병수 의원

지금까지 추진했던 그런 사업 관련 모든 전반에 대해서 저한테 한번 제출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팀장 곽경주

별도로 보고를.....

○관광실장 안환옥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수 의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김양훈

박재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 의원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3페이지 보면 우리 관광 상품 개발이라고 좀 있어요.

그게 보면 우리 관광택시가 지금 운영하고 있죠?

○관광실장 안환옥

예.

○박재선 의원

지금 업무 보고 때는 8대로가 돼 있는데 지금 현재는 6대 이렇게 돼 있어요.

○관광실장 안환옥

예.

○박재선 의원

그러면 합격자 선정이라고도 또 돼 있죠?

○관광실장 안환옥

예.

○박재선 의원

이 선정 과정은 어떻게 해서 선정하는 겁니까?

○관광실장 안환옥

그 공모를 해가지고 관광택시를 할 운행자를 모집 공고를 내면 본인들이 이제 권고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마련해놓은 기준에 적합하냐 안 하냐 이런 부분을 판단을 해가지고 심의를 해서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선 의원

더 지원자는 있습니까? 아니면은 없어서 6대만 하고 있는 것입니까?

○관광실장 안환옥

지금 지원자가 6명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박재선 의원

지원자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예.

○박재선 의원

올해 지금 이거 처음 한 거죠?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예. 그렇습니다.

○박재선 의원

보면은 주요 내용에 보면 다양한 유형의 관광객을 수용하고 치유 상품 체험할 수 있는 완도 관광 택시 운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는 체도권만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죠.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그렇습니다. 체도권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재선 의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도서 지역으로 나뉘다 보면 관광지 명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이걸 확대해서 이제 도서 지역까지 갈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재선 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 체도권만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지원자가 몇 명 없고 6대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섬에는 아직까지 그런 운용할 수 있는 관광 택시를 모집하고자 하는 공모사업은 안 했죠?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이제 범위를 확대를 해서 도서 지역까지 할 수 있게끔 이제 확대를 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래야만이 체류형 관광으로 되지 않을까 앞으로는 그렇게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재선 의원

이제 업무 보고 때 처음에는 몇 대 안 했었는데 지금은 이렇고 앞으로 도서 지역에도 저는 분명히 이 관광택시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6개월, 이제 7개월 됐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것이 체도권만 아니고 섬에도 도서 지역에도 있어야 우리 관광객들이 두루 볼 수 있는 관광지 명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광실장 안환옥

예. 그렇게 좀 검토하겠습니다.

○박재선 의원

예. 꼭 좀 되게 해 주십시오.

○관광실장 안환옥

예, 예. 알겠습니다.

○박재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양훈

박성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규 의원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해양치유 업무가 많은 데서 또 일하시다가 또 업무가 많은 관광실로 왔네요. 우리군 대표축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관광실장 안환옥

지금 이제 장보고수산물축제, 청산도슬로우걷기축제, 가을섬여행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성규 의원

완도 대표 축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올해 우리 장보고 수산물 축제 프로그램으로 우리 대나무 낚시 체험이 있었죠?

○관광실장 안환옥

예.

○박성규 의원

그리고 전복 따기, 또 전통 노젓기, 또 읍면 대왕 청해 가왕 등이 관광객들에게 가장 인기가 좋았어요. 실장님 올해 장보고 수산물 축제 킬러 콘텐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관광실장 안환옥

대나무 낚시가 킬러 콘텐츠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성규 의원

작년에 대나무 낚시 체험을 하는데 많은 관광객들이 줄 서 있고 고기는 떨어졌고 그래서 현장에서 군수님과 국회의원 또 저희들이 국회의원 군수님 지시해서 추가로 고기를 투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많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다음번에 할 때는 예산을 충분히 좀 반영해서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나무 체험을 우리 관광객들이 다 체험하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전복 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도 지적이 나왔습니다마는 전복을 적은 거 같은 전복을 하지 말고 좀 큰 걸로 사이즈로 있는 걸로 해서 가지고 가서 맛있게 드실 수 있도록 좀 사이즈도 크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실장 안환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규 의원

우리 올해는 장보고 수산물 축제가 대성공이로 치러졌다고 생각합니다. 모처럼 우리 지역 상가가 활성화되고 관광객들이 많이 왔었습니다. 그 이유는 방금 말씀했지만 뭐라고 생각합니까? 자세한 내용.

○관광실장 안환옥

이제 체험 프로그램들이 있고 그다음에 날씨도 좀 한몫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완도 방문의 해 치유페이 이런 부분도 좀 영향이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성규 의원

지난해만 해도 이렇게 너무 단출하고 단순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관광객도 많이 안 오고 그랬는데 올해는 방금 말한 대로 날씨도 좋았고 또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성공한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10월에 또 가을 청정 완도 가을 섬 여행 축제가 있죠?

○관광실장 안환옥

예. 그렇습니다.

○박성규 의원

그 계획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실장 안환옥

이제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이제 완도읍 해변공원에서 개최할 예정이고요. 지금 이제 축제 기본 계획 수립하고 축제 추진위원회를 이제 막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다음 주 7월 23일 날 축제 추진위원회를 개최를 할 거고 그다음에 그 축제 추진위원회 임원 선임과 축제 대행사 선정 이렇게 해가지고 외부 관광객 유입과 우리군만의 특화된 관광자원을 연계해서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규 의원

지난해 가을 축제는 신지 명사십리 또 완토리니 청산도, 보길도, 생일도, 남파랑길 체험 등 여러 가지 지역에서 개최가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하다 보니까 신지 해양치유 중심으로 개최가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국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말이 많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관광실장 안환옥

그래서 이제 이번에 금년에는 해변 공원에

주로 하고 이제 해양치유센터하고 연계하는 프로그램 이런 정도로 해서 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성규 의원

올해 상반기에는 청산도 슬로 걷기 축제, 또 장보고 수산물 축제, 국제 슬로시티 총회 등 국내외 큰 행사 축제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성공리에 개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가을 축제도 알찬 프로그램을 계획하시어 지역 내 소상공인들도 웃을 수 있고 관광지들도 와서 치유하고 만족해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실장 안환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규 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엊그저께 우리 신지 명산 심리에서 우리 치맥 행사 치렀죠?

○관광실장 안환옥

예. 그렇습니다.

○박성규 의원

개장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치맥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치맥 예산은 얼마나 세워졌었습니까?

○관광실장 안환옥

2천만 원입니다.

○박성규 의원

2천만 원입니까? 그럼 홍보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관광실장 안환옥

짧은 기간이어서 플랜카드와 SNS 홍보로 짧은 기간 동안에 했었습니다.

○박성규 의원

혹시 만들어 놓은 팸플릿은 있습니까? 혹시.

○관광실장 안환옥

이제 저기 이제 치맥 페스티벌과 크로스핏 그리고 맨발 걷기를 종합해서 해놓은 그 시안은 있습니다.

○박성규 의원

방송실 자료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저기가 치맥 페스티벌이라고 적어져있죠, 가운데가. 이렇게 치매 축제를 한다고 홍보 관광객들을 초대해 놓고 정작 축제장은 치킨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관광실장 안환옥

없었습니다.

○박성규 의원

더구나 우리 완도는 전복 산업이 주력 산업이고 전복이 어려웠기 때문에 복닭복닭해서 치맥과 전복이 있어야 된다고 우리 의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치맥 축제장에 치킨이 없으면 뭐 한 줄 압니까?

○관광실장 안환옥

이제 크로스핏하고 연계한 행사를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치맥 페스티벌 행사 명칭에 부합하지 않게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책임자로서 면밀히 검토하지 못하고 그런 부분을 간과하게 된 것은 제 불찰입니다.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면밀히 이 행사 계획을 검토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박성규 의원

축제를 즐기러 온 관광객들이 치맥 축제에 치킨이 없는 게 말이 되냐고 쓴 소리를 하는데 정말 얼굴이 부끄럽습니다. 사실은 어디 목포 가나, 강진 가나 다 치맥에 가면은 치킨이 나오는데 완도만은 전복도 안 나오고 치킨도 안 나오고 이게 말이 맞냐 관광객들의 불평 불만도 많았고 우리 완도군민들도 불평불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관광실장 안환옥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성규 의원

어느 팀에서 담당하십니까?

○관광실장 안환옥

해수욕장운영팀에서 이제 하는데요. 이게 이제 치맥페스티벌만 개별 행사로 진행을 했더라면 오히려 이제 그 집중을 좀 할 수 있었을 텐데 크로스핏 대회가 낮에부터 진행을 하다 보니 거기에 이제 푸드트럭도 낮에부터 운영을 하게 되고 그게 또 치매 페스티벌과 연계가 되게끔 이렇게 운영사와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푸드트럭에 대한 관리 자체를 제가 이제 면밀하게 검토를 못하고 놓쳤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박성규 의원

관광실에 축제 담당 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있죠?

○관광실장 안환옥

이제 축제 담당은 관광 상품팀에서 지역 축제를 담당을 하고 있고요. 치맥 페스티벌은 해수욕장 운영팀에서 담당을 맡아서 했었습니다.

○박성규 의원

꼭 그 해수욕장운영팀에서 이거를 맡아서 하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우리 관광실에서 하면 안 됩니까?

○관광실장 안환옥

그러니까 이제 개별 행사였더라면은 관광상품팀에서 맡아서 했을 텐데 연기하는 행사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누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성규 의원

물론 실장님께서 이제 발령받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업무 파악을 다 못 하리라고 믿습니다마는 너무 시간에 쫓기다 보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준비가 안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읍면 축제도 아니고 또 관광실에서 추진하는 여름 축제가 이거 말고는 없죠? 여름 축제는.

○관광실장 안환옥

예. 그렇습니다.

○박성규 의원

앞으로는 좀 관심을 갖고 더 깊이 좀 생각하셔서 이런 치맥 행사가 이렇게 원성이 듣지 않도록 좀 해 주시오.

○관광실장 안환옥

예. 그러겠습니다.

○박성규 의원

실장님 이렇게 할 바에 치맥 축제를 전면 폐지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우리 군민들 또 관광객도 있는데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실장 안환옥

예. 그러겠습니다.

○박성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양훈

조영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 의원

실장님 장기간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 하나 바로 잡을 거 하나하고 가장 짧은 질문 하나 하고 딱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실장님 짧은 시간이지만 업무 인수인계 등 업무 파악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관광실장 안환옥

이제 큰 틀에서는 이건 이거다 이렇게는 이제 윤곽이 좀 나오는데요. 세부적으로는 못 들어봤습니다.

○조영식 의원

디테일한 것들은 아직 파악이 덜 돼 있죠?

○관광실장 안환옥

예.

○조영식 의원

아까 박재선 의원이 질문한 23페이지 관광택시에 대해서 제가 이 면접관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바로잡아야 될 것 같아서 한마디 바로잡고 가겠습니다.

이게 지금 관광택시가 6대만 응시한 게 아니고요.

8대 이상 해가지고 6대 지금 이 부분이 관광객들이나 관광 택시업을 하신 분들도 호응도가 너무 좋아가지고 8대 이상이 신청을 하고 6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업 기간도 올해 처음 한 게 아니고 작년부터 해서 그걸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올해 재차 했다는 말씀을 바로잡습니다. 실장님 나머지는 해신 장보고 지구 관광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 묻고 싶었는데 시간도 많이 되고 또 업무 외 시간에는 또 물어볼 수가 없어서 6시 되기 전에 딱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혹시 실장님 민간 투자자인 대산CND와의 호텔 건립 계획은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관광실장 안환옥

이제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이제 관광지 조성 계획 변경을 좀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업체에서 그런데 이제 저희 군 입장에서는 업무 협약 체결을 먼저 시행한 다음에 상호 간의 협의 하에 변경 계획을 진행을 하자 이렇게 해서 좀 서로 간에 의견이 일치를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영식 의원

그러면 근무 추진 계획을 보면 장보고 지구 내 기반시설 정비 추진한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을 정비하는 건가요?

○관광실장 안환옥

거기 이제 홍보관 데크하고 탐방로 구간 데크가 노후돼서 그 데크로드를 좀 정비를 해주도록 그렇게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다.

○조영식 의원

그럼 뒤에 지금 지금 철제 데크 길에 깔고 있는 것은 하고 있는 지금 사업은 아까 남파랑길 그 사업하고.....

○관광실장 안환옥

도로변은 이제.....

○조영식 의원

해안.

○관광실장 안환옥

그렇습니다. 해안 도로인데 경관도로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아니고 지역개발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식 의원

예. 이 해신 장보고 지구 관광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 관광실장님하고 관광시설팀장님 한 분 저하고 같은 대화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실장 안환옥

예.

○조영식 의원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양훈

관광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1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산회)

(10시36분 산회)

○출석의원(9인)

김양훈　박성규　지민
박재선　박병수　조인호
최정욱　허궁희　조영식

○출석공무원

군수	신우철
부군수	이범우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관광실장	안환옥
해양치유담당관직무대리	김건규
행정지원과장	이기석
세무회계과장	천종실
민원봉사과장	김용식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체육진흥과장	최정환
농업축산과장	이정국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해조류박람회추진단장	김준혁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지역개발과장	오현철
건설과장	김진원
안전총괄과장	이홍용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최광윤
보건의료원장	한광일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수호

○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최영미

의사운영팀장 서을식

속 기 사 정현중

제331회 완도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7월 15일(화) 10시00분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조인호)
▣ 5분 자유발언(허궁희)
1.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청취의 건
 ㅇ해양치유담당관(20)
 ㅇ행정지원과(20)
 ㅇ세무회계과(14)
 ㅇ민원봉사과(15)
 ㅇ주민복지과(17)
 ㅇ가족행복과(17)
 ㅇ경제교통과(16)
 ㅇ문화예술과(17)
 ㅇ체육진흥과(16)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조인호)
▣ 5분 자유발언(허궁희)
1.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청취의 건(군수 제출)
 ㅇ해양치유담당관(20)
 ㅇ행정지원과(20)
 ㅇ세무회계과(14)
 ㅇ민원봉사과(15)
 ㅇ주민복지과(17)
 ㅇ가족행복과(17)
 ㅇ경제교통과(16)
 ㅇ문화예술과(17)
 ㅇ체육진흥과(16)

(10시09분 개의)

○의장 김양훈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

1.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청취의 건(군수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해양치유담당관, 행정지원과, 세무회계과, 민원봉사과, 주민복지과, 가족행복과, 경제교통과 순으로 부서장의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치유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치유담당관 직무대리 김건규

(참조)

·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의장 김양훈

해양치유담당관 직무대리로부터 보고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욱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이 이제 그 업무 파악은 어느 정도 돼 있어요?

○해양치유담당관 직무대리 김건규

아직 여러모로 많은 부분에서 부족합니다.

○최정욱 의원

우리 아마 직원으로 평상시에 있을 때가 지금 책임자로 치유센터 맡게 됐는데 소감이 있다면 어때요? 지금 어느 정도 파악한 소감, 또 그것과 과장으로서의 앞으로의 진행 방향, 또 잘 되겠는지 안 되겠는지 한번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치유담당관 직무대리 김건규

직원으로 바라본 부서장의 입장을 직접 겪어보니 어깨가 많이 무겁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토요일에 행사도 있었습니다만 직접 하는 것과 직원으로서 하는 것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다르다. 그리고 챙겨야 할 부분의 그 높이와 범위가 다르다는 것을 느끼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최정욱 의원

어차피 그건 우리가 공무적으로 보는 서류상이 아니기 때문에 서비스 업종과 이런 게 결절이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잘 되려면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하고 또 투명하게 했을 때 그다음에 대안이 나온 거예요.

뭔가 미래적으로 잘못된 거는 우리가 이렇게 개선을 해보자 또 지금의 잘못된 것을 그대로 갈 게 아니라 다시 어떤 문제를 해서 개선할까 많은 말과 토론을 거쳐서 준비해 간다면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우리 과장님 그런 생각 한번 해보신가요?

○해양치유담당관 직무대리 김건규

예. 의원님의 생각과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욱 의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해 갈 걸로 보고 이제 아마 우리가 지금 1년 한 7개월 됐죠? 이게 지금 시작한 지가요?

○해양치유담당관 직무대리 김건규

예. 그렇습니다.

그랬다면 이제 문제점이 많은 게 지금 저도

일절 그동안에 말 안 한 이유는 최선을 다해 봐라 해서 했는데 이제는 한 번쯤은 우리가 짚어야 할 때가 왔어요.

또 이 기간만큼 뭐가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 이제 아마 어느 정도는 파악은 다 됐기 때문에 이제 군정 질문을 통해서 한번 이제 제대로 한번 할 겁니다.

예전에 내가 지적했던 거 예전에 예측했던 거 근데 행정은 전혀 아니다 했는데 이런 문제점 이제 한 번 짚고 나서 그다음에 대안도 서로 연구하면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하면 서로 대화되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우리 과장님 저 많은 걸 준비하시고 해서 군정 지을 때 속 시원하게 주민들한테 우리가 알려줘야 할 부분을 알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준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치유담당관 직무대리 김건규

예. 알겠습니다.

○최정욱 의원

2페이지 보면 우리 관리공단 관리 감독 추진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이 공단을 지금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알고 있어요? 지금 공단의 이관이 완전히 된 거라고 아십니까? 아니면 대행업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해양치유담당관 직무대리 김건규

용어의 차이는 혼란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대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욱 의원

대행이죠.

○해양치유담당관 직무대리 김건규

예.

○최정욱 의원

대행이면서 이렇게 공단 이사장한테 어떤 실적을 묻고 어떤 평가를 하고 근무 태만, 평가 직급 이런 것들에서 한다는 건 제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뭘 줄 때는 우리가 권한과 책임을 같이 져야 되거든요. 근데 권한을 주지 않고 책임을 묻는다면 우리 행정이 하는 일을 이사장한테만 책임을 묻겠다는 얘기랑 똑같거든요. 근데 그게 안 맞죠. 우리가 공단을 설립을 해서 뭔가 권한을 싹 주면서 주고 나서 잘못됐으면 왜 이렇게 못했냐라고 하는데 대형 면비라는 건 우리 행정이 책임지고 한 거예요. 다만 공단이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것뿐이지 안 그래요 그렇게 생각 안 한가요?

○해양치유담당관 직무대리 김건규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기 다만 공단 이사장님과 직원들을 저희가 통제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지금 조직이 처음 설립되다 보니까 체계가 안 잡힌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도하고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정욱 의원

이제 과장님이 아직 업무 파악이 덜 돼서 그랬을 건데 이제 이해합니다마는 공단이 지금 권한이 없으면 절대 우리가 저게 안 돼요.

그리고 언제까지 우리가 뒤를 봐줄 수도 없는 거고, 공단 권한을 주고 그다음에 우리가 필요할 때 관리 감독을 하는 거지 지금은 절대 이 시스템으로는 절대 저거 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책임감이 없고 저 사람들 그러니까 그걸 여기서 길게 하면 안 될게 깊이 한번 고민하게 우리 과장님도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치유담당관 직무대리 김건규

예. 알겠습니다.

○최정욱 의원

그리고 18페이지요. 우리 지금 스포츠 재활센터 건립을 지금 준비 중이죠?

○해양치유담당관 직무대리 김건규

예. 그렇습니다.

○최정욱 의원

이제 우리 과장님은 24년 동안 견학을 갔다 왔는데 안 갔다 왔죠?

○해양치유담당관 직무대리 김건규

예. 저는 못 갔습니다.

○최정욱 의원

그랬죠. 그 견학 갔다 와서 어떤 직원들한테 아마 보고를 받았는데 어떤 거를 해서 해야 되겠다는 특별한 사항이 있거나 꼭 여기가 필요하다는 어떤 내용 알고 있던가요?

○해양치유담당관 직무대리 김건규

의원님 제가 그건 별도 시간을 내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욱 의원

근데 보면은 사업비 2억으로 지금 하는데 가능할까요?

○해양치유담당관 직무대리 김건규

지금 필수 의료..... 필수 치료 기기가 지금 5대는 확보를 했고요. 나머지는 일반 헬스 기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광주, 전남에서 이 필수 기기 5대를 모두 보유하고 있는 것은 유일하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정욱 의원

우리 이제 혹시 러닝 기능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 재활센터는 재활에 맞는 기구가 어느 정도 갖춰져야 맞지 않겠어요?

○해양치유담당관 직무대리 김건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욱 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 이 사업비를 우리 전남도에 한번 건의를 했다고 알고 있는데 했는가요?

○해양치유담당관 직무대리 김건규

파악해 보겠습니다.

○최정욱 의원

그것도 안 된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럼 계속 이제 군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 재활이라 하면 우리 러닝과 달리 전문 인력이 필요해요. 그 인원이 관리하고 그렇죠?

○해양치유담당관 직무대리 김건규

예. 그렇습니다.

○최정욱 의원

재활 인력 전문 인원이 필요하면은 그 사람들에 대한 물리치료사, 운동처방사, 트레이너 등 이런 사람들이 보통 자격증 보유하고 같이 있었을 때 재활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고 손님들한테도 할 수 있을 건데 그런 준비에서 또 인건비가 만만치 않는데 그런 거 저런 거 생각해 보셨을까요?

○해양치유담당관 직무대리 김건규

예. 현재 저희는 시범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물리치료사 1명은 채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기가 들어오면 운영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다.

○최정욱 의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갖추는 건 좋아야 투자와 효과가 어느 정도 나와야죠.

투자만 하려면 누구든지 하죠. 돈 갖다 부은 거야. 그 돈 부은 만큼의 우리가 주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 기능의 효과가 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분명히 그렇게 재활센터라고 가게 되면 물리치료사 뭐 운동처방사, 트레이너 이런 기본적인 사람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격증을 갖춘 그렇지 않고 일반인들 놔두고 나면 들어왔을 때 재활이라고 이거 또 말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걸 잘 참고하시고 그런 준비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치유담당관 직무대리 김건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욱 의원

그런 거 질문할 때 대답 잘 준비해 주시고 우리가 기왕 자활센터라고 한 만큼 일반 그냥 그 러닝머신이나 뭐 이런 재활 센터가 아닌 그런 체육관식으로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거 그렇게밖에 안 비치게 준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치유담당관 직무대리 김건규

예. 알겠습니다.

○최정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양훈

박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의원

담당관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처음에 그 보고했던 약산 해안치유의 숲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 업무가 지금 인수인계가 지금 됐습니까?

○해양치유담당관 직무대리 김건규

예. 3월에 했습니다.

○박병수 의원

그럼 지금 아까 보고 내용 중에 시험 가동 중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언제부터 시험 가동을 계속하고 있죠?

○해양치유담당관 직무대리 김건규

정비를 하고 난 부분에 대해서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시험 가동이라고 했습니다.

○박병수 의원

지금 정상 운영이 되고 있는가요?

○해양치유담당관 직무대리 김건규

일부 몇 번 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수 의원

그러면 그럼 정상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몇 번만 하고 손님이 관광객이 없어서 못 하고 있는 거예요.

○해양치유담당관 직무대리 김건규

이제 크나이프 시설은 지금 정상 운영을 못하고 있고요. 나머지 해수 온열 치유실은 몇 번 운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수 의원

지금 그 관련 부서에서 업무 인계가 좀 미비하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 확실한 인수인계가 되지 않은 거 아닌가요?

○해양치유담당관 직무대리 김건규

파악해 보겠습니다.

○박병수 의원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 지금 그때가 언제입니까? 작년도부터 지금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가지고 이것을 지적을 했었음에도 아직까지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업무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하고 그때도 지지부진 하셨을 때는 우리 의회 차원에서 좀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3페이지 청산 해양치유공원 운영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청산 해양치유공원 조성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갔죠? 처음에.

○해양치유담당관 직무대리 김건규

죄송합니다. 전체 금액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의원

그러면 지금 운영비는 지금 얼마나 지금 들어간 거예요? 1년에 운영비. 파악이 안 됐는가요?

○해양치유담당관 직무대리 김건규

예. 죄송합니다.

○박병수 의원

한 3억 정도 지금 이제 운영비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요. 연간 수익은 한 천만 원 정도 혹시 가보셨는가요?

○해양치유담당관 직무대리 김건규

예. 가봤습니다.

○박병수 의원

지금 갔을 때 관광객들이 많이 있던가요? 이용객들은 어떤가요? 있는가요?

○해양치유담당관 직무대리 김건규

제가 갔을 때는 관광객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박병수 의원

그렇죠?

○해양치유담당관 직무대리 김건규

예.

○박병수 의원

그 본 의원이 그 방문객들의 실태를 한번 파악을 해 봤는데 참 그 시설물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보고서에 보면 해양체육공원 이용 가능 인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방안이 있는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치유담당관 직무대리 김건규

지금 시설별로 동시 수용 인원이 6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하면 7, 8명 정도는 될 수 있겠다. 왜 그러냐 하면 가족 단위가 왔을 때 동시에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민원이 있어서 그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의원

지금 보면은 슬로걷기축제나 가을섬여행 때나 이제 관광객들이 좀 있을까 겨울이나 한여름에는 또 관광지들이 없어요.

○해양치유담당관 직무대리 김건규

예. 그렇습니다.

○박병수 의원

그런 부분들을 좀 대비를 해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치유담당관 직무대리 김건규

예. 지금 비인기 시설이 있습니다. 비인기 시설은 인기 시설로 이렇게 탈바꿈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고민도 좀 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의원

거기에 따른 많은 예산이 이제 관리비나 운영비 이런 예산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증가될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방안을 좀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치유담당관 직무대리 김건규

예산 투입 대비 효과도 같이 분석을 하겠습니다.

○박병수 의원

다음은 해양치유센터 인피니티풀 조성 사업 있죠? 20페이지. 인피니티풀 조성 사업 목적이 뭔가요? 추진 목적이.

○해양치유담당관 직무대리 김건규

인피니티풀 사업의 목적은 해양치유센터의 동시 수용 인원을 확대하고 또 프로그램 대기 시간에 그 지루함을 해결하고 또 우리 천혜의 자연 관광 자원을 홍보할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박병수 의원

목적은 좋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해양치유담당관 직무대리 김건규

지금 현재는 33억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병수 의원

34억이에요.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은 국비 7억, 도비 9억, 도비 14억 합치면 30억 아닌가요?

○해양치유담당관 직무대리 김건규

기존에 들어간 예산이 있습니다.

○박병수 의원

예? 지금 보고서 내용을 한번 봐 보세요. 총 사업비가 33억인데 그 내용적으로는 30억이에요. 그래 어떤 게 맞는 것인지.

○해양치유담당관 직무대리 김건규

의원님 33억이 맞습니다.

○박병수 의원

맞아요? 그럼 여기 국비 7억, 도비 9억, 군비 14억 합치면 30억이죠?

○해양치유담당관 직무대리 김건규

이건 제가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병수 의원

아니, 그러니까 별도 설명이 아니라 사업비가 그러면 총액이 어떤 것이 맞는 거냐 33억이냐, 30억이냐는 얘기예요.

○해양치유담당관 직무대리 김건규

33억이 맞습니다.

○박병수 의원

그러면 이제 국비가 7억이고, 도비가 9억인데 군비 14억 어떤 것이 맞아요? 그럼 내용적으로.

○해양치유담당관 직무대리 김건규

중간에 특교세하고 순군비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제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병수 의원

여기선 좀 곤란한가요?

○의장 김양훈

안 되면 팀장님 대신 보고.....

○박병수 의원

아니, 사업비 총액이 안 맞아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공단지원팀장 김재혁

사업비총액은 33억이 맞고요. 여기 군비가 17억입니다.

○박병수 의원

그러면 이거 잘못된 거죠?

○공단지원팀장 김재혁

예.

○박병수 의원

이런 보고서 하나도 이렇게 관심 없이 이렇게 뭐 성의가 없는 거 아닌가요?

○해양치유담당관 직무대리 김건규

주의하겠습니다.

○박병수 의원

좀 세심하게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치유담당관 직무대리 김건규

예. 알겠습니다.

○박병수 의원

그러면 인피니트풀 조성 사업은 기존 운영 중인 옥상에 짓는다고 했죠?

○해양치유담당관 직무대리 김건규

예. 그렇습니다.

○박병수 의원

그 물의 하중이나 진동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로 구조적 안정성이 매우 우려가 될 것입니다. 안전성에 문제가 없습니까?

○해양치유담당관 직무대리 김건규

예. 구조 안전성 검토는 마친 상태고요. 다만 이론적으로는 그렇지만 누수나 그 기계가 작동했을 때 진동 여부 등을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의원

어떻게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안전성 검토를 했다면 어떤 것을 검토를 했는지.

○해양치유담당관 직무대리 김건규

구조 안전성 검토는 항목별로 돼 있는데요. 수치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수치상이 1 이하일 경우에 안전하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저희 시설은 다 0.7, 0.5 제일 많은 곳이 0.9 정도로.....

○박병수 의원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네요.

○해양치유담당관 직무대리 김건규

예. 그렇습니다.

○박병수 의원

지금 보면 지하에는 보일러실이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1층에서도 누수가 발생했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해양치유담당관 직무대리 김건규

예. 알고 있습니다.

○박병수 의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들리니까 안전성 검토에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치유담당관 직무대리 김건규

예. 잘 알겠습니다.

○박병수 의원

인피니티풀 조성 사업은 해양 치유 센터 운영 중 시공하는 것이라서 이용객의 안전 관리와 동선이 중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상의 문제가 있겠죠. 그런 부분도 좀 세심한 관리를 해야 된다.

○해양치유담당관 직무대리 김건규

동선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의원

동선 고민이 아니라 안전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는.....

○해양치유담당관 직무대리 김건규

옥상이다 보니까 예.....

○박병수 의원

그리고 해양치유센터는 그 완도군 미래 전략 사업입니다.

특히 이제 이용객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치유담당관 직무대리 김건규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양훈

지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 의원

담당관님 오시자마자 바로 토요일 날 또 우리 큰 행사를 치렀어요.

○해양치유담당관 직무대리 김건규

도와주셔서 잘 치렀습니다.

○지민 의원

그랬는데 이제 보고서에는 없지만 이제 바로 며칠 전에 치러진 행사 때문에 행사였기 때문에 이제 보고서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제 처음 치렀던 행사이고 해서 일단은 좀 짚어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이번 행사에 좀 여러 가지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게 대회였나요? 축제였나요?

○해양치유담당관 직무대리 김건규

축제였습니다.

○지민 의원

축제였죠. 근데 이제 홍보 우리 처음에 추경 예산에 들어올 때는 전국 대회로 나왔었고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회였어서 또 이거 완보 인증서도 저희가 다 참가하시는 분들한테 다 줬잖아요. 또 사전 접수도 했었고 일단 자료 화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지금 저게 책상에 사전 접수라고 저렇게 종이로 직접 써가지고 만들어 놨어요.

좀 보기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처음 입장 주차장에서 들어가면서 우리가 사전 접수한 사람도 그렇고 현장에서 오는 사람도 그렇고 이분들 무조건 등록을 하게끔 했었잖아요. 근데 등록을 하러 가는 장소에 위치가 표시가 전혀 돼 있지 않았어요.

○해양치유담당관 직무대리 김건규

예. 저희도 그건 잘못됐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지민 의원

들어오시는 분마다 저희도 이 행사에 참여를 하면서 들어오시는 분들마다 등록하는 데가 어디냐 이렇게 물어서 저희도 찾아봤더니 이게 눈에 확 띄는 데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막상 가서 보니까 사전 접수하는 데는 저렇게 돼 있고 현장 접수하는 데는 저렇게 돼 있고 또 이제 번호표 지급을 또 했잖아요. 또 이제 또 가다가 이제 완보 인증서를 줄 때 그거를 증명하는 거는 어떻게 하셨어요? 완보를 했다는 증명.

○해양치유담당관 직무대리 김건규

실제 증명을 했는지요? 예. 그건.....

○지민 의원

하지 않으셨죠?

○해양치유담당관 직무대리 김건규

하지 않았습니다.

○지민 의원

이제 저희는 완보 인증서가 나오기 때문에 중간에 코스별로 가다가 어떠한 우리 번호표라든지 이런 어디 손목이라든지 이런 짓 했다는 이렇게 도장이라도 찍어주지 않을까 이제 그 생각을 했었는데 전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굳이 이제 그 인증서보다는 그냥 참가하는 데 그냥 의의를 둔 거고 또 이제 우리 명사십리라는 곳이 굉장히 경치가 좋잖아요.

또 모래도 우리 또 바닷물에 적셔진 그 모래의 촉감이 굉장히 좋아요.

어느 곳과도 비교도 할 수 없는 곳인데 또 이제 지금 해수욕장 개장이 되다 보니까 이게 그 부표 조그마한 부표하고 이제 안전선 밖에 나가지 말라고 이렇게 줄줄이 이렇게 계속 있었어요.

근데 얼마 거리 간격마다 줄들이 계속 있으니까 이게 걸으시는 분들이 경치를 못 보고 이게 물이 좀 빠져 있으니까 줄이 바닥에 약간 떠 있잖아요.

그러면 걸어가다 보면 이게 발에 걸려서 넘어지는 사고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겠죠. 근데 이제 이분들이 경치를 못 보고 바다를 못 보고 파도도 너무 또 예쁘게 이번에 좀 쳤었거든요.

근데 바다도 못 보고 경치도 제대로 감상을 못하고 넘어질까 봐 조마조마해가지고 이걸 갖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좀 떠 있더라도 그 줄에 걷는 길 쪽에 무슨 뭐 날아다니는 깃발이라든지 이런 게 표시가 됐었으면 그거를 넘어서 갈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세심한 좀 그런 배려가 좀 있었으면 또 했고, 또 이제 가다가 또 너무 더웠잖아요.

그나마 좀 날씨가 이번에 좀 시원했었어요. 찬바람도 많이 불고 근데 가는 길목에 생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해양치유담당관 직무대리 김건규

예.

○지민 의원

가는 길목에 생수가 없어서 조금 이거 거리가 좀 더 있는데 이게 또 마실 음료수도 없다. 이게 좀 시원한 게 있었으면 좋겠었다라는 생각을 좀 더 했었고, 또 그리고 예 우리가 완보 인증서 이거 발급을 할 때 우리 그 사전 접수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번호표 다 지급을 해드렸죠. 이게 완보 인증서 나눠줄 때 줄이 엄청나게 길었어요. 이게 사전 접수 있는 분들 거는 미리 다 출력을 해 오셨고 근데 이제 미리 출력을 해 오셨는데 사전 접수를 했었으니까 이분들의 사전 접수에 선착순이 계속 이게 접수가 번호로 돼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거기 현장에서 바로 번호를 받는다기보다는

사전 접수에 선착순대로 번호를 미리 부여를 했고 또 인증서도 마찬가지로 번호대로 이거를 진열을 해 놨다면 마지막에 그걸 나눠줄 때 이걸 좀 찾는 부분에서 좀 시간이 좀 절약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이제 현장 접수했던 분들도 접수를 하면서 번호를 드렸잖아요.

그거를 번호를 드렸을 때 그것도 번호 순으로 어차피 현장에 접수를 하셨던 분은 어차피 완보를 해서 인증서를 받을 거니까 미리 좀 했었으면 좀 낫지 않았을까 근데 그 시끄러운 곳에서 앞에 번호표도 붙어 있는데 이름이 뭐예요?

그러니까 잘 안 들리고 옆에 또 이번에 참여하는 분들의 숫자가 몇 명 정도 됐었죠?

○해양치유담당관 직무대리 김건규

이제 공식 등록을 하신 분들이 890명 정도 됐습니다.

○지민 의원

꽤 많은 숫자가 왔는데 그렇게 오실 거라고는 예상을 했죠?

○해양치유담당관 직무대리 김건규

저희가 사전 등록을 받았고, 그 대행업체는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여가지고요.

어느 정도 파악을 했습니다.

○지민 의원

예. 그런데 이제 그 마지막에 완도 인증서 할 때 직원들이 두 분이 있고 옆에서 보조해 주시는 분들이 있고 컴퓨터 이거 출력을 하는 건 하나였었어요.

근데 그렇게 많이 밀릴 거라고는 예상은 한 부분이잖아요.

○해양치유담당관 직무대리 김건규

예. 저도 그 긴 줄을 보고 참 더운데 참 죄송스럽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저건 저희가 준비가 좀 소홀했다 이렇게 인정을 하겠습니다.

○지민 의원

그러니까 이제 차라리 이제 완보 인증서를 이제 좀 어떻게 좀 편하게 이렇게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좀 편하게 좀 하고 했었을 거라는 미리 걱정을 좀 했었다면 완보 인증서를 그냥 차라리 안 주고 또 축제라고 또 생각을 하고 체험 행사나 다름이 없잖아요.

그냥 번호표만 주고 이렇게 선물 기념품이라든지 이런 것만 하고 그러한 대기 어차피 축제니까 그건 안 했었어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었고 또 우리 이번 우리 명사 심리 치유길 1호인데 우리 또 완도를 대표하는 또 명소잖아요.

또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도 않고 최고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또 우리 완도군의 이미지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행사도 앞으로 계속 또 진행을 하실 거잖아요.

○해양치유담당관 직무대리 김건규

예. 군수님께서도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지민 의원

그래서 이제 우리 직접 체험하시는 분들이 또 우리 직접 우리 관련 공무원들도 행사를 진행하시는 분들도 관련 진짜 이 사람들이 내가 체험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동선이라든지 어떤 표시 푯말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한 번씩 다 체험을 해보고 이러한 부분이 어렵겠다, 힘들겠다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한번 해 보시고 행사를 한번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치유담당관 직무대리 김건규

예. 보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지민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양훈

해양치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1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회의계속)

○의장 김양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기석

(참조)

·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의장 김양훈

행정지원과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호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우리 군 조직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조직은 어떤 상태이며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기석

일단 지금 아까 인사 부분도 부군수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저희 인력 구조가 그 지금 간부급 공무원 그러니까 이제 67년에서 72년생까지 인력이 상당히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 승진 인사라든가 인사 부분에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인호 의원

우리 저희 군이 가장 조직은 피라미드식의 형 조직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 조직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조직은 그렇지 않게 돼 있죠? 지금 현재.

○행정지원과장 이기석

지금 인력 충원에 아시다시피 IMF 때 인력이 충원이 또 안 된 부분도 있고, 그전에 일시적으로 또 충원이 많이 된 부분도 있고 해서 그 연령대 분포가 이렇게 의원님 말씀대로 피라미드 구조가 아니라 이렇게 특정 연령대가 좀 몰려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조인호 의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군이 지금 항아리 구조로 지금 우리가 지금 인사가 지금 우리 공직사회가 돼 있죠.

○행정지원과장 이기석

예. 그렇습니다.

○조인호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기석지금 좀 조직 운영 측면에서는 좋지 못한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조인호 의원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보면 인사 적체, 복지부동 무사안일주의가 만연해 있다고 이구동성을 하는 얘기입니다. 그걸 좀 참고하십시오. 또 우리 군 공무원 조직 중에 부부 공무원 가족 공무원 4촌 이내의 공무원은 총 몇 분이나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기석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원이 한 715명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부부 공무원이 한 166명, 그러니까 거의 한 80쌍 정도 되고요. 넘고요. 그리고 직계존비속 가족이 112명 그리고 4촌 이내의 혈족으로 된 인원이 259명이 있습니다.

○조인호 의원

그러면 우리군 총 몇 프로나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기석

전체 인원 더하면 537명 해가지고 한 한 75%에 육박합니다.

○조인호 의원

조금 있으면 한 90% 되겠네요, 몇 년 있으

면. 이 분들이 같은 부서에 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못 하게 돼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기석

법에는 명시는 안 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뭐 부부간이라든지 또 부자 간 사촌 이내 혈족 같은 경우는 인사상 분리해서 지금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인호 의원

분리하는데 애로점이 많죠?

○행정지원과장 이기석

예. 그렇습니다. 이게 한 사람이 이거에 인사를 할 때 이런 것을 지키려고 하면 상당히 전보 인사하는 데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조인호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을 하겠는데요. 우리 군이 앞으로 이제 인사 부분에 대해서 가족 공무원, 우리 친인척 공무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좋은 조직을 더 좋게 활용을 하려면 용역을 한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기석

의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조직진단 차원에서 한번 용역을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인호 의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우리 도로 전출을 좀 많이 가는 편이죠, 지금?

○행정지원과장 이기석

예, 예 맞습니다.

○조인호 의원

이제 본 의원 생각인데요. 용역을 줄 때도 할 때도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그 중앙 부처나 도나 협력 관계가 잘 돼야 군이 발전을 합니다, 모든 공모 사업도 그렇고. 그렇게 친인척 많은 공무원 중에서 또 어떻게 방법을 찾아서 그런 분을 보내면 인적 네트워크 형성이 훨씬 빠르다고 생각할 건데 과장님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기석

예. 의원님 말씀대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조인호 의원

이번 진단을 통해서 확실히 진단을 해서요. 인사는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디 또 전체가 공감할 수 있는 인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기석

인사는 참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일은 사람이 합니다마는 또 크게 보면 조직이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적절한 또 발탁 인사라든지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인호 의원

과장님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책임감을 갖고 우리 또 우리 과장님도 부부 공무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석

예.

○조인호 의원

그러니까 책임감을 갖고 이 문제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기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인호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양훈

지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민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보고서에는 없지만 한번 필요할 듯해서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그 훼손된 태극기 관리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알고 계시죠?

○행정지원과장 이기석

예.

○지민 의원

그래서 지난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었는데 몇몇 지자체에서 훼손된 태극기를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버려서 이게 좀 논란이 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국기법은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의 제작 계약 및 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기에 대한 인식의 제고 및 존엄성의 수호를 통해 애국 정신 고향을 고쳐야 한다는 목적으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같은 법 10조 3항에 따르면 국기가 훼손되면 이를 지체 없이 소각적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를 하여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일반 우리가 이게 일반 가정에서는 소각은 조금 화재나 이런 위험성이 있어서 저 군청이나 읍면사무소 이렇게 태극기 수거함에 이렇게 갖다 넣어야 되거든요. 혹시 우리 완도군에 이렇게 태극기 전용 수거함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기석

지금 뭐 태극기 전용 수거함은 따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민 의원

그래서 이제 이게 조금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게 이제 우리가 태극기 관리를 이렇게 집에서 조금 더러워지거나 요즘에 또 태극기 사용을 좀 많이 하잖아요.

우리 어디 놀러 갈 때라든지 어디 방문을 할 때라든지 이렇게 태극기를 이렇게 쉽게 손에다 들고 다니고 또 요즘에 태극기 개항을 또 많이 의무적으로 또 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게 훼손이 되거나 더러워지면 이걸 어떻게 버려야 될까 우리가 태극기를 그냥 버리면 안 된다는 건 좀 생각은 하고 있는데 쉽게 이거를 홍보가 좀 필요할 듯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도 또 알리고 필요하면 읍면 사무소나 우리 완도군에도 여기저기 이렇게 태극기 수거함을 좀 배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한번 말씀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기석

읍면별로 하나 정도 수고하면 배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민 의원

한번 검토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의장 김양훈

조영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뭐 보고서에는 없는 내용이고요.

또 아마 완도군에서 지난 6월 16일 자 에 공문을 보낸 읍면에 공문을 보낸 내용입니다. 혹시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되셨다면 정보통신팀장님께서 대신 답변도 괜찮겠습니다. 혹시 저 행정 전화 녹취 시스템을 들어보셨죠?

○행정지원과장 이기석

예. 들어봤습니다.

○조영식 의원

혹시 설치 여부가 어떻게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기석

이제 민원인들이 폭언을 한다든지 그럴 경우는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식 의원

민원인과 행정 전화 통화 시 발생되는 각종 폭언이나 협박, 욕설 등 악성 민원으로부터 담당 공무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민원인과의 분쟁 해결을 위해 보통 행정 전화 녹취 시스템을 설치하죠.

○행정지원과장 이기석

예.

○조영식 의원

우리 군은 2009년 6월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기석

설치 시기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조영식 의원

25년 6월 16일 자로 행정 전화 녹취 시스템 공문입니다.

행정 전화 녹취 시스템 운영 중단 알림이라고 6월 16일 자 행정전화 녹취 시스템 장애 발생 후 복구 불가함을 판단하고 시스템 교체 등 대처 방안을 마련 중이오니 회계 시까지 운영 중단에 따른 악성 민원에 자체 대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공문입니다. 혹시 교체 등 대처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었나요?

○정보통신팀장 황철웅

지금 녹취 시스템이 설치된 지가 한 17년 정도 됐습니다.

그 시스템을 수리하거나 해보려니까 아예 그 자체가 없고 새로 시스템을 도입해야 될 상황이라 예산이 한 3천에서 5천 사이에 이렇게 들다 보니까 예산 확보를 못해서 지금 중단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시 설치를 하려고 이제 상황 파악을 하다 보니까 도에서 행정 정보망 2차망 사업을 진행 중인데 약 11월인가 12월 되면은 어 희망하는 군에서 신청 받아서 녹취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일시 중단하고 있습니다. 따로 대응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영식 의원

예산이 3천에서 5천 원 넘는다고요?

○정보통신팀장 황철웅

예.

○조영식 의원

그 예산 가지고 같은 조직 내에서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민원인, 공직자들이 계실 건데 나중에 혹시 이런 게 조직에 대한 행정에 대한 그 공직자의 입장에서는 불만으로 또 의욕도 떨어지고 그럴 것 같은데 돈은 많이 안 듭니다마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는 게 고작 예산도 많지 않은데 도에서 하는 것만 기다리고 있습니까? 지금 이게 좀 같은 직원 입장에서도 좀 화날 일 아닐까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석

의원님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최우선적으로 한번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식 의원

여기서 본회의장에서 대답하실 때는 신중하고 또 꼭 해야 되는 말만 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행정지원과장 이기석

예.

○조영식 의원

방금 행정지원과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혹시 그 고객 응대 시 악성 민원에 대한 고객 응대 시 어느 정도 매뉴얼이나 지침 같은 게 정해져 있습니까? 악성 민원인.

○행정지원과장 이기석

악성민원인 같은 경우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조영식 의원

만들어져 있어요. 혹시 6월 16일 이후에 악성 민원에 대한 읍면에서 공직자 뭐 따로 보고하거나 이런 이야기 들어본 거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기석

지금 16일, 6월 16일 이후에 악성 민원으로 그는 아직까지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조영식 의원

아니, 지금 이제 한 달밖에 안 됐어요. 이 공문 나가는데 2025년 6월 16일자에 공문이 나갔거든요. 이제 한 달 안 됐는데 그 며칠

사이에라도 혹시 읍면에서 악성 민원에 대해서 보고되거나 인지하고 있는 내용이 있나 있는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혹시 파악하고 있는 거 없습니까? 지금까지는.

○정보통신팀장 황철웅

아직 없고요. 저희들이 일시 중단한 사유 중에 하나는 지금까지 녹취해서 활용한 사례가 없고 해서 그렇게 중단을 판단했습니다.

○조영식 의원

모 면에 갔는데 이 악성 민원인 때문에 거의 하루에 6번, 7번이 전화가 온대요.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으니 근무 의욕도 떨어지고 근무하기 싫다 이런 이야기도 하던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은 공직자 같은 직장 동료 입장에서라도 인권을 보호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분 한 분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 팀이 이야기를 하더라고 같이 주무관님, 팀장님. 그래서 이런 것들 한 분이라면 더 보호해야 되겠지만 다수가 이런 악성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아마 그분도 항변할 수 있는 길을 갖춰놔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요구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본예산에 그 예산 반드시 확보한다 했으니 혹시나 미리 정리 추경이라도 있으면 그 전에라도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기석

예. 알겠습니다.

○조영식 의원

같이 이 자리에서 그러면 기획예산실장님께도 같이 답을 물어볼까요? 어떤 답을 하실지.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직원들 복지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조영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양훈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천종실

(참조)

·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의장 김양훈

세무회계과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 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설명을 들으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체납액이 많이 상승됐네요.

○세무회계과장 천종실

예.

○박재선 의원

보니까 7페이지 보면 등록면허세나 자동차세가 전체적으로 8%, 4.9%대로 많이 올랐어요. 이것을 기본적으로 하는 것과 똑같이 동일하게 했습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으로 해서 이 징수율이 많이 들어오게끔 했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천종실

이걸 면허세라고 하는 것은 면허에 대한 부과이기 때문에 과세자료를 근거로 해서 부과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박재선 의원

그럼 독촉이나 또 안 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독촉은 또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천종실

독촉은 이제 납기가 지나면 독촉을 하게 돼 있고요.

○박재선 의원

그러면 우리 지금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전기차가 지금 많이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죠? 전기차, 그다음에 하이브리드 차 그거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은 감면해 주죠?

○세무회계과장 천종실

전기차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해서.....

○박재선 의원

제가 알기로는 감면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감면해 주게 되면 우리 군에 세수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세수로 원래.

○세무회계과장 천종실

감면하다 보면 이제 지방세가 줄어들겠죠.

○박재선 의원

예. 그렇죠. 우리 군의 세수가 이제 그만큼 축소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앞으로 그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세무회계과장 천종실

저희들이 보면은 이제 세금이라고 하면은 세목이 있습니다. 정해진 세목에 추가로 추가할 수는 없고, 저희들의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있겠죠.

세외수입, 방금 국공유재산 관리 철저, 사실은 보면은 세외수입은 저희 과에서만 담당하는 게 아니고 지금 각 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죠. 그것을 징수하는 데도 노력을 좀 해야 싶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세수 확보인데 세수 확보는 공유재산 관리만 잘 하더라도 좀 약간의 세수는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자 수입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이제 조기 집행 관계 때문에 옛날에 과거에 그런 게 좀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좀 어려운 상태고 그런 선에서 좀 세수 확보할 수 있을까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박재선 의원

이제 걱정되는 게 우리 완도군은 재정 자립도가 제일 낮은 군이다 보니까 이런 세입 이런 게 잘 돼야 되고 아까 저 뒤에 보니까 5년 체납된 분들에 대해서는 5년 이상 되면은 이게 폐업, 무재산, 행방불명 이렇게 되면 5년 이상 되면 또 이렇게 제외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천종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법에 아마 그렇게 명시가 돼 있는 걸로 제가 이제 섣부른 지식이지만 그렇게 알고 있는 것 같고요. 가급적이면 5년이 되기 전에 그게 법에 명시가 됐다 돼 있다 할지라도 5년 이내에 체납액을 징수하는 것이 우리 세수 확보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재선 의원

전에도 이제 행정사무감사에서 보면 그 명단을 제가 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의외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의외로 많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다 체납으로 해서 금액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군에서 관심을 안 가졌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천종실

이제는 제재하는 방법이 있겠죠. 저도 이제 여기 오기 전에 우연히 인터넷에서 봤는데 출국 금지 조치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와서 한번 우리 팀장한테 물어봤더니 우리도 외교부를 통해서 출국 금지 조치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제재를 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나.

○박재선 의원

이제 우리군에 거주하면서 체납액을 가지고

있는 계신 분들의 명단을 보니 네 의외로 많이 계시더라고요.

○세무회계과장 천종실

예. 있습니다.

○박재선 의원

이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독촉을 어떻게 또 해야 될 거며 앞으로 세입을 어떻게 또 받아들일 건지.

○세무회계과장 천종실

그런 부분은 이제 재산을 압류를 하죠. 그런데 그런 분이 또 재산을 은닉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하여튼 효율적인 방법을 연구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선 의원

이제 보다 보면 옆에서 이 사람은 잘 먹고 있는데 잘 있는데 저희들은 또 알고 있는데 또 군 행정에서는 또 그러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세무회계과장 천종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 있죠. 세금 잘 내고 있는 사람들은 저런 사람들 안 내고 있는데 우리는 왜 이러냐라고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은 발굴해서 최대한 납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선 의원

공정하게 행정에서 좀 이런 그런 분들하고 일반 자 내리신 분들하고 공정하게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천종실

알겠습니다.

○박재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양훈

박성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규 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 신뢰받고 믿음 주는 회계계약 행정 추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고서 보니까 올해 총 903건의 계약 중 수의계약은 몇 건이며 전체 계약이 몇 프로나 됩니까?

○세무회계과장 천종실

저희들이 보면 이제 그 수익이라고 하면 공사 물품 용역 그런 게 있는데요. 이제 공사만 본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한 92% 정도 한 것 같고요. 이제 관외는 한 8% 정도 했는데 이게 그렇습니다. 2인 수의, 1인 수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면허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외부 관외 업체가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어떤 관외 업체의 비율이 나온 것 같습니다.

○박성규 의원

자료를 보면 지역 업체 보호를 위한 지역 제한, 수입 입찰 2배 확대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수주 계획 확대 등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수의 계약 중 지역 업체에 낙찰 받은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세무회계과장 천종실

그게 제가 정확히 수치상으로 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성규 의원

지금 공사도 있고, 용역도 있고, 물품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최근 언론 기사에서 지역 경제가 가뜩이나 어려운데 지역 업체를 놔두고 외지 업체에다가 사업을 챙겼다는 그런 특혜성 기사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천종실

못 봤습니다.

○박성규 의원

그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경제가 정말 어렵습니다. 또 행정에 대한 책임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더욱 지역 업체에 대한 비율도 높일 수 있도록 우리 지역 업체가 이렇게 입찰도 많이 하고 또 읍면 또 실과에서 우리 관내에서 생산된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천종실

알겠습니다.

○박성규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양훈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0분 회의계속)

○의장 김양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용식

(참조)

·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의장 김양훈

민원봉사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조영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페이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기관 종합등급에서 라등급 받았다 했죠?

○민원봉사과장 김용식

예.

○조영식 의원

혹시 업무 보고 시에는 매월 2회 이상 민원처리 실태 점검 및 평가 항목별 부서 담당자 협의 및 추진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있나요? 혹시 업무 인수인계가 잘 안 됐으면 팀장님께서 대답해도 됩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용식

저희들이 지금 매일 어떻게 보면 주마다 이것을 해가지고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민원 서비스를 한다는 게 직원들이 지금 인사 이동으로 인해서 많이 바뀌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금주 2주 동안은 저희들이 못 했는데 다음 주부터 계속해서 이걸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식 의원

마등급에서 라등급, 라등급에서도 다등급으로 또 기대해 볼 만하겠네요.

○민원봉사과장 김용식

그렇습니다.

○조영식 의원

다음 소통 행정 강화를 위한 국민 신문고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처리 건수가 23년과 24년 대비 체류 건수가 많이 줄었던데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용식

국민신문고는 지난 2천년, 아니 2019년도부터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했었는데 2019년까지는 국민신문고가 그렇게까지 활성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2020년도부터

어떻게 보면 천 건 이상 국민신문고가 활성화 지금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게 국민신문고가 왜 활성화됐는가를 봐보니까 이게 지금 도로변에 주정차 위반이나 이 소방 그런 그 호수 그런 관이나 아니면 도로 코너 같은 데 주정차를 못하게 있는 그런 것이 하면서 이런 것이 더 활성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식 의원

처리 건수가 많이 줄어드는 이유를 좀 물어봤는데 그런 것 때문에 처리 건수가 많이 줄었다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김용식

실제적으로 그 도로 그런 불법 주정차 그런 것이 많이 좀 감소되다 보니까 그런 코너 같은 데 처음에 이게 어떻게 보면 활성화 그런 것이 위반 건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건이 좀 적다 보니까 국민 신문고 그런 신고 사항이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조영식 의원

혹시 실적에 대해서 원인 분석이나 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원인 같은 걸 분석하는데, 실적 주는 거에 대해서.

○민원봉사과장 김용식

실제적으로 저희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처리 기간을 저희들이 준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민원 처리 사항을 국민신문고과 연계돼 있는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정보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를 활용해서 매월 분석을 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영식 의원

실적이 혹시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혹시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김용식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처리 기간 내에 민원인에게 그 답변을 결과들을 통보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민원 담당 직원에 대해서 주기적 매뉴얼 교육하고 또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식 의원

혹시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에 대해서 관행적 부패 갑질행위 집중 신고 기간이 언제인지 알고 있나요?

○민원봉사과장 김용식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영식 의원

혹시 팀장님 혹시 알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용식행정팀장 임대용

보통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 같은 경우에는 고충 민원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7일 이내에 보통 처리를 하고요.

○조영식 의원

처리 기간 말고요. 지금 현재 관행적 부패 갑질 행위 집중 신고 기간이 지금 국민권익위원회 지금 기간이 언제냐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용식행정팀장 임대용

신고 기간을 말씀하신 건가요?

○조영식 의원

집중 신고 기간..... 그럼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입니다. 지금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지금 기간 중이에요. 신고 방법은 1398이나 정부 대표번호 110번 혹시 우리군에 어떤 내용이 또 있고 하는지 어떤 내용이 또 올라와 있고 우리군에 관련된 사항이 있는 것이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고 기간이에요. 혹시 국민신문고 법적 처리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용식

민원 종류에 따라서 그 기간이 좀 틀리는데 일반 민원 같은 경우는 7일이고 어떤 법령 해

석이나 질의 관련 건은 최대 14일까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조영식 의원

일반 민원은 7일에서 14일 복합 민원은 15일 이내에 국민 신청 민원은 30일 이내에 처리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기한 연장은 어떨 때 가능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용식

기한 연장 같은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로 민원 처리가 곤란한 경우가 있는데 민원 처리 만약에 7일이라면은 그 기간만큼 7일만큼 또 연장을 할 수 있고 최대 2회까지 연장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식 의원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서만 처리 기한 연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많이 접수되는 국민 신문고인 만큼 신속한 처리와 혹시 누락된 사례가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용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식 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양훈

최정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욱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페이지에 공동주택 허가 추진현황에 대해서 아마 이 건설경기로 지금 많이 착공들이 늦어지고 있죠?

○민원봉사과장 김용식

그렇습니다.

○최정욱 의원

그 우리 과장님 뭐 이거 파악은 지금 잘 안 됐을 것인데 거의 못하는 그 업체들이 많을 것이고 그러는데 그 기간 연장이나 그 허가 주고 기간이 어느 정도 된가요? 우리 팀장.....

○건축허가팀장 김광호

건축허가팀장 김광호입니다. 건축허가 이후에 1년 동안 착공하지 않으면 취소할 수 있고, 이제 1회에 한해서 연장 신청을 하면은 또 1년간 추가로 연장을 해 주고 있습니다.

○최정욱 의원

그럼 최고 기간이 2년이네요.

○건축허가팀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최정욱 의원

근데 여기 보면 2년 넘은 것도 있는데요.

○건축허가팀장 김광호

그래서 이제 최근에 허가를 취소해야 할 사항들도 이제 한 건씩 발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정욱 의원

보니까 2년이 넘은 것도 있고 그래서 이걸 이제 왜냐하면 다들 궁금해 하는 사항들이 많으니까 추진 한 것이다 안 한 것이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아닌 거는 정리를 좀 해 주시고 아마 기왕이면 그 내용도 한번 파악을 해서 언제 한번 저한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면 물어보면 대답은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이상입니다.

○의장 김양훈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참조)

·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의장 김양훈

주민복지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

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민 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여기 이 페이지 행복한 여성 친화도시 조성에서 우리 여성 안심 귀갓길 조성 사업이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이건 도 보조 사업으로 지금 예산이 천만 원 이렇게 돼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 담당자가 지금 추진 계획을 이렇게 지금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경찰서하고 안전 총괄과하고 이렇게 거리 조성 거리를 먼저 선정해야 하기 때문에 또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민 의원

아직 그럼 선정은 안 됐나요?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예. 안 됐습니다.

○지민 의원

어떤 기준으로 해서 하실까요?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이제 여성 귀가길 위험한 지구를 선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민 의원

좀 전에 이제 경찰서하고 이제 관하고 이제 총괄과하고 다 같이 하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계속 우리 주민들의 민원은 이제 학생들이 야간에 이제 학원이 늦게 끝나니까 이제 그 주변에 길들이 너무 좀 밝기가 어둡다 그런 민원이 좀 많이 들어와서 제가 한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여성 위원님들이랑 같이 저녁에 그 근방을 전체 순찰을 한 번 돌았었어요. 일단 1번 사진 한번 올려봐 주실래요? 자료실 1번 사진..... 저게 지금 사진에 요즘에 카메라들이 이렇게 성능이 워낙 좋다 보니까 저렇게 아무리 찍어도 저렇게까지 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더 어둡습니다. 지금 사진이 이게 조금 화면이 저희가 이제 개포리 쪽 뒤쪽 길목 이제 학원이 많은 길목들인데 오른쪽 사진은 좀 되게 많이 어두워요. 저런 어둡다는 민원들이 좀 많고, 또 이제 두 번째 사진 한번 올려주세요. 저거는 이제 경찰서에서 설치를 한 건가요? 안심반사경이라고 개포리.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그런 것 같습니다.

○지민 의원

저게 이제 참 좋은 부분이 우리가 길을 걷다 보면 발소리가 안 들리게 걸어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게 이제 저걸 보니까 지금 사진상으로 별로 잘 안 나오는데 뒷부분이 엄청 환하게 이렇게 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좀 길목 길목마다 조금 위험한 자리에 좀 많이 설치가 되면 안 될까라는 생각을 한 번 해 보았어요.

근데 왼쪽 사진은 좀 깨져 있죠.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예.

○지민 의원

일단 저 깨져 있는 부분이라든지 조금 더 좀 설치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도 들고.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저희들이 회의할 때 그런 부분을 참고하겠습니다.

○지민 의원

그리고 세 번째 사진 한번 올려주세요. 저거 혹시 설치를 어디서 했나요? 저희 과 중에 군청에서. 저게 SOS 비상벨이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그건 확인해 봐야 알 것 같은데요.

○지민 의원

이제 그거는 아마 안전총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여기 복지과에서는 하지 않으시죠?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예.

○지민 의원

그리고 그거는 이제 넘어가 주시고 이제 우리 그 길가에 이제 인도에 가 로고젝터가 이제 지금 사진에는 제가 없는데 로고젝터가 있는 곳이 있거든요. 우리 여성 안심 귀갓길, 112 신고, 뭐 이런 로고젝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순간순간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사람이 걷다 보면 따박따박따박 이렇게 걷는데 이렇게 걷다 보면 이렇게 순간적으로 이게 화면이 확 바뀔 때 거기에 발을 디딜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갑자기 놀라는 경우가 생겨서 넘어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그 로고젝터를 이제 군에서 설치를 한 건지 경찰서에서 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협의가 되면 그거를 한 가지로만 해서 꾸준하게 내리비춰주면 멀리에서도 그거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고 이제 또 그 부분을 지나갈 때 별 그냥 그냥 걸어 왔듯이 그냥 보폭도 그냥 걸어갈 수 있는데 갑자기 걸어가고 있는 도중에 바뀌어 버리니까 어지러워서 이게 땅이 흔들리나 싶을 정도로 그런 어지럼증이 생겨서 사고가 생기는 수가 있으니 그냥 한 가지 모양으로 좀 하면 어떻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이제 공사비가 얼마 안 돼요. 천만 원밖에 안 되니까 이제 그런데 이런저런 이제 많은 민원들도 이번에 그 간담회 같은 거 여러 말씀 들은 거 했죠?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예. 했습니다.

○지민 의원

토크쇼 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들었던 이야기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많이 듣고 조성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민 의원

그리고 다음 질문 한 가지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우리 보고서 25페이지 어 사회보장급여 통합 조사 관리 추진에 대해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145억 원 규모의 사회보장급여를 편성해서 13개 유형의 급여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월별 정기 확인 조사 902건인데 그중에 부정 수급과 과잉 지급 적발 건수가 몇 건 정도에 얼마 정도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예전에는 부정 수급하고 과잉 지급 그렇게 처리했었는데요. 최근에는 이렇게 전산 처리 해가지고 변동 사항 처리할 때 이제 급여 중지 급여 감소 급여 증가 그 세 가지로 저희들이 그 변동 사항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정 수급 그런 회수하고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지민 의원

없네요. 그럼 회수 조치도 그러면 없겠네요.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없습니다.

○지민 의원

그러면 이제 또한 확인 조사만으로 실질적인 급여 적정성 검증이 불충분할 것 같은데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이 사회보장 급여 변동 처리 현황 정비일까요?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예. 그게 그렇게 하고 있는데 1차로 이렇게 확인 조사를 통해서 급여 적정성을 확인하고 2차로 행복 이음 전산으로 소득과 재산 변동 사항이 처리하면 그걸 저희들이 변동 사항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민 의원

근데 그럼 지금 환수 처리라든지 이제 어차피 이제 환수 처리라든가 안 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그러한 업무들이 굉장히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그쪽에 조사 인력들은 몇 분이나 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어디요?

○지민 의원

우리 그 복지과에서 그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조사 인력들.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종합 팀장 포함해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민 의원

그러죠. 그러면 1인당 보통 담당 건수가 얼마나 될까요?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한 600에서 700건.

○지민 의원

너무 많지 않아요? 되게 많죠?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야간 일 많이 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지민 의원

그러니까요. 이게 그냥 봐도 이게 상당한 건수가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인력이 좀 필요하시고 그러면 모자라고 그러면 행정지원과하고 좀 협의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저희들이 이번 인사 때 정원이 하나 감소돼 가지고요. 의원님 말대로 협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민 의원

협의 많이 해서 꼭 주시라고 해주셔서 너무 좀 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완도군 생활보장위원회 개최가 5번에 신청 가구가 18가구인데 어떤 사유로 위원회가 열릴까요?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이제 공고상의 부양 의무자는 있으나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안 해준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런 사례인데 예를 들어서 장기 연락 두절이나 또 부양 기피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사회 생활보장 협의위원회를 거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민 의원

그런 부분들이 조금 가장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 부양가족은 있는데 연락이 안 되고 그러면 아예 이렇게 지원이 안 되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을 좀 잘 확인을 하시고 특별한 법적 하자가 없으면 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예. 위원회 많이 개최하겠습니다.

○지민 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장 김양훈

허궁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궁희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 19페이지 희망복지지원단 복지 서비스 추진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복지 사각지대 발굴 건수가 705건에 단순 상담이 32건, 서비스 연계가 673건인데요.

어떤 종류의 서비스를 하셨는지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1차적으로 이제 공적 급여를 이렇게 대상자가 발생했을 때 기초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을 선정하고요. 또 2차로 이제 복지기관 단체가 있습니다. 보건의료원이나 청소년 문화의 집 또 장애인 복지관 그런 데 저희들이 연계하고 있고요.

또 세 번째는 뭐 우리 기관 사회단체와 연계해서 가전제품이나 또 생활용품을 이렇게 연계해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허궁희 의원

여러 가지로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네요.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 사업으로 434세대 1억 4,400만 원을 지원했는데요. 저소득층 집수리 물품 및 의료비 지원 등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그 외에도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가요?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이제 난방비도 있고 led 전등 교체를 했더니만 주민들의 호응들이 엄청 좋았거든요. 또 의료비 같은 것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허궁희 의원

이 부분은 좀 더 꼼꼼하게 잘 해 주면 아마 우리 어려운 가정들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궁희 의원

그리고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지급이 12건에 60만 원인데 한 건에 5만 원씩 지급했는가요? 뭐 여기에도 무슨 기준이 있는가요? 아니면 임의로 하신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이제 위기 가구 포상에 따른 조례가 있습니다.

○허궁희 의원

아, 그럼 5만 원씩 지급을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예.

○허궁희 의원

아, 좀 포상금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그 기준이 있는가 없는가 그거 확인 좀 해보느라고 물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기준이 있습니다.

○허궁희 의원

그런 것은 좀 현실화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참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궁희 의원

그리고 최근 이제 6월 말부터 굉장히 날씨가 덥죠?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예.

○허궁희 의원

그래서 말인데 내용은 이제 여러 가지 에어컨이나 선풍기 등 냉방이나 이렇게 여름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물품 지원은 없는데 따로 무슨 계획이 있는가요? 아니면 전혀 계획이 없는가요?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저희들이 폭염 관련 취약계층 저희들이 한 430명 이렇게 저희들이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공모 사업에 선정해가지고 에어컨 50대 정도 저희들이 금년에 설치해 줬고 또 선풍기도 적십자 봉사단체에서 100대 이렇게 어려운 이웃에 이렇게 전달하고 또 우리 관에서는 여름 나기 키트는 한 300개 구입해서 가정에 다 전달했습니다.

○허궁희 의원

예. 그렇게 해 주셔야 어려운 과정들을 이겨낼 것 같습니다. 과장님 우리 군 쪽방촌이나 비닐하우스 주거 취약계층이 어느 정도 있는지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우리군에 쪽방촌 없고요.

○허궁희 의원

하우스에서.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하우스는 지금 신지면에 그 어르신 한 분이 있습니다.

○허궁희 의원

거기 한 곳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예.

○허궁희 의원

사실 거기를 가보면 좀 한심스럽죠.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저희들도 면하고 군에서 주 2, 3회 계속 방문하거든요.

○허궁희 의원

제가 엊그저께 사실 거기를 한번 가봤어요. 더운데 어떻게 지낼까 그러고 가봤더니 참 마지 못해서 살고 있는 그런 실정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는 한 번 더 이렇게 방문해 보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해 봅니다.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그 어르신 전체 비닐하우스를 저희들이 교체해 줬고, 또 전기 전반에 대해서 시설도 교체해 줬고 또 가전제품도 가정에 지원해 주고 그랬습니다.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어르신.

○허궁희 의원

아, 그러십니까? 저는 이제 거기에 파악이 안 된 줄 알고 제가 엊그저께 가 보고 너무 한심스러워서 사실 그 말씀 한번 드리기 위해서 내가 이제 이 손을 들게 됐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예. 잘 알겠습니다.

○허궁희 의원

잘 좀 챙겨서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 도움을 받도록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양훈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3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5분 회의계속)

○의장 김양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참조)

·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의장 김양훈

가족행복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욱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요. 과장님 올해 우리 폭염이 아주 기승을 한 거 아시죠?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최정욱 의원

아마 7월 우리가 후반기에 들어서 보통 35도 예전엔 그랬는데 6월 말부터 지금 35도라는 폭염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랬을 때 그 어르신들 밖에서 일했을 때의 위험 요소가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설명에 폭염 대비를 위해서 7시에 시작을 한다고 아까 했던 것 같던데 몇 시에 했는데 7시에 시작을 한가요?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아, 보통 이제 9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름 폭염은 폭염이 되면 시간을 좀 단축해서 7시부터 10시 전에는 좀 끝내도록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해서 대부분 지금 10시 전에 끝내고 있습니다.

○최정욱 의원

7시에 시작해서 10시에 끝나나요?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예, 예. 우리가 말하는 공익 활동은 3시간 하거든요.

○최정욱 의원

그럼 7시에 시작해서 10시에 그러면 어르신들 일은 다 끝나네요. 그 후로는 하지는 않네요. 혹시 뭐 폭염주의보에 대한 격상 시에 활동제한이라는 거 이런 게 법적으로 있는가요?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지금 그 폭염경보가 되면 활동 중단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는 폭염이 이제 발효가 되면 저희 군 자체적으로 이제 그 지침 이제 보건복지부나 여기에서 지침이 오거든요. 이제 폭염 대비 안전 강화 대책을 강구하라고 그것에 대비해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단축 시간을 좀 단축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정욱 의원

혹시 거기에 대한 7시부터 10시 관련돼 일할 때 어떤 일하는 사람들의 지원 혹시 이런 물이라도 이런 거 제공해 주고 그런 거 있는가요?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물 매일 제공하죠.

○최정욱 의원

혹시 사고 대비는 대비한가요?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우리가 그 보험을 들어놔서 그때그때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최정욱 의원

그럼 사고가 나면.....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사고가 났을 때 보험 청구를 해 가지고 보험에서 해결을 해 주고 있습니다.

○최정욱 의원

그 현장에서 처리하는 거 연락은 서로 잘 되고 있어요, 그런 거?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예. 지금 그 활동 저기 노인 일자리를 매일 점검하고 있는 그 활동 요원들이 있거든요. 상황, 상황, 그럼 그때그때 즉각 즉각 조치는 되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최정욱 의원

우리 과장님 뭐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네요. 하여튼 준비 더 철저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예.

○최정욱 의원

17페이지요. 어린이집 관련해서 어린이 우리 아마도 지금 도시는 한 걸로 알고 있는데 24시 육아 아기 돌봄 운영에 관련해서 혹시 우리 과장님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가요?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지금 이제 도시에서는 24시 어린이집이 저

기 뭐 이렇게 활발히 이루어지지는 않고요. 그 시 단위라 해도 1개소 정도는 운영하고 있거든요. 저희 군도 이게 이제 해년마다 이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중앙부처에서 24시간 어린이집 수요 조사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항상 이제 수요조사. 도에서 일괄적으로 수요조사를 할 때 24시간 어린이집을 할 운영을 할 계획이 있는 어린이집 신청을 받아보면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지금 최근에 부산에서 초등생 아파트 화재 사건이 발생한 이후로 지금 정부에서 지금 보건복지부나 여가부에서 돌봄 이게 지원 사업 돌봄에 대한 초등생 어린이 영유아 이런 돌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좀 새롭게 지금 개편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그 현장에서 지금 지자체 현장에서 그 목소리를 잘 반영을 해 가지고 24시간 돌봄 체계를 한번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해봐라. 근데 이게 24시간 돌봄 체계는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이게 있었는데 활용 면에서 활용 면에서 많이 있을 것 같지만은 없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지금 시간제 보육을 하고 있어도 우리가 어린이집 시간제 보육을 하고 있거든요.

야간 연장 이런 부분도 하고 있어도 극히 이용하는 아동 수는 좀 드뭅니다.

이제 이용은 하고는 있지만 그 10명 이내 저기 5명 3명 이 정도 수준으로 지금 현재 이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정욱 의원

이제 육아 24시 돌봄은 수요에 맞춰서 꼭 맞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어찌 됐든 지금 우리 인구 정책에 의해서도 그렇고 애들 키우기 좋은 환경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분위기 띄우기 위해서 저것도 한 거거든요.

내가 애기 낳았을 때 밤늦게 막 깨어놓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언제 급할 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걸 운영을 하기에 대비해서 한 것이고 국가에서는 그렇게 돼야만이 아기 많이 낳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그런 차원에서도 있는 걸로 아는데 우리 역시도 이렇게 아닌 것 같지만 다자녀 가정들을 항상 만나면 그 이야기를 해요.

실제 자기네들이 맡기려고는 하지 않아. 그런데 언제든지 어디 가려고 해도 그럴 만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안 간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그게 이제 저도 수요 조사나 해야 될 일을 알아보면 어린이집 이상 이게 좋은 게 없겠더라고 왜냐하면 어린이집들은 어려서 거기서 생활을 해오기 때문에 거기 가도 낯설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가능하다고 보는데 어때요?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근데 이제 지금 올해 4월에 사실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저희가 24시 어린이집을 운영할 어린이집을 운영해 보지 않겠냐 일일이 다 이야기를 이렇게 그냥 공문만 띄운 게 아니라 이제 그 돌봄 체계가 24시를 운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돼서 운영 의사를 전부 물어보면 지금까지는 하겠다는 이제 어린이집은 없고 이번에 화재 사고가 발생하고 이제 분위기가 이제 지역적인 분위기가 이러니까 우리 청해 어린이집 김찬순 원장님이 24시간 어린이집을 운영을 한번 해보겠다 관심은 갖고 있더라고요.

관심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24시간 어린이집 운영 체계를 하면 이제 거기에 대한 인력 이제 거기에 대한 예산 이런 부분들을 이제 내년에는 이제 중앙부처 여가부나 복지부에서 이 부분을 좀 신경을 써서 예산 확보도 하고 인력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지금 계획을 잡고 있어서 좀 내년에는 이게 가능하지 우리

군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24시 어린이집이 하나 생길 수 있도록 우리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정욱 의원

이게 정부에서도 자꾸 나왔던 말이에요. 진즉부터 그러니까 아마 그런 계획을 세울 거야. 이게 우리도 선제적으로 타고 나고 나서 할 게 아니라 우리 군도 그런 거 있으면 먼저 선제적으로 좀 해서.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어린이집을 설득해 보겠습니다.

○최정욱 의원

그럼 어린이집하고 간담회 자주 하신가요?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간담회요. 자주 하죠

○최정욱 의원

자주 해요?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예. 어린이집 지원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완도군이 다른 22개 시군 어린이집에 선도적으로 지금 완도군이 앞서가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정욱 의원

그래요?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예.

○최정욱 의원

어린이집이 굉장히 어려워져 간 것도 아신가요, 그럼?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이제 원아가 지금 작년 지금 현재 영유아를 할 수 있는 정원 충족률이 너무 저기 충족하지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정원을 충족하면 어린이집이 어렵지는 않은데 지금 애들이 없어서 지금 이제 그 어린이집이 좀 약간 어렵지만 정부에서 지금 그런 이게 우리 군만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영유아 영 저기 유치원하고 보육원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을 지금 이미 법률은 법은 이미 저기 제정돼서 시행은 됐거든요.

그걸 지금 차근차근 절차를 지금 밟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정욱 의원

어쨌든 우리 안 그래도 관심 많이 갖고 있겠지만 어려운 건 사실이니까 그게 결국은 우리 어린이들이 안 나니까 그런 거예요. 가면 갈수록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도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섬에서 혹시나 그래서 단 한 명이라도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관심.

○최정욱 의원

가진가요?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지금 그 섬의 어린이집을 안 없애기 위해서 특별 지원을 하고 있는 거 혹시 모르시고 계십니까?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저기 금당만 생각하더라도 원아는 2명이지만 교직원이 3명이 있습니다, 3명. 그거는 원래 지원 조건에는 되지도 않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 섬의 특수성을 발의해서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어린이집이 저기 폐업이 되거나 사라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취지를 강력하게 주장해서 애들 애기가 2명 있는데 교직원이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 현실은 완도군밖에 지금 없을 건데요. 지금 다른 데는 그 정도 되면 폐업하거든요, 거의.

○최정욱 의원

그래도 폐업하면 좋겠다는 얘기나 똑같죠.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아니죠. 폐업을 안 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지원을……

○최정욱 의원

근데 거기는 우리가 수요와 그 숫자에 맞춰서 운영을 위해서 폐업한다 이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저희가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정욱 의원

그 낙도에 어린이집 한 명이라도 있는 걸 지켜서 하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지시설이나 아동 지원이나 이런 거 한 것이지 그 돈에 맞춰서 꼭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맞춰서 하는 지원 사업이 아닙니다.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그래서 저희가 지원 조건 지원 조건에 맞지 않지만 섬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저기 계속 유지할 수 있게끔 폐업 안 하고 계속 유지할 수 있게끔 지금 지원을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최정욱 의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것도 내가 금당 거 보지만 우리 여기 우리 가족행복과 지원뿐만 아니라 농어촌과에서도 지원받죠?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예.

○최정욱 의원

그런 것처럼 그래서 그게 지금 지탱이 되는 건데 잘 살펴보시라고 또 금당뿐만 아니라 지금 타 읍면 도서 지역도 얼마 안 있으면 그런 문제가 올 거라고 보거든요.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도서는 저희가 그 어린이집을 잘 지켜가도록 지금 우리 팀장님이나 팀장님하고 담당자들이 노력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정욱 의원

그렇게 같이 자꾸 이렇게 해서 간담회도 가져보시고 자주 이런 무엇이 어려운지도 들어보시고 지원할 거 있으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24시 어린이 아기 돌봄 잘 그렇게 해서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예.

○최정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양훈

조인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인호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우리 경로당 심야 보일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에 지금 심야 보일러가 설치된 경로당은 몇 군데나 혹시나 되는가요?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지금 잠깐만요. 경로당 심야 보일러는 경로복지센터.

○조인호 의원

맞습니다.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센터에만 지금 심야 보일러가 거의 돼 있고 다른 데는 그냥 일반 보일러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인호 의원

과거에 이제 우리군에서 추진해서 그 당시의 시책이 심야 보일러 시책으로 해서 했는데 지금은 예물 단지가 되고 있다는 걸 좀 알고 계십니까?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지금 심야 보일러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저희 군에서도 지금 경로복지센터에 있는 심화 보일러를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지금 예산이 너무 많이 수반되어서 한꺼번에 교체는 좀 어렵고요. 연차적으로 교체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조인호 의원

지금 준비만 하고 있죠?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실행도 할 것입니다.

○조인호 의원

지금 금일 동백리 같은 경로당은 인구 수가 제일 많단 말입니다. 지금 전화가 매일 한 통씩 와요. 언제 해 줄 거냐 그런데 이제 지금 예산도 전혀 없죠?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지금은 올해는 없습니다.

○조인호 의원

그럼 이제 본예산을.....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본예산에는 저희가 이게 이제 심야 보일러 경로당 심야 보일러에 대해서는 별도로 좀 경로당 개보수나 물품 지원 이거랑 별개로 좀 예산을 좀 세우려고 그럽니다. 그때 저희가 저기 요구하면 좀 통과될 수 있게끔 좀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인호 의원

실장님, 지금 심야 보일러 이 부분이 지금 지금 문제점이 많아요. 과거에는 이제 우리 군에서 과거에는 경로복지센터가 잘 됐다고 시군에서도 벤치마킹하고 그랬는데 코로나 이후부터는 지금 경로당이 좀 그 활성화하는 데 제외를 많이 받더라고요.

과거에 비해서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이런 부분은 내년 예산에 좀 확보를 해서 일률적으로 다른 모여도 한 50%씩 할 수 있게끔 실장님이 좀 답변을 해 주세요.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관련 부서하고 협조해서요. 그럼 100군데가 지금 넘지 않습니까? 거기가.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아니, 53개소 경로복지센터는 지금 53개소에서 그 부분을 일괄.....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예. 그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요. 단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조인호 의원

신경 써주시고요.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예.

○조인호 의원

됐습니다. 과장님, 어린이집 그렇게 열심히 하듯이 경로복지센터에도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경로당 지금 현재 민원 긴급 지원은 열심히 지금 복지시설팀장을 비롯해서 담당자가 매일 매일 현장 지금 나가고 사무실에 앉아서 근무할 시간이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폭염에다가 해서 에어컨 고장 수시로 고장 났다고 지금 접수하는 게 일 처리를 못할 정도로 지금 전화가 와서 어린이집보다 지금 어린이집에서 좀 어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는 폭염으로 인해서 경로당에 지금 모든 인력이 노인 어르신으로 지금 지금 비중이 지금 맞춰져 있는 실정입니다.

○조인호 의원

그래서 공무원이 필요한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공직이 왜 공직이냐 그게 공직입니다.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지금은 폭염으로 인해서 그 모든 우리 과에 지금 다 각 실 팀별로 지금 현장 배치돼서 사무실 내에 지금 근무하는 인력이 별로 없어요.

○조인호 의원

고생 많은 줄 아니까 더욱 열심히 해서 내년에 경로복지센터에 심야 전기는 최대한 많

이 교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인호 의원

수고했습니다.

○의장 김양훈

가족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참조)
·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의장 김양훈

경제교통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욱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페이지에 연근의 조업선단 완도항 유치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예전에 경제교통과장 하셨죠?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경제팀장을 했었습니다.

○최정욱 의원

과장도 하셨죠?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아니요. 이제 과장은 처음이고요.

○최정욱 의원

처음인가요? 경제교통과.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예. 팀장을 했었습니다.

○최정욱 의원

아, 그때 그 연근의 조업 선단의 위치에 대해서 아마 잘 알고 계실 걸로 아는데 어떤가요?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그때 이제 군수님께서 연근해 조업선단 유치를 위한 용역을 추진해 보라고 해서 이제 전남발전연구원이나 이쪽에 위탁을 의뢰를 했습니다마는 해 줄만 한 여력이 안 된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자체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한 후에 한 8장짜리 보고서를 만든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상세히 알고 있습니다.

○최정욱 의원

우리 완도는 바다 수도예요. 항을 끼는 도시인데 아마 우리 조업선단 유치하는데 아마 우리 과장님은 잘 알 거라고 믿는데 어떤 시설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보신가요?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예. 꼭 필요한 시설들은 이제 하역하고 선별시설 그리고 급랭 시설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얼음 가공 시설이 이렇게 필요합니다.

○최정욱 의원

적어도 그런 건 최소한의 기반 시설이라고 보지 않는가요?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예. 맞습니다.

○최정욱 의원

그런 거 갖춰놓지 않고 우리가 선단 유치를 한다 뭐 한다 이런 보고 해도 그 말이 맞다고 보신가요?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그런 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오라고 한다는 건 안 맞습니다만 그래도 본인들이 필요해서 어느 정도는 지금 입항하고 있습니다.

○최정욱 의원

근데 그랬을 때 얼마 이렇게 좀 부끄럽지

않은가요?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부터 이제 부지도 좀 확보해서 이렇게 유치를 해 보려고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최정욱 의원

이것도 시기가 있어요. 이게 그런 거를 항을 기반시설을 갖춰 놓음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이건 어우러진 거거든요.

한 번 투자하면 두 번 투자하실 필요도 없는 거고 알아서 들어와서 이용을 하게 된 거고 우리 그건 지역 경제 소상공인의 경제 활성화에 굉장한 도움이 되는데 정말 우리가 바다를 끼고 항을 끼고 있는 도시에서 이런 기반 시설조차 없는 게 참 저는 부끄럽다고 생각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타 예지 시군에서 준비를 하고 많이들 하고 있어요.

지금 하려고 하고 결국은 다 뺏긴다는 얘기거든 조건을 좋으면서 우리 잘 알고 계시죠?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최정욱 의원

과장님 잘 알고 있는 만큼 업무 보고 지금 실적 보고 만큼 내가 길게는 안 할 겁니다. 알아서 잘 챙겨서 그런 시설 부분을 빨리 확보해서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최정욱 의원

그리고 4페이지, 중앙시장 지금 우리 현대화 사업 시설 지금 하고 있죠?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예. 그렇습니다.

○최정욱 의원

이제 하는데 지금 그전에도 거기가 주차난이 굉장했어요. 근데 우리 이제 b동으로 해서 더 현대화 시설을 하는데 하고 나면 아마 이 교통난은 더 심화될 건데 이 관계에 대해서도 충분한 주의 주차장 확보할 수 있도록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4명밖에 계획이 안 돼 있어서 추가 확보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정욱 의원

꼭 올해 예산 뭐 해서 내년에 꼭 같이 이거 동시에 우리 건물이 지금 6월에 지금 완공한다고 돼 있죠?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예. 내년 6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정욱 의원

그러면 같이 이런 것들이 동시에 이루어져서 효과가 같이 날 수 있도록 해야죠.

그래서 지금부터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예. 잘 알겠습니다.

○최정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양훈

지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 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작년에 본 의원이 이렇게 군정 질문 답변 때 우리 사선주차와 관련을 해서 질의를 드렸던 내용이거든요.

일단 방송실 자료화면 하나 올려주세요. 저거는 중앙시장 앞에 그 우리 사선주차 항상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해변공원 인근 도로에도 저기 삼거리에 있는 데 있죠.

우리 서민회관 있는데 그쪽에도 이제 저기 지금 차가 중앙선 넘어서 가고 있는 거 보이

시죠? 저것 때문에 저 앞편에 우회전하는 차량과 부딪힐 수 있어서 저쪽에 좀 차선 주차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많이 튀어나와 있으니까 단속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안전에 좀 많이 취약하다 그 말씀을 드렸었고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저거 이제 최근에 찍은 사진인데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다음 사진 한번 올려봐 주세요. 저거 지금 이제 현재 현수막이 저렇게 또 돼 있지만 현수막 아무 필요 없어요. 앞에 바로 있어도 이렇게 사선 주차를 하고 있는 상태죠. 그리고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저기 이제 우리 터미널 사거리 굉장히 민원이 많은 지역이에요. 그렇죠? 우리.....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예. 그렇습니다. 저기 지금 주차를 해놓은 차들 때문에 저기 터미널 사거리인데 차량도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저게 이제 하교 시간이 되면 저기에 차들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저기 오른쪽 주차되어 있는 차들 때문에 이렇게 사거리 전체가 마비가 될 정도로 그 마비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저기를 이렇게 완도읍사무소에서도 이렇게 굉장히 그 주차를 하지 못하게끔 활동을 많이 했는데 이게 좀 안 들어지더라고요.

안 되고 또 단속을 하더라도 그때뿐이고 단속 차량이 지나가고 나면 다시 저 상태가 되어 있고 이렇게 어떤 특별한 조치가 좀 필요할 듯해 보여요. 그렇죠?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민 의원

그래서 혹시 과장님께서 이제 최근 이제 자리 이동하신 지도 얼마 안 되었는데 그동안에 이렇게 단속을 좀 이제 예전부터 오래전부터 제가 항상 있었던 민원이고 하는데 단속을 좀 많이 좀 집중적으로 했었으면 이렇게 그냥 계속 변하지 않는 모습이 계속 그대로는 가지 않을까 조금 변해지는 모습이 좀 보여지지 않을까 또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우회전하는 차량들이 사선 주차 때문에 또 진입을 못해서 또 막히는 경우가 또 많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주차를 조금 더 주차 단속을 좀 많이 했으면 싶고 제가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는데 주차 단속하는 차량을 본 적이 없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또 예쁘게 또 사선 주차 아니고 일렬로 주차되어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꽤 이 이야기를 반복을 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과장님께서 여기 이제 새로 오셨으니까 우리 또 지역의 안전하고 또 쾌적한 교통 문화에 대해서 또 과장님께 특별히 주차 단속을 좀 열심히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을 해 본 게 있으신지.....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의원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이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교통 단속 차량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고 우리 직원들도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교통 계도 활동을 교통 의식 문화 개선을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민 의원

단속을 좀 이제 단속을 하다 보면 또 민원도 당연히 많이 들어오겠죠.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예. 그거는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민 의원

당연히 들어오는데 우리 또 주민을 위해서 어떤 게 더 우선인가 그 부분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봐 주시고요.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예. 잘 알겠습니다.

○지민 의원

그렇게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예. 잘 알겠습니다.

○지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양훈

조영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 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에도 없는 내용입니다마는 건의 차원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송실 자료화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정도리. 화흥포 삼거리 구간으로 보시다시피 차선이 복잡하고 시야 확보도 어렵고 차량 통행이 많다 보니 사고 위험이 늘 존재하는 구간입니다.

실제로 올해 이곳에서 4월 3일경 점심시간 화흥포에서 식사하고 화흥초 방향으로 직진하던 모 마을 이장님과 탑승객 1명의 차량과 승객을 세분 싣고 운행하던 택시 기사분 총 6분이 사고가 났습니다.

전치 6주 이상의 치료를 받으셨고 현재도 매일 병원 신세를 지고 있답니다.

또 이곳은 화흥포를 이용하는 활어차, 화물차, 택시 이용자들이 노화, 소안, 보길 배 시간을 맞추려고 과속이 빈번하다고 합니다. 또한 배가 도착하면 이곳의 교통량은 급속히 늘어 늘 사고 위험이 존재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에 교통안전 개선을 위해 회전로터리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많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그 부분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 교통팀에서 해야 될 업무인지는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어서 좀 관련 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식 의원

그러면 우리 교통팀장님, 교통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이런 민원 접해본 적 있습니까?

○교통팀장 황춘

회전로터리를 지금 설치할 부분이 저기뿐만이 아니고 여러 군데가 건의가 들어오긴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지만 반경이 많이 안 나오고 지금 화흥포 저 부분은 제가 처음 들어본 그런 자리인 것 같은데 저기도 지금 수안로 하부 길로 들어가는 차량들이 많다는 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회전로터리 부분은 아직 전체적으로 검토를 못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 부분 다 고려해서.....

○조영식 의원

공감은 하죠?

○교통팀장 황춘

예.

○조영식 의원

이제 로터리를 설치하려면 설치 기준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라도 한번 해서 경찰서와 건설과 도로 시설 등과 협의하여 교차로 개선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식 의원

지금은 추진 실적 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이런 말도 하는 겁니다. 방송실 자료 화면 다시 한 번 올려주십시오. 이 실장님은 아직 업무 파악이 안 되셨을 것 같은데 우리 황춘 팀장님 소관인가요? 저 버스터미널.....

○교통팀장 황춘

예.

○조영식 의원

이게 지금 지난주에 찍어온 사진입니다. 이제 참 말하기도 민망한데 이번에 저 본 예산에 버스 터미널 현대화 지원 사업 3천만 원 편성했고 확보했죠?

○교통팀장 황춘

확보했습니다.

○조영식 의원

2월 7일자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보고에 과장님 보고에 뭐 바닥 공사만 하고 전자형 시계, 전자형 시계는 아직 못 하겠다 했는데.

○민원봉사과장 김용식

오늘 오전에 확인을 해 보니까 지금 거기에서도 지금 설치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광주 쪽에 업체를 알아보고 있는데 8월이나 9월 초에는 설치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조영식 의원

팀장이 앉으십시오. 방금 약속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좀 시기가 한 3개월 남았는데 그때 다시 이런 말이 안 나오게 좀 해 주십시오.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9월 안에는 설치하도록 독려를 계속 하겠습니다.

○조영식 의원

저 사진을 지금 거의 3년 가까이 본 것 같아요. 우리 저도 제가 이야기하니까 보지만 여기 의원님들이나 여기 계신 실과장님들 퇴직한 분들도까지 포함해서 또 새로 승진하신 과장님들도 다 한 번씩은 봤던 저 사진인 것 같아요.

이렇게 돈 액수가 얼마 되지 않는 일 또 민원봉사과장 하셨으니까 이게 좀 민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애착도 있고 또 빨리 처리해야 된다는 그런 또 사명감도 있지 않겠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예. 그렇습니다.

○조영식 의원

두 번 다시 저 사진이 띄워지지 않기를 바라며 행정사무감사나 군정 질문 시기에 두 번 다시 4층 본회의장에서 저 말이 안 나와 저 사진을 안 봤으면 좋겠어.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식 의원

예. 이상 보충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양훈

허궁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궁희 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보고서 11페이지 송정역에서 해양치유센터 연계 시외버스 운행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두 가지 묻겠습니다.

본예산이 1억 원이 반영돼서 1일 1회 왕복 노선 운행을 석 달 정도 했죠?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예. 3개월 했습니다.

○허궁희 의원

그렇게 운영을 했으면 이용객이나 이용률이 어쩐지 좀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이제 광주에서 완도로 오는 버스는 4월에 109명, 5월에 161명, 6월에 138명이었고요.

완도에서 광주로 가는 버스는 4월에 74명, 5월에 112명, 6월에 111명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허궁희 의원

생각보다 이용객이 있네요.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이제 해양치유센터를 전부 가는 게 아니고

완도 터미널에서 내리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허궁희 의원

종합해서요?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예. 그렇습니다.

○허궁희 의원

그러면은 현재 예산이 투입돼서 버스를 운행하고 있는데 예산이 소진이 되면은 종료가 됩니까? 아니면 계속 운행을 합니까?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이제 올해 예산은 이제 충분히 확보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좀 고민을 더 해보겠습니다.

○허궁희 의원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봐서는 주중에 이렇게 왕복 그 횟수를 줄이고 주말에 늘리는 게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그 부분은 공감은 합니다. 이제 그렇지만 금호고속 측하고 좀 협의를 해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허궁희 의원

협의를 해서 이렇게 좀 이용객이 많을 때 좀 증편을 하고 이용객이 없을 때는 좀 줄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예. 그 부분은 공감을 하겠습니다.

○허궁희 의원

그리고 이제 아울러 접근성 개선을 통해서 해양치유 관광객 유치 중대 노력을 한다 이렇게 했는데 어떤 법으로 할 건지 계획이 있으면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이제 조만간 이제 목포에서 부산 간 철도도 개통을 하고 그 해남 계곡 쪽에 아마 정류소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경유하는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 제가 좀 검토를 계속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허궁희 의원

과장님 단순 홍보만 하면 효과가 미약할 수 있으니까요. 그 노선을 이용한 관광 상품을 한번 개발을 해서 함께 이용하게 하면 더 효과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제가 많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허궁희 의원

고민해 보시고 그런 안들을 한번 주위 분들로부터 많은 제보를 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궁희 의원

이상으로 보충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양훈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보고는 다 들었습니다만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보고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과까지 다 이렇게 보고를 받는 게 좀 어떨까 싶어서 의원님들의 동의를 좀 얻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럼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4시 3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35분 회의계속)

○의장 김양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

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참조)
·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의장 김양훈

문화예술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욱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페이지에 보면 장보고 기념탑 건립 관련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기념탑 건립 이 과정에 예산이 원래 도비 5억, 군비 2억원인데 원래 이랬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예. 작년에 도비 5억이 먼저 내려왔고요. 저희 군비 2억을 매칭해서 올해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협의가 도하고 돼서 지금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최정욱 의원

그 말은 5억에 5억 우리 군비 5억을 하기로 했다고 했던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아니, 처음부터 매칭이 이루어진 건 아니고요. 도비가 먼저 지원되고 그다음에 군비가 2억 매칭을 했습니다.

○최정욱 의원

원래 이제 그 단체에서는 5억으로 알고 있더라고 처음에.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예.

○최정욱 의원

근데 그건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높이 제한이 있습니다.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높이 제한이 7.5m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그 규모로 저희가 7억으로 산정해서 지금 추진할 예정입니다.

○최정욱 의원

원래는 10억인데 7억으로 해서 높이 제한 때문에 7억으로 한 건가요? 아니면 그런 7억의 가지면 충분해서 그런가요?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높이 제한 고려해서 그 정도 사업이면 가능하겠다 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최정욱 의원

일반 이제 다른 쪽에서는 오늘도 아마 언론에 나온 거 혹시 아신가요? 이거 관계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아, 그거는 미처 못 봤습니다.

○최정욱 의원

그랬죠. 아마 이제 이거 갖고 언론에 가서 내가 봤는데 이제 그런 문제점과 또 5억 10억이면 고도 제한 때문에 예산을 낮췄다면 더 높게 잡아서라도 더 웅장하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단체와 여론도 오늘 아마 그렇게 해서 언론에 나온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안 해보신가요?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동상도 있고요. 기념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 7억 정도 규모로 해서 그래도 이제 지으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7억 정도로 책정을 했습니다.

○최정욱 의원

최근에 우리 세계 장보고 학술대회도 하고 했죠. 우리 장보고는 뭐 중국 아니라 일본 모두가 공유하는 유일한 역사적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보고 기념탑은 역사 문화 관광 교육 등 우리군에서는 굉장히 의미를 담고 있는 부분이고 상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이런 아마 단체와 언론에서 이렇게 나올 때 우리도 한 번 좀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귀향한 거 귀향한 건 그래도 조금 봐도 웅장한 맛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에는 저도 지금 언론에 보고 동감을 하거든요.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알겠습니다.

○최정욱 의원

그러니까 좀 더 깊이 해서 필요하다 면 그렇게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고 지금 추진 중에는 있는가요? 어떤 단계에 있는가요?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아, 지금 작년에 예산은 확보가 됐는데 도하고 도 예산 부서하고 협의가 좀 늦어지는 바람에 6월달에 지금 도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라고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을 잡고 현재 일상 감사 중이고 7월 말 정도는 저희가 공고를 띄워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정욱 의원

조금 이제 이게 아무래도 단체나 관련 단체나 또는 언론도 이렇게 나온 만큼 한 번 더 한 번 검토를 해서 그쪽과 또 대화도 좀 해보시고 기왕 한 거 그래도 좀 여러 가지 토의도 좀 해서 해봤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예. 일단은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업무보고가 끝나고 나면 이제 의원님들하고도 한번 해보고 관련 단체하고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작년 예산이 2월 돼서 저희가 공고까지 나가게 되면 진행하는 과정에서 증액이 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그렇게 많이 증액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정욱 의원

탑이 기존 실물이 나와 있는가요?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아니요. 그게 이제 디자인 공모하고 같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최정욱 의원

아직 나온 건 아니죠?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예. 그러니까 그 공고를 띄우는데 저희가 이제 사업비가 현재 7억으로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저희가 공고를 띄울 예정입니다.

○최정욱 의원

그러니까 그때 할 때 그 디자인은 어떻게 하느냐에 좀 다를 수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예.

○최정욱 의원

디자인 나왔을 때 보는 사람들에 따라서 그 웅장한 면이나 거기에 빗대서 기대치가 어느 정도 가 디자인 나오면 다 서로 그것 갖고 공유할 수 있죠.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디자인이 나오면요?

○최정욱 의원

아직 나온 건 아니잖아요, 지금.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예. 저희가 이제 그 공모 절차를 7월 말에 공고를 띄워 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최정욱 의원

그러니까요. 그때 서로 또 소통하면 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알겠습니다.

○최정욱 의원

좀 그렇게 해서 이번에 오늘 보니까 언론까지 해서 그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었는데 또 이렇게 떠서 했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양훈

조영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 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큰 문화 작은 큰 문화 나눔을 위한 작은 영화관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2017년 9월 26일 개관하죠. 당시에는 3개월 만에 9월 26일날 했습니다.

3개월 만에 1만 8천여 명이 다녀가셨고요.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면 매년 3만에서 또 많게는 7만 4천, 7만 5천 명까지 넘게 관람자가 관람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7,981명으로 비록 상반기 기준이지만 만 명도 채 넘지 못했습니다.

이대로라면 현저하게 인원수가 줄어드는 수치인데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지금 이제 인구 감소 부분도 있을 것 그다음에 이제 넷플릭스나 디즈니랜드 같은 이제 OTT의 콘텐츠들이 다양화되면서 이제 영화에 대한 수요가 좀 줄어든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지금 TV에서 채널이 다양화되면서 예전에 개봉작과 함께 예전 오래된 영화까지 함께 지금 무료로 시청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영화에 대한 부분들이 좀 수요가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조영식 의원

아무래도 그렇겠죠. 또 영화 산업 침체 때문이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시장 확대 이런 것도 작용하겠죠. 본 의원은 인원수가 이렇게 줄어든다는 것은 행정에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단순히 시대가 변했으니 작은 영화관도 어쩔 수 없이 운영 면에서 어지러울 수밖에 없다는 인식은 버려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동의하시죠?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이제 다각도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조영식 의원

상영 편수도 많이 줄고 해서 제 주변 어르신 한 분은 작은 영화관 덕에 영화관을 처음 경험해서 한 평생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들었다고 하신 분도 계십니다.

이렇듯 작은 영화관은 농촌 시골에서 어르신들의 추억이 될 수도 없고 지역 이탈을 막막을 수 있으며 인구 소멸 대응에 따른 문화복지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를 지니고 있다 생각되는데 혹시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제 생각에?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예.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영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공감합니다.

○최정욱 의원

혹시 과장님 최근 타 지자체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영화관 나들이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데 과장님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예.

○조영식 의원

아, 들어보셨어요?

○조영식 의원

설명은 제가 할게요. 그러면 보통 지금 작년부터 해서 경남에 있는 여러 군 남해군 의령군, 산청군, 함양군들이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작년 남해군 같은 경우는 7월부터 12월 시범 사업 시범으로 운영해 가지고 올해 본격 추진한답니다.

본격 추진한 이유는 약 1,900여 명이 이용했다고 그래요, 어르신들이. 내용으로는 월 평균 4회 이상 무료 대관, 65세 이상 무료 대관, 또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교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 주민이 동변하면 동반자도 똑같이 무료 이동 이용하게끔 하시고 하고요.

의령군 같은 경우도 작년에 시범 운영해서 17회 무료상영에 602명이 관람했고2025년도 전 읍면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합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특이한 점은 또 장날에 맞추어 월 2, 3회 꼭 추진한답니다. 장날에 장 보고 와서 오후에 같이 영화관 들렀다가 산청군도 작년에 시범 운영 올해도 본격 시행하고요. 함안군 같은 경우는 11월 말까지 월 1, 2회 진행 해가지고 200명을 대상으로 무성영화 즉 말하면 변사가 있는 그런 영화 그런 공연을 했다고 합니다. 너무 호응이 많아 가지고 너무 어르신들이 좋다 나오니까 나들이하고 영화관 다녀오고 오니까 너무 좋다고 하는데 호응이 아주 대단했다 해요. 혹시 벤치마킹해서 이거 혹시 완도에 추진해 볼 의향 있으신가요?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이제 의원님이 제안하신 부분은 저희가 지금 경남도에서 이렇게 특수시책 형태로 이제 노인 복지 차원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몇 개 경남도에 있는 몇 개 시군이 지금 우선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도 한번 현황을 파악해서 저희 군도 접목을 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저희는 작년에 우리 의원님이 또 제안해 주신 천 원 영화 보기 사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작년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고 지금 올 하반기에는 지금 영상위원회에서 공모사업으로 찾아가는 영화관 운영도 지금 저희도 지금 공모 신청을 해볼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지금 영화 사업이 너무 침체 상황에 있기 때문에 7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천 원 영화 보기 사업을 지원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런 사업들이 시행이 되면 좀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영식 의원

섬으로 이루어진 도서 지역이라 문화 혜택 받기가 상당히 힘든 우리군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한 어르신 한 분이라도 소개해 드렸지만 그분들한테 추억과 또 볼 수 있는 또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다양하게 또 개발하고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가 해드려야 된다는 복지 차원에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동의하시죠?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예.

○조영식 의원

지금부터라도 작은 영화관 상영을 위해 기획전 확대, 어르신 청소년 학생을 위한 영화관람 프로그램 추진, 문화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만들어 작은 영화관이 활력이 넘치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

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예. 알겠습니다.

○조영식 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양훈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최정환

(참조)

·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의장 김양훈

체육진흥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궁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궁희 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에는 없는 내용입니다마는 주민 건의 사항이 있어서 간단하게 건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생활체육공원을 가끔 가보시죠.

○체육진흥과장 최정환

거기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허궁희 의원

본 의원도 시설이 하나둘씩 갖춰지고 있어서 주중이나 주말에 이렇게 한 번씩 가보면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보기가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주민들이나 방문객들이 이곳에 대해서 안내 표지판이 없어서 혼란스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진 한 장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면 이게 이제 안내 표시판이에요.

근데 사실 이것은 에 청해진 스포츠 센터를 위주로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알아보기가 힘들죠.

다시 한 장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안내 표지판이 전혀 없어요.

계속해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나 자주 안 가신 분들은 어디로 가야 뭐 예를 들어서 게이트볼장을 가는지 야구장을 가는지 좀 찾기가 어렵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진으로 이렇게 보셨듯이 생활체육공원 진입로 부근과 인근에는 안내편이나 이렇게 안내 위치도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이렇게 사진을 확인했으니까 한번 누구든지 가면 쉽게 이렇게 위치를 확인하고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안내판을 한번 설치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정환

확인 후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허궁희 의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최정환

부족한 예산은 기획예산실 협조를 받겠습니다.

○허궁희 의원

아니, 실장님 어떻습니까? 봐도 저것은 빨리 해야 되겠죠.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못 찾는 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에 계시다가 체육진흥과로 가니까 어째 홀가분합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정환

홀가분하기보다는 집행부 공무원으로서 이 자리에 서니까 의원님들 여덟 분이 계신데 거대한 산이 앞에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떨립니다.

○허궁희 의원

목소리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최정환

감사합니다.

○의장 김양훈

조영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지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도 뭐 직장 운동 경기 운영에 대해서만 질의하겠습니다.

가장 최근 선수들 사기 진작을 위해 직장 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과장님 계실 때 개정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최정환

지난 6월 330회 정례회 때 했습니다.

○조영식 의원

역시 의사과장님 출신답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선수들 사기 진작에 무슨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정환

이제 감독 포함 총 5명인데 4명이 급여가 인상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부 다 훈련할 때도 기분이 좋고 대회 나갈 때도 내가 메달 하나라도 더 따야 되겠다 그런 다짐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조영식 의원

우리군은 또 개정되기 전에,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또 우수 선수 타지 자체를 또 빼앗긴 적도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최정환

예. 있습니다.

○조영식 의원

이양재 선수 같은 경우..... 뭐 우수 선수들을 또 유치할 계획은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정환

지금 이제 제가 여기 2주 됐는데요. 우리가 지금 의원님들의 협조로 지난 6월에 조례 개정으로 연봉이 좀 올랐지만 똑같은 실력을 가진 선수를 비교하면 다른 지역보다 우리가 연봉이 많이 적습니다. 그래서 우수선수 유치를 한다면 솔직히 예산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노력은 하겠습니다.

○조영식 의원

예. 인정합니다. 혹시 우리 군 역도 선수들이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것으로 또 알고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우리 군 도 홍보할 방안 같은 거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정환

이제 대회가 끝나면 이제 우리 우수 선수들 때문에 이제 자연스럽게 완도군이 홍보가 되는데 의원님께서 이렇게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조금 더 저도 진지하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또 더 좋은 방법이 있겠는가 하고.

○조영식 의원

제가 이 질문을 한 이유는 영암군 민속씨름단을 통해서 지역 홍보 역할을 톡톡히 한다는 보도 자료를 보았기 때문에 질문을 합니다.

요점만 읽어드릴게요. 영암군 민속씨름단 스포츠단이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견인해 내는 전공 모델로 잡아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본 의원이 보고가 끝나면 보도 자료를 공유해 드릴 테니까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가졌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체육진흥과장 최정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식 의원

단순한 직장운동경기부의 수준을 넘어 완도군 역도선수단이 완도의 얼굴이자, 자긍심이 될 수 있도록 전략적인 행동이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상 보충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양훈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최정환

감사합니다.

○의장 김양훈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 결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

(10시36분 산회)

○출석의원(9인)

김양훈 박성규 지민
박재선 박병수 조인호
최정욱 허궁희 조영식

○출석공무원

군수	신우철
부군수	이범우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관광실장	안환옥
해양치유담당관직무대리	김건규
행정지원과장	이기석
세무회계과장	천종실
민원봉사과장	김용식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체육진흥과장	최정환
농업축산과장	이정국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해조류박람회추진단장	김준혁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지역개발과장	오현철
건설과장	김진원
안전총괄과장	이홍용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최광윤
보건의료원장	한광일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수호

○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최영미
의사운영팀장 서을식
속 기 사 정현중

제331회 완도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7월 16일(수) 10시00분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청취의 건
   - ㅇ농업축산과(15)
   - ㅇ해양정책과(20)
   - ㅇ해조류박람회추진단(2)
   - ㅇ수산경영과(17)
   - ㅇ산림휴양과(15)
   - ㅇ환경수질관리과(19)
   - ㅇ건설과(19)
   - ㅇ농업기술센터(14)

부의된 안건

1.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청취의 건

- **ㅇ농업축산과(15)**
- **ㅇ해양정책과(20)**
- **ㅇ해조류박람회추진단(2)**
- **ㅇ수산경영과(17)**
- **ㅇ산림휴양과(15)**
- **ㅇ환경수질관리과(19)**
- **ㅇ건설과(19)**
- **ㅇ농업기술센터(14)**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양훈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

1.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청취의 건(군수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농업축산과, 해양정책과, 해조류박람회추진단, 수산경영과, 산림휴양과, 환경수질관리과,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부서장의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정국

(참조)

·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의장 김양훈

농업축산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욱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페이지요. 학교 급식 친환경 농수산물 식재료 지원에 대해서 간단히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이 지원한 금액이 12억 3,700만 원인데 이게 우리 농가들이 생산한 안전적인 판로 확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우리 저 농가에서 완도 농가에서 지은 걸로 지금 다 납품하고 있는가요?

○농업축산과장 이정국

전체적으로 다 못하고 이제 조금 학교에서 원하는 일부 품목만 친환경 농업을 하고요. 거의 완도군에서 생산된 농협 친환경 농업 생산물로 식재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정욱 의원

어떤 게 주로 기고, 어떤 게 아니에요?

○농업축산과장 이정국

지금 이제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제 와서 좀 했습니다마는 별도로 좀 자세하게 좀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정욱 의원

아마 이게 지금 입찰에서 거의 납품하지 않은가요?

○농업축산과장 이정국

예.

○최정욱 의원

그러죠. 그 과정에 그런 게 좀 문제가 좀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이제 와서 파악이 안 돼서 그 자료를 해서 저한테 좀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정국

예. 알겠습니다.

○최정욱 의원

그다음 14페이지 동물 보호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송 자료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보이시죠?

○농업축산과장 이정국

예, 예.

○최정욱 의원

지금 우리 과장님 지금 볼 때 이 개가 지금 몇 마리 정도, 한 7~8마리 정도 되죠?

○농업축산과장 이정국

예, 예.

○최정욱 의원

평상시에 우리 과장님 축산과장 되기 전에 평상시에도 봤을 텐데 혹시 보지 않았는가요?

○농업축산과장 이정국

예. 봤습니다.

○최정욱 의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요?

○농업축산과장 이정국

지금 저희 완도군에 그 유기견 포획 전문가가 3명이 있습니다. 체도권과 섬 지역에 같이 합동으로 지금 유기견을 포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고가 접수되면 전문가를 현장으로 파견해 가지고, 포획해 가지고 지금 동물보호센터에 지금 보호하고 있습니다.

○최정욱 의원

접수를 하면 어떤 접수를 말하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이정국

민원인이 이 유기견이 이렇게 돌아다니게 좀 포획을 해 주십시오하고 저희한테 소방서라든가 저희한테 신고가 접수되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최정욱 의원

근데 이제 저게 방금 전에 개성순두부 쪽인데 7월 5일자에 찍은 거고 거기뿐만 아니라 한번 우리 과장님 한번 돌아보세요. 저녁이나 아침에 저녁에 아침에 돌아다니면 저런 거를 많이 발견을 해요. 어제도 제가 여기 우체국 앞 사거리에서도 적은 개가 아니야 개가 큰 개들이 그렇게 돌아다니거든요. 이제 왜 그러냐 하면 올해 우리 완도 방문의 해라고 선포한 거 아시죠?

○농업축산과장 이정국

예, 예.

○최정욱 의원

담당 과장이 아닌 돼서 이걸 우리 방문에 이걸 하려면 관심을 갖고 봐야 되지 않은가요?

○농업축산과장 이정국

예. 알겠습니다.

○최정욱 의원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도 안전 문제가 있지만 피서객들이 왔을 때 우리 완도 이미지를 어떻게 보겠어요? 내가 봐도 섬짓해요. 걸어가지 못하고 해요. 개가 저렇게 있어버리면 그러면 완도 관광객들이 왔을 때 관광객들은 잠을 안 자죠.

보통 저녁 늦게까지 놀고 아침 일찍 들어와서 또 관광도 하고 하는데 제일 많이 보는 사람들이 관광객이라고 봐요. 그랬을 때 그런 이미지가 어떻겠어요? 관광 우리 완도 방문에 선포식은 해놓고 이런 거 하나도 제대로 준비 안 하고 한다면 되겠어요?

○농업축산과장 이정국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이 앞전 주 7월 10일 날 협회하고 또 소방서하고 저희 합동으로 좀 이런 부분들에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

참고로 소방서에도 옛날에는 마취총이 약이 한 번 쏘면 바로 죽 죽을 정도로 좀 했었는데 지금 지침이 바뀌져가지고 쏘면 지금 30분 이상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해서 포획틀을 좀 저희들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포획할 수 있는 틀들을 개선해서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도록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대책을 해서 빨리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욱 의원

이제 지금도 안 늦어요. 피서철 지금 뭐 아주 성수기 아니니까 빨리 대책을 세우시고 우리가 방문해 선포를 안 했다 하면 예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방문해 선포해 놓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미지가 한 번 안

좋게 비추면 그분들한테는 영원한 이미지로 비치기 때문에 그래서 업무보고 본회의장에서 하게 된 것이니까 우리 과장님 잘 참고하셔가지고 적극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정국

알겠습니다.

○최정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양훈

허궁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궁희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폭염에 따른 가축 피해 예방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기후위기 심화로 폭염 일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전남도에서도 닭, 오리, 돼지 등 37만여 마리가 폐사됐다는 내용 알고 계시죠?

○농업축산과장 이정국

예.

○허궁희 의원

우리 완도의 경우는 어떤가요?

○농업축산과장 이정국

아직 폐사는 없습니다.

○허궁희 의원

없죠?

○농업축산과장 이정국

예.

○허궁희 의원

현재 폭염 대비 축산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나 대비하고 있는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정국

저희가 기존의 폭염 대비해 가지고 재보험 가입이라든가 이것을 좀 독려하고요.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라든가 환풍기라든가 가축 효율제라는 것은 비타민 형태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스프링클러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또 더 지원할 수 있도록 그 환풍기라든가 급수 시설을 좀 추가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궁희 의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폭염에 대비해서 농가 교육이나 사전 안내 체계는 어떻게 또 대비하고 있는지 뭐 준비된 거 있으면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정국

농가별 대응 체계를 좀 저희가 구축해 가지고요. 지금 농가별로 이 앞전에 저희가 면담을 좀 했습니다. 협회라든가 제가 찾아가 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피해가 없도록 사전 좀 홍보를 했고요. 또 행동 요령이라든가 이런 문자 메시지를 지금 수시로 좀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허궁희 의원

이번에 마치 비가 왔으니까 그러지 올해 장마가 없다 보니까 이 논은 피해가 뭐 그다지 저기 했는데 작물들은 좀 피해 일보 직전까지 갔다는 거 알죠?

○농업축산과장 이정국

예, 예.

○허궁희 의원

그래서 피해가 나서 대비한 것보다는 사전에 준비를 했다가 가뭄이 시작되거나 이런 피해 징후가 나타나면 바로 이렇게 공급을 해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사전에 많은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정국

예. 알겠습니다.

○허궁희 의원

그리고 전남에서 도에서 예비비를 편성하여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 군에서도 그런 걸 준비하고 있

는 부분이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정국

예. 저희가 그 전라남도에서 이 배정된 부분에서 저희가 그 전주까지 그 신청 대상자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빨리 그 긴급 조달을 의뢰해 가지고 농가에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궁희 의원

예. 그렇게 준비를 해서 우리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정국

예. 알겠습니다.

○허궁희 의원

이상으로 보충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양훈

지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 의원

과장님 동물 보호복지 관련해서 이번에 들게 그거와 관련해서 잠깐 제가 좀 여쭤볼게요. 얼마 전에 우리 완도 온라인 사이트에 민원 사이트에 이제 12일날이었어요.

그때 이제 아까 좀 전에 최정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개들인 것 같아요.

그 개들이 워커힐빌라, 우체국 사거리 주차장 근방 이렇게 한 대략 한 10마리 정도가 되는데 이게 몰려다닌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파트 주민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내리지도 못하고 이렇게 또 살짝 보다가 내려서 이제 불이 나게 달려서 이제 도망가듯이 하는데 거기에 답변해서 우리 현재 유기동물 포획은 우리군 농축산과 전담반에서 진행을 하고 있으며 정확한 조치를 위해 아래 정보가 필요합니다. 신고자 성함과 연락처 목격 위치 및 자주 출몰하는 동선 가능한 경우 사진 이러한 사진들을 민원인들의 에게 요구를 했어요. 이러한 게 들어와야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이렇게 관련 부서에서 나가서 정확한 포획을 위해서 이제 한다라고 하는데 솔직히 이 움직이는 개들은 언제 어디서 어떠한 사고가 일어날 줄 모르는 거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이정국

예. 맞습니다.

○지민 의원

그러죠. 어르신들이 이제 좀 허약하신 어르신들이 달리기도 안 되고 근데 만약 어린이들이 다니다가 만약에 이런 개들이 쫓아왔을 때 이러한 사고가 난다면 좀 큰일이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이정국

맞습니다.

○지민 의원

그래서 이제 이러한 민원이 소방서라든지 어디든지 들어오면 아까 이제 10일 날 또 합동 회의도 하셨다고 했어요. 근데 이 사고가 난 것도 12일인데 그날 12일 날 접수된 그 개들은 어떻게 됐나요? 지금.

○농업축산과장 이정국

그 개들이요?

○지민 의원

예. 접수됐나요?

○농업축산과장 이정국

지금 접속 개들이 지금 합동으로 지금 이게 군락으로 해가지고 지금 집단적으로 한 10마리씩 돌아다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포인트 지금 군데군데 지금 그들이 그 애들이 지금 진입하는 도로에다 지금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이 포획틀이 좀 약간 작습니다. 그래서 그 집단적으로 한 번에 잡을 수 있도록 그 포획틀을 지금 제작에 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빨리 해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민 의원

그러니까 이제 벌써 그렇게 되다 보면 날짜가 시일이 지나고 또 시일이 지나다 보면 사고가 생길 수도 있고 하는데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주민들의 안전과도 진짜 문제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담당 과에서 미리 이제 그러한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인들한테 어떠한 서식에 맞춰서 신고를 해 주라 하지 말고 해 주라 이제 여건이 된다면 그렇게 하겠지만 일단 먼저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을 나가서 한번 보시고 주변을 돌아다보면 그 강아지들이 보이잖아요. 그럼 사진도 직접 찍을 수 있고 어떠한 점에 있고 어디 어디 위치에 빨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담당과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농업축산과장 이정국

빨리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민 의원

일단 민원이 들어오면 한번 현장에 가서 직접 보시고 민원인하고 이야기를 해서 사진이라든지 모든 걸 접수를 해서 빨리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정국

알겠습니다.

○지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양훈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참조)

·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의장 김양훈

해양정책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궁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궁희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페이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도 전복산업특구 운영 및 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완도가 전복 산업 특구로 지정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거 맞죠?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예. 그렇습니다.

○허궁희 의원

방송실 자료 화면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저게 어딘지 아시겠죠?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예. 신지 강독 휴게소에 있는 홍보물입니다.

○허궁희 의원

그러죠. 그런데 저걸 지나가면서 볼 수가 없어요. 강독 휴게소로 고개를 돌려야지만이 보입니다. 네 저건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생각으로 저기다 저렇게 설치를 했는가 모르겠는데 많은 아쉬움이 남아요. 한 번 더 확인을 하시고 제 생각에는 있어야 될 장소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현장에 가서 이렇게 봐 봐도 차를 타고 가면서는 볼 수가 도저히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개를 저 본다고 이렇게 돌리게 되면 이제 사고하고 연결이 되겠죠. 그러니까 장소를 잘못 선택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 과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 시설물을 오래돼서 정비를 하면서 저 위치가 적정하지 않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다시 한 번 우리 군의 대표 또 해조류 전복 산업 특구를 홍보하는 홍보물인 만큼 그 많은 사람들이 잘 보일 수 있는 위치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선정하는 과정에 그 이 분야의 그 관계자들이나 또 의원님들과도 상의를 해서 적정 위치를 선정해서 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궁희 의원

꼭 그렇게 해야 되겠죠?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예. 그렇습니다.

○허궁희 의원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엊그저께 이제 민원이 들어와서 우리가 이렇게 좀 점검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14쪽 한번 봐주십시오. 여객선 운임 지원 사업을 우리 군에서도 펼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혜택을 못 보는 곳이 어디냐면 청산 주민들이죠.

자동화물비라든지 이게 혜택을 못 보죠?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지금 청산도만 자동화물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허궁희 의원

아니, 저기 한 거 그 노조에서 받은 거.....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그러니까요. 그 이제 자동화물비는 완도항에서만 발생을 하는데 아마 그 자동화물비는 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혹시 청산에서 청산 주민들이 배로 뭔가 물건을 보내려고 할 때 그 물건을 부치는 비용을.....

○허궁희 의원

아니, 불과 며칠 안 됐는데요, 그 내용을 지금 건의가 들어온 게. 그것도 우리들한테 들어온 게 아니라 국회의원님한테 직접 보고를 농협장이 해가지고 우리 박병수 의원님하고 제가 좀 난감함을 좀 당했어요.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지금 일단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허궁희 의원

예를 들어서 시멘트를 5톤 차에다 싣고 가면 그 톤당 얼마씩인가 해가지고 2만 얼마인가를.....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예. 맞습니다.

○허궁희 의원

더 낸다더라고요.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예. 맞습니다. 그 자동화물비는 이제 그게 아니고 그거는 운임비고요.

화물운임비고 자동화물비는 이렇게 차를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 자동으로 자동화물비가 발생을 합니다. 그거는 완도항에 노조가 있어서 완도항에서만 발생하지 다른 항에서는 발생하지 않은 비용이여서 그 비용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원.....

○허궁희 의원

100% 지원하고 있는가요?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하고 있는데 그 차를 싣는 자동화물비 말고 본인들이 방금 말씀하신 시멘트랄지 뭔가 물건을 실을 때 그 비용을 별도로 요구합니다.

○허궁희 의원

아니, 아니 차량으로 싣고 갔을 때.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예. 차량으로 싣고 가도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허궁희 의원

외지 차량도 그걸 지금 자동화물비를 다 지원하고 있다고요?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외지 차량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허궁희 의원

아니, 아니 이렇게 이렇게 물품이 들어가는데. 버스는 그때 얼마 저기가 가지고 왔더라고요. 물품 자동화불비 지급 내역을.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그러니까 그 자동화물비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그 차를 배에다 실을 때 본인이 운전해서 실어도 그거를 그 완도항 노조가 있어서 완도항에 대해서만 그 차 싣는 비용 결박하고 이런 비용을 그 비용이 자동화물비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은 빈 차로 가도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 그게 이제 저희한테 들어온 민원은 개인적으로 소포 하나를 보내도 그 3,000원, 2,000원을 받고.

○허궁희 의원

그 두 가지를 지금 건의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허궁희 의원

그런데 그것을 지금 청산 주민이 피해를 본다고 이렇게 건의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언제 저하고도 한 번 얘기를 나눈 적 있잖아요.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예. 맞습니다.

○허궁희 의원

그래서 왜 그것이 해결이 안 됐나 그라고 대답을 사실 못 했어요, 확인을 안 해서. 그런데 다시 이번에 그 건의가 들어오니까 왜 이것이 아직도 건의를 한지 확인차 지금 묻는 겁니다.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저희가 자동화물비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보조 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예 이제 그 상위법이나 관련 법을 검토를 했을 때 지금 말씀하신 그 개인 개인 화물 개인 뭐 이렇게 작은 물건들을 보내는 그거를 개인들한테 지원할 그것을 좀 저희가 찾고 있는데 지금 그 내용이 법에 적당한 것을 저희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상위법을 좀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허궁희 의원

저도 지금 농협하고 바로 한번 연결을 해서 그 건의 내용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가 그 확인을 안 하고 지금.....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건의 내용은 저도 이제 알고 있습니다.

○허궁희 의원

아, 그래요?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예. 정확히 알고 있는데 그거를 보조 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제 보조 사업은 의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법에 확실한 근거가 없으면 이제 문제가 돼서 저희가 그 관련 법을 찾으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법령상으로 그 개인이 보내는 화물비를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 것을 저희가 지원할 근거를 못 찾고 있어서 그 방법을 저희도 지금 찾고 있습니다. 하여튼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

○허궁희 의원

저도 그 부분을 좀 더 상세히 알아보고 우리 이제 과장님하고 다시 한 번 이렇게 얘기를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예. 알겠습니다.

○허궁희 의원

이상으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양훈

최정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욱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의 수산 관련 과가 2개죠? 수산경영과하고 수산 정책과 하고요.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예.

○최정욱 의원

이제 두 개의 성격의 우리 수산정책과는 어패류 쪽이고 수산경영과 양식으로 이렇게 봐야 돼 맞을까요? 우리 수산 정책과는 어패류 쪽에 관련을 주로 한가요?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저희 이제 저희 과 업무는 해양정책과로서 해양 환경 관련 해양 쓰레기나 바다 환경 관련 과학 그다음에 그 공유수면 또 공유수면 관리를 또 하고 있고 또 해양 문화 시설 관련 해양 정책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큰 틀에서 그런 내용하고 그다음에 직접적인 양식에 직접적으로 관여는 아니지만 기반시설 양식업을 하는데 많은 어업인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기반시설 관련 업무나 또 어업인들의 이제 복지 또 여객선 관리, 해상 운송 관련 해상 교통 관련 그런 업무를 주로 하고 있어서 제가 느끼기에는 해양 정치과하고 수산경영과의 차이는 수산경영과는 직접 양식업이나 양식업하신 분들의 또 생산 판로 유통까지 그 부분을 책임지고 있다면 저희는 기반적인 거 환경을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허궁희 의원

이제 여기에 보면 7페이지 8페이지에 보면 이제 바다 숲 조성 관련 수산 종로 방류나 이런 걸 하는데 이제 뭐가 이제 제가 조금 궁금해서 여기에 대한 어떤 그동안에 우리 실적이 있다면 또 우리 주민들 어민들한테 직접적인 어떤 그동안 해왔던 어떤 혜택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지금 해삼 씨뿌림 사업이나 청해삼, 꼬막, 조피볼락 이제 그때그때 주민들의 요구 사항에 따라서 바지락을 방류하기도 하고 다양한 어촌계 신청을 받아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어촌계에서 이거를 동시에 다 같이 수확을 해서 양을 측정을 해서 판로를 이렇게 판매를 하는 방식이면 계통으로 출하를 하면 그 실적이 정확하게 나오겠지만 대부분은 개인이 이제 해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촌계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측량할 수 없어서 개개인 어업인들이 한 분 한 분들이 이렇게 소규모로 이렇게 수확해서 또 먹기도 하고 판로를 하고 있어서 그거는 숫자로는 측정할 수 없지만 매년 이 사업 신청을 하면 경쟁이 붙을 정도로 많은 어종에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허궁희 의원

이제 그것도 한번 잘 참고해 보시고 이게 사업한 지 꽤 됐잖아요, 지금.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예. 그렇습니다.

○허궁희 의원

근데 항상 우리 의회에서도 한두 번씩 지적했던 건데 잘 한번 살펴보고 이제 군정 질문 때 좀 필요하면 하기로 하고요. 우리 그럼 해양정책과에서는 새로운 종묘 발견하거나 연구하거나 새로운 양식 기술의 어떤 그런 거는 아니네요. 수산경영과에서 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뭐 양식 기술이나 양식업하고 직접 관련이 있다기보다는 이제

전반적인 바다 동식물들 또 잘 살 수 있게 하는 환경 조성 뭐 이런 어업 기반 시설 이런 부분을 좀 어찌 보면 그 SOC, 해양수산 SOC라고, 소규모 SOC라고 해야 될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정욱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또 21페이지에 우리 대한민국 청정바다수도 완도 추진 이렇게 제목을 했는데 어떤가요? 우리 과장님 아까 설명해도 쓰레기는 아무 문제없이 처리를 잘하고 있는 것 같이 설명을 하시던데.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지금 바다 쓰레기는 아시다시피 치워도 치워도 끝이 없을 만큼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 어업인들이 어업 활동 중에 양식업을 하다가 그 발생된 그 폐어구들을 마을에다 모아놓고 쌓아놓고 저희들한테 지워달라고 하니까 그 숫자가 양식장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 폐하어구들도 따라서 동시에 늘어나고 있고 사실은 해양 쓰레기 수거 처리비도 제가 과거 10년치를 이렇게 보니까 한 10년 전에는 8억, 9억 했던 적도 있고 한 20억 정도 했던 적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해양 쓰레기 부분을 건의해서 올해는 33억 이상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우고 있지만 그렇게 자발적으로 내놓은 쓰레기 외에도 바다에 버리거나 또 탈락돼서 돌아다니거나 아니면 외국에서 들어온 쓰레기까지 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레기를 좀 체계적으로 치워보고자 육상 지파장도 마련을 해서 점진적으로 마련해서 분리 배출을 유도해 보기도 하고 또 해상 그 지파장도 계속해서 이제 선상 집하장도 추가로 하고 있고 다양한 방법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주민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눈에 띄게 확 이렇게 깨끗해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최정욱 의원

이제 우리 고생하시는 줄 압니다. 또 쓰레기는 또 그냥 인위적으로 된 것도 아니고 이게 바다 바람의 환경 이런 거에 맞춰서 쓰레기가 갑자기 발생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어려운 점은 잘 압니다.

이제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 청정바다 수도라고 이렇게 한다 하면 뭔가 다른 타 지자체에 비해서 남달라야 되지 않을까 이런 문구를 쓸 때는 좀 남달라야 되겠죠.

그 예산이 적어서 그런가요? 혹시 뭐 다른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요?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그 해양 쓰레기를 수거 처리하는 예산은 현실적으로 적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알기로 대한민국에서 우리 완도가 해양 쓰레기 처리 사업비가 거의 가장 많은 축에 1, 2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최근에는 지금 눈에 보이는 이제 주민들이 어업인들이 쌓아놓은 해양 쓰레기도 문제지만 바닷가 주요 관광지 주변에 이렇게 상습적으로 밀리는 해양 쓰레기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해양환경미화원을 통해서 저희가 86개의 취약 해안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집중적으로 하되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앞으로 이 인력을 국비 지원받아서 하고 있지만 군비를 추가로라도 확보해서 기간제를 늘려서 이 해양 쓰레기 처리에 좀 신경을 더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최정욱 의원

이제 업무보고니까 제가 찍어놓은 사진들도

있어요. 이렇게 섬에 다니다가 또 해변가 또는 떠다니는 거 쓰레기 쌓아놓는 거 이제 찍었는데 업무 보고 그런 거 올리지 않고 간단히 한 겁니다. 그게 고생하신 줄은 알지만 우리 대한민국 청정바다 수도처럼 또 주민들이 자꾸 민원을 제기하지 않게끔 민원이 제기한다는 자체는 그만큼 뭔가가 지금 많이 부족하다는 거를 쓰레기 수거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건 그렇잖아요. 그걸 안 하면 민원이 들어올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 잘 참고해서 대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예. 잘 알겠습니다.

○최정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양훈

지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 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게 보고서에는 없지만 전에 우리 추경 예산을 보면서 그때 우리 추경 예산 해조류 센터 리모델링 예산이 5천만 원 책정이 돼 있었어요.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예.

○지민 의원

그거 어떤 부분을 리모델링 하시는 건지 아니면 지금 추진단으로 옮겨졌나요?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예. 그 해조류센터 리모델링 예산은 해조류 추진단이 생겨서 저희가 전액 이체했습니다.

○지민 의원

그래요. 전체 그러면 인수인계가 다 되신 거죠?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예. 그렇습니다.

○지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양훈

해양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11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5분 회의계속)

○의장 김양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조류박람회추진단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조류박람회추진단장 김준혁

(참조)

·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의장 김양훈

해조류박람회추진단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 의원

단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전에 그 제가 해양정책과장님께 한번 여쭤봤어요. 그 해조류센터 리모델링비 이거 5천만 원 관련해서 이렇게 넘어왔다고 하는데 혹시 받으셨나요?

○해조류박람회추진단장 김준혁

예. 확인했습니다.

○지민 의원

그러면 이제 어떤 부분이 리모델링 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해조류박람회추진단장 김준혁

그 현장을 가서 봐보니까요. 그 옥상 부분도 좀 굉장히 낡아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인 난간 부분이라든지 데크 부분이라든지 3층, 4층 물샘이라든지 이런 게 전체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사업소하고 좀 해서 하고요. 나중에 이제 엊그저께 이제 군수님께서 또 말씀을 하셨거든요.

한번 전체적인 한번 전시관 2 3층을 활용 방안을 다시 한 번 마련해 봐라 그래서 검토 중에 있다는 걸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민 의원

아직은 그럼 검토 중이시네요.

○해조류박람회추진단장 김준혁

예. 그렇습니다.

○지민 의원

그 전에 이제 해조류센터 전시실을 꾸준하게 이렇게 지적을 하고 또 보완도 됐었어요. 이렇게 방송실 자료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아닌데요. 아닙니다. 해조류센터 보여주세요. 이게 이제 2020년도부터 자료인데 2020년도부터 25년도까지 이제 들어갔던 해조류 센터에 들어갔던 예산 사항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꾸준하게 20년도에도 5억, 21년도에도 이게 얼마야..... 5억에 1개소, 5천만 원에, 5천만 원이 들어갔고, 22년도에도 5천만 원, 23년도 3천만 원, 24년도에 2천만 원 또 이번에 이제 리모델링 5천만 원 이렇게 들어갔는데 들어갔었던 거 알고 계시죠?

○해조류박람회추진단장 김준혁

예.

○지민 의원

이제 나왔네요. 그래서 이제 매년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여기 해조류 센터를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지 또 이게 시설 관리 원래 기존에 또 시설 관리 사업소에서 담당을 또 하셨잖아요.

○해조류박람회추진단장 김준혁

그렇습니다. 지금도 시설 관리 사업소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지민 의원

담당을 하고 있죠. 근데 이번에 5천만 원은 지금 PRE 박람회를 위한 그것을 리모델링을 하기 위한 비용이고요. 근데 이제 거기를 이제 지금 검토는 하고 계시는데 우리 이제 주변에서 민원들은 우리 완도의 랜드마크인 여기 해조류 센터를 너무 저렇게 놔두는 게 아깝지 않냐 그래서 일반 주민들도 평소에 이런 행사가 아니고 박람회가 아니더라도 행사 때 이걸 이용을 하고 관람도 하고 거기를 이렇게 라운지 식으로 간단하게 이제 차도 마시고 또 이제 커피숍을 운영, 커피숍이나 이런 카페 등을 운영을 하면 좋겠지만 거기에 대한 부담이 좀 있으면 일반인들이 관광객들이 가서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라운지 형식으로 이렇게 쓸 수 있게끔 이제 거기서 도시락을 까먹고 그러면 안 되겠지만 이제 간단하게 차도 마시고 약간 쉬어갈 수 있고 전경도 구경을 하고 이제 그런 공간이 만들어지면 어떨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완전 좋은 공간인데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이 지금 검토 중에 계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또 이왕에 또 이렇게 돈을 계속 지금까지도 계속 투자가 돼 있는데 이왕에 또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면서 앞으로 또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게끔 또 예전 또 몇 년 전에도 무슨 저기 저기 레이저인가 그거 몇 억 들어가지고 했는데 그게 실패로 되고 아예 써보지도 못했던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각해서 잘 꾸며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조류박람회추진단장 김준혁

알겠습니다.

○지민 의원

그리고 이제 이왕이면 여기 해조류센터 관련해서 질문을 한 김에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장님 계시죠?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수호

예.

○지민 의원

그 관련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추경의 5개 경관 조명 연출로 3억 5천만 원 예산을 들여서 추진 계획이 있던데 어떻게 쓸 것인가요? 그냥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수호

추경에 3억 5,800 예산 세워진 것은 그 해조류센터 야간경관조명 관련해서 추경 예산을 확보한 내용입니다.

○지민 의원

조명 하신다고 어디에다 하실 거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수호

해조류센터 본관 건물과 옥상 계단 그쪽으로 신경을 쓴다고 이제 야간경관조명 추경 예산 확보입니다.

○지민 의원

혹시 그 야간 경관 이렇게 옥상에서 하는데 그 관광객들이 옥상까지 많이 올라가시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수호

예. 많이 올라가는 편입니다.

○지민 의원

그럼 사진만 찍을 수 있게 이렇게 포토존 설치를 하신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수호

아닙니다. 밤에 거기가 지금 랜드마크 조성해야 된다는 그런 주민 여론도 있고, 해서 작년 12월에 저희들이 거기다가 크리스마스 트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걸 보시고 여론이 좋아졌다 해가지고 이걸 그냥 놔두지 말고 사시사철 완도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랜드마크로 조성했으면 좋겠다 그런 여론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야간 경관 조명을 한번 계획 잡은 겁니다.

○지민 의원

그 자체만으로도 이렇게 색깔이 변하면서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수호

근데 그게 지금 지금 자체에 있는 것은 그게 너무 좀 오래돼 가지고 색깔의 그 시한성이 좀 굉장히 떨어집니다. 사진을 찍으면 좋게 나오는데 육안으로 봤을 때는 그게 조금 색이 바래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민 의원

그러면 이제 그때 크리스마스트리처럼 그 조명이 있는데 그 바깥쪽에다가 또 다른 조명 시설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수호

아니요. 이제 크리스마스트리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야간 경관 조명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아진 상태입니다.

○지민 의원

그래서 이제 관심도 많고 하는데 이제 어떤 게 더 실효성이 있는지 이렇게 잘 효과적으로 잘될 수 있는지 한 번 더 생각을 해 봐 주시고요. 사업소장님 이상입니다. 이렇게 매년 이렇게 반복되는 이렇게 리모델링에서 좀 벗어나서 이렇게 좀 잘 생각을 해 보시고 사업관리소장님이랑 또 이제 우리 추진단 단장님이랑 이 공간을 진짜 랜드마크인 이 공간을 잘 활용될 수 있게 좀 추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조류박람회추진단장 김준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민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양훈

조영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 의원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제 먼저 보고서에서는 없습니다마는 이번 해조류박람회추진단 업무 보고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장님 7월 1일자로 추진단이 신설되었는데요. 의회에서도 이번 조직 개편에서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했다는 거 알고 있죠?

○해조류박람회추진단장 김준혁

잘 알고 있습니다.

○조영식 의원

그래서 동료 의원님들도 모두 박람회 관련해서 걱정과 기대감이 매우 큽니다. 그런데 보고서를 보면 예전에 해놓았던 해양 정책과 보고서를 그대로 옮겨가지고 분량이 아주 단출하니 그렇습니다.

○해조류박람회추진단장 김준혁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신설 조직이고 이제 지금 그림을 그려나가는 상황이라 이렇게 했다는 점을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영식 의원

아무리 신설되었다고 하나 또 시간이 없고 하겠지만 보고서를 보면 너무 또 성의 없다 생각되어지기도 합니다.

○해조류박람회추진단장 김준혁

인정하겠습니다.

○조영식 의원

일단 보고서 2페이지에 딱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난 초 해양정책과 보고서에서 에 사업비가 24억으로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27억 돼 있는데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3억 증가한 이유가 지금 수출 상담회를 당초 이틀에서 3일로 지금 연장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한 1억 5천이 좀 늘어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센터 2층 전시실 그 부분 이제 지금 저 전시실이 내년 박람회를 하려면은 다른 콘텐츠를 가지고 다시 제작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1억 5천 내에서 3억 이렇게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식 의원

어차피 최초 업무보고 때 하고 추진 실적 보고 때 금액이 증액되면 그래도 그 증액된 금액이 발견되는 순간 의회 이런 이런 사유로 이렇게 이런 것도 중요하겠죠?

○해조류박람회추진단장 김준혁

예. 알겠습니다.

○조영식 의원

향후 다시 이제 보고서를 잘 준비해서 의원간담회에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쉬운 것은 추진단이 신설돼서 팀이 4개 팀이거든요.

이거 보니까 보고서가 다들 두 장이면 팀장님 이름 박람회기획팀장 황인욱 한 분만 이렇게 있는 것도 아쉬운 부분이에요. 네 분이라고 소개를 시켜놓고 나머지 분들은 팀장은 세 분은 일을 안 한 것도 아니고 하니까 이런 거 좀 참고해서 시간적으로 처음 시작하는 추진단이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래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조류박람회추진단장 김준혁

알겠습니다.

○조영식 의원

그리고 국제해조류 PRE 박람회는 아무래도 이게 지금 국제행사는 아니죠?

○해조류박람회추진단장 김준혁

국제행사는 아니어도 국제 수출상담회라든

지 외국 바이어, 외국 기업들 바이어 초청해서 하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추가로 이제 장한상 수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같이 하는 부분이니까요.

○조영식 의원

그러니까 2028년 국제해조류박람회를 하기 위한 사전 PRE의 성격이죠?

○해조류박람회추진단장 김준혁

그렇습니다.

○조영식 의원

국제적인 행사인 만큼 전라남도에서 타 시군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2028년 완도 국제해조류박람회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조류박람회추진단장 김준혁

알겠습니다.

○조영식 의원

이상 보충 설명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양훈

해조류박람회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경영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참조)

·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의장 김양훈

수산경영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규 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 우리 어구보증금제 지원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 아는 대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사업이죠?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아니요. 지금 작년부터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해양 쓰레기 지금 절반 이상이 지금 그 폐어구로 지금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통발에 대해서 2024년도부터 이제 제작해 가지고 판매한 어구에 대해서 지금 보증금제를 포함을 해서 어업인들이 그 반납을 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박성규 의원

예산이 9,000만 원 세워졌어요.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그렇습니다.

○박성규 의원

그러면 다 소비됩니까? 지금.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어떤 기본적인 저기가 돼야 되는데 아직 그런 시스템이 아직 준비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사업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성규 의원

예산은 세워졌지만 지금 추진 실적이 전혀 없죠?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그렇습니다.

○박성규 의원

내년부터는 또 우리 전복어가 부동도 다 포함이 되죠.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내년부터는 지금 자망하고 지금 이제 부표까지 회수 대상이 포함이 됩니다.

○박성규 의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이제 부동까지 포함이

되면 예산이 많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통발은 사실은 수거가 잘 안 되겠죠. 바다에 빠져버리고 가져오지 않고 돈을 준다 해도 안 가져오죠.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그렇습니다.

○박성규 의원

이제 통발은 뭐 하나 가져오면 얼마씩 줍니까?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통발 같은 경우는 이제 스프링 통발은 천원이고요. 지금 이제 원통 통발 같은 경우는 지금 2천 원이 보증금으로 돼 있습니다.

○박성규 의원

돈이 너무 적으니까 안 가져온 겁니까?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이제 지금 현재까지는 이제 작년부터 지금이 시행된 사업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지금 그런 부분이 조금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전에 폐통발 반납 사업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통발 개당 한 1만 원 정도 했었는데 50% 지원하고 50%는 자부담으로 해갖고 그렇게 했을 경우는 추진이 좀 됐었는데 이것은 조금 보증금이 좀 적은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박성규 의원

그래서 통발 업체하고 상의를 해서 너무 적으면 좀 상향을 해서 통발에 이렇게 가져올 수 있도록 수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내년도에도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서 어민들 부동 많이 지금 반납하잖아요.

지금 내년부터는 시행을 하니까 부동도 부표도 그래서 그 바다에 버려지지 않도록 어민들 홍보도 좀 많이 해 주시고요. 예산도 좀 많이 확충해 주시고 또 신청하는 데 홍보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알겠습니다.

○박성규 의원

우리 또 과장님 우리 전복 사람이 굉장히 어렵죠.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그렇습니다.

○박성규 의원

과잉 생산에, 가격 하락에 또 소비부진, 경기침체로 인해서 전복 산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복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 감축 사업을 하고 계시죠?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그렇습니다.

○박성규 의원

근데 우리 지금 22페이지 보면은 우리 가톨릭 철거 해체비가 1억 5,000만 원이 돼 있어요. 그리고 폐기물 처리 비용이 8억 5천만 원이 돼 있고요. 그리고 10억인데 5억은 제일 하단에 보면은 5억으로 보고 하셨는데 5억이 뭐예요?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지금 이때 지금 당초 사업 계획은 총 저희들이 가두리 감축 사업을 10억 원으로 지금 편성을 했었습니다. 10억 원으로 편성을 했었는데 이제 원래 5억은 가두리 감축에 따른 보상비 그다음에 1억 5천은 가두리 철거 및 해체비, 3억 5천은 폐기물 처리부로 당초에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지금 이제 도에서 이게 추경 예산에 반영이 됐거든요. 반영이 됐었는데 지금 도에서는 지금 감축 사업에 따른 포상비는 이제 그 사업 기준에 안 맞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을 뺐습니다. 빼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군비로 지금 감축 사업 보상비는 편성을 다시 했고요.

추경에 그렇게 했고 지금 도비 매칭으로 해

가지고 지금 10억 원 중에서 이제 8억 5천은 지금 폐기물 처리비 그다음에 1억 5천은 지금 해체 처리비 그렇게 추경 예산에 지금 변경은 좀 됐습니다.

○박성규 의원

정확히 도비는 얼마고 군비는 얼마예요?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도비가 30%고 군비가 70%입니다.

○박성규 의원

그러면 해체 폐기물 처리 인건비는 얼마나 됩니까?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폐기물 처리 인건비는 저희들이 이제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반기 건설업 임금 실태 조사에 따른 보통 인부를 지금 준용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16만 원 했습니다.

○박성규 의원

폐기물 처리 인건비하고 우리 개인 일당을 또 주잖아요.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아니, 아니요.

○박성규 의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폐기물 처리 인건비가게 하루 일당 정확히 얼마입니까?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그러니까 일당이 지금 16만 원입니다.

○박성규 의원

16만 원.....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그렇죠.

○박성규 의원

처음에는 얼마나 했어요?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처음에는 이제 의견이 조금 있었습니다. 근데 한 10만 원 정도 선에서 이렇게 하든가 하려고 했는데 또 그런 부분은 또 현실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통 인부를 준용해가지고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규 의원

사실은 그 폐기 처리하는 데 굉장히 중노동이에요, 여름에 뜨겁고.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해체 처리하는 부분입니다.

○박성규 의원

해체 처리를 하는데 인건비가.....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그렇습니다.

○박성규 의원

그러면 대부분 바다에서 우리 15만 원, 16만 원 받고 그렇기 하기는 하는데 우리 폐기물 처리하는데 가두리 자르고 막 보도도 풀어야 되고 부동도 해체해야 되고 하는데 인건비가 너무 이거 기준이 있어요? 인건비가 너무 적지 않아요?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근데 또 기준 이제 저희들이 그 기준을 맞추다 보니까 지금 16만 원으로 한 건데 지금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일용인부라든가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또 금액이 너무 작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이나 이런 부분을 했을 경우에는.

○박성규 의원

그래서 인건비가 너무 적기 때문에 우리 다시마 하는데도 외국인도 20만 원씩 받아요. 그런데 옆에 이렇게 하는데 해체하는데 냄새도 독하고 굉장히 어렵거든요.

전기톱도 이용해야 되고 여러 가지 처리하는 데 힘이 드는데 너무 우리 하루 일당이 인건비가 적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야 되죠, 이 사업은 앞으로도.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그렇습니다.

○박성규 의원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이라도 또 할 때는 또 인건비를 좀 올려서 우리 어민들이 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금 경제가 어렵고 어민들이 굉장히 빚 때문에 이자도 못 끼고 어려운 거 알고 계시죠?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박성규 의원

그래서 그것이라도 해서 돈을 벌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돈을 조금 인건비를 좀 많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다 보면 마을 가서 그 선착장에서 해체 작업을 하는데 악취가 많이 나온다고 이렇게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그렇습니다.

○박성규 의원

왜 그러냐면 다시마 미역, 굴 껍질을 전부 다 이렇게 해체하다 보니까 날씨는 더웠고 하다 보니까 바로 이렇게 악취가 생겨요. 그래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 볼라벤 때는 해체하고 철거할 때 계속 소독을 했지 않습니까?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박성규 의원

그런데 뭐 소독한 적이 있습니까? 소독을 하고 갑니까? 안 하고 합니까?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아니, 이제 저희들은 지금 이제 해체 처리를 할 때 이제 그 부표가 붙어 있는 이제 해조류라든가 그런 따개비들은 따로 또 분리를 하고 부표 따로 분리하고 이제 파이프 가두리 따로 분리를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해가지고 하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처리 물량은 지금 저희들이 조금 긴급하게 해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제 어느 정도 물량이 차야지만이 또 이렇게 폐기물 처리 업체가 이렇게 수거를 해가야 되는데 그 시간까지 조금 기간이 있어가지고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박성규 의원

그러니까 부동도 빨리 처리하고, 부동 피복도 빨리 좀 처리해 주시고 그 해체한 파이프 그런 것도 빨리 처리해서 이렇게 냄새가 나지 않도록,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리고 소독을 한 번도 안 했는데 소독 좀 자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해체할 때 우리 의회에서도 한 번 갈 수 있도록 의원님도 한번 해체하는 거 보고,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규 의원

사업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알겠습니다.

○박성규 의원

시간이 없..... 이상입니다.

○의장 김양훈

최정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욱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히만 할게요. 우리 군은 해양을 끼고 있는 우리 도시죠.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그렇습니다.

○최정욱 의원

아마 이제 과장님이도 여러 번 들어봤을 건데 작년 군정 질문 때도 했을 것이고, 급랭에 관련해서 아마 의원들이 했던 것도 있고, 근데 그 전 직원 우리 과장님조차 그때 당시에 예산이 10억이 대형 냉동이 와서 이거에 지금 필요하느냐 급한 게 급냉실 아니겠냐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업무 보고에 보면 다시 이게 추진된 걸로 돼 있는데 지금 일반 냉동 지금 계속 임대를 해서 없던 사람들이 와서 그 돈을 받고 냉동 임대를 해 준 업체들이 지금 문 닫고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아마 농공단지 입구에도 그렇고 농공단지 내에도 지금 하는 업체도 지금 곧 이제 물건들이 안 들어와서 문을 닫겠다. 그거는 뭐냐 하면은 이제 물건을 넣을 만한 수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건 자가가 그만큼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급랭이 냉동이 크게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예전에는 막 저 우계까지 광주까지 올라가고 부산까지 물건 넣을 데가 없어서 갔을 때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냉동 사업을 꾸준히 늘려왔었는데 물론 이것도 필요하다면 해야겠죠. 근데 지금의 급랭이 하나 없어서 선단 유치하는 데 어렵고 못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우리 어차피 수산경영과에서 이 사업을 하니까 필요하지 않을까요?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그런데 이제 의원님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은 지금 민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민간이 신청을 하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신지 같은 경우 아니 송곡 고금도 상정인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이 신청을 해 가지고 이제 그렇게 조금 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아마 경제교통과에서 전체적인 큰 틀을 잡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이제 한다고 하면은 군비를 세워 가지고 하든가 그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테두리 내에서 추진을 합니다.

○최정욱 의원

경제교통과하고 잘 협의하시고 지원할 법 왜 있냐 우리 수협을 통해서도 지원할 수 있고 하잖아요.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그렇습니다.

○최정욱 의원

사업을 그쪽으로 유도를 해서 하게 하면 되죠.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뭐 일반적인 말라 경제교통과와 지원하는 우리 과니까 통해서 그 지원이 제일 사업 받기가 제일 좋은 게 수산경영과라서 그런 거예요. 잘해서 이거 꼭 다음에 군정 질문 때 어떤 뭐가 안 나오게 미리 해서 저한테 어떤 대책을 경제교통과하고 해가지고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알겠습니다.

○최정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양훈

수산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30분 회의계속)

○의장 김양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휴양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참조)
·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의장 김양훈

산림휴양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두 가지만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4페이지 약산 해양치유의 숲 운영 관련해서요. 어제 그 해양치유 담당관에게도 질의를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해수치유실이 지금 지금도 시범 운영을 한다고 나와 있어요. 미흡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지금 현재 이제 최종적으로 저희들 그 상수도 그 용량이 좀 부족해서요. 이제 물탱크를 설치를 했는데 아마 8월달부터는 해양치유 온열치유실은 가동을 할 계획입니다.

○박병수 의원

그럼 7월이면 다 마무리가 된가요?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지금 현재 거의 대부분 이 장비가 됐고요. 이제 대신 크나이프 시설은 현재 가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병수 의원

그러니까 지금 시기적으로 상당히 그 기간이 오래됐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점검을 해서 정상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참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지 않았습니까?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예, 예. 그렇습니다.

○박병수 의원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페이지 국립완도난대수목원 조기 조성 관련해서요. 지금 현재 추진 사항이 어디까지 지금 가고 있습니까?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지금 현재 기본 설계 용역은 사실상 다 마무리됐는데요. 이제 조달청에서 설계 적정성 검토 심의를 해야 됩니다. 그게 완료되면 이제 정식으로 준공 처리할 계획입니다.

○박성규 의원

그럼 착공은 내년도에 가능한가요?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지금 현재 대형 공사 입찰 방식은 이제 국토부와 협의를 해야 되는데요.

이 세미 턴키 방식으로 해가지고 실시 설계하고 착공을 시공을 동시에 하는 그 방법을 선택했을 경우에는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병수 의원

그러면 내년 몇 월 중에나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까?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지금 산림청하고 저희들이 조율하는 부분은 내년 3월 정도를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의원

상당히 관심을 갖고 면민들이나 국민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기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동안에 이제 간담회나 보고회를 몇 차례 했어요.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예. 그렇습니다.

○박병수 의원

거기에서 의원들이 제안했던 내용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돼서 좀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

시고요.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예. 알겠습니다.

○박병수 의원

그리고 지금 현재 저수지가 농업용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여름철에 비가 안 오고 그러면 거기에 이제 물이 빠지면 상당히 이제 보기 경관이 훼손이 되거든요.

거기 보면 혹시 대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가요?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지금 현재 이제 그 부분은 건설과에서 계곡물 펌핑 작업을 한 걸로 알고21 있고요.

이제 그것 또 이제 부족하다 보면 옆에 용계 상수원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환경수질과하고 좀 협의를 통해서 농업용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런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수 의원

그런 부분을 좀 대비를 해서 그 경관에 좀 문제가 없도록 좀 관리를 해 주시고 지금 상수도 연결이 상수도 물을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건 수자원공사하고 해야 되는가요? 수자원공사 그것이 그 협의를 해서 그것을 농업용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부분도 한번.....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지금 현재는 그게 상수도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폐지는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일부를 이렇게 농업용수로 활용할 수 있게끔 그 부분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수 의원

그러니까 이제 그 저수지 밑에 계곡물이 부족했을 때는 이 물도 좀 펌핑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구상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양훈

지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지만 지금 현재 빙그레 공원 공사를 하고 있어요.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예. 그렇습니다.

○지민 의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민 의원

이게 사업비가 9억 원으로 알고 있어요. 전액 국비 사업인가요?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예. 그렇습니다.

○지민 의원

이게 사업 추진을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신가요?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지금 현재 빙그레공원 앞에 인도변인데요. 그 구간이 한 80m 구간이 돼요. 되는데 지금 현재 데크를 철거를 하고 벤치형 안전벽 형태로 설치를 하고요. 또 한 20m 구간에는 저희들이 미디어 아트 파도 영상을 이렇게 송출하게끔 할 계획이고요.

또 주변에 히말라야시다 큰 나무가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반딧불이 조명 형태로 이렇게 보완할 계획입니다.

○지민 의원

그럼 그 미디어 아트는 어떻게 만들어요?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미디어 아트는 지금 현재 20미터 구간인데요. 어 거기 인도변에 이렇게 파도 물결이 나올 수 있게끔 그런 형태로.

○지민 의원

인도변에?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예. 그렇습니다.

○지민 의원

일단 자료화면 하나 올려주세요. 지금 저기 비가 올 때, 비가 좀 왔을 때 찍었던 장면인데 저기 지금 벽면에 지금 파이프가 다 있어요.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예. 그렇습니다.

○지민 의원

근데 지금 저 위에서 물이 폭포처럼 쏟아지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번에 공사하고 있는 장면을 보니까 저기 바로 부분에 우리 미디어 아트 화면 송출로 해서 화면 나가는 그런 기계 같더라고요. 근데 바로 지금 저기 물이 쏟아지는 그 부분이죠?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예, 예. 옆입니다.

○지민 의원

그러면 이제 지금 저 물이 쏟아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인도라든지 지금 설치되고 있는 부분에 지장은 없을까요?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일단 지금 저 부분은 지난해 집중 호우 왔을 때 아마 영상을 촬영한 것 같은데요.

저 부분은 이제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시공사로 하여금 배수로라든지 집수장 그 부분을 설치해서 우수 관로를 연결하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상태입니다.

○지민 의원

우수 관로를 연결을 하는데 이제 저렇게 또 우리가 항상 비가 저렇게 많이 안 오리라고는 할 수는 없잖아요. 많이 오면 저게 이제 도로까지 넘치고 아까 지나가는 차들도 이렇게 완전히 물보라 많이 쳐지는 거 봤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 영상이 송출이 되고 또 겨울에는 또 저 부분이 또 얼 수도 있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일단 저희들이 그 하단부에요. 집수장을 만들어서 배수로를 만들고 배수로에서 우수 관로로 바로 연결되게끔 그렇게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민 의원

그 밑에 그 우수 관로에서 저 물량을 다 처리가 되나요?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지금 현재 우수 관로 200ml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좀 부족하지 않나 차후에 우수 관로도 좀 증설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민 의원

차후에요?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예.

○지민 의원

아니, 이제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니까 이제 나중에 또 이제 그러한 저렇게 이제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저런 것도 이제 약간 부족하다 싶으면 같이 또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지금 현재 이제 우수 관로 그 부분은 저희들은 환경수질관리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증설하는 방법을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민 의원

할 때 한꺼번에 또 파고, 또 파고 또 할 수는 없잖아요. 또 그랬고 근데 지금 미디어 마트를 만드는 이유와 또 지금 현재 가로등도 있고 그 건너편에 상가들이 쭉 있어요. 그러

한 불빛들이 좀 밝게 비춰지니까 별 효과를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일단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시가지 주요 도로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있는데 빙그레 공원도 잘 조성이 돼 있지만 이렇게 경관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고 특히 우리 완도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렇게 야간 경관 그쪽으로 좀 가야 되지 않겠냐 그러한 의미에서 시범적으로 이렇게 미디어 사업을 해볼 계획입니다.

○지민 의원

그리고 이제 또 아까 그 기둥 그거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거기 가까이 이제 옆에서 건너편에서 봤을 때는 인도 부분을 좀 많이 차지하지 않을까 또 거기가 또 장터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장바구니를 끌고 다니거나 우리 또 장애인분들께서 이렇게 많이 지나다니시는 길인데 걷는 공간과 이렇게 약간의 좀 장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거든요.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지금 현재 거기 인도변이 한 3M가 넘습니다. 폭이 넘는데 지금 현재는 가림막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게 좀 협소하게 보이는데요.

나중에 완공이 되면 굉장히 넓은 인도변입니다. 문제는 없을 거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민 의원

그리고 거기 데크는 지금 철거를 하다가 말았어요.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데크는 다 철거를 했습니다.

○지민 의원

다 철거했어요?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예. 철거를 했는데 지금 공사가 중단되는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우수 관로 배수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고민 중에 있는 것 있습니다.

○지민 의원

이게 이제 국비로 또 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 저희한테 전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이 조금 없었어요. 그래서 완도 중심지에 또 이런 사업을 또 진행을 하니까 또 저희 의원님들한테나 아니면 지역 주민들한테나 이러한 사업 설명에 대해서 약간의 이런 말씀을 좀 들어보시기도 하고 또 설명도 있었으면 하는 좀 약간의 아쉬움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일단 지금 현재 지금 공사 중에 있고 공사를 하고 있으니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잘 생각을 해 봐 주시고 안전사고도 또 없이 추진해 주시기를 또 바랍니다.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예. 잘 알겠습니다.

○지민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이제 말씀을 또 드리자면 거기 그 옆에 우리 인공 폭포 있는 곳에 동물 인형들 있잖아요. 그게 지금 판다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역 분들께서 또 하시는 말씀이 우리 이제 완도니까 완도 바닷가 동물들이라든지 아니면 완도를 상징하는 또 상괭이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좀 바꿔주면 어떨까라는 또 말씀들이 또 있으셨어요.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이번 사업을 통해서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민 의원

한번 검토 한번 해 봐 주시고 어떤 게 또 예쁘고 또 괜찮은지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

기 바랍니다.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예. 알겠습니다.

○지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양훈

조영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 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다도해일출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서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2018년부터 시작해서 거의 8년이 되어가고 있는데 올해가 마지막 해죠?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예. 그렇습니다.

○조영식 의원

확실하게 오늘 올해 준공되죠?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예. 그렇습니다.

○조영식 의원

지지부진하게 추진되다가 지난해 말부터 좀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는 듯합니다.

그런데 거의 3년 가까이 산책로를 막고 있어서 민원이 많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산책로 통제는 3년간은 아니고요. 이제 저희들이 불가피 지난해 10월부터 현재까지 지금 통제를 하고 있는데요.

약 9개월 정도 통제를 하고 있고 또 이거 이용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우회 산책로를 이렇게 제공해서 큰 민원은 없습니다마는 간간히 한 번씩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조영식 의원

제가 그때 그 산책로 안내 표지판 그거 좀 잘 좀 해서 하라고 민원이 들어와서 그때 바로 시행해 줘 가지고 그 뒤로 민원은 별로 없었나요?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예. 그렇습니다.

○조영식 의원

아마 그것 때문에 민원이 좀 있었을 것으로 사용됩니다. 주차장부터 완도타워까지 데크 공사를 지금 하고 있죠? 이 공사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떤 공사인가요?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지금 타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주차장에서 한 200m 구간을 도보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예외적으로 저희들이 장애인과 노약자, 또 관리용 차량 출입을 허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도로 노폭이 협소하고 또 갓길이 없다 보니까 보행자 안전에 위험이 따른다 그러한 민원이 있다 보니까 우회 탐방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조영식 의원

그러면 기존 차량하는 데 통행하는 데 무리 없이 그냥 그 차도는 그대로 씁니까?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예. 현재 그 도로는 그대로 쓰고요. 옆에다가 별도로 보행 데크를 이렇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조영식 의원

데크로 설치하고 있는데 데크 시설을 지양하라고 하는데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까?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데크 지양은 지난해 우리 조인호 의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현장이 급경사지 사면이고요. 또 저희들도 콘크리트라든지 블록 그런 공법을 콘크리트인데 사업비가 더 과다 소요되고요.

또 그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하단부에 이렇게 구조물 설치가 필요한데 그럴 경우

에는 또 사유지 매입도 필요한 부분이라서 불가피하게 지금 데크 공정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조영식 의원

그럼 방금 데크 공사가 다도해일출공원 확대 조성 사업에 관련된 겁니까? 아니면 다른 개별 사업입니까? 이 사업이.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확대 조성 사업에 포함된 사업입니다.

○조영식 의원

포함된 사업입니까?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예.

○조영식 의원

혹시 또 필요하다 불필요한 시공이다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관광객들에게 유용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식 의원

이상 보충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양훈

산림휴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수질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참조)

·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의장 김양훈

환경수질관리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욱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요. 위에 야생 동물 해가지고 멧돼지, 고라니 오리류 이 동물만 계획을 하고 있는가요?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그렇습니다.

○최정욱 의원

그럼 사슴 같은 거는 어떤가요?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저희들이 사슴은 지금 아직 지정은 안 돼 있고요. 특히 꽃사슴은 지금 지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엘크나 이런 다른 종은 아직 야외 유해 자신 동물로 지정이 어렵습니다.

○최정욱 의원

그걸 안 되는 이유가 또 노력은 해보셨는가요?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저희들이 안 그래도 지금 환경부하고 지금 소안 당사도 관련해서 그 얘기를 굉장히 얘기를 했는데 엘크종 같은 경우는 이게 그 꽃사슴 같이 이렇게 소득 사업이다 보니까 그것을 할 수는 없다 그렇게 지금 현재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최정욱 의원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8대 때 아마 이거 중점 군정 질문을 통해서 했던 적이 있거든요, 의원들이.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제가 당사도를 가게 돼 있었어요. 이제 그전에도 주민들이 자꾸 그 사진을 찍어서 보낸 것도 있고, 며칠 전에 당사도로 들어가면서 이제 생소하게 내가 보고 느낀 거 있는데 우리 사진 자료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봐 보십시오. 이제 저렇게 지옥으로 내려오니까 저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그때 당시에 보냈고 또

다른 사진 있죠. 이 나무를 한번 봐보시면 이제 저도 가서 깜짝 놀랐는데 이 나무가 얼마 안 가면 이 산 전체가 황폐화되겠더라고 왜냐하면 개체 수가 늘어나니까 다들 먹을 거 없으니까 그 나무 껍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분을 못 받으니까 나무들이 쓰러진 거예요, 지금 전부 다가. 그래서 지금 저게 오늘 어제가 아니라 지금 아마 거의 한 3년 전부터 급속도로 지금 저런대요.

그럼 개체 수가 그만큼 급속도로 늘어났다는 얘기고 또 사진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런 걸 보면 거의 땅이 나무나지를 않아요. 그 뭐냐면 뿔이 기어나기도 전에 저렇게 뜯어버리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봐서는 참 심각한 건데 우리 환경산림과 휴양 산림과도 저거를 좀 봐놔야 될 건데 어쩝니까? 저게 저대로 놔뒀다가는 안 되거든요. 이제 그걸 현장에 가서 직접 보니까 민원 받을 때하고 제가 또 다르더라고요, 심각성이. 어떤 대책이 그렇지 않아도 2023년도에 줄이겠다고 어떤 얘기를 했던 걸로 아는데 무슨 대책을 그 뒤로는 어떤 대책을 세웠어요?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저희들이 지금 국립공원하고 같이 당사도가 국립공원인 지역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같이 계속 몇 번 같이 실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황폐한 모습도 봤고요. 그래서 환경부에다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꽃사슴뿐만 아니라 이게 우리 자연을 훼손하고 망치는 그런 야생동물의 유해 양성을 좀 지정해 달라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정욱 의원

근데 이게 얼마 안 가면 이 나무가 전체가 문제가 되겠던데.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좀 저희들도 가보니까 좀 심각할 정도였습니다.

○최정욱 의원

그러니까 이제 이게 급속히 더 번지겠더라고 왜냐하면 개체 수 늘어나지 먹을 건 없지 결국은 그런 식으로 저 나무를 갉아먹으면 결국 황폐화 된 뒤로 하면 뭐 하겠어요?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유해 동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까?

○최정욱 의원

이거 해서 올해 좀 어떤 절충을 강하게 해 가지고 그런 것 같고 싶어서 우리 또 책임 한계도 저희들한테 져야지 저런 문제에 대한 강력하게 해갖고 올 연말 안에 결정을 어떤 답을 한번 저에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양훈

지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중화장실이 완도 87개소로 되어 있다고 돼 있어요. 이 중에 여성 안심벨이 설치된 화장실이 몇 개소 정도 되나요?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대부분 설치를 하려고 그러는데 좀 많이 빠진 곳이 있을 겁니다.

○지민 의원

아, 거의 안 됐죠?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몇 군데는 설치돼 있습니다.

○지민 의원

몇 군데만?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예.

○지민 의원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기준에 보면 시장 군수는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중화장실 등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완도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이 안전관리시설의 설치에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거 설치가 안 된 이유가 무엇이에요?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설치를 안 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 계속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 반영을 해서 지금 설치하려고 불법 카메라 단속하고 이런 안심벨도 지금 설치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민 의원

요즘에 이제 그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범죄들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잖아요.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그렇습니다.

○지민 의원

그렇죠. 우리 또 특히 완도는 이제 관광객도 많이 오고 또 지금 현재 여름철이라 피서객들도 많이 오는 만큼 또 우리 여성 안전과 여성용 공중화장실에 안심벨 설치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설명 듣다 보니까 이렇게 불법 카메라 단속도 하시더라고요.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예. 그렇습니다.

○지민 의원

이게 완도 우리 공중화장실 보면 단속하시다 보면 그런 자국들이 좀 많이 있는가요?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아직까지는 발생은 않고 있습니다마는 혹시나 모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좀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민 의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있다라고는 하는데 우리 여성분들이 그 불법 카메라 화장실 안에 보면 이렇게 남자 화장실에는 없는데 이제 듣기로는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남자 화장실에는 없는데 여자 화장실에는 꼭 이렇게 까만색 점들이라든지 조그만 구멍들이 좀 보인대요.

눈에 안 보이게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제 단속을 하시게 된다면 그런 점들이 있는 곳에 메꿈이라든지 안 보이게 어떠한 우리 그 나무 스티커라든지 이런 걸 좀 붙여 놓으시면 여성들이 사용을 할 때 조금 안심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예.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지민 의원

확인 한번 봐주시고 또 이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비상벨은 꼭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예. 알겠습니다.

○지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양훈

환경수질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2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30분 회의계속)

○의장 김양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진원

(참조)

·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의장 김양훈

건설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호 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대형 SOC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주-완도간 고속도로가 공정률이 81%인데 내년 연말이라는 거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가요?

○건설과장 김진원

현재 계획상으로 26년 말 준공 예정입니다. 도로공사하고 협의해서 내년에 꼭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인호 의원

2단계 구간은 지금 현재 어느 단계까지 추진되고 있는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진원

2단계는 23년 8월달에 아니 작년 8월달에 예타 통과돼서 지금 5월에 지금 타당성 조사를 올해 발주해 가지고 내년 5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타당성 조사하고 지금 전략 환경영향평가 지금 최근에 발주했다는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조인호 의원

우리 군민들의 염원이니까 더욱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진원

알겠습니다.

○조인호 의원

지난 5월 27일 날 약산~금일 해안관광도로 실사단 행사 때 우리 과장님이나 군수님 우리 팀장 또 금일 읍사무소 직원들 정말 이 자리 빌어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해안관광도로 예타조사 하실 때 우리 과장님이 브리핑 하셨죠?

○건설과장 김진원

예. 그렇습니다.

○조인호 의원

그때 금일 주민들의 그 염원이나 그런 걸 좀 느꼈어 어땠습니까?

○건설과장 김진원

그때 그 평가위원들도 현장에서 그분들이 많은 전국 현장을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은 주민들이 참여한 것은 처음이라 하고 깜짝 놀라면서 지역민들의 추진 의지를 좀 확인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조인호 의원

방송 화면 하나 띄워주세요. 이 사진이 그 당일날 우리 실사 왔을 때 그 현장 사진입니다. 그날 국회의원님들도 선거에도 바쁜 중에서도 관심이 많아서 그걸 참석을 해서 그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그 결과는 언제쯤 나올 겁니까?

○건설과장 김진원

일단 결과는 내년 6월 정도에 기재부에서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하거든요.

그때 결과가 나오고 한 7월이나 8월 정도에 고시가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인호 의원

그럼 고시가 되면 다음 행정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진원

일단 예타가 통과되면 이제 국도건설계획에 이제 반영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바로 그 타당성 조사하고 그 이후에 전략환경영향평가 그다음에 기본 및 실시설계 이런 행정 절차를 이행하게 됩니다.

○조인호 의원

우리 완도~고흥간 해안관광도로는 단순히 그 도로를 개설한 차원을 넘어서 우리 섬 주민들의 애환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김진원

예. 맞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인호 의원

또 균형 발전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사업이 꼭 실행될 수 있도록 또 조금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진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인호 의원

마지막으로 그 서울-완도 경유 제주 고속철도 건설에 대해서 철도 건설에 대해서 간략히 질문드리겠습니다. 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 지금 하고 있죠?

○건설과장 김진원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인호 의원

노력하고 있죠?

○건설과장 김진원

예.

○조인호 의원

그럼 만약에 오늘 12월 5차 철도망 구축 계획이 확정될 때 만약에 포함이 안 된다면 6차까지 가야 됩니까?

○건설과장 김진원

예. 그렇습니다. 일단 국가 계획에 반영이 돼야 됩니다.

○조인호 의원

6차까지 안 가게끔 우리 과장님 또 고생하고 계십니다만 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인호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양훈

지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 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게 보고서에는 없는 내용인데 어느 부서에 여쭤볼까 하고 고민하다가 과장님께 간단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요즘에 이제 전국적으로 좀 이슈가 되고 있어요. 이렇게 싱크홀 관련해서 이렇게 사고가 좀 많이 나고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진원

예.

○지민 의원

또 이제 우리 싱크홀 대비해서도 업무 분장이 좀 필요하다고 또 생각을 하는데 우리 완도도 또 안심을 할 수는 없잖아요.

○건설과장 김진원

예.

○지민 의원

그래서 과장님 의견은 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김진원

지금 싱크홀 업무는 안전총괄과에서 총괄하고 있고 지금 그 세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법정 도로는 건설과 도시계획도로는 지역개발과 그다음에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경제교통과 이렇게 소관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민 의원

예. 그러죠. 소관 부서에서 다 이렇게 갈라져 갖고 있으니까 또 완도 관내이지만 부서에

서도 이렇게 갈라져 있으니까 따로 이게 뭔가를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혹시 이렇게 완도군 관내에서 싱크홀 접수가 좀 있었나요?

○건설과장 김진원

저희 부서로 접수된 건 없었는데 최근에 좀 제가 듣기로는 농공단지 쪽에서 한 3건 정도 싱크홀이 발생해서 자체 보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민 의원

보수하시고 혹시 또 위험 지역에 대해서는 또 점검을 한번 해 보셨는가요?

○건설과장 김진원

저희들 이제 국도나 법정도로는 자체적으로 읍면 직원들하고 해서 좀 조사를 했었고요.

지난해 군에서 지하 공동 탐사 용역 이것을 좀 발주 용역을 해가지고 주요 대상지가 완도읍 시가지하고 농공단지, 군외면 시가지 이쪽 한 128km 정도를 탐사 용역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큰 문제는 없었고 저기 소규모로 한 9개소 정도 발견이 돼가지고 즉시 보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민 의원

우리 또 완도는 또 매립지가 많아서 하부에 또 지하수의 변화라든지 이렇게 유실된 토사라든지 이렇게 구조적인 좀 불안정한 지층이 좀 많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이제 따로 또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배우 관로들이 노후가 좀 많이 되다 보니까 또 특별 점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다음 또 업무 보고 때 우리 건설과에서 비롯해서 관련 부서에서는 싱크홀 대비해서 이렇게 업무 계획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민 의원

관련 부서하고 같이요. 이상입니다.

○의장 김양훈

박병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의원

과장님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보고서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그 완도대교 경관 조명 있죠?

○건설과장 김진원

예.

○박병수 의원

그것이 아주 고장이 잦은데 지금 금년 4월부터 계속 꺼져 있거든요, 한 반절 이상이. 지금 어떤 다른 조치를 하고 있는 것인지?

○건설과장 김진원

지금 그거 지금 예산을 세워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박병수 의원

아, 설계 중에 있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진원

예.

○박병수 의원

그럼 어떤 식으로 설계를 하죠?

○건설과장 김진원

일단 기존 백열등에서 LED로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의원

그걸 좀 빨리 해가지고 지금 여름철 동안 관광객들이 많이 오잖아요. 밤이면 또 이제 그런 그 경관이 있음으로써 완도항이 아니, 원동항이 좀 볼거리도 있는데 그게 한 반절 정도 꺼져 가고 있으니까 아주 흉하더라고요. 좀 관심 가지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진원

예. 알겠습니다.

○박병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양훈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최광윤

(참조)

·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의장 김양훈

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로부터 보고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5시10분 산회)

(10시36분 산회)

○출석의원(9인)

김양훈 박성규 지민
박재선 박병수 조인호
최정욱 허궁희 조영식

○출석공무원

군수	신우철
부군수	이범우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관광실장	안환옥
해양치유담당관직무대리	김건규
행정지원과장	이기석
세무회계과장	천종실
민원봉사과장	김용식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체육진흥과장	최정환
농업축산과장	이정국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해조류박람회추진단장	김준혁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지역개발과장	오현철
건설과장	김진원
안전총괄과장	이홍용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최광윤
보건의료원장	한광일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수호

○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최영미
의사운영팀장 서을식
속 기 사 정현중

제331회 완도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4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7월 17일(목) 10시00분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청취의 건
  ㅇ지역개발과(17)
  ㅇ안전총괄과(14)
  ㅇ보건행정과(15)
  ㅇ건강증진과(17)
  ㅇ시설관리사업소(4)

2. 휴회의 건(7. 18. ~ 22.)

부의된 안건

1.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청취의 건(의장 제의)
  ㅇ지역개발과(17)
  ㅇ안전총괄과(14)
  ㅇ보건행정과(15)
  ㅇ건강증진과(17)
  ㅇ시설관리사업소(4)

2. 휴회의 건
  기간: 7. 18. ~ 7. 22. (의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양훈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

1.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청취의 건(군수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역개발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시설관리사업소, 안전총괄과 순으로 부서장의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오현철

(참조)

·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의장 김양훈

지역개발과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욱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페이지 관련해서 아마 군수님한테도 여러 차례 군정 질문을 통해서 했었고 했는데 이번 기본 항만 기본 계획이 몇 월달에 확정이 됐다 했는가요? 올라갔다 했는가요?

○지역개발과장 오현철

지금 저희가 4월에 올렸습니다, 전남도를 경유해서 해수부로.

○최정욱 의원

그럼 이미 그 계획이 수정 계획이 올라갔네요.

○지역개발과장 오현철

예. 그렇습니다.

○최정욱 의원

그러면 그때 우리 농공단지 해양 예전 부두 거기를 우리 선단 유치장으로 해서 해보자라고 해 가지고 그거를 꼭 그 기본항만계획에 넣어야 되지 않겠냐 해서 그때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돼 결과 좀 알려주시겠어요?

○지역개발과장 오현철

지금 그 계획은 이번 계획에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5차 수정 계획에 그런 부분들을 좀 담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최정욱 의원

그걸 한 4년 전부터 줄기차게 했던 건데 왜 그랬을까요?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했고. 이제 업무 잘 제대로 파악이 안 되는 거야.

○지역개발과장 오현철

그 진행 과정은 제가 이제 좀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반영이 안 돼 있는 부분은 사실이고요.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다음 5차 계획에 이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는 어떤 사전 전기 작업 이런 부분들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최정욱 의원

이제 5차 계획이라면 31년도가 되죠?

○지역개발과장 오현철

그렇습니다.

○최정욱 의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 또 5년을 더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 관광과장 하셔서 왔는데 혹시 지역개발과 항만 이런 거 보신 적 있어요? 업무를.

○지역개발과장 오현철

항만 업무는 지금 처음 봅니다.

○최정욱 의원

그렇죠. 우리 관광사업은 돈을 정말 투자를 하면서 사람을 끌어 모은 거라면 이 항만은 잘만 갖춰만 놓으면 알아서 어울려서 지역 경제를 살리는 건데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래서 놓치면 안 된다는 말을 자꾸 했는데 이거는 한 번만 가꿔 놓고 해 놓으면 자연적으로 배들이 들어와서 다 하는 거예요.

관광 산업을 하자고 하면 돈을 끊임없이 투자를 해서 끌어와야 된다고 하면 그런데 이런 중요한 사업을 또 아쉽게 또 이 이것 때문에 수정 계획하기 전에부터 줄기차게 했던 건데 과장님 어차피 여기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이미 어떻게 한다 해도 그건 될 수가 없는 것 같고 지금부터라도 이제 경제교통과 일인데 같이 협조해서 어떤 일을 방법을 찾아서 거기가 잘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오현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최정욱 의원

그리고 다음에 준비 꼭 5차 기본계획 때는 꼭 거기가 들어가야 맞습니다. 우리가 항구도시인데도 정말 좋은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기반시설이 안 되고 배들이 안 와요 안 온 걸 알면서도 이렇게 방치하고 있다는 그만큼 우리 완도가 5년, 10년이 뒤처진다는 얘기예요. 이 중요한 거를 이렇게 어디 먼저 해야 될 걸 찾아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 지역 경제를 생각해서 이런 게 너무 아쉽다는 말씀드리면서 잘 준비를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오현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최정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양훈

박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몇 가지 좀 궁금한 사항 확인 좀 하겠습니다. 군외 원동항 관광 활성화 기본계획 용역 결과를 혹시 인수인계 받으셨나요?

○지역개발과장 오현철

예. 받았습니다.

○박병수 의원

이 자료가 맞죠?

○지역개발과장 오현철

예.

○박병수 의원

이거 작년 12월에 결과물이 나왔는데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군내 원동항을 개발하기 위해서 몇 차례 질의와 제안을 드렸었습니다. 그게 이제 결과물이 이걸로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 결과물을 가지고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오현철

저희가 이제 이 결과물에 보니까 좀 순차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들 저 이제 2월달에 이미 계획을 수립이 됐더라고요. 추진계획을 그래서 일단 먼저 산림휴양과 쪽에서는 이미 그 부분을 완공을 했고요. 저희도 지금 경관을 개선하기 위해 전남도의 경관 개선 사업으로 공모 사업을 신청했는데 아쉽게도 이번에는 이제 반영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더 그 부분들을 좀 더 촘촘하

게 준비해서 내년 또 공모 사업을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박병수 의원

그러면 금년에는 끝나고 내년 초에 있는 가요? 공모가.

○지역개발과장 오현철

예. 그렇습니다.

○박병수 의원

공모 사업으로 신청을 해 가지고 선정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원동 군내면 소재지고, 완도의 관문이죠. 그리고 첫 마을입니다. 또 완도의 첫 마을이고 농촌 중심지에 그 구대면 소재지가 있고, 또 서부 경관도로의 시작점 모든 조건을 다 갖춰놨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그쪽을..... 방송실 영상 한번 올려주세요. 지금 2022년부터 2023년 이렇게 그 항을 준설을 했거든, 갯벌이 있어서 배가 접안이 안 되기 때문에 준설을 하다가 제가 보가 터졌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 상태인데, 지금 다음 사진이요. 지금 저런 갯벌들을 준설을 좀 마무리를 해 가지고 배가 좀 편안하게 접안할 수 있도록, 입출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현장을 한번 보셔야 그 좀 현장감이 있을 텐데 지난 상반기 때 현장 방문 때 의원님들 그쪽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됐었습니다마는 그때 뭐 다른 일정 변경으로 인해서 저기를 보지를 못했어요.

저 부분들을 좀 준설을 해서 좀 정리가 되면 저기 완도 들어오면서 또 요트계류장, 요즘 요트를 많이 이제 선호를 하죠. 거기에 요트 계류장으로 조성이 된다면 시설이 된다면 거기에 좀 들어오면서 나가면서 관광객들이 좀 와서 보고 또 체험도 할 수 있고 바람이 불지 않으면 그 앞바다는 그 호수하고 같이 잔잔합니다.

아주 체험하기가 좋은 곳이거든요. 좀 관심을 가지고 좀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지만 그 완도대교 주변에 거기에 낚시꾼들이 많이 옵니다. 그 낚시꾼들은 연중 관광객이에요. 그분들은 오면 그냥 미끼를 사고 거기에 재료를 사서 쓰거든요. 또 밥도 먹고 자기도 하고 그런 좋은 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 주변도 그 낚시터를 조성을 위해서 관광객들을 유입한 그런 부분도 한번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오현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박병수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도 그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그 군 의회에 들어와서 몇 차례 처음부터 지적을 해서 이것을 개선을 하도록 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맨홀 정비, 맨홀이 지금 옆에 주변이 뭡니까? 그거 보고 뭐라고 하죠? 단차라고 합니까? 그 맨홀이 같이 노면하고 맞춰줘야 하는데 그런 차이가 심하다 보니까 보행기나 그 어르신들 끌고 다니잖아요. 거기 움푹 파여서 상당히 위험하고, 걷다 보면 거기에 발이 또 빠져서 발을 뺄 수 있는 그런 안전사고의 위험이 잇따릅니다. 그래서 제가 앞번 과장님한테 몇 차례 건의를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완도 소재지권 이면도로뿐만이 아니라 그 읍면에 소재지 보면 대부분 다 그런 식으로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전체적으로 좀 파악을 해서 일제 조사를 한번 해서 그걸 사업비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내년에 좀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무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오현철

예. 알겠습니다.

○박병수 의원

그리고 저 영상 한번 올려주세요. 이것이 지금 처음에 뭡니까? 저것을 무슨 맨홀이라고 하죠? 분홍 맨홀이라고 하는데 저것도 지금 2000년도부터 해왔던 것인데 지금은 저것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저것을 사용 저게 이제 콘크리트이기 때문에 저게 깨지고 또 저것도 상당히 위험 소지가 있다고 하니까 저런 부분도 좀 관심을 가지고 같이 교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오현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박병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양훈

허궁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궁희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쪽에 있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한 구 문화원에 대한 것인데요.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계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오현철

지금 현재 2층은 드림센터가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1층은 저희가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를 해 주셔서 이번 추경에 우리 관광실 소관입니다마는 급식지원센터가 그리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현재 확정이 돼 있어서 아마 우리 관광실에서 그 부분을 추진할 것 같고요. 이게 다 되면 이제 종합적인 아마 그런 계획이 이 건물을 어디서 관리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종합적인 아마 대책을 강구해서 실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허궁희 의원

당초에는 치유 문화 청소년 플랫폼으로 설계가 됐었죠?

○지역개발과장 오현철

예. 그렇습니다.

○허궁희 의원

그랬다가 드림스타트 사무실이 하나 입주해 있고 계속 비어 있었죠?

○지역개발과장 오현철

예. 그렇습니다.

○허궁희 의원

사업비가 40억이나 들었는데 당초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된 그 이유가 그러면 그동안에 왜 있었을까요?

○지역개발과장 오현철

지금 이제 당초 목적대로 지금 사용을 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스토리는 제가 아직 그거에 대해서 지금 정확히 파악이 안 되는 거고..... 지금 현실적인 그런 부분들만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허궁희 의원

아마 업무 이관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전체 파악은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사업비를 투자한 건물이 전혀 효용 값어치가 없게 사용하고 있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오현철

예. 그렇습니다.

○허궁희 의원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이제 1층이 채워지면 전체 빈 공간은 없는가요?

○지역개발과장 오현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종합적인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활용 방안이나 어떻게 이것을 시설을 사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대책을 좀 세워서 실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허궁희 의원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오현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궁희 의원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게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야 우리 의회에서도 그 예산 세워준 보람이 또 있을 것 아니겠어요? 텅텅 비워놓고 그러면 앞으로 예산 집행하는 데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관리 잘하셔서 그 마무리가 되는 대로 한번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오현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궁희 의원

이상으로 보충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양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정계창

(참조)

·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의장 김양훈

보건행정과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호 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방송실 사진 한 장 올려주세요. 부지 보이시죠?

○보건행정과장 정계창

예.

○조인호 의원

우리 인공심장실 부지인데 보시다시피 지금 실시설계 시 지반조사 같은 거 안 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계창

기초 지반조사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초 도시 지역 내 약간 벗어나 있는 부분에 이제 발파 공법으로 이제 설계가 나왔습니다만 이제 추가 3월에 완도경찰서 협의 결과 주변에 10 한 2~3m 정도의 산후조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파 공법으로는 불가해서 이제 다시 파쇄 공법으로 변경해서 현재 7월부터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인호 의원

그러면 암반은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정계창

지금 암반은 파쇄 돼서 기존 사토장에 준비돼 있는 사토장으로 반출할 계획입니다.

○조인호 의원

발포하면 사업비가 추가될 건데 그 사업비는 어떻게 충당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정계창

이제 발파보다 이제 파쇄로 변경했을 때 약 3억 원의 추가 사업비가 소요됐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이제 입찰의 입찰 차액으로 현재 전액 파쇄공법에 따라서 이제 비용이 들어갔고요. 당초 금년 약 1억 원의 추가 사업비를 추경에 확보하고자 하였으나 확보가 어려워서 못 했고요. 금년 연말 정리추경이나 내년에 1억 원을 확보해서 조경 시설이나 나머지 기반시설을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조인호 의원

1월 업무보고 시 사업비가 34억 9,000만 원인데 이번 보고서는 34억 2,000만 원인데 오히려 줄어들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보건행정과장 정계창

당초 사업비보다 오류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인호 의원

오류 인정하죠?

○보건행정과장 정계창

예. 그렇습니다.

○조인호 의원

암 발파에 따른 공법 변경 실정 보고서를 실시하는데 어떻게 추진하기로 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계창

이제 암 발표에서 불허가 떨어졌어요. 이제 기초 조사 파쇄로 이제 변경을 해서 이제 설계를 완료하고, 저희 이제 완도군 일상 감사 대상이어서 일상 감사까지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약 공정이 2개월 정도 더 추가로 더 소요돼서 당초는 연말에 준공 계획이었으나 이제 내년 한 2~3월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인호 의원

올 12월까지 준공 예정이었죠?

○보건행정과장 정계창

당초 12월까지 예정이었습니다.

○조인호 의원

본 의원이 보기로는 내년 초에 내년 중순까지도 안 될 것 같은데요.

○보건행정과장 정계창

현재 지금 이제 파쇄 공법을 적용했을 때 저희가 8월 초까지는 이제 기반 시설이 다 끝나게 됩니다. 나머지 본 공사가 2층 공사이기 때문에 외부 공사만 마무리되면 이제 실내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기상하고 특별히 상관이 없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이제 당초 일정보다 약 2개월 정도 연장이 됐고요. 또 강우라든가 폭염이라든가 기상 이변에 따른 아마 공기 연장이 있을 거로 생각을 해서 저희는 3월 중에는 준공할 걸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인호 의원

보고서 작성을 할 때는요. 12월까지 한다고 했는데 차라리 넉넉히 잡으면 내년 6월까지 이렇게 잡아놓으면 좀 편안하게 할 수 있을 것인데 꼭 앞으로 보고서 작성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정계창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인호 의원

우리 인공심장실은 단순히 치료 시설이 아니라 우리 군민들이 해남이나 강진, 고흥으로 가서 투석을 받는데 그거 하면 또 역차별을 좀 받아요. 알고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정계창

예. 지금 이제 당초 완도 대성병원에 13개의 이제 인공 기기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여기에서 못하게 되면은 당일이 되지 않고 외부로 나갔을 때는 하루를 준부시고 와야 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그 환자들의 아픔이나 실정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조인호 의원

우리 투석 환자들은 일주일에 3번 투석을 하는데 만약에 투석을 못하게 되면 사람 생명이 단축이 됩니다. 그리고 또 혹시나 우리 섬에서 투석 환자들이 많이 생기죠?

○보건행정과장 정계창

예. 그렇습니다.

○조인호 의원

의료원에서 섬 지역에서 그 투석 환자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도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정계창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인호 의원

그리고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 중에 제일 잘하는 사업이 인공신장실 투석 사업인 것 같아요.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

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정계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인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양훈

허궁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궁희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 1차 보건진료 서비스 차원에서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근무 추진 계획에 보건지소와 보건 진료소 운영 실태를 점검한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을 점검하고 또 점검 기준이 있는가요?

○보건행정과장 정계창

현재 적정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섬 지역 같은 경우는 응급의료 때문에 공중 보건 의사가 적재적소로 배치돼 있고요.

이제 체도권의 같은 경우는 최근 3년 전부터 지금 현재 약산하고 구내 보건지소회가 읍과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지 않고 신지와 고금에서 이제 주 2회 현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최근 폭염으로 인한 온열 환자 예방이라든가 해서 좀 더 적극적인 대처를 위해서 최근에 한 2차례 정도 제가 직접 현장을 다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현장 방문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상황 시기에 맞게 두 군데 공중보건의사 의과 부재에 따른 적극적인 대처를 위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궁희 의원

과장님 제가 현장에 다니면서 얘기를 들어보면 은 약산과 군내 보건 진료소 지소는 우리 주민들이 거의 찾아가지를 않는 곳이라고 이렇게 소문이 나 있어요.

그쪽에 우리 군의관 배정이나 이런 것은 어렵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계창

지금 공중보건의사의 수급 체계를 금년에도 지금 한 명이 미배치돼서 이제 지금 보건지소에는 전체를 배치하고 1명을 지금 보건의료원에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지금 이제 의사 수가 우리 여성 의사 수가 좀 늘어나고요. 금년에도 의사 관련 일반병 입대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보다도 더 한 2명 정도 배치가 안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저희가 임의 배치가 아니라 복지부에서 지정 배치기 때문에 의사가 있는 섬 지역 같은 경우는 의원이 있는 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가장 후순위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고금하고 신지가 위태로울 거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이제 우리 의사 채용에 관한 부분을 하여 금년에는 다행히 의료 대란 때문에 쉽게 의사를 구할 수 있었지만 내년에는 약 한 4억에서 5억 정도 소요되고 최소한 2명이 있어야 한 명은 순회라도 하면서라도 할 거라 생각해서 내년은 2명을 확보할 계획이 있습니다.

○허궁희 의원

예. 꼭 의료진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근무 선호 읍면이 군외랑 약산 쪽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쪽이 일이 좀 편한가 봐요. 그래서 약산은 아침이면 어른들이 고금으로 싹 이렇게 병원을 찾아서 이동을 하고, 또 군외 역시 완도읍이나 이렇게 가깝다보니까 이렇게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직원들은 하루 종일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파악은 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계창

지금 이제 보건지소 기능이 이제 단순 의료 기능뿐만 아니라 이제 다음에 건강증진 과장님 업무 보고도 하시겠지만 그 원래는 보건지소의 기능이 그 우리 국민에 대한 건강 증진 관련에 주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역 특성상 이제 의원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가 의료가 주가 되는 형편이다 보지만은 현재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최근 폭염 같은 경우에는 폭염이 발령되면은 주 요건은 아니지만 현장에 적극 대응하는 그런 보건 관련해서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허궁희 의원

그래서 이제 본 의원 생각은요 이렇게 방문수가 적은 그런 진료소에서는 이렇게 방문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좀 하면 안 될까요?

○보건행정과장 정계창

방문, 저희 보건의료원에서는 재택 의료를 현재는 이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그 의료법 기준에 이제 간호사나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의료행위가 지금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료행위를 재택의료를 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분명히 같이 동석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복지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초기 진료는 이제 의사가 같이 가지만은 그 나머지 방문 같은 경우는 간호사 혼자라도 갈 수 있는 시스템을 바꿔 달라고는 하지만 법 개정 사항이라 좀 현재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허궁희 의원

왜냐하면 이제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냐면요. 약산이나 이런 지역에서 이런 전화가 많이 옵니다. 이렇게 좀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방문을 해서 이렇게 체크를 좀 해 주면 좋지 않겠냐 이런 건의 전화가 많이 오기 때문에 이런 건의를 하게 된 겁니다. 이런 부분을 한번 참고해서 그 우리 담당 의사가 없으면 한 번씩 진료 나갈 때 한 번씩 들렀다가 그다음에는 이제 우리 저 간호사들이 가도 되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계창

의료법상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허궁희 의원

전체적으로 그러면 의사가 동행을 해야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정계창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계점이 분명히 있어서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허궁희 의원

그래서 그런 저 건의 전화가 많이 와서 한 번 확인차 전화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우리 그러면 저 군외나 약산은 계속 어려운 실정이네요, 여기 의사 없어서.

○보건행정과장 정계창

예. 이제 약산은 그 교통편이 그래도 고금하고 가깝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진료 건수를 확인..... 진료 건수하고 주민 요구들을 해도 그렇게 차이는 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군외도 현재 마찬가지고, 만약에 이제 내년에 고급이나 신지가 했을 때는 현재 의료원 접근성을 가지고 있는 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료원에서 교통 접근성을 좀 확보를 해서 최소한의 우리 환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궁희 의원

그렇게 예산이 들더라도 우리 의사들 확보에 좀 신경을 더 쓰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양훈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1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0분 회의계속)

○의장 김양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현주

(참조)

·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의장 김양훈

건강증진과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욱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페이지 우리 거기 보면 아마 이 방문 건강 관리 또는 이런 것과 우리 암 환자에 있어서 관리를 철저히 좀 많이 준비하신 것 같은데 재가 암환자 자조모임이라고 내가 그 플래카드를 다니면서 봐가지고 이거 프로그램도 참 좋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하고 어떤 걸 지원하고 하는지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건강증진과장 김현주

지금 이제 저희는 시스템상 암 환자가 저희들한테 바로 등록되어서 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들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의료원에 와 가지고 등록을 해라라고 좀 안내를 해 주시는데요.

이 암 환자들에게는 저희들이 방문 서비스도 하고 영양제 등 비타민도 제공 하고 메디엘 같은 보충 시기도 지원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월 1회씩 그 수액을 무료로 맞을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그 자조 모임으로는 올해 상반기에 4회에 걸쳐서 대상자를 모집해서 했습니다. 대상자들이 완도군에서는 그렇게 본인들을 이렇게 노출하는 게 엄청 꺼려하셔요. 그래서 많은 대상자들을 할 수가 없고 이번 회차에는 15명이 4회에 걸쳐서 진행을 하게 되었었는데요.

암 종별은 다양합니다. 그래서 특정암에 대한 교육이나 그런 것은 할 수 없어서 일반적인 암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했고요.

첫해 시작할 때는 다니엘 운동이라고 해서 암 환자들이 할 수 있는 저강도 운동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외에 나가서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는 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했고요. 또 구강 건강이나 영양 교육 영양사하고 치위생사 등을 활용해서 암 환자들의 그런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했었고요. 최근 4회 차에는 웰다잉 강사를 초빙을 해가지고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최정욱 의원

이 자조 모임을 어떤 의미에서 하려고 생각했을까요?

○건강증진과장 김현주

자조 모임이 이제 그 암 환자들이 모여서 건강의 정보를 서로 교류하고 의지하고 그렇게 하도록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결성하는 모임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민들이 그렇게 하시지 않거든요. 암 환자들이 그래서 행정에서 개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모이게 해서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정보도 제공하고 또 극복해 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들을 지원해서 지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정욱 의원

이번에 우리 광고 내서 몇 사람이, 15명이요?

○건강증진과장 김현주

예. 15명.

○최정욱 의원

나이층이 대충 어느 정도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김현주

나이층은 연령층이 높습니다. 거의 65세 이상이십니다.

○최정욱 의원

그러니까 이제 그 암 환자 대부분이 밖에 노출을 꺼려하고 자기의 그 암 환자라는 인식이 걸리면 이거는 안 된다라는 그런 것도 인식이 깔려 있다 보니까 감추는 게 커요.

○건강증진과장 김현주

예. 그렇습니다.

○최정욱 의원

그래서 이 모임 자체는 참 잘한 것 같다 했는데 이제 방법론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하면 나는 아마 안 올 거라고 봐요. 나이 드신 분들이야 뭐 어쩔 수 없이 뭐 혹시라도 지원이 필요한가 해서 오겠지 그래서 이제 그걸 방법에 대해서 참 좋은 프로그램인 만큼 그 자조 모임이 잘 활성화될 수 있게 하려면 외부에 이렇게 노출되지 않으면서도 할 수 있는 우리 인터넷이나 그 모임들에 들어가 보면 자기들끼리 공간 안에서 만들어서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이용을 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편안히 할 수 있는가를 좀 더 고민을 더 해봐 주시고 이분들도 모이면 아마 동변상련이라고 자기들의 그런 자리를 굉장히 원을 해요 하는데 누가 나서지를 못하고 가까이 가기가 좀 그렇고 이런 것 때문에 못하니까 공개적인 것보다도 그런 걸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현주

예, 예.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정욱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양훈

박재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정신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직원이 몇 명 정도 근무하고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현주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 내에 전문요원으로서는 6명 근무하고요. 거기에 청경 1명 해서 7명입니다.

○박재선 의원

보면 정신질환자 환자가 지금 152명이라고 돼 있죠?

○건강증진과장 김현주

예, 예. 그렇습니다.

○박재선 의원

그것은 운영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현주

사회재활프로그램으로 월 매주, 육지권은 매주 1회 사회재활프로그램을 진행하고요. 섬권, 도서권은 2주에 1회씩 하고, 사례관리로 월 1회씩 개인별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사례관리

를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직원들은 2인 1조로 해서 가서 방문하고 있습니다.

○박재선 의원

그러면 보니까 여기 읍면도 보니까 많이 있네요.

○건강증진과장 김현주

예.

○박재선 의원

정신질환자 환자가요. 근데 2인 1조로 가게 되면 전체적으로 다 나눠서 갈 건데 그 인원은 어떻게 보충한가요?

○건강증진과장 김현주

이제 읍면 사례관리는 그래도 일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정별로 이제 맞춰서 하다 보면 가능합니다. 그렇긴 한데 그 위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건들에 대해서 대처하는데 약간의 애로 사항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응급 위기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작년에 38건이 발생을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상반기에 벌써 36건 작년 1년 치 발생했던 것이 벌써 상반기에 그렇게 발생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저희들이 직원들이 바로 출동하기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나가도 정신 조금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나 난폭한 행동을 하거나 그런 위험 요인의 여직원들이 가다 보니까 처할 때가 좀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박재선 의원

그러면 거기는 그 남성들이 좀 따라 가야 되는 게 청원 경찰이 같이 가나요?

○건강증진과장 김현주

청원경찰 필요에 따라서 지금 사무실 사무실에서 지키고 계실 때는 따라가시기도 하고요. 지금 센터 내에 사회복지사로 전문 요원으로 남자분이 한 명 있습니다.

그래서 총 7명 중에 2명이 남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재선 의원

기상 악화로 인해서 읍면에는 잘 도서 지역에 잘 못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한 번 정해진 시간에 못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4주에 한 번씩 간가요

○건강증진과장 김현주

예. 한 달에 한 번씩 사례 관리는 들어가고요. 혹시나 일정 때문에 못 가면 일정을 다시 조율해서 들어갑니다.

○박재선 의원

그러면 이렇게 환자들이 많이 생기고 되면 우리가 보면 119에 신고하면 파출소하고 연계해서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도서 지역에도 119 센터에도 보면 2인 1조로 근무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나가고 나면 또 화재라든가 다른 환자가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건강증진과장 김현주

그럴 경우에 일단은 응급 환자가 생겼을 때 아니 응급 위기 상황이 생겼을 때는 거의 경찰로 많이 신고를 하니까 경찰 쪽에서 출동을 하시면서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시거든요. 근데 섬 지역은 저희가 당장 나갈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약간의 공백과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도서 지역이다 보니까.

○박재선 의원

이제 보니까 그 파출소도 그렇고 119도 그렇고 인원이 없어요. 그 인원도 없는데 그 보면 사건 사고가 그 중간에 꼭 나더라고요. 평상시에는 잘 안 나요. 무슨 일이 터지고 나면 같이 터지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염려스러워서 좀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 센터는 어떻게 지금 운영되고 있어요? 이 센터.

○건강증진과장 김현주

센터가 하는 일을 말씀하십니까?

○박재선 의원

아니,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냐고요.

○건강증진과장 김현주

운영 자체 지금 직영으로 저희가 직영 체제입니다. 직영 체제로 운영하고 있고 저희 센터장님은 보건의료원장님이시고 그 아래에 이제 정신건강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팀에서 그 업무들을 관리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정신건강센터는 우리 도에서 예산을 내려주기는 8인으로 해서 지침은 내려와 있는데 현재 6인 전문 요원이 가지고 현재 상황에도 도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2명이 결혼 상태라 각 지금 직원들에게는 일을 추진할 때 있어서 인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권역별로 통합해서 이 프로그램들을 할 수 있게끔 노화권역, 금일권역 또 이제 청산권역 이렇게 구분을 그리고 안도읍권역 4개로 나눠 가지고 분류를 해가지고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박재선 의원

이제 자료를 보면 22개 시군 중에서도 꽤 위탁을 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데가 좀 많이 있네요.

○건강증진과장 김현주

위탁이 전남권에서는 다섯 군데 현재 하고 있습니다.

○박재선 의원

전남 광역까지 하면 여섯 군데가 위탁해서 그렇게 하고 있죠?

○건강증진과장 김현주

예. 광역까지 하면……

○박재선 의원

그렇게 하고 있죠. 근데 우리 완도군은 도서지역으로 많이 나눠져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어떻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현주

이제 위탁에 대해서는 이제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긴 하겠지만요. 우리가 요즘 위탁을 했다가 직영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데도 있고요. 이제 가까운 곳 해남의 정신과 전문의가 있어서 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남에도 위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거의 지금 위탁이 나주 병원이나 그 지역에 있는 병원을 가지고 하는데 저희가 위탁을 하면 좋겠지만 과연 도서지역에 가지고 해 주실 수 있는 타 지역에 병원이 있을 집 만약 하게 된다면 예산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아마 2배 가까이는 들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재선 의원

그러면 상담은 지금 해남에서 와서 상담해 준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현주

예.

○박재선 의원

그러면 어떻게 상담을 해 주고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현주

전문의 선생님께서 주 1회 일단 이제 일반 상담을 위해서 수요일마다 방문을 하시고요.

이제 그 심층 상담 들어가실 때는 읍면까지도 나가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재선 의원

그럼 읍면에서는 자주 이렇게 나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해남에서 병원에서 와서 해주기는 하되 읍면에서 나와서 하기는 좀 힘들겠네요.

○건강증진과장 김현주

읍면에서는 일정을 날짜를 잡아가지고 나오십니다.

○박재선 의원

날짜를 잡아서…… 그래요. 이제 제가 보니까

총원이 8명으로 돼 있네요.

근데 이제 현재 6명이서 근무하는데 152명을 관리하고 있어서 이 인원수로 이걸 다 관리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 인원 충원을 좀 할 계획은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현주

최근에 이제 해당 과에서 아니 해당 우리 저희 팀하고 저기 정신건강팀하고 해서 행정지원과에다 최근에 이제 공무직 요청 지원을 증원 요청을 해 놓기는 했고 해당 과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재선 의원

그러면 여기 오면 전문 상담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건강증진과장 김현주

예. 전문, 그러니까 정신간호사라든가 심리상담사가 있으면 좋죠.

○박재선 의원

그런 분들로 고용을 해야 해남에서도 오지 않아도 사실적으로 읍면 순회하면서도 얼마든지 저희 직원들이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데 지금 다른 지역 사람들 상담사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 다른 병원에서 빌려서 우리가 지금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충원하실 때 좀 연구를 좀 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김현주

저희가 채용 공고를 심리 상담사나 정신 간호사를 포함해서 공고를 해도 접수를 안 합니다. 일반 간호사들도 접수를 안 해서요. 저희가 2차 3차 막 계속 재공고합니다.

○박재선 의원

이제 의료원은 그럴 거예요. 이제 의사들도 마찬가지로 도서 완도라는 곳이 잘 안 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어쩌겠습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죠.

○보건행정과장 정계창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재선 의원

건강증진과가 할 일이 사실은 건강한 사람도 우리가 좀 이렇게 상담도 하고 해야 돼요. 근데 꼭 아프고 환자들이고 정 중증 환자들만 우리가 지금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정신 건강한 사람들도 우리 원래는 상담하고 다 해줘야 맞아요, 증진과에서는.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요. 근데 일반 또 그 센터에서 보면은 일반 환자들도 다루기가 힘든데 정신 질환자들은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그렇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현주

맞습니다.

○박재선 의원

그런 분도 이제 그 노고에 대해서는 치하를 하는데요. 그 정신 상담사를 고용하실 때 그런 분들로 해서 좀 더 편안하게 또 그분들이 또 건강한 모습으로 또 우리와 같이 일반인들하고 또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현주

그분들을 초빙하려면 좀 급여 조건에서 만족을 시켜줘야 될 것 같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우리 행정지원과랑 의견을 교환해 보겠습니다. 의견 제시를 하겠습니다.

○박재선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양훈

지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 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여기 보고서 십이 페이지 AI IoT기반 어르신 건강 관리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니까 이게 사업 대상이 65세 이상 어르신이고 근데 여기 현실적으로 이 어르신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데 좀 제한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건강증진과장 김현주

예.

○지민 의원

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업 참여자 920명이라고 돼 있어요. 추가 모집도 100명이 또 있고요. 그중에 이제 또 미션 수행하시는 분들이 33명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현주

아니, 성공자..... 이게 6개월간 성공하신 분.

○지민 의원

미션을 성공하신 분.....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920명, 100명까지 더하면 이제 12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 중에서 성공하신 분들이 33명이다. 그 말씀이시죠?

○건강증진과장 김현주

이제 이 920명이라는 숫자는 2021년도부터 진행한 사업 대상자인데요. 이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해 줄 수는 없습니다. 6개월 단위로 끊어서 하고 이분들은 이제 이게 자가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올해 신규 등록하신 100명을 가지고.

○지민 의원

그러면 100명 중에 30명이다 그 말씀이시네요?

○건강증진과장 김현주

예, 예. 그렇습니다.

○지민 의원

이건 2021년부터..... 그렇고 이제 이게 처음부터 본인이 이제 서비스 앱을 깔고 서비스를 신청을 하고 같이 하고 하면서 미션 수행을 하는 거 굉장히 또 어렵잖아요. 그래서 혹시 또 여기 관리 이제 계속 아까 이제 21년도 920명인데 올해 이제 이분 100분이 이제 신규 발굴로 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좀 대략 좀 있으신가요?

○건강증진과장 김현주

취약계층도 있습니다.

○지민 의원

그분들도 위주로 더 열심히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김현주

이 사업으로 해서 2명의 기간제 근로자가 있으면서 이게 65세 이상 어르신이다 보니까 핸드폰 작동도 모르고 기기 작동을 못해서 저희 직원들이 직접 가서 설치해 주고 그런 진행 사항들을 다 하고요. 전화 오면 수시로 출동해서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민 의원

거의 1 대 1이죠?

○건강증진과장 김현주

예. 1 대 1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민 의원

오늘 가르쳐주면 또 내일도 모르시고.

○건강증진과장 김현주

그러면 또 내일 또 가고 그러니까 한 분을 위해서 몇 번을 가는지 모릅니다.

○지민 의원

혹시 여기 미션이라는 게 어떠한 미션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김현주

운동을 30분 이상 운동을 잘하고 계시는지.

○지민 의원

어떤 운동 여러 가지 이제 항목들을 알려주시나요?

○건강증진과장 김현주

예. 이제 직원들이 그 어르신에게 맞는 운동을 방문하셨을 때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거의

그런데 어르신들은 걷기 운동으로 많이 하십니다. 걷기 위주로 많이 하시고 되도록이면 30분 이상은 움직이라고 하시고요.

○지민 의원

그러면 그 미션 한 가지 30분 이상 운동하는 거?

○건강증진과장 김현주

아홉 가지 미션 중에 저희가 지금 현재 네 가지 그거 집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너무 많으면 어르신들이 이거 일일이 체크해서 스마트폰에 연동시키기가 어려우셔요. 그래서 많이 할 수는 없고, 혈압, 혈당, 체중 그런 것들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민 의원

여기 수행하시는 분은 그 네 가지를 다 수행을 하시는 분들이네요.

○건강증진과장 김현주

이제 건강한 분들은 체중, 그다음에.....

○지민 의원

다 이제 그분 그분마다 이제 실행을 해야 되는 미션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건강증진과장 김현주

예, 예. 그렇습니다. 이제 고혈압 환자들에게는 당뇨 아니, 혈압 측정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민 의원

그러면 여기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계시지 않은 분들은 지금 어떻게 하시나요?

○건강증진과장 김현주

저희가 그 지금 화면형 스피커폰이라고 해서 그걸 대여를 했습니다.

○지민 의원

화면형 스피커폰?

○건강증진과장 김현주

예. 보면서 집에다가 이 공유기까지 저희가 설치를 해 드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화면형 스피커폰에다가 해가지고 앱을 설치해 드립니다. 그래서 그 앱하고 활동량계, 체중계나 혈압계를 연동해 가지고 집에서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민 의원

여기 이제 이 사업이 참 괜찮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을 통해서 또 이제 향후에 우리 지역사회의 돌봄이나 또 이제 만성질환 관리와도 연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김현주

맞습니다.

○지민 의원

그래서 혹시 이제 자료수집 그분들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환자들 이러이러한 증상이 있으신 들 이제 그러한 자료 수집이 또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향후에 또 어떠한 또 전략 방향이 또 있는지?

○건강증진과장 김현주

이제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시스템 중앙 시스템의 자료가 다 축적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개선이 됐는지 스스로 이걸 관리하고 있는지를 수시로 저희 담당팀에서 체크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육지권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력에 한계가 있고 출동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어려움이 있지만 하반기부터는 그래도 도서 지역에서 가끔 연락이 오십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노화나 금일권역 이쪽으로 해서 좀 확대를 해보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약간의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지민 의원

저는 언젠가 말씀 들을 때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에도 우리 주민들의 건강 증진에 대해서 같이 또 역할을 좀 같이 해 주신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건강증진과장 김현주

그렇긴 한데 이거는 1 대 1로 가서 설치해 주고 깔아주고 설명해 드리고 일일이 체크를 해 줘야 되는 거라 한 명에게 투자할 시간들이 하루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그다음 날도 가야 되고 그다음 날도 가야 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이 일에 매달릴 수가 없어요.

○지민 의원

보건지소로 많이 또 오시잖아요? 또 어르신들이.

○건강증진과장 김현주

오시기는 해도..... 그래서 이제 하반기부터는 좀 그런 분들로 해서 좀 활동이 가능하시는 분들 좀 하려고 합니다.

○지민 의원

홍보를 많이 해서 65세 이상이고, 이제 70세 전후 정도 되면 움직임이 굉장히 좀 활발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진료소에 와서 설명도 좀 듣고 이제 어떻게 운동을 하는지 그 방법도 좀 알고 이러한 부분을 좀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저희가 이제 읍내권 지역보다는 다른 도서에서도 이제 어르신들이 우리 어르신들이 굉장히 좀 무료예요. 우리 지역에 이제 즐기실 수 있는 어떠한 공간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왔다 갔다 걸어 다니시고 이러한 활동들도 한번 해보시고 교육도 좀 시키고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걸 좀 확대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앱만 나눠주고 이렇게 수치화를 하는 게 아니라 또 우리 어르신들이 갈수록 이제 디지털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어르신들이 핸드폰을 쓰는 거라든지 디지털화가 되어 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많이 좀 해줬으면 되고 또 자연이 이걸 만지다 보면 또 되잖아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현주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요.

○지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양훈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수호

(참조)

·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의장 김양훈

시설관리사업소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홍용

(참조)

·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의장 김양훈

안전총괄과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조 국민안전

보험 실시에 대해서 간략하게 또 제안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계속 꾸준히 해서 지금 31개 항목에서 34개 항목까지 추가됐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홍용

그렇습니다.

○조영식 의원

지금 골절수술비, 화상수술비, 성폭력 범죄 피해 비용 해서 지금 해마다 이렇게 해오는 것은 참 잘해오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나 부탁 하나 드릴게요. 항목 확대에 좀 노력해 주시고 작년부터 그러면 시니어클럽 노인대학 이렇게 홍보에 만전을 또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도 읍면 노인정이나 뭐 경로 복지회관 이런 데 찾아다니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홍용

예. 알겠습니다.

○조영식 의원

확대한 것도 잘 하셨지만 군민들이 또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꾸준하게 17개 항목에서 결국은 34개 항목까지 몇 년에 거쳐서 이렇게 꾸준히 항목이 추가된 게 서는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다고 또 앞으로도 항목 확대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홍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식 의원

예. 잘하셨습니다. 11페이지 사회재난 예방 대응 체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2025년 7월부터 전담 근무자를 채용하여 재난안전실 안전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올해 처음 시도한가요?

○안전총괄과장 이홍용

예. 그렇습니다.

○조영식 의원

그럼 현재 전담 근무자 9명으로 24시간 당직 근무 포함 상황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교대 체계나 근무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홍용

지금 7월 1일부터 저희들이 재난 관련법에 따라서 9명이 일반직 3명과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6명 총 9명이 3개조로 3명씩 3개조로 해서 24시간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영식 의원

그럼 계약직 여섯 분이나 되는데 이분들이 나중에 이제 공무직으로 전환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홍용

공무직은 전환이 좀 어려운 실태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이 좀 전문성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관련 부서인 행정지원과하고 또 인력을 재배치해 주시든가 아니면 저희들이 시간 선택제나 임기제나 방재안전직이랄지 정규직화를 해서 전문성을 확보해 달라고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영식 의원

밑에 6월, 7월 당직 변경이라고 했는데 그럼 이제부터는 아홉 분 직원 빼고는 본청 직원들은 뭐 당직을 안 서도 됩니까? 안 서나요?

○안전총괄과장 이홍용

이게 2023년도에 완도군 공무원 노동조합과 함께 우리 당직, 일직하고 당직이 좀 피로도가 있고, 그래서 우리 재난안전상황실이 이제 행안부에서 이제 권고사항으로 전국 지자체에 다 확보를 하는 차원에서 이게 전문 인력을 확보해가지고 당직 근무에 대한 우리 직원들의 피로도도 좀 해소하고 우리 전문 재난안전 상황실 24시간 체제를 구축해야 된다는 그런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문 인력이 조금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우리 행정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좀 전문성을 확보를 해가지고 재난안전상황실과 함께 당직을 병행할 수 있도록 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영식 의원

그러니까 병행 근무를 하면 인력이 부족할 수도 있고, 사회 재난 부문은 또 전문성을 필요로 하여 전문성을 갖춘 직원들이 있어야 하는데 대응하는 데 문제는 없어요.

○안전총괄과장 이홍용

지금 이제 저희들이 상급기관인 전라도에 지금 정기교육도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사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식 의원

예. 전문성 같은 직원들이 많이 확보해서 안전에는 또 정확한 대처가 또 필요합니다. 병행 체제 시스템이 처음 시도된 만큼 더욱더 체계화될 수 있도록 인력 부족 부분이나 전문적 교육에 대해서 더욱더 신경 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 한 가지 안전군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이제 확대도 했으니 확대에도, 항목 확대에도 노력해 주시고 홍보에도 다시 한 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홍용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영식 의원

이상 보충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양훈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2.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집중호우 대비 현장점검 및 의정활동 자료수집을 위하여 7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내일까지 우리 지역을 비롯해 전남지역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군민 여러분께서는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해 주시고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도 집중호우에 대비해 시설물 점검과 비상대응체계를 철저히 유지하며 군민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7월 23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5분 산회)

(10시36분 산회)

○출석의원(9인)

김양훈	박성규	지민
박재선	박병수	조인호
최정욱	허궁희	조영식

○출석공무원

군수	신우철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관광실장	안환옥
해양치유담당관직무대리	김건규
행정지원과장	이기석
세무회계과장	천종실
민원봉사과장	김용식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체육진흥과장	최정환

농업축산과장	이정국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해조류박람회추진단장	김준혁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지역개발과장	오현철
건설과장	김진원
안전총괄과장	이홍용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최광윤
보건의료원장	한광일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수호

○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최영미

의사운영팀장 서을식

속 기 사 정현중

제331회 완도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5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7월 23일(수) 10시00분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완도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완도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완도군 취약계층 마을공동 빨래방 운영 및 지원 조례안
4. 완도군 인공지능 활용 및 윤리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 조례안
5. 완도군 정책실명제 및 정책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완도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완도군 청렴계약 옴부즈만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8. 완도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완도군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10. 완도군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완도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35 완도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 완도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성규 의원 외 8명 발의)

2. 완도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규 의원 외 8명 발의)

부의된 안건

3. 완도군 취약계층 마을공동 빨래방 운영 및 지원 조례안(지민 의원 발의)

4. 완도군 인공지능 활용 및 윤리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 조례안(조인호 의원 발의)

5. 완도군 정책실명제 및 정책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6. 완도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7. 완도군 청렴계약 옴부즈만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완도군수 제출)

8. 완도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9. 완도군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조영식 의원 발의)

10. 완도군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1. 완도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2. 2035 완도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완도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양훈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12건의 안건을 상정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1. 완도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성규 의원 외 8명 발의)

2. 완도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규 의원 외 8명 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완도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완도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해 주시고 의회운영위원회 지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지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지민 의원입니다. 지난 14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440호 완도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에 따라 완도군의회 의원의 국외연수제도와 관련한 기본원칙 및 절차를 명확히 하여 내실 있는 연수제도를 운영하고, 의회의 군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41호 완도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라 해조류박람회추진단이 신설됨에 따라 완도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단장'을 추가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양훈

다음은 질의 및 토론 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지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한 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도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도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완도군 취약계층 마을공동 빨래방 운영 및 지원 조례안(지민 의원 발의)

4. 완도군 인공지능 활용 및 윤리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 조례안(조인호 의원 발의)

5. 완도군 정책실명제 및 정책평가에 관한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6. 완도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7. 완도군 청렴계약 옴부즈만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완도군수 제출)

8. 완도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도군 취약계층 마을공동 빨래방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완도군 인공지능 활용 및 윤리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완도군 정책실명제 및 정책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완도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완도군 청렴계약 옴부즈만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완도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자치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해 주시고 행정자치위원회 박재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박재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박재선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442호 완도군 취약계층 마을공동 빨래방 운영 및 지원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442호 완도군 취약계층 마을공동 빨래방 운영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저소득층 및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의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마을 공동 세탁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복지사각 해소와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지원대상 및 운영방법과 운영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43호 완도군 인공지능 활용 및 윤리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디지털 기반의 인공지능 기술 발달에 따른 미래 사회를 대비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의 기술 남용이나 윤리적 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군민의 권익과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전문위원회 운영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 윤리헌장 및 행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44호 완도군 정책실명제 및 정책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완도군 정책실명제 심의 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해양치유담당관에서 관광실장으로 현행 직제 체계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45호 완도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완도군 홍보대사의 재위촉 조건을 현실성 있게 수정하고,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확대함으로써 완도군 홍보대사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46호 완도군 청렴계약 옴부즈만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복되는 유사한 법규와 역할이 대체되는 신설된 규정에 따른 본 조례의 필요성이 상실되어 폐지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 하였습

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47호 완도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례를 치룰 수 없는 저소득층 및 무연고자에 대한 최소한의 장례비용을 지원하여 사후를 편안하게 보내드리기 위한 공영장례 지원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상부상조의 공동체 의식함양을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군수의 책무, 지원대상, 및 지원방법, 비용청구 및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 과정을 거쳐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양훈

다음은 질의 및 토론 할 순서입니다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박재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한 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도군 취약계층 마을공동 빨래방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도군 인공지능 활용 및 윤리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도군 정책실명제 및 정책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도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도군 청렴계약 옴부즈만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완도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9. 완도군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조영식 의원 발의)

10. 완도군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1. 완도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2. 2035 완도 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완도군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완도군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완도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35 완도 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해 주시고 산업건설위원

회 박병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박병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병수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완도군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448호 완도군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1회용품 사용을 줄여 자원낭비를 예방하며, 일상 속에서 탄소중립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다회용기 사용을 제도적,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 하고자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군수의 책무, 재정지원,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49호 완도군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 구성 성별형평성을 맞추고, 위원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안건 발생 시 한시적으로 구성하는 방식으로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50호 완도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자율방재단 임원 연임 제한을 완화 및 협의회 성별 구성 형평성을 맞추고, 행정안전부 인감증명서 감축계획에 따른 구비서류를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51호 2035 완도 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완도군 군관리계획을 전체적으로 재정비하고, 장래 계획적인 도시 성장을 고려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완도 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찬성의견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 과정을 거쳐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양훈

다음은 질의 및 토론 할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박병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한 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완도군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완도군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완도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35 완도 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이번 회기에 처리한 안건에 대하여 완도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자구 정리는 의장인 제가 위임받아 처리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10일간의 회기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군정 질문 답변,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청취하고, 주요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보고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과 의원님들의 의견을 검토하여 군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 제안한 사항은 해당 의원님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완도군의회는 무더위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어르신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고,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집행부와 함께 힘을 보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1회 완도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산회)

(10시36분 산회)

○출석의원(9인)

김양훈 박성규 지민
박재선 박병수 조인호
최정욱 허궁희 조영식

○출석공무원

군수	신우철
부군수	이범우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관광실장	안환옥
해양치유담당관직무대리	김건규
세무회계과장	천종실
민원봉사과장	김용식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체육진흥과장	최정환
농업축산과장	이정국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해조류박람회추진단장	김준혁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지역개발과장	오현철
건설과장	김진원
안전총괄과장	이홍용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최광윤
보건의료원장	한광일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수호

○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최영미
의사운영팀장 서을식
속 기 사 정현중

제331회 완도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7월 14일(월)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완도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완도군의회 출석·답변할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완도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성규 의원 외 8명)
2. 완도군의회 출석·답변할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규 의원 외 8명)

(14시 07분 개의)

○위원장 지민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1. 완도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성규 의원 외 8명)
2. 완도군의회 출석·답변할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성규 의원 외 8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완도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완도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박성규 의원님 나오셔서 한 건씩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규 위원

박성규 의원입니다.

먼저「완도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의「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에 따라 기본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자 본 전부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

4조에는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하기 위한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공무국외출장계획서의 사전 공개 및 게시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는 공무국외출장계획서 수립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는 완도군의회가 개회중인 경우 등 공무국외출장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는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출 및 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민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민

「완도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에 따라 완도군의회 의원의 국외연수제도와 관련한 기본원칙 및 절차 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박성규 의원님의 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규 의원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규 위원

다음은 「완도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7월 1일자로 완도군 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완도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해조류박람회추진단이 신설됨에 따라 안 제2조제1항제2호에 단장을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민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민

「완도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난 7월 1일자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라 완도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박성규 의원님의 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축조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도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도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산회)

○출석위원(8인)

지민　　박재선　　박성규
박병수　　조인호　　최정욱
허궁희　　조영식

○ **전문위원** : 박영민
○ **속 기 사** : 임은주

제331회 완도군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7월 14일(월)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완도군 취약계층 마을공동 빨래방 운영 및 지원 조례안
2. 완도군 인공지능 활용 및 윤리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 조례안
3. 완도군 정책실명제 및 정책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완도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완도군 청렴계약 옴부즈만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완도군 취약계층 마을공동 빨래방 운영 및 지원 조례안(지민 의원발의)
2. 완도군 인공지능 활용 및 윤리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 조례안(조인호 의원 발의)
3. 완도군 정책실명제 및 정책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4. 완도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5. 완도군 청렴계약 옴부즈만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4시 14분 개의)

○위원장 박재선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완도군 취약계층 마을공동 빨래방 운영 및 지원 조례안」 등 6건이 되겠습니다.

---

1. 완도군 취약계층 마을공동 빨래방 운영 및 지원 조례안(지민 의원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완도군 취약계층 마을공동 빨래방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지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 위원

지민의원입니다. 완도군 취약계층 마을공동 빨래방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

안은 저소득층 및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세탁 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지원 대상 및 운영방법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운영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민

「완도군 취약계층 마을공동 빨래방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저소득층 및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의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마을 공동 세탁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복지사각 해소와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지민 의원님의 제안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취약계층 마을 공동 빨래방 운영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도군 취약계층 마을공동 빨래방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완도군 인공지능 활용 및 윤리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 조례안(조인호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도군 인공지능 활용 및 윤리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조인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호 위원

조인호 의원입니다. 「완도군 인공지능 활용 및 윤리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인공지능의 발전 및 건전한 활용과 윤리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권익과 삶의 질을 향상하고 완도군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5조에서는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전문 위원회의 운영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안 제8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사항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 안 제10조에서는 위원의 위촉 해제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4조, 안 제15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민

「완도군 인공지능 활용 및 윤리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디지털 기반의 인공지능 기술 발달에 따른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의 활용 및 보급 윤리적 인공지능 구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동시에 군민의 권익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인호 의원님의 제안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인공지능 활용 및 윤리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 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완도군 인공지능 활용 및 윤리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완도군 정책실명제 및 정책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4. 완도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도군 정책실명제 및 정책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4항 「완도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기획예산실장 한희석입니다. 의안번호 제3445호 「완도군 정책실명제 및 정책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완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사안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제6조제3항 완도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당연직 의원은 기획예산실장, 인구일자리실장, 해양치유담당관에서 해양치유담당관에서 관광실장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부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재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민

「완도군 정책실명제 및 정책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완도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현행 직제 체계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한희석 기획예산실장의 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정책실명제 및 정책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 제4항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은 계속

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예. 계속해서 제 3445호 「완도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홍보대사 재위촉 조건을 강화해서 무분별한 홍보대사 재위촉을 막고 활동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완도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의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제2항 별도의 위촉 해제가 해제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재위촉된 것으로 본다. 를 기간 경과 시 별도의 통보 없이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다만 군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 사람에 대해서는 재위촉할 수 있다라고 개정하였습니다. 또 당초 제7조3항 홍보 대사의 임무를 수행할 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필요한 경비 및 특산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조례 일부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재선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민

「완도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도군 홍보대사의 재위촉 조건을 현실성 있게 수정하고,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확대함으로써 완도군 홍보대사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 군정 홍보 활동에 대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한희석 기획예산실장의 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청렴계약 옴부즈만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

질의할 사항 아니고요. 오탈자가 있는 것 같아요. 46페이지 이 주요 내용 세 번째 줄에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활도로 한 것 같은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예. 수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선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완도군 정책실명제 및 정책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도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 완도군 청렴계약 옴부즈만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도군 청렴계약 옴부즈만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 제5항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천종실

세무과장 천종실입니다. 의안번호 제 3446호 「완도군 청렴계약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2년 1월 16일 날 제정이 되었습니다.

제정 당시와 달리 본조례의 역할과 중복되는 유사한 법규인 2020년 9월 25일 날 제정된 「완도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와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그리고 2011년 11월 28일 제정된 「완도군 계약 심의 업무 처리 규칙」 그리고 2011년 7월 11일 제정된 「완도군 일상 감사 규정」 등이 신설되어 본 조정의 필요성이 상실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청년계약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선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민

「완도군 청렴계약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복되는 유사한 법규와 역할이 대체되는 신설된 규정에 따라 본 조례의 필요성이 상실되어 폐지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천종실 세무회계과장의 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청렴계약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회계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완도군 청렴계약 옴부즈만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6. 완도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도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 제6항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가족행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가족행복과장 박미정입니다. 의안번호 제3447호 「완도읍 공영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무연고 시설, 시신 등의 처리 및 가족해체와 빈곤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취약계층에 대하여 장례를 지원하여 고인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조례 제정의 목적부터 안 제11조 안 제12조 지원 결과 관리 및 비용 환수까지입니다. 세부 내용은 부침재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도읍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민

「완도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

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례를 치룰 수 없는 저소득층 및 무연고자에 대한 최소한의 장례비용을 지원하여 공영장례 지원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공동체 가치를 실현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박미정 가족행복과장의 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족행복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을 하였으므로 촉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완도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산회)

○출석위원(8인)

박재선　　박성규　지민
박병수　조인호　최정욱
허궁희　조영식

○출석공무원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세무회계과장	천종실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 전문위원 : 박영민
○ 속 기 사 : 임은주

제331회 완도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7월 14일(월)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완도군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조례안
2. 완도군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 완도군 지역자율방재단 웅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35 완도군 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의견 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 완도군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조례안(조영식 의원 발의)
2. 완도군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3. 완도군 지역자율방재단 웅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4. 2035 완도군 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의견 청취의 건 (완도군수 제출)

(14시 32분 개의)

○위원장 박병수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완도군 다회용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4건이 되겠습니다.

---

2. 완도군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조례안(조영식 의원 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완도군 다회용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조영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 의원

조영식 의원입니다. 「완도군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완도군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하여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등을 줄임으로서 자원낭비를 예방하고, 생활

속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책무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을 안 제7조에서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문희

「완도군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자 자원낭비를 예방하며, 일상 속에서 탄소중립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다회용기 사용을 제도적 지원을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영식 의원님의 제안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완도군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도군 다회용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완도군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도군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환경수질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환경 수질관리과장 위남환입니다. 의안번호 제3449호 「완도군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정 위원은 위촉직 위원회의 성별 균형을 맞추고 안건 발생 시에만 위원회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심의 과정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 성별 균형 유지 사항에 대해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부정한다.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 10분의 6을 추가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기존의 임기 관련 조항은 삭제하며 위원회는 안건 발생 시 구성하여 이미 의결 후 자동 해산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완도군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문희

「완도군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의 성별 구성 형평성을 맞추고, 위원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안건 발생 시 한시적으로 구성하는 방식으로 일

부개정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위남환 환경수질관리과장의 제안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완도군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질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수질관리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완도군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완도군 지역자율방재단 웅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완도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홍용

안전총괄과장 이홍용입니다. 의원번호 제3450호「완도군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행정안전부 인감사무 정비 계획에 따라 재해 보상 청구 시 인감 증명서 제출을 삭제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자율방재단 임원 및 임무, 별지 서식 등은 일부 수정하여 내실 있는 자율 방제단 운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자율방재단 단장 등의 임원의 임기를 횟수에 상관없이 연임이 가능토록 개정하여 연속성 및 재난 대응력을 강화하고자 하였고,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지정하였으며, 또한 별지 서식의 출입증 개정 및 재해보상 청구 시 인감증명서 요구를 삭제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완도군 지역 자율 방제장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부 개정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문희

「완도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자율방재단 임원 연임 제한을 완화 및 협의회 성별 형평성을 맞추고, 행정안전부 인감증명서 감축계획에 따른 구비서류를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이홍용 안전총괄과장의 제안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완도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

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완도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2035 완도군 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35 완도 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의사일정 제4항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오현철

지역개발과장 오현철입니다.

의안번호 3451호 「2035 완도 군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안 군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추진 사항, 관리계획, 주요현황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18년 완도군 관리계획 수립 이후 국립 난대수목원, 국립해양수산 박물관 유치, 해양치유센터 조성 등의 지역 여건 변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 장내에 계획적인 도시 성장을 고려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읍면의 체계적이고 균형 있는 계획 수립 및 현실화를 위하여 용도지역, 지구, 구역, 군 관리, 군 계획시설 등 완도군 관리 계획 기정 사항을 전체적으로 재정비하기 위함입니다. 2022년 3월 용역을 착수하여 4월 읍면 사전 주민 설명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고, 10월 완도 주요 사업계획 의견수렴과 토지적성평가 및 도시기후 변화 저해 취약성분석 전략환경 영향평가 등 기초 조사를 마치고 2025년 6월 23일부터 7월 10일까지 주민 공람 공고 및 제 2차 읍,면 주민 설명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오늘 군의회 의견수렴 후 관계기관 협의, 군 계획위원회 자문, 전라남도 승인 신청 등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2026년 4월 승인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관리계획 현황은 본 사업을 용역을 맡고 있는 도화 엔지니어에서 세부적인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구영 상무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엔지니어 상무 이구영

이구영 이라고 합니다. 기본 재정비는 저희가 5년마다 이렇게 타당성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법적으로 수립하는 계획 내용이 되겠고요. 당초 관리계획 재정비는 2018년도에 수립이 돼서 저희들이 한 6년여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그동안에 민원 사항이라든지 그런 정책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사전에 반영을 하고 용도 지역지구, 용도구역까지에 대한 사항들은 전라남도에서 결정권을 갖고 있고요. 15m 이하의 도로 같은 경우에는 또 군에서 결정할 수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 행정 절차 이행에 대한 사항하고 전남도 용도지역, 지구 구역에 대한 사례를 이번에 이제 계획 내용을 반영했던 것들이 있거든요. 크게 유형별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업 배경 및 목적은 저희 이제 재정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6개월 기간을 통해서 용도 지역 지구라든지 군계획 시설에

대한 결정 사항을 진행을 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 도화와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 공간의 재정비에 대한 사항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한 7가지 정도의 공정이 제반 사항으로 해서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적인 검토 기초조사 결과를 저희들이 토대로 2월부터 입안을 시작을 해서 내년 4월까지 재정비에 대한 결정 사항을 추진할 예정이 있습니다. 과업 수행 내용이거든요. 기존 계획 검토라고 하는 것들은 2018년도 기존에 관리계획 재정 수립되어 있던 내용들에 대한 적정성이나 적합성 현황과 불일치되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를 하고요. 그동안 한 6년 과정의 시간 동안 저희들이 여건 변화 완도군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이라든지, 민원사항들이라든지, 민선 판류 공약 사항에 대한 부분들까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게 되었고요. 이렇게 이제 아래쪽을 보시면 용도지역지구 구역에 대한 사항들이라든지, 도로 공원 녹지 주차장과 같은 붕괴 시설에 대한 사항들, 시설 결정에 대한 사항들은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시설들이 저희들이 장기 미집행 시설이라고 하는데 이 시설에 대한 해제라든지, 새롭게 추가되는 신설에 대한 사항들까지도 이번 재정비에 포함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업 수행 절차는 저희들이 계획적인 절차에 대한 부분들을 완료를 했고요. 행정적인 절차를 통해서 오늘 군 의회의 의견 청취를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정이 되겠고, 전남도 결정 사항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완도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에 대한 부분들을 거쳐서 전라남도에 결정 신청을 하게 되고요. 완도군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은 완도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가지고 결정 고시에 대한 사항들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다음의 절차는 전라남도에서 용도지역 지구 구역에 대한 사항들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전라남도 결정 신청 후에 관련 실과 협의라든지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하고 난 다음에 결정 고시를 통해서 법적인 효력이 발생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변경 내역에 대한 사항들은 그동안 완도군에서 도시계획법이라든지 국토계획법을 통해서 도시관리계획 재정에 대한 사항들을 이적 사항으로 저희들이 정리를 해 봤던 사항이 되겠고요. 용도지역 현황 총괄에 대한 사항들은 완도군 행정구역 전체 면적 대비 주거 상업 공업 지역과 같은 도시 지역이 약 한 2.5% 정도가 관리 지역과 농림 지역과 같은 대도시 지역의 한 97.5% 정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12개 읍,면별 관리 계획 현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임위 관련 계획에 대한 사항들은 대한민국 전 국토라든지 전라남도 제4차 관광 개발 기본계획에 대한 부분들이 수립되어 있고요. 완도군 같은 경우에는 10만 이상의 인구가 수립되어 있다 보니까 완도는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기본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자체는 완도군 종합발전 계획이라고 장기 발전 구상에 대한 부분들이 수립되게 되는데 완도군 종합발전 계획 같은 경우가 2021년도에 2030년을 목표로 수립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재정비는 완도군 종합발전 계획과의 연관성을 크게 동일하게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 이미지 분석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설문조사를 대면으로 해서 약 1,300명 정도 또 최근 1년간 또는 3개월간 언론 보도 자료를 통해 가지고 완도군을 하면 떠오르는 가장 많은 키워드라든지 이슈를 분석을 해봤거든요. 글자 크기가 가장 클수록 장보고라든지 전복, 완도타워 명사십리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많이 언급돼 있고요. 다음에 이렇게 언론 보도 자료라든지 유통에서는 관광산업이라든지 해

양치유 산업과 수산물축제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많이 언급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구 치유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인구 증가 추세에 대한 부분들이 미비하게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추세가 진행이 되고 있고 산업 구조에 대한 부분들 또한 대부분의 종사자가 3차 산업에 진행이 되고 있고, 관광객 같은 경우에도 평균 한 240만 명 정도의 대부분은 비슷한 수준을 연도별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슈 되는 것들은 자연 환경적인 측면에서 수산자원 보호구역과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이 결정이 되어 있는데 82년도부터 우수한 자연 환경을 보호하고 있는 지역적인 특수성을 감안해서 구역이 결정되어 있는데 이런 환경 보존으로 인해서 행위제약으로 인한 지역 활성화에 대한 부분들은 저감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지역 현황 산업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크게 5가지에 대한 아이템들을 뽑아냈거든요. 먼저 해양 치유 산업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난대수목원, 그리고 수산 박물관에 대한 부분들이 2026년과 2030년까지 목표로 진행 중에 있고요. 특히 광주~완도간 고속도로에 대한 부분들은 전체 공개에 대한 사항들은 29년까지 목표로 예정을 하고 있지만 1년 6개월 정도의 지금 공개 기간이 연장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현황 정보 분석에 대한 사항들은 앞서 말씀드린 계획 여건 변화라든지 사교육 관련 계획에 대한 사항들을 저희 전체적으로 완도군에 대한 현황 분석을 통해서 지역 현안 사항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를 했고요. 이에 따라서 치유 산업에 대한 활성화 이를 통해서 관광 서비스 여건에 대한 부분들이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기 발전 구성안입니다. 대부분의 내용들이 군 장기종합발전 계획과 내용을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치유 1번지 청정 완도에 해당되는 미래 비전을 설정을 하고 있고 2030년 종합발전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미래 비전과 목표와 가치 실현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인구 지표 설정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올해 6월까지 주민등록 인구가 약 4만 5천 명 정도가 지금 완도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인구 지표 설정에 대한 사항입니다. 자연적인 증가와 함께 사회적 증가 인구에 대한 부분들까지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향후 10년 뒤에 2035년도에 완도군에서 상주하는 거주 인구에 대한 지표를 설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통계청에서 취재하고 있는 2035년 완도는 약 4만 2천 명 정도가 거주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자연적 증가 인구와 함께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사회적 증가 임무라고 하는 해양 치유와 사업 계획이라든지 국립 난대수목원과 수산 박물관을 통해서 유입되는 사회적 증가 인구를 감안을 했을 때 2035년 이제 완도군 목표 연도 계획 인구는 5만 5천 명 정도가 상주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공간구성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기존 재정비하고 근본 재정비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크게 도시 발전 축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이제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신설에 따라서 그전에 해남과 강진 도시 발전 축을 저희들이 해남으로 발전 축을 설정을 했고요. 나머지는 해양 관광 축에 대한 부분들로 보기 위해서 보길에서 금당까지 이어지는 관광 축을 추가로 새롭게 설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활건 설정에 대한 부분들은 크게 3개 생활권으로 구분되어 있고요. 완도산의 해양 산림 치유 중심권 그 위에는 청정 해조류 특화권, 노화는 역사 문화 관광권으로 생활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안입니다. 이제 2035년도 저희들이 목표 계획 인구 5만 5천

명에 해당되는 주거 상업 공업 지역에 대한 용지를 추정한 값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지표 설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들은 지표 설정에 대한 계획 인구 수를 기준으로 용지별 소요 면적을 산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산출됨에 있어도 불구하고 현재 완도는 4개 도시 지역에 대한 저희들이 이제 미개발지 현황 분석을 해봤습니다. 전체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농업지역을 분석을 해봤더니 지금 4개 도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거 지역은 약 한 28.9%가 상업 지역은 3.2%, 농업 지역은 49.9%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미개발지 비율이 전체 면적 대비 3.8% 인데 주거 지역과 공업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약 한 35% 정도가 미개발지로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도시 지역에서는 이 용도 지역 면적에 대한 부분들은 과중한 상태로 남아 있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미개발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현재 상태의 용도 지역을 유지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용도지역을 설정했습니다. 이번 재정비에서 저희들이 변경 내용에 대한 부분을 일단 전체적으로 진행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군계획 시설에 대한 사항들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자동 치료제가 가장 이슈거든요. 이렇게 결정일로부터 20년이 지나면 지난 시점으로부터 결정되어 있는 시설이 자동으로 치료되는 일몰제라고 하는 것들이 법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00년도 7월 1일 이전 결정부터 2020년도 7월 1일자부터 이 자동 치료제 일몰제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아직 멀었습니까?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또 우리 의원님들이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시간을 드리고 그때하시기로.....

○도화인테리어 상무 이구영

용도 실업 지구에 대한 사항들은 전라남도 기준이 있거든요. 그 가이드라인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12개 읍·면에 대한 용도 지역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자연 취업 지구에 대한 사항들하고 과수 부지 같은 경우에 이제 소규모 관광단지로 정책 사업으로 관련 실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수산자원 보호 구역에 해당되는 용도구역 변경에 대한 사항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외에 시설 결정에 대한 부분들, 도로라든지 주차장 학교 시설에 대한 변경 사항이 거의 대부분인데 이런 사항들까지 다 감안해가서 저희들이 현재 의회 의견 청취, 오늘 완료를 하게 되면 완도군에 있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위원회 심의 과정을 통해서 내년 4월 전라남도 결정 사항에 대한 부분들을 완료하는 것으로 지금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본 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허궁희 위원

이걸 잠깐 들어보니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질문 답변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게 지금 우리 완도 발전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이대로 가느냐? 아주 중요한 것 같은데 이렇게 급하게 들을 이유가 있나 싶어요. 지금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는데 지금 내용이 지구 단위 변경과 수산보호지역, 보존지역 이런 거를 지금 해제하고 안 하고의 차이죠?

○도화인테리어 상무 이구영

맞습니다.

○허궁희 위원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단순하게 받아들인다는

건 한 번 정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돼요. 다시 들어도 돼요. 왜 내가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수산보존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묶어 있는 대로 놔둔다면, 우리 군민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순히 넘어갈 일이 아닌데, 왜 이렇게 재촉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한 내용은 이번 용역에서 얼마나 많은 지역이 개발이 될 수 있고, 변경이 되는지, 우리 의원들이 알아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조정하더라도 우리 의원들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좀 들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박병수

예.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다른 시간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일정을 좀 별도로 잡아서 집행부에서는 한번 별도로 보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허궁희 위원

제가 봐서는 꼭 그렇게 조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화인테리어 상무 이구영

회기 전 일정 확인해서 알려주시면 다음 일정을 잡아서 한번 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예. 그럼 일정은 별도로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장과 관계 공무원 한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견 청취 건에 대해서는 다음 일정으로 기회를 잡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연기하면서 종결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산회)

○출석위원(8인)

박병수　박성규　지　민
박재선　조인호　최정욱
허궁희　조영식

○출석공무원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안전총괄과장	이홍용
지역개발과장	오현철

○ 전문위원 : 전문희

○ 속 기 사 : 임은주

제331회 완도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7월 17일(목)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35 완도 군관리계획 재정기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 2035 완도 군관리계획 재정기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완도군수 제출)

(13시 5분 개의)

○박병수 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35 완도 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1건이 되겠습니다.

---

2. 2035 완도 군관리계획 재정기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완도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35 완도 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1차 회의에서 제안설명이 끝났기 때문에 기획사에서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사에서 읍·면별 현황을 설명해 주세요.

○도화엔지니어상무 이구영

예. 저번에 보고 드리다가 일정상 여유치 않아서 오늘 다시 한 번 더 뵙게 되었는데요. 오늘 차분하게 현황에 대한 부분과 변경사항에 대한 부분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본 재정비에 앞서 앞번 재정비는 2018년도에 관리계획 재정비에 대한 사항이 동일하게 이루어졌었고요. 이제 근거 법을 요구해서 5년마다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하도록 국토교통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적인 근거 하에 시간이 도래가 되면 진행하는

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6년여 동안의 여건 반영에 대한 사항이라든지, 민선4기 공약 사항이라든지, 그 동안에 정책사업으로 해서 추진해야 될 것, 체육 시설이라든지, 소규모 관광단지라든지, 이제 국내에서도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것들에 대한 상황하고요. 한 6년간의 민원 사항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농림 지역이라든지, 자연환경 보존 지역이라든지, 생산 관리 지역에서 계획 관리 지역으로의 인도적 변경 처리라든지, 도로 공원 주차장과 같이 군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데 이게 오랫동안 집행되지 않고 미집행 시설로 남아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자금권 규제에 해당되는 부분들에 대한 예언 사항이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총괄적으로 이번 재정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읍·면별 전체적인 현황인데 혹시 기존에 저희들이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들에 앞서서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것들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그 사항을 먼저 조금만 설명을 드리고 이어 현황에 대한 부분들을 이어가는게 이례적인 측면에서 좀 좋을 것 같아가지고요. 가이드라인 설명을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현황에 앞서서 근본 해석에서 크게 이슈되는 것들에 대한 기능들 몇 가지 항목만 앞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토지 이용 계획안에 대한 사항은 용지별 수요성 값에 대한 부분들인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10년 뒤에 완도군 관리계획 재정비에 대한 목표 연도는 앞으로 10년 뒤거든요. 그래서 앞에 보시면 2035호 완도군 관리계획 재정비라고 돼 있는데 2035년이 이 근본 재정비의 목표 연도입니다. 10년 뒤에 군관리계획에 대한 전체적인 토지 연계에 대한 사항을 이번에 결정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토지 연계에 대한 기준이 되는 게 뭐냐하면 이 목표 연도 기준에 계획 인구입니다. 저희가 이 계획 인구를 사회적 증가 인구까지 포함을 시켜서 5만 5천 명을 설정을 했거든요. 5만 5천 명에 해당되는 토지 이용 계획상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에 대한 분석을 했고 이 분석 결과는 완도읍, 금일읍, 노화읍, 군외면에 해당되는 도시 지역을 근거로 기준으로 저희들이 미개발지 현황 분석을 했거든요. 근본 재정비에서 추가적인 주거 상업 공업 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확장은 없었던 거에 대한 근거는 뭐냐면, 이렇게 4개 도시 지역에 대한 미개발지 현황을 분석을 해봤더니 주거 지역은 약 한 29% 정도가 상업 지역은 3%, 공업 지역은 거의 절반 정도가 개발되지 않는 현재 나대지 미개발지로 남아 있는 가용지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전라남도 도시계획의 가이드라인에 의거 해가지고 미개발지에 대한 개발 사업 순위가 일단 1순위고 그리고 난 다음에 국공유지에 대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유효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부분들을 발굴을 하게 됩니다. 맨 마지막에 이제 외연적인 확산이라든지 재개발에 대한 것들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이 현황 분석을 토대로 해서 추가적인 용도 지역의 면적 수요 면적에 대한 것들은 추가적으로 필요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근본 재정비에 비해서는 현재 용도지역을 유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준을 삼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전라남도 가이드라인을 잠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기 이제 시장군수와 전남도지사,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시켰을 때 22개 시군에 대한 컨트롤 할 수 있는 전남도 입장에서의 가이드라인이거든요. 첫 번째 기준은 구체적인 개발 계획에 대한 사업 계획 내용이 전제 했을 경우에 도시 지역 내에서 예를 들자면 주거에서 상업 녹지 지역에서 주거 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개발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의 용도 지역 제한이 들어갔을 때는 해당 사항에 대한 부분들을 반려를 시키고 재공람 절차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 다시 전라남도에 재신청하는 것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설정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구체적인 개발 사업을 갖고 용도지역으로 변경하는 것들이 아니고 이렇게 자투리 토지에 대한 용도 지역 현실화라든지 도로가 개설되어 있고, 제3조는 일반 주거지역에 의거해서 주택 사업이 완료되어 있는데 이렇게 자연녹지 지역으로 일부 남아 있는 잔여제들이 있을 경우에는 용도 지역의 현실화 차원에서 면접 지역의 3조 일반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비결정 시 누적 지역에 대한 사항들은 당초 저희들이 이제 계획 관리 지역으로의 관리 지역 세분화 작업을 할 때요. 관리 지역에서 토지 적성 평가 결과 등급에 따라서 보전 관리 지역에 대해서 생산 관리 지역, 계획 관리 지역 관리 지역에 대한 3개 용도지역이 부여가 가능한데 그때 이렇게 가나다라마에 대한 토지 적성에 대한 등급이 이제 부여가 되거든요. 가나 등급 같은 경우에는 보전 적성이 강한거고, 라마 등급 같은 경우는 개발 적성이 강한 거고 4등급은 개발 또는 보전에 대한 중간 적성 값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럴 때 라마 등급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계획 관리 지역으로 넘어가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누락 지역이거든요. 이런 누락 지역에 대한 것들까지도 검토를 해서 반영을 시켜주는 부분들이 되겠고요. 용도지역 현실화에 대한 사례 같은 경우에는 자체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개발 지역성 50% 이상이라고 하는 것들은 적법 면적이 50% 이상일 경우에는 1만 제곱미터 이상에 해당되는 일정 규모 이상을 확보했을 때는 용도 지역 현실화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사례가 비도시 지역 관리 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 지역에서 계획 관리 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시청이거든요.

거의 800건이 넘는 민원 사항들 중에서 비도시 지역에 대한 것들 한 90% 정도가 유사 사례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규모 지역 1만 제곱미터 미만에 해당되는 것들은 일정 규모 기준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1만 제곱미터 미만에 해당되는 필지 같은 경우에는 주변 지역이 이렇게 하얀색 바탕에 사선으로 처리되어 있는 것들이 현재 지금 용도 지역의 계획 관리 지역이거든요. 계획 관리 지역과 인접돼 있는 것들에 한해서만 용도 지역이 계획 관리 지역으로 변경이 가능하고, 이렇게 보존 관리 지역이라든지 생산 관리 지역 안에 섬처럼 남아 있는 경우에는 면접 지역의 계획 관리 지역이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계획 관리 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개발행위 허가를 건축 허가를 하더라도 계획 관리 지역과 연접되어 있는 필지의 건축 허가 또는 개발행위 허가가 완료되야만 앞으로 5년 뒤에 계획 관리 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말씀하신 12개 읍면에 대한 근본 군관리계획변경이 전체 내용이거든요. 총괄표에 대한 부분들은 전체가 용도 지역과 시설이라든지 농업진흥지역과 보전 산지 해제 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구역까지 다 포함하고 있고요. 전체 건이 802건 정도가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제시가 됐었고 이 중에 12개 읍면별 현황에 대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들은 공유수면매립 지역과 같은 미지정 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부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에 대한 변경 사항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근본 재정비에서 이걸 그대로 수용해 주는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

머지는 취락 지구인데요. 이거는 집단 취락이 20% 이상 밀집해 있을 때 자연 취락 지구로 지정을 해서 건폐율과 건축물에 대한 용도를 완화받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부분이 한 89건 정도가 들어왔고요. 나머지는 군 정책 사업과 기타 주민 민원에 대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책 사업과 민원 사항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농업진흥지역이라든지 보존산지 해제 지역에 대한 전체 800건에 해당되는 것들에 대한 전체 읍·면별 현황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적 산업에 해서 추진하는 것들은 전남도 과수 부지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관광단지 지정을 위해서 용도 지역에 대한 부분들하고 수산자원 보호 구역에 대한 해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남도 결정 사항에 의거해가지고 이번에 계획 관리 지역으로의 용도 지역 변경과 수산자원 보호 구역에 대한 해제 요청을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수산자원 보호 구역에 대한 부분들은 완도 같은 경우에는 해상국립공원과 수산자원 보호구역에 대한 지정이 80년도부터 진행이 돼서 지금까지도 규제 사항에 대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환경적으로는 보존 가치가 높기 때문에 지정 요건에 해당이 됐지만, 현재로서는 이제 규제적인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민원인 입장에서는 음식점이라든지 숙박 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인지가 안 되는 상황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해상국립공원과 수산자원 보호구역에 대한 사항들은 각각의 관계 부처에 대한 협의와 전라남도 도지사 승인권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개별 필지 민원에 대한 용도 구역 변경 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근본은 이렇게 과수 부지로 이용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최초의 시작은 유원지로 결정을 해서 사업 시행에 대한 부분들을 추진 중에 있어요. 지금은 소규모 관광단지 지정을 통해서 사업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했던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국립해양수산박물관 입지에 따라 가지고 주변 연계 시설에 대한 도입을 통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라고 하는 취지였거든요. 검토 결과 이제 문화시설에 대한 신규 결정 사항을 하고 도로 신설에 대한 진입도에 대한 부분들을 확폭을 하면서 금번 문화 시설 결정과 함께 계획 관리 지역으로 해서 용도지역 변경과 용도 구역 해제, 수상자원 보호 구역에 대한 해제 사항을 똑같이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은 군에서 정책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 용도 지역과 용도 구역에 대한 사항들을 변경 사항에 대한 부분들을 추진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별적인 민원에 의한 용도지역 변경과 수산 자원이라든지 바다 해상국립공원에 대한 변경 사항들은 금번 이 정책사업과는 무관하게 해당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공개 시설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교통광장으로 결정되어 있는 것들 중에 일부 남측에 미집행 부분이 있어서 미집행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번에 폐지했던 사례가 되겠는데 군교육 시설에 대한 폐지 사항은 물론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게 1999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 결정을 내렸거든요. 이게 저희가 도시계획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62년도부터 제정이 돼서 운영을 해오면서 완도도 70년도에 도시계획이 최초로 수립이 돼서 운영 중에 있는데, 이 도시 지역마다 도로 공원, 녹지, 주차장과 같은 시설들을 결정을 해서 20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집행되지 않고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라고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6월 30일자부터 시행을 해서 결정일로부터 20년이 도래되는 날, 2020년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2020년 7월 1일자부터 20년이 넘어가는 시설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실효될 수 있도록 일

몰제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 완도 같은 경우에는 미집행 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현재 그렇게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구라는게 구역 내 분해 지구라든지 별도의 다른 시설로 도로라든지 공원으로 결정되어 있는 것들도 20년이 되면 자동으로 실효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2010년 결정 이후에 조성되지 않은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압수 목적이 됐던 모든 시설이 53조 시설에 해당이 되거든요. 자동으로 실효되기 때문에 근본 재정비에서는 재정적 지원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폐지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사항이거든요. 이거는 자연녹지 지역에서 1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변경 요청하셨던 부분들이고 토지 이용 현황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이 토지 적성 평가 등급이라고 하는 게 가나다라마 5가지 등급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토지에 대한 적성이 가나등급일 경우에는 보존 적성이고 라마등급일 때는 개발 적성이고 다는 중간 적성이거든요. 이런 토지마다의 적성 평가 등급을 토대로 해서 전체 면적에서 50% 이상이 개발 적성이냐 보전 적성이냐에 따라서 용도 지역에 대한 변경 사항이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생산 관리 지역에서 계획 관리 지역으로 용도 지역 변경을 요청했던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도시 지역 외곽에 도시 지역과 비도시 지역 내에 경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흔히 말하는 이 성장 관리 선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기존 시가지에서의 도시의 외연적 확산을 방지하고자 도시 지역 외곽에는 녹지 지역 결정을 하거든요. 자연녹지 지역, 생산녹지 지역, 보전녹지 지역에 대한 부분들인데 이 자연녹지 지역에서 개발행위 허가, 건축 허가가 완료되어 있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 주거 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요청을 하신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자연녹지 지역은 건폐율이 20%고 계획 관리 지역은 건폐율이 40%입니다. 도시 지역 내에 자연녹지 지역에 있다가 주거 지역으로 들어올 수 없는 필지에 대한 민원의 거의 대부분들이 우리 비도시지역 계획 관리 쪽으로 용도지역 변경 신청해달라라고 하는 민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경계선상에 있는 도시 지역과 비도시 지역의 경계선상에 있는 필지들에 대한 녹지 지역들은 계획 관리 지역으로 이런 사항들이 대부분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 또한 자연환경 보존 지역에서 계획 관리 지역으로 용도 지역 변경 신청을 했던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개발 행위 허가 완료에 대한 것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계획 관리 지역으로 변경 신청이 가능한 것들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만 제곱미터 이상 단일 면적의 일정 규모 이상을 확보했을 때는 계획 관리 지역으로 변경 요청을 할 수 있는 기준에 해당이 됩니다. 이와 같이 이렇게 1,741제곱미터에 해당되는 1만 제곱미터 이하 필지 같은 경우에는 조건 사항이 뭐냐면 주변 지역이 이렇게 하얀색 바탕에 사선으로 되어 있는 계획 관리 지역과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중간에 생산 관리 지역이 한 필지라도 떨어져 있으면 그건 해당이 안 됩니다. 이게 전라남도 가이드라인이에요. 22개 시군에 대한 형평성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고 시군마다의 민원 사항을 해소하고자 이렇게 지금 현재 부여되어 있는 라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꼭 개발행위 건축 허가 같은 경우에 민원 사항 입장에서는 흰색 계획 관리 지역과 연접되어 있는 것에 개발행위 또는 건축 허가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근본 품계획 시설에 대한 변경 사항이거든요. 건축행위에 대한 사유 재산권이 지금 현재는 규제되어 있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고 근린공원으로 통계 시설이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에 결정되어 있고 20년이 되면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부분들인데 이제 근린공원 같은 것들이 문제입니다. 나머지 도로 주차 상가 같은 경우에는 일정 폭이 15m에 연장이 몇백 미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린공원은 단일 면적으로 해가지고 면적이 61만, 100만 이 정도의 면적들을 갖고 있고 안에 들어와 있는 편입 면적 소유자들의 현황을 보시면 거의 대부분이 사회주의로 분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토지 보상 절차를 거치고 공원 조성 계획을 수립을 통해서 공원을 조성을 하셔야 되는데 시군에서 1년 세입 세출 예산서를 보시면 시설 사업회의 투자자의 입증이 5%를 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적인 사회주의 보상을 통해서 조성 사업까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3년이라는 기간에 많은 재정적인 비용들이 추가가 돼야 되는데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20년이 도래되는 시점에 재정적 지원이 불가능한 것들은 사유재산권 침해가 오래되기 때문에 이것들은 자동으로 취소될 수 있게 일몰제를 시행하고 있고 근린공원 또한 지금 현재 10월 달이 되면 20년 치료 대상에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문제점이 뭐냐면 공원으로서의 지금 현재 기능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연안에 연결되어 있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토지 이용 현황 자체도 보시면 자연환경적인 부분들이 되게 양호한 측면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내부 동선 체계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위해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조정 계획을 통해 최소한의 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이것 또한 또 재정적 지원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미 자연 환경 자체가 양호하기 때문에 근린공원에서 해제되고 난 다음에 해제 지역에 대한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이거는 이제 도로선형 변경요청에 대한 사항이거든요. 위성에서 보시면 이렇게 지금 현재 민원으로 제시하신 이제 주택이 있는 거고요. 이 주택에 이렇게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이게 2017년도에 도로로 최초로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민원으로 들어왔던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현재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내에는 현황 도로를 통해서 주택 택지로의 접근이 지금 현재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면 도로에는 개발되지 않고 남아 있는 나대지에는 지금 현재 전부 다 접근이 불가능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락 지구가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것에대한 부분들은 근본 재정비라든지 지구 단위 계획도 마찬가지지만 현황 도로를 기준으로 최소한의 도로 폭 또는 주택이 있는 필지에 대한 건축물 저촉을 최소화시키는 차원에서의 시설을 축소 폐지를 검토를 하는 게 우선입니다. 우선적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민원으로 제시하신 이 도로로 결정돼 있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사항들은 재정적인 지원과 현황 도로를 통해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금번 도시계획 도로를 폐지했던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완도읍에 대한 사례가 나머지 11개 읍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례들입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크게 도시 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이 있고요. 녹지 지역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비도시 지역은 농림지역이라든지 생산보전관리 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요청이 90% 이상이다. 그리고 용도구역 같은 경우에는 수산자원 보호 구역 같은 경우에는 개별 민원에 따라서 해제되는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군 계획시설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상이면 장기 미집행 시설이고 20년이 지나면 자동 실효 일몰제 대상이기 때문에 공교육 시설에 대한 사안들은 전체적으로 다 걷어내버리

면 좋은데요. 이게 도시계획 도로가 그어져 있는 상태에서 필지를 매매하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나중에 이 도로가 개설이 되면 나는 거기에 이제 집을 짓고 살겠다라고 해가지고 매매를 했던 부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동시에 일괄적으로 해제를 했을 경우에는 또 영민원에 대한 부분들이 발생이 될 우려가 가장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정적인 지원이 불가능한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20년이 도래되는 시점에 자동으로 실효될 수 있게 그 법을 적용을 하고 있고요. 이전에 민원 사항으로 시설에 대한 폐지 요건이 들어왔을 때는 도로에 등록되어 있는 개별 필지마다의 사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받아서 들어와야만 그 시설에 대한 폐지 또는 개설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같습니다. 이거는 금일읍이거든요. 숙박시설하고 음식점 운영을 위해서 의도적 변경 요청을 하셨던 부분이거든요. 전체 면적이 약 26만 7천 제곱미터에 해당되는 농림 지역을 계획 관리 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요청을 하셨던 부분들입니다. 12개 읍면 중에 이렇게 유사한 계획 관리 지역으로 용도지역, 평균 면적 대규모 면적으로 용도지역 변경한 것들이 전체적으로 6건이거든요. 6건 중에 저희들이 3건은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구역을 추가를 씌웠고요. 나머지 3개는 지구 단위 계획을 씌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계획 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요청을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업이 해당되는 토지 이용 현황들이 이미 적법하게 훼손이 됐다든지, 숙박시설과 음식점들이 일부 운영되고 있는 것들, 해수욕장 주변에 여건 변화에 따라가지고 이 기능적인 부분들 서비스 정도의 기능들을 추가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용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획 관리 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신청이 들어가야 되는데 실제 지금 금일과 6개 지역에 대한 사항들은 계획 관리 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가지고 서비스 기능의 숙박시설과 음식점을 들어갈 수 있는 기능적인 부분들이 보완, 보충이 쉽지 않은 지역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지역개발과 하고 5년 뒤에 재정비, 앞서 5년 전에도 안 됐는데 이번에도 또 제한조차 안 하면, 5년 뒤에 이런 민원 사항들을 똑같이 계속해서 되풀이 될 텐데 이번 재정비에서 해보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는데 전남도에다 결정 신청을 해보자라고 해서 저희들이 최근에 전남도역에서 추진했던 6개 시군에 대한 관리계획 재정비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 요청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을 했었거든요. 그때 지금 완도군에 대한 계획적인 변경 면적 범위 대상들이 한 160% 정도를 초과 해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렇게 계획 관리 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하는데 지구 단위 계획을 씌우는 이유는 뭐냐면 숙박 시설에도 음식점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변경 요청을 하셨는데 지가 상승이라든지 부동산 투기적인 목적에 의거해서 여건만 지금 반영시켜서 가는 것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전남도에서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고 하는 안전장치를 걸어놓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결정이 되면 3년 이내에 지구 단위 계획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 안에 도로 공원 녹지 주차장을 또 도시계획선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어야 돼요. 그럼 재정적인 지원이 집행이 안 되면 또 장기미집행 시설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씌웁니다. 조건부 사항으로. 그러나 지구 단위 계획 수립에 대한 결정권은 완도군에 위임돼 있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한 사항들은. 그래서 이게 계획 관리 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바뀌었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계획 수립이 안 되면 3년 이내에 계획 수립이

안 되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시효가 되면서 용도 지역도 똑같이 계획 관리 지역에서 농림 지역으로 자동으로 환원돼 버립니다. 이게 안전장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6개 대규모 계획 관리 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요청했던 것들은 금번에 저희들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결정을 해서 전남도에 이관을 할 거고요. 전남도 심의 과정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내려올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많이 크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 안에 포함을 해서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인데 2-5호선에 대한 북측으로 우회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변경 요청을 했던 부분들이거든요. 기존에 이 선형이 북측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이 남측으로 2-5호선에 대한 부분들이 변경되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이 북측으로 조정이 됐던 것들이 있고요. 정책 사업에 의한 시설 결정에 대한 사항들은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것들, 기존 건축물에 대한 저촉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환경 수질관리과에서 군계획 시설 폐기물 시설에 대한 변경 사항을 요청했던 부분들이 되겠고요. 이거는 유수지 신설에 대한 사항으로서 관계기관 협의 시 추가 상세 사업 계획에 대한 사항들을 이번 저희들이 이제 의회 의견 청취가 끝나면 다음 주부터 실과 사업소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추가적으로 협의 절차를 진행을 하거든요. 그때 혹시나 또 누락되어 있다든지 사업 계획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재정비에 다시 태워가지고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체육시설 신설입니다. 군계획 시설에 대한 사항을 신설을 해서 이번에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는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부분을 일정 부분 폐지하는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거 지역 내에 연결돼 있던 도로 같은 이렇게 현황이 개설되어 있는 부분까지만 저희들이 해당 요건을 이제 반영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노화읍입니다.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수지 신설 요청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이것도 이번에 저희들이 관련 실과 협의할 때 상세 사업 계획에 대한 내용을 통해가지고 구역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천항 내 휴게쉼터 조성에 따라서 미지정 지역을 계획 관리 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광과하고 산림휴양과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난대수목원 조성에 따라가지고 관광객들을 위한 서비스 시스템을 추가적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계획관리 지역으로 지원했던 부분들입니다. 농업축산과 사항은요. 친산업 거점센터 조성을 위해서 기존에 폐교됐던 학교 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폐지하고 일반 음식점이라든지 운영하기 위해서 용도지역을 자연 환경 보전 지역에서 계획 관리 지역으로 변경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지금 현재 다목적 복지회관에서 운영 중에 있는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기능들을 추가적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생산 관리 지역에서 계획 관리 지역으로 변경을 요청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들은 지금 다 용도지역 변경 요청에 대한 사항들 정책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은 100% 다 수용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양바이오 연구단지 조성을 위해서 본 관리 계획에 대한 변경을 추가적으로 남측에 있는 연구소 위쪽에 추가적으로 연구 시설을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행복주택 건립을 위해 가지고 기존의 연구 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던 이 하단부에 있는 면적을 연구 시설에서 제척을 하고 행복주택을 사업을 추진하기 위

해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인구 일자리 정책실에서 해양 민간 사업 유치를 위해 가지고요. 진입도로 신설에 대한 요청 사항을 반영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길면입니다. 이제 민원 사항에 대한 사항들이라서 넘어가고요. 약산 같은 경우에는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을 공동구판장에서 음식점으로 용도 변경에 대한 사항들을 통해가지고 운영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용도지역 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산 관리 지역에서 계획 관리 지역으로 용도지 변경 요청을 하게 되어 있고요. 지역개발학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의 용도지역 변경, 농림 지역과 생산 관리 지역을 계획 관리 지역으로 변경됩니다. 이거는 약산 하동 마을 인원 계획 관리 지역으로 변경한 것들이거든요. 농어촌 정비법에 의거해가지고 이미 한옥마을이 조성이 되어 있고요. 주변 지역 일대를 계획까지 지금 확산을 해서 관리하겠다라고 하는 취지입니다. 환경 수질관리과에서 제시했던 6개 읍, 면 폐기물 처리 시설에 대한 변경 사항을 반영을 한 사례가 되겠고요. 이거는 체육진흥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체육시설 이번에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신설에 대한 사항은 크게 이번에 정책 사업으로 두 개는 신설해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청산면입니다.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숙박시설과 음식점 운영을 위한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이라고요. 이거는 농림 지역과 생산 관리 지역에서 계획 관리 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 요청을 함과 동시에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한 수립 내용 구역 지정을 통해서 향후 계획 수립에 대한 사안까지 반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편재 중앙을 관광지로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음식점이라든지 용도 제한에 따라가지고 활성화되는 저해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주변 지역 일대를 생산 관리 지역과 농림 지역을 계획 관리 지역으로 바꾼 사항입니다. 환경 수질과 효과 아까 말씀드렸듯이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변경 사항이고요. 지역개발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민원 사항과 연접돼 있긴 하지만 이 숙박시설과 음식점 운영을 위한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농림 지역과 생산 관리 지역 일부를 계획 관리 쪽으로 공동 지원을 한 거고요. 이 또한 지구 단위 계획 수립을 통해서 향후에 계획 수립 내용까지 연결시켜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보기 내역입니다. 환경 수출관리과인데요. 이것도 폐기물 처리 시설에 대한 변경 사항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환경 수술 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폐기물 처리 시설에 대한 변경 사항입니다. 이 정책 사업에 대한 사항들은 생일면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이제 이엘리조트라든지 골드밸리 리조트와 같이 주변 지역에 대한 계획 관리 지역의 용도지역 변경과 함께 지구 단위 계획 수립을 통해가지고 계획 수립 내용까지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12개 읍,면에 대한 정책 사업에 총괄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장

본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욱 위원

완도군 들어가는데가 어딘가요? 여기 우리 지금 장도 있는데..... 거기 아마 기념관도 있고, 그 쪽에 수산물 박물관도 거기로 들어오고 할 건데 어느 정도 식당도 들어올 수 있게 해놔야 되지 않나 싶어요.

○도화엔지니어 상무 이구영

이게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연안 지역 일대는 내륙 지역에서의 500m까지가 지금 수산자원 보호 구역으로 묶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별적인 민원에 의한 계획 관리 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저희들이 정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해양수산박물관이라든지, 소규모 관광단지라든지 그리고 수산 박물관 주변 지역 일대를 또 문화 시설로 결정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이번 문화 시설로 결정을 해가지고 박물관과 함께 그 기능을 지원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시설 결정을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개별 필지에 대한 민원 사항들은 각기 이제 민원 사항으로만 정리를 해가지고.....

○최정욱 위원

지금 이거 하고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도화엔지니어 상무 이구영

예. 맞습니다.

○박병수 위원장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양훈 의원

간단하게 하나 물어볼게요. 저희가 지금 군에서 공사를 해서 매립한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번에 포함이 된 겁니까?

○도화엔지니어 상무 이구영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양훈 의원

그런데 미지정 지역이 보니까 포함이 거의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완도군이 전체적으로 미래에는 단서가 없어서 거기는 이야기도 못하고 아무도 못하는 사업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공사를 다 해놨는데 미지정 된 거죠. 그게 다시 하려고 보니까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지금 반영이 거의 안 된 것 같아서.....

○도화엔지니어 상무 이구영

저희들이 개별 민원으로 지금 빠져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미지정 지역에 대한 용도지역은 연접지역에 대한 용도 지역을 따라가게 법에 근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용도지역이 부여가 안 돼 있는 미지정들이 지금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김양훈 의원

보니까 거의 없더라고요. 많이 빠져 있는 경우가 있어서..... 지금 완도는 전체 12개 읍,면 중에 그런 데가 있는데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도화엔지니어 상무 이구영

그거는 저희들이 의견 청취의 건을 마무리하고 추가적인 미지정 지역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지 추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양훈 의원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장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조인호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인호 위원

생일도의 이엘리조트도 포함된 거네요?

○도화엔지니어 상무 이구영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계획 관리 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한데, 계획 관리지역의 용도지역 변경과 함께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씌우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읍,면 설명회 다닐 때 해당되는 읍,면 상임위원회 가서 설명회 할 당시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내에 들어오는 것들에 대한 집단 민원이 발생이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 지역 변경을 하더라도 지구 단위 계획이 씌워지게 되면 토지 소유자마다 어느 분은 도시계획 도로가 건설될 수도 있고, 어느 분은 또 그냥 나대지로 건축 허가를 그냥 하실 수가 있거든요. 개개인마다 편차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토지 소유자들의 전체적인 동의서를 다 받아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인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허궁희 위원

나는 이제 이번에 우리 완도에 지금 어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수산자원 보존지역 해제 자격인지 알고 기대를 했는데, 그건 아니네요? 지금 보니까 개인들한테는 크게 돌아온 게 없어요. 그래서 수산자원 보존 지역이 나는 해제된 줄 알고 꼭 청취하고 부탁 좀 하려고 그랬더니..... 지금 우리 어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왜냐면 수력 발전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 어려운 어가들 한테 많은 부담이 될 텐데, 그런 것 해서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행정에서 하는 일에나 도움이 되는 그런 설명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김양훈 의원

아까 처음에 설명하실 때 생산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꾸려고 할 때 건물이 있어야 바꿔집니까? 아니면 밭이나.....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도 바꿔질 수가 있습니까?

○도화엔지니어 상무 이구영

계획 관리 지역과 붙어 있는 땅들은 50% 이상의 적법 훼손지를 갖고 있으면요. 개발행위 허가가 50% 이상이 이루어졌으면 자동으로 계획관리지역과 면적과 무관하게 갈 수 있고요. 계획관리지역과 붙어 있지 않는 땅들은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확보하면서 50% 이상이 적법하게 개선되어야 됩니다. 개발행위 허가가 완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양훈 의원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훼손이 안 되고 그냥 밭 자체로 있다고 하면 바로 옆에 있어도.....

○도화엔지니어 상무 이구영

안 됩니다.

○김양훈 의원

안 된다는 얘기죠?

○도화엔지니어 상무 이구영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건축허가라든지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셔야 할 때 가급적이면, 계획관리지역과 붙어 있는 땅을 허가를 받으시면 5년 뒤에 용도 지역의 현실화 차원에서 재정비해서 계획 관리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제가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수목원 주변에 삼두리 마을 일부는 지금 계획변경안에 들어가 있죠? 그런데 수목원 들어간 입구 위에 저수지 농업용, 저수지 하단부, 그 쪽 일부의 버섯 재배사 부분들이 지금 현재 농지에 건물이 지어져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번 계획안에 변경할 수 있는 것인가요?

○도화엔지니어 상무 이구영

아니요. 해당 사항 없습니다. 해당 용도지역 내에서 허용 가능한 건축물들은 양성화 차원에서 이미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박병수 위원장

그러면 지금 수목원 올라가다 보면 다시마 체험장이라고 있는데 그걸 군에서 농촌 첫마을 가족사업으로 해서 관광객들이 음식도 먹고 다시마 다슬기 체험장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지금 음식점 허가를 낼 수 없는 그런 입장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된거요? 건물이 지어졌어요. 완도군에서도 사업비를 투자를 했고.

○도화엔지니어 상무 이구영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애매한 게 똑같은 기준의 잣대를 쟀을 때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는 거에 대한 우려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해당 용도지역 내에서 허용 가능한 건축물을 법적으로 건평 20%의 용적률 100%까지를 완화 받아서 운영을 하고 계시다가 다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변경신청을 하시기 위해서, 음식점이라든지 숙박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셔서 실제로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까 말

씀드렸다시피 외연적인 확산을 방지하고자 녹지 지역으로 해놨는데, 개발 행위가 이렇게 난개발이 되면서 이걸 주거 지역으로 갈지, 계획관리지역으로 갈지, 사실은 고민을 많이 하세요.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이지만 저희들이 집단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 서편제 주막이라든지, 해수욕장 주변 지역 이론에 대한 부분들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입안에 포함을 시켰던 부분들이 되겠고요. 개별 필지 단위의 영리 목적으로 하는 것들에 대한 계획 관리로 의도적 변경은 이번에는 거의 포함이 안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병수 위원장

그러니까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군에서 건물을 지어서 주민들한테 체험할 수 있도록 관광객들한테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간을 만들어 놨는데 전혀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문도 닫혀 있는 상태로 방치를 해 둘 것인가? 이런 부분을 변경 계획에 포함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어차피 그쪽이 관광지 아닙니까? 수목원이 조성이 되면 그런 좋은 건물이 있음에도 그것을 방치한다는 것도 안 맞지 않습니까?

○도화엔지니어 상무 이구영

진입부에 대한 주변 지역 이론은 일단 계획관리지역 용도지 변경을 해서 포함시켰었는데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도 한번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박병수 위원장

아래 하단 부분들은 모르겠고 그 부분만이라도 계획에 포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군외면 갈문리에 모감주나무 군락지가 있어요.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됐는데 거기에 거리 제한을 한 450m까지 규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재산권 행사를 못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어떻게 계획해서 좀 안 될까요?

○도화엔지니어 상무 이구영

그거는 문화재보호법, 역사문화법 이런 것들과 다 연관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보존지구로 지정돼 있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문화재 보호 별도법에 따르게 되어 있어서 현상 변경에 대한 사항이 변경되지 않는 이상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박병수 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지금 수목원 올라가는 도로 하단부에 당연히 농업진흥구역으로 묶어줘야 돼죠?

○도화엔지니어 상무 이구영

예.

○박병수 위원장

그런데 그 옆에 민가가 있는 밭들이 전(田)인데 농업진흥구역으로 묶어 놔서 다른 행위를 또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좀 포함을 해서 좀 변경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요.

○도화엔지니어 상무 이구영

그래서 이게 매년마다 완도군에서 농업정책과에서 농업진흥지역과 보존 산지지역에 대한 해제를 조금씩 조금씩 진행합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현실화 차원에서 우량 농경지 정리지구를 제외한 농가 주택이 일정 부분이 있고 전답으로 택지가 구획되지 않은,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진흥 지역 해제에 대한 사항을 먼저 진행을 하시면, 해제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농림지역에서 생산 및 보전 관리 지역으로 또는 계획 관리 지역으로 용도지 변경을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장

그럼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에서.....

○도화엔지니어 상무 이구영

대응 해제에 대한 사항은 군 내부정책과 농업정책과에서 먼저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박병수 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식 위원

상무님 혹시 명함 가지고 오셨나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나눠주시고 궁금하신 점 있으면 나중에라도 물어볼 수 있게 해주세요.

○도화엔지니어 상무 이구영

예. 알겠습니다.

○박병수 위원장

지역개발과장과 상무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35 완도 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대로 찬성의견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0분 산회)

○출석위원(8인)

박병수　박성규　지　민
박재선　조인호　최정욱
허궁희　조영식

○위원이 아닌 의원(1인)

김양훈

○출석공무원

지역개발과장　오현철

○출석인

도화인테리어　이구영

○전문위원 : 전문희

○속 기 사 : 임은주

회 의 록 서 명

(제331회 임시회 회의록)

「지방자치법」 제84조제2항 및 「완도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서명함.

직 위	성 명	서 명	비 고
의 장	김 양 훈		
서명의원	지 민		
서명의원	최 정 욱		
사무과장	최 영 미		

제332회 완도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32회 완도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개회식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9월 8일(월) 오전 10시 개식

장 소 본회의장

제332회 완도군의회(임시회) 개회식순

1. 개식
2. 국기에 대한 경례
3. 애국가 제창
4.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5. 폐식

(사회 : 의사운영팀장 서을식)

(10시00분 개식)

○의회행정팀장 김귀창

안녕하십니까? 의회행정팀장 김귀창입니다.

지금부터 제332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자리에 앉은 채로 예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이어서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반주에 맞춰 1절을 힘차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다음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김양훈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김양훈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신우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절기상 가을이지만, 아직은 선선한 가을바람이 그리워지는 계절입니다. 이

번 임시회에서 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원연구단체 활동과 민생현장을 살피며 군민과 소통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고 계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최근 우리 완도군이 거둔 값진 성과들에 대해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고,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었으며, 제15회 2025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기후·환경·생태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것은 군민 모두의 자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신우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 해양 환경관리단과 자발적으로 협력해 주신 주민 여러분의 노고 덕분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와 축하를 드립니다.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은 2022년부터 군과 5만 군민, 그리고 30만 향우가 함께 노력해 이뤄낸 결실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해양 수산 문화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육발전특구 사업은 공교육 혁신을 통해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완도군에서는 완도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수산, 해양바이오, 해양치유 등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교육모델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한편, 최근 일부 지자체의 식당 및 숙박시설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며 지역경제와 이미지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완도군에서도 타 지역 사례를 참고하여 정책을 면밀히 점검하고, 문제 발생을 사전에 차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년도 국비 확보에도 적극적으로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약산면을 비롯한 청산면, 소안면, 금당면, 보길면, 생일면을 대상으로 면정보고와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민생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동료 의원여러분께서는 현안사업들을 군민의 입장에서 꼼꼼히 살펴 주시고, 문제점이나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도 원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완도군의회는 언제나 군민과 함께 호흡하며,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더 안전하고 더 행복한 고장을 만드는 데 전력을 다하여, 누구나 살고 싶고 자랑스러워할 완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군민 한 분 한 분의 삶이 곧 우리의 책임이자 사명이며, 이는 의정 활동의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앞으로도 군민과 늘 동행하며, 더 큰 변화와 발전을 이루기 위해 쉼 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 가정에 늘 건강과 웃음이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운영팀장 서을식

이상으로 제332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0시03분 폐식)

제332회 완도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9월 8일(월) 10시00분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지 민)
▣ 5분 자유발언(최정욱)
1. 제332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25년 하반기 군민생활현장 방문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지민 의원)
- 크리스마스에 추억! 완도호랑가시나무의 빛으로 물든 완도
▣ 5분 자유발언(최정욱 의원)
- 완도군 민원대응 시스템 개선
1. 제332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2025년 하반기 군민생활현장 방문의 건(지민 의원 외 8명 발의)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8분 개의)

○의장 김양훈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영미

의회사무과장 최영미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민 의회운영위원장님 외 7명의 의

원님들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8월 28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위원회 회부 사항입니다. 의원발의로 「완도군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완도군수로부터 「완도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지민, 최정욱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으며, 이번 회기 중 약산면 등 6개 면에 대하여 면정보고를 청취하고, 군민생활현장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양훈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완도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지민, 최정욱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지민 의원)

○지민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양훈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우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민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완도의 정체성을 높이고 연중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완도군의 자연생태자산인 ‘완도호랑가시나무’를 활용한 “크리스마스 축제 개최”를 제안드리고자 하며, 발언기회를 주신 김양훈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완도호랑가시나무는 지난 5월 완도군 군목으로 지정된 완도만이 가진 독보적 자연유산으로 서양에서는 “Holly(할리)”라 불리며, 크리스마스 시즌을 상징하는 대표 소재로 사시사철 푸른 잎을 자랑하며, 겨울철 붉게 맺히는 열매는 크리스마스 시즌과 절묘하게 어울리는 “계절적 상징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붉은 열매와 초록 잎은 ‘생명’, ‘보호’, ‘희망’을 상징하며, 가정의 평화를 기원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NASA에서는 최고의 미세먼지 제거 식물인 스킨답서스와 비교해 호랑가시나무가 스킨답서스보다 시간당 1.4배 더 효과적으로 제거한다고 발표해 “친환경적 상징성”도 지니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완도는 호랑가시나무의 상징성을 현실로 구현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지역이며, 완도 호랑가시나무를 소재로 한 완도 캐릭터 개발, 산림치유 콘텐츠 개발, 어린이 프로그램 등 다양한 문화적 활용가치 또한 뛰어난 유일무이한 “생태 브랜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도 ‘완도호랑가시나무’의 상징성과 스토리텔링을 활용해 겨울철 체류형 관광을 구상 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산림치유와 해양치유를 결합한 크리스마스 축제와 잘 맞는 최적의 자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국내 주요 지자체에서는 크리스마스 콘텐츠를 활용해 주민 참여와 방문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보면, 임실산타축제는 SNS 중심 파급효과를 통해 11만명이 행사에 참여하여 소상공인 매출 증가로 이어졌고, 부산 크리스마스 트리 문화축제는 연간 900만 방문하여 부산 대표 시그니처 축제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또한, 대구 유성 온천 크리스마스 축제는 온천치유와 볼거리, 즐길거리로 전국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크리스마스 시즌은 문화소비와 가족나들이 수요가 높은 시기로, 우리군도 완도호랑가시나무를 활용한 시그니처 축제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봄·여름·가을 관광 그리고 겨울 콘텐츠까지 완도는 사계절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 드립니다. 첫째, 올해부터 완도호랑가시나무를 활용한 크리스마스 시범행사를 준비해 주십시오. 트리 장식 및 소규모 마켓부터 시작하여, 군민들의 반응과 운영 효과를 종합 평가한 뒤에 2026년부터는 본격 추진해도 좋을 것입니다. 둘째, 12개 읍면의 군민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행사로 만들어야합니다. 12개 읍면 군민들이 직접 마을 단위로 트리를 장식할 수 있는 축제 프로그램을 만들어 군민들께서 자연스럽게 완도호랑가시나무의 상징성을 알아가고, 우리군의 군목을 통해 공동체 의식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2026년에는 지역 축제 공모사업을 준비하여 국·도비 예산 확보 전략도 마련합시다. 산림청과 문화재청 연계 등 가능한 예산 경로를 적극 모색하여 군비 절감과 함께 매년 시그니처 축제로 만들어나갑시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양훈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사계절 푸르고 생명력 넘치는 섬 완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완도호랑가시나무는 겨울에도 생명의 빛을 전하는 특별한 나무"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자연이 준 선물을 문화 콘텐츠로, 주민 축제로, 관광 자원으로 지역경제를 되살릴 차례입니다. 겨울밤을 환히 밝히는 완도호랑가시나무의 빛, 그 빛으로 완도의 겨울을 새롭게 물들이는 축제를 군민과 함께, 행정과 함께 만들어가길 간절히 바래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양훈

지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최정욱 의원)

○최정욱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양훈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우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정욱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군민과 더 가까이, 군민이 행복한 완도를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군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완도군 민원행정 대응 시스템 개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며, 발언 기회를 주신 김양훈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월 제21대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정부"를 공식 명칭으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는 핵심 국정 철학을 내세우며, 국민주권주의의 실현을 위해 쉼 없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이 국정의 주체로서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고, 행정 운영의 중심을 국민에 두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즉, 행정은 주민들에게 감동을 주고 주민들로부터 사랑받으며, 주민의 삶에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오는데 모든 것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완도군 역시 군민들이 군정의 주체이고, 행정의 수요자이며, 군민들께서는 지역의 미래를 위해 끊임없는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의 행정은 기존의 이념과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창의적이고 실용적이며 현장중심의 군정을 실현하여 불합리한 제도와 생활불편사항을 빠르고 신속하게 해결하고 군민 중심의 선진행정을 추진하여 행정의 가치를 높여 나가야 만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완도군이 만들어질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최근 수년간 우리 사회는 국민의 권리의식과 참여수준이 급속히 향상되었고, 행정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고도화되면서 단순 질의부터 반복·고충 민원까지 그 양과 질 모두가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실제 완도군 민원접수 현황을 보면 최근 3년간 평균적으로 연간 2만여 건의 민원이 접수되고 있으며, 그 중 고충 민원은 2022년 5건에서 2024년에는 38건으로 8배 정도 늘어나고 추세에 있습니

다. 이는 행정에 대한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군민들이 보다 더 일상생활에 이루어진 불편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해답을 요구하는 시대가 도래했음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더욱이 고충민원과 반복민원이 더욱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며, 민원 대응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완도군에는 이를 실행할 만한 전담조직이나 시스템은 마련되지 않고 있으며, 민원행정의 품질이 각 부서 담당자의 역량과 판단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최근 우리군 민원소통 창구로는 12개 읍면 밴드가 비공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군민들의 불편사항을 단순하게 각 읍면 밴드에 산발적인 형태로 게시하면 읍면 관련 부서에서는 상급기관에 연락해 처리하겠다는 단순한 답변으로 군민들은 언제 접수 받고 처리되고 있는지도 모르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시대적 변화에 완도군의 행정시스템이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구조인 것입니다. 이젠 행정이 민원 대응에 있어서 군민이 곧 주인이자 고객이며, 군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변화된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있는지에 대해 절실하고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변화된 군민의 기대와 권리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민원 대응 구조와 적극행정 실현 체계를 함께 구축해야 할 시점에 와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군민들이 보다 쉽게 접근 가능할 수 있는 편의성과 빠르고 정확한 민원해결 그리고 악성민원에 대한 사전 대응을 위한 “완도군 통합민원 웹센터”를 설치·운영 할 것을 제안합니다. 통합민원 웹 센터는 단순히 민원인이 웹사이트에 민원사항을 게시하면 관련부서로 연결해주는 시스템과는 다른 개념으로 웹 사이트에 민원이 접수되면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이 1차로 처리 절차를 안내해주고, 2차 해당 기관으로 연계하면서 각종 종합적 민원의 접수, 처리, 종결까지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련 부서에게 연결해주고 해결하며 추적·분석하고 그 결과를 군민에게 친절하게 알려주는 역할까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욱이 센터에서 가질 수 있는 단순 업무만 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팀장급 센터장을 두고 휘하 전문적이고 경력 있는 공무원으로 구성된 팀 이상의 조직이 웹센터를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웹 센터에서는 고충민원과 반복민원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민원 유형별 전수분석을 실시하고, 부서 간 협업과 사전예방 중심의 대응 체계를 마련해 잘못 대응한 민원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재발방지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리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우수 대응 사례를 전 부서에 공유하고, 성과평가와 연계한 실질적인 보상체계를 도입해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더불어 웹센터에서는 카카오톡 챗봇 및 1:1 채팅상담서비스 시스템을 만들어 여권수령일, 주민등록증 재발급, 대형폐기물 배출 등 군민들이 자주 문의하는 민원분야에 대해 전화 연결 없이 카카오톡을 통해 즉시 안내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고, 24시간 능동적으로 민원을 대응할 수 있도록 제안 드립니다. 더불어 군정홍보와 공지사항, 행사, 축제 등 지역주민에게 유익한 정보를 알림 설정하여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읍면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밴드, 단체 카톡 등의 기능을 통합민원 앱에 재배치하여 군민과 출향인에게도 지역 소식을 함께 나누는 것도 좋은 방안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양훈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지금은 행정이 주도하는 시대가 아니라, 군민

이 변화를 이끄는 시대입니다. 군민의 권리의식이 높아지고, 행정에 대한 기대 수준이 달라졌다면 그에 걸맞은 행정대응과 실행력도 함께 진화해야 합니다. 지금 완도군에 필요한 것은 민원 대응을 책임 있게 총괄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해, 실질적인 개선을 이끄는 시스템과 조직입니다. 또한 민원은 군민의 삶이 투영된 목소리입니다.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성실히 응답하는 행정이야말로 신뢰받는 행정입니다. 나아가 이러한 민원해결 과정에서 실현되는 적극행정이야 말로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공공의 책무일 것이며 군민이 군정에 주인인 세상으로 나아가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양훈

최정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에 대해검토한 후 제안사항은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 필요하다면 제도개선을 통해 군민들의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제332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32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25년 9월 8일부터 9월 17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순서에 따라 박성규 의원과 허궁희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2025년 하반기 군민생활현장 방문의 건(지민 의원 외 8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하반기 군민생활현장 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관련 서류를 검토해 주시고 의회운영위원회 지민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지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지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458호 2025년 하반기 군민생활현장 방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6개 면에 대한 면정보고를 청취하고, 주요 사업장 방문을 통해 추진상황을 점검함으로써 효율적인 사업추진 방향을 모색하여 원활한 사업추진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군정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양훈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지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하반기 군민생활현장 방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활동과 군민생활현장 방문을 위하여 9월 9일부터 9월 16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

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2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1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출석의원(9인)

김양훈 박성규 지민
박재선 박병수 조인호
최정욱 허궁희 조영식

○출석공무원

군수	신우철
부군수	이범우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관광실장	안환옥
해양치유담당관직무대리	김건규
행정지원과장	이기석
세무회계과장	천종실
민원봉사과장	김용식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체육진흥과장	최정환
농업축산과장	이정국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해조류박람회추진단장	김준혁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지역개발과장	오현철
건설과장	김진원
안전총괄과장	이홍용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최광윤
보건의료원장	한광일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수호

○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최영미
의회행정팀장 김귀창
속 기 사 정현중

제332회 완도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9월 17일(수)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완도군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2. 완도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완도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완도군 한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완도군 노인 목욕비 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완도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완도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
8. 완도군 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 조례안
9. 완도군 문학상 운영 조례안
10. 완도해조류박람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완도군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허궁희 의원 발의)
2. 완도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3. 완도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4. 완도군 한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5. 완도군 노인 목욕비 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6. 완도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7. 완도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김양훈 의원 발의)
8. 완도군 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박병수 의원 발의)
9. 완도군 문학상 운영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0. 완도해조류박람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양훈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10건의 안건을 상정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1. **완도군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허궁희 의원 발의)**
2. **완도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3. **완도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4. **완도군 한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5. **완도군 노인 목욕비 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6. **완도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자치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해 주시고 행정자치위원회 박재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박재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박재선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460호 완도군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460호 완도군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완도군에 거주하는 100세 이상 장수노인에게 장수축하금을 지급하여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으로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의 안녕과 장수 기원을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지급액 및 지급기준과 신청안내 및 지급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61호 완도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완도군 공모사업 사전 심의위원회의 구성을 현행 직제 체계에 맞게 조정하여 군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의 선정에 이바지 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62호 완도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회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구성하기 위해 주민자치위원 선정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63호 완도군 한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양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촉직 위원 수의 성별 균형을 도모하고, 위원회 비상설화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을 내실 있게 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64호 완도군 노인 목욕비 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 목욕비와 이·미용비 지원에 대한 오남용을 방지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내실 있게 규정하여 완도군에 거주하는 노인에 대한 건강증진 및 사기진작을 위해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지원신청 및 결정, 카드시스템 운영·위탁, 가맹점 준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상위법령

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65호 완도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양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촉직 위원 수의 성별 균형을 도모하고, 협의회 비상설화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을 내실 있게 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 과정을 거쳐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양훈

다음은 질의 및 토론 할 순서입니다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박재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한 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도군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도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도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도군 한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도군 노인 목욕비 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도군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7. 완도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김양훈 의원 발의)

8. 완도군 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박병수 의원 발의)

9. 완도군 문학상 운영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0. 완도해조류박람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0항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해 주시고 산업건설위원회 박병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박병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병수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완도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466호 완도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건설업체의 참여 확대를 통해 예산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내 순환경제를 촉진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군수의 책무, 지역건설산업체 보호, 완도군민 고용과 지역내 생산자재·장비의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67호 완도군 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 창출 및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군수의 책무, 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계획, 지원사업, 소비촉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68호 완도군 문학상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문학인의 창작 의욕을 고취하고, 완도군 문학 발전과 지역문화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역량 있는 작가를 발굴·시상하는 문학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최 및 주관, 수상자의 요건, 시상 및 시상금, 수상후보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69호 완도 해조류박람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완도 해조류박람회 추진위원회 구성인원 변경과, 간사 직책 현행화를 위해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 과정을 거쳐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할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박병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한 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도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완도군 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완도군 문학상 운영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완도해조류박람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이번 회기에 처리한 안건에 대하여 「완도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자구 정리는 의장인 제가 위임받아 처리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번 회기에는 6개 면에 대한 면정 현황과 군민생활 현장을 점검하고, 10건의 조례안을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면정 보고와 현장점검은 군정의 최일선에서 주민과 가장 가까이 있는 면 행정의 현황과 과제를 직접 확인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보고를 통해 각 면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과 현안 과제를 살펴볼 수 있었고, 현장에서 군민의 목소리를 듣고 생활 속 불편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현장점검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들은 단순한 시설 보수나 예산 투입의 문제가 아니라, 군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의회와 집행부는 긴밀히 협력하여 시급한 사안은 신속히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사업은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면 행정은 군정의 기초이며, 주민들과 직접 맞닿아 있는 만큼 더 섬세하고 세심한 행정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이번 보고와 점검이 각 면의 행정을 다시금 돌아보고,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완도군 해역에 적조 예비 특보가 발령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선제적으로 황토 살포 등 예찰 활동을 잘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어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찰을 강화하고, 관련 정보를 어민들에게 신속히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어느덧 들녘이 황금빛으로 물들고, 한가위의 넉넉한 기운이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고향을 찾는 발걸음과 가족을 기다리는 마음이 함께 모여 넉넉하고 따뜻한 한가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생업을 지키고 계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는 군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세심히 챙겨 나가겠습니다. 풍요로운 계절, 올 한가위가 군민 여러분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 웃음과 풍요로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32회 완도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

○출석의원(9인)

김양훈　지　민　박재선
박병수　조인호　최정욱
허궁희　조영식

○출석공무원

군수	신우철
부군수	이범우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행정지원과장	천종실
세무회계과장	김희수
민원봉사과장	우홍래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경제교통과장	이정국
관광과장	오현철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체육진흥과장	최광윤
농업축산과장	박창희
수산경영과장	김　일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지역개발과장	이기석
건설과장	김진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보건의료원장	한광일
시설관리사업소장	전호용

○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최영미
의회행정팀장 김귀창
속　기　사 정현중

제332회 완도군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9월 8일(월)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완도군 장수축하금 지금에 관한 조례안
2. 완도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완도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완도군 한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완도군 노인 목욕비 등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완도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완도군 장수축하금 지금에 관한 조례안(허궁희 의원 발의)
2. 완도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3. 완도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4. 완도군 한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5. 완도군 노인 목욕비 등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6. 완도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1시 20분 개의)

○위원장 박재선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완도군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이 되겠습니다.

1. 완도군 장수축하금 지금에 관한 조례안(허궁희 의원 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완도군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허궁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궁희 위원

허궁희 의원입니다. 「완도군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4조에 근거하여 완도군에 거주하는 100세 이상의 장수노인에게 장수축하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지급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안 제5조는 지급액 및 지급기준에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안 제9에서는 지급방법 및 지급제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민

「완도군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도군에 거주하는 100세 이상 장수노인에게 장수축하금을 지급하여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허궁희 의원님의 제안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완도군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도군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완도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도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예. 기획예산실장 한희석입니다. 의안번호 제3461호 「완도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완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개정을 현행 직제에 맞게 운영 중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완도군 공모 사업 관리」 제7조제2항3호에 해양치유 담당관을 관광실장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완도군 조직 개편에 맞춰 당연직 위원의 직제를 변경하고 현재 현행 실과 장명을 적용하고자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민

「완도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완도군 공모사업 사전 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현행 직제 체계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

은 한희석 기획예산실장의 제안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완도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완도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도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기석

행정지원과장 이기석입니다. 의안번호 3462호 「완도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주민자치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주민자치 위원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 조항을 신설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주민자치위원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제17조 2회 주민자치위원 임기는 2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년 반 선발을 할 때 임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장은 읍면장이 되고, 5명에서 7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민

「완도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회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구성하여 주민자치센터를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 선정심의위원회를 두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이기석 행정지원과장의 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재선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완도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완도군 한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도군 한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 제4항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용식

민원봉사과장 김용식입니다. 의안번호 3463호 「완도군 한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한옥위원회 위촉직 위원 수의 성별 균형을 유지하고 당연직 위원을 현행화하고자 하며, 위원회 정비 조사 결과에 따라 위원회의 비상설화 규정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당연직 위원을 민원봉사과장과 문화예술과장으로 현행화하고자 하며,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완도군 한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민

「완도군 한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상위법에 맞게 개선하여 위원회의 운영을 내실있게 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김용식 민원봉사과장의 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한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도군 한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 완도군 노인 목욕비 등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도군 노인 목욕비 등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 제5항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가족행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가족 행복과장 박미정입니다. 의안번호 3464호 「완도군 노인 목욕비 등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기존 노인 목욕 및 이,미용권이 지류 형태에서 바우처 카드 포인트 방

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용어와 내용, 운영 및 정산 절차 등을 현행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5조, 8조, 11조는 노인 목욕비 이·미용권 용어와 내용을 변경한 것이고, 안 제6조부터 제10조, 제12조는 바우처 카드 변경에 따른 규정 신설입니다. 세부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노인 목욕비 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민

「완도군 노인 목욕비 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 목욕비와 이,미용비 지원에 대한 오남용을 방지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내실 있게 규정하여 완도군에 거주하는 노인에 대한 건강증진과 사기진작을 위해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박미정 가족행복과장의 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노인 목욕비 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족행복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도군 노인 목욕비 등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6. 완도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도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 제6항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현주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현주입니다. 의안번호 제3465호 「완도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양성평등 기본법에 의거 위촉직 의원수의 성별 균형 유지와 위원회 정비 조사 결과에 따른 회의 규정을 비상설화로 변경해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 제1항에 위촉직 위원 성별 단서 조항을 추가하고 제4항에 비상설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그에 따라 제4조와 제7조는 개정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완도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민

「완도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상위법에 맞게 개선하여 위원회의 운영을 내실있게 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로 주요 내용은 김현주 건강증진과장의 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재선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완도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출석위원(8인)

박재선 박성규 지민
박병수 조인호 최정욱
허궁희 조영식

○출석공무원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행정지원과장	이기석
민원봉사과장	김용식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건강증진과장	김현주

○ 전문위원 : 박영민

○ 속 기 사 : 임은주

제332회 완도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9월 8일(월)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완도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
2. 완도군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 조례안
3. 완도군 문학상 운영 조례안
4. 완도해조류박람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완도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김양훈 의원 발의)
2. 완도군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박병수 의원 발의)
3. 완도군 문학상 운영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4. 완도해조류박람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1시 39분 개의)

○위원장 박병수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완도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이 되겠습니다.

---

1. 완도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김양훈 의원 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완도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김양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훈 위원

김양훈 의원입니다.

「완도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는 지역건설업체 책무에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는 실태조사 및 지역건설산업체 보호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완도군민 고용과 지역내 생산자재·장비의 사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는 지역건설산업 안전·보건 및 재해 예방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도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건설업체의 참여 확대를 통해 예산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내 순환경제를 촉진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김양훈 의원님의 제안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수

김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도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완도군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박병수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도군 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지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 위원

지민 의원입니다. 「완도군 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속되는 이상기온과 기상이변으로부터 농업인의 피해를 줄이고 안정적 농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과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는 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계획 및 지원사업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는 교육훈련 및 소비촉진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민

「완도군 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 창출 및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지민 의원님의 제안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완도군 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완도군 문학상 운영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도군 문학상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문화예술과장 한지영입니다. 의안번호 제3468호 「완도군 문학상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완도군의 역사, 문화 자원 등을 소재로 한 문학 창작 활동 장려와 효율적인 운영에 따른 세부사항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안 첫 페이지 제1조 완도군 문학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역량 있는 작가에게 수여하기 위하여 완도군 문학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안 제4조에서 6조까지는 수상자의 요건, 시상 및 시상금,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례안 제7조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 임기는 2년입니다. 다음 페이지 조례안 제10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최고 연장자가 대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9조 11조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 페이지 조례안 제14조 운영위원장은 문학 부문에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심사위원회는 심사 기준과 심사 방법 설정, 수상 후보자 선정, 그 밖의 문학상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2조, 13조, 제15조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조례안 제18조 운영위원회 위원에게는 완도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6조, 제17조, 제19조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문학상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민

「완도군 문학상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문학인의 창작 의욕을 고취하고, 완도군 문학 발전과 지역문화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역량 있는 작가를 발굴·시상하는 문학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한지영 문화예술과장의 제안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완도군

문학상 운영 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완도군 문학상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완도해조류박람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도해조류박람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 제4항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해조류박람회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조류박람회추진단장 김준혁

해조류박람회추진단장 김준혁입니다. 의안번호 제3469호 「완도 해조류박람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박람회 추진을 위해 신규로 조직된 부서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완도 해조류 박람회 추진위원회 위원 구성 인원 수를 변경하여 내실 있고 성공적인 해조류박람회를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6조1항 중 위원회 위원을 20명 이내에서 25명 이내로 조정을 하고 제6조 4항 간사를 해조류박람회 추진팀장에서 박람회 기획팀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완도 해조류 박람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부 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민

「완도해조류박람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추진위원회 구성인원 변경과 간사 직책 현행화를 위해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김준혁 해조류박람회추진단장의 제안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해조류박람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조류박람회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해조류박람회추진단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완도해조류박람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

○출석위원(8인)

박병수　박성규　지　민
박재선　조인호　최정욱
허궁희　조영식

○출석공무원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해조류박람회추진단장　김준혁

○ **전문위원** : 박영민

○ **속 기 사** : 임은주

회 의 록 서 명

(제332회 임시회 회의록)

「지방자치법」 제84조제2항 및 「완도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서명함.

직 위	성 명	서 명	비 고
의 장	김 양 훈		
서명의원	박 성 규		
서명의원	허 궁 희		
사무과장	최 영 미		

제333회 완도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33회 완도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개회식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10월 20일(월) 오전 10시 개식
장 소 본회의장

제333회 완도군의회(임시회) 개회식순

1. 개식
2. 국기에 대한 경례
3. 애국가 제창
4.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5. 폐식

(사회 : 의사운영팀장 서을식)

(10시00분 개식)

○의사운영팀장 서을식

안녕하십니까? 의사운영팀장 서을식입니다.

지금부터 제333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자리에 앉은 채로 예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이어서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반주에 맞춰 1절을 힘차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다음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김양훈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김양훈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신우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민생 현장을 살피며 군민과 소통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계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완도군이 제30회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에서 '사회적경제대상'을 수상하고, '대한민국 공공 PR대상 특별상'과 '2025 대한민국 지방지킴 대상에서 경제활성화 부문, 대상을 수상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를 위해 힘써주신 신우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성과는 완도군이 K-GIM 도입 제안, 김 수출 역대 최대 달성, 해외 판로 개척과 수산물 세계화 추진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일자리 창출과 청년 인구 유입에도 긍정적인 성과를 거둔 노력의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 독서문화 확산과 도서관 인프라 확충으로 매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가운데, 올해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제31회 독서문화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히, 독서문화 소외지역에 작은 도서관이 군민의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은 것은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려는 완도군의 꾸준한 노력이 맺은 소중한 결실입니다.

앞으로도 군민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집니다.

군정질문은 단순한 지적이 아니라, 군민의 시각에서 정책을 점검하고 대안을 함께 모색하는 협력과 소통의 과정입니다.

특히,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국립해양 수산박물관 건립, 2026 Pre 완도해조류박람회 추진 전략, 기후변화 대응 농·수산· 가뭄대책, 서울-제주 고속철도 완도 경유 추진 등 중요한 현안사업들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발전방향을 함께 논의하게 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군민의 입장에서 세심히 살펴주시고 현장의 목소리가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설적인 의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의정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히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사회가 다소 민감한 시기입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럴 때일수록 정치적 중립 의무를 철저히 지키고, 군정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군민을 위한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완도군의회는 언제나 군민과 함께 호흡하며,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더 안전하고, 더 행복한 완도를 만들어 누구나 살고 싶고 자랑스러워할 고장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군민 한 분 한 분의 삶이 우리의 책임이자 사명입니다.

앞으로도 군민과 함께 변화와 발전을 이루기 위해 쉼 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운영팀장 서을식

이상으로 제333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0시03분 폐식)

제333회 완도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10월 20일(월) 10시00분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박성규 의원)
▣ 5분 자유발언(조인호 의원)
1. 제333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완도 경유 서울~제주 고속철도 국가계획 반영 촉구 건의안
6. 군정 질문 및 답변의 건

ㅇ군수(1)
ㅇ부군수(2)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박성규 의원)
▣ 5분 자유발언(조인호 의원)
1. 제333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지민 의원 외 8명 발의)
4.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5. 완도 경유 서울~제주 고속철도 국가계획 반영 촉구 건의안(조영식 의원 외 8명 발의)
6. 군정 질문 및 답변의 건(의장 제의)

ㅇ군수(1)
ㅇ부군수(2)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양훈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영미

의회사무과장 최영미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민 의회운영위원장님 외 7명의 의원님들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10월 13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위원회 회부 사항입니다. 의원발의로 「완도군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완도군수로부터 「완도군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제2차 정례회에 실시 예정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계획서 작성과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등 필요한 안건 처리를 위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박성규, 조인호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양훈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완도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박성규, 조인호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성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박성규 의원)

○박성규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양훈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신우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성규 부의장입니다. 본 의원은 지역경제의 뿌리이자 군민 삶의 현장을 지탱하는 소상인들의 처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완도군 차원에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발언기회를 주신 김양훈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12개 읍·면을 돌며 만난 소상공인 여러분들께서는 예전 보다 경기가 위축돼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호소하고 계십니다. 특히 요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하루 한 팀도 받기 어렵다.”며,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실제로 본 의원이 최근 방문했던 완도읍 한 식당은 저녁 시간에도 불구하고 식당은 한산했고, 주인부부는 손님을 기다리며, 허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요즘 많이 힘드시죠?” 하고 말을 건네니 텅 빈 홀을 가리키며, “손님은 없고, 원재료비와 전기료, 인건비가 올라 차라리 문을 닫을까 고민 중입니다.”라며, 하소연을 했습니다.

이는 완도 소상공인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 이었습니다. 새로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께서 취임 이후 첫 업무지시에‘민생과 경제살리기’에 방점을 찍고 지금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경제 회생정책을 마련하라 지시했고, 정부는 즉시 13조 2,000억원의 추경을 편성하여 국민들에게 민생회복쿠폰을 지급하는 등 경제회생대책을 시행하였습니다. 이는 장기 침체로 지친 소상공인과 서민들에게 가뭄에 단비 같은 희소식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소상공인과 군민들의 삶이 이렇게 어렵고 팍팍해져 가는 위기의 순간임에도 어떠한 대책 마련 없이 수수방관하

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중 폐업한 가게가 늘어나고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폐업률이 어떻게 되며, 그 원인은 무엇인지 한 번이라도 고민을 해보셨는지? 더불어 요즘 들어 가게마다 손님이 없다고 아우성인데, 그 실정은 어떤지 현장을 방문하고 체감해 보셨는지, 어느 지역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고통받고 있는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한 번이라도 가슴을 열고 대화한 적이 있는지, 그들의 애타는 목소리에 대책을 마련하고 군정에 반영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과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다음 몇 가지를 제안하니, 집행부에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자영업자·소상공인과의 정례모임 확대 및 활성화입니다. 지금까지 간헐적으로 시행해 왔던 소상공인과 만남의 시간을 완도군·완도군의회·소상공인 단체 대표 등 3자가 참여하는 모임을 정례화 함으로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관심도를 제고 시키고,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 참여하여 이 분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둘째, 업소별 모니터링을 위한 1인 1업소 담당제 시행입니다. 관내 요식업소별 영업 현황을 살펴보면, 목이 좋은 지역이나 홍보가 잘 된 업소는 호황을 누리고 있고, 그 외 소외지역이나 골목에 위치한 업소들은 현황이 좋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관내 모든 업소에 대한 운영현황을 모니터링 강화하고, 업소별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맞춤형 지원방안을 강구 하는 등 노력이 필요합니다. 1인 1업소 담당제를 시행하여,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군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운영비 부담 완화를 위한 공공요금 지원 강화입니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매출 저조에 따른 재료비, 인건비 등 고정비가 증가하여 공공요금을 체납하는 업소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지원은 어렵더라도 전기료, 상하수요금 등 공공요금 지원방안이 절실한 실정이니 이에 대한 지원방안을 검토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넷째, 소상공인 무이자 운영비 카드 지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IBK기업은행, 제주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하여 재정상황이 열악한 소상공인을 위해 물품구매와 공과금 납부 등에 신용도 관계 없이 최대 500만원 까지 긴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운영비 전용카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이러한 시책을 벤치마킹하여 도입해 운영했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신우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2025년 6월 5일 이재명 대통령께서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우리는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하는 대리인들이므로, 국민을 중심에 두고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업무의 크기는 다르지만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의 중심에는 군민이 있어야 하고 군민들을 위해 공직자들이 존재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소상공인 지원을 단순한 보조금 정책이 아닌 지역경제 생태계 회복 사업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행정이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듣고,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할 때, 군민의 삶은 회복될 것입니다. 군민의 어려움에 공직자들의 공감과 책임의식이 깊어질수록 군민의 시름도 덜어질 것입니다. 앞서 제안 드린 사항은 그 시작에 불과합니다. 더 고민하고 연구하여 완

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다시 활력을 되찾고, 군민의 얼굴에 웃음이 피어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양훈

박성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인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조인호 의원)

○조인호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양훈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우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인호 의원입니다. 일교차가 큰 요즘 건강관리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사랑이 더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완도군이 선제적인 AI(인공지능) 교육 플랫폼을 도입해야 하는 이유와 방향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발언기회를 주신 김양훈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9월 이재명정부는 “AI 3대 강국”을 비전으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였으며, AI 시대 경제·사회 대전환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빠르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의원은 제331회` 임시회에서 완도군 인공지능 활용 및 윤리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 조례를 발의·제정한 바 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은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전체 일자리의 절반 이상이 AI 도입의 영향을 받는다고 전망까지 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정부에서는 전남 서남권(SK협력)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구축 추진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면서 전남이 정부 AI 정책의 핵심 무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즉, AI가 중심이 되는 지금! 우리 완도군도 변화의 흐름 속에서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전략적 투자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을 넘어, 우리군의 지역 인재 육성과 미래 일자리 창출, 나아가 인구 유입을 위한 중요한 전략이 될 것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빠른 디지털 전환과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세대 간 격차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세대 간 공감과 소통의 어려움을 넘어 지역 공동체의 유대감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 조사에 따르면 교원의 90%가 "학생들의 문해력이 매우 심각하다”라고 하며, 스마트폰 과사용을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욱이 섬으로 이루어진 완도군의 초·중·고등학생들은 AI시대에 맞는 AI교육과 문해력·윤리 교육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할 수밖에 없으며, 이대로라면 수도권과의 교육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입니다. 이젠 단순히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법 교육을 넘어 국가공인 AI 자격증과 융합형 문해력 교육을 통해 AI시대의 문제 해결 능력과 논리적 사고력을 키워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첫째, 지난 8월 우리군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에 선정되었습니다. 특구 운영계획에 AI교육, 문해력 향상, 디지털 윤리 교육을 아우르는 체계적 교육 플랫폼을 마련해주십시오. 이를 통해 학생에겐 진로 준비와 미래 학습 능력을, 학부모에겐 AI시대 자녀 코칭 역량을, 성인에겐 재교육과 직무 전환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것이 AI 시대에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의 세대 간 공감과 소통, 그리고 디지털 세대 융합의 해법이 될 것입니다. 둘째, 국가공인 AI 자격증 취득을 위한 사업도 진행해야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된 국가공인 AI 자격증은 단 하나, AICE(에이스)입니다. 청년 구직자 자격증 취득 응시료 지원 사업에도 신청되는 AI자격증이며, 단계별로 초등학생은 블록코딩 기반 퓨처(Future), 중·

고등학생은 노코드 빅데이터 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주니어(Junior), 대학생과 성인은 국내 유일 국가 공인 어소시에이트(Associate) 과정으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과정을 이수할 수 있게 AI 교육센터 설치 및 응시료 지원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주십시오. 그래서 누구나 쉽게 AI 역량을 쌓을 수 있는 완도형 AI 플랫폼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은 AI·문해력 학습을 통해 미래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대학생은 AICE(에이스) 자격을 통해 기업과 기관 취업 연결이 가능합니다. 또한, 학부모는 자녀의 입시·진로 방향에 대한 고민을 덜고, 성인은 AI 평생학습을 통해 직무 전환·경력 개발·재취업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I교육 플랫폼과 지역산업과 연계하여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야 합니다. 완도는 수산업 중심 지역입니다. 우리군 AI 전문가를 양성하여 AI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양식, 해양데이터분석, 유통 자동화 시스템 등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AI 인재 양성이 곧 지역 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도록, RISE(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 사업과의 연계를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양훈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지금은 모두의 AI시대”입니다. 지금 우리가 AI교육 플랫폼을 선제적으로 마련하지 않는다면, 우리 아이들과 군민들은 수도권과의 격차 속에서 경쟁력을 잃을 것입니다. 군민 모두가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AI교육 플랫폼 도입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수도권 학생들에게 뒤처지지 않도록, 군민들도 함께 갈 수 있도록, 집행부, 교육청, 기업이 함께 협력하여 군민 모두가 참여하는 “완도형 AI 교육 모델”을 마련해 미래 세대를 지키고 지역을 살리도록 합시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양훈

조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에 대해 검토한 후 제안사항은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 필요하다면 제도개선을 통해 군민들의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제332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33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25년 10월 20일부터 10월 28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순서에 따라 박재선 의원과 박병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지민 의원 외 8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관련 서류를 검토해 주시고 의회운영위원회 지민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지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지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472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완도군의회에서는 군정에 대한 질문을 통해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군민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군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1조와 「완도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양훈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지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차 정례회 기간에 실시하게 되며, 「완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 의결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8명의 의원으로 위원을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 완도 경유 서울~제주 고속철도 국가계획 반영 촉구 건의안(조영식 의원 외 8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도 경유 서울~제주 고속철도 국가계획 반영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관련 서류를 검토해 주시고 조영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신 후 건의안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 의원

조영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474호 완도 경유 서울~제주 고속철도 국가계획 반영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완도는 해양관광 중심지로서 제주도와 가장 인접해 있고, 해양물류 거점으로 전략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 물류 및 관광 전략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완도는 고속철도망에서 소외되어 교통 접근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완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의 중요한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에 따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완도를 경유하는 서울~제주간 고속철도 노선을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완도 경유 서울~제주 고속철도 국가계획 반영 촉구 건의안
완도군의회는 정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비전인 “국민생활과 나란히, 누구나 누리는 철도”를 깊이 지지하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완도를 경유하는 서울 ~ 제주 고속철도의 반영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완도는 전라남도 서남단에 위치한 해양관광 중심지로서, 제주도와의 근접성, 해양물류 거점으로서의 전략적 가치, 그리고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서 국제적 위상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리적·환경적 특성은 단순한 지역적 의미를 넘어 국가적 물류 및 관광 전략에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현재 완도는 고속철도망에서 소외되어 있어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중요한 기회를 놓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완도를 경유하는 서울 ~ 제주 고속철도 노선은 전라남도 서남권과 제주도를 연결하여 교통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 관광산업 성장, 물류 효율성 향상 등 다방면에서 국가적 효과를 창출할 것입니다. 특히 완도 인근 해역은 수심이 얕고 단단한 화강암 기반의 안정된 지질 구조를 가지고 있어 장거리 해저터널 건설에 공학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다도해의 섬들을 활용할 수 있는 지형적 장점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완도는 도로와 항만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향후 철도망 연장에도 유리하며, 완도항은 제주와 인근 도서를 연결하는 해상교통의 중심지로서 해양 허브로 발전할 잠재력과 인프라 확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재 서남권은 목포 ~ 보성선 철도 개통으로 교통 인프라가 일부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고속철도망에서는 소외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 간 교통 접근성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의 경제·사회적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완도를 경유하는 서울 ~ 제주 고속철도 노선은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고, 서남권 교통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여 국가 전체 철도망의 효율성과 연계성을 높이는 핵심 사업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완도를 경유하는 서울 ~ 제주 고속철도 건설은 단순한 철도 사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교통·물류·관광 전략을 선도할 국가 핵심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에 완도군의회는 5만여 군민과 함께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지원을 요청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완도를 경유하는 서울 ~ 제주 고속철도 노선을 반드시 반영하여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라.

하나, 정부는 관련 법령 개정 및 예산 지원을 통해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하라.

2025년 10월 20일

완도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양훈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도 경유 서울~제주 고속철도 국가계획 반영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6. 군정 질문 및 답변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정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군정 질문·답변은 주민의 알권리를 실현하고, 현안사항에 대한군정 추진상황을 파악해 행정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의사진행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별 일괄 질문을 실시한 후,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의사일정 순으로 듣도록 하겠으며, 「완도군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의제 외의 발언은 자제해 주시고, 동일 의제에 대하여 2회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발언시간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발언시간과 횟수의 범위 내에서 질문해 주시고 보충질문은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박성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규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김양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우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성규 의원입니다.
최근 우리 지역에서는 고수온 및 적조 예비특보 발령과 같은 해양 환경 등의 기후변화에 대한 군민들의 우려와 염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상기후 변화가 증대되는 시점에, 군정은 변화된 여건 속에서 군민의 안전과 삶을 보듬는 책임이 막중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완도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한 주요 현안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님께 '민선 8기 군 주요 현안사업 등 추진현황과 향후대책'에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공약 및 공모사업 전반의 성과와 문제점, 개선방안을 점검하고, 남은 임기 동안의 정책 방향과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민선8기 주요현안사업 추진현황, 정부합동평가 추진상황, 2026년 본예산 수립 전략 등 우리군 행정전략과 행정실천 사례 등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에게'소상공인 맞춤형 정책 지원 방안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완도군 소상공인 현황과 지원사업 실적을 분석하여 실효성 있는 맞춤형 지원 방안을 제안 하고자 소상공인 현황과 지원사업 내역 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조류박람회추진단장에게 '2026 PRE 해조류박람회 성공 전략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28년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하여 사전에 개최하는 자체 행사로써 추진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PRE 해조류박람회 추진현황과 홍보 마케팅, 이벤트, 전시 연출 계획 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수질관리과장에게'기후변화에 따른 가뭄대책 선제적 대응'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상수원 관리와 광역상수도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여 항구적 가뭄대책을 논의하고자 관내 읍·면 상수원지 저수율 현황과 보길(노화) 광역상수도 추진 및 도서낙도 식수원 개발사업 등 항구적 가뭄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건행정과장에게'완도군 마약류 관리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마약류에 대한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마약류 단속 품목 및 적발 현황, 유관기관 협력체계 추진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양훈

박성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김양훈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신우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 민 의원입니다. 올여름 유난히 길고 혹독했던 폭염 속에서도 묵묵히 삶의 자리를 지켜주신 군민 여러

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땀방울 하나하나가 완도의 오늘을, 그리고 우리의 내일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언제나 군민이 살아야 완도가 산다는 신념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역의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의 불씨를 놓지 않는 군민의 강인함이 저의 의정활동의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제 완도는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이라는 큰 변곡점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위기는 늘 변화의 출발점이 되어왔고, 우리 완도는 그 어느 지역보다 강한 회복력과 공동체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은 임기동안 저는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부군수님에게 '군민 알권리 및 민원대응 효율화 방안'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완도군의 민원행정은'군민중심' 보다'행정중심'의 폐쇄성이 강해 형식적인 문서행정에 머물러 있으며, 민원상담인 제도와 공고게시판 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들이 실시간 소통형 민원서비스로 주민 만족도를 높이고 있는 만큼 완도군도 정보 디지털화와 소통 플랫폼 구축으로 군민 중심 행정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청사 및 읍면 공보게시대 현황, 공보등 군민 정보 접근 방법, 정보공개 운영실적, 민원처리현황 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실장에게'완도방문의 해 성과와 향후 발전과제'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 완도군은 완도방문의 해를 맞아 1,000만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치유페이 사업, 각종 이벤트, 홍보 마케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의미있는 성과를 냈지만, 홍보의 사전성 부족과 예산 관리 미흡 등은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추진성과를 면밀히 점검하고, '방문의 해'이후 지속가능한 관광발전 전략을 마련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완도 방문의 해 추진성과, 완도치유페이 추진현황,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에 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에게'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원봉사활동은 지역사회의 중요한 기반이지만 참여율과 지속성이 낮습니다. 그 원인으로 수요기관의 인식 부족과 형식적인 인센티브 제도가 지적됩니다. 봉사활동의 다양성을 반영한 평가체계와 실질적 보상제도 마련이 필요하며 봉사자들의 헌신에 진심으로 보답하는 정책적 전환이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완도군 자원봉사센터 현황,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및 추진실적 등에 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에게'완도군 문화유산의 발굴과 기록'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은 지역의 정체성과 공동체의 뿌리이지만, 구술사와 생활사, 근현대사 자료 등 기록되지 않으면 사라지는 유산들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완도군의 문화유산 보존이 여전히 전통유산 중심에 머물고 있는 만큼, 근현대사 유물과 생활사 기록의 체계적 보존이 시급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화유적 발굴 연구실적과 근현대사 재조명 추진현황, 그리고 향후 보존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에게'여성 · 아동 안전을 위한 안심귀가 인프라 개선 방향'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완도군은 여성 · 아동 · 노약자 등 범죄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해 비상벨과 안심귀가 서비스를 운영해 왔으나, 노후화 · 관리부실 · 홍보부족 등으로 실효성이 낮은 실정입니다. 이제는 단순 장비 설치에 그치지 말고, 주민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안심귀가 정책과 안심귀가도우미 제도 등 실질적인 안

전대책을 추진하여 군민이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안심벨 설치 현황, 안심귀가 서비스 앱 추진 현황, 안심귀가 환경조성 사업추진 현황 등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양훈

지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김양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우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언제나 완도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늘 최선을 다하고 있는 박재선 의원입니다.

청정바다라는 완도의 강점이 일시적 성과에 머물지 않고, 안정적으로 확대하려면 현장중심의 실행계획과 장기·단기간 과제의 균형 잡힌 로드맵이 필요합니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행정에 대한 군민들의 신뢰와 믿음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민들의 행정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얻기 위하여 군정 현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관광실장님께 '완도전복거리 성과와 지속가능한 활성화 방안'에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완도의 대표 특산물인 전복을 지역경제의 핵심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복거리가 지정되었습니다. 완도전복거리가 활성화 되어 지역민의 소득으로 연결되고 관광객이 다시 찾는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성과점검을 위하여 완도 전복거리 추진 현황과 전복특화 음식 개발 내역, 홍보 추진 실적 등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에게 '일 할 맛 나는 공직문화 분위기 조성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직사회가 활기차야 군정도 활력을 얻습니다. 세대 간의 소통, 신규 직원의 적응, 그리고 공무원 한 사람 한 사람의 고충을 제대로 이해하고 해결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군민을 위해 일하는 공직자들이 행복해야 군민의 행복도 함께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직원 연령별 직급별 현황과 신규직원 그리고 세대간 조직문화 개선 및 프로그램 운영 내역, 직원 고충처리 현황 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에게 '해상풍력 추진 현황과 지역 상생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해상풍력은 미래 에너지 산업의 큰 흐름이지만, 그 과정에서 주민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고 지역 이익이 보장되어야 진정한 상생이 가능할 것입니다. 해상풍력 추진 현황 및 개발행위 허가 내역, 민원 및 주민설명회 개최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경영과장에게 '해조류 건조방식 개선 및 표준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민들의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해조류가 보다 효율적으로 생산·가공되고, 품질 표준화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체계 마련이 절실합니다. 해조류 생산 및 건조 현황, 가공업체 현황 및 정부 지원사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에게 '완도군 조형물 통합 관리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형물은 지역의 얼굴이자 역사이지만,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오히려 흉물이 될 수 있습니다.

예산 투입, 관리체계, 설치 절차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자 조형물 전체 현황 및 설치 기준, 관리 방법과 심의위원회 실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증진과장에게 ‘노년기 우울증의 심각성과 예방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우리 지역에서 어르신들의 정신건강은 곧 지역의 건강입니다.
우울증 예방 사업과 치료, 그리고 홍보와 상담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군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노년기 우울증 통계 및 사업 현황, 홍보 및 만족도 조사 내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양훈

박재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군민의 뜻을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김양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신우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병수 의원입니다. 군민의 삶을 가까이에서 바라본 한 사람으로서 본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군정에 온전히 전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군정질문답변은 단순한 비판이나 요구의 자리가 아닙니다. 완도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고, 정책이 비전으로 이어지는 건설적인 제안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번 군정질문답변은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완도의 변화가 일상 속에서 느껴지도록 집행부의 진심 어린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치유담당관에게 ‘해양치유 시설물 관리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완도군은 해양치유산업 선도지역으로 해양치유센터 등 다양한 기반시설을 조성하였으나, 준공 이후 일부 시설물에 하자 및 기능 저하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치유센터 경우 염분이 높은 해수를 활용하는 특성상 배관부식, 기계실 누수, 센서 오작동 등 유지관리상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여 이용객 불편과 행정 신뢰도 저하가 우려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양치유센터 시설하자 발생 현황 및 보수현황, 문제점 및 대책 등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장에게 ‘지방세 등 부과·징수 및 체납 현황 및 대책’에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군정의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재원이며, 군민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근간입니다.
지방세 이월체납액 줄이기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지만, 징수율이 수년째 95% 수준에 머물러 있고, 고액·상습 체납과 세외수입 관리 부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납세자의 징수율이 낮아 조세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읍·면 단위의 비효율적인 징수체계 개선과 세무직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세 부과·징수 및 추진실적, 읍·면별(외국인 포함)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체납실적 등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에게 ‘공공시설물 관리대책 대책’에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는 대표적 사업부서로서 도시재

생, 권역단위 개발사업, 어촌뉴딜300,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등 다양한 국책 사업을 통해 완도군 내 다수의 공공시설 건축물이 조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시설은 사용목적과 관리주체가 불분명하여 운영방안이 미비하거나, 효율성이 떨어지고, 유지·관리 비용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특히 준공 이후 주민 활용도가 낮아 '예산 낭비형 건축물'이라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향후 유사 사업 추진 시에도 반복될 우려가 있으며, 체계적인 관리 방안과 제도적 개선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공시설 건축물 조성현황, 각종 사업 추진시 문제점 및 대책 등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기후변화 대응을 통한 지속가능한 농업정책 방향'에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이상기온, 집중호우, 폭염, 가뭄 등 기후변화가 농업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완도군 주요 작목 벼는 병해충 발생시기와 피해 양상이 불규칙해지고, 예년보다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확산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기존 일회성 방제 지원만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으며,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병해충 방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 작목 육성사업 역시 일부 품목은 사업종료 이후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 지속 가능한 농업으로의 전환이 미흡한 실정 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벼 병해충 방제사업 추진현황, 기후변화 대응 작목 육성, 문제점 및 대책 등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양훈

박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인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완도군민 여러분! 군민의 삶의 현장에서 함께 호흡하며, 더 나은 완도를 만들기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김양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신우철 군수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인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완도군의 미래와 군민의 행복을 지켜내기 위해 반드시 점검해야 할 주요 현안들을 함께 논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군정질문답변을 통해 군민의 눈높이에서 정책을 점검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먼저, 인구일자리정책실장에게 '생활인구 활성화 정책 방안' 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생활인구' 확대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유지의 핵심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리 완도군은 풍부한 해양·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체류형 인구 유입이나 정주형 인구로의 전환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주말·휴가철 한시적 관광객 중심의 인구 유입구조는 지역 상권활성화나 지속적인 소득 증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잠깐 머무는 방문객'이 아니라 '계속 머무는 생활인구'를 늘릴 수 있는 정책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완도군 생활인구 변화 및 유입 현황, 관련 예산 편성과 집행 내역 등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에게 '완도군 디지털 정보화 교육 AI 전환대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급속한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기술의 확산으로 행정과 주민 생활 전반에 큰 변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완도군의 경우 고령인구 비중이 높고, 디지털 접근성이 취약한 주민층이 많아 정보격차가 심화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군민 대상 정보화 교육은 기초수준의 컴퓨터 및 스마트폰 활용교육에 머물러 있으며, 미래 사회 핵심역량인 AI 기반 기술 활용 교육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보화 교육 추진현황, AI 전환 대응방안 등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경영과장에게 '기후변화에 따른 항구적인 수산물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바다는 수온 상승, 이상기후, 해양 재해 등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의 주력 산업인 수산업도 고수온·적조·이상수온 등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으며, 양식 어가의 경영 불안정이 심화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 중인 양식수산물재해보험과 일부 보상제도는 피해 발생 이후 손실을 보전하는 수준에 머물러, 기후위기에 대한 근본적 대응책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사후보상 중심에서 벗어나, 기후변화에 강한 양식품종개발, 예측 기반의 조기경보 체계 구축, 대응 인프라 확충 등 사전적 대책이 시급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물 피해 현황 및 피해 예방 대응 인프라 구축 현황 등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건설과장에게 '서울~완도경유 제주 고속철도 추진사항'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완도군 지역발전의 핵심 과제인 서울~완도경유 제주 고속철도 건설사업은 남해안권 물류·관광·교통망 확충과 직결되는 국가적 프로젝트입니다. 완도군에서는 오래전부터 준비해 온 이 사업이 최근 인근 지자체가 각기 다른 경유 노선을 주장하면서 노선 선정 과정에서 지역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업의 추진동력이 분산되고 있으며, 완도군의 이해와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완도경유 제주 고속철도 건설 현재까지 추진사항, 완도군 대응계획 등에 대해 각각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건행정과장에게 '섬(도서)지역 보건의료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완도군은 265개의 유·무인도로 이루어진 전형적인 도서지역입니다. 이런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완도군민들의 의료 접근성이 매우 열악한 현실입니다. 아프면 바로 병원을 찾아야 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완도에서는 그 기본조차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건지소나 보전 진료소는 사실상 섬 주민들의 '작은 병원'이자 생명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보건지소의 진료기능은 제한적이며, 기초진료조차 일부 면에서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도서지역의 의료문제는 단순한 행정 편의 문제가 아니라 군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 공공 서비스입니다. 섬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진료 받기 어렵고, 응급상황에서 치료가 늦어지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읍·면별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 현황, 공중보건의 배치 및 의료기관 현황, 도서 응급의료체계 구축현황 등에 대해 각각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양훈

조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욱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양훈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신우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정욱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완도군의 염원이던 국립해양수산박물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라는 큰 성과를 거둔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는 완도의 해양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의 미래가치를 한 단계 도약시킬 역사적인 전환점이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함께 노력해 주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지방소멸 대응과 지역균형발전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완도군도 중앙정부의 정책 흐름에 발맞추어 인구정책, 일자리 창출, 교통 및 정주여건 개선 등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행정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저는 지난 의정활동 동안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현장의 어려움을 정책으로 연결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비판보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 실질적인 군민의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군민 여러분, 완도의 변화는 누군가의 결심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의 군정질문이 그 변화의 첫걸음이 되길 바라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에게‘치유의 섬 완도, 해양치유산업의 비전과 과제’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해양치유산업은 완도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핵심 전략사업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센터 건립비 증액, 민간투자 지연, 운영비 부담 등 군민의 우려가 여전히 큽니다. 본 의원은 비판이 아니라 지난 2년간의 성과와 과제를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 해양치유산업의 출발부터 현재까지의 과정과 결과를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점검하고, 군민의 불신을 해소하며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구체적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양 치유산업의 시설별, 민간투자유치, 공단설립 및 운영 현황, 해양치유산업의 성과와 문제점, 해양치유산업의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구일자리정책실장에게’완도군 교육발전특구를 통한 미래인재 육성 방안’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완도군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은 군민들에게 새로운 교육혁신의 기대를 주었지만, 정작 추진 내용과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교육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의 협력 그리고 주민의 참여가 핵심인 만큼 관 주도의 일방적 행정에서 벗어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 교육혁신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발전특구 지정현황, 지역협의체 구성 및 운영 현황, 교육발전특구 지정에 따른 완도군 인재 육성전략 등에 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치유담당관에게 ‘해양바이오 산업을 통한 지역 성장 동력 마련 방안’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완도군은 해조류를 특화한 해양바이오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막대한 예산 대비 군민이 체감할 성과는 부족합니다.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 산업이 취지는 좋지만 예산확보와 인력, 기업 유치 전략이 뒷받침 되지 않아 보여주기식 사업에 그칠 우려가 있습니다. 완도군의 해양바이오산업이 잠자는 인프라가 아닌 지역경제를 이끄는 성장엔진이 되도록 전략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양바

이오 공동협력 연구소 현황, 해조류 활성소재 인증 생산시설 추진현황, 해양바이오 산업의 현재까지의 성과 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정책과장에게 '국립해양박물관 건립을 통한 지역 성장 동력 마련 방안'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립해양수산박물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는 완도의 위상을 높이고 해양문화와 관광산업을 활성화할 중요한 국가 프로젝트입니다. 이에 청해진 유적지 내 조성에 따른 문화재 훼손 우려, 교통 혼잡 접근성 문제 등은 사전에 면밀히 대비해야 할 과제입니다. 또한 완도의 다양한 관광자원과 연계해 해양관광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철저히 추진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립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한 향후 추진일정, 부지확정 및 예산확보 전략, 박물관 건립으로 인한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정욱 의원

최정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궁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궁희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군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군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의정활동에 성실히 임하고 계신 김양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신우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궁희 의원입니다. 청정한 완도의 바다도 한 층 더 푸르러 보이는 결실의 계절 10월에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또한, 희망찬 아침, 평온한 저녁, 행복한 완도를 함께 만들어 나가기 위해 삶의 터전에서 늘 고생하시는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군민과 함께 새로운 도약을 목표로 열정적으로 출발한 민선 8기도 어느덧 마무리하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민선 8기 우리 군민들께서는 새로운 도전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도 "우공이산(愚公移山)"의 정신으로 동분서주하며 비약적인 발전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농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 복지와 교육 인프라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관광산업 개편 등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민선9기를 위한 군정의 올바른 방향설정과 효율적인 정책 추진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단순한 비판이나 지적이 아닌 군민 복지 증진과 완도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현안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과 건실한 방안이 모색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먼저 부군수에게 완도군 자원관리센터 운영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완도군 자원관리센터는 우리군의 생활폐기물 처리와 재활용 그리고 환경 위생을 책임지는 군민 생활환경의 핵심 기반시설입니다. 깨끗한 완도를 만드는데 있어 자원관리센터의 역할은 단순한 폐기물 처리장을 넘어 지속가능한 환경정책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신축 사업이 단순한 시설 교체가 아니라 완도의 환경정책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 완도군 자원관리센터 현황, 신규 자원관리센터 운영계획 그리고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에게 항구적인 빈집정비 대책 마련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농어촌 지역의 빈집 증가 속도는 예상 밖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빈집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지만 지속적인 관리체계와 주민 참여 기반이 갖춰진다면 지역소멸을 극복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내 빈집 현황과 빈집 활용사업 현황, 중장기적 빈집 정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장에게 완도군 고령자 복지주택 내실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완도군은 고령인구 비율이 40%을 육박한 초고령 사회입니다. 내년부터 착공될 완도군 고령자 복지주택은 노인복지정책에 부응하는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존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뜻깊은 사업입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단순한 주거시설이 아니라 어르신들께서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품격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완도군 고령자 복지주택 추진 현황과 투입예산, 복지서비스 연계계획 등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축산과장에게 완도군 농축산 경쟁력 강화 전략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완도군 농축산업 경쟁력은 고령화, 유통불균형, 브랜드활용 미흡, 지원 정책 부족 등으로 타 시군에 비해 약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완도군은 수산업이 중심이지만 농축산업을 등한시해서는 안 되며, 또 하나의 완도 자산이자,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자산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친환경 농업 추진 현황과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그리고 으뜸 한우 브랜드화 사업 현황 등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양정책과장에게 완도 해조류·전복산업특구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완도군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해양수산 1번지입니다. 해조류와 전복 산업을 빼놓고는 완도를 말 할 수 없으며, 두 산업은 단순한 생산을 넘어 완도군의 역산, 문화, 경제를 상징하는 핵심 산업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조류·전복 특구 추진 현황, 신청과 절차 그리고 특구 지정에 따른 예산 반영 내역 등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산림휴양과장에게 소나무재선충 재확산 원인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완도군은 아름다운 해안림과 천혜의 숲 경관을 지닌 지역으로 크나큰 관광자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 소나무 재선충병이 재확산 되면서 군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은 단번에 방제하지 못하면, 돌이키기 어려운 치명적 산림 전염병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나무재선충 확산 현황, 방제실적, 예산집행 현황, 소나무재선충 재확산 원인 등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적극적이고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양훈

허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늘 변함없이 군민의 곁을 지키며 의정활동에 성실히 임하고 계신 김양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신우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영식 의원입니다. 처서가 지나도 끝이 보이지 않던 무더위가 한결 누그러져 바람이 선선한 결실의 계절 가을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최근 새벽에 마을을 둘러보다 양식장으로 나가는 젊은 청년을 마주하였습니다. 제가 “이리도 아침일찍 일하러 나가냐?”고 물으니

젊은 청년이 “의원님, 바다는 거짓말을 안 해요, 성실히 돌보면 그만큼 돌려주죠”하며 배를 몰고 일터로 나가는 것 이였습니다. 그 청년의 의지와 단단한 손 그리고 눈빛에서 저는 완도의 진짜 자산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깨달았습니다. 새벽에 배를 띄우며 바닷바람에 얼굴이 그을려도 웃음을 잃지 않은 어부의 강인함 타지에서 온 관광객을 가족처럼 맞이하는 음식점 주인의 따뜻함, 고향을 떠났지만 명절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자녀들의 그리움,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변해도 바다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 서로 돕고 사는 이웃들의 정,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은 늘 그대로 일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 마을 곳곳에서 들려오는 한숨소리는 너무나도 세상살이가 힘들어 지고 있음으로 느낍니다. “요즘 마을에 사람이 없어 큰일이에요”, “요즘 장사가 안돼서 죽을 맛이에요”, “완도에는 아이들 놀 곳이 없어서 주말에 집에만 있거나 모두 타지로 나가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완도에서 태어나고 자라며 완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불편함을 감수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분들의 목소리를 이곳! 본회의장에서 하려고 합니다. 군민들의 생활현장에서 보고! 듣고! 느끼며! 깨달았던! 군정사안들을 중심으로 완도군 발전과 미래를 위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과 함께 건실한 방안이 모색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먼저 관광실장에게 2026년 축제 개편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완도군의 축제는 오랜 기간 군민들의 참여와 자부심 속에 이어져 왔지만, 타 지자체와 차별성 그리고 방문객 구성의 변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더욱이 내년에는 PRE(프레)해조류박람회 개최로 장보고수산물축제는 개최하지 못하는 시점에서 새로운 시도와 혁신이 필요합니다. 특히, MZ세대와 1인 가구의 증가, 체험·야간 콘텐츠·SNS 공유 문화의 확산은 축제를 기획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고 있습니다. 방문객들은 더 이상 단순한 볼거리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머물며 즐길 거리와 먹거리, 스토리가 있는 몰입형 경험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군의 축제가 이러한 변화에 충분히 대응하고 있는지, 또 지역 상권과 주민 모두가 성장의 기회를 누리고 있는지 점검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완도군 축제현황 및 2026년 축제 추진 계획 등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에게 민원서류 발급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은 군민의 얼굴이자 군민이 가장 자주 접하는 행정서비스입니다. 최근 다양한 서류 발급이 온라인으로 가능해지고 있음에도, 여전히 현장 방문 민원이 많습니다. 고령층, 정보취약계층, 외국인의 경우는 절차의 복잡함, 접근성의 한계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젠 행정의 입장에서 민원을 대하는 것이 아닌 군민의 입장에서 민원 처리를 해야 만이 진정한 행정 서비스의 개편이라 할 것입니다. 작은 불편 하나를 줄이는 것이 군민의 하루를 바꾸고, 행정의 이미지를 새롭게 만들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원처리 현황, 유형별 통계, 민원 만족도 조사 현황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 현황 등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에게 완도군 가족센터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완도군 가족센터가 문을 연지 어느덧 6개월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군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복지의 기반을 넓히는 의미 있는 첫걸음을 시작했다고 생

각합니다. 하지만 개소 6개월이 지난 지금 센터가 군민 모두에게 친숙하고 꼭 필요한 보금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도서지역이 많은 우리 완도군의 특성상 통합성·접근성·연속성·맞춤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센터의 존재 가치는 군민께 체감되기 어렵습니다. 가족센터가 군민께 가까이 갈수록 군민의 하루가 더 안전하고 편안해지고, 완도의 내일이 더 든든해질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완도군 가족센터 운영 및 이용현황, 가족센터 재정 및 운영 자료, 가족센터 만족도 및 평가자료 그리고 가족센터 활성화를 위한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체육진흥과장에게 스포츠마케팅을 활용한 생활인구 유입방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전국 자자체들은 스포츠를 단순한 여가나 경기 활동이 아니라 관광·경제·인구정책의 핵심 수산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대회, 마라톤, 자전거대회, 해양스포츠 등 스포츠와 축제를 결합한 복합축제는 지역의 이미지를 바꾸고 방문객을 머물게 하는 체류형 유입 모델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완도군 역시 천혜의 자연환경과 해양자원을 바탕으로 청정 해양 스포츠 메카로 도약할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이제는 단순한 스포츠 대회 개최를 넘어 지속적으로 사람이 찾고 머무는 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완도군 스포츠마케팅 추진현황, 파크골프를 활용한 생활인구 유입방안, 스포츠를 통합 생활인구 유입 연계방안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산림휴양과장에게 데크시설 관리 방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완도군은 아름다운 산림과 해안 그리고 다양한 생태자원을 기반으로 치유관광도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 군민과 방문객을 위한 데크(Deck) 시설은 완도의 관광 품질을 상징하는 중요한 공공자산입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현장을 둘러보면 데크의 안전문제 그리고 관리 인력 및 예산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시설 유지가 아니라 효율적 관리와 지속가능한 활용 체계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완도군 데크시설 현황과 최근 3년간 보수현황 그리고 친환경 산림조성사업 추진 실적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설관리사업소장에게 시설물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완도군이 보유하고 있는 주요 관광·전시 시설인 장보고기념관, 장보고동상, 장보고한상, 해조류센터, 해양생태전시관, 어촌민속전시관은 우리군의 역사·문화·해양자원을 이해하는 주요한 거점 시설입니다. 하지만 군민 편의시설 부족과 방문객 볼거리 미흡으로 이용률 저하로 본래의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리와 콘텐츠 변화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군민의 자긍심과 관광경쟁력이 높아질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시설물 관람객 및 수입현황, 문제점 및 시설물 활용 방안 등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양훈

조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별 일괄질문을 마치고,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3시에 속개하여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5시00분 회의계속)

○의장 김양훈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은 군수 1거, 부군수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신우철

(참조)

· 2025년 군정질문답변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의장 김양훈

최정욱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최정욱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욱 의원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교육 특구 지정 및 국립해양수산박물관 예비 타당성 조사에 통과와 더불어 대한민국 지방지킴이 경제 활성화 부문 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군수님께서는 항상 해양치유산업은 완도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핵심 전략 산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센터 건립 증액, 민간 투자 지연, 운영비 부담 등 국민들은 대화 자리에 앉으면 걱정하고 우려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본 의원은 문제를 제기하고 질책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약 2년 동안 운영해 온 이 시점에서 해양치유산업의 성과와 과제를 점검하고 향후 추진 전략을 공유하고자 하며, 이번 군정 질문으로 국민들이 우려하는 불신을 해소하는 자리를 바라고자 사실 내용과 근거를 가지고 몇 가지 보충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군수님 본 의원은 해양치유센터 건립 전부터 매년 20억에서 30억 적자가 발생해 깨진 독에 물붓기라는 말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럴 때 본 의원을 많이 비웃고 비아냥거리며 해보지도 않고 말을 함부로 한다고 했던 걸 기억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했던 것보다 앞으로가 더 심각하고 생각이 들어서 참 걱정이 많습니다. 군수님 지금까지 해양치유산업으로 해양치유센터 354억, 문화치유센터 16억, 해양기후센터 12억, 약산 해안치유의 숲 61억, 청산 해양치유공원 22억, 해양치유 관련 용역비 28억 2천만 원, 바이오 생산 및 육성 시설 289억 9천만 원, 조선대 및 산업협력협력단 179억, 공단 전출금 위탁금 77억, 해양치유센터 준공금의 건립비 추가금 27억 7천만 원, 준공 후 시설비 14억 8천만 원 해양치유담당관 2018년부터 예산 14억 7천만 원 지금까지 총합계 해양치유산업 공공성 투자 금액이 1,096억 3천만 원에 투자됐으며, 거기에 국비가 415억 원, 도비가 110억 3천만 원, 군비가 571억 이렇게 투자되었습니다. 군수님 이 계산이 맞습니까?

○군수 신우철

그 부분에 다소 좀 차이가 있는게요. 거기에서 조선대 산학협력단하고 바이오 생산 시설 부분이 아마 중복된 것 같습니다. 그게 한 160억 규모가 되니까 실제 투자가 된 부분은 909억 원입니다.

○최정욱 의원

거기에 우리 이제 총 금액이 했는데 우리가 군비만 투자된 거 36억인가 그것만 군비에 들어간 걸로 그러면 잡으면 맞을 겁니다.

○군수 신우철

전체 그게 그러니까 조선대 산학협력단 그 부분하고 바이오생산하고 중복돼서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160을 빼면 됩니다. 1,069억 원에

서 6억 7,000만 원에서 160을 빼면은 909억 원이, 909억 7,000정도 나올 겁니다.

○최정욱 의원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군비는 아마 우리 군비 투자된 것만 했기 때문에 571억이 맞을 겁니다.

이제 그거는 총 금액에 대해서는 방금 군수님이 말씀하는 게 저도 맞다고 봅니다.

군수님 바이오산업은 담당관에게 질문을 하고 해양치유센터 및 이와 관련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질문은 해양치유산업 추진 과정과 성과를 확인하는 질문 답변이므로 본 의원 질문 내용에 맞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해양치유산업 의회 승인 관련입니다. 자료 화면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저건 이제 우리 군에서 승인받기 전에 우리 의회에 보고했던 내용입니다.

봐주시기 바라고요. 화면을 보시면 해양치유센터를 개장해서 첫해에 1억 수입을 내고, 매년 2억, 3억을 수익을 내어 10년 후에는 26억 흑자를 내겠다고 의회에 승인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래서 건립을 하겠다 알고 계시죠?

○군수 신우철

예.

○최정욱 의원

군수님 지금처럼 적자 운영이 된다고 했다면 과연 의회에서 승인을 했을 거라고 보십니까? 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 신우철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인데요. 물론 의원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단기 산업이 있고 장기 산업이 있습니다.

알기 쉽게 단기 산업이라고 한다면 식품 가공과 관광 유통 등을 단기 산업이라고 할 수 있고 특히 우리 군에서 국내 최초로 추진하는 해양치유산업과 바이오산업 그리고 블루 플래그와 관련된 것은 정말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창기 산업이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게 2018년, 19년도에 기본계획 수립 시에 지금 나온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과 그런 내용이 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그다음에 저걸 운영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제가 본안 질문 답변에서도 벌써 말씀드린 바 있지만 그런 차이점이 있다라는 얘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래 세대의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추진하는 그런 미래 산업이기 때문에 지금의 실적을 가지고 이거를 실패다 성공이다 고 하기에는 너무 이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군수님 이건 실패냐 잘했냐 이걸 따진 게 아니고요. 이제 백년대계 앞으로 군수님은 내년 6월이면 끝나지만 그 후로 어떻게 될지는 그 누구도 장담 못하며 또 밖에서는 의원들 너희들이 승인했지 않느냐 해양치유센터 생기기 전에 우리 이런 예상이 있으니 건물 지은 거는 좀 천천히 생각하자고도 분명히 군수님한테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근데 밖에서 의원들 너희들이 승리를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그랬을 때 이런 10년 후 26억 흑자를 내겠고 첫해에 1억을 내겠다고 의회에 승인이 들어온 이상 의회에서 안 할 수가 없죠. 이제 이걸 가지고 확인을 하는 과정입니다. 이제 의원들도 밖에 나가면 답변할 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또 군민들께서도 궁금해 하실 부분이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정욱 의원

예. 하십시오.

○군수 신우철

우선 센터 건립과 관련해서는 센터가 핵심 시설입니다.

센터의 핵심 시설이 건립되기 이전에 우리는 뭘 했느냐 기후치유와 문화 치유라는 테라피를 통해서 기후치유에서 거기에서 맨발 걷기와 요가 필라테스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런 게 해양치유다.

그때 당시에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해양치유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바다를 치유하는 거다 이렇게 인식한 사람들이 40%나 되더라 하는 얘기 야 이거는 큰일 났다.

그러니 우선 알려야 될 것이 해양치유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국민들뿐만이 아니고 국민들에게 알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 핵심에 시설인 것이 바로 해양치유센터가 이제 건립이 돼야 이게 굴러가게 되는 것인데 거기에 테라피가 없으면 해양치유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양치유는 핵심 시설인 해양치유센터가 건립이 돼야 비로소 치유 산업이 운영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최정욱 의원

이제 군수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제가 지금 질문한 내용은 의회에서 승인했을 때 과정을 지금 확인하는 자리로 간 겁니다.

이제 그때 당시에 아마 군수님도 이런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를 갖고 의회 승인을 했겠죠.

이제 그것을 우리 의회는 이러니 승인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지금에 와서는 빛나갔기 때문에 지금 군수님께 질문한 과정이니까요.

예 거기에 맞춰서 좀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19년도에 군수님께 본 의원이 군정 질문시 유럽과 우리나라를 비교하면서 아직은 이르다는 더불어 치유 산업을 하되 건립 투자는 깊이 생각하고 완도만의 자연 환경을 이용한 치유 산업을 차근차근 시작하고 투자 확신이 보일 때 건립을 하자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께는 시대적인 상황이므로 해양치유산업 권리 선택은 잘했다.

성공을 확신했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결국은 군수님 생각이 빗나갔다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금 전에도 군수님이 설명했습니다.

○군수 신우철

조금 전에 설명한 바와 같이 해양치유산업을 추진하는데 핵심 시설인 치유 센터가 건립되지 않으면 해양치유산업을 추진하는 게 아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해양치유를 알리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우리가 기후 치유와 문화 치유라는 테라피를 통해서 홍보 전략으로 세웠던 거고 그다음에 핵심 시설인 치유센터를 건립을 해야만이 본격적인 지구 산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치유센터의 건립은 당연히 했어야 될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정욱 의원

예. 잘 하셨습니다. 이제 다만 우리 의원들은 그래도 이 사업에 대한 미리 예측을 해서 군수님한테 질문하는 과정에 그런 걸 했었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그런 걸 참고를 했었으면 좀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서 해본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은 해양치유센터와 관련해 질문입니다.

화면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총 사업비 320억 원의 사업을 시작했으나 군비 3억 원, 34억 원이 증가되고 354억에 준공이 되고 추

가 건립 비용 군비 27억 7,000만 원이 증가되어 총 건립 비용은 381억 7,000만 원으로 건립되었습니다.
2023년 11월 시범 운영 시작으로 운영된 지 1년 11개월 약 2년이 되었습니다.
약 2년을 운영해 본 결과 본 의원이 예측했던 대로 40억 원 정도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 알고 계시죠?

○군수 신우철

예.

○최정욱 의원

군수님께서는 행사장에서 축사를 할 때마다 잘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잘 되고 있다면 국민들이 알기 쉽고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신우철

우선 해양치유산업은 국내에서 우리 군이 처음 시작한 겁니다.
해양치유산업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완도에 미래 세대들을 위한 백년대계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시점에서 이거를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너무 시급한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치유센터를 통해서 적자니 흑자니 이렇게 한 것은 지금은 무엇을 우선해야 되느냐 해양치유라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우리 완도가 시설하고 있는 해양치유산업에 대한 핵심 시설인 치유센터 내에 테라피는 이런 것들이 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건강관리에 도움을 요구한다 이런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여기서 돈을 벌겠다라고 비싸게 받으면 오겠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해양치유가 무엇인가를 알리기 위한 것이 첫 번째인데 오지를 않을 거라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인 행사를 많이 합니다.
그다음에 각종 기관 단체와 무엇을 하느냐 업무 협약을 통해서 센터를 방문하도록 합니다.
센터를 방문한 사람들은 만족도가 96% 이상 돼서 재방문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지역 군민들도 와서 체험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국민들도 체험을 한다고 그러면은 해양치유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구나 이런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것이다.
지금 현 시점에서 개관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벌써 외국인들의 반응이 중국과 일본의 경우를 예를 들면은 이런 곳은 중국이나 일본에 없다 할 정도로 아주 좋은 반응을 나타내고 있고 이번에 장보고 글로벌 재단에서 장한상 수상자들이 왔을 때 이곳은 한중일을 대표하는 해양치유산업의 센터가 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한 바가 있습니다.

○최정욱 의원

군수님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지금 방금 군수님이 하듯이 그런 맥락으로 설명을 하고 이 사업을 시작했다 하면 충분히 국민들도 이해를 하고 아마 갔을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게 무조건 성공적이고, 수익은 어떻게 내겠다 어떤 인파가 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때와 지금 군수님이 말한 거는 좀 상반되기 때문에 아마 국민들이 받아들일 때는 좀 그거를 쉽게 못 받아들인 이유가 그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군수님 말이 틀렸단 말은 아닙니다마는 첫 시작이 우리가 그렇게 풀어갔더라면 좋았지 않았을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 신우철

예. 알겠습니다.

○최정욱 의원

그리고 그 답변서에 보면 우리 공단이 위탁 운영 위탁식으로 지금 설명서에 나와 있거든요.

내가 이것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담당관에게 내용이 전혀 안 맞아서 이게 이탁이냐 대행업이냐 뭐냐고 빨리 이걸 잡아야 되냐 해서 그때 작년 행감 때 대행업이라고 확실히 그걸 잡고 왔거든요.

근데 또 중간에 보면 위탁인지 대행업인지 모르게 또 가는 모습이 보여서 2월달에 제가 담당관에게, 다시 한 번 새로운 담당관에게 짚었습니다.

이게 위탁이냐, 대행업이냐 본회의장 여기서 했는데 위탁이 아니고 대행업이라고 확실히 또 했는데 이번에 또 지금 여기 설명서 오는 거는 또 위탁으로 이렇게 표기가 돼서 왔거든요.

이런 경우는 군수님이 이제 확실히 답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군수 신우철

그게 이제 지방공기업법에 따르면 위탁과 대행을 혼용해서 쓰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 담당관들이 그런 판단을 해서 그렇게 답변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공단은 이제 특정 공단과 시설관리공단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우리는 이제 특정 공단으로 가기 위해서 행안부에다가 요청을 했고 행안부에서는 지금 이것을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못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은 해양치유가 우리 완도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결정하기가 힘들다 이제 이런 판단을 해서 9월달에 다 했는데 지금 미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해양치유산업에 대해서 좀 더 예를 하고 하나의 모델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모델이 돼야 그다음에 선도지자체로 선정되는 그 지자체에도 우리 것을 적용해서 특정 공단으로 이렇게 해줘야 될 상황이 이렇게 될 때는 당연히 이제 위탁으로 가야 될 사항인데 공기업법에 따르면 이게 위탁과 대행이 혼용해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우리가 행안부에서 결정해 주면 그에 따라서 이제 해야 될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정욱 의원

근데 우리 공기업 설립 시에 평가원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거기가 특정 공단으로 우리는 들어간다고 그래서 그렇죠. 운영 경비 50% 이상을 채워야만이 공단을 된다는 그게 특정 공단 때문에 그렇게 간다고 나와 있거든요.

○군수 신우철

맞습니다.

○최정욱 의원

그럼 공단을 우리가 승인받을 때 이미 특정 공단이라는 게 올라가서 받는 건데 또 서령도 그렇게 해서 공단에도 했는데 지금의 군수님은 지금 여기 설명서에는 위탁이 맞는 걸로 이야기하는 것 같고, 직원들은 대행업으로 맞는 거 이렇게 혼선이 되면.....

○군수 신우철

그러니까 그게 지방공기업법에 보면은 이렇게 딱 구분 짓지 않고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대행업으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지금 이 특정 공단으로 될 경우는 앞으로 위탁 형태로 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정욱 의원

군수님 지금 말을 한 건 맞는 걸로 우리가 가면 맞겠네요. 위탁이요.

○군수 신우철

예.

○최정욱 의원
그러면 위탁을 하게 되면 우리 의회에 승인을 하게 돼 있지 않은가요?
○군수 신우철
그게 의회 승인이 필수적이지 않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모든 문제는 의회와 함께 가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필히 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치는 필수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중요성을 감안해서 의회와 또 협의하고 직원들로부터는 보고를 통해서 협의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정욱 의원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에 보면 제1856호에는 그 민간 위탁 대상자는 의회의 승인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 점은 또한 우리 의회에서 대행업인지 위탁인지 공단을 설립할 때는 우리가 전문가를 운영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 공단을 설립한다고 했었어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도 우리 의원들은 헷갈리는 게 공단위로 원래는 권한과 위임을 다 주고 책임을 물어야 될 그런 꼴로 가는 공단위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2년간 거의 가까이 지금 대행업이냐 위탁이냐 오다 지금 군수님으로부터 지금 위탁이라는 소리를 듣는데 위탁은 적어도 하게 되면 위탁에 대한 권한을 우리 의원들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행과 위탁은 전혀 다릅니다. 위탁은 우리가 얼마금액에 그쪽 공단에 넘기면서 이걸 가지고 운영을 해라 이렇게 주는 게 위탁이고 대행은 그야말로 우리 행정에 대행업을 하는 겁니다. 거기서 관리하고 지시에 따라 운영을 하고, 그래서 확연히 달라요.
근데 대행업은 우리들이 의회에서 그렇게만 알고 가면 되는데 행정에 우리가 항상 질문과 관리를 하기 때문에 위탁하고는 또 다른 그런 것이 있어서.....
○군수 신우철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구분해 보면은 치유 센터 내에서 프로그램 운영만 하는 경우를 대행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고요.
거기에 시설 관리 프로그램 운영했을 때는 위탁으로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특정 공단 행안부에서 운영 방식에 대한 승인 결과가 나오면 바로 의회와 그 문제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욱 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또 질문..... 자료 화면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화면은 본 의원이 2021년도 군정 질문 답변 시 지방공기업 평가 보고서에 의하면 1년에 6만 명이 방문한다는데 1년에 적자가 9억 4,20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지역 경쟁이 성공 가능하겠냐고 했을 때 군수님께서는 지방 공기업 평가는 보수적으로 방문객을 잡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 당시에 최하 10만, 20만을 본인한테 그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만 했었습니다. 그러면 최소 10만 명으로 왔을 때는 산정하면 달라질 것이다.
그러니까 10만 명으로 계산하면 적자 폭이나 이런 게 나지 않을 거라고 분명히 군수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도 이게 맞다고 보신가요?
○군수 신우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치유센터를 그런데 우리가 이제 치유센터를 중심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본안 질문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듯이 해양치유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치유센터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기후치유, 문화치유 그다음에 여기에는 또 맨발 걷기, 필라테스, 요가 등과 같고 또 해안치유의 숲, 모든 치유와 연계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폭넓게 말씀드리면은 치유 센터를 위해서 수익만 내가지고 지역 경제의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치유라는 목적으로 완도를 방문해서 그로 인해서 완도에서 관광을 하고 머물려고 하는 이런 것이 181억에 벌써 미쳤다고 하는 거고 이번에 연휴 기간 동안에 1일 평균 하루에 방문한 것이 678명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과거하고 이렇게 급진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 되면서 지금은 그런데 왜 적자를 내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할인 행사 그 다음에 치유란 이런 것이다 알리기 위하는 데 우선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업무 협약을 통해서 거기에도 이렇게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결국에 적자는 지금 현 상황에서는 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 상승 속도가 1차 년도보다 30% 또 앞으로 20%, 약 50%씩 이렇게 성장할 경우에 이제 우리가 염려했던 부분은 조만간에 해소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지금 이 시점에서 181억의 지역 파급 효과를 가져왔듯이 앞으로 해양치유산업은 반드시 또 해양바이오산업을 연계를 해야 되고 여기에 블루카본 블루카본이 이번에 지금 10월달에 IPCC가 열리고 나면은 이게 금년 내에 앞으로 인증이 언제 될 것인가 하는 게 가시화될 겁니다.

이렇게 될 때 이걸 미래 산업으로 연결해서 간다고 봤을 때는 우리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대단할 것으로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최정욱 의원

군수님 지금 제 질문은 센터 한정해서 질문을 하고 있다는 점 알아주시고요.

또 그 우리가 그때 당시에 제가 질문했던 거는 6만 원 가지고는 우리 지역 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큰 투자를 해서 그래서 군수님이 10만에서 20만을 보고 있다 우리는 그런데 지금의 10만 우리 지금 달성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지금도 6만 공기업 평가에서 평가한 6만도 지금 다 채우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한 번 더 짓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군수 신우철

아니, 아니 10만 원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지금 연인원을 얘기를 했던 거고 2차 연도에 지금 들어왔던 게 우리가 목표 예상이 6만 5천 원으로 예상한 거 그 30%가 증가한 이런 케이스가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증가율을 계산하면은 조만간 10만 명은 우리가 10만 5천이 목표고 또 10만 3천으로 생각했던 때가 있었는데 근데 지금 성장 속도로 이렇게 본다면은 우리가 목표에 있던 10만 5천 이제 이게 목표지만 늘 반복됩니다마는 해양치유라고 하는 것은 센터 방문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와 더불어서 완도 지역 경제에 미치는 힘 파급 효과 이것을 고려하기 때문에 지금 성장률로 본다면 조만간 우리가 목표했던 10만 5천은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정욱 의원

본 의원은 지방공기업 평가서를 꼼꼼하게 하나하나 분석하면서 적자 금액을 규모로 예측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산정한 20억에 30억 적자 급여는 해양치유센터 운영 시간을 오전 7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8시까지 직원들 2교대 근무운영을 산정을 했고, 5년, 10년 주기 시대 흐름에 따라 리모델링 변화와 건물 감각 상각을

산정한 금액이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산정했던 대로 한다면 훨씬 많은 운영 적자 금액이 나올 겁니다.
지금도 본 의원이 예측했던 내용이 혹시 우리 군수님 불신한 거 아니죠? 불신합니까? 그때 내가 예측했던 걸.

○군수 신우철

아니, 또 반복된 얘기가 진행돼야 되는데.....

○최정욱 의원

아니, 이제 그것만 이야기는 다 했으니까요. 제가 했을 때는 참 많은 사람들이.....

○군수 신우철

그러니까 지금 적자 보는 거는 사실이고, 적자 보는 건 사실이고 우리가 해양치유산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해서 분석을 해 본다면 앞으로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같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다.

○최정욱 의원

예. 군수님 말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문제는 내가 그때 당시에 했던 말을 그 누구도 참고를 안 했기 때문에 내가 그걸 한번, 그때 내가 했던 말을 지금도 불신한가 한번 말씀드려 본 겁니다. 그리고 그 해양치유센터 인피니티풀 추가 조성 사업이 33억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지금 있죠?

○군수 신우철

예.

○최정욱 의원

근데 인피니티풀 동선이 잘 나오지 않은 걸로 본 의원도 건물을 한번 가서 봤습니다마는 참 어떤 시설을 했을 때 고객들이 들어갔을 때 한눈에 파악이 되고 한눈에 건물 안에 그런 거를 익혔을 때 어떤 효과가 극대화가 되는데 그런 뭐가 잘 안 나오더라고 또 인피니티풀 운영시 이렇게 안전 요원이나 이렇게 직원들이 많이 필요하게 될 건데 그렇게 채용했을 때 지금 채용할 인원들에 대한 채용할 계획은 지금 갖고 있죠?

○군수 신우철

인비리티풀 관련해서요?

○최정욱 의원

예.

○군수 신우철

인피니티풀은 여기서 조금 설명드려야 될 게 우리가 이 테라피를 구성 시설을 하면서 한꺼번에 하지 않고 중간에 숨겨놨다가 새롭게 하고 또 숨겨놨다가 새롭게 하는 게 뭐냐 우리를 따라서 하려고 하는 지자체가 8개나 됩니다.
그런데 우리하고 똑같이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해조류를 입욕에서 해조류를 담고 하는 이런 테라피도 우리가 3개월 후에 했던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그동안에 이제 인기가 많았던 스톤테라피나 머드래핑 이런 것은, 이런 테라피는 또 늘렸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인피니티풀은 이거 왜 했느냐 이번에 678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거를 해놓으면 100명을 더 우리가 수용할 수가 있다는 그러면은 7, 800명도 우리가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저기는 어디다 초점을 맞추냐 하면 바로 수평선에다 맞춥니다. 수평선에 맞춰서 거기에 포토존이 되면서도 거기에 필요한 것은 또 뭐냐 어린이들의 물놀이장이 필요하다.
이 두 가지를 갖춘 건데 저게 됐을 때에는 지금의 우리가 타깃을 어디다 두냐 하면 여성과 MZ세대들로 봅니다.
그러니까 부부와 그다음에 얘들과 함께 오고 그리고 젊은 세대들이 함께 오는 겁니다.
근데 저게 타깃을 너무 연령층을 높여버리면은 저게 이제 어른들만 오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거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타겟은 잘

잡았다.
그런데 여기다 인피니티풀을 한다고 한다면은 이제 앞으로 여성과 우리 MZ세대들 어린이들이 더 많이 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참고로 대천에 가면 인피니티 풀을 산 중에 하나 만들어 놨는데 그냥 산 등선과 이렇게 맞춰놓은 케이스거든요.
여기서 사진 찍으려고 이렇게 가는 케이스거든요.
그러면 우리 완도같이 저런 수평선에 맞춰놓은 저렇게 아름다운 인피니티풀은 아마 최초가 될 것입니다.

○최정욱 의원

거기 인피니티풀 조성에 관련해서 어차피 직원들을 한 재활실하고 하면 한 8명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제가 이제 센터 가서 우리 파견 직원과 이사장하고 앉아서 그걸 내가 좀 토의를 해봤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그 하루에 약 한 80명 이상이 지금보다 더 와야 그 인피니티풀을 올렸을 때 지금 현재 적자 규모의 현상 유지를 할 거라는 서로 거기서 계산했을 때 나와 있는데.

○군수 신우철

지금으로 보면은 저희들은 100명 더 추가로.....

○최정욱 의원

그러니까 100명이 오면 더 이제 흑자로 거기에 지금보다는 흑자로 돌겠죠.

○군수 신우철

지금은 우리가 한 100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게 상당히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욱 의원

이제 만약에 그걸 인피니티풀 해서 80명이 더 오지 않고 한다면 적자 금액은 재정 적자는 더 이렇게 날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이제 지금 우리의 구조나 지금 운영하는 방식 또 접근성이나 이런 거 봤을 때 하루에 80명 더 온다라고 저는 솔직히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주말은 더 올 수 있을 걸로 봅니다마는 그랬을 때 이제 적자가 이렇게 많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보완도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군수 신우철

우선 인피니티풀에 대한 홍보가 더 뒷받침돼야 되겠죠. 그러면서 지금 인피니티 풀을 만들려고 하는 게 그런 조금 전에 설명 드렸던 효과, 그런데 또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이렇게 많은 인원이 왔을 때 기다려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럴 때 기다릴 때 지루하지 않게, 짜증나지 않게 하는 것이 인피니티풀의 또 역할이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피니티풀에 어린이 물놀이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이제 번호표가 나가서 몇 번, 몇 번 입장하세요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정말 만족도를 더 높일 수 있고, 따라서 보다 더 많은 지금 예상은 적어도 80명 이상 이상은 더 올 것으로 인피니티 풀로 인해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욱 의원

예. 꼭 그렇게 해서 더 이상 그 적자에 우리가 허덕이지 않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은 세 번째 해양기후문화센터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양기후센터 12억, 해양문화치유센터 16억, 이 두 곳 군수님께서는 잘 되고 있다고 조금 전에 우리 답변시에도 했었습니다만 여기 뭐가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신우철

기후치유센터와 문화치유센터가 잘 된다는 표현이 아니고, 지금 단순하니 우리가 분석이

치유센터를 방문하는 숫자만 갖고 얘기가 되는데 이 기치유라고 하는 건 센터 내에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는 밖에서 어신과 필라테스, 요가 이런 것들을 다 기후치유에 하나의 테라피 중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안에서 했던 건 사실은 지금 부족합니다.

왜냐면 그동안에 센터 위주로 가버렸고 그다음에 기후치유는 아웃도어 밖에서 하는 쪽으로 중심이 돼서 우리가 맨발 걷기 즉 어싱과 그다음에 필라테스 이런 쪽으로 우리가 방향을 많이 갖고 그런 다음에 이제 더 해양치유를 전 읍면으로 확대해서 각 지역마다 테마가 있는 테라피 시설을 갖자 그러니까 청산 기후치유 이렇게 넓혀가자는 의미가 있는데 이런 것도 다 포함시켜서 한다고 그러면은 앞으로 치유 목적으로 하는 방문객 수의 계산을 할 때 지금 80만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문화치유와 기후치유가 잘 되고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다 포함해서 치유 센터 방문객만 우리가 할 게 아니라 방문객 수를 우리가 따질 때는 기후치유와 문화치유에 참여한 그럼 아웃도어에서 참여한 사람들도 계산을 해야 된다. 이게 바로 지역 경제 파급 효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최정욱 의원

사실은 지금 약산 치유센터나 청산이나 같이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같이 묶어 질문하면 너무 길 것 같아서 치유센터 내에 있는 기후, 문화만 지금 했다는 말씀을 군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정돼서 어떤 답을 해 주셔야 이렇게 길게 가면 서로가 길어지니까요. 화면을 보다시피 해양문화치유센터 지금 자료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번 잘 보십시오, 화면을. 해양문화치유센터입니다. 작년부터 의회 직원들과 제가 한 네 차례를 급습했거든요.

이제 주로 성수기 때 그런 거에 맞춰서 갔었는데 정말 그 사람 하나 없었고 처음에는 문이 잠겨서 가니까 열어줬고 한 번은 아예 사람이 없었고 한 번은 이제 사람이 있어서 한 명이 거기에 앉아 있으면서 여기저기 설명은 좀 해 주셨습니다마는 9월에 그때까지만 해도 9월까지, 이제 9월에 갔었습니다만 단 한 명도 우리가 갔을 때는 사람 한 명을 파악을 못했어요.

방금 이제 화면을 좀 보다시피 이제 저게 시니어 클럽에서 나와서 저렇게 지금은 앉아 있거든요. 그때 보면은 시청각도 고장이 나서 상영할 수도 없었고, 또 자료 한 번 또 떼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에 보면은 해변 비치 의자도 사실은 저거 수입할 때 우리 의회에서 저도 그랬습니다마는 반대를 굉장히 했었죠.

저거는 우리 군에 맞지 않다. 해양치유 첫 시작하는 사업에 맞지 않는 것에서 괜히 이미지만 흐트러진다고 하지 말자라고 했는데 군수님이 그때 꼭 필요하다고 부군수조차 달려와서 사정을 해서 그때 했었습니다마는 보다시피 저렇게 녹슬어서 한쪽에 저렇게 처박혀져 있고요.

또 지금 보면은 문화동에 같은 데 보면 의자고 뭐고 저렇게 쌓여져 있습니다, 안에가. 저게 보면 지금 군수님도 아마 저걸 기억하시죠? 저거 수입한 것도 제1호로 아마 우리가 했었기 때문에.

○군수 신우철

저거는 수입을 했던 게 국내에서 제작사가 없죠. 그리고 저게 또 해양치유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해양치유라는 게 이런 거다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수입을 했고 앞으로는 국내에

서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충분히 제작이 가능할 걸로 이렇게 봐집니다.
그러면 우리 완도의 기후 조건에 알맞게 저거를 이제 우리가 제작해서 사용할 수도 있죠.
저게 이제 밖에서 또 기후치우의 일환으로 기우치의 하나의 테라피입니다.
저 자체가 그래서 저거는 앞으로 우리 완도 실정에 맞게 제작해서 앞으로도 운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정욱 의원

그때도 우리들이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저건 우리가 봐도 사진상 맞지 않다.
우리 완도에 맞는 특별한 거를 기왕 한 거 돈이 더 들더라도 해라.
그때 당시에 우리가 주문을 했었는데 보고 그렇게 한다 했는데 직접 시설했을 때도 우리들이 이건 아니다라고 몇 번 지적을 해서 이번에 가서 보니까 그게 차라리 안 보였으면 하는데 그런데 저렇게 박혀 있어서 했고요.
문화동에 화면에 나왔지만 저만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의회 직원들과 다 같습니다마는 문이 닫혀 있다가 우리가 가니까 이제 열어는 줍니다. 근데 바닥에 쫄짱게 같은 게 새카맣게 기어 다녀요.

○군수 신우철

예. 그건 저도 알고 있고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이 문화치유동이나 기후치유동을 이제 언제 활용을 하냐 하면 우리가 치유센터와 반드시 연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장기 치유 프로그램이 운영이 될 때 본 치유센터와 기후치유센터 문화치유 센터 연계해서 이렇게 추진이 되는데 그동안에 지금 치유센터 중심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데다 완도가 지금 장기 치유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아직 구비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조만간 또 갖춰지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게 될 때 장기 치유 프로그램이 되면 반드시 저기가 들어갑니다.
얘들도 저기 와서 이렇게 장기간 있게 되면 방학 때라든지 그러면 기후치유, 문화치유 센터가 반드시 필요로 하죠. 근데 이제 치유센터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그래 지금 활용이 안 되는데 앞으로 장기 치유프로그램이 운영이 되면은 저 센터를 반드시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최정욱 의원

하여튼 군수님 그 과정은 인정하시죠? 지금은 저렇게 있다는 걸로.....

○군수 신우철

지금은, 예.

○최정욱 의원

우리가 이렇게 봐서 누가 와서 봐도 그런 건물을 이용해서 기후 문화 홍보를 우리가 잘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누가 가서 봤을 때 시니어 클럽 직원이 앉아 있으면 누가 봐도 그걸 어떻게 보겠어요? 단적으로 보여준 거거든요. 그런 모습은 조금 우리가 피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 군수님 말씀처럼 지금은 그런 계획으로 다음 단계로 가면 좋은데 그전에 어떤 이미지가 손상돼서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리니까 군수님이 아시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네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보다시피 민자유치 1단계 2017년, 2022년까지 3천억 투자하고, 민자유치 2단계 3천억 투자해서 투자액이 약 한 6천억, 올해까지 6천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우리 의회에 여러 차례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해양치유호텔 및 리조트 해양 레저 리조트, 골프 테마파크, 해양치유 레지던트 이런 여러 가지를 올해까지 해서 6천억 민자 유치를 하

겠다라고 했었어요. 그랬으면 우리 지금 공공성은 거의 지금 많은 지금 우리의 실적들을 쌓아가고 있죠. 지금 근데 이게 공공성과 같이 어우러졌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나는데 사실 2025년 올해인데 1차 계획 쌓았던 3천억도 2차가 끝나가는 이 시점에도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군수님이 뭐 이것도 뭐 지금까지 자료 화면도 다 있고 보고했던 내용이라 인정하시죠?

○군수 신우철

예. 거기 잠깐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은 건설업계의 상황이 너무나 안 좋은 상황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PF 환경도 좋지 않아서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에 이르러 버리니까 지금 건설업계가 줄도산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나 이분들이 과거에 완도로 와서 완도를 둘러보고 해양치유산업의 미래 비전도 다 파악이 됐고 여기에 지금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라는 걸 파악했기 때문에 투자 의향을 나타냈던 거고 또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계획까지 수립이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을 보면은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돼 버린다고 쉽게 말하면 투자할 돈이 PF를 형성을 해서 거기에서 받아가지고 그 사업을 통해 그 수익성을 통해갖고 앞으로 이렇게 갚아 나가겠다 이런 제안을 하고 은행과의 거래가 돼야 되는데 지금 딱 묶여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그런 의향은 저버리지 않고 지금 갖고 있고 또 환경만 좋아지면은 바로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투자 의향을 나타내고 있어서 좀 더 기다려 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정욱 의원

민자 유치나 어떤 산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변수가 옵니다. 군수님이 아니어도 그 누가 해도 그건 저 인정을 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여러 가지 그때 당시에 군민들한테 기대와 어떤 심리적인 거를 줄 때는 꼭 그렇게 될 것 같이 줘서 지금의 사실은 1차도 아닌 2차 때다 왔는데도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은 짚고 가야 될 그런 의미에서 한 것이고요.

그동안에 보면은 우리 전남대 신지면 실리 153-10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8200평방미터에서 의료실 80에 120실 고려대에서는 4,357평 의료시설 어린이 전문병원, 조선대에서는 신진면 대곡리 8,134평 의료시설, 면역 증강 전문병원, 미국 LA 1,000만불 투자 유치 및 기타 등등 굉장한 우리 시작하기 전부터 투자 유치에 대한 설명이 많았어요, 우리 군민들한테. 저도 본 의원이 행사 때마다 들은 얘기고 우리 의회 보고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요. MOU 체결했다, 지금 투자계획, 투자 합의했다 이런 것들을 많이 들었는데 사실은 지금 그런 게 지금은 그거 하나도 지금 거론되지 않고 싹 사라졌거든요.

○군수 신우철

또 반복된 얘기입니다마는 지금 투자 여건이 지금은 아주 악화된 상황 아니겠어요?

환경이 좋지가 않죠. 이런 상황에 그때 여기에 투자를 하겠다고 한 사람들은 완도의 여러 가지 여건을 보고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투자를 하려고 보니까 그 환경이 좋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좀 개선된다면 경기가 좀 나아진다고 하면은 그 사람도 여기에 충분히 투자 의향을 나타내고 있어서 기대를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최정욱 의원

이제 군수님 이제 이런 얘기가 하도 많이 나왔는데 안 되니까 지금의 투자가 지금 답변서

에도 보면 여러 가지 지금 나옵니다마는 또 군수님 임기 끝나고 다 착공으로 다 나오는데 국민들이 얼마나 이걸 신뢰할지 그동안에도 이렇게 확신한 것처럼 다 했는데 지금에 와서 어떤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못 했는데 그걸 과연 얼마나 믿을지 그래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또 군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지금 네 가지 질문을 제가 군수님한테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처음부터 계획했던 대로 정반대로 어쨌든 결과는 나왔어요.

지금 네 가지 했습니다마는 질문 네 가지 중에 하나도 맞아 떨어진 거는 지금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이랬을 때는 우리 다시 아까 우리 군수님 말씀처럼 앞으로는 이러이러하게 그때의 상황에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늦어졌지만 앞으로는 이런 계획으로 갈 것이다라는 이런 합의점을 다시 국민들한테 얻어야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군수 신우철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해양치유산업은 군민들께도 좀 보고를 드려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단기 산업이 아니다, 이것은 장기 산업이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판단하기에는 너무나 이르다.

그러니 해양치유산업은 반드시 해양바이오산업과 연계해야 하고 앞으로 블루카본과 연계해 가야 될 미래 산업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는 모두가 중지를 모아서 함께 노력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해양치유산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추진해 옴으로써 우리나라의 해양치유산업을 선도해 가는 입장에 놓여 있고 또 우리 완도 것이 하나의 모델이 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평가는 어느 곳에서도 다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또 지금 성장 속도로 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해양치유산업은 미래 산업으로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요.

투자 유치와 관련해서는 예를 들면 우리나라 대기업인 한화호텔앤드리조트와의 관계를 보더라도 여기 지금 땅 문제 이게 지금 우리 군에 있는 과수 연구 단지 이 땅 문제가 지금 지연돼서 안 되는 거지, 자체가 포기를 하는 거 아니다.

그래서 거기만 되더라도 저 치유센터가 장기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는 크게 걸림돌이 없게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지금까지의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보고 관광객 수의 증가, 이거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인근 지자체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우리가 7%대 이상을 관광객 수가 증가한 반면에 0점 몇 %, 1% 수준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 수의 증가는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이 성공적으로 앞으로 해양치유산업을 마무리할 수 있는 다 그런 그 증거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정욱 의원

이제 군수님 뭐 네 가지 다 인정은 분명히 하는 걸로 봤고요.

또한 군수님이 지금 추진한 사업이니 군수님이 끝까지 갔을 때는 아마 가능하다고 저도 봅니다.

그러나 이게 차기 군수가 어떤 군수가 오느냐에 따라 또 달라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군수님 일부러 디테일하게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군수님께서 지금부터서라도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공유한다면 앞으로 운영 방향이 잡힐 거라

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 시작한 사업이므로 2년을 운영해 보았으니 투명한 진단과 문제를 파악하여 방향이라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 우리군을 위해 미래를 설계해 노력하는 모습은 본 의원도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서비스 업종은 전문가 사업가들도 심중 또 심중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문제의 심각성을 알려서 조금이나마 피해를 줄이고자 했던 겁니다.
군민께서 추진하는 해양치유산업이 성공적으로 되길 기대했으며 돌다리도 두들겨 보라는 본 의원의 마음이었습니다.
군수님 제안 한 가지 하겠습니다. 해양치유센터의 새로운 기준 정립입니다.
집행부, 의회, 주민 전문가 등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원인을 분석하고 향후 어떤 방향으로 해양치유센터를 운영하여야 우리군의 미래 산업이 될 건지 토론하고 협의하여 새로운 운영기준을 정립하는 겁니다.
군수님 본 의원 제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 신우철

그 제안은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해양치유에 대한 올바른 이해 그리고 또 온 국민이 함께 이 산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가려고 하는 의지를 교합하는 그런 또 기회로 삼아 간다면 그런 제안은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정욱 의원

여러 가지 문제점과 또 여러 가지 대안 방법도 여기서 하게 되면 너무 시간도 길어지고 해서 이게 잘 구성이 돼서 하면 군수님이 생각한 대로 더 좋은 효과도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안을 해 봤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해양치유산업은 할 수밖에 없는 산업입니다.
문제가 많은 공단도 군수님께서 직접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 직접 공단을 꼭 한번 챙겨주시고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꼭 성공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군수님께서 있는 그대로를 투명하게 국민들께 다가간다면 국민들도 함께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군수님만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기도 하고 군비가 아닌 군수님의 돈으로 투자하고 있다는 심정으로 지금부터라도 문제 인식을 깨닫고 답을 찾는 다면 길이 볼 것이라 생각합니다.
위기가 기회라는 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힘이 있는 박지원 국회의원님 계실 때 국비 받을 기회도 만들어 봐야 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 자료도 만들어 요청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시간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충 질문 마치겠습니다.

○군수 신우철

저도 마무리를 좀 할까요?

○최정욱 의원

예. 그러십시오.

○군수 신우철

오늘 좋은 질문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군민들께 또 제대로 올바른 이해를 하시라는 측면에서 마무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도가 지방 소멸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산업이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어려운 시기에 과연 우리 완도의 미래는 어디서 찾아야 될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우리 미래 세대의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거기에 뭐가 될 것이냐 여기에 해양치유산업과 해

양바이오산업을 추진을 했고 거기에다가 블루카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들고 나오게 된 겁니다.
이거는 국내 지자체 어디서도 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기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하는 미래 산업이기 때문에 지금의 다소의 문제점을 갖고 전체를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 해양치유산업은 지금의 국내 인식이 많이 달라지고 있고 앞으로 또 더 다른 시설과 그다음에 운영 방식을 통해서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 이렇게 기대가 되면서 이것은 우리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매우 커서 우리 지역의 미래 산업으로 반드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앞으로 해양치유산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이거는 반드시 성공해서 우리 완도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그런 산업으로 이끌어 가야 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 돼서 해양치유산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양훈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16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30분 회의계속)

○의장 김양훈

다음은 부군수님 나오셔서 한 건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범우

(참조)
· 2025년 군정질문답변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의장 김양훈

허궁희 의원님의 본안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허궁희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궁희 의원

부군수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완도군 자원관리센터는 생활폐기물 처리 핵심 시설로써 소각장 등 주요 시설 노후화와 용량 부족으로 생활 폐기물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존 시설물은 2011년 4월 가동 시작한 이후 2026년 내구연한인 15년이 도래합니다. 부군수님 완도군 자원관리센터 앞으로 추진 계획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군수 이범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규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사업은 현재 까지는 민간 투자사로부터 투자 의향서를 지금 접수받은 상태입니다.
향후에 올해 말까지는 이제 제안서를 접수받아가지고 환경부의 적격성 검토를 먼저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환경부에서는 또 기재부에 올려가지고 기재부의 또 재정 타당성 검토를 받게끔 되어 있고요.
이런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27년 2월경에 사업자 지정하고 협약 체결을 해서 28년 1월경에 착공해서 30년에는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궁희 의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자원 관리센터 신규 증설이 불가피하고 공사 기간 중 공백 기간이 생기는데 그 기간 중에 운영 방안을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범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7년에 만약에 착공하게 되면 2년 동안의 공사 기간이 공백 기간이 생기는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처럼 아마도 저기 전량 민간 위탁 업체에 지금 위탁 처리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궁희 의원

하루 평균 폐기물량이 어느 정도 될지 예상을 한번 해 보셨는가요?

○부군수 이범우

지금 저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금 폐기물 발생량은 현재 저희들이 현재 자원 관리 센터 기준으로 1일 26톤이 반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재 자원관리센터 용량은 25톤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지금 25톤 규모의 용량인데 약간 노후화가 돼서 23톤밖에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톤 정도는 적지 폐기물이 발생되고 있고 연간 한 1,000톤 규모는 외부 민간 업체에 위탁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허궁희 의원

그러면 이제 하루 처리량이 25톤을 기준으로 잡고 있는데 이제 기계가 노후화되다 보니까 이제 그 양을 처리를 못한다는 뜻이죠.

○부군수 이범우

그렇습니다. 현 자원관리센터 기준이 그렇습니다.

○허궁희 의원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다른 업체에다가 위탁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부군수 이범우

예. 그렇습니다.

○허궁희 의원

그러면 이제 우리 군의 여건상 부득이 자원관리센터의 소각시설을 증설해야 하지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됨으로 공공 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의회에서는 별도의 연구 단체를 구성하여 쓰레기 처리 문제와 자원 관리센터 운영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의원 연구단체에서 나왔던 것은 적절한 비용 대비 효과, 소각 시설 운영 방식의 경제적 타당성,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사업 추진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노력 등이 치열하게 논의되었는데 그중 몇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먼저 자원관리센터 신규 증설과 관련하여 사업 방식으로 직영 방식과 민간 투자 사업 즉 BTO-A 방식이 거론됐죠?

○부군수 이범우

예. 그렇습니다.

○허궁희 의원

거론된 지역 직영 방식과 민간투자 사업 BTO-A 방식의 차이점이 아까 이제 BTO-A 방식이 우리한테는 맞다.

○부군수 이범우

예. 그렇습니다.

○허궁희 의원

그 얘기를 간단하게 해 주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우리 의원님들도 상세히 알게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군수 이범우

예. 직영 방식과 BTO-A 방식의 차이점은 크게 이제 크게 나누면 투자비와 관련된 부분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직영 방식은 지방비 부담이 크다는 것입니다.

지방비 부담이 약 사업비의 총 70% 이상을 지방비가 부담한다는 그런 좀 단점이 있고요.

BTO-A 방식은 지방비 부담액 70억 중에 70% 중에 이 민간이 한 40% 우리 지방이 30% 부담하는 이렇게 서로 나누어지는 그런 형식이 되겠고요.

그리고 직영 방식은 아무래도 좀 인건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운영비 부담이 조금 줄어드는 좋은 장점이 있긴 하지만 제일 큰 단점은 우리 재정 여건상 초기 부담금이 너무 크다는 그런 단점이 있어서 이제 BTO-A로 가는 것이고, BTO-A는 다만 이제 지방비 부담을 포함해서 분담을 하게 되지만은 향후에 단점 중에 하나는 어쨌든 좀 물가 상승이라든지 운영비가 참 이렇게 상승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는 단점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허궁희 의원

BTO-A 방식으로 추진할 경우 어떠한 경우에 군이 손실을 보게 되며, 반대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사항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범우

예를 들어서 BTO-A로 가게 되면 저희들이 이제 신규 시설을 한 45톤 규모로 지금 잡고 있거든요. 근데 쉽게 말해서 45톤 이상의 일일 톤량 대비 그 반입되는 쓰레기양이 더 많아지면 그에 더 적게 반입이 되면 사용료가 민간 투자자한테 들어가는 비용이 적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 손실에 대해서는 일부 저희 군에서 한 저희들 생각은 지금 한 30% 내외로 지금 부담을 손실액을 보존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45톤 이상의 쓰레기가 들어와서 이익을 받게 되면 저희들이 50% 이상 그 이익금의 50% 이상을 보존 받는 그런 방식으로 BTO-A 방식을 지금 추진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쓰레기가 적게 들어오는 것이 좋겠냐 많이 들어오는 것이 좋겠냐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일부 손실을 해 주더라도 쓰레기가 적게 반입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왜냐하면 사용료를 그만큼 또 적게 분담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저기 더 앞으로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될 상황입니다.

○허궁희 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범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궁희 의원

민간투자 방식에서 완도군이 부담하게 되는 재정 부담률 또는 최소 운영 수익 보장 MRG 비율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범우

우리 최소 운영 지금 먼저 완도군이 부담해야 되는 재정 부담률은 전체 우리 사업비가 한 560억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비 30%면 한 170억이 되고요. 그 외에 우리군이 한 120억에서 150억, 나머지 민간 투자사는 한 240억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최소 운영 보장 비율은 이라는 뜻은 어쨌든 지금 여기 뜻이 지금 뭐 이런 제도가 폐지됐다고 하는데요.

우리 손실액 보전 비율하고 좀 비슷한 개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전체 손실액이 100이다 하면 저희들이 한 30%는 보존해 준다는 개념인데 아마 민간 투자사를 더 많이 보존을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겠죠.
그 부분을 계속 더 좀 협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허궁희 의원

협의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이 재정이 어려운 우리 완도군 입장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어 거기에 대한 또 이렇게 대비를 해서 좀 피해 보지 않는 그런 협상하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범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궁희 의원

민간 투자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생활 폐기물 및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에 대한 수요 예측 정확성이 사업 운영비 및 수익성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군이 추리한 향후 폐기물 발생량 및 근거 자료는 무엇이며 수요 예측의 요차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범우

예. 의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이게 수요 예측 결과에 따라서 1일 45톤 용량을 저희들이 기준으로 삼았거든요.
근데 이 45톤 용량이 적냐에 따라서 또 크냐에 따라서 우리군의 재정 부담이 크냐 작냐가 좀 큰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없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현재 그 폐기물 발생량 산정은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2024년도부터 해가지고는 전문 기관하고 또 KDI 이렇게 용역 결과에 따라서 폐기물 발생량을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익률 보전 또는 손실 보전 또는 수익률 배분 관계를 지속적으로 좀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저희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계속 협의해 나가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궁희 의원

소각 및 매립 등 시설의 위탁 운영비 산정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곧 완도군의 채무 부담액 및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직결됩니다.
위탁 운영비 산정을 위한 기준과 절차는 어떻게 설정을 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범우

신규 자원센터가 설립이 되면 위탁 운영비 산정 기준이 제일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이제 주로 사용료 개념인데요. 위탁 운영비는 전체 시설 투자비하고 전체 또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 그다음에 투자 수익률을 다 포함해서 위탁 운영비를 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년 위탁 운영비가 이 쓰레기 발생량 대비 산정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 난 것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안서가 접수가 되면 환경부하고 기재부하고 검토를 거쳐서 다시 그런 부분을 최종 위탁 운영비를 결정하게 되고요.
다시 또 이런 민간 투자사하고 다시 협의를 하는 그런 관계가 남아 있고 최종적으로는 그래서 2027년 2월 협약을 통해서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조금은 그런 부분을 더 유의해서 계속 저기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궁희 의원
산정 과정에 있어 우리군에서만 준비를 하지 마시고 제3의 외부 전문 기관의 검토 또는 검증을 한번 받아본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그런 준비는 하고 계신가요?

○부군수 이범우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중앙에 기재부 산하 KDI나 환경부의 환경공단 국비가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서 전문적으로 검증 절차를 진행하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궁희 의원
또한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시행령 제24조에 따르면 총 사업비의 20% 이내에서 주민 편의시설 설치 또는 주민지원기금 조성이 가능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자원관리센터 증설 사업에 있어 주민 편의시설 설치 또는 기금 조성 계획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부군수 이범우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폐기물 처리 시설 철치 초침 지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은 이제 안타깝게도 50톤 이상의 소각 용량의 경우에만 이 법을 준용한다고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허궁희 의원
그러면 우리는 이게 해당이 안 되나요?

○부군수 이범우
안타깝게 해당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앞으로는 우리 주민들하고 지속적으로 협상을 해서 인근 망석, 망남마을 주민들의 편의 사업이라든지 주민 복지 사업 이런 부분은 우리 투자사하고 직접 협력해서 협의해 나가서 저기 여기에 준하는 주민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궁희 의원
왜 제가 이제 이런 걸 묻냐면은요. 지금 앞전에도 조금 저기가 인허가 받을 때 좀 시간이 걸렸어요.
그렇다면 사전에 이런 걸 준비를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설명을 할 때도 이런 내용을 좀 우리 주민들이 이제 이렇게 요구 조건이 나올 겁니다.
분명히 그렇다면 우리가 사전에 준비해서 간 것과 아무 준비 없이 가서 대화를 하게 되면 그 대화가 될 수가 없어서 사전에 저는 이런 준비를 하는 게 옳지 않겠냐는 뜻에서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부군수 이범우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궁희 의원
그러면 전혀 우리군에서는 그런 예상을 한 게 없다 이 말씀이신가요?

○부군수 이범우
아니요. 현재 아마도 이제 우리 환경수질관리과에서 어느 정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제안서가 올해 말까지 들어오는데 그전에 주민 설명회를 통해가지고 의견 수렴을 지금 받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허궁희 의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주민들하고 가기 전에 한번 우리 수질관리과하고 부군수님이 한번 이렇게 준비를 한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혹시 우리 뭐 담당 팀장님 뭐 그런 계획이 있는가요?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생활환경팀장 김정근
생활환경팀장 김정근입니다. 저희들이 그 부

분을 부군수님 이야기했다시피 많이 지금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규정이 없지만 저희들이 충분히 망석리, 망남리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있고요. 아마 11월 중에 주민 설명회를 통해서 충분히 의견을 받고 그전에도 마을 임원들하고 충분히 의견을 나눠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허궁희 의원

준비를 잘해주세요.

○생활환경팀장 김정근

알겠습니다.

○허궁희 의원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렇게 성남이나 이런 타 지자체를 가보니까요.

마을 주민을 환경감시단으로 고용을 해서 사업의 투명성과 지역사회 신뢰 확보를 이렇게 가능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분들하고 이제 이렇게 감시단들하고 주기적으로 이렇게 소통도 하고 회의를 하면서 주민이 원하는 거 또 우리 소각장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일들 이런 모든 것을 공개를 해서 주민들의 그 오해를 안 사게끔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현재 우리 완도자원관리센터 또는 유사 시설에서 주민 환경감시단을 운영해 본 적이 있는지 또 할 계획인지?

○부군수 이범우

현재 제가 알기로는 우리 현재 자원관리센터는 환경 감시단이 구성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신규 자원 관리 센터에 대해서는 환경감시단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 있고요.

그런 부분도 우리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감시단 제도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궁희 의원

현재는 없지만 신규 시설에는 감시단을 제도를 도입하겠다 이런 취지죠.

○부군수 이범우

예.

○허궁희 의원

저도 꼭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그 이웃 주민들하고 오해도 없고 또 주기적으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주민이 뭘 원하는지 또 우리 시설에서 또 우리 주민들한테 양해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홍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완도군은 소각과 매립은 자체 처리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는 외부 위탁 처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처리 방식이 향후에도 계속 지속될 건지 아니면 전체를 우리 완도군이 해결할 건지 한번 계획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범우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도 자원 관리센터는 음식물 이제 타 화순에 위탁 처리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우리 이제 음식물 처리 시설은 이제 우리 관련 법이 좀 강화가 돼가지고 바이오가스 시설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규모가 일정 규모로 돼야 되는데 100톤 이상, 근데 우리군은 8톤 이내로 나오기 때문에 경제성이 없고 그래서 그런 시설에 위탁 처리하는 것이 저희들도 큰.....

○허궁희 의원

위탁 앞으로도 계속 위탁 처리.....

○부군수 이범우

위탁 처리를 할 수밖에 없고 위탁 처리할 계획입니다.

○허궁희 의원
본 의원이 자원 관리센터를 두 차례 방문했는데 센터장에게 무엇이 가장 시급하냐고 했더니 재활용 선별장이 필요하다고 두 차례 다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규 자원 관리 센터에 재활용 설비장이 물론 설치 될 거라고 봅니다.
○부군수 이범우
예. 그렇습니다.
○허궁희 의원
돼야죠?
○부군수 이범우
예, 예.
○허궁희 의원
그러면은 선별장을 어떻게 만들 건지 한번 그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부군수 이범우
지금 기존에 이제 앞으로 신규 자원 센터 선별장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제 5톤 규모로 지금 재활용 선별장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더 확대해서 9톤에서 10톤 한 2배 정도 확대해 가지고 재활용 선별장을 운영할 계획 지금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허궁희 의원
지금 현재 선별장은 작습니다. 지금 현재 또 쓰레기도 지금 도서 지역에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절반 수준도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사전에 준비를 잘 해서 이렇게 닥쳐서 하지 말고 사전에 준비를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홍성군 자원 관리 센터 재활용 선별장을 방문했는데 한참 더운 여름에 수작업으로 분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를 가니까 악취 소음 먼지 등 정말 표현하기 힘들 정도의 열악한 환경에서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요즘에 재활용 선별하는데 AI 도입을 해서 근무 환경 및 효율성 증대로 효과를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상도 청도군이나 경기도 성남시, 고양시 등에서 운영하고 있고 제주시는 도입을 준비 중에 있답니다. 부군수님 이왕 그 선별장을 만들 거면 근무 환경 개선도 하고 또 최신식 AI 모델로 만들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는데 군수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부군수 이범우
그 부분은 이제 우리 제안서가 접수되면 아마도 이제 좀 우리 실무 부서에서 잘 검토해 가지고 선별장을 확대하고 또 하는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AI 로봇을 말씀 드리겠죠.
그 부분은 최적의 사업이라고 판단되면 검토하는 것을 적극 하겠습니다.
○허궁희 의원
그러니까요. 이런 시설을 할 때 조금만 미래를 보고 하면은 시간이 가도 회의를 하지 않는데 우선 재정이 조금 부족하다 해가지고 그냥 그 재래식으로 이렇게 해놓고 되면은 돌아서서 이렇게 후회가 되고 재투자를 하게 되면 더 큰 돈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재검토해서 꼭 미래 지향적인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군수 이범우
예. 알겠습니다.
○허궁희 의원
담당 부서와 벤치마킹을 해서 한번 다른 그 이렇게 시군도 한번 이렇게 벤치마킹도 해 보시고 또 그렇게 갈 때 우리 의원님들도 좀 동참하게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아마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군수 이범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궁희 의원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방송실 사진 하나 올려주십시오. 저 사진을 한번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왼쪽 사진은 자매 결연을 맺은 대구 수성구 종량제 봉투이고요.
오른쪽 사진은 광주광역시 종량제 봉투에 안내 그림을 넣어서 저렇게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내 그림만 넣었는데 분리수거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완도군도 종량제 봉투를 이렇게 바꿔보는 제안을 하는데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부군수 이범우
실무 부서에서 한번 내용을 보고 우리군에서 반영할 수 있으면 적극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궁희 의원
왜 제가 또 이런 제안을 하냐면요. 우리 그 아까 이제 제가 그 선별장 제한이 있었고 왜 그 선별장이 필요하냐를 물었어요.
그랬더니 제일 안타까워하는 게 읍면에서 들어오는 쓰레기 중에 거의 분리수거가 안 된 게 많이 들어온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에서 그 이제 가스통이나 이런 화학 제품이 있는 그런 깡통들이 터지면서 그렇게 사고가 난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그 좀 주민들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한번 우리군에서도 개발을 해보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안을 합니다.
○부군수 이범우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허궁희 의원
자원관리센터는 완도군 미래 환경 행정을 가늠하는 시험대입니다.
자원관리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려면 환경적 안정과 재정적 지속 가능성 그리고 주민 수용성 이 세 박자가 맞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쩝니까?
○부군수 이범우
세 박자가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허궁희 의원
이번 논의가 단순 지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집행부와 의회가 지혜를 모아 안도의 미래 환경 행정 방향을 새롭게 정립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데요.
우리 부군수님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얘기 있으면 한번 홍보가 됐든 계획이 됐든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범우
신규 자원 관리 센터의 문제 아까 세 박자 말씀하셨는데 그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주민 수용성 문제라고 저는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같이 이런 부분을 해결하고 또 주민들도 이걸 통해 가지고 또 인근 주민들도 이걸 통해가지고 또 피해가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민간 투자사가 제안을 되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고요.
하여튼 폐기물 처리는 우리 완도 특성상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깨끗한 완도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자원 관리센터 구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궁희 의원
우리 자원 관리센터 신축 문제는 우리 이제 부군수님을 위주로 해서 우리 또 실무과에서도 신경을 좀 써서 지역민들과 꼭 그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

다.

○부군수 이범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궁희 의원

꼭 그렇게 해주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양훈

최정욱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원관리센터가 사실 제가 태어난 지역 망남리거든요.

이제 굉장히 지금 시설에 피해를 많이 본 부락인데 어떤 말을 해도 믿지를 않아요.

그다음 망석리도 이번에는 절대 저거를 막자 이런 분위기였는데 사실 제가 한 자리에서 지금 옮길 수 있는 시간도 없고 갈 데도 없다.

어차피 여기다 할 수밖에 없는 대신에 예전 시설과는 달리 정말 좋게 할 것이다 이번에는 하니 이제 그런 염려는 좀 하지 말고 같이 앉아서 한번 이걸 풀어보자.

우리가 바라는 게 무엇이고 어떤 게 그동안 피해를 봤다 하면 그만큼 보상받는 대안을 제시를 해라 대신에 서로 협조하고 의논해서 여기가 이상 아니면 갈 데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주민들이 조금은 그런 쪽으로 지금 생각은 갖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준비 좀 철저히 잘 하시고 결국 이게 이제 허궁희 의원도 여러 가지 제안을 했지만 안 되면 결국은 우리 의원들이 나설 수밖에 없어 그때 우리는 정말 피곤하거든요.

그러니까 미리부터 해서 부군수님이 오늘 이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부군수님과 우리 담당 과장님과 해서 이걸 민원 해결이 제일 중요해요, 이 사업은. 너무 늦게 이렇게 서두르지 말고 빨리 서둘러서 대안도 서로 앉아봐야 어떤 것이 원하는지를 나올 것이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걸 풀어가려면 미리미리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부군수 이범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욱 의원

꼭 우리 의원들 피곤하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범우

환경수질과를 좀 제가 굉장히 좀 다그쳐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욱 의원

같이 잘 챙겨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양훈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부군수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범우

(참조)

· 2025년 군정질문답변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의장 김양훈

지민 의원님의 본안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지민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 의원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부군수님 완도군에 부임하신 지 지금 어느 정도 되셨습니까?

○부군수 이범우

1월달에 와서 지금 10개월 됐습니다.

○지민 의원

한 10개월 되셨죠? 부군수님께서 그 근무하

시면서 우리 저희 완도군의 민원 행정 만족도는 어느 정도 되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부군수 이범우

아까 이제 능률협회에서 이렇게 조사한 과 별도로 제가 이제 민원봉사과하고 이렇게 같이 또 이런 답변 자료도 만들고 해서 경험상으로는 90점 정도..... 90점이요.

너무 많이 줬습니까?

○지민 의원

조금 그래요. 현재 이제 본 의원도 이제 느끼고 있는 것과 또 우리 군민이 또 느끼는 민원 행정의 서비스 수준은 군민 중심의 편의성이 아니라 행정 중심의 약간의 폐쇄성이 강하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공감하십니까?

○부군수 이범우

예. 공감합니다.

○지민 의원

90점인데요. 이러한 문제 인식으로 지난 332회 임시회에서 우리 존경하는 최정욱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 완도군 민원 대응 문제점을 좀 지적을 하셨습니다.

혹시 관련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부군수 이범우

예. 보고를 받았고요. 저희들이 이제 최정욱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으로 저기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에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그 통합 웹센터를 구축하는 것을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민 의원

추진은 잘 되고 있죠?

○부군수 이범우

예. 그렇습니다.

○지민 의원

이거 우리 또 완도군의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러한 걸 또 꼼꼼하게 좀 잘 챙겨주시고 우리 부군수님께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범우

예. 알겠습니다.

○지민 의원

일단 우리 집행부 행정에 대해서 지적을 한 가지만 한번 해볼게요.

우리 자료화면 하나 올려주세요. 이 문서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민원봉사과에서 계획한 2025년 완도군 민원행정 및 제도 개선 기본 지침 수립 공문입니다.

보셨죠? 부군수님께서도 결재를 하셨거든요.

○부군수 이범우

아, 예, 예, 예.

○지민 의원

혹시 이거 군수님께서 최종 결제하셨던 일시가 좀 작아서 안 보이죠? 안 보이시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료의 보여지는 2025년 6월 25일 이 날짜에 군수님께서 결제를 하셨거든요. 근데 이거 좀 기본적으로 제가 좀 생각을 해보면 이게 지금 25년도 민원행정제도의 개선이잖아요.

그러면 개선이라고 봤을 때 우리가 작년도 24년도 24년도에 우리가 민원 행정이 어땠을까 우리 국민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우리가 서비스를 어떻게 했을까 그거 한번 평가도 한번 해보고 어떤 점은 좋았다 어떤 점은 안 좋았다 이런 걸 좀 평가를 해서 1월이나 2월에 이걸 지침을 수립을 하고 또 이것도 시행을 해서 부서나 읍면 민원행정제도 개선이 이렇게 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부군수님 생각 좀 어떠십니다.

○부군수 이범우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제가 결재를 해서 기억이 납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것은

이 내용상으로 봐서는 당연히 민원행정에 대한 제도 개선을 24년도에 좀 평가를 해서 연초에 수립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민 의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 또 그리고 이제 저 공문 안에 또 따로 이제 시행 문서가 또 있어요. 근데 또 우리군만의 약간의 이제 어디마다 이렇게 이제 민원들은 다 비슷할 건데 그래도 우리군만의 약간의 조금 뭔가 특별한 뭔가 좀 다른 이런 좀 면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근데 이 자료 안에 그 내용을 보면 거의 이렇게 행안부에서 보내왔던 그 문서하고 붙여 넣었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 수 있거든요.

부군수님 어떻습니까?

○부군수 이범우

제가 그 뒤 내용을 세밀히 지금 검토를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당연히 행안부에서 내려온 것을 기초로 우리 구만의 좀 특성화된 민원 행정이 포함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민 의원

그래서 이제 좀 그런 문서들을 보고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이렇게 좀 우리군이 집행부에서 얼마나 안일하게 국민에 대한 행정을 좀 서비스를 하고 있는가 이게 좀 보여지기도 했고 이게 또 감사 면피용 또 문서라고 또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부군수님께서 전 부서를 대상으로 모든 계획이 또 시기적절하게 완도군 행정에 맞게 또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또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범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민 의원

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답변 자료에 보니까 화요 야간 여권 민원 창구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부군수 이범우

예, 예.

○지민 의원

이게 23년도인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올해 실적은 또 굉장히 또 저조해요.

현재까지 이제 9건밖에 되지 않는데 그리고 3년 동안 99건밖에 안 돼 있어요.

○부군수 이범우

예.

○지민 의원

좀 작죠?

○부군수 이범우

예. 그렇습니다.

○지민 의원

솔직히 저도 몰랐습니다. 오늘 자료 보고 알았어요.

○부군수 이범우

홍보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민 의원

그러죠.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은 좀 좋은 제도예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이런 좋은 제도는 홍보도 열심히 해서 또 많은 군민들이 또 알 수 있고, 또 이제 좋은 제도 같은 경우에는 군민들이 잘 이용을 하고 많이 활성화가 됐으면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이 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이범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민 의원

그리고 혹시 완도군에 민원 상담인 운영이라

고 있던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부군수 이범우

예. 민원 상담인 운영과 관련해서 조례가 있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 동호회가 참여해서 이렇게 민원이 접수가 되면 담당 부서에 이렇게 연계해 줘 가지고 민원 처리하는 그런 제도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민 의원

민원 상담인은 위촉이 되어 있습니까?

○부군수 이범우

제가 아마 조례상으로는 당연히 지금 위촉돼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지민 의원

그렇죠. 그거 이제 몇 분이나 돼 있는지 알고 있는 근데 이제 실적을 보니까 실적에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부군수 이범우

저도 이제 이것을 저기 저 검토하다 보니까 이게 실제로 좀 조례에 따라서 행정 동호회 동호인들을 위촉해서 하고 있는데 민원인들이나 아니면은 아니면 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또 처리는 담당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어떤 기본 취지하고 안 맞게 운영이 퇴색되는 그런 결과가 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민 의원

그러면 이제 민원 상담인이 위촉이 돼 있고 민원 상담인이 활동을 하시는데 이 결과라든지 처리 부분에 있어서 이런 담당과에서 처리를 하시다 보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이게 수치상으로는 보여지지 않는다 그 말씀이시죠?

○부군수 이범우

예. 그렇습니다.

○지민 의원

그리고 혹시 이걸 또 우리군에 맞게끔 이렇게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부군수 이범우

지금 조례를 한번 저희 저도 한번 읽어봤는데요. 조례를 한 번 세심히 한번 살펴봐 가지고 어차피 이런 제도는 좋은 제도니까 민원 상담 운영 제도를 좀 보완할 수 있는 것은 좀 보완을 해서 조례 개정을 한다든지 해서 더욱 민원 응대를 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한 번 검토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민 의원

굉장히 이거는 민원 상담의 제도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이제 우리가 과의 명칭이라든지 이렇게 변경이 좀 되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민원을 가지고 와서 한 번에 여기 과를 갔다가 여기서 담당 안 해요.

그럼 다른 과로 갔다가 이러한 부분들이 좀 많아요.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그 부분인데 이런 거라든지 뭐 첨부 서류라든지 이런 거를 상담을 다 해 주면 한 번에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맞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군하고 좀 맞게 개선을 좀 해서 운영을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군수 이범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민 의원

예. 그리고 답변 자료를 보다 보니 공보 게시대가 청사에 디지털식 1개, 읍면 사무소에 12개소 서면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관심 갖고 한번 보셔 보셨습니까?

○부군수 이범우

그전에는 솔직히 못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의원님 질의를 해서 한번 저기 우리 본청에 계시대나 한번 가봤습니다.

○지민 의원
잘 보이던가요?
○부군수 이범우
예. 제 눈이 좋아서 잘 보입니다.
○지민 의원
우리군 청사에 있는 게 좀 작아 가지고 잘 눈에 띄지도 않고 잘 보기도 좀 힘들고 그렇다는 이야기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또 읍면에는 이게 좀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이게 좀 불편 사항이 좀 많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타 시군에 이제 어떻게 이렇게 공보 게시대를 눈에 확 띄게 할 수 있고 한번에 이렇게 딱 알아볼 수 있고 이걸 운영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사례들을 보시고 또 이렇게 변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군수 이범우
이제 답변드리자면 노후된 우리 읍면에 게시되는 한번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좀 뭐 고칠 것은 고치고 단계적으로 하고 아마도 이제 좀 업그레이드 문제가 또 있어요.
사실 서면 게시 때는 계속 또 읍면 직원이 가서 계속 붙이고 뛰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향후에는 전자식으로 좀 보급하는 방안도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민 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혹시 부군수님께서 우리 해남군에서 해남 소통넷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부군수 이범우
예. 들어봤습니다.
○지민 의원
그거 굉장히 지금 핫하죠.
○부군수 이범우
활성화돼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민 의원
굉장히 핫해요. 화면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보기 편하게 눈에 확 띄죠. 저게 이제 군청과 군민을 잇는 소통 창구로 해남군은 소통넷이라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굉장히 호응을 받고 있는데 1만 7,700여 명이 가입을 해서 하루 평균 900여 건이 접속이 되고 그리고 고령 인구가 많으니까 인구 구성을 좀 감안을 해서 가장 쉽고 간결하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직관적인 메뉴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국민들에게 실시간으로 필요한 소식을 제공을 하고 주민이 직접 참여해 일상생활 불편 민원이나 활동 사진을 올리기도 하고 또 지역마다 기부자를 자랑스럽게 소개하는 기부 소식 코너도 있으며 부서별로 자체 개발한 모바일 앱을 탑재해 제공되는 공공 앱 코너도 있습니다.
전라남도 적극 행정 경진대회 우수상도 받았고 행정 정보화 연구 과제 발표 대회 최우수상도 수상을 하였습니다.
우리군은 읍면 밴드에 온갖 정보와 민원까지 올려 이제 정보 과다라는 악영향까지 끼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군도 이런 식의 어떠한 소통 공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거든요.
부군수님은 어떻습니까?
○부군수 이범우
이 부분하고 최재욱 의원이 온 발언에서 나온 웹센터하고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희들이 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저도 이제 이걸

내용을 보면 실제로 저게 얼마나 활용도가 높을지 또는 홈페이지하고 이렇게 좀 중복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이 좀 의문이 될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좀 우리 군민들이 필요한 부분을 우리 해남소통웹을 좀 많이 벤치마킹해서 최적의 웹을 만들 수 있도록 한번 노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민 의원

당연히 우리 완도군청 홈페이지하고 중복성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완도군청 홈페이지를 우리 주민들이 사용을 하기에는 가는 경로가 너무 복잡해요.
그리고 편하게 이렇게 글을 쓸 수도 없고 우리 군청 홈페이지에다가 우리군에 우리 지역에서는 이렇게 했어요라고 사진을 올릴 수는 또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하는 의도를 말씀드리는 의도는 이제 주민들이 편하게 그리고 이제 군에서 어떠한 정책을 펼쳤을 때 군에서 이러이러해서 이러한 정책을 펼칠 예정입니다.
혹시 우리 주민들이나 우리 완도 군민들께서는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어떠한 좋은 생각이 있으십니까? 우리 이제 군이 제안 제안센터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정책을 뭔가를 이제 아이디어를 내는 거 말고 우리가 시행을 하는 정책에 대해서도 국민들께서 조금이라도 이랬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편안하게 직접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경로가 좀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저희가 이제 대부분 이렇게 보면 뭔가의 정책이나 뭔가의 사업이 시작이 되고 나면 나중에서 그 정책은 이렇게 해야 돼서 좋은데 이렇게 하면 더 좋은데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왕의 정책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시작을 하기 전에 일단 먼저 군민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반영을 할 수 있으면 반영을 하고 모든 일에서 이렇게 국민들하고 소통이 좀 많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부군수 이범우

예. 알겠습니다.

○지민 의원

그런 이제 좀 편안한 공간을 한번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군수 이범우

하여튼 최대한 제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민 의원

그리고 제주 서귀포에서는 이렇게 깜깜 무소식 민원 처리 불통을 없애기 위해서 민원 처리 상황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를 시행을 해서 민원 접수 배정 완료 등 진행 상황을 SMS로 발송을 하고 소통까지 해 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타 지자체를 보면 주민을 위한 민원행정 서비스를 많이 하는데 우리군도 개선할 점이 좀 많이 보여요.
많이 듣는 이야기가 제가 어디 과에 민원을 넣었는데 이게 오는지 가는지 소식을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들을 좀 많이 하시거든요.

○부군수 이범우

제가 알기로는 하여간 새올행정시스템의 인허가뿐만 아니라 국민신문고의 고충민원은 아마도 이제 접수나 종결에 관해서는 아마 지금 메신저로 보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 추진 상황이라든지 더 한번 이제 제주도 건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또 그 답변을 했을 시에 답변이 곧 주로 그 계획에 대한 답변이 많

거든요.
그러면 그 계획이 진짜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많이 궁금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좀 연구를 해서 우리 민원인들이 좀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직원들부터가 좀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민 의원
이제 여러모로 이제 민원을 넣다 보면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처리되는 건 없을 완전히 있을 수는 없다고 봐요.
항상 불편하겠죠. 뭔가는 불편하겠는데 그나마 조금이라도 그 불편함이 좀 덜어질 수 있다면 많이 좀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범우
예. 알겠습니다.

○지민 의원
그리고 이제 답변 자료를 보다 보니 민원 대응 만족도 조사를 매년 행안부에서 주관을 해요. 행정안전부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부군수 이범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매년 8월부터 10월까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부 항목은 인허가민을 대상으로 70개 표본을 무작위로 채취해서 하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지민 의원
작년 민원 서비스 평가에서 좀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5등급 중 4등급에 라등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올해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 등급을 어느 정도 생각을 좀 하고 계신가요?

○부군수 이범우
작년보다는 더 나은 만족도 조사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민 의원
좀 더 나아져야죠. 2021년부터 24년까지 완도군이 꾸준히 4, 5등급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정말 완도군이 민원 행정 서비스에서 무엇이 부족한지 고민하시고 그 원인과 문제점을 진단을 해서 대안 마련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범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민 의원
그리고 혹시 우리군만의 자체 만족도 조사는 하시나요?

○부군수 이범우
만족도 조사 자체 만족도 조사는.....

○지민 의원
그것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민원팀장 임대영
민원팀장 임대영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해가지고 전국 단위로 하고 있으나 우리 군 자체적으로는 아직 한 번 했던 적이 없습니다.

○지민 의원
그래서 한번 해보셔서 잘 되는 점 잘 보완을 해야 되는 점 한번 파악을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범우
예. 알겠습니다.

○지민 의원
마무리하겠습니다. 민원행정 서비스는 집행부와 군민을 잇는 가장 가까운 소통의 창구입니다. 모든 민원 행정에 대해서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봐 주시길 바라고 국민들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군수 이범우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민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장 김양훈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23분 산회)

○출석의원(9인)

김양훈	박성규	지민
박재선	박병수	조인호
최정욱	허궁희	조영식

○출석공무원

군수	신우철
부군수	이범우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관광실장	안환옥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행정지원과장	이기석
민원봉사과장	김용식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체육진흥과장	최정환
농업축산과장	이정국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해조류박람회추진단장	김준혁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지역개발과장	오현철
건설과장	김진원
안전총괄과장	이홍용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최광윤
보건의료원장	한광일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수호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최영미
의사운영팀장	서을식
속 기 사	정현중

제333회 완도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10월 21일(화) 10시00분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군정 질문 및 답변의 건
   - ㅇ기획예산실장(1)
   - ㅇ관광실장(3)
   - ㅇ해양치유담당관(2)
   - ㅇ행정지원과장(2)
   - ㅇ세무회계과장(1)
   - ㅇ민원봉사과장(2)

부의된 안건

1. 군정 질문 및 답변의 건(의장 제의)
- **ㅇ기획예산실장(1)**
- **ㅇ관광실장(3)**
- **ㅇ해양치유담당관(2)**
- **ㅇ행정지원과장(2)**
- **ㅇ세무회계과장(1)**
- **ㅇ민원봉사과장(2)**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양훈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 질문 및 답변의 건(의장 제의)

오늘도 의사일정에 따라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답변은 기획예산실장 1건, 관광실장 3건, 해양치유담당관 2건, 행정지원과장 2건,

세무회계과장 1건, 민원봉사과장 2건으로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참조)
· 2025년 군정질문답변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의장 김양훈

박성규 의원님의 본안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박성규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규 의원

실장님 답변 상세히 잘 들었습니다. 먼저 답변 자료에 공약 현황을 보면 민선 8기 77개 공약이 있는데요. 77개 공약 중 완료된 공약과 완료되지 못한 공약이 있습니다. 77개 공약 중 가장 성과가 크다고 생각하는 분야와 반대로 가장 미흡한 분야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 주시고 또 왜 그렇게 평가하는지 그 사유 그리고 앞으로 추진 계획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저희들이 지금 77개 공약 중에서 세부 사업으로 따지면 약 84개의 사업이 있고요.
그 분야는 앞서 보고드렸다시피 SOC 확충부터 시작해서 미래 성장 동력까지 다양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 가장 큰 성과라고 한다면은 군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대규모 SOC 사업들 고속도로라든지 해양 관광도로 그다음에 대규모 국책사업인 해양수산박물관이라든지 국립 난대수목원 이런 대규모 국책 사업들이 우리군정의 노력으로 결실을 맺게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현재 저희들이 지금 중장기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에 추진에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은 노화하고 넙도, 서넙도 연도교 건설 사업이라든지 또 투자 여건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도의 해상 케이블카 이런 사업들은 현재 조금 추진에 더디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민선 8기가 마무리되는 시점 전에 기본 틀은 완성할 계획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성규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교통망 또 기반시설 확충 지역 개발을 위한 기반 마련은 잘 되고 있었습니다. 성공적이라고 보는데 지금 지역 경제 또 경제 회복은 우리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전반적으로 군정의 핵심 과제들은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다라고 평가하지만 우리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적인 경기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우리군도 그 영향을 피해갈 수는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역 경제 분야에서 먹고사는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이 됐다 하면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지만 현재 경제 상황이 그리 녹록치 않아서 우리군까지 그 경제 상향에 미치는 부분들은 다소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규 의원

그러면 임기 후 민선 9기 때 지속적으로 이행될 사업들은 몇 건이나 있습니까? 지금.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지금 제가 민성 9기에 대해서 어떤 사업이 연

계될 것이냐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저희들이 지금 공약 사항을 민선 8기의 공약 사항을 쭉 보면 국비가 수반되는 SOC 사업이나 또 대규모 국책 사업들은 아마 민선 9기에도 꾸준히 이어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또 해양 치유를 통해서 우리군의 비교우위 자원을 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 또 지역의 미래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사업들은 민선 9기에도 계속해서 추진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규 의원

예. 그렇습니다. 국비 사업은 이제 계획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크지만 우리군비 부담이 큰 것은 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군비 투입이 된 메탄 저감 해조류 사료 사업, 또 으뜸 한우 브랜드화 사업, 해양바이오 사업은 용역비만 투자해 놓고 만약에 민선 9기 때 안 하면 예산 낭비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용역을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용역을 추진해서 단기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는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 영역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용역 부분들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군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 사전 단계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는 절차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해양바이오 산업 같은 경우에는 군수님께서 누누이 강조하시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어떻게 산업과 연계해서 그것을 지역 경제와 연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했고 우리군도 해양바이오 산업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연구 생산 기반 시설은 어느 정도 갖춰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또 그 부분에 대한 성과 창출을 어떻게 낼까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더 깊은 고민과 함께 차기 군정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 연속성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성규 의원

임기 후 군비가 투입되어 이루어지는 사업들은 예산 낭비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조정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예산 낭비성 사업이 없도록 더 고민하겠습니다.

○박성규 의원

아울러 민선 8기 선거 공약 이행 실적 및 마무리 과제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하시는지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제 관리 부서 입장에서는 민사 8기가 지금 마무리돼가는 시점에서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시적인 성과를 잘 창출해서 마무리할 것인가에 대한 초점을 두고 있고, 두 번째는 아직 초기 단계에 지금 다음 군정에 이어갈 수 있는 군정 과제들에 대해서는 제도적이라든지 제도적 절차라든지 그런 문제의 기반을 닦은 후에 다음 군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 기본적인 틀을 좀 만들어 가겠다라는 생각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성규 의원

남은 민선 8기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성규 의원

이어서 공모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

니다.
영상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시가 시비를 확보하지 못해 반환해야 하는 국도비 매칭 사업은 모두 56건, 금액으로는 483억 원에 이릅니다. 여기에 이자까지 더해 돌려줘야 해서 재정 부담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공모 사업을 중도에 포기할 경우 앞으로 신규 사업 공모에 불리하게 작용해 지역 발전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시민 1인당 채무는 35만 7천 원으로 비슷한 지자체 평균의 3배가 넘습니다.
이들 사업마다 수십억 원씩 수백억 원의 예산을 쏟아 부으면서 재정난을 키웠다는 지적입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목포시는 행정안전부의 권리 아래 지방 재정 위기 단체로 지정돼 사실상 식물 행정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시 재정 위기 경보가 수년 전부터 이어졌지만 시장 권한대행 체제의 목포시는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성규 의원

영상에 나온 바와 같이 국비 보조 사업의 경우 대부분 지방비 매칭 사업으로 국비가 늘어날수록 부담해야 할 군비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예. 그렇습니다.

○박성규 의원

답변서에서 공모상 문제점으로 군비 매칭 의무에 따른 재정 운영 탄력성이 저하된다고 하셨는데 군비 확보 전략이 따로 있으십니까?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재정 자립도가 낮은 우리 완도군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 확보에 어떻게 보면 사활을 걸어야 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토비 확보의 확보 수단 중에 하나가 바로 공모 사업이고, 이 공모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지역의 현안 문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다만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해년마다 저희들이 국도비의 매칭에 들어가는 군비가 약 1,100억에서 1,200억 정도 부담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군비 부담률이 높은 공모사업 특히 3 대 7 군비가 약 70% 이상 소요되는 그런 공모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좀 검토할 필요성을 좀 가지고 있고 또 의원님이 참여하시는 공모사전 심의를 통해서 공모 사업의 적정성과 필요성을 좀 검증해 나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박성규 의원

그리고 도비 매칭 사업은 대부분 2 대 8 이렇게 됩니까?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도가 지원이 적습니다.

○박성규 의원

도비 2 대 8 정도는 우리군에서 좀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도비 20%, 군비 80% 말씀이시죠?

○박성규 의원

예.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이제 그거는 사업에 따라서 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도가 전체적으로 도비를 좀 많이 지원해 주면 고마운데 현재 도 재정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 않아서 도비 자체 사업만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그리 많지는 않고요. 대부

분 도가 전환 사업을 통해서 우리군에 교부를 해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에 따라서 필요하면 추진은 좀 해 나가는 것도 맞다고 봅니다.

○박성규 의원

하여튼 이 정도 되면 군비 20%면 좀.....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아, 그거는 당연히 받아야죠.

○박성규 의원

당연히 받아야죠. 그런데 많이 반납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그것은 의원님 앞에서 말씀드리기 좀 애매한데요.

어떻게 보면은 사업에 조금 의원님도 아시죠? 이게 왜 우리가 군비를 받지 못했던 상황이신지는 그건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규 의원

그것도 잘 챙겨주시고요.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규 의원

그리고 2022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 110건인데요.

그런 공모 사업 110건 중 48건은 지금 추진 중이고, 602건은 완료가 됐다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예. 그렇습니다.

○박성규 의원

그러면 완료되지 못하고 추진 중인 건수는 2월 된 사업이나 계속비 사업입니까?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현재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요. 저희들이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약 48건 되는데 2 올해 17건을 제외하면 약 31건이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인데 이 사업들은 단기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공모 사업 특성상 3년에서 5년 정도 걸리는 사업인데 그런 사업들은 대부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2월과 계속비를 통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성규 의원

그러면 48건에 대해서는 예산 수반은 어떤 문제가 없습니까?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예. 현재는 뭐 특별히 이렇게 어려움을 겪지는 않습니다.

○박성규 의원

실장님, 사업이 잘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규 의원

그리고 실장님 공모 사업이 선정된 이후 예산 수립 등 거쳐야 할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모 사업에 대한 정보가 뒤늦게 의회에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그거 알고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저희들이 이제 공모 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우리 의원님 대표 의원님 두 분이 참여하는 공모사업 사전 심의를 통해서 공모를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결정을 하고 나면 저희들의 부서에 군비 부담이 큰 사업들은 의원님께 미리 사전에 설명을 좀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절차들이 아마 아직까지는 정착이 되지 못한 것 같은데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 부서장님 다 계시기 때문에 향후 군비 부담이 큰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원 간담회 등을 통해서 의원님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규 의원

하여튼 군비 매칭이 큰 경우에는 반드시 의회에 보고를 좀 빨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그래서 의회하고 소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중간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규 의원

이어서 정부 합동 평가에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보고는 잘 들었습니다마는 정부 합동평가 우리 의원 순위가 지금 몇 입니까?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지금 정부 합동평가는 기본적으로 상위권인 10위 이내에만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고요.

아쉽게도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좋은 성적은 아니고 좀 하위권에 머물러 있어서 항상 좀 분발해야 할 분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규 의원

의회에서도 정부 합도 평가에 대해 지적을 많이 했는데요.

계속해서 우리군이 하위권을 못 벗어나고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방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어차피 정부 합동평가는 뭐 저희 기획실이 총괄 책임을 지고 부서하고 협업해서 추진하고 있는 과제 중에 하나인데요.

매년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평가는 항상 좋지 않게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그 아쉬움을 좀 갖고 있고, 보시는 바와 같이 정량 평가에 대한 평가가 현재 좀 다소 부진하게 현재 나타나고 있고, 특히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군 특성상 수소 충전소라든지 제로에너지 건축물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 이런 분야에서 점수를 상당히 좀 많이 까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지금 부군수 주재로 몇 차례 점검 회의를 했고 앞서 보고 드린 말씀대로 추진이 불가한 지표는 빨리 포기하자.

다만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지표를 더욱더 좀 발굴해서 우리가 그 점수를 좀 만회하는 형식으로 점검을 좀 해 나가자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성규 의원

지난 9월 17일 2026년 정부 합동평가 2차 보고회를 하셨죠?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예. 그렇습니다.

○박성규 의원

답변서를 보면은 94개 지표 중 36개는 달성했으나, 41개는 미달성 상태에 있고, 3개는 달성이 불가능하다 평가를 받았는데요.

물론 41개의 미달성 중에는 우리 지역 여건과 불일치하는 집회도 있겠지만 우리 부서장님 관리 부실과 공무원들의 또 업무 테마도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궁극적으로 결과가 그렇게 좋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의원님의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41개가 미달성된 게 아니고요. 12월 말에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결과를 보고 드리기 때문에 현재 추진 중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지표고 연말까지 12월 31일 기준으로 산식을 대입을 시키기 때문에 미달성은 아니고 현재 추진 중이고요.

저희들이 분석했을 때 '아, 이거 어렵겠다' 하

는 것은 4개 정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규 의원

남은 기간에라도 부서 장기와 관리 감독 잘 하셔서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성규 의원

실장님 더 큰 완도를 위한 1년 민선 8기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답변서에서 보면 임기 내 실적 성과 도출을 위해 주요 현안 중 50개 내외 핵심 정책 과제를 46건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임기 내에 46개 정책 과제 중 몇 건이 완료될 거라고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몇 가지 안 된다고 보는데요. 주민복지과, 해조류박람회추진단 그리고 몇 개 안 되어 보이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저희들이 이제 이 군정 핵심 과제를 연초에 선정할 때 제일 중점을 둔 것은 각 부서별로 추진하는 과제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과제가 무엇이냐라는 기준을 좀 삼았고 특히 우리 전체적으로 군정에 봤을 때 각 부서가 핵심적으로 챙겨야 할 과제들을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연 임기 마무리 때 몇 건이나 완료할 수 있겠냐라고 여쭤보시는데요.

현재 추진 중에 과제 중에서는 완료된 과제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현재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정적 제도나 절차들을 좀 정리해서 민선 8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행정의 연속성을 가지고 이어갈 수 있도록 그 기반의 틀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과제를 추진할 때 성과를 마무리하겠다는 개념보다는 성과를 좀 지속적으로 성과를 지속시키는 구조를 좀 만들어 나가서 다음 군정에 우리의 핵심 과제들이 바통이 잘 이어져서 연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만들자라는 취지에서 추진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성규 의원

민성 9기 또 46건의 과제는 다시 재편되거나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네요.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아마 이제 새로운 군정이 들어서면 일부 과제의 조정이나 보완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는 제 욕심은 민선 8기에 저희들이 추진했던 핵심 과제들이 단순히 단기 성과를 목표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우리의 미래를 고민하는 성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다음 군정이 연속성을 가지고 행정이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 저 또한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하면서 정책을 정리해 나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성규 의원

제가 보니까 군수님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많은 부분이 이제 변경이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국비 사업은 계속 추진이 되겠지만 군비 사업에는 많이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아마 새로운 군수의 정치 군정 철학이나 비전에 따라서 다소의 변화는 있을 거로 생각되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비가 수반되는 대규모 SOC 국책 사업뿐만 아니라 우리군의 미래를 위해서 그동안에 투자했던 그동안에 추진해 왔던 그런 핵심 과제들은 다음 군정에도 그런 것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저

희 행정 공무원의 역할이 아니나 싶습니다.

○박성규 의원

임기 내에 성실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규 의원

이어서 오리곤 ESG행정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서에서 과제 설정 및 현황은 굉장히 잘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과제 설정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저희들이 이제 행정에 ESG 접목을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행정의 이 흐름의 변화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들이 기존의 새로운 신규시책보다는 기존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각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나 과제에 대해서 환경적 측면, 또 사회 제도적 측면을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지속 가능한 구조로 만들어보고자 이런 목적으로 실시를 했고요.

기존의 과제 설정하는 단계에서 현재 새로운 과제도 있겠지만 기존 사업이 환경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건지, 또 사회적 약자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제도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구조인지 이런 부분을 점검해서 부서와 협력해서 그 과제 하나를 하나하나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박성규 의원

잘 하셨고요. 그런데 우리군 ESG 실천 사례를 보면 또 많이 부족한 면이 보여요.

17개 목표 중에서 적어도 1개 목표당 1개 이상의 실천한 사례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예. 의원님 말씀대로 이게 지금 저희들이 ESG 행정을 접목하는 초기 단계에 있고, 지금 보고서에는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외부 평가들을 통해서 그나마 객관적인 평가를 받았던 그런 사례들을 좀 몇 가지만 좀 올려놨고요.

향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 부서별로 추진하는 과제 중에 실질적인 실천 사례들을 좀 더 끌어내는 데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성규 의원

아울러 실천 사례들이 있는데 찾아내지 못한 사례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사회 분야에 섬 지역 마을 공동 빨래방 사례들이 있거든요.

실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예. 의원님 좋은 말씀이고요. 아마 생활 현장 속에서 하는 사례들이 ESG 행정의 가치와 가장 맞다고 보고 있고요.

더욱 이제 말씀하신 대로 각 부서별로 협력해서 실천 사례들을 1과제 1실천사례 중심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박성규 의원

내년에는 부서별로 의논해서 목표별 실천 사례를 찾아내거나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규 의원

그리고 이어서 이건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실장님 우리군이 여러 상을 많이 받았다고 연일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시죠?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예. 그렇습니다.

○박성규 의원

그런데 우리군 지방 교부세 실적이 있나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한 건도 없더라고요.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지금 평가는 어차피 이제 우리가 행정을 하다 보면 각 부서별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잘 된 사례들을 평가를 받고 있고 그 평가의 방식은 외부 평가도 있고 또 중앙부처라든지 전남도 평가도 있고 그러는데요.
외부 기관의 평가에 대해서는 교부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평가는 아니고 지금 중앙부처 전라남도 이런 쪽의 평가를 받아서 우수상을 받으면 거기에 따른 교부세는 저희들이 지금 확보하는 실적은 있습니다.

○박성규 의원
우리 인근 강진 같은 경우도 큰돈은 아니지만 뭐 5천만 원, 해남 같은 경우도 5천만 원씩 이렇게 받았거든요.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저희들도 받고 있습니다.

○박성규 의원
상도 받아서 대형 플래카드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은 재정 자립도가 낮은 우리군으로서는 지방 교부수가 실적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예. 그렇습니다.

○박성규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서별 논의 후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내년에는 실적 제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예. 좀 실적이 더 나오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성규 의원
마지막으로 실장님이 생각하시는 남은 민선 8기 군정 정책 수립 기준과 원칙 그리고 비전은 무엇인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예.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지적을 많이 해 주셨고요. 저희들 기획예산실에서 입장에서는 전체 부서가 추진하고 있는 핵심 과제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의 역할이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은 성과를 좀 집약해서 마무리하는 시점을 갖고 앞으로 또 추진해야 할 사업들은 다음 군정에 이어질 수 있도록 그 역할들을 행정에서 좀 해야 되겠다라는 기본적인 틀은 변함없이 추진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정 과제 중에 기후 변화, 기후 위기 대응이라든지 또 신산업 육성 분야라든지 또 민생 회복 분야 이런 새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기조를 우리군 행정에 어떻게 접목시켜서 정부와 호흡을 맞춰가며 우리군의 행정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는 마지막까지 고민하고 부서와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규 의원
우리 군수님께서 초대부터 지금까지 지역 경제와 관련하여 전복 산업 육성을 위해 많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잘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갈수록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제도 보완과 지원책이 소홀했던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우리 더불어 우리의 활력을 가득 차야 할 지역 경제는 폐업으로 영업을 접어야 하는 업소들이 증가하고 있고 소상공인들은 공과금조차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또 외래 방문객을 유인한 유인책도 일회성이 아닌 장기적인 관광 활성화 대책에 시급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의원님께서 저에게 상당히 좀 큰 질문을 주셨네요.

보니까 제가 전반적으로 기획예산실로서 군정의 기획 조정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아마 질문 주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군정을 소홀히 했다고는 생각지 않고요.

전반적으로 열심히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소 아쉽게 나타나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향후 말씀하신 대로 어떤 특정 부서의 일만은 아니다.

방금 주신 그런 사례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특정 부서의 일만은 아니고 우리 여기 계신 부서장님과 함께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다시 고민하고 열심히 일하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고 더욱더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규 의원

실장님 수고하셨고요. 민선 8기 남은 임기 마무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예. 적극적으로 군수를 보좌해서 마무리까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고맙습니다.

○의장 김양훈

최정욱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욱 의원

실장님 뭐 이건 질문보다는 당부 한 번 드리고자 제가 질문 신청을 했습니다.

아마 제가 군수님한테 군정 질문할 때마다 우리 지역, 우리 바다에 그 배 항구 또 연근해 조업 선단 유치하는 항이나 여러 가지를 제가 몇 번 지금 몇 차례에 걸쳐서 아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완도는 정말 완도읍을 끼고 있는 천혜의 자원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제일 우선적으로 항이 잘 갖춰지면 이것도 하나의 관광 자원이요.

지역 경제 소상공인의 혜택이 굉장히 크다고 우리군도 그걸 우리 답변 예전에 보면 한 대당 얼마라는 그런 기준도 다 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심각성을 알리고 제가 몇 차례 질문하고 또 예지 선단들이 이런 좋은 조건에 완도는 항에 관심이 없다 그러면서 저한테 편지까지 18개 선단들이 전부 그 같이 동의를 해서 그 이름과 명단으로 저한테 편지를 써서 내가 이 보내자 해서 읽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정욱 의원

예. 그렇죠. 이제 근데 제가 작년에도 또 우리 제4차 기본항만계획 수정안이 올해인데 꼭 이걸 넣어서 이게 꼭 돼야 된다 해서 꼭 한다고 했는데 올해 또 빠졌더라고요.

못 했더라고요, 반영을. 그렇게 되면 또 이게 반영을 해서 하려고 하면 5년이 또 기다려야 되고 또 5년이 된다 해도 다시 또 예산 받아서 하고 하려면 이거 10년 간다고 봐요.

그만큼 우리군은 뒤쳐져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마 지금 보니까 연근해 조업선도 완도항 유치 기반 확대 조성을 하겠다고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당부 드린 건데 이제 우리 신우철 군수님도 임기가 얼마 안 남았지만 군민들이 볼 때는 해양 추위에만 관심을

갖다 보니 이런 걸 놓쳤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왕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 하면 꼭 이것이 잘 돼서 우리군비라도 해서 기본 계획 잘 세워서 그런 소리도 안 나고 또 이런 게 뒤처져 버리면 안 되죠.
제일 급한 게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참고해서 우리 기획실에서도 적극적으로 실과 담당과 협조해서 이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예. 의원님 주신 말씀을 저희들도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아마 경제교통과에다가 군정 핵심 과제 중에 하나를 지금 포함시켜놨거든요.
그래서 경제교통과에서 기본적인 틀을 좀 만들고 아마 저 부분들이 기반 조성도 있지만 민간 투자주식 영역도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같이 좀 고민해서 경제교통과에서 기본 틀을 마련해 오면 저희들이 점검해서 지원할 부분들을 좀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욱 의원

하여튼 특별한 관심을 갖고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양훈

박병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의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 시간은 아니지만 오늘 아침에 보도된 신문 내용에 대해서 군정을 기획 총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현안 사업을 국민들이 궁금해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농식품부에서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 지역의 2년간 월 15만 원씩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 소득 시범 사업이 신청이 있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예.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박병수 의원

전남 도내 16개 지자체 중에 완도군과 담양군만 신청을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실장으로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 부서는 별도로 있지만 답변을 좀 드리겠는데요.
당초에 저희들이 서천호 국회의원께서 이걸 국회의원 요구자료로 제출을 9월달에 저희들에게 자료 요구를 한 적이 한번 있어서 그때 저희들 한번 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농어촌 기본소득이라는 게 매년 1인당 15만 원을 지역 화폐로 국민들에게 지역민들에게 주겠다.
이게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 중에 하나로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들이 검토를 했을 때 이게 과연 재원 부분을 어떻게 될 것이냐를 구분을 봤는데 국비가 40%고 지방비가 60% 입니다.
그중에서 또 도비 군비를 4 대 6으로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럼 우리군의 재원은 얼마나 소화되겠냐 파악을 해봤는데요.
그 당시에 파악할 때 저희들이 인구 수가 4만 4,900명으로 산정했을 때 2년간 1,616억 정도가 소요된 걸로 파악을 했었고 그리고 군비는 얼마 들어가냐고 봤더니 1년에 매월 24억 1년에 290억 2년에 580억 이 군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군비만 순수 군비만 그래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가 과연 이 재원을 감당할 수 있겠냐

신청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의 신청을 했을 때는 그만큼 성과를 내기 위한 노력도 해야 되는데 지금 재원을 가지고 지금 저희들의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1년에 쓸 수 있는 가용 재원은 약 600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본 소득의 1년에 290억을 무슨 돈으로 어떤 재원으로 그 재원을 감당할 거냐 예를 들어서 감당하려면 할 수는 있겠죠.

그러면 다른 쪽에서 그만큼 국민들에게 돌아갈 예산은 그만큼 준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군비 재원이 별다른 재원이 없는 상태에서 추진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었고요.

그래서 우리군에서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 시범 사업이 지금 어제 언론 발표에 보니까 전남 같은 경우는 전국에 7개인데 전남은 좀 신안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신한 사례는 햇빛과 바람 연금을 통해서 기본 연금 재원을 만드는 모델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저희 군 입장은 시범 사업이 2년간 진행되면서 정부의 정책 기조가 변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정책 기조에 맞춰서 우리군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의 고민들을 지금부터 하는 게 맞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앞서 군수께서 아마 의원님께 보고드린 내용 중에 하나가 그거와 좀 관계가 되었는데요.

앞으로 해조류가 블루카본 인증을 받게 되면 그 기반을 통해서 우리는 바다의 연금을 통해서 좀 만들어보자라는 취지의 말씀을 주셨고 우리군 입장에서는 그것을 블루카본으로 인증되면 탄소 크레딧 거래 기반을 구축해서 그것들을 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겠다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고 그게 지금 대통령의 지역 공약에 포함되어 있고 얼마 전에 군수께서 국무총리에게 건의했던 과제 중에 하나다. 그렇게 좀 말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박병수 의원

지금 본 의원도 군비 부담이 크다는 것을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지자체들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신청을 해서 안 될 수도 있고, 신청 자체를 안 한 것에 대해서 군민들이 실망하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한편으로는.....

○박병수 의원

신청 자체를 안 한 것이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이제 그 부분들은 왜 신청을 안 했냐에 대한 답변은 제가 이미 좀 드린 것 같고요.

그게 형식적으로 신청을 해서 우리군이 감당할 수 없는 재원을.....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예. 좋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자체 장흥군은 군민에 관해서 시범 사업 선정을 위한 군민 응원전을 펼쳤고, 보성군은 농업인단체 대표들과 시범사업 유치 간담회를 하고, 또 곡성군은 부군수를 단장으로 한 전담 TF팀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들은 그런 문제점이 없는가요?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제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의원님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병수 의원

우리 완도군은 시작부터 안 했다고 하니 군민들의 실망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좀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저희들이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향후 준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추진 부서와 함께 좀 고민을 해서 그 재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마련할 것인가 새로운 재원은 어떤 방법으로 마련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대신 드리겠습니다.

○박병수 의원

그러면 이 사업을 담당을 하면 부서는 어디에서 합니까?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지금 현재 인구일자리정책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의원

이재명 정권이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을 포함한 기본 사회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그럼 추진합니까? 기본 사회 정책 업무.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저번에 이제 새로운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기본 소득 관련해서도 농어촌 기본연금 부분은 또 위에 중앙부처가 농식품부가 되어 있고, 전라남도는 인구정책과가 되어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신규 일이기 때문에 이 부서 조정이 이루어졌고, 지금 기본 연금에 대해서는 아마 인구일자리정책실에서 지금 정확히 추진한 거 있고 사무분장 관계는 추후에 행정지원과하고 제가 한번 정확히 파악한 후에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병수 의원

그 부분을 파악해 보시고 정부 정책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또 부서 간 총괄 컨트롤타워를 지정하고 담당 부서의 역할과 일정표를 명확히 챙겨서 정책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병수 의원

이번 건에 대해서는 신청 포기가 아니라 근거 있는 결론이었네요, 그러면?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아예 처음부터 아예 포기한 건 아니고.

○박병수 의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좀 납득할 만한 해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예. 방금 제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의원님께 보고드린 것은 군민들께도 보고드린 걸로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병수 의원

앞으로 기본 사회 정책 등 중앙 정부 기조와 연동되어 있는 사업은 선제 검토하고 공개 토론, 또 의회 보고 등의 절차를 거치고 행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지 않도록 꼼꼼하고 꼼꼼하게 책임 있게 좀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예.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의장 김양훈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1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0분 회의계속)

○의장 김양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관광실장

○관광실장 안환옥

(참조)
· 2025년 군정질문답변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의장 김양훈

지민 의원님의 본안 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지민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 의원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완도 방문의 날 관련 몇 가지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완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방문의해를 선포를 하면서 관광객 유치에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죠?

○관광실장 안환옥

예. 맞습니다.

○지민 의원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방문의 해라는 타이틀을 걸고 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완도군 또한 뒤처지지 않도록 보다 또 전략적이고 차별화된 노력이 좀 필요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올해 완도군이 방문의 해를 선포를 하면서 천만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하셨습니다.
현재까지 완도군에 몇 명이 방문을 하였고 전년 대비 관광객이 얼마나 증가하였는지 이게 책자에 자료로 나와 있지만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실장 안환옥

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년도에는 721만 명이 방문을 하였고 8월달까지 금년 또는 525만 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추세로라면 연말까지 해서 최소 한 760만 명이 방문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민 의원

또 이제 방문의 해를 맞아서 새롭게 추진한 사업이 있으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관광실장 안환옥

이제 방문의 해 선포식 한 이후에 전국노래자랑을 개최를 해서 완도를 좀 홍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치유페이에 대한 홍보, 그에 따라서 월별로 할인 혜택과 여기에서 반값 할인 행사를 같이 시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치유페이 페스타 팔로우 이벤트도 진행을 한 바가 있고, 해양치유센터와 연계한 그런 프로그램도 진행을 해서 많이 홍보를 했습니다.

○지민 의원

우리 여기 주요 사업 중에 하나가 치유 페이 사업이 있었어요.

○관광실장 안환옥

예.

○지민 의원

그 예산이 이제 8월 초에 이렇게 소진이 다 되었죠?

○관광실장 안환옥

예. 그렇습니다.

○지민 의원

그리고 실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전년도 한국관광데이터랩 통계에 따르면 완도군 방문자 수는 상반기에 비해서 하반기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약간의 감소세가 좀 보이거든요. 그 추세가 좀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하반기 한 두어 달 정도 남았는데 그 기간에 또 할 수

있는 어떠한 이벤트나 사업이 있으시면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실장 안환옥

이제 저희들이 대표 축제가 봄에는 슬로우걷기축제가 있고, 장보고수산물축제가 있고, 하반기에 가을섬 여행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도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가을섬 여행 축제를 진행하게 되어 있고, 이제 치유와 관련해서 치유센터와 약산 해안 치유의 숲과 연계하는 그런 힐링 여행 프로그램들을 좀 활성화시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민 의원

우리 남은 기간 사업 추진에 있어서 본 의원은 무엇보다도 우리 또 완도군만의 특색 있는 또 요즘 트렌드에 맞춰 나갈 수 있는 그런 관광 상품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그거에 대한 홍보도 또 많이 또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광실장 안환옥

맞습니다.

○지민 의원

그렇게 해서 좀 잘 좀 준비 좀 해 주시고 우리 그 치유페스타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들을 보면 이벤트 안내가 그 하루 전이나 당일날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가 좀 있었어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그 관광객들이 정보를 제때 접하지도 못하고 그거를 또 같이 경험도 못하고 참여 기회를 또 놓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아쉬움이 좀 많이 남죠. 방송실 자료 화면 하나 올려주세요.

저거 보시면 이제 고향사랑 방문의 해를 추진중인 남해군거거든요.

이렇게 사전에 이렇게 상세하게 행사 일정을 미리 공지를 해서 이렇게 향후나 이렇게 관광객들이 미리 알고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저렇게 한꺼번에 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완도군도 이렇게 타 지자체처럼 사전에 이렇게 행사를 좀 미리 공지를 해서 이렇게 관광객들이 미리 또 참여를 하고 또 관광으로 오면 미리 계획을 짜고 오잖아요.

그래서 계획을 또 하고 준비를 하고 올 수 있도록 관광객 유치에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어떻습니까?

○관광실장 안환옥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도 우리군에서 월별로 하는 행사 계획들이 연초에 이렇게 공지가 돼서 몇 월 달에 무슨 행사가 있고 이런 부분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직원들께 축제나 행사나 대회 개최 이런 부분들을 각 부서별로 취합을 해서 그것을 홈페이지에 공지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제가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전에 저희들이 공지를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지민 의원

그리고 또 우리군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렇게 공지나 홍보 부분이 굉장히 좀 늦고 또 이제 홍보 같은 거를 또 하다 보면 제가 이제 여러 말씀을 또 드렸는데 홍보를 하다 보면 그 담당 실과에서만 그 직원들이 SNS라든지 이런 홍보 부분을 하지 전 실과에서 이렇게 함께 동참을 해서 집중적으로 하는 걸 별로 못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광실이라는 게 우리 완도 같은 경우에는 관광이나 이런 이벤트나 어떠한 관광 상품이라든지 이러한 모든 국민들에게 조금 더 많이 오시게끔 하려면 이렇게 모든 분들의 집중적인 홍보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알겠습니다. 좀 많이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이렇게 우리 치유 회의를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의원이 몇 가지 좀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 그 2024년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 1인 가구 비율이 36.1%에 달한다고 해요.
근데 하지만 우리 현행 치유페이 지원 조건은 1팀에 2인 이상이 와야 여기에 혜택을 볼 수 있잖아요.

○관광실장 안환옥

예. 금년에는 그렇습니다.

○지민 의원

올해 그랬죠. 그러면 이제 1인 관광객이 참여하기는 어려운데 요즘에 1인 가구도 많고 요즘에는 또 힐링 여행이다 그래가지고 너무 세상이 각박하고 힘드니까 혼자서 조용하게 이렇게 왔다 가고 이렇게 지역을 이렇게 여러 군데를 자세하게 이렇게 살펴보고 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1인 관광객도 참여할 수 있도록 조건을 좀 완화를 해서 지원 금액도 좀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실장님은 어떻습니까?

○관광실장 안환옥

이제 금년도 시행해 보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좀 검토한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이 도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인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되 지원 금액을 좀 조정을 해서 하향 지원을 하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민 의원

그리고 이제 둘째로는 우리 이번에 회원 가입부터 영수증 보고 이렇게 처리해 주는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좀 여러 가지 좀 많은 일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신청 과정을 좀 단순화하고 또 이렇게 증빙 자료를 보여주고 이렇게 지폐를 받는 부분까지 조금 간소화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방법이 있습니까?

○관광실장 안환옥

저도 이제 여러 팀들을 방문해 오면서 치유페이를 안내를 해 주고 설명을 하고 했는데 상당히 이제 좀 절차가 까다롭고 하기가 좀 번거로운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저도 이제 알았었는데 좀 더 개선 방향을 좀 해서 간소화하면서도 혜택을 줄 수 있게끔 그렇게 좀 고민하고 내년도에는 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지민 의원

많이 간소화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인증 부분이라든지 본인 확인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조금 굉장히 긴 시간이고 또 사람이 몰릴 주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많이 몰렸었잖아요. 어떠한 이야기도 또 나왔었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간소화가 되고 간소화가 되나 정확하게 할 수 있게끔 방안을 한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실장 안환옥

알겠습니다.

○지민 의원

그리고 세 번째로 경비 지원 방식에도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현재 이렇게 오프라인 쿠폰 지급 방식에서 당일 특산품 교환하고 바로 이렇게 나가는 떠나는 관광객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방문 유인 효과가 조금 적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를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전환을 한다면 관광객이 향후 혹시 완도를 다시 또 재방문하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관광실장 안환옥

지금 이제 강진군에서 하고 있는 반값 여행이 모바일로 하는 그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이제 두 가지를 같이 연합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모바일과 현장에서 근데 이제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훨씬 더 체감을 더 느끼고 있다는 거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우리들이 느끼기에는 근데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강진 같은 경우에는 그걸 못 쓰고 가게 되면 모바일 쿠폰으로 해서 특산품 구매라든지 이제 재방문 하면 좋지만 멀리 있는 분들은 그렇게 소비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진에 가까운 인근 지자체는 다시 가서 재방문해서 먹고 오고 놀다 오는데 서울 경기 지역에서는 그러기가 어려우니 상품권으로 그냥 구매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민 의원

그런 것도 방법도 이제 두 가지로 해서 이렇게 혹시 가까운 곳에 있으면 다음번에 또 올 수도 있잖아요.

○관광실장 안환옥

그렇습니다.

○지민 의원

멀리 계신 분들은 이걸 이제 현장 상품권으로 준다라고 하면 이걸 폐기를 해야 되니까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실장 안환옥

예. 알겠습니다.

○지민 의원

그리고 좀 전에 이제 말씀은 드렸고 이번에 이제 그 치유페이 지급을 하면서 이제 그 공간이라든지 장소라든지 또 우리가 뜨거운 여름에 좀 여러 일들이 좀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내년에 이제 시작을 하실 때 이런 이제 장소라든지 또 이제 기다리고 있는 분들을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 가지 이제 좀 보완점을 좀 해서 내년에는 꼭 성공하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준비 부탁드립니다.

○관광실장 안환옥

예. 잘 알겠습니다.

○지민 의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무비자 입국 제도가 한시적으로 시행이 됐다고 합니다.
우리군은 제주도와 좀 인접을 해서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완도를 경유할 가능성이 꽤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비해서 수용 태세를 사전에 점검하고 완도 경유형 관광 코스를 개발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완도의 해양 치유 슬로시티 전복 해조류 체험 이거 굉장히 좀 인기가 좀 많잖아요, 외국인들한테. 그리고 섬 관광자원 등을 결합을 해서 중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단체 관광객 맞춤형 상품을 사전에 준비를 한다면 새로운 시장을 좀 선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실장님의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나 상품화 전략이 있으시다면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실장 안환옥

일단 이제 중국인 무비자 입국에 대해서 여행사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제가 관내 여행사에 전화를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중국인들을 모시고 오기에 너무 어려움이 많다 이렇게 이제 먼저 부정적인 시각으로 얘기를 한 여행사가 하나

있었고 그 무비자 정책을 우리한테 빨리 적응을 시키자 해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여행사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여행사와 그 쪽 지역의 후베이성 쪽에 관계자들 팸 투어를 한번 해서 그분들을 먼저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중국인들을 입국을 시킬 수 있게끔 여행사 쪽에서는 그렇게 이제 해 나갈 계획을 갖고 저희들이랑 협업을 해 나가기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해양치유센터에 있을 때 외국인들을 보게 되면 상당히 이제 기후 문화 치유 프로그램을 상당히 좋아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치유센터에서도 마무리를 하는 것을 선호를 하고 있어서 그런 해양치유와 연계하는 프로그램들을 좀 개발을 해서 이국인들이 오게 되면 체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갈 계획인데 일단 중국 분들 관계자들이 오게 되면 팸 투어에 그런 사항을 포함시켜서 우리 이제 생태 관광을 할 수 있는 곳과 치유와 힐링을 접목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을 좀 체험을 먼저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민 의원

여러 가지 방안으로 좀 준비를 해서 철저하게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실장 안환옥

알겠습니다.

○지민 의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내년에 정부에서 지역 사랑 휴가지원제를 시범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혹시 관련 내용 알고 계신가요?

○관광실장 안환옥

예. 그게 이제 국도에서 참여 희망 지자체를 파악하는 공문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이 지원금이 그렇게 거기도 군비 부담금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일단은 저희 군에서는 지금 치유페이를 하고 있으니 휴가 지원 부분도 일단은 선정이 되게 된다면 그 지원도 혜택을 받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도에 그 부분은 참여를 하겠다 하는 공문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지민 의원

여기 이제 20곳을 선정을 해서 여행 경비의 50%를 이렇게 환급을 해 주는 제도이고.

○관광실장 안환옥

그렇습니다.

○지민 의원

또 우리 치유페이하고 같이 해서 한다라고 하면 좀 더 시너지 효과가 좀 더 클 것 같아요. 철저하게 좀 준비 좀 해서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실장 안환옥

예.

○지민 의원

그리고 끝으로 저는 관광이 살아야 또 우리 지역이 좀 산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완도군은 모든 지역의 관광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또 이제 많이 듣는 이야기가 저희가 이제 완도에 살다 보니 완도 가면 뭐예요? 어디가요? 왜냐하면 완도라는 곳이 굉장히 먼 곳이라고 또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쉽게 접하지를 못하고 일단 볼 수 있는 게 인터넷으로밖에 먼저 볼 수 없잖아요.
근데 완도에 산다라고 하면 완도를 며칠 계획으로 하는데 어디 갈까요?
또 식당은 어디 가면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완도에서 지금 50년 넘게 살고 있지만 뭐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군민들의 한 반절 이상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완도군에 50년 이상을 살아도 노화에 한 번도 안 가보신 분도 계시고 청산에 한 번도 안 가보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12개 읍면에 또 우리 지금 치유관광 해가지고 각 읍면에 해양치유 이렇게 해서 또 굉장한 관광지들이 많이 조성이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러한 분들이 이게 우리 완도군민들이 모든 게 이게 머릿속에 다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디를 가면 어디 코스를 해서 어디를 가서 무엇을 보고 또 어떠한 음식을 먹고 두 명이 가면 어디 가면 좋고 이런 게 다 매뉴얼화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관광실장 안환옥

맞습니다.

○지민 의원

그래서 모든 관광지를 우리군민들이 전체적으로 그냥 우리 책 공부하듯이 암기화가 되게끔 이렇게 관광실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좀 고민을 좀 한번 해봐 주시고 우리가 열심히 행정에서 만약에 완도는 관광지 어디 가면 좋아 이렇게 해봤자 실질상 오시는 분들은 인터넷을 보고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또 주민들한테 물어보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홍보를 우리 국민들을 이용을 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많이 퍼트리자라는 그런 신념을 좀 가지고 이렇게 매뉴얼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관광실장 안환옥

예. 알겠습니다.

○지민 의원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완도 방문의 해를 위해서 열정을 다해 주신 실장님과 우리 관광실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를 좀 진심으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또 이러한 노력들이 완도의 미래를 밝히고 국민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밑거름이 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관광실장님 수고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실장 안환옥

예. 잘 알겠습니다.

○지민 의원

이상으로 보충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장 김양훈

관광실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실장 안환옥

(참조)
· 2025년 군정질문답변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의장 김양훈

박재선 의원님의 본안 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박재선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 의원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관광 산업의 범위가 엄청 넓죠?

○관광실장 안환옥

예. 그렇습니다.

○박재선 의원

그런데 그중에 또 먹거리 중에서는 우리 완도 전복거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지정이 또 됐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실장님께서 계속 그 거리는 많이 돌아다니실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관광실장 안환옥

예. 거기는 종종 다녀보고 있습니다.

○박재선 의원
돌아다니는 보면서 어떤 것을 좀 느낍니까?
○관광실장 안환옥
거기가 약간 지금 침체되어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봤고요.
어떻게 하면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게 할까 상당히 이제 고민스럽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박재선 의원
자료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5개 식당밖에 하지 않아요?
그 거리에 타 지자체는 사실 엄청나게 홍보가 많이 되고 먹거리 중에 하나인데 전복거리를 만들어 놓고 저 보시다시피 조형물도 그렇고 아주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요.
저것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까요?
○관광실장 안환옥
지금 이제 당초에 7개 업소가 있었는데 지금 2개 업소가 지금 그 자리를 비워서 5개의 이제 업소인데 아무튼 이제 전북 거리 활성화가 상당히 이제 고민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두 개 상가가 비어 있는데 빈 상가를 빨리 입점을 좀 시켜서 또 새로운 식당이 오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갖고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건물주와 협의를 해서 좀 입주를 해 나갈 그런 계획을 좀 갖고 있고 아무튼 각 식당별로 전복에 대한 특별 메뉴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점심시간에 한번 가서 이제 먹어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선뜻 일반인들이 호감 가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아무튼 어떻게 하든 많은 분들이 좀 그쪽을 유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모색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재선 의원
그러면 2개 정도 더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건데 실장님은 그 거리를 가보면 일반 상인하고 다 짬뽕이 돼 있어요. 그렇죠?
○관광실장 안환옥
거의 이제 수산물 판매하는 업소도 있고, 일반 업소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재선 의원
가서 직접 지나다니면서 많이 보시죠?
○관광실장 안환옥
예.
○박재선 의원
너무 폐쇄된 데가 많죠?
○관광실장 안환옥
전부 다 그분들이 장사를 영업을 제대로 하고 있으면 그나마 괜찮을 건데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이제 음식점으로는 5개 하고 있고 2개 점 정도 더 한다는데 그러면 지금 전복 요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몇 가지 정도 지금 하고 있어요.
○관광실장 안환옥
그게 각 음식점별로 전복특화 요리들이 각 하나씩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재선 의원
요리가 한 5가지 정도는 되죠?
○관광실장 안환옥
예.
○박재선 의원
보통 우리가 가서 보면 실질적으로 전복 요리보다는 횟집 그 수준으로 저희들이 많이 생각하잖아요, 지금 사실은. 근데 그 요리를 지금 모래뜰 다음에 2호점으로 해서 완도회타운을 지금 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회타운에서 가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2호점이라 해가지고 모래뜰 같이 신지 그와 같이 2호점이 그렇게 잘 활성화되고 있습니까?

○관광실장 안환옥

지금 2호점의 준비는 이제 예전에 열심히 이제 주문을 받아서 홍보 차원에서 해오다가 거기에 이제 주방장 하고 계시는 분이 좀 건강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건강이 좀 악화돼서 잠시 동안 치유 밥상 2호점의 주문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재선 의원

자료화면 더 띄워주실래요? 전국에 보면 전남에 21개 시군이 지금 전부를 다 받았어요.

근데 완도가 제일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이 전남권에서 저희들이 다 돌아다니 먹거리 중에 완도군이 제일 저조한데 새로 어떻게 정비할 계획은 없습니까?

○관광실장 안환옥

아무튼 그 부분은 이제 예산 투입 부분인 것 같은데 어떻게 활성화를 해 나가고 할 것인지가 먼저 우선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좀 활성화가 되게 되면 이제 이 건물주들이 업소 주인들이 건물주가 아니기 때문에 이 시설 개선을 하는 데 상당히 애로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간담회를 좀 가지면서 사업주들과 대화를 좀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선 의원

이제 그러면 그쪽에 지금 시작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관광실장 안환옥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전복거리 조성사업을 진행을 해 왔기 때문에 2018년 이후부터 지금 운영을 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선 의원

그래서 3개년 동안 해 가지고 10억 원을 투자해서 저희들이 했지 않습니까?

도비하고 군비하고. 이제 그렇게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해 왔는데 그 거리가 너무 안 된다는 것을 우리 완도 군민이 다 가신 분마다 다 그렇게 느낄 거예요.

안 그랬을 때 재정비해야 되고 그렇지 않았을 때 폐쇄를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새로운 곳에 다시 지정을 해서 우리 관광 명소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면서 실장님한테 지금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 한 곳에 계속되지 않는 곳에서 계속 머물다가는 완도군 먹거리라는 그 명판 자체가 없어질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관광객들이 오면 먹거리라든가 무언가를 발전시킬 수 있는 또 뭔가 또 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되는데요.

완도군에서 실질적으로 실장님께서도 타지에서 누가 오시면 음식점이라 해가지고 전복이라도 해서 가지고 어떻게 소개시켜 줄 만한 곳이 있을까요?

○관광실장 안환옥

이제 귀빈들이 VIP들이 오시게 되면 모셔야 될 곳이 좀 한정되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께 단지 단품으로 전복을 가지고 세트로 전복 세트로 이렇게 해드리는 부분도 그런 손님들도 있을 거고 전복과 해와 여러 가지를 혼합해서 또 모셔야 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일상적으로 보면 전북 단품으로 이렇게 모시기는 상당히 좀 애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미지부터 좀 개선을 시켜 나가고 식당에서도 전복 플러스 일반 음식하고 연

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박재선 의원

더 많이 연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완도는 명품 광어도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광어하면 회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음식 개발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우리 젊은 세대들이 많이 먹고 즐기고 할 수 있는 음식들로만 해주면 어른들까지 다 따라갑니다.

그런 개발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관광실장 안환옥

예, 예. 좋으신 의견입니다. MZ세대들을 위한 그런 음식 부분도 고민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선 의원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사를 하다 보면 장보고 죽게 되는 낚시 체험이고 또 전북 딸기 체험도 엄청나게 어린이들한테 좋아요.

MZ세대들이 좋아하고 또 거기에 호응이 좋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안을 한 가지 실장님한테 드리려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음식점에서 지금 완도군에 보면 실질적으로 8시 이후 되면 실질적으로 음식점에서 다 나가야 될 정도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먹거리라는 게 그렇죠? 근데 완도군은 없어서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면 완도군에 부지는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포차 같이 만들면 어떻습니까? 여수 낭만 포차 같이 완도군에서 왜 그걸 추진을 못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실장 안환옥

아무튼 이제 포차 부분은 이제 음식 처리를 조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해변가와 가까이 있어서 그러면 오폐수 처리 시설이라든지 전기 시설 주변 상권들의 여론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좀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의원님이 제안하신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어디 할 부지가 있으면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선 의원

우리 해변 공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 활용을 좀 해야 되고요.

우리 외식협회 있잖아요. 완도에 그런 협회 주민들하고 그리고 또 현재 운영 중인 식당도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다 동참하게 할 수 있으면 돼요. 그 해변 공원에 포차를 만들고 시간이 되면 12시 정도 이후 되면 그대로 철거를 해서 다음 날이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면 됩니다.

다른 지역은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완도만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어떻습니까?

○관광실장 안환옥

아무튼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진행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긍정적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박재선 의원

전체적으로 우리 종합 계획을 한번 세워 보십시오.

○관광실장 안환옥

예.

○박재선 의원

지금 현재 전복 거리도 그렇고 우리 완도 상

권 내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고 그런 부분들을 종합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좀 해결해 나가야 될 거 아닐까 싶습니다.
제일 먼저 먹거리 관광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관광실에서 담당할 것이 먹거리, 즐길거리, 볼거리 다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중에 하나가 딱 그런 먹거리인데 완도군에는 그게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까워서 사실은 전복거리를 얘기했는데 그 거리를 정말 빨리 정비시켜야 됩니다. 전복 소비도 시키면서요. 그런 부분을 더 실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우리 완도군의 먹거리 중 하나인 전복 거리를 꼭 재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실장 안환옥

예. 알겠습니다.

○박재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양훈

관광실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실장 안환옥

(참조)
· 2025년 군정질문답변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의장 김양훈

조영식 의원님의 본안 질문에 대해 답변이 끝났습니다.
조영식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 의원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 올해 관광과에서 관광실로 개편되면서 완도 관광에 대한 군민들의 기대가 크다는 걸 알고 계시죠?

○관광실장 안환옥

예. 잘 알고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조영식 의원

현재 관광실 내에 몇 개 팀이 있습니까?

○관광실장 안환옥

방문의 해 TF팀까지 해서 6개 팀이 있습니다.

○조영식 의원

6개 팀이 있습니까?

○관광실장 안환옥

예.

○조영식 의원

기존 관광객보다 증원은 되었나요?

○관광실장 안환옥

조직이라든지 인원이라든지 충원된 것은 없습니다.

○조영식 의원

조직이나 뭐 증원 없이 과에서 실로 명칭 변경만 됐다는 생각도 드네요.

○관광실장 안환옥

예. 그렇습니다. 보고서 26쪽, 27쪽을 보면 추진계획에 슬로우걷기축제 또 청정완도 가을섬여행 여기 보니까 4억 5천 요청, 5억 요청, 내년 본예산 편성 시 요구한다고 돼 있는데 기존에 보면 청산도슬로걷기축제는 2003년 2억 8천만 원, 24년 2억, 25년 2억 9천, 그런데 4억 5천을 요청한다고 했고요. 청정완도 가을섬여행은 23년 3억 7천, 24년 2억, 25년 2억 6천 그랬는데 5억 요청한다고 다 그랬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관광실장 안환옥

이제 실질적으로 축제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예산 수반이 많이 되어져야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면서 참가자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열악한 군 재정 형편상 요구한 금액 예산만큼 지원을 못 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이

라서 일단은 요구는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반영될 여지는 어쩐지 좀 모르겠습니다.

○조영식 의원

과에서 실로 되면서 좀 와신상담한다는 생각도 듭니다.
기대가 큰 만큼 이번 군정 질문에는 제언 위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실장님 매년 전국에서 개최되는 축제 수가 대략 몇 개인지 알고 계시나요?

○관광실장 안환옥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한 천 개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영식 의원

작년 기준으로 한 1,170여 개 정도 된다고 하네요.
축제 수가 많다는 것은 아마 지자체 간 경쟁도 가열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죠.
네 맞습니다. 특히 우리 완도는 대도시와 접근성이 떨어져 거리상 우리 지역 축제의 특별함이 없으면 관광객이 찾아오기 쉽지 않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실장 안환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영식 의원

그렇게 생각합니까?

○관광실장 안환옥

예, 예.

○조영식 의원

그렇습니다. 이제 지역 축제의 핵심은 고유한 정체성 차별성 그리고 완도군이 가지고 있는 해양치유, 역사, 문화 특산물 등 강점을 어떻게 스토리텔링하여 차별화시키느냐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축제 트렌드는 단순 방문형에서 체험, 체류형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놀거리, 먹거리, 볼거리, 쉴거리에 대한 체험 콘텐츠가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완도군 축제도 체류형 축제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는 데 동의하시죠?

○관광실장 안환옥

예, 예. 동의합니다.

○조영식 의원

실장님 우리군 축제는 다른 지역 축제에 비해 차별화된 킬러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지적은 계속되고 계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걷기 축제, 치유 프로그램 등의 콘텐츠는 전국적으로 유사한 행사가 많아 독창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며, 성공한 축제는 오직 그 지역에서만 가능한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관광실장 안환옥

예. 그래서 이제 저희 군도 좀 차별화된 행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식 의원

그러면 완도만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축제 콘텐츠 개발 전략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관광실장 안환옥

이제 금년도 한국관광공사에서 관광 트렌드는 미식 여행 또 웰니스 치유여행, 로컬 여행 이런 걸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충분히 접목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집중적으로 해서 콘텐츠를 좀 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영식 의원

그렇습니다. 치유나 먹거리는 지역 축제에서 행사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먹거리는 특히

관광객들의 만족도와 직결되며 재방문의 핵심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군 대표 축제의 먹거리 부스 운영은 모집 공고 없이 행정이나 기관, 사회단체 등의 배정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관광실장 안환옥

금년에 장보고 수산물 축제할 때 김밥 부스를 공개 모집을 했지만 신청이 없었습니다.

○조영식 의원

그러니까 관내 소상공인 참여 기회가 불균등하거나 유사한 메뉴가 중복되는 문제 등이 꾸준히 대고되고 있어서 또 그럴 수도 있고 이제 저는 먹거리 부스를 공개 모집 또는 심사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공개 모집했는데 참여 업체가 없었지만 내년에는 어때 공개 모집할 때 좋은 조건을 제시해서라도 그래야만이 아마 이 모집하는 데 공개 모집하는 데 참여 업체도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절차를 한번 거쳐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실장 안환옥

예. 이제 금년에 먹거리 다양성을 위해서 유명 셰프들을 좀 초빙을 해가지고 부스를 했는데 저희들 기대만큼 그렇게 부응을 못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의원님 말씀대로 어 한두 개 정도 심사제로 해서 한번 해 볼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조영식 의원

그래서 이제 심사 기준 같은 거는 메뉴 독창성, 지역 특산품 활용, 가격 적성성 등을 조금 명확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소정의 입점비를 부과해 가지고 지역 업체가 참여하거나 또 그러면은 심사비 및 관리 비용으로 활용하면 예산 부담도 들이면서 업체 책임감을 강화할 수 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매년 반복되는 흔한 메뉴 대신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창의적인 메뉴를 우대하고 테마형 부스를 도입해 축제 브랜드를 관광해야 된다고 보는데 실장님 동의하시죠?

○관광실장 안환옥

예, 예. 의원님 우리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조영식 의원

오늘은 제언 위주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축제 운영 못지않게 사후 성과 관리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데 현재 우리군은 축제 종료 후 성과 관리를 주로 방문객 대상 간단한 설문조사와 외부 용역 결과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관광실장 안환옥

예. 그렇게 아까 보고서에도 답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렇게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영식 의원

그러나 이 방식만으로는 정확한 경제적 파급효과 지역 상권 기여도 관광객 만족도 축제 브랜드 가치를 충분히 파악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보다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성과 분석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져 축제별로 사전에 방문객 수, 체류 시간, 재방문 의사로 등 핵심 성과 지표를 설정하고 행사 전 목표치를 정해 두고 사후에 목표 대비 성과를 수치로 비교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실장님 같은 생각이시죠?

○관광실장 안환옥

이제 입장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수치화가 이제 되겠지만 이렇게 개방형으로 되어 있는 축제의 수치화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앞으로 축제 사후 평가에 좀 더 내실화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식 의원

핵심 성과지표를 정확히 설정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또 휴대폰 이동 통계나 카드 매출 데이터 등은 통신사나 카드사 협약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이러한 데이터를 적절히 활용한다면 기존 설문 중심 방식보다 객관적이고 시의성 있는 성과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방문객뿐 아니라 상인, 출연자, 자원봉사자, 주민 등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별도로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실장 안환옥

이제 각종 행사가 끝나면 축제위원들의 축제 결과 보고회를 갖고 있는데 그때 할 때 군민들과 소상공인들도 다 포함시켜서 결과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식 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간단한 QR설문 사후 간담회를 병행해 다각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번 단순 용역 보고서 제출에 우리군은 의존하고 있어 매우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즉 행정 주민 전문가가 함께하는 성과 공유회를 정례화하고 문제점과 개선책을 토론 후 다음 해에 기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실장님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실장 안환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식 의원

그렇게 하겠습니다하고 답을 했습니다.

○관광실장 안환옥

예.

○조영식 의원

내년에는 혹시 또 PRE완도 국제해조류 박람회 개최로 장보고 수산물 축제가 개최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광객 유치를 위해 다른 대체 축제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광실장 안환옥

아까 답변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바다낚시 체험은 본 행사장에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 기간 동안에 청산도와 보길도, 생일의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연계시켜 나가고, 해양치유센터와 약산 해안치유의 숲을 통한 웰니스 치유 여행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식 의원

박람회 기간에 유입된 방문객을 체류형 관광으로 꼭 연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실장 안환옥

예. 알겠습니다.

○조영식 의원

박람회 종료 이외에도 방문할 수 있는 상설 체험 프로그램, 해양치유 슬로시티 브랜드와 연계된 특화 행사, 지역 특산품 판매 및 체험장 등을 마련한다면 지속적인 관광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잘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실장 안환옥

고민하겠습니다.

○조영식 의원

또 박람회와 연계한 야간 콘센트, 교통 투어 프로그램 등을 강화해 관광객의 체류 시간을 늘리고 숙박, 음식 쇼핑 소비로 이어지게 하는 전략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부서별 협의해서 잘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실장 안환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영식 의원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제는 단순 이벤

트성 행사가 아니라 지역의 고유성과 정체성을 가진 차별화된 지속 가능한 축제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지역소멸위기 속에서 생활 인구 유입과 체험형 관광 활성화로 지역 경제 회복의 돌파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앞으로도 완도군이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축제를 통해 더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 성과를 만들어 내길 기대합니다.
이상 보충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양훈

박성규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규 의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내년에 우리 축제가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관광실장 안환옥

예. 읍면 축제 다섯 군데 있습니다.

○박성규 의원

2억 2천만 원이 잡혔네요.

○관광실장 안환옥

예.

○박성규 의원

제가 초선에 들어와서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축제 하면서 읍면당 생일이나 완도읍이나 2천만 원씩 이렇게 배정됐더라고요. 그런데 축제가 너무 많다고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하자. 그래서 또 4천만 원씩 일괄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해서 생일하고 과연 완도읍하고 인구 차이가 몇 배인데 똑같이 줘야 되겠느냐 그래서 좀 차등을 주라고 했는데 지금은 전복 산업이 어렵기 때문에 보조금이 많이 안 들어와요. 그런데 우리 노화 같은 경우는 축제 비용이 한 1억 8천만 원 들어요.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금당 인구가 800명 잡고 5만 원씩 가거든요.
4천만 원이니까 그런데 노화는 4,700명이니까 1만 원씩 받고 안 받아요, 차등을 줬어도. 이거 형평성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관광실장 안환옥

제가 이제 답변하실 때 이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기본 인구 금당면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금당이 4천만 원이고, 거기에 이제 인구가 100명당 20만 원씩 플러스 되게 돼 있습니다.

○박성규 의원

그러니까 차등이 잘못됐지 않습니까? 이것이 너무.

○관광실장 안환옥

이제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을 한 거고요.

○박성규 의원

아니, 예를 들어서 넙도 인구 수하고, 생일 인구 수하고, 금당 인구 수가 비슷해요.
그런데 노화 같은 경우는 4,700명 인구인데도 4,700만 원 1인당 1만 원씩 금당면 생일은, 생일은 한 6만 원씩 갈 겁니다, 1인당. 그리고 그런 축제를 좀 저렴하게 잘 하지만은 노아 같은 경우는 전복 축제를 하기 때문에 대규모 행사를 크게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전복사업이 어렵다 보니까 뭐 보증금도 안 들어와서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완도읍 같은 경우에도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완도읍 같은 경우 만 8천 명이에요. 인구가 그런데도 차등이 많이 넘어 없어요. 앞으로 이런 것을 시정할 계획은 없습니까?

○관광실장 안환옥

한번 면밀히 좀 검토를 좀 해보겠고요. 제가 이제 관광실에 와서 읍면 축제가 관광실에서 관리할 축제 업무냐 이게 좀 고민스럽더라고요.
그러면 읍면민 화합의 장을 관광실이라는 관

광으로 봐야 되는 건지 읍면민들의 화합의 장으로 봐서 해야 되는 건지 이 부분이 저도 이제 애매합니다.
그러나 기존에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제가 와서 바로 그 부분을 어떻게 정리를 할 수는 없는 거고 만약 조직 개편이 이루어진다면 그런 부분을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군 면민들을 화합의 장으로 이렇게 축제가 변환돼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박성규 의원

올해 당장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참고해서 내년이라도 좀 차등을 더 줄 수 있도록 실장님 어떻습니까? 이거 맞습니까?

○관광실장 안환옥

저도 그 주장에는 동의합니다. 애기도 한 그릇, 어른도 한 그릇입니까? 이것이.

○관광실장 안환옥

예. 맞죠.

○박성규 의원

그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구 비례해서 조금 증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실장 안환옥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양훈

관광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회의계속)

○의장 김양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양치유담당관 나오셔서 한 건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해양치유담당관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참조)
· 2025년 군정질문답변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의장 김양훈

최정욱 의원님의 본안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최정욱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욱 의원

담당자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완도군 국내 최초로 해조류를 특화한 해양 바이오산업을 미래 신정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오산업이 미래에 필요한 산업이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고 필요한 사업이긴 하지만 경제성과 상업화를 이루지 못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방송실 자료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산업이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군비가 대략 310억 정도 들어간다고 보는데 담당관 이게 맞는가요?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예. 맞습니다.

○최정욱 의원

군비가 이렇게 많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군민들은 이런 바이오 산업이 어떤 것인지 군민들에게는 이익을 어떻게 주는지 아마 매우 국민들은 궁금해 합니다.
본 의원 역시 이 바이오산업의 정확한 이해도가 낮아서 우리 담당관님이 그걸 한번 국민들이 알기 쉽게 설명을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해양바이오산업은 보편 다수에게 혜택이 가는 사업은 아니지만 우리군의 주축 사업인 해조류산업을 활성화하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정욱 의원

이제 그렇게는 다들 들어서는 알고 있는데 바이오 하면 뭘 어떻게 하는지 또 우리 지역 경제 또 어민들이 생산한 해조류와 이런 게 어떻게 돼서 어떤 우리 어민들에게 소득 창출이 이루어지지 다들 이걸 잘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본 의원 역시도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우리 본회의장에서 이런 걸 통해서 제대로 한번 알기 쉽게 설명을 좀 해주라 이런 거 내가 업무 보고 때 반드시 좀 많이 알아서 우리 국민들이 알기 쉽게 그때 설명을 해달라고 분명히 했었는데 이런 데서 해야 많이 또 유튜브나 아마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설명을 좀 알기 쉽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예.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조류에는 유효한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성분을 기업이 원하고는 있지만 안정하게 표준화되게 나오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생산 시기와 산지 환경에 따라 그 유효 성분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해조류 성분을 기업이 원하는 성분을 안정적으로 표준화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해양바이오라는 산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정욱 의원

어떤 것을 표준적으로 공급해서 어떤 제품을 바이오산업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것도 나와 있을 거 아니야 우리가 계획적으로 우리군에서 단순히 그냥 바이오라는 명칭으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즉 말하자면 우리 해조류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기능성 식품이 됐든 뭐가 의약품이 됐든 뭐를 하겠다는 얘기 아닌지 아니면 뭐 또 다른 뭐가 있는 건지.....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우선 의원님 말씀처럼 해조류 바이오라 하면은 유용한 성분을 가지고 기능성 식품 그리고 의약 화장품 소재로 활용하는 게 맞습니다.

○최정욱 의원

지금 이 사업은 정말 그 장기간 이런 거는 단순히 이루어진 사업이 아니거든요. ‘‘‘‘‘‘이제 오랫동안에 아마 여러 연구기관 또 우리도 사업을 한 30년 정도 하면서 여러 가지도 실패도 해봤고 학교와 여러 가지 기능성 식품 개발을 해가지고 개국 실패도 많이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이제 우리군은 지금 어민들은 당장 지금 전복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산업이 그 어차피 이 바이오산업도 결국은 신품종도 들어간 거 아닌가요?

맞죠?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예. 포함돼 있습니다.

○최정욱 의원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지금 지역에 맞는 현실적으로 맞는 직업에 맞는 그런 쪽에 좀 비중을 두는 게 안 나은가요? 즉, 말하자면 연구 생산을 하는데 우리 전복을 이제 예를 들자면 우리 세계 각국의 나라마다 기호식품이 달라요.

먹는 음식 문화가 다르고 우리는 활전복으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그 나라의 기호식품과 먹는 음식 문화 그런 걸 기호식품을 만들어서 연구를 해서 그 나라에 수출하는

그런 쪽의 바이오를 좀 돌리면 안 될까요?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예. 의원님 말씀처럼 해양 바이오산업은 장기적인 사업입니다.

저희 군민들한테 실질적인 이득이 가는 것도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단계적인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바라보는 어민들이 지금 뭔가를 우리 지자체는 우리 지자체가 이 생길 때는 그냥 생긴 거 아니에요?

지자체에 맞는 사업을 해서 그 지자체의 삶의 질을 높이라 해서 우리 국가에서 지자체를 서로 해서 장을 주고 우리 의회를 이렇게 개발해서 한 건데 우리군에 맞는 어떤 거를 지금 해가야지 이건 어떻게 보면 바이오 식품은 거의 고도화 이게 국가 차원에서 하는 어떤 사업의 비중이거든요. 지자체에서 우선 하기는 물론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런 여유와 그런 거 있다면 충분히 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우선 그런 것들이 우리는 지금 당장 급한데 솔직히 우리 전복 산업이나 이런 거 무너져서 젊은 사람들이 다 떠나고 나오고 2세들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사람이 없으면 그 때는 뭔 의미가 있겠어요?

100년 후로 뭐 미래 산업이나 이런 게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거는 시작한 거라 서로 이것도 좋지만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바이오산업은 고위험 고수익 사업으로 분류가 돼 있어요.

기초 기술의 의존도가 높아야 하고 투자 금액이 높고, 장기 투자가 필수라고 나옵니다. 담당관님 이것도 알고 계시죠?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예. 분명 맞습니다.

○최정욱 의원

고위험 고수익이라는 거는 어떤 걸 발견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 의약품만 갖고도 보면 5천 개에서 1만 개를 개발해서 만들어요.

거기서 유일한 시중에 나와서 성공한 사례가 1~2%밖에 안 된답니다.

이거 통상적으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고위험이다 하고 이게 만약 성공을 하게 되면 고수익으로 돌아가죠.

그만큼 수익이 많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고위험의 사업이 받쳐진 걸 과연 우리 지자체에서 이게 가능한가 그런 것 때문에 다시 한 번 깊이 좀 생각을 해 보시고 우리 현실에 맞는 우리 완도에 이 귀향 바이오 사업을 한 거 우리 완도에 맞는 실정이 어떤가를 생각을 더 한번 깊이 해보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예. 잘 알겠습니다.

○최정욱 의원

다음 해조류 바이오 스마트 팩토리라고 지금 추진을 구축하고 있죠?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예. 있습니다.

○최정욱 의원

이 사업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들이 알기 쉽게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조류 바이오 스마트 팩토리는 저희 육상에서 고기능성 고품질성 해조류를 생산하는 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현재 내년도 총 사업비는 2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설계비 14억 중 국비 7억 원을 확

보한 사항입니다.
이 스마트 팩토리는 단순히 저희 현재 양식하고 있는 해조류 품목을 육상에서 양식한다는 게 아니고요. 기업이 요구하고 있는 고기능성 고품질 해조류를 생산한다는 계획입니다.

○최정욱 의원
그 고품질 해조류를 생산한다는 건 어떤 뜻으로 말한 거예요?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저희 고부가가치 품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정욱 의원
그러니까 고품질 해조류가 생산을 어민들이 한 거냐, 안 그러면 어떤 식으로 고품질 생산을 한다는 얘기예요?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현재는 그 품목에 대한 배양 기술과 종목 선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 군에서 직접 운영은 하지 않고요. 전문 기관에 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최정욱 의원
이 사업을 이렇게 보면 안 된가요? 지금 이 사업은 자동화 육상에서 생산 가공 설비를 구축해야 하는 또 수백 억 원이 드는 대규모 사업이죠?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예. 그렇습니다.

○최정욱 의원
이 사업이 해조류의 계절적 생산 한계를 극복하고 원료를 표준화해 기업체에 공급하는 시설이 맞는가요?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예. 맞습니다.

○최정욱 의원
그 사업의 계절적 생산 한계라는 거는 양식이 아닌 육상에서 말한 거 아닌가요?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예. 비슷한 개념입니다.

○최정욱 의원
어떻게 비슷한가요? 생산이 육상이냐 바다냐는 한계가 있는데.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육상에서 외부 환경 요인을 통제를 합니다. 수온과 이런 부분을.....

○최정욱 의원
이거는 이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 바다에서 생산되는 해조류는 계절적 생산이라면 이거를 넘어 육상에서 계절적으로 항상 그 표준에 맞게 해서 그 제품을 생산한다는 거 아닌가요?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예. 맞습니다.

○최정욱 의원
그렇죠.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 우리 완도 양식 시설은 그래도 미국 나사에서도 해조류 우리 양식장을 촬영 항공 촬영하여 홍보해 주고 이러고 있다는 건 우리 완도의 특유한 해조류 양식장이 그만큼 청정 지역이요 좋다라는 얘기거든요.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분명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를 했을 때 밖에서 볼 때는 뭔가 이런 쪽에는 저렇게 좋은 양식장을 갖고 있는데 왜 육상에서 표준화해서 해야 되는가 뭔가가 바다에 좋지 않은 제품인가라고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어떤가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사업이 과연 필요한 건지 그렇게 본다 하면요.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저희 이 사업을 주관하는 해양수산부에서도 양식과 이렇게 비슷한 거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한 바 있습니

다.
저희 일반 대규모 해조류 양식이 아니고요. 고부가가치 기업이 의학 업체가 원하는 그 품목을 저희가 생산한다는 겁니다.

○최정욱 의원

그렇게 한다면 이런 거는 우리 기업체에 어떤 선정을 해서 기술을 익혀서 이런 기업체에 지원해 주는 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리고 하고 어쨌든 그 표준화도 좋지만 우리 해조류 바다에서 생산한 이렇게 나사에서 할 정도의 해조류를 갖고 한다는 의미에서 거기서 생산된 걸 가지고 어떤 표준화 연구해 가면서 계절적인 어떤 그 생산이 가능할 수 있는 뭘 만들어 가면서 생산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은가 그래야 어민들한테도 직접적인 혜택도 되고.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이 두 가지신데요. 하나는 표준화를 해야 된다, 하나는 계절 구애받지 않고 해야 된다는데요.
표준화 부분은 저희가 해조류 생산 시설에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정욱 의원

이제 본 의원이 결론적으로 하는 말은 무슨 사업을 하든 어쨌든 우리 지역 어민들의 생산성이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어떤 사업이 주 목적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업이든지 다 좋죠. 미래 사업 어떤 것도 다 좋지만 직업에 당면한 것이 뭔가를 먼저 파악 좀 해보시고 그런 거에 맞춰서 좀 더 했으면 좋겠고 또 이런 사업이고 투자가 되면서 단기간에 어떤 거 안 된 거는 그만만큼의 위험 부담도 있는 만큼 기업체를 유치해서 우리가 거기에다 적극 지원을 해 주면서 차라리 기업체를 유치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한번 해본 겁니다.
참고 좀 해 주시고요.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예.

○최정욱 의원

그다음 해조류 활성소재 인증 생산 시설에 대해서 해조류 활성소재 인증 생산시설이 지금 7월에 준공된다고 했는데 내년 7월이죠?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예. 연기됐습니다.

○최정욱 의원

이게 어떤 시설이고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시설이 들어가는지를 좀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의원님 아까 말씀하셨던 저희가 지금 생산하고 있는 대량 생산하고 있는 해조류를 표준화할 수 있겠느냐 그 부분이 급선무 아니냐 하는 부분을 생산하는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저희 건물은 크게 두 동이 있습니다. 해썹동과 GMP 동이 있는데요.
해썹동은 쉽게 설명드리면 위생 처리를 하는 곳이고요.
GMP동은 이 위생 처리된 후에 과정에서 필요한 성분을 추출하는 시설입니다.

○최정욱 의원

그럼 지금 스마트팩토리 사업 자동화 시설 하는 거에서 생산된 걸 여기서 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어민들이 생산한 그 종류를 가지고 해썹 시설에서 어떤 연구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여기서는 두 가지 다 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어민들이 대량으로 하고 있는 그 부분들을 기업들이 요구했을 때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겁니다.

○최정욱 의원

그러면 주로 이제 이 시설이 들어설 거예요. 이제 안에 어떤 제품을 생산하느냐에 따라 기계 시설이 들어갈 거 아닌가요?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의원님, 지금 이거는 그 해조 원물에서 필요한 성분을 추출하고 그 원물은 이제 폐기 처분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정욱 의원

그럼 생산 라인이 아니네요.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예. 그렇습니다. 필요한 성분만 추출하는 겁니다.

○최정욱 의원

그런가요?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예. 그렇습니다.

○최정욱 의원

이제 그런 것 할 때 잘 하셔야 해놓고도 무용지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잘 보고해줬으면 좋겠고.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예. 알겠습니다.

○최정욱 의원

그 첨단 시설 운영에서 이제 문제는 시설을 전문적으로 갖췄으나 전문적인 인력과 수요처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요?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저희도 수요처 확보를 준공 전에 확보를 해놔야 쉼 없이 가동이 되지 않겠느냐 이걸 구상을 하고 있고 저희한테 위탁 운영을 관심 표명을 하는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 위탁 운영 조건에 전문가 보유 여부도 필요하겠지만 그 수요처를 미리 확보했는지도 판단 기준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정욱 의원

아마 항상 지금 사업할 때마다 미리 하겠다는 소리를 많이 하지만 항상 지어놓고 나서도 1, 2년이 넘어도 아무런 성과 효과가 없어요.

그건 그만큼 준비가 부족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잘 준비해서 해야 되니까 지어놓고 바로 시작이 돼야지 지어놓고 그때부터 시작하면 안 되죠.

주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말한다면 적어도 우리 국민들이 알기 쉽게 어떤 제품을 주로 해서 아까 우리 완도에 지금 추진하면서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즉 말하자면 화장품이 됐든 플라스틱이 됐든 뭐가 됐든 어떤 원료를 추출해서 어떻게 가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으니까 이런 지금 바이오 산업을 추진한 거라고 보거든요.

그럼 핵심적으로 우리가 국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 때 간단히 알기 쉽게 어떤 말을 해줄 수 있다면 우리 담당관 아직 공부가 좀 덜 됐나요, 준비가? 그런가요?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저희의 방향은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방향을 정한 게 아니고요.

저기 기업이 요구하는 형태를 다양하게 충족할 수 있도록 갖춰진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정욱 의원

근데 기업이라는 게 다 달라요. 생각도 다 다르고 그걸 다 갖출 수 없어요.

나도 사업해봤지만 미역을 하나 해도 미역 한 가지 갖고 서로 의견이 다르고 생산하는 것도 달라요.

그걸 다 맞춰서 우리가 할 수는 없죠. 그리고 그때서 지어놓고 나서 기업들이 원하는 대로 방향을 잡아간다. 이미 시설은 다 돼 있는데 방향 기술하고 안 맞죠? 적어도 우리군에서

이런 거 추진을 할 때는 기본 계획이 서 있죠.
어떤 어떤 뭐를 해서 해보겠다 그래서 이 바이오 산업을 해보겠다는 생각이 있었겠지 그렇게 지금 무한정으로 지어놓고 다 해놓고 나서 기업들이 원하면 갈란다. 이건 전혀 안 맞죠. 그러면 이미 시설하고는 정반대로 갈 건데 알았습니다.
우리 담당자님이 좀 더 그런 거를 깊이 좀 파고들어가지, 왜냐하면 실무진이 정확하게 판단이 돼야 사업이 바로 가니까.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예. 알겠습니다.

○최정욱 의원
설령 군수님이 했다면 군수님 의중을 정확하니 알아야죠, 배우고 해서. 그래서 실무진이 담당관인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예.

○최정욱 의원
다음에 대답할 때 물어볼 때는 바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당관님 해양 바이오 공동협력연구소 건립 목적과 역할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예. 알겠습니다.

○최정욱 의원
이제 예를 들어서 담당관이 정 지금 본인이 아직 준비가 덜 됐다면 솔직히 말해 주시고요.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해양바이오 공동협연소의 건립 목적은 운영 전문성을 확보하고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해양 바이오 기업들이 대부분 영세하고 스타트업 기업입니다. 이분들의 기술 지원, 자금 지원, 판로 지원을 하는 게 주목적입니다.

○최정욱 의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 건립에 우리 담당관님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것 같아요.
우선 그거는 기본적인 거예요. 그 어떤 입주 업체들이 원하는 걸 해주겠다라는 거는 그거는 기본적인 상식이죠.
적어도 우리 완도는 이러이러한 공동 협력 연구소를 지었으면 어떤 기업이 들어와서 우리는 어떤 국민에게 실익을 줄 수 있고 어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어떤 연구를 통해서 어떤 수익 창출을 올리겠다 이런 뭐가 세워서 그렇게 설명이 돼야 맞고요.
그 완도 해양바이오 공동연구 연구소의 해조류 유해 유효성 성분을 위한 공동 실험실, 미생물 배양실 등 핵심 연구시설과 실험 인프라가 구축돼 있다고 지금 홍보하고 있죠?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예. 홍보하고 있습니다.

○최정욱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황 연구소 안에 있는 실험실과 배양실이 거의 쓰이지 않고 있다는 게 현장의 이야기입니다.
담당관은 지금 공동 협력 연구소 안에 있는 실험실과 배양실 가동 그리고 장비 사용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한 번이나 가보셨어요?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예. 가봤습니다.

○최정욱 의원
가봤으면 느꼈을 거 아니에요?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지금 사용 실적이 별로 없는 걸 확인했습니다, 저도.

○최정욱 의원
그렇죠?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예. 그렇습니다.
○최정욱 의원
사실대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사용된 공간은 사무실 공간과 회의실 공간일 뿐이며, 연구 실험 기능은 사실상 거의 사장된 상태라고 말이 많이 나옵니다.
본 의원이 공동 협력 연구소에 직접 연구실 사용 실적 자료를 요구했는데 실적이 없다라는 답이 왔습니다. 지금 이런 실험 장비가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우리 혹시 담당관이 파악은 좀 해 보셨나요?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업들이 연구 실적 연구까지 할 정도의 규모가 아직 아닙니다.
그리고 단계도 아직 안 업체들이 입주 기업들이 대부분입니다.
○최정욱 의원
이제 저게 우리 위에서는 보고 받을 때 정말 기업 입주들이 몇 개 업체들이 서로 들어오라 해서 들어와 있고 어떤 실적을 하고 있고 지금 잘 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사실은 이걸 질문하기 위해서 저도 한번 현장을 가봤는데 정말 그 좋은 실험실에 물론 그 기계가 정말 필요하니 실험할 수 있는 기계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시설이 깔끔하게 잘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언제입니까? 2023년도에 준공했잖아요.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예. 7월에 준공했습니다.
○최정욱 의원
그렇죠. 지금 1년이 넘고 1년 몇 개월인데 정말 단 한 번 쓴 뭐가 없어 싹 돌아봤는데 저만 돌아본 게 아니라 우리 의회 직원들까지 싹 느낌이 어쩌냐 다 같은 말이거든요. 역시나 이제 거기 직원도 그런 거를 해요. 그건 뭘 말하냐 하면 그만큼 거기가 준비성이 부족하고 기업체들 들어 있지만은 불 하나 딱 써져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완도 저도 잘 아는 분인데 거기 하나 써서 있고 그 애는 전부 얼마나 오냐 하니까 없답니다.
자주 어쩔 때 한 번씩 완도에 오는 길에 와서 하루 좀 있다 가고 그러니까 내가 웃는 말로 여가 그럼 별장이냐고 할 거 아니야 자기들 내가 그렇게 웃는 소리까지 했는데 그런 것이 좀 지금 이제 왜 이 말을 하냐면 우리 생산시설이나 우리 지금 시작하고 있는 바이오 산업들 철저하니 그러니까 준비를 그전에 철저히 잘해야 이런 일이 안 온다는 얘기예요.
그런 뜻에서 지금 한 것이고 또 본원의 이 문제의 해법이 바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혁신 기업의 유치와 전문 인력 지원 체제 마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완도는 세계적인 해조류 산지라고 외치면서도 정작 혁신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환경과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정욱 의원
왜 그러냐 하면 그 기업주들이 올 때는 자기들이 필요하고 가야 되겠다는 어떤 시설과 환경이 갖춰져 있을 때 온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서 내가 뭔가를 제품을 생산해서 연구하고 개발해서 거기서 생산되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 바로 우리군에서 그쪽에서 바로 연계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갖춰졌을 때 그 사람들이 들어오려고 그러지 우리는 그런 게 안 갖춰졌기 때

문에 와봤자 자기네들이 실험할 능력도 안 되고 어떻게 소기업들이 자기들 힘으로 그 연구를 하고 실적을 내겠어요? 거기에는 전문 인력들이 같이 포함이 돼서 그런 지원을 같이 해주셔야 그 사람들이 올 때 어떤 제품을 갖고 와서 아니면 나는 우리 완도 이런 제품을 이렇게 연구를 하고 싶다.

그래서 같이 실험을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전문 인력이 아예 없어 거기 내가 보니까.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의원님 저기 말씀 중에 저기 연구원은 1명 상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욱 의원

연구원하고도 대화를 했어요. 그 연구원은 내가 물어보니까 자기는 기업체가 와서 어떤 걸 봤을 때 지원 측면에서 도와준 것뿐이지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그럴 만한 능력도 사실은 안 돼요.

그걸 잘 파악을 한 번 더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다 파악하고 그분하고 지금 다 대화 다 하고 왔었기 때문에.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예. 알겠습니다.

○최정욱 의원

지금 필요한 것은 보여주기식 연구가 아닌 실질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혁신 기업을 유치하고 장기적 투자와 연구를 지원할 수 있는 생태계로 완도형 해양바이오 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고 보는데 담당자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예. 저희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 충분히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 그러나 저희 현재 있는 시설과 앞으로의 시설이 더 구축되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은 해양 바이오산업 생태계가 구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정욱 의원

지금은 보면 어떻게 보면은 보여주기식 어떤 절차에 거기에만 실적을 맞추기 위한 것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좋은 거를 충분히 검토하고 서로 토의하고 의견을 가면 우리 안보에 맞는 이 사람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지금 그걸 이용을 해야 되거든요.

할 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가지 않고 항상 그 실적 위주로만 가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온 거예요.

저도 이제 가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마는 지금처럼 건어물 가공업체 및 스타트업 기업 위주로만 끌어안고 가는 구조에서 이 연구소는 앞으로도 사무실 건물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담당관님이 이제 한번 가보시면 그걸 갔으니까 느낄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가면 안 되죠. 저 좋은 시설과 저 좋은 환경 저런 좋은 건물을 지어놓고 정말 우리 필요한 걸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잘 뭐 해서 하면 그런 거를 깊이 하면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예. 알겠습니다.

○최정욱 의원

담당관님 제가 제안을 합니다. 우리군에 맞는 해조류 기반 소재 대상 기업으로 유치 설명회나 팸투어를 기획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한가요?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예. 동의합니다.

○최정욱 의원

이런 거를 우리의 어떤 정확한 목표 의식을

가지고 우리 완도에 정말 필요한 어업에 우리 어민들이 해조류 이런 거에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기반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갖고 그런 기업 대상을 우리가 좀 찾고 하는데 설명회나 팸투어를 해서 한 기업체를 넣더라도 늦더라도 우리가 그런 기업체를 찾아서 하나하나 해 가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꼭 좀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예. 잘 알겠습니다.

○최정욱 의원

우리군에 필요한 혁신 기업을 유치해서 완도군 해조류를 이용한 연구를 하고 상품을 만들어서 지역 경제 제조 일자리를 만들거나 산업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이오산업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담당관님 의견 동의하시죠?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예. 동의합니다.

○최정욱 의원

완도군도 기업에서 사무실 지원만 제공하는 수준에 나아가 전문 인력 지원해양바이오 제품 제작 시장 연계 홍보와 기술 이전까지 아우르는 원스톱 체험 구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며, 선도적으로 바이오 산업을 추진하고 있는 서천군이나 울주군을 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완도군의 해양 자원인 해조류는 분명한 강점이며 그러나 강점을 인프라로만 둔다면 그것은 잠자는 자산과 불과합니다.

이론과 건물 실적 위주로 보여주지 말고 오늘의 본 의원이 말씀드린 정책 대안은 해양바이오 산업이 완도군의 현실에 맞는 필요한 전략 산업으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한 제시였다는 점을 당부 드리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양훈

해양치유담당관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참조)

· 2025년 군정질문답변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의장 김양훈

박병수 의원님의 본안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박병수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의원

본 의원은 완도 해양치유센터 시설 관리와 운영 실태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대책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해양 치료 센터는 국민의 건강과 치유를 위해 조성된 시설입니다.

그러나 운영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2023년 시범 운영부터 센터 개관 이후 금년 8월까지 발생한 모든 오폐수가 바다로 방류되고 있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예. 알고 있습니다.

○박병수 의원

본 의원의 확인 결과 염지하수와 상수도는 오폐수 관로를 통해 신지 하수 처리장으로 유입되고 있는데 여기에 사용한 해수는 바다로 흘려보내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사용된 해수 방류에 대해 법적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일부 수질 항목 적합만으로 문제가 없다고 단정할 수 있는 것인지

이에 따른 우리 담당관님 견해를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예. 의원님 해수는 하수도법상 예 도로를 거치지 않고 배수할 경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렇게만 하지 않고요. 여과를 해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과된 물은 일부는 순환 여과 방식을 통해 가지고 달라 수풀에서 재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수질입니다.

○박병수 의원

다음에 이제 문제점이 나옵니다. 더 큰 문제는 지하 기계실입니다.

집수정 3개 중 1개소는 우수 관로 오수관로가 동시에 연결되어 밸브 고장이 나 오작동 시 오수가 그대로 바다로 흘러들어갈 수 있는 오폐수 무단 방류 가능성이 확인되었습니다.

혹시 확인했는가요?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그 부분.....

○박병수 의원

확인 못했죠?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예.

○박병수 의원

확인 못했을 때 무단 방류가 계속되고 있다면 이것은 명백한 불법 사각지대입니다.

만약 이 문제가 방치된다면 완도의 해양 환경은 물론 해양 지원 도시라는 지역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줄 것입니다.

사용 완료한 회수 방류에 대해 법적 기준이 부재한 상황에서 해양환경 보존을 위한 완도군 차원의 별도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담당관님 어떻습니까?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의원님이 염려하신 부분에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저기 무단 방류 건은 단 한 건도 없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병수 의원

확인을 한번 다시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예. 그러겠습니다.

○박병수 의원

그리고 밸브 구조상 발생 가능한 호수가 직접 바다로 유입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는 시설 결함이자, 관리 부실에 해당되어 본 문제는 즉시 시설 개선이 돼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만약을 대비해서라도 시정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박병수 의원

개선해야죠?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예. 그렇습니다.

○박병수 의원

환경오염 사항은 향후 지역 이미지와 직결이 됩니다.

완도군에서는 향후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방류 해수에 대한 적법 여부를 환경부 질의 회신을 통한 근거 확보와 주기적인 수질 검사 실시 등 중장기 대책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예. 알겠습니다. 수질 검사는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의원

그리고 두 번째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시설물 하자 문제입니다.

방송실 사진 한번 올려주세요.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해양치유센터 건물 곳곳에서 누

수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원인 파악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2층 테라피실 노선정은 정비가 미흡하고 지하 기계실 천장은 여전히 누수가 진행 중인데도 하자 검토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담당관님 혹시 알고 있습니까?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예. 그 부분 알고 있습니다.

○박병수 의원

정비 계획은 있습니까?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예. 지금 누수 부분은 하자 보증 기관에 있습니다. 건축물 하자 보증기관에 있어서 격리팀에 지금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병수 의원

다음 사진 올려주십시오. 게다가 해수를 사용하고 있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부식이 약한 자재를 사용해서 부식 및 파손된 시설이 방치된 사실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작년 휴강 기간 동안 일부 정비가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땜질식 보수가 아니라 근본적인 자질 개선과 유지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담당관님 어떻습니까?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예. 맞습니다. 저희도 저 핸드레일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현장에 출장까지 가서 출장은 이제 다른 저걸로 제작하는 업체입니다. 거기도 가서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박병수 의원

당초 이 센터를 지을 때 이런 해수 특성을 고려한 설계 시공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 자재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쉬움이 있죠. 향후 발생할 해양치유센터 시설 유지 관리 비용은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이 될 것인데 반복되는 해양치유센터 누수와 부식 문제에 대해 담당관은 어떤 개선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부식에 대한 별도 리스트를 작성해서 부식을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을 교체를 하지 못하는 한 부식이 되지 않게 하겠다라고 해서 명단 관리를 하고 있고요. 핸드레일같이 부식이 심각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재질이 더 강한 부식에 강한 재질이 있습니다.
저기 선박용 예를 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도입을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의원

그러니까 아무튼 저 회수에 강한 그런 자재를 써야겠죠.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그렇습니다.

○박병수 의원

해양치유센터 달라 수풀은 지난 1년간 약 4만 명이 넘게 이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11월에 욕조수를 한 번 교체하고 이후 해수를 단 한 차례도 교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저희 해수풀은 순환 여가 방식입니다. 24시간 순환이 되면서 여가가 되고 있습니다.

○박병수 의원

순환되면서 그 물이 계속 돌아가겠네요.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일부는 이렇게 방류를 하고요. 새로운 물이 들어오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박병수 의원

공중위생 관리법상 목욕장에 적용되는 욕조수

전면 교체 주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는 하나 일반 국민의 위생 안전과 신뢰 확보 차원에서 10개월 넘게 회수를 미교체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실제로 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일부 직원 의견에 따르면 달러 수풀 수질 악화로 인한 탁도 증가 현상이 발생을 했고 이로 인해 질병 발생 가능성 역시 제기된 바 있습니다.
법적 규정이 공백만의 이유로 해수를 장기간 교체하지 않아도 된다는 운영 방침이 타당하다고 보는지 담당관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과거에 운영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탁도 부분이 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그런 거 다 해결이 된 상태고요.

○박병수 의원

해결이 됐습니까?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예. 그렇습니다.

○박병수 의원

현재 수질 검사 항목 적합만으로 안전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법정 항목 외에 탁도 등 보안 항목을 정기적으로 의무화할 계획은 없는 것인지 그리고 이용하는 고객들의 건강 보장을 위해 딸라소풀 교체 주기를 자체 기준으로 마련할 의향은 없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의원님, 의원님, 저희는 딸라소풀 정기 청소 계획이 있습니다. 수립되어 있고요. 수립하는 날에는 물을 절반 이상을 빼고 있습니다.

○박병수 의원

전체 빼서 한 게 아니라 절반만 뺍니까?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물이 차는 시간이 저희가 다음 날 개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를 빼면 다 차지 않기 때문에 절반 다음 날 찰 수 있는 데까지 빼고 청소를 하고 순환 여과를 시키고 있습니다.

○박병수 의원

해양치유센터 건물이 건립비만 354억 원이 투입된 대규모 시설에서 불과 청소기 한 대로 관리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수중 청소기 말씀이신가? 청소 청소기는 이제 대대로 2대고요.

○박병수 의원

예. 청소기 한 대로 들었습니다.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청소기 두 대이고요. 조금 좀 답답한 부분이 조금 있고요. 왜 그러냐면은 그 청소기는 퇴근 후에 폐관 후에 아침 문 열 때까지 계속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는 청소 전문 업체가 와서 고압 세척기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수중 청소만 그 기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의원

실제 현장에서는 청소기를 가동해 풀 내 이물질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는 현장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이용 중인 청소기로 관리가 불충분하다면 개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병수 의원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현재 완도 해양치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상 설날 추석 명절에 정기 휴관일이 없어 안정적인 해양치유센터 운영 및 달러 스플 탁도 관리와 시설물 보수를 위해 주 1회 정도 정기 휴관일을 지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담당관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저희도 시설물 유지 보수와 직원들의 휴무 보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휴관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의원

지금 며칠에 한 번씩 합니까?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지금 휴관이 없고요. 그 시스템 일정에 따라서 직원들이 일주일에 2일은 휴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의원

이런 부분들을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해양치유센터가 군민에게 신뢰받는 공간 방문객은 다시 찾고 싶은 관광 자원이 되도록 지금의 문제점들을 책임 있게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 운영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 질문 마치겠습니다. 해양치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3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10분 회의계속)

○의장 김양훈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한 건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기석

(참조)

· 2025년 군정질문답변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의장 김양훈

조인호 의원님의 본안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조인호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호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급속한 디지털 전환 인공지능 AI 기술 확산은 행정과 주민생활 전반에 큰 변화를 초래하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이기석

그렇습니다.

○조인호 의원

요즘 인공지능 세대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이기석

지금 뭐 챗지피티라든지 저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사용을 해보면 굉장히 성능도 좋고 이렇게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조인호 의원

주민 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 정보 소외계층의 디지털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화 마을 운영 및 찾아간 디지털 교육을 추진하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이기석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인호 의원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기석

주민들은 이렇게 사람에 따라서 열심히 배우고자 하신 분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조인호 의원

교육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는데 교육에 대한 성과에 대한 정량적 지표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교육 효과를 어떻게 측정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기석
교육을 주로 이제 주민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설문 자체도 좀 어렵고 사업 규모가 좀 작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성과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조인호 의원
단순한 만족도 조사가 아니라 교육 이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 효과가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답변 자료의 고령층과 취약계층 맞춤형 교육을 컴퓨터 학원에서 한다고 했는데 교육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참여율은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기석
저희가 이제 사전에 신청을 받거든요. 받아가지고 완도읍에 있는 대성컴퓨터 학원이라고 거기서 위탁 이렇게 출석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조인호 의원
요즘 그 매장을 가보면 대부분 키오스크가 설치되어 있어 특히 어르신들이 사용할 때 매우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 지속성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최근 정부와 지자체의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 AI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있습니다.
완도군 공무원 대상 AI 교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기석
지금 AI 교육은 저희가 이제 직원들이 매일 사용하는 세월 프로그램 접속할 때 초기에 팝업창으로 이렇게 떠가지고 클릭클릭 해서 이렇게 교육을 하고요.
또 우리 전남 공무원 교육원이라든지 또 인터넷에 나눠 배움터라든지 또 교육 AI 이수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필요하면 교육을 이수해서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조인호 의원
타 지자체에는 정기적으로 AI 교육을 실시한 반면 완도군은 역량 교육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하는 AI 교육 신청에서 가능한 직원만 지금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전 직원이 돼서 상하반기에 나누어서 좀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기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인호 의원
과장님 혹시 인공지능 발전 기반 신뢰 조성에 관한 기본법 들어본 적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기석
예. 들어봤고요. 그와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의원 입법으로 조례를 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인호 의원
이 법은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법으로 올 1월에 제정되어 내년 1월부터 시행한 줄 알고 있었죠.
이재명 정부에도 인공지능 관련 관련자를 정부 내각에 선출하면서 국정 역점 중 인공지능 보급과 활용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완도군의회도 시대적 변화에 반하기 위해 본원이 완도군 인공지능 윤리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완도군은 현재 디지털 지역사회 구현 방향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으며 향후 AI 기본 정책 전환이 의지는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기석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정부에서 100조 AI 투자 계획도 나왔고요.
아마 정보통신부에서 아마 일괄 아마 지침이라든지 저희 군 자체적으로 현재 기본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그런 상태는 아니고요.
중앙부처라든지 도에 발을 맞춰서 지침이 내려오면 그에 맞게 기본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인호 의원
중앙정부 인공지능 정책 기조는 AI 기본법의 제정을 대응하기 위한 군 차원의 전략 수립과 현황은 어떻게 됐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기석
방금 말씀드린 대로 AI 시대에 또 한 번 뒤떨어지면 또 굉장히 또 이렇게 따라잡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AI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기본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예산도 확보하고 필요하면 관련 조례도 제정하고 또 개정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조인호 의원
완도군 행정의 특화산업 수산업과 고령복지 등의 AI를 접목하기 위한 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이기석
지금 저희 정보통신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정바다 수산 양식 플랫폼이라고 저희가 발표를 해서 이렇게 수상도 했습니다마는 어 구체적으로 사례는 그 청정바다 수산 장치 플랫폼 사업이 있겠습니다.
○조인호 의원
완도군은 현재 디지털 지역사회 구현이라는 명목으로 하여 일부 디지털 기반 시설 확충 및 정보 접근성 제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전국적으로 보편화된 1세대의 디지털 전환 정책이며 급속히 전개되고 있는 인공지능 AI 중심 2세대 디지털 전환 흐름과 좀 괴리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기석
일단 그렇게 AI 대응이라든지 정보화 체계를 고도화하려면 또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추가적으로 필요하면 의회도 보고하고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호 의원
관심을 좀 많이 가지십시오. 또한 완도군의 관련 법령과 정책에 대한 대응이 미비하며 지역 차원의 인공지능 활용 또한 정책 반영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이기석
예.
○조인호 의원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AI 전환 디지털 정책 재설계, 지역 특화 AI 모델 개발, 디지털 인재 양성 및 외부 전문가와 협업 등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여 다가오는 AI 시대에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기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인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양훈
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기석

(참조)
· 2025년 군정질문답변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의장 김양훈

박재선 의원님의 본안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박재선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완도군에 보면 저연차 하위직 공무원들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이기석

예. 그렇습니다.

○박재선 의원

이런 나이 차들이 세대간의 나이 차가 좀 많다 보니까 이렇게 갑질 논란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좀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기석

갑질 논란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을 어차피 나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거 불가피한 면이 좀 있다. 예를 들어서 3천 년 전에 이집트 상형 문자에도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다 그런 말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불가피한 면이 있고 보고도 했습니다마는 늘 소통하고 그렇게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박재선 의원

보면 이제 지자체마다 다 똑같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분들에 대해서 교육이라든가 좀 잘 시키면 또 아무래도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이 책자에 보니까 교육이 2회라고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이기석

교육은 이제 저희 부서장들은 간부회의 끝나고 목요일 날 같은 경우 영상으로 소통 공감 영상 시청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6급 팀장님, 팀장급도 이렇게 필요하면 집합 교육도 실시했고요.

2회로 돼 있는데 아마 2회는 더 아마 했습니다, 교육을.

○박재선 의원

그래요. 책자에는 그렇게 돼 있었고요. 그러면 이제 7급의 전출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습니까? 이직률이 좀 최근에 좀 변화가 좀 많던데.

○행정지원과장 이기석

전출은 이제 저희가 도라든지 중앙부처 상급기관 전출도 있고, 또 타 시군 일대일 전출도 있고 합니다마는 저희가 이제 전보 제한이 워낙 전출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되도록이면 전출을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급 같은 경우 7급 당해 직급 3년이 경과돼야 이렇게 전입시험을 자격을 주거든요.

그래서 또 한 도라든지 중앙부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또 군 입장에서 봤을 때 중앙부처라든지 도로 이렇게 전입하는 게 또 너무 통제하는 것도 안 맞고 또 그렇다고 또 너무 많이 전입을 하게 되면 또 저희 인력 관리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적절한 조화점을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선 의원

근데 우리군은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22년도 그때부터 8급 3년차부터 묶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는가요? 5년인가요? 3년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석

3년입니다.

○박재선 의원

3년 그러면 3년 이후에 도나 어디 가려면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석

전입시험을 봐야 되죠.

○박재선 의원
전입시험을 봐야 되는데 1년 차밖에 완도군을 안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시험에 한 번 떨어지면 도로 가고 싶어도 사실 못 가잖아요. 그런 기회를 타 지자체는 알아보니까 기회가 많더라고요. 근데 완도군은 도로 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석
그걸 또 통제를 안 하게 되면 또 전출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또 그렇게 풀어주다 보면 또 결원이 또 너무 과도하게 생깁니다. 좀 불가피한 면이 있고, 이제 그런 부분은 필요하면 우리 노동조합과 협의해서 좀 기간을 조정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탄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재선 의원
이제 너무 많이 가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 완도군의 발전이 된다 하면 저는 그분들이 조금씩은 도로 가서 좀 있어야지만이 완도군의 공모 사업이라든가 모든 게 있어서 그리고 그분들이 또 진급을 하게 되면 또 우리 완도군에 더 손이 또 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이기석
예. 맞습니다.
○박재선 의원
저 같은 전입이나 타 시군으로 가는 것은 저는 1대 1 교류로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기석
예. 당연히 타 시군은 1대 1 교류로 해서 이렇게 요청이 온다든지 그런 것에 한해서만 지금 전출이 되고 있어요.
○박재선 의원
그렇지. 1 대 1로 하지 않는 이상은 보낼 수 없다는 얘기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석
지금 현재 인력 관리상 그렇습니다.
○박재선 의원
그러면 이제 신규로 저희들이 하는데 그게 정해진 것은 아니잖아요, 뽑는 것은.
○행정지원과장 이기석
신규 직원 충원이요.
○박재선 의원
예.
○행정지원과장 이기석
신규 또 이렇게 지금 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신규 직원 이렇게 전출이 많다 보면 그 말은 결원이 많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또 신규 직원 계속 충원해야 되고 그러면 또 신규 직원은 업무 숙달이 안 돼 가지고 현장에서는 또 여러 가지 민원 처리에 애로가 겪고 이게 그런 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저희 군 같은 경우 신안이나 완도 이렇게 특히 인력 유출이 심한 시군은 좀 약간의 전보 전출 제한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재선 의원
그러면 전출을 가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직원들이.
○행정지원과장 이기석
전출은 대부분 상급 기관 전입이라든지 또 가정이 광주에 있다든지 타지에 있으면 부부 간에 떨어져 있다 보니까 주거지로 이동하는 전출이 많습니다.
○박재선 의원
타 지역은 그러면 우리 완도군하고 보수는 똑같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기석
공무원 보수는 다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 똑같습니다.

○박재선 의원
똑같습니까? 타 지역으로 가더라도?
○행정지원과장 이기석
예.
○박재선 의원
그래요. 그러면 행정안전부나 정부에서 실시한 업무 보고 말고 우리군에서도 따로 이렇게 업무 분석이라든가 조직 진단은 따로 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기석
저희가 조직 개편을 한다든지 하기 전에 조직 진단을 하고요.
합니다.
○박재선 의원
얼마 만에 한 번씩 하죠?
○행정지원과장 이기석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조직 개편할 때는 반드시 조직 진단 업무량 개별 업무 직원에 대한 업무 파악을 하던 업무량을 파악을 하거든요. 이 부분은.....
○박재선 의원
의무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1년에 한 번씩은 꼭 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직 진단을 하게 되면 조직 진단 결과를 의회에도 한 번씩 이렇게 보고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선 의원
서로 공유하면 저희들도 또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이나 저런 말씀 안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이기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선 의원
그리고 우리군 보시면 그 부서장 모시는 날 이렇게 팀장들이라든가 조직 간에 우리 직원들 간에 그런 모임을 갖는다든가 그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군에도?
○행정지원과장 이기석
지금은 요새는 없습니다. 없고 일부 부서 저도 그럽니다마는 점심 때는 또 저도 봐보니까 이렇게 너무 식사를 안 한 것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저녁 시간은 서로 부담스러운 것 같고요.
이렇게 중식 시간에 일정 경비 내고 같이 좋은 대로 이렇게 같이 먹고 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다고 봅니다.
○박재선 의원
근데 이제 예전에는 그렇게 정해졌다고 해서 의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처리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기석
예. 맞습니다.
○박재선 의원
그래서 그 문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우리군에도 아직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지.
○행정지원과장 이기석
모시는 날은 없습니다.
○박재선 의원
그렇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기석
예.
○박재선 의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 행안부에서 조직문화 혁신 10대라고 제가 과장님한테 전에도 한 번 얘기한 적 있는데 그게 혹시 알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기석
예. 알고 있습니다.
○박재선 의원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기석
그게 아마 2021년도에 나와 가지고 야근 문제.....
○박재선 의원
자료 한번 띄워줘 보세요.
그런 10가지 아마 그 대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 10가지가 있어요. 조직 문화 권고 사항에 보면 저런 것을 좀 과장님이 좀 더 관심을 좀 많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 직원들 간에도 저게 보면 눈치 보지 않기 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보고 저걸 전체적으로 다 아셔야 우리 직원들한테 같이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이기석
지금 저 나온 대로 우리 부서장님들도 마찬가지고 다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재선 의원
노력만 해갖고는 안 되죠. 좀 더 관심 가져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이기석
예. 알겠습니다.
○박재선 의원
그리고 우리 직원들 워크숍은 어떻게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기석
워크숍은 상하반기 지금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또 연말이고 업무가 바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인원수는 적습니다마는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재선 의원
그런 워크숍을 좀 자주 갖는 것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우리 공무원 사이에서 또 소통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좀 있는데 타 지자체에 보면 이런 것이 좀 있더라고요.
생일을 맞이하면 그 하루 동안 쉬는 거 그거 들어보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석
들어는 봤습니다.
○박재선 의원
몇 군데 타 시군들은 보면 좀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완도군도 그런 것도 한번 도입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기석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선 의원
일할 맛 나는 공직 생활이니까요. 한번 그렇게 한번 그것도 생각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이기석
예. 알겠습니다.
○박재선 의원
그러면 그 저연차 공무원들의 이직률이 상승하고 있고 공무원들의 전출 등의 행정 인력 공백은 완도군의 행정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부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의 불편이 이어지 거라고 그걸 생각해요. 그렇게 된다 하면 그래서 우리가 한 명의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그 과정에 노력과 또 비용이 무의미하게 또 씻어질 거라는 점도 있습니다.
큰 낭비가 될 것 같아서 과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꼭 우리 완도군 공무원들이 일할 만한 공무원 문화가 조성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기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선 의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양훈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천종실

(참조)
· 2025년 군정질문답변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의장 김양훈
박병수 의원님의 본안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박병수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주요 재정자립 수단입니다.
국세가 중앙정부의 살림을 책임진다면 지방세는 우리 지역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재원입니다.
맞죠?
○세무회계과장 천종실
예.
○박병수 의원
하지만 최근 우리군의 지방세 체납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수억 원의 체납액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고액, 상습체납자로 인한 조세형평성 저해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군의 지방세 징수율은 매년 95에서 96%를 유지하고 있는데 몇 년째 동일한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러한 징수율 상태를 어떻게 보시는지 답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천종실
95.6%, 96%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추석 전에 전남도 주관으로 체납액 보고를 했었는데요. 제가 보고를 드렸었는데 작년도 지방세 징수율 최우수상을 저희들이 수상한 바 있고요.
시상금으로는 천만 원을 수상했고요. 근데 전반적으로 경기가 침체되고 있다 보니까 지방세 체납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과년도까지 전남도 지방세 체납액이 얼마인지 잘 모르겠지만 전남도에서 말을 하기를 천억이 넘어갔다 위급한 상태다라는 말을 듣고 저희들이 95.96%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그나마 전남도에서는 최상위에 위치하고 있다 징수율이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수 의원
그리고 현년도 징수율은 높은 반면에 과년도 징수율은 낮거든요.
즉 장기 체당으로 갈 확률이 크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천종실
과년도 징수율도 저희들이 54.6%인데요. 다른 시군의 이번 보고에서 10%대, 20%대 사유를 보면은 나주 혁신도시 그리고 무안 공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뭐 언론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골프장도 지방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지금은 골프장이 어렵다 그래서 체납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골프장 하나가 지금은 폐쇄 위기에 있다 이런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박병수 의원
그러면 우리군의 실적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천종실

실적은 54.6%는 그때 도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완도군은 어떻게 해서 실적이 높냐? 이월 체납에 대해서요. 이월 체납에 대해서는 54.6% 있는데요. 굉장히 높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로 인해서 제가 칭찬을 듣고 왔습니다.

○박병수 의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한 방안은 있습니까? 전기 체납으로 갈 확률이 높다고 봤을 때.

○세무회계과장 천종실

장기 체납이 많고요. 그런데 54.6%는 저희들이 만족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더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높다고 하더라도 계속 선량한 납세자에 대한 상대적으로 이렇게 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또 부과했던 세금이든 2월 체납액이든 받는 것을 목적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수 의원

그리고 답변서에 보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향후 추진 계획 압류, 공매 정리 보류 등 강제 신고를 계획하고 있다고 했는데 뭔 조치를 한 사례는 있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천종실

예. 있습니다. 계속하고 있고요.

○박병수 의원

불성실 체납에 관련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 현황을 살펴보면 특정 어민의 체납액이 집중되어 있는데 이러한 지역에 대한 맞춤형 징수 대책은 없는가요?

○세무회계과장 천종실

특별하게 사유 분석까지는 안 했는데요. 저희들도 이제 체납에 의한 보고회를 하는데 이게 아마 관심 부족이라든지 지역 정서 옛날에 보면은 체납액 없는 읍면 시상도 하고 했었는데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을 다시 뭐 좀 이렇게 다시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직원들을 사기를 좀 왕양하고 인센티브를 주고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나 그리고 가장 큰 것은 읍면에 지금 직원들 분포를 보면은 9급, 8급 이런 부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읍면하고 군 합동으로 좀 해서 집중 체납으로 단속하는 기간을 설정하고 지금도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의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에만 맡기지 마시고 군에서 좀 직접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천종실

예. 알겠습니다.

○박병수 의원

그리고 소액 체납 관련해서는 징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소액 체납.

○세무회계과장 천종실

소액 체납은 사실 이런 부분이 어렵습니다. 소액 체납은 고액 체납 같은 경우는 집중적으로 할 수 있으나 소액 세납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보통세 지금 보면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에 대해서 보통세는 그나마 관심이 있다고 하지만 특히 소액 체납 같은 경우는 세수익 같은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부교수님 주제로 상하반기 지금 진술 대책 보고회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때는 했었고요. 하반기도 지금 했습니다.

○박병수 의원

지금도 그러면 읍면에서 마을 담당 공무원 마을 이장이 징수를 하고 있는가요?

○세무회계과장 천종실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박병수 의원
지금 그렇게 하지 않는가요?
○세무회계과장 천종실
예.
○박병수 의원
그러면 이 업무 방식도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세무회계과장 천종실
예.
○박병수 의원
개인정보 관련해서도 문제가 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업무 부담 증가 및 악성 민원 노출도 크다고 봅니다.
그렇죠. 타 시군 사례를 보면 읍면 대상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한다든지 또 아니면 전담 인력을 꾸린다든지 해서 징수하는 쪽이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천종실
그런 대책도 필요하겠지만 지금까지 저희 직원들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아무래도 지금 보면 직원들이 지금 세무직 직원들이 18명이 있는데 지금 그중에 50%가 지금 50% 이상이 6급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세금 징수나 부과에 대한 노하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하고 정이 무한다면 그런 제도 필요하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박병수 의원
또한 올해 연초에 전망했던 그럼 지방세 수징수율이 목표액 대비 몇 프로에 달하고 있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천종실
지방세 95%에서 96% 지금 이렇게.....
○박병수 의원
그럼 목표액보다는 추가 달성할 수 있는가요?
○세무회계과장 천종실
이제 연말에 가봐야 되겠지만 저희들은 목표액을 추가 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의원
우리군 가설 건축물 등 임시 건축물 취득세 부과하고 있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천종실
예.
○박병수 의원
그럼 가설 건축물 존속 기간도 있죠?
○세무회계과장 천종실
그렇죠.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수 의원
1년인가요?
○세무회계과장 천종실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수 의원
그럼 존속 기간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부과합니까?
○세무회계과장 천종실
일단 취득세라고 하면 불법이든 합법이든 건물이 신축이 되면 취득세는 부과하게 돼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병수 의원
그리고 임시 건축물도 농지에서 참고 용지로 변경이 되면 토지세 증가가 되죠?
○세무회계과장 천종실
그 부분은 제가 아직 못 했습니다.
○박병수 의원
확인 못 해 봤습니까? 확인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전라남도 감사 자료를 보면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와 건축법 이행강제금 등 지방세 수입 납부에 대해서 2억 원 이상이 체납자의 재산 조회 및 압류 의뢰를

하지 않아 징수를 못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후속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천종실

그 부분은 사실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요.

행정 절차라고 하면 어 징수하게 노력하겠고 징수를 안 하면 어차피 압류 그런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병수 의원

올해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셔서 향후 이런 사례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외국인에 대한 체납세가 지역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전체 지방세 징수율은 95.7%인데 외국인에 대한 지방세 부과 징수 실적은 64.3%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국적별 업종별 읍면별 현황을 보면 어떤 특징이 있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천종실

사실 외국인들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아직까지 그 저희들도 익숙지 않지만 그 납부를 해야 될 외국인도 아마 익숙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황을 보면 우리나라에 주소를 두고 우리 완도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은 저희들 자료에 의하면 약 5천명 5천 명으로 판단하고 있고 저희들이 이제 출입국 관리소에서 주소를 완도군에 놓고 1년 이상 거주한 사람들한테 주민세를 부과를 하거든요.

그 인원이 약 1,400명입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지금 저기 자료를 보시면 외국인 체납액이 7천여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사람들한테 외국인들한테 어차피 이 사람들은 우리는 이제 이런 제도를 계속 익숙해져야 되고 우리는 세금을 부과해야 되고 징수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세금 납부에 대한 의무감을 부여해 줘야 된다.

돈이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안이기 때문에 행안부나 각 지자체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행안부 지침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시군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최선의 방법을 선택해서 징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박병수 의원

또한 답변 자료를 보면 자동차 관련 세금과 주민세 재산세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 때문에 그럽니까?

○세무회계과장 천종실

그렇습니다.

○박병수 의원

외국인 체납자의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무엇이며 출국 이탈 등의 사유로 인해 징수 불능 사례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천종실

아직 특별한 대책은 마련되지 않고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중앙부처도 고민하고 있고 각 지자체도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 체납됐다고 해서 출국을 못하게 한다 이것도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외국인들이 주소를 완도군에 둔다고 해가지고 여기 계속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동하는 비율이 높고 실제로 여기다 거주를 안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예금 관계가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고 이 앞번에 읍면장 회의할 때 제가 외국인 체납 시에도 말씀드렸었는데 똑같이 말씀드렸었습니다.
그 금액은 적지 않지만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계속 겪어나갈 이 현상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박병수 의원

그렇다면 저기 부과해놓고 받아도 되고 안 받으면 이제 체납액으로 남고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세무회계과장 천종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징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의원

외국인들과의 연락 체계 정비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또한 외국인 체납자에 대해 강제 징수 체납 처분 또는 공공 정보 연계 조치는 이루어지고 있는가요?

○세무회계과장 천종실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박병수 의원

외국인의 지방세 관리도 내국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저조한 징수율은 외국인의 낮은 납세의식이 한몫하고 있다고 보고요.
강한 행정력을 동원하더라도 외국인에 대한 지방세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저 답변으로 갈음해도 되죠?

○세무회계과장 천종실

예.

○박병수 의원

이어서 세외 수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세외 수입 중 과태료, 부담금, 이행 강제금 등 강제성 수입 항목의 징수율이 낮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천종실

다시 한 번 말씀.....

○박병수 의원

과태료, 부담금, 이행 강제금, 강제 성격의 수입 항목이 징수율이 낮다고.....

○세무회계과장 천종실

징수율이 낮다. 지금 보면 그거는 보면은 조세 저항이 좀 있죠.
왜냐하면 합법적인 시설에 대해서 부과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과정이 어떻게 되냐 하면 조세를 부과 세금을 부과하면 이의 신청을 받고 이의 신청이 정리를 해서 정상적으로 세금을 부과해서 세금을 징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가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징수율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부분은 직접적으로 합법적이지 않는 건축물에 부과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조세 저항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징수율이 낮고 체납액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수 의원

그렇다면 세수입 부과하고 장기 체납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높은 분야는 그럼 어디입니까? 과태료입니까? 뭐 다른 분야.....

○세무회계과장 천종실

과태료 그리고 자동차 검사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그런 부분입니다.

○박병수 의원

부서별로 업무가 분산되어 있어요.

○세무회계과장 천종실

예.

부서별로 있습니다.

○박병수 의원

특히 비슷한 행정 여건을 갖춘 장흥군, 강진군의 세외수입 징수 사례를 보면 우리군의 징수 실적이 났습니다. 다른 두 자치단체에 비교해서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또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천종실

근데 의원님께서 어떤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자신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강진이나 장흥보다는 징수율이 높다고 저는 자신합니다.

○박병수 의원

그러면 확인 한번.....

○세무회계과장 천종실

구체적인 자료를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수 의원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지역에 완도군이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모범 사례가 있는지 살펴보시고 필요하다면 각 부서에 전파해서 징수율 제고와 체납액 줄이기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천종실

알겠습니다.

○박병수 의원

또한 세외수입 체납은 각 실과소에 부과 징수하지만 세무회계과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는 만큼 각 실과서의 부진한 내용을 점검해서 징수율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방세 감면 실적을 살펴보면 전체 감면액 중 국가 또는 일반 공공행정을 제외하면 34.6% 19억 52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답변서도 감면 사유를 살펴보면 특정 업종 또는 단체에 편중되어 있지는 않은 것인지 어떻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천종실

감면이라 하면 저희들이 이제 임의로 감면할 수 없고요.

지방선거법이라든지 특별법에 의해서 감면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것은 특별법에 명시돼 있는데 그것은 어떤 단체 국가에서 그런 국회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감면을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체에서 특정 단체에다가 어떤 수혜를 주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병수 의원

법에 의해서 한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객관적 기준과 공공성이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질 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 재산 압류 외에 실효성 있는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천종실

지금 보면은 상습 체납자는 저희들이 11월 27일날 공통 전국적으로 이렇게 공개를 합니다.

천만 원 이상 상습 체납자는 하고요. 저희들이 이제 전국적으로 하는 똑같은 상황이지만 출국 금지를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3천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재산이 없거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한 6개월간 출국 금지시킵니다.

이런 제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드렸다시피 가능하면 징수를 목적으로 징수를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렵겠지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수 의원

예. 그렇습니다. 저는 성실 세납자 성실 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나 조기 납부제한 혜택 등 납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문화 인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천종실

저희들도 지금 보면은 성실 납세자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고 있죠.
저희들도 이제 성실 납세자 같은 경우는 2024년도에는 지방세 최우수 시공으로 해가지고 천만 원을 받았는데 그것을 해양치유 2억 원권을 이렇게 배부해 드렸었고요.
올해는 저희들이 군비로 천만 원을 세워서 이제 지역사랑상품권 10만 원 상당을 100여 명 한테 이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박병수 의원

그럼 성실 납세자하고 조기 납부자에 대해서는.....

○세무회계과장 천종실

납부자는 이제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연초에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한다 그러면 혜택을 주고 있는 그런 어차피 그것은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법에 준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박병수 의원

몇 프로인가요? 10%.....

○세무회계과장 천종실

그거는 정확한 수치는.....

○부과팀장 정광현

부과팀장 정광현입니다. 자동차세가 기존에는 10%였는데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3%대까지 줄어들려다가 다시 5%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은 5%입니다. 4.78% 정도 됩니다.

○박병수 의원

1년 납부액을 조기에 1월달에 납부했을 때 5%라 이 말씀이죠?

○부과팀장 정광현

예. 그렇습니다.

○박병수 의원

이어서 우리군의 지방세 관리 조직 및 시스템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완도군 세무 담당 인력 및 조직 구성은 인근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충원율이 낮아 필요한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뭐 정원은 몇 명이나 되는가요?

○세무회계과장 천종실

방금 전에 말씀드렸었는데요. 세무직 지금 18명이 있습니다.

○박병수 의원

그리고 전체 읍면을 포함해서요?

○세무회계과장 천종실

예. 18명이 있고 그중에서 6급 이상이 10명입니다.
그러니까 50% 이상이 넘어가죠. 연령대를 보면은 50대 이상이 한 7명 정도, 그러니까 이게 연령층으로 봤을 때는 전체 인력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고 할 수 있으나 연령층으로 본다고 하면 업무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라도 보충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병수 의원

지금 세무직 우리 총 정원에 대한 분포 비율이 있죠? 직렬별로.

○세무회계과장 천종실

예.

○박병수 의원

그럼 직렬별로 분포 비율을 봤을 때 세무직 몇 프로나 차지하고 있는가요?

○세무회계과장 천종실

그 비율까지는 제가 이제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박병수 의원

확인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결원은 없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천종실

결원이라고 뭐 그렇게 하기 없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징수 업무라든지 부가 업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그래도 읍면에 한 명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군에 있는 팀 그리고 취득세 도세 이런 거 부분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약간은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저번에 이제 도 징수책 보고에 갔을 때 인력 관계가 또 얘기 나왔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타 시군에 비해서는 그나마 인력 수급은 잘 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모 시군 같은 경우는 뭐 그런 사례를 들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지만 아예 채용을 안 하고 있다라고 해서 그때 해당 과장이 와서 담당 시군 부군수님께서 좀 우리 시군에 와서 이런 우리 고초를 좀 들어 달라라는 애로사항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에 그런 쪽에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그나마 저희 시군은 인력 수급은 그리고 혹시 부족하다면 저희들이 행정지원과와 합의해서 충원하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수 의원

지금 세무직 공무원들이 읍면에 지금 배치되면 또 다른 종합 행정이라서 다른 업무를 또 보고 있는 사례들이 많이 있죠?

○행정지원과장 이기석

있죠.

○박병수 의원

전문직이거든요, 세무직 공무원들은. 전문직 부서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하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도 좀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천종실

읍면 실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직 그런 얘기도 옛날부터 과거에 많이 나왔었는데요. 읍면 실정상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박병수 의원

그렇다면 징수 전담반 또는 외부 기관 활용 실적은 있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천종실

외부 기관 활용 실적은 없습니다. 외부 기관 활용 실적 같은 경우 TV에서 보면 전담반 해서 막 고액 체납자들 막 가정 방문하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수준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이르지 않은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의원

타 지자체 사례가 사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검토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천종실

알겠습니다.

○박병수 의원

조금 전에 언급을 했었습니다마는 과장님 세무직 공무원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특히 돈을 받는 쪽만 말고 또 예산을 세우는 예산 부서라든지 집행을 하는 또 세출 부서도 근무해 보고 다양한 분야에 근무를 해야만이 경험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아마 우리군에도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세무직 공무원들이 한 분야에만 계시는 것보다는 세입 세출 또 돈의 소중함을 잘

아시기 때문에 두루 경험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기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천종실

지금 현재도 저희 세무직 직원이 예산계에서 1명 근무하고 있죠.

○박병수 의원

그러니까 이제 세출 부서라든가 그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인사부서에 건의도 좀 해보시고 또 직원 간 연차에도 해서 업무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보다 적극적인 징수 노력과 체납액 관리가 필요합니다.
세무 관련 부서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력은 알고 있지만 앞으로도 더 책임감 있는 징수 행정으로 우리군 재정이 더욱 튼튼해지고 지역 사회가 보다 공정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10분 회의계속)

○의장 김양훈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한 건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용식

(참조)

· 2025년 군정질문답변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의장 김양훈

조영식 의원님의 본안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조영식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확인 하나 하고 질문하겠습니다. 군정업무 보고 시 행정지원과장에 질문한 내용입니다.
악성 민원인 대응 공직자 전화 녹취 시스템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가라고 질문을 했는데 개선이나 복구되셨는지 확인하셨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용식

7월 업무보고 시에 그것을 제안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과에서 내년도 본예산에 전화 구입비 예산 5천만 원을 지원 예산을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식 의원

그때 답하실 때는 이 2, 3개월 내로 바로 시정 조치한다고 했는데.....

○민원봉사과장 김용식

예산이 그때 수반돼서 내년도 본예산에 그때 한 걸로 그때 업무 보고 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영식 의원

그럼 내년에는 확실하게 전화 녹취 시스템이 완벽하게 가동이 되겠네요.

○민원봉사과장 김용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영식 의원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용식

그러겠습니다.

○조영식 의원

답변서를 보면 22년에 비해 23년도부터 민원 건수가 감소된 감소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용식

20년부터 22년까지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시행됐었습니다.

그래서 22년도에가 어떻게 보면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마지막 해여서 그때 민원 서류가 많이 됐고 23년 4년 또 보면은 거의 수준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게 부동산 특별법 때문에 많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식 의원

그럼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군민 맞춤형 민원 서비스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용식

그게 굉장히 난해하긴 한데 어떻게 보면 저희 취약 계층이 민원 처리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야간여권서비스가 저희들이 좀 하는 것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영식 의원

혹시 과장님 민원 업무는 여태까지 공직생활 중에 처음일까요?

○민원봉사과장 김용식

예. 처음입니다. 죄송합니다.

○조영식 의원

또 민원과장님 오신 지도 또 얼마 안 됐죠?

○민원봉사과장 김용식

7월에 왔습니다.

○조영식 의원

잘 좀 마쳐서 민원 서비스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용식

그러겠습니다.

○조영식 의원

혹시 타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농어번기 민원 서류 배달제 운영이라든가 거동 불편자 및 노령층 여권 배달 사업이라든지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용식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미처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조영식 의원

아직 접해보지 못하셨다고요?

○민원봉사과장 김용식

예.

○조영식 의원

과장님 이제 이런 게 저 혹시 좀 접혀가지고 우리군도 국민 맞춤형 민원서류 서류 발급 서비스 개선해야 된다고 보이는데 좀 준비 좀 잘 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김용식

예. 그러겠습니다.

○조영식 의원

내년부터는 좀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용식

타 시군에 시행하고 있는 타 시군 같은 데를 벤치마킹해서 저희 군이 도입할 수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식 의원

혹시 시간이 되면 다음 행감 때 한 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용식

그러겠습니다.

○조영식 의원

다음은 무인 발급기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생일 때

에 아까 무인 발급 서비스 있죠?
무인 발급기가 한 대 한 곳에 설치돼 있죠?

○민원봉사과장 김용식

예. 면사무소에 있습니다.

○조영식 의원

소안 인구가 몇 명이나 됩니까? 아, 저 생일.

○민원봉사과장 김용식

생일이 한 800명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식 의원

현재 9월 해가지고 727명 정도 되네요.
노화 넙도는 혹시 인구가 몇 명이나 될까요?

○민원봉사과장 김용식

한 800명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식 의원

넙도에는 아직 무인 민원 발급기가 없죠?

○민원봉사과장 김용식

예. 지금 현재 넙도 출장소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식 의원

같은 도서지역이고 하는데 인구 많고 적고를 떠나가지고 비슷한 크기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민원 발급기가 설치가 어느 곳은 되고 면이어서 됐을까요?

○민원봉사과장 김용식

읍면사무소다 보니까 그렇게.....

○조영식 의원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용식

예.

○조영식 의원

넙도에 무인 발급기가 설치하도록 되도록 제안하는 바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용식

내년 본예산이 지금 진행 중인데 예산팀하고 접촉을 해서 만약에 안 되면 추경 때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토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식 의원

기획예산실장님 어쩝니까? 이 부분은.

○민원봉사과장 김용식

1,700 정도가 들어가는데.....

○조영식 의원

답변서를 보면 운영 시간이 연중 24시간 24시에 끝난 것도 있고 9시에 또 끝난 것도 있는데 전부터 24시까지 운영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민원봉사과장 김용식

지금 대합실 같은 데가 지금 두 군데 당목하고 화흥포, 그다음에 소안면사무소가 지금 실내가 있다 보니까 지금 한 그게 24시간이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소안 같은 데는 저희들이 외부에다 공간하는 장소가 있을 것 같아서 거기는 외부로 지금 할 거고 대합실 같은 데도 그쪽 대합실 선사들하고 해서 24시간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식 의원

24시간이요. 이거 보니까 운영 시간이 24시까지 돼 있는데.

○민원봉사과장 김용식

00시부터 24시이기 때문에 하루 24시간입니다.

○조영식 의원

그러면 혹시 그 무인 민원 발급기로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가 몇 종이나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용식

보고서 드린 것처럼 123종입니다.

○조영식 의원

123종이요. 그중 수수료가 무료로 할 수 있는 것도 있나요?

○민원봉사과장 김용식

법률에 정한 것 외에는 저희들이 군 자체적으로 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식 의원

우리군에는 없죠? 장흥군 같은 경우는 또 일부 일정 부분 일부는 무료로 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참고해 주시고요. 무인발급기 수수료 수입은 연간 얼마 정도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용식

저희들이 증지 수수료가 연 전체 한 5천 원 정도 군 세입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무인 민원 그중에 한 20% 정도 되지 않을까 하고, 한 1천만 원 정도 되지 않아 무인 민원 발급기에서는.....

○조영식 의원

답을 정확하게 숫자라서 애매하게 대답하시는데.....

○민원봉사과장 김용식

천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조영식 의원

따로 한번 보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용식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식 의원

제가 수치에 좀 많이 민감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용식

그러겠습니다.

○조영식 의원

과장님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이나 컴퓨터로 발급할 것이고 컴퓨터를 잘 사용하지 않는 장년층이나 노년층들이 주로 현장이나 무인 민원 발급기를 이용할 거라고 보는데 맞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용식

민원24로 젊은 사람들은 많이 그렇게 해서 무료로 발급을 받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 우리 어떻게 보면 노령층이 어떻게 보면 취약계층이 어떻게 보면 더 현장에 와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식 의원

무인 발급기에서 발급하면 더 편하고 직원들도 더 응대하기도 편하고 하는데 그 노령층이나 장애인 또 사회 컴퓨터를 사용하지 못한 층들에 대해서는 옆에 또 홍보도 하고 하면 빨리 그분들도 민원 서류를 발급할 수 있겠죠.

○민원봉사과장 김용식

그럴 것 같습니다.

○조영식 의원

그런 데도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용식

그러겠습니다.

○조영식 의원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등기상 증명서 등 수수료 규칙을 보면 부동산 등기상 증명서 수수료가 정해져 있으며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도 규정이 나와 있어서 수수료 감면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민등록법을 보면 주민등록 등초본의 경우에는 지자체의 조례로 감면이 가능하다 보이고요.

완도군 재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는 세무회계과 소관이라 세무회계과와 협의해서 조례를 개정하면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용식

좋으신 제안이라고 생각하는데 한편으로는 저희들이 지방세든 세외 수입이든 매년 저희들이 이제 세입이 들어오다 보면은 그 세입이 전년에 비해서 감소를 하다 보면은 그 사유를 어떻게 보면 행안부 같은 데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 정당하지 않는 사유로 인해서 세금이 감면됐을 때는 보통 교부세 산정을 할 때 그걸 행안부에서 패널티를 적용을 하다 보니 그

것은 좋으신 제안인데 저희들은 예산 부서 세무회계과랑 해서 이런 교부세의 그런 산정이나 그런 데 패널티를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토하는 것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식 의원

이렇게 일은 열심히 잘하라고 꼼꼼히 하라면서 또 이런 수수료 감면 문제에 또 이중성을 보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서로 좋은 방향을 찾아보시게요.

○민원봉사과장 김용식

그러겠습니다.

○조영식 의원

과장님 우리군에 지금 외국인 근로자가 많아지고 있잖아요.

○민원봉사과장 김용식

예. 그렇습니다.

○조영식 의원

그러면 무인민원발급기에 외국인들이 사용할 사용 가능한 번역 서비스는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용식

현재는 한글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식 의원

한글만요?

○민원봉사과장 김용식

예. 한글로만 저희 군은 한글로만 지금 현재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식 의원

예. 자료화면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사해 보니 다른 시군에서도 외국인 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완도군 무인 민원 발급 서비스 시스템 개선을 위해서 외국인 번역 서비스도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인 민원 발급기 고장시 주말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요?

○민원봉사과장 김용식

지금 저희가 용역 업체에 맡겨서 지금 하고 있는데 용역업체에 맡기고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영식 의원

용역업체요. 그럼 장애인이나 주말이나 급할 때 민원 서류를 발급하려고 하면은 뭐 문제점은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용식

현재까지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식 의원

발생 안 하고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김용식

예.

○조영식 의원

이제 또한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 현황을 보면 대부분 관공서에만 설치돼 있어요.

타 시군은 병원, 농협, 법원, 세무서 등 주민들이 많이 오고 가는 곳으로 발급기를 배치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점차 무인 민원 발급기를 확대하는 방안도 민원 서류 발급 서비스 개선 방안이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용식

수요에 봐서 점진적으로 그렇게 확대해 가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식 의원

확대해 가도록이요?

○민원봉사과장 김용식

예. 점진적으로.....

○조영식 의원

17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민원봉사과장 김용식

한 2400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 2400 정도.

○조영식 의원

그리고 터미널도 항만 터미널도 이런 데 사람

들이 많이 왕래하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용식

항만 터미널에는 지금 다 설치돼 있는데 아직 버스 터미널 그런 데는 아직 미비해서 그런 것은 점차적으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식 의원

민원 창구 담당 공무원 대상으로 정례적인 교육이 22년도 1회 24년도 1회 25년 대 1회고요.

대부분 대규모로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교육을.

○민원봉사과장 김용식

지금까지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그렇게 대처 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영식 의원

1년에 한 번 하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김용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영식 의원

본 의원은 민원창구 담당 공무원 대상으로 이렇게 대규모로 1년에 한 번 하는 걸 소규모 연찬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민원창구 담당 공무원의 심리 회복을 위해 심리 치유 힐링 치유 프로그램도 예산 투입 없이 정기적으로 국비로 실행하는 기관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면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민원봉사과장 김용식

지금 저희 자체적으로 지금 힐링 그런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데 국비 지원 혹시 하는데 저희들도 한번 조사를 한번 해서 그걸 국비를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저희들도 국비를 지원받아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식 의원

몇 개월 되지 않아가지고 지금 업무 파악도 하는데 여기서 나와서 쉽게 답하기가 어려움이 있겠죠.

○민원봉사과장 김용식

하여튼 국비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식 의원

내년에는 더욱 좀 신경 써서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용식

그러겠습니다.

○조영식 의원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주민 민원 서류 발급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경제적 시간적 편의성을 제공하는 것이기에 가장 최우선으로 챙겨 나가야 할 행정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민들의 입장에서 주민 편의를 위한 행정을 할 것인지 많은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양훈

민원봉사과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용식

(참조)

· 2025년 군정질문답변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의장 김양훈

허궁희 의원님의 본안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허궁희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궁희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

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도시 기능 세태 등으로 장기간 방치된 집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죠.
특히 농어촌 및 도심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빈 집은 단순한 개인 재산 문제가 아니라 지역 전체의 안전과 환경 경제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단기 철거 정비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 체계적 관리와 활용 방안을 포함한 항구적인 빈집 정비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과장님은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용식

지금까지 저희 군이 빈집 철거를 주민 신청에 따라서 철거 보조금만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보고드린 사항처럼 중장기적인 빈지 정비 계획을 내년까지 완료하여 의원님 의견과 같이 체계적으로 관용하고 또 활용 가능 위주로 방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허궁희 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올해 8월 기준으로 완도군 빈집 수가 734동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등급별로 구분해서 관리한다고 하셨는데요. 그 등급별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용식

이게 지금 734동이 어떻게 보면 전문 용역기관에서 어떻게 보면 등급을 판단한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저희 직원 읍면 직원들이 그 상태를 봐서 최근에 이게 빈집이 됐다 그러면은 1등급으로 하고 좀 3, 4년 지나서 리모델링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데는 2등급, 그다음에 리모델링이 불과한 상태를 3등급이고 그다음에 아예 지금 무너져 가는 그런 상황을 4등급 그런 형태로 해서 그렇게 관리 등급을 지금 해서 734동을 관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허궁희 의원

그러면 세분화는 아직 안 돼 있고요?

○민원봉사과장 김용식

세분화는 되어 있는데 이게 전문 기관에서 한 게 아니고 저희 읍면 직원 눈으로만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등급은 전문 기관이 하다 보면은 판이 달라질 수도 있다.
그렇게.....

○허궁희 의원

예. 참고하겠습니다. 올해 초 수립된 빈집 정비 계획에 따르면 금년 중 쉼터 및 텃밭을 44개 조성했고 마을 주차장 6개 조성을 목표로 설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은 어떻게 되며 연내 목표 달성률은 어느 정도로 전망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용식

당초 저희들이 업무 보고할 때는 예산을 확보해서 이걸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현재는 추진 실적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추진 실적 때는 이렇게 하겠다 해놓고 지금 한 건도 못 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내년도 도비 50%를 포함해서 2억 5600만 원으로 내년부터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허궁희 의원

올해는 그럼 도비가 안 돼서 그랬습니까? 군비가 안 돼서 그랬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용식

도비 지원이 좀 안 돼서 내년도부터 도비 포함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궁희 의원

그러면 어떻게 그 저 도에 좀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하시지 왜 못 받았어요? 그 원인을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용식

제가 내용을.....

○허궁희 의원

다음에 그러면 서면으로 해주세요.

○민원봉사과장 김용식

그러겠습니다.

○허궁희 의원

우리군 빈 집은 734동 중에 이 중 철거형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은 돼 있는가요?

○민원봉사과장 김용식

방금 말씀했던 것처럼 어 철거는 362동 정도가 그렇게 되고 있고 활용 재활용이 1 2등급이 372동인 걸로 현재는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허궁희 의원

그런데 우리군의 빈집 정비 사업은 대부분이 철거 위주의 지원 사업에 집중되고 있는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안전하고 예방에 도움이 되겠지만은 장기적으로는 정주 여건 개선과 인구 유입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타 시군에서는 빈집 리모델링 지원 사업 빈집 활용 신규마을 조성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관련해서 중장기적 편집 계획 반향 설정도 해 놓으셨다는데 간략하게 그 세부적인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용식

지금 저희들이 어 5페이지 업무의 보고 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빈집 실태 조사 및 정비 계획을 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지금 저희들이 지금 할 계획이거든요.

그거 해서 하다 보면은 2등급이 지금 현재 저희 직원들이 이렇게 1 2등급으로 돼 있는 것이 3등급으로 될 수 있고 또 3등급이 2등급으로 올라올 수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을 저희들이 이걸 전문 기관에 이것을 저희 빈 집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궁희 의원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잘 보셨죠?

과장님 우리군 홈페이지를 보면 빈집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별도 페이지가 이렇게 있어요.

있는데 현재 아무런 정보화 담당 부서 연락조차도 등록되지 안 돼 있어요.

이걸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용식

저희들이 이 자료를 가지고 바로 현행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허궁희 의원

그렇게 해야 되겠죠. 우리 구민의 접근성과 행정 신뢰도 측면에서 반드시 보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료 한 번 더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어디 거냐면 강진하고 해남입니다. 차이가 많이 나죠?

○민원봉사과장 김용식

예.

○허궁희 의원

우리군도 앞서는 못 가더라도 비슷하게는 아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용식

예. 의원님 제안하신 거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궁희 의원
적극 검토하십시오. 우리군도 이러한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 하신다 하니까 믿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답변서를 보면 빈집 은행 운영을 한다고 또 되어 있어요. 현재 주민들 반응은 어떤지 혹시 뭐 참고한 내용 있는가요?

○민원봉사과장 김용식
이게 구입 희망자들은 기대가 높다는 걸로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허궁희 의원
그러면 과장님 현재 우리군의 빈집 정비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용식
어떻게 보면은 이게 소유자 동의가 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허궁희 의원
첫째는 동의를 안 해줘서 어렵고 어 두 번째는 예산 부족이 있어서 또 어려움이 있겠죠?

○민원봉사과장 김용식
그렇습니다.

○허궁희 의원
뭐 행정 인력은 부족함을 안 느낀가요?

○민원봉사과장 김용식
지금 그런 예산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정비가 아직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본격 시행을 하다 보면은 그런 문제점이 좀 대두될 수도 있긴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현재 인원 가지고 그 예산 범위 내에서 그것을 시행하다 보면은 거기에 맞춰서 잘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궁희 의원
그렇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나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어느 어느 것이 개선이 되고 예산 확보를 위해서 어떤 부분이 또 필요한지 한번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용식
어떻게 보면 빈집 정비는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방법은 소유자 동의를 받아가지고 저희 군에서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그 소유자는 임대 수입을 받아가지고 임대 그 소유자가 빈집으로 방치한 것보다는 임대 수입을 받고 그다음에 이런 귀촌이나 계양하신 분들은 큰돈을 들이지 않고 그 거주하는 공간을 마련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앞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장기적으로 저희 군도 그런 기존 기어 집을 그런 형태로 조성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궁희 의원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소유자 동의가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토지 및 건물 소유주에게 인센티브 제공도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께서 오늘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빈집 문제가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우리군의 안전과 주거 인구 그리고 경제와 직결된 중요한 과제임을 깊이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용식
그러겠습니다.

○허궁희 의원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철거 이주 단기 대책을 넘어 귀농 귀촌과 연계한 활용 방안과 정보 제공 체제 정비 그리고 안정적 예산 확보 등 종합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앞으로도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계획을 제대로 한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용식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허궁희 의원

이상으로 보충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양훈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산회)

○출석의원(9인)

김양훈	박성규	지민
박재선	박병수	조인호
최정욱	허궁희	조영식

○출석공무원

군수	신우철
부군수	이범우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관광실장	안환옥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행정지원과장	이기석
세무회계과장	천종실
민원봉사과장	김용식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농업축산과장	이정국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해조류박람회추진단장	김준혁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지역개발과장	오현철
건설과장	김진원
안전총괄과장	이홍용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최광윤
보건의료원장	한광일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수호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최영미

의사운영팀장 서을식

속 기 사 정현중

제333회 완도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10월 22일(수) 10시00분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군정 질문 및 답변의 건

ㅇ주민복지과장(2)
ㅇ가족행복과장(1)
ㅇ경제교통과장(2)
ㅇ문화예술과장(1)
ㅇ체육진흥과장(1)
ㅇ농업축산과장(1)
ㅇ해양정책과장(2)
ㅇ해조류박람회추진단(1)

부의된 안건

1. 군정 질문 및 답변의 건(의장 제의)

ㅇ주민복지과장(2)
ㅇ가족행복과장(1)
ㅇ경제교통과장(2)
ㅇ문화예술과장(1)
ㅇ체육진흥과장(1)
ㅇ농업축산과장(1)
ㅇ해양정책과장(2)
ㅇ해조류박람회추진단(1)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양훈**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의사일정에 따라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1. 군정 질문 및 답변의 건(의장 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답변은 주민복지과장 2건, 가족행복과장 1건, 경제교통과장 2건, 문화예술과장 1건, 체육진흥과장 1건, 농업축산과장 1건, 해양정책과장 2건, 해조류박람회추진단장 1건으로 총 11건입니다.
먼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한 건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참조)
· 2025년 군정질문답변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의장 김양훈

조영식 의원님의 본안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조영식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늘 주민복지과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고생 많죠?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예. 우리 직원들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영식 의원

올해 가족센터가 6월 개관해서 4개월째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 맞죠?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예. 맞습니다.

○조영식 의원

혹시 과장님 주제로 무슨 간담회도 자주 하나요?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아직 간담회는 개최 안 했고요. 개간 후에 운영 관계로 해서 센터장과 여러 번 이렇게 미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조영식 의원

아, 여러 번 하셨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예.

○조영식 의원

혹시 거기에서 뭐 센터장님하고 서로 상담하는 과정에 뭐 좋은 의견이나 무슨 의견 나오는 거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그래도 이제 개관이 얼마 안 돼가지고 센터의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또 운영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조영식 의원

올 9월에 본 의원이 의원 연구단체에서 동료 의원들과 완도군 복지 서비스 개선에 따른 부안군 온가족 센터의 현지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부안군의 인구는 4만 7천여 명으로 우리군 단위에서는 저희랑 아주 흡사한 면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주 여건과 돌봄 시설 그리고 통합복지 서비스에서는 우리군과 엄청난 차별성을 두었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부안 온가족 센터의 경우에는 1층 육아종합지원센터, 실내놀이터, 2층에 공동육아 나눔센터와 돌봄센터, 3층에는 장난감 도서관, 4층에는 상담실, 가

족센터, 언어 교실이 있었습니다.
영유아 중심으로 다양한 연령대의 아이들이 실내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통합 돌봄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별산 돌봄 문화센터, 별빛 바다 어린이집을 건축해 교육 서비스 질을 질 향상에 열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과장님 혹시 한 번이라도 가보신 적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아니요. 저는 못 갔습니다. 의원님들이 최근에 다녀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식 의원

다녀와서 아주 잘 돼 있다는 평가를 의원연구단체에서 의원들 같이 갔던 의회 직원분들 다 감동하고 왔습니다.
반면 우리군은 아동, 청소년, 다문화, 노인 돌봄 등 복지 수요는 늘어나고 있음에도 업무가 분산되어 있고요.
더욱이 업무 관련성이 많은 드림스타트와 가족센터 업무가 분산되어 나누어져 있어 군민들 불편만 초래되고 있는 실정 실정입니다.
부안도 우리군처럼 부서는 나눠져 있지만 부서별 유기적 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부서 간 협조 체계도 엄청 잘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은 복지 관련 부서가 주민복지과 가정 행복과 두 부서 있지만 군민들이 생각하는 복지 체감도는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닌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먼저 국가 복지 정책이 이렇게 날로 이렇게 확대되고 있어 가지고 저희들 군도 이렇게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조직 개편을 했습니다.
그것은 처음에는 주민 불편이 이렇게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이렇게 정착됐기 때문에 이렇게 불편이 다 해소됐다고 생각합니다.
다 해소됐다고요 그리고 다만 업무 조정은 둘과 좀 협의해서 조정할 필요성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최 감독에 대해서는 주민 각자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 혜택을 받는 분은 만족도가 높겠지만은 또 복지 혜택 못 보신 분들은 그나마 그래도 체감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조영식 의원

가족센터와 관련해서 많은 드림스타트에 대해서 잠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들어보셨죠?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예.

○조영식 의원

아마 주무부서는 아닐 겁니다. 아동의 공평한 양육 여건과 출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저소득층 임산부 및 0세에서 12세 아동과 그 가족에게 보건 복지 보육을 통한 전문적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 주도의 선진 아동 복지 프로그램입니다.
단순한 복지가 아닙니다. 국가가 취약계층 아동을 돌보는 통합적 복지 시스템이자 아이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는 출발선입니다.
성장에 대한 국가적 투자입니다. 드림스타트가 가진 의미고 그것은 드림스타트를 정의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은 드림스타트를 관장하는 주무부서가 어딘가요?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지금 가족행복과에서 받고 있습니다.

○조영식 의원

그러면 가족행복과장님 잠깐 몇 가지 확인 좀 할까요?

지금 드림스타트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지금 구 도서관 뒤에 그 구 문화원 자리 2층에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영식 의원

대상자 즉 취약계층 아이들은 지금 어디에서 돌봄 받고 있죠?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지금 프로그램은 지금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조영식 의원

프로그램은 청소년 구 청소년 문화 지금 꿈틀에서하고 있고, 또 선생님 세 분은 지금 여기.....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구 문화원 2층.....

○조영식 의원

구 문화원 2층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죠. 현재 도서관 뒤로 이전했음에도 여전히 예전 장소인 꿈틀에서 지금 돌봄을 받고 있다는 거죠?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프로그램 이용자에 한해 어린이만 지금 꿈틀 청소년 문화의 집 그 프로그램실 저희가 드림스타트 전용 프로그램실이 한 군데 있거든요. 거기를 이용하고 나머지는 지금 2층 우리 구 문화원 2층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식 의원

그러니까 아이들은 예전에 드림스타트지점 이전하기 전에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지금 그가 시설도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 케어 받고 있다는 거죠.

완도군 전체 한 109명 정도 되고요. 완도군 내에서는 한 20명 25명 정도 되는 걸로 파악되는데 맞습니까?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아, 예.

○조영식 의원

알겠습니다. 엘리베이터나 뭐 인테리어 등 완공 시기와 소요 예산은 묻지 않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드림스타트 옮긴 데가 좀 외진 데다 또 기피 지역 옛날 우리 초·중·고등학교 학교를 다니다 보면 우범 지역입니다.

그쪽에 부모님들께서 보내기 아무래도 꺼려하겠죠.

현재는 청소년 문화회 사무실에서 반은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반은 언어 미술, 노래 등 치료 프로그램을 받고 있는 게 실정입니다.

또 선생님들은 드림스타트로 여기 도서관 2층으로 출근해서 치료하는 시간이 되면 드림스타트 또 꿈틀 왔다 갔다 한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 애들도 만족해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이면에는 학부모들 또 선생님들뿐만도 아주 불편함이나 불만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주민복지과장님 주민복지과 하고 가족행복과 부서 간 통합을 하든 아니면 업무 업무와 팀을 유형별로 나누든 조직 개편이 필요해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아동 청소년 청년 장년 어르신 등으로 나누어 팀을 개편한다든가 우리군은 업무적으로 너무 헷갈리게 나뉘어 있어서 어느 팀에서 어떤 업무를 보고 있는지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복지직이고, 누구보다 업무에 대해서 잘 아시기 때문에 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예. 의원님 기존 조직 개편된 지는 한 3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조직 개편보다는 두 과의 업무

분석을 해서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드림 스타트하고 가족센터 이렇게 통합 업무도 두 과 업무가 지금 현재는 다르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검토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식 의원

예. 꼭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이제 어차피 이렇게 가족행복과장님하고 주민복지과장 두 분에게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말을 좀 질문하려고 여태까지 좀 가설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뭐 드림스타트 업무를 가족센터에서 함께 병행해서 진행하면 안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그러니까 그 사항은 현재 두 과로 이렇게 구분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서 뭔 말을 못하고 신중하게 양과 이렇게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식 의원

예. 잘 협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우리 군수님, 부군수님 또 행정지원과장님 여기에 관련된 또 분들 계시니까 잘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장점이 너무 많아요.
이중 시설이 필요 없고 분산될 필요도 없고 다 같이 돌봄 하면 또 선생님들도 적게 될 것이고 또 학부모 안전도 무엇보다 안전하게 돌보니까 학부모님들도 매우 만족할 것이고 또 경제적인 면에서 아까 선생님들 또 한 곳에서 하면 시설 면에서도 경제적인 그런 면에서도 아주 많은 이득이 있을 것 같고요.
아이들도 아주 좋아할 것 같습니다. 서로가 뭐 자기가 원하는 것들 즐길 거리를 갖춰져 있어 가지고 골고루도 쓸 수 있고 해서 좋아할 것 같아서 장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앞으로 하여튼 주민이 편의성 있게 앞으로 이렇게 양국과 다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식 의원

과만 협의하지 마시고 의사결정권자인 군수님한테도 한번 가서 이 부분 또 들으셨으니까 심도 있게 논의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식 의원

어떤 부진한 면이 있거나 또 추가 보충할 문제 있으면 행담 시간에 한 번 더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단기적으로 하자는 건 아니고 장기적으로 계획을 갖고 서로 논의하자는 차원에서 지금 서두를 던지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예. 알겠습니다.

○조영식 의원

이어서 답변서를 보면 가족센터 인근에 주차장 18면으로 계약돼 있는데요.
부지 확대는 다 돼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예. 부지 확보해서 지금 임시 주차장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조영식 의원

지금 복개해놓은 데 그쪽 많은가요?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그래서 내년 예산에 확보해서 이렇게 아스콘 포장할 계획입니다.

○조영식 의원

언제 정도 될까요?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이제 내년 예산 확보하면 바로 공사가 진행됩니다.
○조영식 의원
그럼 현재까지 지금 4개월 동안 이용자들이 주차 문제로 불편함을 호소하고 그런 건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그쪽 임시 주차장 상가인 밑으로는 아직까지는 큰 불편은 없습니다.
○조영식 의원
그럼 지금 현재 했다는 것은 지금 확보된 부지에 18면 거기다가 주차장만 포장해서 쓰기 좋고 편리하게 해 주면 되겠네요.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예. 그렇습니다.
○조영식 의원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가족센터 참여자 현황을 보면 개인 상담실 이용자가 많은데 개인 상담실에서 어떤 복지 서비스가 이루어집니까?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개인 상담 서비스는 먼저 가족 간의 갈등이나 또 대인에 관한 문제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또 심리적 안정을 돕는 이렇게 상담을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센터 활성화를 위한 향후 계획에 공동 육아 나눔터 운영 시간을 확대한다고 했는데요.
○조영식 의원
공동육아나눔터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공동육아나눔터는 먼저 부모들이 함께 모여서 자녀들하고 돌보고 또 놀이하고 또 유아 이렇게 정보도 교류하면서 함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조영식 의원
홍보도 잘해서 국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식 의원
가족센터의 주요 사업에서 아이 돌봄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이 돌봄 사업.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아이 돌봄이 사업 우리군에 하여튼 56명 지금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데요.
맞벌이나 이렇게 한부모 또 다문화 가정이 부모가 양육을 할 수 없는 시간 내에 우리 도우미가 가서 그 시간 내에 아기를 돌보는 그런 역할을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식 의원
요즘 도우미라는 명칭을 잘 안 쓰는데 선생님 하면 어쩌겠습니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가족센터 주요 사업들이 다문화 지원 사업에 많이 지나치게 편중된 것 같은데 어쩝니까?
아까 56% 정도 된다고 제가 보고 보고할 때 들었던 것 같은데 너무 지나치게 표현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우리군 가족센터는 이렇게 건강 가족센터하고 또 다문화 가족센터하고 이렇게 통합형 이렇게 모델형입니다.
그래서 제도적이나 재정적으로 다문화 사업이 이렇게 많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또 물론 또 다문화 사업이 많은 것은 또 많이 참여를 합니다.
다문화 사업 그래서 이렇게 평준된 것 같습니다.
○조영식 의원

또한 그 행정 학교 복지관 복지 시설과도 연계도 필요해 보이는데 협력 사업들도 있습니까? 협력 타 기관들이.....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학교에서 학교에서는 아동이나 청소년들하고 이렇게 진로 상담이나 정서 교육 같은 것을 진행하고요.

또 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취약 가정을 또 이렇게 발굴도 하고 또 가족 캠프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영식 의원

좌우지간 잘 해 주시길 바라고요. 아마 취약계층이고 또 한부모고 이런 어른 학생들한테 좀 샅샅이 좀 돌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예. 그렇습니다.

○조영식 의원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장 방문을 가봤는데 1층 커뮤니티실이나 열린 공간은 활용도가 좀 떨어지는 면이 있어요.

그곳을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공공형 어린이 실내 놀이터로 시설로 검토해 주기를 바란다는 제안을 하고 싶은데 혹시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공공형 어린이.....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1층 얘기하십니까?

○조영식 의원

예. 1층 커뮤니티실.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운영하고 있는 가족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조영식 의원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양훈

주민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참조)

· 2025년 군정질문답변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의장 김양훈

지민 의원님의 본안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지민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현재 우리군에 자원봉사 등록되어 있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1만 3,084명.....

○지민 의원여기에서 이제 활동 실제로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대략 한 몇 분 정도나 되실까요?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한 50%

○지민 의원

50% 좀 많이 하시네요. 우리 행정안전부에서 자원봉사 활동 실태 조사 및 자원봉사 활동 기본법 개정 연구를 실시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이 일생 동안 참여한 자원봉사 활동 기간 1위가 1년 미만으로 봉사 활동의 지속성이 좀 낮은 현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대부분 지속적 봉사활동은 여성단체나

적십자 우리 또 새마을부녀회 이렇게 개인의 경우는 또 일회성에 그치고 지속성이 좀 낮은 경우가 좀 많은데 과장님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자원봉사자는 개인이 보상 없이 개인 시간을 쪼개서 이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민 의원

이제 가장 저희가 생각하고 듣기로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수요 기관에 좀 인식 문제 그게 좀 있을 듯 하고요. 또 봉사활동을 고마워하기보다는 좀 당연한 일로 좀 인식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듣고 좀 아쉬움이 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봉사활동을 하고도 여기 봉사활동을 했다는 활동 결과를 좀 알려주지 않아서 답답함을 좀 많이 느낀다.

그게 우리가 그 봉사 활동자들이 봉사활동을 했다는 거 인정에 관한 거는 이렇게 활동 결과를 좀 알려줘야 되는 거 알려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또 많이들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러한 인심과 처우는 바쁜 일상 속에서의 시간을 내어 봉사활동에 임해 주시는 봉사자들의 노고와 헌신하는 마음을 좀 외면하는 행위이지 않을까 그리고 의욕을 상실시켜 봉사활동의 지속성은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이를 어떻게 생각을 하시며 이를 어떻게 개선을 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우리군에서는 지금 좀 인센티브를 좀 많이 보상 못해서 항상 우리 봉사자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군에서는 봉사 시간에 따라 좀 보상금액이 다른데요.

100시간에서 200시간은 8만 원 또 200시간에서 500시간은 10만 원, 500시간 이상은 20만 원 이렇게 나눔 하도록 도에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민 의원

도에서 지원을 한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예.

○지민 의원

그럼 그게 어떤 방식으로 지급이 되나요?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이게 카드로 나갑니다.

○지민 의원

카드로 바우처 카드로요.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예.

○지민 의원

그러면 이제 500시간이 지나가지고 20만 원이 최고 한도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시 또 리셋 되나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이 아니고 그걸로 끝나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끝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같은 경우는 우리 군에서 한 152명..... 152명 이렇게 카드 발급됐습니다.

○지민 의원

지금 이 군에서 현재 인센티브 제도가 지금 실행 하고 있는데 실제 봉사자에게 체감이 되고 실효성이 있는 제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우리 봉사자들 그나마 적습니다마는 이렇게 또 그 시간 채우기 위해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민 의원

이게 타 지자체와 좀 차별성이 없고, 형식적인 수준에 좀 머물지 않나 또 이런 생각들도 들고 봉사자들의 동기부여를 좀 높이기 위해

완도군만의 좀 특화된 인센티브를 좀 발 발굴할 계획이 좀 있으신가요?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그래서 앞으로 좀 봉사 단체하고 이렇게 간담회를 통해서 좀 의견을 듣고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민 의원

지금 또 그러면 이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봉사 실적을 충족을 해야만 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예. 그렇습니다.

○지민 의원

현재 그 봉사 실적에 봉사 시간 위주로만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는데 일손 돕기 재능기부, 육아 돌봄 환경 정화 등 봉사의 종류와 분야의 다양성을 좀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그렇습니다. 자원봉사가 분야가 워낙 여러 가지 가지고.....

○지민 의원

이 활동의 종류와 성격에 따른 가치를 함께 평가하는 방식 도입을 검토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민 의원

또한 그 1365 자원봉사 포털 사이트 등록된 실적만 인정이 되어서 우리 지역사회 사회단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사회단체 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소규모 봉사 활동도 굉장히 많아요. 혹시 그러한 봉사 활동들도 이게 실적으로 들어갑니까? 자원봉사 실적으로.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예. 1365 자원봉사 포털에 가입되면은 인정해 줍니다.

○지민 의원

가입을 하면, 일반 사회단체로?

○지민 의원

우리가 일반 사회단체 개별로 하는 국제단체 같은 경우 라이언스, 로타리 뭐 또 다른 의용소방대는 이제 수당이 나가고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되고 나가지 않는 부분에 또 이제 군에서 지원 요청해서 자원봉사하는 게 또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개인별로 봉사활동 하도 이렇게 그 기간 인정해 오면 저희들이 등록해 줍니다.

○지민 의원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포털 우리 1365 운영은 꽤 오래됐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나눔 카드 발급은 2023년부터 이렇게 시행이 됐습니다.

○지민 의원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저도 생각을 하기에 이제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저도 이제 지역에서 30년 이상 자원봉사를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자원봉사 인증 등록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에서만 자원봉사하는 게 이 자원봉사 사이트의 실적 시간으로 올라간다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도 자원봉사를 오래 해 왔고, 자원봉사 사회단체를 이끌고 집행부로 활동을 해 봤지만 거기에서 일반 환경 정화 활동이라든지 주거 개선, 환경 개선이라든지 주거 일손 돕기라든지 이런 활동들은 들어간다라는 이야기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일반 사회단체하고 이렇게 안 된 것은 좀 인정하고요.
앞으로 사회단체에 이렇게 보상 관계나 또 1365 포털에 대해서 홍보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민 의원

그러면 이제 일반 사회단체도 그러한 자원봉사 활동했던 거를 1365 사이트에 등록 회원 가입을 하고 자료 등을 담당과에 보내면 실적으로 인정해서 올라간다는 그 말씀이시죠?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그렇습니다.

○지민 의원

홍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관사회단체 모임도 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예. 알겠습니다.

○지민 의원

그리고 또 이제 자원봉사자들이 가장 아쉬워하는 것이 우리 수요 기관의 인식 문제라고 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좀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수요기관 담당자 정기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하시면 좀 어떻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우리 전담 인력은 분기별로 이렇게 교육받고 있습니다.

○지민 의원

전담 인력?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예.

○지민 의원

수요 기관, 수요 기관하고 같이?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예.

○지민 의원

좀 많이 운영을 좀 해서 인식 개선에 좀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지민 의원

그리고 또 아울러 봉사자 본인에게도 안전 교육, 봉사 역량 강화, 역량 강화 교육 전문성 교육 돌봄이나 재능 기부 분야에서 정기적으로 제공을 해서 활동의 질을 좀 높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군의 추진 의지가 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기회 되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민 의원

우리 봉사자들한테도 이러 이러 해서 이러한 자원봉사자들도 우리 손길들이 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예. 그렇습니다.

○지민 의원

예. 그래서 이런 교육들도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또 이제 그분들이 또 많이 활동을 해야 우리 또 사각지대 같은 것도 많이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예. 잘 알겠습니다.

○지민 의원

또한 완도군은 정기적으로 봉사자 성과를 홍보하고 노고에 감사를 하는 체계를 갖추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좀 해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민 의원

그리고 타 지자체처럼 우리 홈페이지에 우수 자원봉사자 명예의 전당 게시판을 좀 마련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게 실제 자원봉사를 계속하다 보면 1년에 얼마 정도의 시간, 가장

높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1, 2, 3위라든지 이렇게 해 가장 많이 했던 사람들의 명예의 전당을 좀 만들어서 좀 그분들에게 감사를 표하면 어떨까 싶어요.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는데요. 저희들도 하여튼 봉사자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보상을 못 해줘서 미안한데 그래도 내년에는 하여튼 우리군의 특수시책으로 보상 관계에 대해서 힘을 쓰겠습니다.

○지민 의원

그리고 또 자원봉사자를 또 특정 시기를 좀 정해서 우리 군수님하고 또 의장님하고 또 자원봉사센터장이나 이렇게 관계 기관장과 우수 자원봉사자 만찬위원회나 간담회 등을 좀 열어서 이분들에게 좀 감사를 표시하고 봉사활동의 여건과 건의사항 좀 들을 수 있는 행사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말에 그 역량 강화 워크숍이 있는데요. 그때 우리 군수님이나 의장님 시간 되면 함께 한 자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민 의원

그리고 생활 속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보상 우리 지역 화폐라든지 그분들에게 이제 또 장학금이라든지 그런 걸 좀 마련을 하면 좀 어떨까 싶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그런 여러 가지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지민 의원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쟁이 치열한 일상 속에서 남을 위해 자신의 시간을 내어 아무런 대가 없이 봉사 활동을 한다는 것이 아무나 실천할 수 없는 없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역 공동체를 위해 묵묵히 봉사활동을 나서 주시는 자원봉사자들, 그들을 통해 사회 속에서 온기를 느낄 수 있기에 이러한 등불이 꺼지지 않고 활활 타올라서 우리 주변에 범접할 수 있도록 우리 완도군이 먼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보답할 수 있는 정책들을 펼쳐 나가 주시길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해 주세요.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지민 의원

이상으로 보충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양훈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가족행복과장(1)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참조)

· 2025년 군정질문답변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의장 김양훈

허궁희 의원님의 본안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허궁희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궁희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완도군 고령자 복지주택은 단순한 주거 공급이 아니라 완도군의 노인 복지 정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노인통합복지인프라 구축함으로써 올해 6월 11일 완도군과 LH 간 업무협약을 체결 마무리했죠?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예.
○허궁희 의원
먼저 과장님 이하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고령자 복지주택은 내년 상반기 착공이 돼서 2027년 12월 입주를 목표로 준공에 아직 뭐 문제점은 없죠?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예. 지금까지는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허궁희 의원
과장님, 중요한 사업인 만큼 준비를 잘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본 주택은 최신 건축 공법인 모듈러 주택인 OSC공법으로 짓는다고 했는데 관련 사항에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본 주택은 지금 현재 건설 기술 최신 건설 기술인 OSC공법인 모듈러 주택 방식으로 지금 건설될 예정입니다.
이 공법은 건축 자재와 구조물을 공장에서 미리 제작을 해가지고 현장에서 지금 조립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초 공사 기간보다 단축이 되고 지금 기술이 모듈러 주택에 대한 기술이 좀 많이 발달을 해서 품질이 균일화되고 유지가 잘 되며 소음과 먼지 주변 환경의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궁희 의원
장점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안전성에 제일 중요한 게 안전성이죠. 그런 면에서는 문제가 없겠죠?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예. 안전성 그런 부분들도 적합 판정 다 나왔습니다.
○허궁희 의원
아울러 LH에서는 민간 참여 공공주택 건설 사업 공모를 통해서 사업자 선정에서 착공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우리군 사업비 등 초기 자본에 따른 예산 수반은 문제가 없는 겁니까?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저희 군은 지금 내년 6월을 착공으로 지금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1차 지금 군비 부담이 지금 총 139억 원 내외로 돼 있는데 내년 착공 전까지 그리고 50% 초기 자본을 지금 투입을 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내년 올해 본예산에는 이제 내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 편성하는 걸로 그렇게 기획실하고 이야기가 돼서 내년 추경 편성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내년에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허궁희 의원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 자료에 보면 완도형 고령자 케어 안심 주택으로 완도군과 LH 통합 돌봄 사업 연계 기관을 통해 주거복지 여가 도론까지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게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케어 지금 안심주택은 지금 우리가 법상 고령자 복지주택의 지금 현재 우리가 90%거든요. 5% 이내에 군이 임대해서 운영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제 케어안심지 이 주택은 어떤 공고니 지금 일상생활이 어려운 퇴원환자들 있지 않습니까? 퇴원. 집으로 가기는 어정쩡하고 어디서 돌봄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분들을 단기간 입주를 시켜서 주거와 건강 생활 지원 이런 통

합 지원을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허궁희 의원

그러면 통합 돌봄 사업 연계 기관에서는 구체적으로 무슨 일들을 하는지 더 자세히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지금 이제 통합 돌봄 사업이 올해는 시범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전국 3월부터 전국 시행으로 지금 돼 있거든요.

저희 군은 그걸 대비해 가지고 지금 시범적으로 올해 지금 하반기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 돌봄 사업 연계 기관이라는 거는 무엇인거니 재택으로 방문 간호 일상생활 중을 돌봄 서비스를 각 서비스별로 제공하는 기관들을 말하거든요.

이 서비스를 이용을 하려면 통합 돌봄 대상자로 지금 판정을 받아야 됩니다.

어르신들이 이 판정을 받으면 어르신들의 판정된 결과를 결과에 따라서 그 필요에 따라서 재택의료를 할 것이냐 아니면 방문 간호를 할 것이냐 식사 청소 지원을 할 것이냐 사회복지 상담 이런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하는 그런 기관에서 그런 기관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허궁희 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준공 후 바로 통합 돌봄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게끔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90세대 지원 대상자 지원 대상은 노인성 질환자 등 저소득 무주택자로 분양은 아니고 임대로만 추진이 되는 거죠?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예.

○허궁희 의원

그러면 지원 대상은 어떻게 선정이 됐습니까?

완공을 한 다음에.....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예. 이제 완공, 준공하기 전에 이제 그 절차를 좀 밟아 나갈.....

○허궁희 의원

선정을 한다 이 말씀이신가요?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예.

○허궁희 의원

아직 그러면 대상자는 선정이 돼 있는 건 아니네요.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이제 기준은 있습니다. 입주 대상 기준은, 기준은 입주 대상은 지금 만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 중에서 이제 저희가 소득 재산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이제 LH에서 이 주택에 대한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거든요.

그 모집 공고의 신청에 따라서 저희 군하고 LH가 공동으로 심사를 해가지고 최종 입주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허궁희 의원

만약에 노인들의 성향에 맞지 않아 임대율이 100%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그 저기 2페이지 저희가 추진 실적에도 언급을 했지만 2022년 12월부터 지금 LH 주관으로 해가지고 고령자 복지주택 수요 조사 용역을 했거든요.

그 용역이 뭐냐면 그 세대수 확정 이제 확정하기 전에 세대 수를 몇 개를 확정하냐 이런 부분들을 제조사하고 이 사업성이 맞냐 안 맞냐 이런 분석까지 하는 그런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가 최종

90%로 지금 확정이 되었거든요.
이제 타 지역에서 고령자 복지주택 운영 사례를 저희들도 검토를 좀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타 지역에서는 단독 세대를 했을 때 그 면적을 26평방 밑으로 한 8평 조금 못 되는 규모로 저기 전용 면적을 해서 작아가지고 선호도를 낮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알고 우리군은 세대별 전용 면적을 좀 한 평 더 늘려서 31평방미터로 좀 확대를 했습니다. 이렇게 확대가 되면 어르신들의 주거 만족도나 이런 부분들 그 임대율에 대한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해가지고 약간 보완을 했습니다.

○허궁희 의원
과장님 고령자 복지주택 부지가 최종적으로 중도리 소재지로 이렇게 신축하는 게 맞죠?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예.

○허궁희 의원
왜 중도리까지 가셨는..... 선정을 하게 됐는지 완도에는 그럴 만한 부지가 없었는가요?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예. 최고의 부지입니다.

○허궁희 의원
그러면은 이제 중도리 국립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옆에 쪽이죠?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예.

○허궁희 의원
그쪽에 사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좀 좁을 것 같은데 안 좁은가요?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부지는 지금 이제 집을 막상 지어보면.....

○허궁희 의원
보시면은 저기에 또 EM 지금 옛날에 썼던 그 건축물이 저렇게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저 건축물은 내년에 사업 착공하기 전에 철거를 지금.....

○허궁희 의원
아, 철거를 할 겁니까?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예. 철거를 합니다. 철거를 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저기 조성 면적이 그 부지가 6,873평방미터거든요. 그래서 약 2,100여 평이 되고 있어요. 저희 이제 층수가 14층 규모로 올라가면 지금 적용이 검표율 40분에 용적률 100% 이 조건은 그 무리 없이 지금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부지가 좁거나 그런 것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허궁희 의원
EM 건물을 제거한다고요.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예.

○허궁희 의원
알겠습니다. 물론 행정에서 이제 캐드 구적으로 살펴봤겠지만 제가 현장에 다녀왔지만 부지가 좀 넓으면 거기에다가 이렇게 좀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은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구간도 좀 만들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좀 아쉽기는 하더라고요.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실제 그 설계상 보시면 다 갖추고 있습니다. 공원도 다 구성되고요.

○허궁희 의원
그러면 이제 기본 계획 용역은 마친 상태죠?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지금 LH에서 금년 5월부터 지금 기본 용역하고 설계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0월 말 준공 예정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허궁희 의원
진행 중이네요.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예.
○허궁희 의원
결과가 나오면 한번 의회에도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예. 그러겠습니다.
○허궁희 의원
참고하게요. 그리고 가장 고령 복지주택 입주자들이 이 노인 질환자나 저소득층 대상이라고 했어요.
노인 질환자나 저소득층 어르신 중심이면 주택 인근 마트나 상점 그리고 병원들도 없는데 그분들이 밖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은 이동 수단은 버스밖에 없을 것 같은데 별도의 계획이 있는가요?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그 복지관은 기본적으로 그 셔틀버스를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군도 이제 복지관이 정식으로 이제 되면 셔틀버스를 운영할 계획이고요.
이 셔틀버스는 입주 어르신 외에 우리 복지관 프로그램 이용하시는 어르신들까지 이렇게 이동 수단으로 저기 지원할 계획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입주 초기부터 이제 셔틀버스 정기 운영 부분을 운영 체계를 마련해서 어르신들의 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조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궁희 의원
이렇게 셔틀버스를 준비할 때 휠체어나 이런 게 이제 이렇게 부담 없이 탑승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설명하신 중에 퇴원자나 집에서 이렇게 케어를 못 할 분들을 이렇게 입주하게 한다 했잖아요.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예, 예.
○허궁희 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준비를 좀 잘 검토하세요.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예. 그러겠습니다.
○허궁희 의원
그리고 아무래도 그쪽 부근이 사고 위험이 많은 구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 사고 및 교통사고에 대한 대책도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도로 상황은 어떤가요? 충분합니까?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그 도로는 일부 이제 다도예산 국립공원에서 먼저 선점해서 건물을 지어놨기 때문에 도로 일부는 지금 잘 되고 있고, 저희 부분은 이제 저희도 공사를 이제 착공을 하거나 준공이 마무리되면 도로상을 정비를 좀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완도경찰서나 유관기관들과 협조를 해 가지고 이제 고령자 복지주택이 자리를 잡고 있어서 노인 보호 구역 지정 이런 부분 그다음에 속도 제한 표지판 횡단보도 방지턱 이렇게 교통 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사전에 저희들이 사전에 얘기를 해서 완비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복지관 셔틀버스도 운영을 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승하차 지점 이런 부분들도 사고 위험이 없게끔 사전 정비를 잘해서 운행될 때는 이제 최저가라는 조건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궁희 의원
그렇게 설명하듯이 준비도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저렇

게.....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2019년부터 시행한 고령자 복지주택은 공공임대주택의 하나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를 비롯해 형편이 어려운 65세 이상 무주택자가 입주할 수 있습니다.
26제곱미터 기준 월 임대료가 5만 원도 안 될 정도로 싼 데다 낙상을 비롯한 생활 속 사고에 대비한 안전시설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이 같은 장점만 보고 입주했다가 낭패를 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주의 한 고령자 복지주택에 들어온 입주민들은 관리비 고지서를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임대료는 5만 원 안팎인데 관리비는 평균 15만 원 많게는 17만 원 넘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수급비 겨우 조금 받고 그런 걸로다가 우리가 사는데 이게 너무 부당해가지고 사고 싶은 거 못 사고")

○허궁희 의원

보셨다시피 관리비가 임대료보다 많이 비싸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과장님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아니면 이번에 처음 아셨는지.....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지금 이런 부분은 타 지역에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LH하고 계속 관리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금 검토 방안을 마련하고 최대한 최소화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책정이 돼서 입주 후에도 이제 개선 방안이 생기면 이제 이런 부분들도 마련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궁희 의원

그래서 이렇게 이런 문제들은 사전에 준비를 잘 해서 협상을 해야 우리 그 입주자들이 피해를 보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예. 그러겠습니다.

○허궁희 의원

이어서 그 경로당이나 물리치료실은 직영으로 합니까? 위탁을 줍니까?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지금 경로식당이나 물리치료실 하나하나 시설이 복지관 내에 있는 시설이거든요.
뭐 이렇게 하나하나 시설에 대해서 위탁하는 게 아니라 그 복지관을 민간 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허궁희 의원

그러면 관련 수반되는 예산도 다 입주자가 이렇게 관리비나 개인 비용으로 충당을 해야 되는 거죠?

○허궁희 의원

아니요. 복지관은 이제 그 입주자 관리비에서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복지관은 복지관에 대한 별도 예산이 편성돼서 거기 운영비로 지출이 됩니다.

○허궁희 의원

그러면 우리 완도는 입주자분들이 이렇게 관리비를 조금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네요.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그 복지관 혜택을 받죠. 복지 서비스 관리비하고는 무관한 이제 복지관하고 그 주택하고의 그런 저기 양분돼 있거든요.
이제 같은 시 시설이지만 이제 사용하는 어르신들의 사용료 부분은 주택 부분에 대해서만 그 관리비나 임대료를 내시고 복지관에 대한 것은 이제 저희 군이 예산을 세워서 민간 위

탁을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어르신들이 프로그램을 그냥 활용하고 그 시설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허궁희 의원

그래요. 그런 부분을 우리 입주자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사전에 홍보도 많이 하시고 관리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무래도 완도형 고령자 복지주택은 이 입지상 완도 이렇게 시가지하고는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 대상자가 노인 질환 및 저소득층이다 보니 서비스 운영이나 사회적 고립, 수용 공급의 불일치 임대료 등 수반되는 비용 문제 등 예상되는 문제점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잘 대비해서 우리 입주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를 없도록 사전에 준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궁희 의원

이 부분은 준공까지 다가와서 고민하지 마시고, 착공 후 수반되는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고민해서 슬기롭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예. 그러겠습니다.

○허궁희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양훈

조인호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호 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우리 경로복지센터 심야 전기 있죠?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예.

○조인호 의원

그 관계 제가 초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추진 상황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지금 저희가 본예산에 지금 올려놨거든요. 이제 올려놔서 지금 편성을 됐는데 그 예산이 지금 최종 확정분은 지금 저희가 받지를 않아서 기획예산실장님이 좀 챙겨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인호 의원

지금 저 어르신네들은 그것이 되는 줄 알고 이렇게 나한테 자꾸 전화가 오는데 과거에는 우리 경로복지센터가 전국에서 최고 잘 됐다고 벤치마킹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 당시는 심야 전기가 우리가 좀 판단을 잘못한 것 같아요.

심야에는 어르신들이 다 집으로 가는데 심야 전기가 필요 없는 걸 우리 행정 착오로 해서 그걸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 전기료가 한 달에 80만 원, 90만 원씩 나가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판넬로 하든지 빨리 교체가 돼야 어르신네들이 그나마 좀 혜택을 받게끔 그 실장님.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저희가 새로운 부기로 해서 지금 편성 요구는 잘 돼 있습니다.

○조인호 의원

이 부분은 좀 마무리하게끔 해 주세요. 과장님 잘 챙겨서 하십시오.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예.

○조인호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양훈

가족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11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0분 회의계속)

○의장 김양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한 건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참조)
· 2025년 군정질문답변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의장 김양훈
박성규 의원님의 본안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박성규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규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전년부터 이어진 고환율 고물가에 따른 내수 시장 부진과 미국의 관세 정책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지역 경제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에서 실시한 민생 회복 쿠폰으로 소비자 심리 지수가 소폭 상승하여 회복세에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물가 상승이 지속되면서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소상공인들은 계속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분 자유 발언에서도 소상공인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드렸는데 과장님 적극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예.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성규 의원
우리 완도군에서도 소비 쿠폰을 발행했죠?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예. 그렇습니다.

○박성규 의원
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쿠폰을 발행을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른 시군이 하고 나면 꼭 해요. 좀 선제적으로 빨리 할 수 있도록 좀 혹시라도 또 내년에는 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이제 시군마다 예산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인근에 해남군이나 진도군은 우리 군보다 상당히 좀 여유가 있는 편이어서 그 시군들은 선제적으로 시행한 건 사실입니다.
우리군도 이제 기획예산실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형편에 따라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성규 의원
우리 소상공인들이 인구 수가 한 2만 명에서 1만 9천 명 정도 돼요.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예. 그렇습니다.

○박성규 의원
그리고 우리 완도군민들의 3분의 1이 해당되죠?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예.

○박성규 의원
우리 과장님 우리군에서 소상공인 정책 중 타 심과 차별화된 정책이 있으십니까?
한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이제 우리군에서 이제 좀 시행하고 있는 거는 이제 2023년부터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서 카드 수수료를 매년 3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시책은 나주시 곡성군, 구례군, 함평군, 완도군에서 5개 시군만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

고요.
이제 융자금 이자 차액을 지원하는 2차 보존 지원 사업은 해남군과 우리군이 제일 많이 도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성규 의원

진도군 해남군에 여유가 있다고 그러는데 다 똑같아요. 저희들 하고요. 다 어렵습니다. 다 지자체는 다 어렵기 때문에 잘 참고 하셔서 내년도에도 우리 군수님이 바뀌면 보고를 잘해서 소비 쿠폰을 한 번 더 발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규 의원

혹시 완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책 만족도를 조사를 하신 적이 있나요?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그 부분은 아직 시행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박성규 의원

없으시면 올해라도 한번 해보시고요. 소상공인 대상으로 정책적 의견도 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박성규 의원

그리고 제가 제안했던 자영업자 소상공인과 정례 모임 확대도 좀 실행을 해 주시고요.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이제 그 부분은 상반기 하반기 연 1회씩 아래로 준비돼 있었습니다마는 상반기에는 개최를 못 했고 하반기에는 개최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박성규 의원

하반기에 할 수 있도록 실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답변서를 살펴보면 완도군 소상공인 정책 예산이 2024년도에는 7억 8천만 원, 올해는 12억으로 상향됐는데 예산은 상향됐는데 우리는 소상공인이 느끼는 체감도는 낮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의견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이제 우리군에서도 나름대로 이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공공요금이나 융자금 출연금 2차 보존 이렇게 먹깨비 배달앱 이렇게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홍보가 좀 부족했든지 어쨌든지 이제 이렇게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적극 홍보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성규 의원

우리군도 우리만의 소상공인들을 위한 선제적인 정책들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우리군 지역 상품 구매율이 어떻게 되나요?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지역 상품 이제 관련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저기 정부 평가에서는 신기술이나 중소기업 제품 이런 구매율은 이제 저희들이 들어는 봤습니다만 지역 상품 관련해서는 이 부분은 좀 생소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성규 의원

혹시 청주시에서는 지역 상품 우선 구매라는 정책을 적극 추진 중인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이제 그 부분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내용이 있는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좀 파악을 좀 해보겠습니다.

○박성규 의원

그래서 청주시에서는 지역 상품 구매율이 2022년에는 86%, 또 2024년에는 94.6%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타 시군에서 벤치마킹할 정도로 정책 이슈가 된다고 합니다.
이거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규 의원
이 제도는 물품 계약과 관련된 부서라 우리 세무회계과장님도 아실 건데 세무회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의장 김양훈
지금 세무회계과장님.....

○박성규 의원
됐어요. 부서 간 조율하셔서 우리군과 접목할 수 있는 부분들은 검토해서 실행 여부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규 의원
이렇게 우리 완도군도 단순히 작년에 지원된 사업에 대해 사업비를 늘리거나 줄일 것이 아니라 타 부서와 협력업체 협의 체계도 만들고 각 분야별 사업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낸 것도 고민을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알겠습니다.

○박성규 의원
과장님 위에서 제가 말씀했지만은 우리군 먹깨비 활용도가 타 지자체보다 매우 낮아요.
화면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완도가 지금 몇 입니까? 9위죠.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예. 9위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박성규 의원
강진 1위, 완도군 1위입니다. 우리군 공공배달앱 먹깨비 매출액이 타 시군에 비해 하위권이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강진군의 경우는 먹깨비 축제와 연계하여 소상공인 매출액이 급등이 올랐습니다. 특히 청자축제 기간에 매출로 이기 지난해와 같이 비교했을 때 주문 수가 5,644건 매출액이 1억 6천여만 원 그리고 매출액이 132%로 증가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이제 먹깨비 관련해서 도에서 자료를 좀 받아봤습니다마는 강진군과 진도군은 이제 민간 배달앱을 사용하지 않고 먹깨비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상당히 매출액이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군도 소상공인 협회하고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민간 배달앱을 사용하지 않고 먹깨비만 이용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고요.
이제 우리군도 축제나 주말을 통해서 이렇게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는 있습니다.

○박성규 의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서 간 협업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입니다.
축제 시즌 같은 경우에는 우리 경제교통과랑 우리 관광시랑 협업해서 먹깨비 활용해서 할인율을 높여 소상공인들 매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성규 의원
과장님 단순하게 할인쿠폰 지급만 하지 마시고 정책 연계를 통해서 매출 상승에 좀 각별

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예. 알겠습니다.

○박성규 의원

그리고 답변서에 보면 2026년 예산 반영 계획을 보니 공공 배달앱 홍보 마케팅 지원금 감액할 예정인데 무엇 때문에 감액합니까?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이거는 이제 표면상으로는 본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올해 예산보다는 이제 줄은 걸로 보입니다마는 이제 뭐 신속 집행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추경에 부족한 부분은 추가로 확보하겠습니다.

○박성규 의원

감액이 안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잘 알겠습니다.

○박성규 의원

이 부분도 좀 재검토해 보시기 바라고요. 또한 2025년 사업 중에 소상공인 역량 강화 사업이나 금융기관 융자금 이자 보존 사업은 집행률이 낮은데 그 이유가 뭡니까?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이제 일부 사업은 이제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다 보니까는 이제 6월 말 기준 이렇게 2분기까지만 제출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3분기 현재를 보면 조금 이제 2차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6월 말 기준으로 44.3%, 9월 말로는 64.9%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약 90% 정도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박성규 의원

소상공인 역량 강화 사업이나 우리 이자 보존 이 부분은 홍보가 안 되거나 또 요즘은 파산 회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영향도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그런 영향이 없다고 볼 수는 없고요. 이제 한 우리 예산에 비해서 한 10% 정도는 저희들이 이제 오차 범위가 조금 있기 때문에 금융 지원 금액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제 그 정도는 여유 있게 조금 신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성규 의원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시고요. 또 지금 어민들이나 농민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자 보존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규 의원

최근 우리군도 완도사랑상품권 금액을 확대해서 늦었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오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했습니다만 아쉬운 건 지자체에 비해 다른 지자체에 비해 우리군은 한 발 늦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다른 시군보다 하려고 하면은 다음에는 좀 빨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성규 의원

우리군이 전남권에서 지역 상품권 구매 한도와 할인율은 어떻게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이제 저희들이 중간 정도는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면 이제 월 구매 한도로 보면은 우리군이 현재 이제 연간 구매 이렇게 보면은 약간 중 하위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군마다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연말까지 결정을 해서 저희들도 이제 모바일 금액을 좀 더 상향하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규 의원

시군별로 차이가 많이 나요?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예. 그렇습니다.

○박성규 의원

우리 완도가 하위권에 듭니다. 우리 완도는 50만 원씩 해서 1년에 600만 원 주죠.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예. 그렇습니다.

○박성규 의원

근데 할인율은 완도가 높아요. 10%에서 15% 고요.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15%가 이제 최고 높은 상황입니다.

○박성규 의원

그러면 우리 완도군민들은 이놈을 다 사용했을 때 약 90만 원을 할 정도로 이익을 보게 되죠.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예.

○박성규 의원

그런데 보성군 같은 경우는 월 200만 원씩 주거든요. 그러면은 월 200만 원씩 1년에 2,400만 원이면은 10% 잡고도 240만 원 아닙니까? 240만 원을 이제 혜택을 볼 수 있죠?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몇몇 시군에서 그렇게 많은 금액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제 저희 우리군도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을 맞추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류보다는 저희들이 이제 모바일 구매를 좀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규 의원

어쨌든 간에 광양이나 나주나 대부분 70에서 100에서 200만 원 정도 되니까요.
우리 완도가 최하위이니까 조금 더 올릴 수 있도록 좀 상향할 수 있도록 확대할 수 있도록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200만까지는 아니더라도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박성규 의원

결국 소상공인 정책은 우리 관내 공공기관 또 유관기관 기업들이 똘똘 뭉쳐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들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렇죠?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예. 그렇습니다.

○박성규 의원

경제교통과장님뿐만 아니라 여기 계시는 부사장님께서 함께 고민해 주시고 하나하나 행정이 소상공인들에게 체감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규 의원

우리 과장님 저녁이면 식당에 많이 가십니까? 안 가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이번 추석 연휴에도 이제 약간의 우리 업무적인 일이 발생을 해서 저녁을 먹으러 직원들하

고 가본 적이 있습니다.

○박성규 의원

우리 완도가 제일 상가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집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좀 상가 들려서 식사도 하고 잘 되는 집 말고 골목이라든지 홍보가 안 되는데 좀 직원들하고 가고 친구들 선배들 좀 모셔서 돈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규 의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양훈

경제교통과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참조)

· 2025년 군정질문답변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의장 김양훈

박재선 의원님의 본안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박재선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상 풍력 사업이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과장님한테 이제 몇 가지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시작하는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을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있죠?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예. 그렇습니다.

○박재선 의원

대통령님께서 나서서 원전은 15년이 걸리고 우리 풍력은 1~2년 안에 뭐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아리백 사업에 있어서 국가 탄소 중립 정책에 대응하고 해양 자원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군은 해상풍력 사업은 어떤 배경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이제 탄소 중립을 시행해야 되는 이 정부 국가 입장에서 해상 폭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발맞춰서 우리군에서도 해상 폭력을 추진을 해야 되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지금 우리군에서는 이제 잘 되고 있는 사업이 한 2개소, 그 외에 이제 허가를 받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개가 있습니다.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재선 의원

그러면 지금 아까 이제 설명서에도 말씀하셨는데 현재 우리군은 이제 세 군데를 지금 추진하고 있죠?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예. 그렇습니다.

○박재선 의원

그럼 사업 인허가하고 단계별 진행 사항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이제 먼저 금일 해상 풍력은 이제 환경 영향 평가나 해상교통 안전 진단 문화재 지표 조사를 끝냈습니다.

끝내고 현재는 국방부하고 전파 영향 평가를 진행 중이고 있고요.

이 발전기 위치마다 이렇게 지질 조사를 해야 됩니다.

현재 지질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11월 초까지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민 상생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현재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내에 협약을 체결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장보고 해상풍력은 환경영향평가 문화재 지표설을 완료했고요.
현재 진행 중인 것이 이제 국방부하고 해상 전파 영향 평가 그리고 해수부와 해상 교통 안전 진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금요일 해상 폭력보다는 약 1 내지 2년 정도 뒤쳐져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잘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완도 해상 폭력은 네 허가는 받았습니다마는 최근에 이제 광주고등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게 있습니다.
그 주주들이 완도 해상 풍력을 대상으로 해서 회사를 해산해 달라는 청구 소송을 했는데 1심에서는 주주들이 패소했습니다만 2심에서는 고등법원에서 주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회사를 파산하라고 선고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주된 이유가 해상 폭력이나 폭력 사업을 위해서 국립공원을 해제한 적이 없다.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기 때문에 회사를 파산하는 게 맞다고 선고를 해서 이 완도 해상 폭력은 추진이 불가능하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재선 의원

그러면 이제 완도 해상풍력은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할 수 없다 그 말씀이시죠?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예. 법원 판단이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박재선 의원

예. 좋습니다. 이제 그러면 두 개밖에 지금 현재로서는 하고 있는 데가 없겠네요, 완도군은.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그렇습니다.

○박재선 의원

그러면 이 사업에 있어서 선정망 연계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2개 사업은 이제 금요일 해상 폭력은 이제 환전과 협의가 끝났습니다. 완도 변전소로 연결을 하고요. 장보고 해상 폭력은 남창 변전소로 연결을 합니다.
그렇게 지금 현재는 협약이 돼 있습니다.

○박재선 의원

그러면 그 시점은 언제입니까?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이제 지금까지는 사업이 착공이 되고 연결하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그 나머지 사업들이 문제가 됩니다.

○박재선 의원

그러면 해상 풍력 발전의 타당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풍향 자료와 지반 조사가 이렇게 필요하죠.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시행해야 됩니다.

○박재선 의원

풍향 계측기 신청을 우리 완도군에 보니까 42건이 접수됐는데 지금 19건만 허가되고 23건이 미처리된 이유는 뭡니까?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이제 해양정책과에서 관련 허가를 했습니다마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준비하면서 자료들을 받아봤습니다마는 주된 문제는 해상교통안전 문제하고 주민들 수용성이 미흡해서 불허함 그것이 주된 이유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해상풍력 발전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이제 이렇게 허가를 못 해 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재선 의원

그러면 우리 풍향계측기라고 하고 장비 설치하기 위해서는 그 위치라든가 수량 기간이 있을 건데 어떻게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이제 사업자들이 위치 여기 위치에 계측기를 설치하겠다고 신청을 하면은 이제 어느 정도의 반경이 있습니다.

영향권 내가 있기 때문에 그게 중복되면 안 되고 그런 걸 검토해서 허가를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선 의원

그럼 우리 행정에서 절차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이제 계측기 신청이 들어오면은 이제 거기 주민들 수용성 조사도 하고요.

거기에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인근 계측기하고의 중복 문제 이런 걸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허가를 해 왔습니다.

○박재선 의원

지금 제일 허가받기 위해서 애로사항이 뭔가요?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주민들 동의 받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박재선 의원

그것은 주민들의 동의는 누가 받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지금 이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들이 지금까지는 이제 지금까지는 방식이 민간 사업자들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지금 해 왔기 때문에 민간 사업자들이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박재선 의원

저희들이 이제 풍향개척기 허가 받는 업체들 하고 보면 이렇게 받는 인센티브들이 많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까? 풍향계측기를 받는 업체와 주민들 간에 받아서 행정하고 상관없는 무관한 회사 측하고 인센티브를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그런 문제는 저희도 이제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풍력을 해보고자 하는 다른 시군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선 의원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우리 완도군에서도 좀 나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이제 민간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최근에 이제 모 회사에서 이제 계측기를 설치하고 나서 이제 6월에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산자부에 신청을 해서 7월에 우리군으로 이제 의견 조회가 왔습니다.

군민들 의견을 조사해 달라 해서요. 저희들이 이제 현지 출장을 해서 의견 조사를 해서 그대로 이 제출을 했습니다.

이런 과정마저도 일부 반대하시는 분들은 행정이 민간 사업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앞장서서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오해 아닌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박재선 의원

그러면 이제 군에서 이렇게 더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궁금해 하시는 해상 공략이 어떤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되는지 이제 그런 부분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습

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설명회를 개최해서 좀 오해를 풀어드리는 방법도 있고요.
그렇게 앞으로도 할 계획입니다.

○박재선 의원

그러면 어업 피해를 위해서 최소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예. 그렇습니다.

○박재선 의원

해양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 각 이제 사업별로 이렇게 할 건데 진행이 될 건데요.
그러면 어업 피해 조사를 위해서 용역과 범위의 방식이 있을 건데 그 결과가 나오면 보상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이제 어업 피해 부분은 이제 공유수면법에 따라서 조사 범위와 이런 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범위 안에 있는 어민과 엄벌 양식업자들이 대상이 되고요.
피해 조사는 수산항법에 따라서 해수부에서 지정한 15개 기관이 있습니다.
이 기관만이 할 수 있습니다. 피해 조사를 그래서 우리군도 이제 1개 업체를 시행사하고 주민들이 협의를 해서 1개 업체를 시행해서 선정해서 시행할 계획이고요.
이게 조사가 되면은 최종적인 금액 산정은 감정평가 기관이 산정을 해야 됩니다.
이 경우에는 시행사에서 1개소, 주민들이 1개소를 선정을 해서 2개소의 금액을 합산을 해서 평가 이제 평균 금액을 합산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박재선 의원

그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 해상 풍력이 사업이 이제 우리군의 재정에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명확하게 좀 알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금일 해상 폭력을 예를 들면요.
지방소득세가 우리군으로 들어올 수 있는 소득세가 연간 13억 5천에서 20년간 268억이 세수가 등재가 됩니다.
그리고 공유수면 점·사용료가 연 5,500만 원에서 11억 원, 이제 한전에서 1회에 특별하게 지원한 특별 지원금이 450억인데 이 중에 이제 우리군 인근 시군도 배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군이 약 350억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 남동발전에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저기 특별 발전 기금으로 1500억을 이렇게 지원해 주기로 돼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정부에서 주민 참여 이익 그래서 이제 주민들에게 연간 지원해 주는 금액이 약 이제 1인당 약 500만 원 최대한도입니다.
그래서 약 200억 정도 연간 지원이 되는 걸로 해서 이 총 20년간 약 6,500억 정도가 우리군으로 지원이 되는 걸로 지금 계산하고 있습니다.

○박재선 의원

그러면 이제 그 들어오는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용할 계획은 뭐 그런 것은 아직까지 잡혀진 것은 없고요?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정확하게는 저희들이 이제 확정은 안 하고 있고요. 이제 못하고 있고요. 주민들하고도 어느 정도는 이제 대화는 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하고 또 아니면 전체적인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금요일 해상 폭력 상생 협약이 체결이 되면 이 안을 마련해서

의회에서 의원 여러분들하고 이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선 의원

이제 방금 지금 여쭤본 것은 완도 금일 이제 해상풍력 했고요. 장보고의 해상 풍력은 2029년에 이제 착공 목표로 갖고 있죠?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예. 그렇습니다.

○박재선 의원

그럼 이제 여기에 대한 또 환경영향평가라든가 피해영향조사 또 연계 등 군에서 지원하거나 또 조율하는 세부 사항은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이제 금일 해상 풍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보고 해상 풍력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현재 이제 물위로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주민들하고 시행사 간에 여러 가지 충돌 의견이 대립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행정에서 중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중재를 하고 있고요. 장보고 해상 폭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잘 진행되도록 현재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재선 의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가 2023년에 이렇게 발족되고 있어요.

그러면 현재 주민들의 동의율은 어떻게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금일 해상풍력하고 장보고 해상풍력은 이제 주민들이 이제 풍력을 진행하자고 찬성하는 편입니다.

○박재선 의원

그다음에 주민들과 어민들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이익 공유제 또 주민 지분 참여제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이제 주민참여는 주민들이 이제 신재생에너지법과 이제 그 지침에 따라서 주민들이 최대 사업이 최대 총 사업비의 4% 내에서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따라서 남동 이제 금일 해상 풍력 같은 경우에는 이 기준으로 보면 약 1,200억 정도의 주민들이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박재선 의원

1,200억이요?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예. 그렇습니다.

○박재선 의원

그러면 그 주민이라 하면은 누구를 가정하는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이제 그 인근 어민들이 이제 우선시되고요. 거기 이제 그 주변 마을 안 그러면 약간의 영향을 미치는 이제 주변 읍면도 이렇게 고려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선 의원

이제 이 부분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완도군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디 지금 현재 지금 금일 장보고 전부 하고 있으면 노화, 소안, 보길 전부 다 지금 관련돼 있죠?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예. 그렇습니다. 추진 계획은 있습니다.

○박재선 의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완도군민이면 누구나 참여해서 거기에 혜택을 보지 않아야 되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이제 이 주민 참여 부분은 이제 사업비 뭐 그

런 부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우선적으로는 인근 주민들이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도 조례도 제정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논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선 의원

이제 우리 완도군에서도 조례를 좀 미리 또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몇 년 전부터 저희들이 조례 이 얘기만 했지 아직 실천은 못하고 있죠?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예. 그렇습니다. 이제 금일 해상 풍력이 어떻게 보면 상생 협약이 마무리되면 바로 이렇게 준비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선 의원

중간 중간에 좀 할 수 있는 계기를 좀 타 지자체하고 좀 비교도 좀 해 보시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예.

○박재선 의원

이제 신안군 사례를 보면 햇빛연금이라는 태양광 발전 수익금을 운영비와 관리비를 제외한 금액을 주민들에게 이렇게 배당하는 걸로 지급하고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예. 세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이제 그런 부분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박재선 의원

방금 저희들이 얘기했던 이 얘기가 신안 사례를 보고 조례를 만들어라 그런 얘기가 많이 있죠?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예. 많이 듣고 있습니다.

○박재선 의원

그래서 방금 제가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거는 사례를 들어서 우리 완도군에 맞게끔 조례를 만들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영광군을 보면 햇빛바람연금이라고 해서 기본 소득 재원을 활용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그 부분은 우리군 상황하고 좀 비교를 해서 계속해서 대화를 좀 해 나갈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재선 의원

영광은 지금 계속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어느 정도 현상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재선 의원

예. 그게 기본 소득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완도군에서도 줄 수 있는 기본 소득이라 하면 지금 완도군에서는 이 풍력으로 인해서 우리 완도군민에게 기본 소득을 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예. 저도 제일 많이 줄 수 있는 게 해상 풍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재선 의원

예.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거 지금 계속 이렇게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 우리 언론사 언론 보도에 보니까 주민들 이렇게 사업체 주민들과 사업체 간에 이렇게 해서 좀 행정하고 좀 불신이 좀 있다라는 얘기가 보도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조금 전에 답변을 드

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행정을 시행을 해서 주민들 의견 조사를 하고 그 의견을 이제 산자부에 제출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과정 자체를 이렇게 의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기사화 한 것 같습니다.

○박재선 의원

사진 자료 한번 올려줘 보실래요? 저거 사실을 모르고 있었죠?
알고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저는 어제 그제 진행하는지를 몰랐었습니다.

○박재선 의원

그렇죠. 그래 우리 행정도 모르고 있는 저런 이제 설명회를 주관해서 그냥 일부적으로 하는 거고 언론사에서 계속 되니까 전라남도에서 또 이렇게 일부 주민들과 보길 수안 다니면서 이렇게 일부 설명회를 하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이제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제 해상풍력 발전 특별법이 발효가 됐고, 2028년 3월까지는 어떻게든 허가를 취득해야 하기 때문에 노력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저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행정에서도 주민들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선 의원

그래요. 이제 이제는 알리고 전부 다 알 수 있게끔 해 주고 주민들의 갈등이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걸 암암리로 조금씩 회사하고 주민들 간에 있다 보니까 행정은 모르고 또 주민들은 또 알고 싶은데 행정에서는 모르고 있다는 이런 언론 보도를 보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 좀 더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예,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재선 의원

그래서 우리 해상 풍력이 발전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또 우리 주민협의체가 또 공정하고 신뢰성 있게 운영돼야 되고 투명하게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의 중립적인 조정 역할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군에서 과장님과 우리 팀장 주무관이 더 나서서 우리 주민들과 업체 간에 이렇게 신뢰를 떨어지지 않도록 꼭 힘써 주시고 앞으로는 군 행정에서 관여해서 좀 그 주민들의 갈등을 좀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재선 의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양훈

최정욱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욱 의원

과장님 잠깐 한 가지만 확인하고 좀 갈게요. 연근해 조업선단 완도항 유치 기반 확대 조성은 우리 경제교통과 맞죠?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예, 예. 맞습니다.

○최정욱 의원

과장님 이게 필요하고 절실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예.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정욱 의원

기획실에 아까 처음에 군정 질문시에 이 내용

이 있었는데 대강 우리 여기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이제 제가 와서 내년 예산을 신청을 하려고 이제 몇 가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의원님께도 이제 보고를 한 번 드렸습니다마는 하역하는 선별장하고 앞으로 부두를 확장해야 되는 문제 그리고 꼭 필요한 급랭시설 이렇게 몇 가지를 필요합니다만 우리군 예산 형평상 당장 모든 걸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내년 예산으로 이제 선별장하고 이렇게 부두 시설을 확장하는 그 용역 비용은 최우선순위로 신청을 해서 잘 진행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최정욱 의원

확장이라 하면 그 배가 접안할 수 있는 걸 말하죠?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기 이제 이렇게 매립해서 저기 면적만 확장한 게 아니고 부두가 배가 양쪽으로 배분할 수 있게끔 이렇게 확장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최정욱 의원

그게 가능한가요?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이제 그 관련 분야 업체를 한번 초청해서 현장에서 문의를 해봤는데 가능하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최정욱 의원

꼭 좀 잘 되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양훈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회의계속)

○의장 김양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참조)

· 2025년 군정질문답변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의장 김양훈

지민 의원님의 본안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지민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 의원

지민 의원님의 본안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지민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문화유산은 한 지역사회의 정체성과 관련이 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정체성을 통해 자신의 뿌리와 역사뿐만 아니라 문화적 배경을 이해할 수 있고 삶의 방향성을 설정하며 사회 속에서 어떤 가치를 지키며 어떤 선택을 할지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군은 문화유산을 지키고 보존하려는 노력은 과장님의 답변을 통해 잘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의 근대사 이후에 대한 문화유산의 발굴과 기록은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완도는 수많은 역사의 조각들이 살아 숨 쉬는 고장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눈앞에는 이 고장의 소중한 역사와 문화가 곳곳에 묻혀 있거나 잊혀지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이제 저희 군에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문화유산을 발굴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선사시대부터 근현대까지 너무 광범위한 유산들이 존재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좀 이게 이렇게 기대에 못 미치지 않나 이런 의견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민 의원

여기 특히 근현대사의 현장, 다시 말해 그 당시에 발생했던 사회 변혁 운동, 일제 강점기 항일 운동의 흔적, 지역 인물들의 활약상, 민초들의 생활사, 그리고 마을의 작은 이야기들은 아직도 체계적인 조사와 기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자료가 없어서가 아니라 발굴과 기록의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무심히 지나치는 마을의 작은 비석, 낡은 문서 한 장, 어르신들의 기억 속 이야기들이야말로 국민이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고 다음 세대에 물려줄 가장 강력한 지역의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이러한 근대 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자 정부는 2024년 근현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을 해서 다양한 문화유산을 등록 문화재로 지정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고 보존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혹시 관련 내용 알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이제 그 법에 이제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고요. 이제 다만 그 법이 이제 취지가 개항기부터 지금 도시와 산업화를 이끌어내면서 생긴 건축물이라든지 생활유산을 제도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법을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민 의원

그래서 여기 자료를 보면 전라남도의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신지면 독립운동가 오석균의 편지, 그리고 전통어로 어사리 국가유산진흥원에 무형문화유산에 공모돼서 선정이 됐어요.

근데 그동안의 추진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이제 오석균 편지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도지정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됐는데요.

이제 올해가 광복 8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남도에서 항일 독립 문화유산에 대해서 새롭게 좀 추가로 지정을 해보자 그런 취지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관련 단체와 읍면에 이제 공문을 내서 조사를 한 결과 오석균 편지가 새롭게 이렇게 나와서 이제 지정을 하게 됐습니다.

○지민 의원

전통 어로 어살.....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그 이제 전통 어로는 2024년부터 국가유산청에서 무형유산 전승 공동체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게 공모 방식으로 추진을 했는데 2024년도에 2건 그리고 올해 한 건 해녀 사업까지 해 가지고 3건이 저희가 공모에 선정이 돼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제 이 어살은 2024년 한 해 동안 이제 조사 연구를 했고 그다음에 노화와 금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체험 그리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체험 또 하고 또 역사 강의도 해 가지고 그걸 조사 연구 보고서를 만들어 내고 그다음에 그것을 다큐멘터리로 기록화해서 지금 보존하고 있습니다.

○지민 의원

근데 이제 이게 정작 지역의 문화유산에 대해서 모르는 주민들도 많아요.

이번에 이제 등재됐던 것도 모르고 관련된 내용물을 기록을 하거나 또 보관하는 것 자체도 또 없어요, 우리군에는. 그러죠. 완도군의 기록문화유산 특히 근현대사 관련 유물과 사건들에 대한 발굴 및 기록 사업을 추진한 실적이 있으십니까?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2016년도에 2016년도에 선사시대부터 근현대사까지 조사를 해가지고 그것을 국립나주박물관과 함께 공동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특별전을 하고 그다음에 도록이라는 책자를 발간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저희는 이제 완도문화원을 통해서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해서 마을 유래지라든지 향토 사료집이라든지 그리고 무형유산 향토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매년 발간하고 있습니다.

○지민 의원

완도 지역의 항일 운동, 근대 교육 운동, 지역사회 운동 등에 대한 자료가 좀 많이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실체가 불분명한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군 차원에서 전문 연구자 또는 외부 기관과 협업해서 조사 기록하는 프로젝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지금 저희가 이제 2016년도에 국립나주박물관과 공동으로 조사를 했는데 이제 그 지금 기간이 많이 흘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생각은 2028년도에 지금 청해진 120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그 관련 기념사업으로 이러한 것들을 좀 조사를 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민 의원

한번 하나 예를 들면 청주시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기록원을 좀 설립을 했다고 합니다.

공공기록물과 시민 기록 그리고 발굴 보존을 하면서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기록 저장소를 운영을 한다고 해요.

이를 통해 지역의 과거와 현재를 시민과 함께 기록을 하고 보존을 하고 그리고 장기적 관점에서 문화유산이 풍부한 우리 지역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이제 그 기록원은 보통 광역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광역자치단체에서, 광역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남이 현재 2030년에 목표로 전라남도 기록원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같은 경우는 지금 청주시가 유일하게 추진을 했는데 이제 청주시 같은 경우는 좀 그럴 만한 상황이 있는 게 있는 것이 직지심체요절이라는 세계적으로 최초의 금속

활자가 흥덕사에 보관이 돼 있습니다.
청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 기록에 대한 핵심 사업으로 추진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도 이제 도에서 그 기록원이 만들어지면 저희 시군 자료도 아마 그쪽에 같이 이렇게 삽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민 의원

이제 도에서 이제 준비를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우리군 자체에도 많은 문화유산이 있을 것이고 기록 자체에 옛날 이야기부터 해서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따로 한번 어떨까라고 한번 의견을 한번 드려본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이 예산이 수반이 되는 거라 좀 그런 부분들은.....

○지민 의원

그렇죠. 안 그래도 물론 이제 예산이 많이 넉넉하게 된다라고 하면 오프라인 전시관 형태가 또 더 없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먼저 국민들이 쉽게 접할 수도 있고 이게 많이 잊혀져 가니까 이제 세대들이 이제 지나오고 코 오면서 이게 많이 잊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완도군 홈페이지나 별도의 웹사이트에 기록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공유할 수 있는 완도 문화유산 디지털 기록관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좋은 말씀입니다.

○지민 의원

제가 이제 우리 홈페이지에 있는 거 한번 봤거든요. 우리 그 홈페이지 내에 정보 공개 완도군 변천사 네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이 많이 좀 들어 있는 것도 한번 봤어요.
근데 이제 사진이 1, 2, 3, 4 해가지고 몇 장 한 38장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순서가 이게 1번, 2번, 3번, 4번 옛날부터 이렇게 연도가 적히고 대략 언제쯤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사진이 올라가 있으면 이게 보는 거에도 좀 헷갈리지 않을 텐데 현대 거하고 옛날 거하고 이렇게 좀 같이 좀 섞여 있어요. 제가 이제 캡처를 좀 해 가지고 왔는데 섞여 있어서 이게 차근차근 이렇게 지나온 이런 사실들을 좀 보는 게 조금 이렇게 공감이 좀 안 되는 것 같았었고 그리고 이제 또 그 뭐죠? 가상 전시관, 가상 전시관도 봤어요. 그거는 이제 가상으로 이제 만들어 놓은 전시관을 이렇게 마우스로 움직여가면서 이렇게 보는 거더라고요.
또 이렇게 가까이 가다 보면 사진 하나를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 거기에 이제 어떠한 내용까지도 다 들어 있어서 그런 건 좋기도 한데 이걸 따로 이제 저도 거기 찾아가는 거를 몇 번 잊어버렸다가 몇 번 이렇게 고민해 갖고 한번 찾아가고 했어요.
그래서 따로 완도만의 전에 그 아까 문화원에서 말씀하신 마을 유래지도 제가 전체적으로 한 번 다 봤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있듯이 우리가 따로 기록관을 만들어서 우리가 마을별로 다 그 마을마다 유래가 있고, 어떠한 공간에 어떠한 전설도 있고 많이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책으로 발간을 하는 것도 우리가 책은 솔직히 많이 이렇게 좀 잘 보지 않으니까 이런 기록관이나 사이트들이 있으면 우리 군민들도 쉽게 찾아가고 우리 마을에 우리 완도군이 어떻게 설립이 되고 어떻게 지나왔고 어떠한 마을에 가니까 어떠한 물건이 있고 또 이제 우리 예전에 좀 제가 듣다 보니까 예전

옛날 옛날에 어떤 우물을 만들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 마을의 유지 분들 어르신이 어떻게 어떻게 해 가지고 그 우물을 만들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그 우물을 시멘트로 다 발라버렸대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돌을 쌓아서 신중하게 엄청 열심히 계속 마을에서는 좀 자랑거리였고 좀 가볼 만한 곳이었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거에 대한 민원을 넣었더니 시멘트로 발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을 주민들이 좀 안타깝다 이제 약간 그런 말씀들도 있어서 또 이제 옛날 것이 지금에는 이제 다 무너지고 이제 형태 자체도 없는 것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형태 자체가 보존이 안 된다면 그 당시에 사진을 좀 찍어서라도 이거를 좀 지역마다 이렇게 조금 보존이 좀 됐으면 하는 것이고 또 다음 세대에게도 우리가 이런 사실이 좀 있었다라는 걸 좀 알려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런 기록관이 좀 있었으면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근대문화유산의 하나를 또 예를 든다면 우리군의 3.1 독립운동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혹시 3.1운동 추념 사업이나 기념식도 과장님이 추진하고 계신가요?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이제 그 사업은 지금 보훈 업무를 보고 있는 주민복지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민 의원

그렇다면 주민복지과와 협의해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 완도군 전체 차원의 3.1운동 기념행사 통합 개최 및 재정립에 대한 여론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 일부 읍면에서만 개별적으로 재현 행사 또는 추모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역사적 연대감과 공동체의 인식이 좀 약화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완도군 차원에서 통합 기획을 하고 모든 읍면에 3.1운동 관련 사실을 조사해서 포괄적 행사로 발전시키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이제 저희 과는 이제 문화와 예술 업무를 보고 있는데 이제 보훈 쪽은 주민복지과에서 보다 보니까 제가 별도 계획한 바는 없습니다.

○지민 의원

근데 이거는 보훈보다는 또 우리 예전에 또 역사에 관련된 또 이야기니까 우리 완도도 이제 3.1운동 관련해서 완도는 또 역사적 사실을 다시금 재조명을 한번 해 보면 일부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3.1운동 재현 행사를 또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 노력에는 또 박수를 보내고 하지만 자료를 들여다보니 완도 전 지역에서 3.1운동이 일어났던 흔적들이 존재를 합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한번 확인 한번 해 봐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금 우리 완도는 군 전체의 통합적 역사로 이 사건을 기념을 하지 못하고 있고 많은 읍면은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아무런 행사도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개별 읍면의 재현을 넘어서 완도 군 차원의 통합적 기념 방식을 좀 검토할 때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번 검토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예. 알겠습니다.

○지민 의원

그리고 3.1운동뿐만 아니라 완도의 근현대사 전반에 대한 기록문화유산 발굴이 또 필요하

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대규모 고분이나 사찰 유적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지역 독립운동가의 생가 옛 학교 건물, 마을의 유물, 일제시대 신문 자료나 판결문 등 우리 삶의 한복판에 있는 근현대 유산을 찾아내고 기록하고 보존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예. 의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지민 의원

단순한 발굴이나 기념행사를 좀 넘어서 미래 세대에게 우리 지역의 역사를 가르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정책적 접근으로 지역 교육 기관이나 청소년들과 연계를 해서 완도의 역사 문화유산을 교육적 콘텐츠로도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혹시 그럴 의향이 있으십니까?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2016년에 했던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좀 더 2028년에 1200주년 때 기념사업으로 한번 해보면 상당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민 의원

우리 지역의 미래 세대들에게 우리 완도를 어떻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보존이 되고 이야기가 전달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문화유산 발굴을 국민 참여형 프로젝트로 확산하고 주민 제보를 기반으로 한 공공기록 수집 사업을 통해서 숨겨진 이야기들을 발굴을 하고 공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 사업 추진시에 검토를 좀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예. 알겠습니다.

○지민 의원

끝으로 이러한 노력이 학교 교육과 연계한 체험형 콘텐츠 기록 전시, 역사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 세대가 지역의 뿌리를 이해하고 자긍심을 갖게 할 정책을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지역 발전은 건물과 기반시설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역의 기억을 모으고 역사와 이야기를 정리해 국민의 자부심이 될 되살리는 일이야말로 가장 기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입니다.
우리 완도군이 기록문화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군민 모두가 내고장 완도를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계기를 꼭 마련해 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민 의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양훈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최정환

(참조)
· 2025년 군정질문답변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의장 김양훈

조영식 의원님의 본안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조영식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 의원

과장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완도군은 인구 소멸 위기 지역으로 스포츠 전략 육성을 통해 인구 감소에 대응해야 합니다.
혹시 동의하시죠?

○체육진흥과장 최정환

예.

○조영식 의원

전지훈련 및 대규모 체육행사를 개최하여 지역에 체류하는 생활 인구를 늘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지난 정례회 때 5분 자유발언을 할 정도로 스포츠 마케팅에 관련하여 관심이 많습니다.
과장님 혹시 본 의원 5분 자유발언 이후 어떤 후속 조치가 있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정환

먼저 의원님께서 우리 스포츠 마케팅 관련하여 관심을 가져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지난 330회 정례회 때 5분 발언하신 스포츠 마케팅 조직 확충 관련하여서는 다음은 조직 개편 시 행정지원과에 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양 스포츠 유치 관련해서는 이제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7월달에 전국 크로스핏 대회와 해양 레저 체험 스포츠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군에 맞는 해양 특화 스포츠 종목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세 번째 말씀하신 유휴 시설 활용 스포츠 인프라 확충은 예산 수반 등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므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조영식 의원

일회성이 아닌 지율성을 가지고 업무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최정환

예. 알겠습니다.

○조영식 의원

과장님 스포츠 마케팅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고 지자체 간 경쟁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스포츠 마케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정환

스포츠 마케팅은 지역 스포츠 인프라를 활용하여 스포츠 경기, 훈련, 이벤트 등을 실시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 스포츠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영식 의원

경제적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마케팅 활동을 말하는 거겠죠.
우리 완도군은 최근 3년간 전남 체전은 장애인 체전, 생활 체육 대축전, 어르신 생활대축전 등 굵직한 체육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렀습니다.
이런 대규모 체육행사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유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최정환

예. 알겠습니다.

○조영식 의원

과장님 완도군은 온화한 날씨와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어 타 지자체 못지않게 체육시설 인프라가 갖춰져 전지훈련 장소로 최적지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정환

예. 맞습니다.

○조영식 의원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정환

예. 맞습니다.

○조영식 의원

혹시 전지훈련팀 중에 동하계 중 어느 계절에 가장 많이 방문합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정환

우리군은 좀 온난한 지역이라 겨울철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전지훈련이.

○조영식 의원

주로 어느 종목이 많이 방문하고 재방문율은 어느 정도 될까요?

○체육진흥과장 최정환

축구, 야구, 배드민턴, 역도 등이 많고 재방문율은 60%가 넘습니다.

○조영식 의원

60% 넘습니까? 혹시 축구팀이 많이 오죠? 아무래도.

○체육진흥과장 최정환

예. 제일 많이 옵니다.

○조영식 의원

우리군에 지금 축구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정환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설운동장, 축구 전용구장, 해신구장, 고금 축구장 보길 축구장 5개하고 완도 중학교 한 군데 총 6개 있습니다.

○조영식 의원

곧 있으면 또 소안도도 축구장이 들어서죠.

축구 전지훈련팀이 주로 완도권에 많이 머무는데 고금, 보길, 노화 좀 있으면 또 개관할 또 소안 등 도서 지역에도 좋은 축구장을 갖추고 있는데 여기로 유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혹시.

○체육진흥과장 최정환

이제 전지훈련팀이 최근까지는 완도읍에서 집중적으로 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고금축구장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지훈련 특성상 이 전지훈련팀들이 여러 팀들이 한꺼번에 다니기 때문에 도서 지역은 좀 전지훈련이 하기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스토브리그라든지 그런 거 할 때 우리 일부 팀들을 도서지역으로 보내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조영식 의원

숙소가 또 부족한 것은 현실입니다. 읍면에 많은 빈집을 정비하거나 각종 사업을 하면서 건축물 지어져 있는 건축물을 활용하지 않는 건물을 리모델링에 활용하여 숙소로도 얼마든지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도서 지역의 전지훈련을 유치한다면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고 지역 활용도 되찾을 것으로 예상되니 이 부분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최정환

예. 알겠습니다.

○조영식 의원

또한 전지훈련 오면 자식들 고생한다고 부모님들이 격려차 많이 방문합니다.

또 이분들도 오면 돈도 많이 쓰고 갈 텐데 작지만 부모님들을 위한 지원하는 방법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최정환

예. 알겠습니다.

○조영식 의원

전지훈련팀이 축구, 야구, 테니스, 소프트 테니스, 배드민턴, 역도 6종목인데 다른 종목 유치 계획은 혹시 없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정환

지금까지 저희 유치 종목은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6개 종목인데 우리 청해진 스포츠센터 등을 활용할 수 있는 태권도, 농구, 육상 등 그 종목을 추가로 유치할 계획을 가

지고 있습니다.

○조영식 의원

다양한 유치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최정환

예. 알겠습니다.

○조영식 의원

혹시 현재 체육진흥과 스포츠 마케팅 조직을 보면 팀장 1명, 팀원 1명에 불과합니다.

이 인력으로 대응하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정환

팀장 1명, 직원 한 명으로는 타 시군과 유치 경쟁에서 많이 밀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팀장하고 담당자가 적재적소 인사 배치로 열심히 하고 있고 체육회에서도 물심양면 지원을 해서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지훈련 유치는 어차피 타 시군과의 경쟁이기 때문에 직원이 보충된다면 더욱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영식 의원

자료실 화면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찾아봤는데 경상남도 고성군은 주력 산업인 조선업 붕괴로 새 먹거리 산업으로 스포츠 마케팅에 예산과 행정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조직 개편을 통해 스포츠 마케팅팀을 신설하고 스포츠팀 유치 TF팀을 별도로 구성했답니다.

충청북도 두 번째 보면은요. 충청북도 보은군 같은 경우에는 2010년 스포츠 산업을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로 결정하고 스포츠 전담 부서인 전지훈련팀을 신설하였으며, 2016년 단일 조직이든 전지훈련팀을 4개 팀 16명 규모로 스포츠 산업과로 확대 개편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2022년 기준 286개 팀 3만 6,123명이 보험 증권을 전지 훈련지로 찾았다고 하네요.

이 수치는 보은군 인구가 약 3만 300여 명인 걸 감안하면 군 인구보다 6천여 명이 더 방문했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스포츠 산업 전담과를 신설하여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많은 전지운영팀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조직 개편이나 임기제 전문 인력을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정환

인사 조직 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조영식 의원

조직 부서라 하면 행정지원과 말씀하신가요?

○체육진흥과장 최정환

예.

○조영식 의원

행정지원과장님, 잘못 들었을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읽을까요?

체육진흥과하고 행정지원과하고 잘 협의해서 이 부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최정환

예. 알겠습니다.

○조영식 의원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남녀노소를 물문하고 파크골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답변서에 고금면 추가 나인홀, 노화읍에 신규 나인홀 추진 계획인데 물론 또 청산도도 있습니다마는 다른 읍면에 추가로 추진할 계획은 혹시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최정환

현재까지는 청산면 계획하고 있습니다. 청산면 17필지 중에서 15필지 매입했습니다.

○조영식 의원

우리 저 건설과하고 저하고 지금 지난 2년, 3년 가까이 화흥포에 파크골프장 건설을 계획했는데 이제 최종 용역까지 또 끝나는 거 알고 또 부지 매입비 2020년 올해 본예산에 12억을 편성해서 지금 부지 매입에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내년에는 꼭 샀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우리 건설 과장님께서 그렇게 저한테 보고했습니다. 내년 중으로는 어떻게 하든지 화흥포 간척지에 잔여 파크골프장을 건설하겠다고 또 이 부분은 또 우리 군수님께도 같이 용역도 듣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 중으로 꼭 될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체육진흥과에서도 힘도 합치고 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최정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완도파크골프장 관련해서는 별도로 제가 한번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영식 의원

예. 고맙습니다. 작년 박병수 의원님께서 파크골프와 관련하여 질문하셨고 화천군 사례를 이야기하였습니다.

방송실 자료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찾아보니 화천군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파크 골프 1번지라고 홍보하고 산천어 축제와 함께 쌍끌이로 화천 경제를 끌어올린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보이시죠. 지역 경제 1등 공신, 기존에 2개 파크 골프장이 있었는데 72홀짜리 명품 구장을 추가로 시작했습니다. 완도군도 이런 국제 규모 파크 골프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오늘 어떠신가요?

○체육진흥과장 최정환

만들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적정 부지가 없어서 참 체육진흥과장으로서 고민이 많습니다.

○조영식 의원

고민이 많은데 이 자리를 빌어서 지금부터 고민을 시작해 봅시다.

○체육진흥과장 최정환

알겠습니다.

○조영식 의원

나인홀 갖고는 대규모 행사를 치를 수가 없어요. 고금도에 또 추가 라인 돼가지고 18월 갖고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18홀이 화흥포도 있고, 고금도도 있고, 노화와 청산이 또 갖춰진다면 여행도 하면서 같이 국제대회라든 국내 대회에 큰 대회를 유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많이 아쉽기 때문에 한번 같이 노력해 보시게요.

○체육진흥과장 최정환

예. 알겠습니다.

○조영식 의원

완도군도 이런 국제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과장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최정환

예. 알겠습니다.

○조영식 의원

화천군도 사실은 파크골프장 이용객이 절반 이상이 예진이에요.

요즘 각광받고 있는 생활 인구로 큰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생활 인구 유입에도 파고 골프장이 많은 일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생활 인구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정환

생활인구는 우리 지역에 주소를 두고 상주하는 주민뿐만이 아니라 관광, 친지 방문 등으로 우리 지역에 일정 기간 머무르고 있는 그 인구까지 포함한 인구를 생활 인구라고 합니다.

○조영식 의원

그러니까 주민등록상의 인구에 한정하지 않고 실제 생활하기 소비, 체류, 활동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 관계 맺는 사람들을 포괄하여 하는 개념이죠.

체육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를 통한 생활 인구 증가를 장기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군은 어떤 종합적 장기적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혹시.

○체육진흥과장 최정환

이제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종목별 전지훈련 후 스토브리그를 개최하여 우리 전지훈련팀들이 조금 더 우리 완도군에 머무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 행사하고 축제 등의 축제 등 행사하고 축제에 맞춰 가지고 우리 각종 대회를 개최해서 그 대회 기간에 우리 지역에 더 머무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관내 동호인 대회 개최 시 우리 동호인만 참석하는 게 아니라 인근 해남 강진도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조영식 의원

또 과장님 사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과장님께서는 지난 한 20여 년 전에 제가 사교육협회 회장을 12년 정도 했는데 그때 사교육비 전문 의사를 오래 해 주셨어요.

○체육진흥과장 최정환

저도 체육인입니다.

○조영식 의원

예. 그래 체육인끼리 관심 갖고 서로 머리 맞대고 완도군 체육 발전을 위해서 완도군 생활유입, 인구 유입을 위해서 노력해 봅시다.

○체육진흥과장 최정환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영식 의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생활인구는 특정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상주인구뿐만 아니라 학업, 관광, 여가 등의 이유로 일정 기간 머물며 생활하는 모든 인구를 말하는데 생활인구 증가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니 인력 예산이 부족할지라도 적극적으로 전지훈련팀을 최대한 많이 유치하여 생활 인구 증가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충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양훈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농업축산과장

○농업축산과장 이정국

(참조)

· 2025년 군정질문답변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의장 김양훈

허궁희 의원님의 본안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허궁희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궁희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친환경 인증 면적이 농협 면적 대비 몇 프로나 된지 파악해 보셨어?

○농업축산과장 이정국

그 완도군의 한 총 면적이 한5천 헥타르인데

요.
그런데 친환경 면적은 한 362헥타르 정도로 해가지고 한 7.3% 정도 해당되고 있습니다.

○허궁희 의원
그러면 그 품목은 대부분이 벼일 것이고 채소나 과수류도 있는가요?

○농업축산과장 이정국
예, 예. 있습니다. 과수류는 한 30헥타르 정도 되고요.
채소는 한 13헥타르고, 나머지는 한 거의 벼와 조사료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허궁희 의원
완도군 친환경 농산물은 대부분 어떻게 유통되는지 그리고 거의 자가 소비입니까?
아니면은 판매가 되는 품목도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정국
판매가 되는 품목이 있습니다. 대부분 완도군 친환경 농산물은 좀 법인을 통해서 저희들이 좀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쌀과 유자는 판매점을 통해서 한 친환경 농업의 한 10%에서 20% 정도 좀 고가로 지금 현재 판매를 하고 있고요.
또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서 학교에다가 급식으로 해서 한 10여개 품목을 지금 현재 학교에다 지금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법인을 통해서요.

○허궁희 의원
그러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23년 소비 식품 형태 조사에 따르면 월 1회 이상 유기농이나 무기농 농산물을 구입하는 가구가 37.8%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산물 시장 역시 2025년에 2조 1,300억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소비자들의 친환경 먹거리에 대한 선호도는 이미 시장의 대세가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에 맞춰 농림식품부 역시 친환경 농업 직불금 단가를 상향하는 등의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점으로 고령화를 말씀하셨는데 고령화는 비단 완도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 완도마련이 차별화된 전략으로 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정국
의원님 말씀처럼 완도군도 또한 고려에 대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친환경 공동 방제 사업을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친환경 단지라든가 또 자재라든가 이렇게 또 인증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허궁희 의원
앞으로도 그런 대비를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친환경 농협에 참여하고 있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나 애로사항 청취를 해본 적 있으시면 말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정국
현재 친환경 농업 육성에 대한 교육을 매년 1회에서 2회를 지금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교육 과정 속에서 그 친환경인 분들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요.
또 수시로 또 친환경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도록 현재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허궁희 의원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아마 발

전이 있을 것입니다. 지속적인 참여를 위해서는 수익률 보장과 충분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정국

의원님 말씀대로 친환경 농업이 지속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저희 좀 가격 보장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유통 체계를 좀 구축을 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농협과 또 협의회 단체들과 협의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궁희 의원

그렇습니다. 이제 농업도 단순히 생산 중심이 아니라 지속 가능성과 탄소 중립을 핵심 가치로 여겨야 합니다.

이에 본원은 친환경이야말로 탄소 중립을 실현하고 건강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여 농업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미래지향적 농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수님 지시 사항도 있었을 것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에 녹색생활 실천 운동의 일환으로 슬로우 치유 텃밭운동을 지시한 적 있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정국

현재 지금 군수님 지시 사항으로 해서 슬로우 치유 텃밭 조성을 위해서요.

그 해양치유센터 인근에 신진명과 좀 협의해 가지고 지금 토지 임대에 대한 협의를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허궁희 의원

그러면 추진 중에 있지, 지금 실천을 못 했네요.

○농업축산과장 이정국

예. 지금 임대 토지 소유권자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시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들과 좀 임대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허궁희 의원

그거라도 서둘러서 좀 시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정국

예. 알겠습니다.

○허궁희 의원

이제 농업도 생산에서 보존으로 단기 소득에서 지속 가능한 가치로 전환해야 할 시점입니다. 과장님, 우리 완도군이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친환경 농업 지자체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책을 준비해야 됩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정국

알겠습니다.

○허궁희 의원

그러면 지금 한우 값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정국

올해 한 현재 한 10월 현재 기준으로 해서요. 송아지는 한 466만 원 정도 되고요.

600kg 큰 소에 대해서는 600kg 기준으로 해서 한 500 한 6만 원 정도에서 전년도 대비해서 한 송아지는 한 30% 그리고 큰 손은 한 17% 지금 현재 상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허궁희 의원

가격이 오르긴 했지만 그동안의 농가 경영 손익을 고려한다면 실질적으로 이익이 늘었다고 보기는 어렵죠.

으뜸 한우 브랜드화 사업은 군수님 공약 사항으로 추진하고 있었죠.

2023년에 그래서 완도 활력소라고 해서 삼지구엽초를 먹인 한우 판매를 시범 사업으로 했

었죠.
홍콩이나 중국으로 수출까지 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중단된 이유가 뭐였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정국

그 계획대로 좀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 삼지구엽초를 먹인 그 한우를 육성을 좀 집중적으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일정한 한우가 등급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B플러스 이상의 등급이 나와야 되는데 좀 등급이 저조해 가지고 그리고 또 축산농가의 수지가 타산이 좀 맞지 않아서 좀 중단된 상태입니다.

○허궁희 의원

그러면 관리가 좀 부실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우리가 쉽게 말해서 마블이 제대로 안 나왔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농업축산과장 이정국

관리보다도 아마 그 등급의 우리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것이 등급이거든요. 육질이거든요. 그러나 그걸로 인해서 우리 한우가 좀 등급이 나오는 것이 상당히 좀 힘들어서 좀 힘들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허궁희 의원

요즘은 사료 회사에서 다 그걸 맞춰 준다대요. 뭐 요즘 소 키우신 분들이 본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사료 회사에서 와서 뭐 출하 얼마 전부터는 어떤 사료를 먹여야 되고 이런 걸 거의 조정을 해 준답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원하는 이렇게 지금 말해서 등급이 나온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참고해 보셔야 돼요.

○농업축산과장 이정국

예. 알겠습니다.

○허궁희 의원

그럼 이번에 추진 중인 브랜드화 사업은 그 시범 사업의 연장선입니까?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사업입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정국

방금 의원님 말씀했습니다마는 완도 자연구들의 한우 육성에 좀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으뜸한우 군수님의 공약 사항이 으뜸한우 브랜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궁희 의원

이번 브랜드화 사업도 특정 사료를 구비하여 브랜드화 할 계획인 것 같은데요.
지금 메탄 저감 해조류 사료를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료를 급여할 계획인지 아니면 다른 사료를 급여할 계획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정국

지금 완도만의 특성 있는 브랜드를 좀 만들기 위해서 지금 용역 중에도 있습니다마는 특정 사료를 좀 완도 특산물 그러니까 해조류라든가 이런 첨가제를 좀 넣어서 개발을 해가지고 좀 브랜드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현재 모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메탄 저감 해조류 사료가 개발되면 농가에 보급해서 완도만의 브랜드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궁희 의원

그렇습니다. 어떤 사업이든지 농가의 참여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 브랜드화 사업에는 축산 농가가 어느 정도 참여할 것 같은지 혹시 예측 한번 해 보셨어요? 조사나.

○농업축산과장 이정국

이번에 브랜드화 활성화 간담회 때 저희 축산농가 대표들과 임원진과 또 회원들과 같이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수가 참여할 한다고 본인들이 긍정적으로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했

습니다.

○허궁희 의원

그렇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예.

○허궁희 의원

그런데 저는 이제 지금 한우 값이 그렇게 좋은 편도 아니고 또 저번에 시범 사업의 실패도 있고 해서 축산 농가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참여율은 저조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그래서 이번에 그 용역에 브랜드화 모델이 좀 구축이 되고 개발이 되면은 좀 다양한 보장책을 강구해 가지고 농가들이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완도만의 브랜드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궁희 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문제점이 완도 한우 등급이 평균적으로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했어요.

이에 대한 대책은 뭐 혹시 파악하셨는가요?

○농업축산과장 이정국

대부분 한우 고급육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좀 많은 또 인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보다 좀 장려금이라든가 또 미생물 배합 사료라든가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배합 사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구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도 이러한 배양기라든가 또 배양기 사료라든가 이런 각종 보조 사업들을 꾸준히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궁희 의원

지금 강진에서는 10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한우 육성 종합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송아지 브랜드 육성 사업을 통해서 우량 송아지를 집중적으로 생산 선발하고 유전체 검사 비용을 전액 군비로 지원하여 저육우 조기 도태시키고 우량우는 육성 보존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종축계량협회가 지정하는 고등우가 전남 시군 중에서 강진군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금요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의 방향성과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농업축산과장 이정국

맞습니다. 저희 군도 강진군과 같이 또 한우 등급이라든가 또 유전 능력 검증 또 여러 가지 검사들을 해서 우량우에 대한 육성과 보존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진 완도 축협과 협력해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궁희 의원

준비를 좀 잘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강원도 횡성군 명품 한우 아시죠?

○농업축산과장 이정국

예.

○허궁희 의원

거기는 어떻게 관리를 하는가 하면은요.

횡성 한우는 종도를 보존하기 위해 한 마리당 1억 원에 달하는 종축을 관리하며 농가별 사육 매뉴얼을 철저히 표준화하여 그 매뉴얼을 준수한 농가에게만 행성한우 브랜드를 부여한다고 합니다.

단순히 이름만 붙인 브랜드가 아니라 생산 사용 유통 품질 관리 전 과정이 체계화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완도군의 브랜드화 사업도 이와 같은 매뉴얼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없다면 브랜드의 실질적 경쟁력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농업축산과장 이정국

의원님 말씀처럼 저 완도군도 좀 매뉴얼을 만들어가지고 브랜드 횡성 한우 브랜드처럼 터 생산과 사유 유통까지 이런 부분들을 전 과정을 좀 체계화해서 좀 매뉴얼을 만들 필요성이 있어서 앞으로 완도만의 차별화된 한우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궁희 의원

본 의원이 격려도 했던 일입니다마는 2021년과 2년에 전국 한우경진대회에서 고군면 청년이 최우수상 즉 대통령상을 수상하면서 유전체 부분에서 완도 자연 그대로 한우를 널리 알린 적이 있죠?

○농업축산과장 이정국

예. 그렇습니다.

○허궁희 의원

그런 분들은 어떻게 관리를 해 본 조업한 적이 있는지 한번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정국

저희가 이제 꾸준히 관리하고 또 저희들의 지원 사업들을 꾸준히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또 대화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허궁희 의원

그런 청년 농가들은 이제 이렇게 좀 경험이 있으니까 조금만 우리군에서 관심 갖고 좀 인센티브를 주고 한다면 아마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었을 텐데요.

아마 그 격려로 끝났던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저는 남습니다.

앞으로는 좀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이정국

예. 알겠습니다.

○허궁희 의원

그 당시 완도 자연 그대로 한우는 전국적인 주목을 받은 거 맞죠?

○농업축산과장 이정국

예.

○허궁희 의원

최우수상을 받았으니까 그때부터라도 군에서 관심을 가지고 한우 육성에 대한 정책을 세우고 청년 농가 중심의 기술력 향상과 사회 참여를 지원했더라면 지금 완도 한우 사업의 위상은 달라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과장님 어떻게 관리하실 건지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정국

방금 말씀처럼 한우 육성 정책이라든가 또 청년 농가 중심의 기술력 향상을 위해서 꾸준한 교육과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좀 사업비를 확보해가지고 완도 한우 산업에 대한 차별화된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육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궁희 의원

그렇게 좀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브랜드를 만드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브랜드를 만들면 브랜드로만 외치지 말고 생산, 사육, 유통, 가공의 전 과정이 매뉴얼화되고, 그 매뉴얼 농가가 철저히 준수하고 그 결과물이 도시 소비자에게 믿을 수 있게 인식될 때 비로소 진정한 브랜드가 될 것입니다.

완도군에서 명확한 전략과 실행 계획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충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양훈

조영식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 의원

과장님 현안 상으로 벼깨씨무늬병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우리군 농업에 종사하는 농가가 어느 정도 되나요?

○농업축산과장 이정국

지금 현재 지금 농업의 총 재배 벼 면적은 한 1,396헥타르 하고 있습니다.
한 400에서 한 447 농가 정도 되고 있습니다.

○조영식 의원

그러면 그중에서 벼농사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가 어느 정도 됩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정국

재해보험까지는 제가 좀 정확한 수치는 지금 파악을 해 별도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영식 의원

벼농사 재해보험은 보조가 국비 90%를 보조해 주거든요. 지금 아마 제가 판단하기로는 아마 우리군의 농업에 종사하는 농가는 크고 적고를 떠나가지고 약 2,400여 농가 정도 될 것 같고, 그중에 477농가가 아마 재해보험에 가입했지 않느냐 하고 다시 한 번 우리가 파악을 해보게요.
그럼 깨씨무늬병 다발생 지역의 수확량 감소는 약 몇 프로 정도 감소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정국

지금 현재 자세한 조사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한 18%에서 한 25% 사이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식 의원

실제로 어제 우리 화흥포에서 한 8만평 농사를 짓고 있는 분이 계신데 어제 수확을 해 가지고 RPC 가니까 평년보다 한 30%, 40% 정도 감소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게 현실입니다. 발생 원인은 주로 무엇인가요?

○농업축산과장 이정국

발생 원인은 아마 고온으로 인해 가지고 아마 간척지라든가 사절탑에서 좀 영양분 부족으로 인해서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식 의원

어떻게 하면 좀 깨씨무늬병을 예방할 수 있을까요?

○농업축산과장 이정국

매년 지금 고온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아마 너네 그 유기물 물질 그러니까 영양분이라든가 또 볏짚이라든가 유기질 비료라든가 많은 퇴비라든가 또 영양제를 주기적으로 좀 살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영식 의원

보통 간척지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죠. 이상기온과 집중 호우로 인해 전국적으로 깨씨무늬병이 발생하여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완도군의 피해 상황은 어떻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정국

지금 현재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금 10월 14일 자로 깨씨무늬병이 재해로 지금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부분은 조사가 이루어진 가운데 정확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조영식 의원

지금 조사 중입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정국

예. 제가 지금까지 과정을 한번 여러 나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영식 의원

10월 2일 발병 보고를 해서 10월 7일 총리 도지사 장흥 방문, 10월 10일 전남도에서 농림식품부에 농업 재난지역 건의를 했습니다.

14일 농업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재해 대책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17일 정부로부터 벼 깨씨무늬병이 농협 재난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아마 농협 재난으로 인정받으면 이례적으로 지금 너무 재난지역 선포가 아주 빠른 시간에 이렇게 됐거든요.
난 농업재난제로 인정을 받으면 농약대 등 재난지원금은 물론 피해 전량 매입한다고 지금 정부에서 발표를 했어요.
10월 31일까지 피해 신고를 해야 한다니까 꼭 홍보도 많이 하시고 그 농가들한테 잘 전달해서 피해 안 하고 재난지원금이나 보상을 못 받는 농가가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정국

예. 철저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식 의원

농업 재해로 인정되면 자연 재난 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난 지수가 300 이상이 되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정국

예.

○조영식 의원

재난지수가 300 이상이라면 벼 재배 면적이 대략 어느 정도 돼야 합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정국

대략 한 1,100평 정도 이상이 좀 돼야만이 지원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조영식 의원

1,100평이요. 아마 대농도 아니고 조그맣게 영세 할머니들 혼자 아버님, 어머님 혼자 드시는 분들은 좀 어려운 부분도 있겠습니다.
그 정도면 어느 정도 보상이 됩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정국

헥타르당 농약대는 한 82만 원 정도 지원하고요.
생계비로는 2인 기준으로 해서는 한 12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식 의원

아, 보상이요?

○농업축산과장 이정국

예.

○조영식 의원

혹시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농가에 군비로 지원할 군비로 지원해 줄 계획이 있습니까? 혹시.

○농업축산과장 이정국

그러니까 이것이 정확한 지침이나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 미만에 대해서는 그래서 정확한 도라든가 중앙부처에 조금 이런 부분들을 질의해가지고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조영식 의원

선포되고 지금 시간이 상당히 좀 얼마 안 돼 가지고 지금 정신도 없을 것 같고 대비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 시기에 이렇게 질문한다는 것은 관심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달라고 지금 부탁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정국

예. 알겠습니다.

○조영식 의원

과장님 작년에는 벼멸구의 문제가 발생했고, 올해는 벼깨씨무늬병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이상 기온으로 인한 병해충 발생이 반복되는 만큼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농업 지원 제도와 예방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혹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정국

매년 이런 기후 이상 변화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 안 더군다나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지속적으로 지금 예방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농업축산과에서 한 좀 3회 정도 하고 기술센터에서 한 3회 정도 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게 부족하면 재난 발생 예측이 될 것 같으면은 추경 예산은 내년에 좀 반영해서 방지 사업이라든가 이런 지원 사업들이 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식 의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도가 바다로 이루어져 가지고 완도 화흥포, 약산 간산이라든가 고금도에 간척지가 많습니다.

이 깨씨무늬병이 간척지 주로 많이 발생한다 하니 올해 같이 재난 지원금이 이렇게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되면은 전국 정부로부터 받을 것이 좀 있는데 그렇지 않고 내년이라도 다른 데는 재난 지역이 선포가 안 됐는데 완도에 피해가 많다.

핵심 때문에 그걸 더 염두에 두고 지금 질의를 한 거예요, 제가.

○농업축산과장 이정국

알겠습니다.

○조영식 의원

혹시 그래서 이런 지원 제도나 예방 대책이 있으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정국

예. 알겠습니다.

○조영식 의원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완도군이 수산군이라 해도 농사가 생계인 농업인도 있지 않겠습니까? 작은 피해라도 발 빠르게 대처하는 현장 중심의 지원과 예방 체계를 갖춰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양훈

농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호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30분 회의계속)

○의장 김양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양정책과장 나오셔서 한 건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해양정책과장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참조)

· 2025년 군정질문답변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의장 김양훈

최정욱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최정욱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욱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국립해양수상 박물관 건립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해 보여주신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력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사업은 우리 지역의 위상을 높이고 해양수산 문화 확산 및 관광 산업 활성화에 큰 전환점이 될 중요한 국가 프로젝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향후 박물관 건립 과정에서의 정책 방향과 집행 과정에 대해 확인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예방 대응하기 위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 국립해양수산박물관 총 사업비는 1,138억 원 맞죠?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예. 그렇습니다.
○최정욱 의원
우선 이번 예비타당성 통과 시 적용된 연간 방문객 운영 수익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신가요?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연간 방문객 수를 기재부 예타 보고서에는 15만 명 정도로 보고 있고 어 연간 수익을 7억 8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정욱 의원
그렇다면 지금 타 지역에 국립 해양수산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와 비교해서 우리 완도 박물관의 차별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지금 국립해양수산박물관 외에 부산에 국립해양박물관이 있고 또 인천에 국립해양박물관, 인천해양박물관이 있습니다. 부산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은 해양 문화사나 조선 산업 분야에 집중이 되어 있고, 그 인천 해양 박물관은 물류, 해운 물류나 해양교류사 등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 완도 해양수산박물관은 수산업 이런 부분에 집중돼 있어서 수산 역사 문화 수산업에 특화된 차별화된 박물관이라고 할 수 있고 국내 최초로 수산업을 핵심 테마로 한 박물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정욱 의원
그렇게 보면 우리 완두하고 이미지가 좀 아저 같이 된 것 같네요.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예. 그렇습니다.
○최정욱 의원
국립 해양수산 박물관이 유치한 청해진 유적지 일원에 신라 시대의 장보고 대사의 유적지로 유적지 훼손 우려와 대한 의견이 많습니다.
완도군에서도 이와 관련 문화재 지표 조사와 정밀 조사 용역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과장님.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저희가 23년에 지표수 조사를 했었고 또 24년에 시굴 발굴 조사를 했습니다.
이제 발굴 조사 결과 고려시대 청자 기와 또 유구 이런 게 출두가 됐었고 제방 시설이 있다는 그런 흔적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국가유산청과 협의를 해서 국가유산청에서는 법에 따라서 앞으로 그 공사가 착공될 때 그때 착공하기 전에 정밀 발굴 조사를 좀 해라 이렇게 좀 요청 했었습니다.
○최정욱 의원
그와 마찬가지로 본인이 걱정된 것은 박물관 공사 및 부지 조성 과정에서 신라 시대의 출토 유물과 같은 문화재가 발견될 경우 공사가 중단되고 문화재청에 신고하여 즉각적인 문화재 발굴 조사를 진행하고 유적 가치가 인정되면 현장 발굴 조사 진행 및 문화재 보존 체계를 갖춰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또 갖고 계신가요?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이 부분도 국가유산청하고 협의를 진행했던 부분이고 매장 관련 매장 유산 관련 법률에 따라서 그 문화재가 발견되면 그거를 현장에 그대로 보존하고 공사를 할지 아니면 어디 다른 박물관이나 다른 데로 이전해서 보존을 할지 아니면 기록만 하고 그대로 덮어두고 공사를 할지 이런 부분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런 대책을 해서 다소 이제 중요한 유물이 나오면 공사에는 다소 지연이 되겠지만 또 오히려 굉장히 중요한 유물이 나오면 저희 박물관에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국도 13호선 인근에

도로가 있는데 도로 공사할 때나 그동안 장도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장보고 기념관이랄지 생태 전시관이랄지 이런 공사를 할 때 한 번도 그 문화재 때문에 공사가 지연된 사례는 없었던 걸로 확인했습니다.

○최정욱 의원

그 문화유산 가치가 인정돼서 그게 장기간 보존이나 이런 문제는 있지 않습니까?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그러니까 문화재가 발굴이 되면 그 문화재를 거기다가 그 노출시켜서 보존하면서 그 설계를 변경해서 공사를 할지 아니면 그거를 발굴해서 이전해서 어디 박물관으로 보관을 하든지 수장고에서 보관을 할지 아니면 어 기록으로만 영상이나 어떤 사진이나 기록으로만 보존할지를 문화재청과 협의를 하게 돼 있고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이 공사에 공사를 못하게 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은 걸로 저희가 확인했고 참고로 이제 그 인근 저희가 그동안 공사를 했지만 그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크게 우려하고는 있지 않습니다.

○최정욱 의원

예. 우리 과장님이 속속 다 파악하고 있는 있네요, 대비하고.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그동안 이런 과정을 문화재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정욱 의원

그리고 단계별 시나리오 및 매뉴얼을 만들어서 미리 미리 대책을 잘 철저히 세우시기 바랍니다.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예. 알겠습니다.

○최정욱 의원

앞으로 완도군도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이 건립되면 많은 관람객이 이곳을 방문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박물관 개관하고 나면 주차 및 차량 정체 현상은 더욱 심해질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도로 주차 확충이나 계획은 있으신가요?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지금 주차장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국립 해양수산박물관 규모가 비록 완도에 있다고 해서 부산 박물관이나 인천 박물관과 비교해서 작지가 않습니다.

사업 규모나 면적이나 이런 전체적인 부분에서 그에 따라서 승용차 기준 187대 정도 주차할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 기본 계획에 들어 있는데 어 이 부분은 다른 유사 박물관과 비슷한 규모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의원님 말씀대로 기재부 예타 보고서 의견에 보면 그 주차 공간을 확대할 것도 고려를 다시 한 번 해봐라 이런 제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해수부하고 설계 단계에서 다시 재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최정욱 의원

그래도 어쨌든 이런 우리 국립 해양수산 박물관이 우리군의 굉장한 그 어떤 시설이고 관광객들이 우리 그 지역 일대가 시너지 효과가 날 건데 거기에 비한 제일 중요한 거는 주차장이라고 보거든요.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예. 맞습니다.

○최정욱 의원

그러니까 주차장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알겠습니다.

○최정욱 의원

또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국립해양수산 박물관

진입도로 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건설과 주관으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건설과장님 오셨죠? 거기에 대한 해당 진입로 정비 기본계획 용의 주요 내용을 좀 여기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과장 김진원

건설과장 김진원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진입도로 기본 계획을 지난해에 한번 추진하였습니다.

그 박물관을 찾는 관광객 및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 증진 및 그 최적의 노선별 계획과 사업비를 산출해 봤는데요.

일단 저희들 도출안은 3개 안으로 도출됐습니다.

일단 원목 교차로에서 박물관까지 해서 그 장좌리 교차로까지 약 3km가 되는데요.

이는 기존 2차선에서 4차선을 하다 보면 약 사업비가 243억 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국도 13호선하고 박물관하고 체육 근접지에다가 교차로를 신설하는 방안입니다.

이것은 익산청과 협의할 사항입니다마는 사업비는 약 128억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안으로는 박물관에서 장보고 동산까지 편도 고도화하고 일부 선행 개선 지금 커브 구간을 좀 선행 계산하면 약 50억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일단 세 가지 안 중에 대해서 예산 사유지 보상 문제, 교통량 등을 종합 검토해서 지역민들 의견도 적극 수렴해서 노선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최정욱 의원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본원은 단순히 진입도로 일부를 정비하는 수준은 충분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도로 안에서 정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립 해안선 박물관을 지역 성장 동력으로 삼으려면 보다 종합적인 도로 대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현재 2차선이 간선도로 확장을 통한 원활한 진입 체계 구축 등 지역민과 관광객 모두가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다각적인 대책이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의원님 생각에 적극 공감합니다.

○최정욱 의원

그렇죠. 그리고 우리 여기 지역개발과장님도 오셨죠. 그 일대가 유적지라서 용도가 묶여 있는데 관광객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용도 변경의 계획이 있는지 혹시 지역개발과장님께서는 간단히 설명해 줄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오현철

김현란 과장님이 제가 보고드린 것처럼 그런 군 관리 계획 변경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도 지금 현재 최적화된 그런 안들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정욱 의원

지금 거기 영역을 1 대 1을 하고 있는가요? 어디 일부분만 한가요?

○지역개발과장 오현철

저기 전체적으로 저희가 군 관리 계획을 지금 현재 용역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어서 우리 메인 용역사에서 그 부분을 같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최정욱 의원

어쨌든 저런 건물이 들어왔을 때 관광객들이 왔을 때 어느 정도 차도 마실 수 있고 어떤 편의시설 같은 게 갖춰졌을 때 그 박물관도 기대효과 효과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묶

여 있어서 저는 안 되기 때문에 좀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오현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최정욱 의원

해양정책과장이 박물관 전시관은 주로 해양수산부에서 기획을 하겠지만 완도군의 의견도 어느 정도 반영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예. 맞습니다. 그 박물관 이제 시공 사업이나 전반적인 것은 해수부에서 하지만 그렇지만 전남 진행과 설계 과정에서부터 전남도나 완도군 또 관계 전문가들하고 자문을 통해서 설계에 반영토록 그렇게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 군 의견도 반영토록 하고 또 앞으로 이 사업 추진을 위해서 이제 시기는 내년 언제쯤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군 공무원이 해수부에 파견 가서 이 업무를 같이 도와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파견 공무원을 통해서도 우리군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최정욱 의원

지금 보면은 박물관 유물 수집 및 이런 거 제정 기간이고 또 설계 제작 설치 용역도 들어가고 2027년에도 기재부에 따른 그 건물의 내부 시설 이런 것들이 많이 보완이 되고 되는데 우리 지역에 해수부가 일방적으로 가는 것보다 우리 지역에 맞는 어떤 전시 유수물이나 우리 고대선부터 우리의 역사나 이런 관이 있어야 되려면 미리 해야 되는데 이런 거 추진 또는 우리 지금 추진한 과정에 그 땅이나 매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있을 것인데 이 기간 내에 추진을 하려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리 직원들은.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의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런 전반적인 것을 해수부가 주관해서 사업은 진행하겠지만 지역 현장에서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습니다.

문화유산청 협의나 또 부지 매입이나 또 주민들과의 협의 또 건축 시공 이런 부분의 지원 이런 것들 또 앞으로 박물관이 들어설 기를 대비해서 그러면 우리는 박물관을 어떻게 앞으로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연계 방안은 또 지역 경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연습도 해보고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그런 일을 하려면 어 이 박물관 업무를 지원하는 전담 팀이 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셔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조직 부서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욱 의원

어떻게요? 지금 있는 현 인원 구성이 안 돼 있잖아요. 지금 우리 아마 조금 이따도 제가 또 하겠지만 전시물 고대사부터 우리 역사 기록관이나 이런 거 또 땅 매입 이런 거 해서 하기가 이거 쉽지가 않거든요, 저런 일들이. 근데 저런 대규모 사업을 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지금 이 상태에서는 내가 봐서는 전혀 아니다고 보는데.....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전담할 팀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최정욱 의원

그건 행정 우리 행정과하고 이야기가 됐는가요?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지금 실무적으로는 조금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지는 않은 상태여서 앞으로 이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욱 의원

우리 과장님 오셨어요? 행정과장님. 어떤가요? 이게 지금 추진을 하려면 기왕 우리 박물관 한 거 우리 지역에 맞게 어떤 구상도 하고 하려면 미리 해수부의 인정이 가끔 자료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그럴 거예요.

그러려면 땅 매입 추진하는 과정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면 굉장히 일이 많을 건데 그러려면 어차피 직원들의 수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저런 거.

○행정지원과장 이기석

일단 박물관 사업은 그 해수부 사업입니다. 그래서 해수부 파견 지금 도하고 저희 군하고 각 1명씩 지금 파견 계획이 돼 있습니다.

○최정욱 의원

근데 우리군에 어떤 필요한 거를 미리 받쳐서 그런 거 연계해 주려면 여기가 대비가 많이 필요하죠. 해수부가 하라는 대로 가버리면 우리 박물관 뒤로 후회가 할 게 많이 생길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기석

해양정책과하고 협의해서 TF팀을 구성한다든지 별도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최정욱 의원

잘 뒷받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 첨단 디지털 기술 도입 계획이 구체적으로만 마련되어 있는지 단순 전시 중심의 박물관이 아니라 체험과 참여 중심의 스마트한 박물관으로 완도만의 차별화된 확보할 전략을 혹시 우리 과장님 세우고 있어요, 그런 거는?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지금 박물관 기본 계획 수립에 이런 부분이 이제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그냥 고정돼 있는 이런 전시물 가지고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어렵기 때문에 이 박물관에서는 VR, AR 이런 기술을 활용해서 해양 생태계나 수산업 현장을 이렇게 박물관 안에서 마치 바닷속을 내가 탐험하는듯한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는 이런 체험 공간을 제공할 거고 또 그 대형 미디어 월이나 대형 디지털 장비를 통해서 관광객들이 전시와 또 직접 상호 작용을 하는 그런 콘텐츠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ICT 기반의 융복합 전시 기법도 도입을 할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박물관 기본 계획 수립하는 과정에 해수부하고 저희하고 많은 고민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전시 콘텐츠 요즘 최신의 첨단 장비 디지털 장비 활용하는 부분도 저희가 하고 우리 완도 박물관의 위치가 바닷가 갯벌이 굉장히 좋은 장좌리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그 갯벌에서 어떻게 갯벌을 통해서 또 관람객들이 체험도 하고 바다 체험도 하고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최정욱 의원

이런 거 할 때는 미리 후회하지 않게 많이 보고 많이 듣고 참고도 많이 하시고 대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예. 알겠습니다.

○최정욱 의원

국립 해양수산박물관이 들어설 부지는 단순한 공토가 아니라 신라시대 장보고 대사의 숨결이 살아 있는 청해진 유적지입니다.

따라서 장보고 대사의 업적과 장보고 시대 이전의 고대 해양 문화를 체계적으로 전시할 수

있는 완도 해양 역사관과 같은 공간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예.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지금 현재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기본 계획에는 이제 5개의 상설 전시관이 있습니다.

수산역사관, 해양문화관 디지털브릿지관, K씨푸드관, 수산미래관 이렇게 5개 상설이 있는데 이런 완도 해양 역사관 같은 이런 부분을 도입할 필요가 충분히 있고 인근에 또 장보고 대사의 유적이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그 장보고 기념관이 옆에 있어서 그쪽하고 중복성을 최대한 피하고 그러면서도 완도 해양 역사를 좀 잘 알릴 수 있는 이런 뭐 기획 전시관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해수부하고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최정욱 의원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우리는 장보고 기념관은 장보고에 대해서만 있고, 다 찢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 박물관에 들어갔을 때의 우리 완도에 적어도 한눈에 전체적인 걸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기념관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야만이 우리 완도의 유치한 어떤 이미지하고도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한 거니까 그런 것 좀 꼭 좀 해서 그런 거에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런 자료가 또 많이 준비가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완도에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런 것도 미리 아마 해외 과장님이나 직원들 한계가 있을 겁니다.

우리 지역민들 또 전문가들도 있고 그러니까 같이 어떤 TF 구성할 때 참여해서 같이들 노력해서 기왕 한 거 후회 없이 조금이라도 잘 돼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예. 알겠습니다.

○최정욱 의원

이를 통해 방문객이 단순한 관람을 넘어 완도의 해양 정신과 해양수산 박물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구상은 있으신가요?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굉장히 이게 광범위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박물관 건립 추진을 하면서 지금 현재 그 장도에서부터 해양 생태관까지는 좁지만 도로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박물관이 들어섰을 때 그 장보고 유적지에서 박물관으로 이어지는 도로는 단절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문화재청, 문화재청에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를 받아서 그쪽에 그 생태전시관 앞에 매립을 소규모 매립을 해서 그쪽의 해안 도로를 이렇게 이어지게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허가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거절당했습니다.

이유는 박물관의 구체적인 설계가 나오면 그러면 그걸 가지고 구체적으로 해야지 지금 빠르다 이래서 지금 설계가 나오면 그 부분도 해수부하고 협의해서 하나로 이어지게끔 그래서 박물관에 온 사람이 자연스럽게 유적지로 가고 유적지 온 사람이 박물관으로 가고 또 주차장도 서로 상호 교류해서 같이 쓰게 된다면 훨씬 더 저기 서로 단절되지 않고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구상은 해봤습니다.

○최정욱 의원

그래도 과장님 답변 많이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이다 생각합니다.

박물관 내 장보고의 국제 해양 교류 정신을 재현하는 특별 전시 체험형 콘텐츠 기획을 통해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을 넘어 문화유산을

계승 발전시키는 상생 모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완도군 내에는 이미 해양치유센터 완도타워, 청산도와 같은 훌륭한 관광자원 인프라가 있습니다.
박물관이 이들과 연계되어 체류형 건강 패키지를 제공한다면 완도는 단순한 방문지가 아니라 해양 관광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고, 과장님은 이러한 연계 패키지의 방안에 대한 전략과 실행을 조금 전에 계획한 대로 같이 맞춰서 잘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예. 알겠습니다.

○최정욱 의원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국립 해양수산박물관이 완도군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관광 거점이자 성장 동력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집행부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청해진 유적지의 역사적 가치와 지역 관광 자원을 잘 엮어 국민 모두가 최고 찾고 싶어 하는 최고의 해양수산 박물관이 만들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의장 김양훈

조영식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딱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마 5년 후의 일입니다마는 해양수산박물관이 2030년 12월에 개관하면 지금 현재 어초 민속전시관 혹시 이전 계획 있습니까?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어천 민속 전시관에 대한 그동안 박물관 유치하는 과정에 중앙부처에서 많이 물어봤습니다.
저 전시관을 어떻게 할 건지 저희 군 계획은 중복성이 좀 있을 수 있고, 또 어촌민속전시관이 노후화되고 해서 그 중요한 유물들은 가치 있는 유물들은 새롭게 재정비를 해서 박물관으로 이전을 하고 어촌민속전시관은 그 지역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방안으로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지역민들하고 또 관련 부서들하고 서로 다 협의가 돼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조영식 의원

과장님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양훈

해양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참조)
· 2025년 군정질문답변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의장 김양훈

허궁희 의원님의 본안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허궁희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궁희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우리군에서 해조류 전복 산업 특구 지정은 우리군 신성장 동력 산업을 육성하고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중요한 제도죠.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예. 그렇습니다.

○허궁희 의원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좀 늦어져 가고

있어요.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맞습니다. 지금 특구 기간이 저희 군이 원래 2023년까지였기 때문에 24년부터 26년까지로 연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중기부에서는 특구 변경 연장하는 변경을 할 때 어 기간 만료가 된 이후에 1년 이내에 변경할 의사를 저희가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제출하면 이제 중기부하고 협의를 진행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 군에서 27년 말까지이기 때문에 2 23년 말까지이기 때문에 23년 12월 29일에 중기부하고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근데 제출했는데 이후에 이제 보안 요청 사항이 있었고 담당자가 중기부 담당자가 1월달에 바뀌져가지고 보완하는 과정에 24년 작년 하반기에 이제 서류가 마무리될 쯤 됐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화 사업자 민간 특화 사업자가 좀 이렇게 같이 완도군하고 공동 특화 사업자로 지정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는 이제 좋은 생각에 어차피 변경 기간이니까 얼른 서둘러서 이 변경 사업 변경해서 특허 사업자를 공동으로 하면 좋겠다고 이 서류를 준비하는 데 상당히 시간이 걸렸고 중기부와 협의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총 12번 서류가 왔다 갔다 했더라고요. 제가 내부적으로 보니까 네 근데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민원 해결은 안 되고 이건 중대 변경 사항이니까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절차를 다 거쳐야 된다.

어떤 개인 한 사람을 가지고 할 수도 없고 공고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가지고 조금 다소 늦어졌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모든 서류를 이제 그거 빼고 다시 원래대로 해서 마무리했고 11월 정도에는 변경 승인을 해 줄 것 같습니다.

다만 우려하시는 것이 저희가 시간을 기간이 만료됐는데 지금 그럼 혜택이 없어진 건가 하는 걱정을 하시는데 그건 아니고 저희가 충분히 그전에 의사를 표명을 했고 아직도 그 혜택은 유효하고 특구 지정도 유효하고 연장될 계획입니다.

○허궁희 의원

그러니까 작년에 재지정이 이루어져야 할 특구 지정이 늦어진 이유가 방금 설명한 그런 내용이었다 이거죠?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그렇습니다.

○허궁희 의원

수고는 많이 하셨네요. 하셨는데 올해 재지정이 안 이루어지면 문제는 되죠?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저희가 올해 지정이 될 걸로 거의 다 이제 그 협의가 끝나서 제출을 했고 이제 중기부에서 이 서류를 가지고 중기부 단독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행안부나 관련 부처 협의가 진행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를 검토하느라고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허궁희 의원

그러게요. 요즘 이제 만약에 재지정이 안 되고 다른 지자체가 전복이나 해조류 특구를 신청해서 타 지자체가 특구 지정이 된다면 우리 완도로서는 상당히 큰 심각한 문제예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전복 산업이 지금 어렵고 또 해조류 산업도 지금 다시마 같은 경우 상당히 어려운 시기 아닌가요?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예. 맞습니다.

○허궁희 의원

우리 어민들이 이런 내용을 안다면 상당히 좀 서운해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렇지 않아

도 전복이 이렇게 이기고 해조류가 이렇게 값이 안 좋아서 중단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특구까지 뺏긴다면은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오직이 준비해서 팀장들 이끌고 지금 준비하겠어요. 그 나무라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어찌 됐든 중기청 직원이 바뀌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어려움이 있었다 하니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든지 올 안에는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꼭 관심을 가져서 시간이 얼마 사실 안 남았어요, 과장님.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이렇게 재지정이 될 확률이 정확히 정해지면 의회에도 한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도 참고해서 그런 걱정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궁희 의원

그리고 지역특구법 제7조를 보면은 주민 동의 주민 등의 의견 청취 조항이 있어요.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예. 그렇습니다.

○허궁희 의원

이런 부분을 처음에 특구 지정 받을 때만 하고 이렇게 이렇게 연장하고 이럴 때는 안 해도 되는 건가요?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그런 과정은 경미한 변경 사항에 해당이 돼서 신속하게 이제 특구를 연장하는 그런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신규 신청 때나 중대한 변경 그러니까 특구 사업자가 변경됐다거나 이럴 때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민간 특허 사업자를 모집하려면 공고하고 주민 의견 청취하고 의회의 의견도 청취하고 이렇게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허궁희 의원

그러게요. 저희들이 알기로는 이제 이렇게 단체나 저기에 이렇게 공청회나 공고를 해야 되고 또 의회에다도 이렇게 좀 이렇게 보고나 청취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왜 이런 부분을 거치지 않아서 중기청에서 이렇게 좀 서류 보완을 요구한 건지 아니면 이제 그 중기청 직원이 이렇게 바뀌어져서 자기 기준을 이렇게 따로 정하다 보니까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사실은 과장님이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어 올해는 이렇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궁희 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그 업무 추진 실적 때 제가 지적했던 내용이 있어서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강독휴게소의 대형 간판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예. 그렇습니다.

○허궁희 의원

그 장소를 좋은 장소를 못 찾아서인가요? 아니면 이 옮겨야 될 경비가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저희가 이전하는 데는 최소 2천만 원 이상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저희가 이제 그 23년도에 지역 특화 발전 특구 우수 특구로 지정이 돼 가지고 타골 특구로 지정이 돼서 상사업비로 지금 특구 디자인을 리모델링하고 새롭게 했는데 장소를 새로

옮기려면 새롭게 저희 군비를 확보를 해야 돼서 이 부분은 저희가 군비 요청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허궁희 의원

실장님 뭐 이건 옮겨야 맞겠죠?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예.

○허궁희 의원

오늘 우리 실장님이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을 많이 하시네요.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좀 있어야 될 자리로 옮기시고 또 해조류 전복 특구는 정말 우리가 뺏겨서는 안 될 그런 저는 그 우리 완도의 어떻게 보면 사활이 걸린 문제라고 저는 좀 표현을 하고 싶네요.
이런 또 부분이 우리 완도만의 차별화된 브랜드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그 부분을 잘 파악해서 정말 올 안에는 마무리 꼭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예. 잘 알겠습니다.

○허궁희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양훈

해양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조류박람회추진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해조류박람회추진단

○해조류박람회추진단장 김준혁

(참조)
· 2025년 군정질문답변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의장 김양훈

박성규 의원님의 본안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박성규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규 의원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단장님 이 업무 본 지가 한 4개월 됐습니까?

○해조류박람회추진단장 김준혁

예. 지금 4개월 좀 못 됐습니다.

○박성규 의원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책자가 기본 계획 수립 연구 보고서가 나왔네요.

○해조류박람회추진단장 김준혁

그랬었습니다. 진즉에 나와 있었던 건데 우리 의원님들께 못 드려서 오늘 좀 드린 거고요.

○박성규 의원

며칠 전에 줬으면 한번 들여다봤을 텐데 오늘 와서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

○해조류박람회추진단장 김준혁

죄송합니다.

○박성규 의원

짧은 기간 동안 많이 했네요.

○해조류박람회추진단장 김준혁

저희가 한 게 아니라 그전에 해양정책과에서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 있던 겁니다.

○박성규 의원

예. 그렇습니까? 단장님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PRE해조류 박람회 추진한 이유와 기대 효과는 무엇입니까?

○해조류박람회추진단장 김준혁

그렇습니다. 우리 해조류하고 전복은 완도 하면 뭐 아니면 빼놓을 수가 없죠.
완도가 최고죠. 그래서 2017년 이후에 저희들이 박람회를 하고 아직 거의 10년이 가까운 시기에 지금 박람회를 개최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28년도에 국제 행사를 승인을

받기 위해서 사전 행사 의미로 개최를 하는 거고요.
그 요즘은 이제 해조류 산업이 저희들은 1차 산업에서 경쟁 구도를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신성장 동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산업이 주력 산업이고요.
지역경제 활력을 불어넣는 행사로 해조류 박람회를 개최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규 의원

박람회를 추진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는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정작 해조류를 생산하는 어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사실은 미비합니다.
사실은 몇 년 전에도 했습니다마는 이 행사를 함으로써 해조류 값이 올라오거나 다시밥값이 올라가거나 그런 경우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어민들은 아무 혜택이 없어요. 해주 박람회를 하는데 뭐 떡값이 오르거나 미역값이 오르거나 그런 것이 없더라고요.
우리 지역 상가들은 많은 혜택을 보겠지만 은 우리 어민들도 수출 상담을 통해서 다시마나 미역이 많이 팔릴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해조류박람회추진단장 김준혁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규 의원

PRE해조류 박람회 목표 관람객을 12만 명으로 잡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조류박람회추진단장 김준혁

우선 2014년, 17년 또 박람회 했던 부분을 좀 사례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평균 방문객 수를 좀 산출을 했고요. 그중에 이제 6일간 하다 보니까 작년 장보고수산물 축제에 참여했던 인원 해서 행사 규모하고 기간을 고려해서 보호정치를 적용하고 방문 목표 방문객 수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보고하실 때 외국인을 2천 명 잡았습니까?

○해조류박람회추진단장 김준혁

예. 그렇습니다. 목표 관람객이 2천 명입니다.

○박성규 의원

관람객을 위하면 완도 주민도 포함시킵니까? 아니면 관광객들만 포함시킵니까?

○해조류박람회추진단장 김준혁

원래는 이제 외국인이라 하면 완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외국인이겠죠. 그런데 외국인 주소가 돼 있는 사람들이겠죠.

○박성규 의원

아니, 외국인은 2천 명 잡고요. 우리 관람객 12만 명 중에 우리 읍민들도 군민들도 포함이 됩니까?

○해조류박람회추진단장 김준혁

12만 명 중에요?

○박성규 의원

예.

○해조류박람회추진단장 김준혁

12만 명 중에 국민들도 포함이 되겠죠.

○박성규 의원

군민들도.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장보고 축제나 해주로 박람회를 해보면 관광객도 많이 오지만 우리군민들은 많이 참석을 안 해요. 읍민은 별로 안 나오죠?

○해조류박람회추진단장 김준혁

그렇습니다.

○박성규 의원

그 사회단체 몇 명만 나오고 안 나와요. 그래

서 이 큰 행사를 예비로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우리 12개 읍면 섬 주민들도 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좀 계획을 세우고 또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도 조금 세우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해조류박람회추진단장 김준혁

그래서 이제 여담입니다마는 읍면에 있을 때 이런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장보고수산물 축제 하면은 주민들이 내일 뭐 한대 이런 식의 문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했던 것이 원면 각 반면에 마을 이장, 어촌계장, 청년회장, 부녀회장 정도까지는 저희들 박람회를 개최하고 이렇게 하니까 좀 참여를 좀 같이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을 미리 보냈습니다.

12 올해 9월달에 한 번 보냈고요. 저희 세부 실행 계획이 나오면 2월달에 한 번 1월에 2월달에 한 번 다시 보낼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참여를 유도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규 의원

관람객 유치를 위해서는 홍보가 아주 중요하죠. 그러면 홍보는 어떻게 할 수 있으니까 대도시라든지 타 시군은 어떻게 홍보를 할 것입니까?

○해조류박람회추진단장 김준혁

이제 저희들 운영 대행사하고 지금 협상의 계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월 11월 중순 정도 되면 끝날 것 같고요. 그게 끝나고 나면 이제 이런 세부 실행 계획을 11월 말까지 해서 작성을 하게 되거든요.

그 세부 실행 계획이 나와 줘야 포스터도 나오고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각종 할인 행사라든지 여객선 반값 할인이라든지 우리 특산품 반값이라든지 지금 전체적인 이런 부분을 그것이 나와 줘야 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광주 전남 교육청을 인구일자리정책실하고 우리 마케팅팀하고 다니면서 지금 잘 이야기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11월 말까지는 내년 방학 뭔가요?

내년 방학 전에 가정통신문으로 우리 해조류 박람회를 홍보를 하란다라는 그런 저기 협조 말씀도 받았습니다.

○박성규 의원

내년에 축제 날짜가 며칠입니까?

○해조류박람회추진단장 김준혁

5월 2일부터 5월 7일까지 6일간입니다.

○박성규 의원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해조류박람회추진단장 김준혁

예. 그렇습니다.

○박성규 의원

준비를 잘해 주시고요. 또 내년에는 선거가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홍보를 좀 잘 해 주시고요. 지금 홍보 전략을 보면 블로그 인스타 온라인 중심 오프라인 생활 밀착형 홍보로 계획되어 있으나 이는 기존 축제의 홍보와 별 차별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PRE해조류박람회에 특화된 홍보 마케팅 전략은 무엇이며, MZ세대 청소년 국제 관람객을 대상으로 한 차별화된 홍보 방안이 있으면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조류박람회추진단장 김준혁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산업관과 홍보관에 지금 다양한 내실 있는 콘텐츠를 구성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대기업 팝업스토어 유치를 하고요. 한국 피라, 한국수산자원공사 등 주요 기관과 탄소 중립, 그다음에 블루카본 등 정책 홍보관 유치로 볼거리하고 체험거리 등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에 맞춰서 유튜브 쇼츠나 인스타그램 릴스 등의 소품 동영상을 제작해서 업로

드하거나 AI 툴을 활용한 짧은 동영상을 통해 홍보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박성규 의원

획일화된 홍보와 챌린지 홍보보다는 톡톡 튀는 홍보로 관람객 유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조류박람회추진단장 김준혁

알겠습니다.

○박성규 의원

홍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박람회 홍보대사는 위촉할 계획이 있습니까?

○해조류박람회추진단장 김준혁

저희 홍보대사는 저희들이 지금 기존의 완도군 홍보대사로 위촉돼 있는 분이 대표적으로 배우 전광렬 씨, 위하준, 그다음에 손헌주 씨, 가수 안성훈, 그다음에 셰프 오세득, 정지선 씨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이분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어 저희들 홍보 마케팅에 좀 협조를 해달라고 요청을 드릴 계획입니다.

○박성규 의원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해서라면 셀럽을 홍보대사로 위촉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조류박람회추진단장 김준혁

알겠습니다.

○박성규 의원

내년 PRE해조류 박람회 2028년 본 행사 추진을 위한 리허설이자, 성패를 좌우하는 시험대입니다. 그렇죠?

○해조류박람회추진단장 김준혁

예.

○박성규 의원

본 의원은 추진위원회가 단순한 보고받는 기구가 아니라 성공적 개최를 위한 전략적 컨트롤 타워 기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진위원회가 하는 가장 중점 역할은 무엇입니까?

○해조류박람회추진단장 김준혁

추진위원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 기존의 박람회 다른 박람회하고 좀 틀리게 조직위원회 이사회 추진위원회 이렇게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자문위원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이번 박람회는 오로지 추진위원회 이거 하나 갖고 지금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소방, 전기, 경찰 이런 안전 부분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수산 전문가들 그다음에 이제 관광 분야 기타 기관사회단체 부분들 용역사 등을 해갖고 25명으로 위촉을 했어요. 의견 수렴도 하고, 다양한 자문 역할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행사 개최 전에는 그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군민들의 참여 방안 그분들이 관리하고 있는 단체 관람객들의 관람 계획 뭐 이렇게 유도하는 방향 그다음에 뭐 증언 사항이 이렇게 발생되면 뭐 협조할 사항 이런 부분들로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추진위원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추진위원회에서 보고를 받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추진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그 사항을 던져드리고 거기에서 나온 결과를 토대로 다시 이렇게 좀 보완해 나가면서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성규 의원

추진위원 의견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추진위원 못지않게 전문 지식을 가진 우리 일반 군민들도 많습니다.

이런 숨은 고수들을 찾아서 다양한 의견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해조류박람회추진단장 김준혁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추가로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박성규 의원
예를 들어서 미스트롯 하면서 우리 해남 출신 미스 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배추 따고 꿀 따다가 스타가 됐습니다. 숨은 고수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군민들도 상대로 해서 좀 많은 의견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조류박람회추진단장 김준혁
알겠습니다.
○박성규 의원
대규모 행사는 흔히 총 감독제를 도입하여 행사를 전반을 통합 기획 연출한다고 합니다.
지난 2차 추진회의 내용에도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현재 어디까지나 진행이 됐습니까?
○해조류박람회추진단장 김준혁
그 부분은 총 감독은 선임을 안 하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이제 그 사유를 들어보니까 이제 총 감독을 하면 좋은 점도 많고 우리 추진위원회 3차 추진위원회 하면서도 이제 뭐 교수님께서 그 전시 연출을 하려면 따로따로 노는 그 대행사들이 있어서 그런 걸 꽉 잡고 하는 저기 총 감독이 필요하다 그렇게 제안을 주셨는데요.
이제 어떤 총 감독들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 운영 부분에 대한 개회식 폐회식에 대한 총감독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 박람회의 전체적인 해조류 박람회 특히 이해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 송 감독으로 선임된 사람이 한 올해부터 만약에 했었으면 한 7천만 원 정도 송 감독 경비를 줘야 되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포기를 하고요. 차라리 그 돈 가지고 전복을 시식을 한다는 등 박람회 기간에 그렇게 하기로 정했습니다.
○박성규 의원
선임을 안 한다고요?
○해조류박람회추진단장 김준혁
예.
○박성규 의원
운영 업체는 어디로 선정됐습니까?
○해조류박람회추진단장 김준혁
지금 아까 보고드린 대로 주식회사 아이캔 컴퍼니라고요.
경기도에 있는 회사입니다.
○박성규 의원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 사업비 증액이 발생한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방안이 있습니까?
○해조류박람회추진단장 김준혁
저희들 운영사에다가 미리 예산에 대한 증액은 없다고 지금 먼저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를 했고요. 허가 지시서상에 이제 행사 계획 혹시 변경이나 진행 과정에서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대행사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도 명시를 하고 있고요.
이게 명시를 하고 있는 부분을 떠나서 이제 그 다 아시겠지만은 협상을 하다 보면 자기 업체의 이익을 많이 주장을 하거든요.
하여튼 심도 있게 우리 팀장님들 전문가들이 두 분 계십니다.
그래서 잘 하실 걸로 하고 저도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규 의원
협상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도 그것 때문에 소송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증액이 발생하면 자기들 손해 안 보려고 계속해서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업비 증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

상에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조류박람회추진단장 김준혁

알겠습니다.

○박성규 의원

박람회장은 현재 완도 해변 공원에다가 임시 텐트를 치죠?

○해조류박람회추진단장 김준혁

그렇습니다.

○박성규 의원

그리고 또 철거를 하고 이제 이런 방식대로 하죠.

○해조류박람회추진단장 김준혁

예. 그렇습니다.

○박성규 의원

행사가 끝나면 시설물이 철거되고 또 예산 낭비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행사를 지금 계속 하는데 시설했다가 철거했다가 시설했다가 철거했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데 예산 낭비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입장을 좀 한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조류박람회추진단장 김준혁

그건 부의장님 의견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이게 지금 이 자리에서 논의가 되고 만약에 이제 공론화가 된다면 지금부터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의회 우리 집행부 그다음에 국민들이 모여서 과연 이걸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공청회를 한번 해서요. 꼭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028년 완도국제해조류 산업 박람회를 지금 국제행사 승인을 받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때까지도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영구적인 건축물은 너무 기간이 좀 짧아서 그 이후에라도 저희들이 한다 하면 미리부터 민속 9기 때나 이렇게 들어가면 그런 것을 좀 계획을 해서 공론화를 해서 한번 이렇게 논의를 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박성규 의원

멀리 보고 좀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람회 추진할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해조류박람회추진단장 김준혁

예. 알고 있습니다.

○박성규 의원

지금까지 박람회에 텐트를 찍고 철거하고 또 바지선도 부릅니까?

○해조류박람회추진단장 김준혁

이번에 안 들어옵니다.

○박성규 의원

이번에 그런 비용을 합의하면 부지를 매입하고도 나올 정도가 됩니다.

앞으로 28년 본 행사도 준비 중이고 해주 산업을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려면 일회성 행사장이 아닌 상설 전시관을 이제라도 좀 준비를 멀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조류박람회추진단장 김준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규 의원

상설 부지 마련 계획은 전혀 계획은 지금은 없고, 이제 멀리 보고 하신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습니다. 그리고 신지 명사사립 행사장 마련 계획인데요.

여기서는 어떤 행사 프로그램을.....

○해조류박람회추진단장 김준혁

아시다시피 이제 해양치유센터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 기후치유센터, 문화치유센터 맨발 걷기 등이 지금 노르딕 워킹이라든지 해양 치유 쪽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어차피 이제 박람회 오는 이런 관람객들을 그쪽으로 유인도 하고 홍보를 같이 해 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월 운영 대행사 협상을 통해서 진행 과정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넣을 것인가 해양치유 담당관하고도 이야기를 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넣을 것인가 제가 개인적으로는 맨발 걷기 축제를 한번 6일간 해봤으면 어쩌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마는 그것도 한번 같이 해서 추가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규 의원

프로그램을 잘 짜서 우리군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행사장 가는 교통편은 어떻게 마련합니까?

○해조류박람회추진단장 김준혁

이 문제 또한 지금 부서에서 저희가 55개 중점 추진 과제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것 외에요. 거기에 11월 10일 날 저희들 3차 중점 추진과제 보고회를 하고 나면 따로 저희들이 세부 실행 계획 되면은 의회에다가 의원님들께 따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셔틀버스 1코스 있고 3코스로 이렇게 나눠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뭐 지금 경제교통과 세무회계과에서 그걸 맡아서 할 예정인데요.
그래서 이번 11월 10일에 정확한 답이 나오면 아까 세부 실행 계획하고 합쳐서 그런 걸 모든 걸 해서 의회에다가 다시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성규 의원

신지에서는 여름 되면 축제를 다양한 축제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해조류박람회추진단장 김준혁

예.

○박성규 의원

그런데 교통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관람객이나 우리 완도군민들이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불편하지 않도록 철저히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조류박람회추진단장 김준혁

알겠습니다.

○박성규 의원

추후에 행사장이 이제 없어 관람객이 많이 올 건데 우리 추천한 혼잡이 불가피할 건데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해조류박람회추진단장 김준혁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이제 거기서 부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요.
주차장은 승용차를 1일 6,500대 대형 버스 500대로 한 총 7천대 정도 할 수 있는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박성규 의원

어디 있습니까?

○해조류박람회추진단장 김준혁

지금 그 주차장은 장보고기념관 이런 체육공원 완도군청 3부두 물양장 인근에 해경 부두 노상 주차장, 예술의 전당 이런 부분들이고요.
저쪽에 이제 시내권 외에 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장보고동상도 있고 명사십리 주차장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규 의원

전에 할 때는 농공단지 조성해 놓고 건물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안 들어있었기 때문에 농공단지에다가 주차장을 많이 했어요.

○해조류박람회추진단장 김준혁

예. 그랬었습니다.

○박성규 의원
그런데 지금은 농공단지 다 들어서 버리고 큰 주차장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7천 대가 적은 숫자가 아닌데 그리고 거리가 또 멀면 불편하지 않습니까?
○해조류박람회추진단장 김준혁
그렇습니다. 이 셔틀버스를 운영할 거고요. 그래서 확정된 건 아니고 11월 10일날 부서에서 이 확정된 안을 갖고 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이제 결정되고 나면 의회에 다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성규 의원
행사 기간 중 교통 대란으로 인해 주민 생활권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주민 불편을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시 연출 추진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시 연출 업체는 선정되었습니까?
○해조류박람회추진단장 김준혁
아직 그 단계는 아니고요. 지금 공고만 10월 20일 날 해놨습니다.
그게 한 20일간 공고가 될 거고요. 이게 제안서 접수하고 이제 나중에 이제 공정한 평가 절차를 위해서 11월 말까지 업체 선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박성규 의원
그럼 여기서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계약을 합니까?
○해조류박람회추진단장 김준혁
그렇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성규 의원
조금 전에도 말씀했지만 지난 박람회 때 전시 연출 업체와 소송까지 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업체와 계약을 맺을 때 좀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람회의 성공은 관람객을 끌어당길 킬러 콘텐츠 확보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추진단에서는 제시한 실감형 미디어 아트 요즘 보편화가 많이 되었고 전국에 다양하고 퀄리티 있는 전시 노출이 아주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킬러 콘텐츠로 선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조류박람회추진단장 김준혁
부의장님 우려 감사합니다. 근데 저희들은 이미 보편화된 미디어 아트가 아닌 새로운 것을 찾겠습니다.
완도 해조류와 해조류만의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한다고 인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감형 미디어 아트를 킬러 콘텐츠로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PRE박람회 개최 목표하고 예산 효율성 적은 예산 잘 아시다시피 미디어 아트 이 부분 영상 제작하는 부분들이 돈이 좀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런 부분 주체 전달성의 관람객으로 젊은 층 유입에서 이렇게 부합하기 때문에 킬러 콘텐츠로 정의했습니다.
이 킬러 콘텐츠라는 것은 지금 안 나와 있어서 말로만 이렇게 드리는 거고요.
나중에 전시 연출 대행사가 선정이 되면 그때부터 해서 그렇게 같이 해서 이제 의원님들께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규 의원
선정이 되면은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자주 소통을 하게요.
○해조류박람회추진단장 김준혁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규 의원
큰 행사이기 때문에 자주 만나서 소통을 해야 됩니다.

○해조류박람회추진단장 김준혁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규 의원
그렇다면 박람회 주체인 기후 리더 해조류가 여는 바다 미래 메시지는 어떻게 담아낼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조류박람회추진단장 김준혁
그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지금 해조류 센터를 리뉴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층 전시실을 요 근래 한번 가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기는 좀 아니다라는 걸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를 해조류이해관으로 좀 꾸미고요. 해조류이해관으로 꾸며서 핵심 해조류는 어떤 것이 해조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이제 주제관의 세계관을 만들 거거든요. 세계 존을 기후위기의 현실이라든지 해주 바다의 리더 바다 미래를 열다라는 이런 주제로 콘텐츠를 담겠습니다.
그래서 뭐 자연스럽고 입체적으로 담아서 체감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성규 의원
킬러 콘텐츠는 박람회 종료 후에도 교육, 관광, 산업, 홍보용으로 자산으로 남아야 합니다.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간단하게 또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조류박람회추진단장 김준혁
미디어아트는 저희들 일회성으로 끝내지를 않겠습니다. 일회성 전시로 그래서 완도군 대표적인 디지털 자산으로 이제 활용할 계획이고요.
전시 종료 후에 킬러 콘텐츠 미디아트 핵심 장치 해조류센터 2층 해조류 이관으로 이전 설치하는 방안을 또 공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도요. 그래서 저기가 해조류센터가 연중 찾는 지금 아시다시피 야간 경관 조성 사업을 또 올해 연말 아니면 내년 초까지 해서 마무리할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전체적으로 한번 해서 거기에 다가 어 관람 완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해조류센터 하면 해조류와 전복이 여기에 다 들어 있구나 할 정도의 그런 콘텐츠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박성규 의원
오늘 질의를 통해 확인한 바 올해 2026년 해조류 박람회는 단순한 축제가 아니라 완도군 미래 산업인 해조 산업을 널리 알리고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지만 오늘 드러난 몇 가지 문제점들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PRE박람회를 통해 단순히 행사를 치르는 데 그치지 말고 상설 부지 조성 지속 가능한 콘텐츠 개발 관람객 중심의 교통편의 대책까지 준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조류박람회추진단장 김준혁
그렇게 하겠습니다. 빈틈없이 준비를 하겠고요. 가장 안전하고 쾌적한 박람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성규 의원
과장님 뭐 근무 오래 하셨는데 처음 접해본 박람회죠?
○해조류박람회추진단장 김준혁
예. 그렇습니다.
○박성규 의원
철저하게 예산도 많고 우리 완도 운명이 달려 있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조류박람회추진단장 김준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양훈

해조류박람회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산회)

○출석의원(9인)

김양훈	박성규	지민
박재선	박병수	조인호
최정욱	허궁희	조영식

○출석공무원

군수	신우철
부군수	이범우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관광실장	안환옥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행정지원과장	이기석
민원봉사과장	김용식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체육진흥과장	최정환
농업축산과장	이정국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해조류박람회추진단장	김준혁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지역개발과장	오현철
건설과장	김진원
안전총괄과장	이홍용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최광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수호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최영미

의사운영팀장 서을식

속 기 사 정현중

제333회 완도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4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10월 23일(목) 10시00분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군정 질문 및 답변의 건

ㅇ수산경영과장(2)
ㅇ산림휴양과장(2)
ㅇ환경수질관리과장(1)
ㅇ지역개발과장(2)
ㅇ건설과장(1)
ㅇ안전총괄과장(1)
ㅇ보건행정과장(2)

부의된 안건

1. 군정 질문 및 답변의 건(의장 제의)

ㅇ수산경영과장(2)
ㅇ산림휴양과장(2)
ㅇ환경수질관리과장(1)
ㅇ지역개발과장(2)
ㅇ건설과장(1)
ㅇ안전총괄과장(1)
ㅇ보건행정과장(2)

(09시59분 개의)

○의장 김양훈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의사일정에 따라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1. 군정 질문 및 답변의 건(의장 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답변은 수산경영과장 2건, 산림휴양과장 2건, 환경수질관리과장 1건, 지역개발과장 2건, 건설과장 1건, 안전총괄과장 1건으로 총 9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산경영과장 나오셔서 한 건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경영과장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참조)

· 2025년 군정질문답변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의장 김양훈

박재선 의원님의 본안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박재선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서에 보면 생산량과 생산액에서는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연도별 변동 추이가 안 나와 있네요. 어떻습니까?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 미역이나 지금 이제 다시마 같은 경우는 지금 미역 같은 경우는 23년도에 약 한 3만 톤, 24년도에는 약 한 32만 톤, 25만 톤에는 약 한 35만 톤 정도로 조금씩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을 제외한 해조류는 얼마 정도 이렇게 수출액이 나와 있습니까?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지금 수출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면은 지금 22년도에 약 한 1,835톤 정도, 지금 23년도에는 2,500톤 정도 그리고 24년도 같은 경우는 약 3,800톤 정도로 지금 수출은 좀 많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재선 의원

해조류도 좀 많이 그러면 수출이 되고 있습니까?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그렇습니다.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박재선 의원

현재 계속이요?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박재선 의원

자료 한번 띄워줘 보세요. 지금 현재 보고 있으면 저희들이 차타고 지나다니면서 항상 보고 있는 그런 겁니다.

청각이라든가 뭐 톳 그런 것을 도로에다 저렇게 많이 이렇게 건조를 해요.

저런 계기로 인해서 수출이 좀 덜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지금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이제 수출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들이 저거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이제 도로에서 건조를 하고 이제 이걸 이제 도매 업체에서 가져가서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다시 또 가공 공장에 가서 이제 세척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다시 위생 상태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기를 하는데 이제 저거 같은 경우는 좀 도로상에 해놓은 것은 조금 위생상이라든가 이런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저희들이 좀 개선해야 될 부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재선 의원

그러면 저기서 가져가면 1차 해서 말려주면 제2차로는 다시 가공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수출을 한단 말씀이시죠?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그렇습니다.

○박재선 의원

근데 저런 걸 보면은 사실 우리가 2028년도 국제해조류박람회를 이렇게 열심히 또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또 미리 준비하려고 하고 있는데 저런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지금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도로 지금 특히 아스팔트에서 건조했을 경우에는 그 위생적인 문제라든가 민원 발생이 지금 우려가 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위생적으로 지금 건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지도를 많이 하겠습니다.

○박재선 의원

그러면 저런 분들은 우천 시나 계절에 따라서 날씨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 거기에 따라서는 어떻습니까?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지금 대부분 해조류 이제 건조 시기가 지금 지금 장마철하고 좀 많이 겹쳐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기상 상황을 많이 조금 주시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근데 이제 또 해조류 같은 경우는 또 대량으로 이렇게 수확을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저런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재선 의원

근데 방금 이제 톳 문제는 보니까 여기 49어가가 이렇게 돼 있어요.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그렇습니다.

○박재선 의원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많이 하고 있죠? 이건 정상적으로 이렇게 이제 군에서 관리하는 어가만 49어가지 실질적으로 하는 어가들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이제 실질적으로 톱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저희들이 이제 완도읍에서 지금 정도리 쪽 일부 하고 있고요.

신지 같은 경우는 조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지 쪽에서 지금 대부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금당에서 조금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손님 생산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박재선 의원

청각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어가수를 어떻게 군에서 관리합니까?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저희들이 이제 읍면에다가 이제 시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해조류에 대한 부분 전체적으로 김이나 미역, 다시마 같은 전체적으로 시설 어가하고 그런 부분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선 의원

그러면 지금 여기 책자에 보면 해조류 생산량 200억 정도 되죠?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박재선 의원

그러면 우리 지금 김 생산은 빼고 한 건데 그러면 이게 타 시군에 비례해서 우리 완도군은 좀 어떻습니까?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지금 저희들은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지금 전국 생산액 같은 경우도 약 한 60% 이상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재선 의원
60% 정도 우리 완도군에서 차지하고 있다고요? 전국에서요.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박재선 의원
그러면 우리 지금 우리 청년들이 젊은 어업인들이 사실 많이 하고 있죠? 그 비중은 좀 어떻습니까?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지금 이제 저희들이 아직은 그래도 이제 노년층이나 중장년층들이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 지금 김 양식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려오신 분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은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는 약 한 70대 이상이 한 20% 정도 6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50대가 한 20% 정도 그런 정도 아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재선 의원
과장님 말씀처럼 지금 고령 어르신들이 많이 지금 이렇게 해조를 많이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렇게 애로사항은 또 뭐 없지 않습니까?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그러죠. 이제 아무래도 나이를 드시다 보니까 이제 뭐 지금 이제 우리가 양식을 하는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해상에서 많이 또 작업이 이루어지고 또 육상 같은 경우는 이제 또 건조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나이가 드신 분들은 육체적인 노동이나 그런 부분에 아마 좀 부담이나 어려움이 제일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재선 의원
그분들은 그러면 계절 근로자 그런 외국인들 해서 많이 이용합니까? 아니면 자가로 하고 있습니까?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그러죠. 대부분 지금 이제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아마 업, 이렇게 양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기는 아마 상당히 지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박재선 의원
그러면 해조류가 우리가 지금 한 과장님 말씀처럼 60%가 우리 완도에서 차지하고 있는데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이 하려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외국인을 이제 고용해 가지고 하더라도 그런 분들이 더 많이 하고 차지해야 될 플러스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고령 노인 어르신들이 더 많이 한다는 것은 그만큼 뭐가 비중이 안 맞다는 거 아닙니까?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아무래도 이제 젊으신 분들이 이제 이렇게 기어라든가 이제 몽이나 뭐 이런 부분으로 이제 귀촌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예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전복 산업이 좀 활성화됐을 때는 또 전복을 하기 위해서 많이 내려오시고 하지만은 이제 또 양식을 하기 위해서는 또 기반 시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기반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무작정 와서 이렇게 어업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또 어촌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가입도 해야 되고 거기에 또 어느 정도 이렇게 봉사도 해야 되고 조금 단기간 내에 이렇게 바로 와서 이렇게 어업을 하기에는 약간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박재선 의원

그것도 한번 잘 고려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알겠습니다.

○박재선 의원

그러면 이제 건조 방식에 있어서 우리가 자연 건조가 있을 거고 기계로 하는 건조가 있다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 비중은 좀 어떻습니까?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지금 이제 건조 방식 자체가 이제 김이나 미역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히 이 기계로만 이제 건조 주로 이제 기계로 건조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다시마, 지금 톳 청각 같은 경우는 아직도 그래도 지금 보면은 노지에서 많이 건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기계로 하는 부분은 좀 일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좀 정확하게 뭐 몇 퍼센트로 좀 구분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재선 의원

그러면 요 근래에는 우리 완도군에 크게 태풍 같은 게 오지는 않았어요.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그렇습니다.

○박재선 의원

그래서 우리 해조류가 더 많이 생산된 겁니까?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지금 이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수온의 영향이라든가 이제 그런 부분이 가장 큰 어떻게 보면 해조류 생산이나 아니면 성장하는데 그런 데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재선 의원

보면은 고수온은 올해가 제일 덜 왔죠?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올해는 그렇습니다.

○박재선 의원

그러면 해조류 그 동향은 전년도에 비례하면 고수원이 올해는 안 왔어요. 그 비중 하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그 비중은 좀 어떻습니까?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이제 고수온 해조류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고수온 쪽하고는 크게 그렇게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는데 이제 보통 10월 이후에 이제부터 그다음에 뭐 한 4월까지 그때 수온에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런데 수온이 이렇게 어느 정도 일정하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올 같은 경우는 너무 이제 수온 변동 폭이 조금 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해조류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에 조금 성장이나 아니면 어떤 병해라든가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취약하게 저기 됩니다.

○박재선 의원

그래요. 그러면 이제 기계 건조가 있을 건데 운영상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은데 그것에 장단점이 좀 있습니까?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지금 기계로 하고 있는 데가 지금 몇 군데 있거든요. 저희들이 이제 지원을 해주는 사업도 있고 근데 기계로 하게 되면은 이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일단은 이제 인건비도 이제 들고 또 그다음에 기계 전기 요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들고 그다음에 또 그걸 또 운영하기 위한 그런 것이 조금 많이 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계 건조를 하게 되면은 좀 위생적으로 건조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이제 단가가 어느 정도 이렇게 맞춰줘야지만이 이 수익이 발생하는 그런 형태라서 지금 그래서 이제 뭐 다시마 같은 경우도 이제 대부분 노지에서 많이 이렇

게 건조하시고 근데 기계가 또 이렇게 저기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건조 시기가 또 한정 또 돼 있다 보니까 그것을 기계를 연중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으면은 뭐 수지 타산이나 이런 부분이 맞겠지만은 또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기계 건조하는 것도 이제 대부분 이제 어가들이 조금 이렇게 많이 조금 생각을 해 보시고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재선 의원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그 장단점이 있단 말씀이시죠?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그렇습니다.

○박재선 의원

자료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저 밑에는 저희 지금 해조를 군에서 지원했죠? 8억인가 지원해 가지고 저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저기 신지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선 의원

그리고 저 노화에 보면 하우스형이라고 해가지고 저렇게 자연적으로 안에 이제 자연 햇빛을 보면서 이렇게 가동할 수 있게끔 해가지고 저 특허를 받아놨더라고요.
근데 이제 자금 사정상 또 이렇게 못한 것 같아요.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군에서 지원해 가지고 전기식으로 하는 것과 자연적으로 저렇게 하우스를 만들어서 건조하는 방법 저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이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저희들이 대규모로 해가지고 사업비 들여서 한 것은 지금 아까 그 아래쪽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이제 말씀드렸고 지금 위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크게 이렇게 아마 운영비라든가 그런 부분 크게 아마 소요되지는 않을 것으로 지금 생각은 되거든요.
근데 아마 저렇게 이렇게 건조하는 것도 아마 좋은 조금 사례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박재선 의원

왜냐면 적은 비용에 그 안에 건조 방식만 바꿔면 우천 시에도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박재선 의원

근데 우리는 사실은 많이 하고 있는 금일, 약산 그쪽에서도 보면 비가 오거나 뭐 하면 절대 일을 못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건조 방식도 좀 괜찮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도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박재선 의원

우리 어민들이 사실은 저 해조류 때문에 그쪽 근방에 어민들은 정말 날씨 관계 때문에 하루 며칠 한 달 사이에 저것을 모든 걸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런 방식이 저는 맞을 거라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그런 것을 군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알겠습니다.

○박재선 의원

그러면 군에서는 해조류 건조 방식의 개선에 대해서는 용역 그런 것은 하고 있습니까?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지금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용역은 아

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항상 매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문제가 됐던 어떤 도로변에다가 건조하는 거 그다음에 또 노지의 건조를 통한 어떤 위생상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항상 지금 어떻게 해결을 조금 해야 될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의문이나 이렇게 조금 저기는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해법이 조금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재선 의원
노지에서 하면 사실 보기도 안 좋지 않습니까?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그렇죠.

○박재선 의원
그런 것을 좀 해서 저는 현대화 사업으로 좀 우리가 군에서 많이 해 왔지 않습니까?
수산업에 대해서 근데 그런 부분도 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현대화 사업으로 돌려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습니까?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이제 지금 말씀하신 현대화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양식 시설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제 그게 이제 국비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지침으로 바뀌지 않는 한은 이제 이거 어떻게 보면 가공 쪽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이제 다른 방법을 한번 좀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박재선 의원
그런 것도 영역을 해보면 이제 그 결과가 나올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좀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예.

○박재선 의원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알겠습니다.

○박재선 의원
제가 이제 한 몇 가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조 방식 개선에 대해서 용역도 좀 해 주시고요.
시범 운행도 좀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군에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보면 우리 고령 어민들이 지금 많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분들의 지원도 또한 해 주시고 청년 기업들을 위해서 유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완화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품질 인증제하고 해조류 상품에 대해서도 오히려 완도군의 브랜드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과장님께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우리 기후 변화에 대해서도 로드맵처럼 이렇게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민들이 더 군과 함께 군 차원에서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그 정책으로 인해서 어민들이 더 해조류를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군에서 더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알겠습니다.

○박재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양훈
수산경영과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참조)
· 2025년 군정질문답변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의장 김양훈
조인호 의원님의 본안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조인호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최근 수온 상승과 적조 태풍 등 기후 변화로 인한 해양 환경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요.
그렇죠?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그렇습니다.
○조인호 의원
우리 주변 주력 산업인 수산업이 이러한 변화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으며 어업인들의 생계 안정과 지역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매년 피해 원인과 양상이 달라지더라도 피해가 반복되고 있어 근본적인 예방과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3년간 151억 원에서 약 391마리의 피해가 발생했고 피해액은 약 48억 원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재난지원금 약화산소 공급 등은 예산이 매년 투입되고 있음에도 피해가 해소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지금 가장 큰 이유는 아마 수원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최근뿐만이 아니라 기존에부터 이제 기후 변화에 대 따른 그런 수온 상승이라든가 수온 폭이 커지거나 이렇게 커지는 그런 부분 때문에 가장 큰 그런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인호 의원
고수온 발생의 빈도 강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단기 대응만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그렇습니다.
○조인호 의원
이에 따라 우리군은 양식장 환경 개선과 스마트 양식 기술 보급 등 지속 가능한 구조 전환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지금 저희들이 지금 먼저 지금 어장 재배치 사업을 통해서 지금 양식장 환경을 개선하고 또 전복이나 지금 넙치 같은 경우 고수온 내성 품종 개발을 지금 국립수산과학원 쪽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 계속 건의를 하고요. 또 지금 전복 대체품으로 이렇게 참담치라든가 새조개라든가 이런 부분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인호 의원
피해 예방 인프라 구축 현황을 보면 사전 예방보다는 사후 대응 중심으로 행정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이제 앞으로 그 기후 예측을 저희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가장 어떤 생육 환경이 좋은 좋게끔 그렇게 지금 저희들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바꿀 수는 없지만은 그 부분에 이제 뭐 환경이 악화되더라도 이제 서식 환경을 조금 더 좋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인호 의원
과장님, 우리..... 과장님은 수산 전문직이죠?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그렇습니다.

○조인호 의원

과거에 뭐 수산 전문가들하고 이런 얘기 들으면 수산 박사라고 이야기를 하지, 과거 박사들은 지금 현재하고 아무 지금 상관이 없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수산직 전문직들은 한 10년간 데이터를 분석해서 올해는 이 부분이 계속 로테이션이 되면서 반복적으로 또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또 이런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좀 미비한 것 같아요. 우리 그 부분에서 답변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이제 기존의 예를 들어서 데이터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이제 확보를 하고, 그런 것을 이제 다시 분석을 하고, 통계도 확인을 하고, 이제 해야 되지만 그런 부분이 좀 많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앞으로 이제 근데 예전에 또 했던 방법하고 지금 또 많이 또 이제 시대가 변화하고, 또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또 대응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또 나가야 될 부분을 좀.....

○조인호 의원

과장님 과거 방식은 안 돼요, 지금.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그렇습니다.

○조인호 의원

과거에 박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안을 내야 박사 호칭을 받아야 돼요.

가짜 박사들이 많습니다. 우리군에 수산종자연구소가 있는가요?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우리군에 신지에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저희 군 소속은 아니고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소속으로 종자 연구소가 있습니다.

○조인호 의원

주로 하는 일은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전복하고 전복팀하고, 지금 해조류팀 두 팀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 뭐 전복 품종 계량이라든가 종 보존 뭐 그런 업무를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인호 의원

전복 해조류 신품종 개발하면 기습 보호 담당하지만 어민들 사이에서는 실질적인 도움이 전혀 안 된다고 그런 여론이 많습니다. 과장님, 그런 인식이 왜 나왔는가 한번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이제 신품종을 개발하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또 시행착오와 또 그런 조금 많은 기간이 지금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그 신품종 하나를 예를 들어서 만들었다고 해도 또 현장 적응 시험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어떤 여러 가지 아마 조금 문제 연구 기관 같은 경우는 아마 오래 걸려서 지금 어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이렇게 좀 와닿지 않아서 지금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조인호 의원

완도 정도에 있었던 해양수산과학연구소는 현재 수산 한국수산자원공단 남해연구센터로 변경된 거 알고 있습니까?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알고 있습니다.

○조인호 의원

현재 주요 사업은 바다숲 조성 치어 방류 등인데 이런 사업은 우리 어촌계에서도 더 잘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지금 한국수산자원공단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주로 뭐 이렇게 자원의 생성이라든가 바다 숲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진짜 주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그리고 이제 어떤 전복 고유종이라든가 아니면 뭐 종자사업 방류 효과 조사 이런 부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조인호 의원

우리군하고는 또 업무 협약을 조금씩 합니까? 어떻습니까?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저희들하고 이제 블루카본 관련된 부분 업무 협약 여기 돼 있고 지금 사업도 지금 그쪽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인호 의원

이제 우리군이 수산이 발전하려면은 그런 공단들하고 우리 수산직 우리 과장님들 수산직 공무원들하고 자꾸 미팅을 자주 해야 됩니다, 서로 정보도 얻고. 그걸 자주 하십시오.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재해보험 안내 서한문이 3,500여 가지 발생했지만 실제 가입은 1,134건에 불과합니다.

그중 고수온은 759건에 불과하고요. 보험료 부담이나 보험 한계 절차 복잡성 중 어떤 요인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까?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일단은 이제 높은 보험료 하고 지금 이제 1년 단기 소멸성 보험 구조가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인호 의원

고수온 피해 특약은 가입자만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연간 보험료가 수천만 원에 이릅니다. 게다가 피해 보상을 받지 않아도 같은 지역 어민들 전체로 보험료 할증이 되죠.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그렇습니다.

○조인호 의원

이러한 구조가 어민들 가입 기피로 이어지고 있는데 개선 대책 같은 건 있을까요?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저희들이 이 문제를 지금 계속 해수부하고 지금 수협중앙회 쪽에 지금 재해보험 관련해서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완도군 하나로 지금 여기 돼 있거든요.

그 구역이 그런데 그것을 지금 나눠달라는 지금 그런 건의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잘 이렇게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인호 의원

재해보험 사후 보증이지만 어민들에게 최소한의 우리 안전망입니다.

따라서 보장 범위 확대와 현실적인 지원을 통한 가입 제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제도 개선 건의나 협의할 사항 같은 거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도 올해 같은 경우도 해양수산관계기관 회의에서 이제 도에서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고수온 피해 시 이제 그 약관이 조금 저희들하고 이제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약관 개정을 조금 건의를 했었고요.

이제 농업 쪽은 그러지 않는데 이제 이 수협 쪽 같은 경우는 고수온 피해 확인을 그 행정기관이나 이런 부분이 확인을 해줘야지만이 보험료가 지급이 가능하게끔 이렇게 약관이 돼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뭐 삭제

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7월달에 그 전복산업 상관협의체 할 때도 재해보험료 지금 할증 부분 때문에 지금 지역 분리를 조금 건의를 했습니다.

○조인호 의원

기후 변화로 인한 수산업 피해는 단순한 재해가 아니라 산업 구조의 변화로 대응해야 할 과제입니다.

고수온 질병에 관한 품종 개발 스마트 양식 보급 연구 기관과 협력은 생존 전략입니다, 우리가.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그렇습니다.

○조인호 의원

예를 들어 제주도 제주도는 자체 연구원을 통해 고수온 적응이 높은 광어 수정란을 직접 공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군도 중앙정부 및 관계 기관과 협력을 통해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여 공모 사업을 연계해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도 지금 국립수산과학원 육종 연구 센터에서 지금 넙치의 그 종자 속성장 하는 것하고 내성이 있는 그 종자를 지금 개발을 했습니다.

개발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고금면 양식장 지금 이곳에 지금 시험 양식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복 같은 경우도 지금 개발을 지금 해가지고 지금 테스트하기 위해서 완도군 여기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인호 의원

전복도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조인호 의원

결론적으로 기후 변화로 인한 수산업 피해 복구 중심이 아닌 사전 예방 기술 혁신 연구 협력으로 대응해야 됩니다.

우리군은 주도적으로 고수온 대비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어민들이 우리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과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알겠습니다.

○조인호 의원

그리고 한 2년 동안 지금 고수선 적조 피해가 바다에는 없죠? 바다에서는.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아, 지금 고수는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아까 이제 초반에 답변 드렸다시피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21어가 있었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저기 이제 전복은 없었고, 지금 광어하고 지금 넙치 조피볼락.....

○조인호 의원

이제 광어 같은 경우는 보험이 다 돼 있잖아요.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거의 보험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조인호 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아까 내가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우리 수산 과장님 이시에서 우리 수산직들이 진짜로 현장에도 빠르게 가야 되고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알겠습니다.

○조인호 의원

과거 같이 현장 안 가 가지고 어민들하고 충돌로 지금 법적으로 이어지고 있잖아요.

아직 안 끝났죠? 그런 교훈 삼아서 현장에 현장 상황을 군수에게 바로 보고할 수 있는 그런 보고 체계가 잘 되게끔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알겠습니다.

○조인호 의원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양훈

허궁희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궁희 의원

과장님 짧게 보충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완도 바다고리풀 사용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바다고리풀은 일반적인 해조류와 달리 고수온에 잘 자라서 1년 중 다른 해조류가 자라지 않는 시기에 안정적인 수확이 가능하고 특히 메탄가스를 90% 저감할 수 있는 해조류 양식에 급부상하는 품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그렇습니다.

○허궁희 의원

그래 올 6월에 바다고리풀 양식 산업화를 위한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몇 군데에서나 이게 지금 연구 중입니까? 생산이 되고 있습니까?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지금 현재는 이제 시험 양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저희 군 내에서 지금 한 3개 이제 업체도 있고 이제 기관도 한 군데 있거든요.

각자 지금 바다오리풀 이제 생산을 위한 어떤 좀 기초적인 그런 지금 시험 양식이라든가 이렇게 포자 종자 개발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허궁희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저희들이 지금 이제 국립수산과학원 아니,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에서 지금 종자연구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지금 바다고리풀 종자를 배양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지금 육상에다가 지금 양식을 일부 하고 있고 지금 해상에도 지금 시험 양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금일 쪽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업체 같은 경우는, 업체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 종자 생산을 하기 위한 그런 그 배양장이라든가 연구소를 지금 설립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부지는 지금 망석리 쪽에다가 아마 그것을 설립하기 위해서 지금 절차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궁희 의원

그러면은 지금 실험만 하고 있지 실제로 생산되고 있는 과정이 있는가요?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아직은 없습니다.

○허궁희 의원

없죠. 아니 제가 왜 그걸 지금 묻냐면요. 3자 협무 협약은 체결했다 하는데 현장을 가보고 싶어도 가서 볼 수 있는 그 현장이 없다는 말이 들려요.

그래서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사용화가 가능한 건지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게 이제 바다고리풀이 양식이 됐을 때 주로 어디에 이렇게 사용이 가능한 건지?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이게 이제 소 사료에 이제 주로 이 성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성분을 넣으면은 이제 사료하고 섞으면 이제 그 메탄가스들을 조금 획기적으로

그런 이제 논문이나 자료들은 아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궁희 의원

이제 그런 얘기는 많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는데 어디서 양식하냐 이러면 확인할 길은 없어요.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현재 양식은 없습니다.

○허궁희 의원

그러면은 그 지금 바닥 오리풀 사용 사용화에 있어서 장애물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지금 아직 이제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이제 베트남 쪽에서 이제 또 한 업체가 이제 그쪽에서 하다가 이제 완도 쪽으로 이제 와서 연구를 이제 하기 위해서 배양장도 건립하고 연구소도 건립할 계획인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수온이라든가 영양 염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틀리기 때문에 그쪽하고 쭉 지역하고 시험 양식을 통해서 정확하게 양식할 수 있는 어떤 데이터라든가 이런 부분을 확보가 돼야지만이 지금 양식이 조금 가능할 것 같습니다.

○허궁희 의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그래도 이제 수산 전문가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과장님이 봤을 때 사용화의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지금 아직 이제 뭐 상용화까지는 이제 조금 이제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지만은 상용화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허궁희 의원

화면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지금 보도에도 나온 것처럼 바다고리풀 전용 연구소 건립도 추진하고 있다는데 이와 관련해서 한번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저희들이 원래는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지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 망석리 쪽에 부지 확보를 했는데 지금 이것에 대한 원래는 9월에 착수를 할 계획이었는데 이제 업체가 지금 자금난으로 지금 착수 시기가 조금 현재는 미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허궁희 의원

그러면은 바다고리풀 사업은 국비 확보가 당연히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 거기에는 추진한 내용이 있습니까?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지금 국비로 지금 아직까지 추진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허궁희 의원

그럼 개인이 추진을 하고 있는가요?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그렇습니다.

○허궁희 의원

가능할까요, 개인이?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근데 이제 양식에 대한 부분은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저희들이 이제 유원 양식 품종 사업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감태라든가 아니면 뭐 곰피라든가 이런 부분을 양식 시설을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이제 가능한데 지금 현재는 양식을 하기 위한 어떤 기초 단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만약에 이제 이런 업체에서 필요하다 하면은 어떤 R&D 사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아마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지자체 내에서 R&D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허궁희 의원

그렇습니다. 이제 이렇게 협약도 하셨고 추진

도 이제 여러 방면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이렇게 생산되거나 눈에 보이는 그런 사업들은 없어요.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그렇습니다.

○허궁희 의원

그래서 이런 과정은 이제 우리 수산과에서 잘 파악해서 추진해 주시고 만약에 가능성이 있다 하면 우리군이 주축이 돼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잘 알겠습니다.

○허궁희 의원

이상 보충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양훈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수산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10시5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5분 회의계속)

○의장 김양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휴양과장 나오셔서 한 건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산림휴양과장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참조)

· 2025년 군정질문답변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의장 김양훈

조영식 의원님의 본안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조영식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자료를 보니까 산림휴양과에 추진하는 대기 시설이 생각보다 아주 적습니다.

당황스러운데 담당 부서에 배정돼 있으니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알겠습니다.

○조영식 의원

과장님 여러 의원님들이 데크 시설을 지향하라고 지적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크 시설을 선호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데크 시설을 아무래도 선호하는 이유는 접근성에 어려움이 있어서요.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신속하게 데크를 설치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라든지 또는 그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면서 이용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장점 때문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식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데크가 시공이 편리하다는 이유로 산림 관련 사업에 선호하고 있는 게 사실이죠?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예. 그렇습니다.

○조영식 의원

유지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답변 자료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최근 3년간 타 부서 포함 데크 설치 비용이 10억 9천만 원인데 비해 보수 비용이 무려 13억 4천만 원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의원님 말씀처럼 데크 시설 유지 보수에 많은 비용이 소요가 되고 있고요.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데크 시설을 최소화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친환경 자재 사용 이라든지 또 반영구적 그런 시설물 전환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영식 의원

이런 유지보수도 세금으로 수리하겠죠?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예. 그렇습니다.

○조영식 의원

이런 여러 의원님께서 수차례 데크 설치를 지양하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보고서를 보니까 데크 시설로 제일 많은 시설 관리하는 주무부서가 관광실이네요.
여기 관광실장님 계시면 관광실장님께 몇 마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자료를 보면 지난 3년간 관광지와 해수욕장 유지보수 비용이 반복적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3년간 보수 비용이 무려 9억 원이나 돼 있네요. 실장님 관광객의 편의와 안전을 위한다지만 결과적으로 군민 혈세만 낭비하고 있다 생각되어지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실장 안환옥

기존에 시설된 데코가 노후돼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안전상 좀 보수가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내년부터는 시범 교체 사업으로 해가지고 알루미늄데크나 세라믹데크 등 친환경 소재로 좀 해 볼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조영식 의원

데크 시설 이야기하니까 방송실까지 아주..... 지속적인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하는 구조라면 관광실에서 데크 시설을 자체를 최소화하거나 불필요한 시설은 과감히 철거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떤 의견인가요?

○관광실장 안환옥

단계별로 해서.....

○조영식 의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의 아니게 관광 실장님께 질문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여기 계신 실과장님께도 데크 시설을 할 때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도 최근 데크 시설 안전 관리 상황을 지적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데크 시설이 부서별 제각각 설치 관리되다 보니 중복 관리 사각지대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 차원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즉 전담 조직이나 총괄 체제를 말할 계획은 있습니까?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의원님 말씀처럼 전담 조직을 신설하기 위해서는요. 인력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획예산실에서 예산 절감을 위해서요. 계약심사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심사 시에 데크 설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심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식 의원

그러면 각 실과에서 설치한 데크 시설은 그 과에서 관리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까?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예. 그렇습니다.

○조영식 의원

데크 시설 하면 아무래도 등산로, 생태숲, 산림 조성 사업과 관련되다 보니 산림휴양과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다양한 부서에서 추진하게 되었음을 알게 됐습니다. 이럴수록 또 혹시 전담 부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관련 부서끼리 잘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예. 알겠습니다.

○조영식 의원

우리군은 친환경 산림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후된 목재 데크를 내구성이 높은 자재로 교체하거나 불필요한 시설은 과감하게 철거할 의지가 있는지 한 번 더 묻고 싶습니다.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식 의원

그리고 보고서 4쪽에 보니까 갑자기 칡넝쿨 및 병충해 방제라고 돼 있죠? 친환경 산림 조성 사업.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예. 그렇습니다.

○조영식 의원

갑자기 궁금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여기 약재명 하늘아래 친환경 약재 사용 그랬는데 우리 어느 지역, 어느 곳에 보통 사용하고 있습니까?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저희들이 보통 칡넝쿨 제거는 주요 관광지라든지 또 주요 도로변 그런 위주로 집중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식 의원

성능은 아직 괜찮습니까?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초기에는 이게 고사가 되는데요.

이제 칡넝쿨 특성상 번식력이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한차례 정도 방지 갖고는 힘들고요. 한 두세 차례 정도 계속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조영식 의원

성능이 그러면 과장님 입장에서는 좀 괜찮다.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다른 약재에 비해서는 좀 성능이 좋은.....

○조영식 의원

개인적으로 완도군이 칡넝쿨이 너무 많습니다. 파악하시고 계시죠? 그런데 개인적으로 각 농어가에서 주민들이 칡넝쿨을 제거하고 싶은데 어느 게 잘 드는가 어느 게 더 좋은 약재인가를 몰라가지고 이렇게 못 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홍보도 좀 부탁드리고 그래줬으면 좋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예. 알겠습니다.

○조영식 의원

마무리하겠습니다. 데크 시설은 군민과 관광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다는 명문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지난 3년간 목재 부식과 파손 그리고 막대한 유지보수 비용이 집행된 사실은 우리 행정이 단기적 편의에 치중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효율적으로 쓰이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제 불필요한 테크 시설은 과감하게 지향하고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내구성이 있는 친환경 자재와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충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양훈

산림휴양과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참조)

· 2025년 군정질문답변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의장 김양훈
허궁희 의원님의 본안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허궁희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궁희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우선 소나무재선충 방지와 관련하여 지난 의회 간담회에서도 선제적 방지에 대한 당부를 드렸죠?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예. 그렇습니다.
○허궁희 의원
그리고 의회 차원에서도 예비비까지 투입해서 선제적인 방지를 부탁했는데도 이제 재확산이 됐네요. 군민들께서 우려의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죠?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허궁희 의원
답변서를 보면 소나무재선충 재확산의 원인이 재선충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 우화기 활동과 이미 감염된 미병진 감염목이 다수 발생된 거라고 하셨어요.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예. 그렇습니다.
○허궁희 의원
그러면 작년 10월 피해지 주변으로 역학 조사를 실시했다고 했는데 역학 조사에서는 미병진 감염목을 발견이 어려운가요?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예. 그렇습니다.
○허궁희 의원
그리고 피해지 주변 조사를 했는데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에 따라 발생지로부터 반경 2킬로미터 정도로 역학 조사에 들어간 거 맞습니까?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예. 맞습니다.
○허궁희 의원
의회 간담회 때도 동료 의원들께서 지적했듯이 2km가 아니라 3, 5km 이렇게 확장해서 조사를 해보면 어쩌냐 이렇게 말씀들을 했어요.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예. 그렇습니다.
○허궁희 의원
올해는 그렇게 한번 역학조사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데 거기에 대한 구상이나 계획이 있는가요?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의원님 말씀처럼 광범위한 예찰활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산림청 헬기를 이용해서 재선충 발생 지역인 완도라든지 구해뿐만 아니라 신지, 고금, 약산까지 정기적으로 항공예찰을 하고 있습니다.
○허궁희 의원
그렇게 좀 넓게 좀 예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서를 보면 올해 10월 기준으로 누적 250건으로 발생했는데 발생지역이 가용리와 장좌리, 죽청리 부근에 집중돼 있는데 뭐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지금 현재 저희들이 소나무재선충 발생 지역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가용리하고 죽청, 장좌리인데요. 최초 감염지가 이렇게 가용리다 보니까 연접이 되어 있고 또 현재 소나무가 집단적으로 군락을 이루고 있는 그런 환경이 주요 전파 원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궁희 의원
올해 2월부터 3월까지 54.9헥타르의 예방 나무 주사 사업을 추진을 하셨네요.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예. 그렇습니다.
○허궁희 의원
사용된 약재나 주성분, 또 이렇게 약효 지속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파악해 보셨는가요?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방제약품은요. 지금 저독성 솔키퍼인데 솔키퍼는 저희들 그 소나무 재선충뿐만 아니라 솔수염하늘소까지 이렇게 방제하는 효과가 있고요. 지금 현재 약효 지속 기간은 최대 4년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궁희 의원
그러면 이미 감염된 소나무에 예방 나무 주사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아직 없는가요?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지금 현재까지 감염된 그런 부분은 이렇게 베어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허궁희 의원
작년과 올해 방제 사업을 보면 총 2,916번 소나무 벌채 및 파쇄, 잔가지 줍기 등을 진행을 했네요.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예. 그렇습니다.
○허궁희 의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지 한번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일단 저희들이 방제 작업은 우선적으로 소나무 감염목으로 벌채를 하고요.
또 감염목으로써 한 30미터 이내에 있는 증상이 나타나는 미병진 소나무에 대해서는 이제 모두 베기를 실시하고요.
벌채된 나무라든지 잔가지들을 모두 이렇게 수집을 해서 지정된 장소로 이동을 한 후에 전량 파쇄 조치하고 있습니다.
○허궁희 의원
과장님 단목 벌채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단목 벌채는 저희들이 그 소나무 단선엽에는 적용하지 않고요.
활엽수 내에서 이렇게 한 그루 한그루 이렇게 베어내는 그 벌채 방식입니다.
○허궁희 의원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이 사진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제주도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성공에 따른 변화 그래프입니다.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예. 봤습니다.
○허궁희 의원
피해 극심 지역과 피해 최외곽 지역의 소구역 모두 베기와 소군락 모두 베기를 시행했더니 고사 목수가 확 줄었다는 겁니다.
아 기존 단목 벌채에서는 제거할 수 없는 미병진 감량목을 제거하는 데 큰 효과가 있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저보다 더 전문가니까 잘 아시겠지만 우리도 재확산 이전에 소군락 모두베기를 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저희들도 지난해 최초 이렇게 발생했는데요. 저희들 이제 방제 효과가 가장 높은 게 방금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소구역모두베기입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이렇게 지난해도 마찬가지로 금년에도 이렇게 소구역모두베기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허궁희 의원
아무래도 이제 재확산이전에 이런 부분을 선

제적으로 실시했다면 효과가 더 좋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 봅니다.
이어서 산림 병해충 예찰단은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예. 2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궁희 의원
무슨 자격 요건이 있습니까? 아니면 일반인들입니까?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지금 현재 특별한 자격을 보유한 자로 제한하지 않고요.
일반 군민들을 이렇게 모집 공고해서 교육을 통해서 병해충 식별이라든지 방제 요령 또 시료 채취 그런 요령을 습득한 후에 현장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허궁희 의원
최근 예찰 문제를 언론에서 한 번 다룬 적 있죠?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예. 알고 있습니다.

○허궁희 의원
소나무 재선충 4억 원 투입하고도 재확산, 현장 관리 부실했다는 내용인데 이 부분은 어쩝니까? 우리 행정이 부실하게 대처를 한 거 인정하십니까?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아니요. 그 부분은 아니고 저희들이 작년에 최초에 이렇게 발생했을 때 이제 문제점을 아마 이번에 인용해서 이렇게 보도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모 신문에서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마는 대강 신고 건은 이미 저희들이 항공예찰이라든지 드론예찰을 통해서 기 확보한 그런 지역입니다.

○허궁희 의원
언론 내용을 보면 감염목 모두베기 사업을 추진했지만 6개월이 지나지 않아 대가용리 일대에서 재선충으로 의심되는 말라 죽는 소나무가 보인다는 주민 제보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번 재선충 확산은 주민 신고로 알려져 게 맞는지 아니면 우리 이렇게 예찰단이 발견을 한 건지 그것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일반인이 신고한 건수에서 한 7건이 되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1건이 재선충으로 판명이 됐고요. 그 외에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 예찰 과정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허궁희 의원
과장님 재선충 방제는 예찰 활동이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원이 적으면 더 고용을 하더라도 우리 도서지역에도 한 번씩 둘러보시고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그럴 계획이 있는가요?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일단 저희들도 그 애찰 면적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을 담당 구역을 지정을 해서 수시로 이렇게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허궁희 의원
사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저게 지금 화면 본 의원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 것은 지금 어딘지 모르시죠?
저게 이제 저기 여수 가는 길들이에요. 여수 가는 길목인데 꼭 단풍 들듯이 저렇게 심합니다.
그리고 이쪽 우리 이제 좌측이 우리 전에 그 전에 발생된 것이고 발생 후가 저렇게 심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완도는 지금 저런 상황은 아닌 것이 다행이다는 걸 왜 느끼냐면은 저런 타

시군에서도 관리를 잘못해서 저런 현상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예. 그렇습니다.

○허궁희 의원

우리 완도는 그래도 아직까지 참 관리를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을 비롯해서 제가 지적은 좀 몇 가지 했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이 예찰 활동이나 이런 것을 열심히 해서 지금 더 확산은 안 되고 있죠?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지금 현재 발생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존 발생지 내에서만 발생하고 있고요. 타 지역에서는 지금 현재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허궁희 의원

그래서 예찰단을 좀 더 늘리면 좋겠다 이런 그 제안을 하고요.

앞으로도 관리를 잘해서 우리 완도의 청정 바다뿐이 아니라 산림도 이렇게 산림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궁희 의원

이상 보충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양훈

산림휴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수질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환경수질관리과장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참조)

· 2025년 군정질문답변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의장 김양훈

박성규 의원님의 본안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박성규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규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오셔서는 비가 자주 왔어요.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박성규 의원

지금 다행히 우리 평균 저수율이 90%가 넘습니다.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예. 90% 넘습니다.

○박성규 의원

그러나 이제 완도군은 도서 지역으로 이루어져서 안심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예. 그렇습니다.

○박성규 의원

우리 불과 3년 전만 해도 보길, 노화 가뭄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죠?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예.

○박성규 의원

우리 공무원들도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그때 당시 문제점은 어떻게 분석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제도적 기술적 장치를 마련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지금 보길 부황제는 인구 대비 수원지 용량이 굉장히 부족한 현실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부항천에 지하 댐을 설치해서 지금 계속 올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비상 공급망인 광역망을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고, 지금 기본 계획에 지금 제2수원지를 기본 계획에 반영해서 지금 마무리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박성규 의원

지금 저류조는 잘 가동되고 있습니까?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예. 저류조는 지금 1일 평균 천 톤을 올리고 있습니다.

○박성규 의원

확인 했어요?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예. 천 톤 이상도 올리고 있습니다.

○박성규 의원

소안로에도 저류지를 지금 시설하고 있죠?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지금 소안하고 청산도 지하 저류댐을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중에 있습니다.

○박성규 의원

공사가 진행 중입니까? 아직 안 하고 있습니까?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지금 설계 지금 마무리 소안은 설계 마무리 단계고 청산은 지금 실시 설계에 이제 막 착수할 단계입니다.

○박성규 의원

그 답변 자료를 보면은 노화 넙도 급수 내 물 사용량 증가로 지하 수위가 낮죠, 넙도는. 저수지가 물이 고이지 않아요.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면적이 너무 적다 보니까.

○박성규 의원

물이 고이지 않고 아무리 비가 많이 해도 고이지 않고 빠지고 그렇습니다.

거기는 또 저류조 하기도 힘들죠.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그렇습니다.

○박성규 의원

여건이 안 맞습니다.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유용면적이 너무 적다 보니까.....

○박성규 의원

그리고 또 관정을 개발하려고 해도 주민들 동의 받아야 되고 적당한 땅이 없어서 못 하고 있죠.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저희들이 보조 수원으로 해수 담수화를 지금 이용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고갈되면 새로 이렇게 지하수 판다는 게 굉장히 어렵고요.

물도 좀 잘 안 나오는 지금 현실입니다, 지금.

○박성규 의원

김 공장 할 때는 물이 잘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또 주민들이 또 반대하고 이래서 지하수 파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나 더 조사를 해서 우선 넙도 같은 경우는 관정을 좀 개발해서 물 확보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외국인도 많고 주민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노화 넙도가 생일보다 인구가 많은지 알죠?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예. 알고 있습니다.

○박성규 의원

인구 숫자도 많고, 외국인이 각 가정마다 4명, 5명씩 있습니다. 그래서 물 사용량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넙도도 광역 상수도 넙도는 왜 빠졌습니까? 광역상수도를 혹시 넙도까지 할 수 있는 그 계획은 없습니까?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지금 비상공급망에서는 지금 넙도가 지금 제

외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 시설이 완료되고 난 후에 환경부와 협의해서 연결할 수 있도록 저희 노력하겠습니다.

○박성규 의원

방금도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광역상수도 현재까지 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또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지금 우리 광역상수도망은 23년 9월에 한국수자원공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서 지금 현재 설계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환경부 승인만 지금 남겨 놓은 상태고요. 올 12월달에 발주를 내서 27년 12월까지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규 의원

올 12월달에 발주해서.....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예, 예. 그렇습니다.

○박성규 의원

몇 년도에 완공이요?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27년 12월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박성규 의원

27년 12월에요. 광역상수도 추진 실적 보고에 보면은 당초 예산이 854억이에요.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당초 예산은 679억 원이었을 겁니다.

○박성규 의원

그러면 지금은 679억 원으로 돼 있는데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지금 늘어난 이유는 지금 승인이 아직 덜 떨어져서 지금 679억으로 지금 계속 이렇게 기재를 하고 있고요. 환경부 승인이 최종적으로 선정되면 지금 총사업비 승인을 받고 있기 때문에 되면 이제 다시 854억으로.....

○박성규 의원

증액할 계획이에요?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그렇습니다. 기재하겠습니다.

○박성규 의원

예산이 늘어나면 늘어나야지 줄어들면 되겠습니까?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예. 맞습니다.

○박성규 의원

꼼꼼히 잘 체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규 의원

답변 자료에 보면 부항 저수지율이 지금 100%인데 100%를 쓸 수 있는 날로 계산하면 144일이에요.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예. 그렇습니다.

○박성규 의원

개월로 환산하면 5개월이 채 안 됩니다. 조금만 가뭄이 들면 사실은 한 3, 4개월만 3개월만 가뭄이 들면 보길, 노화는 바로 가뭄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노화, 보길 주민들은 여전히 제2상수원지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예. 그렇습니다.

○박성규 의원

부황지 하나만으로는 주민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수치로 보여주고 있어요. 제2상수원을 설치하는데 필요성이 절실합니다. 과장님 그렇죠?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예. 그렇습니다.

○박성규 의원
그래서 이에 대한 우리 집행부 입장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23년도에 우리 박재선 위원장님께서도 이렇게 한번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그거 가지고 지금 우리가 지금 완도군 수도 정비 기본 계획을 지금 변경 중에 있습니다. 아마 내년 초 1월달, 2월달이면 이 정비 계획이 완료됩니다.
그 정비 계획에 보길 정자리에 제2 수원지의 건립을 지금 반영을 했습니다.
○박성규 의원
장소는 좋은 데가 있어요. 보길도 정자리가 하기가 좋은데 이제 주민들 동의도 받아야 되고 환경 평가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항구적으로 물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 정자리 거기를 제2의 상수원을 막아야 된다고 합니다. 지금 해남에서 우리 광역상수도가 와도 1천 톤으로 그렇게 묶어져 있지 않습니까?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그렇습니다. 1일 1천 톤으로 지금 묶여져 있는데 좀 부탁하면 좀 더 들어주지 않을까요?
○박성규 의원
부탁 한번 줍니까?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아마 그럴 예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성규 의원
가뭄의 구조적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로 지금이야말로 항구적 대책 마련 시기임을 잘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예.
○박성규 의원
지난 가뭄 때 물 좋기로 유명한 약산도 가뭄으로 고통을 받았어요.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그렇습니다.
○박성규 의원
그러면 고금, 약산권은 제2의 상수원지 뭐 계획이 있습니까?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고금 약산은 지금 제2수원지보다는 지금 완도읍 대야정수장에 지금 물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고금, 약산 배수지에 떨치는 방향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성규 의원
약산 물 좋다 해도 약산도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고금, 약산권도 그런 계획을 잘 세워서 연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규 의원
그리고 이번 추석 때 고금 일부 지역에 급수 단수가 일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랬습니까? 그 원인이 뭡니까?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그 문제점으로는 지금 고금 덕동에 있는 배수지가 용량이 좀 작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추석 전이라 용량은 부족한데 사용량이 급증하다 보니까 그때 5개 마을이 한 12시간 단축된 것이 있었습니다.
○박성규 의원
명절 때 제사도 지내야 되고 또 객지에 계신 분들이 많이 내려와 계신데 사업하기도 불편하고 제사 지내는 데에도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 앞으로 또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규 의원

그리고 금일 동백리 수원지 개발 사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지금 금일 동백리 사업은 금년 5월에 착수를 해서 현재 벌개제근하고 토공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성규 의원

하고 있어요.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예. 그렇습니다.

○박성규 의원

수고스럽지만 제2수원지 사업은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착실히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 낙도 지역 수원지 개발 사업은 대부분 마무리되고 우리 군외 고마도 안 남았나요?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그렇습니다. 지금 큰 것은 고마도만 지금 현재 남았고요.

내년에 설계를 착수합니다.

○박성규 의원

도서 낙도 추가로 식수원 개발할 지역은.....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지금 고마도 외에는 해저 관로로 하는 것은 조금 어렵고요.

해수담수화 시설을 계속 지금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곳은 저희들 더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규 의원

이 부분도 추가로 할 낙도가 있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규

우리 완도군의회에서는 지난 의정 연수 때 가뭄으로 고통 받는 강릉시의회를 방문했어요.

2리터짜리 6,000병을 우리 전달하고 왔습니다. 지난 3년 전 가뭄 때 강원도에서 우리 완도군을 생수를 전달했어요.

이번에는 우리 완도군이 따뜻한 온정을 전달하고 왔습니다.

본 의원은 군정 질문 답변을 통해 가뭄에 대비하고자 질문했는데 여기저기 대비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느껴집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지금은 현재 이상 기후로 인해서 가뭄 빈도가 굉장히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 자체적인 수원지 개발하고 보조 수원지 개발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들도 굉장히 공감하고 있고요. 이것은 가뭄을 대처하기 위해서 저희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성규 의원

현재는 저수질이 일정 수준 유지되어 다소 여유 있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완도군은 도서 지역이라 특수성으로 인해 언제든지 가뭄 위기에 직면할 수 있으며 실제로 군민들께서는 반복적인 급수 불편을 겪어 왔습니다.

더구나 대한민국도 국제적으로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될 정도로 수자원 관리에 취약한 현실이 놓여 있습니다.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물 관리 대책을 잘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양훈

환경수질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4시00분 회의계속)

○의장 김양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한 건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오현철

(참조)
· 2025년 군정질문답변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의장 김양훈
박재선 의원님의 본안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박재선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서에서도 그랬듯이 조형물의 총괄은 우리 지역개발과죠?

○지역개발과장 오현철
예. 그렇습니다.

○박재선 의원
그러면 지역개발과에서 총괄해야 되는데 심의의뢰를 받지 않고 조형물을 세웠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지역개발과장 오현철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그런 조례에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능이 좀 그동안 작동이 안 됐던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 제가 이제 왔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촘촘하게 좀 관리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선 의원
그러면 혹시 이제 기 설치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설치됐던 곳은 이제 보수도 해야 될 거고 그랬을 때는 실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어디서 합니까?

○지역개발과장 오현철
좀 전에 제가 답변드렸다시피 실과에서 모든 관리 책임이고, 보수 이런 부분까지 해야 됩니다.

○박재선 의원
지역개발과에서 한 거 조형물을 세웠던 부서입니까? 아니면 지역개발과니까.

○지역개발과장 오현철
조형물을 세운 설치 부서입니다.

○박재선 의원
설치 부서에서?

○지역개발과장 오현철
예.

○박재선 의원
총괄적으로 총괄은 지역개발과라고 했는데 이제 보수는 같은 그 부서에서 해야 된다 하면 그건 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지역개발과장 오현철
저희가 이제 실과에서 조형물을 설치하고자 했었을 때 저희가 심의라든가 이런 제반의 사항들을 저희가 이제 의결을 해 주면 실과에서 관리라든가 그다음에 점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박재선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완도군에 18개라고 아까 설명을 했어요. 18개 중에는 전체적인 심의를 다 받아서 18개입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고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게 18개소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오현철
지금 현재 심의는 제가 답변 드렸던 2건, 지금 심의하고, 나머지는 심의 절차가 이행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박재선 의원

그럼 전체적으로 심의 의뢰를 많이 않고 있네요, 관례적으로.

○지역개발과장 오현철

예.

○박재선 의원

근데 앞으로는 그러면 또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지역 개발계획 심의위원회를 꼭 거쳐야 됩니까?

○지역개발과장 오현철

조례에 명문화돼 있기 때문에 이 기능을 반드시 저희가 작동을 시켜서 조례에 맞게 저희가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재선 의원

그렇죠. 그것은 지금 보고 있으니까 부서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원하면 부서에서 저희들이 조형물을 좀 해달라고 하면 그때 그 실과에서 그때그때 심의 의뢰를 제대로 받지 않고 무작위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 금액을 보니까 꽤 많아요. 한 60억 대 넘어요.

18개소에 그런데 그 많은 예산을 쓰면서 책임자가 제대로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식이 되면 제대로 관리도 되지도 않고요. 그렇죠? 제일 이 사례가 지금 주도 앞에 있는 그 조형물 아시죠?

○지역개발과장 오현철

예. 그렇습니다.

○박재선 의원

군수님께서도 지적을 많이 하고 계시죠? 어떻게 철거할 방법도 없죠?

○지역개발과장 오현철

이제 저희가 이제 조례에 의해서 이제 관련 설치했던 부서에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담아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다 이렇게 시달토록 하겠습니다.

○박재선 의원

혹시 그 조형물은 부서가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오현철

예.

○박재선 의원

있어요?

○지역개발과장 오현철

예.

○박재선 의원

그래요. 전에도 보니까 어 지민 의원님께서도 전에 한번 제가 제 기억으로 생각납니다. 이 조형물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했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기한 거고요.

아까 보니까 조례 15조 2항에 보면 연 1회 공공 조형물은 꼭 관리 계획 수립해야 된다라고 했죠? 그거 하고 있어요, 계속?

○지역개발과장 오현철

이제 이런 제반의 사항들이 지금 현재 작동이 좀 안 된 그런 부분도 있어서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고요. 이제 이후부터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선 의원

관리계획 수립하면 저희 저한테 개별적으로 좀 통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오현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선 의원

이제 여기 저는 그렇습니다. 이 조형물이 완도군의 꼭 필요한 곳에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부서별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완도군에 가면 실제로 보기 싫은 조형물이 많이 있고요.

또 화흥포항에 가면 고래가 좋습니다. 그런데 또 실질적으로 관광객이 가서 또 접근해서 그 조형물을 보고 사진 촬영하기에는 참 안타깝

습니다.
그런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조형물들을 총괄적으로 여기 과장님뿐만이 아닙니다. 여기 계신 부서장님도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럼 총괄적으로는 앞으로 지역개발과에서 해 주시고 부서에서 이제 요구해서 하는 건 심의 의뢰만 받아주시고 지역개발과에서 총괄적으로 전체를 맡아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오현철
저희가 이제 설치를 하는 어떤 결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 과가 아니지만 저희가 심의 의뢰가 들어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사항들을 저희가 주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점검이나 이런 부분을 했기 때문에 그 시기가 되면 저희가 일괄적으로 부서로 이렇게 문서 통보하는 그 시스템을 작동하겠습니다.

○박재선 의원
이제 지역개발과에서 1년마다 검사를 하고 부서별로 통보해서 잘못된 것을 시정하라.

○지역개발과장 오현철
저희가 이 부분을 실과 자체 내에서 점검 보수 이런 부분들을 하고 그 결과를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박재선 의원
그래요. 꼭 우리 그 흉물이 되지 않고 우리 완도군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가면 너무 많이 안타까운 게 있어서 사실 이걸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심의 의뢰는 꼭 지역 개발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저희들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형물을 세울 때는 저희 의회하고도 같이 동참해서 같이 의원들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같은 의견도 같이 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오현철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심의위원 중에 의원님 한 분이 꼭 반드시 참석위원으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박재선 의원
그렇게 해서 그쪽 꼭 흉물이 되지 않고 우리 완도군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오현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양훈
지역개발과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오현철

(참조)
· 2025년 군정질문답변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의장 김양훈
박병수 의원님의 본안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박병수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관광과에서도 고생이 많으셨는데 앞으로도 완도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지역개발과장 오현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수 의원
먼저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도시재생사업이 무엇이며,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오현철
일단 낙후된 도시를 재생을 통해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소득을 창출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병수 의원
농어촌의 인구 감소나 산업 구조 변화 또 주거 환경 노후화 등으로 침체된 기존 도시 공간을 재정비해서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게 주 목적이죠?
○지역개발과장 오현철
예. 그렇습니다.
○박병수 의원
그렇다면 도시재생 사업 목적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오현철
지금 이제 제가 와서 보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나름 제대로 작동되는 그런 부분들도 좀 많이 있고요. 약간 좀 미흡한 그런 부분들도 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병수 의원
본 의원이 마무리되는 도시재생 사업장 몇 군데를 한번 다녀봤습니다.
방송실 사진 한번 올려주세요.
작년에 오픈한다고 할 때 항동 카페를 방문한 기억이 있는데 1년도 안 돼서 문이 닫혀져 있고 건물 주변은 잡초들이 무성하게 자라서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지역개발과장 오현철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알고 있고 여기 같이 있는 우리 최정욱 의원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마을을 통해서 사업자를 다시 공고를 통해서 선정을 했고요. 지금 현재 협약 체결을 하고 지금 현재 오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의원
준비를 하고 있는가요?
○지역개발과장 오현철
그렇습니다, 의원님.
○박병수 의원
지금 마을 기업도 설립이 돼 있죠?
○지역개발과장 오현철
예. 마을 기업.
○박병수 의원
운영되고 있는가요? 그러면.
○지역개발과장 오현철
이 마을 기업이 저런 카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위탁을 받기 위해서 마을 기업이 설립이 됐고요.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도만 중간에 그 역할만 하고 있지 기업과 개인이 마을 주민이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금 현재 계약을 통해서 운영을 하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박병수 의원
그럼 앞으로 개방이 되겠네요.
○지역개발과장 오현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에서 좀 도움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병수 의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그 시설물 사후 관리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오현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수 의원
다음 또 사진 하나 올려주세요.
다음은 도시재생 인정사업 구 문화원 또 현장을 한번 다녀봤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업무추진 실적 보고 때 그 허궁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인데요.
건물이 준공된 지 상당 기간이 지났지만 1층은 비어 있었습니다.

운영에 대한 관리 전환이나 위탁은 되었는가요?

○지역개발과장 오현철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당초 저 건물을 리모델링하면서 주민복지과에 아동 관련 시설들이 다 오는 걸로 지금 저렇게 알았었는데 중간에 어떤 어떤 이유로 아무튼 일부만 저기 와 있고요. 1층은 지금 현재 들어가는 오른쪽은 지금 현재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병수 의원

그러죠. 1층 급식지원센터 입주 회의라고 돼 있거든요. 건물 자체가 습하고 또 곰팡이가 많이 비어 있어서 입주를 또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신가요?

○지역개발과장 오현철

저희가 이제 저희가 이제 관광과에 있을 때 이사회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온 걸로 결정을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 기존에 저희 1층이 습이 많은 어떤 구조였는데 그걸 근본적으로 어떤 것들을 해결치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급식관리 지원센터 주 대상이 아동이고요. 그러다 보니 그런 부분들에서 좀 적합하지 않다라는 어떤 많은 어떤 고민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입주 안 하는 걸로 저희한테 통보가 됐습니다.

○박병수 의원

앞번 과장님께서 업무 추진 실적 보고 때 활용 방안을 찾아서 관리 대책을 모색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지역개발과장 오현철

예. 그렇습니다.

○박병수 의원

인정하시죠?

○지역개발과장 오현철

예.

○박병수 의원

그러면 앞으로 이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오현철

그래서 저희가 이제 1층 구조는 그러고요. 이제 2층과 3층은 저희가 이제 그런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어떤 예술 단체라든가 이런 부분들하고 주기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그 공간에서 그런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기회를 주고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병수 의원

당초 청소년을 위해 추진한 사업이죠?

○지역개발과장 오현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병수 의원

청소년이 접근하기 어려운 산 중턱에 위치해서 시작부터 말썽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오현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병수 의원

예. 그러죠. 사업 시작 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했더라면 이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신가요?

○지역개발과장 오현철

예. 그렇습니다.

○박병수 의원

답변 자료를 보면 완도읍과 금일읍 2개만 2개의 읍면만 도시 재생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2개 읍면만 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가요?

○지역개발과장 오현철

아니요. 저희가 이제 도시계획 지역에 우리 군외 원동하고 완도하고 금일, 노화 네 군데

지 않습니까?

○박병수 의원

어디요?

○지역개발과장 오현철

도시계획 지역이.....

○박병수 의원

도시재생 사업.....

○지역개발과장 오현철

아니, 그게 지구가..... 네 근데 지금 현재 완도 그다음에 금일, 노화 이렇게 지금.....

○박병수 의원

4개 읍면인가요? 그러면.

○지역개발과장 오현철

예.

○박병수 의원

도시계획지구 읍면이.

○지역개발과장 오현철

군외, 원동.

○박병수 의원

다른 읍면도 두 개의 읍면이네요. 노화 그러면 노화는 지금 신청을 했는데 지금 떨어졌다는 얘기죠.

○지역개발과장 오현철

예. 노화는 신청을 했는데 저희 이제 전남도에서 전남 22개 시군 중에 한 번도 그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지역 시군이 있다고 그래서 일단 장성으로 일단 그것을 우선 배정을 해서.....

○박병수 의원

아무튼 특정 지역만 편중하지 말고 이제 형평성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군외 도시재생 그 여건 알고 계시죠? 군외면 소재지 그 부분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역 단위 거점 개발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완료된 곳 2개소 추진 중인 곳 6개소 신규 추진 1개소입니다.

이 사업 대부분이 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죠.

○지역개발과장 오현철

저희가 이제 농어촌 공사하고 어항 공단하고 이렇게 투트랙으로 가고 있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박병수 의원

답변 자료를 보면 총 20건 중 건물 신축이 15건이고, 리모델링보다 많습니다, 신축이.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군은 인구소멸 위기지역으로 관리되고 있고, 건물 신축 위주로 추진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오현철

지금 이게 이제 저희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현장에서 주민들과 스킨십을 하면서 어떤 요구 사항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저도 이제 의원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건물을 신축하고 이런 부분들은 저도 이렇게 앞으로는 선호해서는 안 된다는 어떤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기존에 노후된 시설을 좀 리모델링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향 쪽으로 가고, 신축은 가급적이면 좀 고려를 해야죠.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저 개인적으로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박병수 의원

공모사업 신청하는 데 조건에 맞지 않아서 탈락되거나 그런 사유는 없겠죠?

○지역개발과장 오현철

예. 그렇습니다.

○박병수 의원

대부분 공모 사업이 군비 매칭을 필요로 하는데 재정 자립도가 낮은 완도군이 무분별하게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재정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맞죠?

○지역개발과장 오현철
예. 그렇습니다.
○박병수 의원
앞으로 좀 신축은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오현철
선택과 집중을 하겠습니다, 의원님.
○박병수 의원
읍면마다 이렇게 많은 건물을 신축하면 유지관리는 잘 되고 있는가요?
○지역개발과장 오현철
유지 관리는 좀 잘 되고 있는 부분들 정말 활성화가 되면서 좀 유지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반면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조금 이렇게 관리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박병수 의원
시설이 방치되거나 문 닫아서 활용하지 않는 그런 건물들도 있죠?
○지역개발과장 오현철
시설을 방치를 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는 것 같고요. 대부분 완료된 곳은 저희가 마을로 위·수탁 협약을 하는데 마을에서 이제 여건에 맞춰서 그 시설을 활용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마을 여건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은 좀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병수 의원
아무튼 사후 관리를 잘 해 주시고요. 좀 점검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오현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수 의원
여러 권역 개발 사업 중 약산 권역 거점 개발 사업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의원 현장 방문시 이곳을 방문을 했고 과장님도 현장에 계셨습니다.
그렇게 마침 폭우가 쏟아지는 날에 방문해서 그 실체가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방송실 영상 한번 들어주세요. 보시다시피 유리 온실이 비가 세고 바닥은 젖어 있습니다. 그때 보셨죠?
○지역개발과장 오현철
예.
○박병수 의원
과장님 이걸 보시고 느낀 점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오현철
부끄럽습니다.
○박병수 의원
유리온실 신축에 무려 20억 공사비가 투자됐음에도 이렇게 비과세하고 있습니다.
부실공사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한가요?
○지역개발과장 오현철
부실 공사 이런 부분들은 이제 좀 제가 전문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해서 그렇게 판단하기에는 좀 애매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의원님들께서 오셔서 현장 방문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상당히 좀 얼굴을 들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고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공사 측에 지금 현재 바로 보안, 보수 조치를 했습니다.
○박병수 의원
건물을 짓게 되면 그 감독 공무원이 있죠?
○지역개발과장 오현철
예. 그렇습니다.
○박병수 의원
감독 공무원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공사 관리 철저히 해 주시고요. 이 유리온실을 짓게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오현철
이제 유리 현실은 그 과정이 보면 좀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바뀌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협의회를 통해 총 4회 협의회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또 다양한 요구 사항들이 있고, 그것을 반영해서 최종적으로 유리온실이 지금 현재 확정이 돼서 이렇게 건물이 올라간 것입니다.

○박병수 의원

지금 저 비 센 부분은 어떻게 그럼 조치할 계획인가요?

○지역개발과장 오현철

비센 부분은 저희가 지금 잡았습니다.

○박병수 의원

잡았어요. 그러면 더 이상 투자할 계획은 없죠.

○지역개발과장 오현철

이제 저희가 이제 좀 전에 저희가 보고드렸다시피 이제 그 유리 온실은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면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해놓은 시설입니다.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그런 시설을 체험하고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어떤 군비 이런 부분들이 추가 투입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 각별한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병수 의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문제점을 잘 분석해서 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유리온실을 지을 때 농어촌 공사 주민 간 수차례 협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오현철

예. 그렇습니다.

○박병수 의원

그렇지만 추진 사항은 미흡하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은 언제쯤이나 그 마무리 된다고 보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오현철

저희가 지금 현재 운영 활성화 계획을 만들어서 군수님 결심을 받고 내년 본예산에 일정 부분을 요구해 놓은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저 건물에 어떤 카페라든가 식물 체험 다육이 그다음에 교육장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내부 정비를 좀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리 온실과 해안치유의 숲 이런 부분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어떤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저희가 좀 탈바꿈시키도록 저희가 지금 할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병수 의원

과장님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곳은 약산 주민뿐만 아니라 방금 치유의 숲을 다닌 이용하는 관광객들, 또 금일 생일 방면을 이용하는 길목이기 때문에 본 시설물에 대한 관심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상황으로 하시고 제대로 좀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오현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수 의원

그리고 보고서에 보면 추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중인 신규 권역 단위 사업이 7곳이나 됩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준공 후 방치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오현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수 의원

약산 유리온실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개선책이 있다면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오현철

저희가 이제 지금 제가 와서 신규로 하는 두 군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주민들하고 이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이야기했습니다.

저희가 사업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정말 피하 개념 없이 난상 토론을 하자 확장된 이후에는 변경은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변경하게 되면 사업 기간이 늘어나고 그에 따른 또 사업비가 증가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계획 확정되기 전까지는 얼굴을 서로 붉히는 한이 있더라도 확정되고 갔을 때는 한마음 한 뜻으로 그 기간 내에 완공하는 게 최종의 최적의 시나리오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 협조를 지금 요청하고 있고 지금 그런 스텝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박병수 의원

단순 건물을 짓는 데 그칠 게 아니라 주민 수요와 또 운영 가능성 또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준공 이후에도 지도 감독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오현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수 의원

다음은 어촌뉴딜300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또 의미와 목적이 뭐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오현철

소득 창출을 하는데 어떤 앵커 시설들 있지 않습니까? 방파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주민들이 더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업의 일환입니다.

○박병수 의원

이 사업이 다 마무리됐죠?

○지역개발과장 오현철

예.

○박병수 의원

이 사업도 건물 신축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오현철

이제 이 부분은 건물 신축이 대부분 사업 소득을 창출하는 시설하고 많이 연관이 돼 있습니다. 하우스라든가 어구 보관 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

○박병수 의원

건물이 다 포함이 되죠, 사업 내용에?

○지역개발과장 오현철

예. 그렇습니다.

○박병수 의원

이 사업도 제가 현장을 몇 군데 한번 가봤거든요. 방송실 사진 한번 올려주세요.

여기는 뉴딜 300사업으로 추진된 신지 명상 힐링센터입니다.

판매장, 공유카페, 다목적 회의실 등이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내부 수리 중으로 문이 잠겨 있습니다. 활용을 하고 있는지 혹시 확인해 보셨는가요?

○지역개발과장 오현철

제가 여름까지 지금 계속 이제 어싱을 다니면서 그 부분까지 가는데요.

카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왜 저렇게 어떤 내부 수리 중으로 해놨는지 그 부분을 한번 저희가 의원님 파악을 해보고 의원님께 개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병수 의원

오른쪽 사진을 보면 세인솔루션이라는 간판이 있는데 건물 사용 목적에 맞는 것인지 이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설명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오현철

저 부분은 저희가 오기 전에 이미 만들어진 그런 부분들이어서 제가 이제 어떻게 이제 말씀드려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좀 불합리하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또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박병수 의원

다음 사진 한 번 더 올려주세요. 보시다시피 입구는 내부 수리 중이라면서 문이 잠겨져 있고, 자동차도 주차되어 있고, 2층에는 또 불이 켜져 있습니다. 사람이 있는 것으로 지금 의심이 되거든요.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신가요?

○지역개발과장 오현철

저게 이제 추측을 하는데요. 저기가 지금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이 있거든요. 근데 낚시 오신 분들이 좀 무분별하게 화장실을 마구 쓰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것을 좀 제도적으로 좀 막으려고 아마 저런 플랜을 좀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가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박병수 의원

건물 활용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것을 좀 서면으로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오현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수 의원

다음 또 자료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약산 어두 어울림 센터입니다.

답변 자료에는 준공되었다고 했는데 안내판은 사용이 제한 중이라는 또 안내판이 붙어 있습니다. 답변서 내용하고 안 맞는데 이 부분 어떻게 된 것인지 한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오현철

저게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우리 시스템상으로는 지금 준공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수탁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현재 아마 저렇게 지금 제한을 안내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박병수 의원

확인 한번 해보세요. 또 마지막 사진 한 번 더 올려주세요. 여기는 금일 신구 아동 여성 문화센터입니다. 여기는 본 의원이 직접 들어가지 못하고 금일 직원한테 부탁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곳 역시도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과장님 완도군은 인구 수가 급격히 감소되고 있어 인구 소멸 위기 지역으로 관리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지역개발과장 오현철

예. 알고 있습니다.

○박병수 의원

인구는 줄었는데 이렇게 건물만 짓게 되면 관리는 누가 하고, 또 언제까지 건물만 짓는 사업만 하실 건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오현철

그래서 이제 의원님께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건물을 신축하고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이제부터는 좀 이렇게 좀 저희가 지향을 하고 기존에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향으로 좀 가게끔 저희가 정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병수 의원

예. 그렇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장님 부서에는 우리군의 크고 작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로 질문 드린 것입니다.

문제는 지역개발과에서만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관광과라든가 수산 관련 부서 또 해양치유담당관, 건설과 등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과 특화 사업에서도 여전히 건물 신축의 중심의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만 지어놓고 활용 방안이나 관리 주체가 불분명한 채 방치된다면 예산 낭비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제는 몇 동의 건물을 지었는가가 아니라 그 공간이 지역과 주민들에게 필요성과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가를 성과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군정 질문 답변을 통해 우리군에 시설된 공공시설물 전반에 대해서 점검 한번 해보시고 사후 관리가 사후 관리와 운영 관리 체계를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죠?

○지역개발과장 오현철

저희가 일제 점검을 하겠습니다, 의원님.

○박병수 의원

이상으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양훈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진원

(참조)
· 2025년 군정질문답변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의장 김양훈

조인호 의원님의 본안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조인호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호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문하기 전에 최근 보도된 뉴스를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방송실.
("철도망 구축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와 육지를 잇는 철도 노선에 진도군도 포함해 달라는 요구가 나왔습니다. 해남, 완도를 경유하는 기존 노선과 함께 진도군을 거치는 노선을 비교해 선택해 달라는 겁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진도군민 300여명이 육지와 제주를 잇는 철도망구축계획에 진도군도 포함해 달라며 집결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수립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전라남도는 27조원을 투입해 목포에서 영암과 해남, 완도를 거쳐 제주도로 해저터널을 연결하는 노선을 제안한 상황입니다.
진도군은 여기에 목포에서 진도를 거쳐 제주로 가는 노선도 함께 검토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진도군은 기존에 해남과 완도를 거치는 노선보다 진도를 거치는 노선이 10km 이상 짧고 비용도 훨씬 절감된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시절 호남고속철 진도연장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정부가 균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호남-제주 고속철도는 지난 2007년 전라남도와 제주도가 대정부 공동건의문을 채택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영암과 해남, 완도 등 3개 지자체는 20년 가까이 공들인 고속철도노선 계획이 RE100 산단이나 데이터센터 유치 등과 맞물려 지역동반성장효과가 크다며 설득논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와 지자체들이 정부에 지속적으로 반영을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 계획에 담기지 않은 만큼 정부의 최종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종호입니다. 정부가 제……."
과장님, 서울-완도 공유 제주고속철도 사업이 몇 년도부터 우리가 추진했죠?

○건설과장 김진원

2007년도부터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지사하고 제주도지사하고 정부공동건의 해서 2007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조인호 의원

예. 맞습니다.
완도군은 오래 전부터 건의해온 핵심 SOC 사업입니다.
방금 방송에서 보신 것처럼 진도군이 이 사업에 새롭게 참여 의사를 표명하고 노선 논란이 발생하고 있죠?

○건설과장 김진원

예.

○조인호 의원

과장님 진도군의 사업추진 표명 한 것은 언제부터 알게 됐어요?

○건설과장 김진원

지난 7월에 언론보도를 보고 알게 됐습니다.

○조인호 의원

집행부 답변 자료에 따르면 진도군은 2024년 2월까지 제출기한이었던 사업계획을 기한 내에 제출 못 했죠?

○건설과장 김진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인호 의원

완도군이 선제적으로 추진해온 상황에서 진도군 개입이 타당한지에 대한 우리군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김진원

당초 본 서울 제주 고속 철도 노선은 그 전라남도하고 국토부에서 당초에 타당성 조사 시 해남 땅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고 그 결과를 도에다가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우리 완도 경유 노선이 전라남도 계획에 반영돼 가지고 국토부에 제출된 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진도군이 고속철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맞다 안 맞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우리 군 자체적으로 제5차 국가철도망 1단계라도 완도까지라도 국가 계획에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인호 의원

그럼 진도군 주장에 따르면 목포에서 진도로 가는 노선인데 그러면 해남군을 제외시킨다는 이야기인데 해남군 입장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김진원

지금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진도군이 용역을 추진하면서 해남하고 상호 협의한 것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인호 의원

그건 확실하죠?

○건설과장 김진원

예. 노선을 진도 주장 노선을 보면 해남 우수영 있지 않습니까? 우수영 쪽에다 역을 하나 신설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고 해남읍에서는 해남읍 신안리 그쪽에 지금 설치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인호 의원

그럼 우리 전라남도 입장은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김진원

전라남도에서는 그렇습니다. 당초 제출 기한이 있었는데 그 제출 기한이 24년 2월이었는데 1년 5개월이나 지나서 그 국가계획 반영을 요구하고 있어서 좀 곤혹스러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인호 의원
그러니까 우리 이 지역구가 해남, 완도, 진도인데 이 문제로 인해서 갈등이 심화될 경우 국가 계획 반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까 봐 걱정되는데 이를 조정 관리하기 위해 완도군 차원에서 준비한 대응 전략이라고 혹시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진원
글쎄요. 지금 조정 관리하기보다는 지금 우리 고가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남군과 같이 토론회를 설치 토론회에서 실시하고 그다음에 도하고 국토부 정치권 이쪽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조인호 의원
본 의원도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보고를 해서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고속철도가 완도를 경유하게 되면 물류 효율성 제고 관광객 증가,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높은 파급 효과가 예상되죠?

○건설과장 김진원
그렇습니다.

○조인호 의원
이러한 효과를 수치화하거나 용역을 추진한 자료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진원
저희들이 아까 보고 드렸듯이 2019년하고 2023년에 그 자체타당성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에 관한 자료는 보유하고 있습니다.

○조인호 의원
나중에는 그 평가하기에 유리한 결과가 되겠네요.

○건설과장 김진원
예.

○조인호 의원
과장님께서 국토부, 전라남도 관계 기관은 부지런히 돌아다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최근 7월에 국토부 방문을 건의하셨는데 국토부 반응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김진원
일단 국토부에서는 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예산을 약 120조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120조인데 전국에서 지금 거의 들어오는 신규 사업이 약 600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업이 건의가 들어왔다 이런 이야기하면서 저희들 노선을 잘 설명했고 그런데 이제 국토부에서는 잘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있었습니다.

○조인호 의원
정치권 건의를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가요?

○건설과장 김진원
정치권은 일단 박지원 의원님하고 지금 이야기 되는 것이 12월 17일 날 박지원 의원님 주최로 국회 토론회를 지금 해남하고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당시 토론회 하면서 국회 차원의 의견수렴이라든가 논의가 좀 이루어지도록 하고요. 지금 우리군 완도 출신 손명수 국회의원 계시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님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니까 그쪽 위원들하고 또 건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인호 의원
과장님께서 굉장히 열심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도군 발전을 위해 더욱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속철도 사업 분수령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의 반영 여부입니다.
확정 고시는 언제쯤 발표합니까?

○건설과장 김진원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내년 1월에서 2월 이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내년에 지방선거

가 있어서 약간 유동적이다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조인호 의원

이 사업은 단순한 교통 인프라가 아니라 완도군 미래의 성장률과 직결된 사업입니다.

방금 시청한 방송에서 진도군 범군민 캠페인을 펼쳐가며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도 결의안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그럼 완도군 범국민 서명 운동이라든지 캠페인 홍보 활동 등을 이런 걸 제안하는데 과장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김진원

좋은 제안입니다. 다양한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조인호 의원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서울 완도 경유 제주 고속전철은 단순한 철도사업이 아니라 완도군의 미래 100년 지역 발전을 좌우할 국가적인 프로젝트입니다.

완도 경우는 물류비 절감과 경제성 그리고 다도의 해상국립공원과 해양치유산업을 비롯한 관광 활성화 효과까지 그 기대 효과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집행부는 더 이상 소극적여서는 안 됩니다. 5차 국가철도망 확정 고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골든타임입니다. 이 절호의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시고 군민과 함께 반드시 완도 경영 노선이 확보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진원

알겠습니다.

○조인호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양훈

박병수 의원님 본인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광주 완도 고속도로 건설 계획이 당초에 광주에서 남창으로까지는 남창으로 하고 남창에서 완도읍까지는 기존 도로를 활용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했어요.

○건설과장 김진원

고속도로 말씀하십니까?

○박병수 의원

고속도로예요. 그래서 명칭은 이제 광주 완도간 고속도로인데 실제 온 구간은 광주 남창간이에요.

○건설과장 김진원

그렇습니다.

○박병수 의원

그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죠. 그러니 지금 해남군에서는 지금 저 남창까지 오면 남창에서 땅끝까지를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군에서는 지금 그 명칭에 맞게 완도읍으로 마무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김진원

노선을 완도읍까지 갖고 온다고요?

○박병수 의원

예. 지금 그렇지 않으면 해남군에서는 남창에서 땅끝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랬을 때는 상당히 완도에 유입 인구가 많은 피해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설과장 김진원

좋은 말씀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완도까지 가져오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BC가 안 나와서 지금 남창까지 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병수 의원
그렇다면 이제 어차피 남창에서는 딴 것까지 해남군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뺏길 수밖에 없겠네요.
○건설과장 김진원
그쪽은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일단 다음 단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해남에서 요구하는 것이 강진에서 해남 땅끝까지다 그 말씀이신가요?
○박병수 의원
아니요. 남창에서, 남창에서 광주 완도간 고속도로에는 남창까지 오기 때문에 남창에서 땅끝까지 연결해 주라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 확인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진원
그것은 불가하겠습니다마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병수 의원
예. 그래요. 그럼 우리가 뺏기면 안 되죠. 광주 완도간 고속도로인데.
○건설과장 김진원
그렇습니다.
○박병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양훈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3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10분 회의계속)

○의장 김양훈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이홍용

(참조)
· 2025년 군정질문답변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의장 김양훈
지민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지민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중입니다.
○지민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요즘 여성들이나 아동들을 노린 범죄나 주거지 인근에서 발생하는 폭력, 성범죄 등이 사회적 문제로 좀 대두가 되고 있어요.
혹시 대도시와 달리 상대적으로 범죄 발생 건수가 많지는 않지만 외진 골목길, 어두운 도로, 버스 정류장 등에서 체감하는 국민들의 불안은 좀 여전하고 좀 더 올라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여기저기 또 가로등이나 풀들이 많고 어두워서 무섭고 좀 위험하다는 좀 민원들도 많이 들려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특히 섬 지역은 이게 조금 더 일찍 상가나 동네에 불들이 좀 꺼지니까 가로등이나 CCTV 같은 안전 인프라가 좀 부족하고 귀가 시간이 늦어지는 여성 노인 청소년들이 범죄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완도읍도 이 학원 강습으로 우리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조금 늦게 귀가를 하잖아요.
그런 학생들이 좀 많이 무섭다 너무 어둡다 좀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이에 우리 지역민과 지역민의 안전과 관련해서 우리 완도군의 현실을 좀 파악하고 개선을 해 보고자 좀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안심 비상벨이 5개소 설치가 되어 있어요.
안전
예. 그렇습니다.

○지민 의원

1년에 얼마나 이용이 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홍용

저희들이 최근 3년간 정도 운영 실적을 파악해 보면 평균 한 1년에 한 43회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민 의원

그리고 이게 경찰까지 이렇게 출동이 연결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홍용

지금까지 경찰로 출동 연계된 것은 아직까지 없고 대부분 어린이들이 오작동으로 호기심으로 해서 이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민 의원

여기 만약에 비상벨을 눌렀을 때 여기의 대응 체계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홍용

예. 지금 저희가 5개 운영하고 있는데 비상벨을 누르면 안내 멘트 송출이 나옵니다.
그래서 관제 센터하고 직접 연결이 돼가지고 관제센터 요원이 송출된 거와 함께 동시에 카메라로 인식을 해서 비상벨을 누르는 민원인의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상황을 인식을 해서 비상인지 아니면 뭐 유관 기관에 이제 119를 부를 것인지 경찰을 부를 것인지 아니면 행정 단순한 업무일 것인지 이런 것을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조치하고 있습니다.

○지민 의원

이게 비상벨이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자체 이제 관제센터 직원이 판단을 해서 이게 위험 상황인지 경찰서로 연락을 해야 되는 건지 어떠한 자체 판단으로 이렇게 상황을 파악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안전총괄과장 이홍용

예, 예. 그렇습니다.

○지민 의원

일단 한번 자료화면 하나 보여주세요, 첫 번째 거. 저거 완도 초등학교 정문입니다. 비상벨이에요. 두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꿈동산 어린이집 근처 공원에 저것도 뭐라고 써져 있습니다. 세 번째 보여주세요. 중앙초등학교 정문입니다. 네 번째 보여주세요. 교육지원청 근처에 있고요. 다음 보여주세요. 화흥초등학교 앞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완도읍에 설치된 비상벨의 사진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이홍용

맞습니다.

○지민 의원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이홍용

예.

○지민 의원

다섯 군데 전부를 점검을 했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금방 그 모습이 비상벨의 모습처럼 보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홍용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현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스티커로 지금 보완을 해서 수목이 우거진 부분 같은 것도 정리를 했고요.
또 이제 야간에 저게 좀 인식이 보이기가 투명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led로 저 안내판을 구성하려고 지금 시안을 지금 작성 중에 있고 빠른 시일 내에 그거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민 의원
저게 지금 현재 보기에는 안내 문구도 없고 또 많이 낡아 있고 또 그나마 좀 안내판이 있는데 좀 찢어져 있고 솔직히 비상벨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죠.
○안전총괄과장 이홍용
예, 예. 일제 정비하겠습니다.
○지민 의원
그리고 이제 좀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수목이 나무가 좀 많이 자라서 제가 이제 한 번 안심벨이 있길래 이렇게 보고 이 안심벨이 이렇게 도로 쪽에 있더라고요.
인도 쪽에가 인도 쪽에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안심벨을 누르면 어디서 보지 하고 CCTV를 찾았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CCTV가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반대쪽 안쪽으로 공원 안쪽으로 들어가서 봤더니 나무가 너무 커가지고 그 CCTV 자체가 이제 위에서 비추니까 이게 어떻게 보여질지 안 보여질지는 이제 확인은 제가 관제센터 가서 확인을 안 해봤으니까 근데 아무리 봐도 그게 보여질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이홍용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수목을 제거해 가지고.....
○지민 의원
나무는 잘랐어요?
○안전총괄과장 이홍용
그렇습니다.
○지민 의원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 더 설치를 해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근데 이제 배를 누르면 관제센터하고 연결이 돼 돼야 되는데 아까 음성으로 송출이 된다고 하셨죠?
○안전총괄과장 이홍용
예. 그렇습니다.
○지민 의원
한 군데도 없었어요. 최근에 보셨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홍용
제가 9월 말경에 저희가 현장을 점검을 했습니다.
○지민 의원
9월 말경에?
○안전총괄과장 이홍용
예. 그렇습니다.
○지민 의원
다 되던가요?
○안전총괄과장 이홍용
예. 그렇습니다.
○지민 의원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봐 주시고.....
○안전총괄과장 이홍용
수시로 점검하겠습니다.
○지민 의원
이게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시설물인데 언제든지 이게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관리와 정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홍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민 의원
그리고 자료화면 하나 올려주세요. 저거는 지금 어디 이제 지역에 이제 sos 비상벨이 있는 곳에 바닥 도로에다가 이렇게 로고젝터를 설치를 해서 비상벨이 있는 위치를 알려주고 있어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옆에 거기에 이제 바닥에는 저렇게 삼각형으로 되어 있고 그 옆에 이제 CCTV가 이제 영상이 영상 정보 처리가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안내판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왕의 이제 안심길이고 우리 지역민을 위한다는 안심길이라고 하면 솔직히 5개도 좀 모자라거든요.
조금 더 설치를 좀 했으면 좋겠고 또 저거의 위치 같은 것도 또 정확하게 환하게 좀 잘 보일 수 있도록 또 우리 지역민들이 잘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개선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홍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민 의원
그리고 우리 안심 귀가 앱에 대해서 한번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안심귀가앱이 2016년에 시작을 해서 2023년도에 종료가 되었어요.

○안전총괄과장 이홍용
예, 예.

○지민 의원
이용률이 저조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였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홍용
지금 안심 기가 서비스 앱이 저희 관제센터가 2016년도에 구축이 됐습니다.
최초에 그래서 그때 당시 구축을 할 때 안심 기간 서비스 앱을 개발을 해서 실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앱을 다운해가지고 개인 정보 이용을 해가지고 가입비를 하게 되면 핸드폰을 이용을 해서 그 신호를 한다든가 핸드폰을 흔든다든가 그러면은 이제 그 앱으로 해가지고 하게 돼 있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앱을 다운 했던 숫자가 한 580명 정도 됐고 본인들이.....

○지민 의원
처음 시작했을 때죠?

○안전총괄과장 이홍용
그렇습니다, 2016년도에. 그래서 그분들이 개인 정보를 동의를 해 가지고 가입을 해야 되는데 가입률이 저희들이 좀 많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7명 정도 해가지고 이게 계속 지속을 하다 보니 2023년도에 행안부에서 이 사용하지 않는 앱이라든지 일제 정비에 대한 권고가 들어와서 지금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2개 시군도 같이 공유를 해 봤는데 현재까지 아직까지 서비스 앱을 전남에서는 아직 하지 않고 있고 다른 시군에서 이제 앱을 개발해서 이제 좀 하는데 이제 고가고 해서 이제 지금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민 의원
저도 이제 이게 우리 이제 작년 때부터인가 이게 이제 길거리 묻지마 폭행이라든지 이런 사고들이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홍용
예.

○지민 의원
그래서 이제 이런 안심 기관 서비스 앱이 작년 정도부터 이렇게 많이 이제 활성화가 되고 각 시군별로 이렇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관심을 가지고 이제 요즘에 TV 프로그램에도 이렇게 블랙박스 이야기 뭐 CCTV 이야기 이런 것들이 사건화를 이런 부분이 있으니 이렇게 전체 국민들이 좀 조심해라 이런 그런 의도에서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걸 보다 보니 이런 안심 귀가 앱이 있더라고요.
운영을 하는 곳이 그래서 알아봤더니 완도읍도 있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것도 2016년도면은 굉장히 일찍

시작을 했고 굉장히 빨리 시도를 했는데 근데 왜 지금 현재 7명이 지금 돼 있다고 하니 또 이 말을 완도회가 있었다라는 말을 듣고 제가 많은 분들한테 여쭤봤어요.
우리 아이들 청소년 이제 아기들이 있는 가족들 엄마들한테도 물어보고 어르신들한테도 물어보고 옆에 이제 여성단체 회원들한테도 물어보고 다 했는데 알고 있는 사람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조금 더 늘리고 홍보를 해서 많이 가입을 시켜볼 생각은 좀 안 하셨는지 좀 아쉬움이 좀 있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이홍용

이제 이용률 저조하고 이제 기술 환경 변화 이제 16년도에 하다 보니까 이제 운영 시스템도 노후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23년도에 이 서비스가 종료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최신화된 앱을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군산시랄지 뭐 전라북도 전주시랄지 이런 인근 타 시도를 보면은 최소 1억 5천, 2억 이상 정도 소요가 됩니다.
앱을 우리만의 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지금 고민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 지금 서비스 이제 홍보가 또 굉장히 중요하고 또 어떻게 이제 요즘은 AI 시대로 해서 가상 서비스까지 같이 접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지금 앱 기반을 해서 재구축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는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지역 사회단체하고 먼저 좀 이렇게 기반 조성을 먼저 좀 로고젝트랄지 좀 이렇게 좀 하고 좀 중장기적으로 또 도우미 조례가 있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함께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민 의원타 시군들은 이제 작년부터 이제 서로 앞다퉈서 우리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이게 이제 꼭 우리 여성이나 어르신들이나 이렇게 청소년들한테 필요한 건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이홍용

예.

○지민 의원

그렇죠. 모든 국민들한테 이제 필요할 것이 국민들한테 필요할 것이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자료 알면 하나 올려봐 주세요. 저거 하나는 김천 김천시의 안심기가 sos라는 앱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이홍용

예. 그렇습니다.

○지민 의원

저거는 이제 스마트폰을 좀 활용을 해서 위치 영상 전송이나 보호자 알림 서비스까지 제공을 하고 있고, 또 다음 사진, 저거는 서울 안심이 굉장히 편리하고 많이 이제 활용이 되고 있죠. 서울시는 서울 안심이 앱을 통해 귀가 모니터링, 안심 경로 추천, 안심 시설 안내, 귀가 스카우트 동행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우리 경찰청이나 이런 곳에서도 계속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각 지역에. 이런 귀가 안심이 앱이 있으니 그런 거를 많이 활용해 달라. 근데 이제 우리 지역에는 없앴다고 하니까 조금 저는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완도군은 왜 단순하게 이렇게 단순히 이 비상벨에만 머무르고 있는지 이런 차별화된 사업이나 이런 부재의 원인을 좀 잘 파악을 해 주시고 이렇게 보완해서 우리 지역에도 좀 안심하고 좀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홍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민 의원
그리고 다음번 사진 자료 하나 올려주세요. 저거는 영천시 학생 안심 귀가 택시 지원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 맞춤형 지원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완도군도 안심 귀가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를 보면 안심 귀가 도우미를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혹시 이거 추진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홍용
아직 현재는 인력 운영 및 좀 이런 여건상 전담 인력을 즉시 채용해서 운영하기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민 의원
계획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홍용
예. 그래서 지금 저희 우선적으로 관내에 있는 저희들이 자율 방범대랄지 의용소방대랄지 이런 각 기관과 협력 네트워크를 좀 구성을 해서 귀가하고 그 취약 시간대 안정 활동을 좀 먼저 강화한 후에 저희가 향후에 이제 예산 및 인력 여건을 좀 규모를 파악해 가지고 안심 귀가 도우미 저희도 도입을 단계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지민 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이제 단순히 CCTV나 장비 설치와 같은 형식적 안전장치에 그치지 말고 완도군만의 특성을 반영하면 한 맞춤형 양심 기가 지원 정책을 좀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홍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민 의원
그리고 특히 섬 지역과 노인 여성 청소년의 환경을 고려한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안심 귀가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가 선언적 문구에 그치지 않도록 안심 귀가 도우미 제도나 앱 등 실질적 사업화를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홍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민 의원
혹시 사업이 마련이 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년 동안 7명이라는 게 좀 그랬거든요. 이거를 우리 전체 우리 국민을 위한 거니까 각 실과에서도 홍보 자체를 열심히 다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이홍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민 의원
특히 아동 청소년이 있는 가족 행복과나 또 우리 주민복지과나 우리 또 학생들이 있는 인구일자리정책실이나 이런 실과에서는 특히 더 많이 더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학교 자체에 가정통신문도 낼 수도 있고 또 평생교육원이라든지 노인대학이라든지 또 저기 뭐야 여성들 학부모들 통신문 내면은 이제 학부모들한테까지 가니까 그렇게 홍보를 좀 열심히 해서 많은 분들이 좀 이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홍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민 의원
우리 완도군민이 항상 완도는 언제나 안전하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선제적 안전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홍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민 의원
간단하게 질문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핵심 안전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CCTV 관제센터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2개 시군 모든 시군에 CCTV 관제센터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홍용
예. 그렇습니다.
○지민 의원
다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이홍용
전부 다 구축돼 있습니다.
○지민 의원
혹시 우리 각 시군에는 CCTV 관제센터를 따로 운영을 하는지 아니면 CCTV 관제팀이 따로 있는지 어떤가요?
○안전총괄과장 이홍용
다양하게 있습니다. 우리처럼 직영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위탁을 해서 이렇게 관제센터는 다 구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탁 업체에다가 일임을 해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군처럼 공무직으로 하고 기간제를 채용을 해서 직접 저희들이 직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지민 의원
저희는 직영으로 하지만 CCTV 관제팀은 없죠? 원래 기존에는 있었는데 이거 없애지 않았나요?
○안전총괄과장 이홍용
예. 지금 단순히 팀 하나만으로서 관제 센터를 운영하기에는 팀을 운영하기에는 조금 미흡하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들은 이제 정책팀하고 병합을 해가지고.....
○지민 의원
정책팀?
○안전총괄과장 이홍용
예. 안전정책팀에서 그 관제센터 운영 업무를 같이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팀만 없었을 뿐이지, 팀원과 기존에 있는 것은 그대로 유지하고 하고 있습니다.
○지민 의원
그래서 이제 그게 왜 기존에 이제 팀이 있었는데 없어졌을까 이제 한번 그 이유가 궁금했고, 또 이제 저희 생각은 이제 팀별로 운영이 되어야 CCTV 운영의 긴급 상황의 대응이나 연속성도 좀 연속성도 좀 있을 것이고 또 그에 대한 또 책임감이나 이런 소속감으로 좀 더 원활하게 운영이 되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팀제 신설이 단순한 인력 증원이 아니라 효율적인 조직 운영과 국민의 안전망 회복과 신뢰 회복에 또 관제센터 향상의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도 싶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또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시고..... 해 봐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이홍용
예. 검토하겠습니다.
○지민 의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장 김양훈
조영식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혹시 우리 군 CCTV가 지금 몇 개 정도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홍용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거는 1,257대입니다.
○조영식 의원

1,257대요

○안전총괄과장 이홍용

그렇습니다.

○조영식 의원

혹시 CCTV 1대 설치하려면 어느 정도 가격이 들까요?

○안전총괄과장 이홍용

지금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회전형이 있고, 고정형이 있습니다.

근데 기존에 있는 전신주랄지 통신주랄지 이렇게 한전주를 이용을 해서 했을 경우에는 에 회전형은 850 정도 그다음에 그 고정형은 한 400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폴대하고 기존에 있는 그걸 하게 되면은 한 1,800 정도 같이 이렇게 기둥을 세우는 것이 좀 구조물과 함께 좀 고가가 들어갑니다.

○조영식 의원

혹시 과장님, 과장님께서 지금 완도읍내에 사시니까 완도읍내에 과장님이 파악하고 있는 CCTV 사각지대라든가 꼭 과장님께서 아, 여기는 꼭 있어야 되는데 하는 곳이 파악되는 곳이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이홍용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섬 지역이고 또 약간의 사각지대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지금 CCTV를 확충을 굉장히 좀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화흥포구 같은 경우에도 우리 마을 단위에서 공용이 아닌 개인적으로 설치하는 사례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1,257대 정도 가면은 그 주민들 수요 조사에 비하면 한 50%나 60% 정도밖에 충족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영식 의원

아무래도 방금 지민 의원님이 질문을 하셨지만 여성이나 아동 안심 귀가하는 데 CCTV가 만일 사각지대가 없다면 마음 편히 귀가할 수가 있겠죠?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관제센터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혹시 지금도 24명이 3교대로 근무하고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이홍용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영식 의원

3년 전에 물어봤던 질문했던 것을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지금도 관제센터 내 시설물이나 근무 환경이 변한 게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홍용

지금 직원들이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리모델링 지금 공사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영식 의원

추진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홍용

그렇습니다.

○조영식 의원

그럼 리모델링만 갖고 그게 해결이 될까요?

○안전총괄과장 이홍용

이제 저희 관제센터가 협소한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리모델링은 시스템 전체를 옮기고 확대할 수 있는 공간은 좀 저희들이 어렵고요. 의자랄지 모니터랄지 그리고 관제를 할 때 AI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관제를 할 수 있는 직원들 피로감을 조금 줄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고도화 사업이라고 일명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조영식 의원

바닥이 깨지고 또 시설물들은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보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무 환경 거기 근무하신 분들이 호소하는 게 소음이 가장 심한 게 아니겠습니까? 서버 소음 때문에 이렇게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거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새롭게 무슨 보완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 협소한 장소에서는 해결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 해결 방법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양훈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오늘 예정된 질문답변은 모두 마쳤습니다만 보건행정과에서 답변이 준비되어 있으면 듣고 마무리 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한 건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정계창

(참조)
· 2025년 군정질문답변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의장 김양훈

박성규 의원님의 본안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박성규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규 의원

그렇습니다.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를 통해 확산으로 청소년을 비롯한 일반 주민 누구나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 역시 마약류의 안전지대라고 할 수 없으며 군민들의 불안감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정계창

예. 그렇습니다.

○박성규 의원

현재 우리군에서 청소년 학부모, 일반 주민 대상으로 마약 예방 교육이나 홍보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홍용

현재 청소년 대상 마약류 교육 부분은 각 학교 자체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저희 군에서는 일반인 대상으로는 노인대학 경로당에서 실시하고 특히 외국인 계절 근로자 부분에 대해서는 계절 근로자 입국 시 저희 직원이 직접 마약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홍보는 6월 16일이 세계 마약 퇴치의 날입니다.
이 퇴치의 날을 기념하여 매년 저희가 캠페인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우리 5일시장하고 그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에서 완도 해양 경찰서, 그 전라남도 우리 대한 적십자회에서 캠페인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박성규 의원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군에서 마약 중독 의심자가 발생할 경우 즉시 상담을 받고 전문기관으로 연계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계창

이 한국 마약 퇴치 운동본부 전남지부가 지난해 11월에 순천에 개소하였습니다.
그래서 연계 체계는 갖추고 있고요. 현재는 관련 증세로 연계한 실적은 이제 없습니다.

○박성규 의원

최근 우리군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정계창
예. 그렇습니다.

○박성규 의원
우리 외국인 근로자는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정계창
현재 입구 가동 5천 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성규 의원
한 4천 명 정도. 외국인에 대한 마약류 단속이나 예방 프로그램은 별도로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계창
현재 이제 마약류 일반 마약류의 단속은 이제 경찰 부분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매 입국 시마다 마약류 4종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전원 이제 현재 음성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방 프로그램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운영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성규 의원
그렇습니까? 우리군은 특히 섬 지역으로 이루어져서 양귀비가 많이 자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 않아도 바람이 날려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계창
예. 그렇습니다.

○박성규 의원
그래서 양귀비가 많이 한데 양귀비에 대한 단속 및 처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정계창
현재 양귀비 단속 부분에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마약류에 대해서는 완도 경찰서나 해양경찰서에서 실시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압수물이 발생이 되면은 저희 보건의료원에서 임시 이제 관리를 하고 전라남도에서 22개 시군 전체에 대해서 취합을 해서 전남 도경 그다음에 광주지방경찰청 목포지청 입회하에 소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성규 의원
답변 자료를 보면 양귀비가 2021년부터 올해까지 153건이 발생하였네요.

○보건행정과장 정계창
예. 그렇습니다.

○박성규 의원
자료에서 보시듯 우리군도 마약 청정 지역이 아닙니다.
사법기관과 연계하여 연기하는 방안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정계창
최근 그 양귀비 마약류 양귀비 식재도 늘어나 있고 적발 건수도 좀 늘어난 추세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관상용 꽃 양귀비 부분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화려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 일부 주민들이 관상용 꽃 양귀비하고 마약류 양귀비의 구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발이 될 경우에 일부는 사법기관 송치까지 될 정도로 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단속 권한하고는 별개로 구분법에 대해서 매뉴얼이라든가 이래 해서 주민 홍보에 좀 더 대응 체계를 갖추려고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성규 의원
최근에 전라남도 감사를 받으셨죠?

○보건행정과장 정계창
그렇습니다.

○박성규 의원
감사 결과 2021년 5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접수된 마약류 폐기 신청 273건 중 무려 251건이 폐기 결과 보고서조차 작성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보건행정과장 정계창

우리 이제 식품의약품안전처 폐기 안내 가이드에 그 처리 절차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의 업무 이해도가 좀 부족한 부분이라 이제 마약류 폐기 절차는 마약류 취급업자가 신청을 하게 되면은 저희 군에서 폐기를 하고 폐기 결과를 통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결과 통보서에 관련 사진 모든 증빙 자료가 다 있는 부분인데 이제 규정상에는 내부에서 문서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내부 결제가 좀 빠진 상황이어서 현재는 시정에서 내부 결제까지 해서 지금 시정되어 있습니다.

○박성규 의원

기본적인 행정 절차를 좀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보건소 마당에다가 소각 폐기하고 중화나 희석 없이 그대로 폐기 파쇄 절단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처리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정계창

마약류 관리법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중화 해석이나 또 가수 분해 그 외에 이제 그 밖의 방법으로 그 마약류가 아닌 거로 보이게 될 수 있는 변화될 수 있는 조치까지 하게 되면 가능하다고 규정은 돼 있습니다.

근데 직원이 이제 물론 소각이나 이런 부분도 있었겠지만 의원님 말씀하신 파쇄나 절단 부분도 그 변화된 거로 법령을 해석을 해서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파쇄나 절대는 전혀 이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박성규 의원

마약류 폐기 결과 마약류 통합 시스템에 보고하지 않거나 임의로 잘못 입력한 사례가 확인되었는데 그 사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정계창

먼저 말씀드렸듯이 마약류 폐기 절차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스템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마약류 취급업자가 저희한테 폐기 신청을 들어오면은 저희가 결과를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통보서를 기준으로 마약류 취급 업체가 시스템에 입력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인지를 못하고 입력을 안 하거나 또 일부는 해당 날짜에 입력하지 못하고 다른 날짜를 착오한 부분들이어서 현재 이제 마약류 취급업체 지도를 좀 해서 현재는 그런 오류 된 부분은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성규 의원

철저히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업한 업체 중 1개소가 마약류 통합 시스템에 남아 있음에도 우리군은 2025년 감사일까지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어떤 방식으로 지도 점검하였는지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정계창

이제 의료기관이라든가 마약류 취급자 업소들이 이제 폐업을 하게 되면은 폐업 신고뿐만 아니라 이제 마약류 폐기 신청 및 마약류까지 반납을 해야 되는 시스템이 됩니다.

그런데 2021년 의원이 이제 폐업을 하는 과정에 모든 신고 절차는 이행을 했습니다마는 마약류 폐기 신청한 양과 시스템 양이 이제 맞지 않아서 그 당시에 이제 담당 직원이 처리를 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처리를 하지 못해서 현재까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저희가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행정 절차에 의해서 된 부분인데 그

폐업한 의원의 연락이 현재는 좀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꾸준히 연락처를 찾고 있습니다마는 더 노력해서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성규 의원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 결과로 인해서 행정의 신뢰성이 많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 감사의 지적을 많이 받았죠?

○보건행정과장 정계창

예. 많이 받았습니다.

○박성규 의원

마약 문제는 단일 기관만으로는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경찰서, 교육청, 의료기관, 사회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정계창

예, 그렇습니다.

○박성규 의원

마약류에 우리 지역 유입이 조기에 차단하고 사후 관리까지 효율적으로 이행될 때 비로소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기적인 협의체를 구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정계창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양훈

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정계창

(참조)
· 2025년 군정질문답변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의장 김양훈

조인호 의원님의 본안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조인호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호 의원

과장님 자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우리군은 섬으로 이루어져서 의료 접근성이 매우 열악하고 국민들의 기본 의료 서비스조차 못 받고 있죠.

○보건행정과장 정계창

예. 그렇습니다.

○조인호 의원

이런 상황에서 섬유에 있는 의원이나 우리 보건소 보건진료소 역할이 좀 큽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잘 돼가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계창

현재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는 특히 이제 응급환자 대응이라든가 우리 군민 건강, 그다음에 취약계층의 만성 질환의 접근을 위해서는 가장 필요로 하는 시설들입니다.

○조인호 의원

지금 우리 병원이 없는 읍·면은 어디 어디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계창

현재 약산면, 청산면, 금당면, 생일면, 보길면 5개 읍면입니다마는 그중 2개 읍면은 의원의 접근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3개 읍면인 청산면, 금당면 생일면은 의원이 현재 없는 상태로 저희 군에서도 의약품의 추가 배치 등 대비는 하고 있습니다.

○조인호 의원

대비 잘하고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정계창
예.
○조인호 의원
그럼 이 사람들이 진료를 받으려면 육지로 가야 되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정계창
만성 질환 외에는 현재 육지로 나가고 있습니다.
○조인호 의원
대부분 어떤 진료를 많이 받으러 나갑니까?
○보건행정과장 정계창
이제 전문 진료가 대부분입니다마는 특히 이제 경증 환자 외래 환자의 경우 부분에 대해서는 섬 지역이 없는 의원에서 취급할 수밖에 없는 물리 치료라든가 영양제 처분도 일부 받으러 지금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인호 의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고령층이 대부분이나 물리치료나 영양 처분이 가장 많죠?
○보건행정과장 정계창
예. 그렇습니다.
○조인호 의원
그럼 현재 물리 치료를 하고 있는 보건지소는 어디인가요, 섬에서?
○보건행정과장 정계창
저희 보건의료원하고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3개 섬 지역에 물리 치료실을 설치를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당면에 추진했고, 생일면은 금년에 시작을 했고요.
청산면은 내년에 개설을 목표로 지금 내년 본예산에 지금 예산 국비 예산이라든가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인호 의원
과장님 제가 이제 이 질문을 하게 된 이유는 답변서를 보니까 보건소에서는 우리 영양제 처방을 안 하고 있죠?
○보건행정과장 정계창
현재 응급환자 수액 외에는 일반 대상자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인호 의원
과장님 본 의원이 확인해 보니까 그 타 시군을 알아보니까 신안군에서는요.
하의면, 신이면, 가거도, 홍도 현재 영양제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보건행정과장 정계창
예. 처방하고 있습니다.
○조인호 의원
그리고 공중보건의에 1인당 1만 원씩 업무활동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고요.
○보건행정과장 정계창
예. 그렇습니다.
○조인호 의원
이 부분을 알고 계시면 우리군에서는 뭐 할 생각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계창
현재 물리치료실에 수액을 처방하기 위해서는 이제 일부 필요 공간과 전문 관리에 필요한 전문적인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간 확보를 위해서 내년 본예산을 7천만 원 현재 요구해서 이제 공간은 확보가 됩니다마는 이제 민간 의료기관은 다르게 저희 공중보건의사의 의료 부분은 종합적으로 이제 의사가 판단을 해서 처방하는 부분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몇 번을 관련 공중보건의사 현재는 아닙니다마는 기존에 이제 옮겼던 공중보건의사들하고 몇 차례 대화를 했음에도 그 부분이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참 저희가 예산이나 모든 저기로 가능한 부분이라면은 바로 할 수 있다고 답변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에는 현재도 접촉

을 계속하고 있고요.
또 우리 지역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고 최대한 노력해서 저희가 영양제 처방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조인호 의원

과장님 이제 본 의원이 신안군에 자꾸 비교를 하면 신안군하고 우리 완도하고는 좀 협소한 점이 많아요. 신안군 또 공무원들은 또 유기적으로 움직이더라고요.
제가 이제 몇 번 통화도 해보고 했는데 이제 우리군에도 앞으로는 지금 이제 병원 관계자들이나 공중보건이 이런 관계를 우리 과장님께서 윤활유 역할을 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민들이 그분들을 바로 접촉하고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그 역할을 잘해 주시고 내년에 개보수 사업을 또 이렇게 7천만 원 요구를 했다는데 하실 때 우리 물류 치료실만 염두에 두고 하지 마시고 나중에 수액도 할 수 있는 그런 조그마한 공간 침대라도 만들 수 있게끔 할 때 연구해서 영구적으로 만들어야지 이것 해놓고 나중에 이제 그게 된다면 또 하려면 공간이 없으면 못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책임감을 가지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내년부터는 시행할 수 있게끔 저 본 의원이 조례도 지금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조례가 너무 미비하더라고요. 그래 신안군 조례도 참조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례를 좀 우리가 좀 손질을 할 거니까 우리 과장님이 책임지고 이 부분은 또 특히 요원하면 청산 같은 데는 아우성이 많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정계창

예. 그렇습니다.

○조인호 의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해서 우리 섬에 사는 사람들이 더 이상 인간 대우를 다는 못 받아도 기본 우리가 서비스를 받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례에 이거 발의해서 어느 손질하면 과장님이 그 윤활유 역할을 최선 잘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정계창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인호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양훈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산회)

○출석의원(9인)

김양훈	박성규	지민
박재선	박병수	조인호
최정욱	허궁희	조영식

○출석공무원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관광실장	안환옥
행정지원과장	이기석
세무회계과장	천종실
민원봉사과장	김용식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체육진흥과장	최정환
농업축산과장	이정국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해조류박람회추진단장	김준혁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지역개발과장	오현철
건설과장	김진원
안전총괄과장	이홍용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수호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최영미
의사운영팀장	서을식
속 기 사	정현중

제333회 완도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5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10월 24일(금) 10시00분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군정 질문 및 답변의 건(의장 제의)
   ㅇ건강증진과장(1)
   ㅇ시설관리사업소장(1)
   ㅇ인구일자리정책실장(2)

2.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군정 질문 및 답변의 건(의장 제의)
ㅇ건강증진과장(1)
ㅇ시설관리사업소장(1)
ㅇ인구일자리정책실장(2)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09시59분 개의)

○의장 김양훈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 질문 및 답변의 건(의장 제의)

오늘도 의사일정에 따라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답변은 건강증진과장 1건, 시설관리사업소장 1건, 인구일자리정책실장 2건으로 총 4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한 건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현주

(참조)
· 2025년 군정질문답변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의장 김양훈

박재선 의원님의 본안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박재선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완도군의 노인 인구가 몇 프로나 되죠?

○건강증진과장 김현주

한 37.4%에서 약 38%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재선 의원

한 40%가 육박하네요. 그러면 그중에 한 5명에 한 명 꼴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울증에 앓고 있다는데 그게 맞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현주

우울증이라기보다는 우울감 경험률이 있다는 식일 겁니다.

○박재선 의원

그러면 거기에 보면 우리 대한민국 보면 자살률이 또 1위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 우울증이 그만큼 무섭다라는 생각에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노인 우울증 관련해서 정책이 무엇보다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요.
노인 우울증에 대한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현주

일단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나이가 들어간다는 거 먹었다는 것 그 자체도 우울할 수가 있고요. 그로 인해서 찾아오는 질병 이러한 것들도 원인이 있겠지만 어 나이가 들면서 가족과의 사별, 사별이 상실감을 만들고 이게 결국 1인 가구로 연결되면서 사회적으로는 이분들이 혼자 살다 보니까 고립될 수밖에 없는 그런 원인들이 있긴 합니다.
근데 저희 센터에서 만나본 완도군 어르신들은 질병을 많이 호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은 아마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박재선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노인 우울증이라고 했는데 지금 젊은 사람들은 좀 어떻습니까? 젊은 청년들이나 중장년층 그런 분들은 우울증이 좀 어떻냐.....

○건강증진과장 김현주

지금 우울증이 가장 높은 연령대가 60대 이상이고요. 그나마 20, 30대는 조금 낮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10대가 학업 스트레스로 인한 스트레스 지수가 높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직장인들도 있고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젊은 층에 대한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박재선 의원

이 사람들이 초기에 빨리 발견하고 또 초기에 병원 다니고 그러면 완쾌 되죠?

○건강증진과장 김현주

대부분 요즘 젊은 층들은 많이 본인이 알아서 좀 많이 가 병원을 찾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으시고요.
저희가 또 직장인들 마음 통통 또 전 국민 마음 치유 심리 지원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어서

젊은 층에 대한 관심들을 많이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재선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완도군은 노인 우울증에 대해서 어떻게 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현주

검사는 노인 우울 선별 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노인 우울 선별 검사를 저희 완도군의 노인들의 우울감 경험률이 한 15.5% 정도 됩니다.

그래서 노인 인구의 한 15% 정도의 인구를 추출을 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노인 우울 검사를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현주

그러면 초기에 발견한 게 제일 중요하죠?

○건강증진과장 김현주

그렇죠.

○박재선 의원

근데 초기에 발견하려면은 그냥 이제 보건의료원에서 있으면 안 되고 각 읍면 돌아다니면서 해야 되겠죠. 그러면 보건소에는 어떻게, 보건소에서 합니까? 아니면 직접 찾아가서 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현주

읍면 도서 지역은 보건지소하고 진료소에 저희들이 읍면마다 인구 비율에 의해서 대상 목표 수를 줍니다. 그러면 그 대상자에 대해서 1차 검사를 하고요. 이제 저희 센터에서는 완도읍권역에 대해서 1차 검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1차 검사자를 가지고 그다음 단계 2단계로 넘어갑니다.

○박재선 의원

그러면 타 시군하고는 비교했을 때 완도군에 차별화가 좀 둔 게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현주

지금 노인 우울 선별 검사 하는 것 자체가 차별화입니다.

다른 시군은 거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전체 대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전체 대상을 하고 거기 플러스 노인 우울 검사를 이 정도로 추진하고 있고요.

또 우울증 치료비는 타 시군에서 지출하지 않습니다.

정신질환 치료비만 타 시군에서는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찾아가는 전문의 심리 지원 사업 이 부분도 육지권에서는 센터 내에서 대상자가 센터를 방문해서 상담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저희는 도서 지역이기 때문에 주치의를 통해서 읍면으로 모시고 가서 상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재선 의원

선별 검사 결과 보면 남성 비율보다 여성이 많죠? 그 이유는 뭐예요?

○건강증진과장 김현주

이제 우리 직원들이 경로당이나 이런 시설로 가다 보면 아무래도 모여 있으신 분들이 여성분들이 많다 보니까 검사를 여자분들에게 더 많이 할 수밖에 없었고 또 인구 비율상 봤을 때도 여성 인구가 65세 이상이 남성분 보다 좀 더 많다 보니까 좀 더 많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박재선 의원

저희들도 많이 이제 어르신들 계시다 안 계시다가 노인정을 많이 방문하면 실제로 남성분들은 몇 명 안 나와요 다 여성분들만 나와요.

○건강증진과장 김현주

예. 그렇습니다.

○박재선 의원

그런 남성분들에 대해서도 제가 알기로는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은 사실 노

인정을 잘 안 찾더라고요, 남성분들은.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분들은 꼭 저희들이 노인정에 있다 해서 가서 방문해서만 할 뿐만 아니고 남성들에 대해서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남성들이 노인정으로 안 나오다 보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그런 얘기를 좀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할 계획인지.

○건강증진과장 김현주

남성, 남성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별도로 이렇게 검사를 별도로 구분해서는 하지는 않았는데요. 노인 일자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그래도 남성분들이 참여하는 비율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노인 일자리나 남성분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을 좀 모색을 해 봐 가지고 그쪽을 찾아가서 한다든가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박재선 의원

그 부분도 좀 같이 연계해서 해 주시고 아니면은 언제 방송 같은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한 번 모이라 해가지고 또 선별 검사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현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선 의원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현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선 의원

그러면 그 경증하고 중증 환자가 아까 침에 차별적으로 계속 좋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전문으로 이렇게 상담해 주는 그런 데는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현주

저희 완도군에도 심리 상담을 하는 곳이 2개소가 있고요. 3개소 중에 저희한테 등록이 되어 있는 곳이 2개소가 지금 되어 있고요. 저희는 지금 마음건강 주치의, 전문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을 주치의로 해 가지고요.

그분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재선 의원

보면 그 고위험군은 어떤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현주

이제 치료비를 받는다고 해서 고위험군은 아니고요.

이게 우울이 결국은 자살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자살 위험이 높은 사람들을 고위험군이라 하고 본인을 자해하거나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또 우울증이 아주 심각한 사람 자살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환자의 분류를 고위험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재선 의원

그런 사람 곁에는 누가 있습니까? 그 가족 중에서 있을까요? 아니면 병원에서 그렇게 시도하면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현주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바로 연락을 주변에서 그렇게 하고요. 저희가 그분들하고 상담을 했을 때 그런 징후가 있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없다 그러면 저희들이 경찰서로 연결을 합니다.

그러면 경찰에서는 응급 진료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이제 보호자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또 발견했거나 필요에 따라서는 행정입원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박재선 의원

그러면 고위험군 그분들한테는 급여를 비용이라 할까요?

○건강증진과장 김현주

저희 행정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재선 의원
많이 해 준가요?
○건강증진과장 김현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 집행률이 많거든요. 그런데 노인 그래도 노인 비율이 차지하는 범위가 높습니다.
○박재선 의원
그래요 그 비용은 얼마인지는 그러면 얼마 정도는 모르고요?
○건강증진과장 김현주
정확히 지금 저희들이 집행된 우울증 치료..... 450 정도 된답니다.
○박재선 의원
생각보다 적지는 않네요, 그래도.
○건강증진과장 김현주
전체적으로 했을 때.
○박재선 의원
그러면은 별로 얼마 안 되겠네요. 아까 7명인가 고위험군이 아까 된 것 같은데.
○건강증진과장 김현주
그분들은 고위험군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자살의 위험이 있다는 것은 아니고요.
우울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 우울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 클리닉을 하거나 조사하는 거는 여기서 나온 사람은 우울 환자라고 저희들이 판정을 못 합니다. 의사가 판단을 해줘야 되고 의사가 판단한 수치가 중증 13명 중에서 방문하신 분이 직접 상담한 분이 일곱 분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분들은 우울증으로 판정이 됐지, 자살을 갈..... 100% 자살 대상자라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박재선 의원
그러면 이런 우울 환자들한테 우리가 해양치유센터도 있고 막 마음 치유도 있고 다 이제 이렇게 저희들이 완도군에서 치유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우리 완도군의 치유 산업이 많이 하고 있으니 그렇게 연계해서 하는 방법은 좀 어떻습니까?
그런데 계속 돌아다니고 우울증 환자들은 사실은 한 데 고여 있으면 안 되잖아요.
계속 사람들 많이 만나고 돌아다니고 활동을 해야지만이 그 우울증에서 벗어나잖아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김현주
예.
그래서 그런 연계 사업을 하는 것도 좀 어떨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현주
의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전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그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 재활 프로그램을 할 때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해양 치유나 산림 치유나 여러 가지 농업 치유나 다른 사업과도 연계를 했었는데 노인 우울 대상자를 가지고는 그 사업을 아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재선 의원
그리고 올해 업무 보고와 답변 자료에서 비교해 보면 우울증 예방에 관련해서는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지 또 자살 예방 사업에 있는 일부 사업밖에 느껴지지 않거든요. 어떻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현주
일부 사업에 지금은 일부 사업이 맞습니다. 근데 의원님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이 우울이나 자살 사업뿐만 아니라 65세 노인 이상뿐만 아니라 정신 질환과 정신 대상자들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정신질환자 대상 그다음

에 2, 30대 청소년 전 연령층을 합니다. 이전 연령층이 6명의 인력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노인에 대해서 집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코로나 이후에 우울이나 이런 자살에 대한 그 심각성이 더욱더 강하게 대두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해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좀 여력적인 부분에서의 약간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서 치매 안심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 직원이 13명이 60세 이상 치매 대상자에 관련된 사업만 추진을 합니다.
그러니까 13명이 60세 이상만 하는데 저희들은 6명이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좀 여력이 있지만 여력이 부족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고 의원님께서 짚어주셨으니까 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선 의원

그래서 이제 여섯 분이서 하니까 좀 더 힘들긴 할 거예요.
우리는 또 완도군은 또 도서 지역으로 많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현주

예. 맞습니다.

○박재선 의원

그래서 이제 보건소로 이렇게 연계하고 하는 내용을 좀 알고는 있어요.
연계하더라도 우리 그 타 읍면에 소외되지 않게끔 이렇게 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현주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선 의원

그렇게 해서 또 좀 힘들긴 할 거예요. 여섯 분이서 어떻게 다 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러나 보건소하고 잘 연계한다면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현주

예.

○박재선 의원

그리고 그 우리 보면은 우울증 사업의 종합계획은 세우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현주

이제 계획은 세우긴 하는데 종합 계획은 아닙니다.

○박재선 의원

그렇게 선별 검사를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현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선 의원

그리고 보면 동네의원이나 또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유관, 그리고 또 행정기관. 이런 분들하고 네트워크 해서 맞춤형 프로그램을 연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현주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선 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내년 업무 보고하실 때는 별도로 저희한테 좀 만들어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현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선 의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양훈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수호

(참조)

· 2025년 군정질문답변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의장 김양훈

조영식 의원님의 본안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조영식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 의원

조영식 의원님의 발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조영식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 의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 주요 관광시설물들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죠?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수호

예.

○조영식 의원

그러면 시설물별로 차근차근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 자료를 보면 시설별 연간 유지 비용 수입을 비교했을 때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이에 대한 군의 대응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수호

의원님 말씀대로 효율성이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민 우리 완도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물 중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면 더더욱 더 좋겠지만 주민의 문화 향유권과 그 향유권 보장과 그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공익적 목적이 더 크기 때문에 수익 측면만 평가한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조영식 의원

특히 어촌민속전시관 관련 답변 자료를 보고 참 놀라움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2025년도 기준으로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연간 유지 비용이 2억 4천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관람객이 겨우 5천 명이고 수입이 45만 5천 원에 불과합니다.

이와 같은 운영 실태를 불구하고 실태에도 불구하고 존치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이쯤 되면 전표 여부에 대해 한 번쯤 고민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소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수호

다행스럽게 지금 현재 우리가 2030년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이 추진되고 있어서 답변서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그때까지는 최소 비용으로 전시물을 보존하고 관리해야 되지 않나 그 후에 어촌장 전시관 활용에 대해서는 공청회 등 주민 여론을 수렴해서 검토하는 활용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야 하는 방안을 생각 중에 있습니다.

○조영식 의원

그러면 행정에서는 2030년 아직도 5년이나 남은 해양수산 박물관에 들어서면 어촌 전시관이 그쪽으로 전부 다 이관할 겁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수호

예. 지금 보유하고 있는 전시물이 3,390여 점 중에 필요하거나 꼭 가야 할 물건들이 그때까지는 보존을 해야 한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조영식 의원

보존해야겠죠?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수호

예.

○조영식 의원

혹시 전시관에 몇 명 근무합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수호
지금 현재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영식 의원
혹시 어떤 업무를 합니까? 그분들은.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수호
전시관 주변 환경과 그리고 관람객 안내 그리고 입장 수입 등 일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식 의원
그분들 근무 환경도 아주 열악한 걸 저는 봤습니다, 며칠 전에.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수호
의원님이 관심 가져 주셔서 방문한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시설물이 광범위하고 크기 때문에 그리고 누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거 사실입니다.
○조영식 의원
뒤에 보통 관람객들이나 저희들도 가면은 앞면만 앞에만 보고 오는데 뒤에 가면 엄청 큰 건물들도 있고 그 건물들이 다 세숫대야 다라다 받쳐져 있습니다.
그 넓은 공간들 시설물들이 같이 함께 보셨죠?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수호
예.
○조영식 의원
또 특히 4명 근무하신 그 사무실에 가니까 너무 협소하고, 또 냄새 제가 좀 비염이 좀 심한 분들은 아마 안에 들어가기도 싫을 정도로 아주 쾌쾌한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아마 그게 날씨가 습하고 그러면 지금 전시되어 있는 전시물들한테도 아주 악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세심히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수호
예. 알겠습니다.
○조영식 의원
안에 매점 같은 것도 혹시 있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수호
매점은 없습니다.
○조영식 의원
없죠?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수호
예.
○조영식 의원
왜 이 질문을 하냐면 답변 자료 수입 현황을 보면 2023년 2천 명이 입장했는데 수입이 25만 3천 원이고, 24년에는 2천 명이 입장했는데 똑같이 2천 명이 입장했는데 17만 9천 원으로 수입이 상이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아까 방금 전에 답한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수호
본 의원이 답변 자료를 보고 한 가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국립해양수산박물관 신축할 때까지 거기에 보관한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이 신축되려면 5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누수하는 곳에 계속해서 몇 년간 혈세를 투입해야 할 건가요? 혹시 누수는 한 번에 집중해서 잡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수호
한 번에 잡기가 힘든 이유가 그 건물 자체가 보면 한 동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저희들이 설계를 봤을 때는 이 3개 건물이 이렇게 짜깁기 식으로 엮어져 있는 상태의 건물 구조란 말입니다.
그게 그래가지고 그걸 한번 저희들이 2020년도에 어촌민속전시관 활성화 방안 해양정책과에서 2020년도에 용역을 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누수 방지 그것만 해서 나온

금액이 8억 정도 나온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2030년도에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이 신축되면 된다고 했을 경우에 거기다가 그렇게 큰돈을 투입해서 방지하기에는 그러고 그래서 최소 비용으로 전시물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지 않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조영식 의원

거기 근무하신 분들도 열악하지만 또 거기에 전시물들이 누수로 인해서 유실되고 할까 봐서 정말 심히 우려가 됩니다. 고생 많으시는데 열악한 근무 환경에 고생이 많지만 그 전시물들 변화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수호

예. 알겠습니다.

○조영식 의원

본 의원이 의장 생활을 3년 하면서 지켜봤는데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변화가 필요할 시기입니다. 공청회를 실시한다고 하니 그때 본 의원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수호

예. 알겠습니다.

○조영식 의원

다음은 장보고 기념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23년 2년 전에 리모델링 했죠?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수호

예.

○조영식 의원

어떤 콘텐츠 한계에 부딪혔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수호

23년도에 리모델링 실시한 후에는 관람객들이 전시 시설과 미디어 아트에 관해서는 큰 호응을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저희들이 올해에는 신라 전통 의상 한복 무료 체험을 하고 있어서 관람객들에게도 큰 호응을 보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리모델링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콘텐츠 보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관람객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참여형 체험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기념관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영식 의원

그 당시에도 충분히 검토하고 추진했을 텐데 방문객 요구에 부응할 만한 차별화된 체험 프로그램이 미비했다는 점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기념관 주변에 매점이나 카페 등 편의시설이 없어 관람객들이 단순 관람 후 떠나는 사례가 아주 많습니다.
단순히 전시관만 운영하는 것과 매점 카페 체험 공간이 결합된 복합 문화 공간으로 만드는 것은 효과가 전혀 다르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기념관에 왜 이런 공간이 없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수호

과거에 그 장보고, 지금 현재 있는 장보고 한상명예의 전당 입구에는 소규모 매점이 있었고, 청해진 쉼터도 있었으나 현재는 그 수익성이 나지 않아 폐업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기념관 내에서 매점이나 카페를 직영하기보다는 인근 상권에서 추진하는 방향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그 주위가 전부 지금 현재 그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 상태라 그런 어려움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조영식 의원

그럼 직영으로는 하기는 힘들겠네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수호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조영식 의원

완도를 대표하는 기념관에 관람객이 불편을 호소하는데 어떻게 관람객이 오고 싶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수호

예. 알겠습니다.

○조영식 의원

다음은 장보고 동상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장보고동상 전시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수호

해상왕 장보고대사의 업적과 위상을 널리 알리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영식 의원

방송실 자료 하면 올려주십시오. 아주 낯설겁니다. 조금 전에, 얼마 전에 한번 봤던 영상일 건데요. 보시다시피 전시관 2층에 가면 이렇게 이 수석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답변자료에 연간 평균 2만 5천 명이 방문하는데 관람객들도 장보고와 수석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의문점을 가질 만합니다. 장보고 동상과 수석 전시 간에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수호

특별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영식 의원

그래도..... 그러면 저기 뭐 오시기 전에 소장님 오시기 전에 전시돼 갖고 있었겠죠.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수호

예.

○조영식 의원

아마 313회 임시회 때 우리 박성규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회의록인데 2년이 지난 현재에도 변화된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아직도 수석을 전시할 공간을 못 찾았는지 아니면 본회의장에서 한 의원님의 제안이나 질문이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는지 참 개탄스럽습니다.

그리고 그때 또 우리 저 당시 부군수님이 연관관계라는 보다는 아마 수석을 전시할 공간이 없다 보니까 아마 그쪽에 전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답을 했거든요.

저 두 번째 답에 참 답도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답을 하고 나서도 지금까지 전혀 변화가 없어요.

언제 정비하실 계획인지 한번 말씀해 주실랍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수호

지난 313회 박성규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고,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셨지만 그 후로 저희 부서하고 담당 부서하고 만나서 이 건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습니다.

근데 별도의 전시관을 설치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고, 저희 사업소에서는 이전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담당 부서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조영식 의원

1,200여 년 전 장보고 장군께서 칼 활, 물론 돌도 사용을 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혹시 그 돌이 남아 있으면 수석하고 연관성이 있습니다. 또 야사로 전해진다든가 아니면 또 문헌이 있다든가 이러면은 본 의원도 관람객들도 고개를 갸우뚱 거리는 일은 없겠죠. 아마 수석을 전시할 공간이 없다는 이유로는 아마 공감 갖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수호

예.

○조영식 의원

꼭 거기에 전시해야만 하는 사유가 있으시다

면 그 사유를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수석 전시를 정비하고 나서 본 의원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수호

예. 알겠습니다.

○조영식 의원

다음 사진 올려주세요. 보시는 사진은 장보고 놀이터입니다.

고장이 났는지 줄로 묶여져 있거나 고장이라는 안내판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언제부터 고장 났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수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첫 번째 사진은요. 그 장보고 어린이 놀이공원 내에 그 토양이 오염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양 정화 사업으로 그 라인을 쳐놔 가지고 추석 전에 완료를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 모노레일 그 사진은 하중이 70kg 미만이 타야 되고 어린이들 7세에서 13세에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보호자들이 어린아이를 같이 동승해서 타다 보니까 그 레이디 그 레일에 관련된 그 과다 하중으로 인해서 회로가 고장 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그 업체하고 연락해서 수리 일자를 지금 정해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영식 의원

어린 아동이 오면 반드시 안전 문제상 보호자가 동반해야 되는데 그 하중이나 이런 것을 미리 예측하지 못했다는 거네요.

이번 수리할 때는 좀 그런 것까지 참고해서 보호자 또 안전 문제 아동 안전 문제를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수호

예. 알겠습니다.

○조영식 의원

많은 이용객들이 찾았을 건데 또 이용을 못 했겠네요, 추석 때나 연휴 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수호

예. 이용을 못 했습니다.

○조영식 의원

올해같이 추석 연휴가 긴 적이 없었는데 시설물 설치도 그리 오래되지 않았을 것 같고 벌써 또 고장 난 것도 이상한데 수리하여 정상 가동도 안 되고 있으니 뭐라 참 말하기가 그렇습니다.

이곳은 완도뿐 아니라 해남, 강진 등 인근에서 견학을 많이 오는 곳이고 이제는 완연한 가을 날씨인데 또 많은 이용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니 빠른 시내에 빠른 시일 내에 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수호

예. 알겠습니다.

○조영식 의원

다음은 장보고 한상 명예 전당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 자료에서 문제점을 보면 문화예술과와 두 부서에서 이원화 관리를 한다고 했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수호

지금 현재 상황은 건물만 지금 사업소에서 근무자 4명이 안내하고 시설물 주위 주변 청소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장보고한상 관련 업무는 문화예술과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는 상황으로 무슨 업무가 생기면 저희들이 두 부서가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 장보고한상 어워드 수상자 그 성공 스토리라든가 거기에 관련된 모든 업무들이 좀 나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조영식 의원

문제가 있긴 있네요. 이원화 관리에 대한 문제, 오늘 문화예술과장님이 불출석하셔서 관련이 아주 깊은 행정지원과장한테 물어볼까요? 나중에 문화예술과장님한테 이것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장보고한상 어워드 수상자가 지금 몇 명이나 됐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수호

장보고한상 우드가 그게 지금 2016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24년도까지 49명이 지금 선정됐고요.

그리고 25년도에는 6명이 선정되었고 지금 현재 55명인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수호

55명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수호

예.

○조영식 의원

명예의 전당 주변에는 넓은 잔디광장과 탁 트인 바다가 있어 아이들이 뛰어놀기에 최적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장보고대사의 역사와 정신이 깃든 장도라는 역사 체험 공간도 있습니다.

이곳에 혹시 공개는 키즈 카페와 청소년 역사 체험 공간으로 탈바꿈하면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수호

해당 지역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거 관련해서 혹시 그게 가능하다면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식 의원

본 의원은 이곳에 이런 시설이 생긴다면 놀이와 휴식을 즐기면서 꿈과 역사를 함께해 보는 복합 체험 공간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더 나아가 주변에 해양 국립 박물관도 들어설 예정이니 이곳이 완도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순한 검토가 아니라 역사 교육 공간, 체험 공간, 가족 친화 공간으로 한 걸음 탈퇴할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수호

예. 알겠습니다.

○조영식 의원

다음은 해양생태전시관과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해양생태전시관 2018년에 개관했죠?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수호

예.

○조영식 의원

개관 이후 전시물을 교체한 적이 있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수호

2017년도에..... 2017년도에 해조류.....

○조영식 의원

아니, 소장님 지금 2018년에 개관 안 했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수호

예. 개관했습니다.

○조영식 의원

답변하십시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수호

근데 거기 거기에다가 2004년, 2024년도에 인터렉티브 영상을 하나 설치한 게 있거든요. 근데 그 영상을 설치한 게 해조류 박람회 때 썼던 그 영상을 저희 사업소에서 이관 받아가지고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다가 그 영상이 좀 오래되고 영상기가 문제가 있어 가지고 24년도에 다시 그거를 설치한 경험이 있습니다.

○조영식 의원

혹시 해양생태전시관도 해양수산박물관이 완

공되면 또 이전할 물론 인근에 있습니다마는 혹시 이전할 계획이 있을까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수호

그거는 그때 가서 한번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답변에서 답변서에서 보고드린대로 그 국립 해양수산박물관과 해양생태전시관이 겹치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조영식 의원

예. 알겠습니다. 방송실 자료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신문 보도 자료인데요. 본 의원도 읽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해양생태전시관을 두고 한 이야기인데 요점만 몇 가지 읽어보겠습니다.

바다를 가까이 둔 공간들이 정작 바다를 담지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이제 전시물로 단순 나열 사진, 텍스트 중심의 정적인 구성은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정보는 집에서도 얻을 수 있지만 감동과 경험은 현장에서만 가능합니다.

찾아온 방문객들에게 추억을 선사해야 됩니다. 해양 생태 전시관을 시작으로 완도의 전시 공간들이 정체성과 감동, 감동을 담은 콘텐츠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정보가 아닌 생태를 설명이 아닌 경험을 선사해야 찾아오는 전시관이 될 것입니다.

혹시 소장님 이 기사 접해보셨는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수호

예. 올해 완도신문 8월달에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식 의원

이는 해양생태전시관만이 아닌 완도에 있는 모든 전시관에 주는 메시지인데요.

소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방금 내용들이, 기사 내용들이.....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수호

좋은 아이디어가 소재가 있다면 적극 저희들도 검토해서 접목시켜 보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영식 의원

본 의원은 이 기사를 읽고 우리 수산고 어린 학생이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어서 한 가닥 희망을 보았습니다. 이런 수산고 학생들도 한 번 접해보고 그분의 또 감성 같은 게 또 가서 공유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수호

예. 알겠습니다.

○조영식 의원

마지막으로 해조류센터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해조류센터는 완도읍, 읍내에 있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수호

예.

○조영식 의원

가장 관람객들이나 어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이죠?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수호

예.

○조영식 의원

본 의원이 쓴 소리들도 자주 하고 해서 이번에는 긍정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작년 해조류센터 주변에 크리스마스트리를 설치했죠?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수호

예.

○조영식 의원

관광객이고, 주민들이고 아주 뜨거운 호응을 받았습니다. 누구 아이디어였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수호

해조류센터 임시 활용 방안을 마련하라는 군수님 지시 사항에 의해서 우리 사업소에서 설

치했습니다.

○조영식 의원

지시사항 때문에 했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수호

이제 해조류센터 활용 방안 마련 일환으로 그렇게 설치한 겁니다.

○조영식 의원

소장님이나 사업소에서 직원들하고 협의해서 한 겁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수호

예.

○조영식 의원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혹시 올해도 기대만큼 설치할 수 있을까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수호

예. 설치 예정 중에 있습니다.

○조영식 의원

아, 감사합니다. 완도는 지리상으로 눈이 많이 내리지 않으므로 이러한 볼거리를 제공하면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좋은 추억을 제공할 것 같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수호

예. 알겠습니다.

○조영식 의원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지적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시설물 운영 문제는 단순히 한 두 시설의 관리 미비 차원을 넘어 군 재정 건선성과 군민 체감도 그리고 완도 관광 미래가 걸린 중요한 사안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이렇게 했지만 그거에 대해서 잘 검토해 주시고 저하고도 아까 뭐 보고해야할 일, 또 같이 상의할 일 꼭 보고해 주시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수호

예.

○조영식 의원

군민의 세금이 효율적으로 쓰이고 완도의 소중한 자산이 군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사랑받기 위해서는 많은 변화가 요구되니 그 변화에 소장님께서 먼저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수호

예. 알겠습니다.

○조영식 의원

똑같이 행정에도 주요한 내용이니까 잘 숙지해 주시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수호

예. 감사합니다.

○조영식 의원

이상 보충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양훈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중지 10시45분)

(회의계속 11시00분)

○의장 김양훈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구일자리정책실장 나오셔서 한 건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인구일자리정책실장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참조)

· 2025년 군정질문답변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의장 김양훈

조인호 의원님의 본안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조인호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호 의원

실장님 자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현재 전국 지자체의 화두는 단연 인구 문제이죠?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예. 그렇습니다.

○조인호 의원

답변서에 나와 있듯이 내년부터는 국가 재정 지원 기준의 생활 인구도 반영하면서 지자체에서는 현재 생활 인구 유입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도 지리적 여건상 타 지자체보다 좀 불리한 조건이 많지 이에 대해서 실장님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생활 인구를 도입해서 지난해 통계가 확정돼서 발표가 됐는데요.

이게 대도시 인근에 이 생활 인구가 많이 몰리고 우리 같이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은 생활 인구가 비교적 더 적은 걸로 이렇게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생활 인구를 우리 지역에 원거리에 있는 우리 지역 같은 지역에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인호 의원

우리 생활 인구 통계가 작년부터 행안부 통계청 주관으로 이루어졌죠?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예. 그렇습니다.

○조인호 의원

통계청에서 각 지자체 생활인구 산정은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앞서 보고드린대로 일단은 행안부는 주민등록 인구, 법무부는 외국인 등록 인구 그다음에 이제 체류 인구가 문제인데 체류 인구는 이동통신사 그다음에 4개의 카드사 그다음에 신용정보사와 민간데이터를 활용해서 체류인구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조인호 의원

최근 행안부가 689개 인구 소멸 지역 생활 인구 산정을 발표를 했지만 구체적인 실체가 없이 단순히 통계적인 개념의 탓에 정책 수단을 활용할 수 없다며 생활인구 등록제를 인구 정책을 도입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인구 등록제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주민등록 단수제입니다.

한 사람이 한 곳에만 주민등록 등록하게 돼 있는데요.

이걸 복수 등록제로 바꾸는 개념인데요. 아직까지 이 부분은 연구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당장 제도화되기는 쉽지 않을 걸로 보여지고요.

앞으로 지금 좀 점차적으로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제도화까지 갈 텐데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인호 의원

생활 등록제는 시기상조다고요?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연구 단계에만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인호 의원

정부 정책을 빠르게 파악해서 우리군이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항 있으면 의회에도 한 보고를 해 주십시오.

답변서를 분석했던 우리 생활 인구 확대 문제 대책 점을 잘 파악하셨네요.

본 의원이 하나하나 살펴봤는데 맞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생활을 인구 유입은 적극적인 집행부 정책과 예산 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규 관광지 개발보다는 무엇보다 기존 관광자원 환경 개선이나 체계적인 관리 및 연계가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생활 인구를 더 많이 유입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접근성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하고, 우리 지역을 찾아오게끔 만드는 어떤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기존에 있는 관광지를 리뉴얼하는 것도 필요하고 새로운 우리 지역에 맞는 킬러 콘텐츠를 개발하는 이런 것이 동시에 병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인호 의원

그래서 우리군도 현재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체험 활동과 관광 상품 및 사업 연령 목적, 예산, 체류 시간 등 사항을 면밀히 분석하고 문제점을 보완하여 체험 활동과 관광 상품 간의 선택과 연계가 이루어지는 사업을 발굴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컨트롤타워를 실장님께 해 주셔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저희 부서가 인구 문제하고 지방 소멸 대응 기금 사업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활 인구도 그거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총괄해서 각 부서와 협력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호 의원

꼼꼼히 좀 잘 챙겨주십시오.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인호 의원

화면 한번 띄워주십시오.
최근 9월 정부가 내수 경기 진작과 지역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인구 감소 지역 등 141개 시군구 대상으로 지방 살리기 상생 자매결연 사업을 추진했죠?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수호

예. 그렇습니다.

○조인호 의원

이와 관련하여 완도는 경찰청과 자매 회견을 맺었는데 사업 추진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이거는 경제교통과에서 추진했고요. 행안부가 아마 주선을 해서 이 자매결연을 체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석 때 우리 특산품 홍보하고 고향사랑 기부 참여 홍보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인호 의원

그럼 단순히 홍보를 해양치유에만 연계 사업을 추진하지 마시고 지역사랑 상품과 축제 축제와 연결돼서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잘 추진해 주시고요.
이와 관련해 완도군과 자매결연을 맺은 지자체 중심으로 생활 인구 유입에 대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구상해 보시는 게 어떨까 제안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자매결연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행정지원과 협의해서 우리 지금 단체 교류만 주로 지금 되고 있는데 주민들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을 교류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인호 의원

이제 예를 들어 청년 인구가 많은 대규모 지자체를 파악해 자매결연을 맺고, 우리 군 남은 공공건물이나 유휴 공간 등의 공실들이 있

다면 파악해 워케이션 거점으로 만들어 준다면 생활 인구에서 관계 인구로 발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예. 동의합니다.

○조인호 의원

많이 고민해 주십시오. 여기 혹시 관광 실장님 오셨습니까? 실장님 디지털 관광 주민증이나 알고 계십니까?

○관광실장 안환옥

예. 알고 있습니다.

○조인호 의원

올 2015년 1월 17일 한국관광공사에서 디지털 관광 주민증을 참여 공모를 했는데 우리군은 공모를 했습니까?

○관광실장 안환옥

아니, 못 했습니다.

○조인호 의원

안 한 이유가 뭡니까?

○관광실장 안환옥

금년도 완도 방문의 해 치유페이와 지원 관계가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공모에 참여를 안 했습니다.

○조인호 의원

중복돼도 우리가 공모 사업은 어제도 지금 저 15만 원 생생페이 관계도 있었지만 우리가 되든 안 되든 공모 사업이 우리군이 돈 예산 많이 들어서 서울에서 행사하는 것은 아주 잘 압니다. 그런데 돈 조금 예산 작게 들어간 행사들은 우리 행정에서 너무 등한시한 것 같아요. 일도 하기 좋게 항상 디지털 관광 주민증은 생활 인구와 엄청나게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인 그렇게 생각하시죠?

○관광실장 안환옥

예. 내년에 꼭 공모하겠습니다.

○조인호 의원

올해 방문하라고 해놓고서 공모 사업을 추진 않았다는 것은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십시오 실장님 보이시죠. 해남군은 현재 가입자가 10만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본 사업은 예산이 수반 수반도 많이 되지 않으면서 생활용 유치에 경제 지역경제 활성화에 엄청난 도움이 되고 있고요.

전남에 7개 시군이 지금 추진하고 있답니다. 실장님 오시기 전에 이제 이 부분이 이루어진 부분인데 실장님 내년부터는 잘 챙겨서 이거 돈 얼마 안 들어가고 이런 10만 원이나 지금 이렇게 가입자 수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철저히 준비해서 내년도에 이 시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인호 의원

우리군에서 돈 들어가서 서울 행사하는 거 방문해 선포식 서울시 했죠? 우리가.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예.

○조인호 의원

그런 건 아주 잘합니다. 돈 갖다 주면서 하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직접 뛰고 공모하는 것은 우리 행정이 조금 아쉬운 점이 많으니까 이 부분을 잘 참고해서 내년 의회에서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예. 알겠습니다.

○조인호 의원

이상입니다. 실장님 우리 외국인 계절 굴러 이에 관련돼가지고 우리 실장님이 전문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도움이 많이 되죠?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그렇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우리군의 등

록 외국인이 5,100여 명입니다.
이 숫자는 우리 군 전체 인구의 약 11%입니다. 외국인 등록 외국인들은 부족한 농어촌의 일손 부족을 해결하고 또 그 근로자들이 지역 내에서 소비를 많이 하다 보니 경제 활성화도 되고 또 생활 인구로 반영이 돼서 지금 지방교부세 산정에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인호 의원

과장님 그 60세 이상 타깃으로 한 인구 유입 방안에 대해서는 이제 이거 뭐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은 해양성 따뜻한 기후도 있고요.
산림 치유하고 해양 치유도 같이 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풍부한 먹거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은퇴자를 유치하고 그 관련된 그런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우리 은퇴자를 우리 지역으로 유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도 발굴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인호 의원

실장님은 인구일자리정책실장을 하시면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도 원만하게 잘 추진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전문가죠?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저는 아니고 부서가 또 따로 있습니다.

○조인호 의원

이제 생활 인구에 관련돼 가지고는 이제 우리 실장님하고 우리 관계 부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집행부 의회, 우리 국민 모두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예. 맞습니다. 이제 생활 인구가 단순히 부족한 주민등록 인구를 보완하자는 쪽으로 해서 지금 도입이 됐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더 크게 활용되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적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조인호 의원

많은 아이디어를 연구해서 또 의회하고 협조하고 또 읍면에도 공유해서 우리 생활 인구가 많이 오게끔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인호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양훈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참조)
· 2025년 군정질문답변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의장 김양훈

최정욱 의원님의 본안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최정욱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욱 의원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 완도가 교육 발전 특구 시범 지역으로 선정되어 4년간 265억이 투입됐죠?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그렇습니다.

○최정욱 의원

군청 홍보 현수막이나 신문 보도를 보고 학부모들은 도서 지역의 열악한 교육 환경이 마치 새로운 교육 시대가 개막할 것 같고 완도군의 큰 교육 혁신이 일어날 것 같은 많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교육 특구가 무엇인지 어떤 내용으로 교육 특구가 이루어지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본 의원이 군민들의 알 권리를 대변하고자 군정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육특구라는 것은 현 정부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슬로건 아래 지역 주도의 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 인재 육성을 육성하는 교육 혁신이 이루어지는 정책이다 이렇게 보는데 맞습니까? 실장님.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예. 그렇습니다. 교육 발전 특구는 엄밀히 따지면 윤석열 정부에서 4개 특구를 했습니다.
기회 발전 특구, 교육 발전 특구, 문화 특구, 도심 융합 특구 그중에 교육 발전 특구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정욱 의원

먼저 교육 발전 특구가 다른 교육 사업과 다른 점은 지자체와 구역청 협력을 통한 지역 교육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이 강화됐다고 보는데 실장님 교육 발전 특구의 지자체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이거는 결국은 교육지원청과 우리군이 협력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일단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군의 역할은 일단 특허 기획서 작성, 협력 체계 구축 사업 추진 그다음에 사업 모니터링 등 사업 전반을 저희들이 기획 조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정욱 의원

어쨌든 교육 특구 시범 지역이라는 게 지자체 역할을 같이 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교육 특기에는 1유형, 2유형, 3유형이 있던데 각 유형의 차이점 설명 좀 부탁드리고 완도군이 3유형으로 지정된 이유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이 당초 특구 가이드라인에 유형이 세 가지로 정해져 있었고요.
1유형은 기초 자치단체 주도로 하는 것이고, 2유형은 광역 지자체 주도입니다.
3유형은 광역 지자체와 기초 지자체가 협력해서 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서 3유형으로 신청을 했고, 전남에서는 광양하고, 순천을 제외한 지금 그 모든 지자체가 3유형으로 신청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정욱 의원

결국 군은 3유형으로 가는 게 맞죠?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그렇습니다.

○최정욱 의원

실장님 사업 시행은 언제부터 되는지 교육청과의 협력이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협력 체계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이 교육 발전 특구 사업은 8월에 저희가 시범 지역으로 지정이 됐는데요.
지정되면서 기존에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사업은 올해 바로 이달부터 진행이 됩니다.
내년부터는 이제 신규 사업 위주로 사업이 이제 본격 추진이 될 거고요.
협력 체계는 이게 전체적인 사업비가 265억 중에서 이 사업 그 양으로 봤을 때 교육지원청에서 담당할 사업량이 약 64%, 우리군이 28%, 수고는 8%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부분의 사업은 교육청에서 하고 우리군과 수고가 일부 사업을 더 보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사업을 원활하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협력 체계가 중요한데 협력 체계는 우리군 교육청, 수산고등학교, 산업체 연구기관 대학까지 해서 총 망라해서 협력 체계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 협력 체계는 이 공모를 선정하기 위해서 기획안 작성할 때 협력 체계로 돼 있지만 이거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협력 체계는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정욱 의원

지금 지역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 협의체의 역할은 뭐죠?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이 협의체는 이게 이 교육 발전 특구는 우리군하고 교육청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관련된 지역 내 사회 교육하고 관련된 단체들이 함께 이 모든 것을 만들어 가는 걸로 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 같이 일을 추진해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정욱 의원

이 교육 협의체 구성은 어느 주관을 위해서 하는가요?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협의체 구성은 저희 군이라든지 수고라든지 교육지원청에서 그 개별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협력 기관이 있으면 그 기관이나 사업체나 연구 기관하고 같이 해서 MOU를 체결했습니다.

○최정욱 의원

구성을 보면 수고와 일부 산업체에 한정돼 있던데 그 이유는 있습니까?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그 부분은 우리군이 지금 그 융복합, 해양 융복합형 인재 양성으로 우리가 목표가 돼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고는 전체 사업량으로 따지면 8%고, 예산은 그보다 조금 전체 퍼센트가 더 낫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역 내 특성화 고등학교를 연계해서 거기서 대학하고 연계된 교육을 시킨 다음에 지역 내 정착 취업까지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을 연결시키도록 이렇게 지금 특구 사업 구상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수고하고 관련된 업체들이 더 많이 협력 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정욱 의원

교육 발전 특구는 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 참여가 핵심인데 완도군은 기획안을 작성할 때 주민 공청회나 설문조사 간담회 등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고 하는데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만 거친 것은 아닌지 현장에서 교사나 학부모들이 체감하는 수준의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의문스러운데 실장님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저희들이 원래 지난해 1차 도전했다가 실패하고 올해 다시 도전해서 특구 시범 지역으로 선정이 됐는데요.
이 특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설문조사라든지 공청회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과정을 다 거쳤다는 말씀을 드리고 설문조사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은 교육 시설 환경 개선이 1번 그다음에 공교육 혁신이 2번 3번이 맞춤형 인재 양성 그다음에 수고를 활용한 취창업 확대 이런 것들의 수요가 비율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특구 사업 가이드라인에 사업에 담을 수 있는 범위가 시설 사업이라든지 또 해외 연수라든지 이런 것은 담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담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

고 학부모 교사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얼마만큼 담았느냐 이 부분에 대답은 교육지원청에서 공교육 정상화 또는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그쪽에서 주도적으로 구상을 했기 때문에 기본 학교에 관련된 부분들은 많이 담겨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정욱 의원

어쨌든 그래도 우리 지자체가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라 우리 지역 주민들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저도 학부모와 간담회에 제가 가서 서로 대화를 했는데 전혀 여기에 대한 이해를 못해요.

또한 본 의원 역시도 이 사업에 대한 정확한 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준비성도 안 돼 있고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공청회 할 때 이런 걸 많은 것을 해서 주민들이 알게끔 공청회 할 때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완도군 시범 지역으로 선정된 것이고 연도별 성과 관리를 시행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서 관리 지역을 선도지역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성과 관리가 60점에 미치지 못하며 특구 지정 해제가 된다는데 어떤가요?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이거는 특구 지정하고 나서 성과 관리가 안 된 지역은 이제 제외시킨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대신 기준점이 60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내용들은 협력 체계 구축 그다음에 사업비 집행 그다음에 성과 관리 그다음에 우수 사례 발굴 이런 것들이 돼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도출해서 충분히 도달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욱 의원

결국은 우리군의 어떤 차별성을 말하는 거 아닌가요?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현재 확정돼 있는 지금 기획안에 대한 얼마만큼의 실적이 연도마다 도달하고 있느냐 협력 체계라든지 사업비 집행이라든지 성과 관리라든지 우수 사례라든지 이런 걸로 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정욱 의원

결국 매뉴얼에 따라.....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그렇습니다.

○최정욱 의원

또는 우리군에서 차별성 있는 대안도 들어가면 좋지 않은가요?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이제 그 부분은 이제 기존에 있는 큰 틀 속에서 수정 보완이 가능한 부분들은 필요하면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정욱 의원

지금 전국에는 특구가 138개 시군이 선정됐고, 전남 지역은 21개 시군이 선정됐는데 결과적으로는 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다른 지자체와의 경쟁은 피할 길이 없다고 봅니다.

특구 공식 지정을 위해 차별화된 전략 구상이 필요할 것 같은데 실장님 그런 내용은 있으신가요?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일단은 특구 기획안 작성할 때 저희 교육지원청하고 저희 군 또 전문 용역 기관 이렇게 또 공청회 주민 설명회를 통해서 또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다 반영을 했는데요.

이제 확정이 된 이후에 매년 또 운용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 지역에 맞는 차별화된 교육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저 실장님 완도군 교육발전 특구의 모델이 완도형 해양특화 사업 연계 인재 양성 양성으로 되어 있고 4대 추진 전략과 12개 추진 사업이 있어요.

○최정욱 의원

이 중에서 실장님이 생각하실 때 완도군의 교육 여건에 가장 필요한 사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다양한 있다고 봐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육지원청에서 주도해서 사업을 발굴했던 공교육 정상화 활성화 부분도 당연히 필요하고요.
또 우리 지역이 대표적인 수산 군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거기에 종사할 수 있는 인력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양쪽이 함께 발전이 돼야만이 우리 지역 교육에 대한 나아갈 방향이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정욱 의원

여기 답변에도 보면은 수산계 마이스토학과 구조 재구조화라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지금 현재 수고가 수산자원양식과, 수산식품가공과, 어선운항관리과 이렇게 3개 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앞으로 수고에서는 해양바이오생물, 해양바이오식의학으로 이 과를 재구조화해서 다시 이렇게 변경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재구조화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정욱 의원

답변서 이제 간단히 보면은 지역 산업형 정규 실현을 통한 청년 정착 지원 관내 고등학교 졸업생 채용 인건비 주거비 지원 이 내용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그 부분은 이제 저 우리 지역에서 교육받은 인재가 우리 지역에서 일자리를 갖고 정주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취업을 할 때 그 채용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채용 지원금이 되겠고 또 결국은 이제 일자리를 가지면 결국은 별도로 또 숙소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숙소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지원하기 위해서 이거는 결국은 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 전선에 뛰어들 우리 청년들을 위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정욱 의원

기존 주거비 지원은 우리가 여기 정주할 때 지원 안 해준가요? 해주잖아요. 우리 인구정책일자리가 아닌 어디 다른 부서에서 하죠? 그것도.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이차 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자 보전, 이자 보전을 해 주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상향된 지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정욱 의원

집행부가 보도한 홍보 자료를 보면 완도군 특구 전략은 지역 공동체 돌봄 교육 전남 미래형 학교 실현 지역 특화형 인재 교육 지역 산업형 정주 실현 등 4개 전략이 있다고 이렇게 돼 있죠.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예. 그렇습니다.

○최정욱 의원

예. 거기에 대한 설명 잠깐 해 주실랍니까?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지금 돌봄 교육 미래 학교 실현 지역 특화 인

재 교육 이 부분은 첫 번째 돌봄하고 미래 학교 부분은 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지역 특강 인재 교육하고 산업형 종주실 이런 부분은 결국은 아까 우리 수고생들이 이 지역 대학 산업체와 연결해서 제대로 교육을 받아서 바로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그런 맥락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정욱 의원

결국은 지금 우리 여기 중에 교육청과 지자체의 역할이 좀 나눠져 있네요, 두 가지씩.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그렇습니다. 나눠져 있습니다.

○최정욱 의원

구체적인 세부 내용은 더 봐야 알겠지만 전략 모두 어느 지자체나 방점을 두고 있는 교육정책의 오랜 화두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완도형 해양 특화 사업 연계 인재 양성이라 하여 수고만을 특화고로 양성하는 내용으로 본 의원은 우려와 걱정인데 집행부는 의회가 공식적인 설명 한 번 없었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떤가요?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예. 그 부분은 저희도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제 이 특구가 공모로 추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특구 공모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본 가이드라인의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지난해 실패하고 올해 또 도전을 하면서 축구 일정이라든지 교육부의 지침이 자주 변화가 됐습니다.

변경이 되다 보니까 그게 순발력 있게 대응하다 보니까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보고 못 드린 거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운영 4년간의 운영 계획서가 이제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운영 계획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인쇄를 해서 의원님들께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욱 의원

우리 이제 특별한 이런 사업이 있을 때는 적어도 우리 의원들은 좀 알아야 주민들하고 제일 밀접한 게 의원들이에요.

어떤 답을 우리 의원들이 해줄 수 있어야 되고 질문에 궁금증이나 하면 해명도 해줘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전혀 우리는 또 그런 지식이 부족해 버리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좀 있으면 미리서 의원들과 간담회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욱 의원

바이오산업과 관련된 큰 기업이나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연구가 있는 것도 아닌 완도군의 상황에서 교육발전 특구의 방향을 이렇게 정한 것은 학부모 사이에서 실망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특히 학부모들이 원하는 교육은 특화 교육이 아니라 중고 진로 및 진학 교육 고등학교 특수 방과 후 수업, 해외 연수나 체험학습 등 글로벌 경험 기회 확대 우리 고장을 바로 알고 지역의 자긍심을 키우는 교육 등 도시에서 일반적으로 받을 수 없는 교육 프로그램을 우리 아이들도 받을 수 있는 있기를 기대를 바라고 있으며 이런 현실적인 요구가 현재 교육특구 사업 계획에 반영되어 있다고 보는지 실장님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체 사업 건수 중 64%가 교육지원청에서 사업을 발굴했고 그 사업들은 대부분이 기존 사업들이 많습니다.

신규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그 기존 사업들 보면 유보 교육 돌봄 교육 공동 교육과정 운영 그다음에 학교 간 연계 교육 강화 AI 기반 디지털 교육 그다음에 글로벌 미래 인재 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속개가 개별적으로 항목이 다 들어 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린 못 드릴 뿐입니다.

그리고 이 지금 현재 반영돼 있는 이 계획을 매년 운영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으니까 기본 교육부에서 하는 가이드라인에 크게 저촉이 되지 않는다면 필요한 경우 얼마든지 변경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정욱 의원

그러면 지금 방금 우리 학부모들이 원하는 교육이 앞으로 토의 과정에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수호

예. 이제 그런데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특구 사업비를 집행하는데 시설 사업이라든지 해외 연수 재료비 구입 이런 것은 지향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나머지 부분들은 얼마든지 조금씩 더 변경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정욱 의원

우리는 대도시와 다르고 우리군의 특별한 이 교육 방침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못 받은 것들이 이런 소개가 들어 있거든요.

사실은 방과 후 수업도 필요하고 또 그 진로 교육 그런 걸 제가 그 광양도 박람회 때 한번 가서 봤는데 굉장한 학생들의 인기가 좋더라고요.

또 교육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보면 앞으로의 우리 지역에 필요한 일자리 그런 기술에 대한 그런 걸 접목을 해서 그런 교육을 한 것도 굉장히 인기들을 많이 갖고 있어서 아, 이제는 그 교육이 다른 쪽으로도 변화를 해야 되겠다는 걸 많이 보고 느꼈는데 또 그런 거나 우리 완도 학생들이 우리들도 여기서 그랬지만 우리가 못 가본 읍면도 많아요.

이제 우리가 우원하니까 다 가지만 그렇지 그렇기 전에는 안 가본 읍면도 많았거든요.

그런 것도 한 번쯤 교육의 하나의 일환으로 생각하고 우리 인구 일자리 아니 인구 정책에도 아마 그건 연관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될 수 있으면 많은 게 우리 지역이 특수 시범 지역이기 때문에 물론 뭐 여러 가지 제도상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이 많이 반영되게 우리 이번에는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방과 후 돌봄 같은 경우는 다양하게 지금 반영이 돼 있습니다.

현재 기획안에가 학교 그다음에 마을 공동체 지역사회 이렇게 여러 가지 돌봄을 할 수 있도록 이 사업 내용에 들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정욱 의원

진로, 진학 교육 이런 것도 충분히 우리 박람회 할 수 있잖아요.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가능할 범위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이제 운영 계획 내년에 수립할 때 교육청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욱 의원

지금 본 의원이 했던 것 학부모들하고 많은 대화를 했던 내용이고 또 원하는 내용들이니까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욱 의원

또 그리고 그 우리가 인재 육성도 지금은 이제는 좀 변화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 지역의 인구 정책 일환으로 봤을 때 우리 기능직 이런 인구의 정책이 좀 필요하고 또 인재 육성도 그런 쪽으로 초점도 좀 맞춰야 되지 않을까 이 시점에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의원님 말씀은 우리 지역에 주로 1차 산업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이걸 앞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다 그런 인력들을 지역 내에서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의미이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얼마 정도 수요가 있고 우리 지역 내에서 그 교육할 수 있는 기관이 있는 것인지 안 그러면 이 교육을 어떻게 연결시켜서 우리 지역 내 인재가 그 교육을 받고 우리 지역 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은 좀 폭넓게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욱 의원

지금 보면은 그 우리 배가 수만 대 우리 완도만 해도. 그런 수리할 수 있는 기능직이 없거든요.

가면 갈수록 나이 먹었고 없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미리 젊은 애들한테 어떤 교육 기회를 줘서 정착을 할 수 있게끔 또 아니면 학교에서 못하면 우리가 새로 어떤 학원 설립을 해서라도 그렇게 해서 지역의 인재로 육성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철공소 전기 운동기 수리 육지는 우리 임대 수리 농기계 또 바다에는 그 기계 같은 수리 이런 것들이 다 지금 기술자들이 지금 거의 전무예요.

가요. 있다 해도 60 이상 70이 다 됐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인구 정책의 일환으로 보더라도 그런 교육 쪽으로 가면 다음에 좋은 우리 한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의 한번 드려본 겁니다. 참고 잘해서 지금은 이제 우리도 인구 정책이 그런 쪽으로도 변화할 때가 됐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실장님 시범 지역 선정을 위해 제출한 운영계획의 내용은 교육부가 정하는 시기에 수정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고 조금 전에도 가능하다고 했죠?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예. 그렇습니다.

○최정욱 의원

교육 발전 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기업, 공공기관 등에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고, 관 주도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이 아닌 학부모와 교육 전문가들을 포함한 지역 교육단체 등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교육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실장님 여기에 동의하시지?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예. 동의합니다.

○최정욱 의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동안 완도군이 교육과 관련된 자체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의 교육 수요층은 물론 교육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생략하다 보니 사업 완료 후에 주민들이 성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반복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 발전 특구 시범지역 선정은 완도 발전을 위한 귀한 마중물에 맺은 틀림이 없는데 현실을 즉시하고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전문가들과 함께 특구의 성공을 위한 지혜를 모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양훈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

러분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군정질문 답변을 통해 군정의 현안사항을 점검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질문답변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의원님과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정활동 자료수집을 위하여 10월 27일 하루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0월 2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의원(9인)

김양훈	박성규	지민
박재선	박병수	조인호
최정욱	허궁희	조영식

○출석공무원

군수	신우철
부군수	이범우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관광실장	안환옥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행정지원과장	이기석
민원봉사과장	김용식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체육진흥과장	최정환
농업축산과장	이정국
해조류박람회추진단장	김준혁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지역개발과장	오현철
건설과장	김진원
안전총괄과장	이홍용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최광윤
보건의료원장	한광일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수호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최영미
의사운영팀장 서을식
속 기 사 정현중

제333회 완도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6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10월 28일(화) 10시00분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3.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요구의 건
4. 완도군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5. 완도군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
6. 완도군 산지전용허가 기준 조례안
7. 완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완도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완도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
10. 완도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11. 완도군 생활권주변 재해 위험목 처리 지원 조례안
12. 완도군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
13. 완도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14. 완도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완도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장보고글로벌 선양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부의된 안건

1.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출)
2.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출)
3.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요구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출)
4. 완도군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김양훈 의원 발의)
5. 완도군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6. 완도군 산지전용허가 기준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7. 완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8. 완도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9. 완도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박성규 의원 발의)
10. 완도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박재선 의원 발의)
11. 완도군 생활권주변 재해 위험목 처리 지원 조례안(조인호 의원 발의)
12. 완도군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최정욱 의원 발의)
13. 완도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완도군수 제출)
14. 완도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5. 완도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6. 장보고글로벌 선양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완도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양훈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회합니다.

그러면 의사결정에 따라 16건의 안건을 상정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1.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출)

2.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출)

3.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요구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출)

먼저 의사결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3건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의안건을 검토해 주시고, 행정사무 감사 특별위원회 허궁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허궁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허궁희 의원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476호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 방향을 모색하여 군민의 복지 증진과 군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2025년 도 행정사무감사는 2025년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고자 하며, 감사 대상 기관은 군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해양치유 관리공단 및 읍면으로 정하여 의장을 제외한 8명의 의원으로 감사반을 구성하고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보좌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77호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행정 업무 추진 전반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추진 현황을 질의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78호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요구의 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허궁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양훈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한 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원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결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결정 제3항 행정사무 감사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완도군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김양훈 의원 발의)

5. 완도군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6. 완도군 산지전용허가 기준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7. 완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8. 완도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8항까지 5건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자치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서를 검토해 주시고, 행정자치위원회 박재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박재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박재선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479호 완도군 느린 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479호 완도군 느린 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완도군에 거주하는 느린 학습자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여가, 문화생활 등의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느린 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행복추구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80호 완도군 국내외 도시간 자매 결혼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완도군과 국내에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의 자매 결혼 및 우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내외 도시와의 우수 정책 공유 및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 부칙 제2조에 따라 완도군 국제교류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는 폐지됩니다.
심사 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81호 완도군 산지 전용허가 기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산지관리법 제18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제7항에서 규정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군 실정에 맞게 적용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82호 완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완도군 보 국가 보훈 대상자 수당을 상향하여 보훈 대상자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83호 완도군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완도군 참전 유공자의 보험 명예수당을 인상하여 참전 유공자의 명예 선양 및 군민의 애국 정신을 함양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 과정을 거쳐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드린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양훈

다음은 질의 및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박재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한 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4항, 완도군 느린 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도군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도군 산지 전용 허가 기준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안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도군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완도군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9. 완도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박성규 의원 발의)

10. 완도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박재선 의원 발의)

11. 완도군 생활권주변 재해 위험목 처리 지원 조례안(조인호 의원 발의)

12. 완도군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최정욱 의원 발의)

13. 완도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완도군수 제출)

14. 완도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5. 완도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6. 장보고글로벌 선양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6항까지 8건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서를 검토해 주시고, 산업건설위원회 박병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박병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병수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완도군 입영 지원금 지급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484호 완도군 입영 지원금 지급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양하는 완도 군민에게 입영 지원금을 지급함으

로써 입영 대상자의 자부심을 높이고 배경 의무 이행을 격려하기 위해 재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영 지원금 지급 및 지원 방법, 입영 지원금 신청 및 지급 절차, 환수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 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책임의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85호 완도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완도군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지적 능력을 향상하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평생 학습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재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독서문화 진흥 시행 계획, 독서문화 진흥 사업 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 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책임의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86호 완도군 생활권 주변 재해 위험목 처리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상생활에 영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원 계획, 지원 사업 지원 범위, 지원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 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책임 있는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87호 완도군 야간 관광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완도군의 야간 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관광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야간 관광 활성화 계획의 수립, 야간 관광 활성화 사업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 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책임의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88호 완도군 공유수면 점용료 사용료 징수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산정 기준과 산정 방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수면 점용료 사용료의 산정, 징수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 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책임의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89호 완도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반영하고 자전거 주차장 관련 조문의 제목, 위탁 사항, 유지 관리 조항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사항이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책임 있는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95호 완도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특정 자원 순환 관련 시설의 허가 기준을 마련하여 완도군의 경관 및 환경을 보호하고 주민들의 쾌적한 삶에 이바지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책임의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91호 정보 글로벌 선양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완도군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정보 글로벌 선양 사업의 민간 위탁 운영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정보 글로벌 사양 사업의 세계화 추진 전략에 따라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민간 위탁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 과정을 거쳐 심사한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드린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양훈

다음은 질의 및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박병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한 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완도군 입영 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완도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완도군 생활권 주변 제이원목 처리 지원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완도군 야간 관광 활성화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완도군 공유수면 점용료 사용료 진수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완도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완도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장보고 글로벌 선양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이번 회기에 처리한 안건에 대하여 완도군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자구 정계는 의장인 제가 위임받아 처리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번 회기에는 군정 질문 답변과 민생 조례안을 처리하였습니다.
특히 군정 질문 답변을 통해 다양한 현안을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은 사항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은 제안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 방안을 신속히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연초에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달 뒤에는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됩니다. 보다 철저한 준비로 내실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3회 완도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산회)

○출석의원(9인)

김양훈 박성규 지민
박재선 박병수 조인호
최정욱 허궁희 조영식

○출석공무원

부군수	이범우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관광실장	안환옥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행정지원과장	이기석
세무회계과장	천종실
민원봉사과장	김용식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체육진흥과장	최정환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지역개발과장	오현철
건설과장	김진원
안전총괄과장	이홍용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최광윤
보건의료원장	한광일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수호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최영미
의사운영팀장 서을식
속 기 사 정현중

제333회 완도군의회(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10월 20일(월)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4.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5.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1.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 외 8명 발의)
2.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 외 8명 발의)
3.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 외 8명 발의)
4.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 외 8명 발의)
5.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요구의 건(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 외 8명 발의)

(13시 31분 개의)

○박병수 위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임시위원장 박병수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완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 외 8명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방법은 「완도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회 위원장은 사전 간담회에서 위원 여러분이 추천하고 충분히 협의한 바와 같이 허궁희 의원을 2025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허궁희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됐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허궁희 위원장은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박병수, 허궁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허궁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허궁희입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자유로운 소통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본 위원회 소관 안건의 심사가 원활히 진행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2.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 외 8명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방법 역시 위원장 선임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사전 간담회에서 위원 여러분들이 추천하고 충분히 협의한 바와 같이 조영식 위원을 추천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영식 위원이 간사로 선임됐음을 선포합니다.

---

3.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 외 8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우리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처리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활용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개선토록 요구함으로써, 올바른 행정 수행을 유도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사항을 정리하여 작성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배부해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민

전문위원 박영민 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부의안건 3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완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며 매년 1회 완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에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정에 대해 더 발전적인 대안을 도출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됨과 동시에 군민에게 더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총 9일간 실시할 예정입니다. 감사대상으로는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해양치유관리공단, 읍면 및 출자출연기관이며, 감사범위는 2024년 11월 1일부터 2025년 10월 31일까지 주요시책사업, 예산 및 집행사항 등 완도군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자치와 산업건설 분야로 구분하여 2개반을 구성하였으며,반원 및 소관부서는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 감사일정입니다. 11월 25일 부터 12월 3일까지 부서별 질의 · 답변을 실시하겠으며, 각 위원님께서는 필요시 계획서와는 별개로 현장 확인을 병행하셔도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을 배부해드린 서류를 참고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궁희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 외 8명 발의)

5.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요구의 건(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 외 8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과 의사일정 제5항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과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관련법 및 조례에 따라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기로 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고, 감사기간 동안 감사사무에 관계되는 완도군 산하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5항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무쪼록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앞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할 서류를 참고하셔서 감사 전까지 필요한 자료수집과 주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보다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9분 산회)

○출석위원(8인)

허궁희	박성규	지 민
박재선	박병수	조인호
최정욱	조영식	

○ **전문위원** : 박영민

○ **속 기 사** : 임은주

제333회 완도군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10월 20일(월)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완도군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김양훈)
2. 완도군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
3. 완도군 산지전용허가 기준 조례안
4. 완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완도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완도군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김양훈의원 발의)
2. 완도군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3. 완도군 산지전용허가 기준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4. 완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5. 완도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3시 40분 개의)

○위원장 박재선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완도군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등 5건이 되겠습니다.

---

1. 완도군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김양훈의원 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완도군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김양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훈 의원

김양훈 의원입니다. 「완도군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인지와 정서적인 면 등에서 발달이 느려 학교나 단체, 사회

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지적 장애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과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있는 이른바 '느린학습자'에게 체계적인 평생교육 지원 기반을 마련하여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는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는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민

「완도군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도군에 거주하는 느린학습자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여가·문화생활 등의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행복 추구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김양훈 의원님의 제안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훈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 ·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도군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완도군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도군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기석

예. 행정지원과장 이기석입니다. 의안번호 제348호 「완도군 국내외 도시관 자매결연에 관한 재정 조례안」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 이유는 완도군과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의 자매 결연 및 우호 교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호 간의 교류 협력 증진과 공동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매 결연, 우호 교류 목적 및 정의, 적용 범위 그리고 자매 결연 대상 및 체결 후 지원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기존에 있던 국제 교류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는 폐지가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민

「완도군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도군과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간의 자매결연 및 우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내외 도시와의 우수정책

공유 및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이기석 행정지원과장의 제안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방금 행정지원과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부칙 제2조에 보면 완도군 국제교류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는 폐지됐다는 걸 먼저 알려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완도군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완도군 산지전용허가 기준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도군 산지전용허가 기준 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용식

민원봉사과장 김용식입니다. 의안번호 제3481호 「완도군 산지 전용 허가 기준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25년 1월 17일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산지 전용 허가 기준 중 일부 기준을 우리 군 특성에 맞게 완화하여 정규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7항 제1호 별표 4회 산지 전용 허가 기준의 평균 경사도 입목 축적 표기에 관한 사항입니다. 평균 경사도 25도 이하에서 30도 이하, 입목 축적 150% 이하에서 180% 이하, 표고 50% 이하에서 60% 이하로 완화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산지 전용 허가 기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민

「완도군 산지전용허가 기준 조례안 」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산지관리법」 제1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7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군 실정에 맞게 적용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김용식 민원봉사과장의 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산지전용허가 기준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

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완도군 산지전용허가 기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완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5. 완도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완도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 제4항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예. 주민복지과장 추교훈입니다. 의안번호 제3482호 「완도군 국가보훈 대상자 요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 대상자의 예우를 강화와 참전 유공자 수당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보험 대상자 수당을 인상하고자 하며, 일부 지급 금액에 대한 표기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 내용입니다. 제9조제1호 국가 유공자 명예 보훈 수당, 제3호 국가유공자 배우자 유족수당, 제4호 전몰군경 순직 군경 자녀 수당, 10만 원을 각각 12만 원으로 인상하고 제5호 명예 특별 위로금 10만 원 1만 원 단위를 원 단위로 회기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민

「완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수당을 상향하여 보훈대상자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추교훈 주민복지과장의 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계속 우리가 해마다 지금 이걸 지금 인상을 하고 있죠?

이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 제4항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과장은 계속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재선

그러면 타 지자체는 지금 얼마 정도 주고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지금 해남은 14만 원, 진도는 15만 원, 그런데 저희들이 12만 원인데요. 22개 시·군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중간 정도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재선

근데 이거 조금 있으면 내년이면 또 올려주라고 할 텐데..... 지금 제가 이거 하면서 전에 8대부터 세 번째 올린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저희들이 이제 국가적으로 차원에서 정부에서 지자체가 일관성 있게 지원하게끔 저희들 건의합니다마는 보훈청에서 지금 그런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훈청에서는 타 지자체와 형평성에 맞게끔 조정해서 주라는데, 서로 이렇게 경쟁이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재선

그래서 또 그럴 것 같아서 인근 시군하고 똑같이 저희들도 맞춰버리는 게 좋지 않은가..... 그런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그건 또 차후에 또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선

이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 제4항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과장은 계속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다음은 의안번호 제3483호 완도군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 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하여 참전 유공자 유족 수당을 인상하고자 하며 또한 일부 금액에 대한 표기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4조 제1호 참전 유공자 명예수당 12만 원, 제2호 참전 유공자 사망 위로금 50만 원, 제4호 사별한 배우자 명예 위로금 10만 원을 각 만 원 단위를 각 원 단위로 표기를 변경하고, 제3호 사별한 배우자 유족 수당 10만 원을 12만 원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민

「완도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도군 참전유공자의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하여 참전유공자와 유족의 명예선양 및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추교훈 주민복지과장의 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선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완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도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6분 산회)

○출석위원(8인)

박재선　박성규　지민

박병수　조인호　최정욱
허궁희　조영식

○위원이 아닌 의원(1인)

김양훈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과장	이기석
민원봉사과장	김용식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 **전문위원** : 박영민

○ **속 기 사** : 임은주

제333회 완도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10월 20일(월)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완도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
2. 완도군 독서 문화 진흥 조례안
3. 완도군 생활권주변 재해위험목 처리 지원 조례안
4. 완도군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
5. 완도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6. 완도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완도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장보고글로벌 선양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부의된 안건

1. 완도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박성규의원 발의)
2. 완도군 독서 문화 진흥 조례안(박재선의원 발의)
3. 완도군 생활권주변 재해위험목 처리 지원 조례안(조인호의원 발의)
4. 완도군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최정욱의원 발의)
5. 완도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6. 완도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7. 완도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8. 장보고글로벌 선양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완도군수 제출)

(13시 56분 개의)

○위원장 박병수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완도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안」 등 8건이 되겠습니다.

---

1. 완도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박성규의원 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완도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박성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규 위원

박성규 의원입니다. 「완도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병역의무 이행자 지원을 제도화하여 청년들의 사기 진작과 지역사회의 책임 있는 병역문화 조성을 도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는 입영지원금 지급 및 지원방법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입영지원금 신청 및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문희

「완도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는 완도군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입영대상자의 자부심을 높이고,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최정욱 의원님의 제안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도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완도군 독서 문화 진흥 조례안(박재선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도군 독서 문화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박재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 위원

박재선 의원입니다.

「완도군 독서 문화 진흥 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군민의 독서활동을 촉진하고 독서문화를 확산함으로써 지식 기반의 학습사회 조성과 건전한 지역 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는 독서 문화 진흥 시행계획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는 독서 문화 진흥사업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문희

완도군 독서 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완도군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지적 능력을 향상하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평생학습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박재선 의원님의 제안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독서 문화 진흥 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완도군 독서 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완도군 생활권주변 재해위험목 처리 지원 조례안(조인호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도군 생활권주변 재해위험목 처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조인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호 위원

조인호 의원입니다. 「완도군 생활권주변 재해위험목 처리지원 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생활권 주변에 존재하는 재해위험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군민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는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는 지원범위 및 지원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는 처리반의 설치·운영 및 처리반의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문희

「완도군 생활권주변 재해위험목 처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활권 주변 재해위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인호 의원님의 제안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생활권주변 재해위험목 처리 지원 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완도군 생활권주변 재해위험목 처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완도군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최정욱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도군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 제4항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최정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욱 위원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완도군의 야간관광 자원을 발굴·활용하여 체류형 관광을 확산하고, 지역의 밤이 새로운 경제와 문화의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는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문희

「완도군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도군의 야간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최정욱 의원님의 제안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완도군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 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 완도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도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 제5항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해양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해양정책과장 김현란입니다. 의안번호 제3488호 「완도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산

정 기준과 산정 방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에서는 천재지변 발생 및 감염병 확산 등의 사정으로 본래의 공유수면 점·사용료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2조 공수면 점용료·사용료 산정에 관한 규정으로 공유수면 점용 또는 사용하는 행위의 목적에 따라 별표 1의 산정 방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된 사항입니다. 안 제3조는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에 관한 규정으로 점용 사용 허가의 기간에 따라 징수 시기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점용 사용 허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와 1년 이상인 경우로 나누어 징수 절차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8조는 공유수면 점용료 사용료의 분할 납부, 감면 가산금 징수, 가오납분 정산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점용료·사용료의 징수 및 관리에 있어 유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문희

「완도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산정기준과 산정방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김현란 해양정책과장의 제안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정책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완도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6. 완도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도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 제6항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산림휴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산림휴양과장 박은재입니다. 의안번호 제3489호 「완도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현행 우리 군 조례는 상위 법령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자전거 주차장 관련 조문의 제목과 위탁 사항, 유지 관리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7조의 제목을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

등에서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으로 변경하였고, 제2항에는 자전거 주차장 관련 위탁 위임 사항의 근거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자전거 주차장의 유지 관리 조항을 신설하여 상위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완도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문희

「완도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반영하고, 자전거주차장 관련 조문의 제목, 위탁 사항, 유지·관리 조항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박은재 산림휴양과장의 제안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휴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휴양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완도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7. 완도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도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 제7항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오현철

지역개발과장 오현철입니다. 「완도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특정 자원 순환 관련 시설의 허가 기준을 마련하여 완도군의 경관 및 환경을 보호하고 주민들의 쾌적한 정주 여건 조성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시계획 조례」 제20조의 3회 기존 폐차장 고물상 허가 기준을 폐차장과 자원 순환 관련 시설인 폐기물 재활용 시설, 폐기물 처분 시설, 폐기물 감량화 시설의 허가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기존 시설의 이전 증설 업종 변경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하도록 단서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완도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 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문희

「완도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특정 자원순환 관련 시설의 허가 기준을 마련하여 완도군의 경관 및 환경을 보호하고 주민들의 쾌적한 삶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오현철 지역

개발과장의 제안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완도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8. 장보고글로벌 선양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장보고글로벌 선양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 제8항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문화예술과장 한재영입니다. 의안번호 3492호 「장보고 글로벌 선양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본 민간 위탁 동의안은 장보고 선양 사업의 세계화 추진 전략에 따라 장보고 글로벌 선양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민간 단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장보고 글로벌 선양 사업 민간 위탁은 완도군 장보고 대사 선양 사업 지원 조례에 근거한 사무형 위탁으로서 위탁 기간은 4년이며, 수탁기관 선정은 공모를 통해 선정할 예정입니다. 주요 위탁 사항은 장한상 어워드 공모 및 시상, 민간 네트워크 구축 등 장보고 글로벌 정신 함양을 위한 국내외 홍보 및 국제 교류 관련 사업과 관련된 업무와 장한상 수상자협의회와 연계한 글로벌 인재 양성 사업 등으로 운영 재원은 군비 100%입니다.

다음 8페이지 예산 수반 사항입니다. 소요예산은 연평균 2억 5천만 원으로 위탁 기간 4년간 총 10여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세부 산출 내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2023년 의회 동의를 얻어 금년도 민간 위탁을 통해 금년 말까지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붙임 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붙임 자료3이 있는 7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민간 위탁 추진 실적입니다. 2025년도 민간 위탁은 공모 절차를 거쳐 사단법인 장보고 글로벌 재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9월 28일 제10회 장보고 한상 어워드 시상식을 완도에서 개최하여 총 6명의 한상을 시상하였으며, 현재까지 장보고 한상 어워드 수상자는 총 23개국 55명을 배출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4월 미국에서 개최된 제3회 장한상 수상자 3개에 대해서는 장한상 수상자 네트워크를 통해 완도군 특산품 14건, 1860만 달러 수출 협약 체결 및 현지 판매 계약 2건, 2만 2천 달러의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이와 함께 지난 3월에는 베트남 라오스에서 완도 특산품 시식 홍보 행사를 개최하고 지난 5월에는 장한상 수상자 6명을 완도군 명예군민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장보고 글로벌 선양 사업을 위한 신규 사업 지속적으로 발굴 확대해 나가겠으며, 장한상 수상자 네트워크를 통한 완도 수산물의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해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업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내년 제4회 장한상 수상자 세계 대회에는 2026년 PRE 완도 국제 해조류 박람회 수출 상담회와 연계 추진하여 성공적인 박람회 개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장보고 글로벌 선양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산회)

○출석위원(8인)

박병수　박성규　지　민
박재선　조인호　최정욱
허궁희　조영식

○출석공무원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지역개발과장	오현철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 전문위원 : 전문희

○ 속 기 사 : 임은주

회 의 록 서 명

(제333회 임시회 회의록)

「지방자치법」 제84조제2항 및 「완도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서명함.

직 위	성 명	서 명	비 고
의 장	김 양 훈		
서명의원	박 재 선		
서명의원	박 병 수		
사무과장	최 영 미		

제334회 완도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34회 완도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개회식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11월 20일(목) 오전 10시 개식
장 소 본회의장

제334회 완도군의회(제2차 정례회) 개회식순

1. 개식
2. 국기에 대한 경례
3. 애국가 제창
4.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5. 폐식

(사회 : 의사운영팀장 서을식)

(10시00분 개식)

○의사운영팀장 서을식

안녕하십니까? 의사운영팀장 서을식입니다.

지금부터 제334회 완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자리에 앉은 채로 예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이어서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반주에 맞춰 1절을 힘차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다음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김양훈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김양훈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신우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제334회 완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과 헌신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군정의 최일선에서 군민의 행복과 2026년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국회 예산 확보에 힘써주신 신우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까지 군정 추진 동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의회 또한 군민의 삶을 바꾸는 정책과 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갖고 함께하겠습니다. 올 한 해 완도군은 군민의 참여와 협력 속에 여러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25 완도 방문의 해’ 선포식을 시작으로 국제슬로시티연맹 시장 총회와 전국 생활체육 대축전을 성황리에 개최하였으며,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고 해양수산부 주관 2026년 어촌 신활력 증진 공모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적극행정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제1회 SBS 고향사랑기부대상에서 대상을, ‘제15회 2025 대한민국 SNS 대상’ 지자체 부문 최우수상과, ‘2025 참 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 행정안전위원장상을 수상하는 등 대외적으로 큰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완도를 대표하는 체육인들의 활약도 돋보였습니다. 이윤리 사격선수는 금메달 3관왕의 빛나는 성과와 함께 2026년 사격 국가대표 자격을 확정 지었고, 완도군청 역도실업팀은 전국체육대회를 비롯한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특히 완도군 유소년 야구단은 창단 1년 6개월 만에 각종 대회에서 뛰어난 실력을 증명했습니다.

완도의 이름을 높인 선수들과 지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체육인재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서 지역의 고질적인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길·노화도 비상급수망 구축 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지역민들의 애환과 고통이 서려 있는 사업인 만큼 해저 관로를 통한 안정적인 용수 공급이 조기에 실현되어 물 부족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소되고 도서지역 주민들의 삶이 한층 향상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정례회에서는 군정 전반을 점검하는 행정사무감사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내년도 군정 운영의 청사진이라 할 수 있는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행정의 잘못된 점은 바로잡고, 군민들의 불편 사항은 개선하며, 예산은 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를 군민의 입장에서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의 미래를 위한 발전 방향이 올바르게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도 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를 명확히 설명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계획과 근거를 충분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최근 날씨가 급격히 추워지면서 건강 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군민 여러분께서는 개인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고, 주변 어르신과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따뜻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연말연시에는 각종 모임과 행사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으니, 과음과 안전사고 예방에도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완도군의회는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지역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남은 기간에도 의회와 집행부가 한마음으로 협력하여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 큰 희망과 활력이 완도를 가득 채우길 기대하며 군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운영팀장 서을식

이상으로 제334회 완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0시07분 폐식)

제334회 완도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11월 20일(목) 10시00분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지민 의원)
▣ 5분 자유발언(박성규 의원)
▣ 5분 자유발언(조인호 의원)
1. 제334회 완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지민 의원)
▣ 5분 자유발언(박성규 의원)
▣ 5분 자유발언(조인호 의원)
1. 제334회 완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완도군수 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지민 의원 외 7명 발의)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7분 개의)

○의장 김양훈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완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영미

의회사무과장 최영미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완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2025년 11월 12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위원회 회부 사항입니다. 의원발의로 「완도군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등 7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완도군수로부터 「완도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6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접수사항입니다. 완도군수로부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안이 제출되었으며, 오늘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후 해당 위원회로 회부할 예정입니다. 지민, 허궁희, 조인호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며, 이번 회기에는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양훈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지민, 허궁희, 조인호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지민 의원)

○지민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양훈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우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사회의 보이지 않는 버팀목이자, 손주를 돌보며 묵묵히 헌신하고 계신 조부모님들의 육아 부담, 그리고 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4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맞벌이 가구 비율은 48.2%에 달하며, 이 중 30대 가구는 무려 58.9%가 맞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막내 자녀가 6세 이하인 가정의 경우, 맞벌이 비율이 51.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면서 영유아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은 더욱 부족해지고, 특히 24시간 밀착 돌봄이 필요한 영아의 경우 보육시설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돌봄의 공적영역에서 공백이 발생하면 개인들은 돌봄의 최후 보루인 조부모님이나 친인척에게 의지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실은 수치로도 확인이 되는데, 보건복지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 10명 중 8명은 조부모가 주 양육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른바 '황혼육아'는 이제 특별한 상황이 아닌, 보편적인 일상이 되었으나, 이에 따른 조부모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에 대해 이를 돌봄 영역으로 보지 않는 인식은 많은 개선이 필요합니다. 현재 완도군은 총 10가구를 대상으로 손자녀가 생후 24~35개월일 때 가구당 월30만원의 돌봄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조부모의 노고를 인정한 의미 있는 출발이지만 실질적인 체감효과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다른 지자체들은 이미 한 발 앞서 보다 현실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조부모는 물론 4촌 이내 친인척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고, 돌봄 시간에 따라 월 최대 6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만8세 이하 아동까지 대상을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완도도 지역

실정에 맞는'완도형 조부모 손자녀 돌봄지원 사업'으로 발전시켜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제적 지위과 함께 조부모 대상 육아교육 프로그램의 확대 운영입니다.

지금 가족센터를 통해 조부모 교육을 진행하고 있지만, 단회성에 그치고 있습니다.

완도군은 권역별로 정기 프로그램을 운영해 연령별 발달단계에 맞는 돌봄방법, 안전사고 예방, 스마트폰 과의존 대처, 손주와의 소통법 등 생활속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교육 이후에는 자조모임을 활성화해 조부모간의 교류와 정보공유가 이어지는 지속가능한 공동체 기반을 만들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신 우 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조부모 돌봄정책은 단순한 복지정책을 넘어 가족공동체와 미래세대를 지키는 투자입니다.

조부모의 따뜻한 돌봄은 아이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주고, 부모에게는 일과 가정 양립을 가능하게 하며, 이는 곧 저출산 대응과 지역 인구 유지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입니다.

완도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조부모의 돌봄을 개인의 희생이 아닌 사회가 함께 나누는 책임으로 확장하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양훈

지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박성규 의원)

○박성규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양훈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우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허궁희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집행부의 성실한 자세와 지적되는 문제점들에 대한 집행부의 실질적인 조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발언기회를 주신 김양훈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부의 제반 행정행위에 대해 매년 1회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위법사항은 시정조치하고 보다 발전적인 군정 실현을 주문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원인과 결과를 면밀하게 분석한 후에 실질적인 조치와 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완도군의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는 시정 요구사항에 대해 “이때만 지나가면 된다.”“소나기만 피하면 된다”는 안일한 상황 인식과 임시방편적인 조치로 대응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에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해양치유담당관에게 약산해수온열치유실의 잦은 고장, 관리부실, 안전관리 문제가 있어 산림휴양과 협의를 거쳐 인수인계 후 2025년에 운영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했습니다.

이에 해당부서에서는 2024년 12월에 부서간 인수인계 완료 및 시범운영한다고 하고 처리결과를 “종결”처리하여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현장 확인 결과 시범운영은커녕 여전히 관리부실로 이어져 지금까지도 약

산해수온열치유실은 운영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섬 해양관광기반시설 추진 미흡, 완도 방문의 해 추진에 따른 주민설명회 미개최, 농촌신활력플러사업 추진에 드러난 문제에 대한 개선, 동물보호센터 반려견 놀이터 추진 미흡, 약산권역 유리온실 방치 등 많은 부분들이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 행정에서는 현재까지고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태도로 임하고 있습니다.

이는 적극 행정의 부재이자 책임감 부족에서 비롯됩니다.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각 부서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잘못된 업무 처리 방식을 개선하려는 의지와 함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실효성 있는 조치와 책임 있는 행정은 행정서비스의 질을 제고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얻고, 더 나아가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단순히 행정기관 보고서상의 완료, 검토, 추진이 아닌 군민들을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했는지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쩌면 이런 문제는 행정이 수요자 입장에서 출발해야 하는데 공급자 위치에서 처리되다보니 업무 부실과 비효율성이 반복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촛불혁명의 기반 위에 정권을 탄생시킨 이재명 정부도 국민주권정부을 표방하며 “공직자는 국민의 입장에서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와 배경을 밑받침으로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집행부에게 요청드립니다.

더 이상 동일한 사항들이 반복되지 않고,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완도군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행정 그리고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합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권위와 권한을 진정으로 존중하고,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형식적인 답변과 대응에서 벗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상호견제와 협력을 통한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해야 주민의 삶이 개선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주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양훈

박성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인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조인호 의원)

○조인호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양훈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우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인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올해 완도군의 섬 발전방안을 위한 연구단체를 구성하고, 섬 발전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완도군의 비교우위 자원인 섬의 고유한 정체성(正體性)과 해양자원의 가치를 제대로 키우기 위한 철저한 계획을 만들어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개별 섬의 활력을 위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발언기회를 주신 김양훈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완도는 265개의 섬과 54개의 유인도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각각의 섬 마다 매우 큰 잠재력과 가치를 가진 공간으로써 행정력은 지속가능하고 효과적인 개발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완도군의 섬 정책은 너무 막연합니다.

과거에 비해 섬에 대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완도의 섬이 어떤 방향과 경쟁력을 갖고 나아갈지 밑그림은 여전히 부족한 상태이며, 기대효과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수년 간 완도군은 어촌뉴딜 300 사업과 각종 섬 개발 사업 등 중앙부처 공모형 사업을 통해 투자됐으며, 앞으로도 투자될 금액만 수천억에 이릅니다.

이는 관련 공직자와 주민대표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협력이 결과일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성과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하지만,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 섬의 발전 방향과 목표는 아직도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이는 섬에 관한 정책의 방향성이 불분명하고 섬마다 비슷한 유형의 투자와 실패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업을 통해 조성한 시설을 활용하지 못하고 방치되거나 목표했던 바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도 너무 많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인해 주민들의 허탈감은 늘어나고 행정의 관리부담을 증가시키며, 결국은 예산낭비 사례로까지 이어지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각각의 완도의 섬 정체성을 어떻게 정립하고, 어떻게 특성화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번 2차 정례회에서 우리 군 섬 발전에 대한 지속가능한 계획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며, 『완도군 섬 발전 기본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이 집행부에게 몇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완도군 섬 개발을 위해 각각의 섬 정체성을 담은 섬 발전 종합계획을 재정립하여 명확하고 구체화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권역별로 거점섬, 테마섬 형태로의 기능분할과 연계 계획 수립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완도군 섬 발전 종합계획에 따라 금일권역과 노화권역에 대한 도시 기본계획도 기본방향과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반영을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섬의 지리적 여건 상 가장 기본적인 과제는 이동권입니다.

연륙·연도교 건설과 함께 미래형 교통수단, 친환경 교통수단, 드론 등을 활용한 신기술을 접목한 서비스인프라 등의 새로운 접근 방식, 소통방식을 보여줄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을 세워 준비해주십시오.

이제 행정은 시대적 변화와 기류에 빠르게 편승하고 대응하는 전략은 필요로 합니다.

기술 혁신의 속도 증가와 사회적 구조의 다양성으로 군민은 이제 기업 서비스처럼 빠르고 맞춤형이며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기대합니다.

신우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섬은 완도군 발전의 토대이며 우리의 미래

자산이기도 합니다.

귀중한 미래자산을 남들의 뒤따라가는 형태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미래에 예정되어 있는 인구감소는 섬 지역에 가장 먼저 찾아오게 됩니다. 인구감소로 섬이 비는 공도화 현상 방지를 위해서는 철저한 계획과 과감한 투자 그리고 지원 정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섬 주민이 섬을 떠나지 않고 새롭게 인구가 유입되어 지속 가능한 삶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섬 발전을 위한 투자를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양훈

조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에 대해 검토하신 후 제안사항은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의원님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제334회 완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34회 완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25년 11월 20일부터 12월 14일까지 2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순서에 따라 조영식 의원과 조인호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관련 서류를 검토해 주시고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의안번호 3499호,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지난 2회 추경 이후 변경되거나 신규로 확정된 국도비 보조사업을 예산에 반영하고, 이월사업과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요불급한 사업비와 경상비를 삭감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용 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역, 1천만원 이상 주요 자체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증감 내역, 계속비사업, 명시이월 순입니다. 먼저 1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 규모입니다. 예산 규모는 7,911억 6,785만 9천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508억 9,270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7,592억 1,939만 8천원으로 483억 9,850만 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19억 4,846만 1천원으로 24억 9,419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7,592억 1,939만 8천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483억 9,850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원별 증감 내용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지난연도 수입 14억 9백만원이 감액되었고,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5억 2,861만 2천원, 임시적 세외수입 50억 574만

7천원, 행정제재금 4억 2,047만 5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1억 5,678만 8천원을 감액 반영 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특별조정교부금 4억 8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국비 318억 9,093만 9천원 증액, 도비 22억 3,859만 2천원 증액하여 총 341억 2,953만 1천원 증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해양치유관리공단 운영수입금 115억 원 감액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302억 9,559만 7천원 증액하여 총 293억 9,992만 8천원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규모는 세입예산과 같이 508억 9,270만 1천원 증액된 7,911억 6,785만 9천원입니다. 기능별 세부 증감내역은 일반공공행정 110억 9,622만 5천원 증액, 공공질서 및 안전비 3억 9,502만 4천원, 교육비 290만원 각각 감액, 문화 및 관광비 24억 8,644만원, 환경비 97억 7,313만 1천원, 각각 증액, 사회복지비 28억 626만 8천원, 보건비 3,352만 1천원 각각 감액, 농림해양수산비 2,697만 9천원 증액,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비 6,050만 원 감액, 교통 및 물류비 6억 2,690만 1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비 7억 4,134만 1천원 각각 증액, 예비비 14억 9,466만원, 기타비용 37억 7,496만 4천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성질별 세부 증감내역은 인건비 30억 4,802만 4천원 감액, 15억 7,752만 원, 경상이전비 311억 8,694만 7천원, 자본지출비 90억 3,859만 4천원, 내부거래는 21억 3,336만 3천원, 예비비 및 기타 100억 430만 1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현황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은 총 4,448억 8,881만 9천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군비 부담 포함하여 343억 3,300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국고보조사업이 3,131억 4,401만 4천원으로 313억 2,803만 6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도비보조사업이 1,069억 503만 4천원으로 29억 9,581만 8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변동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137억 3,977만 1천원으로 915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별첨한 국도비 보조사업 세부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주요 자체사업 현황입니다. 1천만원 이상 주요 자체사업은 총 49개 사업에 110억 3,416만 4천원이 신규반영 되거나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5쪽부터 7쪽까지의 주요 사업조서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8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증감 내역입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319억 4,846만 1천원으로 2회 추경 대비 24억 9,419만 6천원 증액되었습니다. 각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21억 2,634만 7천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 920만 9천원, 농공지구(단지) 조성관리 특별회계에서 1,287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 계속비 사업 내역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일반회계가 총 92개 사업으로 당초 사업비 5,992억 8,383만 3천원에서 1,288억 8,657만 9천원이 증액되어 7,281억 704만 2천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5개 사업으로 당초 사업비 659억 9,500만원으로 변동 없습니다. 세부내역은 제안설명서 10쪽부터 24쪽까지 계속비 사업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쪽, 명시이월 사업 내역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일반회계가 266건에 1,027억 8,937만 4천원이며, 특별회계는 7건에 18억 7,75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제안설명서 26쪽부터 39쪽까지 명시이월 사업 조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양훈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지민 의원 외 7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관련 서류를 검토해 주시고 의회운영위원회 지민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지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지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499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완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양훈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지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11월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2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

○출석의원(9인)

김양훈	박성규	지민
박재선	박병수	조인호
최정욱	허궁희	조영식

○출석공무원

군수	신우철
부군수	이범우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관광실장	안환옥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행정지원과장	이기석
세무회계과장	천종실
민원봉사과장	김용식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체육진흥과장	최정환
농업축산과장	이정국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해조류박람회추진단장	김준혁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지역개발과장	오현철
건설과장	김진원
안전총괄과장	이홍용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최광윤
보건의료원장 한광일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수호

○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최영미
의사운영팀장 서을식
속 기 사 정현중

제334회 완도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11월 25일(화) 10시00분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안
3.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완도군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5. 완도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안
6. 완도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완도군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완도군 청사신축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완도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완도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완도군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완도군 난임극복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재)장보고장학회 출연 동의안
14. (재)전남바이오진흥원 출연 동의안
15.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 사업 선정 동의안
16.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 동의안
17.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8. 2025년 완도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19. 2026~2030년 완도군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 2026년 완도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1. (재)완도군행복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22. 국공립 어린이집(완도LH어린이집, 약산 어린이집) 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23. 완도군 상공인 지원 및 지역상품 우선구매 등에 관한 조례안
24. 완도군 방치 농업기계 처리 지원 조례안
25. 완도군 섬 발전 기본 조례안
26. 완도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완도수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8. 완도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30.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31.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32. 완도군자원관리센터 운영 위탁 동의안

부의된 안건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안(완도군수 제출)
3.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완도군수 제출)
4. 완도군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지민 의원 발의)
5. 완도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안(조영식 의원 발의)
6. 완도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7. 완도군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8. 완도군 청사신축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9. 완도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0. 완도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1. 완도군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2. 완도군 난임극복지원에 관한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3. (재)장보고장학회 출연 동의안(완도군수 제출)
14. (재)전남바이오진흥원 출연 동의안(완도군수 제출)
15.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 사업 선정 동의안(완도군수 제출)
16.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 동의안(완도군수 제출)
17.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완도군수 제출)
18. 2025년 완도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완도군수 제출)
19. 2026~2030년 완도군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완도군수 제출)
20. 2026년 완도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완도군수 제출)
21. (재)완도군행복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완도군수 제출)
22. 국공립 어린이집(완도LH어린이집, 약산 어린이집) 위탁관리 동의안(완도군수 제출)

부의된 안건

23. 완도군 상공인 지원 및 지역상품 우선구매 등에 관한 조례안(김양훈 의원 발의)
24. 완도군 방치 농업기계 처리 지원 조례안(박병수 의원 발의)
25. 완도군 섬 발전 기본 조례안(조인호 의원 발의)
26. 완도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27. 완도수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28. 완도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29.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완도군수 제출)
30.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완도군수 제출)
31.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완도군수 제출)
32. 완도군자원관리센터 운영 위탁 동의안(완도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양훈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완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33건의 안건을 상정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완도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드린 변경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안(완도군수 제출)

3.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해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영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조영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영식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500호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안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우리 군에서 운용중인 기금은 8개 기금으로 2025년도 말 현재액은 58억 6,341만 4천원입니다. 기금 총 수입은 321억 3,070만 8천원이고, 지출은 7백5억 4,569만 1천원으로 2024년도 말 대비 총 384억 1,498만 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 2페이지부터 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기금의 건전성 확보와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99호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7,911억 6,785만 9천원이며, 일반회계가 7,592억 1,939만 8천원이고, 특별회계는 319억 4,846만 1천원으로 2회 추경 대비 508억 9,270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세입은 증액이나 삭감은 없으나 세출 예산액 일부를 삭감하기로 결정하여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능별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 2,600만원, 기타 분야에서 765만 6천원을 삭감하였고, 예비비에서 3,365만 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성질별로는 물건비 분야에서 2,600만원을 삭감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 분야에서 2,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추경예산안 심사조서 13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한해 재정 운영의 방향을 완성하는 예산으로,

우리 군이 직면한 재정여건을 면밀히 고려하여, 당면한 현안과 군민 생활에 직결되는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하였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예산의 '편성'이 아니라 예산의 '현장집행'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남은 기간 동안 예산이 현장에 바로 쓰여 군민의 일상생활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는 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 과정을 거쳐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양훈

다음은 질의 및 토론 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영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한 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완도군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지민의원 발의)

5. 완도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안(조영식 의원 발의)

6. 완도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7. 완도군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8. 완도군 청사신축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9. 완도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0. 완도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1. 완도군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2. 완도군 난임극복지원에 관한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3. (재)장보고장학회 출연 동의안(완도군수 제출)

14. (재)전남바이오진흥원 출연 동의안(완도군수 제출)

15.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 사업 선정 동의안(완도군수 제출)

16.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 동의안(완도군수 제출)

17.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완도군수 제출)

18. 2025년 완도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완도군수 제출)

19. 2026~2030년 완도군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완도군수 제출)

20. 2026년 완도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완도군수 제출)

21. (재)완도군행복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완도군수 제출)

22. 국공립 어린이집(완도LH어린이집, 약산어린이집) 위탁관리 동의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22항까지 1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자치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서를 검토해 주시고 행정자치위원회 박재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박재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박재선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505호 완도군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등 1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505호 완도군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자존감 회복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06호 완도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완도군민의 올바른 식생활 정착과 체계적인 영양관리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애주기별 맞춤형 영양 지원을 강화하고, 군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07호 완도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셋째아 이상 돌사진 촬영비 지원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다자녀 출생가정에 지원을 강화하고 출산 장려 및 가족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08호 완도군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유학 지원의 운영방식과 재정 집행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여 학생 유입을 통한 지역 교육력 제고와 도시 농촌간의 상생발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11호 완도군 청사신축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완도군 청사신축기금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 직위를 해양치유담당관에서 관광실장으로 직제 순서에 따라 변경하여 위원회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수 있도록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12호 완도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규정을 정비하고 특정 건축물의 건축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령간의 일관성과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13호 완도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쇠·장애·질병·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지원을 통합하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14호 완도군 출생기본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출생기본수당 지급이 부모 모두가 도내에 거주해야하는 규정의 적용상 문제점을 해소하고 출생아 가정이 안정적으로 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지급요건을 정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 부칙 제2조에 따라 완도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는 폐지됩니다.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15호 완도군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부부의 심리적·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완도군의 적극적인 출산지원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16호 (재) 장보고장학회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명문학교 만들기 및 교육환경 개선사업의 지속 추진으로 관내 학교로 진학을 유도하고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 경감과 인구유출 억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출연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출연의 목적과 필요성에 따라 출연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17호 (재) 전남바이오진흥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해조류 활용 기능성 소재 발굴 및 산업화를 통한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지원을 위하여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출연의 목적과 필요성에 따라 출연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18호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 사업 선정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5년 고향사랑 기부금법 개정으로 본인의 기부금이 사용되길 원하는 '사업'에 직접 기부할 수 있는 '지정기부' 개시를 동의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19호 (사) 전남 남북교류 평화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지자체의 남북교류사업 및 민족 공동체 형성을 위한 공익사업의 전개와 평화통일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기 위해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출연의 목적과 필요성에 따라 출연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20호, 한국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세·재정 제도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자치단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출연의 목적과 필요성에 따라 출연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21호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입니다.

본 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취득·처분을 위하여 2025년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집행부에서 제출된 공유재산 계획 변경안의 주된 내용으로는 청년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고금면 LPG 배관망 사업 추진에 따른 부지 매입, 완도중앙시장 주변 주차공간 매입, 금일 해양치유생활체육공원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 청산, 고금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따른 토지 매입, 금일 다목적구장 조명타워 설치에 따른 토지매입, 신지 국민체육센터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 금일읍, 금당면 일원

토지 기부채납, 군외면 영풍리 산 166-1(임야) 기부채납 등으로 토지 84건과 건물 2건을 취득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계획 변경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22호 2026~2030년 완도군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처분등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5회계연도 기간에 대한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심사결과,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계획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23호 2026년 완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처분등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2026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에 집행부에서 제출된 계획안의 주된 내용으로는 해양수산 기후변화대응센터 유치 추진에 따른 부지매입, 복합문화도서관 건립 사업, 다도해일출공원 확대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토지매입, 토지 13건, 건물 1건을 취득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계획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24호, (재) 완도군 행복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완도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출연의 목적과 필요성에 따라 출연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25호 국공립 어린이집(완도LH어린이집, 약산어린이집) 위탁관리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완도LH어린이집, 약산 어린이집의 관리 효율화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제 4조에 의거 민간위탁 운영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과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 과정을 거쳐 심사한 19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양훈

다음은 질의 및 토론 할 순서입니다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박재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한 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도군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도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도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

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도군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완도군 청사신축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완도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완도군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완도군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완도군 난임극복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재단법인 장보고장학회 출연 동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재단법인 전남바이오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사업 선정 동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사단법인 전남 남북교류 평화센터 출연 동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5년 완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6년에서 2030년까지 완도군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6년 완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재단법인 완도군 행복 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관리 동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3. 완도군 상공인 지원 및 지역상품 우선구매 등에 관한 조례안(김양훈 의원 발의)
24. 완도군 방치 농업기계 처리 지원 조례안(박병수 의원 발의)
25. 완도군 섬 발전 기본 조례안(조인호 의원 발의)
26. 완도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27. 완도수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28. 완도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29.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완도군수 제출)
30.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완도군수 제출)
31.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완도군수 제출)
32. 완도군자원관리센터 운영 위탁 동의안(완도군수 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3항부터 제32항까지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서를 검토해 주시고 산업건설위원회 박병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박병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병수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526호 완도군 상공인 지원 및 지역상품 우선구매 등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526호 완도군 상공인 지원 및 지역상품 우선구매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완도군이 발주하는 물품·용역·공사 분야에서 관내 상공인의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에서 생산·판매되는 지역상품의 우선구매를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내 상공인 지원 적용대상기관 지역상품 등의 우선 구매 재정지원 및 인센티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27호 완도군 방치 농업기계 처리 지원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방치된 농업기계를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농촌 경관을 개선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함으로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방치 농업기계 처리 의무 실태조사 농업기계의 강제 처리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28호 완도군 섬 발전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섬 발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 주도형 발전과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완도군 섬발전종합계획 실태조사 섬 발전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위원회 구성 섬 관련 행사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 제2조에 따라 완도군 섬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는 폐지됩니다.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29호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창업 증가 및 소상공인 경영악화로 인한 신용 보증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안정적인 보증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출연의 목적 및 필요성에 따라 출연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30호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중소기업의 시설자금 융자 지원으로 경영안정과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출연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출연의 목적 및 필요성에 따라 출연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31호 완도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공공체육시설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 감면지원 규정 등을 신설하여, 체육시설 이용자 관리 및 시설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32호 완도수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타 지자체 초등학생 단체 방문 증가로 인해 관내 주민 이용 불편이 발생함에 따라 감면대상 범위를 지역으로 한정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 감면지원 규정 등을 신설하여,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33호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입니다. 본 동의안은 농·어업인 소득증대와 농·어업인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출연의 목적 및 필요성에 따라 출연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34호 완도군자원관리센터 운영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완도군자원관리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완도군자원관리센터 관리 운영권이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민간위탁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35호 완도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하천 점용료 등 산정·납부·감면·반환 등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중소기업 · 소상공인 등 점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소하천 관리의 효율성 및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 과정을 거쳐 심사한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양훈

다음은 질의 및 토론 할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박병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한 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완도군 상공인 지원 및 지

역상품 우선구매 등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완도군 방치 농업기계 처리 지원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완도군 섬 발전 기본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완도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완도수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완도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전남 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을 산업 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완도군 자원관리센터 운영 위탁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3. 휴회의 건(11. 26. ~ 12. 3.)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오늘 처리한 안건에 대하여 「완도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자구 정리는 의장인 제가 위임받아 처리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

○출석의원(9인)

김양훈	박성규	지민
박재선	박병수	조인호
최정욱	허궁희	조영식

○출석공무원

군수	신우철
부군수	이범우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관광실장	안환옥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행정지원과장	이기석
세무회계과장	천종실
민원봉사과장	김용식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체육진흥과장	최정환
농업축산과장	이정국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해조류박람회추진단장	김준혁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지역개발과장	오현철
건설과장	김진원
안전총괄과장	이홍용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최광윤
보건의료원장	한광일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수호

○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최영미

의사운영팀장 서을식

속 기 사 정현중

제334회 완도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12월 4일(월) 10시00분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완도군수 제출)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지민 의원 외 7명 발의)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양훈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완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3건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완도군수 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관련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고 군수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신우철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양훈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334회 완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26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며, 군민과 의원님들께 내년도 군정 운영 방향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민선 6기부터 7기, 8기까지 해마다 주어진 소명을 깊이 생각하며 결연한 초심과 한없이 무거운 책임감으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리

고 지난 12년, 군민의 뜻을 헤아리며 군민이 바라는 변화를 일궈내기 위해 '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더 역동적으로' 정진해왔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성과도 중요하나 멀리 내다보고 완도의 백년대계를 떠받칠 커다란 주춧돌을 하나하나 올리는 데 각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도전이 있어야 비로소 성장이 가능합니다. '해양치유'와 '해양바이오산업', '해조류 블루카본 선도'는 그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지만 우리 완도라서 가능한 일이기에 '완도 발전'이라는 명확한 목표를 갖고 개척해 나갔습니다. 고충도 적지 않았고 결코 순탄치 않았던 여정이었으나 5만여 군민과 30만 향우, 의원님들께서 이끌어주신 '신뢰의 길'을 따라 지금의 완도에 다다를 수 있었습니다. 동행해 주신 덕분에 든든했으며, 오늘은 한없이 뜨거운 감사함만 밀려옵니다. 말로 다 전하지 못한 마음은 임기가 끝날 때까지 '완도의 더 큰 도약'이라는 결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군에는 반가운 변화의 바람이 일었습니다. 치유·관광·의료·레저 복합 공간인 「스마트 융복합 K-해양치유 허브」와 「K-해조류 기반 기후변화 대응 플랫폼」, 「해양바이오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군 핵심 사업 5건이 이재명 정부 지역 공약에 반영되며 지역 발전을 담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역의 정체성이 곧 경쟁력입니다. 우리나라 해양치유산업의 표준이자 핵심 시설인 완도해양치유센터는 방문객 12만 명과 문화·기후 치유, 맨발 걷기 등 치유 목적 체험객 88만 명을 기록하며 '웰니스 관광지'의 입지를 굳혔습니다. 해양치유산업의 경제적 파급 효과는 180억 원으로 파악됐고, 해양치유 대중화는 물론 사회·환경 등 공익적 가치도 인정받아 17건의 수상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전복과 해조류를 특화한 해양바이오산업의 중추 기지인 「해조류 바이오 스마트 팩토리」 설계비가 '26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면서 전국 단위의 해조류 소재 공급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습니다. 완도산 해조류가 세계적으로 이슈인 가운데 지난달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인 IPCC에서 해조류의 탄소 흡수 기능에 대한 과학적 가치를 공식 인정했습니다. 이로써 전국 최대 해조류 생산지인 우리군이 '해조류 블루카본 시대'를 열 수 있는 동력을 얻었습니다. 대규모 국책 사업 중 국립완도난대수목원 조성은 실시설계를 앞두고 있으며, 국내에서 하나뿐인 수산 전문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은 지난 8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본 궤도에 올릴 수 있게 됐습니다. 2025년은 「완도 방문의 해」로 관광객 역대 최고치인 8백만여 명이 완도 여행을 즐겼고, 처음 시행했던 '완도치유페이'는 60억 원의 소비를 견인하고 130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를 가져오며, 관광 정책의 성공 모델로 떠올랐습니다. 국가 기념일인 '섬의 날' 기념 행사와 세계 13개국, 70개 도시가 참가한 '국제슬로시티연맹 시장 총회', 21세기 장보고 발굴 프로젝트인 '장보고 한상 어워드 시상식' 등 국내외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글로벌 도시로 비상할 채비도 해놓았습니다. 약산~금일 연륙교 건설은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돼 사업 추진에 물꼬를 텄습니다. 중앙부처 등 대외 평가에서 24개 분야 수상과 26건의 공모 사업 선정으로 780억 원을 확보하는 등 부단한 노력 끝에 이룬 성취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넘어서기 힘든 파고가 있었기에 아쉬움도 남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낮은 경제 성장률 등 겹겹이 쌓인 복합 위기는 민생 한파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군 경제의 근간인 전복 산업이 소비 부진으로 직격탄을 맞았고 기후 위기까지 덮쳐 어민들의 시름은 깊어졌습니다. 합계 출산율은

전국 시·군·구 중 13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나 자연 감소와 청년층 인구 유출 등으로 인구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회는 위기의 옷을 입고 온다'는 말처럼 어려움을 딛고 굳건하게 나아가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룩하겠습니다. 시대적 흐름을 직시하여 주력 산업은 고도화하고 그 성장이 군민의 삶에 직결될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양훈 의장님과 2의원님 여러분! 많은 것이 불확실한 나날이지만 그동안 다져온 탄탄한 기반을 토대로 더 나은 삶을 향한 모두의 바람이 현실이 되도록 현명하게 군정을 이끌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군민과 의원님들의 한결같은 성원을 부탁드리며, 내년도 군정 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완도 백년대계의 기둥인 해양치유와 해양바이오산업 역량을 한층 더 공고히 하겠습니다. 청정 바다는 우리네 삶의 터전이지만 수산양식에만 의존할 수 없는 시대가 도래하면서 바다에서 새 활로를 찾아야 했고, 그 답은 '해양치유와 해양바이오'였습니다. 해양치유산업은 지난 10년 동안 사업 본격화에 시동을 걸었고, 이제는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사업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이 '해양치유 1번지'로서 치유산업을 선도하고 있지만 타 지자체와 경쟁이 불가피한 만큼 업그레이드된 독자적 전략이 필요합니다. 완도해양치유센터 등 치유 시설이 밀집돼 있는 신지 명사십리 일대가 「해양치유 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 노력을 쏟고,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결합한 플랫폼을 구축하여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해양치유산업의 혁신을 꾀하겠습니다. 센터에는 인피니티 풀과 스포츠 재활실을 갖추고 호텔과 리조트 등 민간 투자도 촉진해 치유·관광·헬스 케어가 융합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더 많은 치유객의 발길이 완도로 향할 수 있도록 장기 치유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홍보·마케팅에 동분서주하겠습니다. 국가 전략 산업인 해양바이오산업은 우리군 대표 자원인 해조류와 전복을 소재로 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데도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해양바이오 공동협력 연구소를 시작으로 해양 헬스케어 유효성 실증 센터, 해조류 활성 소재 인증·생산 시설, 해조류 바이오 스마트 팩토리 등 기반 시설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갖춰 '해양바이오산업 거점'으로 발돋움시키겠습니다.

완도산 해조류를 화장품과 의약품, 건강 기능성 식품, 블루푸드, 신소재 등의 주 재원으로 활용토록 하여 국내 바이오 시장 선점과 어촌의 새로운 소득을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기술 개발, 기업 지원, 청년 창업 등 소프트웨어 분야의 실행률도 제고하겠습니다.

둘째, '해양치유'와 '웰니스 관광'이 어우러진 독보적인 관광 패러다임을 확립하겠습니다. '치유'와 '관광'이 공존하는 우리나라 대표 웰니스 도시로서 천만 관광객 시대의 기반을 다지고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더하겠습니다. 군민과 향우들의 열망으로 이뤄낸 국립완도난대수목원 조성과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은 첫 삽을 빨리 뜰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후속 절차를 차근차근 이행하겠습니다. 국내 유일 '치유의 섬'이라는 브랜드 가치를 지탱할 수 있도록 국립난대수목원과 약산 해안치유의 숲을 연계한 산림치유 단지를 조속히 조성하고, 청산도 범바위는 기(氣) 치유 랜드마크로, 정도리 구계등은 소리 치유의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노화도와 보길도는 예술 치유의 섬으로 단장하고, 장보고 대사와 이순신 장군, 윤선도, 항일운동 등 완도의 인물과 문학, 역사를 주제로 한 치유 테마 관광

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국도 77호선 해안도로 관광 명소화, 고금 역사 공간 관광 자원화, 신지 명사십리 힐링해(海) 프로젝트 등을 통해 지역 곳곳에 관광 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관광객 증가'와 '상권 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한 '완도치유페이'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그 혜택을 더 크게 체감할 수 있도록 지역 경제의 선순환 플랫폼으로 정착시키겠습니다. 내년에는 '2028 국제해조류산업박람회'에 앞서 개최될 'Pre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를 해양치유와 해양바이오, 블루카본의 가치를 높이는 '글로벌 해양 웰니스 축제의 장'으로 만들겠습니다. 국제 행사와 더불어 '바다 식목일' 행사도 연계해 '청정 바다 수도 완도'의 저력과 위상을 입증하고, '장보고 한상 수상자 세계 대회'를 개최해 세계 무대에 완도를 각인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완도자연그대로 농수축산업은 기후변화 대응과 신산업을 육성하여 미래를 선제적으로 대비하겠습니다. IPCC에서 해조류를 탄소흡수원으로 산정하는 지침에 합의했다는 낭보는 우리가 오랫동안 준비한 미래 지향적인 설계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해조류가 탄소흡수원으로 승인되어 우리 완도가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블루카본 허브'의 초석을 놓겠습니다. 블루카본 TF팀을 신설하고 인근 지자체와 연대하는 '탄소 흡수 벨트 협의체'를 구성하여 중앙부처, 국내외 연구 기관 등과 정책·기술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한국수산자원공단과 협력해 탄소 크레딧 전환·거래 시스템인 '블루 크레딧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블루카본 특화 양식장 조성과 탄소 흡수 인증·거래 및 정산 체계 등 '해조류 블루카본 경제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탄소 배출권 수익이 어민들에게 돌아가는 '완도형 바다 연금' 제도화의 기초를 닦겠습니다. 침체된 전복 산업의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어업인과 함께 해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전복 가두리 감축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여 생산량을 조절하고, 양식 어장 개선 및 환경 적응성이 높은 육종을 개발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양식업의 핵심 도구가 될 '인공지능 기반 수산양식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는 스마트 기술 도입 등 수산업 선진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순살 전복 가공 시설 지원 및 소비 트렌드에 맞는 간편 식품과 외식 메뉴를 개발하고, 장보고 한상 등 인적 네트워크를 연계해 미국, 캐나다, 네덜란드 외에도 수출국을 다변화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어류 양식 산업을 위해 친환경 고효율 사료 저장 시설을 건립하고, 친환경 에너지와 백신 공급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농업인을 위한 공익 수당 등 기본 소득을 보전하고, 스마트 농축산업 기술 보급, 생산·유통·가공 활성화, 아열대 과수 재배 확대 등 급변하는 농업 환경과 기후변화를 극복할 수 있는 미래 농업의 기틀을 세우겠습니다. 농촌 치유 거점 센터 건립과 치유 농장 육성, 치유 음식 개발 등 치유농업의 지평을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지역 발전의 호재인 대규모 SOC 사업으로 빠르고 편리한 교통 지도를 그려 나가겠습니다. 군민의 오랜 염원이었던 「광주~완도 고속도로」 1단계 구간은 내년 말 준공되면 개통을 서두르고, 2단계 구간은 정부의 타당성 조사 후 바로 실시설계를 거쳐 조기 착공을 실현하겠습니다. 20년간의 노력과 긴 기다림 끝에 국도 승격을 이뤄낸 「완도~고흥 해안 관광도로」 건설의 1단계 구간인 약산~금일 연륙교 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에 주력하고,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배가하겠습니다. 「노화~소안 연도교」 2단계 구간은 현재 조달청 계약이 진행 중이며, 내년

1월에 공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추진력을 끌어올리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지역 공약에 반영된 「서울에서 완도를 경유하는 제주 고속철도」 건설은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정부에 계속해서 건의하고, 「제5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섯째, 육지와 섬의 균형감 있는 발전을 이룩하고 섬 주민이 누릴 수 있는 정책을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12개 읍면의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군민들의 삶 구석구석에서 그 변화가 와닿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완도읍 중앙시장 현대화 사업과 금일읍 해빔센터 건립 등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원도심의 활력을 회복하겠습니다. 590억 원 규모의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투입해 노소보 다어울림 복합문화 공간, 농산어촌 유학 단지, 마음치유센터 등 지역 특성을 살린 사업을 추진해 새로운 구심점을 마련하겠습니다. 권역 단위 거점 개발, 어촌뉴딜 300, 어촌 신 활력 증진, 도서 개발 등 기반 시설 확충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소규모·지방·국가 어항, 무역항, 연안항은 항만 본연의 기능에 맞춰 개발하겠습니다. 도서 지역의 식수 공급 안정화를 위한 노화·보길 광역 상수도망 구축은 내년 상반기에 착공하고, 금일 동백리 수원지 개발은 '27년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65세 이상 여객선 무료 운임제를 시행한 데 이어 여객선 야간 운항과 운임 지원 사업 등을 확대하겠습니다. 농어촌 무료 버스 운행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주민 편익 위주의 교통 체계를 정립하고 공영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모색하겠습니다. LPG 배관망을 면 단위에서 섬마을까지 확대해 안전성과 편리성을 갖춘 연료 사용 환경을 마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세대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복지 시책으로 행복한 공동체를 완성하겠습니다. 국토부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고령자 복지 주택은 내년에 착공하고, 통합 돌봄과 일자리,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 등 어르신들의 일상을 더 살뜰히 챙겨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지정 「교육 발전특구 시범 사업」은 256억 원을 투입해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한 인재 육성에 나서고, 청년 공공 임대 주택 건립과 청년센터 및 상가 운영 활성화, 결혼 축하금 지원 등을 통해 청년들의 정착을 돕겠습니다. 출산 장려금과 영유아 보육료, 양육비 지원으로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여성 친화 도시'에 걸맞은 양성평등, 여성 역량 강화, 가족 친화 등의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카드 수수료와 금융 비용 지원 등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뒷받침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문을 연 가족센터는 다양한 가족 유형과 다문화가정, 청소년 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내실을 기해 돌봄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내년 1월 첫 단추를 끼우는 등 장애인 복지 정책도 빈틈없이 수행하겠습니다. 군민이 가까운 곳에서 문화·예술 공연을 접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다채롭게 기획하고, 군민의 몸과 마음을 단단하게 할 수 있는 생활체육공원 등 체육 시설을 늘려나가겠습니다. 가족 친화 공간 등을 갖춘 복합문화도서관은 빠른 시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진하는 등 군민의 일상에 행복을 채울 사업은 지혜롭게 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성 있게 실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양훈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역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편성한 내년도 예산 규모는 올해 본예산보다 5% 증가한 6,529억 원입니다. 정부에서 확장 재정 기조와 지방 우선, 지방 우대 원칙을 표명했지만 현안 사업을 원활하

게 추진하기에는 지방 재정 여건이 녹록치 않습니다. 이에 우리군은 현안 사업에 맞춰 예산을 선 배정하고 복지부터 농림·해양·수산, 환경, 관광, 교통 등 군민의 삶과 민생 경제에 온기를 전할 수 있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했습니다. 우리군 모든 정책의 중심에는 군민이 있으며, 군정 방향은 오롯이 군민을 향하고 있습니다. 지난 12년간 지켜온 가치가 빛을 발해 완도의 미래를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의 상세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에 숨을 불어넣기 위해 신중하게 세운 전략인 만큼 의원님들의 면밀한 검토와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양훈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지민 의원 외 7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관련 서류를 검토해 주시고 의회운영위원회 지민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지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지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538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완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양훈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지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5일부터 11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1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8분 산회)

○출석의원(9인)

김양훈	박성규	지민
박재선	박병수	조인호
최정욱	허궁희	조영식

○출석공무원

군수	신우철
부군수	이범우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관광실장	안환옥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행정지원과장	이기석
세무회계과장	천종실
민원봉사과장	김용식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체육진흥과장	최정환

농업축산과장	이정국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해조류박람회추진단장	김준혁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지역개발과장	오현철
건설과장	김진원
안전총괄과장	이홍용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최광윤
보건의료원장	한광일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수호

○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최영미

의사운영팀장 서을식

속 기 사 정현중

제334회 완도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4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12월 12일(금) 10시10분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3. 2026년도 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출)

2.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완도군수 제출)

3. 2026년도 예산안(완도군수 제출)

(10시10분 개의)

○의장 김양훈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완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3건의 안건을 상정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관련 서류를 검토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허궁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허궁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허궁희 의원입니다. 먼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에 앞서 감사자료의 검토, 현지 확인 등 열의를 가지고 적극적인 감사활동을 실시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과 관계기관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333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집행부에서 제출한 감사 자료를 토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완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 군 행정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지적건수는 시정 2건, 주의 5건, 개선 54건, 권고 85건, 제안 17건으로 총 163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 분야에서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확대에 따른 집행부의 적극적 대응과 해양치유관리공단의 특정공단 지정에 따른 위탁이행 철저, 자녀 돌봄 직원 간 인사배치 기준 형평성 마련, 타 지역 물품구매 개선 방안 마련, 복지로 홍보 및 교육 대책 마련, 보조금 집행 분리 정산제 실시에 따른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등 53건에 대하여 집행부에 시정이나 개선, 권고를 요구하였고, 산업건설 분야에서는 주요 관광지 방문객 저조에 따른 대책 마련, 관내 주유소 동일가격 유지에 따른 공정거래 행정 개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약산 해안치유의 숲 해수온열치유실 정상운영 추진, 도시재생사업 구)문화원 건물 활용방안 마련, 농촌종합마을개발사업 관리 실태, 인공신장실 공사 지연에 따른 의료복지 공백 최소화 대책 마련 등 104건에 대하여 주의나 개선, 권고를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해양치유관리공단에 대해서는 특정공단 지정에 따른 향후 대책 마련, 공단 직원 안정화 방안 마련 등 6건에 대하여 개선,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발굴한 우수사례는 총 1건으로 '고향사랑기부제 추진'입니다. 이상 총 163건의 지적사항에 대한 세부내용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올해 완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는 군민의 땀으로 이루어진 예산이 집행부를 통해 잘 쓰여지고 있는지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군정 전반에 관한 다양한 분야에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문제제기와 대안제시가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는다는 자세로 군민들의 신뢰와 성원에 부응하기 위해 바쁘게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군민의 삶에 힘이 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민생을 더 세밀히 살피며 신뢰받는 의정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군민제보가 20건으로 이 자리를 빌려 군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군민들 곁에서 늘 함께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관계기관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의 행정을 되돌아볼 수 있는 값진 시간이자 기회입니다. 앞으로도 군 의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른 집행부의 향후 조치계획과 추진사항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확인할 계획이니 지적된 사항과 위원님들이 제안한 사항들에 대해 질책이라기보다는 군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위원님들의 의지임을 헤아려 책임 있는 자세로 지적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제안한 사항들은 적극 반영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거나 개선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감사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도 행정사

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양훈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허궁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완도군수 제출)

3. 2026년도 예산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관련 서류를 검토해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인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조인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인호 의원입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2026년도 예산안」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됨에 따라 이를 심사하기 위해 제33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8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각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부서별 · 세출예산별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502호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우리 군에서 운용중인 기금은 6개 기금으로 2025년도 말 현재액은 66억 719만만 2천원입니다. 내용별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7억 3,814만 4천원, 식품진흥기금 9,659만 2천원, 고향사랑기금 16억 1,631만 9천원, 공유재산관리기금 5억 4,940만원 ,옥외광고정비기금 9,292만 4천원, 재난관리기금 15억 1,38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이 15억 7,680만원, 지출이 7억 4,300만원으로 2025년도 말 대비 8억 3,380만원이 증액되어 총 74억 4,09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기금의 건전성 확보와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01호 「2026년도 예산안」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6,529억 5,511만 8천원이며, 일반회계가 6,194억 3,347만 2천원이고, 특별회계는 335억 3,164만 6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14억 9,39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2026년도 예산안」은 본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세출예산액 일부를 삭감하기로 결정하여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6페이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먼저 총 예산 규모는 6,529억 6,511만 8천원 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과 같이 금액 변동 없이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능별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 4억 8천만원, 사회복지 분야에서 2,200만원, 농림 해양 수산 분야에서 1억 884만 4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 5천만원, 기타 분야에서 11만 5천원, 총 6억 6,095만 9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성질별로는 물건비 분야에서 칠억

9,895만 9천원 자본지출 분야에서 2억 5,000만원, 총 10억 4,895만 9천원을 삭감하여 경상이전 분야에서 3억 8,800만원을 예비비 및 기타분야에서 6억 6,095만 9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성질별 내역은 같은 페이지 하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부터 11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과 12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일반회계 세출예산 심사 내용에 대해서는 14페이지부터 22페이지 2026년도 예산안 심사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번 「2026년도 예산안」은 경기 회복 지연과 자체수입 확대의 한계,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가 이어지며 세입 여건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 속에서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는 이러한 재정여건을 엄중히 인식하며, 군민 생활과 직결되는 사업들이 실효성 있게 반영되었는지 민생과 지역경제 중심으로 면밀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예산 심사 과정에서 집행부에 몇 가지 방향을 강조드립니다. 한정된 재원을 고려할 때 선택과 집중은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성과가 낮거나 반복되는 사업은 재점검하고 조정하며, 군민 체감도가 높고 미래 필요성이 큰 사업에 재원을 우선 배분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사업은 사전에 충분한 타당성 검토와 주민 의견 수렴,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촘촘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예산을 먼저 확보한 뒤 사업을 뒤늦게 설계하는 방식은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도 계획 단계에서의 정교함이 필수적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도 우리 군 실정에 맞는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지역과 맞지 않는 사업은 조정하고, 필요 사업은 중앙부처와 전남도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재정여건이 어려울수록 외부재원 확보는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해양치유산업과 해양바이오산업은 완도의 미래 비전이자 신성장 동력입니다. 해양치유센터 운영 안정화, 산업 기반 확충, 연구·기업 유치 등 단계별 사업들이 실제 성과를 만들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예산 집행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광주~완도 고속도로, 연륙·연도교,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국립난대수목원 등 주요 SOC·국책사업들은 완도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사업입니다. 국가재정 상황이 어려워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번 예산안이 건전 재정 원칙을 지키면서도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 과정에서도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들이 지적하거나 당부한 사항들이 향후 개선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예산안 심사기간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 과정을 거쳐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양훈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인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한 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오늘 처리한 안건에 대하여 「완도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자구 정리는 제가 위임받아 처리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334회 완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번 회기는 한 해를 되돌아보고 다가오는 2026년 완도군의 미래를 준비하는 매우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군정 전반에 대한 업무 추진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제시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마련하여 군정이 보다 내실 있게 추진되고 군민들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6년도 예산안은 군민을 최우선에 두고 지속 가능한 완도를 위한 중장기적인 투자와 발전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심사·확정 하였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예산안 심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세심한 자료 준비와 책임 있는 답변으로 의정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완도군의회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모두는 완도군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며, 군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더욱 낮은 자세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완도군의 발전을 위한 군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다가오는 연말 모두가 행복하고 따뜻한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4회 완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출석의원(9인)

김양훈 박성규 지민
박재선 박병수 조인호
최정욱 허궁희 조영식

○출석공무원

부군수	이범우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관광실장	안환옥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행정지원과장	이기석
세무회계과장	천종실
민원봉사과장	김용식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체육진흥과장	최정환
농업축산과장	이정국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해조류박람회추진단장	김준혁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지역개발과장	오현철
건설과장	김진원
안전총괄과장	이홍용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최광윤
보건의료원장 한광일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수호

○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최영미
의사운영팀장 서을식
속 기 사 정현중

제334회 완도군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11월 20일(월)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자원관리센터 정책연구회 연구 결과 보고의 건
2. 섬 발전 연구회 연구 결과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자원관리센터 정책연구회 연구 결과 보고의 건(허궁희 의원 외 5명 발의)
2. 섬 발전 연구회 연구 결과 보고의 건(조인호 의원 외 4명 발의)

(14시 00분 개의)

○위원장 지민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1. 자원관리센터 정책연구회 연구 결과 보고의 건(허궁희 의원 외 5명 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자원관리센터 정책연구회 연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허궁희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궁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자원관리센터 정책연구회 허궁희 의원입니다. 오늘 보고는 지난 6개월간 진행된 '완도군 자원관리센터 건립 타당성 및 지속가능한 운영방안 연구용역' 최종 결과입니다. 본 연구는 완도군 자원관리센터 노후시설과 용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2030년 직매립 금지 등 중앙정부 정책 변화에 선제대응하며, 도서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체계구축을 목표로 진행되었습니다. 보고순서는 연구개요, 생활폐기물 현황 및 관리체계 분석, 자원관리센터 건립 계획 및 주요 쟁점 분석, 중앙정부 정책 변화와 정책 제언 및 조례 개정(안) 순입니다. 먼저,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완도군은 기존 폐기물 처리시설 노후화와 처리 한계로 인해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가 어렵습니다. 환경규제 강

화와 주민 환경의식 향상으로 새로운 시설과 운영방식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은 단순히 짓는 것이 아니라 주민 수용성·환경안전·행정 협력이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이번 연구는 크게 세 가지 분야로 구성되었습니다. 첫째, 완도군 생활폐기물 현황 분석. 둘째, 자원관리센터 건립사업 타당성 및 운영방안 검토. 셋째, 중장기 자원순환 정책방향 제시입니다.

폐기물 발생량은 전국적으로 다소 감소했지만, 생활 폐기물계는 2019년 대비 5.9% 증가했습니다. 이는 생활패턴 변화와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것으로 완도군 역시 같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전국과 달리 직영 중심의 처리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섬이 많은 완도군은 도서별 수송 체계와 예산 효율화가 중점과제입니다. 생활폐기물 관리예산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시설 노후화로 인해 예산확충과 효율적인 집행체계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항을 고려할 때 자원관리센터의 건립은 환경·행정·재정 측면 모두에서 시급한 현안으로 평가됩니다. 다음은 주요 쟁점 분석입니다. 첫째 소각기술 방식 선택 문제입니다. 스토커 방식은 안정적이나 초기 비용이 높고, 열분해 용융 방식은 친환경이나 유지비가 많이 듭니다. 타 지자체 소각시설 사례분석을 살펴보면, 시설규모와 지역 특성에 따라 최적의 기술방식이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완도군 경제성과 환경성을 모두 고려한 적정 기술 도입이 필요합니다. 둘째, 도서지역 폐기물 처리체계입니다. 섬 지역은 수송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에 '분리·선별 후 수송형 모델'이 가장 효율적인 대안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적환장 운영 시 고령 인력을 활용할 경우 노인 일자리 창출과 처리 효율성 제고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셋째, 민간투자(BOO) 방식의 검토입니다. 민간이 건설·운영하는 방식으로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으나, 공공성 확보와 장기비용 검토가 필요합니다.

넷째, 주민참여형 운영 모델 도입입니다. 부산시 '우리동네 ESG센터'와 강원 홍천군 '마을 환경동아리' 사례를 참고하여 주민참여와 인력 활용을 연계한 완도형 자원순환 모델 구축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정책환경 변화와 완도군 대응 방향입니다. 중앙정부는 폐기물 정책을 '매립에서 자원순환'으로 전환중입니다. 가연성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폐기물 에너지화 및 플라스틱 재활용 강화, AI기반 선별 기술지원확대 등이 주요 변화입니다. 이에 완도군도 중앙정부 정책 방향에 발맞춰 소각시설 건립과 에너지 회수사업 추진, 폐기물 처분부담금 감면제도 등 실질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또한 인근 지자체와 협력하여 광역자원순환체계 구축을 추진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정책 제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신규 소각시설 설치를 위한 재원확보, 정부·도비 지원 사업 적극활용, 완도군 실정에 맞는 기술 도입과 전문 인력 양성이 필요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도시지역 특화형 폐기물 관리체계 구축, 광역 협력기반 자원순환 네트워크 조성, 주민참여형 자원 순환정책 강화, 소각열을 활용한 지역난방·발전 등 에너지 자립형 순환경제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조례 정비 및 결론입니다. 중앙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 '완도군 폐기물 조례' 등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수단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번 연구는 완도군 폐기물 처리 한계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하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도서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운영모델과 주민 참여형 자원순환 구조는 완도군만의 차별화된 자원관리 체계로 자리매김 할 것입니다. 연구 과정에서 발견된 주요 쟁점사항들에 대해서는 완도군의회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

니다. 이상으로 최종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2. 섬 발전 연구회 연구 결과 보고의 건(조인호 의원 외 4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섬 발전 연구회 연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조인호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완도군 인구문제 대응 및 섬 발전방안 정책연구회 조인호 의원입니다.

오늘 보고는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저를 포함한 의원 네 분과 함께 추진한 연구과제의 최종 결과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연구는 완도군의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섬 지역 특수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살고 싶은 섬, 활력 있는 지역을 만들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자 시작됐습니다. 오늘 보고 순서는 완도군의 인구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주요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과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요약문 1페이지입니다. 먼저 완도군의 인구 현황과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 10년간 매년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특히 청년인구의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2025년 2월 기준 만 19세부터 34세 이하 청년은 9.8%에 불과하며, 만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37.7%에 달해 이미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섬 지역으로 갈수록 인구 감소 비율이 더 높으며, 전출 사유 1위가 '직업'일 만큼 일자리 부족이 인구유출의 핵심 원인입니다. 특히, 청년과 여성의 일자리 확보가 시급합니다. 그러나 인구감소대응 사업 중 '일자리 창출'의 예산 규모는 6.5%에 불과해 턱없이 부족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더욱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은 3년간 집행률이 60% 미만이었으며, 작년엔 30%에 그쳐 현저히 저조합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투자를 늘려야 합니다. 2026년 예산안 심사 때 우리 완도군의회가 일자리 창출에 더 많은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심사에 신중을 기해야겠습니다. 요약문 2페이지입니다. 주거, 복지, 교육, 문화 등 정주여건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완도군은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이 전체의 57.2%를 차지하며, 보육환경 만족도는 17.0%, 문화시설 접근성 만족도는 11.6%에 불과합니다. 특히 의료·교육·문화·교통 등 분야에서 접근성이 열악하여, 인구유출을 막기 위해선 정주여건 개선이 필수적입니다. 한편, 완도군의 생활인구는 월 평균 19만 3천명으로 주민등록인구의 약 4배에 달합니다. 그 중 74.5%가 체류인구로, 완도군의 활력을 높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원입니다. 요약문 7페이지입니다. 우리 연구회에서는 8월에 부안군과 군산시의 대표 우수사례 현장을 직접 방문해 정책 벤치마킹을 실시했습니다. 부안군 온가족센터에서는 부서 간 협력으로 장난감 도서관과 심리지원실 등 원스톱 돌봄서비스를 실현하여 영유아 돌봄 품질을 크게 높이고 있었습니다. 어촌뉴딜300사업은 앵커시설 건설을 위해 사업자가 사업 초기부터 10년 동안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선 지역주민과의 원활한 소통이 필수적임을 재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군산시의 우체통거리는 주민주도형 생활인구 활성화 모델로 손꼽을 만합니다. 군산 우체통거리 사업은 300만 원 소규모 예산으로 지역주민들이 버려진 우체통을 직접 꾸며 거리 예술로 재탄생시켰습니다. 현재는 3년간 100팀이 넘게 견학하는 구도심 명소로 급성장하여 주민주도형 혁신의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완도군 또한 지역주민 주도로 생활인구

활성화 사업을 적극 발굴·지원함으로써 새로운 활력이 스며드는 섬, 지속가능한 지역으로 거듭나야 하겠습니다. 요약문 9페이지입니다. 주요 과제와 개선방안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특화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자원을 활용한 가공·유통·체험형 마을기업 육성을 강화하고, 청년 상생 상가 완생보다 더 거점이 될 수 있는 청년복합센터 건립과 지역 일대의 거리 조성이 매우 시급합니다. 최근 우리 완도군은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사회적 경제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마을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주민참여형 사업의 공로가 인정된 것인데, 이와 같은 성과를 확산해 지역 주민들이 지역 안에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자립적인 고용 모델을 창출해야 합니다. 둘째, 돌봄과 의료, 교육, 문화 등의 생활인프라 확충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이 필요합니다. 일본의 소도시 '나기초' 마을은 어린이집·학교·보건소·도서관을 통합한 미래센터를 조성해, 출산율을 전국 평균보다 두 배 이상 높였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 완도군에서도 '나기초' 마을과 부안군 온가족센터를 참고해 경로당 등 지역의 거점 공간을 활용한 문화 환경 개선 및 돌봄 통합 서비스 모델을 도입해 정주여건을 개선해야 합니다. 셋째,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한 워케이션 인구 유치입니다. 오늘날 섬의 인구감소 문제는 정주인구 정책만으로는 극복이 어렵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관광과 일, 체류가 결합된 워케이션 정책은 섬의 자연환경과 치유·여가 자원을 바탕으로 장기 체류와 지역소비, 지역민·관광객 교류를 이끌어냅니다. 포르투갈 마데이라 섬에서는 '디지털 노마드 빌리지'를 조성해 원격근무자의 체류와 창업, 지역사회 참여를 지원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이들이 마데이라 섬에 정주하게 되었고, 지역경제 회복과 다양성 확대를 달성했습니다. 완도군은 국내최초로 해양치유센터를 건립했으며, '해양치유'라는 브랜드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생활인구를 확대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최종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완도군은 인구감소지역이며 초고령화 사회 진입, 청년 및 여성 인구 감소, 일자리 부족, 정주여건 미흡 등 복합적인 인구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는 단일사업이 아닌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접근만이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연구회는 이번 과제를 토대로 섬 발전 관련 조례 입법을 지원하고, 주민주도형 일자리·생활인구 활성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 및 지원할 것입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인구유출 방지와 섬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최종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산회)

○출석위원(8인)

지민	박재선	박성규
박병수	조인호	최정욱
허궁희	조영식	

○ **전문위원** : 박영민

○ **속 기 사** : 임은주

제334회 완도군의회(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11월 20일(목)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완도군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2. 완도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안
3. 완도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완도군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재)장보고장학회 출연 동의안
6. (재)전남바이오진흥원 출연 동의안
7. 완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완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 사업 선정 동의안
10.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 동의안
11. 완도군 청사신축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3. 2025년 완도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14. 2026~2030년 완도군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
15. 2026년 완도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6. 완도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재)완도군행복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18. 완도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완도군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국공립 어린이집(완도LH, 약산어린이집) 위탁관리 동의안
21. 완도군 난임극복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완도군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지민 의원 발의)
2. 완도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안(조영식 의원 발의)
3. 완도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4. 완도군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5. (재)장보고장학회 출연 동의안(완도군수 제출)
6. (재)전남바이오진흥원 출연 동의안(완도군수 제출)
7. 완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8. 완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9.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 사업 선정 동의안(완도군수 제출)
10.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 동의안(완도군수 제출)
11. 완도군 청사신축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2.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완도군수 제출)
13. 2025년 완도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완도군수 제출)
14. 2026~2030년 완도군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완도군수 제출)
15. 2026년 완도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완도군수 제출)
16. 완도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7. (재)완도군행복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완도군수 제출)
18. 완도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9. 완도군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20. 국공립 어린이집(완도LH, 약산어린이집) 위탁관리 동의안(완도군수 제출)
21. 완도군 난임극복지원에 관한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4시 24분 개의)

○위원장 박재선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완도군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등 19건 되겠습니다.

---

1. 완도군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지민 의원 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완도군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지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 위원

지 민 의원입니다. 「완도군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자존감 회복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지원대상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지원사업 및 협력체계를, 안 제8조, 안 제9조에서는 비밀준수 및 중복지원의 금지를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민

의안번호 제3505호 「완도군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지민 의원님의 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 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도군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완도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안(조영식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도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조영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 위원

조영식 의원입니다. 「완도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완도군민의 올바른 식생활 정착과 체계적인 영양관리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애주기별 맞춤형 영양 지원을 강화하고, 군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영양·식생활교육 및 영양관리사업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는 영양관리를 위한 영양·식생활조사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안 제9조에서는 참여자 지원 등 및 관련기관 단체와의 협력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민

의안번호 제3506호 「완도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영양관리법」 제 8조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완도군민의 영양 및 건강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영식 의원님의 설명 내용과 조

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완도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완도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4. 완도군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5. (재)장보고장학회 출연 동의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도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완도군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재)장보고장학회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오늘 정인호 인구일자리정책 실장님께서 공모사업 발표 때문에 제가 대신 보고 드리는점을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507호 「완도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군정발전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제한된 셋째아 이상 돌사진 촬영비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 또는 모 출생아가 출생 신고일로부터 신청일까지 완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셋째 아이 이상 가정으로 첫 돌 사진 촬영비를 20만원 한도 내에 실비 지원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완도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민

의안번호 제3507호 「완도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셋째아 이상을 출산한 가정에 돌사진 촬영비를 지원함으로써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출산을 격려하는 따뜻한 지역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것으로 주요내용은 한희석 기획예산실장의 설명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 제4항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은 계속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예.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508호 「완도군 농

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농촌 유학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 교육과 문화의 중심지인 지역 학교를 유지하고 조례의 세부 내용을 구체화해서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작은 학교 정의를 신설하고 농촌 유학 지원 센터를 농촌 유학 시설로 변경하였으며 농촌 유학 시설의 입주 자격 사용료 등 세부 운영 체계를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완도군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민

의안번호 제3508호 「완도군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유학 지원의 운영방식과 재정 집행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여 학생유입을 통한 지역 교육력 제고와 도시 농촌간의 상생발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하는것으로 주요내용은 한희석 기획예산실장의 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 제5항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은 계속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예.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 3516호 「재단법인 장보고 장학회 출연 동의안」 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완도군 재단법인 장보고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출연한 것으로 장학기금 적립과 지역 인재 육성 및 교육 환경 개선 등 내년도 장학 교육 사업 추진을 위해 총 25억 1,320만 원을 재단법인 장보고 장학회에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단법인 장보고장학회는 2007년 5월 1일 설립되어 장학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일반 현황은 표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출연 사업 계획서입니다. 2026년 재단법인 장보고장학회의 총 사업비는 총 26억 8,200만 원입니다. 군비 출연금 20억 1,300만 원이고 자부담 6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지역 인재 육성과 명문학교 육성, 지역 학교 교육 환경 개선 기타 지역 교육 발전 사업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산출 기초입니다. 예산액은 26억 8,200만 원으로 25년 대비 8,700만 원 감하였습니다. 감한사유는 장학회 사업 중 완도 교육자치 협력기금 운영을 군으로 이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대 효과 및 금년도 주요 추진 실적은 표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선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장학사업 목표 모금액이 얼마입니까?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전체 모금액은 저희들이 200억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지금 모금액이 안 차서 계속 하고 있는건가요?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지금 모금액도 그렇고 이자 수입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서 금액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박병수 위원
지금 운영 경비는 우리 군에서 지원되고 있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출연금을 통해서 장보고 장학회에 출연해주면 거기에서 전반적으로 다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금년 지금 현재 장학기금 조성액이 185억 3,000만 원인가요?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현재 죄송합니다. 제가 그 관련된 팀장님이 대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팀장 오윤미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 팀장 오윤미입니다. 올해 장학금 조성액은 228억 원입니다. 저희 출연금이 21억이고요.
○박병수 위원
지금 조정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교육지원팀장 오윤미
총 금액이 228억 원입니다.
○박병수 위원
그럼 목표액은 초과했네요?
○교육지원팀장 오윤미
목표액은 아니고요. 지금 이월액은 지금 201억 원이고 출연금이 21억 원, 기탁금은 초과는 안됐습니다.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의원님 저희들이 초창기 때 50억 원으로 처분했다가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200억 원까지 목표 하겠다.'고 해서 목표액은 지금 달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러니까 목표액이 달성됐는데 계속 출연을 하고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이제 그 재원을 가지고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살깎기 해버리면 200억도 얼마 안 가서 다 이제 없어지니까 우선 출연하고, 거기에서 나온 이자 갚고 또 사업하고 계속 유지해 간다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병수 위원
1년 간 이자 수익이 얼마 인가요? 지금 최근 몇 년 동안 이자 비율이 높았잖아요?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팀장님, 지금 1년에 이자 수입은 얼마나 되죠?
○교육지원팀장 오윤미
3억 4,000만 원.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3억 4,000만 원입니다.
○박병수 위원
3억 4,000만 원이면 장보고 장학회는 어려움이 없나요? 돈이 부족한가요?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3억 4,000만 원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 규모 자체가 1년에 하는 사업 자체가 21억 정도 소요된다고 판정을 하기 때문에 이자 수입 3억 가지고는 아마 부족할 것 같습니다.
○박병수 위원
21억 6.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자체 군비에서 지원되는게 있죠?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이제 군비 출연금으로.....
○박병수 위원
아니요. 출연금이 있고.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예.
○박병수 위원
또 군 자체 사업으로 하고 있는 교육 사업이 있더라고요?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예. 별도 교육 사업이 또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얼마나 들어가나요?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우리 군 교육 사업을 지금 따진다고 그러면 얼마나 더 추가 더 들어가죠? 우리 교육 지원 협의회하고 협의회에서 한 사업..... 그건 아마 팀장님.....
○박병수 위원
지금 상당히 큰 금액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아무튼 장학 사업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지시고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선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완도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도군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재)장보고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6. (재)전남바이오진흥원 출연 동의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재)전남바이오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 제6항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해양치유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입니다. 의안번호 제3517호 「전남 바이오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출연 대상은 재단법인 전남 바이오진흥원으로, 사업 대상은 우리군에 소재한 해양바이오 본부 운영 지원입니다. 지원 근거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전라남도 바이오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출연 목적은 해조류 활용, 기능성 소재 발굴 및 산업화를 통해 해양바이오 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해조류 전복 등을 이용한 가정 간편식 화장품 제품 개발 기술 이전, 시제품 생산 마케팅 등 관내 영세 가공 기업을 지원하여 지역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출연 금액은 4억 원으로 올해와 동일합니다. 출연 사업 계획과 2025년 주요 추진 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선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치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본 안건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재)전남바이오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7. 완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8. 완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9.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 사업 선정 동의안(완도군수 제출)

10.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 동의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8항 「완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 사업 선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 제7항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이기석

행정지원과장 이기석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조례안 2건, 동의안 2건 총 4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 3509호 「완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사항은 오전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그 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 3510호 「완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도 마찬가지로 연계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 보고도 간담회 때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 3518호 「고향사랑 기부제 지정 기부 사업 선정 동의안」입니다. 먼저 고향사랑 기부제 지정 기부는 기부자가 본인의 기부금이 사용되기를 원하는 특정 사업에 직접 선택해 기부하는 제도입니다. 올해 지정 기부로 선정된 완도군 BC 유소년 야구단 육성 지원 사업이 이 목표액 4,000만 원을 성공적으로 모금한 바 있습니다. 완도군 BC 유소년 야구단은 2024년에 창단한 팀으로 관내 초등학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레슨비, 대회 출전비 등을 대부분 학부모 자부담으로 충당하고 있어 운영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2025년 전국대회 2회 우승, 1회 준우승 등 뛰어난 성과를 거두었고, 관내 초등학생 유입 확대와 청소년 스포츠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지난 10월 28일 고향사랑 기부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년 지정 기부 사업 안으로 완도군 BC 유소년 야구단 육성 지원 시즌2 가 선정되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모금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이며 모금 목표액은 5,000만 원입니다. 모금액 산출 기초 및 야구단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향사랑 기부제 지정 기부 사업 선정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선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 제10항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행정지원과장은 계속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이기석

저희과 마지막 의안인 의안번호 제3519호 「사단법인 전남 남북 교류 평화센터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남 남북 교류 평화센터는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근거하여 2023년 4월 최초 전남 도민 남북교류협의회라는 명칭으로 설립, 지난 19년 전남 남북 교류 평화센터로 재정비되었습니다. 「완도군 남북 교류 협력 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출연금 2천만 원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동의 요청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선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식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박재선

예. 조영식 의원님.

○조영식 위원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게 지금 여기서 이야기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간담회 때 이야기 했던 것들을.....

○위원장 박재선

그건 부결로 할겁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조영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과장님하고 얘기를 일부 했습니다. 그래서 부결로 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을 생략한 겁니다. 다음은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해 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완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들과 심사결과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부의하지 않기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완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사결과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는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 사업 선정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완도군 청사신축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2.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완도군수 제출)

13. 2025년 완도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완도군수 제출)

14. 2026~2030년 완도군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완도군수 제출)

15. 2026년 완도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완도군 청사신축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 완도군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안」, 의사일정 제14항 「2026~2030년 완도군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2026년 완도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 제11항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천종실

세무회계과 천종실입니다. 의안번호 제3511호 「 완도군 청사신축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완도군 청사 신축 기금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의 직위를 완도군 직제 순서에 따라서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의 운영 구성 중에 당초 해양치유담당관실에서 관광실장으로 직제 순서에 따라 변경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민

의안번호 제3511호 「완도군 청사신축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도군 청사신축기금위원회 위원 구성을 직제순으로 변경하고자 하는것으로 주요내용은 천종실 세무회계과장의 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청사신축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 제12항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세무회계과장은 계속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천종실

다음은 의안번호 3520호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및 지자체의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 개편, 그리고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해 전국 243개의 지방자치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 운영되는 기관입니다. 「지방세법」 기본 「지방세 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전, 전년도 보통 수의 결산액의 0.01%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금으로 예산에 편성하여 출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우리 군의 출연금액은 262만 3천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설립 근거 및 주요 영역 등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출연 사업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2021년부터 매년 일정 금액을 연도별로 출연하는 사업으로 2026년 우리군 출연금은 262만 3천 원이고,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연구 사업 및 자치단체 사업 지원 경비 등으로 사용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출 기초 및 기대효과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선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 제13항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세무회계과장은 계속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천종실

다음은 의안번호 제 3521호 「202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25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변경 수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총괄 예정입니다.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반영할 안건들은 취득 내용으로는 기존 현황 대비 토지 84필지 66만 2,942제곱미터에 29억 2,600만 원과 건물 2동 7,613제곱미터 202억 3,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처분 내용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부내역입니다. 「202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반영할 안건은 청년 공공임대주택 건립 사업 등 총 11건으로 토지 취득 84필지, 건축 취득 2동입니다. 사업별 세부 설명은 해당 부서장이 나와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회계과장은 잠시 자리로 돌아가주시고, 소관부서의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정책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팀장 정경석

안녕하십니까? 인구정책팀장 정경석입니다. 청년 공공임대주택 건립 사업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전 간담회 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번 주 전라남도와 협의한 결과 당초 계획과 달라져서 수정 자료를 제출하려 했습니다만 수정이 좀 불가하여서 현행화 자료를 별지로 좀 배부해 드렸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행된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완도 군내리 728-31번지로서 청년센터 완생 뒤편이 되겠

습니다. 사업비는 당초 194억 원에서 270억 원으로 변경 시행할 예정입니다. 추가 사업비는 오전 간담회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토부 공모 사업비를 추가로 유치 확보할 계획입니다. 세대 수는 60세대로 12평형 40실, 17평형이 20실입니다. 청년 및 신혼부부들의 주거 확충 마련을 위한 우리군 인구 정책 중 하나인 만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선

인구정책팀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인구정책팀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우홍래입니다. 7페이지 의안번호 2호. 고금면 LPG 배관망 사업 추진에 따른 부지 매입 건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연료비를 절감하고 안전한 가스 공급을 위해 고금면 소재지권 4개 마을의 LPG 배관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금면 농상리에 LPG 소형 저장탱크 설치를 위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대상지는 고금면 농상리 583번지이며 면적은 1,626평방미터 소요 예산은 5,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의안번호 제3호. 고금면 LPG 배관망 사업 추진에 따른 부지 매입 건입니다. 행정리 영부리의 LPG 소형 저장탱크 설치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대상지는 고금면 농산리 304번지이며 면적은 1,281평 미터 소요 예산은 3,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선

경제교통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규 위원

지금 고금면 LPG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예.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박성규 위원

마무리 단계에 있죠?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예. 그렇습니다.

○박성규 위원

LPG 저장 탱크물 장소를 못 정해서 이제 정하는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기존에 이제 군유지를 찾다가 보니까 인가하고 좀 가까워서 좀 먼 부지를 선택해서 옮겨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성규 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있죠?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예. 그렇습니다.

○박성규 위원

그러면 식당은 얼마고? 가정집은 얼마고?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해서 자부담을 정하나요?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이제 한 가구당. 한 가구에 설치 들어가는 부분만 약 19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규 위원

그러면 영세민들이나 우리 어려운 분들도 다 200만 원씩 내야합니까? 지원은 안됩니까?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일단은 그 부분은 이제 납부를 하는걸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선납을 하고 정산해서금액이 남으면은 반납을 할 계획입니다. 답변을 다시 드립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는 100% 지원을 해드리고요. 차상위는 50% 지원을 이렇게 합니다.

○박성규 위원

그렇죠?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예. 그렇습니다.

○박성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선

과장님 계속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예. 다음은 13페이지 의안번호 제4호 완도 중앙시장 주변 주차 공간 매입 건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완도 중앙시장 이용량 대비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주차 환경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방문객의 편의 증진과 교통 여건 개선을 위해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사업 대상지는 완도읍 군내리 782-59번지이며 면적은 314제곱미터 소요 예산은 14억 8,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선

질의하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 위원

대상지가 지금 건물입니까?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예. 그렇습니다.

○조영식 위원

여기다 주차장을 다시 하자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현재 이제 중앙시장 a동 b동을 하게 되면 총 14명이 주차장에 들어섭니다. 그거 가지고는 상인들이나 시장 주변 주민들이 주차를 하게 되면 자리가 부족해서 추가로 지금 매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입 매각을 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 와서 저희들이 한번 감정 평가를 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영식 위원

그러니까 이 건물에다가 지금 주차 부지를 만든다는 거죠?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예. 그렇습니다.

○조영식 위원

이제 중앙시장 현대화 사업 하면서.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예. 맞은편 부지입니다.

○조영식 위원

맞은편 부지에 지금 3층~4층짜리 건물인 것 같은데.....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예. 맞습니다.

○조영식 위원

그러면 이 건물에다가 주차 타워를 다시 만드는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현재 이 건물만 가지고는 주차 타워를 설립하기에는 면적이 좁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계속해서 옆 주변 부지를 매입할 필요가 있고요. 이 건을 저희가 제안한 것은 이제 본 예산에 편성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추후에 중앙시장 건물이 완공되면 국비 지원 사업이 이제 주차장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응모를 한번 해보려고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식 위원

그러면 건물은 지금 매입해놓고.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아닙니다. 건물 예산을 확보를 못 했습니다. 이제 심의에 통과를 하고 나서 중앙시장이 준공되면 국비 지원 사업으로..... 이렇게 사업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확보 사업을 국비 지원 사업에 응모를 해 볼 계획입니다.

○조영식 위원

해보고 나서 매입을 한다는 말인가요?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이제 거기 확정이 되면 이제 군비를 투입하든지 해서 그 건물을 매입할 계획입니다. 일단 여기에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

금 그렇습니다.

○조영식 위원

그러면 만약에 됐다고 가정을 하면 여기 이제 건물을 없애고 주차타워를 한다든가 주차 부지 몇 평 쓰려고 지금 이 건물 매입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예. 그렇습니다.

○조영식 위원

그러면 또 나중에 주차 타워를 더 만들어야 되겠네요?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예. 그 주변 부지를 더 매입해서 크게 좀 확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영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선

최정욱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최정욱 위원

거기 지금 다 난리인데 왜 예산확보를 못 했어요? 시작하기 전에도 주차가 심각해 서 난리인데..... 지금 두 동이나 더 크게 지어놓고도 주차가 더 난리인데, 그런 거 확보를 미리미리 해야 되는데 할 거를 못하고 어떻게 할 거에요?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이제 본 예산을 확보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이제 군 재정 형편상 조금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국비 공모 사업에 응모를 해서 최대한 확보를 해 보겠습니다.

○최정욱 위원

이것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거지 하려고 해도 못해요. 누가 안 파니까. 그 전에 기회가 됐으면 했어야 하는데.....공모사업이 안 돼면요?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계속해서 추경이나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조영식 위원

그러면 제가 참고로 어차피 이야기 나왔으니까 주차 부지 확보 문제는 이미 예견된 일 아니겠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예. 그렇습니다.

○조영식 위원

기존에 쓰던 주차장을 또 거기에다가 현대화 사업 시장을 지으니 인근에 더구나 교통량도 많고 도로도 협소하고 그래서, 방금 우리 최정욱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심히 염려가 됩니다. 심도 있게 접근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잘 알고 있습니다.

○조영식 위원

알겠죠? 공모만 하면..... 노력 하겠다는 소리를 지금 몇 년 동안 들은 것 같은데, 그래서는 안 될 시스템이고 만약 지금 시장이 형성되고 하면.....그걸 좀 인지하고 있죠?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예. 그렇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잘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선

지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민 위원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겨서요. 현대화 사업 공사는 언제 끝날까요?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내년 6월, 7월경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민 위원

그러면 좀 전에 말씀하시기로 이 건물을 매입을 하더라도 옆에 주변 건물을 다 같이 매입을 해야만 조성이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조금 더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민 위원

그렇죠. 이제 공모 사업이 된다 하더라도 바로 진행은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중앙시장 준공 이후에 좀 지연이 되는 건 맞습니다.

○지민 위원

대략 그러면 예상을 했을 때 주차장을 준공하는데 얼마 정도나 걸릴까요? 아직 기약이 없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그래서 그 주변에 또 상가들 한 두동씩 매각 의사를 타진하는 분들이 있어서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감정가하고 좀 안 맞아서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계속해서 그 부지만 아니고 다른 주변 부지도 추가 확보하도록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선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최정환

체육진흥과장 최정환입니다. 의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공유재산 취득 심의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 의안번호 제5호 금일 해양치유 생활체육공원 조성에 따른 토지 매입입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금일읍 생활체육공원 부재에 따른 일환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실시한 사업으로 50억 원의 사업비로 금일읍 신구리 일원에 축구장 1명과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이 완공되면 지역 주민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되므로 생활 체육 공원이 없는 금일읍에 생활 체육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심의 대상 토지는 금일읍 신구리 129번지의 9필지 2만 8,745평방미터이며 토지 매입비는 7억 6,215만 5천 원입니다. 현황 도면과 취득 대상 토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재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계속해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최정환

다음은 18페이지 의안번호 제6호 청산 파크골프장 조성에 따른 토지 매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도서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현재 대중적으로 인기가 높은 파크 골프장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에게는 생활체육 활성화를, 관광객들에게는 청산 슬로시티 등 관광 상품과 연계하여 청산도의 새로운 관광 상품을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파크골프장은 18억 원의 사업비로 청산면 양중리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심의 대상 토지는 청산면 양중리 기원 17필지 2만 4,521평방미터이며, 토지 매입비는 3억 2,729만 4천 원입니다. 현황 도면과 취득 대상 토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의안번호 제7호 고금 파크골프장 추가 조성 사업에 따른 토지 매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기존 9홀로는 각종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기에는 시설이 많이 부족하고 파크골프를 이용하는 이용객들 또한 시설이 협소하고 코스가 짧기에 18억 원의 사업비로 9호를 추가하여 18호로 확대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심의 대상 토지는 고금면 농상리 7,703번지 1필지 2,122평방미터이며 토지 매입비는 4,389만 9천 원입니다. 현황 도면과 취득 대상 토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재선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조영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청산 파크 골프장도 18홀. 고금 파크 골프장도 18홀입니다. 그런데 토지 매입비도 아까 청산은 3억 얼마? 여기는 4,300만 원밖에 아닌데 왜 9홀이라고?

○체육진흥과장 최정환
의원님 죄송합니다. 의원님께서 정확히 짚으셨는데요. 사실 청산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18홀은 오타입니다. 9홀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보고서 작성 때 신중하겠습니다.

○조영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선
다른 의원이 계십니까? 계속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최정환
다음은 24페이지 의안번호 제8호 금일 다목적구장 조명타워 및 주차장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낮 시간 동안 직장이나 학업 등으로 운동하기 어려운 주민들이 퇴근 후나 저녁 시간에 다목적 구장에서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복지회관, 목욕장 등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부족한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이 완공되면 지역 주민들의 체육 및 여가 활동이 늘어나고 부족한 주차장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심의 대상 토지는 금일읍 하옥리 996, 999, 총 2필지. 2,473평방미터이며 토지 매입비는 2억 2,394만 천 원입니다. 현황 도면과 취득 대상 토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재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제안 설명해 주십시오.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최정환
다음은 27페이지 의안번호 제9호 신지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본 사업은 실내 체육시설이 부족한 신지면에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여 지역 주민들이 편하게 체육 활동을 즐기기 위하여 조성하는 사업으로 신지면 대곡리 716-2번지 일원에 40억 원의 국비로 40억 원의 사업비로 배구, 배드민턴을 즐길 수 있는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심의 대상 토지는 신지면 대곡리 716-2번지의 10필지로 토지 매입비는 5억 4,673만 5천 원입니다. 주민들의 체육 활동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국민체육센터가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토지 매입 승인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 도면과 취득 대상 토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재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최정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선
체육진흥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천종실
세무회계과장 천종실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두 건이 있는데요. 두 건 다 기부체납 건입니다. 안건번호 제10호 금일읍 금당면 일반 토지 기부체납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 자치단체장은 제4조 제1항의 각 호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려는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따라서 받을 수 있으며, 해당 토지 소유자는 모두 받을 수 있

습니다. 해당 토지 소유자는 모두 임야로 개발 제한 및 접근성 문제로 인해 활용도가 매우 낮아 실질적인 시장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고 토지의 활용 가치가 없음에 매년 재산세가 부과되어 소유자에게 지속적인 경제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에 조건 없이 무상 기부로 기부체납하고자 하여 저희 완도군에서 기부체납 받기로 했습니다. 대상 토지는 금일읍 척치리 산 6번지 외 40필지로 면적은 56만 3,610제곱미터이며 재산가액은 공시시가 기준 2억 2천만 원입니다. 다음 장 부지 현황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재선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계속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천종실

계속 안건 제11호 군외면 영풍리 산 166-1번지 기부 체납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9월 소유자의 매수 요청으로 검토를 시작하였고, 저수지 보존 등 공익 목적 활용의 필요성을 소유자에게 적극 설명하고 설득하였으며, 2025년 10월 세무회계과 방문 및 상담 후 소유자가 매각 의사를 철회하고 군의 공익적 활용에 동의하여 기부체납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재산을 군유재산으로 편입하여 군 재산을 확충하고 향후 저수지 주변 경관 보존 및 군민 편의 증진을 위한 공익산림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해당 임야는 군외면 영풍리 산 166-1번지로 면적은 1만 107제곱미터이며 재산 가액은 공시지가 기준 1,244만 원입니다. 다음 장에 부지 현황 도면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선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 위원

과장님 부탁이 있는데요. 재산가액이 얼마가 되든 기부 체납을 해 주시는 분들한테 인사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금액에 상관없이 참고하셔서 이렇게 해야만이 더 공익적으로 더 많은 분들이 우리 군에 기부체납하는 것이 생기니까 그런 분들 각별히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천종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분위기를 연출해 가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보면 저희들이 재산세를 두 번을 부과하게 됩니다. 1기분은 7월달에 부과를 하고 2기 토지분에 대해서는 9월달에 부과를 하거든요. 토지분에 부과를 하면 지금 80년대 후반 때 토지를 투자투기 목적으로 산을 매입한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관내에 이 사람들이 1세대이고 2세대한테 이거를 이전을 해 주면서 2세대들이 세금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지금 4월달에 임기제로 채용을 했는데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있어서 이걸 적극적으로 해서 이와 같은 효과를 거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세금이 다시 부과가 되면 이런 현상이 있으리라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그때 가서 적극적으로 기부 체납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적극 행정에 추천해서 직원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영식 위원

각별히 신경 써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선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천종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3522호 「2026년~2030년 중기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제안 사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

조에는 '중기 공유재산 관리 계획은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년도 이상의 기관에 대한 공유재산의 관리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등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2026년부터 2030년 5회계연도 기간에 대한 중기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수립 개요입니다. 수립 기간은 2026년부터 26년부터 2003년도까지 5개년간이며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처분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공유재산 정책 방향을 수립하기 위함입니다. 중기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반영할 세부 내용으로는 공유재산 관리 처분 총괄 계획, 공유재산 특례 종합 계획, 일반 재산의 개발 및 출자, 공유재산의 관리 처분에 따른 수익금의 징수 및 관리 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천종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 3523호 「202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26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총괄 예정입니다. 2026년도 공유산 관리 계획에 반영할 안건들의 취득 내용으로는 기존 현황 대비 토지가 13필지 면적 2만 5,334제곱미터에 24억 5,700만 원과 건물 1동에 3,350제곱미터 15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처분 내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 세부 내역입니다. 안건 번호 제1호 해양수산 기후변화 대응 센터 유치 추진에 따른 부지 매입과 안건 번호 제2호 복합문화도서관 건립 사업 안건번호 제3호 다도해의 일출공원 확대 조성 사업 추진에 따른 토지 매입 등 총 1건입니다. 「202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반영할 내용으로는 토지 취득 13필지, 건물 취득 1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 설명은 해당 부서장이 나와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선

이어서 소관부서의 세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은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해양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해양정책과장 김현란입니다. 안건번호 제1호 해양수산 기후변화 대응 센터 유치에 따른 부지 매입입니다. 해양 기후 변화를 예측하여 수산 분야 재난 재해를 예방하고 해양 생태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해양 수산 기후변화 대응 센터 유치를 위해 대상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취득 대상지는 신지면 대곡리 1,937번지의 11필지이며 2만 1,015제곱미터입니다. 소요 예산은 22억 4,100만 원이며 현황 도면은 다음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양정책과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선

해양정책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정책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문화예술과장 한지영입니다. 의안번호 제3523호 제2호 복합문화도서관 건립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기존 도서관의 노후화와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주민의 교육 문화 수준에 부응하기 위해 복합 문

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2024년 문체부 공공 도서관 건립 타당성 사전 평가에서 적격을 받았으며, 2025년 9월 전라남도 지방 재정 투자 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취득 대상 건축물은 신축 1동으로 연면적 3,350제곱미터 규모이고 사업비는 155억 원입니다. 소요 예산 산출 내역과 현황 도면은 다음 장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공공 건축 심의 등 사전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통합 설계 공모 및 실시 설계를 계획대로 추진하여 본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공유재산 부의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선

문화예술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산림휴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산림휴양과장 박은재입니다. 산림휴양과 소관 의안번호 제 3523호, 안건번호 제3호 다도해 일출공원 확대 조성 사업 추진에 따른 토지 매입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 주민과 관광객을 위한 체험과 휴식 등 다양한 테마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군유지가 협소하여 개발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 지속적인 매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매입 대상은 완도읍 군내리 199번지 등 2필지이며 군유지와 연접하여 하중 가치가 높은 부지로 향후 산책로, 경관숲 등 공원 확대 조성 사업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예상 감정액은 2억 1,5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선

산림휴양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휴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휴양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회계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 5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5건의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완도군 청사신축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 완도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6~2030년 완도군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6년 완도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5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23분 회의중지)

(15시 40분 회의계속)

○위원장 박재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합니다.

---

16. 완도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16항 「완도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 제16항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용식
민원봉사과장 김용식입니다. 의안번호 제3512호 「완도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의 간이 저온 저장고 용도의 건축물은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이 되나 농업 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조의 2에 해당하는 바닥 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의 농산물 저온저장고는 신고 대상에서 적용 제외하고자 하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건축물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완도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민
의안번호 제3512호 「완도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규정을 정비하고 특정 건축물의 건축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령간 일관성과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김용식 민원봉사과장의 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
과장님. 뭐 하나만 확인해 볼게요. 면적 33제곱미터 10평인가요?

○민원봉사과장 김용식
예.

○박병수 위원
그러면 저온저장고는 3평이죠?

○민원봉사과장 김용식
예.

○박병수 위원
그러면 크게 하면 신고를 해야하는 건가요?

○민원봉사과장 김용식
아니요. 10평방미터까지는 간이 건축물로 돼 있고 농업축산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저온 저장고는 지금 3평짜리만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간이 건축물을 하지 않고 농업 촉진법에 의해서 기계화 촉진법에 따라서 농기계 대장 관리로만 현재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럼 이걸 신고에서 제외한다는 건 무슨 이야기 인가요?

○민원봉사과장 김용식
가설 건축물을 신고를 안 해도 되고 농업축산과에서 저온 저장고 지원 관리, 농업축산과에서 농업 기계화 촉진법에 따라서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럼 농가에서 신고 없이 지어도 된다는 건가요?

○민원봉사과장 김용식
예.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선
그럼 필지는 본인 앞으로 되어 있어야 하죠?
○민원봉사과장 김용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재선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완도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7. (재)완도군행복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재)완도군 행복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 제17항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예. 주민복지과장 추교훈입니다. 의안번호 제3524호 「완도군 행복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연 목적입니다. 완도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다양한 복지 수행에 부응하고 내실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출연 금액은 3,000만 원이며 금년도에도 3,000만 원을 출연하였습니다. 출연 근거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완도군 행복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거 출연하고자 합니다. 완도군 행복복지재단 현황과 사업 계획서는 별지 1과 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행복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선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호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인호 위원
과장님. 장보고 장학회는 이사들이 실명으로 되어있는데 행복복지재단 이사들은 익명처리가 된 이유가 뭡니까?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개인 정보법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거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조인호 위원
개인정보? 군의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개인정보를 따지는 이사들이면 이걸 안 시켜야 하는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그거는 확인해서 이상이 없으면 다음에 그.....
○조인호 위원
우리가 군수 공약사항으로 해서 이렇게 훈련시켰으면 이사도 실명이 공개가 돼야 이런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장보고 장학회는 똑같은 재단인데 거기는 이사들이 실명을 공개하는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뭐에요? 참고하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선
박병수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병수 위원
우리 조인호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는 지금 이사들이 하고 있는 역할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1년에 4번 위원회가 개최됩니다.

○박병수 위원

기탁금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많이 낸다던가, 행복재단을 위해서 무슨 역할을 한다든가..... 그럼 이사회에 참여만 하는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예.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사회 참여하면 수당이 지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예. 수당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지금 1년 기탁금 수입액이 얼마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지금 5억 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거기에 직원이 몇 명 있죠?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이사장님까지 해서 4명입니다.

○박병수 위원

5억 원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 직원이 필요한가요?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저번에도 보고를 한 번 한것 같습니다마는 전남에 이렇게 5개소 있습니다. 재단에는 우리가 제일 적은 직원 숫자고요.

○박병수 위원

기탁금이 많이 있다고 하면 직원들 많이 필요하겠죠. 이런 5억 사업을 가지고 직원 한 명이 처리할 수 있는 규모 아닌가요?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사업별로 또 대상자를 선정해야 되고 혼자 정규직이 이렇게 파견 나가 있습니다마는 정규직 직원만이 권한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파견 나가 있고.....

○박병수 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충분히 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일이에요. 지금 이런 사업비 같으면 그리고 이제 3,000만 원이라든데 지금 내년 재원을 보니까 4,000만 원이라고 지금 돼 있는데.....어떤게 맞는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아니, 저희들이 4,000만 원 요구했는데 이번에 3,000만 원으로 편성이 갔습니다.

○박병수 위원

2026년 4,000만 원 출연 금액이 그렇게 돼 있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선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재)완도군행복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8. 완도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9. 완도군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20 국공립 어린이집(완도LH, 약산어린이집) 위탁관리 동의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완도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완도군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국공립 어린이집(완도 LH어린이집, 약산어린

이집) 위탁관리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 제18항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가족행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가족 행복과장 박미정입니다. 의안번호 제3513호 「완도군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 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 연계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조례 제정의 목적부터 안 제15조, 제20조 사무의 위탁 교육 및 홍보까지입니다. 세부 내용은 부침 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민

의안번호 제3513호 「완도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지원을 통합하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박미정 가족행복과장의 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 제19항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가족행복과장은 계속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다음은 의안번호 제3514호 「완도군 출생 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출생 기본수당 지급 조건인 출생신고 시 보호자 부모 모두 도내 거주 요건인데, 부모 중 1인 전입과 출생 아동 출생신고만을 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제2호 나목의 주소를 계속해서 주소로 문구 수정이며 안 제4조 2항 역시 문구 수정과 단서 신설입니다. 세부 내용은 부침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출생 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민

의안번호 제3514호 「완도군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출생 기본수당 지급이 부모 모두가 도내에 거주해야하는 규정의 적용상 문제점을 해소하고 출생아 가정이 안정적으로 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지급요건을 정비하고자 제정하는것으로 주요내용은 박미정 가족행복과장의 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 제20항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가족행복과장은 계속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의안번호 제 3525호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인 완도 LH와 약산 어린이집 위탁 기간 만료가 도래되어 시설의 지속적인 관리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완도군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위탁 운영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법적 근거입니다. 「영유아 보육법」 제24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완도군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 「완도군 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위탁 개요입니다. 위탁 시설은 완도 LH 어린이집, 약산 어린이집이며 위탁 범위는 국공립 어린이집 관리 운영 전반입니다. 시설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민간 위탁 방법입니다. 민간 위탁은 「완도군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와 「완도군 보육 정책 및 아동 위원회 운영 조례」에 의거 공정한 심의를 거쳐 선정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네 번째 민간 위탁 기관입니다. 이 수탁계약 기간은 체결일로부터 5년입니다. 책임한계는 수탁 사무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습니다. 지도 감독입니다. 완도군은 수탁자의 시설 운영 상황을 조사하거나 장기 또는 필요 시 점검을 하며 수탁기관의 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과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본 시설을 민간 위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관리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선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족행복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완도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완도군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국공립 어린이집(완도 LH, 약산 어린이집) 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1. 완도군 난임극복지원에 관한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완도군 난임극복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 제21항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현주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현주입니다. 의안번호 제3515호 「완도군 난임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난임으로 고통받는 난임 부부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다각적이고 능동적인 확대 지원을 위해 현행 「완도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완도군 난임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를 새로 제정하여 출산 장려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에서 제6조에는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원 사업 지원 대상, 안제7조에서 제9조에는 실태조사 등 중복 지원 제한 지원 중단, 안 제10조와 제11조에는 환수 조치 및 협력 체계 구축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5조 지원 사업에는 난임 시술을 위한 원거리 이동 시 교통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완도군 난임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난임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민

의안번호 제3515호 「완도군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부부의 심리적·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완도군의 적극적인 출산지원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제정하는것으로 주요내용은 김현주 건강증진과장의 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완도군 난임극복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산회)

○출석위원(8인)

박재선 박성규 지민
박병수 조인호 최정욱
허궁희 조영식

○출석공무원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행정지원과장	이기석
세무회계과장	천종실
민원봉사과장	김용식
주민과장과장	추교훈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체육진흥과장	최정환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건강증진과장 김현주
인구일자리정책팀장 오윤미

○ **전문위원** : 박영민

○ **속 기 사** : 임은주

제334회 완도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11월 20일(목)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완도군 상공인 지원 및 지역상품 우선구매 등에 관한 조례안
2. 완도군 방치 농업기계 처리 지원 조례안
3. 완도군 섬 발전 기본 조례안
4.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5.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6. 완도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완도수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9. 완도군자원관리센터 운영 위탁 동의안
10. 완도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완도군 상공인 지원 및 지역상품 우선구매 등에 관한 조례안(허궁희 의원 발의)
2. 완도군 방치 농업기계 처리 지원 조례안(박병수 의원 발의)
3. 완도군 섬 발전 기본 조례안(조인호 의원 발의)
4.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완도군수 제출)
5.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완도군수 제출)
6. 완도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7. 완도수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8.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완도군수 제출)
9. 완도군자원관리센터 운영 위탁 동의안(완도군수 제출)
10. 완도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6시 06분 개의)

○위원장 박병수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완도군 상공인 지원 및 지역상품 우선구매 등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이 되겠습니다.

---

1. 완도군 상공인 지원 및 지역상품 우선구매 등에 관한 조례안(허궁희 의원 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완도군 상공인 지원 및 지역상품 우선구매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허궁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궁희 의원

「완도군 상공인 지원 및 지역상품 우선구매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완도군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 및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관내 상공인이 생산·판매하는 상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와 안 제4조는 관내 상공인 지원 및 적용대상 기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지역상품 등 우선 구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재정 지원 및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문희

의안번호 제 3526호 「완도군 상공인 지원 및 지역상품 우선구매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도군이 발주하는 물품·용역·공사 분야에서 관내 상공인의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에서 생산·판매되는 지역상품의 우선구매를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허궁희 의원님의 제안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상공인 지원 및 지역상품 우선구매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도군 상공인 지원 및 지역상품 우선구매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완도군 방치 농업기계 처리 지원 조례안(박병수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도군 방치 농업기계 처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지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 위원

지민 의원입니다. 「완도군 방치 농업기계 처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

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완도군 내 방치된 농업기계를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농촌경관개선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군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는 방치 농업기계 처리 의무 및 실태조사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농업기계의 강제 처리를 안 제7조에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문희

의안번호 제 3527호 「완도군 방치 농업기계 처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방치된 농업기계를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농촌 경관을 개선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정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지민 의원님의 제안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방치 농업기계 처리 지원 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완도군 방치 농업기계 처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완도군 섬 발전 기본 조례안(조인호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도군 섬 발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조인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호 위원

조인호 의원입니다. 「완도군 섬 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완도군 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섬 발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 주도형 발전과 지역균형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는 완도군 섬 발전종합계획 및 실태조사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는 완도군 섬 발전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와 안 제14조에는 섬 관련 행사 추진 등 및 여객선 운임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문희

의안번호 제 3528호 「완도군 섬 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섬

발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 주도형 발전과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인호 의원님의 제안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섬 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축조심사와 토론 종결 전,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부칙 제2조를 보시면, 완도군 섬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는 폐지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완도군 섬 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완도군수 제출)

5.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 제4항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우홍래입니다. 의안번호 제3532호 「전남 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출연 대상 기관은 전남 신용보증재단입니다. 지역 「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되어 금융사각지대의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공적 금융 지원 확대를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6년도 출연금은 2억 500만 원으로 출연금 기준액 1억 500만 원과 금융 취약계층 특례보증 1억 원입니다. 출연금은 보증서 발급을 위한 재원과 보증업체 부실 발생 시 채무 변제금 등 대출 지원 사업에 운영이 됩니다. 이상으로 「전남 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은 의사일정 제5항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경제교통과장은 계속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다음은 의안번호 제3533호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출연 대상 기관은 전라남도이며 출연 목적은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건전한 육성을 위함입니다. 2026년도 출연 금액은 6,886만 원입니다. 출연금은 창업 및 경쟁력 강화 기금, 벤처기업 육성 자금, 중소 유통업 구조 개선 자금 융자 사업에 지원이 됩니다. 이상으로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 2

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 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2건의 안건에 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6. 완도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7. 완도수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도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완도수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 제6항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최정환

체육진흥과장 최정환입니다. 의안번호 제3529호 「완도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읍면 체육시설 신축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제3항에 의거 장기 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또한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를 반영하여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국민권익위 권고를 반영하여 제3조 제1항 시설 사용에 대한 투명한 사용 명시 등 제도 개선 4개항을 반영하고, 신규 설치된 체육시설인 체육시설 사용료 중 제7조 제1항 별표 1에는 전용 사용료를, 별표 2에는 연습 사용료를 적용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였고, 마지막으로 제10조 제2항의 장기 복무 제대군인을 50% 감면 대상에 추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문희

「완도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사항에 따라 공공체육시설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 감면 지원 규정 등 신설하여, 체육시설 이용자 관리 및 시설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최정환 체육진흥과장의 제안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은 의사일정 제7항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체육진흥과장은 계속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최정환

다음은 의안번호 제 3530호 「완도수영장 관리 및 운영조례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

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다른 지자체의 초등학생 방문 등으로 주민 불편이 발생함에 따라 수영장 사용료 감면 대상을 명확히 하여 이용자의 혼란을 제거하고,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제3항에 의거 장기 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완도 수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 제1항 1호 어린이 항목을 완도군에 주소를 둔 어린이로 개정하고, 동 조례 제10조 제1항 2호 수영장 이용료 50% 할인 대상의 장기 복무 제대군인목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완도수영장 관리 및 운영조례개정안」에 대해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문희

「완도수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타 지자체 초등학생 단체 방문 증가로 인해 관내 주민 이용불편이 발생함에 따라 감면대상범위를 지역으로 한정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 감면 지원 규정 등 신설하여,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최정환 체육진흥과장의 제안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수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완도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도수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8.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 제8항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정국

농업축산과장 이정국입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출연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 3534호 「농어촌 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출연 대상 기관은 전라남도입니다. 출연 목적은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농업인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2026년도 우리군 추정 금액은 1억 2,500만원이고, 추정 근거는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조례」 제4조에 해당됩니다. 출연 사업 계획서입니다. 사업 기간은 전라남도 농어촌 진흥기금 추가 조성 계획에 따라 2020년부터 2026년까지 총 7년간이며, 총 사업비는 8억 7,50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농수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수출 등을 위한 각종 시설 설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사업과 녹색축산육성기금에서 지원하지 않는 축산물 분야 사

업입니다. 산출 기초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기관의 출연금은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농업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융자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추진 실적은 2025년도 농업인의 15명에 대해서 12억 7,800만 원의 융자액을 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2026년 출연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축산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9. 완도군자원관리센터 운영 위탁 동의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완도군자원관리센터 운영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 제9항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환경수질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입니다. 지금부터 「완도군 자원관리센터 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 투자 사업으로 설치된 완도군 자원관리센터는 주식회사 아라 환경에서 관리 운영권을 보장받아 운영 중에 있으며 내년 4월 26일자로 만료됩니다. 우리 군에서는 2030 가연성 폐기물 직매립 금지 등 폐기물 정책을 보완하고자 신규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적격성 검토 및 사전 인허가 절차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착공시까지 공백 기간이 발생함에 따라 동 기간 내 완도군 자원관리센터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완도군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와 「완도군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의거 민간 위탁 운영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 위탁 사업은 자료와 같이 완도군 자원관리센터 운영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으로 위탁사 선정 방법은 「완도군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21조 및 「폐기물 관리법」 제62조에 의거 법에서 지정한 전문 기관으로 선정하고자 하며 위탁 기간은 약 20개월로 예상됩니다. 현재와 같이 자원관리센터 내 직원을 현장에 배치하여 생활폐기물 적정 처리 및 시설 관리 여부 등을 수시로 관리 감독하고자 합니다. 현 자원관리센터는 기부 체납되어 우리군 시설이나 운영 시 필수 자격 및 전문 운영 기술 등이 요구되는 시설임에 따라 직접 운영은 현실적으로 불가하므로 폐기물관리법에 지정한 전문 기관으로 민간 위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질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수질관리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완도군자원관리센터 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

다.

---

10. 완도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완도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 제10항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진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531호 「완도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소하천 점용료 등을 산정 납부, 감면 반환 등에 관한 자치법규과 개정 법령을 반영하지 않거나 모호하고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중기 소상공인에게 애로 사항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하천 소액 점용료 등 미부과 기준 개선 소하천 점용료 등 인상률 상한 개선, 소하천 점용료 등 분할 납부 규정 개선, 소하천 변상금 납부 유예 근거 마련, 소하천 점용료 등의 반환 규정 개선 경장 목적의 소하천 점용료 산정 기준 개선, 소하천 사용료 및 유수 점용료 산정 개선, 소천 점용료 등 감면 규정을 정비 및 신설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완도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문희

의안번호 제 3531호 「완도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하천 점용료 등의 산정·납부·감면·반환 등에 관한 규정을 명확화 및 개선하여 납부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김진원 건설과장의 제안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완도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완도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산회)

○출석위원(8인)

박병수　박성규　지　민
박재선　조인호　최정욱
허궁희　조영식

○출석공무원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체육진흥과장	최정환
농업축산과장	이정국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건설과장 김진원

○ **전문위원** : 전문희

○ **속 기 사** : 임은주

제334회 완도군의회(제2차 정례회)

추경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11월 24일(월)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25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안
4.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안)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안)
3. 2025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안(완도군수 제출)
4.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완도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예산결산특별위원장직무대행 박병수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완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방법은 「완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회 위원장은 사전 간담회에서 위원 여러분이 추천하고 충분히 협의한 바와 같이 조영식 위원을 제334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영식 위원이 위

원장으로 선임됐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영식 위원장은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박병수 위원, 조영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05분 회의계속)

○위원장 조영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영식입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자유로운 소통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본 위원회 소관 안건의 심사가 원활히 진행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방법 역시 위원장 선임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사전 간담회에서 위원 여러분들이 추천하고 충분히 협의한 바와 같이 조인호 위원을 추천하여 제334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인호 위원이 간사로 선임됐음을 선포합니다.

---

3. 2025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기금별 설명에 앞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안」 총괄사항에 대하여 기획예산실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기획예산실장 한희석입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기금 운용계획 제3차 변경안은 24년도 재정 수입 불균형 조정을 위한 기금의 여유 자금을 일반 회계로 예탁 운영 등의 사유로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5쪽 2025년도 총괄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우리 군은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을 포함한 총 8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 법적 의무 기금은 고향 사랑 기금, 식품진흥기금과 재난 관리 기금이고,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재정 안정화 개정과 통합 계정 청사 신축 기금, 공유재산 관리 기금, 생활폐기물 처리기금, 옥외 광고 정비기금은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6쪽 기금 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25년도 수입 계획은 전입금 1억 원, 보조금 3,000만 원, 예치금 회수 443억 7769만 4,000원, 예수금 302억 9559만 7,000원, 이자 수입 11억 5,367만 1,000원, 기타 수입 5억 5,144만 원으로 총 765억 8,037만 1,000원입니다. 지출 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7억 6,729만 7,000원, 예탁금 606억 9,033만 1,000 원, 예치금 58억 6,341만 4,000원, 기타 지출 91억 8,736만 원이며 총 765억 8,037만 1,000원입니다. 7쪽 연도말 기금 조성액입니다. 24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442억 7,699만 5,000원입니다. 25년도 기금운용은 수입이 321억 3,070만 8,000원, 지출이 705억 4,569만 1,000원으로 수입이 지출보다 384억 1,498만 3,000원 감소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25년 말 예상되는 기금 조성 총 규모는 58억 6,34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5년도 기금운용 계획 제3차 변경안 총괄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진행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별 세부 운영 계획은 기금 운용부서에서 자세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식

기획예산실장 이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변경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계속해서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통합 계정에 대한 보고입니다. 13쪽 운용 총칙은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통합계정은 회계연도 간 재정 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 및 개인 간의 여유 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경기 침체의 장기화에 따른 군민 생활 안정 도모와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생 회복 지원금 재원 보존 및 사회복지, 해양수산 분야 등 대규모 사업 추진에 따른 군비 부담금 증액 등 재정 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자 청사 신축 기금과 생활 폐기물 처리 기금의 여유 재원을 302억 9,559만 1,000원을 일반 회계로 예탁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15쪽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먼저 자금 수지 총괄입니다. 25년도 수입 계획은 예수금 302억 9,559만 7,000원입니다. 지출 계획은 예탁금 동일하게 302억 9,55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8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 그리고 20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앞에서 설명드린 총괄 설명 내용과 동일해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식

기획예산실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실장 나오셔서 「식품진흥기금」 변경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실장 안환옥

안녕하십니까? 관광실장 안환옥입니다. 2025년 3회 추경 예산 식품진흥기금 운영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 위생과 군민의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조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24년 말 식품진흥기금 조성액은 1억 1,143만 5,000원입니다. 25년 기금 조성 계획으로 수입은 당초 740만 원에서 354만 7,000원이 감액된 385만 3,000원입니다. 지출은 음식 문화 개선 물품 구입비로 당초 2,000만 원 편성하였으나 130만 3,000원이 감액된 1,869만 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5년 말 조선 예상액은 1,484만 4,000원이 감액된 9,659만 1,000원입니다. 자금 운용 계획 및 연도별 기금 조성 현황 등은 24쪽부터 2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광실 소관 2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식

관광실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고향사랑기금」 변경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기석

행정지원과장 이기석입니다. 2025년도 고향사랑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3쪽 운용 총책입니다.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25년도 기금 조성액은 수입과 지출 계획을 반영한 16억 4,131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34쪽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먼저 자금 수지 총괄입니다. 2025년도 수입 계획은 19억 9,007만 9,000원으로 당초 기정액에서 2025년 전라남도 기금사업 도비 보조금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25년도 지출 계획은 당초 기정액에서 도 보조금 반납과 소안면 마을 공동 빨래방 조성

에 따른 기금 사업 추가 반영 등 비융자성 사업비 3억 4,860만 원을 제외한 수익금 전액을 예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35쪽부터 36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7쪽부터 39쪽까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액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식

행정지원과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청사신축기금」 변경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천종실

세무회계과장 천종실입니다. 제3회 추경 「청사신축 기금운영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43쪽 운영 총칙입니다. 청사 신축 기금은 「완도군 청사 신축 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완도군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경 기준 2024년 말 조정액은 89억 9,696만 4,000원, 이자 수입은 2억 5,923만 8,000원입니다. 현재 우리 군 재정 수입 불균형 해소와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청사 신축 기금을 통합 재정안정기금으로 편입하여 통합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 44쪽입니다.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먼저 자금 수지 총괄입니다. 제3회 추경 수입 계획으로 89억 9,696만 4,000원을 예치금으로 회수하였으며, 이에 대한 이자 수입은 2억 5,923만 8,000원으로 총 92억 5,620만 2,000원입니다. 제3회 추경 지출 계획은 수입된 금액 전액을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으로 위탁하고자 합니다. 다음 45쪽입니다.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으로 위탁하고자 합니다. 지출 계획입니다. 다음은 46쪽 47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48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사 신축 기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식

세무회계과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수질관리과장 나오셔서 「생활폐기물처리시설기금」 변경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한입니다. 51페이지 환경 수질과 소관 25년도 3회 추경 예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기금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은 소각 시설, 매립 시설, 재활용 시설 등 생활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와 관리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우리 군 생활폐기물 처리 시설 기금 조성액은 210억 3,939만 5,000원이며, 회계는 또한 재정 불이익 불균형 조정 및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으로 전액 전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수질과 소관 25년도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식

환경수질관리과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질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안」

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집행부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협의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인건비·여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계속비 신규 및 변경사업 그리고 국도비 신규 및 변경사업과 순군비 증액사업은 3백만원 이상에 대해서만 예산 설명을 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그러면 부서별 제안설명에 앞서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편성에 따른 총괄사항에 대하여 기획예산실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기획예산실장 한희석입니다. 2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편성 방향으로 금년 3회 추경 예산안은 정리 추경인 점을 감안해 정확한 세입 추계로 증감액을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교부세 감액에 대비한 세출 예산 구조 조정과 효율적 예산 편성에 집중한 바 있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대비 483억 9,8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자체 수입은 지방세가 14억 900만 원 감액되었으나 세외수입이 59억 5,500만 원 증액되어 총 45억 4,6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전 수입으로 지방 교부세는 정부 세수 감소 등에 따라 보통 교부세 205억 1,000만 원과 부동산 교부세 11억 2,800만 원이 감액되었고, 특별교부세 등 14억 8,000만 원을 증액된 총 201억 5,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정 교부금은 4억 8,000만 원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318억 9,200만 원, 도비 보조금 22억 3,800만 원을 합하여 총 341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존 수입 등 내부 거래는 순세계 잉여금 정산 등을 통해 294억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가 일반 회계 전입금 21억 2,600만 원, 이자수입 1,800만 원 증액 발행하였고, 의료급여기금 사업비 지원 900만 원, 농공단지 조성관리 특별회계 해수 사용료 1,3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여 총 24억 9,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5년도 제3회 추경 예산 총 세입 규모는 제2회 추경 예산 대비 508억 9,200만 원이 증가한 7,911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의 규모 역시 7,911억 6,700만 원으로 일반 회계는 7,592억 1,900만 원으로 483억 9,800만 원이 특별회계는 319억 4,800만원으로 24억 9,4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국토비 보조금 3,142억 9,200만 원으로 443억 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국도비, 군비 부담금은 1,156억 5,500만 원으로 8억 9,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국도비 사용 잔액 반납금은 114억 9,900만 원을 증액 편성해 국도비 사업 관련 예산은 총 566억 9,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순군비 자체 사업 예산은 지방 교부세 감액 등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경상경비를 절감하고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시급한 현안 사업을 반영하는 등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근본 추경 예산의 총 2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먼저 인력 운영비는 연말까지 소요될 인건비를 추계해 초과근무 수당,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의 30억 4,80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또

포상금과 성과상여금 900만 원, 연금 부담금 등 9억 8,300만 원을 각각 감액하고 연말까지 예상치 못한 상황에 긴급 대응해야 할 예산 일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14억 9,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산 예산은 예산 효율화와 불용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총 51억 3,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 사업비는 사업비 낙찰 차액과 연내 사업 추진이 불가한 사업은 삭감해 이월 사업을 최소화하였으며, 시급하게 발주해야 할 필수 사업비만 반영해 총 2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5년도 제3회 추경 예산 총괄 보고를 마치고 분야별 세부 사항은 각 부서별 제안 설명 시 자세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식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제안설명을 들으면서 궁금한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질의시간에 질의하여 주시고,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잘 체크해 두셨다가 축조심사 때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천종실

2025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한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추경 예산은 기정 7,402억 7.515만 8,000원 대비 508억 9,270만 1,000원이 증액된 7,911억 6,785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55쪽입니다. 일반회계 추경 예산은 기정 7,108억 2,089만 3,000원 대비 483억 9, 850만 5,000원이 증액된 7,592억 1,939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57쪽입니다. 특별회계 추경 예산은 기정 294억 5,426만 5,000원 대비 24억 9,419만 6,000 원이 증액된 319억 4,846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입니다. 지방세 추경 예산은 기정 276억 5,436만 9,000원 대비 14억 9,000만 원이 감액된 262억 4,536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입니다. 새해 수입 추경 예산은 기정 242억 7,641만 6,000 원 대비 59억 5,483만 4,000원이 증액된 302억 3,12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 78억 321만 4,000원 대비 5억 2,861만 2,000원이 증액된 83억 3,182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기정 147억 1,654만 7,000원 대비 50억 5,704만 7,000원이 증액된 197억 2,229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입니다. 지방 행정제재 부과금 추경 예산은 기정 8억 4,725만 7,000원 대비 4억 2,047만 5,000원이 증액된 12억 6,773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입니다. 지방교부세 추경 예산은 기정 3,269억 543만 7,000원 대비 201억 5,678만 8,000원이 감액된 3,067억 4,864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입니다. 전용 교부금 추경 예산은 기정 136억 8,700만 원 대비 4억 8,000만 원이 증액된 141억 6,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입니다. 보조금 추경 예산은 기존 2,741억 6,438만 5,000원 대비 341억 2,953만 1,000원이 증액된 3,082억 9,391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목별 증감액 내용입니다. 국고보조금 1,751억 5,994만 6,000원,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305억 1,963만 8,000원, 기금 240억 8,316만 3,000원, 시도비 보조금 785억 5,116만 9,000원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223쪽부터 23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9쪽입니다. 보전 수입 및 내부 거래

추경 예산은 기정액 대비 441억 3,328만 6,000원 대비 293억 9,992만 8,000원이 증액된 735억 3,321만 4,000원을 발행하였습니다. 목표율 증감 내역입니다. 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2억 399만 7,000원, 내부 거래 예수금으로 302억 9,55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3회 총 예산안 세입 부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식

세무회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회계과

○세무회계과장 천종실

(참조)

·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위원장 조영식

세무회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참조)

·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위원장 조영식

기획예산실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일자리정책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인구일자리 정책실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참조)

·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위원장 조영식

인구일자리정책실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욱 위원

259페이지. 반환금 3,000..... 청년 일자리 사업 국비 집행 자금이 2018년인데 왜 이제야.....

○일자리창출팀장 김광웅

일자리 창출팀장 김광웅입니다. 도에서 정산이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못했던 것을 지금 정산하고 있습니다.

○최정욱 위원

2018년도 것을요?

○일자리창출팀장 김광웅

그때는 군에서 직접 집행했고 지금은 위탁기관을 거쳐야 하는데, 그 당시에는 정산이 안돼서 도 예산은 시군 전체가 정산이 돼야 한꺼번에 하는데 그 부분이 이제 완료돼서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최정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식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제안 하나만 할게요. 어제 조례에 253 페이지. 완도군 셋째아 이상 돌사진촬영비 지원이 있잖아

요? 조례 개정이 올라와 있죠?
혹시 우리 완도군 출생아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이 기회삼아 물어봅니다.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제 기억으로는 금년에 170명 정도 되는 걸로 그때 파악을 했습니다.

○위원장 조영식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경석 인구정책팀장님한테 좀 확인 좀 했는데요. 현재 우리 완도군의 다자녀는 셋째아 부터 입니까? 아니면 둘째아 부터입니까?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다자녀는 둘째아 이상으로 국가 정책하고 지금 일치시켰습니다.

○위원장 조영식

그렇죠? 둘째아 부터죠?

○위원장 조영식

그렇습니다. 그럼 부탁 겸 제안하겠습니다. 이거를 둘째아 부터니까 다자녀 돌사진 촬영 지원이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출생아 수 한 명당 20만 원 정도 됩니까?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지금 최대 20만 원 지원한 걸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식

그러면 다자녀가 셋째아이만 다자녀라고 안 하고, 국가정책하고 맞게 둘째아 부터 다자녀라고 하니 둘째부터 돌사진 기념 사진촬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일자리정책 실장님께서 신경 좀 써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안 계셔서 팀장님한테 물어볼 수 없어서 실장님께 부탁을 합니다.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식

자료가 좀 일관성이 있을 것 같고 이렇게 부탁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이거는 인구 활성화 아이디어에서 제안된 내용인데요. 우선 셋째아 부터 먼저 해주고 셋째아 지원이 효과를 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수용을 해서 지금 조례를 개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또 둘째 까지 하려면 조례가 개정돼야 되기 때문에 우선 진행해 보고 효과 나오는 걸 감안해서 추가적으로 확대하는 걸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식

반드시 효과가 있을 겁니다.

○위원장 조영식

인구일자리정책실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관광실

○관광실장 안환옥

(참조)
·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위원장 조영식

관광실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실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치유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해양치유담당관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참조)
·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위원장 조영식

해양치유담당관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치유담당관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0분 회의계속)

○위원장 조영식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장 이기석

(참조)

·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위원장 조영식

행정지원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장 김용식

(참조)

·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이 실제적으로 반납할 것은 235만 1,000원으로 765만 6,000원을 삭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식

민원봉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참조)

·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위원장 조영식

주민복지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가족행복과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참조)

·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위원장 조영식

가족행복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병수 위원

과장님 이거 하나 확인 좀 하겠습니다. 341페이지입니다.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341페이지요?

○박병수 위원

남도 광역 추모공원 부대시설 신축인데요.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예.

○박병수 위원
당초에 5,901만 8,000원은 연간 부담금 인가요?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이거는 지금 해남에서 2023년 9월부터 남도광역 추모공원에 식당하고 사무실을 신축을 했거든요. 거기에 해남이 50%로 하고 저희하고 진도가 25%씩 분담된 금액입니다.
○박병수 위원
그럼 5,900만원을 기정을 했는데 정리 추경에 3억 7,950만원이 들어갔는데.....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그 부분은 식당하고 사무실에 대한 신축 부분에 대한 것만 저희 군 부담금입니다.
○박병수 위원
그럼 1년에 분담금은 5,900만 원으로 한다는 건가요?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여기에서 좀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1년에 들어가는게 얼마에요?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1년 예산이 이 정도 되는데요. 이제 저희가 운영비 부담금이 이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상황에 따라서 약간 좀 정해진 건 아니고,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금액이 왔다 갔다 하는 금액이에요.
○박병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식
최정욱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최정욱 위원
과장님 351페이지요. 예를 들어서 노인 맞춤돌봄 이런 거는 우리가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이거는 국도비를 우리가 수치 조정을 하고 나서 남은 잔액이에요. 이걸 저희가 쓰고 남으면 국도비에서 매칭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자동 반납해야 되는 금액입니다.
○최정욱 위원
아니 그래도 그 사업을 금액에 맞춰서 했더라고요. 반납하고.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처음에 계상을 할 때 국토부에서 좀 높게 책정해서 수치 조정에 따른 그런 잔액 반납입니다.
○최정욱 위원
우리가 일을 많이 줄 수 있는데 안 준거는 아니구요?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이 사업을 할 때는 그럴 수 없어요.
○최정욱 위원
여기도 보면 노인 일자리 사회 활동 지원사업이 8,000만원 정도.....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이제 이런 부분은 중도에 또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노인 일자리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잔액 반납, 이제 우리가 수행 기관에 처음에 배정을 하거든요. 배정해서 자기들이 수용을 못하고 저희들한테 거의 반납한 금액입니다.
○최정욱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영식
가족행복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ㅇ 시설관리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수호

(참조)
·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위원장 조영식

시설관리사업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수 위원

옥외경관 관련해서 다른부서에도 사업비가 들어있던데 중복된 사업 아닌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수호

이거는 올해에 저희들이 도비 1억을 경관 조성 사업 한다고 공모 사업으로 해서 1억은 저희들이 도비 지원받은 내용입니다.

○박병수 위원

해조류 박람회 추진단에 보면 옥상 보수, 옥외 경관 재정비, 이런 것들이 용역비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거와는 별도인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수호

저희가 방금 설명한 것은 해조류센터 건물에 야관 경관만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박병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옥외 경관은 뭐고 야간 경관 뭔가요? 해조류 센터에서 지금 재정비라든지 기본 개선 용역비를 2,000만 원을 지금 추경에 반영을 해놨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수호

그건 아마 옥상 정원 관련된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박병수 위원

아니. 옥상 보수 공사도 1억 원이 있고.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수호

지금 현재 저희들이 데크 양쪽 계단 데크하고 옥상 정원이 데크로 돼 있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데크가 위험성이 있고 오래돼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보수를 하려고.....

○박병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물 하나에 왜 두 개 부서에서 이렇게 사업을 이원화 시켜놓고 하는거죠?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수호

지금 해조류 센터는 저희들이 시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PRE해조류박람회 때문에 해조류박람회추진단하고 저희들하고 지금 긴밀한 협조하에 그렇게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어떤 게 맞아요? 실장님. 지금 어떤게 맞는거에요?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저희들이 아마 업무 분담을 준 것 같은데요. 지금 해조류센터 원통 기둥에 있는 야간경관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 경관은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고생해서 공모 사업을 따와서 이번 예산에 반영을 한 거고요. 해조류박람회추진단에서는 본인들이 해조류센터 내에 해조류 전시관 하고 오른쪽 올라가는 길부터 위에 옥상까지 박람회에 활용할 수 있는 전체적인 그림을 거기서 좀 그리자. 그래서 분담에서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박병수 위원

아니. 그런 사업을 하려면 동일한 건물에 하는데 왜 이런 걸 나눠서 하냐는 말이에요. 관리부서가 어딘가요?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원래는 시설 관리 사무소에서 추진해야 되는데.....

○박병수 위원

그렇게 한다고 하면 한 군데는 예산 조정을 한다든가, 한 군데로 통합을 시켜서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지 여기서 하고 똑같은 곳에.....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사업비는 중복 투자는 없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러니까 용역으로 하잖아요.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그러니까 내년에 박람회가 5월에 시작되는데 박람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옥상 정원을 부분 보수할 게 아니라 전체 그림을 좀 그려놓고 단계별로 추진해라.' 이렇게 해서 용역비가

들어간 것 같아요.

○박병수 위원

그렇게 한다면 용역에 의해서 경관 조명도 해야지. 이거 해놓고 또 용역해서 한다는 얘기인가요?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야간 경관은 용역이 이미 끝나서 사업 발주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 옥외 경관 쪽은 아직 그림이 안 그려져 있기 때문에 박람회에 맞춰서 전체적으로 그림 좀 그려놓고 단계별로 좀 하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말씀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좀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박병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하십시오.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의원님 지적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위원장 조영식

기획예산실장님 참고 하십시오.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조영식

시설관리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참조)

·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위원장 조영식

경제교통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영식

361쪽. 노후택시 교체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금액은 적습니다마는 4대 했다고 하는데 어떤 걸 해주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잠시만요. 교통 팀장님이 설명하겠습니다.

○교통팀장 황춘

노후택시 교체 사업은 연식이 8년 이후 된 것을 위주로 해서 노후 된 차량을 선착순신청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식

어떤 걸 해 주는 게 아니고 뭘 해주냐는 거에요.

○교통팀장 황춘

신청 위주로 해서.

○위원장 조영식

신청하면 100만 원씩 지원해주는 제도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교통팀장 황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식

그리고 자랑 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그간 고생하셔서 장애인 콜택시 이번에 얼마 전에 최근 10월달인가? 11월달에 한 대가 증차됐죠?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예. 한 대 증차했습니다.

○위원장 조영식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혹시 내년도에 또 계획이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추가로 장애인 분들하고 택시 운영하고 해서 또 한 대를 증차하면 기사도 채용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식

계획을 하고 계시죠?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식

수고하셨습니다. 5대. 6대 증차되서 많은 장애

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그나마 좀 해소됐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참조)
·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위원장 조영식

문화예술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

○체육진흥과장 최정환

(참조)
·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위원장 조영식

체육진흥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영식

과장님 자랑할거 없습니까? 이번에 전국 체육회 지도자 선생님들 1위 했죠?

○체육진흥과장 최정환

예. 전국 1위 했습니다.

○위원장 조영식

축하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최정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식

체육진흥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농업축산과

○농업축산과장 이정국

(참조)
·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위원장 조영식

농업축산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병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만 확인할게요. 391페이지. 농촌공간 정비사업 청산면 상서지구에 2억 2,5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유가 있나요?

○농업축산과장 이정국

사업비 조정으로 인해서 감액시켰습니다.

○박병수 위원

감액하면 이월 돼 가지고 지금 총 사업비가 70억인가요?

○농업축산과장 이정국

예.

○박병수 위원

그럼 이월돼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거죠?

○농업축산과장 이정국

예. 그렇습니다.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식

농업축산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해양정책과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참조)

·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위원장 조영식

해양정책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정책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하고는 협의가 됐습니다마는 기획예산실장님. 집행부도 1시 30분까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예.

○위원장 조영식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30분 회의계속)

○위원장 조영식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환경수질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수질관리과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참조)

·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위원장 조영식

환경수질관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질관리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경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경영과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참조)

·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위원장 조영식

수산경영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경영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휴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휴양과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참조)

·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위원장 조영식

산림휴양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

과장님. 아까 다른 부서에서 지적된 유사한 것이 있기 때문에 헌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436페이지에 보면 약산 해수온열치유실 보수 및 유지관리비 있죠? 지금 인수인계는 됐나요?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3월 7일자로 인수를 했는데요. 인수 조건에

프로그램 정상화까지는 해양치유 담당관실에서 정비나 보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보수가 덜 끝났나요?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지금 현재 마무리 단계인데요. 금주에 아마 물탱크 설치하면 마무리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지금 해양치유 담당관실에 보면 해안치유의 숲 기계실 물탱크 설치에 1,500만원이 있어요. 그럼 설치해서 넘겨준다는 얘기인가요? 이것이 필요하다면 산림휴양과에서 예산을 세우든지 해야지 왜 이쪽에서 세우고 저쪽에서 세우고 하는 거죠?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해수온열치유실 이 부분은 현재 온열치유실에서 일부 방수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닥재에서 백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철거 하고 타일 등 방수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박병수 위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 때 한번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인수인계도 안 되고 있고 예산도 따로따로 분리해서 편성이 되어 있는데..... 기획예산실장님 이런 건 잘 짚어보세요. 이관했으면 이관부서에서 받아서 해야지 물탱크 설치는 해양치유 담당관실에서 예산을 세우고 산림휴양과에서는 목은 다르지만 예산을 세워놨단 말입니다. 어떤가요? 이걸 같이 이관을 받았다면 산림휴양과에서 물탱크 설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산림휴양과 과장님 대신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지금 현재 인수인계는 됐는데요. 인수인계 당시 많은 부분에 하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전체를 인수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시설 정비 보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양치유 담당관실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한다라고 저희들이 인수인계를 받았고요. 지금 이번 3회 추경에 의한 부분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계속 해양치유담당관실에 보수를 요구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정비를 한 후에 내년 1월부터 이렇게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신청한 상태입니다.

○박병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식 위원장

우리 산림휴양과장님께 점심시간 전 이야기를 간단히 전해드릴게요. 우리 완도군의회 전임 의회사무과장님과 전문위원을 역임하신 이송현 과장님께서 지나가면서 보니 도로변에 호랑가시나무가 새로운 옷을 입었다고 관계 공무원 칭찬을 해달라고 일부러 전화까지 하셨더라고요. 과장님 고생했다는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영식 위원장

산림휴양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

○지역개발과장 오현철

(참조)

·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위원장 조영식

지역개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건설과장 김진원

(참조)
·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위원장 조영식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장 이홍용

(참조)
·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위원장 조영식

안전총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과장 정계창

(참조)
·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위원장 조영식

보건행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

○건강증진과장 김현주

(참조)
·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위원장 조영식

건강증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조류박람회 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조류박람회 추진단**

○해조류박람회 추진단장 김준혁

(참조)
·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위원장 조영식

해조류박람회 추진단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조류박람회 추진단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최광윤

(참조)

·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위원장 조영식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박영민

(참조)
·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위원장 조영식
의회사무과장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니다.
지금까지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세목별, 부기별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축조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위원님별로 각각 개별 축조심사를 실시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삭감대상 조서를 작성하여 14시 30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별 개별 축조심사와 삭감대상 조서 목록 작성을 위해 4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7분 회의중지)
(14시 30분 회의계속)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최종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삭감액 조서를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논의해야 할 삭감대상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대로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삭감액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삭감액은 세입예산은 집행부 원안대로 하고 세출예산은 2건에 3,365만 6,000원이 삭감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추경예산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덕분에 원만하게 본 위원회가 운영된 것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4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산회)

○출석위원(8인)

조영식 조인호 박성규
지 민 박재선 박병수
최정욱 허궁희

○출석공무원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관광실장	안환옥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행정지원과장	이기석

세무회계과장	천종실
민원봉사과장	김용식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체육진흥과장	최정환
농업축산과장	이정국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지역개발과장	오현철
건설과장	김진원
안전총괄과장	이홍용
보건행정과장	정계창
건강증진과장	김현주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수호
인구일자리정책팀장	김광웅
경제교통팀장	황 춘

○의회사무과

전 문 위 원	박영민
전 문 위 원	전문희
속 기 사	임은주

제334회 완도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12월 04일(목)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26년도 예산안

부의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안)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완도군수 제출)
3. 2026년도 예산안(완도군수 제출)
    - 기획예산실
    - 관광실
    - 해양치유담당관
    - 행정지원과
    - 세무회계과
    - 민원봉사과
    - 주민복지과
    - 경제교통과
    - 문화예술과
    - 수산경영과
    - 건설과
    - 안전총괄과

(10시37분 개의)

○ 전문위원 박영민

시작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34회 완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건이 의결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덟 분의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안건 심사를 위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회의 진행에 따라 완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 연장자이신 박병수 위원께서 특별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직무대행 박병수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완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방법은 완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1인을 호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회 위원장은 사전 간담회에서 위원 여러분이 추천하고 충분히 협의한 바와 같이 조인호 위원을 제334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직무대행

이의가 없으므로 조인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됐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인호 위원장은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박병수 위원, 조인호위원장 사회교대)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2분 회의계속)

○ 위원장 조인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인호입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자유로운 소통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본 위원회의 소관 안건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방법 역시 위원장 선임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사전 간담회에서 위원 여러분들이 추천하고 충분히 협의한 바와 같이 최정욱 위원을 추천하여 제334회 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정욱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11일까지 심사하게 될 2026년도 예산안은 내년 한 해의 군 살림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으로 불요불급한 부분은 없는지 철저히 살피고 예산의 선후와 경중을 신중히 따져 면밀하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원활

한 예산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일목요연하게 답변해 주시고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설명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안건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6년 예산안입니다. 먼저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한 다음 본예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완도군수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금별 세부운영계획 제안설명 시에 앞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예산실**

기획예산실장 한희석입니다. 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쪽 2026년도 총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한 총 9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 법적 기금은 고향사랑기금과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내 재정안정화계정과 통합계정, 청사신축기금, 공유재산관리기금, 생활폐기물처리시설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조례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6쪽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2026년도 수입 계획은 전입금 4억 원, 예치금 회수 66억 719만 2,000원, 이자수입 1억 1,300만 원, 기타 수입 10억 6,380만 원으로 총 81억 8,399만 2,000원입니다. 지출 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7억 4,300만 원, 예치금 74억 4,099만 2,000원으로 총 81억 8,39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연도 말 기금 조성액입니다. 2025년도 말 현재 기금 조성액은 66억 719만 2,000원입니다. 2026년도 기금 운용은 수입이 15억 7,680만 원, 지출이 7억 4,300만 원으로 수입이 지출보다 8억 4,380만 원 증가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26년도 말 예상되는 기금 총 조성 규모는 74억 3,09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총괄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저희 기획예산실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설명을 이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쪽 운용 총칙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경기변동에 따른 세입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여유자금의 비축과 활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기금 조성액 27억 3,814만 4,000원과 금년도 수입 총액 5,400만 원을 합한 2026년도 기금 조성 총액은 27억 9,214만 4,000원입니다. 계속해서 15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총괄입니다. 2026년도 수입 계획은 예치금 회수액 27억 3,814만 4,000원, 이자 수입 5,4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91억 2,713만 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지출 계획입니다. 2026년도 최종 예치금은 전년 대비 91억 2,713만 6,000원 감소된 27억 9,214만 4,000원입니다. 이어서 18쪽 연도별 기금 조성과 집행 현황, 20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앞서 설명드린 총괄 내용과 동일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호

기획예산실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인호

기획예산실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실장 나오셔서 식품진흥기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실

○ 관광실장 안환옥

안녕하십니까? 관광실장 안환옥입니다. 2026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의 안정성 및 군민 영양 수준 향상 사업 추진을 위하여 조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금 조성 수입원은 식품위생법 위반 징수 과징금과 거의 예치를 통한 이자 발생금입니다. 다음은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25년까지 기금 조성액은 9,659만 2,000원입니다. 2026년도 조성 계획으로 수입은 과징금 200만 원과 이자 수입 200만 원으로 총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은 2026년 Pre 완도국제해조류 박람회 등 행사 대비, 음식 문화 개선, 위생용품 지원 사업으로 재료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6년 말 조성 예상액은 2025년 기금 조성액보다 1,600만 원이 감소된 8,059만 2,000원입니다. 자금운용계획 및 연도별 기금 조성 현황 등은 24쪽부터 2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호

관광실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실장과 관계 공무원을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고향사랑기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

○ 행정지원과장 이기석

행정지원과장 이기석입니다.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쪽 운용 총칙입니다. 먼저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26년도 말 고향사랑기금 조성액은 수입과 지출 계획을 반영한 18억 1,831만 9,000원으로 2025년보다 2억 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총괄입니다. 2026년도 수입 계획은 21억 9,131만 9,000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예치금 회수 16억 6,631만 9,000원, 이자 수입 2,500만 원, 그리고 기타 수입 모금액이 5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계획은 21억, 수입과 동일한 21억 9,131만 9,000원으로 세부 내역은 답례품 사업비, 비융자성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억 7,300만 원. 예치금 18억 6,831만 9,000원으로 자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35쪽부터 36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7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액, 39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호

행정지원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공유재산관리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회계과

○ 세무회계과장 천종실

세무회계과장 천종실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운용 총칙입니다. 공유재산관리기금은 완도군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완도군 공유재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5억 4,940만 원입니다. 2026년도 수입액은 5억 2,180만 원으로 2026년 말 조성액은 10억 6,120만 원입니다. 재원의 조성은 완도군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임대료 수입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자금수지총괄입니다. 2026년도 수입 계획으로 5억 4,940만 원을 예치금으로 회수하였으며 기타 수입은 5억 1,180만 원으로 총 10억 6,120만 원입니다. 2026년도 지출 계획은 수입된 금액 전액을 예치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수입 계획입니다. 2026년도 수입 계획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1,250만 원,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5억, 공유재산 변상금 30만 원, 예치금 회수액 1억 1,120만 원입니다. 다음 47쪽 지출 계획입니다. 전액을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 그리고 49쪽 집행 현황, 50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기금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호

세무회계과장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회계과장과 관계 공무원을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 건설과장 김진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진원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6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쪽 운용 총칙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을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9,292만 4,000원이며 2026년 수입 총액은 1억 200만 원, 지출 총액은 1억 원입니다. 2026년 말까지 기금 조성 총액은 9,492만 4,000원입니다. 다음 54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총괄입니다. 2026년 수입 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1억 원, 예치금 회수액 9,292만 4,000원, 이자 수입 200만 원으로 총수입은 25년 기금운용계획 대비 718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9,492만 4,000원입니다. 지출 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1억 원, 예치금 9,492만 4,000원으로 총지출은 25년 기금운용계획 대비 718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9,492만 4,000원입니다. 다음 55쪽 수입 계획입니다. 수입 계획은 앞에서 설명드린 자금수지총괄과 동일하여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지출 계획입니다. 시설비에 현수막 지정 게시대 확충 사업 8,554만 원, 현수막 지정 게시대 유지 보수 사업 1,446만 원, 일반 예치금은 9,492만 4,000원입니다. 이어서 57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부터 59쪽 예치금 및 예탁 명세서는 앞에서 설명드린 총괄 설명 내용과 동일하여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6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호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수

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

○ 안전총괄과장 이홍용

안전총괄과장 이홍용입니다. 2026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3쪽 운용 총칙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완도군 재난관리기금 운영 관리 조례에 따라 재난예방을 수습하기 위해 2004년도부터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5억 2,381만 3,000원이며 26년도 수입 총액은 3억 3,000만 원, 지출 총액은 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6년도 말 조성액은 15억 9,381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64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수입 계획입니다. 26년도 전입금 3억 원을 적립하여 예치금 회수액 15억 1,381만 3,000원, 이자 수입 3,000만 원으로 총 18억 4,381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지출 계획입니다. 비융자성 사업비 2억 5,000만 원과 예치금 15억 9,381만 3,000원으로 2억 4,418만 9,000원이 증액된 총 18억 4,381만 3,000원입니다. 65쪽부터 66쪽까지는 재난관리기금 편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입니다. 먼저 26년도까지 조성액은 54억 2,848만 4,000원입니다. 68쪽입니다. 2025년도까지 집행액은 38억 3,467만 1,000원이며, 잔액은 15억 9,381만 3,000원입니다. 69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자금운용계획 보고 내용과 동일하여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호

안전총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 토론 생략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2026년도 예산안(완도군수 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집행부 제안설명에 앞서 집행부와 위원 여러분께 협의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해 집행부에서는 2026년도 본예산 제안설명 시 간단명료하게 사업 내용과 사업비에 대해서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인건비, 여비 설명을 생략하고 계속비 사업은 신규 및 변경 사업, 국도비 보조 사업과 군자체 사업은 군비 5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이 어떻습니까?

○ 위원장 조인호

그럼 먼저 2026년도 예산안 총괄 사항에 대하여 기획예산실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

○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기획예산실장 한희석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편성 방향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교부세의 내시 미통보 등 예측 불가한 세액 감소에 대비하면서도 군정 역점사업과 현안 업무의 원활1한 추진, 또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 대응과 효율적 예산 편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 수입은 경기 침체와 부동산 거래 감소 등을 반영하여 보수적으로 편성하였고 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 수입은 사전 교부 결정액과 내시액을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지방교부세는 국세 수입 전망이 불투명하지만 정부 예산안 반영 추계에 따라 우리군은 전년도 본예산 3,042억 원 대비 120억 원이 증가한 3,162억 원 규모로 교부세를 편성해 우리 군 자체 사업 재원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26년도 총 세입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6,215억 원 대비 5.1% 증가 약 6,529억 원이 되겠습니다. 또 국도비 보조금은 교부 내시액을 기준으로 반영하고 연례 반복 사업의 경우에는 교부 내시가 되지 않았어도 금년도 예산에 준해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규모 또한 약 6,529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약 6,194억 원으로 전년 대비 247억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역시 약 335억 원으로 전년 대비 6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국도비 보조금은 2,396억 원이고 국도비 보조사업 군비 부담금은 1,018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순군비 재원의 법정 의무경비와 자체사업비는 일반회계 2,780억 원, 특별회계 115억 원으로 총 2,895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예비비는 일반회계에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일반회계, 순군비, 자체 사업비 세부 내역입니다. 26년도 예산안은 금년도 본예산 편성액과 집행률을 참고해 부서와 읍면별로 요구 한도액을 내부적으로 설정하였으며 지방 보조금과 행사, 축제 경비 또한 한도액을 정해 요구토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요구한 예산액은 총 3,600억 원으로 법령과 조례, 기타 관련 규정을 바탕으로 면밀히 검토하고 보조금 관리위원회, 용역 과제 사전심의회 심의 등을 거쳐 요구액의 77%인 2,780억 원을 최종 반영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먼저 법적 의무경비입니다. 인건비는 정규직과 공무직의 경우 총액 인건비 한도 내에서 정원 기준으로 26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률 3.5%를 반영해 730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간제 근로자는 2026년도 시급 1만 320원을 적용, 197억 원을 예산에 반영해 총 9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의회비, 직무 수행 경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등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준 경비 한도 내로 편성하였으며 출연금은 장보고장학회 등 7개 기관에 28억 원을, 포상금은 4억 원, 연금 부담금 등은 18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금 전출금은 옥외광고정비기금 등에 4억 원, 기타 회계는 전출금은 상수도 사업소 등 3개 특별회계 1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경상예산 및 자체 사업비 세부 내역입니다. 경상예산은 불필요한 예산을 최소화하고자 여비, 특근매식비, 부서 운영비 등은 자체기준 경비에 따라 부서별로 편성하고 연례에 반복적으로 편성된 예산은 원점에서 재검토해 실제 사용 가능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총액 한도액을 적용하는 지방 보조금과 행사, 축제 경비의 경우에는 지방 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불필요한 행사성 보조금을 최소화하기로 기본 방침을 정하였습니다. 다만 내년도 주요 행사 개최와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

에서 경상예산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 운영비 등 일반 운영 등 여비 등을 포함해 총 719억 원으로 전년 대비 다소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체 사업비는 사업비 타당성이나 시급성, 사업의 적정 시기, 타 사업과의 우선순위 등 상대적 비교와 형평성을 고려했고 특히 세액 감소에 따른 긴축 재정 기조를 반영하여 예산을 엄격히 편성했습니다. 또한 건축물 신축과 토목 사업의 경우 투자 심사, 부지 확보, 토지 매입 사전 동의 등 사전 행정 절차가 이행됐는지 검토했고 사업 진행 단계별로 예산을 편성해 최대한 효율성을 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설비, 민간사업 보조, 자산 취득비 등 총 742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약 26억 원이 증액된 규모로 대규모 신규 사업 억제와 마고리치 투자를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내년도 역시 금년과 마찬가지로 국제 정세 불황과 내수 경제 둔화 속에 국세와 지방세 수입 전망이 불투명해 우리 군의 전체적인 재정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세수 여건 악화는 교부세의 정체와 의존 재원 확보의 어려움으로 이어져 군 역점사업 추진에 제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 재원 배분으로 예산을 내실 있게 편성해 군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현실감 있는 실용적 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 사항은 각 부서별 제안설명 시 자세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인호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6년 본예산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서별 제안설명을 들으면서 궁금한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질의 시간에 질의하여 주시고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잘 체크해 두셨다가 축조심사 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회계과**

○ 세무회계과장 천종실

세무회계과장 천종실입니다. 2026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입니다. 51쪽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6,214억 7,118만 원 8,000원 대비 314억 9,393만 원이 증액된 6,529억 6,511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5,947억 799만 4,000원 대비 247억 2,547만 8,000원이 증액된 6,194억 3,347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은 금년도 예산액 267억 6,319만 4,000원 대비 67억 6,845만 2,000원이 증액된 335억 3,164억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21쪽입니다. 지방세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74억 2,900만 원 대비 11억 6,700만 원이 감액된 262억 6,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25쪽입니다. 125쪽 세외수입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54억 2,912만 4,000원 대비 20억 5,322만 4,000원이 감액된 133억 7,59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73억 812만 4,000원 대비 13억 3,455만 4,000원이 감액된 55억 7,35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28쪽입니다. 128쪽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64억 9,680만 원 대비 764만 원이 증액된 65억 444만 원입니다. 지

방 행정제재 부과금은 전년도 예산에 9억 6,421만 원 대비 7억 2,631만 원이 감액된 2억 3,790만 원입니다. 다음은 133쪽입니다. 지방 교부세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041억 9,787만 7,000원 대비 120억 212만 3,000원이 증액된 3,16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목별 편성 내역입니다. 보통 교부세 2,952억 원, 부동산 교부세 2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9쪽입니다. 조정 교부금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29억 8,700만 원 대비 10억 1,300만 원이 증액된 140억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다음 141쪽입니다. 보조금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236억 6,499만 3,000원 대비 49억 3,057만 9,000원이 증액된 2,395억 9,557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목별 편성 내역입니다. 국고보조금 1,350억 2,707만 6,000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402억 2,902만 8,000원, 기금 93억 1,675만 2,000원, 시도비 보조금 550억 2,268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146쪽부터 181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5쪽입니다. 보조 수입 중 내부 거래의 총 세입예산액은 수세 잉여금으로 10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 저희 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4쪽 계속 예산입니다. 저희 과 소관 사업은 총 1개 사업으로 다목적 행정선 신규 건조 구매에는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사업비로 사업비 80억 9,000만 원 중 53억 5,300만 원을 지출하고 잔액 27억 3,7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입니다. 293쪽 저희 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액은 570억 7,256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13억 3,069만 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 내역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마을 세무사, 납세자 편의시설 홍보 제작 500만 원, 지방세 고지서 고속 출력기 소모품 교환 150만 원, 박람회 셔틀버스 운영 차량 임차 용역 4,800만 원, 공공운영비로 1,310만 4,000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쪽에 지방세 고지서 고속 프린트 및 종합기 유지 보수 510만 원, 일반 공문 및 민원서류 발송 우편 요금 690만 원, 기타 보상금으로 성실 납세자 선정 및 지원으로 1,000만 원,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2026년 차세대 지방세 정보화시스템 유지 보수비 9,700만 원, 지방세정보시스템 개인 정보 영향평가 사업 위탁 사업비로 1,000만 원. 아래쪽에 지방세 재해 복구 시스템 구축 위탁 사업비로 2,300만 원, 위택스 서비스 확대 및 인프라 보강 위탁 사업비 520만 원, 아래쪽에는 사무관리비로 지방세 독촉 체납 고지서 제작 76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지방세 카카오톡 납세 고지서 수수료 3,100만 원입니다. 지방세 독촉장 발송 우편 요금 4,300만 원입니다. 재산세 압류 및 공매예고 통지서 발송 우편료 630만 원, 체납 차량 영상 인식 서비스 유지 보수비 1,000만 원. 포상금입니다. 세입증대 우수읍면 및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우수읍면에 포상 3,00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쪽 자치단체 이전으로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7,000만 원. 사무관리비입니다. 지방세 고지서 제작 1,100만 원, 지방세 납부 홍보 및 현수막 및 입간판 제작 1,560만 원. 공공요금으로 지방세 고지서 발송 및 우편 요금 6,8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개별 주택 가격 검증 수수료 1억 2,900만 원, 사무관리비로 구청사 3종 시설물 안전 점검 수수료 700만 원, 전기 시설물 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2,400만 원,

본청 행정 게시판 유지 관리 대행 수수료 1,200만 원, 군 청사 살균 소독 유지 보수 1,000만 원입니다. 다음 298쪽입니다. 위쪽에는 공공요금으로 상하도 요금 1억 2,000만 원, 가스 요금 2,000만 원, 전기 요금 18억 5,000만 원입니다. 본청 및 민원동 화장실 관리 물품 구입 1,400만 원, 본청 화장실 환경 정비 화분 구입 및 임차 840만 원, 본청 화장실 비데 및 정수기 유지 관리 980만 원, 본청 화장실 세정 및 방향제 유지 관리 1,100만 원, 군 청사 상수도 급수관 세척 및 검사 2,000만 원, 군 청사 천장형 에어컨 유지 보수 500만 원, 군 청사 소방 안전 점검 600만 원, 시설비로 군 청사 소규모 시설 공사 2억입니다. 299쪽입니다. 위쪽에 노화읍 넙도출장소 신축 공사 및 실시설계 용역 5,000만 원입니다. 노화읍 넙도출장소 신축 공사 10억입니다. 군 청사 연결 통로 보수 공사 5,000만 원, 고금면사무소 BF 인증 사무관리비 청사 2,000만 원, 군 청사 라디에이터 및 수납장 설치 2억 원, 청산면 모도출장소 옥상 방수 공사 1,500, 감리비로 노화읍 넙도출장소 신축 공사 감리 용역 4,000만 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공유재산 감정평가 및 보전 등기 수수료 1,000만 원. 아래쪽에 공공운영비 한국지방재정공제회비 7억 4,000만 원, 행정종합배상 공제회 4,0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300페이지입니다. 위쪽에 공영 주차장 시설물 유지 관리 1,000만 원, 공유재산 실태 조사 2,000만 원, 고령자 복지주택 부지 지장물 철거 3억입니다. 감리비로 고령자 복지주택 부지 지장물 철거 감리비로 2,200, 사무관리비로 읍면 직원숙소 임차료 9,600만 원입니다. 공공운영비 읍면 관사 관리 유지 관리비 6,000만 원입니다. 행사 운영비 보길면 직원 관사 현대화 사업 준공식 500만 원, 시설비로 읍면 직원 관사 개보수 1억, 완도읍에 관사 보수 공사 2,000만 원, 읍면 직원 관사 포트 빌 설치 3,000만 원. 자산 관리 물품 취득비로 직원 관사 물품 긴급 교체 5,000만 원. 다음 쪽입니다. 301쪽 위쪽에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운영비는 행정선 무선국 수수료, 연료비 그리고 기관 부속품 등으로 5,400만 원 반영했습니다. 행사 운영비 친환경 다목적 행정선 건조 진수식 1,000만 원, 시설비로 행정선 정기점검 수리비 7,000만 원, 행정선 선체 기관 노후 유지 보수비 1,000만 원, 생일면 주민편의선 보수 2,200만 원. 다음 사무관리비로 버스 임차료 840만 원, 공공운영비로 행정차량 정비 및 유지 관리비, 행정차량 자동차세, 행정차량 보험료 통틀어서 2억 2,40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행정차량 구입입니다. 청산면 덤프트럭, 보길면 덤프트럭, 완도 덤프트럭 각각 1억 3,000만 원, 산림해양과 산불 방지 차량, 노화읍 산불 방지 차량 각각 1억 원입니다. 금일 청소 차량 8,000만 원, 노화읍 청소 차량 6,500만 원, 청산 모도 행정차량 3,000만 원, 완도 행정차량, 노화읍 넙도 행정차량, 금당면 행정차량 각각 5,500만 원입니다. 의회사무과 행정차량, 금일읍 행정차량 각각 6,000만 원입니다. 고금면 청소 업무 차량, 소안면 청소 업무 차량, 청산면 청소 업무 차량이 각각 8,000만 원입니다. 보길면 기관 행정차량, 신지면 행정차량, 산림휴양과 산불감시차량, 보건행정과 방제 사업 차량, 환경수질과 슬러지 제거 차량은 각각 5,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입니다. 금년 회계연도 결산 및 부속서류 제작 1,980만 원입니다. 공공기관 연구원 계약 직원 및 교육 급여 1,200만 원입니다. 금년도 회계연도 군민이 알기 쉬운 결산서 소책자 제작 용역에 5,000만 원입니다. 소책자 제

작에 500만 원입니다. 복식부기 재무보고서 작성 및 검토 용역에 2,200만 원, 나라장터 입찰 이용수수료 1,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공공요금으로 2,1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결산 검사 관련한 수당 급식비, 현지 조사 실비하고 교육 실비 전부 해서 2,400만 원 반영했습니다. 이하 부분은 인건비로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호

세무회계과장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규 위원님.

○ 박성규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넙도출장소 우리 신축하죠?

○ 세무회계과장 천종실

예.

○ 박성규 위원

그 부지는 어디다 합니까? 그 자리에서 합니까?

○ 세무회계과장 천종실

예, 철거하고.

○ 박성규 위원

그럼 철거 비용 예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 세무회계과장 천종실

그 예산은 별도로 편성해서 하겠습니다.

○ 박성규 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어디에 했냐는, 뭘 가지고 했냐는 거죠.

○ 세무회계과장 천종실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려고.....

○ 박성규 위원

그 자리에서, 건물을 철거한다면 그 철거 비용도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 세무회계과장 천종실

저기 아니.....

○ 위원장 조인호

담당 팀장 일어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산관리팀장 문병민

재산관리팀장 문병민입니다. 지금 부지가 확정은 안 됐는데 마을에서 이분들이 요구를 하시기를 그래도 보건지소가 있고 옆에 부지가 있어서 거기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확정을 해서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박성규 위원

그러니까 현 부지에다는 안 하고 다른 데다가 옮겨서 한다 이 말이시죠?

○ 재산관리팀장 문경주

예. 옮기고 그러면 거기다 한다는 것은 업무가 연속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새로 조성을 해서 이전하고 추후에 철거하는 것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성규 위원

거기 장소가 좀 불편해요, 높기도 하고요.

○ 재산관리팀장 문경주

그렇습니다.

○ 박성규 위원

그래서 적당한 장소 잘 찾아서 해 주시고 그 자리에서 철거를 한다면 철거 비용이 세워져야 되는데 안 세워져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청산면 압축 덤프 차량이 그것이 뭡니까? 청산하고 보길면, 완도.

○ 세무회계과장 천종실

청소 차량입니다.

○ 박성규 위원

청소차?

○ 세무회계과장 천종실

예.

○ 박성규 위원

그걸 다시 새로 구입해야 됩니까?

○ 세무회계과장 천종실

예.

○ 박성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호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궁희 위원님.

○ 허궁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히 한 가지 묻겠습니다. 생일면 주민편의선 보수라는 게 2,200만 원 있는데 한번 설명을 듣고 싶어서요.

○ 세무회계과장 천종실

그거는 지금 배는 지금 수주한 지 오래됐습니다. 그 배는 굉장히 좋아서 그건 그대로 유지하고 기계만 교체하는 해서 2,200만 원입니다.

○ 허궁희 위원

기계만 고치는 거?

○ 세무회계과장 천종실

기계만 교체서 하는 거.

○ 허궁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호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세무회계과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

○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저희 기획실 소관 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1쪽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36억 4,399만 원이 감액된 73억 1,61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관 운영 관리입니다. 기관 운영 관리의 일반 운영비하고 여비, 연구개발비, 일반 보조금 등은 각 부서와 읍면에서 예상치 못한 긴급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편성한 예비성 공통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예산 편성 운영 사무관리비 예산서 제작 2,070만 원. 다음 장입니다. 추경 예산서 제작 600, 예산안 인쇄 72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중간에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국고 현안 사업 예산 확보 및 재정 운영에 1,900만 원, 자치단체 부담금 통합 지방재정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에 3,473만 5,000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차세대 지방 재정 관리 시스템 위탁 사업비 1억 889만 2,000원, 통합 지방재정 시스템 운영 유지관리비 9,199만 8,000원, 지방 보조금 관리 사무관리비 지방 보조금 관리위원회 참석 수당 660만 원, 지방 보조금 운영 관리 지침책자 제작 500만 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사무관리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비 916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인 위탁 교육비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1,200만 원, 군정 주요 업무 운영에 사무관리비 의회 군정 업무 보고서 제작 1,200만 원, 정부합동평가 전문가 컨설팅에 2,000만 원, 완도군 통합 브랜드 홍보 이모티콘 제작배포에 1,200만 원, 완도군 통합 브랜드 홍보용품 제작에 1,000만 원, 민선 8기 군정백서 제작에 3,500만 원, 행사 운영비에 정책 과제 개발 워크숍에 2,000만 원, 군민 제안 제도 대군민 교육에 1,500만 원, 서남해안 섬벨트 지자체 수상 워크숍에 2,2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194쪽입니다. 기타 보상금에 군민 제안 시상금에 1,00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중 서남권 섬 발전 협의체 참여 분담금에 5,000만 원, 기타 자본 이전에 상표 출원 및 특허 출원 갱신 비용 2,000만 원, 서울사무소 운영 사무관리비 사무실 공동 이용 부

담금에 600만 원, 대외협력 업무추진 차량 임차에 800만 원, 시청 추진 업무추진비의 대외협력 업무추진 1,100만 원, 재료비에 대외협력 홍보용 꾸러미 제작 재료 구입 72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195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공약 사항 관리 행사 운영비에 공약 이행 주민배심원단 회의 위탁 운영에 1,800만 원, 공모 사업 지원 행사 운영비에 공모 사업 추진 직원 역량 강화 워크숍에 2,000만 원, 지역 이미지 마케팅 전개 사무관리비에 완도희망소식지 1억 3,500만 원, 신문 등 간행문 구독료에 4,5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계속 196쪽입니다. 신문 스크랩 서비스 사용료에 1,800만 원, 프리미엄 뉴스 서비스 사용료 6,000만 원, 유튜브 채널 운영 영상 콘텐츠 제작에 1,000만 원, 공공운영비에 군정 홍보용 장비 수리비에 700만 원, 희망완도 소식지 발송 우편료 500만 원,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에 군정 홍보 업무추진 1,900만 원. 마지막 하단부에 기타 보상금 SNS 이벤트 참여 보상 500만 원, SNS 기자단 활동비 지급 1,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 197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홍보 예산이 되겠습니다. 군정 주요 역점사업 홍보에 1억 원, 지역 축제 및 특산품 등 광고 홍보에 5,500만 원, 청산도 슬로 걷기 축제 광고에 6,600만 원, 수도권 지역 이미지 마케팅 영상 홍보에 6,000만 원, 청정 완도 가을 섬 여행 축제 홍보에 5,500, 온라인 매체의 활용 지역 특산품 홍보에 5,000만 원, 군정 영상 홍보 전광판에 1억 원, 방송사 완도 홍보 캠페인 광고에 1억 1,000만 원, 해양치유 산업 전광판 온라인 매체 홍보에 1억 3,200만 원, 해조류 박람회 전광판 및 포털 사이트 등 대중매체 홍보에 3억 5,000만 원, 완도 특산품 해외 미디어 홍보에 3,000만 원, 수산물 소비 활성화 지상 홍보물 등에 5,000만 원, 개별 관광객 인센티브 홍보에 5,000만 원. 방송 영상 산업 유치 및 육성 사무관리입니다. 군정 홍보 방송 촬영 선박 임차비 720만 원, 각종 방송 프로그램 촬영 소모품 구입비에 1,000만 원, 방송국 3사 관계자, PD, 작가 초청 팸투어에 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행사 실비 지원금에 방송사별 프로그램 완도 촬영 실비 보상액 4,575만 원, 방송 3사 관계자 팸투어 실비 보상 1,200만 원, 방송국, PD 및 작가 팸투어 실비 보상 1,50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입니다. 전복 판촉 등 6시 내고향 등 특별 방송 유치에 1억 원, 가고 싶은 사람 특집 방송에 1억 2,000만 원, 수산물 홍보 전국시대 특집 방송에 8,000만 원, 어영차 바다 10개 시군 공동 제작에 3,000만 원, 교양 예능 프로그램 제작 지원에 1억, 시사 정보 프로그램 제작에 1억 2,500, 방송사 드라마 제작 지원에 3억 4,000만 원, 군정 취재 지원 재료비 군정 시책 홍보 관계자 간담회 및 취재 지원 재료 구입에 1,400만 원, 군정 홍보 촬영용 재료 구입에 1,000만 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행사 실비 지원금에 군정 홍보 취재 및 촬영 4,800만 원, 군정 홍보 방송 출연자 실비 보상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요. 저희 홍보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 주셔서 홍보 예산은 전년도 대비 약 1억 정도는 저희들이 감액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실효성 제고 측면에 다양하게 고민을 해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 운영 관리 사무관리비에 계약 심사에 따른 원가검토 대행 수수료에 3,400만 원, 행사 운영비에 청년 옴부즈만 위촉 및 워크숍에 1,000만 원, 청년 옴부즈만 워크숍 참석자 실비 588만 원, 청렴 및 반부패 관리 사무관리

비에 희망완도 민원 만족콜 조사 용역 수수료 2,000만 원, 청렴 온라인 자가 학습 시스템 운영 500만 원, 공직자 청렴 교육 800만 원, 읍면 청렴 순회교육 84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200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2026년 청백-e 시스템 유지관리 위탁 사업비에 1,251만 원, 통계 행정의 사무관리 통계연보 발간에 1,050만 원, 경제총조사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인건비 1,284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1쪽 사회조사 기간제 근로자 보수 전라남도 사회조사 3,056만 9,000원을 반영했습니다. 202쪽입니다. 사회조사 연구 용역비 중에 사회조사 결과 분석 용역에 1,000만 원, 소송 수행 업무 추진비 사무관리비에 소송 위임 변호사 선임료 9,000만 원, 소송 위임 변호사 승소 사례금 2,000만 원, 소송 확정 소송 비용 부담금 1,500만 원, 고문 변호사 수당 1,980만 원, 소송 사건 현장 검증 감정료 600만 원, 송달 및 인지대 500만 원, 법률구조공단 사무실 임차비 1,440만 원, 권한쟁의 심판 착수금 2년 경과분 5,500만 원, 권한쟁의 심판 착수금 신규분 8,000만 원, 배상금 등 소송 사건 손해배상금 1,000만 원. 마지막으로 203쪽입니다. 예비비는 일반 예비비 10억 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실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호

기획예산실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기획예산실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인호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4시00분 회의계속)

○ 위원장 조인호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수산경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경영과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안녕하십니까? 수산경영과장 방현수입니다. 수산경영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95쪽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352억 4,241만 9,000원에서 29억 7,237만 8,000원 감액된 322억 7,004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업 면허 및 어장 관리 전산처리 인부임 747만 원, 어업 면허 처분에 따른 어업 면허증 어업권원부 어장 연락도 제작 500만 원, 드론 활용 양식장 모니터링 용역 5,000만 원, 해상 경계 설정 인접 시군 어업권 측량 500만 원, 항로 위험 개소 표지 시설 설치 500만 원, 어업 허가증 카드 구입 1,2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6쪽입니다. 연안어장 조사 및 재배치 사업 10억 원, 노후 기관, 장비 등 구축 사업 2억 8,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7쪽입니다. 어선재해보험료 지원사업 4억 9,000만 원, 어선원 재해보험료 지원사업 2억 6,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8쪽입니다. 어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사업 3억 6,290만 원, 어구보증금제 지원사업 2억 원, 기후변화 대응 수산 정보서비스 제공 사업 7,762만 원, 어업지도선 승선원 부식재료 구입 900만 원, 어업지도선 운영 1억 2,4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9쪽입니다. 전남211호 운영비 1,350만 원,

어업지도선 소규모 수리 및 관리 500만 원, 어업지도선 정기 검사 대비 성과 수리비 3억 원, 어업지도선 단속 보트 정기 검사 대비 성과 수리비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0쪽입니다. 수산물 할인 행사 개최 운영비 5,000만 원, 직거래 장터, 외식 기업, 지역행사 판촉 활동 지원 2,000만 원, 특판 행사 홍보물 제작 2,000만 원, 온라인 상생할인 쿠폰 지원 3,000만 원, 제휴 쇼핑 채널 프로모션 4,000만 원, 완도청정마켓 마케팅 위탁 용역 사업 1억 5,000만 원, 국내외 수산식품 박람회 부스 운영 4,800만 원, 글로벌 시장 개척 전시 홍보용 시제품 구입 1,800만 원, 해외 시장 수출 프로모션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1쪽입니다. 해외 수출 상담회 참가자 지원 1,000만 원, 국내 수출 상담회 해외 바이어 초청 1,000만 원, 해외 시장 연계 마케팅 지원 1억 원, 데이 마케팅 행사용품 구입 800만 원, 대도시 직거래 장터 홍보용 시제품 구입 500만 원, 직거래 장터 지역행사 연계 소비 촉진 행사 홍보 판매관 운영비 700만 원, 노화, 보길 명절 특수기간 물류 운행 사무위탁 2,000만 원, 수산물 판로개척 지원 1억 9,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2쪽입니다. 완도 전복 판촉 행사 및 마케팅 3억 5,000만 원, 대형 유통업체 수산물 입점 지원사업 5,175만 원, 수산물 유통 네트워크 판매망 구축 지원사업 5,000만 원, 지방 보조금 부정 수급 신고 포상금 8,870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3쪽입니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 명예 감시원 활동 보상 600만 원, 완도 전복 주식회사 경영평가 자문료 500만 원, 완도 수산물 수출 물류센터 시설물 전기 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1,500만 원, 시설 유지 및 청결 관리 용역비 700만 원, 가공동 엑스레이 교체 2,500만 원, 가공동 정수기, 보일러 수납 공사 800만 원, 저온 저장고 히터 교체 600만 원, 수조동 지게차 수리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4쪽입니다. 수산 가공 분야 에너지 절감 장비 지원사업 4억 원, 마른김 가공업체 시설 개선 사업 1억 2,000만 원,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사업 17억 원, 수산물 공동 저온 저장 시설 사업 16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5쪽입니다. 수산물 소형 저온 저장 시설 사업 2억 1,000만 원, 수산물 저온 저장 시설 사업 1억 2,000만 원, 수출용 수산 가공식품 포장재 지원사업 4,800만 원, 수산물 소포장재 지원사업 3,720만 원, 수산물 명품 포장재 지원사업 2,100만 원, 위생 포장재 지원사업 4,000만 원, 마른김 포장재 지원사업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6쪽입니다. 수산식품 가공 설비 지원사업 1억 5,000만 원, 수산물 지리적 표시 인증 관리 용역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7쪽입니다. ASC 인증 심사비 지원사업 2억 7,840만 원, 유기수산물 인증 컨설팅 지원사업 7,000만 원, 친환경 유기수산물 인증비 지원사업 6,741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8쪽입니다. 완도 해조류 우수성 홍보를 위한 책자 제작 550만 원, NASA 및 에너지부 관계자 초청 통역비 등 1,450만 원, NASA 및 에너지 관계자 초청에 따른 해조류 양식 체험 재료비 2,000만 원, NASA 및 에너지부 관계자 초청 여비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9쪽입니다. 인증부표 보급 지원사업 31억 5,000만 원, 유망 양식 품종 종자 공급 사업 1억 2,600만 원, 김 활성처리제 지원사업 2억 5,440만 원, 양식어장 자동화 시설 장비 지원사업 3억 2,000만 원, 내해수면 종묘입식 및 양식재고량 조사 인부임 2,98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0쪽입니다. 내해수면 종묘입식 및 양식재고량

조사 사무관리비 2,400만 원, 양식장 환경 관리 시스템 유지 보수비 2,000만 원, 양식장 환경 관리 시스템 관측 장비 예비품 구입 1,200만 원, 양식장 환경 관리 시스템 SNS 수신료 2,640만 원, 양식장 환경 관리 시스템 신규 설치 지원 3,000만 원, 고수온 모니터링을 위한 휴대용 관측 장비 구입 2,000만 원, 전복 먹이용 미역 운반비 지원사업 6,000만 원, AI 기반 어장 공간정보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활용 사업 3억 3,600만 원, 양식장 관리기 설치 지원 1억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11쪽입니다. 유망 양식 품종 종자 공급 사업 2,400만 원, 수산물 유통상자 단일화 보급 지원사업 6억 7,143만 원, 전복 가두리 시설 자율 감축 사업 폐업 지원금 6억 원, 가두리 철거 및 해체비 1억 4,000만 원, 폐기물 처리비 8억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12쪽입니다. 수산동물 질병 예방 백신 공급 사업 22억 6,192만 1,000원, 수산동물 질병 예방 위탁 공급 사업 대행 수수료 1억 1,000만 원, 폐사어 처리 수거비 지원 6,000만 원, 광어항생제 잔류 및 쿠도아충 검사 지원 5,000만 원, 완도양식광어 비상품어 수매자금 지원 7,000만 원, 백신접종 넙치 부작용 완화제 지원 4,000만 원, 지주식 김 양식장 관리선 건조 사업 1억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3쪽입니다. 이상 소음 대응 지원사업 위탁 대행 수수료 2,000만 원, 친환경 에너지 보급 해수열 히트펌프 33억 7,483만 원, 친환경 에너지 보급 사업 인버터 10억 2,464만 8,000원, 폐사어 처리 냉동 창고 임대료 지원 1,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4쪽입니다. 새우 양식장 유용 미생물 공급 지원사업 3,628만 7,000원, 수산 장비 임대 활용 사업 1억 2,000만 원, 수산종자 산업 육성 스마트 종자 생산시설 지원 패각 구입비 3,600만 원, 수산종자 산업 육성 스마트 종자 생산시설 장비 구입비 1억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15쪽입니다. 새우 양식 시설 수질 관리 자동화 시설 지원사업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산경영과 소관 2026년도 본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인호

수산경영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규 위원님.

○ 박성규 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연안 어장 조사 및 재배치 사업 10억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연안 어장 조사 재배치 사업 같은 경우는 양식 여건이 열악한 연안 어장에 대해서 어장 정비를 통해서 김이라든가 미역 아니면 전복 양식장에 대한 재배치 계획을 수립을 하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는 현황 측량을 통해서 이용 개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어업권 표지 시설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길도 전복 가두리 재배치라든가 김 양식장 재배치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 박성규 위원

재배치하는 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시설비는 지원 안 하죠?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시설비는 기존에는 지원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시설비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 박성규 위원

시설비가 로프에다가 말뚝에다가 많이 들잖아요.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장 기간이 만료가

되면 예를 들어 다른 데로 이사를 한다거나 했을 때 그런 기점 표시 정도는 지금 사업비에는 들어가는데 말목이라든가 아니면 로프라든가 하게 되면 사업비가 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 박성규 위원

재배치해서 하면 이렇게 어장 시설비를 지원 안 하는 데도 10억이나 돈이 듭니까?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그렇습니다. 현황 측량하는 부분, 측량비가 조금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성규 위원

측량비가 1건에 얼마씩 들어요?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그거는 면적에 따라서 틀리는데요. 기본 30ht, 50ht까지 100만 원, 그리고 면허 면적이 커지면 커질수록 아마 더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성규 위원

잘 알았고요. 우리 전복 판촉 행사 및 마케팅 3억 5,000만 원이 잡혔어요. 수산경영과에서는 전복에 관련된 사업 판촉 행사는..... 이거 판촉 행사죠?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그렇습니다.

○ 박성규 위원

3억 5,000만 원인데 세부적으로 어떻게 쓸 사용입니까?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지금 저희들이 전복 판촉 행사 같은 경우는 지금 활어차 임차비라든가 인건비 내지는 택배비 그다음에 시식품, 홈쇼핑 방송료 그다음에 수수료, 급식 납품하는 데 할인 비용 전체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 박성규 위원

대도시 판촉 행사는 안 들어있습니까?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대도시 판촉 행사도 들어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활어차 임차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그런 부분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 박성규 위원

전복 산업이 어렵기 때문에 판촉 행사라든지 전복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알겠습니다.

○ 박성규 위원

그리고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사업 있잖아요? 18억. 이거는 구체적으로 김 공장이라든가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수산물은 해당되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가능은 하지만 지역 여건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봐서 사업자 선정할 때 그 부분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성규 위원

이것이 산지 가공시설 사업이 현대화 사업 맞습니까?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아닙니다.

○ 박성규 위원

아니에요?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현대화 사업은 아니고 산지 가공시설 사업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추진해 왔던 경우 가공공장 신축이라든가 기계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 박성규 위원

여기 대부분 김 공장?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전에는 김 공장도 했었고요. 전복 가공 공

장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많이 했었습니다, 산지 가공시설 사업을.

○ 박성규 위원

그리고 610페이지에 양식장 관리기 설치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양식장 관리기 같은 경우는 크레인을 말하는 겁니다.

○ 박성규 위원

예?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크레인이요, 크레인.

○ 박성규 위원

크레인?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양식장 관리기 크레인이요.

○ 박성규 위원

이번에 크레인 지원사업 내려왔죠, 도에서?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그렇습니다.

○ 박성규 위원

몇 대 내려왔어요?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지금 6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성규 위원

6대 내려왔죠?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 박성규 위원

어디 어디에 분배를 했어요?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지금 어디 읍면을 따로 분배 하지는 않았고요. 그 기준 자체가 관리기가 사용 실태가 오래되거나 아니면 조금 그런 부분에 중점을 맞춰서 지금 배정을 했었습니다.

○ 박성규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것이 안 맞더라고요. 전복 양식을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우리 남선리 쪽이지 않습니까?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그렇습니다.

○ 박성규 위원

어선도 많고. 그런데 약산에다가 2대씩, 3대씩 했어요. 이쪽은 오지도 않았어요. 제가 6대 다 확인을 했어요.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그런데,

○ 박성규 위원

책정이 없는데 금일이라든지 약산이라든지 다 그쪽으로 다 갔어요. 6대 사업비가.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그런데 읍면 단위로 배정하기에는 물론 사업량도 적지만 사업 지침 자체가 우선순위를 기준을 정해주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 기준을 무시를 하고 저희들이 사업자 선정을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 박성규 위원

그럼 노화, 보길, 소안에 있는 거는 지금 하나도 되는 데가 없었단 말입니다.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최근, 그렇습니다. 조금,

○ 박성규 위원

아니, 제가 봤을 때는 노후 돼서 쓰지도 못하고 고치고 하는데 왜 없어요? 그 부분을 지역에 맞게 분배를 해야 하는데 한참 때 히트펌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 동부 쪽으로 다 하고 서부 쪽으로 안 했지 않습니까?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앞으로 그런 부분도 참고하겠습니다.

○ 박성규 위원

지역 안배를 해야죠, 사실은.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 박성규 위원
그리고 우리 감경 사업 있죠? 유통상자.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그렇습니다.
○ 박성규 위원
이건 민원 없이 잘 진행 잘 되고 있습니까?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아직까지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 박성규 위원
올해는 도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6억 7,000만 원 정도 세웠네요.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일단은 이게 현재 도에서 지금 사업 같은 경우는 가내시를 해줘야 되는데 가내시가 지금 안 돼 있는 상태라 전년도 기준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 박성규 위원
그리고 가두리 우리 폐업 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 박성규 위원
이 부분도 예산이 잘 세워줬기 때문에 내년에 차질 없이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도하고 협의해서 도움도 많이 받고 오시고요.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알겠습니다.
○ 박성규 위원
해수부 비용도 많이 갖고 와서 빈틈없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알겠습니다.
○ 박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호
허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궁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12쪽 최하단에 있는 지주식 김 양식장 관리선 건조 이것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지주식 김 양식장 같은 경우는 거의 고금에서만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양식을 하고 있는데 어촌계 단위로 노동력 감소라든가 그런 부분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조금 영세하기도 하고 해서 어촌계에 김 양식장 관리선을 조금 지원을 해달라는 의견이나 요구가 조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 허궁희 위원
그러면 다른 김이나 매생이 이런 데는 안 해주고 왜 거기만 해주는 거예요?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여기 같은 경우는 국가 중요 무형유산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고금도 지주식 김 양식장 같은 경우는.
○ 허궁희 위원
거기는 지금 이것만 돼 있는 게 아니라 육상에도 무슨 지원이 있죠? 작년에 우리가 한번 점검하러 간 적 있잖아요. 고금면 어디 뒤쪽 마을에.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청학리 어촌개발사업 거기에.
○ 허궁희 위원
그러니까 있는데 거기가 그렇게 활용도가 높은 것 같지는 않던데요. 내 눈에만 그렇게 보였는지 몰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 가서 확인했잖아요.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그런데 국가 중요 어업유산에 대한 부분은,

○ 허궁희 위원
그러면 이 사업도 거기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김 지주식 양식 자체가,
○ 허궁희 위원
한 마을만 하는 거예요?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아니요. 여기가 지금 여러 마을입니다.
○ 허궁희 위원
여러 마을인데 그럼 어디다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지금 가교리하고 청학리 쪽을 지금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 허궁희 위원
그럼 몇 척을 줄 겁니까?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지금 원래 계획은 한 두 척 정도 하려 했는데 예산을 조금 보고 자부담 부분을 확인해서 어선 규모라든가 그런 부분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궁희 위원
왜 제가 이걸 묻냐면요. 여러 어촌계가 하고 있는데 특정 어촌계만 지원을 해 주게 되면 다른 어촌계들은 가만히 있겠어요? 그런 예산 있나요? 우리가 신중하게 이런 경우는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알겠습니다.
○ 허궁희 위원
한번 고민해 봅시다.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 허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호
최정욱 위원님.
○ 최정욱 위원
600페이지요. 완도청정마켓 마케팅 위탁 운영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내용 좀 설명해 주겠습니까?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청정마켓 마케팅 위탁 사업은 저희들이 기존에는 민간 업체인 리얼 커머스에다가 위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전라남도 순천에 있는 남도장터로 위탁을 변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도장터가 전라남도 도내 22개 시군 쇼핑몰을 전체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위탁 수수료가 약 한 1억 5,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정욱 위원
거기 기존에 했던 데하고 차이점이 있는가요?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리얼 커머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민간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전라남도에서 출자해서 만든 남도장터가 아무래도 좀 더 규모가 더 크고 CS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더 안정적으로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최정욱 위원
대신에 남도장터는 22개 시군 다 할 거 아니에요?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그렇게는 하는데 따로 플랫폼은 따로 나와 있습니다.
○ 최정욱 위원
거의 중복될 건데? 예를 들면 진도, 해남 이런 데하고.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전체적인 플랫폼이 있고요. 또 우리 청정마켓 같이 따로 나와 있습니다.

○ 최정욱 위원
그건 아는데 어차피 제품은 따로 될 거 아니에요? 남도장터에서 할 때. 그런데 기존에 했던 데는 우리 제품만 갖고 했잖아요.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기존에 할 때도 서버는 저희들 거만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리얼 커머스가 저희들 걸 가져가서 한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예스24 홈페이지 내에 완도군 청정마켓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실질적인 운영은 리얼 커머스에서 했죠. 쉽게 말해서 CS라든가, 판촉 행사할 때 그런 부분.
○ 최정욱 위원
그쪽이 더 나을 것이다, 우리 전남?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약 여건이 좀 더 낫습니다.
○ 최정욱 위원
이게 기존에 위탁 비용이 있었잖아요.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그렇습니다.
○ 최정욱 위원
그거는 왜 여기다 표기가 안 돼 있는데. 그것은 그때 얼마였죠?
○ 위원장 조인호
예, 팀장님 설명하세요.
○ 시장개척팀장
시장개척팀장 김정삼입니다. 작년에는 리얼 커머스 위탁 비용이 1억 9,400만 원이었습니다.
○ 최정욱 위원
아마 장단점이 있을 거예요. 생각 잘해 보십시오.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알겠습니다.
○ 최정욱 위원
그다음 602페이지에 하단에 보면 지방 보조금 부정 수급 신고 포상금이라고 했는데 이거 어떤 뜻이에요?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이것은 2019년도에 마른김 가공용수 정수 시설 사업을 저희 군에서 했었는데 업체가 부정 수급을 했다는, 개인이 제보를 했습니다. 제보를 해서 이게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서 저희들이 그 사업자에 대해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를 했는데 「지방보조금사업법」에 보면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그 사람이 저희 군에 포상금 요청을 한 상태라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 최정욱 위원
그건 신고한 사람한테 돈을 준다는 얘기인가요?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그렇습니다.
○ 최정욱 위원
그럼 결국은 우리 행정이 잘못했다는 얘기잖아요. 부정 수급하는 것을 관망해서 결국은 부정 수급해 줬기 때문에 이 돈을 물어준 거 아닌가요?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그렇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위원님,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저희들이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요. 저희들이 나중에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저걸 진짜로 부정수급 신고자로 볼 거냐?' 이 판결을 지금 놔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확정을 하기는 어렵지만 부정 신고자로 봐야 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달라서 보조금 심의위원회 최종 결정을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친구가 동종 업계에 같이 근무한 경력이 있어서 저희가 부정 신고로 봐야 될 건지, 아닌지 판단을 별도로 하겠습니다.

○ 최정욱 위원

잘 하시겠지만 군비가 9,000만 원 정도인데 결국은 우리 군 행정이 잘못해서 이거 물어낸 거랑 똑같거든요. 결론은 부정 수급을 우리 군에서 했다는 얘기지. 그렇게밖에 안 보이니까 신중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알겠습니다.

○ 최정욱 위원

그다음 610 페이지에 양식장 환경 관리 시스템 신규 설치를 했거든요. 이거 뭐예요?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저희들이 양식장 환경 관리 시스템 수온이라든가 용존 산소 이런 부분은 지금 실시간으로 저희들이 데이터를 전남 바다알리미라든가 아니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용존산소, 수온, PH 이런 부분을 체크하는 기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최정욱 위원

방금 612페이지 허궁희 위원이 질의 하신 부분인데 이건 생각을 깊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지역 다 있는데, 이게 한 번 손대면 다 해줘야 될 건데. 이게 첫 시작이죠?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아닙니다. 예전에 한번 이상, 좀 됐는데요?

○위원장 조인호

과거에 한번 지원해서 지어줬어요.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 최정욱 위원

지금 하면 또 생각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괜히 한번 시작하면 다른 지역도 계속해 줘야 되는데 이게 진짜 필요한 건지, 꼭 해야 될 이런 사업인지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알겠습니다.

○ 최정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호

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병수 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610페이지 민간 경상 보조에 전북 먹이용 미역 운반비 지원사업 이거 좀 증가한 이유 있어요?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지금 전복 먹이가 부족한 시기에 전복 생산자 운반비를 일부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만들었던 사업입니다.

○ 박병수 위원

이걸 그럼 어떤 사람들한테 하는 거예요?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전복 양식 어가들이 예를 들어서 전복 먹이가 이쪽 소안면하고 이렇게 없을 경우 금일이나 금당 쪽에서 운반하는 데 소요되는 금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박병수 위원

그 밑에 AI 기반 어장 공간정보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활용 사업 3억 3,600. 이건 무슨 내용이에요?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이거는 지금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어장 정보를 지금 통합 수집하고 해양 환경 예측, 양성관리 등 어업인 맞춤형 AI 정보 솔루션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전남 정보진흥재단에서. 거기에서 지금 저희 군하고 해남, 진도, 신안 5개 시군이 같이 거기가 지금 포함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저희들 분담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박병수 위원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건가요?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 박병수 위원
맨 하단부에 양식장 관리기 설치 지원 이것은 뭔가요?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이건 양식장 관리기가 지금 크레인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 박병수 위원
양식장 관리기라면 어떤 양식장인가요?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전복 가두리 양식장입니다.
○ 박병수 위원
그럼 6개소인데 어떤 사람들한테만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저희들이 양식장 관리기 지침이 있습니다. 양식장 관리기가 노후되거나 수리 비용이 너무 많이 들거나 그런 사람을 우선으로 지원을 해 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박병수 위원
이것도 하고 있는 사업이네요?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 박병수 위원
611페이지 기타 보상에 전복 가두리 폐업 지원금 6억 원이 있네요.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전복 가두리 폐업 지원금은 저희들 전복 가두리 폐업을 하는 어가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폐업을 하거든요. 하면 폐업 지원금을 저희들이 칸 당 12만 원씩 일종의 보상금 형식으로.
○ 박병수 위원
생산 어가들이 폐업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가두리를 반납했을 때요.
○ 박병수 위원
반납했을 때.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 박병수 위원
감축.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감축 사업입니다.
○ 박병수 위원
감축 사업의 일환이에요?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 박병수 위원
지금 다른 사업은 없는가요? 감축에 한 10억인가 들어가 있죠?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그렇습니다. 감축 사업 10억,
○ 박병수 위원
도비, 군비 10억 들어가 있고 이건 별도네요, 그럼 군비가?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감축 사업에 들어간 전복 가두리 감축비는 기타 보상금으로 이건 도나 해수부 같은 곳에서는 조금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지원해 주기 어렵다고 해서 일단 군비로 했고요. 감축 사업에 따른 해체 처리라든가 폐기물 처리하는 비용은 도비로 작년에도 한 10억 정도 예산을 세워서 지금 추진했었습니다.
○ 박병수 위원
612페이지 광어항생제 잔류 및 쿠도아충 검사 지원 등 광어, 양식광어 비상품어 수매 지원. 지금 우리 광어 양식 어가에 대해서는 참

오래전부터 이런 사업비가 지원이 됐어요.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그렇습니다.

○ 박병수 위원

지금 어떤가요? 지금 광어 양식업자들이 자립 기반이 잘 구축이 안 됐던가요?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지금 최근 들어서 광어 가격이 조금 좋아지고 해서 일부는 좀 괜찮아졌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 박병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도 양식하시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계속 지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 정도 됐고 정상적인 궤도에 왔을 때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손질을 해야 하고 다른 새로운 사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쪽으로 예산이 투입이 돼야 하는데 한번 해놓으면 끝이 없이 계속 갑니다. 이런 부분들 좀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지금 군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저희들이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백신 공급 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 사업입니다. 국비 사업이고 폐사어 처리비라든가 쿠도아충 같은 경우는 군비 사업인데요. 그런 부분도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 박병수 위원

제가 예산계장 할 때부터 이런 사업들이 계속 지원이 됐어요. 그걸 계속 지금 십몇 년, 20년 가까이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새로운 환경, 행정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개선할 부분은 개선이 됐으면 합니다. 검토해 주세요.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알겠습니다.

○ 허궁희 위원

백신 사업한 지가 몇 년 됐다고요?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백신은 오래됐습니다.

○ 허궁희 위원

신우철 군수 들어와서 중간에 한 것이 20년인데.

○ 위원장 조인호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수산경영과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실

○ 관광실장 안환옥

안녕하십니까? 관광실장 안환옥입니다. 관광실 소관 2026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실 26년 예산은 25년 예산 181억 1,390만 원 대비 23억 1,597만 원 감액된 157억 9,763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 세부 사업별 증감 내용입니다. 완도 치유페이 관광 안내소 안내원 인부임 1,826만 원, 군정 및 관광 홍보물 송부료 673만 5,000원, 지역관광 활성화 지원사업 2,000만 원, 지역관광협의회 운영 지원 5,500만 원, 관광 안내판 제작 및 보수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입니다. 관광 안내 지도 제작 2,000만 원, 관광 안내 책자 제작 500만 원, 관광 홍보 쇼핑백 제작 500만 원, 관광 홍보물 발송용 봉투 제작 500만 원, 관광 박람회 및 행사 참가 부스 운영 2,000만 원, 완도 치유페이 인센티브 대행 운영 2억 5,000만 원, 완도 치유페이 홍보물 제작 1,500만 원, 완도 치유페이 쿠폰 제작 2,000만 원, 국내외 단체 관광객 유치 여행사 지원 3억 원, 완도 치유페이 인센티브 지원 2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입니

다. 2026년 남도 숙박 할인 빅 이벤트 4,000만 원, 웰니스 관광 홍보 기념품 및 홍보 물품 제작 4,000만 원, 웰리스 관광 홍보 옥외 광고물 제작 2,000만 원, 완도 관광 사진 및 숏츠 영상 공모전 홍보 및 운영 2,000만 원, 공모전 입상작 전시회 운영 물품 구입 1,090만 원, 관광객 대상 이벤트 프로그램 운영에 4,000만 원, 웰리스 관광지 홍보 캠프에 4,000만 원, 치유관광산업육성법 대응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6,500만 원, 완도 관광 사진 및 쇼츠 영상 공모전 시상금 2,000만 원, 2026년 전남 관광 취약계층 행복 여행 지원에 5,3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입니다. 문화관광 해설가 활동비 6,000만 원, 문화관광 해설사 활동 물품 구입 1,000만 원, 문화관광 해설가 보수교육에 1,500만 원, 문화관광 해설사 활동비에 4,743만 2,000원, 반딧불이 야행 프로그램 운영 등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입니다. 청산도 슬로 걷기 축제 3억 8,000만 원, 읍면 축제 지원 2억 1,940만 원, 슬로시티 관광 안내 리플릿 제작 500만 원, 국제 슬로시티 인증 지역 연간 회비 2,500만 원, 한국 슬로시티 시장, 군수협의회 회의비 500만 원, 청산도 범바위 쉼터 조성 사업비 2,000만 원, 청산도 범바위 전망대 리모델링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입니다. 청정완도 가을 섬 여행 홍보물 제작 1,000만 원, 관광 상품 개발 및 축제 일반 운영 지원에 3,200만 원, 축제 행사 차출 경비에 2,500만 원, 관광택시 운영비 지원에 600만 원, 관광택시 운행 지원금에 1,200만 원, 관광택시 친절 역량 강화 교육에 5,000만 원, 군외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 인부임에 1,864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입니다. 관광 시설물 감정평가 등기 이전 수수료 500만 원, 군외 어린이 물놀이장 화장실 임차비 500만 원, 관광 시설물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에 500만 원, 관광시설 승강기 및 소방시설 안전 점검에 1,200만 원, 읍면 관광지 시설물 보수 및 유지 관리에 3억 원, 노화 건강테마촌 전복웰빙센터 보수 공사에 2억 원, 2026년 신지 명사십리 관광지 사후 환경영향조사 용역에 5,000만 원, 청산 기존 쉼터 개보수 사업에 2,000만 원, 청산 신흥리 해변 공원 편의시설 정비 공사에 2,000만 원, 소안면 관광 시설물 유지 보수 공사에 2,000만 원, 금당 가고 싶은 섬 둘레길 안전 환경 개선 사업에 2,000만 원, 금당 가고 싶은 섬 캠핑장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에 2억 원, 생일 남도 명품 2길 데크 보수 공사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 야간 경관 라인 조명 설치 3억 원, 신지 명사십리지구 관광지 조성 사업에 15억 원, 남파랑 쉼터 운영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3,000만 원, 쉼터 운영 소모품 및 홍보물 제작비에 2,800만 원, 남파랑길 걷기 프로그램 운영에 5,000만 원, 남파랑길 쉼터 및 걷기 프로그램 운영 홍보에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입니다. 힐링의 완도 프로젝트 조성 사업 18억 원, 예작도 관광 명소화 사업에 39억 5,000만 원, 보길 역사문화 치유 순례길 정비 사업에 2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입니다. 해수욕장 안전장비 구입에 3,500만 원, 해수욕장 편의시설 장비에 2억 원, 해수욕장 안전장비 구입 수상 오토바이 구입에 3,500만 원, 해수욕장 백사장, 상가지구 청소 인부임에 5,146만 원, 신지 명사십리 개장 인부임 1억 4,623만 원입니다. 다음은 245쪽입니다. 금일 명사십리 외 9개소 해수욕장 개장기간 인부임 1억 4,873만 3,000원, 금일 명사십리 캠핑장 및 물놀이장 관리 요원 1,307

만 3,000원, 해수욕장 기간제 근로자 보험료 4,894만 6,000원, 해수욕장 기간제 근로자 간식비 1,056만 원, 11개 해수욕장 안전 감시탑 설치 및 해체 장비 임차료 1,609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입니다. 신지 동고, 청산 신흥 해수욕장 국유재산 대부료 1,000만 원, 신지 명사십리 공동 화장실 화장지 구입에 924만 원, 신지 명사십리 관리소 및 화장실 청소 용품 구입에 660만 원,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 공중화장실 비데 임차료 1,560만 원, 10개 해수욕장 경계선 설치 및 철거 선박 임차료 1,600만 원, 금일 명사십리 물놀이장 운영비 600만 원, 해수욕장 개장 기간 종합상황실 당직비 720만 원, 해수욕장 경계선 물품 구입비 4,000만 원,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 장비 연료비 4,353만 원,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 장비 유지 보수비 3,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입니다.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 에어컨, 냉장고 유지 보수 500만 원,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 모래조각 전시 3,000만 원, 읍면 해수욕장 안전요원 육성 프로그램 500만 원,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 주차장 그레이팅 안전 덮개 정비 공사 6,500만 원,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 해양쓰레기 처리비 3,000만 원,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 가로등 신설 및 보수 사업 1,000만 원, 무인계측시스템 유지 관리 용역 1,500만 원, 금일 명사 외 9개 해수욕장 가로등 신설 및 보수 사업 2,000만 원, 신지 동고 해수욕장 편의시설 보수 공사 2,000만 원, 약산 가사 해수욕장 안전 해수 보강 공사 2,000만 원, 청산 신흥 해수욕장 편의시설 보수 공사 2,000만 원, 청산 지리 해수욕장 숨은 퇴적물 준설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8쪽입니다. 소안 미라리 해수욕장 편의시설 보수 공사 2,000만 원, 보길, 중리, 통리, 예송 해수욕장 편의시설 보수 공사 2,000만 원, 생일 금곡 해수욕장 상수도관 보수 및 정화조 이설 2,000만 원, 오토 캠핑장 관리에 따른 노후 비품 교체 및 소모품 구입에 500만 원, 노후 시설물 유지 보수에 500만 원, 캠핑장 시설 정비에 1,100만 원, Blue Flag 국제 인증 해수욕장 관련해서 완도군 해수욕장 위험성 평가 4,000만 원, Blue Flag 재인증에 1,500만 원, 해수욕장 방사능 검사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입니다. 식품 위생업소 위생 관리 컨설팅 지원에 3,000만 원, 권역별 위생업소 친절 위생 교육에 3,000만 원,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 800만 원, 신규 인허가 업소 꾸러미 지원에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입니다. 숙박업소 환경 개선 용품 지원에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입니다.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및 음식문화 개선 모니터 요원 활동비 560만 원, 해양치유 음식 개발 및 운영에 2,000만 원, 음식점 안내 책자 및 홍보물 제작에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52쪽입니다. 음식 문화 개선 위생용품 구입에 1,200만 원, 덜어먹기 위생용품 구입에 500만 원, 음식점 종사자 위생모, 위생복 제작에 1,000만 원, 위생업소 시설 개선 지원에 5,000만 원, 위생업소 운영 장비 지원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입니다. 식중독 홍보물 구입에 500만 원, 식중독 예방 기자재 구입에 500만 원, 모범음식점 위생용품 구입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입니다. 전복거리 컨설팅 지원에 800만 원, 전복거리 활성화 홍보 행사에 500만 원, 전복거리 소규모 개보수에 600만 원, 전복거리 홍보 및 위생용품 지원에 1,600만 원, 경영혁신 외식 서비스 지원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은 255쪽입니다. 음식점 입식 테이블 지원사업에 1,018만 4,000원, 어린이 대상 위생 영양 교육 뮤지컬 공연에 500만 원,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운영에 2억 2,000만 원,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운영 시설 임대료 8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본예산에 대한 우리 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호

관광실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규 위원님.

○ 박성규 위원

과장님, 243쪽 예작도 관광 명소화 사업 있지 않습니까?

○ 관광실장 안환옥

예.

○ 박성규 위원

예산이 39억인데 섬에다 하는 데크 시설 사업입니까?

○ 관광실장 안환옥

아닙니다. 거기 전시 작품 전시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전시물들을 전시를 하게 돼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 박성규 위원

어디다 할 겁니까? 어디 마을 앞에다 할 겁니까?

○ 관광실장 안환옥

예, 마을 앞에도 하고 그다음에 지금 지역개발과에서 개발해 놓은 그 건물 정원에다가 설치를 할 겁니다.

○ 박성규 위원

학교 폐교 그 건물,

○ 관광실장 안환옥

그렇습니다.

○ 박성규 위원

그 말씀이네요.

○ 관광실장 안환옥

예.

○ 박성규 위원

데크 시설은 안 합니까, 섬에다가?

○ 관광실장 안환옥

예, 데크는 없습니다.

○ 박성규 위원

데크 시설도 한다고 그러는데.

○ 관광실장 안환옥

그 부분은 산림휴양과에서 등산로 정비 관련해서 그게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성규 위원

그리고 보길 역사문화 치유 순례길 정비 사업 2억 7,500만 원 이거는 어디에 하는 겁니까?

○ 관광실장 안환옥

이것은 도에 공모돼서 세연정 인근 부분에 노후화된 그런 부분을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 박성규 위원

세연정에요?

○ 관광실장 안환옥

예.

○ 박성규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호

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병수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242페이지 한국형 생태학습 관광 육성 걷기 여행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인데요. 거기 전체 기금하고 해서 1억 2,800이에요.

○ 관광실장 안환옥

전체해서요.

○ 박병수 위원

그러니까 기간제 보수, 사무관리비, 행사 운영비. 이게 뭔 일을 하는 거예요?

○ 관광실장 안환옥
거기에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할 분들을 모집을 해서 걷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간제 1명이 근무를 하면서 그런 역할을, 저희들이 할 역할을 대행을 하게 되는 그런 예산이 인건비와 행사 운영비, 위탁 관리비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돼 있습니다.
○ 박병수 위원
이런 많은 돈을 들여서 사업성과나 효과가 있는가요?
○ 관광실장 안환옥
지금 주기적으로 이 프로그램 운영 참여자를 모집을 하고 홍보를 해서 지금 참여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여기서는 말씀을 못 드리고 별도로 서면으로 그 부분은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병수 위원
자료를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 결과물이 있죠?
○ 관광실장 안환옥
예.
○ 박병수 위원
그리고 예산 연중 얼마씩 들어가고 있었는가?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됐는가? 모든 사업 계획하고 근거 그것을 한번 제출한 한번 해 주십시오.
○ 관광실장 안환옥
알겠습니다.
○ 박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호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박재선 위원님.
○ 박재선 위원
실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42페이지 제일 상단에요. 야간 경관 라인 조명 설치라고 있는데 설명을 한 번만 해 주실래요?
○ 관광실장 안환옥
이 부분은 의회 의원 발의로 해서 야간 경관에 관련된 법 조례까지 제정이 돼 있는데 우리 완도에서 야간에 볼거리가 없지 않으냐. 그래서 주도 앞에 있는 완도네시아에서부터 중앙시장까지 건물 외벽에 조명을 할 수 있는 라인 조명을 설치를 해서 야간에 밝게 밝혀주고 거기서 사진도 찍거나 포토존을 활용한다든지 그런 계획을 갖고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건 우리 직원이 시책으로 제안을 해서 채택된 사안입니다.
○ 박재선 위원
그러면 현재 건물주들하고는 아직 얘기는 안 된 거죠?
○ 관광실장 안환옥
그것을 제안을 했던 분들이 현재 완도네시아 쪽에 활동하고, 그 건물 내에 있는 관광협회 회원들이 건물주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한 걸로 저희들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주들한테 허락받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박재선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호
관광실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치유담당관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치유담당관

○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안녕하십니까?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입니다. 해양치유담당관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올해 본예산 109억 9,400만 원에서 54억 1,100만 원이 증액된 164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통합 공공임대주택 건립 52억 원, 해조류 스마트 팩토리 구축 설계 및 시설비 14억 등 신규 시설 사업과 해양치유관리공단 전출금 10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164억 중 해양치유 산업의 비중은 60억 원으로 36%를 차지하고 해양바이오 분야는 98억 원으로 60%, 기타 행정 운영 경비가 4%입니다. 해양치유 산업 예산은 올해보다 2억 2,700만 원이 감액되었고 해양바이오 분야는 올해보다 55억 8,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페이지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59페이지 해양치유 기획 관리 사무관리비 해양치유센터 청소 로봇 렌탈비 880만 원, 행사 운영비 해양치유 체험 행사 운영 9,000만 원, 해양치유 산업 홍보 사무관리비 홍보 리플릿 4,500만 원, 온라인 콘텐츠 3,000만 원, 홍보물 1,900만 원, 기타 보상금 해양치유 해설가 활동비 1,000만 원, 해양치유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공단지원팀 사무기기 임대료 560만 원. 260쪽입니다. 재료비 치유센터 테라피 제품 구입 1억 5,000만 원, 치유센터 주변 공원 식재용 꽃묘 구입 500만 원, 시설비 치유센터 외부 환경 시설물 유지 보수 5,000만 원, 진입로 가로 화단 설치 5,000만 원, 주차장 진입로 확장 공사 2,000만 원, 수목 방제 용역 500만 원, 야외 테라피 공간 조성 공사 2,000만 원입니다. 마케팅 관리 지원에 사무관리비 기업 방문 홍보 브로슈어 2,000만 원, 마케팅 홍보 물품 4,000만 원, 온오프라인 해양치유 이벤트 경품 1,000만 원, 홍보 부스 운영 물품 3,000만 원, 행사 운영비 축제 행사 연계 해양치유 홍보관 4,000만 원, 홍보 팸투어 5,000만 원, 행사 실비 지원금 홍보 팸투어 실비 700만 원, 기타 보상금에 각종 행사 연계 이벤트 경품비 2,000만 원. 261쪽입니다. 해양치유관리공단 지원 공단 경상전출금 해양치유관리공단 위탁 사업비 50억 3,900만 원, 지역 특화자원 테라피 제품 상용화 재료비 지역 특화자원 테라피 상용품 제작 3억 원, 해양치유 산업 프로그램 운영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해양치유공원 인력 운영 7,700만 원, 사무관리비 해양치유공원 시설 관리 소모품 600만 원, 해양치유공원 홍보물 500만 원, 공공운영비 해양치유공원 유지 보수 3,300만 원. 262쪽입니다. 재료비 해양치유공원 운영 재료 1,300만 원, 시설비 족욕 치유관 시설 1억 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치유관 물품 추가 구입 1,000만 원. 263쪽입니다.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사무관리비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위원회 자문 수당 1,000만 원, 해양바이오산업 기반 시설 구축 자문 수당 750만 원, 연구단지 환경 정비 장비 임차료 1,000만 원, 해양바이오산업 홍보 자료 제작 500만 원, 출연금 해양바이오 본부 출연금 4억 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해조류 안전 이용 원료화 센터 구축 타당성 조사 1억 원, 고기능성 해조류 육상 양식 개발 1억 원, 해조류 기능성 소재 개발 현황 및 기업 수요 조사 분석 1억 원, 해조류 활성소재 인증 생산 시설 구축 시설비 해조류 활성소재 인증 생산 시설 구축 사업 18억 2,700만 원. 264쪽입니다. 통합 공공임대주택 건립 사업 시설비에 지역 전략산업 지원 주택 건립 사업 54억 원, 해양바이오 공동협력 연구소 운영 기간제 등 보수에 해양바이오 공동협력 연구소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5,900만 원, 공공운영비 연구소 시설 및 장비 유지비 1,000만 원, 민간 위탁금 연구소 운영 민간 위탁비 2억 5,000만 원, 시설비 연구소 소규모 시설 유지비 1,000만 원. 265쪽입니다. 해조류 바이오 스마트 팩토리 구축 사업 시설비에 해조류 바이오 스

마트 팩토리 구축 사업 14억 원, K해양바이오 창업 단계별 맞춤 지원 민간 위탁금 K해양바이오 창업 단계별 맞춤 지원사업 1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치유담당관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호

해양치유담당관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욱 위원님.

○ 최정욱 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면 259페이지에 사무관리비에서 1억 84만 4,000원 돼 있는데 이런 거 어디에 어떻게 필요한 비품인가요?

○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지금 행사 운영비가 9,000만 원이 크게 있는데요. 내년도 Pre 해조류박람회 할 때 6일간 저희가 홍보관 운영하는 비용입니다.

○ 최정욱 위원

거기서 별도로 하나요? 우리 센터 내에서 하나요?

○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박람회장하고 저희가 센터 인근에서 맨발 걷기하고 이렇게 체험 행사하고 같이 할 생각입니다.

○ 최정욱 위원

그때 행사에 맞춰서 같이 하나요?

○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6일 동안 박람회 기간 동안 추진합니다.

○ 최정욱 위원

261페이지예요. 보면 지금 우리 센터에 약 한 10억이 넘게 지금 작년보다 더 추가됐죠? 작년에 본예산은,

○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그 정도 10억, 그 정도입니다.

○ 최정욱 위원

이유가 뭔가요?

○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금액으로 하면요. 7억 정도입니다. 추경까지 하면 43억 원이 올해 공단으로 가서 7억 정도가 되고요. 주요 증액 사유로는 공무직 근로자분들의 급여 체계가 변경이 됐습니다. 공무원 전국 노조에서 대법원에서 판결을 해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급이 통상임금에 기본급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기본급 자체가 올랐습니다. 이건 저희 군만의 사항은 아니고요. 전국 공통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기본급하고 호봉 오르는 부분을 또 계산했더니 7,700만 원. 대법원 판결에 의한 통상임금 반영분이 4억 3,500만 원. 그리고 인피니티풀이 운영이 되면 기간제 근로자 3명을 채용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인건비 1억 원 해서 6억 1,300만 원 인건비가 증액이 됐고요. 이에 따른 국민연금 요율이 또 인상이 됐습니다. 그 부분하고 연금 부담금을 반영해서 7억 정도가 인상이 된 겁니다.

○ 최정욱 위원

거의 인건비네요.

○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전부 다 인건비입니다.

○ 최정욱 위원

지금 여기 예산에 우리 운영비와 인건비만 들어가 있죠? 예를 들어서 올해 우리가 공단 위탁을 이제 확실히 하잖아요.

○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예, 그렇습니다.

○ 최정욱 위원

위탁을 하고 우리 특정 공단으로 인정받고 하면 공단 내에서 어떤 사업도 구성하고 필요하면 하고 할 텐데 지금 여기 봐도 치유 테라피 제품 구입 이런 거 전부 그쪽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예,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공단의 책임 하에 사업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 제가 이해를 했는데, 맞습니다.

○ 최정욱 위원

이런 거를 그쪽으로 해서 책임과 권한을 확실히 줘야 맞지 않아요? 우리가 자꾸 개입하면, 행정이. 뒤로, 책임을 하는 게 정확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관리하고 인건비와 시설을 관리하는 쪽으로 하면 이 사람 책임이, 그래놓고 책임 묻기가 참 애매하다.

○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예, 그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공단에서 예산을 넘겨받는 시기가 9월입니다. 지방공기업법에 9월에 내년도 사업 계획과 예산을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하는 시기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고요. 특정 공단으로 이제 지정이 되기 때문에 공단에서는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하면 저희는 군수님 보고 후에 추경에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최정욱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했으면 같이 책임과 의무, 권한을 같이 이렇게 부여해야 되는데 위탁이라고는 해놓고 아직도 그게 어떻게 보면 대행업식으로 간 거랑 똑같거든, 이렇게 가버리면. 그러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공단의 책임 한계를 분명히 해야 되거든.

○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 최정욱 위원

또 이런 거 보면 지금 이런 비용 자체가 이것만 해도 약 한 4억이 돼요, 뒤로 넘어간다 하면. 결국은 약 한 55억 정도가 이렇게 그쪽에 안 들어가도 되는데 이런 것도 명확하게 해놨을 때 공단에 대한 비용이 얼마냐 이런 게 한눈에 또 위원들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빨리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예, 알겠습니다.

○ 최정욱 위원

그리고 지역 특화자원 테라피 제품 상용화 판매 제작. 이거 뭐예요? 재료비라고 해서.

○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3억 원 말씀이십니까?

○ 최정욱 위원

예.

○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저희가 내년부터는 해양치유센터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화장품 테라피 제품들을 일반인들에게 판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제품이 현재는 저희 센터 사용하게끔 용기라든지 상품의 외관이 돼 있는데요. 저희 박스라든지 크기 조정 그리고 포장재 부분을 별도로 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최정욱 위원

그럼 제품과 거기에 대한 박스나 이런 재료를 말하나요, 아니면 겉 포장지를 말하나요?

○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화장품을 별도로 판매용으로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물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과 같지만 그렇게 구성품을 별도로 하고요. 3억 원은 연간 사용액을 저희가 우선 예산에 반영해 놓은 상황입니다.

○ 최정욱 위원

그럼 여기서는 수익이 들어오겠네요, 판매를 하기 때문에?

○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수익이 발생하죠, 이제.

○ 최정욱 위원

이게 우리가 샀다 하면 여기에 마진 붙여서

판매할 거 아니에요?

○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그렇습니다.

○ 최정욱 위원

내년에는 수익으로 변환되겠네요.

○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경영 수익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화장품 판매를 첫 단계로 실행합니다.

○ 최정욱 위원

그러니까 지금 3억 세웠지만 이 돈은 다시 내년에 회수되고 이익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예, 그렇습니다.

○ 최정욱 위원

262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서 족욕 치유관 시설 공사 이건 뭐예요?

○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이건 청산 해양치유공원에 지금 운영을 못 하고 있는 족욕관이 있습니다. 운영을 못 하는 이유는 탕이 너무 커서 소규모로 왔을 때 운영을 하면 저희가 손해입니다. 그래서 이걸 개인별로 사용할 수 있게끔 리모델링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 최정욱 위원

여기 어디 있어요?

○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청산 해양치유공원에.

○ 최정욱 위원

청산?

○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예, 그렇습니다.

○ 최정욱 위원

청산. 거기가 처음부터 하다가 지금 못 쓰고 있잖아요, 거기만.

○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그렇습니다.

○ 최정욱 위원

그다음에 263페이지에 여기도 공기관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해서 3억이 있거든요? 1억, 1억, 1억 세 가지 해서. 이거는 또 어떤 경우인가요?

○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먼저 해조류 안전 이용 원료화 구축 타당성 조사 용역은요. 저희가 해조류를 생산하거나 가공할 때 부산물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역, 다시마 뿌리라든지 바다에서 떠밀려 오는 괭생이모자반 같은 경우를 이용해서 상품화되지 못한 해조류를 ESG 경영 제품이라든지 친환경 제품으로 가공하자는 걸 정부에 건의하려고 하는 그 타당성 조사를 해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고기능성 해조류 육상 양식 개발은 저희가 내년도에 스마트 팩토리 공장을 지금 설계를 합니다, 14억을 반영해서요. 그리고 준공은 28년도인데요. 그전에 이 스마트 팩토리에서 어떤 품목의 해조류를 생산하는 게 가장 효과가 있고 고부가가치일 것인가를 조사하는 영역이고요. 그리고 해조류 기능성 소재 개발 현황 및 기업 수요 조사 분석은 현재 해조류의 기능성은 인정이 되고 있지만 그 기술의 수준이라든지 시장의 규모, 기업의 활용 동향 같은 자료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저희 군에서 파악을 해서 내년도에 준공하는 해조류 활성소재 인증 생산시설에서 생산이 되게끔 하고 28년도에 준공이 되는 스마트 팩토리 운영에 참고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 최정욱 위원

그럼 이거를 위탁이라 했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위탁을 준다는 얘기예요? 용역이 아니고 위탁이네요?

○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용역이라면 공기관들이 해야 됩니다. 예를 들

면 KMI라든지 키오스크라든지 이런 전문 연구기관에 공기관에 저희가 위탁할 계획입니다.

○ 최정욱 위원

이거 어차피 바이오산업 쪽이네요?

○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예, 맞습니다.

○ 최정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호

허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궁희 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이게 궁금해서 한번 확인차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264쪽 해양바이오 공동협력 연구소요. 운영 민간 위탁비가 2억 5,000 있죠?

○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예, 있습니다.

○ 허궁희 위원

지금 몇 군데나 이렇게 우리 바이오 센터에 여기 입점이 돼 있는가요?

○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저희가 연구소는 40개 실에 현재 26개.

○ 허궁희 위원

26개가 입점이 돼 있어요?

○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예, 지금 입점이 돼 있습니다.

○ 허궁희 위원

운영이 되고 있다고요?

○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예. 계약이 돼서 그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 허궁희 위원

앞전에 내가 한번 가보니까 텅텅 비어 있더라고.

○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예. 그도 그럴 것이 상주하지는 않은 기업들이 대부분입니다.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완도에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광주나 수도권에 내려와서 일을 볼 때만 또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허궁희 위원

그래서 나는 이게 지금 몇 사람을 위한, 운영을 위한 위탁인가 그것 좀 물어보려고 그랬더니 스물 몇 군데가 들어와 있다고요?

○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스물여섯 군데 들어와 있습니다.

○ 허궁희 위원

생각보다 그럼 많이 들어와 있네요. 가서 보면 없던데.

○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지금 오은열 소장님께서 기업들 많이 유치하셨고요. 또 기업들하고 연결해 주시고 또 정부 자금 받을 수 있게 설명회 유치하고 했어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 허궁희 위원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거예요, 이 부분은, 바이오 센터. 왜냐하면 지금 입점해 있는 분들도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 도움이 되고 있는 거 없잖아요, 개인 사무실처럼 쓰고 있지.

○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예, 아무래도 사무실 임대료가 민간보다 저렴합니다.

○ 허궁희 위원

저렴하니까 완도읍에다 얻느니 거기다 얻어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쓰겠다는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어민들한테 도움이 가는 그런 사업들을 목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걸 운영하고 있잖아요.

○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예.

○ 허궁희 위원

그런데 거기하고는 동떨어진 지금 사무실 임대 사업밖에 아니라는 느낌이 들어요, 가서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번 정도는 우리 군에서도 심사숙고해야 된다.

○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예.

○ 허궁희 위원

그래서 사실 우리가 원래의 목적이 우리 해조류나 수산물을 이용해서 뭔가 개발을 하고 또 그렇게 이어나가야 우리 어민들한테 도움이 돌아오지 않냐. 이런 미래지향적인 그런 사업으로 앞으로 우리가 이끌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예.

○ 허궁희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위탁 운영은 몇 개 업체가 오든 간에 해야 되기 때문에 하되 앞으로 홍보는 그쪽으로 많이 이렇게 신경 써야 될 겁니다.

○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예. 저희가 위탁을 했지만 홍보는 저희 군에서 신경을 쓰겠고요. 저희가 연말에 업체들이 주축이 돼서 제품 설명회를 한 번 열려고 하고 있습니다.

○ 허궁희 위원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예.

○ 위원장 조인호

조영식 위원님.

○ 조영식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0쪽에 딱 한 가지만 간단히 물어볼게요. 해양치유센터 진입로 확장 공사한다고 했는데요.

○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예. 지금 저희가 가다 보면 주차장이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아래 주차장이 버스 진입이 조금 어렵습니다.

○ 조영식

맞습니다.

○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그래서 거기 그 직각 부분을 라운드지게 공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조영식

그러면 진입로 화단 설치도 거기다 한다는 겁니까, 가로 화단?

○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가로 하단은요. 지금 저희 센터 양쪽으로 보면 화분들이 있는데 그게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해 주던 사항입니다. 거기 화분만 있는 게 아니고 물이 자동으로 급수가 되게끔 된 시설이 있는데요. 그걸 임대 기간이 끝나서 철거해 갔는데 그걸 저희 예산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 조영식

그 부지가 군유지입니까, 여기가?

○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이쪽 센터 쪽은 저희 군 소유입니다.

○ 조영식

군 소유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호

해양치유담당관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중식을 위하여 15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20분 회의계속)

○ 위원장 조인호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

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

○ 행정지원과장 이기석

행정지원과장 이기석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6년도 세출 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총 전체 예산이 전년도 431억 2,800만 원에서 60억 6,000만 원이 증액된 491억 8,9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 사무관리비 각종 행사 추진에 따른 행사 비품 구입 2,804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정례회 운영에 720만 원. 아래 여비에 국제회의 및 행사 참석 여비 국외여비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아래 사무관리비 중에 인적 네트워크 명예군민이 되겠습니다. 명예군민 대상 홍보물 제작 등에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행사 운영비 중 군민의 날 행사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명예군민 팸투어 관련 버스 임차료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아래에 사무관리, 함께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 중 사무관리비 중에 업무일지 제작 800만 원, 무인경비 용역료에 2,880만 원, 공공운영비 중에 문서 발송 우표 구입 1,36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1페이지입니다. 친절 행정 콘텐츠 운영 민원 만족 현장 친절 교육. 이건 새올, 전 직원이 사용하는 새올 교육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교육 콘텐츠가 되겠습니다.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5.18 기념행사 지원 385만 원, 아래 행사 운영비 중에 공공연대 노동조합 노조 워크숍 개최 500만 원, 아래 합리적 노사 문화 정착을 위한 워크숍 개최 1,5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여비 중에 국외 여비는 이게 각 부서별 부서 본예산이 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1억 5,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는 1억 5,000만 원 활용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제화여비도 이것도 부서 총괄 예산이 되겠습니다. 5억 3,4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민간이전 중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법정 운영 경비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자치단체 이전 등 이전해서 비전자기록물 종이문서가 되겠습니다. 종이문서 DB구축 2,000만 원,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위탁 사업비 5,166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사무관리비 중에 복지 제도 단체 보험 가입 5억 9,664만 원, 상조 서비스 지원 3,000만 원, 아래 공무원 예방접종비 1,000만 원, 밑에 복지 포인트 17억 4,000만 원, 출산 축하 포인트 지원 1,500만 원, 포상금으로 종합 검진비 지급 2억 원, 아래 비서실 소모품 구입 1,5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게 사무관리비 중에 주민자치센터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4,000만 원, 고금 취약계층 나눔 텃밭 가꾸기 500만 원, 표고버섯 나눔입니다, 500만 원. 이것은 주민자치센터 공모 사업 당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행사 운영비 주민자치센터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3,000만 원, 주민자치센터 선진지 견학 720만 원, 아래 행사 실비 부담금 지원금 중에 주민자치 선진지 견학 행사 실비 지원비 750만 원, 주민자치센터 사무실 비품 구입 500만 원, 아래 5.18 민주 유공자 명예수당 11명이 되겠습니다, 792만 원. 5.18 유공자 생활지원금 및 장제비 지원 76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중앙,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정년 및 명예퇴직 공무원 공로패 제작 500만 원, 임용장 제작 520만 원, 신규 공무원 웰컴박스 제작 700만 원, 공공운영비에 전국시장군수 협의회 분담금 700만 원, 참좋은 지방정부 협의 분담금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6페

이지입니다. 표준 인사정보시스템 유지 보수 2,458만 2,000원, 행정동우회 지원사업 1,500만 원, 자치단체 이전 중에 장애 공무원 고용 부담금 1억 2,000만 원, 아래 사무관리비 이장단 업무일지 500만 원, 행사 실비 부담금 중에 이장단 선진지 견학 2,940만 원, 이장 상해 보험금 3,675만 원, 아래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에서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600만 원, 아래 사무관리비 중에 공직자 소통 건강검진 지원 3,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7페이지입니다. 교육기관 위탁 교육비 7,000만 원, 사이버 학습 위탁 2,000만 원, 독서 상시학습 위탁 2,500만 원, 전화외국어 위탁 1,800만 원, 드론 교육 3,000만 원, 간부 공무원 의식 전환 영상 제작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아래에 시책행정 중 사무관리비 중에서 군민과 대화 음향 장비 임차 3,600만 원,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국외 연수 차량 임차 3,000만 원, 시책관리 주요 인사 방문 행사 추진 1,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행사 실비 지원금에 읍면 순회 방문 75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입니다. 포상금 중에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선발 포상금 600만 원, 아래 일반 보전금 중에 방범연합회 실비 지원금 1,700만 원, 재경향우 군정 협력 지원사업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시설비 중에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지원사업 6억 500만 원, 도비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 보상금 중에서 279페이지 상단에 112한달음선 운항 지원금 읍면에 51회가 지정돼 있습니다. 출동 유료제가 되겠습니다, 1,080만 원. 아래 사무관리비 전국 동시 선거 지자체 공통입니다. 1,315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전국 동시 선거 선관위 위탁비가 되겠습니다. 13억 4,334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상단에 여순사건 희생자 생활보조금 지원 14명이 되겠습니다, 1,690만 원. 아래에 민간이전금에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280만 원. 아래 사무관리비 중에서 군정 홍보 휴대 비즈링 사용료 4,200만 원, 개인정보 수준 평가 지원 컨설팅 2,200만 원, 공공장소 와이파이 보조 사업 2,178만 원, 영상회의시스템 중계방송 유지 보수 2,200만 원, 무정전 전원 장치 UPS가 되겠습니다. 유지 보수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1페이지입니다. 상단, 행정 통신망 보안장비 유지 보수 2,150만 원, 행정정보 통신망 장비 통합 유지 보수 6,500만 원, 공공요금 전화 요금이 되겠습니다. 6억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통신 회선 사용이 되겠습니다. 무정전 전원 장치 소모품 교체 5억 4,600만 원. 아래 전산개발비 중에 AI 기반 종합 행정 안내시스템구축. 이것은 조인호 위원님께서 5분 자유 발언을 한, 발언한 내용,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 시설비 중에 읍면 통신망 이설 공사 1,000만 원, 그다음 행정 전화망 스위치 교체 7,500만 원, 정보통신, 도하고 군 연계 시설 교체 사업 5,700만 원, 행정 정보통신망 교체 7,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아래 자산 취득비에서 네트워크 인프라 보안 플랫폼이 해킹 방지 시설이 되겠습니다, 4,800만 원. 위에 내부망 방화벽 4,400만 원, 개인정보 접속 기록 서버 구매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입니다. 개인정보 접속기록관리시스템 유지 보수 880만 원, 온라인 원격 통제 시스템 유지 보수 530만 원, 침입 방지 유지 시스템 유지 보수 642만 4,000원, 백업 솔루션 문서보안 시스템 유지 보수 1,200만 원, 행정 지원 시스템 유지 보수 2,200만 원, 클라우드 컴퓨팅 비용으로 2억 2,300만 원, 온나라시스템 전자기록물 이

관 2,400만 원. 이거는 저희 전산실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이전 중에 공공기관 재해복구시스템 유지관리 9,630만 7,000원. 지방행정통합정보시스템 서비스 데스크 운영 위탁 사업비 830만 원, 지방 선거 대비 보안 취약점 진단 위탁 사업비 2,577만 3,000원, 온나라시스템 운영 위탁 사업비 1,536만 원, 정보보호 체계 진단 과목 등 2,2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 차세대 지방 행정 공공 시스템 구축 위탁 사업비 3,120만 원 책정하였습니다. 아래 사무관리비 중에서 업무용 한컴오피스 소프트웨어 구입 4,080만 원, 업무용 PC MS오피스 소프트 구입이 1억 2,120만 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용 PC 보안 백신 프로그램 구입비 1,32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283페이지입니다. 업무용 PC 개인정보 유출 방지 소프트웨어 구입 2,600만 원, 업무용 PC 보안 점검 소프트웨어 구입 2,740만 원, 개인정보보호 대비 손해배상 책임보험 2,400만 원, 랜선웨어 솔루션 소프트웨어 구매 8,100만 원, 업무용 소프트웨어 PDF 변환 프로그램 되겠습니다, 700만 원. 업무용 생성형 AI ChatGPT, 유료 ChatGPT가 되겠습니다, 2,860만 원. 아래 전산장비 유지 보수 헬프데스크 공공운영비 5,500만 원, 스마트 청사안내시스템 유지보수 1,4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자산 취득비 중에 업무용 PC 336대 구입 3억 3,600만 원, 모니터 5,000만 원, 노트북 1,300만 원, 빔 프로젝터 구입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중에서 홈페이지 유지 보수 2,200, 홈페이지 웹접근성 인증비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4페이지 아래 사무관리비 중에 주민 정보화교육 강사 수당 7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 사무관리비 중에 스마트 치유마을 운영 물품 구입 600만 원, 스마트 치유마을 운영 서비스 이용료, 여기는 불목, 노화가 되겠습니다. 3,06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상단에 행사 운영비 중에 국내자매결연 단체교류 상호방문 행사 운영 800만 원, 아래 외빈초청여비 중에 자매결연 및 사회 교류 단체 의전 지원 950만 원, 국외 자매도시 초청 체류 통역비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보전금 중에 자매결연 도시 초청 2,000만 원, 그다음 평통 청소년 통일 현장 견학 9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입니다.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 활동 지원사업은 1억 3,900만 원, 바르게 살기 협의회 홍보 활동 500만 원, 민주평통 통일안보 연수활동 4,000만 원, 평통 청소년 통일 교육 700만 원, 바르게 살기 법정 운영 보조금 3,160만 원, 평통 법정 보조금 2,6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사무관리비 중에 자매 우호도시 협력 등 네트워크 구축 1,000만 원, 도지사 협의회 분담금 500만 원,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출연금 남북교류 협력사업 출연금 2,000만 원, 탈북 주민 이주 정착지원금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87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물 제작 1,950만 원, 고향사랑의 날 등 홍보 부스 운영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 중에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배송비 3,000만 원, 고향사랑기부 광고비 3,500만 원, 고향사랑 관리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자체 배당금 2,8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인건비 내용 아래 부분에 청원경찰 제복 구입비 79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호

행정지원과장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

까? 행정지원과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

○ 민원봉사과장 김용식

민원봉사과장 김용식입니다. 민원봉사과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30억 1,843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7억 9,657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 행정 업무 운영에 사무관리비 중간에 보면 주민등록증 발급 비용 주민등록증 750만 원, IC 주민등록증 1,000만 원. 다음 페이지 314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에 무인 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2,802만 5,000원, 무인 민원발급기 옥외부스 경비 시스템 유지비 963만 6,000원, 민원 업무 처리 업무 배상 공제 가입비 550만 원, 민원 처리 발송용 우편료 일반 우편 312만 원, 등기우편 2,430만 원. 밑에 기타 보상금 주민등록 전입자 지원에 3,000만 원, 민간이전에 민간 행사 사업 보조 김 뜨기 체험 운영비 1,50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차세대 주민등록 정보 시스템 운영비 1,960만 원. 밑에 시설비 무인 민원발급기 옥외부스 설치비, 고금 민원기가 해당되어 있습니다, 1,500만 원. 무인 민원발급기 옥외부스 설치비 금일, 보길이 해당되겠습니다, 3,200만 원. 다음은 315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가족관계 등록 사무 지원 2,478만 9,000원. 아래쪽에 복합민원처리에 사무관리비 복합민원처리 사선 리스료 500만 원, 복합민원처리 전산 소모품 구입 및 임대료 500만 원, 공공운영비 개발행위 허가 운영 시스템 운영비 2,000만 원.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개별 공시지가 적정 운영에 공무직 근로자 보수에 1억 1,632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17페이지 되겠습니다. 공시지가 검증 수수료 1억 2,081만 2,000원, 분할, 합병 등 검증 수수료 1,249만 1,000원, 지적업무 운영에 사무관리비입니다. 공공용 편입토지 지적 공부 정리 사업에 1억. 이것은 현재 지금 각 마을에 있는 마을 안길이나 이런 집 농로 같은 데 보면 아직도 지적이 개인 사유지하고 그런 것이 다 중복돼 있는 것을 공부를 지금 실제 도로로 쓰고 있는 데를 분할을 해서 도로로 분할할 수 있는 것을 시범적으로 앞으로 확대해 가려고 지금 이것을 처음 시도해 봤습니다. 공공운영비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 보수비 2,268만 6,000원, 지적문서통합관리시스템 유지 보수비 2,600만 원, 구대장 자료 변환 시스템 유지 보수비 2,100만 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국산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비 924만 원, 시설비에 지적 측량 기준점 현황 조사에 2,522만 3,000원, 지적 기준점 설치에 500만 원, 지적 재조사 사업, 318페이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중간에 보면 조정금 감정평가 수수료 5,232만 원, 지적 재조사 사업 경사 영상 촬영 및 제작에 1,50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지적 재조사 책임 수행 기관 위탁 수수료 4,430만 3,000원, 연속 지적도 정비 사업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연속 지적도 정비 사업 위탁 수수료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9페이지 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공공운영비 전자도면 열람 시스템 유지 보수에 623만 1,000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주소정보관리시스템 유지 관리에 2,560만 원, 주소정보기본도 유지 관리 용역비에 1,550만 8,000원, 시설비에 노후 건물 번호판 정비에 2,670만 원, 주소정보시설 일제 점검에 3,400만 원, 주소정보시설 유지 보수에

500만 원. 다음 페이지 320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전자도면 열람 시스템 노후 장비 교체. 여기는 완도, 금일, 노화, 생일이 되겠습니다. 4개에 4,021만 6,000원. 공간정보사업에 공공운영비 지하시설물 표준 시스템 하드웨어 유지 보수에 2,030만 6,000원, 지하시설물 표준 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에 2,240만 원, 완도군 공간정보 클라우드 시스템 유지 보수에 2,180만 원, 전산개발비에 완도군 공간정보 플랫폼 구축에 4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공간정보 플랫폼이 설치가 된 지 15년이 돼서 시스템을 현재 가스나 지하 구조물을 저희 전산화하는 것에 대해서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는 데 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에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 구축 사업에 7억 원. 여기는 고금면 소재지를 제외한 나머지 마을과 금일 소재지를 내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부동산 관리에 사무관리비 개발 부담금 산정 내역서 검증 수수료 700만 원, 개발 부담금 감정평가 수수료 800만 원. 321페이지 되겠습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 업무 운영의 공공운영비 부동산특별조치법 보존 문서 시스템 유지 보수에 2,250만 원. 주택 건축 운영에 사무관리비에 건축물 허가 및 사용 승인 건축사 현장 조사, 검사 등의 업무 대행 수수료 1,200만 원. 농어촌 빈집 정비 사업 추진에 민간자본보조 사업에 농어촌 빈집 정비 사업 지원 자체 추가분 5,000만 원, 연구 용역비에 농촌 빈집 은행 정비 계획수립 용역 5,000만 원,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지원에 시설 및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지원사업 자체 2,000만 원. 322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어촌 빈집 정비 사업에 2억 5,600만 원, 한옥마을 조성에 시설비 군외 한옥마을 도로포장에 1,000만 원.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호

민원봉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욱 위원님.

○ 최정욱 위원

실장님, 314페이지요.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김 뜨기 체험 이게 뭐예요?

○ 민원봉사과장 김용식

김 뜨기 체험 행사가 기존에 없어서 내년에 Pre 박람회 때 6일에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최정욱 위원

왜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이걸 맡으세요?

○ 민원봉사과장 김용식

이제까지 장보고 수산물 축제 때 계속해서 민원봉사과에서 김 뜨기 체험을 했습니다.

○ 최정욱 위원

했어요?

○ 민원봉사과장 김용식

예.

○ 최정욱 위원

하려면 수산경영과에서 하든가 해야지.

○ 민원봉사과장 김용식

민원실에서 이제까지 김 뜨기 체험은 그렇게 해왔던 행사여서.

○ 최정욱 위원

이거, 이거 지금 신규로 돼 있는데?

○ 민원봉사과장 김용식

이제까지 장보고 수산물 축제 때 코로나 때부터 한 5, 6년 이상 빠져 있다가 지금 처음으로.

○ 최정욱 위원

새로 하는 거예요?

○ 민원봉사과장 김용식

예. 5, 6년 동안 이걸 안 하다가 지금 다시 신설된 겁니다.

○ 최정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호
조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영식 위원
저도 314쪽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옥외부스 설치비 도서에 금일하고 보길하고 한다 했습니까? 고금하고 보길하고,
○ 민원봉사과장 김용식
고금하고 이게 청사 신축한 데가 세 군데가 신축을 했는데 장애인 DF에서 옥외부스 계단 그런 것이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게 DF에서 보안이 떨어져서,
○ 조영식 위원
아니, 옥외부스 그거는 고금인데 옥외부스 설치비 도서 두 군데는 금일,
○ 민원봉사과장 김용식
금일하고 보길입니다.
○ 조영식 위원
보길요?
○ 민원봉사과장 김용식
예. 청사 세 군데가 신축했던 데요.
○ 조영식 위원
과장님, 저번에 군정 질의 시 넙도는 어떻게 된 겁니까?
○ 민원봉사과장 김용식
내년 추경 때 넙도는 지금 청사를 넙도 청사가 신축을 하고 계획을 잡고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추경 때 예산팀하고 하기로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추경 때 확보하겠습니다.
○ 조영식 위원
그러니까 궁금해서 무인 민원발급기만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때 군정 답변 시에는 최대한 빨리 한다고 그랬거든요. 기획예산실장님하고 같이 이야기한 거 기억나시죠?
○ 민원봉사과장 김용식
예. 추경 때,
○ 조영식 위원
추경 때까지?
○ 민원봉사과장 김용식
예. 추경 때 무조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영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호
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병수 위원
과장님, 뭐 좀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그걸 못 찾아서 물어보는데 저번에 농가주택 신축 사업 그런 것은 사업이 없어졌는가요?
○ 민원봉사과장 김용식
융자 사업이어서.
○ 박병수 위원
융자 사업은 여기 아니라?
○ 민원봉사과장 김용식
예.
○ 박병수 위원
융자 사업은.
○ 민원봉사과장 김용식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저희들이 대상자로 확정해 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 박병수 위원
그러고 리모델링 사업도 있죠? 리모델링 농촌주택. 리모델링 그런 거 없나요?
○ 위원장 조인호
담당 팀장이 답변해 주세요.
○ 건축허가팀장 김광호
건축허가팀장 김광호입니다. 별도 리모델링 사업은 있지 않습니다. 주택 개량 사업이 신축도 가능하고 개보수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평가를 해서 융자를 좀 차등을 두긴 합니다.
○ 박병수 위원
그건 융자 사업이라서 이게 안 들어갔다 이

말씀이죠?

○ 건축허가팀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 박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호

박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성규 위원

농어촌 빈집 정비 지원사업 자체 추가분 이거 20동인데요. 이거 빈집 이렇게 수리해 주는 겁니까?

○ 민원봉사과장 김용식

빈집……

○ 위원장 조인호

팀장님 답변하세요.

○ 민원봉사과장 김용식

이것은 저희 빈집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0동.

○ 박성규 위원

그리고 농어촌 빈집 정비 지원사업 2억 5,600만 원. 이거는 철거도 가능합니까?

○ 건축허가팀장 김광호

그렇습니다. 두 가지 사업인데요. 하나는 보조금을 주는 사업이고 2억 5,600만 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하겠습니다.

○ 박성규 위원

그러니까 마을에 가보면 빈집이 많아요. 사실은 삼거리 같은 데는 아무도 안 살고 철거해야 될 흉악한 집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건 지원을 해서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철거하는 그런 사업입니까?

○ 건축허가팀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 박성규 위원

민원봉사과에서 하네요.

○ 건축허가팀장 김광호

예.

○ 박성규 위원

세무회계과에서도 이거 하지 않습니까?

○ 건축허가팀장 김광호

세무회계과에서는 그런 사업이 없습니다.

○ 박성규 위원

민원봉사과에서요?

○ 건축허가팀장 김광호

예.

○ 박성규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조인호

박재선 위원님.

○ 박재선 위원

과장님, 방금 무인 발급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제가 얘기할게요. 이렇게 하면 읍면으로는 거의 다 해 가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사용을 과장님께서 해 보셨어요?

○ 민원봉사과장 김용식

예, 저도 발급해 봤습니다.

○ 박재선 위원

지문이 잘 되던가요?

○ 민원봉사과장 김용식

에러가 많이 떠서……

○ 박재선 위원

그렇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완도군청 민원실에서 제가 여러 번 해봤어요. 그리고 노화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지문이 한 번도 안 돼요. 그래서 다시 창구로 가서 서류를 떼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지문으로 해야 되는데 그거 지문으로 하지 않고 이왕 할 거면 얼굴, 눈을 생체로 하든지 그런 게 뭐가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 민원봉사과장 김용식

지금까지 저희들 시스템이 지문 인식밖에…… 지금 우리나라가 현재 시스템 돼 있는 게 등

록돼 있는 게 여권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지문 인식을 하는 거지 아직까지 저희들이 안면 인식이나 그것까지는 시스템이 지금 안 돼 있어서 본인 확인이 현재는 국가적으로 봤을 때 지문 인식 외에는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재선 위원

그러면 그렇게 안 됐을 경우에는 지문을 읍면에 가서 다시 등록해야 되나요?

○ 민원봉사과장 김용식

지문은 한 번 등록을 해보면 여권 발급한 거 보시다 보면 나이 좀 연세가 드시다 보면 지문이 옛날 20대, 10대 때 등록했던 지문하고 지금 달라져서 잘 인식이 안 돼서 그걸 재등록으로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요.

○ 박재선 위원

그러면 신분증을 가지고 가서 그쪽에 정상적으로 놓으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 위원장 조인호

팀장 답변해 주세요.

○ 건축허가팀장 김광호

추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초부터 주민등록증 신분에서 모바일 신분증이 발급이 됐거든요. 그러면 무인 민원발급기에도 지문 인식과 함께 모바일 신분증에서 신분 확인이 되면 무인 민원발급기에서, 민원 무인발급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개정되어 있습니다.

○ 박재선 위원

그럼 그걸 사용하고 있습니까?

○ 건축허가팀장 김광호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 박재선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호

예, 조영식 위원님.

○ 조영식 위원

320쪽 농어촌 빈집 정비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2억 5,600만 원 철거 사업이 돼 있죠?

○ 민원봉사과장 김용식

이것은 개인 1동씩 하는 게 아니라 마을에 집단으로 있는 데를 저희들이 군에서 직접 발주를 해서 공동 주차장이나 텃밭 그런 정도로,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 조영식 위원

개인 그런 게 아니고?

○ 민원봉사과장 김용식

한 채를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여러 채가 있는 공동으로 마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데를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금 내년에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 조영식 위원

신청을 받은 적은 있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김용식

지금 예산이 이제 처음 됐기 때문에 내년에 읍면에 한 번 저희들이 해보려고.

○ 조영식 위원

공동으로 그러면 인근에 다 같이 붙어서 있는 주택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그런 데가 있나요?

○ 민원봉사과장 김용식

저희들이 한번 현재 파악을 한번 해보고 되도록이면 두세 채를 한 번에 해서 주차장이나 그런 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조영식 위원

혹시 하게 되면 그 자료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김용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호

민원봉사과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

○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주민복지과장 추교훈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26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본예산은 특별회계 포함 387억 6,789만 8,000원으로 금년 대비 16억 9,189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교통과 기금 포함 241억 8,339만 원으로 62.3%, 도비가 37억 4,366만 3,000원으로 9.7%, 군비가 108억 4,091만 5,000원으로 28%입니다. 국도비 비율은 현재 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27쪽 아래쪽입니다. 양성평등 촉진 지원사업 2,500만 원. 다음 장 중간 부분 여성 친화도시 조성 사업 공모 2,000만 원, 여성 친화도시 군민참여단 위탁 교육 2,000만 원, 여성 취업 창업 교실 운영 사업 1,000만 원, 직장 내 폭력예방교육 600만 원. 다음 장 뒷부분입니다. 여성 1인 가구 안심용품지원 1,000만 원, 다문화 가족 특화 지원사업으로 방문 교육 서비스 지원사업 6,675만 원, 통번역 서비스 사업 7,222만 원, 자녀언어발달지원사업 4,174만 원, 이중언어 부모 코칭 사업 3,800만 원. 다음 장 아랫부분입니다. 가족센터 운영 9억 153만 원, 가족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2,268만 원, 가족센터 시설 운영비 지원 4,000만 원, 가족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 8,360만 원. 다음 장 윗부분입니다. 가족센터 공영 주차장 포장 공사 2,000만 원, 다문화 가정 결혼 이주민 친가나들이 지원 2,250만 원, 다문화 가정 결혼 이주민 건강검진비 지원 1,000만 원, 결혼이주여성 친정어머니 되어주기 결연 사업 2,400만 원, 결혼이주여성 친정어머니 되어주기 결연 행사 1,800만 원, 다문화 가족 힐링 캠프 2,000만 원, 다문화 가족 통번역 서비스 사업 6,820만 원, 한국어 교육 운영 지원 1,600만 원, 다문화 가족 자녀 코칭 지원사업 6,600만 원, 다문화 가족 읍면 부모 교육 사업 1,600만 원, 결혼이주여성 산모 도우미 운영 1,600만 원, 다문화 가족 어울림 한마당 축제 2,000만 원. 다음 장 중간 부분입니다. 다문화 엄마학교 교육 운영 1,600만 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7억 6,292만 5,000원, 아이돌보미 추가 지원사업비 2억 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위탁비입니다. 8억 5,020만 원. 다음 장 중간 부분입니다. 조부모 손자녀 돌봄 지원사업 3,780만 원, 군민 정서 지원사업 상담에 따른 1,000만 원, 공동 육아나눔터 프로그램 운영비 6,000만 원. 다음 장입니다. 공동 육아나눔터 지원 활성화 운영 지원 1억 2,000만 원, 한부모 가족 지원 생활 지원금 등 지원 1억 2,110만 7,000원,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 6억 5,963만 8,000원. 다음 장 중간 부분입니다. 보훈시설 환경 정비 인부임 2,788만 8,000원, 보훈시설 개보수 사업 6개소 5,000만 원, 보훈회관 운영 소모품 및 물품 임차료 600만 원, 보훈회관 전기 요금,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 960만 원. 다음 장입니다. 국가유공자 보훈 급여 지원입니다. 참전 유공자 명예수당 2억 1,600만 원, 참전 유공자 미망 유족수당 2억 1,600만 원, 참전 유공자 사망위로금 1,500만 원, 참전 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명예특별위로금 1억 5,000만 원, 국가유공자 명예보훈수당 5,760만 원, 국가유공자 미망인 유족수당 7,920만 원, 국가유공자 자녀수당 4,320만 원,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1,500만 원, 국가유공자 3.1절 등 기념일과 명절 유족 위문금

3,000만 원. 다음 장 중간 부분입니다. 호국정신 함양 안보현장 탐방 및 전적지 순례 지원 3,600만 원,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 1억 2,800만 원. 다음 338쪽 윗부분입니다. 항일운동 기념관 운영 관리 1,800만 원, 현충일 추모식 행사비 1,000만 원, 호국보훈 기념행사 지원 6,200만 원. 다음 장 중간 부분입니다. 장애활동지원 급여 지원 31억 8,008만 1,000원. 아래쪽입니다. 장애활동지원 도 추가 지원 2,210만 2,000원. 340쪽 중간 부분입니다. 완도군 장애인총연합회 운영비 지원 1,400만 원, 지체장애인협회 완도군지회 운영비 지원 600만 원, 지체장애인협회 완도군지회 임차료 지원 600만 원, 시각장애인연합회 완도군지회 운영비 지원 600만 원, 전남 농아인협회 완도지부 운영비 지원 600만 원,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 3,000만 원, 전라남도 장애인 한마음 축제 및 합동결혼식 참석 500만 원, 장애인 문화체험 행사 800만 원, 장애인 직업 재활 프로그램 운영 3,00만 원.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 공간 및 치유 탐방 프로그램 운영 지원 2,700만 원, 완도군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지원 9억 4,244만 2,000원, 발달 장애인 주간 보호 프로그램 운영 8,000만 원.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완도군 장애인복지관 안전 진단 용역 3,000만 원, 완도군 장애인복지관 설계비 1,500만 원, 완도군 장애인복지관 버스 구입비 1억 원, 완도군 장애인복지관 급식비 지원 1,600만 원. 242쪽 윗부분입니다. 완도군 수어통역센터 운영비 지원 1억 3,327만 8,000원, 수어 교실 운영 500만 원,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1억 1,810만 5,000원. 다음 장 윗부분입니다.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6,566만 원, 장애인 복지시설 등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 2,376만 원. 다음 장 아래쪽입니다. 장애인 연금 지원사업 22억 931만 4,000원. 다음 장 장애인수당 기초 수급자 지원 4억 8,523만 7,000원, 장애인수당 차상위 지원 3억 5,558만 5,000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1억 730만 원. 다음 346쪽 윗부분입니다. 발달 재활 서비스 바우처 지원 2억 7,005만 1,000원, 장애인 복지형 일자리 인건비 3억 3,982만 2,000원, 장애인 전일제 인건비 일자리 인건비 1억 7,684만 4,000원. 다음 장 중간 부분입니다. 장애인 시간제 인건비 일자리 인건비 1억 1,501만 7,000원. 다음 장 중간 부분입니다. 발달 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지원 1억 5,376만 5,000원. 그다음 349쪽 뒷부분입니다. 심장 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지원 4,290만 원, 최중증 발달 장애인 통합 돌봄 서비스 지원 8,604만 3,000원, 차상위 계층 노인 인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1억 8,480만 원. 다음 사회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 연찬회 운영 1,500만 원. 350쪽입니다. 해양치유 전복 해초김밥 만들기 체험 행사 2,500만 원. 용역비입니다. 제6기 지역사회보장 계획 수립 용역 연구 용역 2,200만 원, 보행약자 휠체어 구입 500만 원, 사회복무요원 운영 2억 2,568만 5,000원. 다음 장입니다. 중간 부분 완도군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4,000만 원. 352쪽 중간 부분입니다. 기초 수급자 생계급여 148억 4,568만 원, 기초 수급자 해산장제급여 2억 1,520만 원, 기초교육급여수급자 교육급여 2,158만 2,000원. 다음 장 윗부분입니다.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임차급여 60억 2,282만 3,000원, 주거급여 수급자 수선유지급여 8억 원. 354쪽 윗부분입니다. 어려운 이웃 긴급구호 1,500만 원, 명절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금 1,300만 원, 행복복지재단 운영비 보조 3,000만 원, 요구호대상자 긴급구호 양곡 구입비 1,500만 원, 긴급복

지 지원사업 5억 3,431만 원. 다음 장 중간 부분입니다.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1,000만 원. 추가분입니다, 군비 추가분입니다. 도서지역 집중 지원 에너지 효율화 사업 1,500만 원. 다음 장 통합 사례관리 이사 인건비 1억 1,106만 원, 통합 사례관리 수당 1,000만 원. 358쪽 중간 부분입니다. 운둔형 외톨이 지원사업 운영비 300만 원, 운둔형 외톨이 지원사업비, 했던 사업비 이번에 사회보장 수혜금 운둔형 외톨이 지원사업비 700만 원. 그다음 359쪽 윗부분입니다. 사례관리 대상자 밀키트 지원사업 960만 원, 읍면 맞춤형 통합 서비스 지원비 7,238만 4,000원. 그다음 360쪽 중간 부분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담 직원 인건비 5,610만 2,000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차량 유지 관리비 820만 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 2,000만 원. 다음 장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 운영 2,510만 원,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 사업비 2억 2,550만 원. 다음 장 윗부분입니다. 완도 지역 자활센터 운영 지원 3억 3,700만 원, 완도 지역 자활센터 운영 지원 자체 추가분 3,500만 원, 자활근로 사업 인건비 3억 5,809만 3,000원. 다음 장입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완도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 사업입니다. 12억 8,000만 원. 365쪽 중간 부분입니다. 자원봉사 현장 체험 지원 1,000만 원, 자원봉사 활동 지원 500만 원, 자원봉사 실비 보상 1,000만 원, 자원봉사 활동 지원 실비 보상 900만 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 지원 700만 원,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1,526만 원. 다음 장입니다. 외딴섬 자원봉사 활동 재료비 600만 원, 외딴섬 종합자원봉사자 실비 보상 800만 원,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운영 6,893만 5,000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운영 4,000만 원, 읍면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 1,800만 원. 367쪽 윗부분입니다. 마을 빨래방 운영 2,200만 원, 마을 빨래방 조성 2,400만 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4억 6,230만 원,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6,989만 1,000원. 다음 장 윗부분입니다. 일상 돌봄 서비스 1억 4,778만 7,000원, 사회복지 사업 보조 취약지 지원사업 7,621만 6,000원. 다음 장입니다. 기부식품 제공 사업 운영 3,502만 원, 기부식품 제공 사업 운영 자체 추가분 600만 원, 먹거리 기본 보장 4,980만 원.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 군비 부담금 7억 4,212만 2,000원. 다음 373쪽입니다. 의료급여 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국고보조금 시군 의료급여 사업비 지원 1억 4,308만 2,000원, 도비 보조금으로는 2,861만 6,000원, 의료급여 사업 군비 부담금 7억 4,21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5쪽입니다. 중간 부분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비 3,715만 2,000원, 본인 부담 환급금 8,936만 2,000원, 의료급여 진료비 7억 3,496만 원. 재가급여 시범 사업 지원 3,44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호

주민복지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영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3쪽 건강가정 지원 사회복지 사업 보조에 군민 정서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잠깐 해 주시겠습니까? 아시면 팀장님이 대신.

○ 복지정책팀장 김란

복지정책팀장 김란입니다. 군민 정서 지원사업은 가족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가족 상담이 있습니다. 부부나 또 부모와 자식 간 또 기타 가정들에 대해서 전문 상담사가

이렇게 상담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건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조영식 위원

인건비로요?

○ 복지정책팀장 김란

예.

○ 조영식 위원

설명됐고요. 367쪽 마을 빨래방 조성 사업비 시설비 있지 않습니까? 800만 원씩 2,400만 원. 367쪽 마을 빨래방 조성 시설비. 여기 지금 혹시 소안도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아니, 지금 3개소인데요. 안 된 지역 금일, 보길, 생일 3개소만 지금.

○ 조영식 위원

금일?

○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보길, 생일.

○ 조영식 위원

이번에 혹시 소안도 선정됐죠? 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41쪽에 시설비에 장애인복지관 설계비라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설계비입니까, 복지관에?

○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관 프로그램실이 부족해서 저희들 옥상에 안전 진단을 저희들이 3,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거기서 안전 진단을 받아서 옥상에 한 30평 정도를 프로그램실을 증축할 생각입니다.

○ 조영식 위원

증축이요?

○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예.

○ 조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호

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병수 위원

과장님, 하나 확인 좀 할게요. 350페이지 해안치유 전복 해초김밥 만들기 체험 행사가 있는데요. 우리 예산실장님 안 계신가요? 지금까지 이런 사업들, 아까 민원봉사과 재래 김 뜨기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장보고 수산물 축제 행사에 행사로 사업에 안 들어가나요?

○ 위원장 조인호

예산팀장님이 설명하세요.

○ 예산팀장 지민규

이거……

○ 박병수 위원

전복 해초김밥 만들기 체험 행사나 민원봉사과에 아까 전에 보고했던 재래 김 뜨기 사업 이런 부분은 장보고 수산물 축제 행사의 일환으로 이런 사업들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 예산팀장 지민규

Pre 박람회가 지금 장보고 축제가 내년에는,

○ 박병수 위원

수산물 축제요? 지금 없습니까, 그러면?

○ 예산팀장 지민규

합해져서……

○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옛날에 장보고 축제,

○ 박병수 위원

Pre 박람회도 같이 하기 때문에 장보고 수산물 축제는 하지 않고 이건 별도 부서에서 한다 이 말씀이죠?

○ 예산팀장 지민규

예. 그 프로그램이 박람회로 간다고.

○ 박병수 위원

그럼 총괄 부서가 없네요. 그럼 각자 각 부서별로 예산으로 한다.

○ 예산팀장 지민규
예, 부서별로.
○ 박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호
더 안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우홍래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입니다. 경제교통과 본예산 예산액은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총 239억 7,079만 1,000원으로 2025년 본예산 대비 36억 1,600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27쪽 일반회계입니다. 중소기업 경영 안정 지원 사무관리비 소상공인 역량 강화 사업 1,000만 원, 기타 보상금 영세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1억 8,000만 원, 소상공인 마케팅 홍보 지원사업 2,500만 원, 출연금 전남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억 500만 원, 완도군 특례보증 1억 원, 전남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6,886만 원. 428쪽입니다. 민간경상 사업 보조, 노란우산 가입 장려금 지원 2,544만 원,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 소상공인 연합회 운영비 보조 4,000만 원, 경영 패키지 지원사업 3,000만 원, 이차보전금 소상공인 금융기관 융자금 이차보전 3억 6,00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전남 공공 배달앱 홍보 마케팅 비용 3,00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스마트 공장 구축 사업 9,590만 원. 429쪽입니다. 상거래 관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물가모니터요원 인건비 796만 8,000원, 완도사랑상품권 운영 사무관리비 상품권 할인 보전액 40억 8,250만 원, 카드 모바일 2억 원, 상품권 수수료 5억 7,764만 원, 상품권 홍보물 및 인쇄물 제작 2,665만 원. 430쪽입니다. 완도사랑상품권 시비 제작 2억 4,000만 원, 전통시장 활성화 관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완도 중앙시장 이동식 화장실 환경 관리 1,860만 원, 사무관리비 전통시장 소규모 시설물 수선비 2,000만 원, 완도 중앙시장 이동식 화장실 분뇨 처리비 600만 원, 전통시장 소독 및 방역비 1,500만 원, 전통시장 및 주차 타워 소방 안전 점검 및 작동 기능 점검 등의 용역 840만 원, 공중화장실 비데 렌탈료 540만 원, 행사 운영비 전통시장 주말 야시장 운영 6,000만 원. 431쪽입니다. 시설비 금일시장 전통 소매점 신축 공사 5억 원, 완도 중앙시장 주차장 조성 건축물 해체 및 인허가 용역 2,000만 원, 완도 전통시장 주차 타워 노후 시설 및 보수 공사 500만 원, 완도 전통시장 노후 시설 및 보수 공사 1,000만 원, 노화 전통시장 노후 시설 및 보수 공사 1,000만 원, 완도 전통시장 오수관로 증설 공사 500만 원, 완도군 새마을회 지원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 새마을회 운영비 보조 7,100만 원, 민간 행사 사업 보조 새마을회 활동 지원사업 2,400만 원. 432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새마을회 물품 구입 500만 원, 연근해 조업선단 유치 사무관리비 조업선단 전용부두 간판 및 안내 표지판 정비 500만 원, 시설비 조업선단 전용부두 기반 시설 보조 및 관리 1,000만 원, 조업선단 전용부두 변전 장치 설치 공사 2,000만 원, 조업선단 전용부두 선별장 비가림 설치 공사 5억 원, 조업선단 전용부두 접안 시설 확장 실시설계 용역 2,000만 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 기타 보상금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510만 원. 그다음 433쪽입니다. 에너지 자원

개발 사무관리비 섬 마을 단위 LPG사업 현장 점검 선박 임차료 800만 원, 공공운영비 유인도서낙도 자가발전시설 유류비 600만 원, 연구 용역비 공영 주차장 태양광 설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2,000만 원,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익 공유 타당성 용역 2,000만 원, 시설 및 에너지 취약지역 전력 효율 향상 사업 2,000만 원. 434쪽입니다. 유인도서낙도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설 유지 보수 6,000만 원,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설 설치 2,000만 원,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 개선 사업 보조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 개선 사업 1억 8,690만 원, 서민층 가스 안전장치 보급 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 서민층 가스 안전장치 보급 사업 2,625만 원, 자체 추가분 2,400만 원, LPG 배관망 공급 지역 안전관리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LPG 배관망 공급 지역 안전관리 용역 4억 원, 우리 마을 가스 안전지킴이 육성 50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 LPG 배관망 시설 유지 보수 2억 6,000만 원. 435쪽입니다. 면 단위 LPG 배관망 구축 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 군외면 LPG 배관망 구축 사업 20억 6,400만 원, 약산면 LPG 배관망 구축 사업 6억 2,000만 원, 섬마을 단위 LPG 시설 구축 사업 공기관 등에 의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 청산 여서마을 LPG 시설 구축 사업 9억 1,084만 4,000원, 군외 사후마을 LPG 시설 구축 사업, 4억 1,487만 1,000원. 436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 지원사업 9,052만 7,000원, 에너지 취약계층 일산화탄소 경보 차단기 지원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 에너지 취약계층 일산화탄소 경보 차단기 지원사업 1,560만 원,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 지원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 지원사업 20억 8,492만 4,000원. 다음 437쪽입니다. 방치 폐LPG 용기 수거 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 방치 폐LPG 용기 수거 사업 2,150만 원, 운수업체 지원 및 차량 관리 사무관리비 우편 요금 1,000만 원, 연구 용역비 완도군 제5차 지방대중교통 기본계획수립 용역 2,000만 원, 완도군 제5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수립 용역 2,000만 원. 438쪽입니다. 기타 보상금 버스 승합차 안전 행복 도우미 운영 1,178만 6,000원, 운수업계 보조금 오지 도서 공용버스 구입비 지원 4,800만 원, 유가 보조금 6억 원, 송정역-해양치유센터 연계 시외버스 운행 재정 지원 1억 4,450만 원, 완도 버스터미널 방역 및 환경 관리 인부임 2,160만 원, 완도 버스터미널 공공운영비 지원 1,80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고속버스 외부 광고료 2,504만 원, 완도 택시 외부 광고료 1억 5,576만 원, 버스정보시스템 운영비 5,082만 4,000원. 439쪽입니다. 농어촌 버스 재정 지원 및 손실 보상 기타 보상금 농어촌 버스 무료 버스 운영 재정 지원 6억 원, 단일요금제 손실 보상금 4억 8,400만 원, 비수익 노선 손실 예상 지원 2억 원, 장보고대교 운영 손실 보상금 1억 5,000만 원, 운수업계 보조금 농어촌 버스 재정 지원사업 자체 추가분 2억 원, 농어촌 버스 운송사업 재정 지원 보조 3억 5,129만 4,000원, 농어촌 교통모델사업 사무관리비 100원 희망택시 이용권 제작 960만 원, 기타 보상금 100원 택시 운영비 지원 2억 2,000만 원, 농촌형 교통모델 100원 희망택시 운영비 1억 3,600만 원, 운수업계 보조금 농어촌 교통모델 버스 운영비 버스

형 운영비 지원 5억 8,000만 원. 430쪽입니다. 농촌형 교통모델 버스 운영비 자체 추가분 2억 390만 원,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 지원 민간위탁금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 지원 기금 3,500만 원, 국비 6,000만 원, 자체 추가분 1억 6,200만 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장애인 콜택시 구입 9,800만 원,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지원 기타 보상금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지원사업 보조 1억 3,000만 원. 441쪽입니다.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지원사업 자체 추가분 5,750만 원, 택시 감차 보상비 보상사업비 지원 기타 보상금 택시 감차 보상금 지급 보조 3,500만 원, 군비분 3억 6,155만 원. 노후 택시 교체 지원사업 기타 보상금 노후 택시 지원사업 400만 원, 불법 주정차 차량 지도 단속 공공운영비 불법 주정차 무인 단속 시스템 유지 보수 2,400만 원. 442쪽입니다. 우편 요금 1,350만 원입니다. 교통안전 시설 확충 및 관리 사무관리비 약산 당목항 임시 주차장 임대료 890만 원, 교통안전 캠페인 홍보물 제작 800만 원, 공공운영비 교통안전 시설물 소규모 수선비 900만 원, 버스 승강장 시설물 전기 요금 840만 원, 연구 용역비 교통안전 기본계획수립 용역 2,000만 원,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 연구 용역 2,000만 원, 시설비 완도군 버스 승강장 바람막이 설치 1,000만 원, 열선 의자 설치 2,000만 원, 신지면 대평리 공영 주차장 운영 사업 1억 원, 약산 당목항 임시 주차장 정비 2,000만 원, 버스 승강장 신설 5,000만 원, 버스 승강장 보수 1억 원,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 7,000만 원, 축제 및 행사 교통관리 지원 사무관리비 교통 안내 유도 물품 구입 1,500만 원. 443쪽입니다. 행사 차량 임차비 500만 원, 행사 주차장 부지 및 장비 임차료 1,000만 원, 공공운영비 도로 구획선 정비 및 안내판 설치 1,000만 원, 셔틀버스 정류장 부스 설치 및 안내판 부착 1,000만 원, 행사 운영비 축제 및 행사 교통 안내 운영비 4,000만 원,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인센티브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국고보조 지원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인센티브 지원 2,259만 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지방재원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인센티브 지원 600만 원. 444쪽입니다. 농어촌 버스 벽지노선 지원사업 보조 운수업계 보조금 농어촌 버스 벽지노선 손실 재정 지원 5억 8,340만 원, 자체 추가분은 7,000만 원. 외부 거래 지출 기타 회계 전출금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출금 8억 6,122만 6,000원. 다음은 450쪽 농공지구 조성 관리 특별 회계입니다. 완도 죽청 농공단지 노후 오수관 교체 사업 전환 사업 시설비 완도 죽청 농공단지 노후 기반 시설 정비 6억 원, 농공단지 운영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농공단지 환경 정비 8,632만 원, 농공단지 주택 발전기금 1,593만 6,000원, 사무관리비 농공단지 해수인입 펌프 시설 관리 용역 수수료 528만 원, 농공단지 환경 정비 물품 구입 500만 원, 농공단지 응급복구장비 임차료 500만 원, 농공단지 해수인입시설 모니터링 관리 용역 1,000만 원. 그다음 452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농공단지 기업 맞춤형 특화 사업 지원 8,000만 원, 시설비 공업용수 물탱크 및 용수관 청소 1,000만 원, 농공단지 시설물 긴급 보수 3,000만 원, 완도해양생물특화단지 저류지 준설 1,500만 원, 농공단지 오수관로 준설 공사 3,000만 원, 농공단지 해수인입시설 유지 보수 1,000만 원, 농공단지 맨홀 뚜껑 교체 1,050만 원, 농공단지 가로등 교체 900만 원, 농공단지 인도 공사 500만 원, 농공단지 제수변 교체 500만 원, 농공단지 노후 아스팔트

포장 공사 5,000만 원, 농공단지 폐건물 철거비 5,000만 원, 농공단지 싱크홀 및 층간 구간 정비 5,000만 원, 농공단지 주요 구간 CCTV 설치 1,000만 원. 452쪽입니다. 제4 농공단지 조성 사업 시설비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8,000만 원. 다음 456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사무관리비 신지 농촌 마을회관 물품 구입 1,000만 원, 신지 가인 마을회관 물품 구입 1,000만 원, 신지 동고 유해 해충 퇴치기 설치 및 적합 정비 사업 1,000만 원, 시설비 노화 화정마을 배수로 정비 공사 2,000만 원, 군외 원동 가로등 설치 사업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호

경제교통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수 위원님.

○ 박병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두 가지만 좀 확인할게요. 438페이지 완도 버스 터미널 방역 환경관리 인부임 2,160만 원. 완도 버스 터미널 공공운영비 지원 1,800만 원 이게 있는데 이걸 군에서 꼭 지원해 줘야 하나요? 개인 사업체인데.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지원을 하기 시작할 때 그런 논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많이 사용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시설물 유지 관리는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박병수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한 번 하고 나면 빼지를 못해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모든 매표 수수료라든가 사용료를 다 받고 있거든요. 지금 모든 상가도 전부 다 임대료 받고 있는데 이걸 완전히 군에서 다 해준다는 건 시설은 물론 지원해 줄 필요는 있다고 봐요. 화장실 지원이라든가 주변 시설 같은 건 우리가 많이 지원을 했는데 운영 관리까지도 지원을 해 주고 공공요금까지 지원을 해 주니까 이런 것이 맞는 것인가. 이걸 한번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 막상 또 빼기도 그러겠죠?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예, 그렇습니다.

○ 박병수 위원

참 기가 막힐 일입니다. 우리 전부 다 군민의 혈세인데 군민의 혈세가 이렇게 개인 사업자한테 이렇게 낭비, 지원이 돼도 되는 것인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요.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예.

○ 박병수 위원

441페이지 이것은 업무와 관련된 것이 노상방치 차량 견인 및 폐차료가 있네요. 지금 보면 제가 이런 민원이 들어와서 담당자한테 전화를 했었는데 아직까지도 처리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무상 방치 차량이 있어 미관도 해치고 사고 위험도 있고 이런 것을 민원이 발생했을 때, 민원이 들어왔을 때 처리를 해줘야 하는데 이게 처리가 안 되고 있을 때는, 견인은 되겠지만, 예산이 있기 때문에. 보관 장소가 없어서 그런 것인가? 보관 장소가 없어서 그런다면 거기 공공 주차장이라든가 가까운 지역의 면사무소나 그런 데 보면 주차 공간이 있을 거예요. 그런 곳으로 이동해서 하다가 주인에게 알려서 일정 기간 보관하다가 안 가져갔을 때는 폐차를 시킨다든가 폐차장에 인계한다든가 그런 방법도 있으리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처리가 안 되고 그대로 방치가 되니까 행정에 불신이 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 이걸 처리가 됐으면 좋겠는가요.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최근에도 읍내에서 신고 건이 1건 있어서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소유주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소유주가 다행히 이번에는 연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폐차 절차를 안내를 해 드렸고요. 이런 경우가 장기 방치 차량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저희 쪽하고 연락이 되는지 안 되는지 1차적으로 확인을 해보고요. 안 된다면 적당한 장소에 옮겨 놓는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 박병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분이 다른 곳에도 한 번 민원을 냈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그게 안 되니까 저한테 또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이 그런 걸 신고했을 때는 행정에서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그대로 방치가 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제 입장에서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데 마침 이런 예산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해서 적절하게 처리를 해서 이동시켜 주면 오히려 그 사람들이, 지역 주민이 또 그런 것을 보기 싫다고 한 것을 해결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예, 알겠습니다.

○ 박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호

허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궁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한번 해볼게요. 451쪽 농공단지 폐건물 철거비가 있는데 이게 무슨 건물이니까?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저희 우리 군하고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을 어떻게 보면 불법으로 재임대를 해서 다른 사람이 건물을 지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는 현재 우리 돈으로 다시 환원했고요. 그게 건물을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해서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여유가 되면. 그래서 건물 철거비를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허궁희 위원

아니, 그분이 불법 건물을 지었는데 왜 군에서 돈을 내서 철거를 합니까?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불법 건물은 아니고 건축물대장까지 다 신고는 돼 있는데 A라는 사람하고 우리 군하고 계약을 했는데 B라는 사람이 건물을 지었는데, 우리 군에서 신고를 다 받아줘서 정상적인 건물로 등재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건물을 매입을 해서 철거를 다 하고 다시 분양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철거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 허궁희 위원

아니,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임대를 해줘서 건물을 지어서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팔았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내부적으로는 그렇습니다.

○ 허궁희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것을 추적을 해서 마무리를 하려고는 안 하고 군에서 매입해서 철거를 한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재분양을 하기 위해서는 부지를 정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소유권 이전이 되면 철거를, 그 건물이 필요하신 분이 매입을 한

다면 그분이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겠지만 나는 건물은 필요 없고 맨 땅만 필요합니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건물을 철거해 줄 계획입니다.

○ 허궁희 위원

그게 맞는 겁니까?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최초의 상태로 보면 건물이 없는 상태로 다시 분양을 해야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최정욱 위원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지금 잘못하고 있어요.

○ 허궁희 위원

아니,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왜냐하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나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냐 하면 우리 땅이 지금 우리 군 땅이란 말이에요.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그렇습니다. 환수를 다시 했습니다.

○ 허궁희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 땅에다가 임대를 해서 건물을 지었어요, A라는 사람이.

○ 최정욱 위원

그거 아니에요.

○ 허궁희 위원

그러면?

○ 최정욱 위원

저게 뭐냐 하면 농공단지 분양을 할 때 A라는 사람이 그 분양을 했어. 그래서 그 분양이 일시불로 준 게 아니고 해마다 얼마씩 군에다 납부를 해. 그러면서 건축 허가를 지어서 거기다 건물을 지었어. 그런데 이 사람이 사업이 안 되니까 경매로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는 얼마 받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그렇게 된 거니까 다시 땅을 줄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 군이 다시 회수를 하는 과정에 그 건물을 이미 그때 당시에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지었기 때문에 경매를 나간 사람이 받아서 우리가 다시 이걸 원상 처리를 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불법은 전혀 아니고 제대로 된 건데, 지금 우리 군에서 전부 땅을 회수를 했어요?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토지는 회수를 했고요.

○ 최정욱 위원

회수를 했죠?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부지 대금을 처음에는 초반에는 조금 내고 납부를 못 한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이 완전히 되지 않고 우리 군이 계속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 계약을 해지를 했습니다. 해지하고 계약금 중에 부지 대금을 일부 납부한 것도 저희들이 공탁을 걸어서 찾아가라고 그렇게 해놓은 상태이고요. 그 건물만 정비해서 지금 산단 유치 차원에서 새로 들어올 계획이 있어서 정비를 해달라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철거할 계획입니다.

○ 허궁희 위원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가는데요. 저는 그 부분을 뭐랄까 오해를 하고 있던 거예요.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잘 드렸어야 되는데.

○ 허궁희 위원

그래서 그런 내용이라면 그러면 그런 부분은 우리 법무팀에다가 넘겨서 처리를 하라면 안 되나요?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그런 고민을 여러 가지 저희도 방법을 강구해 봤습니다마는 한다고 하면 소송을 해서 “철거를 하십시오.” 할 수 있는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빨리 이 산단 유치 업무를 빨리 매매 토지를 계약을 하고 유치를 하려면 저희들이 철거해 주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 허궁희 위원

하여튼 오해 안 받게 처리 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호

최정욱 위원님.

○ 최정욱 위원

거기는 그러면 그 건물주는 우리 군에다가 체납한가요? 안 할 거 아니에요?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건물을 들어올 회사가 매입을 하게 되면,

○ 최정욱 위원

되고?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예, 그렇습니다.

○ 최정욱 위원

그런데 그 사람은 순순히는 안 줄 거 아니냐는 얘기야.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내부적으로 그 두 분이 건물에 대한 계약을 하게 되면 소유권이 새로 들어올 입주자한테 넘어가면 그 부지에 대해서 우리 군이 현재 시세대로 다시 재분양하고.

○ 최정욱 위원

그렇게 그렇게만 되면, 주면 우리는 분양하면 되는데.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예, 그렇습니다.

○ 최정욱 위원

과연 이 사람이, 만약 둘이 합의가 안 되면?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지금……

○ 최정욱 위원

그럼 다시 소송을 해야 되잖아.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2개 기업이, 2개의 업체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곳은,

○ 최정욱 위원

잘 될 것 같아요?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그렇습니다.

○ 최정욱 위원

잘하십시오, 그럼.

○ 위원장 조인호

조영식 위원님.

○ 조영식 위원

그러고 방금 또 여기에 관련된 건데 특혜 의혹이 생기지 않게끔 잘 부탁드립니다.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예.

○ 조영식 위원

잘못 들으면 이게 지금 특혜,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럴 수 있죠?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예, 그렇습니다.

○ 조영식 위원

경제교통과에서 지금 예산이 전년 대비 39억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갑자기 5,000만 원짜리가 튀어나오면 당연히 위원으로서 질문하겠죠. 그래서 간단히 하나만 묻겠습니다. 437쪽 운수 업체 지원 및 차량 관리에서 연구 용역비 완도군 제5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수립 용역이라는데 이게 어떤 걸 말합니까?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이거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따라서 매 5년마다 의무적으로 이렇게 용역을 시행해서 이 교통약자분들의 이동편의를 어떻게 더 개선할지에 대한 내용을 용역으로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년에 5년차가 되기 때문에 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 조영식 위원

의무적으로 5년마다 한 번씩은 용역비를 해서. 그런데 실제로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버스 승강하는 거, 알죠? 약자들이 도로변에서 바로 이동할 수 있게끔. 요즘 노후화되면서 아마 거의 대부분이 교통약자들, 또 장애인이나 노후 어르신들이 버스를 많이 이용하는데 그 용역비에 이렇게 용역만 할 것이 아니라 그걸 또 실행하는 이 단계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실질적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 조영식 위원

지난 3년 동안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번 용역을 하면 실행되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잘 알겠습니다.

○ 조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호

과장님, 엊그저께 행정사무감사 시 오토차 연장 이용시설 운송수송 차량 연구 해봤어요?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떻게든지 조례를 제정하든지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호

고민만 하면 안 되고 빨리 조치가 돼야 합니다.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호

경제교통과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

○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문화예술과장 한지영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59쪽입니다. 문화예술과 2026년도 본예산은 전년도 74억 508만 8,000원 대비 51억 3,262만 원이 증액된 125억 3,770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일반 게임 산업법 위반 게임물 수거 운송비 700만 원, 문화예술 전시회 1,000만 원, 완도 연등축제 3,000만 원, 문화예술단체 활동 지원사업 6,500만 원, 지역 문화예술 진흥 사업 1억 3,000만 원, 완도 문화원 지역 문화 사업 1억 3,900만 원, 완도 문화원 운영비 1억 1,500만 원, 완도 예총 운영비 4,040만 원입니다. 다음은 460쪽입니다. 문화예술 일반 전남영상위원회 운영비 3,000만 원, 문화예술 공연 뮤지컬, 연극 등의 공연 행사 1억 5,000만 원, 대중가요 콘서트 행사 1억 5,000만 원, 야외음악당 버스킹 공연 3억 5,000만 원, 완도풀 문화체육 콘서트 2억 원, 약산면 야외 공연장 설치 사업 실시설계 용역 2,000만 원, 문화의 날 운영 찾아가는 읍면 문화 공연 4,000만 원, 문화가 있는 날 구석구석 문화 배달 2,000만 원, 생활문화센터 운영 관리 생활문화센터 풀베기 1,494만 원, 생활문화센터 승강기 유지비 600만 원. 다음은 461쪽입니다. 생활문화센터 운영 관리 생활문화센터 건축물 관리 정기 점검 수수료 500만 원, 생활문화센터 전기안전 점검 수수료 750만 원, 생활문화센터 무인경비 용역비 756만 원, 생활문화센터 CCTV 시스템 수수료 756만 원, 생활문화센터 화장실 비데 및 공기청정기 렌탈료 900

만 원, 생활문화센터 실내 놀이터 청소 용역 600만 원, 생활문화센터 냉난방기 청소 용역 600만 원, 생활문화센터 소규모 수선비 600만 원, 완도 생활문화센터 소방시설 유지 수선비 1,000만 원, 생활문화센터 3종 시설물 전기안전 점검 수수료 500만 원, 신지 생활문화센터 건물 방수 공사 2,000만 원, 생활문화센터 수목 정비 500만 원, 생활문화센터 소규모 긴급 보수 1,000만 원. 다음은 462쪽입니다. 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공연, 전시 관련 홍보물 제작 500만 원, 문화예술의 전당 공기청정기 렌탈료 604만 8,000원, 문화예술의 전당 문화홀 관리 위탁 용역 2,600만 원, 문화예술의 전당 운영비 2억 3,400만 원, 문화예술의 전당 공공시설 보수 1,000만 원, 문화예술의 전당 공연동 에어컨 설치 2,000만 원, 문화예술의 전당 무대 안전 진단 700만 원. 다음은 463쪽입니다. 작은 영화관 운영 작은 영화관 수선 유지비 500만 원, 영사 장비 유지 관리 용역 1,400만 원, 민간위탁 운영 3,000만 원, 작은 영화관 상영 시스템 설치 2억 5,600만 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8억 2,515만 원, 시군 역사 문화 자원 발굴 및 교육 사업 시군 역사 문화 자원 발굴 및 교육 사업으로 5,400만 원. 다음은 464쪽입니다. 원교 이광사 문화거리 유지 관리 원교 이광사 유배지 관리 인부임 1,079만 원, 민자 사업 정부 지급금 문화예술의 전당 정부 지급금 6억 7,240만 6,000원, 완도군 문학상 개최 및 운영 관리 완도군 문학상 운영위원회 운영 및 참석 수당 600만 원, 완도군 문학상 심사위원회 운영 및 심사 수당 1,700만 원, 제1회 완도군 문학상 시상금 4,000만 원. 다음은 465쪽입니다. 국가 유산 관리에 문화유산 보존 관리 감정평가 수수료 500만 원, 문화유산 명예 관리 보상 1,680만 원, 국가지정 유산 보존 관리에 국가지정 문화유산 관리 인부임 2,282만 5,000원. 다음은 466쪽입니다. 국가지정 유산 보존 관리에 국가유산 재난 방지 시설 점검 수수료 1,584만 원, 소방안전관리 대행 용역 수수료 1,920만 원, 명승 소규모 수선 유지비 1,200만 원, 국가지정 유산 소규모 긴급 보수 1,000만 원, 소안 맹선리 상록수림 보호 펜스 설치 사업 1,000만 원. 도지정 유산 보존 관리입니다. 도 지정 문화유산 소규모 긴급 보수 1,000만 원. 향토문화유산 보존 관리 향토문화유산 관리 1,942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467쪽입니다. 향토문화유산 보존 관리에서 당제 전통문화 행사 600만 원, 완도 향교 전통문화 전승 사업 지원 1,050만 원, 열두군고 향토문화유산 보존 및 전승 지원 1,000만 원, 향토 유적 시설 정비 사업 6,000만 원, 생일 발광대놀이 물품 구입 800만 원. 다음은 468쪽입니다. 국가지정 유산 보수 정비 지원 보길 윤선도 원림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공사 1억 원, 보길 윤선도 원림 판석보 보수 정비 9,000만 원, 보길 윤선도 원림 수계 토사 정비 2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69쪽입니다. 도 무형문화유산 전승 지원사업에서 완도 장좌리 당제 및 당굿 전승 지원금 3,600만 원, 조선장 전승 지원금 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70쪽입니다. 전통사찰 도시 정비 사업에 생일 학서암 대웅전 증축 공사 3억 6,000만 원, 전통사찰 방재 시스템 유지 보수 2,100만 원. 고금 이순신유적지 운영 관리에서 이순신유적지 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3,163만 9,000원, 이순신기념관 리플릿 제작 500만 원, 이순신기념관 체험용품 구입 900만 원. 다음은 471쪽입니다. 고금 이순신유적지 운영 관리에서 소규모 수선 유지비 1,000만 원, 주변 시설 및 보수 정비 2,000만 원,

고금 역사 공간 관광자원 활성화 사업에서 25억 원. 그리고 완도 묘당도 이충무공 기념공원 활성화 사업 4억 원입니다. 다음은 472쪽 생물권 보존 지역 관리 용역에 홍보물 제작 2,000만 원, 도서관 시설 유지 관리에서 무인경비 용역 수수료 1,152만 원, 신문, 잡지 간행물 구독료 960만 원, 전자책 구독료 660만 원, 도서관 각종 비품 렌탈료 2,460만 원, 공공도서관 환경 관리 물품 구입 1,520만 원, 정화조 및 물탱크 청소료 600만 원, 소방시설 전기 점검료 1,056만 원입니다. 다음은 473쪽입니다. 도서관 시설 유지 관리에서 공공도서관 CCTV 시스템 수수료 528만 원, 도서 관리 및 전산 시스템 통합 유지 보수 1,508만 6,000원, 청해이북 전자책 유지 보수 1,747만 원, 금일, 노화 공공도서관 소규모 수리 수선비 500만 원, 웹 기반 자료 관리 시스템 구축 2,000만 원, 도서 요약서 서비스 구축 1,000만 원, 3종 시설물 전기 안전 점검료 750만 원. 독서문화진흥 프로그램 운영에서 도서관 행사 재료비 구입 1,200만 원. 다음은 474쪽입니다. 독서문화진흥 프로그램 운영에서 독서 동아리 운영 1,400만 원, 독서문화진흥 행사 2,400만 원, 독서문화진흥 강사 수당 600만 원, 장소 확충 및 시설 보완에서 도서 정리 용품 구입 640만 원, 도서 데이터 장비 대금 640만 원, 노화 공공도서관 안전 펜스 교체 공사 1,000만 원, 노화 공공도서관 문화강좌실 시설 개선 공사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75쪽입니다. 장서 확충 및 시설 교환에서 도서관 관리 서버 구입 4,600만 원, 공공도서관 도서 구입 800만 원, 특화 도서 구입 600만 원, 작은 도서관 운영 지원에서 작은 도서관 독서문화진흥 행사 1,200만 원, 작은 도서관 운영 지원사업 1억 2,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76쪽입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 지원에서 작은 도서관 도서 구입 지원사업 500만 원,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사업에서 도서관 자료실 야간 운영 1억 7,400만 원, 복합문화도서관 건립에서 실시설계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7쪽입니다. 장보고대사 선양 사업에서 창작 판소리 세계장보고 공연 4,000만 원, 장보고 기념사업 건립 준공식 1,000만 원, 제4회 장한상수상자 세계대회 개최 1,000만 원, 완도 장좌리사지 정밀 발굴 조사 2차 1억 1,000만 원, 제4회 장한상수상자 세계대회 개최 6,000만 원, 제11회 장한상수상자 완도 힐링 투어 1,175만 원입니다. 장보고대사의 업적 알리기 사업 2,500만 원. 장보고대사 역사 발굴 및 현지답사 1,000만 원, 장보고 글로벌정신 선양 사업 민간위탁 2억 5,000만 원, 장보고한상 명예의 전당 전시물 업데이트 3,000만 원, 장보고한상 디지털 아카이브 전시 콘텐츠 제작 및 설치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8쪽입니다. 장보고대사 선양 사업에서 온라인 장보고한상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5,000만 원, 장보고한상 명예의 전당 운영에서 장보고한상 및 청해사 잔디 관리 일시 사용 인부임 1,280만 원, 운영 비품 렌탈료 880만 원, 장보고한상 명예의 전당 시설물 유지 관리비 1,100만 원입니다. 장보고한상 명예의 전당 주변 놀이시설 유지 관리 500만 원입니다. 국가유산 완도 청해진 유적 관리에서 법화사지 풀베기 인부임 999만 원, 청해진 유적 소규모 수선 유지비 500만 원. 다음은 479쪽입니다. 국가유산 보수 정비에 수목 정비 및 예초에서 1억 5,000만 원, 국가유산 경관 개선 사업에서 완도 청해진 유적 국가유산 경관 개선 사업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한 문화예술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년 문화

예술 사업 추진을 위해서 사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조인호

문화예술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궁희 위원님.

○ 허궁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463쪽 작은 영화관 상영 시스템 설치비가 새롭게 된 건가요?

○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예. 지금 작은 영화관이 개관한 지 오랜 시간이 됐습니다. 2017년에 개관한 이후로 너무 오랫동안 이용하다 보니까 이 시스템을 새로 교체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 허궁희 위원

교체할 때 돼서 교체하겠다는 거죠?

○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예.

○ 허궁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호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예산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4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산회)

○출석위원(8인)

조인호　박성규　지　민
박재선　박병수　최정욱
허궁희　조영식

○출석공무원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관광실장	안환옥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행정지원과장	이기석
세무회계과장	천종실
민원봉사과장	김용식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건설과장	김진원
안전총괄과장	이홍용

○ 전문위원 : 박영민

○ 전문위원 : 전문희

○ 속 기 사 : 임은주

제334회 완도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12월 05일(금)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26년도 예산안(완도군수 제출)

- **인구일자리정책과**
- **농업축산과**
- **체육진흥과**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조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

1. 2026년도 예산안(완도군수 제출)

그러면 2026년도 예산안을 속개해서 상정합니다. 부서별 제안 설명을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일자리정책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일자리정책과**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3쪽 계속비사업 조성입니다. 우리 실의 소관 사업은 총 3개 사업 284억 원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노소보 다어울림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 70억 원, 청년공공임대주택 건립 사업 194억, 다어울림 복합문화공간 조성 20억 원입니다. 다음은 207쪽입니다. 우리 실 2026년도 총예산액은 금년도보다 68억 3,304만 9,000원이 감액된 85억 1,456만 2,000원입니다. 감액된 주요인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이 완료된 사업이 되다 보니까 빠진 게 있고 내년도 기금 사업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추경이 반영되면 예산액은 증액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중간에 연구용역비 인구감소대응 기본 계획 및 시행 계획 수립 용역 5,000만 원입니다. 여기는 인구감소지역 특별법 제6조에 따라서 5개년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된 법정 계획 수립하는데 들어간 비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2차 보증금 신혼부부 주거비용 대출 이자 지원사업 1,000만 원입니다. 이거는 전세자금대출 이자를 지원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대 25만 원씩 36개월간 지급됩니다. 하단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 인구감소 기업 지자체 부담금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청년정책 언론 홍보비 1,452만 원, 기타보상금, 신혼부부 다자녀 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5,580만 원 여기에서는 주택 매입 자금에 대한 대출 이자를 지원한 것이고요. 최대 25만 원 여기도 36개월간 지급 예정입니다. 다음 중간에 노소보 다어울림 복합문화공간 조성,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이게 준공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게 됐는데 필요한 기간제 보수가 되겠습니다. 노소보 총괄매니저, 청소, 아이 돌봄 인력 채용을 위해 각각 2,588만 3,000원, 4대 보험 및 시간외수당 780만 원, 공공 운영비로 수도, 전기 및 안전관리 선임비 1,500만 원, 행사 운영비로 노소보 다어울림 복합문화공간 프로그램 운영비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09쪽입니다. 자산 취득비 여성과 다어울림 생활용품 및 집기구입비 1,000만 원, 하단에 청년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행사 운영비, 전남형 청년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네트워크비 500만 원입니다. 민간 경상 사업 보조 5개 팀에 600만 원씩 지원하는 과업 수행 활동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기타보상금으로 청년 취업자 전월세 지원비 1,200만 원,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사업 기타보상금 23년부터 25년까지 대상자 61명에 대한 월 10만 원 통장 매칭 지원금으로 6,720만 원, 청년 부부 결혼 축하금 지원 기타보상금, 청년 부부 등으로 결혼 축하금 지원비 1,400만 원. 여기는 도내 49세 이하로서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초·재혼 부부들한테 부부당 2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25년도에는 11월 말 기준 58쌍의 신혼부부가 있었습니다. 부족액은 내년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청년 센터 운영 기간제 근로자 보수 전담 매니저 인건비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1쪽입니다. 청년 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800만 원, 행사 운영비, 청년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2,500만 원, 시설비로 청년 센터 방수공사비 1,000만 원인데 이거는 1층 남자 화장실 쪽에 방수가 있어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남 청년 문화 복지카드 지원사업 민간 위탁금 5억 1,37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19세부터 28세의 청년들한테 1인당 25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영화나 도서, 학원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우리 군 대상자는 약 3,00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청년 정책 활성화 지원사업 행사 운영비로 청년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비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 상반기에 3,100만 원, 하반기에 3,400만 원이기 때문에 상반기 비용만 반영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간 위탁 교육비 청년 취·창업 맞춤형 교육비 2,600만 원. 이거는 드론 교육을 위해서 활용할 계획이고요. 드론이 해경이나 소방공무원 가산점이 5% 적용이 되고 군인들

도 드론 부대에 입대하는데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다음은 완생 청년 상가 운영 민간인 위탁 교육비 청년 상가 컨설팅 및 우수 기업 벤치마킹이 500만 원 청년 상가에서 운영 활성화하는데 지원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청년 상가 시설 유지 관리비 500만 원, 청년 상가 시설 방수공사 2,000만 원입니다. 방수공사는 1층에 서점하고 카페에 있는 쪽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일부 누수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를 보완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공모 사무관리비 지방소멸대응기금 보고 PPT 제작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연구용역비 2027년 지방소멸대응 기금 자원 발굴 연구 용역 3,000만 원 전라남도 마을 공동체 활동 지원사업 민간 경상 사업 보조 씨앗 분야 7개소에 3,500만 원, 새싹 분야 1개소에 1,000만 원. 하단에 행복 드림 추가 부분비 지원사업 민간 경상 사업 보조 마을 돌봄 활성화를 위한 지원비 7개소에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4쪽입니다. 완도군 사회적 공동체 지원 센터 운영 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센터장 인건비로 3,960만 원, 2명의 사무관 인건비로 5,723만 2,000원, 국내 여비 900만 원, 4대 보험료 기간 부담금 1,000만 원, 사무관리비 사회적 공동체 지원 센터 사무실 임차비로 1,100만 원. 하단에 마을 공동체 공모사업 컨설팅 지원사업, 기타보상금 569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입니다. 중반에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구인 3억 3,300만 원, 지역 공동체 일자리 재료 구입비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역 공동체 일자리는 8개 읍면 약 120명이 대상이 됩니다. 공공근로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상반기 인부임 4,500만 원, 공공근로사업 재료비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 4개 위원회 40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입니다. 상단에 지역 일자리 공시제 연구용역비,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 컨설팅 용역비 1,900만 원입니다. 여기는 고용정책기본법 제9조의2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임기에 추진한 일자리 창출 대책을 수립해서 공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선 9기를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중앙에 행안부형 마을기업 육성 사업, 민간인 경상 사업 보조 행안부형 마을기업 육성 사업 5,000만 원. 이거는 1개소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다음 예비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민간 대상 사업 보조 2,200만 원 여기는 3명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단에 사회적경제기업 사업 개발비 지원사업 민간 사업 보조 사회적경제기업 사업 개발비 지원사업 2개소에 3,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시설 장비 지원사업 민간 자본 사업 보조 이전 재원 사회적경제기업 시설 장비 지원사업 2개소에 3,100만 원입니다. 여기는 자부담 20%는 별도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기업 자립화 지원사업 민간 경상 사업 보조 사회적경제기업 자립화 지원사업 2개소에 2,000만 원, 전남 청년 장려금 지원사업 민간 경상 사업 보조 전남 청년 근속 장려금 지원사업 6,550만 원으로 정규직 청년 취업 촉진 및 장기 분석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지원 대상은 13명이고요. 기업과 개인한테 찾으면서 지원을 합니다. 하단에 신중년 일자리 장려금 지원사업 민간 경상 사업 보조 중장년층 취업 촉진을 위한 장려금으로 1,4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입니다. 지역

연계형 청년 창업 지원사업 공기업 등에 대한 경상 위탁 사업비 지역 자원 연계형 청년 창업 지원사업 6,832만 원인데요. 여기는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 위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3명입니다. 전남형 예비 마을기업 육성 사업 민간 경상 사업 보조 전남형 예비 마을 기업 육성 2,000만 원. 여기는 1개소가 대상이 됩니다. 전남 청년 희망 일자리 지원사업 기관 등에 대한 경상 위탁 사업비 전남 청년 희망 일자리 지원사업 4,848만 원. 여기는 5명이 대상이 되고요. 전라남도 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에 위탁을 합니다. 하단에 일자리 우수 기업 인증 사업 민간 자본 사업 보조로 25년 일자리 우수 인증 기업에 고용 환경 개선 자금 지급을 위해서 1,3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거는 농공단지 하나물산이 있습니다. 다음은 219쪽입니다. 전남형 예비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민간 경상 사업 보조 전남형 예비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1,000만 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기간제근로자 보호 등 보수 외국인 문화센터 매니저 인건비 2,979만 6,000원입니다. 여기도 외국인 문화센터가 준공이 돼서 본격적인 운영을 앞두고 필요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차량 임차 통행료 등 1억 6,796만 원, 행사 운영비로 외국인근로자 어울림 한마당 행사 2,000만 원. 금년에 1,000만 원 가지고 했는데요. 내년에는 좀 더 확대해서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행사 실비 지원금 계절근로자 입출국에 따른 급식비로 2,800만 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보험금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어업인 안전 보험료 9,350만 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효율화 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어업 분야 어부 소통 도우미 인건비 1,380만 원, 민간 이전 의료 및 회복비로 어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긴급 의료비 지원 1,27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외국인근로자들이 다쳤을 경우에 긴급 의료비로 1인당 25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음 221쪽입니다. 투자 유치 활성화 지원사업 사무관리비로 투자 유치 홍보물품 제작비 500만 원, 완도군 투자 유치 자문위원 수당 500만 원, 예비 소통, 예비 초청 여비로 투자자 초청 팸투어 추진비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촌 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민간 경상 사업 보조 일반 마을 농촌 체험 휴양마을 운영 매니저 지원 4,659만 1,000원. 으뜸촌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 매니저 지원 2,588만 4,000원. 으뜸마을은 1개소고 일반 마을은 2개소가 되겠습니다.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민간 경상 사업 보조 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4,020만 4,000원. 여기는 노화읍과 보길면 되겠습니다. 귀농산어촌 어울림 마을 조성 민간 경상 사업 보조 귀농산어촌 어울림 마을 조성 사업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개소당 1,500만 원을 3개소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경상 사업 보조 농촌에서 살아보기 1억 3,800만 원인데요. 여기는 농촌에서 살아보기 참여하신 분들한테 숙박비, 프로그램 운영비, 멘토 지원비, 연수비, 마을 지원금 등 1인당 월 약 200만 원 정도 지급을 합니다. 농촌 체험 휴양마을 통합 플랫폼 가입 지원 민간 경상 사업 보조 60만 원, 귀농어귀촌 유치 지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귀농어귀촌 상담 운영 인부임 3,095만 원, 귀농어귀촌 유치 지원 사무관리비, 귀농어귀촌 활성화 운영비 5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24쪽입니다. 귀농산어촌 박람회 참가 사무관리비, 귀농산어촌 박람회 참가비 홍보 팜플렛 제작 및 부수 임대료 활용 행사 운영비로 박

람회 참가 행사 지원 1,200만 원. 귀농어귀촌 협의회 육성 기업 민간 경상 사업 보조 귀농어귀촌 협의회 육성 지원 700만 원. 이 사업비는 시군 어울림 대회 참가라든지 성인지 결합에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귀농어귀촌 희망학교 사무관리비 버스 임차비 600만 원, 강의실, 숙소 임대료 500만 원, 기타보상금 귀농 기여 희망 학교 강사 수당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농촌 체험 마을 역량 강화 교육 민간 경상 사업 보조 144만 원, 귀농어귀촌 동네 작가 사무관리비, 귀농어귀촌 동네 작가 운영 750만 원, 귀농어귀촌의 정착 및 주택 수리 민간 경상 사업 보조 귀농어 정착 및 주택 수리비 5가구 2,500만 원, 귀농인 정착 및 주택 수리비 10가구 5,000만 원, 귀촌인 정착 및 주택 수리비 5가구 2,500만 원. 귀촌인에 대한 지원은 내년도에 신규로 반영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질문 사항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귀농어귀촌의 우수 창업 활성화 지원 민간 경상 사업 보조 귀농어귀촌 우수 창업 활성화 지원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귀농어귀촌인 이사비 지원, 기타보상금 귀농어귀촌인 이사비 지원 1,500만 원 여기도 위원님들 주문에 따라서 신규로 내년도에 반영했고요. 1인당 30만 원을 지원하고 약 30명한테 선착순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청년 어촌 정착 지원사업 사무관리비 200만 원, 민간 경상 사업 보조 청년 어촌 정착 지원사업 3억 5,160만 원 대상자가 약 29명이 되겠고요. 1차 연도에는 월 110만 원, 2차 연도에는 월 100만 원, 3차 연도는 월 90만 원을 지원합니다. 하단에 도심 유치 주거 지원 시설비, 귀농인 체험장 정원 축사 수거비 5,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여기는 신지에 있었던 본사를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해서 했는데 그 건물이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귀농인 체험장 목적으로 우리 군에서 매입을 했기 때문에 거기 슬레이트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날아와서 주변에 주민들이 굉장히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해서 우선 슬레이트 철거를 비롯한 큰 건물부터 철거하는 비용이 최소 우선 5,000만 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남형 새뜰하우스 지원 시설비 전남형 만원 세컨하우스 지원 1억 4,000만 원 내년도에는 두 동을 리모델링하거나 모듈러 주택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평생학습 도시 운영 행사 운영비, 평생학습 박람회 행사 800만 원, 행사 실비 지원금 행복 학습매니저 실비 1,440만 원, 도선비, 숙박비 등 실비 1년에 70% 3,8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타보상금 행복 학습매니저 활동비 1,260만 원, 평생교육 운영 강사로 1년에 70% 2억 8,000만 원, 민간인 위탁교육비 평생교육 활동가 역량 강화 교육 2,20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평생교육 이용권 군비 부담금 630만 원, 수강생 고지 신문 광고료 605만 원, 성인 문해교육 사무관리비 학습 지원 물품 구입비 800만 원, 행사 실비 지원금 찾아가는 문해교실 실비 1년액의 50%인 1,250만 원, 기타보상금 찾아가는 문해교실 강사로 1년에 50%인 1억 500만 원, 민간 경상 사업 보조 성인 문해교육 지원 5개소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인 위탁 교육비 문해교사 보수교육 운영 1,500만 원, 문해교사 수업 컨설팅 700만 원. 문해교사들이 찾아가는 것까지 하고 있는데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내년에 이거를 신규로 반영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 자본 사업 보조 디지털 학습기기 지원 2개소에 2,000만 원, 장학 진흥 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 농산어촌 유합 단지

관리 인건비 664만 원. 여기는 특히 풀베기 등 필요한 한시 인부임에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Pre완도지질박람회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버스 임차비 1,500만 원, 공공 운영비로 농산어촌 유학 단지 유지 관리비 500만 원, 사회 보장적 수혜금 초중고생 입학 축하금 지원 1억 5,350만 원, 출연금 장보고장학회 장학기금 20억 1,320만 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사업 군비 부담금 4억 3,892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진로체험지원센터 위탁 운영비 5,000만 원, 학교 교육시설 지원 보길초등학교 다목적 교실 증축비 1억 원, 이거는 대규모 투자가 되겠습니다. 부기에는 고금, 노화, 생명소까지 돼 있는데요. 교육청 예산을 확인해 보니까 거기도 예산이 여유가 없어서 내년도에 본예산에 보길초등학교 다목적 교실 증축비만 반영이 돼 있다고 그럽니다. 나머지는 도 교육예산 추경이 확보되는 걸 봐가면서 군비를 추가로 대보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남도 완도 교육자치 협력 기금 운영 2억 원,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사업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1억 3,507만 8,000원,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시군구 교육비 특별회계 법정전출금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전출금 군비 2억 4,153만 7,000원, 교육 발전 특구 운영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수산고 해양수산 특화 공동 교육과정 운영 지원 2,5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231쪽입니다. 행사 운영비 지역 인재 양성 프로그램 운영비 9,600만 원인데요. 여기는 조금 폭 넓게 쓸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지역의 학부모라든지 학생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뭔가를 조금 더 고민해서 사업 내용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진로 진학 상담에도 아마 이 예산에서 집행도 가능할 걸로 보고요. 이거는 폭넓은 협의를 진행한 다음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용역비 교육 발전 특구 성과 평가 대비 용역 500만 원인데요. 교육 발전 특구는 내년 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연말에 성과 평가를 통해서 다음 연도 국비 지원이 결정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고등학교 졸업생 채용 인건비 지원 3,360만 원 여기는 우리 관내 고등학교 졸업한 고등학생을 채용하는데 인건비의 50% 월 7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최대 1년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관내 고등학교 졸업생 주거비 지원 2,400만 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 관내 고등학교 졸업생이 취업을 했을 때 거기에 필요한 주거비를 최대 월 20만 원 최대 1년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실습생 채용 인건비 지원 2,52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여기는 수고생, 재학생들은 졸업생 대상이 되겠고요. 인건비의 50% 월 70만 원, 최대 1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인구일자리정책과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호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제안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욱 의원님.

○ 최정욱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7페이지에 보면 연구용역비 6,000 세우셨죠? 인구감소대응 기본 계획 및 시행 계획 이거 몇 년 전에 한 번 더 했었죠?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예. 이게 5년에 한 번씩 하도록 「인구감소지역 특별법」에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정 계획이기 때문에 또 27년부터 31년을 대상 기간으로 하는 5년간 기본 계획을 수

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용역비가,

○ 최정욱 위원

이거 의무적으로 한 거예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예, 법정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최정욱 위원

이거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제대로 한 번 했으면 해서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의원님 뜻하신 바가 뭔지 알겠는데 이게 예산 소요나 이런 거 봤을 때 그동안 했던 걸 봐서 최대한 그 내용을 의원님이 생각하신 부분을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과업지시서나 그때에도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정욱 위원

218페이지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이라는 게 뭐가 있었나요, 민간 경상 사업 보조해서?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마을기업이 사회적경제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기업에다가 육성 사업을 지원하는데요. 이 부분은 여기에 1개소가 대상이 되겠고 인건비, 운영비, 시설 및 자산 취득비 등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2,000만 원 예산인데 여기에 마을기업에서도 자부담 20%는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 최정욱 위원

현재 마을기업에다가 지원한다는 얘기죠?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그렇습니다.

○ 최정욱 위원

222페이지. 귀농 귀어촌 어울림 마당 조성 사업이라 해서 1,503개소 이렇게 한다고 했거든요. 이거는 뭘까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여기는 최근 10년간 해당 마을로 전입한 가구 수가 많은 마을을 선정을 해서 그래서 "3개 마을은 개소당 1,500만 원씩 지원하겠다." 기존에 있는 분들하고 새로운 분들하고 서로 어울리면서 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최정욱 위원

그럼 그 마을에다 준다는 얘기인가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그렇습니다.

○ 최정욱 위원

기초를 마련한 마을에다가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그렇습니다.

○ 최정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호

박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병수 위원

실장님,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214페이지 상단에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인구 일센터 운영 이런 과정인데 여기서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아까 말씀드렸던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활용이 새롭게 만들려고 할 때 그걸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지원된 사업을 어떻게 추진되는가 점검해 주고 사업비 정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박병수 위원

그분들이 여기 할 일이 많이 있습니까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생각보다 일이 많습니다. 민간인들이 일반 행정 업무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서포트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박병수 위원
금년까지 예산에서는 도·군비로 해서 지원을 안 했던가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작년까지는 도비가 지원이 됐는데요. 작년 2년간인가 도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완료가 되고 올해부터는 100% 군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박병수 위원
이 연구 사업 계획이라든가 지금까지 한번 그 실적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호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허궁희 위원님.
○ 허궁희 위원
실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 220쪽에 제일 위에 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어업인 안전 보험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어가들에서 부담한 거 아닌가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어업인 안전 보험인데 어가들이 가입을 하고 군비에서 계속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 허궁희 위원
지원을 계속해 왔어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그렇습니다.
○ 허궁희 위원
그러면 지역 비자로 들어온 사람들은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내국인 계절근로자,
○ 허궁희 위원
계절근로자만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그렇습니다.
○ 허궁희 위원
상당한 특혜를 주네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왜냐하면 우리 군에서 직접 주도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 사람들의 모든 신원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걸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허궁희 위원
지역에 취업비자로 들어온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피해자가 되고 계절근로자들은 포함이 되고 조금 차등성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이번에 조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허궁희 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225쪽, 제일 하단에 있는 귀농 귀어촌 우수 창업 활성화 지원이라 해서 3건이 있는데 어떤 분들이 지원을 받는 건지요? 상당히 많던데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여기는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또 합니다. 심사를 해서 하는데 이거는 어떤 분들이라고 보기보다는 기여한 사람 중에서 "자기가 창업을 해보겠다. 이런 아이템 갖고 해보겠다."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신청하고 심의회를 통해서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허궁희 위원
이렇게 귀어, 귀촌을 한 분들 중에 지원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이 지원을 못 받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생활하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다소 있어서.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어떤 분은 제 기억으로도 세 번 신청했는데 안 되신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걸 심사위원들이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도 세 번 연속 신청했는데 이상하게 제가 봤을 때는 가

능할 걸로 보이는데 합산해 보면 안 되더라고요.

○ 허궁희 위원

어떤 분들이 심사위원으로 앉아 계신 거는 모르겠는데요. 그런 분들이 현지를 가서 한 번씩 봐야 돼요. 앉아서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오는 것이지 왜 그러냐면 제가 알기로는 그분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활동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하소연을 하는 게 "말로만 지원이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선정을 할 때는 반드시 현지를 한두 번 정도는 가서 그 사람들의 생활력 이런 모든 걸 참고해서 선정을 해야 맞다고 저는 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예. 심사할 때 현지 방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허궁희 위원

그리고 마지막 226쪽 하단에 있는 아까 그 돈사, 내가 이걸 제안을 한 건데요. 몇 억을 주고 땅을 사서 계속 그렇게 놀려놓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건물이 노후화되니까 바로 마을하고 인접해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부분도 있어요. 태풍이라도 진짜 왔으면 그 피해가 상당히 있었을 거예요, 전답도 많고.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도 일부 예산만 조금 세웠는데 검토해서 계획만 세울 일이 아니라 실천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그 아까운 땅을 적은 돈도 아니고 투자해서 매입을 했으면 또 거기에 맞는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른 데는 아끼더라도 정리를 할 건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집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저는 이런..... 기획예산실장님, 왜 그러냐면 매입을 해주면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참고하시라고 지적을 합니다.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예. 이거는 기존에 있는 돈사를 철거하는 게 목적이다 보니 이게 군청에서 매입할 때 어떤 행정 목적으로 사용할 거야를 쓰다 보니까 귀농인 체험장으로 이렇게 관리가 돼서 농업축산과에서 작년까지 계속해서 관리하다가 올 초에 의원님께서 그 지적을 하니까 이걸 귀농인 체험장이니까 우리 쪽으로 이관이 돼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찌 됐거나 그 책임 부분을 따질 건 아니고요. 이런 활용 방안을 한번 폭넓게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허궁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호

일자리정책실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축산과

○ 농업축산과장 이정국

농업축산과장 이정국입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5쪽입니다. 농업축산과 2026년 본예산은 2025년도 본예산 대비 10억 8,645만 3,000원이 감액된 26억 3,749만 9,000원입니다. 농업축산과 세부 사업 세출 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촌관광 지원 경관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경관 작물 동계, 하계 관리 인건비 1억 6,600만 원 사무관리비 경관관리 동계, 하계 조성 장비 임차비 1,500만 원 재료 및 관광지 관광 관리 비료 구입 1,500만 원, 관광지 경관관리 영양제 등 구입 3,000만 원, 관광지 경관관리 및 종자 구입 6,000만 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경관관리 트랙터 동력제초기 구입 2,000만 원입니다. 506쪽입니다. 경관보전 직불 기타 보상금 경관보전직불제 사업 3,578만 6,000

원으로 전년 대비 67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경관보전직불제 자체 기타보상금 경관보전 직불금 68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70만 원 증액했습니다. 세계중요농업유산 보존 관리 모니터링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보조 민간 경상 보조 세계중요농업유산 청산도 구들장 논 지원 1억 원으로 전년 대비 3,000만 원 증액했습니다. 청산도 구들장 논 보존협의회 운영 관리 민간 경상 사업 구조 청산도 구들장 보존협의회 지원사업 2,588만 4,000원, 청산도 구들장 논 보존협의회 운영비 1,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07쪽입니다. 농촌 공간 정비 사업 청산도 상설 지구 시설비 농촌 공간 정비 사업 12억 600만 원은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전년 대비 5억 3,100만 원 증액했습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기타보상금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10억 2,12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880만 원 감액했습니다. 농업인 공익 수단, 사회적 보장적 수혜금 지방 지원, 농어민 공익 수당 61억 9,32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억 4,000만 원 감액됐습니다. 본 감액된 것은 지급 대상자들이 발생해서 이렇게 감액된 부분입니다. 농지 이용 관리 지원사업, 기타 근로자 등 보수 농지 이용 실태조사 인건비 7,249만 3,000원, 농지 대장 일체 정비 인건비 8,781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508쪽입니다. 농지 사후관리, 사무관리 및 불법 전용 농지 감정평가 수수료 등 농지 보정 수수료 등 3,000만 원 했습니다. 농업 정책 지원, 기타 근로자 등 보수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사업 전산 관리 용역 인건비 3,000만 원, 사무관리비에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운영비 시민 수당 등 1,764만 원과 농업법인 후속 조치, 법인 해산 명령 청구 등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09쪽입니다. 공공 운영비 농업 법인 및 농지 이용 실태 조사 우편 요금 500만 원, 연구용역비 농업 진흥 지역 해제에 따른 지원, 도면 유지 관리 용역 2,000만 원, 농촌관광 주체 육성 지원 농촌 민박 민간 경성 사업 보조에서 농어촌 민박 소방 안전시설 지원 2,400만 원입니다. 510쪽입니다. 농촌 공동 아이 돌봄센터 운영 지원 민간 경상 사업 보조 농촌 공동 아이 돌봄센터 운영비 및 시설비 지원 2,87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20만 원 증액했습니다. 농번기 돌봄 지원 민간 경상 사업 보조 농번기 돌봄 지원 운영비 지원 4,511만 원, 민간 자원 사업 구조 이전 지원에서 농번기 돌봄 지원, 시설 개선 지원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11쪽입니다. 농촌 왕진 버스 지원사업 민간 경상 사업 보조에서 농촌 왕진 버스 지원사업 5,040만 원, 농어촌 진흥 기금 융자 지원 농어촌 진흥 기금 자치단체 출연금 1억 2,500만 원, 농업 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사업 이차보전금 농업 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 5,67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10만 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512쪽입니다.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민간 경상 사업 보조에서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사업 영농 예탁금에서 2억 2,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129만 8,000원을 증액했습니다. 513쪽입니다. 청년 창업 농장 조성 사업 민간 경상 사업 보조 청년 창업 농장 조성 사업 2,750만 원, 한국농업인신문 보급 사업에서 사무관리비 한국농업인신문 보급 사업 3,374만 4,000원입니다. 514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여성농업인신문 보급 1,750만 원 여성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사업 민간 경상 사업 보조 여성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사업 6,465만 2,000원 계속비인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및 구조 사고 시설 및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2024년도 국비 주거비 1억 2,060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사무국장 인건비 3,600만 원,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사무원 2명 인건비 6,240만 원,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4대 보험료 1,032만 원, 시설비에서 하수도 원인자 부담은 1억 5,000만 원, 농촌치유거점센터 리모델링 공사 3억, 농촌치유거점센터 물품 구입 1억 5,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515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농촌치유거점센터 물품 구입 1억 5,000만 원,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에서 지원비 친환경 농자재 유기질 비료 지원 전환 사업 7억 4,775만 8,000원, 친환경 농자재 유기질 비료 지원 자체 추가분에서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토양 복제 개량 지원 재료비 친환경 농자재 토양 개량제 지원 1억 1,235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516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 기타보상금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 9,170만 원,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 자체 초과분 4,680만 원 친환경농산물 잔류 농약 검사 지원 사무관리비에서 친환경농산물 잔류 농약 검사 지원 1,429만 6,000원 친환경 농업 단지 조성 사업 보상금에서 친환경 농업 단지 조성 지원 2억 3,388만 9,000원, 친환경 농업 단지 조성 사업 자체 사업은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17쪽입니다. 논벼 재배 농가 왕우렁이 공급 지원 민간 경상 사업 보조 논벼 재배 농가 왕우렁이 공급 지원 4,167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2,979만 9,000원 증액했습니다. 유기 농업자재 지원 민간 경상 사업 보조 유기농업자재 지원 1억 6,571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2,568만 6,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518쪽입니다. 비료 가격 안정 지원 재료비 비료 가격 안정 지원 1억 267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1,351만 3,000원 감액됐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보험금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2억 863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9,067만 9,000원 감액됐습니다. 감액된 것은 전년도 집행 실적에 따라서 예산 배정에서 감액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519쪽입니다. 농업인 안전 재해 보험금 지원 2,455만 7,000원, 농기계 종합보험료 지원 4,623만 원, 영농 안전 장비 지원에서 재료비 영농 안전 장비 지원 2,795만 원,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지원 민간 자본 사업 보조 이전 지원 이동식 사용 작업 지원 3,584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목적 소형 농기계 지원 민간 자본 사업 보조 이전 지원, 다목적 소형 농기계 구입 지원 1억 2,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2,100만 원 감액됐습니다.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 민간 자본 사업 보조 이전 지원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 1억 7,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여성 친화형 다목적 소형 전기 운반차 지원 민간 자동 사업 구조 이전 지원 여성 친화형 다목적 소형 전기 운반 배출 7,700만 원, 노후 농기계 조기 폐차 지원 기타보상금에서 노후 농기계 조기 폐차 지원 3,200만 원입니다. 522쪽입니다. 공익직불제 행정비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공익직불제 업무 지원 인건비 6,474만 원, 사무관리비 공익직불제 사업 관리 및 운영비 1,44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업 육성 지원에서 재료비 아열대 작물 재배 농가 토양개량제 지원 1,800만 원, 원예작물 재배 농가 토양개량제 공급 1,400만 원, 감귤 재배 농가 친환경 비료 공급 2,000만 원, 완도산 해조류 유기재 비료 구입 2,000만 원, 완도산 전복 폐사 칼슘제 구입 2,000만 원, 왕우렁이 피해 예방 방제 자재 4,000만 원. 행사 실비 지원금에서 친환경 농업인 선진지 견학 550만 원, 기타보상금에서 수도자 공동 방제 지원 9억

4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8,200만 원 증액했습니다. 민간 경상 사업 보조에서 친환경 인증 농가 유기질 농상토 지원 1,800만 원, 민간 자본 사업 부서 자체 재원 맞춤형 농기계 구입 지원 1억 원, 자연 그대로 농업 지원에서 재료비 유자 재배 농가 영양제 지원 900만 원, 만감류 재배 생육 활성 비료 지원 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원예작물 재배 농가 영양제 지원 700만 원, 방울토마토 재배 농가 친환경 비료 지원 800만 원, 완도자연그대로 육성 농가 유기질 비료 지원 1,000만 원, 민간 경상 사업 보조에서 원예 특용 작물 육성 지원 2,848만 원, 친환경 농업협회 조직 활성화 지원 민간 경상 사업 보조에서 친환경 농업협회 조직 활성화 지원 1,595만 원 농작물 편의 의자 구입 지원 재료비에서 농작물 편의 의자 구입 지원 6,385만 9,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친환경농산물 전략 품목 육성 지원사업에서 기타보상금 친환경농산물 전략 품목 육성 지원 3,000만 원, 논두렁이 조성 효율화 지원에서 민간 자본 사업 보조 1년 지원 논두렁이 조성 효율화 지원 6,337만 8,000원입니다. 친환경 인증 농가 마케팅 지원에서 민간 경상 사업 보조 친환경 인증 농가 마케팅 지원 1,76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업 무인 동력 연무기 지원 민간 자본 사업 보조 자체 지원 농업용 무인 동력 연무기 지원 5,250만 원, 올해 특용 작물 생산 기반 구축 사업 전환 사업 민간 자본 사업 보조 이전 지원 올해 특용 작물 생산 기반 구축 4억 5,421만 6,000원. 원예작물 연작장해 경감제 지원에서 민간 경상 사업 보조 원예작물 연작장해 경감제 지원 2,700만 원, 초등 돌봄 과일 간식 지원사업에서 민간 경상 사업 보조 초등 돌봄 과일 간식 지원사업 1,62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업시설 지원에서 민간 자본 사업 구조 영세농 소규모 하우스 시설 지원 1,470만 원, 과수 생산 기반 구축 사업 민간사업 자본 사업 구조 이전 지원 과수 생산 기반 구축 사업 2,550만 원입니다. 529쪽입니다. 감귤 농가 타이백 구입 지원 재료비 감귤 농가 타이백 구입 지원 2,000만 원, 가뭄 대비 소형 관정 설치 지원 민간 자본 보조 자체 지원에서 소형 관정 설치 지원 1,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유통 활성화 지원에서 사무관리 및 국내 식품박람회 및 직거래 장터 부스 운영 1,980만 원, 농특산품 홍보 부스 운영 해조박람회 2,0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기타보상금 자연그대로 농축산물 수출 장려금 지원 2,000만 원, 전남 브랜드 홍보용 샘플 쌀 제작 지원사업 민간 경상 사업 보조에서 전남 쌀 홍보용 샘플 사업 제작 지원사업 1,95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50만 원 감액했습니다. 전남 쌀 평생 고객 확보 택배비 지원사업 민간 경상 사업 보조로 전남 쌀 평생 고객 확보 택배비 지원사업 2,92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학교 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학교 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 7억 5,001만 원, 학교 급식 GMO 식재료 지원 8,838만 원 학교 급식 식재료 안전성 검사 지원사업 사후관리비에서 학교 급식 식재료 안전성 지원 1,740만 5,000원, 무상급식 지원 보육 시설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무상급식 지원 보육 시설 3,000만 원입니다. 533쪽입니다. GAP 인증 농가 수수료 지원입니다. 기타보상금 GAP 인증 농가 신청 수수료 지원 2,644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2,144만 8,000원 증액했습니다. 농산물 소형 저장고 지원 민간 자본 사업 부서 자체 재원 농산물 소형 저장고 지원 3,25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

다. 농산물 소형 저장소 지원사업 민간 자본 사업 보조 이전 지원에서 농산물 소형 저장고 지원사업 6,300만 원 완도 자연그대로 육성 지원사업 민간 경상 사업 보조에서 완도 자연그대로 통합 포장재 지원사업 1억 원, 완도 자연그대로 유통 물류 및 지원사업 5,000만 원 민간 자본 보조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완도 자연그대로 소규모 농축산물 제조 가공 시설 기반 구축 지원 1,4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로컬푸드 안전성 지원 검사 사업, 기타보상금에서 로컬푸드 안전성 검사 지원사업 2,080만 원, 어르신 등 체험 활동 건강꾸러미 지원 민간 경상 사업 보조 어르신 등 체험활동 건강꾸러미 지원 4,750만 원. 국산 김치 사용 업소 식자재 구입비 지원사업에서 민간 경상 사업 보조에서 국산 김치 사용 업소 식자재 구입비 지원사업 4,8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식품 바우처 기타 보상금에서 농식품 바우처 지원 1억 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400만 원 증액했습니다. 이번 증액은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한 청년까지 확대된 상황입니다. 다음은 537쪽입니다. 물류기기 공동 이용 지원사업 민간 경상 사업 보조 물류기기 공동 이용 지원사업 1,645만 6,000원입니다. 도서 지역 학교 급식 친환경 농산물 구입비 차액 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도서 지역 학교 급식 친환경농산물 구입비 차액 지원 2,000만 원. 538쪽입니다. 다음으로 등록 지원사업, 민간 위탁 사업비 한우 등록 지원사업 6,350만 원, 축산물 이력 관리 지원에서 민간 위탁 사업비 쇠고기 이력 추적제 기표 장착비 3,286만 원, 한우 산업 발전 공기업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에서 한우 인공 수정료 지원 3,000만 원, 한우 유전 능력 검증 지원 500만 원, 한우 소형 검사 및 친자 감별 지원 500만 원, 친환경 퇴비생산 수분 조절제 지원사업 8,000만 원, 산업 구매 자금 지원에서 1억 원입니다. 민간 자본 사업 구조 자체 재원에서 사용 자동화 급이 시스템 설치 지원 2,500만 원, 축사 사료조 설치 지원 2,000만 원, PLF 사용 급이기 지원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 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조사료 품질 관리 지원 4,620만 원 민간 경상 사업 보조 일반 단지 사일리지 제조비 11억 8,605만 6,000원, 전문 단지 사일리지 제조비 4억 2,066만 원, 전문 단지 퇴액비 5,600만 원, 민간 위탁 사업비 일반 단지 종자 구입에서 1억 2,375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사용 기계 장비 지원 민간 자본 사업 보조 이전 지원에서 조사용 기계 장비 지원 일반 단지 1억 5,000만 원, 염소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에서 재료비 염소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 2,15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축산 악취 저감제 지원에서 민간 경상 사업 보조에서 축산 악취 저감제 지원 한우 2,500만 원, 축산 악취 저감제 지원 돼지 1,200만 원입니다. 가축 분뇨 퇴비 부숙용 톱밥 지원에서 민간 경상 사업 보조 가축 분뇨 퇴비 부숙용 톱밥 지원 1,6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축산 보조금 영재 축산물 소비 촉진 지원사업 민간 경상 사업 보조 축산 자조금 연계 축산물 소비 촉진 지원 500만 원, 자연그대로 축산 실천에서 사무관리비 본사 감정평가 수수료 600만 원, 행사 운영비 자연그대로 한우 시식회 행사 지원 500만 원, 재료 및 염소 스트레스 완화제 구입 1,000만 원, 기타보상금에서 한우 고급용 생산성 장려금 지원 1,000만 원, 조사료 유통 지원 장려금 지원 운송비 500만 원, 조사료 곤포 사일리지 제조 장려금 지원 5,400만 원, 민간 자본 사업 보조 자체 재원에서 축산시설

현대화 장비 지원사업 2,000만 원, 가축 분뇨 처리 장비 지원사업 1,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폭염 대비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에서 재료비 가축 폭염 대비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사업 8,58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000만 원 증액했습니다. 가축 폭염 피해 예방 시설 지원사업 민간 자본 사업 보조 이전 지원에서 가축 폭염 피해 예방 시설 지원사업 7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꿀벌 산업 육성 양봉 민간 자본 사업 보조 이전 지원에서 꿀벌 산업 육성 사업 양봉에 2,500만 원,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 기타보상금에서 유기축산물 인증비 지원 6,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00만 원 감액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우 농가 한우 질 향상 지원, 기타보상금에서 한우 농가 한우 질 향상 지원 1,000만 원, 학교 우유 급식 지원 민간 경상 사업비로 학교 우유 급식 지원사업비 5,600만 원, 학교 우유 급식 확대 지원사업에서 민간 경상 사업 보조 학교 우유 급식 확대 지원 도비 2억 4,4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학생 승마 체험 지원 민간 경상 사업 보조 학생 승마 체험 지원 1억 4,336만 원으로 전년 대비 6,24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증액된 것은 2025년도 예산이 적게 편성돼서 산출해서 편성했습니다. 유소년 승마단 운영 지원사업 민간 경상 사업 보조 유소년 승마단 운영 지원비 1,800만 원, 유소년 승마단 운영 지원사업 도비 민간 경상 사업 보조 유소년 승마단 운영 지원 도비 1,500만 원, 유기 동물 보호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동물보호센터 임금 1억 435만 9,000원입니다. 다음 사업 관리비에서 동물보호센터 운영비 2,000만 원, 동물보호센터 부지 임차료 2,000만 원, 동물보호센터 사체 처리비 600만 원, 반려견 훈련사 수당 1,000만 원, 공공 운영비에서 동물보호센터 공공 운영 1,560만 원, 동물보호센터 방역비 500만 원, 재료비에서 동물보호센터 약품 구입 1,000만 원, 동물보호센터 물품 구입 2,000만 원, 동물보호센터 사료 구입 720만 원, 기타보상금에서 유기 동물 구조 포획비 6,000만 원, 동물보호센터 질병 관리 및 인도적 처리비 1,750만 원, 시설 배수 동물보호센터 시설 유지 보수 공사 2,000만 원, 동물 보호 정책 추진 사업에서 사무관리 및 반려견 임시보호소 운영비 2,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에서 길고양이 구조 포획비 2,500만 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3,000만 원, 유기 동물 보호센터 운영비 지원에서 기타보상금 동물보호센터 운영비 지원 2,0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에서 기타보상금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 2,600만 원, 읍면 지역 실외 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 기타보상금에서 실외 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 3,6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축 방역에서 재료비 가축 전염병 예방 소독 약품 구입 2,000만 원, 소화기, 설사 예방 약품 등 구입 500만 원 통제 및 거점 소독시설 운영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통제 및 거점 소독시설 인건비 주간 5,944만 4,000원, 통제 및 거점 소독시설 인건비 야간 4,458만 3,000원, 통제 및 거점 소독시설 인건비 주휴수당 653만 5,000원, 통제 및 거점 소독시설 근로자 보험료 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보건 공구 구입 6,000만 원, 재료비에서 통제 및 거점 소독시설 소독 약품 구입 500만 원, 축산 복지센터 건립 지원에서 사무관리 축산 복지센터 물품 구입 2,000만 원, 시설비에서 축산 복지센터 건립 지원 4,000만

원, 거점 소독시설 운영 지원사업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거점 소독시설 인건비 1억 6,75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서 거점 소독시설 소독 약품 등 구입 3,350만 원, 광역 인프라 설치 지원 민간 자본 사업 보조금 이전 지원에서 방역 인프라 설치 지원 3,428만 4,000원 공동 방제단 운영 인건비 민간 위탁 등 공동 방제단 운영비 지원 1억 2,159만 2,0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 방제단 운영 운영에 대해서 민간 위탁금 공공 방제단 운영비 지원 1,625만 9,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수의 수당입니다. 기타보상금에서 공수의 수당 지급 2,640만 원입니다. 구제역 방역에서 사후 관리 및 구제역 예방 대책 홍보 현수막 제작 525만 원, 재료비에서 구제역 백신 스트레스 완화제 구입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에서 구제역 백신 예방 접종 시술비 지원 2,400만 원, 염소 구제역 백신 예방접종 시술 포획비 지원 2,000만 원, 소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예방에서 재료비 소 브루셀라병 채혈용 소모품 구입 900만 원, 기타보상금에서 결핵 및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채혈 실비 보상비 2,350만 원, 가축 살처분 보상금 지원 기타보상금에서 살처분 보상금 지원 1,000만 원, 소 구제역 백신 접종 확대 지원사업 기타보상금에서 소 구제역 백신 접종 확대 지원 5,200만 원, 전업농가 구제역 백신 지원사업에서 전업농가 구제역 예방 약품 지원 2,28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구제역 예방 백신 접종 시술비 지원에서 기타보상금 구제역 예방 백신 접종 시술비 지급 5,880만 원 반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채혈 보정비 지원 기타보상금에서 소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채혈비 지급 2,844만 원, 소 브루셀라병 일체 검사 지원 기타보상금에서 소 브루셀라병 일체 검사 지원 4,800만 원, 염소 설사병 예방 약품 지원 재료비에서 염소 설사병 예방 약품 지원 5,040만 원, 염소 구제역 백신 접종 시술비 기타보상금에서 염소 구제역 백신 접종 시술비 지급 2억 2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럼피스킨 예방 백신 접종 시술비 지원입니다. 기타보상금에서 럼피스킨 예방 백신 접종 시술비 지원 2,94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61페이지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송아지 폐사율 저감 사업 지원에서 송아지 폐사율 저감 사업 지원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호

농업축산 관련 제안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님.

○ 박병수 위원

과장님, 업무량이 엄청 많네요.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506페이지에 청산도 구들장 논 부분에 지난번에 제가 도비, 국비 지원이 어렵다고 해서 도비로 해서 그 공문을 제가 서면으로 드린 것 같은데 내시가 안 됐습니까?

○ 농업축산과장 이정국

그것은 제가..... 내시가 아직 안 됐어요.

○ 박병수 위원

안 됐어요? 확인을 한 번 해보세요.

○ 농업축산과장 이정국

예. 조만간에 아마 내시가 내려오면 추경에,

○ 박병수 위원

한 1,000에서 한 1억 정도를 그때 이야기가 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514페이지 하단부에 “농촌 치유 거

점.” 이거는 어디인가요? 514페이지에 거점 센터 리모델링 여기 어디예요, 위치가?

○ 농업축산과장 이정국

농촌거점센터요? 이거 신활력사업.

○ 박병수 위원

신활력플러스사업 거긴가요? 지금 공사 중단됐나요?

○ 농업축산과장 이정국

계속하고 있습니다.

○ 박병수 위원

그다음에 외벽 지붕 같은 것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 농업축산과장 이정국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

○ 박병수 위원

사업 기간이 언제까지죠?

○ 농업축산과장 이정국

내년 2월까지입니다.

○ 박병수 위원

내년 2월까지 기한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523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자체 맞춤형 농기계 구입 지원이 금년 대비 한 55% 정도 감액이 됐는데 무슨 이유가 있는가요?

○ 농업축산과장 이정국

작년도 신청자 대비해서 편성을 조금 했습니다.

○ 박병수 위원

신청자가 줄어들었어요?

○ 농업축산과장 이정국

예, 약간 좀 줄어든 경향이 있어서 확대되면 추경에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병수 위원

일부 농업인들은 노동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계를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농업인들은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많이 줄여 버렸냐?” 할 정도예요. 이거 혹시 신청자가 있으면 추경에 반영해 주십시오.

○ 농업축산과장 이정국

예,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 박병수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547페이지, 학생 승마 체험 지원 이것이 금년 대비해서 6,24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기금하고 도비 지원 비율이죠, 보조 비율이? 그걸 어떻게 적용을 하는가요? 예산 부서에서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 농업축산과장 이정국

제가 몇 대 몇으로 했죠?

○ 박병수 위원

국도비 보조 지원 비율이 있어요, 보조 비율이.

○ 위원장 조인호

관련 팀에서 설명하고 해야 돼요, 담당팀장님 일어나서 설명하세요.

○ 축산정책팀 박정선

기금은 30% 고요. 그다음에 도비가 정확하게 제가 체크를 못했는데 10% 안쪽으로 도비는 되어 있고 그다음에 군비가 나머지 한 65% 정도 되거든요.

○ 박병수 위원

그러니까 지원 비율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군비가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되고 있고 밑에 유소년 승마 운영 지원 사례는 5대 5거든요.

○ 축산정책팀 박정선

예. 사업이 다른 사업이어서 재원이 다르게 편성돼 있습니다.

○ 박병수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대로 할 게 아니라 지원 보조 비율에 따라서 맞춰서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갑자기 증액된 이유가 인원이 많

이 늘어났는가요, 448명이 늘어났다는 얘기인가요?

○ 축산정책팀 박정선

아니요. 이게 작년에 2월 때 예산이 있어서 25년도에는 예년보다 절반만 배정을 받아서 원래대로 하면 1억 6,000정도 예산이 되는데 올해 이월 사업비가 있다 보니까 올해는 조금 절반만 내시가 내려온 상태여서 26년도에는 이월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원래대로 배정이 됐습니다.

○ 박병수 위원

지금 그 인원 체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 축산정책팀 박정선

올해 사업은 QR로 해서 출결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 박병수 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 축산정책팀 박정선

예.

○ 박병수 위원

그거 관리 좀 제대로 해주세요.

○ 축산정책팀 박정선

알겠습니다.

○ 박병수 위원

말썽이 많아요. 지금 자기들의 입에서 전부 다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그 말들이 전부 다 이야기가 나와서 여론이 조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체크를 해서 더 이상 말씀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호

허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허궁희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523쪽에 완도산 해조류 유기질 비료 구입이 2,000만 원 있는데요. 이거 설명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농가에 어떻게 보급이 되는지요.

○ 위원장 조인호

담당 팀장님.

○ 농업생산팀장 이병연

완도산 해조류 유기질 비료 수요 조사를 했고요. 또 농가들이 요청하는 품목에 따라서 이렇게 공급을 해주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 허궁희 위원

어떤 부분에 공급을 하냐고요.

○ 농업생산팀장 이병연

품목이 선정이 되고 또 읍면에서 신청 들어오면 그에 따라서 공급해 주면서 하고 있습니다.

○ 허궁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같은 게 두 가지 있어서 설명드리려고 했습니다. 549쪽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이 3,000이 있고 또 550쪽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가 또 책정이 돼 있어요. 이 부분 한 번 설명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정책팀 박정선

첫 번째, 549쪽에 있는 건 순군비 사업으로 편성이 돼 있고요. 550쪽은 국비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길고양이 수술비가 2개가 합쳐도 한 280주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신청, 접수를 받을 때 보통 한 300주 정도는 되는데 도에서 배정이 적다 보니까 순군비로 추가로 150주 정도 위원님들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듯이 도서 지역까지 저희가 확대를 하다 보니까 순군비로 사업을 조금 더 추가하게 됐습니다.

○ 허궁희 위원

완도에 그러면 중성화 수술을 하신 분이 계신가요?

○ 축산정책팀 박정선
예, 많이 있습니다.
○ 허궁희 위원
예전에 우리집 개를 해보려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해남으로 가라고 그렇게 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완도에 없구나." 했는데 지금은,
○ 축산정책팀 박정선
있는데 이게 협약을 해서 하게 돼 있어서 완도 동물병원에서는 사업이 추진이 조금 어렵다고 하셔서 해남 양원주동물병원이라고 저희가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 허궁희 위원
그렇죠. 완도에 안 계시죠?
○ 축산정책팀 박정선
예.
○ 허궁희 위원
왜 제가 그걸 자세히 아냐면 제가 한 번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없는 걸로 아는데 완도에 계신다 해서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호
박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선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17페이지에 보면 논벼 재배 농가 왕우렁이 공급 사업을 해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는 공급 지원을 농가에서 하는 것은 맞아요, 좋아해요. 그런데 523페이지에 보면 재료비에 왕우렁이 피해 예방 자재를 또 구입해요.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를 같이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축산과장 이정국
친환경 왕우렁이 이것을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농가에 이거 신청받아서 일단 예산은 전년 대비해서 증액이 됐습니다마는 피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 정확히 조사해서 내년 1월 추경에 다시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부분에 대해서 왕우렁이를 지금까지 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 박재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급한 것은 맞는데 그게 또 피해 방지를 위해서 또 4,000만 원을 또 세워놨어요, 예산을.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거기에 보면 금액은 적은데 홍보물 제작까지 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원을 해준 것은 맞는데 좋아하면 농가들한테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데 피해 예방을 위해서 다시 또 4,000만 원을 쓴단 말이에요. 그게 이해가 안 가서요.
○ 농업축산과장 이정국
농가들이 또 선호하는 농가들도 있고 그런 부분도 저희가 반영해서,
○ 위원장 조인호
담당 팀장이 일어나서 설명하세요.
○ 농업생산팀장 이병연
예,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왕우렁이 공급과 또 피해 예방 자재를 그러니까 도에서도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게 병 주고 약 주는 거냐." 이런 의견들이 나오기는 했는데 일단은 왕우렁이가 필요한 농가는 친환경 농업을 하는 농가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농가들이 계속적인 신청을, 요청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왕우렁이가 논에서 침수라든지 아니면 태풍이라든지 유실돼서 친환경 하지 않고 있는 어린 모를 재배하는 농가라든지 아니면 인근 논에 유입이 돼서 피해를 끼치니까 거기는 피해를 막아야 되겠다는 또 농가들의 요청이 있어서 그 부분은 또 방제 약재를 공급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 홍보물 같은 경우도 그래서 친환경 우렁이를 관리를 잘하라고 하는 측면에서 홍보물인 거예요. 그래서

유실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부분하고 또 나중에 이게 친환경, 농수로 같은 데 있는 것은 이렇게 수거를 잘 해서 소각하라는 그런 측면에서의 홍보물도 하는 이런 내용으로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 박재선 위원

우렁이가 1년산인가요?

○ 농업생산팀장 이병연

우리가 하고 있는 우렁이는 1년 산은 아니고 계속해서 살 수 있습니다. 월동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산 논 고동은 이렇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데 수입해 온 왕우렁이라든지 현재 어린 모 단지에서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박재선 위원

우렁이를 사용하면 거식하면서 땅속으로도 깊이 들어가고 산으로도 올라가고 그러죠?

○ 농업생산팀장 이병연

주로 논하고 논 제방 쪽에 월동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 박재선 위원

이걸 잘 해보십시오. 왜 그러냐면 전에도 왕우렁이에 대해서 피해가 많다는 사람도 있고 또 지원을 해달라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게 맞는 건지 정확하게 해서 지원해 줄 거면 제대로 지원을 다 해주시고 피해가 있다면 지원을 안 해야 맞잖아요. 그렇죠?

○ 농업생산팀장 이병연

예, 원칙적인 내용은 맞습니다.

○ 박재선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지원해 주고 피해액하고 똑같은 금액이 또 비슷하게 나와서 하는 얘기예요.

○ 농업생산팀장 이병연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호

박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박성규 위원

523페이지 완도산 전복 폐사 칼슘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거 어디에서 구입을 해요?

○ 농업축산과장 이정국

그거 노화 공장,

○ 박성규 위원

노화에서 구매할 때 한 포당 1만 원씩 해서 200포요?

○ 농업축산과장 이정국

예.

○ 박성규 위원

그러면 이거를 빌려서 어디에다가 납품을 해요?

○ 농업축산과장 이정국

돌아다니면서 뿌립니다.

○ 박성규 위원

농가에다가요? 밭에다 비료처럼 뿌립니까?

○ 농업축산과장 이정국

예, 그렇습니다.

○ 박성규 위원

어민들한테 납품을 한 게 아니고요?

○ 농업축산과장 이정국

아니에요. 농민들한테,

○ 박성규 위원

효과는 있어요?

○ 농업축산과장 이정국

칼슘 형태이기 때문에 농작물에는 효과가 있습니다.

○ 박성규 위원

이거는 올해 처음 예산 세웠습니까, 그전에도 있었습니까?

○ 농업축산과장 이정국

예. 작년부터 세웠습니다.

○ 박성규 위원

그럼 작년에 해봤으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알 거 아닙니까?

○ 농업축산과장 이정국

칼슘제가 확 튀어나오는 어떤 것은 아닌데 효과는 있습니다.

○ 박성규 위원

조금 예산이 적은 것 같아요. 많이 확보해서 좋으면 농민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축산과장 이정국

예.

○ 박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농업축산과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0분 회의계속)

○ 위원장 조인호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

○ 체육진흥과장 최정환

체육진흥과장 최정환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7쪽 계속비사업입니다. 신규 완도군 볼링장 건립 사업에 완도읍 가용리 50-1번지 주차장에 사업비 70억 원으로 12레인 볼링장을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시설 예정입니다. 다음은 483쪽, 2026년도 본예산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괄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1억 7,776만 7,000원이 증액된 105억 2,531만 3,000원입니다. 체육 진흥 및 체육대회 지원사업으로 전국 도 단위 대회 출전 및 홍보 물품 구입 2,000만 원, 각종 대회 운영 500만 원, 군 우수 선수 관리 및 육성 지원 4,000만 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6,000만 원, 유소년 체육시설 활성화 지원 2,200만 원, 생활체육교실 지원사업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4쪽, 이어서 완도군 체육회 운영비 1억 4,836만 원, 완도 장보고스포츠클럽 운영비 5,000만 원, 완도군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1억 1,323만 9,000원, 완도군 체육회장 선거 추진 3,100만 원, 군수배, 인장대 및 종목별 생활체육 대회 개최 3억 4,900만 원, 전국 단위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 9,400만 원, 제65회 전라남도 체육대회 참가 1억 6,500만 원, 제38회 전라남도 생활체육대회 출전 참가 1억 2,000만 원, 제21회 전라남도 어르신 생활체육 대회 참가 3,000만 원, 각종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참가 4,000만 원, 제34회 전라남도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 7,046만 7,000원, 전라남도 장애인 생활체육 대회 참가 3,820만 원, 완도 장보고배 전남 장애인 어울림 배드민턴 대회 개최 1,267만 원, 전라남도 농아인 체육대회 참가 500만 원, 전라남도 시각장애인 체육대회 참가 500만 원. 다음은 485쪽입니다. 일반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사업으로 일반 생활체육 지도자 급여 2억 6,688만 원, 일반 생활체육 지도자 급여 자체 추가분 7,740만 6,000원, 어르신 생활체육 지도자 급여 3,336만 원. 다음은 486쪽입니다. 어르신 생활체육 지도자 급여 자체 추가분 1,325만 9,000원,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급여 6,672만 1,000원,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수당 자체 추가분 2,047만 7,000원. 487쪽입니다.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으로 8,658만 6,000원, 우수 선수 선수 수당 전지훈련비, 훈련 용품 등 3,500만 원. 다음은 488쪽입니다. 완도군청 직장 운동경기부 운영 지원사업에 역도 선수단 홍보 영상 제작 2,000만 원, 역도 실업팀 숙소 관리 2,020만 원, 역도 훈련장 관리 600만 원, 역도 실업팀 전지훈련비 1,400만 원, 대회 출전비 1,800만 원, 감독 급여 5,500만 8,000원, 감독 성과금 1,500만 원, 선수 급여로 1억 9,003만 2,000원, 선수 성과급 2,401만 2,000원, 수당 4,360만 원. 다음은 489쪽입니다. 역도 실업팀 4대 보험료 5,624만 7,000원, 선수 퇴직금 1,600만 원, 여자 2명 숙소 임차료 1,440만 원, 감독 숙소 임차료 720만 원, 메달 보상금 2,150만 원, 운동복 구입 800만 원, 훈련 및 대관 유류비 960만 원, 읍면 체육시설 이용자 안내판 제작 2,500만 원, 체육시설 정화조 청소 및 분뇨 수거 3,000만 원, 약산, 청산, 신지 영농 손실 보상금 2억 원, 등기 이전 수수료 및 분할 측량 수수료 2,000만 원, 읍면 체육시설물 유지보수 1억 원, 군 관리 어린이 놀이시설 보수 2,000만 원, 체육공원 및 체육시설 측량 확장 측량 5,000만 원, 고금파크골프장 주차장 적용 시설물 설치 9억 원. 계속해서 490쪽입니다. 파크골프장 부대시설 공사 3억 원, 축구 전용 구장 유지관리 1억 5,000만 원, 체육공원 그레이팅 안전 덮개 정비 사업 4,000만 원 고금파크골프장 감리 용역 2억, 읍면 체육시설 비품 구입 1,000만 원, 노화,소안,생일 게이트볼장 보호 패드 구입 900만 원, 읍면 체육시설 관리 인부임 1,000만 원, 읍면 체육공원 및 체육시설 풀베기 인부임 1,500만 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검사 수수료 1,250만 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점검 계획료 920만 원, 약산 생활식 공원 조성 5억 6,000만 원, 금일 해양 체육 생활체육공원 조성 7억 원. 다음 491쪽입니다. 고금파크골프장 추가 조성 8억 원, 완도군 볼링장 건립 사업 9억 7,500만 원, 청산파크골프장 조성 10억 원, 완도군 축구 전용 구장 관리 사무동 리모델링 사업. 다음은 492쪽입니다. 완도 야구장 시설 개선 사업 3억 원, 완도 소프트 테니스장 시설 개선 3억 원, 청해진스포츠센터 가상현실 스포츠 설치 5,000만 원, 전지훈련 시설물 청소 및 관리 일시 사용비인 747만 원. 493쪽입니다. 스포츠 마케팅 전지훈련으로 전지훈련 제반 경비 4,430만 원, 2026 크로스핏 대회 행사 제반 경비 1,620만 원, 2026 크로스핏 대회 용품 임차비 2,000만 원, 무대 및 텐트 설치비 2,000만 원. 다음 494쪽입니다. 전지훈련 전남 유소년 야구 대회 운영 2,000만 원, 전지훈련 유치 홍보용 재료 구입 1,000만 원, 전남 유소년 야구 대회 홍보용 자료 구입 500만 원, 전지훈련 참가팀 환영 행사 500만 원, 체육인 및 실업팀 감독 초청 팬 투어 500만 원, 전지훈련 참가 스토브리그 등의 시상금 3, 600만 원, 완도 군수배 테니스 시상금 500만 원, 장보고배 축구대회 800만 원, 장보고배 야구 대회 시상금 700만 원, 전남 유소년 야구 대회 시상금 1,100만 원, 완도 군수배 초청 테니스 시상금 2,200만 원, 우수 초청팀 심판 수당 750만 원, 전지훈련 참가팀 경기 진행 심판 수당 750만 원, 완도 군수배 테니스대회 심판 수당 800만 원, 장보고배 축구대회 심판 수당 850만 원, 야구 대회 심판 수당 750만 원. 495쪽입니다. 전남 유소년 야구 대회 심판 수당 1,000만 원, 크로스핏 대회 시상금 2,860만 원, 전지훈련 팀 스포츠 재활 및 체험비 1,875만 원 시설비로 전지훈련 소규모 시설물 제작 및 수리 2,000만 원, 유소년 야구대회 시설물 제작 1,000만 원, 관

광객 해양 레저 스포츠 요트 체험 행사 1,250만 원. 다음 496쪽입니다. 관광객 해양 레저 스포츠 참여 행사 2,000만 원, 2025년 해양 레저 스포츠 체험 프로그램 운영 7,000만 원, 체육시설물 주변 풀베기 인부임 2,000만 원, 체육공원 수목 관리 전정 방제 인부임 2,000만 원, 체육시설 화장실 비데 렌털료 750만 원, 체육시설 소방 안전관리 대행수수료 720만 원, 체육시설 공중화장실 정화조 청소 500만 원. 다음은 497쪽입니다. 체육공원 가로등 유지관리비 600만 원, 체육시설물 보수 및 정비 600만 원, 체육시설 소방시설 유지관리 및 보수 1,000만 원, 체육시설물 정비 및 유지보수 2,000만 원, 체육공원 화장실 및 외부 화장실 보수 공사 2,000만 원, 체육공원 및 체육시설물 주변 풀베기 사업 3,000만 원, 체육공원 안내판 정비 사업 2,000만 원, 체육공원 시설 비품 구입 및 교체 1,000만 원, 읍면 야외 운동기구 설치 3,000만 원, 야외 운동기구 보수 장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8쪽입니다. 농어민문화체육센터 전기 안전관리 진행 수수료 540만 원, 농어민문화체육센터 시설 유지보수 공사 2,000만 원, 조명 등 교체 수리 500만 원, 청해진스포츠센터 화장실 용품 및 청소 용품 구입 600만 원, 무인 경비 시스템 이용료 540만 원, 소방 안전관리 대행수수료 540만 원, 전기 안전관리 대행수수료 2,300만 원. 다음 499쪽입니다. 청해진스포츠센터 화장실 비데 렌털료 792만 원, 발전기 및 기계 설비 유지관리 500만 원, 건물 외관 유지관리 500만 원, 시설물 보수 2,000만 원, 음향시설 정비 사업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0쪽입니다. 수영장 전기 안전관리 대행수수료 900만 원, 회원 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840만 원, 기계 설비 유지관리비 500만 원, 여과기 여과제 교체 800만 원, 소금 분해 장치용 전해셀 구입 500만 원,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2,080만 원. 다음 502쪽입니다. 수영장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2,000만 원, 냉난방기 등 설비 수리 및 교체 공사 2,000만 원, 전기 설비 장비 및 수리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체육진흥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호

체육진흥과장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궁희 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요. 청해진스포츠센터 음향이 울리지 않게 예산이 들더라도 한 번 정도는 연구를 해봐야 되겠더라고요. 엊그제도 우리들이 행사 할 때 마이크를 안 쓰고 인사말을 했어요. 그래서 건물이나 모든 건 다 좋은데 음향이 뭐가 안 맞는지, 음향시설을 땅으로 내리면 어떤가요?

○ 체육진흥과장 최정환

위원님, 그래서 뭐가 문제인지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내년에 2,000만 원 본예산을 빌려왔습니다.

○ 허궁희 위원

그거 가지고 될까요?

○ 체육진흥과장 최정환

천장 무게 분재를 흡음재를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 3억이 들거든요. 무엇이 필요한지 2,000만 원 가지고 알아봐서 필요한 예산을 세워 고치겠습니다.

○ 허궁희 위원

꼭 정상음이 나오도록 한 번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호

다른 의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월 6일부터 7일까지 2일간 개별적으로 예산안 검토 및 심사조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4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3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석위원(8인)

조인호　박성규　지　민
박재선　박병수　최정욱
허궁희　조영식

○출석공무원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농업축산과장	이정국
체육진흥과장	최정환

○ **전문위원** : 박영민
○ **전문위원** : 전문희
○ **속 기 사** : 임은주

제334회 완도군의회(제3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12월 08일(월)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2026년도 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완도군수 제출)
2. 2026년도 예산안(완도군수 제출)
   - 가족행복과
   - 해양정책과
   - 해조류박람회추진단
   - 산림휴양과
   - 환경수질관리과
   - 지역개발과
   - 안전총괄과
   - 농업기술센터
   - 보건행정과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조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그러면 2026년도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부서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조류박람회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조류박람회추진단

○ 해조류박람회추진단장 김준혁

안녕하십니까? 해조류박람회추진단장 김준혁입니다. 우리 단 소관 2026년 본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589쪽입니다. 2028 완도 국제 해조류 산업 박람회 내 사무관리비에 추진위원회 자문 운영 수당 500만 원, 2028 해조류 박람회 국제행사 승인 대행사 용역 1억 1,900만 원, 2026 프레 완도 해조류 박람회 개최 사무관리비에 추진위원회 등 참석 수당 750만 원, 박람회 백서 제작 500만 원, 공공운영비 해조류 박람회 추진단 사무실 유지 관리비 500만 원, 공사 운영비에 2026 프레 완도 해조류 박람회 개최 만찬 진행 1,200만 원, 다음은 590쪽입니다. 2026 프레 완도 해조류 박람회 개막식 참석 실비 지원 1,200만 원, 완도 해조류 박람회 개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기간제 인건비 990만 8,000원, 사무관리비에 행사 차출 지급 경비 1억 4,400만 원, 행사 운영비에 근무 요원 조끼 제작 2,500만 원, 근무 요원 식권 제작 2,700만 원, 회장 운영 물품 제작 및 구매 1,200만 원, 대나무 낚시 체험 행사 운영비에 7,400만 원, 재료비에 대나무 낚시 체험 재료 구입 7,920만 원, 행사 관련 시설비 완도 해조류 박람회 TF 텐트, 그다음에 먹거리 품종 2,354만 원, 장애인용 이동식 화장실 설치 550만 원, 완도 국제 해조류 박람회 개최 행사 관련 시설비에 전시 연출 제작 및 설치 1억 원. 다음 591쪽입니다. 해조류 센터 전시관 개보수 2억 원, 완도 해조류 박람회 개최 사무관리비에 수출 상담 및 바이어 현지 투어 선박 임차료 500만 원, 전국 박람회 축제 홍보 부스 운영 900만 원, 박람회 홍보 이벤트 용품 제작 1,000만 원, 박람회 홍보 현수막 제작 960만 원, 박람회 홍보 배너 제작 960만 원, 옥외 시설 광고물 제작 3,000만 원, 가로등 배너 제작 2,000만 원, 홍보 포스터 제작 1,000만 원, 홍보 리플릿 제작 2,000만 원, 행사 운영비 오프라인 이벤트 운영 대행 2,000만 원, 국내외 바이어 및 셀럽 환영 리셉션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해조류 박람회 추진, 그다음 소관 본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호

해조류박람회추진단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해조류박람회추진단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해양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정책과**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해양정책과장 김현란입니다. 해양정책과 소관 26년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26년 예산액은 전년 대비 5억 3,692만 3,000원이 증액된 242억 3,596만 3,000원입니다. 먼저 567페이지입니다. 수산신문 보급 사업 1,890만 원, 수산업 경영인 전라남도 대회 참석 지원 사업 5,000만 원, 완도 제주 권한쟁의 대응 지원 사업 6,000만 원, 여성 어업인 리더 단체 육성 워크숍 1,500만 원, 어선 안전 기원 및 풍어제 기원 사업 4,000만 원, 어업인 드론 위탁 교육 2,64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산 기술 정보 신문 보급 사업 1억 350만 원, 한국수산벤처대학 홍보 부스 운영 500만 원, 한국수산벤처대학 학사 운영 1억 5,795만 원, 수산조정위원회 참석 수당 504만 원입니다. 다음 569쪽입니다. 어업법인 실태 조사 및 운영 500만 원, 조건 분리 지역 수산직불제 8억 원, 소규모 어가 직불제 기간제 근로자 급여 4,850만 원, 소규모 어가 직불제 홍보물 제작 1,720만 원

입니다. 다음 570쪽입니다. 국립해양수산박물관 추진 사무용품 구입 500만 원, 다목적 인양기 설치 사업 11억 3,750만 원, 다목적 인양기 정비사업 6,000만 원, 복합 다기능 부잔교 설치 사업 18억 7,500만 원, 복합 다기능 부잔교 수리 교체 4억 5,000만 원, 노화읍 삼마리 어촌교 부잔교 설치 공사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71쪽입니다. 어업용 기자재 보관 창고 및 다목적 공간 지원 1억 2,500만 원, 소형 선박 이동 대차 지원 사업 2,500만 원, 수산업 정책 자금 이자 차액 지원 사업 2억 6,833만 4,000원입니다. 다음 572쪽. 해양 보호구역 관리 사업 2,242만 8,000원, 수산자원 보호구역 안내판 500만 원, 수산 종자 매입 방류사업 2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73쪽입니다. 해삼씨뿌림 사업 2억 478만 1,000원, 바다 숲 조성사업 18억 2,000만 원, 바다 식목일 행사 운영 3,000만 원. 다음 574쪽입니다. 어업 활동 지원 사업 1억 3,236만 원, 여성 어업인 특화 건강검진 지원 8,136만 원, 지역 특화발전 특구 홍보 시설물 정비 2,000만 원입니다. 다음 575쪽입니다. 섬 주민 생필품 물류비 지원 사업 1억 3,160만 원, 도서 지역 생활필수품 해상 운송비 지원 사업 2억 7,260만 원, 섬 지역 생활 물류 운임 지원 1억 8,460만 원입니다. 다음 576쪽입니다. 섬 지역 생활필수품 해상 운송비 지원 사업 7,650만 원, 섬 주민 지원 사업 온라인 신청 플랫폼 구축 사업 4,000만 원,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사업 35억 1,600만 원, 체도권 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 사업 1억 원, 차량 자동 화물비 지원 1억 원, 65세 이상 여객선 무료 운임제 1억 7,700만 원, 산양-횡간 여객선 증편 운임 지원 사업 1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 577쪽입니다. 생일도 여객선 대체 선박 건조 사업 지원 6억 원, 섬 주민 천원 여객선 운임 지원 9억 3,982만 4,000원, 일반인 섬 여객선 반값 운임 지원 사업 2억 2,500만 원, 야간 운항 등부표 및 조명시설 검사비 7,000만 원, 야간 운항 등부표 및 조명 시설 유지 관리비 5,000만 원, 당목-일정 여객선 야간 운항 운영 지원금 지원 3억 1,950만 원, 화흥포-소안 여객선 야간 운항 운영 지원금 지원 4억 원입니다. 다음 578쪽입니다. 취약 도서 주민 수송 도선 운영 지원 9,770만 원,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 1억 8,000만 원, 체도권 주민 여객선 운임 관리 시스템 유지 보수비 3,600만 원, 도서민 승선 절차 간소화 시스템 구축 사업 유지 보수비 1,320만 원, 65세 이상 여객선 무료 운임 관리 시스템 유지 보수비 2,000만 원, 여객선 이용 섬 주민 숙박비 지원 2,000만 원, 연안 정비사업 지구 안전 점검 용역 1,2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579쪽입니다. 연안사고 예방 안전시설물 설치 지원 사업 3,900만 원, 적조 방제 황토 살포 인부임 1,22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580쪽. 적조 피해 대비 어류 양식 환경 개선 물질 공급 6,750만 원, 유해 생물 구제 사업 7,500만 원 해양 쓰레기 정화 사업 사무관리비 1억 원. 다음 581쪽입니다. 해양 쓰레기 정화 사업 시설비 37억 원, 취약 해안 폐기물 대응 지원 7억 9,800만 원, 해양환경미화원 인부임 1억 원, 해양 쓰레기 육상 집하장 설치 사업 1억 5,000만 원, 조업 중 인양 쓰레기 수매 사업 4억 원입니다. 다음 532쪽입니다. 해양 쓰레기 선상 집하장 설치 사업 7억 원, 바다 지킴이 365 기동대 운영 1억 2,000만 원, 무인도 해양 쓰레기 수거 처리 사업 2,000만 원, 불가사리 구제 사업 3,570만 원, 김 양식 무기산 폐기물 처리 2,000만 원, 굴 패각 집하장 설치 5,000만 원입니다. 다음 583쪽입니다. 패각 친환경 처

리 지원 2억 4,000만 원, 폐유통 수거기 지원 5,000만 원, 양식 어장 정화 사업 6억 6,250만 원입니다. 다음 584쪽. 해조류 부산물 재활용 지원 사업 8억 7,500만 원, 다시마 꼬리 소매 지원 사업 1억 원, 전복 먹이용 해조류 저장 공급 사업 1억 9,000만 원, 감용기 운영 2,500만 원, 방치 선박 정리 지원 사업 2,000만 원, 폐스티로폼 감용 시설 인부인 1억 원입니다. 다음 585쪽입니다. 정화 운반선 일숙직비 2,880만 원, 연료비 4,000만 원, 정기 검사 선체 4,500만 원, 정기 검사 기관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6년 해양정책과 기관 본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호

해양정책과장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선 위원

과장님, 582페이지에 시설 위에 해양 쓰레기 선상 집하장 있잖아요. 7억 원인데 한 가지 여쭤보려고 그래요. 지금 현재 우리가 해양 쓰레기를 버리는데 해양 선상 집하장이 나은지, 육상이 더 나은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지금 주로는 육상 집하장을 하고 있습니다. 육상 집하장을 하고 있고 육상 집하장을 해야 거기다 고정적으로 마을에서 해양 쓰레기를 정리해서 배출하기 좋고, 선상 집하장은 보조적인 수단으로 혹시 배에서 가지고 오다가 또 바다에 떠 있는 쓰레기를 보관할 장소, 임시적으로 놔둘 장소가 필요할 경우 또 아니면 썩거나 말려야 되는 그런 것들은 선상 집하장에다 보관해서 주민들 냄새도 덜하게 해서 옮기는 방식으로 하기 위한 수단으로 선상 집하장은 보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박재선 위원

제가 왜 이 걱정을 하냐면 선상에 하게 되면 무작위로 이렇게, 우리가 육상에다 하게 되면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분리수거를 해서 버려요. 그런데 선상에다 놓으면 배에 가서 무작위로 버린단 말이에요. 그걸 다시 육상으로 또 가져와야 하잖아요. 무슨 배로 또다시 크레인 배로 해서 옮겨야 하는데 사실은 전에 선상을 많이 썼었는데, 육상이 더 낫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선상을 꼭 해야 된다 하면 '배가 접안하지 못하고 하는 부분만 해야 되지 전체적으로 하면 안 된다.' 저는 그 생각을. 그리고 선상은 관리 감독을 또 해야 되잖아요. 또 바람에 몰려 다니면 안 되고.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예. 알겠습니다.

○ 박재선 위원

그리고 759페이지에 시설비에 연안사고 예방 안전시설물 있잖아요. 이거 등부표 말씀하시는 거죠?

○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759페이지는 아니고.

○ 박재선 위원

579. 중간에 시설비에 연안사고 예방 안전시설물.

○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이거는 연안에 항포구 같은 데 선착장에 가드레일을 설치한다거나 안전시설을 하는 거거든요. 그 사업비입니다.

○ 박재선 위원

보면 항에 가면 미흡한 데가 꽤 많아요. 이런 예산을 좀 더 우리가 배 접안할 때만 빼고 나머지는 구간 구간 전부 다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되는 부분이 더러 있는 것 같아

요. 이런 예산을 좀 더 들여서라도 좀 더, 그리고 배 접안할 때 밑에 뭡니까? 불 들어오는 건가요?

○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예.

○ 박재선 위원

그런 것도 있는데 미흡한 것 같아요.

○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예.

○ 박재선 위원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예. 잘 알겠습니다. 혹시 조언 주시면 위험 지역은 우선 집중적으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선 위원

그리고 도비로 많이 들어가는데 해삼씨뿌림 있잖아요.

○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예.

○ 박재선 위원

그거 지금 현재 잘 되고 있죠?

○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예.

○ 박재선 위원

그런데 지역을 어디에다 합니까?

○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지역은 해삼씨뿌림 사업은 사전에 적지 조사를 하고 일단 신청을 저희가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들어오는 지역 중에 적지 조사를 해서 선정된 지역에다가 우선하고 있습니다.

○ 박재선 위원

이것도 골고루 12개 읍면이 있는데 해삼은 뻘에만 잘 사는 거 아닙니다. 모래하고 뻘하고 잘 섞여 있는 데가 잘 살아요.

○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예.

○ 박재선 위원

이왕 하는 사업, 좋은 곳에다 저는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 드려요.

○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예.

○ 박재선 위원

그래서 어촌계에 이익도 될 수 있는 곳에, 무작위로 가서 신청한 데서 다 뿌려버리면 의미 없잖아요.

○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예. 알겠습니다.

○ 박재선 위원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서 얘기한 겁니다.

○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예.

○ 박재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호

최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정욱 위원

과장님, 간단히 하나 물어볼게요. 582페이지에 시설비에 보면 김 양식 무기산 폐기물 처리라고 2,000만 원 쓰여 있는데 이게 뭔가요?

○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소위 말하는 영상 같은 것을 저희가 단속을 해서 그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걸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 최정욱 위원

작년에 500이었는데 올해 1,500 더 세웠네요.

○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예.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그 회수한 걸 처리를 못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늘려서 세웠습니다.

○ 최정욱 위원
이거 어떻게 이렇게 수시로 다니나요?
○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예. 지금 본격적으로 11월부터 김 양식 시작이기 때문에 김 양식 시작과 동시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올해도 여러 차례 다니고 있고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이 단속은 내년에 김발 끝날 때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 최정욱 위원
그게 가능해져요?
○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막기는 사실 쉽지 않겠지만 저희가 적극적으로 집중 단속을 하고 해서 '단속해서 봐주는 것 없다'. 강력하게 대응해서 조금이라도 안 쓰게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 최정욱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호
허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궁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내가 이전에도 한 번 지적했던 내용인데 완도 제주 권한쟁의 예산에 대해서, 567쪽 첫 페이지로. 거기에 대해서 작년 예산 제대로 다 소모됐습니까?
○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아직 정산을 안 받아서 정산 끝나봐야 알겠습니다.
○ 허궁희 위원
그거 자료 한번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예.
○ 허궁희 위원
지금 여러 군데서 그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왜 특정 정치인 후원 자금이라고 하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추진할 건가요?
○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지금 저희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 허궁희 위원
들었으면 조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단체, 그런 얘기가 있으나 저희가 확인하지는, 실제로 그렇게 집행했는지 확인되지 않았고 그런 또 문제를,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서 민간대책위원회에서 중간에 집행위원장이라는 직책에서 다시 만들었습니다.
○ 허궁희 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집행을 하러 가서도 조금 불편한 사람들은 그 예산으로 식사나 이런 걸 안 한답니다.
○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예.
○ 허궁희 위원
예? 그런데 그 예산을 계속 집행하는 이유가 나는 뭔지를 모르고 있어요.
○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저희가 보조 사업을 줘서 보조 사업비로 보조 단체에서 집행을 하는데 그거는 저희 전산 시스템에 보조금은 임의로 영수증 처리하는 게 아니라 집행할 때마다 시스템에 등록이 돼야 하거든요. 그래서,
○ 허궁희 위원
그렇게 되고 있겠죠?
○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예. 그렇게 되고 있고, 그 의혹들은 실제로 소득 예산이 일부 집행될 때 그런 많은 의혹의 얘기가 있었으나 실제로는 불과 소액이 집행됐던 시점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부분을 자체적으로 민간대책위원회에서 단체 회의를 해서 다시, 그럼 집행위원장을 다시 뽑아

서 집행위원장을 민간인으로 세웠고 실제로 활동도 지금 현재는 민간 집행위원장 중심으로 활동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허궁희 위원

집행위원장이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요?

○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집행위원장 중심으로 대책위가 주로 내부 쪽으로 움직이고 있고 당초에,

○ 허궁희 위원

그것은 나 처음 듣는 얘긴데?

○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집행위원장이 중간에 다시 선정이 돼서 거의 지난번 해상 시위할 때 그때도 집행위원장 중심으로 기획이 됐고 또 전체적으로 움직여졌거든요.

○ 허궁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묻는 얘기는 집행위원장이 그렇게 실제로 집행을 하고 있으면 그 대표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정치인을 앞세워서 이런 사업을 하냐 이거예요.

○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민간대책위원회를 저희가 이거를 세운 게 아니라,

○ 허궁희 위원

그럼 어디서 이걸 임명을 했나요?

○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자체적으로 생긴 걸로 지금 저희는,

○ 허궁희 위원

저는 그렇게 안 알거든요.

○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그 부분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데 일단 저희들은,

○ 허궁희 위원

앞으로도 이렇게 갈 겁니까?

○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지금 현재는 특별한 문제가 있으면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 허궁희 위원

방금 들었다는 얘기 있었잖아요.

○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그런 얘기는,

○ 허궁희 위원

그런 얘기가 들린다.

○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예.

○ 허궁희 위원

그런데도 그렇게 간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저희가 임의로 그거를 빼라 마라 할 수가 없어서 일단은,

○ 허궁희 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다 그럼 지원을 하세요?

○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위원님께서,

○ 허궁희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맞지. 어디 그거 말이 맞다고 여기서 얘기를 하세요.

○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그 말이 아니고 위원님, 그 말이 아니라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가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 허궁희 위원

거기에 대해 관여를 못 하는데 예산은 세워준다? 이게 말이 맞는 예산 집행이에요?

○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일단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 허궁희 위원

이거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작년 예산부터 정확하게 한번 제출해 주세요.

○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예. 작년 예산은 저희가 올해까지 아직 연말이 안 지나서,

○ 허궁희 위원

그러니까 집행되는 대로,

○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집행이 끝나면,

○ 허궁희 위원

결산 나오는 대로 한번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예. 결산이 되면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 허궁희 위원

예. 왜 이게, 나 지금 과장님 얘기에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런 얘기는 들린다, 그런데 거기에 관여를 못 한다, 그런데 예산은 세워준다. 말이 맞나요?

○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저희가 집행 상황을 저희 시스템에 보이기 때문에 그 보이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저희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허궁희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과장님 말씀을 내가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거 다 나는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해요.

○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예.

○ 허궁희 위원

왜? 개인 위해서 쓴 것 아니니까, 그런 건 인정 당연히 하죠. 우리 군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고. 하는데 이런 얘기를 듣고 '그런 일에는 관여를 못 한다.' 해놓고 그런데 왜 그러면 예산을 지원을 해주냐 이런 얘기지. 그렇잖아요.

○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 허궁희 위원

제가 잘못 이해한 거예요?

○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일단 저희가 문제가 잘못된 것이 확실하게 발견이 되면 당연히 지적할 수 있는데 민간 보조 사업을 줘놓고 특별한 문제가 안 보이는데 이런저런 관리하는 것도 지나치게 관여가 돼서 일단은,

○ 허궁희 위원

특별한 저기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일종의 정치인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것을 그런 식으로 웃고 넘어갈 일은 아니죠. 정확하게 선을 그어서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로 얘기를 해야지 슬슬 웃고 넘어간다 해서 제가 그것을 지금 넘어갈 것 같아요?

○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일단 저희는 시스템상에 특별히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야 보조 사업을 진행 중에 이러니 저러니 관여를 할 텐데 지금 정산도 들어오지 않았고, 시스템에 집행된 상황을 봤을 때 특별히 문제점이 저희가 발견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 허궁희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민간단체로 출발을 했었던가요?

○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예. 그렇습니다.

○ 허궁희 위원

군에서 전혀 개입을 안 했던가요?

○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그렇습니다.

○ 허궁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닌데요. 처음에 어느 분한테 군에서 부탁을 해서 그분이 고사를 하니까 여기로 간 걸로 나는 알고 있는데요.

○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그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는,

○ 허궁희 위원
그거까지 한번 밝혀볼까요, 그러면?
○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저희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은 전혀 알지 못하고, 그 일의 시작은 처음에 근원적인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회단체에서도 과거 2008년도에 우리가 졌을 때 우리 주민들은 아무도 몰랐다, 민간 사회단체는 아무도 몰랐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전부 사회단체에다 공문을 보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다고 본청으로 한번 저희가 부른 적 있습니다.
○ 허궁희 위원
그 부분은 여기서 계속 얘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연말 결산 금년도 정산이 되면 저한테 한번 주시고요. 이런 것은 한번 자세히 검토해 보세요.
○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알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전혀 저희 부서에서 어느 사람을 지정해서 관여했다거나 그런 건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허궁희 위원
예. 그리고 584쪽. 해마다 이게 나오는 것 같은데 해조류 부산물 재활용 사업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해조류 부산물이 발생을 하는데 이거를 전복 먹이용으로도 충분히 쓸 수 있는 것을 주민들이 버리기 때문에 이거를 수매를 해서 전복 먹기가 부족할 때 어업인들한테 나눠주는 사업입니다.
○ 허궁희 위원
그러면 지금 수매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수매는 소안수협, 그다음에 금일수협, 전복산업연합회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 허궁희 위원
전복산업연합회에서 수매를 하면 어떻게 처리를 할까요?
○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구체적인 단계는 혹시 담당 팀장님한테 설명 들어도 될까요?
○ 허궁희 위원
예. 그러세요.
○ 해양환경보전팀장 김행준
금일수협에서는 가공을 지역 금일 단체에서, 금일 관내에 있는 가공업체에서,
○ 허궁희 위원
업체에다 위탁하죠?
○ 해양환경보전팀장 김행준
아니, 가공업체에서 저장 창고에다 저장을 해서 그다음에 11월에 공급을 하고요. 그다음에 소안수협하고 전복산업연합회에서는 군외에 있는 삼미영어조합법인에다 위탁을 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원래 해조류 부산물 지원 사업이 전복 먹이를 공급하는 게 아니고 부산물을 활용하게끔 돼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복 공급 어가에서는 약간 부족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이것을 춘궁기 때 공급하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 허궁희 위원
도움은 된 줄 저도 잘 압니다. 제가 묻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렇게 부산물을 수입을 하게 되면 어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야 되죠?
○ 해양환경보전팀장 김행준
예.
○ 허궁희 위원
그렇죠?
○ 해양환경보전팀장 김행준
예.

○ 허궁희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어민들한테 수혜를 한 게 맞습니까? 공장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해양환경보전팀장 김행준
거의,
○ 허궁희 위원
그러면 그것도 이렇게 해 주세요.
○ 해양환경보전팀장 김행준
예.
○ 허궁희 위원
어민들한테 매입한 내역, 저한테 한번 보고해 주세요.
○ 해양환경보전팀장 김행준
예.
○ 허궁희 위원
생산 어민들한테 수매한 내용을 보고 한번 해 주세요.
○ 해양환경보전팀장 김행준
예. 알겠습니다.
○ 허궁희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전복 먹이용 해조류 저장 공급 사업 있죠?
○ 해양환경보전팀장 김행준
예.
○ 허궁희 위원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자세히 설명 한번 해주세요.
○ 해양환경보전팀장 김행준
이거는 해조류 부산물 재활용 지원 사업하고 약간 비슷한데 전복산업연합회에서 해조류 부산물을 12개 읍면으로 나눠주다 보니까 좀 부족해요. 그래서 전복산업연합회에서 건의를 해서 수매를 해서, 한 10월 정도에 수매를 해서 다른 위원회에다가 대표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허궁희 위원
좋은 사업들입니다. 어려운 전복 어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완도 군민이면 누구나 다 칭찬할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과정이, 보급하는 과정들이 명확하고 어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해양환경보전팀장 김행준
예.
○ 허궁희 위원
그런 과정을 한번 재검토하시고 조금이라도 잘못된 점이 없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 해양환경보전팀장 김행준
예.
○ 허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호
박병수 위원님.
○ 박병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573페이지 바다숲 조성사업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바다숲 조성사업은 잘피를 이식하는 사업인데 국비로 80% 하고 군비로 20% 해서 내년도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 박병수 위원
어디, 위치는, 장소가 정해졌나요?
○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예. 사전에 적지 조사를 해서 고금 상정리하고 그다음 소안 미라리 두 군데가 적지로 선정됐습니다.
○ 박병수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578페이지 맨 상단에 취약 도서 주민 수송 도선 운영 지원 있잖아요. 취약 도서 주민 수송 도선 운

영 지원.

○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예.

○ 박병수 위원

이것이 870만 원 인상이 됐는데 이 부분 인건비가 더 증가한 부분인가요?

○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유류비하고 인건비입니다.

○ 박병수 위원

1항차 그럼 이것이 더 가능한가요?

○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지금 1항,

○ 박병수 위원

지금 3항차를 하고 있는데, 하루에. 한 항차를 더 증액해 달라고 해서 내가 또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거 반영이 된 것인가? 이 돈 가지고 인건비하고 유류비 전부 다 할 수 있는 것인가? 어떤가요?

○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팀장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해양환경보전팀장 김행준

1항차 증액을 위해서 87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 부분이 반영이 된 예산입니다.

○ 박병수 위원

그러면 4항차 오전 두 번, 오후 두 번 할 수 있다는 얘기죠?

○ 해양환경보전팀장 김행준

예. 그렇습니다.

○ 박병수 위원

그럼 화장실 예산은 여기 들어갔나요, 안 들어갔나요?

○ 해양환경보전팀장 김행준

화장실 예산은 4,000만 원 요구를 했는데 그 부분은 반영을 못 했고 추경 때 저희가 챙기도록 해 보겠습니다.

○ 박병수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이 민생 아닌가요? 한 10여 년 전이죠. 2014년 4월 16일에 세월호 사건 이후로 그 도선이 없어지고 새로운 배를 지었는데 그 배를 지금까지 도서 주민들이 이용을 했는데 화장실도 없었고, 에어컨도 없어서 에어컨은 금년도 추경 예산에 한 걸로 제가 확인이 됐어요. 그런데 화장실 없는 배를 지금까지 도서 주민들이 이용을 해 왔단 말입니다. 그보다 더 시급한 예산이 있을까요? 예산도 어쩝니까? 돈 4,000만 원이 없어서 화장실이 추경으로 미뤄진다는 게 말이 맞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하여튼 또 예산안에 책정 못 해서 죄송스럽고요. 저희들이 추경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병수 위원

도서 주민들이 10여 년 동안, 전부 다 나이 드신 분들입니다. 한 30분 배를 타야 하는데 화장실이 없어서 볼일을 어떻게 보겠어요? 그런 불편함이 있어도 지금까지 말을 못 하고 살았던 도서 주민들입니다. 그런 상황을 지금까지 해결 못 하고. 주민이 건의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도 이 정도로 반영을 안 하고 그 중요한 예산들을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어요? 예산 부서에서 관심을 가지십시오.

○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호

조영식 위원님.

○ 조영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짧게 하나 묻겠습니다. 582쪽에 무인도 해양 쓰레기 수거 처리 사업 있죠?

○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예.
○ 조영식 위원
이거 어떻게 처리하는 겁니까, 이게? 누가?
○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무인도 해양 쓰레기 수거 처리 사업은 어업 활동을 하는 배를 가지고 조업을 하는 어업 단체들을 대상으로 스스로 무인도 해양 쓰레기를 수거하는 데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 조영식 위원
기존에 그거는 안 했었나요? 작년에는?
○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작년에 예산을 저희가 확보를 못 했고, 그전에는 한 4,000만 원 이상씩 확보를 해서 4개 단체에서 참여를 했는데 작년에 못 했다가 올해 또 일부 확보를 했습니다.
○ 조영식 위원
좀 안타깝네요, 작년에 그랬던 거에. 그럼 그 위에 바다 지킴이 365 기동대 운영, 이것도 똑같은, 거의 비슷한 내용 아닐까요?
○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그렇습니다.
○ 조영식 위원
쓰레기 양식.
○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예. 바다 지킴이 365 기동대는 훨씬 더 규모가 크게, 대규모로 무인도 또는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섬에 구석진 곳에 밀려온 쓰레기를 처리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 조영식 위원
도움이 되니까 증액을 또 시켰겠죠.
○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예.
○ 조영식 위원
그런데 예산 증액 필요성에 의해서 예산 요구했다는 거죠?
○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예. 그렇습니다.
○ 조영식 위원
결국은 작년에 못했던 처리 수거 사업이 됐든 같은 내용일 것 같은데 365 기동대 해양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결국은 4,000만 원 증액 요청했네요.
○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예. 맞습니다.
○ 조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호
과장님, 방금 허궁희 위원님이 질의했던 제주완도 권한쟁의 있죠?
○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예.
○ 위원장 조인호
이 부분을 의회 전체에 알게끔 보고 한번 해주십시오.
○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호
그리고 해조류 부산물 사업은 설명을 잘 하세요. 과거에 금일수협에서 할 때는 어민들한테 채취를 해서 받아서 사서 공장에서 이렇게 가공을 해서 제작을 해놨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야 위원님이 알아듣죠. 그리고 소안수협이나 전복협회에서는 그냥 공장에서 사다가 아리만 따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호

그러니까 전복 해조류 저장 공급 사업비 1억 5,000만 원 해서 또 될 수 있으면 소안수협이나 금일수협에서 이렇게 하게 하세요. 그래야 말썽이 없어요.

○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호

참고하세요.

○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예.

○ 위원장 조인호

해양정책과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휴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휴양과

○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산림휴양과장 박은재입니다. 산림휴양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 2026년도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숲속 야영장 조성사업 18억 원, 완도 치유의 숲 조성사업 30억 원, 완도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60억 원, 다도해일출공원 확대 조성사업 5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9쪽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산림휴양과 2026년 본예산 편성 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7억 2,491만 원 감액된 214억 9,269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 내역입니다. 숲길 등산 지도사 2,600만 원, 생활권 등산로 정비 인부임 6,000만 원, 생활권 등산로 정비 임차료 1,500만 원. 620쪽. 생활권 등산로 정비 자재 구입 500만 원, 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 3억 2,000만 원, 등산로 연결사업 사무관리비에 2,000만 원, 신지 독고재 등산로 연결 사업 14억 8,000만 원. 621쪽입니다. 상왕산 등산로 정비 인부임 4,162만 7,000원, 생활권 등산로 및 생태 탐방로 정비 인부임 664만 원, 등산로 화장실 유지 관리 인부임 1,195만 2,000원, 섬자리 탐방로 정비 인부임 5,976만 원, 소안면 둘레길 정비사업 1,000만 원, 숲속 야영장 관리 인부임 7,470만 원, 휴양시설 정비용 장비 임차 859만 원, 등산로 방향 안내판 제작 500만 원, 숲속 야영장 관리 소모성 물품 600만 원, 예초기 및 산림 장비 수리 600만 원. 622쪽입니다. 숲속 야영장 식재용 수목 구입 500만 원, 노화읍 이치산 등산로 정비사업 2,000만 원, 노화읍 주요 등산로 정비사업비 2,000만 원, 군외면 나주봉 등산로 정비사업 2,000만 원, 소안면 가학산 등산로 정비사업 2,000만 원, 보길면 죽도리 저수지 둘레길 꽃나무 식재사업 2,000만 원, 보길면 등산로 정비사업 1,000만 원, 구계등 몽돌로드 조성사업 1억 원, 산림치유 단지 진입로 정비사업 1억 원, 숲속 야영장 정비사업 5,000만 원, 산림 치유 단지 상수도 관로 부설 공사 2억 원, 산림휴양시설 산사태 방제사업 8,000만 원, 숲속 야영장 운영 물품 구입 2264만 원. 623쪽입니다. 숲속 야영장 조성사업 1억 5,400만 원, 완도 가용자연 휴양림 조성 2억 원, 완도 치유의 숲 조성 시설비에 2억 원, 치유의 숲 시설 관리 인부임 9,960만 원, 치유의 숲 정비용 장비 임차료 1,320만 원, 치유의 숲 장비 물품 구입 850만 원. 624쪽입니다. 약산 해안 치유의 숲 경관 수목 구입 2,200만 원, 약산 해안 치유의 숲 위탁 운영 6,600만 원, 약산 해안 치유의 숲 보안 사업 1억 5,000만 원. 625쪽. 공원 시설 관리 인부임 6,724만 2,000원. 626쪽입니다. 다도해일출공원 시설 유지 관리비 1,000만 원, 다도해일출공원 공중화장실 분뇨 수거비 608만 원, 다도해일출공원 조경수 구입 500만 원, 시설비에 다도해일출공원 확대 조성사업 편입 부지 보상비 3억 1,000만 원,

민간 자본 이전에 다도해일출공원 내 집라인 안전장비 구입 및 보수 3,000만 원. 627쪽입니다. 해변공원 관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3,976만 원, 공공운영비에 해변공원 쿨링 포그 시스템 유지 보수비 500만 원, 해변공원 시설 관리 유지 보수비 1,000만 원, 해변공원 수조 유지 관리비 1,000만 원. 628쪽입니다. 빙그레공원 퇴비, 농약 살포 인부임 640만 원, 빙그레공원 조경 관리 인부임 1,804만 원, 빙그레공원 폭포 및 시설 유지 관리비 600만 원, 가용 제3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및 편의시설 유지 관리비 500만 원. 629쪽입니다. 정책숲 가꾸기 작업 인부임 3,000만 원, 큰나무 가꾸기 사업 3억 296만 원. 630쪽입니다. 어린이나무 가꾸기 사업 1억 6,682만 원, 조림지 풀베기 사업 5억 7,060만 원, 덩굴 제거 사업 4억 660만 원, 산불 예방 숲 가꾸기 사업 4억 950만 원, 감리비에 조림지 풀베기 사업 3,400만 원, 덩굴 제거 사업 2,900만 원. 631쪽입니다. 경쟁 조성 시설비에 일반조림 1억 9,569만 6,000원. 632쪽입니다. 산지 재해 방지 조림 7,729만 5,000원, 지역 특화 조림 작업 인부임 3,000만 원, 지역 특화 조림 재료 구입 5,820만 원. 633쪽입니다. 지역 특화 조림 8억 2,156만 4,000원, 탄소 배출권 거래제 상쇄 사업 지원 2,000만 원, 주민 참여 숲 재료 구입 2,000만 원. 634쪽입니다. 시설비에 주민 참여 숲 조성사업 1억 5,000만 원, 감리비에 2,000만 원, 섬 지역 마을 숲 가꾸기 인부임 6,972만 원, 섬숲 경관 복원 대상지 유지 관리 인부임 4,500만 원, 재료비에 500만 원, 읍면별 숲 가꾸기 사업 4,000만 원, 편백숲 산림공원 숲 가꾸기 사업 2,000만 원, 상왕산 얼레지 복원 풀베기 사업 2,000만 원, 청산면 청계리 편백숲 가꾸기 사업 2,000만 원, 칡덩굴 제거 전문 작업단 인부임 9,607만 3,000원, 주민 참여 숲 정비 인부임 2,000만 원, 사무관리비에 500만 원. 635쪽입니다. 관광지 및 도로변 가시권 덩굴 제거 사업 2,000만 원,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4억 9,000만 원, 대규모 산림 복원 사업 3억 8,800만 원. 636쪽입니다. 식목일 나무 심기 행사에 1,000만 원, 임업 후계자 드론 방제 면허 취득 위탁 교육 990만 원. 637쪽입니다. 산지 구분도 TV 정비 및 유지 관리 2,000만 원, 목재 수확 점검 관리 사업 2,723만 4,000원. 638쪽입니다. 벌채 부산물 수집 이용 확대 사업 2,000만 원. 639쪽입니다. 간선 임도 시설비에 임도 신설 7억 5,840만 원, 산불 진화 시설비에 임도 신설 3억 1,700만 원. 640쪽입니다. 작업 임도 2억 6,000만 원, 구조 개량 1억 4,228만 6,000원, 유지 보수에 4,571만 4,000원. 641쪽입니다. 사방댐 설치 2억 5,000만 원, 계류 보전 3억 5,468만 원. 642쪽. 해안 방재림 7,000만 원. 643쪽. 해안 침식 방지 6억 1,978만 원, 산사태 우려 지역 실태 조사 3,640만 원. 644쪽. 소나무재선충 방제 사업 1억 8,423만 6,000원. 645쪽. 우량곰솔림 종합 방제 1억 7,465만 6,000원, 산림 병해충 방제 인부임 996만 원, 산림 병해충 방제 약품 구입 1,000만 원. 646쪽. 산불 진화 장비 확충 2,378만 원. 647쪽입니다. 산불 감시원 1억 2,748만 8,000원, 산불 조심 깃발 제작 864만 원, 산불 조심 현수막 제작 504만 원, 산불대책본부 근무자 급량비 950만 4,000원, 산불 진화복 구입 660만 원, 산불 진화용 동력 펌프 수리 및 정비 500만 원, 산불 진화차 수리 및 정비 1,700만 원, 산불 방지 운영 헬기 임대 5억 7,403만 1,000원, 산불 조심 홍보 신문 광고료 594만 원. 648쪽입니다.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 처우 개선비 9,756만 원,

보호수 정비 4,000만 원, 보호수 안전관리 실태 조사 1,659만 원, 재해 위험목 정비 인부임 2,328만 원. 649쪽입니다. 위험목 제거 장비 임차 1,320만 원, 보호수 정비사업 2,000만 원, 재해목 및 위험목 제거 사업 3,000만 원, 산림 유전자 보호 구역 보호 관리 2,800만 원, 국도비 공무직 인부임 1,922만 3,000원, 임도변 풀베기 인부임 2,390만 4,000원, 산림 보호 시설 정비용 장비 임차 1,210만 원. 650쪽입니다. 임도 주변 식재용 수목 구입 500만 원, 읍면 임도 정비사업 6,000만 원, 금일읍 소랑리 임도 정비 공사 2,000만 원, 금일읍 동백리 임도 정비 공사 2,000만 원, 고금면 일덕암리 임도 보수 공사 2,000만 원, 약산면 삼문산 임도 정비 공사 2,000만 원, 약산면 여동리 임도 정비 공사 1,000만 원, 보길면 임도 정비사업 2,000만 원, 생일면 서성리 임도 확포장 사업 2,000만 원, 우량소나무림 예방 나무 주사 사업 2,851만 6,000원. 651쪽입니다. 산림 재난대응단 인건비 14억 6,389만 원, 산림 재난대응단 근무복 2,405만 4,000원, 산림 재난대응단 임차료 7,200만 원, 산림 재난대응단 유류비 3,487만 5,000원. 652쪽. 기후 대응 도시 숲 조성 21억 6,634만 원. 653쪽. 기후 대응 도시 숲 3,366만 원, 학교 숲 조성 시설비 5,830만 원, 천연 가로수 조성 시설비에 9,750만 원. 654쪽. 녹색 쌈지숲 조성 시설비에 2억 9,382만 원, 생활 밀착형 숲 조성 시설비에 9억 8,340만 원. 655쪽. 정원 전문가 양성 교육 1,875만 원, 숲 가꾸기 패트롤 인부임 7,650만 원. 656쪽. 도시 녹지 관리원 인부임 2,600만 원, 경관 조성 전문 작업단 인부임 1억 281만 6,000원, 가로화단 제초 인부임 1억 2,852만 원, 중앙 식수대 꽃 식재 인부임 3,984만 원, 신지 IC 정비 인부임 4,780만 8,000원, 완도 관내 주요 도로변 환경 정비사업 인부임 1,000만 원. 657쪽입니다. 노화읍 관내 주요 도로변 환경 정비사업 인부임 1,000만 원, 노화읍 동부권 도로변 환경 정비사업 인부임 2,000만 원, 노화읍 서부권 도로변 환경 정비사업 인부임 2,000만 원, 신지면 동부권 도로변 환경 정비사업 인부임 1,000만 원, 신지면 서부권 도로변 환경 정비사업 인부임 1,000만 원, 군외면 동부권 주요 도로변 환경 정비사업 인부임 2,000만 원, 군외면 서부권 주요 도로변 환경 정비사업 인부임 2,000만 원, 보길면 도로변 환경 정비사업 인부임 2,000만 원, 소안면 도로변 환경 정비사업 인부임 2,000만 원, 완도읍 주요 도로변 취약지 풀베기 사업 인부임 2,000만 원, 소안면 둘레길 정비사업 인부임 1,000만 원, 소안면 도로변 풀베기 사업 인부임 1,000만 원, 소안면 둘레길 풀베기 사업 인부임 1,000만 원, 보길면 군도변 풀베기 사업 인부임 1,000만 원, 노화읍 가로 경관 조성사업 인부임 1,000만 원, 노화읍 해안도로 미관 조성사업 인부임 1,000만 원, 가로 경관 전문 작업단 보호 장비 구입 1,080만 원, 나무은행 가식장 토지 임대료 5,100만 원, 나무은행 물품 구입 2,950만 원, 나무은행 장비 임차료 1,980만 원. 658쪽입니다. 가로화단 장비 임차료 2,640만 원, 가로화단 장비 구입 1,000만 원, 동력예초기 및 산림 장비 수리비 500만 원, 가로수 정비 물품 유지 관리비 500만 원, 교통섬 가로화단 꽃묘 구입 4,500만 원, 중앙식수대 꽃묘 구입 1,500만 원, 신지 IC 화단 꽃묘 구입 1,000만 원, 가로화단 상토 구입 960만 원, 완도 품목 완도호랑가시나무 구입 3,000만 원, 꽃길 조성 퇴비 구입 2,000만 원, 국도 13호선 풀베기 사업 2,000만 원, 국도 13호선 가로수 정비사업 2,000만 원, 국

도 77호선 풀베기 사업 2,000만 원, 국도 77호선 가로수 정비사업 2,000만 원, 시가지 가로수 방제사업 1,000만 원, 시가지 가로수 가지치기 사업 1,000만 원, 완도 호랑가시나무길 보식 및 정비사업 2,000만 원, 풀베기 및 가로경관 정비사업 5,000만 원, 고금면 상정리 가로수 식재사업 2,000만 원, 청산면 슬로길 주변 잡목 제거 사업 2,000만 원. 659쪽입니다. 보길면 도로변 풀베기 사업 1,000만 원, 읍면별 주요 공원 및 쉼터 정비 인부임 1억 2,748만 8,000원, 산림 복원 정비 인부임 1억 320만 원, 도시 숲 정비 인부임 6,854만 4,000원, 근로자 안전보호구 구입 600만 원, 도시 숲 안내판 제작 1,000만 원, 공원 장비 및 가로화단 유지비 1,000만 원, 완도 호랑나시나무 체험 교실 운영 3,000만 원, 공원 수목 방제 약품 구입 1,000만 원, 덕암산 생태공원 정비사업 2,000만 원, 생활 밀착형 숲 정비사업 4,000만 원, 편백숲 산림공원 진입로 토지 매입 9,500만 원, 기후 대응 도시 숲 기반 조성사업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휴양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호

산림휴양과장 제안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궁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예.

○ 허궁희 위원

완도에 등산로가 2시간 이상 타는 곳이 여러 곳 있죠?

○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예. 그렇습니다.

○ 허궁희 위원

그런 데를 타다 보면 남자들은 그런대로 해결이 돼요. 그런데 여자분들이 2시간 이상을 타다 보면 중간중간에 크지는 않아도 간이 화장실이라도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화장실이요?

○ 허궁희 위원

예. 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산행을 해보면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이런 불편 사항이 있어서 과장님께서 한번 구상을 해보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안 한번 합니다.

○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예. 전체적으로 한번 저희도 검토해 보고요.

○ 허궁희 위원

지금 현재 설치가 돼 있는 등산로가 있나요?

○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지금 중턱에는 없고요. 완도읍 대신리 이라든지,

○ 허궁희 위원

입구하고 마무리에.

○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예. 입구에만.

○ 허궁희 위원

그렇죠?

○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예.

○ 허궁희 위원

왜 그러냐 하면 2, 3시간까지는 참아져요. 그 이상을 타게 되면 볼일을 봐야 하는 그런 또 신체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서.

○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실제 저희들이 등산로 자체에다 설치는 힘들고요. 예를 들어서 상왕산 같은 경우는 중턱쯤에 인도가 있기 때문에,

○ 허궁희 위원
그렇죠.
○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그런 부분에 인도 주변에 설치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 허궁희 위원
그렇게 구상을 해서 편의를 한번 제공하면 좋겠어요.
○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예.
○ 허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호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 박병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전년 대비 한 7억 2,400만 원이 감소가 됐어요. 거기에 인건비 비중이 한 34억 4,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예.
○ 박병수 위원
상당히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동부 진입 도로에 호랑가시나무 이쪽에 식재가 돼 있죠?
○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예. 그렇습니다.
○ 박병수 위원
울타리에 또 조경수 식재가 돼 있고.
○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예.
○ 박병수 위원
그걸 관리를 하는데 일하시는 분들이 집단이 와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교통사고, 안전 문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면 사람들이 많이 와서 같이, 물론 유도 요원이 있다고 하지만 아주머니들이 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안전 교육을 철저히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원동까지 가다 보면 무슨 나무입니까? 거기에도 차를 세워넣고 작업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유도 요원을 배치를 해서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그런 부분들이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예.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 박병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호
산림휴양과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0분 회의계속)

○ 위원장 조인호
성원이 되었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가족행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행복과**

○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가족행복과장 박미정입니다. 가족행복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79쪽입니다. 저희 과 예산은 1,138억 1,694만 4,000원으로 작년 대비 49억 6,661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기초연금과 노인 일자리 등 국토비 예산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 돌봄 운영비 외 6건 4,980만 원, 380쪽입니다. 통합 돌봄 한정 조사 국내 여비 630만 원, 통합 지원 회의 및 간담회 등 420만 원, 일상생활

돌봄 등 서비스 지원에 9억 1,500만 원, 전담 요원 인건비 5,028만 원입니다. 다음은 381쪽입니다. 읍면 노인 일자리 및 참여자 활동비 외에 2건 37억 1,653만 8,000원, 노인 일자리 사무관리비 9,636만 원. 다음은 382쪽입니다.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 보조 107억 9,548만 2,000원, 시니어 클럽 운영비 외 1건에 대해 3억 8,325만 원, 시니어 클럽 종사자 특별 수당 693만 원. 다음은 383쪽입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민간 위탁금 32억 9,884만 7,000원, 노인 맞춤 사무실 운영비 지원 1,200만 원, 독거노인 생활지원사 처우 개선 지원 1억 6,200만 원, 어르신 지킴이단 돌봄 대상 안부 살피기 사업 3,960만 원, 독거노인 중증 장애인 응급안전 돌봄 사업 운영비 3억 3,164만 6,000원, 독거노인 및 장애인 응급안전 알선 서비스 인건비 자체 추가분 1,659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384쪽. 경로식당 무료 급식 지원에 4억 1,137만 5,000원, 경로식당 무료 급식 지원에 6,300만 원. 여기는 사회보장적 수혜금과 사회복지 사업 보조가 나눠져서 그럽니다. 노인 보청기 지원 사업 600만 원, 노인 대학 운영 지원 5,500만 원, 프로그램 운영 지원 500만 원, 찾아가는 노인 대학 운영비 3,000만 원, 대한노인회 완도군 운영 지원에 7,650만 원. 다음은 385쪽입니다. 완도군 노인회 활성화 지원에 4,454만 3,000원. 다음은 386쪽입니다. 기초연금 지원액 618억 8,918만 1,000원입니다. 노인 목욕 바우처 카드 수수료 지원에 3,840만 원, 노인 이·미용 및 목욕비 지원에 10억 5,000만 원, 장수 축하금 지원에 800만 원, 노인 요양시설 틀니 살균 세척기 지원에 418만 원. 다음은 387쪽입니다. 노인 의료복지시설 의료기기 구입에 2,200만 원, 노인 요양시설 종사자 특별 수당 지원에 1억 2,540만 원, 의료급여 수급자 지자체 부담금 지원액 19억 3,820만 7,000원. 다음은 388쪽입니다. 노인 생활 지원 등급외자 입소 시설 운영비 지원에 2,892만 3,000원, 재가 노인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에 25억 2,198만 8,000원, 양로시설 운영 지원 사업에 4억 8,800만 원. 다음은 389쪽입니다. 경로당 여가 프로그램 물품 구입에 600만 원, 경로당 여가 프로그램 운영 인건비에 2억 8,980만 원, 경로당 책임 보험료 지원에 4,300만 원, 경로당 운영 부식비 지원에 4억 1,184만 원, 경로당 신축 외 4건에 8억 7,000만 원. 다음은 390쪽입니다.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4,107만 5,000원,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자체 추가분 760만 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4억 7,740만 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약국 양복 지원 사업에 양복 군복 운송대에 2,245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391쪽입니다. 경로당 양복 지원에 1억 7,225만 원, 경로당 특별 난방비 지원에 5억 1,782만 5,000원, 경로당 냉방비 지원에 1억 230만 원, 경로당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지원에 1,400만 원, 소방시설 점검 및 소규모 개보수 공사에 1,500만 원. 다음은 392쪽입니다. 시설 수급자 생계 급여에 3억 3,500만 원, 경로당 입식 테이블 지원에 1,800만 원. 다음은 393쪽입니다. 장기 요양기관 환기 시설 설치에 1,861만 6,000원, 농어촌 공중목욕장 운영에 3,500만 원, 농어촌 공중목욕장 운영 외 1건에 2억 1,500만 원, 시설비에 8,640만 원. 다음은 394쪽입니다. 추모 공원 수목 고사 및 공공 관리에 3,000만 원, 공소 표지 및 추모 공원 운영 민간 위탁비 1억 5,000만 원, 추모 공원 사무실 컴퓨터 및 방송 시설 교체 2,000만 원, 읍면 공동묘지 환경 정비에 2,037만 6,000원, 무연고 사망자 공영 장례 지원에 1,280만 원, 남

도 광역 추모 공원 운영 부담금에 8,325만 7,000원. 다음은 395쪽입니다. 또 청소년 문화의 집 성과 보고에 600만 원, 청소년 건전 문화 정착 프로그램 운영에 9,500만 원, 또한 청소년 문화의 집 인건비에 2,724만 원. 다음은 396쪽입니다. 완도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지도사 배치 지원에 2,724만 원, 청소년 지도자 처우 개선 특별 수당에 2,121만 6,000원,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에 806만 6,000원입니다. 397쪽입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에 1억 9,672만 8,000원, 청소년 상담 복지 운영 안전망 지원에 1억 600만 원, 청소년 상담 복지 센터 운영 집중 클리닉 지원에 4,102만 원입니다. 다음은 398쪽입니다. 청소년 상담 센터, 상담 복지 센터 운영에 9,477만 9,000원, 자체 추가 금액 6,000만 원입니다.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 외 9종에 4억 6,120만 원. 다음은 399쪽입니다.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에 2,538만 8,000원,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바우처 지원에 3,000만 원, 위기 청소년 특별 지원에 1,455만 원입니다. 다음은 400쪽.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9,129만 1,000원, 학교 밖 청소년 참여 수당 지원에 2,340만 원,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에 640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401쪽입니다. 부모 급여 지원에 21억 3,921만 1,000원, 가정 양육 수당 지원에 1억 43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25억 7,166만 원. 다음은 402쪽입니다. 국공립 법인 시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에 32억 4,832만 원, 영아 전담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에 6억 1,770만 원, 그 밖에 연장형 교사 인건비에 6,124만 원, 장애아 통합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2,046만 원, 틈새 돌봄, 아침 돌봄 운영 인건비에 5,414만 원,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인건비에 1억 1,248만 원. 다음은 403쪽입니다. 교재, 교구비 외 2종에 9,946만 원, 영아,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 냉난방기 지원 외 5종에 2억 8,593만 원. 다음은 404쪽입니다.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지원 외 2종에 1억 1,410만 원, 교사 근무 환경 개선 계획 외 2종에 3억 6,844만 원, 도서 지역 어린이집, 보육원 교통비 지원 외 2종에 9,900만 원. 다음은 405쪽입니다. 보조 교사 지원 외 1종에 4억 2,314만 원, 누리과정 보육료 등 지원 외 2종에 11억 3,410만 9,000원,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에 3,528만 3,000원. 다음은 406쪽입니다. 어린이집 기능 보강 보조와 자체 사업에, 어린이집 기능 보강 개보수에 3,000만 원, 국공립 어린이집 개보수에 1,000만 원, 어린이집 기능 보강에 2,000만 원, 시간제 보육 지원에 2억 7,132만 8,000원. 다음은 407쪽입니다.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에 960만 원, 5세 무상 보육 지원에 2,772만 원. 다음은 408쪽입니다. 학기 중 아동 급식에 2억 7,930만 원, 방학 중 아동 급식에 2억 1,600만 원,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3,650만 원. 다음은 409쪽입니다. 입양 아동 양육 수당에 3,120만 원, 전남 남부권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에 5,115만 3,000원, 가정 위탁 지원센터 운영에 3,172만 5,000원, 아동 발전 지원 계좌 지원에 1억 9,548만 원입니다. 다음은 410쪽입니다. 가정 위탁 양육 보조금 외 3종에 7,018만 원, 자립 청소년, 자립 준비 청년 자립 수당에 2,400만 원, 자립 준비 청년 자립 정착금에 3,000만 원. 다음은 411쪽입니다. 아동 수당 급여에 26억 5,304만 2,000원, 장난감 도서관 장난감 수리 및 소독 외 3종에 2,200만 원, 장난감 도서관 운영에 따른 시설물 정비에 1,000만 원. 다음은 412쪽입니다. 아동 보호 전담 요원 급여 외 7종에 5,036만 8,000원. 다음은 413쪽입니다. 실종 아동 예

방 어린이 체험 부스 운영에 2,500만 원, 청해 어린이 문화 체험 및 어울림 한마당에 5,000만 원. 다음은 414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2억 2,025만 4,000원, 자체 추가분에 6,6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연합회 어울림 한마당 지원에 1,000만 원, 아동복지 교사 인건비에 5,965만 4,000원. 다음은 415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 복지 교사 파견에 2억 2,837만 4,000원. 다음은 416쪽입니다. 꿈사다리 공부방 사업비 지원에 6,455만 원,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에 5억 5,468만 원, 자체 추가분에 3,820만 5,000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특별 수당에 3,240만 원, 자체 추가분에 2,880만 원, 지역아동센터 급식 도우미 지원 사업에 6,600만 원, 자체 추가분에 3,960만 원입니다. 다음은 417쪽. 특수 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4,200만 원,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비 지원 자체 추가분에 4,620만 원, 지역아동센터 환경 개선 지원에 3,0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추가 지원 외 2종에 13억 7,927만 원. 다음은 418쪽입니다. 아동 통합 사례 관리사 급여에 1억 8,258만 원. 다음은 419쪽입니다. 아동 통합 사례 관리사 특급 외식비 외 5종에 5,764만 원. 다음은 420쪽입니다. 드림스타트 힐링캠프 운영에 700만 원. 다음은 421쪽입니다. 신체, 인지, 정서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3,108만 6,000원, 드림스타트 아동복지기관 협의체 운영 외 3종에 1,642만 5,000원. 다음은 422쪽입니다. 드림스타트 학습지 지원 사업에 1,440만 원, 드림스타트 학원 연계 지원 사업에 1,800만 원, 드림스타트 사무실 기자재 구입에 1,000만 원, 꿈키움 오케스트라 사업 지원에 3,413만 3,000원, 완도군 출생 기본 수당에 1억 8,000만 원, 전라남도 출생 기본 수당 2억 7,7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2026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호

가족행복과장 제안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정욱 위원

과장님,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요. 413페이지에.

○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잠깐만요.

○ 최정욱 위원

민간행사사업보조 청해 어린이 문화 체험 및 어울림 한마당 교육청 세부 내용 설명해 주시겠어요?

○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413쪽이요?

○ 최정욱 위원

413 하단.

○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지금 매년 청년회에서 어린이날 할 때 기념행사하고 그다음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가외로 체험 나가는 프로그램입니다.

○ 최정욱 위원

청년회에서 회비로 거기에,

○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2개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최정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호

허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궁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94쪽이요. 중간에 읍면 공동묘지 환경 정비사업이라 해서 2,000만 원 조금 넘게 예산을 했습니다. 지금도 읍면 공동묘지를 관리하나요?

○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예.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 허궁희 위원
그래요?
○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풀베기 사업을 해요.
○ 허궁희 위원
공동묘지를?
○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예. 매년 조금 세워져서 올해는 좀 올려서.
○ 허궁희 위원
예전에는 한 것 같더니 지금은 거의 안 한 것 같아서,
○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합니다.
○ 허궁희 위원
어느 부분으로 한 건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아니, 공동묘지를 하고 있습니다.
○ 허궁희 위원
그래요?
○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예.
○ 허궁희 위원
신지 같은 데 그전에는 그렇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예산이 있어서. 그러더니 요즘은 그냥 묵혀버렸더라고, 완전히. 그래서,
○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저희가 그러면 신지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 허궁희 위원
아니, 이제는 어떻게 가도 못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완전히 묵어버려서 산이 돼 버렸어. 그래서 다른 읍면을 하나 보다.....
○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다른 읍면 하고 있습니다.
○ 허궁희 위원
궁금해서 확인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조인호
군외는 아주 깨끗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 허궁희 위원
아니, 진짜 산 같더라고. 그래서 어느 때부터 이렇게 잘했나.
○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공동묘지 읍면에서 풀베기를 사실 기본적으로 연 4회 정도는 해야 하는데 예산이 항상 작아서.
○ 허궁희 위원
그런데 신지는 범위가 커서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 그게 상당히 범위가 크더라고.
○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그러면 추경에 예산을 좀 더 세우겠습니다.
○ 허궁희 위원
그러면 한번 하나 안 하나 내가 열심히 보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호
지민 위원님.
○ 지민 위원
과장님, 보다가 궁금한 게 있어서. 우리 완도에 꿈키움 오케스트라가 있습니까? 어디, 어디 있습니까?
○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완도중앙초등학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꿈키움 오케스트라가 보조 사업을 해서 전남 전체적으로 하고 있고 최근에 지금 최종 성과 보고회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 지민 위원
보고회 했어요?
○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예. 금요일에 완도신문에서 나왔거든요.
○ 지민 위원
그래요?
○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예.

○ 지민 위원

제가 성과 보고회나 이렇게 공연하는 거를 한 번도 못 봐서 완도에는 없는 줄 알았어요.

○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이게 저기 보조 사업 해서 전남 협회에서 이렇게 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중앙초등학교에서 연습을 시켜요.

○ 지민 위원

언제부터 있었어요?

○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지금 이게 한 10년 넘었어요.

○ 지민 위원

10년 넘었어요? 저는 완도 공연을 못 봐서 우리 완도에는 없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오늘도 딱 보이네요.

○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예. 금요일에 보도 자료는 지금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 지민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호

조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영식 위원

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389쪽인데 아주 간단히만 묻겠습니다. 389쪽 예산도 6,7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경로당 신축에 대한, 실례지만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경로당 신축. 지금 경로당은 저희가 매년 신축은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1건씩 매년 하는 추세였고 그전에 못 했는데 한 번은 우리 군비가 좀 열악했을 때 그 한 해만 빠졌고, 이 신축에 대해서는 매년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적격자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 조영식 위원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까?

○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예. 아직은 정해진 건 없고요. 이게 공모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신청을 자꾸 받아서 조정위원회에서 심의 끝나고 나면 결정이 됩니다.

○ 조영식 위원

보통 심의 끝날 때 시기가 어느 정도 될까요?

○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1월 말에서 2월 초 정도.

○ 조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호

가족행복과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 건설과장 김진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진원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6년도 본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 설명에 앞서 먼저 113쪽 2026년도 계속비 사업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26년 계속비 사업은 배수 개선 사업 등 총 16개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는 2025년 881억 7,350만 5,000원에서 약 385억이 증액된 1,267억 2,686만 5,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 용수 개발 사업은 총 3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총사업비는 193억 2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114쪽 농지 기반 조성 사업은 총 10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총사업비는 372억 8,581만 5,000원입니다. 올해 공모 확정된 금일 소랑지구와 노화 석중지구는 26년도부터 29년까지 약 45억을 투입하여 취약지역 생활 개선 기초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5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총 3개 지구의 사업을 추진 중이

며 총사업비는 701억 4,000만 원입니다. 26년 신규 사업으로 추가된 신지 동고지구는 2029년까지 약 426억 원을 살포, 상습 침수구간을 정비하여 집중호우 등으로 피해를 겪었던 주민들의 통행 불편 및 불안감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2026년 계속비 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731쪽 2026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2026년도 본 예산은 2025년도 본 예산 242억 5,098만 원 대비 173억 9,196만 8,000원이 증액된 416억 4,29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국공유재산 민원분쟁 측량 및 토지 보상비 1,000만 원. 다음 732쪽 견실시공관리 도로 응급 복구 및 제설 장비 임차비 2,400만 원, 제설제 살포기 및 유지관리비 500만 원, 겨울철 제설용 염화칼슘 구입 1,452만 원, 도로보수자재 구입비 1,020만 원, 도로안전시설물 유지관리 자재물품 구입비 500만 원, 도로안전시설물 정비사업 2,000만 원. 다음 도로시설개선 군도 및 농어촌도로 도로망도 제작 2,000만 원, 해당 사업 추진 영상 제작 2,000만 원. 계속해서 733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토지, 지장물 보상비 1억 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수수료 1,000만 원,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8억 원, 군도, 농어촌도로 아스콘 포장공사 3억 원, 법정도로 싱크홀 긴급 복구비 2,000만 원, 불법 이동상인 단속 관리용역 2,000만 원, 완도읍 군도 1호선 배수로 정비공사 2,000만 원, 생일면 금곡리 군도 15호선 방호벽 도색 공사 2,000만 원, 국립난대수목원 우회도로 개설공사 20억 5,000만 원, 소안 구도 간 연도교 개설공사 자치단체간부담금 노소보 생활권 통합 연도교사업 110억 원, 안전시설물 유지관리 군도 및 농어촌도로 차선 및 안전시설물 정비공사 5,000만 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표지판 정비공사 3,000만 원, 국도 가로등 보수 및 교체공사 3,000만 원. 이어서 734쪽, 도로교통심의회 관련 시설물 교체 1,000만 원, 연도, 연륙교 주변 풀베기 작업 2,500만 원, 보길대교 정밀안전점검 1억 1,000만 원, 보길대교 정기안전점검 2,000만 원, 보길대교 사설항로 위탁관리용역 2,000만 원, 소안1교 유도부표 위탁관리용역 2,000만 원, 소안1교 및 절토사면 정기안전점검 2,000만 원, 소안1교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용역 2,000만 원, 과속카메라 신규 설치 1억 원, 2026년 무인교통단속장비 정비검사비 5,000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실태조사 5,328만 원, 2026년 무인교통단속 카메라 설치 사업 2억 8,000만 원, 2026년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사업 6,000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4억 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자체 추가분 5,000만 원. 다음 735쪽 법정도로 유지관리 군도 및 농어촌도로 보수공사 9,600만 원, 금일읍 농어촌도로 202호선 포장공사 1억 5,000만 원, 배수개선사업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 완도 충도지구 배수개선사업 31억 3,100만 원, 금당 삼산지구 배수개선사업 44억 5,100만 원, 한발대비 용수개발 가뭄 대비 장비임대료 720만 원, 가뭄 대비 양수장비 유류대 714만 원,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고금 가교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1,500만 원 동기간 대행 사업비입니다. 계속해서 736쪽, 소규모배수개선사업 금일 월송지구 소규모배수개선사업 5억 원, 정주권생활개발사업 17억 8,500만 원, 군외 데크로드 정비사업 10억 원, 군외 갈문저수지 보수보강사업 8억 원, 금당 삼산저수지 그라우팅 사업 3억 원, 신지 대곡저수지 정비사업 2억 원, 완도 소가용리 그라우팅 공사 1억 원, 기계화

확장사업 3억 원,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노화 구석, 동천 배수장 관리인부임 996만 4,000원,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민원 측량 수수료 630만 원. 이어서 737쪽 노화, 구석배수장 안전점검 수수료 600만 원, 염해피해 보상금 2,100만 원, 저수지, 방조제, 관정 보수 및 유지관리 3,000만 원, 완도군 경지정리지구 용배수로 정비 3,000만 원, 농로 및 배수로 미불용지 토지매입 5,000만 원, 농어촌 저수지 방조제 풀베기 사업 5,000만 원, 고금가교 방조제 자동비 보수 공사 1,100만 원, 공기관 위탁사업비 화흥포간척지 유지관리비 4,000만 원, 농업기반정비 2024년 착수 밭기반정비사업 3억 3,950만 원, 소규모농로 정비사업 체도권 농로 및 배수로 증대 공사 2억 원, 동부권 농로 및 농배수로 확포장공사 2억 원, 남부권 농로 및 농배수로 확포장공사 2억 원. 계속해서 738쪽, 완도읍 구)군부대삼거리 농배수로 정비사업 2,000만 원, 완도읍 망석리 농로 포장공사 2,000만 원, 완도읍 대야읍 밭들 농배수로 정비공사 2,000만 원, 원덕 중도리 들논들 농배수로 정비공사 2,000만 원, 완도읍 화흥리 농배수로 정비공사 2,000만 원, 완도읍 장좌리 농배수로 정비공사 2,000만 원, 완도읍 대신리 농배수로 정비공사 2,000만 원, 완도읍 대가용리(염수골) 농배수로 정비공사 2,000만 원, 완도읍 정도리 농배수로 정비공사 2,000만 원, 완도읍 대야1구 농배수로 정비공사 2,000만 원, 완도읍 부흥리 농배수로 정비공사 2,000만 원, 완도읍 도장리 농배수로 정비공사 2,000만 원, 금일읍 척치리 농배수로 정비공사 2,000만 원, 노화읍 등산리 농배수로 공사 2,000만 원, 군외 영풍리 농로 확포장공사 2,000만 원, 군외 남선리 농로 법면 보강공사 2,000만 원, 신지면 월부리 농로 포장공사 2,000만 원, 고금 내동리 농배수로 정비공사 2,000만 원, 고금 회룡리 농배수로 정비공사 2,000만 원, 고금 장풍리 농배수로 정비공사 2,000만 원, 고금 일덕 암리 농배수로 정비공사 2,000만 원, 청산 양중리 농로 확포장공사 2,000만 원, 소안 미라리 농가 정비공사 2,000만 원, 금당면 신흥리 농배수로 정비공사 2,000만 원. 다음 739쪽, 방조제개보수 완도 세포지구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12억 8,250만 원,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금일 궁항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8억 300만 원, 군외 중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6억 100만 원. 740쪽입니다. 생일 금곡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6억 500만 원, 고금 용초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3억 500만 원, 약산 구성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3억 1,700만 원. 다음 741쪽, 금일 소랑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2억 2,700만 원, 노화 석중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2억 3,100만 원. 수리시설 개보수 고금 황동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7억 1,750만 원, 도시 및 농어촌 가로등 등 시설 및 유지관리 12개 읍면 가로등 신설 및 유지관리 2억 원, 군외면 관내 가로등 시설공사 2,000만 원, 노화읍 당산리 가로등 시설공사 2,000만 원. 계속해서 742쪽, 금일읍 화목리 가로등 정비공사 2,000만 원, 가로등 관제시스템 유지관리 기술용역 540만 원, 농어촌 가로등 전기요금 5억 원. 소하천관리입니다. 취약지 소하천 정비사업 인부임 1,494만 원,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주민 설명회 홍보 자료 제작 525만 원, 소하천 정비사업장 현수막 제작 605만 원, 소하천 재해 복구 장비 임차료 2,376만 원, 소하천 정비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지급 5,000만 원, 체도권 소하천 시설물 정비 1억, 동부권 소하천 정비사업 1억 원, 남부권 소하천 시설물 정비 1억 원, 체도권

세천 정비 1억 원, 동부권 세천 정비 1억 원, 남부권 세천 정비 1억 원, 청산면 구장리 하천 정비사업 2,000만 원. 이어서 743쪽, 완도읍 대신리 하천 안전시설물 정비공사 2,000만 원, 완도읍 화흥천 정비공사 2,000만 원, 금일읍 하화전리 세천 정비공사 2,000만 원, 보길면 부용리 소하천 정비공사 2,000만 원, 군외면 중리 세천 정비공사 2,000만 원, 보길면 선창리 소하천 정비공사 2,000만 원. 지방하천관리 토지보상 우편 발송 요금 700만 원, 재해위험 시설 정비 소하천 퇴적토 준설 및 잡목제거 5,000만 원, 급경사지 정비공사 3,000만 원, 급경사지 및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지구 고시 해제 용역 6,000만 원, 소하천 재해위험 시설물 정비 4,000만 원, 재해위험 시설물 정비공사 2,000만 원. 계속해서 744쪽, 재해위험지구정비입니다. 금일 동송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1억 원, 금일 동송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감리용역 5,005억 원, 완도 1부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20억 원, 신지 동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4억 원. 마지막으로 745쪽, 내부거래지출 옥외광고 발전 기금 조성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6년 본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호

건설과장 제안 설명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님.

○ 박병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지금 733페이지 국립난대수목원 우회도로 개설공사 지금 내년도 예산이 63억 원이 지금 국비가 들어와 있죠?

○ 건설과장 김진원

난대수목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 박병수 위원

거기 진입로.

○ 건설과장 김진원

진입로 쪽은 아닌 것 같아요. 산림휴양과에서 추진되는 그때 본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박병수 위원

이것은 국도인가요?

○ 건설과장 김진원

예. 저희가 들어가는 우회도로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설계를 했습니다.

○ 박병수 위원

그러면 그 사업이 산림청 사업으로 해서 목표사업이 63억인가요?

○ 건설과장 김진원

그렇습니다.

○ 박병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호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설과장과 관련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5시00분 회의계속)

○ 위원장 조인호

위원 여러분들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환경수질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수질관리과

○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안녕하십니까?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입니다. 108페이지 환경수질과 소관 26년도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수질과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은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 등 총 13개 사업으로 예산액은 525

억 376만 3,000원입니다. 166쪽 환경수질관리과 특별회계 계속비 사업은 금일 동백리 수원지 개발 등 총 7개 사업으로 예산액은 259억 1,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수질과 소관 26년도 계속비 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663쪽입니다. 환경수질관리과 26년 본예산 편성 요구액은 451억 8,313만 1,000원입니다. 편성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해 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1,880만 원, 유해 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2,400만 원. 664쪽. 야생동물 열화상 적외선 카메라 구입 1,566만 7,000원, 야생 동식물 불법 포획 도구 수거 인부임 996만 원, 유해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 운영 유지비 500만 원. 665쪽. 유해 야생동물 피해 농작물 등 보상 지원 800만 원, 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 784만 원. 666쪽. 국립공원 탐방로 정비 인부임 1,992만 원, 국립공원 탐방로 시설물 보수 및 정비 2,000만 원. 667쪽. 전기 승용차 구매 지원 3억 3,337만 5,000원, 민간 전기 화물차 구매 지원 4억 5,500만 원, 전기 이륜차 구매 지원 1,160만 원, 전기 버스 보급 사업 1억 4,520만 원. 668쪽. 급속충전기 유지 관리비 3억 1,200만 원, 전기 충전기 보급 사업 1,500만 원,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산정 수수료 500만 원, 5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3,000만 원, 4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1억 9,050만 원. 669쪽. 노후 건설기계 조기 폐차 지원 1억 1,550만 원,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 4억 2,900만 원, 전기 지게차 보급 1,000만 원, 탄소 포인트제 에너지 분야 지급 1,200만 원. 670쪽. 대기오염 측정망 정도 검사 560만 원, 대기 측정망 운영 관리 2,000만 원, 환경 개선 부담금 고지서 발송 우편료 1,060만 원. 671쪽. 환경 개선 부담금 가상계좌 수납 시스템 유지 보수 용역 888만 원. 섬섬브랜드 및 마을 실버 기업 육성 1,500만 원. 탄소 중립 포인트제 플랫폼 운영 1억 5,000만 원. 전기차 배터리 화재 전용 소화기 구입비 2,500만 원. 672쪽. 전기차 재난 지원금 7,540만 원, 수소차 구매 지원 7,500만 원, 26 완도군 가축 분뇨 관리 계획 수립 용역 2,000만 원, 가축 사육 제한 구역 지역도면 변경 고시 위탁 용역 2,000만 원. 673쪽. 화학 안전사고 대비 안전 제품 구입 500만 원, 불법 개축 확인을 위한 특정 장비 임차료 500만 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 카메라 통제 발전 센터 위탁 운영비 1,257만 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 시스템 유지 관리 업체 선정 및 통합 관리 사업비 784만 6,000원. 674쪽.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 개량 사업 6억 6,000만 원, 폐기물 처리장 기간제 근로 인부임 5,727만 원, 읍면 소각시설 자가 측정료 3,800만 원, 폐기물 매립 시설 정기검사 수수료 700만 원, 읍면 폐기물 처리장 수질 검사 수수료 3,740만 원, 읍면 소각시설 다이옥신 측정 수수료 2,000만 원, 읍면 소각시설 전기 검사 수수료 금당, 보길, 생일 1,050만 원, 사용 종료 매립 시설 관리 7,740만 원, 폐기물 처리 시설 전기 안전 관리 수수료 876만 원, 폐기물 처리 시설 전기 검사 세금 수수료 1,500만 원. 675쪽. 폐기물 소각 시설 유지 및 운영 교육수수료 500만 원, 읍면 폐기물 처리 시설 소규모 수선비 1,000만 원, 읍면 폐기물 처리 시설 가동 약품 구입 1,000만 원, 폐기물 처리 시설 매립시설 소독 약품 800만 원, 소각시설 대기 오염 방지 백필터 구입 1,400만 원, 읍면 폐기물 처리 시설 재활용품 운영비 2,000만 원, 폐기물 시설 대형 폐기물 장비 임차비 2,500만 원, 읍면

폐기물 처리 시설 전기 검사 시설 보수비 2,000만 원, 소규모 폐기물 처리 시설 송풍기 및 덕트 교체 1,500만 원, 보길면 소각시설 컨베이어 체인 교체 900만 원, 보길면 소각시설 2차버너 교체 500만 원, 금남면 소각장 직원 휴게실 2,000만 원, 금일읍 매립 시설 사용 유료 준비 공사 5,000만 원, 신지면 폐기물 관리 시설 상수도 관련 공사 2,000만 원, 읍면 폐기물 소각장 다이옥신 저감 장치 설치 1,000만 원, 자원 순환 기반 조성사업 2,700만 원, 금일읍 폐기물 처리장 보수 관리 정비 공사 1,000만 원, 읍면 소각시설 수선중 생활 폐기물 위탁 처리비 3,000만 원, 폐기물 처리장 적채 폐기물 위탁 처리비 2,000만 원, 읍면 폐기물 처리시설 비산재 위탁 처리비 2,000만 원. 676쪽. 금일읍 생활 폐기물 위탁 처리비 2억 원, 청산면 생활 폐기물 위탁 처리비 1억 5,000만 원, 노화읍 생활 폐기물 위탁 처리비 1억 5,000만 원, 완도군 자원관리센터 주변 풀베기 인부임 747만 원, 대형 폐가전 파레트 랩핑 작업 인부임 996만 원, 자원 순환 폐기물 처분 부담금 1억 2,400만 원, 매립장 적재 폐기물 위탁 처리 2억 원, 완도군 자원관리센터 유지 관리 사용료 16억 원, 협약 외 지역 유지 관리 사용료 1억 원, 위탁 관리 대행 16억 원, 자원 순환 폐기물 처분 위탁 처리 1,000만 원, 완도군 음식물 폐기물 위탁 처리 2억 원, 완도군 음식물 폐기물 운반 운영 5,000만 원, 폐목재 폐기물 위탁 처리 2,000만 원, 폐매트리스 위탁 처리 1,500만 원. 677쪽. 폐기물 불법 투기 지도, 단속 인부임 796만 8,000원, 공한지, 취약지 방치 쓰레기 수거 인부임 597만 2,000원, 완도항 물양장 쓰레기 수거 인부임 830만 원, 슬로걷기축제 환경 정화 인부임 747만 원, 환경미화원 안전 장비 구입 5,478만 원, 대형 폐기물 처리 스티커 제작 594만 원, 환경미화원 전기 안전 보건 교육 수수료 800만 원. 678쪽. 자원 회수 위탁 운영비 734만 4,000원, 일회용품 없는 축제 만들기 지원 사업 4,000만 원, 쓰레기 종량제 규격 봉투 제작 구입 6,398만 원, 불연성 폐기물 배출용 종량제 봉투 제작 700만 원, 취약지 쓰레기 수거 등 지원 사업 1,200만 원. 679쪽. 도서 지역 비위생 매립장 생활 쓰레기 위탁 처리 1,000만 원, 읍면 과다 발생 생활 쓰레기 위탁 처리 1,000만 원, 영농 폐기물 공동 집하장 설치 사업 3,000만 원, 폐비닐 수거 보상금 1,500만 원, 슬로걷기축제 이동식 화장실 관리 인부임 747만 원. 680쪽. 이동식 공중 화장실 관리 인부임 1,932만 원, 공중 화장실 정화조 청소 수수료 500만 원, 이동식 화장실 분뇨 수거 수수료 600만 원, 청정완도 가을섬 여행 축제 이동식 화장실 임차료 700만 원, 슬로걷기축제 이동식 화장실 임차료 700만 원, 완도 국제 해조류 박람회 이동식 화장실 임차료 1,000만 원, 이동식 화장실 트레일러 유지 보수 600만 원, 공중 화장실 소규모 수선비 1,000만 원, 금일면 공중 화장실 수리 700만 원, 보길 송시열 바위 관리 공중 화장실 수리 2,000만 원, 도서 낙도 지역 가뭄 대비 병물 구입 2,000만 원, 가뭄 및 이상 기후 대비 병물 구입 2,000만 원, 마을 상수도 작업 안전 물품 구입 1,000만 원, 마을 상수도 수질 검사 수수료 1,801만 3,000원. 681쪽. 도서 낙도 마을 상수도 선박 임차비 2,000만 원, 해수 방사 시설 관리 운영 2억 4,786만 원, 재해 예, 경보 시스템 유지 관리 4,000만 원, 해수 담수화 시설 유지 관리 4,400만 원, 해수 담수화 시설 여과막 구입 2,000만 원, 상수도 시설 유지 관리 물품 구입 1,000만 원, 마을 상수도 전기 시설 정비 5,000만 원, 기계 시설 정비

5,000만 원, 관련 시설 정비 5,000만 원, 상하수도 요금 금융결제원 자동이체 수수료 840만 원. 682쪽. 소규모 하수처리장 주변 풀베기 및 환경 정비 인부임 1,306만 7,000원, 신지, 원동 하수처리장 주변 풀베기 인부임 865만 7,000원, 도서 지역 하수관로 및 중계펌프장 준설 차량 도선비 900만 원, 마을 하수처리장 무인 경비 및 전기 안전 수수료 1,662만 원, 마을 하수처리장 위탁 관리 대행 물가 변동에 따른 운영비 산정 용역 500만 원. 683쪽. 마을 하수처리 시설 슬러지 위탁 처리비 1억 9,470만 원, 소규모 수리비 1,100만 원, 중계 펌프장 수리 3,500만 원, 소규모 전기 기계 설비 보수 3,420만 원, UV 설비 교체 4,000만 원, 중계 펌프장 슬러지 인발 및 운반 1,500만 원, 마을 하수처리장 수처리 약품 구입 2,000만 원, 신지 하수처리장 정기 안전 점검 1,200만 원, 정밀 안전 점검 2,500만 원, 공공 하수처리 시설 슬러지 성분 검사 수수료 1,440만 원, 소규모 마을 하수처리장 분리막 세정 작업 1억 3,800만 원, 마을 하수처리장 및 중계 펌프장 펌프 교체 9,400만 원, 신지 하수처리장 수질 자동 측정기 시약 및 소모품 구입 600만 원, 신지 하수처리장 TOC 시약 및 소모품 구입 2,096만 원. 684쪽. 마을 하수처리장 시술 검사용 무균 채수병 900만 원, 소규모 공공 하수처리장 기술 진단 1억 2,000만 원, 마을 하수처리장 분리막 교체 1,200만 원, 신지 하수처리장 정기 안전 점검 지적 사항 조치 1,500만 원, 마을 단위 공공 하수처리 시설 위탁 관리 6억 원, 신지 하수처리장 수질 원격 감시 체계 유지 위탁 관리 2,000만 원, 완도 공공 하수처리 시설 증설 사업 36억 6,666만 7,000원, 하수 관로 정비 차량 유지비 800만 원. 685쪽. 가용지구 펌프장 유지 관리 용역 2,040만 원, 26년 완도군 하수도 관련 지역 부담금 단위 단가 산정 용역 1,200만 원, 읍면 하수도 관로 준설 사업 3,000만 원, 하수 관로 소규모 응급 복구 공사 1억 원, 군외 원동 공급처리 시설 증설 사업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10억 4,700만 원, 농어촌 지역 노후 하수 관련 정비사업 1억 원, 12개 읍면 재택 관로 연결 공사 2,000만 원, 12개 읍면 노후 하수관로 보수 공사 2,000만 원, 금일 신도리 하수도 정비 공사 2,000만 원, 군외 영내 하수 관로 유지 공사 2,000만 원, 완도 군내지구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 지역 침수 예방 사업 15억 8,142만 9,000원, 하수 종말 처리장 잡초 제거 인부임 923만 4,000원. 686쪽. 하수처리장 전기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540만 원, 중계 펌프장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 540만 원, 하수 종말 처리장 슬러지 성분검사 600만 원, 차량 운영비 1,800만 원, 수질 원격 감시 체계 TMS 소모품 구입 800만 원, 하수 종말 처리장 UV 소독 램프 교체 2,000만 원, 중계 펌프장 PLC 보수 1,000만 원, 유량 조정조 수중 믹서 가이드 교체 1,000만 원, 중계 펌프장 수중 펌프 보수 1,000만 원, 간이 펌프장 수중 펌프 보수 1,000만 원, 소규모 중계 펌프장 수리비 1,500만 원, 하수 종말처리장 유량 조정조 등 수위계 보수 1,000만 원, 중계, 간이, 가용리 펌프장 MCC반 유지 보수 800만 원, 하수 종말 처리장 반응조 여과기 급수 펌프 500만 원, 중계 펌프장, 본처리장 UPS 교체 1,400만 원, 반응조 펌프 체크 밸브 교체 1,000만 원, 하수 종말 처리장 공기 압축기 유지 보수 800만 원. 687쪽. 하수 종말 처리장 반응조 용수 공급 펌프 500만 원, 악취 탈취 설비 소모품 교체 2,000만 원, 총유기탄소량계 석영관 구입 500만 원, 중계 펌프장 압송 배관 체크 밸브 교체 500만 원, 하

수 종말 처리장 정기 안전 점검 용역비 2,000만 원, 반응조 설비 등 공사 2,000만 원, 완도 하수처리장 탈취 촉매제 구입 600만 원, 수처리 약품 구입 3,000만 원, 수질 자동 측정기 TMS 시약 구입 1,000만 원, 하수 종말 처리장 슬러지 및 협작물 위탁 처리 1억 5,000만 원, 간이 펌프장 협작물 위탁 처리 1,500만 원, 하수 종말 처리장 수질 원격 감시 체계 유지 위탁 관리 용역 2,000만 원. 688쪽. 오폐수 처리장 풀베기 인부임 692만 6,000원, 전기 안전 관리 대행 수수료 768만 원, 수질 TMS 소모품 교체 1,000만 원, 환경 기초시설 작업 환경 측정 500만 원, 오폐수 처리장 생폐독성 검사 수수료 546만 원, 슬러지 성분 검사 600만 원, 원심 사시기 수리, 수선 500만 원, 농축 슬러지 이송 펌프 수리, 수선 650만 원, 기계실 예비 펌프 수리, 수선 500만 원, 유량 조정조 자동 스크린 수리, 수선 500만 원, 침전조 감속 교량기 보수 600만 원, 반응조 수중 교반기 및 내부 반송펌프 유지 보수 800만 원, 총인설비 여과막 세정 작업 500만 원, 방류수 자외선 램프 교체 500만 원, 감시 제어 시스템 유지 보수 1,000만 원. 689쪽. 마을 중계 펌프장 시설물 유지 보수 2,000만 원, 마을 중계 펌프장 수중펌프 구매 500만 원, 오폐수 마을 펌프장 MCC반 유지 보수 1,000만 원, 오폐수 처리장 약품 구입 3,004만 원, 오폐수 처리장 수질 자동 측정 장치 TMS 시약 비용 1,000만 원, 분뇨 처리장 슬러지 제거 및 잡초 제거 인부임 1,267만 2,000원, 분뇨 처리장 기계 장치 소규모 수선비 780만 원. 690쪽. 분뇨 처리장 수중 교반기 보수 1,200만 원, 전기 안전 관리비 549만 6,000원, 분뇨 처리장 유니온 필터 500만 원, 분뇨처리장 약품 구입 3,648만 원, 분뇨처리장 수중 교반기 구입 4,000만 원, 분뇨처리장 오니슬러지 위탁 처리비 2,000만 원, 협작물 위탁 처리비 1,000만 원, 청소 위탁 처리비 1,000만 원, 보길 부황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14억 4,400만 원, 군외 당인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13억 3,333만 3,000원. 691쪽. 고금 청용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5억 원, 백산 관산 오두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5억 원, 노화 공공 하수처리 시설 증설 사업 45억 8,800만 원, 완도 노화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41억 9,500만 원. 692쪽. 만석 대곡 하수관로 정비사업 25억 원, 맨홀 추락 방지 시설 설치 사업 3억 9,045만 원,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07억 9,296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99쪽입니다. 지방 상수도 급수 구역 확대 공사 1억 원, 지하 시설물 상수도 관로 안전 점검 용역 5,000만 원, 군외 용계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 실시 설계 용역 3억 원, 소안 지하수저류댐 관리 시설 5억 원, 관내 소방용수 시설 소화전 정비 500만 원, 지방 상수도 수원지 취수 밸브 보수 2억 원, 청산 지하수댐 설치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군 부담금 1억 2,000만 원, 완도군 지방 산수도 수원지 및 주변 지역 3차원 데이터 급증 용역 2억 4,000만 원, 가뭄 및 동파 지역 운반 급수차량 임차 550만 원. 700쪽. 광역 상수도 정수 사용 요금 10억 원, 농업기반시설 용항제 용수 사용 요금 2,400만 원, 지방 상수도 통합 위탁 운영 대가 25억 원, 지방 상수도 통합 시설 대가 15억 원, 금일 동백리 수원지 개발 사업 55억 원, 군외 백일, 흑일도 도서 지역 식수원 개발 사업 70억 5,700만 원. 701쪽. 노화읍 마삭도 도서 지역 식수원 개발 사업 42억 8,600만 원, 보길 급수 구역 가뭄 대비 비상 공급

망 구축 사업 42억 8,500만 원, 군외 용계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 4억 7,000만 원, 취약계층 옥내 급수관 설치 지원 사업 1300만 원. 702쪽. 금일 동백리 수원지 개발 사업 16억 9,970만 원, 군외 고마도 도서 지역 식수원 개발 사업 20억 6,871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질과 소관 26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호

환경수질과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님.

○ 박병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699페이지 군외 용계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 실시 용역비가 3억이죠?

○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예. 그렇습니다.

○ 박병수 위원

사업비가 4억 7,000만 원인데 어디, 무슨,

○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이거 계속 사업비이고요.

○ 박병수 위원

계속 사업인가요?

○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그렇습니다.

○ 박병수 위원

어디에 했던가요, 위치는?

○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지금 현재 군외 용계가 하나가 폐쇄돼 있지 않습니까?

○ 박병수 위원

상수도.

○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예.

○ 박병수 위원

수원지?

○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그렇습니다. 폐쇄는 지금 시키진 않았는데요. 그걸 다시해서 수원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 박병수 위원

그런 부분들을 어차피 상수원지를 사용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지금 수목원의 저수지는 농업용수거든요.

○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그렇습니다.

○ 박병수 위원

거기에 물을 빼면 경관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 방안을 한번 찾아서 어떤 대체를 할 수 있는 것인가, 그거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그런 부분도 일부분 포함돼 있습니다.

○ 박병수 위원

그런가요?

○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예. 그렇습니다.

○ 박병수 위원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02페이지 마지막에 고마도 도서 지역 식수원 개발 사업이 총사업비가 얼마인데 도서 지역으로 내년부터 사업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20억을 가지고?

○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총사업비가,

○ 박병수 위원

광역 상수도 하기 때문에 한 20억 든다는 얘기죠?

○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예.

○ 위원장 조인호
팀장님.
○ 상수도팀장 김창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상수도팀장입니다.
○ 박병수 위원
예.
○ 상수도팀장 김창삼
저희가 군외 고마도가 지금 현재 한 133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을 여기에 투자해 놓은 것은 저희가 19년도에 도서 식수원 개발 사업이 저희들이 불용된 게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국고 부담금이나 도비를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걸 저희들이 올해 저희 과장님이랑 환경부 방문해서 그것을 도서 식수원 사업으로 쓸 수 있게 이렇게 해놔서 저희들이 이걸 다시 예산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 박병수 위원
그럼 내년부터 사업이 어떤,
○ 상수도팀장 김창삼
예. 내년부터 설계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 박병수 위원
설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년?
○ 상수도팀장 김창삼
예. 그렇습니다.
○ 박병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호
허궁희 위원님.
○ 허궁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확인하겠습니다. 668쪽 제일 상단에 있는 급속 충전기 유지 관리비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듣고자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급속 충전기 유지 관리비를 언제 계약을 이렇게 했나 모르겠습니다만 이해가 안 가죠?
○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저희들이 2023년도에 아마 계약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 허궁희 위원
1대 설치를 해도 가정집이라도 전기차가 있는 집들은 설치를 한 것 같더라고요?
○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예. 가정집은 저희,
○ 허궁희 위원
그런데 한 400만 원 돈 한다더라고요.
○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저희들이 그걸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허궁희 위원
그렇죠?
○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예.
○ 허궁희 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면 이것이 65만 원 곱하기 20개 곱하기 24개월 하면 대당 얼마쯤 됩니까?
○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유지 관리비는 저희들이 관공서나 완도군 여러 개 있는 것은 우리가 설치를 할 건 아니고 외부에서 설치를 해서 저희들이 유지비를 주고 있고요.
○ 허궁희 위원
관리 유지비만 준다?
○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그렇습니다.
○ 허궁희 위원
그래도 좀 비싼 것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저희들이 42개가 있는데 읍면까지 다 지금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 허궁희 위원

그래도 이런 거를, 내 계산법이 잘못됐나 모르는데 해보니까 너무 아닌 것 같아서 나는 이게 좀,

○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5년 아마 계약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 허궁희 위원

예?

○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5년 정도, 5년 동안 계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허궁희 위원

5년?

○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예. 그렇습니다.

○ 허궁희 위원

그러면 계약할 때 당시에 좀 비쌌었나 보네?

○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전체, 우리가 시설비를 않기 때문에 급속 충전기는 저희들이 시설을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 허궁희 위원

이게 급속 충전기인가요?

○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그렇습니다.

○ 허궁희 위원

일반 가정에 이렇게 설치한 것에 비하니까 너무 비싸. 그래서 이것은 좀 아니다 싶어서 한 번 설명을 들어보려고 질문 한 겁니다.

○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예.

○ 허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환경수질과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

○ 지역개발과장 오현철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오현철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2026년도 계속비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사업은 총 22개 사업이며 신규 사업 2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권역단위 거점 개발 보길 사업은 사업 기간이 2026년부터 30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79억 5,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3쪽. 어촌 신활력 금의 관문 권역 사업은 2026년 신규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26년부터 2029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100억 원입니다. 이상 지역개발과 소관 2026년도 계속비 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개발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705쪽입니다. 먼저 도시계획 정비 사무관리비 도시계획위원회 수당 924만 원, 공간 분석 및 보고서 생성 자동화 프로그램 구매 990만 원, 도시계획도로 제설 자재 구입 500만 원, 완도읍 용암리,노두리 엘리베이터 유지 관리비 600만 원, 국토 이용 정보 통합 플랫폼 유지보수 2,000만 원, 2030 경관 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2억 원, 군 관리계획 신문 광고료 700만 원,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비 1억 원. 706쪽입니다. 노화 이목항 일원 도시계획도로 재포장 공사 1억 5,000만 원, 도시계획도로 내 맨홀 숭상 2,000만 원, 도시 지역 내 재해 위험 시설 정비 공사 2,000만 원, 도시계획도로 보도블록 정비 2,000만 원, 도

시 지역 내 배수로 정비 및 준설 공사 3,000만 원, 도시 지역 내 소규모 민원 처리 2,000만 원, 도시계획도로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공사 2,000만 원, 도시계획도로 차선 정비 작업 5,000만 원, 공모 사업 선정을 위한 사업 부지 확보 시행 1억 4,000만 원, 콘크리트 맨홀 뚜껑 교체 사업 9,000만 원, 도시계획도로 횡단보도 정비사업 6,000만 원, 금일 신도리 중계 펌프장 이전 공사 1억 5,000만 원, 성내 남성 취약 지역 개선 사업 공원 조성 토지 매입비 1억 3,000만 원, 도시재생지원센터 사무국장 인건비 5,070만 원, 도시재생센터 코디네이터 인건비 3,705만 원. 707쪽. 별바다 청소년 플랫폼 승강기 유지 관리 578만 원, 도시재생대학 운영 2,000만 원, 행복 어울림 센터 신축 공사 25억 원, 금일 주차장 조성사업 영업 보상비 1억 5,000만 원, 금일 주차장 조성 부지 매입 5억 4,600만 원. 708쪽. 신지 휴게소 정비사업 500만 원, 신지 해안 경관 등 조명 시설 보수 500만 원, 북방파제 야간 경관 조명 시설 보수 500만 원, 주도 야간 경관 조명 시설 보수 500만 원, 공공 조형물 등 정비 보수 500만 원, 도서개발사업 시설비 50억 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 지원적 위탁사업비 10억 원. 709쪽. 대합실 화장실 관리 인부임 3,984만 원, 소규모 사업 합동 직무여비1,000만 원, 소규모 어항 안전 표지판 설치 1,200만 원, 대합실 및 공공시설물 부지 점사용료 1,000만 원, 소규모 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미불 용지 감정평가 수수료 600만 원, 재해 및 소규모 민원 처리에 따른 장비 임차료 800만 원, 청산 복지회관 모북 엘리베이터 전기 안전관리자 선임비 700만 원, 제7회 섬의 날 행사 홍보 부스 운영을 위한 물품 구입 500만 원, 섬 지역 기초단체장 협의회 부담금 500만 원, 제7회 섬의 날 행사 홍보 부스 및 부대시설 설치 3,000만 원, 제7회 섬의 날 행사 추진 대행 용역 2,000만 원, 약산 복지회관 리모델링 공사 1억 2,000만 원, 소량대교 사설 항로 표지 유지 관리 위탁 관리비 2,000만 원, 소량대교 정기 점검비 1,500만 원. 710쪽. 소규모 시설물 응급 보수 1,000만 원, 노화 도청 마을 도로시설 토지 보상비 2,000만 원, 고금 가교 우회도로 정비 공사 완료 구간 토지 보상비 4,000만 원, 소안 횡간 마을 안길 정비 공사 토지 보상비 2,000만 원, 약선 넙고 마을 안길 정비 공사 토지 보상비 2,000만 원, 금일 소량대교 보수 공사 1억 2,000만 원, 금일 충도 마을 안길 정비 1억 원, 신지 대곡 울물 선착장 주변 준설 사업 1억 5,000만 원, 완도읍 개포3리 마을회관 정비 공사 1억 원, 고금 가교 우회 도로 보강 공사 1억 원, 소안1교 사후 영향평가 용역 5,000만 원, 제5차 섬 발전 사업 기본계획 용역 2억 원, 완도 중도리 및 밤길 정비 공사 1억 5,000만 원, 완도 중도리 노후 배수로 공사 4,000만 원, 약산 당목 대합실 리모델링 공사 8,000만 원, 청산 모북리 대합실 및 공동 창고 설치 공사 1억 5,000만 원, 생일 복지회관 리모델링 1억 5,000만 원, 완도 석장리 마을 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 3,000만 원, 완도읍 대신리 마을 배수로 침수 지역 정비 2,000만 원, 완도읍 죽청리 마을 배수로 침수 지역 장비 2,000만 원, 금일 다랑도 선착장 정비 공사 2,000만 원, 금일 소랑도 마을 안길 정비 공사 2,000만 원, 금일 사동리 마을 안길 배수로 정비 공사 2,000만 원, 노화 신목마을 배수로 정비 2,000만 원, 계속해서 711쪽. 노화 양하리 안길 정비 공사 2,000원, 노화 동고리 마을 안길 정비 공사 2,000만 원, 군외 토도 마을 안길 배수로 정비 공사 2,000만 원, 군외 용계리 마을 안길

아스콘 포장 공사 2,000만 원, 군외 당인리 마을 안전시설물 설치 공사 2,000만 원, 신지 대곡리 마을 안길 이광사거리 정비 공사 3억 원, 신지 양지리 배수로 정비 공사 2,000만 원, 신지 삼마리 쉼터 설치 및 시설 설치 공사 2,000만 원, 고금 봉암리 마을 안길 정비 공사 2,000만 원, 고금 회룡리 어촌 콘크리트 작업대 설치 2,000만 원, 고금 일덕암리 마을 안길 확포장 공사 2,000만 원, 약선면 넙고리 선착장 가로등 시설 공사비 2,000만 원, 약산면 상득암리 배수로 정비 공사 2,000만 원, 약산면 가래리 취약 지역 배수로 정비 공사 2,000만 원, 청산 동촌마을 센터 정비 공사 2,000만 원, 청산 보도 쉼터 설치 공사 2,000만 원, 청산 모북리 CCTV 설치 공사 2,000만 원, 청산면 복지회관 보수공사 2,000만 원, 소안 서중 선착장 공사 2,000만 원, 소안 당사마을 안길 정비 공사 2,000만 원, 소안 가선착장 가드레일 설치 공사 2,000만 원, 금당 육동 선착장 선양장 설치 공사 2,000만 원, 금당 비견리 선착장 파도 방지 설치 공사 2,000만 원, 금당 육동마을 정자 보수 공사 2,000만 원. 712쪽. 보길 선창리 마을 안길 배설 정비 공사 2,000만 원, 보길 여항리 마을 안길 배수로 정비 공사 2,000만 원, 보길 통리 어민 쉼터 설치 공사 2,000만 원, 생일 유촌 마을 안길 배수로 정비 2,000만 원, 생일 금곡 마을 회관 정자 보수 2,000만 원, 생일 굴전 마을 안길 확장 공사 2,000만 원, 금일 동송 신평 도로 확포장 공사 2억 5,000만 원, 고금 장례식장 진입로 아스콘 재포장 1억 원, 소안항 선착장 위험 구간 개선 사업 1억 원, 노화 산양진항 진입도로 재포장 공사 1억 원, 친환경 포충기 구입 및 설치 5,000만 원, 마을회관 신축, 재건축, 매입 9억 원, 마을회관 태양광 설치 1억 2,000만 원, 신지면 동광 물양장 증설 공사 1억 5,000만 원, 신지면 양지리 해양 구조물 이전 설치 공사 2억 원, 신지 삼마리 물양장 증설 공사 1억 5,000만 원, 고금면 장중리 선착장 정비 공사 1억 5,000만 원, 고금면 신중리 마을 진입 확장 공사 2억 원, 고금 부곡 마을 배수로 정비 공사 1억 5,000만 원, 약산 당목 마을 안길 배수로 정비 공사 1억 5,000만 원. 713쪽. 약산면 화가리 물양장 숭상 공사 1억 5,000만 원, 약산면 우두리 진입도로 확장 공사 1억 원, 약산면 장용 마을 안길 정비 공사 1억 원, 완도 소규모 어항 정비 외 23건에 20억 8,000만 원. 714쪽부터 716쪽. 완도 소가용리 및 마을 배수로 정비 공사 외 53건 10억 8,000만 원. 716쪽. 작은 섬 근 기쁨사업 1,000만 원, 작은 섬 공도 방지 금일 장도 4,000만 원. 717쪽. 노화 죽굴도 사업 4,000만 원, 노화 죽굴도 5억 원, 군외 양도 1억 3,500만 원. 718쪽. 고금 초안도 7,500만 원, 금당 우도 3억 5,000만 원, 오버 코스 3억 8,023만 원. 719쪽. 금일 화전항 선착장 정비 공사 3억 원, 약산 장용항 물양장 정비 공사 2억 원, 노화 방축항 PPP 보강 공사 2억 원, 국유재산 대부료 고막리,군내리,서성항 500만 원, 화흥포항 대합실 관리비 청소 인건비 500만 원, 어항 안전시설물 유지 보수 사업 4,000만 원, 지방관 비점오염원 관리 용역 2,000만 원, 금일 사동교 사설 항로 표지 유지 관리 용역 2,000만 원. 720쪽. 소안 미라항 지방 어항 대체 사업 2억 원, 육지 소규모 어항시설 사업 안도 금액 5,000만 원, 어촌 정주어항 시설 유지 관리 3,000만 원, 국가어항 가로등 및 안전시설물 정비 1,000만 원, 지방어항 가로등 및 안전시설물 정비 1,000만 원, 어촌 정주어항 육지 항포구 가로등 및 안전시설 정비 1,000만 원, 항만 구역 내 주

차 구역 정비 공사 2,000만 원, 완도읍 장좌리 안전시설물 정비 공사 2,000만 원, 소안 월항리 오순 맨홀 준설 공사 2,000만 원, 약산 당목항 안전시설물 설치 공사 2,000만 원, 완도 방람항 데크 시설 보수 공사 1억 원, 완도읍 죽청리 어장 진입로 배수로 정비 공사 2,000만 원, 완도읍 대야1리 물양장 정비 공사 2,000만 원, 보길면 통리 해안가 모래 유실 방지 옹벽 설치 공사 2,000만 원, 신지 동고리 물양장 확장 공사 1억 5,000만 원, 소안 진산항 시설 공사 5억 8,239만 5,000원. 다음 721쪽. 약산 득암항 안전시설 설치 지원 사업 2,000만 원, 노화 서녹도항 퇴적 개방 사업 3억 원, 금당 울포항 퇴적 예방 사업 3억 원,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 설명회 자료 책자 600만 원, 2027년 일반 농산어촌 개발 공모사업비 계획 수립 4,000만 원. 722쪽. 대작교 산업 행정 도시 위탁 관리 용역 2,000만 원, 권역 단위 거점 개발 사업 준공 시설물 유지 보수 2,000만 원, 권역 단위 거점 개발 금빛안 13억 7,242만 9,000원, 권역 단위 거점 개발 공선 공기관 등에 대한 조합원 위탁 사업비 2025년 불용액 10억 6,675만 9,000원, 2026년 사업비 24억 2,657만 1,000원. 73쪽.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 위탁 사업비 25억 원, 연구 용역비 2억 5,000만 원, 시설비 6억 5,300만 원, 어촌 조직 304억 원, 준공 시설물 유지 보수 6,000만 원. 724쪽. 어촌 뉴딜300 사업 노화미라항 5억 8,220만 원,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설명회 자료 제작 600만 원, 2027년 어촌 신활력 공모 증진 예비 계획 수립 4,000만 원,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망남 생활권 6억 2,600만 원,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망남 생활권 5억 8,938만 원. 725쪽.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망남 생활권 28억 8,462만 원, 2025년 불용액 4억 1,238만 3,000원,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동고 생활권 2억 8,957만 7,000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 6억 1,042만 3,000원. 726쪽. 연구 용역비 4억 원, 시설비 금일 방문 보조 1억 원.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호

지역개발과장 제안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님.

○ 박병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뭐 좀 확인만 할게요. 전년 대비 예산이 한 73억이 증액이 됐네요.

○ 지역개발과장 오현철

예. 그렇습니다.

○ 박병수 위원

뭔 이유가 있나요?

○ 지역개발과장 오현철

73억 증액된 것은 저희가 공모 사업으로 신규로 들어온 사업 2건에 대한 사업비가 주원인입니다.

○ 박병수 위원

다른 실과는 어떻게 보면 다 감액됐던데,

○ 지역개발과장 오현철

저희도,

○ 박병수 위원

내년에도 공모 필요한가요?

○ 지역개발과장 오현철

이미 올해 선정이 돼서 내년부터 사업을 실행할 2개 사업의 대한 사업비입니다.

○ 박병수 위원

그게 73억인가요?

○ 지역개발과장 오현철

대략 그 금액이 그렇게 됩니다.

○ 박병수 위원
714페이지. 기초 생활 시설 정비에 시설비가 10억 8,000만 원이었고요.
○ 지역개발과장 오현철
예. 총 53건입니다.
○ 박병수 위원
2억 2,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읍면별로 한번 봅시다. 완도읍이 2개 사업이 있고 금일이 5개, 노화가 8개, 군외 1개, 고금 5개, 약산면 4개, 청산면 6개, 소안면 8개, 금당 2, 보길 3, 생일 4. 이유가 뭔가요? 어떤 기준으로 했죠?
○ 지역개발과장 오현철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읍면에서 저희들한테 기초 조사 들어온 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반영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박병수 위원
군외는 그럼 사업이 없어서 이 1건만 들어왔을까요?
○ 지역개발과장 오현철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저희 팀장, 그 부분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 박병수 위원
팀장님, 설명 한번 해주세요.
○ 섬발전팀장 송영상
섬발전팀장 송영상입니다. 사업 대상지하고 설계서에 반영된 것은 읍면에서 건의된 내용을 100% 다 건의한 내용입니다.
○ 박병수 위원
1개 들어왔는데 100% 했다는 말씀이시죠?
○ 섬발전팀장 송영상
예. 그렇습니다.
○ 박병수 위원
1개 들어와서 1개 반영을 했다.
○ 섬발전팀장 송영상
조정된 건은 없습니다.
○ 박병수 위원
한번 저희가 확인해 보고 이야기를 합시다.
○ 섬발전팀장 송영상
예. 알겠습니다.
○ 박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호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역개발과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시 휴식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6시00분 회의계속)

○ 위원장 조인호
위원 여러분들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

○ 안전총괄과장 이홍용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홍용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49쪽입니다. 지역 방위 운영 사무관리비 민방위 경보 시설 예비품 구입 2,380만 원, 750쪽입니다. 민방위 경보 시설 축전지 구입 500만 원, 공공 운영비로 지진 해일 경보 시설 유지 보수 1,390만 6,000원, 민방위 경보 시설 유지 보수 2,047만 7,000원, 기타 보상금 현역 입영 대상자 입영 지원금 지급 1,000만 원,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 보조 향토 예비군 육성 지원 5,100만 원, 시설비로 화재 취약시설 소방시설 보급 1,500만 원, 구 119 안전센터 보수 공사 1,000만 원, 민방위 경보 사이렌 안테나 교체 사업 1,760만 원,

민방위 물품 보관 창고 시설 2,200만 원. 751쪽입니다. 민방위 물품 보관 창고 선반 제작 800만 원, 예비군 육성 지원 자본 보조 향토 예비군 육성 보조 1억 원, 민방위 교육 운영 518만 4,000원. 752쪽입니다. 민방위 지원 사업 의용소방대 지원 등 외로 의용소방대원 출동 수당 2,705만 2,000원, 완도군 의용소방대 기술 경연대회 개최 2,000만 원, 119 나르미선 운항 지원 기타 보상금으로 나르미선 운항 지원금 1,600만 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관리 운영에 2억 5,482만 9,000원. 계속해서 753쪽입니다. 민방위 경보 사각 지역 해소 사업 민방위 경보 사각 지역에 4,000만 원, CCTV 관제센터 운영 공무직 근로자 스마트 관제센터 인건비 9억 8,000만 원. 754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CCTV 안내판 보수 800만 원, 범죄 예방 노후 데이터 활용 900만 원, 공공운영비로 CCTV 전기 요금 3,276만 원, 스마트 관제 시스템 유지 보수 2억 9,910만 4,000원, 스마트 마을 방송 시스템 유지 보수비 2,064만 원, 재난 마을 방송 시스템 유지 보수 2,200만 원, 마을 방송 시스템 이설비 수리 1,000만 원. 다음은 755쪽입니다. 재난 마을 방송 장비 주장치 교체 5,200만 원, 공무직 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3억 4,344만 원, 스마트 관제 시스템 구축에 따른 시설비입니다. 다목적 CCTV 설치 사업 4,000만 원, 범죄 예약 CCTV 설치 사업 4,000만 원, 읍면 방범 CCTV 설치 사업 4,000만 원, CCTV 개선 및 응급 복구 사업 2,000만 원, CCTV 통합관제센터 IP 관리 시스템 업그레이드 2,000만 원, 안전 문화 운동 예방 사업 관리 공공 운영비입니다. 인명 구조 지원 장부 보호 유지 관리 2,932만 원. 756쪽입니다. 민간인 재해 및 복구 활동 보상금으로 해양 구조대원 출동 수당 963만 원, 해양구조대원 교육 및 훈련 수당 963만 원, 해양구조대원 슈트 구입 600만 원, 민간 위탁금으로 인명구조선 위탁 관리 3,029만 5,000원, 보험금으로서 도민 안전공제 보험 가입 1억 1,360만 원, 도민 안전 공제 보험 가입은 자체 추가분 8,600만 원, 보험 도래 안전문화 운동 사무관리비로 안전 점검의 날 행사 추진 6,000만 원. 계속해서 757쪽입니다. 남도안전학당 운영 기타 보상금 안전학당 강사료 지급 1,400만 원, 재난 대응 안전 항복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안전 재난 대응 안전 확보 훈련 500만 원, 재난 대응 안전 확보 훈련 홍보물 제작 500만 원, 물품 및 장비 임차 1,000만 원. 다음은 758쪽입니다. 사회 재난 발생에 따른 재난상황실 운영 사무관리비로 대형 장비 임차료 1,200만 원, 사회 재난 대형 복사기 및 프린트 임차료 780만 원,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인건비로서 당직 병행 근로자 인건비 1억 8,000만 원, 재난 대응 대비 사무관리비로서 위원회 수당 700만 원, 그리고 폭염 특보에 따른 생수 냉장고 운영 1,000만 원. 759쪽입니다. 폭염 대비 안내 리플릿 제작 500만 원, 자연 재난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 발간 500만 원, 자연 재난 관련 책자 1,000만 원, 쉼터 표지판 설치 500만 원, 물품 구입 우의, 장화 등 625만 원, 침수 방지 시설 구입 1,000만 원, 각종 재난 사전 대비 물품 구입 500만 원, 공공 운영비로 쿨링 포그 유지 관리 1,500만 원, 시설비로서 침수 흔적도 작성 용업 2,000만 원, 재해 예경보 시스템 유지 관리 공공 운영비로 유지 관리비 1,000만 원, 재해 문자 전광판 유지 관리 12개소 2,000만 원, 강우량기 유지 관리 12개소 1,000만 원, 지진 가속도 계측 시스템 유지 관리 1,000만 원, 시설비로서 지진 가속도 계측기 노후 장비 교체 900만 원, 강우량기 보

수 및 기상 직기 안전 점검 12개소 600만 원. 계속해서 760쪽입니다. 풍수해 보험금으로서 4,000만 원, 재난 복구 지원 사무관리비 응급 복구 장비 임차비 1억 2,000만 원, 폭염 특보 도로 살수 1,980만 원, 수방 자재 구입 2,400만 원, 민간인 재해 및 복구 활동 보상금으로서 호우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선지급용 1,000만 원, 지역자율방재단 사무관리비로 활동 근무복 구입 650만 원, 행사 운영비로서 자율방재단 역량 강화 교육 및 방재 활동 추진 1,000만 원, 재해 위험 시설물 정비로서 시설비입니다. 완도 죽청리 세천 정비공사 2,000만 원. 761쪽입니다. 금일읍 신도리 세천 정비공사 2,000만 원, 고금 농상 세천 정비공사 2,000만 원, 약산 당목 재해 우려 지역 정비 공사 2,000만 원, 청산면 구장리 재해 위험 세천 정비 공사 2,000만 원, 청산면 당리 재해 위험 정비 공사 2,000만 원, 소안 배수 펌핑장 비상 발전기 정비 1,000만 원, 관내 배수 펌핑장 유지 관리 용역 2,000만 원, 건축물 안전관리 사무관리비입니다. 제3종 시설물 전기 안전 점검 수수료 1,020만 원, 시설물 안전 점검 수수료 2,500만 원, 시설비로서 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용역 3,000만 원, 중대 재해 예방 사업 사무관리비 안전 보건 표지 및 캠페인 홍보 물품 제작 등 500만 원, 안전 보호구 구입 750만 원, 관리감독자 교육비 1,600만 원, 안전관리자 위탁 용역 2,520만 원. 762쪽입니다. 보건관리자 위탁 용역 2,520만 원, 위험성 평가 용역 3,000만 원, 작업 환경 측정 용역 1,000만 원, 근골격계 유해 인자 조사 용역 900만 원, 공공 운영비로서 중대 재해 배상책임 보험 가입액 3,356만 5,000원, 시설비로 중대 재해 시스템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에 1억 원, 내부 거래 지출 기금 전출금으로 재난 관리 기금 전출금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호

안전총괄과장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 위원님.

○ 조영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래도 오랜만에 본예산에 안전총괄과 예산이 증액 편성됐네요.

○ 안전총괄과장 이홍용

예. 아직도 부족합니다.

○ 조영식 위원

그렇지만 그래도 다른 과에 비해서 증액이 된 예산이 올라와서 우리 군이 얼마나 지역의 안전에 대해서 신경쓰고 있는 그런 게 엿볼 수 있습니다. 750페이지 간단하게 딱 하나만 물을게요.

○ 안전총괄과장 이홍용

예.

○ 조영식 위원

구 119 안전센터 보수 공사 1,000만 원 돼 있는데 이거 어떤 공사 보수일까요?

○ 안전총괄과장 이홍용

지금 이게 구 119 안전센터가 소방서 시설물로 돼 있어서 고가 사다리 차가 들어가고 2층 하고 3층 건물로 돼 있어서 소규모 시설이 그때그때 필요합니다. 그래서 개략적으로 저희가 한 6개 업체가 들어가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규모 시설비로 증가시켰습니다.

○ 조영식 위원

사실 이 건물이 서로 탐도 내고 하다 보니까 들어갈 때마다 작년에는 또 새마을회에서 리모델링비 해주고 하는 게 있죠?

○ 안전총괄과장 이홍용
예.
○ 조영식 위원
한 번에 했으면 좋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아직은 확실하게 정해진 게 아니고,
○ 안전총괄과장 이홍용
그렇습니다.
○ 조영식 위원
대략 잡아놓은 예산이군요.
○ 안전총괄과장 이홍용
예. 그렇습니다.
○ 조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호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지민 위원님.
○ 지민 위원
과장님,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 안전총괄과장 이홍용
예.
○ 지민 위원
759페이지에 쿨링 포그 유지 관리비가 있거든요.
○ 안전총괄과장 이홍용
예.
○ 지민 위원
이거 어딘가요?
○ 안전총괄과장 이홍용
지금 해변 공원에 설치돼 있고요. 그다음에 해양치유센터 뒤쪽에 작년에 설치돼 있고 올해 또 산책로에 설치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 지민 위원
이거 유지 관리는 안전총괄과에서 하시나요?
○ 안전총괄과장 이홍용
예. 그렇습니다.
○ 지민 위원
이거 관리 보수비가 산림휴양과에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이거는 산림휴양과에서 관리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 안전총괄과장 이홍용
황가네 해물짬뽕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해조류센터 있는 데까지는 산림휴양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뒤부터,
○ 지민 위원
전복 거리,
○ 안전총괄과장 이홍용
청해진 수산 앞에서 전복 거리 입구까지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지민 위원
그래요?
○ 안전총괄과장 이홍용
예.
○ 지민 위원
같은 건데 또 그렇게 갈라지네요.
○ 안전총괄과장 이홍용
그것이 저희들도 조금 그러고 있습니다.
○ 지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호
안전총괄과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 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최광윤
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최광윤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센터 2026년도 예산은 41억 68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67쪽입니다. 동부 농업기계 임대 사업소 폐수 배출 시설 8,000만 원, 소안면 농업인 상담소 관사 개축 1,500만 원, 상담소 개축 1,700만 원, 노화, 보길 농업인 상담소 방수

공사 1,000만 원, 소안면 농업인 상담소 운영 물품 구입 500만 원,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 용역 500만 원, 관용차량 유류대 1,680만 원, 농업 시험포장 재해보험 840만 원, 청사 주변 제초 작업 및 조경수 관리 인부임 660만 원. 768쪽입니다. 무인 경비 시스템 이용료 2,160만 원, 청사 유지 보수비 900만 원, 소방 안전시설 안전 점검 500만 원, 소안 농업인 상담소 상담 요원 인건비 2,075만 원. 769쪽입니다. 농촌 지도자 역량 강화 교육 보상 640만 원, 농촌 지도자에게 신문 우송료 지원 2,340만 원. 770쪽입니다. 영농 4-H 재원 과제 활동 지원 800만 원, 4-H 농업기술 정보 제공 지원 800만 원, 완도군 4-H 본부 육성 사업 800만 원, 한국생활개선완도군연합회 육성 사업 800만 원, 우리 지역 농산물 활용 완도풀 놀이 교실 체험관 2,500만 원. 771쪽입니다. 농촌 여성 문화 함양 읍면 순회 실습 교육 재료 구입 700만 원, 강사 수당 650만 원, 농산물 가공 교육장 교육 장비 구입 750만 원, 4-H 중앙대회 참여, 교육 지원 1,100만 원. 772쪽입니다. 새해 농업인 실용 교육 및 농업인 전문 교육 급식 보상 560만 원, 농업인 소형 기계 면허 취득 위탁교육 945만 원, 농업인 드론 방제기 면허 취득 위탁 교육 2,970만 원, 새해 농업인 실용 교육 교재 1,480만 원, 농업인 대학 교육 교재 제작 770만 원. 773쪽입니다. 농업인 대학 외래 강사 수당 1,200만 원, 농업인 대학 교육 현장 체험 학습 참석 보상 1,400만 원. 774쪽입니다. 신규 농업인 기초 영농 기술 교육 강사료 600만 원, 신규 농업인 현장 실습 교육 3,000만 원. 775쪽입니다. 농촌 여성 영농 생활 정보지 구독 지원 1,800만 원. 776쪽입니다. 품목 생산자 조직 경영, 마케팅 협력 시스템 구축 비용 4,000만 원, 선도 농업인 선진 농업 연수 1,200만 원. 777쪽입니다. 농업인 원예 질환 예방 사업 2,000만 원. 778페이지입니다. 종합 검정실 분석 장비 수리 및 부품 교체 2,200만 원, 최고 품질 쌀 생산 단지 품질 향상 시범 5,000만 원, 맥류 품질 향상 시범 2,500만 원, 벼 2기작 재배 시험 연구 600만 원, 최고 품질 쌀 생산 단지 장려금 1억 원, 벼, 겨울 감자 이모작 재배 단지 조성 10억 3,500만 원. 779쪽입니다. 무인 자동 공중 포충망 시스템 장비 유지비 1,000만 원, 벼 병해충 공동방제 사업 2억 5,000만 원, 병해충 예찰포 진단실 운영 1,200만 원, 병해충 예찰포 진단실 운영 물품 구입 780만 원. 780쪽입니다. 농작물 안전 생산 병해충 방제 지원 1억 4,000만 원, 노동력 분산 및 생산비 절감 마른논 써레질 재배 단지 조성 시범 사업으로 6,500만 원, 수경유 농기계 자동 저항 설치 시범 보급 5,000만 원, 토양 정밀 검증 측정 인부임, 퇴비 부숙도 측정 인부임 각각 2,241만 원. 781쪽입니다. 퇴비 부숙도 운영 장비 구입 700만 원, 공익 직불 지분제 토양 농장 사업 재료 구입 628만 1,000원. 782쪽입니다. 과수 돌발해충 방제 재료 구입 4,100만 원,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 2,860만 원,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단 운영 인건비 5,976만 원, 4대 보험료 597만 6,000원, 출장 여비 1,200만 원. 783쪽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 물품 구입 1,246만 4,000원, 버섯 종균 배양실 연구 보조 기간제 근로자 747만 원, 버섯 종균 배양실 시설 정비 유지비 1,000만 원, 채소류 신기술 도입 체계 구축 재료 1,000만 원, 버섯 종균 배양실 시약 및 소모품 구입 500만 원, 신품종 버섯 육성 재배 재료 구입 500만 원. 784쪽입니다. 동충화초 원료 표준화 연구 1,500만 원, 채소 틈새 소득 작목 시험 연구 500만 원, 버섯 재배

사업 확대 및 신품종 버섯 보급 1,400만 원, 고품질 참다래, 체리 꽃가루 구입 500만 원, 과수 비산재 피해 저감 재료 구입 2,000만 원, 기후변화 대응 과수 점유 농업 환경 개선 시범 7,000만 원, 과수 자율 주행 병해충 방제 10억 7,000만 원, 원예작물 현장 진단 장비 구입 500만 원, 원예작물 현장 기술 지도 자료 제작 500만 원, 유자 병해충 도감 제작 구입 2,000만 원. 785쪽입니다. 원예 작물 분야 전문 교육 강사 수당 500만 원, 완도 특산품 팝업 스토어 지출 이벤트 매장지원 4,000만 원, 미생물 보급 사업 1억 원. 786쪽입니다. 한우 OPU 수정란 이식 종축 개량 시범 1,000만 원, 한우 사육 관리 개선 시범 700만 원, 미생물 활용 발효 사료 생산성 향상 시범 1,050만 원, 한우 스마트팜 번식 관리 시스템 1억 원, 프레 해조류 박람회 행사장 꽃박스 제작 인건비 1,245만 원, 꽃묘 육성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억 1,653만 2,000원, 4대 보험료 1,289만 9,000원, 행사장 꽃박스 제작 2,400만 원, 국도변 화단 및 읍면 공급용 꽃묘 육성 재료 구입 등 5,000만 원. 787쪽입니다. 지역 축제 등 꽃 피는 거리 조성용 꽃묘 육성 제로 2,000만 원, 행사장 주변 꽃박스 제작 재료 구입 등 2,000만 원, 다년생 꽃묘 생산 보급 재료 구입 2,000만 원, 센터 내 농업 시험 포장 제초 및 관리 인부임 830만 원, 대야리 농업 시험 포장 제조 및 관리 인부임 830만 원, 지역 특화 작목 우량묘목 육성 인부임 1,328만 원, 농업 시험 포장 난방 유류 구입 1,200만 원, 농업 시험 포장 시설 및 장비 유지비 2,000만 원, 농업시험포장 운영 재료 구입 800만 원, 지역 특화 작목 육성 재료 구입 500만 원. 788쪽입니다. 유리온실 시설 개보수 공사 2,000만 원, 농업 시험포장 하우스 개보수 공사 5,000만 원, 꽃 전시 조형물 제작비 2,000만 원, 국화 육성 작목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2억 5,248만 6,000원, 국화 재배 관리 단기간 근로자 인부임 5,229만 원, 전시회장 조성 및 운반, 철거 인부임 2,324만 원, 4대 보험료 3,280만 2,000원, 작품국소형 조형물 등 운반 차량 임차 800만 원, 국화 육묘 하우스 난방 유류 구입 1,600만 원, 하우스 유지 보수 500만 원, 국화 전시회장 코디네이션 500만 원, 대형 조형물 운반 조립 및 해체 철거 2,200만 원, 국화 육성용 배합토 재료 구입 2,500만 원, 모종 구입 2,000만 원. 789쪽입니다. 병해충 방제 작물 보호제 구입 500만 원, 국화 육성 노지 포장 토지 정비 및 비가림 시설 공사 등 2,000만 원, 국화 육성 포장 개보수 공사 2,000만 원, 농업기계 순회 수리 교육 보조 요원 725만 원, 농업기계 순회 수리 부품, 소모품 등 구입 2,100만 원, 지원 사업 운영 600만 원. 790쪽입니다. 농업기계 교육장 지붕 물 빠짐 교체 500만 원, 임대 사업장 현수막 및 운영 물품 구입 등 600만 원, 임대 농업 기계 종합 공개 보험 3,900만 원, 관리 프로그램 유지 보수비 600만 원, 시설 및 장비 유지 보수비 3,000만 원, 보험료 1,200만 원, 임대 농업 기계 부품, 소모품 등 구입 4,000만 원, 안전 위험물 보관 컨테이너 구입 600만 원, 임대 농기계 구입 9,000만 원. 791쪽입니다. 농기계 임대 사업소 일자리 지원 기간제 보수 등 8,280만 원, 4대 보험료 720만 원, 농업기계 안전교육 부품, 소모품 구입 550만 원. 792쪽입니다. 국화 동호회 교육 입식 보상 729만 원, 강사 수당 720만 원. 793쪽입니다. 농촌 자원 활용 치유농장 육성 7,000만 원. 이상으로 2026년도 예산안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인호
농업기술센터소장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님.

○ 박병수 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 가지 사항만 확인만 하렵니다. 784페이지 임자본에 자체 재원인데 기후 변화 대응 과수 정밀 농업 환경 개선 시범, 과수 자율 주행 병해충 방지 시범, 이 사업 한번 설명해 주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최광윤
기후 변화.....

○ 박병수 위원
팀장님보고 하시라고 하세요. 설명 한번 해주세요.

○ 소득작물팀장 황근영
안녕하십니까? 소득작물팀장 황근영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과수 정밀 농업 환경 개선 시범 사업은 저희 지원 내용은 지주 시설 개선 등 햇빛 차단만 시설 또 가변형 시설 이런 것들을 농가분들의 필요에 따라서 신청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 박병수 위원
그러면 과수 주행 병해충 방제 시범은요?

○ 소득작물팀장 황근영
자율 주행 병해충 방제 시범 사업은 저희가 과수 병해충 방지를 위해서 자율 장비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 박병수 위원
이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 소득작물팀장 황근영
예.

○ 박병수 위원
최근 3년간 지원했던 내력이요.

○ 소득작물팀장 황근영
알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최광윤
과수 자율 주행 이 부분은 요즘 AI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전국적으로 이런 부분들 자율 주행 부분을 상당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방제를 하다 보면 농약 피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자동, 그만큼 지금 시설이 돼 있다고 해서 금년에 처음 한번 도입을 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한 2대 정도 사서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 박병수 위원
그럼 처음 하나요, 시범적으로?

○ 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최광윤
예. 이 부분은 처음입니다.

○ 박병수 위원
그리고 786페이지에 인건비를 보면 꽃묘 육성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9개월 하는데 1억 1,600만 원. 작년에 제가 이 부분도 한번 지적을 했거든요. 그리고 다음 장 788페이지 인건비 부분 또 국화 육성장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이 9개월인데 2억 5,200만 원. 이건 이렇게 해서 꼭 굳이 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같은 9개월 동안 하면 같은 인력으로 고용이 안 되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최광윤
이 부분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박성규 위원님께서 한번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가져왔는데 설명을 하면 오래 걸릴 것 같고요. 제가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박병수 위원
그리고 793페이지 마지막 장인데 임자본이에요, 이것도. 농촌 자원 활용 치유 농장 육성 이거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최광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치유 농장을 저희들이 2030년까지 해서, 20개 농장을 육성을 해볼

까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까지 7개의 농장이 지금 신설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 의회에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고 작년에 종합 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한 가구당 5,000만 원 내에서 치유 농장을 한다 하면 지원을 해 주게끔 그렇게 지침을, 계획을 마련을 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예산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2개 농장만 지원하고 시범상으로 2030년까지 끌고 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박병수 위원

선정 기준이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최광윤

선정 기준은 저희들이, 치유 농장이 대해서 교육을 이수를 해야 됩니다. 150시간 이상을도 기술원에서 하고 있는 그 부분에 이수를 하고 또 개인 농장이 그만큼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교육받으신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15명인가 받고 대기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병수 위원

이것도 자료 한번, 최근 3년간 자료를 한번 내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최광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호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건 더 하고 마무리합시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

○ 보건행정과장 정계창

보건행정과장 정계창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총예산은 84억 6,355만 4,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3억 7,28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편성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97쪽. 의료원 환자 진료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정신건강의학과 공중의 인건비 9,960만 원, 보건의료원 진료 의사 인건비 2억 4,000만 원, 4대 보험 기간 부담금 3,720만 원, 사무 관리비 종합검진실 민원 신청서 제작 500만 원. 798쪽. 의료 및 회복비, 보건의료원 환자 진료 의약품 구입비 3억 900만 원, 보건의료원 환자 진료 소모품 구입 2,525만 원, 임상 병리 검사 재료 구입 1,400만 원. 799쪽. 임상병리 검사 시약 구입 1,200만 원, 외국인 계절 근로자 마약 검사 키트 구입 1,000만 원, 방사선 필름 판독료 700만 원,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의약품 및 진료 소모품 구입 500만 원, 지역사회 중심 지원 사업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지역사회 중심 지원 사업 인건비 3,722만 9,000원. 800쪽. 의료 및 회복비, 지역사회 중심 지원 사업 의약품 구입 1,299만 6,000원, 보건지소 환자 진료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보건지소 물리치료 전담 인력 인건비 3,000만 원, 사무관리비 보건지소 소모품 구입 1,100만 원, 보건진료소 소모품 구입 1,440만 원, 보건소, 보건진료소 감염 폐기물 처리 위탁비 2,160만 원, 공공운영비 보건 진료 업무 지원 시스템 유지 보수 850만 원, 의료 및 회복비, 진료 의약품 구입 6,000만 원, 한방 진료 약품 구입 1,100만 원, 진료 소모품 구입 3,920만 원. 801쪽. 보건기관 운영지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보건행정과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830만 원, 사무관리비 행사의료 지원 사설 구급차 용역비 2,000만 원, 보건기관 시설 및 물품 관리, 기간제 근로자는 보수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풀베기 인부임 960만 원, 사무관리비, 보건지소

직원 숙소 임차료 1,440만 원, 무인 경비 시스템 용역료 3,900만 원. 802쪽. 보건기관 전기 안전관리 대행료 1,560만 원, 보건기관 업무용 전산장비 유지 보수 720만 원, 소안보건지소 사무실 이전비 1,000만 원, 보건기관 화장실 비데 유지 관리비 1,389만 2,000원, 보건기관 출입문 시트지 교체 750만 원, 군기 제작 340만 원, 공공운영비 전기 안전 검사비 620만 원, 보건기관 소방시설 유지 보수비 600만 원, 보건기관 비품 수리비 640만 원, 보건기관 시설 유지 보수 3,000만 원. 803쪽. 정화조 청소 및 분뇨 수거료 1,300만 원, 보건기관 연료비 1,200만 원, 보건기관 의료 장비 시설 등 600만 원, 보건의료원 3종 시설물 안전 검사비 600만 원, 의료 영상 저장 전송 시스템 유지 보수비 792만 원, 안전 검사기 유지 보수 600만 원, 보건기관 입간판 수리비 1,000만 원, 시설비. 보건 지소 및 진료소 긴급 보수비 2억 원, 보건의료원 공보 관사 개보수 공사 6,000만 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보건의료원 비품 구입 1,000만 원, 보건지소 진료소 비품 구입 1,500만 원, 관용 차량 운행 지원, 공공 운영비 순환버스 및 앰뷸런스 방역 차량, 관용 차량 유지 관리비 2,700만 원. 804쪽. 방문 보건 및 행정 차량 유지 관리비 3,000만 원,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 시설비, 수안보건지소 개보수 공사 2억 1,645만 원. 806쪽. 의료 및 분만 취약지 지원 소아청소년과 지원 민간 위탁금 소아청소년과 지원 2억 5,000만 원, 의료 및 분만 취약지 지원 사업 외래 산부인과 지원 민간위탁금 외래 산부인과 지원 2억 원. 807쪽. 의료 취약지 인공신장실 운영 민간 위탁금 인공신장실 지원 3억 원. 808쪽. 의료 취약지 인공신장실 확충 시설비 의료 취약지 인공신장실 확충 사업 6억 원, 감염병 예방 사무관리비 C형 간염 퇴치 사업 추진비 1,330만 원. 809쪽. 의료 및 회복비 수인성 식품 매개 감염병 검체 채취용 물품 구입 500만 원, 감염병 검사 기자재 구입 800만 원, 감염병 비축물자 구입 600만 원, 신종 감염병 대응 물품 구입 500만 원, 감염 취약시설 감염병 예방관리 물품 구입 500만 원, 감염병 전담요원 배치 공무직 근로자 보수, 감염병 전담요원 인건비 4,000만 원. 810쪽. 손을 비비삼 사업 올바른 손 씻기 사업 사무관리비 손을 비비삼 올바른 손 씻기 사업 운영 물품 구입 1,500만 원,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관리 재료비, 진드기 기피제 구입 3,000만 원, 진드기 매개 질환 예방 기자재 구입 2,000만 원. 811쪽. 보건소 등 결핵 환자 관리 지원, 공무직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결핵 환자 관리 요원 인건비 4,020만 6,000원. 812쪽. 결핵관리사업 공무직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결핵 환자 관리 요원 인건비 1,500만 원. 814쪽. 한센병 관리 사업 민간 위탁금, 한센병 환자 관리 위탁 사업비 1,323만 원. 815쪽. 의약무 관리 사무 관리비, 심폐소생술 교육용 운영 물품 800만 원, 행사 운영비, 심폐소생술 교육 홍보 물품 구입 500만 원, 재료비, 자동 심장충격비 부속품 구입 500만 원, 기타 보상금 공공심야약국 운영 인건비 2,400만 원. 816쪽.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기타 사업비, 명절 연휴 당직 의료기관 안내 홍보 신문 광고료 660만 원,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 기간제 근로자 보수, 예방접종 등록 관리팀 인건비 2,153만 2,000원. 817쪽. 공무직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예방접종 등록관리팀 인건비 1,700만 원, 예방 접종 사업 사무관리비 무정전 전원 장치 렌탈비 지급 1,440만 원, 818쪽. 공공운영비 읍면 보건기관 백신 냉장고 유지 보수비 600만 원, 의료 및 회복비 대상

포진 유료 예방접종 약품 구입 3,500만 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품 구입 1,250만 원, 성인 백일해, 파상풍 유료 예방접종 약품 구입 500만 원, 국가 예방접종 기자재 구입 500만 원, 국가 예방접종 사업 의료 및 회복비 어린이 예방접종 2억 8,637만 2,000원. 819쪽. 60개월에서 12세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4,241만 2,000원, 성인 예방접종 4억 3,146만 8,000원,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 의료 및 회복비 대상포진 예방 접종 지원 2,850만 원. 820쪽.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 지원 민간 위탁금 응급의료기관 지원 5억 원, 취약지 응급 의료기관 보안 인력 인건비 지원, 민간 위탁금 응급 의료기관 보안 인력 인건비 지원 4,017만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 의료 및 회복비 코로나19 위탁 의료기관 접종 시행비 1억 3,648만 5,000원. 821쪽. 코로나19 백신 구매비 4억 2,724만 8,000원, 응급 헬기 착륙장 관리 시설비 응급 헬기 착륙장 풀베기 등 주변 정리 2,000만 원, 응급헬기 착륙장 시설 유지 보수비 1,000만 원, 취약지 헬기 착륙장 건설 지원 시설비 응급 헬기 착륙장 시설 개선 1억 2,000만 원, 감염병 예방 관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취약지 방역 사업 인부임 6,163만 9,000원. 822쪽. 공공운영비 기후변화 대응 해충 퇴치기 수리 960만 원, 노후 방역 소독기 수리 500만 원, 재료비 방역 소독용 약품 구입 1억 500만 원, 친환경 분사제 구입 3,000만 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휴대용 방역 소독기 구입 1,6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본예산 보건행정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호

보건행정과장 제안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4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차 회의를 마치고 4차 회의는 12월 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산회)

○출석위원(8인)

조인호　박성규　지　민
박재선　박병수　최정욱
허궁희　조영식

○출석공무원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해조류박람회추진단장	김준혁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지역개발과장	오현철
안전총괄과장	이홍용
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최광윤
보건행정과장	정계창

○ 전문위원 : 박영민
○ 전문위원 : 전문희
○ 속 기 사 : 임은주

제334회 완도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12월 09일(화)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26년도 예산안(완도군수 제출)
   - 건강증진과
   - 시설관리사업소
   - 의회사무과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조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

1. 2026년도 예산안(완도군수 제출)

그러면 2026년도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부서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

○ 건강증진과장 김현주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현주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829쪽 건강증진과 소관 총예산은 61억 3,486만 원으로 전년 대비 6억 5,184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 인력 인건비 1억 9,483만 2,000원, 공무직근로자 수상 등 보수 1억 908만 원. 다음 830쪽 부서 연계 통합 건강증진 홍보 관련 500만 원, 영양 플러스 보충 식품 구입비 3,600만 원, 전문 인력 연금 부

담금 4,392만 원. 다음 831쪽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 금연 상담사 인건비 6,480만 원, 금연 클리닉 운영 물품 구입 4,350만 원, 찾아가는 흡연 예방 교육 3,500만 원. 다음 832쪽 공무직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등 전문 인력 퇴직금 840만 원, 금연 보조제 구입 4,000만 원, 금연 상담실 전문 인력 수당 1,908만 원. 다음 833쪽 건강 증진 운영 사무관리비 1,680만 원, 의료기기 유지 보수비 500만 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운영 물품 구입비 500만 원, 도서 및 건강 돌봄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운영 물품 구입비 600만 원, 프로그램 운영 700만 원. 다음 833쪽 하단에서 834쪽 상단 민간 위탁금 1억 650만 원, 마음 치유 센터 조성, 마음 치유 센터 개소식 운영 물품 구입 500만 원, 마음 치유 센터 행사 운영 500만 원, 모바일 헬스 케어 사업 6개월 성공 물품 구입 500만 원, 대상자 디바이스 구입비 1,000만 원, 지역사회 건강 조사 민간 위탁금 6,729만 2,000원. 다음 838쪽 모자 복원 사업 임산부 건강 교실 운영비 500만 원. 다음 839쪽 출산 축하 용품 구입 및 임산부 교통비 지원 4,700만 원, 임산부 영양제 구입비 500만 원. 다음 842쪽 하단에서 843쪽 상단 산모 신생아 본인 부담금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1,786만 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바우처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7,653만 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 분유 지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1억 4,423만 6,000원, 공공 산후 조리원 운영비 지원 민간 위탁금 3억 6,160만 원. 다음 843쪽 하단에서 844쪽 상단 공공 산후 조리원 감면료 지원 8,960만 원, 공공 산후 조리원 기능 보강비 지원 민간 위탁금 2,000만 원, 전남 공공 산후 조리원 3호점 이용료 감면료, 첫째아 산후 조리비 감면료 1,750만 원, 완도군 출산 장려 지원 출산 전 준비금, 출산 장려금 등 7억 9,620만 원. 다음 844쪽 하단에서 845쪽 상단 첫 만남 이용권,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4억 400만 원, 전남 다둥이 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4,550만 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바우처 지원 사업 추가 지원 2,964만 원. 다음 846쪽 건강 실천 건강 생활 실천 프로그램 운영 물품 구입 500만 원, 심뇌혈관 질환 관리 고혈압, 당뇨병 교실 프로그램 운영 650만 원. 다음 847쪽 고혈압, 당뇨병 합병증 검사비 지원 등 2,500만 원. 다음 848쪽 구강 보건 사업 구강 보건의 날 캠페인 운영 물품 구입 500만 원. 다음 846쪽 암 조기 검진 사업 암 조기 검진 공단 위탁금 1억 8,826만 6,000원. 다음 850쪽 하단에서 851쪽 상단 방문 건강 관리 사업 공무직근로자 보수 방문 전문 인력 및 기간제 인건비 1억 6,176만 8,000원. 다음 852쪽 방문 건강 관리 사업 인건비 5,600만 원, 연금 부담금 등 건강보험 연금보험 부담금 4,000만 원,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 관리 사업 공무직근로자 보수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5,024만 원. 다음은 853쪽 어르신 건강 관리 디바이스 구입 2,530만 원. 다음 854쪽 방문 보건 사업, 방문 건강 관리 사업 폭염 폭안 예방 물품 구입비 1,020만 원. 방문 건강 관리 의약품 구입 600만 원, 온열질환 및 동절기 예방 물품 구입 500만 원, 의료통합 돌봄 대상자 관리 의료 소모품 구입 500만 원 다음. 855쪽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1억 100만 원. 다음 855쪽 하단에서 856쪽 암 관리 사업 의료 급여 수급권자 검진 홍보 물품 구입 540만 원, 재가 암 환자 해양 치유 프로그램 운영비 625만 원, 영양제 및 장루 용품 구입비 1,085만 원, 치매 안심센터 운영 보조 사업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등 인건비 5억 4,240만 6,000원. 다음 858쪽 치매 안심센터 전문 인력 여비 2,820만 원. 다음 859쪽 치매 안심센터 운영 자체 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720만 원, 치매 전문 인력 직무 역량 교육 및 안심 관리사 치매 돌봄 프로그램 운영 1,000만 원, 치매 실종 예방 모의 훈련 및 인식 개선 홍보관 운영 물품 구입 1,500만 원, 연금 부담금 등 7,200만 원. 다음 860쪽 치매 진단 검사비, 치매 환자 조호 물품 및 사례 관련 물품 구입 3,000만 원, 공기관 등에 비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금 부족금 3,000만 원,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전환 사업 1억 3,789만 3,000원. 다음 863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전문 인력 근로자 보수 2,688만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성과 보고에 500만 원, 연금 부담금 등 전문 인력 보험료 기관 부담금 4,968만 원. 다음 864쪽 통합 정신 건강 증진 사업, 자살 예방 사업 행사 운영 3,960만 원. 다음 867쪽 하단에서 868쪽 상단 자살 예방 사업 공무직근로자 보수 3,500만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지원 전문 인력 인건비 및 여비 2억 4,993만 2,000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 예방 사업 인력 지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전문 인력 인건비 7,898만 4,000원. 다음 869쪽 생명 존중 안심 마을 운영 2,000만 원, 행사 운영비 2,000만 원, 완도군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비대면 걷기 프로그램 워크온 용역비 1,149만 원, 비데, 정수기 무인 경비 임대료 960만 원, 걷기 사업 운영 물품 구입 500만 원. 다음 870쪽 맨발 걷기 프로그램 운영 2,600만 원, 걷기 지도자 활동 수당 896만 원, 신체 활동 및 비만 예방 프로그램 운영 1,400만 원, 영양 프로그램 운영 960만 원, 의료 및 회복비 대사증후군 검사 시약 구입 800만 원, 러닝 머신 구입 500만 원, 주민 웃음 건강 관리 사업 웃음 강사 활동 수당 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호

건강증진과장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사업소**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수호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수호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7억 4,687만 2,000원이 증액된 18억 4,669만 8,000원입니다. 세부적인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75페이지입니다. 장보고 기념관 운영 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기념관 칡넝쿨 제거 인건비 1,200만 원, 사무관리비 장보고 유적지 홍보 리플렛 제작 625만 원, 장보고 기념관 공기청정기 렌털료 576만 원 다음 876쪽 장보고 기념관 유적지 시설물 안내 설치 및 홍보판 교체 525만 원, 광고 운영비 시스템 에어컨 카세트 표준 세척 수수료 550만 원, 장보고 기념관 시설 소급료 수선 유지 2,000만 원, 행정 차량 유지비 500만 원, 경관 가로등 유지 관리 600만 원, 장보고 체험 시설 유지 관리 500만 원, 시설비 장보고 기념관 유지 보수 1,500만 원, 장보고 기념관 정밀 안전 진단 1,500만 원, 장보고 기념관 주변 시설 관리 및 정비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수목 정비 및 제초 인부임 등 4,480만 원. 다음 877조 사무관리비 장보고

공원 화장실 물품 구입 800만 원, 장보고 공원 종량제 규격 봉투 구입 559만 9,000원, 공공 운영비 장보고 공원 경관 가로등 유지 관리 600만 원, 장보고 공원 야외 화장실 관리 자활센터 청소 대행 수수료 600만 원, 재료비 공원 관리 꽃묘 구입 500만 원, 시설비 장보고 공원 팔각정 등 수리 및 오일스텐 도포 500만 원, 장보고 공원 주변 시설 및 유지 보수 500만 원, 장보고 공원 화장실 보수 2,000만 원. 다음 878쪽 장보고 동상 및 어린이 놀이공원 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주변 정비 및 예초 작업 인부임 1,800만 원, 공공 운영비 장보고 동상 청소용품 및 소모품 구입 544만 원, 장보고 동상 자가발전 놀이시설 유지 보수 500만 원. 다음 879쪽 시설비 장보고 동상 주변 서치라이트 유지 보수 6,000만 원, 장보고 동상 및 어린이 놀이공원 유지 보수 1,000만 원, 청해진 유적 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청해진 쉼터 장도 주차장 수목 및 제초 작업 3,840만 원, 시설비 장보고 쉼터 화장실 보수 3,000만 원. 다음 880쪽 해양 치유 센터 운영 및 시설 관리사업 사무관리비 족욕 체험장, LP 가스 구입비 700만 원, 공공 운영비 건축물 및 광장 유지 보수비 1,000만 원, 시설 및 전시 장비 유지 보수비 6,000만 원, 시설비 해양 치유 센터 관광 시설 보수 보강 사업 10억 원, 어촌 민속 전시관 시설 유지 관리 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화단 정비 및 잡초 제거 인부임 1,120만 원. 다음 881쪽 사무관리비 전기 시설 수시 안전 점검 관리비 816만 원. 다음 882쪽 공공 운영비 전시관 기계 시설 유지 관리 500만 원, 시설비 어촌 민속 전시관 유지 보수 6,000만 원, 어촌 민속 전시관 내진 성능 평가 용역 2,000만 원. 다음 883쪽 해양 생태 전시관 운영 관리 사업 시설비 해양 생태 전시관 유지 보수 6,000만 원, 해양 생태 전시관 옥상 방수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호

시설관리사업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 최영미

의회사무과장 최영미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87쪽입니다. 2026년도 우리과 본예산은 25년 본예산 대비 2,931만 1,000원이 증액된 12억 8,837만 3,000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 지원 사무관리비 임시회 및 정례회 시 소회의실 운영 물품 구입 500만 원, 의회 행정사무관리비 행정 관서용 신문 구독료 720만 원, 완도군의회 정례회, 임시회 인쇄비 840만 원, 의회 종합 홍보 영상물 제작 2,000만 원. 다음 888쪽 의회 공직자 직무 연수 위탁 교육비 1,300만 원, 의정 활동 홍보물 제작 1,000만 원, 의회 방문 기념품 제작 및 구입 500만 원, 공공 운영비 의회 카메라 유지 보수 500만 원, 회의용 태블릿 통신 요금 1,368만 원, 행사 운영비 자매 결연, 의회 추첨 행사 2,000만 원, 국외 업무 여비, 국외 업무 수행 및 연수 2,400만 원, 의정활동비 1억 2,960만 원, 보조활동비 3,240만 원. 다음 889쪽입니다. 월정수당 2억 1,706만 8,000원 의원 국내여비 2700만 원, 의원 국외여비 국제 자매 결연 및 교류 협력 참석 1,000만 원, 의원 국외 연수 3,600만 원, 의정 운영 공통 경비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2,970만 원, 상임위원회 운영 800만 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700만 원, 의정 정책 개발에 따른 연구단체 운영 경비 500만 원, 의회 운영 업무추진비 의장 2,880만 원, 부의장 1,440만 원, 상임위원장 2,880만 원, 의원 역량 개발비의 공공위탁 자체 교육 지방의원 위탁 교육비 990만 원, 지방의회 의원의 역량 강화 자체 교육 640만 원, 의원 역량 개발 및 민간 위탁 지방의원 위탁 교육비 1,080만 원, 지방의회 정책 개발 조사 연구 용역 2,250만 원,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 1,000만 원. 다음 890쪽 국민연금 보험료 864만 원, 건강보험료 972만 원, 의사 운영 사무관리비 의회 회의록 제작 500만 원, 완도군의회 책자 발간 700만 원, 홈페이지 라이센스 서비스 1,680만 원, 홈페이지 클라우드 이용료 1,200만 원, 청사 유지 관리 의원 집무실 관리 720만 원, 891쪽 정수기 및 비데 렌털료 600만 원, 공기청정기 렌털료 900만 원, 의회 엘리베이터 유지관리비 528만 원, 청사 외벽 청소 500만 원, 시설비 본관 별관 소규모 보수 보강 공사 각각 2,000만 원, 본관 청사 바닥 보수 공사 1,500만 원, 본회의장 소회의실 음향 장비 기능 보강 공사 2,000만 원, 관용 차량 유지 관리 의정활동 지원 차량 임차비 1,000만 원, 행정차량 유지 관리비 700만 원, 행정 차량 유류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호

의회사무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세요? 의회사무과장과 관계공무원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6년도 예산에 대한 부서별 제안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세목별, 부기별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축조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 심사는 위원님별로 각각 개별 축조 심사를 실시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이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개별적인 예산안 검토 및 심사 조서를 작성하여 12시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개별 축조 심사 삭감 대상 조서 목록 작성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4시10분 회의계속)

○ 위원장 조인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전문위원이 정리한 2차 축조 심사 결과를 보시고 재검토가 필요하거나 삭감할 예산이 더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2차 삭감 대상 사업에 대하여 부서별로 보충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예. 기획예산실장입니다. 저희는 198쪽에 방송 영상 산업 유치 육성에 방송사 드라마 제작 지원에 저희들이 3억 4,000만 원을 요구를 했는데요. 올해 예산을 저희도 지금 3억 4,000 정도 요구를 해서 다음 생은 없으니까 그 드라마를 지원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 거기가 한 시청률이 점점 올라서 한 4%에서 6% 정도가 올라간다고 하니까요. 우리 군에 다음 주부터 완도군이 방영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효과가 있겠다 싶었고요. 내년

도 저희들도 굳이 지금 부기에는 드라마로 돼 있지만 드라마 또는 영화가 됐든 드라마가 됐든 우리 군에 유익하게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면 이 예산을 활용하고자 저희들이 3억 4,000을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호

보충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 위원장 조인호

예. 위원님 질문이 없으셔서 삭감이 없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인호

보충 설명에 설명 없는 데는 그냥 통과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합니다. 관광실장 나오셔서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실

○ 관광실장 안환옥

관광실장 안환옥입니다. 페이지 236쪽 관광객 유치 기타보상금 및 완도 치유페이 인센티브 지원 25억 원입니다. 완도 치유페이는 금년도에도 진행을 했었고 내년에도 조기에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2월부터 4월까지 그리고 9월부터 11월까지 각각 상하반기로 나눠서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정부에서 시행하는 지역 사랑 휴가 지원제 저희들이 공모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휴가 지원제를 하게 되면 50% 예산이 포함되게 돼 있는데 거기에 따른 6억 원도, 25억 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꼭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7쪽 사무관리비에 완도 관광 사진 및 쇼츠 영상 공모전 홍보 및 운영 2,0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내가 추천하는 완도 가볼 만한 곳 사진과 영상을 공모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고요. 공모 기간은 내년 2월부터 10월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사계절 관광 명소와 자연 경관이 어우러진 작품들을 용역을 해서 이 부분을 좀 하고자 하고 그 밑에 기타보상금의 공모전 시상금은 이 공모전에 참여했던 분들에 대한 사진과 영상에 대한 시상금을 2,000만 원을 계상을 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확보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남파랑길 쉼터 운영 한국형 생태 녹색 관광 육성에 대한 인건비, 일반 운영비, 행사 운영비, 지방자치단체 이전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보조 사업입니다. 국비 50%, 지방비 50% 보조 사업으로서 매년 이용객 수가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2년도에 시작해서 115명 이용을 했고 23년도에 341명, 2024년도에 976명, 2025년도에 1,027명이 이용한 바가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매년 남파랑 쉼터 이용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 평가가 우리 군은 우수하게 나와서 전년도에 지급한 금액 그대로 저희들한테 배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도에도. 그래서 문체부에도 평가가 그래도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이런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서 남파랑길 예산이 꼭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호

관광실장 보충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신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규 위원님.

○ 박성규 위원

완도 체육대회 인센티브 지원사업이 이게 1년치가 지금 25억이 세워졌습니까?

○ 관광실장 안환옥

예. 그렇습니다.

○ 박성규 위원
작년에 얼마나 세웠어요?
○ 관광실장 안환옥
작년에 18억 세워졌습니다.
○ 박성규 위원
작년에 한 20억 정도 세워졌어요?
○ 관광실장 안환옥
예.
○ 박성규 위원
그럼 작년에는 몇 월 달까지 다 소진이 됐습니까?
○ 관광실장 안환옥
3월부터 8월까지 해서 사전 예약은 마무리가 됐었고 예산은 지금도 집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박성규 위원
그러니까 올해 25억을 세워서 상반기에 다 소진이 되면 하반기는 어떻게 할 겁니까?
○ 관광실장 안환옥
이제 분기별 연중 금년에 했다고 하면 금년에는 2월부터 4월 또 하반기에 9월부터 11월 이렇게 두 번에 나눠서 비수기 위주로 운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 박성규 위원
아니, 그러면 일부는 추경에 세워도 되지 않습니까?
○ 관광실장 안환옥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 사랑 휴가 지원제라는 정부에서 하는 반값 여행에 대한 지원금을 저희들이 금년도에 공모에 참여하겠다라고 희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공모가 되게 되면 저희 지방비, 군비 부담금이 6억이 또 부담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내에서 저희들이 휴가 지원금까지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박성규 위원
꼭 굳이 25억을 지금 본예산을 집행 안 해도 일부는 추경에 세워도 안 됩니까?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더 얘기해도 되지 않습니까?
○ 관광실장 안환옥
하기는 하는데요. 이제 사전 신청을 상반기에 많이 해주다 보면 그 사람들이 중간에 집행을 저희들이 해줘야 되거든요.
○ 박성규 위원
아니, 상반기만 해도 소진되면 하반기 못 하지 않습니까?
○ 관광실장 안환옥
그래도 예산은 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청을 했는데 또 집행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 박성규 위원
다 쓰지도 못 하고 예산도 없다면서 이렇게 본예산에다 많이 세워놓으면.....
○ 관광실장 안환옥
휴가 지원제도 있기 때문에 예산이 좀 다 확보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성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호
지민 위원님.
○ 지민 위원
실장님 다름 아니고요. 여기 쇼츠 영상 공모전 홍보 있잖아요.
○ 관광실장 안환옥
예.
○ 지민 위원
홍보비도 2,000만 원이고 여기 시상도 2,000만 원이에요. 그래서 홍보를 어떻게 하실 건지.
○ 관광실장 안환옥
이게 홍보뿐만이 아니고 이 용역 업체를 선정을 해서 홍보하고 또 여기에 공모에 응모하는

작품들 접수하고 심사 위원들 심사를 하고 평가까지 해서 저희들한테 넘겨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시상금이 2,000만 원이고 용역을 진행하는 데 2,000만 원입니다.

○ 지민 위원

예. 그래서 사진 쇼츠 영상 하는데 굳이 용역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는 생각이 좀 들어서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호

박병수 위원님.

○ 박병수 위원

실장님. 남파랑길 관련해서 우수 평가를 한다고 했죠?

○ 관광실장 안환옥

예.

○ 박병수 위원

저희가 사업계획서하고 성과 분석 결과를 좀 제출해 주라고 했는데 이게 안 들어왔어요.

○ 관광실장 안환옥

제출해 드렸습니다.

○ 박병수 위원

이거 누구한테 전해드렸죠?

○ 관광실장 안환옥

저희 공문상으로 제출해 드렸는데요.

○ 박병수 위원

저는 아직까지 못 받았는데 그리고 첫마을 권역 사업을 지금 2014년도에 건물이 지어졌는데 한 15억 들어서 커뮤니티센터를 지었거든요. 그런데 이 지역 사람도 아니에요. 누구에 의해서, 어떤 힘에 의해서 그들이 와서 거기를 독차지하고 사는지 모르겠지만 예산까지 그분들한테 지원을 하고 있어요. 이게 특혜 아닌가요?

○ 관광실장 안환옥

그 부분은 좀 더 깊게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병수 위원

한번 검토가 아니라 그 지역 사람들이 있어요. 지역 사람들을 공모를 한다든가 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역 사람들을 활용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지역하고 전혀 연고가 없는 사람이 들어와서 그 건물을 완전히 독차지하고 커뮤니티센터 역할을 민박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 민박에서 돈벌이하고 있는데 축산물도 팔고 여기다 또 이런 사업비를 지원한다? 이런 부분들은 남파랑길 관련해서 하는 차라리 지역 내에 사회단체가 있을 것이고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도 있을 것이고 이런 역할을 이쪽으로 해서 지금 공모를 해서 한다거나 그런 방법을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실장님 어떠신가요?

○ 관광실장 안환옥

예. 그때 당시에 공모할 때 공고를 내서 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때 공고했을 때 지역 내에서 참여가 안 됐을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박병수 위원

검토 한번 해보세요.

○ 관광실장 안환옥

예.

○ 위원장 조인호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관광실장과 관계공무원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

○ 민원봉사과장 김용식

민원봉사과장 김용식입니다. 314페이지 김 뜨기 체험 운영비 체험 기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민원봉사과에서 이제까지 장보고 수산물 축제 때부터 계속해서 김 뜨기 체험 행사를 해왔던 그런 사례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할 계획이고 내년 PRE 박람회 때 김 체험, 김 건조장을 볏짚으로 해서 한 20m에 2m 높이로 해서 벽은 건조장을 만들고 그다음에 김 뜨기 도구 같은 것이 지금 6년 정도 안 하다 보니까 그런 재료들이 다 없어서 그런 재료들도 구입을 하고 그다음에 행사 요원들이 많은데 이런 자원봉사에 따른 외에 일부는 인건비로 쓰기 위해서 1,5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 위원장 조인호

최정욱 위원님 보충 설명하십시오.

○ 최정욱 위원

왜 민원실에서 이걸 하게 됐을까요?

○ 민원봉사과장 김용식

이게 옛날에 보면 민원실이 수산복합민원팀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수산과 같은 데는 이런 전복 체험이나 그런 것을 행사를 하고 그런 바다에 관련 수산팀이 있기 때문에 민원실에서 김 뜨기 체험을 이게 한 2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 최정욱 위원

그래 하는데 저게 왜 활성화가 제대로 안 되냐 하면 나도 알아, 그걸. 지금 우리 김 수산업 협회가 있어요. 그렇죠?

○ 민원봉사과장 김용식

예.

○ 최정욱 위원

거기다 주면 자기네들은 그쪽에 전문가들이에요. 김에 자기들이 홍보도 해야 할 필요도 있고 또 우리 군의 지원도 받고 그 협회가 지금 훨씬 활성화되고 자기들이 좋게 할 건데 예전에도 그 말이 한 번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쌩뚱맞게 민원실에서 왜 해놨냐 하는거에요.

○ 민원봉사과장 김용식

민원실에서 해서 온초록하고 그다음에 한국 김 생산어민연합회랑 같이 내년에 같이 합니다. 김 생산 협회하고.

○ 최정욱 위원

협회가 딱 줘버려야지. 자기들이 해야지 이거 진짜 한번 풍성하게 할 건데.

○ 민원봉사과장 김용식

협회랑 제가 협의를 했는데요. 사장님들이 자기네들은 가서 자원봉사를 할 역량은 안 되고 후원 정도,

○ 최정욱 위원

어차피 우리도 어촌에 사람 거의 나오지 않아요. 다 자원봉사가 하지. 내가 알지. 요즘은 우리 회원들이 가서 하는 거 아니야. 다만 김 협회는 김이 됐든 뭐가 됐든 자기들 준비하려면 얼마든지 여기 협회에서, 그런데 민원실에서 이야기하면 안 들어. 지원 부서에서 해야 돼.

○ 민원봉사과장 김용식

저희들이 김 생산자 협회랑 해서 지금,

○ 최정욱 위원

생산자 협회 말고 그 마른 김.

○ 민원봉사과장 김용식

마른김 협회요?

○ 최정욱 위원

그렇죠.

○ 민원봉사과장 김용식

아, 마른 김 협회.

○ 최정욱 위원

생산자 협회로 하면 안 돼. 마른 김 협회에다 줘야지. 거기는 돈도 많고 자기들이 능력도 되고 그러니까 아마 하면 자기들이 제대로 할 거에요.

○ 민원봉사과장 김용식

저희가 마른 김 연합회장님이 최봉학 회장님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김 생산자 협회하고 마른 김하고 저희가 파악을 제가 다 해놨

습니다. 그래서 접촉을 해서 같이 내년에.

○ 최정욱 위원

권한을 준 거하고 안 준 거하고 책임감을 준 거냐 아니냐랑은 달라요. 협회에다가 주면 자기들끼리 회의를 해서 서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아마 예상 다 할 건데 그렇게 해야지 하려면. 시작하려면 그 행사가 좀 돋보이게 해야지.

○ 민원봉사과장 김용식

그러겠습니다.

○ 최정욱 위원

지금 몇 년을 하면서 똑같이.....

○ 민원봉사과장 김용식

예, 지금 저희들이 한 안 한 지가 6년 정도 됐는데 하여튼 내년에 할 때는 마른 김하고 물김 생산하고 온초록이랑 같이 해서 이런 것을 잘 되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정욱 위원

우리 이거를 수산경영과로 이거를 넘기면 돼요.

○ 위원장 조인호

수상경영과에서는 또 다른 걸 맡아서 합니다.

○ 민원봉사과장 김용식

다른 행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 위원장 조인호

행사할 때 민원봉사과에 이걸 안 주면 다 놀아요. 그러니까 다 찢어서 하나씩 해놓은 거니까 이해를 한번.

○ 최정욱 위원

그러니까 맞는 거를 해야지요.

○ 민원봉사과장 김용식

저희들이 수산경영과보다도, 저희 역량을 같이 단체들이랑 해서 잘 되게끔 하겠습니다.

○ 최정욱 위원

반드시 마른 김 협회에.

○ 민원봉사과장 김용식

얘기하겠습니다.

○ 최정욱 위원

그쪽에다가 줘. 이렇게 이것 좀 하십시오라고.

○ 민원봉사과장 김용식

그러겠습니다. 예.

○ 위원장 조인호

예. 조영식 위원님.

○ 조영식 위원

최정욱 위원님 방금 말씀하셨듯이 수산경영 마른 김 포장지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2억. 이게 지금 마른 김에 비해서 상당히 훅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 같아요.

○ 민원봉사과장 김용식

예.

○ 조영식 위원

이런 용역이나 운영은 모든 것을 수산경영과에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저번에도 질문을 하시고 오늘도 하신 것 같으니까 이러면서도 마른 김 생산자 협회는 김 도내 김말이 체험 있잖아요.

○ 민원봉사과장 김용식

예.

○ 조영식 위원

김 마는 거.

○ 민원봉사과장 김용식

그거는 주민복지과에서.

○ 조영식 위원

아니, 그런데 마른 김 생산자 협회에서 해마다 그거 할 때 김밥 만들기 할 때 발장이라고 있거든요. 그걸 몇 박스씩 거기서 지원해요. 돈으로 살 수는 없으니까 지원을 해주더라고. 그러고 같이 해서 김하고 같은 거니까 거기다 주면 이런 것은 자기들 나중에 판로나 유통 이런 것 때문에 더 열심히 할 거다 이 말이에요.

○ 민원봉사과장 김용식

그러겠습니다.

○ 조영식 위원

그러지 않겠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김용식

생산자하고 마른 김하고 해서 다 같이 행사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협의하는 방향으로.

○ 최정욱 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민원 봉사과에서 하니까 이거라도 안 주면 논다고 하는데 수산경영과에서 하면 그럼 인원 동원할 때부터 민원봉사과에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김용식

저희들이 하여튼 같이 해서 잘 행사가 그 단체들하고 체험 행사가 잘 되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호

민원봉사과장과 관계공무원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예. 경제교통과장 우홍래입니다. 먼저 스마트 공장 구축 사업입니다. 요구액은 9,960만 원으로 총예산액은 3억 3,200만 원입니다. 그중에 보험비는 50%, 군비 30%, 자부담은 20%입니다. 이 사업은 전라남도 테크노 파크에서 주관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관내 기업들이 공장을 신축하거나 기존 시설이나 장비를 개선할 때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테크노 파크에서 공고를 하게 되면 기업들이 서류를 제출하면 서류 심사 그리고 현장 심사를 통해서 대상 기업들을 선정하게 됩니다. 2025년에는 우리 군에서 주영테크과 하나물산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완도 버스터미널 공공 운영비 지원입니다. 요구액은 1,800만 원이고 터미널 통신 요금, 전기 요금, 수도 요금, 화장실 관리 비용 등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호

경제교통과장의 보충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님.

○ 박병수 위원

예. 운수 업체 보조금 관련해서 버스 터미널 공공 운영비 지원 관련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인건비는 손을 안 댔어요. 인건비는 청소 관련 인건비 하고 이런게 관련됐기 때문에 공공요금 관련된 부분들은 업체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어떻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편성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도 새로운 과장이 와서 예산을 삭감했다 그런 말을 듣기가 좀 무섭기는 합니다.

○ 박병수 위원

그렇죠. 의회에서 삭감했다고 하세요. 업체에서 자기들 받을 거 다 받고서 하는데 공공요금 이런 거 다 부담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의회에서 좀 삭감했다 그렇게 하시고 정 필요하시다면 내년도에 새로운 군수가 들어왔을 때 그걸 분석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잘 알겠습니다.

○ 박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호

그 부분은 과장님 삭감해도 별문제는 없겠어요? .

○ 위원장 조인호

특별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깍다보면 터미널에서 완도를 찾아온 관광객들이나 사람들한테 피해가 가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예. 그 부분은 우려가 되긴 합니다마는.

○ 위원장 조인호

그 부분을 책임진다고 하면 삭감을 하고.

○ 최정욱 위원

이거 다시 우리끼리 재토의할 거 아닙니까? 삭감 부분에 대해서 우리끼리 다시 재토의 할 거죠. 그러면 일단.

○ 위원장 조인호

경제교통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정책과장 나와서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정책과

○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해양정책과장입니다. 페이지 584쪽 폐스티로폼 감용기 운영 사무관리비하고 공공 운영비는 제가 지난번 설명드렸을 때 이동식 감용기는 저희가 사용을 안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노화에서 고정식으로 감용기가 있었는데 그것을 오랫동안 사용을 안 하고 있다가 이동식 감용기가 안 되니까 그걸 고쳐서 시범 운행을 해봤었습니다. 그랬더니 상당히 많은 양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었고 그래서 이것을 정식으로 좀 고쳐서 운영해서 이어가는 게 괜찮겠다 싶어서 예산을 다시 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꼭 세워주시면 저희가 노화, 소안, 보길 쪽 폐스티로폼이 그걸로 감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을 꼭 좀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582페이지 바다 지킴이 기동대 운영 사업부는 지금 이 사업비가 2023년도에는 1억 5,000, 24년도에는 1억 2,000, 최종 예산이. 또 25년도에는 최종 예산 1억 2,000 예산 지원해서 지금 365 기동대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365 기동대는 12개 용역의 수산업 경영인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묶어져 있지만 노화를 할 때는 노화 수산 경영인들 중심으로 해안가 쓰레기를 청소를 하고, 또 소안을 하면 소안을 중심으로 하고 해서 1년에 한 7번, 8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있어야 우리가 사람 손이 닿지 않는 이런 곳에 힘든 쓰레기를 수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면 무인도 해양 쓰레기 수거 사업은 똑같은 바다 쓰레기 수거 사업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낭장망 협회랄지 통발 협회랄지 또 어선 연합회랄지 기타 어선을 가지고 어업을 하는 수산 단체들이 본인들이 수거를 해 봄으로써 '버리지 않았야겠다' 하는 교육의 효과는 이 돈보다 훨씬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도 계속해서 사업비가 4,000만 원씩 예산이 편성이 됐다가 24년도, 25년도에 군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보조 사업을 많이 삭감을 하라 해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들도 그 사업을 하다가 무뎌지니까 좀 이런 예산이 없는가 하기도 하고 저희 입장에서도 어업인 교육을 계속해서 시켜야 되는데 이런 예산이 소액이지만 예산 확보가 그런 교육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예산도 꼭 좀 살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호

해양정책과장 보충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최정욱 위원님.

○ 최정욱 위원

과장님 우리 감용기에 따른 인건비가 몇 사람이 필요하죠?

○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지금 이동식 감용기 운영하기 위해서 처음에 8명 채용했다가 이동식 감용기 효과가 점점

의문이 생기고 고치고 하다가 관련 인원을 채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4명인데 그 중에 한 명이 육아휴직 가서 지금 현재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직원들은 완도읍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원들을 다시 노화로 보내기는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직원들은 환경관리단의 이름으로, 저희가 해보니까 폐가두리 이렇게 쌓여 있는 거 그냥 바다 지킴이들 갖고는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장비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하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 쓰레기들을 또 기동대가 해서 갈 수도 있고 또 외딴 섬에 저희가 친환경 정화원반을 운영을 하는데도 다니면서 같이 무인도 해양 쓰레기도 수거하고 같이 또 이동도 하고 하니까 이 직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직원들은 군에서 활용을 하고 그 노화의 고정식 감용기는 거기서 기간제로 채용을 해서 현지에서 충분하게 8시간 근무하고 충분히 일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운영을 해갈 방침입니다.

○ 최정욱 위원

예. 그런 이동식 감용기는 처음 우리 했을 때 우리 허궁희 위원하고 노화, 보길도를 우리가 한번 들어가서 현지 보고 했는데 그 인원 비용과 경비, 인건비등 생산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예. 맞습니다.

○ 최정욱 위원

예를 들자면 이거 만들었는데 1만 원어치 해놓고 인건비는 100만 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때 이건 실용성이 없다고 했는데 우선 그때는 이제 해서 안 할 수 없고 했는데, 지금 그 기계가 더 안 좋은 기능으로 변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안 그래요?

○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예. 중간에 개선을 한다고 빵틀처럼 나왔었는데 너무 속도가 늦고 그런다고 개선한다고 가래떡처럼 나오게 바꿨다고 해요. 그런데 가래떡이 지금 부서져서 눈처럼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처음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다른 시군보다 써서 이걸 좀 해보자 하고 진짜 의기 있게 했는데 그래서 과감하게 이거를 버리지를 못하고 인력도 필요한 것이고 그 기기도 매도를 해서 교육을 했기 때문에 후임자들이 저도 와서도 바다에 이거를 버린다는 생각을 하기가 어려워서 분석을 여러 번 해봤습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결국은 올해는 처분하는 방법을 찾아보고 고정식 감용기로 일단 돌려서 그것도 오래됐기 때문에 얼마나 갈지는 모르나 그걸 돌려보고 괜찮으면 다른 기계로 써봤을 때 요즘 나오는 기계들이 잘 나오는 기계들이 많이 있으니까 새로운 기기를 도입해서 읍면마다 폐스티로폼 처리하는 방식을 강구하자 지금 저희 팀의 부서에서 그렇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 최정욱 위원

이제 왜 그러냐면 저게 전혀 실용성이 없는 이유가 첫 번째가 바닷가에 놔두고 이동식이라 그거를 감용기로 하란 데서 쌓아 놔요. 쌓아 놓으니 이게 바람에 날리고 외관 상 보기 싫지. 또 그 차가 가서 하는 동안 해도 그걸 많은 양도 안 되면서 또 거기서 그때 나온 걸 또 쌓아 놓고 되고. 바람 날리고 전혀 효과 없고. 생산성도 없고. 그래서 그때 돈을 한 대당 15억인가 해서 무리하게 이거 빨리 없앨 수는 없어서 해야 되는데 이제는 과감하게 없앨 필요가 있어요.

○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그래서.

○ 최정욱 위원

차라리 그걸 돈 얼마 안 주면 폐기 처분되는 걸..... 사람을 투입해야 돼고 유류비, 차 관리 해야 돼. 그것 때문에 이렇게 안 되는걸 계속 가지고 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몇 년이 지났으니까 이제는 과감히 접고 차라리 그냥 그때그때 처리해 보는 게 환경적으로도 좋고, 쓰레기 쌓아 놓을 이유도 없고, 그리고 직원도 세 명 가지고는 안 돼. 왜냐하면 그 스티로폼 닦고 쩍 같은 것을 떼어내고 넣어야 되니까 또 사람을 또 사서 그때도 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말만 그렇지 제대로 하려면 사람이 몇 명이 들어가야해요. 그러니까 과감히 없애는게 좋아요.

○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예. 그거를 처분을 하고 노화형 고정식 감용기가 노화 쓰레기 처리장 옆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실제로 많이 노화, 보길에서 갖다 놓고 적재를 하고 있어서 거기에 우리 새로운 인력을 기간제로 채용을 해서 그 기계를 돌리게 하고 또 노화에 환경미화원을 저희가 또 보내니까 해양 환경미화원 예산을 지원하니까, 필요하면 그 인원들하고 같이 해서 많이 쌓이면 같이 처리를 하고, 또 괜찮으면 또 나눠서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한번 해보고 장기적으로는 더 좋은 기기를 좀 도입할 필요가 있으면 해보고 이제 권역별로 좀 해볼 생각이 있습니다.

○ 최정욱 위원

이제 해야 된다면 고정식으로 해야 돼.

○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예.

○ 최정욱 위원

그냥 거기다 모아 놓고 거기서 해야지, 우리 같이 선착장 어디다 쌓아 놓고. 이게 이건 안 돼. 그런 건 과감하게 접어야 합니다.

○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정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호

조영식 위원님.

○ 조영식 위원

뒤에 또 인부임도 있고 하는데 이것만 살려달라하면 뒤에 인부임은 어떻게 됩니까요?

○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인부임은 살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감하면 안 됩니다.

○ 조영식 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들어오려면 뒤에 1월까지도 다 해야 되는 거고 살리려면 그냥 인부임이 살아 있어서 삭감 돼서 안 올랐으니까 이게.

○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아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 조영식 위원

2,850만 원인가도 살려야 되겠다 이 말이죠?

○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예. 그게 있어야 인부임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조영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최정욱 위원

다음에는 과감하게 없앱시다.

○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호

바다 지킴이에 대해서 허궁희 위원님.

○ 허궁희 위원

이 부분은 1년 예산이죠?

○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예. 그렇습니다.

○ 허궁희 위원

작년에 1억이었는데 2,000만 원이 증가된 이

유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작년에 최종 예산이 1억 2,000이었습니다.

○ 허궁희 위원

그런데 왜 금년에는 여기에는.

○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여기 본예산 기준입니다.

○ 허궁희 위원

예?

○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본예산 기준으로 지금 2,000만 원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데 저희가 추경까지 하면 1억 2,000이었고 또 그 전년도 24년도에도 추경까지 하면 1억 2,000이었고, 그 전에도 23년도에는 1억 5,000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자꾸 줄어드니까 이제 저희가 추경을 조금씩 조금 더 확보를 했고 현재 이 예산도 더 있으면 수경인들이 더 많이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제한된 예산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충분하게 지금도 이렇게 청산 가는 길목이나 아니면 노소보 가는 길목에 이렇게 보면 하얗게 보이는 스티로폼들을 다 처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 허궁희 위원

이제 쓰레기는 아무리 처리해도 돌아서면 쌓이는 게 쓰레기입니다. 저도 쓰레기 우리 365기동대가 할 때마다 나가서 점검도 해보고 한 사람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 잘 아는데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정 단체에 가니까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우리 지역에 봉사활동한 단체들 많잖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이제 바닷가고 배가 닿지 않고 선착장이 없는 구석진 데 쓰레기를 치우다 보니까.

○ 허궁희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한 것이라 그 밑에 지금 어딥니까?

○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무인도 해양 사업.

○ 허궁희 위원

무인도 저긴데 똑같은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수경인들 가서 하는거 보면 힘이 듭니다. 제가 안 가봤으면 모르지만 젊은 사람들이니까 하는 거지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 명칭만 자꾸 붙여서 작년, 재작년에 없어도 큰 이유가 없었잖아요. 우리 무인도 쓰레기를. 그러면 그게 그 사람들한테 큰 도움이 되냐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바쁜 사람들 날 잡아서 가니까 귀찮아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단체 저 단체 우리 완도에 쓰레기 처리하는 곳이 많아요. 그 사람들 활용 더 하면 되겠더라고요. 굳이 이렇게 막 명칭만 만들어서, 저는 그래서 사탕발림하고 싶은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면 이런 얘기 안 하겠죠. 그러나 이건 꼭 바꿔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적을 한번 해보고 싶고 1년 예산이기 때문에 왜 제가 4,000을 깎았냐 전반기, 후반기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예.

○ 허궁희 위원

그러면 전반기에 쓸 돈만 예산에 넣고 후반기에는 또 우리 추경 있잖아요. 그때 또 넣으면 되는 거예요. 왜 군은 어렵다면서도 예산은 전체 1년 치를 모아서 이렇게 짜놓는지 저는 그것도 이해가 좀 안 가요. 그래서 우리 기획예산실장님 계시지만 “실제로 배고프지 않기 때문에 이러지 않냐? 그렇게 정말 어려우면 전반기 예산 세우고 또 전반기에 쓸 돈 쓰고 후반기에 또 예산 세우고 이래야 맞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1년 치 쌓아 놓고 좀 밀쳐하면서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이런 것부터 우리가 한번 조정을 해보자 없애는 건 아니

다.” 대신 전반기에 쓸 돈만 세워서 쓰고 후반기에 또 세우고 그러면 6개월이면 그 긴 시간 동안에 또 우리 군이 조금 더 여유롭게 예산 집행을 할 거 아니야. 그렇지 않을까요?

○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다만 단체에서도 이렇게 매년 새해가 되면 올해 사업비가 얼마가 되니까 올해는 어디 어디 지역을 하기로 하자고 또 자기들이 선정하기도 하고,

○ 허궁희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하세요. “이것이 전반기거다. 또 아니면 이렇게 1년, 12개월 중의 8개월 치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되는 거고 나머지는 우리 후반기에 추경 때 예산 잡을 것이다, 하세요. 저는 그런 아무 상관 없다고 생각합니다.

○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잘 알겠습니다.

○ 허궁희 위원

예.

○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하여튼 다시 한 번 제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허궁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호

해양정책과장과 관계공무원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

○ 지역개발과장 오현철

지역개발과장 오현철입니다. 706쪽 금일 신구리 중계펌프장 이설공사 1억 5,000 예산을 반영해서 제출한 예산인데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금일 우회 도로를 개설하면서 기존의 중계 펌프라든지 이런 걸 그대로 이설하지 못해서 시설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경찰에서도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 예산은 저희가 반영을 한 것입니다.

○ 위원장 조인호

과장님 이 부분은 예산을 좀 삭감해도 공사를 하는 데 큰 문제는 없죠? 어떻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오현철

많이 삭감하면 아무튼 저희가 이제.

○ 위원장 조인호

지역구 예산이라 그러면 5,000만 원 삭감하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오현철

예. 주어진 범위에서 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호

부족하면 추경에 세워서 하세요.

○ 지역개발과장 오현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호

다른 사람 없죠? 지역개발과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 후 15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0분 회의계속)

○ 위원장 조인호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

○ 서무팀장 김경남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서무팀장 김경남입니다. 이기석 행정지원과장께서 제주완도군향우회 정기총회 군수님 대신하여 참석 차 제가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인호

팀장님 설명해주세요.

○ 서무팀장 김경남

여기에 AI기반 종합행정 안내시스템 구축이라고 있는데요. 여기서 핵심은 AI 기반이라는 겁니다. 사업비가 이렇게 과다하게 든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 설명드리면 행정에 약 20년 정도의 전산 처리된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너무 너무 방대합니다. 이런 것들을 인공지능으로 학습 시켜서 생성형 AI가 해석할 수 있는 자료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다음 업무용 PC 구입입니다. 내년 1년 업무용 PC가 약 300대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필요합니다.

○ 위원장 조인호

행정지원과 보충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이 예산이 지금 다 필요합니까?

○ 서무팀장 김경남

AI 기반 이 부분은 사실 10년 치라든가, 20년 치라든가 이렇게 예산 규모에 따라서 가감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20년에 지금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 모든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을 때 이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했습니다.

○ 위원장 조인호

PC 업무 구입은요?

○ 행정지원과서무팀장 김경남

예. 이것도 마찬가지 1년 구입비가 우리 구입비인데요. 이 예산이 다 필요합니다.

○ 위원장 조인호

일단 잘 알겠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일자리정책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일자리정책실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입니다. 저희 실의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214쪽입니다. 사회적 공동체 지원센터의 지원인데요. 사회적 공동체 지원센터는 군수님 공약 사항이고요. 「완도군 사회적 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근거해서 지원센터가 설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작할 때는 22년도에 시작했고요. 전라남도에서 1시군 1센터 설립을 적극 권장하다 보니까 도비 지원을 받아서 22년부터 24년까지는 도비 지원을 지원 받은 상태에서 운영이 됐고, 금년부터는 3년간 도비 지원 받다가 끊겨서 올해부터는 우리 순군비로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원센터가 운영이 되면서 주요 성과는, 이게 주로 해야 되는 일들은 「마을 공동체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마을 공동체 사업을 설계해 주거나 정산해 주거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을 컨설팅 해주는 업무가 하나가 더 있고요. 하나는 「사회적 경제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에 따라서 우리 군에 있는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이 부분을 육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 우리 사회적 경제가 총 74개소였는데 지금 현재는 104개소로 굉장히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 역할은 우리 사회적 공동체 지원센터가 주도적으로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조례라든지 전라남도의 어떤 적극적인 권고 이 부분을 감안하셔서 이거는 지금 내년에도 정상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214쪽 사회적 공동체 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사무실 임차비는 현재 사무실은 민원실 앞에 지금 1층에 있는데 그게 좀 비좁은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사무실 임차비가 없으면 '저희 사무실 쪽에서 운영하면 안 되겠냐?' 이런 의견도 말

씀하셨다고 하는데 저희 사무실이 외국인 관리팀이 금년도에 신설되면서 6개 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태도 사무실이 비좁아서 겨우 직원들이 왔다 갈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인력을 더 추가해서 저희 사무실에 배치하기에는 공간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보다는 사회적 공동체 지원센터가 지금 이 설립된 지 4년째인데 이게 더 효과적으로 운영이 돼야 우리 완도군의 마을 공동체하고 사회적 경제 기업을 활성화 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그것 때문에 이건 존속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5쪽입니다. 귀농인 정착 및 주택 수리비, 귀어인 정착 및 주택 수리비, 귀촌인 정착 및 주택 수리비. 귀농인 정착비 주택 수리비는 5가구 가구 당 500만 원 지원이고요. 주로 주택을 수리하거나 농기계 구입 자금으로 지원이 됩니다. 귀화인 정착 및 주택 수리비도 주택 수리를 하거나 어구를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귀촌인 정착 및 축제 수리비는 귀어인은 정착 지원이 아니고 주택 수리비로만 지원할 계획이고요. 이거는 현재 부기가 3개 나뉘어 있지만 예산 심사가 끝나면 귀농어 귀촌 정착 및 주택 수리비로 이게 모아서 전체적으로 권고를 해서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도 똑같이 귀농인 5가구 귀어인 10가구인데 모두 선정이 돼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9쪽 디지털 학습기기 지원인데요. 지금 성인 문해 교실을 운영하는 기관이 완도제일교회 그다음에 금일, 노화, 고금, 보길 등 5개 소가 있습니다. 지금 키오스크를 지원돼 있는 것은 완도는 작년에 지원이 됐고 금일하고, 노화는 금년에 1,000만 원씩 해서 2,000만 원 가지고 지원을 했고요. 지금 2,000만 원 예산은 내년에 고금하고 보길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 어르신들이 식당이나 커피숍 가면 요즘에 대부분 키오스크를 통해서 주문을 하는데 그걸 주문을 못 하시면 먹고 싶은 음식이나 이걸 주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르신들이 성인 문해 교실에서 교육을 받은 다음에 생활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고요. 이거는 기관에 꼭 필요한 디지털 학습 기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고금하고 보길에 지원될 계획입니다. 그 밑에 기관 운영 업무 추진비는 아마 이거는 기준액대로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보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호

일자리정책실장으로 보충 설명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 위원님.

○ 지민 위원

실장님 여기 아까 225페이지 귀농어인 이거 한번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거 아까 공모에서 하신다고 했잖아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예.

○ 지민 위원

그게 관련 조건 같은 건 어떻게 되나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우리 군으로 귀농하신 지 5년 이내에 되신 분들이에요.

○ 지민 위원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거를 지원을 해줬어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예.

○ 지민 위원

지원해 주고 난 이후에 또 계약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얼마간 살아야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지원을 받고 몇 년간 완도군에 주소

를 두고 있어야 된다는 이런 거 조건은 없나요?

○ 귀촌지원팀장 양은정

5년간 사후 관리 기간이 있어서.

○ 위원장 조인호

일어서서 답변하세요.

○ 귀촌지원팀장 양은정

귀촌지원팀장 양은정입니다. 사후 관리 기간이 5년 동안 있어서 저희가 이 사업을 받고 나서 타 지역으로 이주했는지 안 했는지 분기에 한 번씩 현장 점검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지민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주를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 귀촌지원팀장 양은정

저희가 그 보조금 회수를.

○ 지민 위원

회수만 하나요?

○ 귀촌지원팀장 양은정

예.

○ 지민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호

박병수 위원님.

○ 박병수 위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사회적 공동체 지원센터 이것이 공약 사업이라 했죠?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그렇습니다.

○ 박병수 위원

그럼 다른 지역은 하고 있는 데는 몇 군데인가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전남에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3군데 군만 빼고 나머지는 다 설치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 박병수 위원

그럼 다 공약으로 해서 다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을까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공약일 수도 있고 도에서 1시군, 1사회적 공동체 지원센터를 설립해서 운영을 해라 하면서 권고를 하면서 도비를 지원을 해줬습니다, 3개년에 대해서는.

○ 박병수 위원

그래 처음에는 도비, 작년까지는 도비 온 걸로 알고 있어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예. 그렇습니다.

○ 박병수 위원

그런데 어쨌든 군비로 이렇게 딱 전환 시키면서 계속 이어가니까 이 사업이 꼭 필요한 것인가. 지금 세 사람이 이렇게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업무량이 많지는 않을 걸로 보거든요. 이랬을 때는 실에서 차라리 센터장님 외에 직원들을 사무실로 배치를 해서 좀 해볼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지금 사회적 경제라는 부분 자체가 민간인들이고요. 이미 이 공동체가 조직에서 운영이 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많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더 앞으로도 확대를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22년도에 74개소에 사회적 경제 기업이 있다가 지금 현재는 104개소로 늘었습니다. 우리 지역의 사회적 경제 기업은 다른 기업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지역 자체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일들을 해결하는데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더 활성화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 박병수 위원
공무원들이 이런 업무를 볼 수는 없을까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공무원들이 볼 수 있었으면 도에서 아마 공고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1군에 1개씩 설치하라는 보고도 없었을 걸로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이분들이 계속해서 이쪽에서 근무하면서 전문성이 키워지면서 공무원들은 순환 보직 때문에 한 1년이나 1년 6개월 되면 옮겨가다 보니까 오히려 전문성은 이분들이 더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센터장 같은 경우는 이거는 공무직 전환도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일정 기간 있으면서 전문성이 더 발휘되고 그 밑에 직원들은 최대 2년 정도 근무하면 나이가 55세 이상이면 다른 부서로 옮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공무직 전환 때문에 센터장이 필요한 역할이 반드시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병수 위원
지금 보면 퇴직 공무원이 거기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 전문성을 갖고 있는 가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예. 그분이 계속해서 교육도 다니고 차례로 워크숍도 다니고 우리 아카데미나 이런 데 계속 다니시면서 지금 어느 정도 공무원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업무에 대한 습득이 일반인보다 훨씬 빠르고 지금은 어느 정도 전문가적 수준까지 도달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박병수 위원
예. 더 깊은 이야기는 안 할랍니다마는 업무에 충실하라고 하십시오.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예. 그거는 저희가.
○ 박병수 위원
더 이상 그렇지 않으면 교체를 하세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그 부분은 제가 특별히 별도로 한 번 더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병수 위원
그리고 이 외에 우리 완도군 관련된 사업들이 퇴직 공무원들과 연관돼서 근무하는 데가 좀 있어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예.
○ 박병수 위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우리 기획예산실장님.
○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예.
○ 박병수 위원
한번 일제 점검을 해서 그분들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지금 이제 선거철에 들어오잖아요.
○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예.
○ 박병수 위원
선거하고 또 연관된 그런 부분이 있어요.
○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예.
○ 박병수 위원
그런 부분들에 좀 지도 감독을 해서 선거에 중립을 지키든가, 그렇지 않으면 나가서 하든가, 그런 부분들을 좀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예.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 박병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호
실장님. 방금 박병수 위원님 말씀하신 말씀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예.

○ 위원장 조인호

이분도 공직자 출신이지만 느낀 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참고해서 조치를 하십시오.

○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호

일자리정책실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 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최광윤

784쪽입니다. 유자 병해충 도감 제작비 2,000만 원인데요. 이 부분은 전남대학교에서 이 정보를 요구하였습니다. 이게 마늘에 대해서 이렇게 병해충 방지 핵심 재배법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유자 농가에 대해서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교수님들이 직접 가서 사례를 모집을 한 책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이 한 권이 5만 원입니다. 5만 원인데 4만 원에 저희들한테 공급을 해준다고 해서 우리 농가가 460 농가거든요. 그래서 500부를 구입을 하면 농민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785쪽에 완도 특산품 팝업스토어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농업축산과에서 판촉 행사하고는 별개고요. 지난번에 우리 수제 맥주하고 또 유자 막걸리 이 부분들을 전국에 156개 기술센터 네트워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이나 경기 지역에 대도시에서 한번 판촉 행사를 한번 가져볼까 해서 했습니다. 기존에 제품을 생산한 물건들은 지역에서 홍보가 안 되기 때문에 지역에서 사장이 많이 됐기 때문에 대도시 주민들을 위해서 홍보 차원에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786쪽 봄겨울 육성 기간제근로자입니다. 이 부분은 내년에 행사도 좀 많이 있고요. 국화 전시하고는 별개로 읍면에 저희들이 17만 3,000부를 지금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변이나 이렇게. 그래서 지금 내년에 PRE 대회도 있고 해서 별도 예산을 좀 편성을 해놨습니다마는 그 부분까지 하려면 예산이 조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시장에서 구입을 하면 만 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하면 한 7,000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인건비는 좀 소요가 됩니다마는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좀 감안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호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보충 설명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축산과**

○ 농업축산과장 이정국

농업축산과 2026년도 예산안 심사 2차 제안 설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17쪽입니다. 논벼 재배 농가 왕우렁이 농업 지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요구액은 4,167만 3,000원인데 지금 현재 전라남도에서 이 본 사업은 조기 매칭 사업에 있어 대체 농법이 없고 왕우렁이로 인해서 지금 현재 친환경 농업을 추진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했는데 지금 한 50% 이상은 좀 예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 523쪽 친환경 농업 육성 지원입니다. 완도산 해조류 유기질 비료 구입입니다. 본 사항은 2,000만 원 요구된 사항으로서 완도군에서 해조류 유기질 비료를 지금 현재 구입해서 재배 농가의 유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서 상당히 효능이 상당히 좋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요구에 대해 세워야 할 사항입니다. 다음은 523쪽 친환경 농업 육성 지원입니다. 지역이 왕우렁이 피해 예방 자재입니다. 본 사항은 왕우렁이가 지금 현재 피해가 있기 때문에 자재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단계적으로 좀 삭감하겠습니다마는 올해까지는 좀 예산을 저희가 요구된 사항에 대해서 확장성을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548쪽 유기 동물 보호 기타보상금의 유기 동물 구조 포획비입니다. 본 사항은 지금 포상금 지원 명목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유기 동물들이 지금 증가하는 추세이고 또 의원님들이 군정질문에 질의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50%를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4분의 1, 한 3,000만 원은 좀 최소한의 조정이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될 사항입니다. 다음은 유기동물 보호의 길고양이 구조 포획비하고 중성화 수술비입니다. 이 두 가지는 포획을 해야만 중성화 수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포획 자체를 전체적으로 삭감을 해버리면 중성화 자체를 저희가 수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저희가 예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축산인복지센터 건립 지원입니다. 지금 현재 올해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지금 토목 사업이 필요합니다. 지금 펜스라든가 지금 배수로 시설이라든가 옹벽이라든가 지금 부지 내에 이 광산이 지금 현재 한 6,000만 원 최소한의 한 4,000만 원만 저희가 요구했습니다. 이 본 사항으로 저희 최소한의 기업만 지금 저희가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호

농업축산과장 보충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 위원님.

○ 지민 위원

축산인복지센터 금방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실래요?

○ 농업축산과장 이정국

예. 지금 현재 건물과 전기 시설과 이런 보험료들이 예산에 써야 돼서 현재 공사 중에 있거든요. 그런 토목 공사에 대해서 배수로라든가 옹벽이랑 현재 그 위치가 농지하고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옹벽 신축을 시공을 해줘야만 민원 발생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번에 저희 예산을 좀 반영했습니다.

○ 지민 위원

전에 5억 5,000 세워진 거 외에.

○ 농업축산과장 이정국

예.

○ 지민 위원

따로 이제 편성을.

○ 농업축산과장 이정국

지금 현재 한 1억 가까이 넘게 조금 소요가 되는데 최소한 비용으로 지금 넣은 겁니다.

○ 지민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호

농업축산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휴양과장 나오셔서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휴양과

○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산림휴양과장 박은재입니다. 보충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4쪽 약산 치유의 숲 위탁 운영입니다. 위탁 운영은 저희들이 시설물 위탁 운영이 아니고요. 산림 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산림청에 등록된 산림 치유 여부에 대해서 법적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했고요. 배치 인원은 저희가 산림

치유 지도사 1급 1명과 2급 2명을 이렇게 배치할 수 있게끔 법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호

산림휴양과장 보충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산림휴양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경영과장님 나와서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경영과

○ 정책팀장 추영철

안녕하십니까? 수산경영과장님 지금 해외 출장 중이라서 대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02페이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관련입니다. 지금 현재 부정 수급으로 대법원 판결까지 난 상황입니다. 이게 다 유죄 판결을 받아서, 신고자가 대법원 판결이 나오고 나니까 신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방보조금법」에 부정 수급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금액의 30%를 지급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법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줘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05페이지 마른 김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매년 마른 김 생산자 협회에 포장 박스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 산업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609 페이지 양식어장 자동화 시설 정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미역 다시마 포장 이완기 지원사업으로 어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입니다. 612페이지입니다. 지주식 김 양식장 관리소 건조사업입니다. 김 양식장 관리를 위해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13페이지 이상 수온 대응 지원사업 위탁 대행 수수료입니다. 이 사업은 순군비 사업이어서 이게 국비에서 위탁 수수료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탁 수수료만큼은 군비로 세워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호

수산경영과 보충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다. 최정욱 위원님.

○ 최정욱 위원

기타 부정 수급 신고 포상이 어떤 것일까요? 법적으로 결정이 났다고 했죠?

○ 수산정책팀장 추영철

예. 2019년도에 마른 김 정수시설 사업을 해서 기소당 한 5억짜리 해서 5개의 수산 업체가 사업을 했습니다. 국고 보조 사업으로 했었는데 이게 주요 위반 내용이 보조 사업자하고 시공업자가 사전에 공모를 한 겁니다. 이게 정수 시설이 3억짜리인데 5억으로 부풀려서 보조금을 편취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수사기관에서 신고를 해서 수사를 해서 최종 기소가 돼서 해당 지청까지, 사건 송치가 돼서 최종 법원 3심 판결이, 3심 법원 판결이 돼서 다 유죄가 났습니다. 지금 간접 보조 사업자 마른 김 가공업자는 징역 2년에서 집행유예 3년 그리고 시공업체 같은 경우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그리고 최종 판결이 그렇게 난 사항입니다.

○ 최정욱 위원

이게 판결 난 건 지금 누군가가 옆에서 신고를 했다는 얘기죠?

○ 수산정책팀장 추영철

예. 이것을 판결이 난 게 아니라.

○ 최정욱 위원

아니, 신고를 해 신고를 해서.

○ 수산정책팀장 추영철

수사가 그래서 경찰서에.

○ 최정욱 위원

그런데 결론은 우리가 국비를 줄 때 우리 행정이 주잖아요. 아닌가요?

○ 수산정책팀장 추영철
맞습니다.
○ 최정욱 위원
그런데 우리 관리 감독 잘못 아니에요? 그러면 결론은. 관리 감독 5억을 줬으면 5억짜리 잘하는가를 계획서에 따라서 맞춰서 잘해야 되는데 뭔가가 눈 감아서 업체 한 대로 따라갔기 때문에 옆에서 봤을 때 부정하니까 그걸 신고한 거 아니냐고.
○ 수산정책팀장 추영철
그거를 정확히 했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 쪽에서도 이제 못해서 그때 담당 공무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지금 형을 지금 아직도 지금 살고,
○ 최정욱 위원
우리 직원이?
○ 수산정책팀장 추영철
예.
○ 최정욱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 행정이 잘못이지. 옆에서 신고해서 또 우리가 그 보상금을 우리 군비로 또 이걸 다시 또 물어주고 이중으로.
○ 수산정책팀장 추영철
이제 이렇게 부정 수급액이 2억 9,000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재판 판결문에. 그래서 환수 대상이 돼서 재판 과정에서 이 피고인이 공탁금을 걸었습니다, 이 형량 감형을 받으려고 징역을 안 받으려고. 그래서 이 2억 9,000을 전액 공탁을 걸어놔서 우리가 환수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부정 수급액에 대해서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신고자로 인해서 그런데 이 신고자가 아니었으면 그대로 이 사건이 묻힐 수도 있었는데, 이 신고자가 신고함으로 인해서 이 사건도 어떻게 보면 유죄 판결 받고, 형벌도 받고 그다음에 다시 우리 군비도 회수할 수 있게끔 어떻게 보면.....
○ 최정욱 위원
그걸 잘했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지.
○ 수산정책팀장 추영철
잘한 것까지는.
○ 최정욱 위원
사업을 시작을 할 때는 필요해서 주라고 실과에서 나서서 의원들한테 설명을 다 해서 그렇게 했는데, 잘못해서 지금 다시 받은 게 그건 잘됐다는건 말이 안 되고 어쨌든 이거는 행정의 절차상 뭔가가 잘못됐기 때문에 부정 수급이 신고할 정도로 잘못됐다, 부실했다는 얘기지. 그래서 결국은 어쨌든 우리 군비로 이거 포상금을 물어야 한다는건데, 결론은 어쨌든 그렇잖아요.
○ 수산정책팀장 추영철
맞습니다. 법에서는 「지방보조금법」에서 이런 부정 수급이 있기 때문에 법상에 부정 수급 신고 포상금을 이렇게 제정한 취지 자체도 이렇게 내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하면 신고를 하게끔 독려하는 차원에서 이 법이 제정이 돼서 그렇게.
○ 최정욱 위원
그러니까 그걸 행정의 울림을 따로준 건 국가에서 제대로 하라는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612페이지는 제가 해서 생략을 합니다.
○ 위원장 조인호
다른 위원님? 박성규 위원님.
○ 박성규 위원
우리 포장재 지원사업을 매년 하고 있죠?
○ 수산정책팀장 추영철
예, 그렇습니다.
○ 박성규 위원
우리 완도군에 김 공장 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 수산정책팀장 추영철
지금 34군데 있습니다.

○ 박성규 위원
그럼 전 완도군 업체는 다 광고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 수산정책팀장 추영철
예. 다 해서 협회에 일임해서 협회에서 다 배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박성규 위원
지금 요즘은 김 공장들이 현대화 잘 돼서 돈벌이가 잘 되고 있어요.
○ 수산정책팀장 추영철
예.
○ 박성규 위원
지금 가장 효자로 김 공장이 잘 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도 되는 겁니까? 혹시 멸치는 박스 지원 안 합니까?
○ 수산정책팀장 추영철
멸치 박스도 지금 낭장망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박성규 위원
멸치도 하고 있죠? 이거 어려울 때는 좀 지원을 해도 되는데 조금 먹고 살 만하면 좀 다른 데다가 좀 쓸 수 있도록 한번 고민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수산정책팀장 추영철
알겠습니다.
○ 박성규 위원
그리고 우리 이완기 양식장 자동화 시설 정비 지원사업 이건 미역, 다시마, 광어 기계 말씀하시죠?
○ 수산정책팀장 추영철
예. 맞습니다.
○ 박성규 위원
여기 자부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수산정책팀장 추영철
자부담이 자부담 20%입니다. 도비 50%, 군비 30%, 자부담이 20%입니다.
○ 박성규 위원
그럼 선정 과정을 어떻게 해서 선정을 합니까?
○ 수산정책팀장 추영철
보통 우리 민간 자원 보조 사업은 공모해서 공모 들어오면 평가를 거쳐서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 박성규 위원
이거 1대당 가격은 대충 얼마라 보고 있습니까? 한 20~30만 원씩 합니까? 몇 백만 원씩 하죠?
○ 수산정책팀장 추영철
정확한 가격을 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박성규 위원
그리고 앞으로 선정된 것도 좀 잘하시고 지역 안배도 잘해서 어민들이 많은 곳에서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잘 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정책팀장 추영철
잘 알겠습니다.
○ 박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호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수산경영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해양치유담당관 나와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치유담당관**

○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예산안 심사 조서 1차 축조심사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59페이지 치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무관리비 200만 원은 저희 부서 사무관리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59페이지 해양치유센터 청소 로봇 렌털비는 2층 프리미엄 공간에 자동으로 물 청소를 하는 로봇입니다. 이것은 인건비 대비 3분의 1

가격으로 운영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59페이지 공단 지원팀 사무 임대료 지급은 공단 지원팀은 해양치유센터에서 있기 때문에 별도 공간이라서 임대료는 별도로 산정을 했습니다. 260페이지 공단 지원팀 사무용 소모품 구입비도 마찬가지입니다. 260페이지 치유센터 테라피 제품은 저희 이용객들이 사용하고 있는 화장품을 저희 실에서 지원하는 구입해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260페이지 치유센터 주변 공원 식재용 꽃묘 구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화분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마는 시기가 맞지 않는 기간이 조금 있습니다. 그 기간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꽃묘를 구입해서 식재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260페이지 해양치유센터 마케팅 연계 외빈 초청 경비입니다. 여기는 저희 방송 관계자라든지 연예인분들이 왔을 때 초청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260페이지 해양치유 홍보 펨투어 운영실비는 저희가 펨투어 경비는 따로 있습니다만 식비는 별도로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세웠고요. 260페이지 각종 행사 연계 해양 이벤트 경품비는 저희가 축제라든지 행사 때 저희가 현장에서 홍보 부스를 운영하면서 필요한 경비입니다. 261페이지 지역특화 자원 테라피 제품 사용화 판매 전략입니다. 저희는 내년부터 저희 해양치유센터 내에서 이용하고 있는 화장품을 판매를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최소 주문 수량이 3억이 되겠습니다. 262페이지 족욕치유관 시설 공사는 청산 해양치유공원에 야외 족욕 시설을 리모델링하고자 합니다. 263페이지 해조류 완전이용 원료화 사업 센터 구축 타당성 외 2건은 각 3건의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264페이지 해양바이오 공동 훈련 연구소 소규모 시설 유지 보수 2억 5,000은 사업명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운영비 2억 5,000이거든요. 저희 조선대에다가 위탁 운영하는 경비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호

이상 해양치유담당관의 보충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욱 위원님.

○ 최정욱 위원

간단하게 지금 259페이지에서부터 261페이지까지 보면 거의 해양치유센터에 대한 경비거든요. 그렇죠? 홍보비, 운영비도 또는 테라피 구입 시설 하고 일반 운영비 이것도 홍보 비용도 그렇고 해양 치유 마케팅 연주회 초청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지금 해양치유센터의 운영비잖아요.

○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예. 말씀하시는 게 대부분 맞고요. 아닌 부분이 조금 일부 있습니다.

○ 최정욱 위원

이제 아닌 건 예를 들자면 치료센터 외부 환경이나 진입로 이런 거는 우리 여기서 해도 되고 내부적인 재료비나 홍보나 이런 모든 외부 초청 이런 건 센터 내에 어떻게 운영될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왜 그러냐 하면,

○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예.

○ 최정욱 위원

올해 어차피 군수님이 우리 본회의장에서 위탁이라고 분명히 표현을 한 거예요. 그동안에는 우리에게 대행업이라고 했었는데 위탁이라는 게 확실히 군수님 입에서 위탁이라 하면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야. 이제 위탁이 맞는 거고, 또 우리가 그동안에는 시설 공단이냐 특정 공단이냐 이것도 안 돼서 의회에서 그랬다 했는데 우리 담당관님이 얼마 전에 특정 공단이 확실히 이것이 인정이 됐다고 얘기를 분명히 했거든요. 그렇게 했다면 일단 우리

의회에서는 거기에 맞는 예산이 집행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그걸 이미 공표화했는데 예산은 우리 행정에 있고 권한은 특정 공단하고 위탁을 했다 하면서 예산은 이중으로 여기서 돌고 저기서 도는것은 안 된다는 얘기고, 또 두 번째는 그래야 책임 한계가 확실히 우리가 묻기도 정확하게 물을 수 있고, 그런데 이렇게 또 애매하면 어디다 어떻게 해양치유센터에서 핑계 댈 수도 있거든.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뭘 갖고 했는데 우리가 뭔 실적을 내겠냐고 우리가 말을 묻기가 솔직히 어렵고, 또 두 번째는 지금 보면 공단 전출금 있잖아요. 여기 내가 지금 저번에 했는데 시설하고 운영비 관리로만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럽니까? 아니면 다른 홍보비나 치유 공단에서 운영하시는 다른 비용이 또 있습니까?

○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예. 있습니다.

○ 최정욱 위원

홍보비도 여기 안에 들어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럼 여기서 양쪽 이중으로 세우는 거죠?

○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이제 위원님 계속 말씀하시는 게 맞고요. 저희 해양 치유 홍보는 저희 공단과 별도로 저희가 홍보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쓰는 경비입니다.

○ 최정욱 위원

그럼 공단에서 할 수 있는 비용은 어느 정도 있어요?

○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공단에는 자체적으로 홍보 활동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인력의 한계 때문에 센터 운영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외부에 나가서 홍보하는 것은 저희 군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 최정욱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버리면 또 권한을 우리가 제대로 준 것이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으로밖에 안 되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랑 전혀 안 맞게 행정이 가고 있다고요. 위탁도 보니까 이 시설 관리 위탁으로 써져 있더만, 이번에 받아 보니까. 그것도 바꿔야 돼. 수정해야 돼. 그렇게 수정한 만큼의 공단에 주고 공단에 우리가 과감하게 이제 책임을 물어야지. 왜 행정이 책임을 갖고 가냐고요.

○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이제 예산 편성 심의가 저희가 특정 공단으로 사전 통보받는 시기보다 상당히 앞서 있어서 이렇게 돼 있고요. 지금 과도기이긴 합니다만 의원님 말씀대로 공단에 예산을 주고 이렇게 변경할 수 있으면 저희도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최정욱 위원

그리고 우리 담당관님이 화장품 제조 이것도 우리가 상용화해서 판매해서 수익성을 내겠다고 하는데 우리 행정에서 수익성 있는 사업을 하는 게 안 맞죠?

○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예. 그렇습니다.

○ 최정욱 위원

그거는 그렇게 대답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당연히 공단에서는 하면 수익성을 낼 수가 있죠?

○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예. 공단하고.

○ 최정욱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여기 실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럼 여기서 할 수 있죠?

○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예,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은 공단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 고민하겠습니다.

○ 최정욱 위원

그렇게 해서 명확하게 해야 우리 의원들도 뒤로 책임 한계를 정확하게 물을 수 있는 그걸 행정에서 그어줘야지 행정에서 이렇게 가버리면 또 물을 때 책임 한계가 뻔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예.

○ 최정욱 위원

그리고 또 청산, 264페이지 청산족욕탕 시설 262페이지에 여기 청산이 돼 있죠?

○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예. 청산해안치유공원이.

○ 최정욱 위원

청산이 우리가 시설된 지가 지금 한 몇 년 됐죠?

○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청산이 저희 센터보다는 더 오래됐습니다.

○ 최정욱 위원

그렇죠?

○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예.

○ 최정욱 위원

그런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걸 고장 상태 그대로 놔두고 있었거든요.

○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예. 운영을 못 해서.

○ 최정욱 위원

못 했지. 그런데 나도 거기를 한 두세 차례 가봤는데 그 시설로 누가 사용하기는 내가 봐도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족욕을 꼭 하려 하지 말고, 그 돈 갖고 차라리 그 주위에 어떤 거를 더 보완해서 환경을 꾸미는 게 낫지 그 족욕 하려고 1억이나 이런 돈을, 얼마인가요?

○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1억 원입니다.

○ 최정욱 위원

그런 돈을 그렇게 해서 살려봐야 족욕 하려면 적어도 물도 비워야 되고 경비나 이렇게 사람이 또 운영하는 것도 안 맞고, 또 사람 인건비에서 필요하고 이러니 그러지 말고, 그 예산을 차라리 외부 환경을 꾸미든지 어떻게든 더 보완을 해서 하는 것이 충분히 낫다고 봅니다. 또 그동안에 안 해준 이유도 다 그냥 있었던 게 아니라, 이유가 있어서 못 한 거야, 그때 나도 이제 들어보고 현장 돌아봤을 때.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아시겠죠?

○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예.

○ 최정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조인호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해양치유담당관과 관계공무원을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 최영미

의회사무과장입니다. 889쪽 위원 국외 여비 4,600만 원 중에서 첫 번째에 있는 국제 자매 교역 및 교류 협력 참석 예산 1,000만 원을 내년에 혹시 모를 해외 공식 초청 행사 등에 대비해서 그 예산을 살려두고요. 아래에 있는 위원 국외 연수 3,600만 원은 아시다시피 내년에 전국 동시 지방 선거로 인해서 내년 상반기에 우리 9대 위원님들은 연수가 어려울 것 같고 또 10대가 7월에 개원한다 해도 국외 연수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서 이 3,600만 원을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대신 삭감한 3,600만 원은 우리 위원님들 의정 활동과 국내 교육 활동에 보완하고자 의정 운영 공통 경비,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2,000

만 원을 더 증액 시키고요. 또 위원님들 위탁 교육비로 1,6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호

의회사무과장님 보충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사무과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잠시 휴식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6시00분 회의계속)

○ 위원장 조인호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4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5차 회의는 12월 1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산회)

○출석위원(8인)

조인호 박성규 지 민
박재선 박병수 최정욱
허궁희 조영식

○출석공무원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관광실장	안환옥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민원봉사과장	김용식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농업축산과장	이정국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최광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수호
의회사무과장	최영미
행정지원과서무팀장	김경남
수산경영과정책팀장	추영철

○ 전문위원 : 박영민

○ 전문위원 : 전문희

○ 속 기 사 : 임은주

제334회 완도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12월 10일(수)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26년도 예산안(완도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조인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

1. 2025년도 예산안(완도군수 제출)

그러면 2026년도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2026년 예산안에 대한 최종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삭감 조서를 다시 한번 살펴주시고 논의해야 할 삭감 대상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대로 2026년도 예산에 대한 삭감 및 증액 조정 내역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 예산안에 대한 세입 예산은 집행부 원안대로 하고 세출 예산은 9건의 6억 9,695만 9,000원을 삭감하고 예비비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총액 6,529억 6,511만 8,000원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2026년 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기간 계속되는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덕분에 원만하게 본 위원회가 운영된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4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산회)

○출석위원(8인)

조인호 박성규 지 민

박재선　박병수　최정욱
허궁희　조영식

○**전문위원** 박영민

○**전문위원** 전문희

○**속기사** 임은주

제334회 완도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11월 25일(화)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 기획예산실
   - 인구일자리정책실
   - 관광실

부의된 안건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 기획예산실
   - 인구일자리정책실
   - 관광실

(11시00분 개의)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허궁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완도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관계기관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허궁희 의원입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감사자료 작성과 수감준비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업무 전반에 대해 예산집행과 업무처리가 법령에 맞게 추진되었는지 확인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개선토록 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제도개선을 통해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군민을 대표하여 집행

기관의 군정전반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므로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집행기관 외에 해양치유관리공단에 대해서도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집니다. 공단과 관련된 직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우리군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할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증인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부군수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해주시기 바라며, 부군수께서 '선서'를 외치면 부서장 및 공단 이사장께서도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군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며, 부군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범우

선서 본인은 완도군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완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도군 의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사합니다. 2025년 11월 25일 부군수 이범우.

○위원장 허궁희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회 한 후 오후 2시 분부터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부서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관계공무원과 공단 관계자들께서는 부서로 돌아가셔서 업무를 추진하시다가 감사 순서에 따라 입실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허궁희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 수감 대상은 기획예산실, 인구일자리정책실, 관광실이 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 팀장 소개 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답변 및 추가자료 제출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감사 질의답변은 수감공무원이 증인석에 앉아서 보고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위원님별 질의시간을 20분 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부서장들께서는 답변하실 때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 도중에 말을 끊는다거나 불필요한 행동이 있을 시에는 본 위원장이 강력하게 제

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업무 담당 팀장 등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서팀장 소개 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

○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예. 기획실장 한희석입니다. 사무감사에 앞서서 저와 함께 기획예산실에 근무하고 있는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채호 정책기획팀장님, 송지영 홍보팀장님, 지민규 예산팀장님, 조봉흠 감사팀장님, 이희정 법무통계팀장님과 그 뒤쪽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 차석들이 같이 함께했습니다.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해 주셨던 내용에 대해서 조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조인호 의원님께서 중장기적인 재원 확보 방안 마련과 맞춤형 국고 공모 등 보다 건전한 기조의 예산 편성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의원님도 알다시피 저희들이 예산상의 상당히 보통 교부세가 줄어듦에 따라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우선은 불요·불급한 사업을 정리해 나가고 경상경비를 절감하는 노력을 좀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5년도 3회 추경 시 보고드렸습니다만 각종 기금을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으로 예치해서 예기치 못한 세입 결손 등 재정 불확실성에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필수 경비와 대규모 사업비 증가로 가용재원은 아마 전년도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고드렸고요. 이러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국비 매칭 비율이 높은 국고 공모 사업 위주로 발굴하여 군비의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수축산업과 복지, 골목 상권 등 민생경제 활성화 부분과 또 우리 군의 미래 동력 사업에 대한 투자는 계속 이어 나가고 사업의 효과성과 실효성을 감안해 강도 높은 지출 재조정을 통해 재정 건전화도 함께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쪽 조영식 위원님께서 우리 완도군 청렴 옴부즈만 제도의 실효성과 개선책 마련을 주문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이원화된 청렴 옴부즈만과 청렴 계약 옴부즈만 통합 운영 대책을 지적해 주셨고요. 이와 관련해서 저희 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청렴 옴부즈만 설치를 중심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고 세무회계과에서 추진 중인 청렴 계약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청년 옴부즈만 제도에 대해서 조금 더 전문성이 있게끔 역량 강화를 키워나가겠다는 말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성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방송 홍보 기회 활용과 맛집 업소 소개의 편중 방안에 대한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지금 현재 TV 교양 정보 프로그램과 영화, 드라마 등 다양한 분야의 매체를 활용해 홍보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는 완도군을 배경으로 제작한 드라마 '다음 생은 없으니까' 방영에 따라 시청 독려를 위한 홍보 활동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이런 드라마나 방송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완도를 더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라는 그렇게 지적을 받았고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고민하고 영상 제작이라든지 단체 문자, 카톡 알림, SNS개정 등을 통해서 더 우리 군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더 강구해 나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지적의 말씀은 군민SNS 기자단이 특정 맛

집만 홍보하고 있다는 그런 지적을 해 주셔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관광실 위생관리팀과 협의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고 또 홍보를 필요로 한 다양한 음식점이 있다면 저희들이 관광실과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허궁희 위원님께서 개선 요구하신 예산낭비신고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예산 절감 사례집 발간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군민신문고의 예산낭비신고센터와 군 홈페이지의 별도 화면을 통해서 예산 절감 제안과 낭비 사례 신고를 연중, 상시 접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실해서요. 24년 9월에는 1건이 접수돼서 처리를 완료했고 올해는 현재까지 추가로 접수된 신고 건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활성화를 위해서 특별히 예산낭비신고 특별 기간 운영과 더불어 여러 가지 SNS라든지 읍면 사무소를 통해서 더욱더 홍보를 조금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고요. 또한 우수 제안에 대한 포상 지급 계획을 수립해서 인센티브 지급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군민들이 더욱더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최정욱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정책연구용역 결과물 관리 철저 및 활용 방안 강구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정책연구용역 결과물을 제대로 활용해라.' 이런 말씀의 지적이셨고 특히 '행정안전부의 정책연구용역 관리 시스템에 공개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것을 지적해 주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각 부서에 연구 용역에 대한 수시 점검과 등록 독려를 실시했는데요. 당시 위원님께서 지적했을 때는 7건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91건으로 크게 개선되어 있고요. 아울러 우리 직원들이 등록 편의를 높이고 활용할 수 있도록 세올 홈페이지에 프리즘 바로 가기를 추가해서 접근성과 편의성을 강화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등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군민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나가는 데 더욱 더 골몰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성규 부위원장님께서 견실 시공을 위한 효율적 감사팀 운영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처분 유지의 통제적 감사에서 벗어나서 지도, 예방형 테마 감사를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읍면의 소규모 건설 현장 거기에 대한 감사에 대한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이 감찰 나갈 때 기동 감찰을 병행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감사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노력을 더 고민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영식 위원님께서 완도군 통합 브랜드 상징물 설치와 정비 철저에 대한 좋으신 말씀을 주셨고요. 그래서 앞서 우리 간담회 때 보고했다시피 완도군 조형물은 그 당시 같이 예산의 범위를 대폭 축소하고 기존의 구조물을 활용해서 산뜻하게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궁희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증인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민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기획예산실에서 내년도 본예산을 이번 정례회 안건으로 제출을 하셨어요.

○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예.

○ 지민 위원

혹시 2026년도 본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저희들이 6,529억 편성 요구했습니다.

○ 지민 위원

혹시 편성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었나요?

○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아무래도 계속해서 국도비 보조금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거기에 따라서 군비 부담이 계속해서 늘어나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전체적인 예산을 전부 다 편성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민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26년 본예산을 편성을 했을 때 세입은 6,027억 원, 추계에서는 세출 예산은 7,450억 원이 실과소에 신청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이 자료가 아마 저희들이 보통 26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추계를 하는데. 아마 9월에 추계했던 자료가 그 당시에는 한 6,000억 정도의 예산 편성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내부 자료가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이 자료는 예산 편성 전에 9월에 우리 예산팀 자체적으로 내년도 예산 규모를 어느 정도 세우지, 전년도가 저희들이 6,214억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 줄어들지 않을까? 라고 예측해서 만들었던 자료인데 이 자료를 아마 위원님이 보신 것 같습니다.

○ 지민 위원

그러면 세출 예산이나 세입 예산에서 이게 약간의 차익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지금 예산 편성의 기준은 세입과 세출이 동일해야죠.

○ 지민 위원

거의 동일한데 약간의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지민 위원

그럼 이 자료를 봤을 때 1,423억으로 조정을 했었어야 해요. 그래서 이 국도비 사업하고 경상 사업을 제외한 자체 사업이 737억 원을 예상을 했으나 1,816억 원이 요구가 되어서 지역 군민을 위한 특화사업 예산이 1,079억 원이 조정될 수밖에 없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런가요?

○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그런 개념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아마 저희들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실과에서 요구한 자료가 7,769억을 요구를 했더라고요, 올해 본예산 저희들이 받아보니까.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편성해 준 게 6,529억 정도 편성해 줬으니까 부서에서 요구한 금액의 한 80% 수준 정도밖에 편성을 못 한 아쉬움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지민 위원

그래도 이게 조금 줄이거나 이렇게 지방 재정을 줄인다면 그렇잖아요.

○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예.

○ 지민 위원

그래서 새로운 방안을 발굴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혹시 우리 포괄 보조금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실장님?

○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예, 저희들이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지민 위원

실장님도 아시고 계시지만 이렇게 중앙 정부

가 지방 정부의 포괄적 목적을 정해 줘서 자율적으로 사용을 하게 하는 보조금이에요.

○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예, 그렇습니다.

○ 지민 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자체의 유사 사업을 통합해 교부하고 세부 내역 구분 없이 편성,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우리 군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저희들이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다 그래서요. 이 예산은 시도 자율편성예산하고 또 우리 시군 자율편성예산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저희들이 25년도 올해 제 기억으로는 325억 정도가 우리 군에 지금 배정이 됐었고요. 내년에 저희들이 도에 확인을 해보면 올해보다 한 491억이 증가한 예산으로 편성이 지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는 이 예산이 490억 정도 늘어서 우리 군에 배정될 걸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 지민 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 많이 늘었을 경우에 그 대응 방안하고 추진 상황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저희들이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는 어차피 국비 지원율이 70% 이상이다 보니까 우리 군에게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는데 한편으로는 지금과 같은 세입 구조로 이렇게 국비를 많이 준다 하더라도 군비 매칭 비율이 그만큼 따르기 때문에 중앙 정부가 지방교부세의 대폭적인 인상이 없이는 이것도 또한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남지사께서도 아마 30% 이상 교부세를 늘려달라고 대통령께 건의했던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 지민 위원

이게 포괄 보조금이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조금 위험 요소도 갖고 있을 수 있다고 또 생각을 해요.

○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그렇습니다.

○ 지민 위원

그래서 기회 측면에서는 사업 통합과 중복 제거 이렇게 정책 효율화 등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위험 측면에서는 책임성과 평가 관리 부족 또 중앙부처 지침 미준수 또는 군 재정 여건 간의 또 미스 매치 등이 또 있을 수 있다고 또 판단이 되는데 그에 대해서 또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장 큰 어려움은 '과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늘어났을 때 우리 군비 부담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게 가장 큰 고민이고요. 이 다음에 우리 부서가 고민해야 할 부분들은 '계속 해년마다 매년 반복된 사업만 할 거냐?. 그리고 그 사업을 하고 나서 사후 관리를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군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또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신규 사업 발굴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고민들이 앞으로 더 많이 있어야 된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지민 위원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 포괄 보조금 제도가 도입이 된 이후에 지자체의 기획력 부족으로 이렇게 새로운 사업 발굴에 또 제한이 되고 또 사업 간 중복이고 유사 사업 산발이 또 되고 자율적 기획 미흡으로 성과 지표 부재, 회

계 운영 투명성 부족 등이 지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일반적인 문제점을 감안을 할 때 우리 군이 운영 중인 포괄 보조금 시스템에서 현재 어떤 구체적 문제점이 존재를 한다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을 다 부정은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 맞는 말씀이신 것 같고. 아마 우리 군 전체 부서가 지금 시대 변화에 맞게 다 정책 고민들을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과거의 답습적인 행정 행태는 이제 과감히 버리고 새롭게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맞는, 우리 지역에 맞는 사업 발굴에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 기획실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예산 파트도 그렇고 기획 파트도 그렇고 사업에 대한, 우리 군정 전반에 대한 사업에 대한 신규 시책에 대한 발굴을 위해서 전문가 컨설팅도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와 관련 용역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지민 위원

그래서 포괄 보조금에 대한 이해나 이렇게 추진 사업의 성과 지표에 대한 개선, 군민 참여를 통한 거버넌스 확대 등 행정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예, 그렇습니다.

○ 지민 위원

추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직원들이 마인드를 깨우치기 위한 컨설팅이라든지 또 교육, 또 특정 주제에 대해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자문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아마 우리 직원들이 느끼기에는 더 부족함이 있지 않았나 싶어서 내년에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좀 더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민 위원

이게 또 확대되는 또 보조금이 실제로 군정의 우선순위 사업, 예를 들면 해양치유 산업이나 이렇게 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 등과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그런데.....

○ 지민 위원

그리고 우리 군이 중점 추진하는 산업이나 분야는 무엇이고 또 포괄 보조금 확대가 그 추진에 어떻게 활용이 될 수 있다고 보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저희들이 이 포괄 보조금 제도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목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51개 사업인가? 그렇게 각 부처에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런 사업들은 이 포괄 보조금에 포함시켜서 하라고 그 목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목 범위 내에서 사업을 신청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고요. 우리가 해양치유라든지 바이오 이런 분야는 실질적으로 이 포괄 보조 사업에서 지원받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냐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군이 지금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양치유라든지 바이오든지 앞으로 또 블루카본 시대에 대비한 어떤 그런 부분 사업이라든지 또 관광, 수산 이런 농수산 이런 분야에 대해서 포괄 보조금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에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지민 위원

그러면 그 포괄 보조금의 방식 전환이나 활용 검토 대상의 사업이 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지금은 정부가 지금 대통령께서 10조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말씀 주셨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동향을 파악해 보면 기존 사업비의 확대까지는 저희들이 인지를 했는데 신규 사업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아직 없어서 그것을 저희들이 동향을 파악하고 있고요. 만약에 기존 사업 플러스알파 세부 사업을 확대한다면 그 기조에 맞춰서 우리 군의 현안 사업이 그 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민 위원
우리 재정이 열악한 우리 군으로서는 이렇게 포괄 보조금 확대 개편이 지역의 성장과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꼼꼼한 준비와 철저한 대응으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 지민 위원
아까 홍보 관련해서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어서 질문만 한번 드려볼게요. 얼마 전에 BTS의 진이 전복 관련해서 홍보 영상 찍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예.
○ 지민 위원
그거를 이용을 해서 우리 군과 관련 접목을 해서 홍보한 내역이 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저희들이 그게 지금 BTS를 통해서 전복을, 자기들이 유튜브 촬영을 하는데 원체 세계적인 아티스트라 그 프로그램 안에서 기획을 어떻게 했냐면 고마운 분들에게 선물하는 것을 전복을 선물하는 걸로 그렇게 기획을 잡아서 했는데요. 이게 예산이 제 기억으로 한 1억 8,000 정도 1억 7~8,000 정도로 요구를 해서 우리 군에서 전체 부담하기 어려워서 도에다가 '그럼 도에서 1억만 지원해 달라. 우리 전복 어가들 너무 어려우니 1억만 지원해 달라.' 해서 도비 1억을 지원받았고요. 저희 나머지는 저희 군비를 댔는데 이게 조회 수가 상당히 폭발적으로 늘었다고 보는데 지금 그 한계가 뭐냐 그러면 BTS의 전속 회사에서 BTS라는 명칭은 사용을 못 하게 또 막아놔서 그 유명 아티스트를 활용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만큼의 홍보 효과를 누렸다고 저희들 조회 수를 봤을 때 누렸다고 생각이 듭니다.
○ 지민 위원
그 유튜브 조회 수는 거기에서 찍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유튜브 조회 수는 많이 늘었겠지만,
○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예, 그렇습니다.
○ 지민 위원
완도 전복이 또 활용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 촬영한 홍보 영상을 우리 군에서는 많이 사용을 했던 걸 제가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제약 때문에, 그 계약 업체하고 제약 때문에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BTS라는 말을 빼고 저희들이 신문에 언론에 홍보를 했고요. 제 기억에는 유튜브도 조금 활용한 걸로 알고 있는데. 홍보팀장님, 그 부분은 어쩌신?
○ 위원장 허궁희
홍보팀장, 답변해 주세요.
○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을 우리 완도 유튜브를 통해서 조금 인용해서 홍보를 했던 기억이, 지금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 지민 위원
그러니까 저도 보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많이 약하지 않았나.
○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그게 아마,
○ 지민 위원
BTS라고 하는 명칭은 들어가지 않지만 그래도 진이라는 사람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그렇습니다.
○ 지민 위원
그걸 많이 활용을 하고 BTS가 움직였다 하면 거기를 가보기 위해서 팬덤들이 엄청나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활용 방안이 있고 우리한테 조금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우리가 쓸 수 있는 데에서 홍보를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아무래도 전속 계약한 분들의 제약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도 BTS라는 말을 더 쓰고 싶고 막 하고 싶었는데 회사에서 너무 제약을 많이 걸어서 홍보하는 데 조금 아쉬운 한계점이 있었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이라도 조금 그 영상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조금 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민 위원
'진'도 좋아하는 완도 전복, '진'은 완도 전복만 먹는다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잖아요.
○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지민 위원
그래서 조금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지민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허궁희
지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정욱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 기획예산실에서 추진 중인 행정소송에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 행정소송이 꽤 많이 있네요.
○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예.
○ 최정욱 위원
또 우리 군에서 패소한 것도 여러 건 있고요.
○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예.
○ 최정욱 위원
그중에서 92페이지, 2017년도에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소송이 진행되었던 부당해고 구제재심 판정 취소 건에 대하여 2025년 2월 14일 2심 판결에서 기각되어 패소하였다는 패소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이 사건이 상당히 오랜 시간 걸렸는데요. 저희들이 우리 군에 무기 계약으로 근로하고 계시는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출근부를 조작해서 급여를 부당 수령을 했고 처방전을 또 임의 발급해서 적발된 사례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감사팀이 2013년도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1개월을 처분을 내렸고 2017년도에 처방전 임의 발급했다 해서 정직 3개월을 징계를 맞았는데요. 저희들이 완도군 무기 계약직 및 기관 근로자 관리 규

정에 보면 정직 2회 이상을 맞으면 당연퇴직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행정처분을 그 당시에 당연퇴직 처분을 했는데 이 당사자가 전남노동위원회에다가 제소를 하게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노동위원회에서는 근로자의 의견을 존중해 준 것 같아요. 이 내용을 들여다봤더니 저희들이 근로자들에게 침익적 행정처분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불리한 행정처분을 할 때는 당연히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 그런 절차에 따라서 규정을 준수해야 되는데 그런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했고 두 번째는 임의 처방한, 그 징계 시효가 발생한 날로부터 근로기준법에 3개월 이내에 처분하게 되어 있는데 징계 시효가 도과해서 처분을 했다. 이렇게 두 가지 주장을 했는데 노동위원회에서 그것을 근로자 측면에서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행위, 처벌하는 행위와 상관없이 너희가 절차상에 그런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로자의 주장이 맞다 이렇게 노동위원회에서 처분을 해서 우리 군이 중앙노동위원회에다 재심 청구를 했는데 또 기각 결정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이거는 부당하지 않냐. 이 행위에 대처한 처벌은 정확한데 행정 절차의 미이행으로 인해서 이렇게 된 것이 부당하다고 해서 행정소송을 제기를 했는데요. 법원 판단도 동일하게 판단을 해서 우리 군이 2심까지 패소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 최정욱 위원

그럼 원인 제공은 확실해서 우리 군에서는 잘못한 거를 발견해서 그걸 해고를 했는데 절차상 미수로 지금 법원에서 판단을 한다는 건가요?

○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다고 판단이 됩니다.

○ 최정욱 위원

그러면 그 절차라는 건 우리 행정이 그러면 일단 그것도 잘못한 거네요?

○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그러니까 근로자 규정을 개정할 때 침익적 행정처분에 대한 근로자에 대한 처분을 개정할 때 반드시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에게 사전에 협의를 한 다음에 그 규정을 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아마 그런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개정에서 소급 적용을 했지 않냐. 그래서 '그건 너희 행정처분이 잘못한 거다.' 이렇게 아마 된 것 같습니다.

○ 최정욱 위원

어쨌든 우리 군이 그 절차를 잘못하고,

○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예, 어차피 절차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세심하게 못 챙긴 것 같습니다.

○ 최정욱 위원

그럼 이거를 2심에서 패소하였는데 대법원에 항고하실 계획은 또 있으신가요?

○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이 부분은 저희들이 1심과 2심의 판결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체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고문 변호사 세 분에게 자문을 받았고요. 또 법무부의 지휘를 받아서 이게 항고에 대한 실익이 없다고 판단을 해서 최종적으로 항고를 포기했던 사항입니다.

○ 최정욱 위원

그럼 이런 경우가 앞으로도 없다고 볼 수는 없죠?

○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그렇습니다.

○ 최정욱 위원

이랬을 때 그 주요 내용에 보면 불성실 복무로 인하여 당연퇴직한 무기 계약직의 해고를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 해고라고 판단함에 따

라 군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데 이와 비슷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또 어떤 대책은 있어요? 이런 일이 아마 자주 있을 걸로 보는데.

○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저희들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재결을 한 것은 이거는 행정처분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행위 자체가 위법하다고 판단이 서는데 이 행위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한번 받아봐야 되지 않겠냐고 행정소송을 제기를 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내용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각 부서에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소송 중의 하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침익적 행정처분 대상자, 공무원뿐만 아니라 우리 군민들에 대해서도 이런 행정처분을 할 때 반드시 행정 절차 그러니까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절차들을 반드시 이행해야 된다는 그런 것들을 보다 더 우리 부서에서 잘 준비해야 한다는 것들을 다시 한 번 지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 최정욱 위원

실장님, 이건 참 중요한 거고 향후 이런 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봐 주시고 회고에 맞는 절차가 뭔지를 잘 준비해 가시고 이런 우리 불필요한 행정소송이 가지 않도록.

○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정욱 위원

또 그렇게 해서 미리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정욱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이번에 추경에 보면 지방교부세가 약 한 201억 5,000만 원 가까이 아마 감액됐던데 원래 우리 국가에서 예산할 때 예시 안 해줍니까?

○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코로나 이전까지는 예산 편성하기 전에 너희들에게 줄 수 있는 교부세가 이 정도라고 예시를 해줬는데요. 코로나 시대 이후부터 지금 내시가 안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도 교부세 내시 하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운가 봅니다, 다 틀리니까. 그래서 지금은 내시 얘기 자체를 해주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군 입장에서는 전년도 예산 편성 기준에 맞춰서 교부세를 편성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정욱 위원

그러면 우리 1회, 2회 추경을 할 때 그때 우리가 예시를 알 수 있잖아요. 우리 결산 추경까지 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아닙니다. 저분들이 마지막 올 때가 정리추경 그 시점, 그 시점 돼야만 해 주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11월 말에서 12월 가까이 돼야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얼마큼 늘고 얼마큼 줄었다고 판단하기가 정말 어려운 사안이 돼 버렸습니다.

○ 최정욱 위원

그럼 이 교부세가 준 만큼 우리 예산을 다 사업 계획에 의해서 예산 심의를 받았잖아요.

○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예.

○ 최정욱 위원

그럼 어떻게 이걸 채워서 운영을 했을까요?

○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그러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교부세가 올 거라고 예측한 금액을 벗어나게 되면 실제로 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서 그놈을 메꿀 수밖에 없

는 구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한 205억 정도가 손실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것을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금을 조금 활용해서 빌려 쓰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기금을 재정안정화기금을 우선 예치한 다음에 그 기금을 활용한 후에 내년도에나 내후년도에 교부세 상향이 호전된다 하면 다시 메꿔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운영할 수밖에 없다. '이게 참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최정욱 위원

그럼 지방교부세가 늘어나지 않고 한다면 그 돈을 어떻게 한대요?

○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2023년도에 지금 340억 정도가 교부세가 내시액보다 340억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 여파가 지금 24년에도 그대로 300억의 문제가 생기고 올해에 그대로 200억이라는 손실이 생기게 된 원인인데 '지금 예산 구조로 봐서는 지방교부세가 기존에 23년도에 부족했던 300억 정도는 줘야..... 그나마 숨통이 트일 수 있다.' 지금 그렇게 예측하고 있는데 내년까지도 전망이 그리 밝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정부는 내년 하반기 정도 되면 세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을 하는데 저희들은 보수적으로 접근했을 때는 내년에 아무리 많이 늘어나 봐야 100억에서 한 200억 사이 정도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후년 정도나 돼야 조금 저희들이 그동안 손실을 봤던 교부세가 늘어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을 계속 강조하고 있고 또 교부세에도 증액해 주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만 지금 쳐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 최정욱 위원

올해도 지금 교부세가 약 한 120억이던가? 예산서 보니까 지방교부세 늘어난 게, 작년에 비해서.

○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올해, 전년도 수준보다 비슷한 수준에 아마 편성 요구가 됐을 겁니다.

○ 최정욱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돈은 지금 안정화기금에서 썼는데 올해 이걸 지금 맡겨 놓지 못했겠네요?

○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안정화기금에서,

○ 최정욱 위원

쓴 돈을 지금 다시 넣지 못했겠어.

○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넣을 수가 없습니다.

○ 최정욱 위원

그래서 안정화기금 이렇게 모아놔서 이렇게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요?

○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그렇게 한다면 내년까지는 이 재정안정화기금을 어느 정도 메꿔야 되니까 그 예산 전체적으로 지출 재조정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불필요한 사업들을 과감하게 삭감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의 세출 예산의 대구조조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 최정욱 위원

이거 어떤 일이 있어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예.

○ 최정욱 위원

그래야지 기금 모아서 그걸 준비하는 과정에 이 돈을 다시 써서 안 돼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동안 모아 온 게.

○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예. 그래서 위원님, 저희들이 청사신축기금이 한 92억 정도 되는데요. 지금 청사 신축은 현재 건물 등급이 B등급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거 신축한다면 몇 년 여유가 있을 것 같고요. 폐기물처리기금은 저희들이 한 220, 230억 된 것 같은데 여기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군비로 소요할 예산이 한 100억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용할 수 있는 예산이 한 100억 정도는 쓸 수 있겠다고 판단을 해서 했고요. 저희 계획은 3년 이내에 그 예산으로 다시 복귀하는 게, 다시 예치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예산을 지금 보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정욱 위원

정확하게 말한다면 3년 후인가요, 내년인가요?

○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저희들은 3년까지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전체 복구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최정욱 위원

꼭 그렇게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궁희

최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영식 위원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는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각 부서의 예산서를 검토한 결과 사업 규모와 무관하게 일식으로 편성된 사례가 다수 확인됐습니다.

실장님 부서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예산 요구를 제출한 사례가 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저희들도 보니까 한 2건 정도 있더라고요. 우리 군정백서 일식 이렇게 한번 표현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 조영식 위원

일식 편성만으로는 사업량, 산출 근거, 단가 기준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적정 예산인지 검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맞습니다.

○ 조영식 위원

문제 인식에 동의하시죠?

○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예, 그렇습니다.

○ 조영식 위원

본 위원은 이러한 편성 방식이 단순한 서식 문제가 아니라 사업 내역 검토 미흡, 산출 근거 부족, 예산 과다 편성 또는 낭비성 가능성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문제라고 보이는데 실장님 이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저희들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산 편성을 우리 부서에서 너무 쉽게 요구한 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팀에게 이야기했던 내용이 앞으로 예산을 계속사업비 같은 건 상관없겠지만 신규 사업 같은 경우에 공개했을 때 어느 정도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질 수 있도록, 부기에. 할 때 산출 기초를, 다는 할 수 없겠지만. '어느 일정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게 편성을 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부서에 예산 편성 요구할 때 다시 한 번 주지시켜서 구체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조영식 위원

그러면 기획예산실이 2건이다고 하면 다른 타 부서는 더 많겠네요.

○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많이 있습니다.

○ 조영식 위원

그렇죠? 특히 실무 부서가 세부 산출 없이 일식으로만 요구하는 관행이 반복될 경우에는 정확한 수요 분석 없이 예산부터 확보하고 보자는 점도 우려가 됩니다. 이에 대해서 공감하시죠?

○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예, 그렇습니다.

○ 조영식 위원

이런 방식이 지속되면 예산 과다 편성, 사업 대비 낮은 효율, 집행 잔액 발생, 목적의 변경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식 편성을 지양하고 세부 산출 내역을 명확히 요구하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예. 저희들이 마련해서 사업의 구체화 .그러니까 당초에 우리 예산 요구할 때 소모성 예산이라든지 단기성 예산들은 그럴 필요 없겠지만 1억 예산 이상이 들어간다든지 대규모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사업 계획을 작성을 하고 나서 그 사업 계획 안에 사업 추산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사업비 추산이. 그렇게 해서 최종 결재권자인 군수의 결재를 맡은 다음에 그 내용을 기반으로 예산을 제출해 달라 이렇게 변경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 지침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지침을 다시 만들어서 예산 편성 지침을 다시 만들어서 각 부서에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영식 위원

올해 또 기획예산실에서 우리 군의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컨트롤타워 기획예산실에서 또 2건 일식 이런 식으로 신청했다 하니 예산실부터 먼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군정백서는,

○ 조영식 위원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어쩔 수 없고.

○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그걸 산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 조영식 위원

예산은 확보보다 적정 설계, 편성보다 근거 집중, 또 집행보다는 효율과 책임이 우선시돼야 합니다. 우리 군의 예산 편성이 근거 없는 일식 예산이 아닌 분석 가능하고 설명 가능하며 검증 가능한 예산으로 전환되길 요구 드립니다.

○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예.

○ 조영식 위원

다음 이월 예산에 관련하여 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소관 부서에 이월 예산이 꽤 있습니다. 그렇죠?

○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예, 이월 예산이 좀 있습니다. 많이 줄이려고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있습니다.

○ 조영식 위원

혹시 2년간 기획예산실 완도군 이월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저희들이 자료를 보니까 2023년도에 1,598억, 2024년도에 1,243억 정도가 예산이 됐는데, 이월됐는데요. 분석을 해보니까 계속비 사업이 대부분 60~70%를 차지하고 있고 23년과 24년을 대비했을 때 그나마 이월 예산이 한 10% 정도 줄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월 예산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조영식 위원

2023년, 24년 해 보면 약 350억 정도가 이월 예산이 줄어든,

○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예, 줄었습니다.

○ 조영식 위원

그건 잘했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더 노력하겠습니다.

○ 조영식 위원

혹시 그럼 이월 예산을 줄이기 위한 집행부의 하고 있는 노력이 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이월 예산이 가장 큰 문제점이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인 사업 계획과 더불어서 사전 행정 절차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올해 예산이라는 게 당해 연도에 세워서 당해 연도에 끝나야 정상적인 예산인데. 그런 절차들이 늦춰지다 보니까 이월이 자꾸 발생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부터 이월 예산은 처음부터 최소화시키라고 강조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이월시키지 않는 방법에서 저희들이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조영식 위원

이월액이 발생하는 데는 다양한 사유가 있겠지만 본 위원님이 보기에는 당해 연도에 실제로 집행 가능한 예산에 대한 추계가 확실하지 않다는 데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거의 대부분 대규모 공공시설 및 기반 사업들이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행정적 절차를 이행하는 데도 시일이 걸리는 사업들 아닌가 싶습니다. 실장님 이 부분도 같은 생각이시죠?

○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예, 위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입니다.

○ 조영식 위원

예산 편성 단계부터 각 행정 절차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연내 집행 가능성에 대한 신중한 추계 및 회의가 수반돼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부서 간 회의를 통해 연내 추진 가능한 사업 위주의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 추진이 장기화가 예상되는 경우 단계별 예산 편성하고 이월과 불용이 예상되는 경우 추경 시 과감히 삭감하는 등 효율적 예산이 운영될 수 있도록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조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궁희

조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성규 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홍보비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실에서 1년 홍보비하고 전 부서에서 홍보비하고 1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기획실 예산 따로 우리 관광실, 해양치유, 수산경영 홍보 예산을 따로따로 편성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거 안 맞다 그래서 통합적으로 우리 개시에 전체적으로 편성을 했고요.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해년마다 한 20억에서 23억 정도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통합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예산팀에서 홍보 예산이 너무 많다고 우리 기획실의 홍보 예산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실과 예산을 늘렸는데 우리 기획실이 가지고 있는 홍보 예산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한 1억 정도.

○ 박성규 위원
다른 실과에는 예산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통합하다 보니까 통합 범위 안에서도 홍보팀이 써야 할 예산과 다른 부서가 써야 할 예산들이 부기가 지금 나눠져 있거든요.
○ 박성규 위원
통합해서 한다면 기획실에서 다 하는 거 아닙니까?
○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예, 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획실 목에 우리 기획실 중심의 것이 있고 해외시장 마케팅 그러면 이거는 시장개척팀이고 해양치유 홍보 마케팅 그러면 이건 해양치유담당관실이 써야 할 돈이거든요.
○ 박성규 위원
예산서를 보면 본예산서 보면 다 실과에 다 이렇게 조금씩 박혀 있더라고요.
○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그래서 지금 많이 잡아줬습니다.
○ 박성규 위원
많이 잡아줬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그때 최정욱 위원님이 계속 말씀 주셔서 지금은 거의 기획실에서도 홍보 예산을 통합해서 운영합니다.
○ 박성규 위원
감사 자료를 보면 광고 홍보비 지출이 전체 부서에 맞춰 그때그때 집행한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맞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그때그때 집행하는 것은 조금 그러고요. 저희들이 홍보 예산을 사용할 때 집중적으로 홍보할 시기가 있습니다. 축제 시기하고 또 우리 농수산물 제철 수확기 그거하고 또 우리 해양치유단에 지역 현안 사업이 생길 때마다 집중적으로 홍보할 시기가 있어서 그 홍보 시기에 맞춰서 매체별로 다양하게 홍보비를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박성규 위원
홍보 예산을 세울 때 대부분 보면 전년 때하고 비슷하게 세워요.
○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아무래도 홍보 수단인 방송 매체라든가 방법들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 박성규 위원
전년도를 꼭 기준으로 해서 반복적으로 그 예산을 세우더라고요.
○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예.
○ 박성규 위원
그러면 예산 지출 분석을 한 번이나 해보셨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저희들이 해년마다 예산이 끝나고 나면, 고정적 지출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는데 신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분기 3회 정도는 완도군 전체적인 홍보를 위해서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홍보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산들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과감하게 홍보 효과가 있는 매체하고 구분을 해서 주고 있고요. 또 횟수도 줄이고 또 계약 금액도 줄여서 올해는 한 1억 정도 예산을 절감해서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성규 위원
우리 홍보비가 방송, 신문, 인터넷, 옥외 광고가 있죠?
○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예, 그렇습니다.
○ 박성규 위원
지금 방송은 몇 개사에 얼마씩이나 또 지원하

셨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로 봐서는 방송이 지금 한 8개사 정도 되는데요. 예산이 한 4억 3,700 정도 집행하고 있습니다.

○ 박성규 위원

방송이 많이 제일 많이 되고 있네요.

○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예.

○ 박성규 위원

그리고 인터넷에도 많이 되고 있네요.

○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인터넷이 갈수록, 저희들 군이 가장 언론 중에서 고민스러운 게 인터넷 매체입니다, 이게. 앞으로 인터넷 매체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인터넷 매체가 330개 매체입니다.

○ 박성규 위원

322개사에서 한 8억 7,000만 원 정도 소비가 되네요.

○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예, 한 330개 되는데 줄진 않고 계속 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절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박성규 위원

그러면 또 옥외 광고는 대부분 도시에다가 하죠?

○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예, 그렇습니다.

○ 박성규 위원

철도라든지.

○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철도.

○ 박성규 위원

또 빌딩이라든지.

○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지하철역사 이런 쪽에.

○ 박성규 위원

최근 다른 지역 언론 연대에서는 마흔여덟 곳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광고 집행 기준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더니 서른여덟 곳이 집행 기준을 보유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집행 기준은 정부가 고시한 지방자치단체 정부 행정광고 집행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는 계십니까?

○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예,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박성규 위원

관련 내용을 잘 검토하셔서 홍보 및 광고비와 관련하여 우리 군이 더욱더 내실 있고 효과적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검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예, 더욱더 고민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박성규 위원

실장님, 감사 조례 보면 부서 광고 대부분이 신문 광고할 때 신문사로 직접 지출을 합니까?

○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과거에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요. 저희들이 개선을 해서 지금은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일괄적으로 홍보를 하는데 일부 부서 1, 2개 부서에서 그런 현상이 생겨서 그거는 감사 지적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모든 홍보, 실과에서 30만 원짜리 홍보를 하더라도 언론재단을 통해서 해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 박성규 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하기로 돼있죠?

○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예, 그렇습니다.

○ 박성규 위원

이 부분도 향후 우리 군이 법적으로 위반되지 않게 지출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성규 위원

1건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예.

○ 박성규 위원

실장님, 전 부서 읍면 신문 대금과 관련하여 직원들 불편 사항 알고 계시죠?

○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예, 잘 알고 있습니다.

○ 박성규 위원

군정과 언론이 함께 잘 공생하고 지역 홍보도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검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성규 위원

그리고 우리 기획실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전복 관련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전복이 주력 산업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예, 맞습니다.

○ 박성규 위원

전복 산업이 어렵죠?

○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예.

○ 박성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다 어렵습니다, 전반적으로. 완도 경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사실은. 우리 해조류 산업의 전복 사업이 살아야 되는데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우리 완도군에 축제가 많이 있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그렇습니다.

○ 박성규 위원

다양한 축제가 많고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도 행사, 군 행사, 자체 행사 수백 건이 있는데 경품을 내놓은 걸 보면 기가 막혀요. 내가 한번 도 행사 우리 완도군에서 배드민턴 행사를 하는데 경품을 추첨해서 가져가는데 손에 못 들고 가요. 세 가지, 네 가지를 줘요. 그런데 경품으로 전복 한 마리도 안 나와요. 우리 노인행사 12개 읍면 다 하죠?

○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그렇습니다.

○ 박성규 위원

읍면 행사 다 하죠?

○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예.

○ 박성규 위원

체육과에서 맨 체육 행사도 많이 하고 계시죠?

○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예.

○ 박성규 위원

그거 그리고 별의별 행사를 다 해요. 일주일에 2건, 3건씩 행사를 합니다. 의장님이나 저나 보면 축사로 다니다가 끝나요, 군수님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행사에 경품권을 내놓은 거 보면 올해 같은 쌀 같은 경우는 너무 쌀값이 비싸서 소비 안 해도 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복을 한 마리도 내놓지 않고 다 휴지라든지 TV, 냉장고, 자전거 수없이 내놔도 전복을 안 내놓은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예산 부서이기 때문에 내가 체육진흥과에도 지적할 수 있고 가족행복과에도 지적할 수 있고 각 부서마다 지적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 부서이기 때문에 실장님이 간부 회의를

할 때 각종 행사할 때는 완도 전복은 3분의 1로 하라든지 20% 하라든지 기준을 정해주든지 그거를 각인을 시켜서 뭘 행사하면 완도 전복을 홍보해야 되겠다, 판매를 해야겠다. 이런 도에서부터 이런 바람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 박성규 위원

그런데 완도에서는 먹지도 않고 완도에서는 경품 추천할 때 해남에서 진도에서 내놓고 다른 도시에서 내놓는데 완도에서 안 내놓으면 되겠습니까, 이것이? 그건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맞습니다.

○ 박성규 위원

그래서 각별하게 신경 써서 간부 회의하실 때 전 부서 과에서는 행사할 때 반드시 전복을 20%나 30%를 경품으로 내놔라. 그리고 군에서 지원하지 않습니까? 행사 비용을.

○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예, 그렇습니다.

○ 박성규 위원

그런데 군에서 지원하는데 전복을 안 내놓으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려 합니다. 청해 스포츠센터 건물에 얼마나 들였는지 알고 계십니까?

○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저 건물이요?

○ 박성규 위원

예.

○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상당히 비싼 건물입니다, 제가 금액은 생각나지 않는데.

○ 박성규 위원

거의 내가 알기로는 한 190억, 200억 정도 든 걸로 아는데 음향 기기가 200억 건물치고는 어떤, 내가 몇십만 원짜리 음향기기보다 못해요. 앞에 앉아 있으면 전혀 들리지도 않아요. 그러고 상태도 안 좋고. 옛날에 우리 농어민센터 음향기기가 안 좋아서 많이 울리고 막 그랬잖아요.

○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그랬습니다.

○ 박성규 위원

수년간 못 고치고 있다가 지금 고쳤잖아요. 보완을 했잖아요.

○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예.

○ 박성규 위원

그래도 스포츠 센터에서는 큰 우리 행사도 많이 치르고 그러는데 마이크가 좋아야 되는데 마이크가 너무 안 좋아서 이거를 돈이 많이 들더라도 스포츠 센터에 맞게끔 음향을 바꿔주든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예.

○ 박성규 위원

이것도 체육진흥과한테 질문할 내용입니다마는 거기다가 하면 뭐 하겠습니까? 예산실에서 예산을 안 줘버리면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체육진흥과장한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예산을 올리면 이런 부분은 기획실에서 참고해서 그 음향기를 교체할 수 있도록, 잘 들릴 수 있도록.

○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부의장님, 이걸 지금 제가 알기로는 스포츠센터 음향기기에 상당히 예산이 많이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안 잡혔다는 거 보니까 한번,

○ 박성규 위원

앞에서 한번 앉아서 보십시오.

○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점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 박성규 위원

전달이 안 됩니다, 전혀. 뒤쪽에 전달이 되는데 앞쪽에 사람들은 전달이 안 되거든요.

○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알겠습니다.

○ 박성규 위원

이거는 예산 시기가 넘어버렸습니다마는 내년이라도 예산이 올라오면 참고해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두 가지 말씀 주신 거에 대해서는 제가 간부회의 때 전복 우리 경품 문제는 다시 한 번 주지시키도록 하고요. 음향 기기는 저희들이 현장 한번 보고, 예산팀이 현장 한번 보고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면 추경 예산에 반영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성규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궁희

박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간단하게 시간도 남고 해서 제가 짧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실장님, 감사 자료 89페이지를 보면 최근 진정 및 비위 사건이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4년에는 16건으로 대폭 상승을 했어요.

○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예.

○ 위원장 허궁희

실장님,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번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하여간 어쨌든 간에 우리 공무원들의 징계 사건이 늘었다 하는 것은 참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 업무 과실로 인한 징계는 줄어든 반면에 개인적인 사생활 관계에서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해서 특히 24년도 같은 경우에는 폭행이라든지 품위 유지 이런 부분이 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적 건수가 늘었던 것 같습니다.

○ 위원장 허궁희

그렇게 비유를 보면 공직자들의 폭행, 품위 유지, 교통사고, 음주 운전. 그리고 최근엔 도박까지도 나타난 것 같더라고요.

○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예.

○ 위원장 허궁희

그래서 아무리 개인 신상 문제이고 개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은 알지마는 우리 주민들이 공직자 신뢰도와 우리 군 이미지와도 결부돼 있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예, 맞습니다.

○ 위원장 허궁희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절차 및 양정 기준에 대해서도 현재 법으로는 실효성이 낮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저희들이 징계 규정은 저희들 자체 규정은 아니고요. 우리 행안부에서 내려준 령에 의해서 하는데 그 징계 기준은 상당히 엄격합니다. 이렇게 음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엄격하는데 그 적용하는 과정에서 조금 약하게 한다고 봐야 될까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건지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검토해서 진짜로 강한 징계가 필요할 때는 강하게, 또 유연하게 그 친구의 상황을 봤을 때 유연하게

해야 될 것들은 그 상황에 맞게 징계를 내리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징계 양정을 더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궁희

그리고 예방 차원에 대한 사전 교육이나 그런 관리 시스템 구축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궁희

그리고 우리 군은 도서 지역이 많다 보니까 최근 읍면에서 숙취 운전에 대한 적발도 늘어난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민원 해결을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도 나오겠지마는 전날 술을 먹었으면 이렇게 운전을 하지 않는 그런 이렇게 홍보도 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궁희

그런 부분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더 강화해서 우리 군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또 이렇게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예,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궁희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허궁희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3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 위원장 허궁희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구일자리정책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서 팀장 소개 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일자리정책실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입니다. 인구일자리정책실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인구 늘리기 정책 사업 실효성 방안 마련 등 13건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실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인구정책팀, 일자리창출팀, 외국인 관리팀, 투자유치팀, 귀촌지원팀, 교육지원팀 팀장님들과 직원들을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박성규 의원님께서 인구 늘리기 정책 사업 실효성 방안 마련을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부서별 추진사항을 전면 점검하고 생활 인구 확대, 일자리 창출, 미래 인재 양성, 정주 기반 확충 등 4대 전략 12개 실천 과제 72개 사업에 대해 18개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 부서가 참여하는 인구 활성화 실무추진단을 구성하여 협업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설문조사와 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통해 신규 시책을 지속 발굴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인구 정책을 추진하여 인구 감소 대응은 물론 지역 활력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박성규 위원님께서 관내 호텔 및 리조트 건립 사업 추진 철저를 요구하셨습니다.

현재 대야리 과수 부지는 토지 용도 변경 등을 위한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추진하는 등 우리 군 투자 유치 지역별 사전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신 장보고 지구 관광지의 경우에는 금년 6월 주식회사 아진산업으로부터 직원 연수 시설로 교육 시설을 포함한 숙소, 해산물 체험장, 기념품점 조성 등을 제안받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투자자를 발굴하여 투자 유치가 실현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박성규 위원님께서 귀농어·귀촌자를 위한 주택 마련 정책을 주문하셨습니다. 귀농어·귀촌인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금년도에 총 4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만원 세컨드하우스 2동과 장기 치유 숙소 4동을 리모델링하거나 신축하고 있습니다. 만원 세컨드하우스는 완도읍에 빈집 리모델링 1동, 모듈러 주택 1동을 신축하여 금년 말까지 입주할 계획입니다. 장기 치유 숙소는 청산주택 리모델링 1동, 고급 모듈러 주택 3동 신축 계획을 확정하여 실시 설계 중이며 내년 상반기 입주 예정입니다. 군외 불목리에 조성한 농촌 유학 단지를 활용하여 금년도에 살아보기 8명, 귀농어·귀촌인 5명 등 총 13명 단기 거주 목적으로 입주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빈집, 모듈러 주택, 귀농어·귀촌인 단지 등 다양한 주택 확충 방안을 마련하여 귀농어·귀촌인이 늘어 주거난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쪽 박성규 위원님께서 귀농어·귀촌자 지원금 사후 관리 철저를 주문하셨습니다. 귀농·귀어자 지원 보조금이 사업 계획 외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사업장 이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별로 수시 또는 분기별 1회 이상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사후 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귀농·귀어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사후 관리 절차를 철저히 하고, 사업 전반에 대한 현장 점검과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 박재선 위원님께서 청년공공임대주택 건립 사업 예산 추가 확보 방안 및 사업 추진 철저를 주문하셨습니다. 당초 사업비 150억 원에서 주민 설명회와 키즈 설명회 때 나온 의견을 반영하여 키즈 카페를 반영함으로써 총사업비를 194억 원 규모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당초 조성된 주차장 면적 유지를 원하는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하여 주차 공간을 총 104면으로 확대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세대수 상향을 위해 국토교통부 특화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공모를 이달 말까지 신청하겠습니다. 앞으로 설계 공모와 실시 설계를 거쳐 본격적인 공사는 내년 하반기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 6쪽 최정욱 위원님께서 고용 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의 사업 성과 검토를 요청하셨습니다. 2025년 청년 정책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2024년 일자리 분야 사업 중 1개는 폐지하고 4개 사업은 신규 추가하여 총 1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장년층 일자리 지원을 위해 신중년 희망 일자리 지원 사업과 지역 공동체 및 공공근로 일자리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도 지역 공동체 일자리 및 공공근로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예산을 증액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고용 창출을 위한 청년 및 중장년층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최정욱 위원님께서 우리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장학 사업 발굴 등 장보고 장학회 지원 사업 개선을 주문하셨습니다. 2024년 장학 사업 컨설팅 결과를 올해 사업 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양 바이오 전문 인력 예비 창업가 양성 등 완도수산고 지역산업 맞춤형 교육 지원과 도농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강남 인강 수강권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9월 완도교육지원청, 완도고, 완도수산고 등 관계기관과 장학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 방향을 논의하였고, 장학금 수기 공모전을 추진하여 수혜자들의 정주 및 진로 현황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학 사업이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들을 지속적으로 키워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조영식 위원님께서 대학 신입생 장학금 지원 사업 홍보 및 세 자녀 이상 학생 장학금 지원 사업 대상자 완화 검토를 주문하셨습니다. 금년 3월 장보고장학회 임시 이사회를 통하여 다자녀 가정 장학금 지원 대상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군민들이 장학금 지원 기준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SNS, 보도 자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장학사업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학사업이 더 많은 학생과 가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허궁희 위원님께서 섬 해양관광 기반 시설의 추진 사항을 요구하셨습니다. 민간 투자자가 솔섬에 카페, 물놀이 시설, 단독 주택 이동 등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금년 7월에 해상 접근 편의 및 해상 안전성 확보 등 행정 수요를 감안하여 소규모 어항 정비 사업을 통해 물양장과 부장교 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솔섬의 자연환경과 바다 오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오폐수 처리 시설 구축과 1일 최대 방문객 제한 등 이용객 관리 계획을 민간 투자자와 협의하여 적극 시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솔섬은 현재 민간 투자자가 추가적인 시설 공사 중으로 내년 7월 개장 예정입니다. 다음은 10쪽 박재선 위원님께서 교육지원청과 함께 협력하여 교육 발전 특구 시범 지역 지정 대비를 촉구하셨습니다. 교육지원청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금년 8월 교육 발전 특구 시범 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264억 원입니다. 앞으로 4대 추진 전략과 12개 추진 과제, 35개 세부 과제를 중심으로 지역 자원을 활용한 교육 공동체를 구축하여 해양 융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지민 위원님께서 청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철저한 관리 감독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 군은 매년 전남형 청년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5개 읍면, 총 11개 팀이 지원하여 최종 4개 읍면, 5개 팀이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보조금 집행 교육과 간담회를 실시하여 공동체 구성원 간의 소통과 협력을 촉진하고 공동체별 단톡방을 개설하여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고충 및 건의 사항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의 날 행사에서는 모든 공동체가 참여하는 홍보관을 운영하여 공동체 활동을 널리 알렸고 성과 공유를 통해 사업 성과를 공유하며 공동체 간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년 공동체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조영식 위원님께서 2025년 지방 소멸 대응 기금 선제적 대응책 마련을 주문하셨습니다. 부서 실무추진단을 구성 운영하고 청년발전협의체 및 무지개 기획단 의견 수렴, 생활 인구 및 인구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전남 연구원 등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2026년 지방 소멸 대응 기금 투자 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2026년 기금 투자 계획은 치유

의 섬 완도 프로젝트를 지역 맞춤형 중점 사업으로 발굴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생활 인구 확대를 위한 5개 신규 사업을 추가 발굴 제출하여 1차 평가 결과 전국 우수 후보군 19개 지자체로 선정되어 지난주에 대면 평가를 완료하고 최종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최종 평가 결과는 늦어도 12월 초에는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최고 등급인 우수로 평가되면 기금 120억 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3쪽 조인호 위원님께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 및 위험 고용주 관리 철저를 요구하셨습니다. 지난 7월 인권 침해 사례집을 자체 제작하여 고용주 전원에게 배부하고, 신규 근로자 배치 시 인권 교육 28회 실시 등을 통해 인권 침해를 사전 예방하는 노력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계절 근로자 고용주에 대한 배정 제한 기준을 마련하여 근로자 인권 침해 및 관리 소홀 고용주에 대한 페널티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공공형 계절 근로자 도입을 위해 금일수협과 지속 협의해 나가겠으며, 외국인 계절 근로자 담당 공무원의 성과 상여금 및 근평 우대 등 사기 진작 방안을 폭넓게 강구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고용주 교육과 관리를 통해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외국인 근로자와 상생하는 완도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난해 감사 결과 조치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궁희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인구일자리정책실장은 증인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정욱 위원

실장님, 청년 정책과 일자리 창출 사업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청년 인구가 1만 1,235명 맞나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예. 그쯤 되고 있습니다.

○ 최정욱 위원

2024년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지금?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조금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 3년간 보면 500~600명 정도 청년 인구가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 최정욱 위원

계속 줄고 있죠?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그렇습니다.

○ 최정욱 위원

9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청년 정책을 펼치고 있고 청년 인구수는 계속해서 줄어드는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지금 가장 큰 요인은 고3 학생들이 대학 진학을 위해서 빠져나간 인원이 약 300명쯤 됩니다. 그리고 청년들의 이 지역 정착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 요인으로 보면 첫 번째는 교육이고, 두 번째는 일자리, 세 번째는 주거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 최정욱 위원

그렇죠. 교육, 일자리, 주거 3대 요소가 지금 제일 중요한 거죠?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예. 그렇습니다.

○ 최정욱 위원

그런데 양질의 일자리가 있어야 청년들이 완도에 또 정착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자리가 얼마나 현재 만들어지고 있나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양질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지금 청년들이 가장 원하는 것들은 이를테면 공공기업이

나 공공기관에 가서 근무하는 것을 많이 선호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은 대기업이 들어오지 않는 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이 굉장히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 군에서 청년 일자리를 어느 쪽에 주안점을 둘 것인가 고민하다가 청년 창업 공간 지원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는 사업비를 지원한 다음에 그 효과가 있어서 청년 상가를 저희들이 리모델링해서 지원했고 그 뒤로는 청년 블루푸드 창업 패키지라고 해서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서 많이 생산되고 있는 전복, 해산물, 해조류를 통해서 창업을 하고자 하는 이런 산업을 이루기 위한 연구 기반 사업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고, 또 수산경영과에서는 히트 상품 개발을 지원하는 등 주로 창업을 촉진하는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 최정욱 위원

그렇죠. 아마 일자리는 우리가 한계가 있을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 지역은 아마 더욱 심할 것이라고 보는데 아마 도시에 비해서 굉장히 취약하고 또 좋은 일자리가 나오기란 쉽지 않다고 아는데, 실장님이 많이 힘들 거라 생각은 합니다.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잖아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예. 그렇습니다.

○ 최정욱 위원

또한 청년들이 그래도 들어오는 거는 뭐 하더라도 나가지는 않게 또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교육, 일자리, 주거가 이렇게 근본적인 원인은 나와 있는데, 아마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거 하면서 여러 가지 병행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우리는 좋은 일자리를 찾아서 한다기에는 아마 쉽지는 않다고 보면 2등, 3등급에 대한 일자리를 어떻게 해서 기존에 있는 거를 맞춰서 청년들이 여기서 정착을 할 수 있고 들어올 수 있게 하느냐.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대학 진학을 위해서 이탈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일단 일자리라든지 주거 부분은 저희가 어느 정도 대책을 세워서 이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말씀드린 대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대기업 유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창업 쪽으로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내년 지방 소멸 대응 기금에서는 블루푸드 창업 패키지 사업도 사업비를 더 배정을 해 놓고 있고요. 또 청년 공공임대주택이라든지 이런 주택 부분도 저희들이 신경을 쓰면서 지역에서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 최정욱 위원

아까도 말했지만 도시에 비해서 문화적 환경이 낮은 상황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있지 않으면 청년들의 유입은 어렵다고 봅니다. 아마 그래도 3등급에 대한 일자리는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자리를 어떻게 중점적으로 도시에 맞는 젊은이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홍보 전략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예. 그런 부분들도 일단 지역 내 청년들도 꺼려하는 일자리를 대도시에 있는 청년들에게 홍보해서 들어오게 만들려면 최소한 주거 부분, 주택 부분의 어떤 지원책이 없으면 그것도 여의치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찌 됐거나 우리 지역 내에 부족한 일손을 메꿀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도시의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한테 홍보하는 방법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홍보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최정욱 위원

간혹 보면 도시에서의 생활에 지쳐서 또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많이 시골로 떠나고 싶어 하나 정보가 부족해서 또 아까도 말했지만 주거나 이런 것들이 여기 왔을 때 그런 환경들이 부족해서 정보가 부족해서 못 온 분들도 있다는 걸 좀 알아주시고 그런 거에도 적극적으로 좀 나서줬으면 합니다.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예. 알겠습니다.

○ 최정욱 위원

그리고 꼭 청년 유입해서 그렇게 해야 되나. 또다시 중년들에 대해서도 포커스를 맞추면 어떨까. 중년의 인구가 훨씬 더 많은 시대가 됐거든요. 곧 액티브 시니어 시대가 올 것으로 생각하며 몇 안 되는 청년 유치 노력도 중요하지만 중년들을 끌어들이는 방안도 고려해 봤으면 하는데 실장님 어떤가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예. 그 부분도 필요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40대 이상 군을 통해서 구직 활동을 하신 분들이 1년에 보면 한 40명쯤 됩니다. 그런데 일자리가 필요한 게 40명이 되고 일할 사람을 필요로 하는 기업체는 저희들이 연계를 주는 것은 1년에 한 10명에서 15명쯤 되거든요. 그 정도의 수요는 현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 최정욱 위원

수요가 부족하다는 얘기인가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일할 사람은 많은데 일할 수 있는 자리는 한정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일자리가 한정돼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 최정욱 위원

중년의 정책도 계속 펴고는 있네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예. 그렇습니다.

○ 최정욱 위원

그래요. 이게 인구 정책에 관해서 어차피 인구정책실로 지금 격상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기존의 타 시군도 다 하는 거예요. 거의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거든요. 완도만의 특별하게 남다르게 하고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실장님 생각에?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신중년 관련된 부분은 아직 다른 지역에 없는 우리 군만의 어떤 정책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제가 떠오르지 않은 것 같고요. 일단은 구직을 희망한 기업하고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들, 특히 구직을 희망한 기업하고 일손이 필요한 사람의 어떤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이런 작업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은 그런 정보를 제공해서 연결시키는 이런 것은 우리 군에서 조금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 최정욱 위원

그건 전반적으로 한 번쯤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예. 그렇습니다.

○ 최정욱 위원

그렇게 해서 정말 사람들을 우리가 끌어들일 때 알고 끌어들여야지 아무 준비성 없이 오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예.

○ 최정욱 위원

그러니까 그것 방안 좀 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일자리 DB는 지역 내 일자리 DB를 한번 구축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 최정욱 위원

예. 실장님께서 완도군의 인구 정책 패러다임을 좀 더 바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예. 알겠습니다.

○ 최정욱 위원

그리고 군정 질문 때 제안을 몇 가지 했던 거 아시죠? 교육 부분도 그렇고.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예.

○ 최정욱 위원

그런 거 잘 준비하고 계시죠?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예. 그렇습니다.

○ 최정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궁희

최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민 위원

실장님, 장학 사업에 대해서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청년회에서 주관한 청해 어린이 문화 체험 행사 알고 계시죠?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예. 알고 있습니다.

○ 지민 위원

혹시 그 예산은 교육청에서 지원을 합니까?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전라남도교육청에서 5,000만 원, 그 다음에 군 가족행복과에서 4,000만 원, 청년회에서 3,000만 원 그래서 1억 2,000을 가지고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지민 위원

혹시 인구일자리정책실에서는 비슷한 사업이 또 있나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지금 이게 교육 총괄은 인구일자리인데요. 인구일자리에서는 주로 인재 육성, 학교 교육 환경 개선, 교육 복지 쪽에 집중돼 있고요. 일반 청소년 선도라든지 정서 함양 이런 부분들은 가족행복과 쪽에서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 일례로 말씀을 드리면 시행사하고 있는 장보고 아카데미 이런 것은 가족행복과에서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 지민 위원

완도군이 도서 벽지 지역이 많아서 어린이들이 또 다양한 문화나 예술 체험할 기회를 접하기가 어렵잖아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예.

○ 지민 위원

그래서 이게 또 도시 지역과 체험 격차가 좀 있기 때문에 이게 학습 격차로도 연결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실장님?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그거는 저희 도서의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찾을 것이냐가 관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로 학교 교육을 통해서, 학교 교육 과정을 통해서 체험 학습도 갈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수학여행도 있고, 또 금년 11월 11일에 했던 교육 문화 스포츠. 교육 나눔 페스타라고 관내 학생들이 다 참여해서 했던 그런 행사도 있고 이래서 이거는 또 지역 사회와 교육이 함께 이런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 지민 위원

그래서 전반기 때 있었던 이런 문화 체험 행사 같은 그런 체험 교육이 또 단순한 견학 차원을 넘어서 진로 탐색이나 창의성 함양, 지역 정착 의지 상향 등 다양한 교육적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실장님은 어떤가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교육 발전 특구 쪽 사업하고 좀 연결시켜서요. 이거는 결국은 하나의 목적이 아니고 그런 여러 가지 체험 활동을 통해서, 문화 활동을 통해서 대학 진학까지 연결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민 위원

그래서 인구일자리정책실에서 학생들의 체험 활동 사업도 많이 확대를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그런데 그게 조금 저희들이 교육 예산을,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육청이라든지 고등학교하고 다이렉트로 예산을 장학회에서 지원하든지 군에서 지원했을 때 문제는 학교에서 수용 태세가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이를테면 선생님들이 많은 학생들을 인솔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안전에 대한 부분이 강화되다 보니까 사고가 났을 때 선생님들 책임이 들어올 수 있어서 그 부분을 주저한 경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교육청하고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지민 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또 얼마 전에 선진지 견학을 갔어요, 선생님들하고 같이. 보통 2, 3명 정도에 선생님 한 분씩 이렇게 연결을 해서 가기는 했는데 이번에 사고 없이 잘 다녀와야지 군에서 이러한 체험 학습이나 이런 선진지 견학 등을 많이 지원을 해준다. 그렇게 저는 또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고려를 한번 해봐 주셨으면 좋겠고.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예. 알겠습니다.

○ 지민 위원

이러한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우리가 지역에서 볼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 부모님들이 또 데리고 있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멀리 데리고 간다는 게. 그래서 이런 거를 지원해서 많이 볼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었으면 합니다.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예. 알겠습니다.

○ 지민 위원

그리고 완도의 아이들이 도시 아이들보다 부족하지 않은 교육 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체험형 교육과 문화 예술 기회를 꾸준히 확대를 해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섬이어서 불리한 게 아니라 완도라서 특별하다는 자부심을 갖고 자라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예. 교육청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민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작년에도 한번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제가 책자를 보다 보니까 모인도 마을이라고 있더라고요, 청년 공동체 활동에서.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예.

○ 지민 위원

그래서 모인도 마을이 무엇인가? 하고 제가 인터넷을 쳐봤어요. 안 나오고 자꾸 무인도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인도 마을이 무엇입

니까?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여기는 청년 마을이라고요. 대중병원 뒤쪽에 청년 마을 조성돼 있는, 그러니까 청년들이 모인다.

○ 지민 위원

모인다.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그렇습니다. 무인도를 살짝 바꿔서 청년들이 모이는 공간이라서 모인도로 말하고 있습니다.

○ 지민 위원

모이는 공간을,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그렇습니다.

○ 지민 위원

모인다고 해서. 저는 '엄마의 고향에 가서 사는 마을을 만드는 건가.' 이렇게도 생각을 해보고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또 성과 공유회도 하셨더라고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그렇습니다.

○ 지민 위원

반응은 좋았나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반응은 굉장히 뜨거웠는데 보니까 우리 군이 관광이나 접목할 부분도 많이 있어서 청산도에 여러 가지 풍경을 어르신들이 색칠할 수 있도록 사진 찍어서 그걸 다시 스케치해 놓은 작품이 있어서 이걸 평생교육 쪽으로 좀 지원을 해 주면 우리가 우리 성인 문해 교육할 때 어르신들이 색칠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 정도로 괜찮은 작품들도 있었습니다.

○ 지민 위원

어르신들이 색칠놀이를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그렇습니다.

○ 지민 위원

그런 거에서 우리 뭐죠? 그 북, 색칠 요리하는 걸 많이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런 말씀도 많이 들리더라고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예.

○ 지민 위원

그래서 청년 공동체 마을이 안정적으로 정착을 할 수 있게끔, 또 반응 뜨거웠던 장소에 저희도 초대 좀 해주시지.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알겠습니다.

○ 지민 위원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지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궁희

지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호 위원

실장님, 아까 보고를 했는데 해남수협하고 해남군하고는 이번 외국인 계절 근로자 업무 협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예. 그거는 지금 육지의 농협은 공공형이라고 해서 농협이, 이를테면 단체를 한 40명, 50명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해서 거기서 숙박을 시킵니다. 그래서 매일 필요한 농가에 하루 일당식으로 보내거든요. 지금은 기본 5개월에 추가 3개월까지 고용주가 한 번 받으면 연속으로 써야 되는데 공공형은 농협이나 수협이

그걸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협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해남수협이 공공형 시스템 쪽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조인호 위원

우리 군도 수협하고 그 부분을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수협하고 하게끔 연초부터 협의를 했었는데 수협에서 처음에는 할 의향을 보이다가 나중에는 아직 준비가 덜 됐다고 미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지역이 어느 지역보다 어업 활동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공형도 반드시 도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공공형이 도입이 되려면 수협이 참여를 해줘야 됩니다.

○ 조인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는 인구정책실에서는 아주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농수협에서 보조 역할을 못 하죠?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저희는 농협 쪽은 농업 분야는 많이 없기 때문에 수협 쪽에서 조금 역할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 조인호 위원

실장님이 면담을 자꾸 하십시오.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예. 그쪽에서는 우선 숙소가 없다. 왜냐하면 50명에서 100명 정도 근로자가 있으려면 단체 생활할 수 있는 숙소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관리하는 데 굉장히 외국인들 관리하기 어렵다. 이런 이유를 말씀하시고 있는데 운영비도 지원을 해 주거든요, 국가에서. 그렇기 때문에 숙소도 필요하면 우리가 국비 지원을 받아서 같이 건립도 해보자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미온적인 것이 좀 안타까울 뿐입니다.

○ 조인호 위원

더 노력해 주시고요. 한 가지 장보고장학금 있죠?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예.

○ 조인호 위원

고등학생들은 장학금이 얼마 정도 지급이 됩니까?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고등학생들은 대학 갈 때 또 다르고, 또 일반 우수 장학금도 다르고, 성격마다 좀 다릅니다.

○ 조인호 위원

지금 읍면에 가면 학생 수가 많이 없잖아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예.

○ 조인호 위원

장보고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맞죠?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그렇습니다.

○ 조인호 위원

그럼 지역에서 보니까 지역 일반 장학 재단들 있잖아요. 거기서 단돈 10만 원만 더 주면 장보고장학금을 못 받더라고. 교사들은 학생들이 좀 어려우니까 한 푼이라도 더 받게 해 주려고 그런 취지에서 한 것 같은데 그거 받았다고 해서 장보고장학금 신청하면 탈락이 되더라고. 그러면 그 학생은 그나마 학생 몇 명 안 되는데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하고 있는데 자존심이 상한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걸 기준을 둬서 이렇게 학생들을. 이 부분에 실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그거는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좀 파악해서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한번 장학회하고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인호 위원

예를 들어서 장보고장학회가 장학금을 늦게 받으면 상관이 없는데 일반 장학금이 빨리 해 버리거든요, 초에 하고. 그러면 그놈을 받다 보면 공부 잘하는 학생이 자존심이 장보고장학금을 받고 싶은데 학교 교사가 그것을 추천해서 일단은 주니까 받았어요. 자기는 '돈이 필요 없다. 장보고장학금을 받아야 공부하는데 자존심이 안 상한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럼 이런 것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해주고 할 부분인데 장보고장학회에서 그 부분이 대응이 좀 미숙하더라고. 법만 따지고.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그거는 제가 한번 더 파악해 볼 텐데 일반적으로 소득 부분은 체크가 됩니다마는 그전에 장학금을 받은 것 때문에 장보고장학금을 못 받는다. 그런 선발 기준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 조인호 위원

유성장학회를 받았더라고요. 유성장학금을.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그 부분은 타 장학금을 받았기 때문에 장보고장학금은 안 된다, 이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제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조인호 위원

체크 한번 해 주세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예.

○ 조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궁희

조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실장님, 93페이지 해양관광 기반시설 확충 사업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이 자리에서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도 준공 소식이 없어서 사업 추진이 왜 이렇게 지연되고 그 이유와 현재까지의 추진 상황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여기는 당초에는 카페만 설치한 걸로 돼 있는데 그러다가 단독주택을 2동 추가로 했습니다. 또 그러다가 최근에 물놀이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물놀이 시설을 초승달 모양으로 해서 이게 길이로 따지면 한 30여 미터를 두 단으로 물놀이 시설을 별도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량이 늘어났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감사원이 감사하는 과정에서 행정 절차에 뭔가 빠진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 보완이 필요하고요. 또 공사가 한창 진행되다 보니까 늦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허궁희

이 사업은 2020년 MOU가 체결되어 벌써 4년 이상이 지났는데 여러 사람이 본인에게 "언제 오픈하냐." 물어봐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게 된 거고요. 군에서는 물양장 및 부장교 설치를 위해 도비 포함해서 6억 원을 지원해 줬죠?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그렇습니다.

○ 위원장 허궁희

그 외에 별도로 지원한 내용은 없나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추가는 지원한 거 없습니다.

○ 위원장 허궁희

예. 그러면 섬에 부장교나 이런 거 설치돼 있

는 부분이 있나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지금 소규모 어항 정비 사업으로 송도 쪽에 부장교 하나 있고, 송곡 쪽에 부장교 하나, 물양장 하나 그렇게 지금 시설돼 있습니다.

○ 위원장 허궁희

그런데 지금 일부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 "무인도에다 우리가 지원을 해줄 수 있느냐." 그걸 저한테 한번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 법령은 내가 검토를 아직 못 해봐서 가타부타한 얘기는 못 하고 제가 한번 확인을 해서 얘기를 드리련다." 이렇게는 해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서 충분히 시간은 있으니까, 준공을 안 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예. 소규모 어항 정비 사업은 지역개발과 쪽에서 지금 사업을 추진했었거든요.

○ 위원장 허궁희

그랬나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저희 부서가 아니고요. 지역개발과인데 이거는 육지 같으면 기본적으로 도로가 다 돼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다가 뭔가 체육 시설하든지 호텔, 리조트, 숙박 시설하든지. 그런데 바다, 섬이다 보니까 거기는 결국은 카페라든지 물놀이 시설을 관광객이 주로 돌아다닐 텐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배가 드나들 수 있는 접안 시설은 기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행정 수요를 감안해서 해상 교통 편리를 증진시키고 또 해상 안전에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비를 지원받아서 거기다 시설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허궁희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재검토 한번 해서 이상 없으면 별일 있겠습니까?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또 다양하게 물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2026년 7월에 개장한다고 했죠?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허궁희

그런데 작년에도 언제쯤이면 오픈할 것이라고 얘기가 한번 나왔었죠?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허궁희

그래서 실행되지 못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꼭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궁희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1일 최대 방문객 제한을 둔다고 했는데 몇 명으로 제한할 계획이며, 환경 보전 교육을 의무화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그 부분은 명확하게 최대 방문객 숫자를 제한하는 그 인원까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결국은 배를 타고 드나들어야 되고 그 섬의 공간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적정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어느 정도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민간 투자자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은 최대 몇 명까지 그 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할 것이냐의 부분을 정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환경 부분은 결국은 거기가 섬이 되다 보니까 출발할 때부터 섬에 든 쓰레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버

리면 안 되고 발생한 쓰레기는 같이 가지고 나오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섬 해양관광의 어떤 교육장으로도 우리가 교육을 잘 시키면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오픈하기 전에 민간 투자자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궁희

이 사업은 완도군 해양관광을 대표할 사업이자 전국 최초 무인도 카페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죠?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허궁희

특히 개장 초반 아주 홍보를 톡톡 튀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갈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민간사업이라 하더라도 일정과 성과, 관리 체계를 세심하게 살펴서 우리 군의 대표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궁희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인구일자리정책실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 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허궁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서 팀장 소개 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실

○ 관광실장 안환옥

안녕하십니까? 관광실장 안환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관광실 팀장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팀 양영애 팀장과 정종주 차석입니다. 관광시설팀 곽경주 팀장과 김지철 차석입니다. 관광상품개발팀 박현정 팀장과 곽민정 차석입니다. 해수욕장운영팀 오영호 팀장과 장현우 주무관입니다. 위생관리팀 정은경 팀장과 오형주 차석입니다. 방문의해TF팀 문정상 팀장과 김송희 주무관입니다. 이어서 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박성규 부의장님께서 개선을 요구하신 완도군 축제 전면 재검토 및 내실화 방안 마련입니다. 올해 초 전 국민 대상 완도 장보고수산물축제 아이디어 공모전과 김밥 전문 부스 모집 공고를 통해 내실화를 도모하였으며 축제 기간은 연휴 기간에 맞춰 집중 운영함으로써 방문객 증가를 유도하고 축제 전반의 운영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청정완도 가을섬여행은 주 행사장을 지역 상권 중심지인 완도해변공원으로 변경 운영하였으며 기상 여건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운영 시간을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부서 및 유관 기관과의 축제 연계 추진을 통해 프로그램 내실을 강화하고 축제장 공간 구성 변화로 방문객 만족도를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허궁희 위원님께서 권고하신 지역관광 DMO 운영 활성화 및 관리 체계 확립입니다. 한국관광공사 주관 2025년 지역관광추진조직 육성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1억 원, 군비 1억 원 등의 예산 지원과 함께 DMO 사업 계획 컨설팅, 전문가 자문, 회계 및 마케팅 교육 등을 통해 DMO 조직 역량 강화를 추진했습니다. 앞으로도 DMO 사업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속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쪽 박병수 위원님께서 권고하신 완도 방문의 해 추진에 따른 군민 공동 전략 수립입니다. 작년 11월 방문의 해 운영에 대한 의원 간담회를 시작으로 관내 영업 대표, 기관, 사회단체장을 대상으로 방문의 해 사업 설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관광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 내 문화관광 해설사 및 해설가와 소상공인연합회 회원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추진하였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역 내 2,000개 숙박업, 음식업, 특산품 매장 대표들을 직접 찾아뵙고 충분한 설명과 협의를 통해 운영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 군민이 참여하는 365 릴레이 캠페인을 전개하여 올 한 해 성공적인 방문의 해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완도마리나, 요트마리나 관리 감독 철저입니다. 박병수 위원님께서 주의 사항으로 말씀하신 완도마리나, 요트마리나 관리·감독 철저와 관련하여 군에서는 24년부터 단계별 행정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4년 11월에는 1차 및 2차 시정 조치 통보에 따른 주식회사 엠디지씨의 활성화 방안을 회신받았으며 요트마리나 전기요금 청구서는 201호, 203호 공실로 인해 납부 명의를 완도군청 관광과로 정정했습니다. 12월에는 완도마리나 사무실의 낚시 간판을 철거하였고 당초 목적대로 시설이 활용될 수 있도록 현장 지도·감독을 실시했습니다. 요트투어 정상 영업을 위한 3차 시정 조치에도 불구하고 미운영됨에 따라 올해 9월 업체 대표와 면담을 진행해 미운영 사유와 향후 계획을 청취하였으며, 10월 말까지 유예 기간을 부여한 뒤 그 기간 내에 개선 방안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 협약 해지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10월 31일까지 운영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으며 업체 측에서는 행정 절차 추진 시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협약 해지 절차를 밟아갈 계획입니다. 다음 5쪽 지민 위원님께서 개선을 요구하신 신지명사십리 황토 맨발 걷기 길 보안 및 홍보입니다. 관광객들에게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맨발 걷기 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였고 맨발 걷기 길 안내판과 표지판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쿨링포그와 세족장을 신설하고 황톳길 미시설 구간을 추가 시공하였습니다. 앞으로 쉼터, 벤치, 안내판 등 기반시설과 데크 시설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관광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지민 위원님께서 권고하신 해양치유센터 할인 쿠폰 활성화 방안 마련입니다. 할인 쿠폰 이벤트 3회 차 추진 시 전체 음식점 대상 이벤트 안내 공문 발송 및 29회 홍보 문자 발송, 주요 거점에 홍보 현수막 게첨, 신문 보도, 군 SNS 홍보와 함께 한국외식업중앙회 완도군지부와 협조하여 다각적인 홍보를 추진하여 쿠폰 거부 사례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해양치유센터 할인 쿠폰 이벤트는 25년 7월 17차 지급으로 정산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실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궁희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관광실장은 증인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선 위원

실장님, 한 가지 여쭤보고 하겠습니다. 실장님이 관광실로 바뀌어서 좀 어떻습니까? 관광객이 많이 오십니까?

○ 관광실장 안환옥

저희 군의 관광 성수기와 비수기로 나눈다고 하면 지금 제가 7월 1일부로 왔는데요. 7월, 8월까지는 성수기라고 보고 9월부터는 약간

비수기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 박재선 위원

50페이지 보면 23년, 24년, 25년 이렇게 계속 지금 통계를 내놨어요.

○ 관광실장 안환옥

예.

○ 박재선 위원

그런데 23년, 24년 비례해서 25년에는 많이 저조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관광실장 안환옥

관광지 관광객과 우리 군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의 이용객 수는 서로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관광객, 관광지 이용객 방문객 수는 금년 해수욕장 운영을 해 보니까 전년에 비해서 상당히 해수욕장 이용객 수가 줄어들었고 그리고 장도목교가 입장을 안 한 지가 6월부터 안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목교 입장객 수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관광지 방문객 수는 줄어든 걸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 박재선 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11월 말이죠. 12월까지 하게 되면 한 달 남았는데 23년, 24년 비례해서 너무 많은 인구 차이가 나요. 올해 다 다닌다 하더라도 전년도 비교하면 한 30만 명 정도는 차이가 나요, 해마다 23년, 24년 통계를 보면, 책자에 이렇게 나온 거 보면. 그런데 또 완도군은 올해 방문의 해로 정했지 않습니까?

○ 관광실장 안환옥

예.

○ 박재선 위원

그런데도 방문객 수가 더 적다. 이것은 뭔가 틀리지 않았을까요?

○ 관광실장 안환옥

방금 말씀드렸듯이 관광지 방문객과 우리 군을 방문하는 방문객 수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완도군을 방문하는 전체 방문객 수는 한 650만 정도로 현재까지 되어 있고 연말까지 해서 한 760만 정도로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지 방문객 수로 그것을 판단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우리 군을 방문한 방문객 수는 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박재선 위원

전체적인 어떤 면에서 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관광실장 안환옥

지금 관광공사에서 데이터랩 기준으로 10월 기준으로 보니까 우리 군 방문객이 한 670만 명이고 전년 동기 한 62만 명이 증가한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박재선 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앞으로 또 관광객을 더 오게끔 하려면 어떤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는지 또 그런 우리 완도군에서 계획을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실장 안환옥

지금 금년 계획은 금주에 청산도 단풍길여행을 29, 30 이렇게 이틀간 계획을 갖고 있고 행사를 진행해 나갈 거고요. 12월 들어서는 딱히 지금 저희들이 이벤트나 이런 게 지금 없는데 내년도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큰 축제 행사라든지 그다음에 월별로 어떤 행사를 할 것인지 지금 고민을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 박재선 위원

방금 청산 얘기하니까 잠깐 떠오르는데요. 지금 청산 단풍길축제 하면 도로 통제하죠?

○ 관광실장 안환옥

예.

○ 박재선 위원

그거 전체 통제를 해도 되는 겁니까?

○ 관광실장 안환옥

군도 부분은 읍면장 관할하에 하고 있고 축제의 안전성을 위해서 그 부분은 읍면장이 충분히 통제가 가능한 걸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 박재선 위원

전체 2개 차선을 전체 통제해도 된다?

○ 관광실장 안환옥

예.

○ 박재선 위원

읍면장 재량으로요?

○ 관광실장 안환옥

예.

○ 박재선 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관광객들이 더 완도군에 더 오게끔 해야 되는데 그러면 2026년도에는 어떤 계획이 있어요?

○ 관광실장 안환옥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저도 해양치유를 하고 관광실에 왔는데 내년 4월 되면 치유관광산업 육성법이 시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군이 치유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데 이 치유 산업을 연계한 관광을 어떻게 상품을 개발해서 할 것이냐, 현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 박재선 위원

그래요. 저희들이 항상 걱정인 게 완도는 관광, 숙소, 먹거리 다 중요한데 하나도 제대로 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 군정 질문 답변할 때도 전복거리로도 제가 실장님께 얘기도 좀 드렸었고요. 그런 부분을 보면 완도에 왔을 때 먹거리라든가 관광이라든가 숙소가 제대로 돼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게 너무 미흡하다 보니 관광객들이 적고 또 아까 말씀처럼 방문객은 따로 이렇게 행사했을 때 잠깐 왔다 가는 그런 분들하고 관광 목적으로 왔을 때의 그런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통계적으로 책자에 실장님께서 주는 거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가 1,000만이 금방 도달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빨리 이렇게 되지 않은 것 같아서 더 걱정스럽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실장님께서 오셔서 해양치유담당관님으로 계실 때와 실장님으로 오셔서 관광 일을 했을 때가 또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해양치유는 거기에 대해 오신 분들에 한해서만 이렇게 했고 읍면 단위로 치유문화센터나 다 있기 때문에 그 치유 쪽으로 연계해서 관광객들을 생각하는 거지 저희들이 완도 전체적으로 관광객을 생각한다면 그렇지 않고요. 또 관광객이 읍면으로 다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 관광실장 안환옥

예.

○ 박재선 위원

그런데 분포되는 게 많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가보고 싶은 섬이라든가 다 나눠져 있는데 12개 읍면 중에 가는 섬만 가지 안 가는 섬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완도 군민들도 마찬가지예요. 실질적으로 안 가본 섬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은 또 어떻게 한번 홍보를 더 해서 더 가고 싶은 섬으로 만들 수 있는지 한번 얘기 좀 해 주십시오.

○ 관광실장 안환옥

저도 이 부서로 발령을 받고 읍면을 쑥 이렇게 한 바퀴 점검을 했습니다, 읍면마다. 그러면서 저희 관광하고 관련된 곳을 직접 방문을 하면서 다녀보면서 이게 어떻게 연계를 시켜 나갈지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이다.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는 육지로 형성돼서 한 번 차로 이렇게 휙 돌면 되는데 우리는 그 섬에 들

어가면 그 섬에서 하루를 소비해야 되는 거고 숙박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 접근성의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이고 섬과 섬을 연계하는 그런 연계 상품도 개발을 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을 좀 하고 일례로 생일도 같은 경우에는 청산도 다음으로 가장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곳이고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접근성이 안 좋고 그게 여러 여건들이 숙박시설이나 음식, 식당이라든지 이런 여건이 안 좋아서 어떻게 이런 부분을 개선해 나갈 것이냐 상당히 고민스럽고 저도 어떻게 지금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아무튼 내년 때에는 또 색다른 그런 상품들을 개발해서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박재선 위원

좀 더 개발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실장 안환옥

예.

○ 박재선 위원

그리고 저희들도 관광을 가게 되면 완도같이 멋있는 경관은 없어요, 사실은.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서로 이어져서 배를 타고 간다는 거 그런 것 부분이 많이 애로사항이 있어요. 제가 실장님께 하나 제안 하나 드리고 싶어요.

○ 관광실장 안환옥

예.

○ 박재선 위원

지금 보길, 소안, 청산 이 관광지가 의외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 관광실장 안환옥

예.

○ 박재선 위원

그런데 관광객이 청산을 가게 되면 실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일, 하루밖에 못 가요. 그러나 또 보길, 소안마저도 같이 가면 1박을 하고 더 이상 다 갈 수 있는 섬이 없어요. 제안하고 싶은 내용은 청산에서 관광객이 들어가면 청산에서 소안이나 보길을 갈 수 있는 곳, 바로 배가 완도읍을 경유하지 않고 바로 디렉트로 소안과 보길을 올 수 있는 곳 한 번은, 1회 정도는 배편 항이 되면 청산에서 구경했던 분들이 소안과 보길을 구경하고 1박 하고 갈 수 있게끔, 1박 2일 동안에. 그리고 보길과 소안에 왔던 관광객이 다시 배편으로 해서 완도를 경유하지 않고 바로 디렉트로 청산을 갈 수 있게끔 그러면 그분들이 여기 3개 섬을 1박 2일 동안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노화는 관광지가 없지만 테마 쪽으로는 괜찮습니다. 앞으로 마음 치유 예술의 섬 다 만들어 놓으면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쪽 다리 놓고 하면 관광객들이 와서 바로 가는 것보다는 전체 돌고 구경하고 갈 수 있게끔 완도군에서 그것을 주도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생각은 어떻습니까?

○ 관광실장 안환옥

그렇게 되면 진짜 좋죠. 그런데 이게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이냐. 요트 투어를 해야 될 것인지, 아무튼 일반 객선 갖고는 안 될 거 아닙니까?

○ 박재선 위원

여객선도 가능하죠.

○ 관광실장 안환옥

여객선 투입하려면 상당히 항로 개설부터 보조 지원 부분 여러 가지가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은 부분인데 아무튼 그런 부분도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나은 것인지 그런 것도 한번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 박재선 위원

지금 현재 청산농협도 있고 소안농협 배도 지

금 정상적으로 화물과 여객이 다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보조를 해 주고 항로를 만든다고 하면 충분히 1회 정도는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 관광실장 안환옥

그 부분은 해양정책과에서 군수님이 지시를 해서 검토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결과는 그게 상당히 농협 측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박재선 위원

지금 완도 같은 경우는 관광선도 없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 관광실장 안환옥

예.

○ 박재선 위원

그런 부분도 금당8경도 가려면 저희들이 너무 어렵게 가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관광선도 사실 그렇다고 하면 얼마든지 저는 뛰어도 가능하다, 그렇게 가능합니다. 그렇게 생각도 들고요.

○ 관광실장 안환옥

유람선 운영 업체라든지 또 요트 관련 업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해결해서 그게 가능한 것인지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 박재선 위원

검토를 좀 제대로 해 주시고요.

○ 관광실장 안환옥

예.

○ 박재선 위원

꼭 얘기했던 부분이 점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실장님께서 더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실장 안환옥

예. 알겠습니다.

○ 박재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궁희

박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성규 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감사 자료 46페이지 용역 현황을 보면 용역이 상당히 많네요.

○ 관광실장 안환옥

예. 한 20건 정도 돼.....

○ 박성규 위원

20건이 아니라 2025년도까지 52건이 돼요.

○ 관광실장 안환옥

예.

○ 박성규 위원

총예산, 용역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 관광실장 안환옥

전체 금액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 박성규 위원

총액이 안 나왔어요?

○ 관광실장 안환옥

예.

○ 박성규 위원

용역 집행률을 보면 준공이 도래했는데도 집행률이 100%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봐볼까요? 슬로시티 시민 강사 양성 교육 시행이 2025년 11월 11일인데 0%예요. 또 그 밑에 보면 명사십리 노후관광지 재생사업 전기 공사 실시 용역 2025년 10월 24일까지인데도 여기도 0%예요, 전부. 그리고 완도치유 페스타 일러스트 공모전 운영 이것도 마찬가지 12월 10일인데, 기간인데 전부 0이에요, 그 밑에도 0%. 올 12월 말이 얼마 안 남았고 10월에 용역이 끝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진행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0%예요. 이건 왜 그럽니까?

○ 관광실장 안환옥

이 자료 작성할 때의 일자 그때 당시에 0%였

는데요. 슬로시티 시민 강사 부분은 11월 11일에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노후관광지 재생사업 전기 공사도 10월 24일에 집행이 완료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미식 산업 박람회 완도군 홍보 부스 운영 부분도 11월 4일에 집행이 완료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작성 기준 이후에 집행 완료된 것이 한 4건 정도 더 완료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성규 위원

이거 언제 그러면 서류가 작성됐어요? 이거는 최종본으로 제일 나중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를?

○ 관광실장 안환옥

그게 제출 기한이 11월.....

○ 박성규 위원

11월에 했어도,

○ 관광실장 안환옥

11월 4일에 작성해서 제출을 했기 때문에.

○ 박성규 위원

그때 기준으로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 관광실장 안환옥

예. 그때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지금 완료된 부분이 한 4건이 더 추가로 된 겁니다.

○ 박성규 위원

그렇게 급하게 많이 완료가 됐어요?

○ 관광실장 안환옥

예.

○ 박성규 위원

그리고 보면 금당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지역 역량 강화 사업도 용역비가 1억 7,000만 원이에요, 제일 위에 보면. 그런데 이것도 12월 31일까지인데 이것도 완공이 됐어요? 다 됐어요? 69%,

○ 관광실장 안환옥

이게 연장됐습니다.

○ 박성규 위원

예?

○ 관광실장 안환옥

연장됐습니다.

○ 박성규 위원

연장된 것은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 관광실장 안환옥

역량 강화 사업 기간을 당초에 12월 말로 한 것을 내년 6월까지 해서 연장을 했었습니다.

○ 박성규 위원

그러니까 여기 52건 중에 0도 되고 30%도 있고 70%짜리도 있고 그러는데 연장된 것은 몇 건이고, 다 완료된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 관광실장 안환옥

제가 여기서 알고 있는 것은 연장된 것은 금당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역량 강화 사업이 연장된 거 알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기간이 미도래된 그런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박성규 위원

그러면 신지명사십리 무인 계측기 유지 보수비 이것도 73%인데 12월 31일까지인데 이것도 다 완료가 됐어요?

○ 관광실장 안환옥

12월 31일입니다.

○ 박성규 위원

그러니까요.

○ 관광실장 안환옥

예. 그러니까 12월 31일이 아직 안 돼서 73% 지금 집행률이고요.

○ 박성규 위원

그러니까 용역이 1년짜리 용역인데 이렇게 한 달 남겨놓고 20%, 30%, 40%가 빨리빨리 진행이 됩니까?

○ 관광실장 안환옥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년 12월 중에 이 부분은 다 집행이 될 겁니다.

○ 박성규 위원

그래도 너무 집행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이거 연기된 것은 연기된 걸로 이렇게 표시를 해 주고 또 안 된 건 안 되게 해서 또 설명도 해 주고 그래야지 0%도 있고 70%도 있고 이거 뒤죽박죽돼서 이거 알아먹겠습니까? 용역비가 2025년도만 해도 52건이나 되는데. 그리고 용역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간단한 것은 군에서 우리 직원들이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도 중요하긴 하지만 용역을 간소화해 주시고요.

○ 관광실장 안환옥

예.

○ 박성규 위원

준공일 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준공을 지켜주기 바랍니다.

○ 관광실장 안환옥

예.

알겠습니다.

○ 박성규 위원

꼭 준공 내 기한을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실장 안환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궁희

박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민 위원

실장님, 관광안내소 운영에 대해서 잠깐 질문 드릴게요. 우리 제출된 감사 자료를 보면 우리 군 관광안내소가 총 3개 있어요.

○ 관광실장 안환옥

예. 그렇습니다.

○ 지민 위원

그리고 배치된 전담 인력은 또 4명으로 돼 있고요.

○ 관광실장 안환옥

예.

○ 지민 위원

우리 또 연간 수백만 명이 방문하는 우리 완도 관광 규모를 생각을 했을 때 '이 인력으로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 관광실장 안환옥

좀 인력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 지민 위원

그렇죠?

○ 관광실장 안환옥

예.

○ 지민 위원

그리고 혹시 실장님, 우리 화흥포항 여객선 터미널 안에 관광안내소가 있어요.

○ 관광실장 안환옥

예. 그렇습니다.

○ 지민 위원

가보셨습니까?

○ 관광실장 안환옥

예.

○ 지민 위원

일단 사진 1장 올려주세요. 저렇게 닫혀 있습니다. 현장에는 항상 불이 꺼져 있고 항상 갈 때마다 저렇게 문이 막혀 있고 오늘은 휴무라고 항상 안내문이 붙어 있거든요. 매표소 직원한테 한번 물어봤더니 거의 문을 안 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광객 유입이 미미하고 실질적으로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운영 방식 전환이나 폐쇄 검토가 좀 필요한 게 아닌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 관광실장 안환옥

당초에는 2개소 관광안내소에서 4명이 근무하면서 로테이션으로 했는데 1개소가 더 늘어나서 4명이서 3개소를 관리하다 보니 근무하지 않는 그런 일정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주말에는 저희 직원들이 가서 대신 근무를 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고요.

○ 지민 위원

화흥포항에요?

○ 관광실장 안환옥

예. 배치되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시로 저게 폐쇄된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한 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이 애로가 있다고 하면 차라리 폐쇄를 하고.

○ 지민 위원

열려 있는 거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 관광실장 안환옥

예. 제가 다시 한 번 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 지민 위원

그리고 또 우리 일반적으로 완도 군민들이 거의 다 그런 전화들을 많이 받아요. “완도 가면 뭐 해? 완도 가면 갈 수 있는 데가 어디야? 섬에 청산을 가면 뭐, 뭐 봐야 돼? 식당을 어디 가야 돼?” 이런 걸 많이 묻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광안내소가 꼭 필요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필요한데 이걸 진짜 효율적으로 어떻게 사용을 하고 어떠한 곳에 있고 어떠한 인력들이 있고 어떠한 일을 하고 이런 게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 관광실장 안환옥

예. 맞습니다.

○ 지민 위원

그래서 우리 차들이 많이 들어오는,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는 완도읍 관문이라든지 아니면 또 차를 또 유용하게 또 세워서 커다랗게 이렇게 완도 관광안내소라고 크게 현판을 해서 딱 찾아볼 수 있도록, 직접 어디 가서 내가 솔직히 다 알고 오는 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현장에 와서 직접 물어보고 할 수 있도록 어떠한 방법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관광안내소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관광실장 안환옥

예.

○ 지민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면 우리 민간 시설을 안내소로 지정해서 운영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 관광실장 안환옥

예.

○ 지민 위원

군에서 혹시 운영비라든지 홍보비 등의 보조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까?

○ 관광실장 안환옥

그렇게는 하지 않고 저희들이 관광 팸플릿이나 완도 관광 지도 이런 부분을 배부하면서 거기에 숙박을 하신 분들께 적극적으로 좀 안내를 해 주십사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지민 위원

거기에 이렇게 놔두기만 하죠?

○ 관광실장 안환옥

예.

그렇습니다.

○ 지민 위원

홍보물 같은 거?

○ 관광실장 안환옥

예.

○ 지민 위원

그래서 민간 관광안내소로 지정된 업소들은 본래의 영업과 안내의 역할을 병행해야 돼서 본업에 지장이 발생을 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다른 불만들은 없으시던가요?

○ 관광실장 안환옥

홍보물이 다 소진돼서 그런 부분을 가지러 오시는 그런 번거로움이 좀 있고요. 우리가 저희들도 가보게 되면 호텔에 안내 홍보물 이렇게 게첨해 놓은 그런 데 홍보물 게시대를 놓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딱히 인력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은 아니고 일단 그런 관광안내문을 보고 문의하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게끔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 지민 위원

혹시 우리 민간 관광안내소에서 어떠한 그런 안내 실적이 있습니까?

○ 관광실장 안환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 지민 위원

그렇죠?

○ 관광실장 안환옥

예.

○ 지민 위원

따로 이렇게 그것까지 관리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그래서 해양치유 관광 도시의 위상에 걸맞게 운영 체계가 여전히 취약한데 그걸 단순 시설 지정이 아니고 실제로 관광객이 또 체감할 수 있는 이런 안내 서비스 품격을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 관광실장 안환옥

예. 이분들 한번 저희들이 간담회를 갖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시키고 협조 부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민 위원

많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치유 페이 관련해서 한번 또 여쭤볼게요. 우리 내년에도 치유 페이 사업하실 거죠?

○ 관광실장 안환옥

예. 하겠습니다.

○ 지민 위원

올해 치유 페이 관광객이 일정 금액을 소비하면 온라인 특산품 사이트 포인트와 지류형 상품권을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었어요. 내년에도 이 두 방식 그대로 유지를 하실 계획인지, 아니면 운영 방식을 따로 변경을 하실 건지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 관광실장 안환옥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 방법은 그대로 유지를 할 거고요. 금년도에 문제점 대두됐던 2인 이상 했던 것을 1인 이상으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작년, 또 금년도에는 50% 지원해 줬지만 예산 형편상 30% 정도 해서 10만 원 이상 하면 3만 원 또 20만 원 이상 하면 6만 원, 30만 원 이상 9만 원 이렇게 해서 지원 금액을 좀 줄이고 그다음에 연중 운영했던 것을 비수기 때 2월과 4월 또 하반기에는 9월과 11월 이렇게 구분해서 진행을 해볼 계획입니다.

○ 지민 위원

금액하고 이렇게 운영이 되는 시기하고 약간 변경이 좀 있어요.

○ 관광실장 안환옥

그렇습니다.

○ 지민 위원

그래도 우리 상품권 지급하는 게 지류형으로만 하죠?

○ 관광실장 안환옥

예. 그렇습니다. 치유 페이는 그렇습니다.

○ 지민 위원

치유 페이는 지류형 상품권으로만 치유 페이는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었어요?

○ 관광실장 안환옥
예.
○ 지민 위원
혹시 그래서 우리 지류형 상품권이 또 재방문에 또 유인을 하는 거에 안 되지 않을까, 유도가 되지 않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염려스러움도 좀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 관광실장 안환옥
지류형으로 주다 보니까 현장에서 바로 쓰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다고 보이고요.
○ 지민 위원
거의 다 그렇죠?
○ 관광실장 안환옥
예. 그렇다고 보입니다. 온라인 또 상품으로 주는 것은 또 현장에 오지 않고 또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또 재방문율을 높이기 위한 그런 방법도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 지민 위원
그래서 재방문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급 시점을 조정하거나 모바일 상품권으로 이렇게 전환을 한다고 하면 관광객이 처음에 1차 방문을 하고 또 방문을 해서 막 소비를 하잖아요. 소비와 관련해서도 상품권으로 또 지급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모바일 상품권으로 변경을 했을 때 다음번에 그 모바일 상품권을 여기서 지역에 완도에 와서 써야 하니까 두 번째 2차 방문이 이렇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좀 흘러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거든요. 실장님,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 주세요.
○ 관광실장 안환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지민 위원
그리고 지금 지류형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정산 작업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굉장히 이게 스캔도 해야 되고 정산 신청서도 해야 되고 지급 명단도 엑셀로 작업을 해야 되고 굉장히 이게 행정적으로 낭비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모바일로 이걸 변경을 하다 보면 자동으로 이렇게 정산이 되고 다 되니까 그게 조금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관광실장 안환옥
예. 검토하겠습니다.
○ 지민 위원
한번 고민 한번 해봐 주시고 우리 치유 페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반응은 굉장히 좋았잖아요.
○ 관광실장 안환옥
예.
○ 지민 위원
잘될 수 있도록 한번 고민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실장 안환옥
예. 알겠습니다.
○ 지민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명사십리 조형물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명사십리 해수욕장 모래밭에 명사십리 이렇게 해서 조형물이 있어요. 혹시 그 취지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 관광실장 안환옥
지역을, 우리 명사십리를 알리기 위한 그런 방안으로 조형물을 거기다 설치를 해 놓은 거거든요.
○ 지민 위원
이렇게 요즘에는 하도 SNS 인증 숏들을 많이 찍으니까 또 사진이 어떻게 예쁘게 나온다는 그런 홍보 효과도 많이 있어요. 일단 사진 한번 올려주십시오. 왼쪽 거 확인이 됩니까? 뭐예요?

○ 관광실장 안환옥
명사십리.
○ 지민 위원
명사십리인데 우리 모래밭이 굉장히 색깔이 연해요. 연한 아이보리 색상에다가 또 뒤에 바다는 저희가 카메라가 조금 파란색이 잘 나오다 보니까 파랗게 나오기는 하는데 또 빛 반사도 있어서 저 글자가 잘 안 보여요, 흰색이라서. 그리고 옆에 제가 직접 찍어보았습니다. 저기에 저도 있어요. 그런데 저게 여름이다 보니까 뒤에 튜브라든지 우리 해수욕장에서 사용하는 그런 어떤 설치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진을 찍어도 우리 진짜 멋있는 명사십리 배경이 잘 안 보여요, 저 위치가 저래서. 그래서 '처음 설치할 때 저런 거를 생각을 안 했을까? 주위 배경하고 이 색상하고 또 이렇게 잘 도드라지는지 이걸 생각을 안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실장님.
○ 관광실장 안환옥
저도 그게 있는 것만 알았지 이렇게 역광이 나오거나 이런 부분까지는 자세히 못 봤습니다.
아무튼 한번 가서 그게 위치를 변경할 수 있으면 좀 변경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하겠습니다.
○ 지민 위원
그래서 저도 저게 있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자꾸 "명사십리에서 사진을 찍는데 뭐가 뭔지 모르겠다. 잘 나오지 않는다. 확인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봐서 직접 가서 찍어보고 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거를 색깔을 좀 넣고 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또 다음 사진 한번 올려주세요. 저거 보시면 되게 깔끔하죠?
○ 관광실장 안환옥
예.
○ 지민 위원
확 튀고 그리고 자리 자체도 우리 완도 같은 경우에는 사선으로 이렇게 놔서 뒤에 잘 보이지가 않는데 일직선상으로 반듯하게 놓으니까 뒤쪽에 바다라든지 글씨라든지 되게 잘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저거를 변경할 계획이 있으시면 색상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선정을 잘해서 개선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실장 안환옥
예. 알겠습니다.
○ 지민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허궁희
지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병수 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청산도 슬로걷기축제와 관련해서 몇 가지 제안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청산도 슬로걷기축제 작년도 예산이 지금 16일 했는데 2억 원이었어요.
○ 관광실장 안환옥
예.
○ 박병수 위원
금년도는 지금 30일을 했죠?
○ 관광실장 안환옥
예.
○ 박병수 위원
그런데 2억 9,000만 원. 그런데 방문 인원이 한 전년 대비해서 한 1만 7,000명이 증가를 했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장보고수산물축제는 지금 며칠간 합니까? 5일간 했는가요?
○ 관광실장 안환옥
4일간 합니다.
○ 박병수 위원

4일간 하죠?

○ 관광실장 안환옥

예.

○ 박병수 위원

그런데 예산은 9억 원이에요.

○ 관광실장 안환옥

예.

○ 박병수 위원

장보고수산물축제하고 슬로걷기축제하고 비교했을 때 너무 차이가 많은 걸로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관광실장 안환옥

저도 여기 와서 이렇게 예산을 봐 보니 '너무 예산이 너무 적다. 이 적은 금액 갖고 축제를 어떻게 치렀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 박병수 위원

그럼 내년도는 지금 어느 정도 지금 반영시켰는가요?

○ 관광실장 안환옥

내년도 저희들이 5억을 요구를 했는데요. 실제 계상된 것은 한 3억 5,000 정도 됐습니다.

○ 박병수 위원

조금 증액은 됐네요.

○ 관광실장 안환옥

조금 됐는데 그 부분은 지금 순환버스를 운행해 볼 계획으로 그걸 지금 반영시켜서 한 5,000만 원 정도가 더 추가로 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 박병수 위원

순환버스 그러면 비용을 포함해서 한 건가요?

○ 관광실장 안환옥

축제에 포함시켜서.

○ 박병수 위원

순전한 축제 예산은 아니고요?

○ 관광실장 안환옥

예. 그렇습니다.

○ 박병수 위원

그런 부분을 형평성에 맞게끔 그렇게 좀 증액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실장 안환옥

예.

○ 박병수 위원

청산도 슬로걷기축제는 완도 관광의 시작이면서도 완도 관광의 핵심 동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 관광실장 안환옥

예. 맞습니다.

○ 박병수 위원

축제는 매월 4월에 시작되죠?

○ 관광실장 안환옥

예.

○ 박병수 위원

그런데 지금 준비는 대부분 지금까지 보면 2월이나 3월에 그렇게 용역사를 선정해서 준비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죠?

○ 관광실장 안환옥

예.

○ 박병수 위원

그런 것을 봤을 때 너무 급하다. 그렇게 급하게 준비가 될 리가 없어요.

○ 관광실장 안환옥

맞습니다.

○ 박병수 위원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내년 축제부터는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서 1월에 용역사를 선정해서 준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고 하면 차분하니 완벽하니 그렇게 준비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 관광실장 안환옥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부터 준

비를 하고 있습니다.

○ 박병수 위원

그런가요?

○ 관광실장 안환옥

예.

○ 박병수 위원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실장 안환옥

예.

○ 박병수 위원

그리고 청산도축제가 여름과 가을이 또 있죠?

○ 관광실장 안환옥

예.

○ 박병수 위원

은하수하고 반딧불이.

○ 관광실장 안환옥

예. 그렇습니다.

○ 박병수 위원

작은 규모라도 예산을 세워서 축제가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 관광실장 안환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병수 위원

내년부터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관광실장 안환옥

왜냐하면 청산도 월별로 특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이 있는데 그걸 잘 활용해서 관광객을 유치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반딧불이도 있고 또 은하수도 있고 또 단풍.....

○ 박병수 위원

단풍도 있고요.

○ 관광실장 안환옥

단풍도 있고 그래서 그 시기에 맞는 소규모 행사일지언정 저희들이 군에서 같이 관여해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박병수 위원

그렇게 맞게끔 예산도 편성을 해서 그 목에 맞는 예산이 편성이 돼야만 축제가 제대로 됩니다, 작지만.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기존 가을섬여행 지금 축제를 하고 있죠?

○ 관광실장 안환옥

예.

○ 박병수 위원

그게 사업비가 한 2억 6,000 되거든요.

○ 관광실장 안환옥

예. 맞습니다.

○ 박병수 위원

청산도 은하수 반딧불이, 단풍 축제는 좀 차별성이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프로그램도 개발이 좀 필요하고요. 그렇게 해서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실장 안환옥

예.

○ 박병수 위원

청산도 관광은 청산도 관광뿐 아니라 완도읍의 상권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청산도 관광객들이 지금 완도에 와서 사고 먹고 자고 그럽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청산도 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죠?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실장 안환옥

예.

○ 박병수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청산도 DMO 사업 지금 추진 사항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한번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실장 안환옥

DMO 사업을 뒤늦게 진행을 했는데요. 지금 방금 얘기했던 은하수 반딧불이와 단풍 여행

길 행사를 지금 DMO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산도 대학 운영 부분도 지금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당초 계획대로 늦었지만 하나하나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 박병수 위원

지금 연말까지 그럼 그 사업은 전부 다 다 완료될 수 있습니까?

○ 관광실장 안환옥

거의 계획된 예산을 다 집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시기적으로 너무 촉박해서 기간이 짧아서. 그래서 금년 때에 할 수 있는 최대한 사업은 진행을 하고 그렇게 못 한 부분은 내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 박병수 위원

내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가요?

○ 관광실장 안환옥

이게 2년 차 되기 때문에 1년 차 있고, 2년 차에 있고 그렇습니다.

○ 박병수 위원

그러면 내년도 사업 신청은 어떻게 공모 신청 계획은 있는가요?

○ 관광실장 안환옥

그 2억 가지고 금년 1년 차하고 내년 2년 차 사업을 진행하고 나중에 이게 최종 결과를 보고 평가를 해서 다음 공모 사업에 또 반영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건 다시 판단을 해 봐야 됩니다.

○ 박병수 위원

그러니까 성과 평가를 할 거예요.

○ 관광실장 안환옥

그렇습니다.

○ 박병수 위원

그 평가에 따라서 내년도 공모 신청이 그것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그때 그렇게 판단이 될 것입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들은 또 내년도에도 신청을 해서 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것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실장 안환옥

예. 알겠습니다.

○ 박병수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남부권 관광 사업인데 완도 군외 서부도로, 서부 경관도로 또 사업이 있죠?

○ 관광실장 안환옥

예.

○ 박병수 위원

그건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실장 안환옥

지금 남부권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지금 가리포 노을길 지역개발과에서 하고 있는 그 사업과 연계해서 해안경관도로 데크길을 조성하고 공원을 조성해 나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기본 설계는 지금 마무리가 됐습니다.

○ 박병수 위원

지금 당초 계획은 군외 갈문리 모감주나무 군락지 그쪽에서 지금 그 구간이 당인리까지인가요? 삼두리까지인가요, 그게? 그 구간 잘 모르는가요?

○ 관광실장 안환옥

당인리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 박병수 위원

당인리까지죠?

○ 관광실장 안환옥

예.

○ 박병수 위원

당인리에서 촬영지까지, 해신 촬영지까지는.....

○ 관광실장 안환옥

가리포 노을길로 해서.

○ 박병수 위원

노을길로 해서 40억 투자가 되죠?

○ 관광실장 안환옥

예.

○ 박병수 위원

그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 관광실장 안환옥

예. 그렇습니다.

○ 박병수 위원

그 나머지 서부 경관도로는 그러면 설계만 지금 나와 있는가요?

○ 관광실장 안환옥

예. 자세한 사항은 우리 시설팀장으로부터.

○ 박병수 위원

담당 시설팀장님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시설팀장 곽경주

관광시설팀장 곽경주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가 단계별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현재는 1단계 공사에 대한 설계를 지금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해안공원화 사업하고 해안경관길 사업 두 가지 사업으로 분류가 되겠고요. 해안경관길은 2개 코스로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해신 세트장에서부터 당인리 마을 앞까지 1구간이 되겠고요. 당인리 마을 앞에서부터 추모공원, 삼두리 추모공원까지 2구간이 그렇게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해안경관길 설계는 내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 박병수 위원

그러면 지금 빠진 데가 지금 추모공원에서 모감주나무 군락지 거기 공간이 지금 빠져 있어요.

○ 관광시설팀장 곽경주

예. 그렇습니다.

○ 박병수 위원

그건 계획이 없는가요?

○ 관광시설팀장 곽경주

거기는 현재 저희들이 기초 조사를 했었고, 토질 조사하고 기초 조사를 했었는데요. 거기는 상당히 경사도가 급경사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쪽 구간은 계획이 없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박병수 위원

아니, 주무 부서에서 계획이 없는 걸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은 뭔 말인가요? 그 사업비가 153억이죠?

○ 관광시설팀장 곽경주

예. 그렇습니다.

○ 박병수 위원

그렇게 계획은 처음 시작 구간이 갈문리 모감주나무 군락지에서부터인데 경사도가 심하다, 그걸 꼭 그렇게만 검토하지 말고 다른 방법도 있으리라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하단부로 해서 바로 바다와 연접된 곳을 데크길을 조성한다고 그랬으면 큰 사업비가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경사도도 없고 위험성도 없고. 그런 부분들을 좀 검토를 해 주시라고 앞번 전 관광과장한테 몇 번 주문을 했었는데 그것이 그대로 넘어가더라고요. 실장님이 오셨으니까 그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했으면, 연결을 하겠는가 그거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 관광시설팀장 곽경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사하고 또 기술적인 부분을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께 별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병수 위원

한번 그 사항은 같이 연결될 수 있도록, 그 시작점이, 중간에 가서 빼면 안 되잖아요. 제 생각은 처음부터 우리 군외면 소재지 원동부터 연결해야 한다. 그렇게 했는데 당초 계획이 그렇게 안 된다고 해서 그렇다면 처음에

계획했던 그것도 수목원 입구라고 했어요. 수목원 입구가 아닌 갈문리 모감주나무 군락지에서부터 한다고 해서 그렇게라도 연결해 주기를 바랐는데 그것이 또 안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한번 챙겨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관광시설팀장 곽경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궁희

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영식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관광실에서 추진 중인 노화 갈꽃섬 전복 오감여행 학교 운영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본 감사 1페이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사항에 대해서 가을섬여행에 대해서 잠깐 몇 가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혹시 관광실에서 작년에 추진했던 가을섬여행 축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 관광실장 안환옥

작년에는 신지명사십리 완토리니 일원에서 가을섬여행 행사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장소가 너무 거리가 먼 곳에 행사를 했던 것 같고 또 날씨 또한 매우 춥고 해서 늦게까지 하는 그런 부분이 좀 불편한 점이 있었다. 그래서 접근성과 기상 상태를 고려하지 않는 그런 부분은 좀 미흡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조영식 위원

올해는?

○ 관광실장 안환옥

금년에는 해변공원 쪽으로 옮겨서 적은 예산 가지고 규모 있게 추진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미흡했던 부분은 음식 거리, 음식 나눔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조영식 위원

올해 가을섬여행 축제 관람객이나 관광객, 주민들이 내용 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는 알차다는 평가가 대다수였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동한 것도 있지만은 독서문화 축제하고 그림숲 페스티벌과 연계해서 축제가 아주 알차게 됐다는 게 보통 대다수의 긍정적인 면입니다. 항상 축제를 하고 행사를 하다 보면 긍정적인 면만 있는 건 아니에요.

○ 관광실장 안환옥

예. 맞습니다.

○ 조영식 위원

그래서 좀 아쉬운 면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무대가 너무 높다. 학생들이 먼저 식을 하기 전에 오프닝 무대를 하는데 대부분 학부모들이 얼마나 열정적입니까. 와서 하는데 아이들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너무 높아서. 물론 그것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현장에서 우리 실장님한테 물어보고 주위에 누구,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멀리서 보이기 위해서 너무 높게 했다고 그러는데 아마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실장 안환옥

예. 알겠습니다.

○ 조영식 위원

또 하나는 무대 뒷배경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학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이 행사를 치르는데 검정색을 입고 왔는데요. 그런데 주 무대 뒤 배경까지 전부 다 검정색이야. 그래서 보이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그런 면도 참고하시고 항상 행사를 하다 보면 알찬 면도 있고 또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면도 있지만 종합적인 평가는 가을섬여행 축제는 대부분 관광객, 관람객, 주민들이 알차다, 잘했다는 소

리와 함께 아쉬운 면은 우리 행정에서 참고하셔서 다음에 이런 것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실장 안환옥

예. 알겠습니다.

○ 조영식 위원

62페이지 보면 2024년에 비교하면 방문객이 많이 줄었어요.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관광실장 안환옥

아까 박재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주요 관광지에 대한 방문이 줄어드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 안 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치유 페이, 방문의 해 맞이 치유 페이를 하다 보니 관광지보다는 음식점이나 카페라든지 이런 영수증 첨부하려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많이 있어서 관광지 방문보다는 이렇게 미식 투어 이런 부분에 많이 방문을 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그렇지만 완도군 전체적인 방문객 수는 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조영식 위원

아니, 실장님 지금 62페이지 노화 갈꽃섬 전복오감 여행 학교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 관광실장 안환옥

예. 잘못 답변했습니다.

○ 조영식 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부분도 또 일맥상통합니다. 방문객 수를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올해 10월 기준이지만 많이 좀 줄어서 있는데 보통은 230명이면 월 한 23명, 그렇죠?

○ 관광실장 안환옥

예.

○ 조영식 위원

연말까지 소급 적용하더라도 한 300명, 280에서 300명 방문한다면 작년보다는 그래도 한 150명이 줄어 있거든요, 방문객이. 아까 여기 보니까 문제점에서도 지금 나와 있지만 혹시 숙박시설만 운영하는 데 숙박실이 지금 8실이에요. 그렇죠?

○ 관광실장 안환옥

예.

○ 조영식 위원

8실을 1실에 1명씩 해서 3일이면 월 방문객 수하고 거의 얼추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나머지 27일은 그냥 방문객 수 상관없이 비어 있는 공실로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실로 1실에 1명이 올 수도 있고 2인실도 될 수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 관광실장 안환옥

맞습니다.

○ 조영식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 우리가 재고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지금 본 위원도 생각되니까 그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실장 안환옥

예.

○ 조영식 위원

문제점이 개매기 체험장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하나, 또 체험장 운영 주체가 없다고 했어요. 혹시 운영 주체가 없는 상태라고 하는데 해결 방법이 좀 있습니까?

○ 관광실장 안환옥

청년들의 수가 갈수록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손님들이 오면 청년들이 해야 될 역할들이 많은데 청년들이 없다 보니 마을에서 이걸 참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지금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개매기 체험은 힘들더라도 거기가 물이 나면 갯벌이 보이기 때문에 갯벌에서 조개도 캘 수도 있는 거고 또 바위에서 고동도 잡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갯벌 체험이나 낚시 체험 쪽으로 유도

를 좀 해서 운영해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조영식 위원

혹시 개매기 체험은 2년 했습니까? 2년 하고 물론 이게 지금 성과가 안 나와서 무슨 특별하게 없겠지만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갯벌 체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체험 위주로 해야 여기 8실에 대한 기본이 나오지 오히려 27일 이 실이 다 차고 3일 공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역으로 3일 그것도 1인 해서, 23명이면 1일 해서 8실 하면 3일이면 끝나고 27일은 공실이라는 게 참, 안 받겠죠? 그러면서도 관광객은 줄어드는데 올해도 배수로 정비 2,000만 원, 최근에는 태양광 발전 시설도 4,000만 원을 또 투자했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자해야 될 사유가 있습니까?

○ 관광실장 안환옥

지역 소멸 이런 지자체로 되어 있고 또 섬이 침체되어 가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런 체류형 관광 인프라들을 구축시켜 놨으니 이걸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지어만 놓고 활성화가 안 되니까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지을 때 이 활용 방안을 잘 검토해서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 개선해야 될 부분이 하나하나 또 나타나더라고요,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지원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조영식 위원

어쩌면 이 행정사무감사가 오히려 반등의 계기가 되고 내년 예산 확보하는 데 또 중요한 기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잘 못했던 것들 반성해서 새롭게 어떻게 하면 이걸 활성화시킬 것인가 어느 정도는 지켜봐야 되지 않겠어요, 지어놨으니?

○ 관광실장 안환옥

예.

○ 조영식 위원

이게 국비 사업이죠?

○ 관광실장 안환옥

예. 맞습니다.

○ 조영식 위원

전환 기간이 한 몇 년이고 언제까지입니다, 이게?

○ 관광실장 안환옥

존속 기간은 한 3년이고 24년까지였습니다.

○ 조영식 위원

24년까지였습니까?

○ 관광실장 안환옥

예.

○ 조영식 위원

그래서 24년부터 이렇게 방문객이 현저하게 줄었을까요?

○ 관광실장 안환옥

그건 아닌데요.

○ 조영식 위원

아마 우리 행정인도 그리고 또 의회도 그러고 여기 계신 공직자들은 전부 다 이런 데이터를 보면 실로 '행정은 뭐 하지?' 이런 의문을, 먼저 선입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방문객 증가에 대해서는 일일이 또 모니터도 많이 하시고 해서 좋은 데이터가 이런 데 올라오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 관광실장 안환옥

예. 알겠습니다.

○ 조영식 위원

관광객은 또 오지 않고 공공사업 등 건물은 많아지고 있습니다. 실장님, 관광객 유치 전략을 다시 검토해 보시고 개선점이 있는 건물은 개선해서 추진하여 주시고 필요가 없는 건물은 다른 용도 등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 관광실장 안환옥

예. 잘 알겠습니다.

○ 조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궁희

조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정욱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우리 박병수 위원님하고 조영식 위원님이 많이 했기 때문에 간단히 지적만 몇 가지 할게요. 우리 군 축제라면 3대 축이죠. 지금 장보고수산물, 청산도슬로걷기, 가을섬여행 축제.

○ 관광실장 안환옥

예. 그렇습니다.

○ 최정욱 위원

여기서 우리 청산도가 예전에 비해 많이 축소됐다는 느낌을 갖고 있는데 우리 실장님 지금 와서 볼 때 어때요?

○ 관광실장 안환옥

저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를 주변에서 많이 하고 있고 이제는 어떤 전환을 해야 될 시기가 오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최정욱 위원

사실은 우리 완도만의 특별한 거라고 말할 수 있다면 청산도거든요, 어느 것에 빼놓지 않고. 완도는 그리고 또 청산도가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런 자연적인 거나. 청산에 와서 정말 좋아하지 않고 간 사람이 있어요, 경관이나 이런 걸 보고? 그런데 가면 갈수록 우리 투자나 축제의 질이 떨어져서 오고 간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많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실장님이 와서 다시 한 번 청산도 좀 더 깊이 있게 챙겨봐야 될 것이다. 중요한 게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게 섬이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숙박을 하게 돼 있어요. 완도에서 자든 청산에서 자든, 다른 축제와는 달리. 그런 점에서 생각을 하고 깊이 해줬으면 좋겠고 행정사무감사 때 8대 때도 했고 행정사무감사에 지적 사항이 돼 있어요, 축제. 축제 위원들이 지금 있잖아요, 다들. 거의 형식적으로 용역사에서 와서 보고하면 승인만 하면 끝나는 걸로 지금 계속 그렇게 가서 그걸 몇 번 지적을 했는데 행사가 축제가 끝나면 다음 날 그다음에 뭐가 잘못됐고 뭐가 부족했고 어떤 거는 성공했는지 추려서 그때부터 내년에 갈 행사를 준비를 해라. 그렇게 하고 또 다른 축제 잘된 데가 뭔가 이유가 있어요. 그냥 잘된 게 아니에요. 그만큼의 거기 가서 보면 남다르게 몇 가지가 다른 게 분명히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를 벤치마킹 주민들과 꾸준히 다녀서 우리 완도에도 어떤 거를 접목하면 좋겠는가 미리 그런 걸 갖고 해서 준비해서, 충분히 한 1년 전부터 준비를 해서 하면 좋은 축제가 나올 거라고 그걸 한 세 차례 정도 이렇게 지적해 놓은 게 있어서 그렇게 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잘 안된 것 같고 관광실로 됐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이 그때하고는 다르게 실로 바뀌진 만큼 그걸 한번 계획해서 정말 좋은 축제가 되려면 지역민과 전문가와 우리 행정이 토론을 많이 해야 되고 많은 걸 봐야 돼요. 그래야 좋은 축제가 되지 용역사에서 와서 그냥 자기들의 필요한 만큼의 어떤 용역을 해 와서 우리 군에다 제시하고 주민들, 거기 위원들은 그냥 그걸 보고 승인하고 이렇게 가면 그 축제는 항상 부족한 부분도 많을 것이고 항상 아쉬운 점이 많이 있어서 그걸 했는데 이번에도 다시 한 번 그걸 지적하니 꼭 바로바로 준비해서 벤치마킹도 다니고 좋은 데 잘하는 데 가서 좋은 점

있는 건 우리한테 좀 접목도 시키고 해서 다음에 축제는 정말 잘될 수 있게 새 관광실로 승인한 만큼, 승진한 만큼 실장님이 관심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실장 안환옥

예. 잘 알겠습니다.

○ 최정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궁희

최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호 위원

실장님, 오늘 병원에 갔다 실장님한테 질문하려고 지금 급하게 내려왔습니다. 오영호 팀장이 답변해도 됩니다. 금일 명품해변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 주세요.

○ 관광실장 안환옥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금일 해수욕장 명품해변 조성 사업은 총 39억 원 사업으로 금년까지 사업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부터 해변 숲 복원과 노후 시설 리모델링, 탐방로와 물놀이장 등 각종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해서 마무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조인호 위원

사업이 2건인데 1건은 100% 완료되고 1건은 98%인데 정산은 됐습니까?

○ 관광실장 안환옥

금년까지 사업 기간이기 때문에 아직 정산을 마무리를 못 했습니다.

○ 조인호 위원

100% 한 것도 아직 안 돼 있어요?

○ 관광실장 안환옥

예.

○ 조인호 위원

액수가 큰데 중간 정산 같은 건 없어요?

○ 관광실장 안환옥

그것은 최종 마무리를 한꺼번에 다 해서 정산을 하기 위해서 금년 연말까지 해서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 조인호 위원

연말에는 확실히 되죠?

○ 관광실장 안환옥

예.

○ 조인호 위원

그렇게 정산을 하면 정산 끝나고 자료를 저한테 제출 한번 해주세요.

○ 관광실장 안환옥

예. 알겠습니다.

○ 조인호 위원

그리고 월송리 그 부분하고는 민원거리가 있었는데 그거는 어떻게 해결됐어요?

○ 관광실장 안환옥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이 안 된 부분이라서요.

○ 조인호 위원

오영호 팀장이 알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송리 토지를 무단 사용해서 문제가 돼서 해결됐는가 내가 그걸 확인하려고 그러는데.

○ 해수욕장운영팀 오영호

그 부분은 제가 인수인계 받았을 때 어촌계에서 물양장으로 사용한다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기재부 땅이기 때문에 데이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촌계에서 사용하는 물양장으로 하기 위해서 해양정책과에서 그때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그쪽에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 조인호 위원

그럼 민원은 해결됐네, 그러면? 마을하고는 이제 분쟁이 없네요?

○ 해수욕장운영팀 오영호

지금 우리 관광실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 주

민하고는 별문제는 없는데요.

○ 조인호 위원

거기 사업할 때 문제가 생긴 거거든. 명품 사업할 때 그 땅이 월송리 땅이라고, 거기가 지금. 그래서 문제가 생겼는데 그럼 해결됐는가, 그 부분?

○ 해수욕장운영팀 오영호

시설물을 안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조인호 위원

안 지었어?

○ 해수욕장운영팀 오영호

예.

○ 조인호 위원

민원거리는 확실히 해결됐죠, 그러면?

○ 해수욕장운영팀 오영호

그렇습,

○ 관광실장 안환옥

제가 와서 전혀 그 부분에 대한 거론이 전혀 없었거든요.

○ 조인호 위원

그럼 다행이네. 몇 번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오더구먼 조용하니까 내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물어보려고 지금 오늘 처음 물어보는데 그럼 내가 중간에 확인하기로 하고. 한 가지 더 이 부분은 우리 실장님, 완도에 가면 빙그레 생선구이 있죠?

○ 관광실장 안환옥

예.

○ 조인호 위원

그거는 본인들이 개발해서 지금 그렇게 손님 영업을 잘하고 있죠?

○ 관광실장 안환옥

예. 맞습니다.

○ 조인호 위원

그럼 해양치유밥상은 군에서도 도움을 좀 줬죠?

○ 관광실장 안환옥

예. 그렇습니다.

○ 조인호 위원

그러면 그 식당 2개 빼놓고 완도읍에서 손님들이 예약을 잡아주라고 하면 보낼 만한 식당이 몇 군데나 됩니까?

○ 관광실장 안환옥

단체 손님을 한다고 하면 단체를 수용할 수 있는 음식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 조인호 위원

제가 지금 한 16년째 하고 있는데 보니까 개성순두부 다 개인들이 개발하는데 잘하는데 행정에서 조금 연관돼서 해놓은 데는 다 이 부분이 정착이 안 되더라고요. 해양치유밥상도 이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왔더라고 몇 번 가 보니까. 그런데 완도읍이 우리 관광객을 맞이하려면 그런 식당이 몇 군데는 더 있어야 돼요. 영광 같은 데 법성포 가면 면 단위에도 그렇게 활성화가 돼서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우리 완도도 그런 걸 대응을 안 하면 맨날 식당들을 지원해 주고 이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 실장님이 오셨으니까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실장 안환옥

지금 그런 부분이 저희 부서에서도 파악이 돼서 음식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음식점을 마련을 좀 하자. 그래서 치유한상 개발 및 운영 지원 사업을 좀 해보겠다. 그래서 7개 업소를 선정을 해서 지금 컨설팅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음식을 개발한다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식당에서 했던 것을 좀 더 고퀄리티 있게 해서 먹을 수 있게끔 하자. 예를 들면 군외면에 낙지 연포탕 또 고금면은 굴보쌈, 약산면은 염소탕, 청산면은 전복해초비빔밥 이거 기존에 하고 있는 음식점들을 고급화를 시키든

지 아니면 우리 지역에 맞는 음식들로 해서 치유한상을 개발해서 지원해 보자, 이렇게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 조인호 위원

실장님, 지금 읍면에는 진짜로 식당들이 다 메뉴도 좋고 잘되고 있어요. 지금 완도 체도권 상권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행사하면 행사할 때마다 숙박시설이나 모든 이런 혜택은 다 받거든. 받으면서 솔직히 말해서 섬에서 행사하고 그러면 큰 의미 없이 섬사람들끼리 살아 나가는 거예요. 그럼 완도가 사람이 많이 오게 하려면 먹거리 이것이 충분해야 되거든. 왜냐하면 저희들도 손님 어디 예약해 주려면 예약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할 때하고 다르게끔 뭔가를 좀 보여주십시오.

○ 관광실장 안환옥

예. 알겠습니다.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 조인호 위원

아니, 부담이 아니라 진짜로 이걸 해야 완도가 살아난다니까, 일단 먹거리가 풍부해야.

○ 관광실장 안환옥

예. 알겠습니다.

○ 조인호 위원

한 식당이 한 가지라도 똑바로 하게끔 그렇게 계몽을 해 나가세요.

○ 관광실장 안환옥

예. 알겠습니다.

○ 조인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궁희

조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민 위원

책을 보다 보니까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겨서 한번 여쭤볼게요. 58페이지 보시면 남도에서 한 달 여행하기라고 있거든요. 이게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여행 기간에 보니까 6박 7일이에요. 제목은 한 달 여행하기인데 여행 기간은 6박 7일이고 지원금이 1인당 최대 10만 원인데 이게 하루에 10만 원인가요?

○ 관광실장 안환옥

예. 1일 10만 원.

○ 지민 위원

1인당?

○ 관광실장 안환옥

예.

○ 지민 위원

그러면 2명이서 1팀이 오면 2명이서 2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거네요?

○ 관광실장 안환옥

예. 그렇습니다.

○ 지민 위원

그러면 최대 여행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 관광실장 안환옥

여행 기간은 6박 7일로.

○ 지민 위원

7일까지만 지급을 하는 거죠?

○ 관광실장 안환옥

예, 7일까지만.

○ 지민 위원

한 달 여행하기여도?

○ 관광실장 안환옥

예.

○ 지민 위원

그럼 1인당 그러면 70만 원까지 지급을 할 수 있는 거네요?

○ 관광실장 안환옥

예. 그렇습니다.

○ 지민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조건은 어떻게 달아요? 어떻게 증명을 하나요?

○ 관광실장 안환옥
여기에 직접 체험한 관광지나 숙박, 먹거리 이런 부분을 체험했던 부분을 SNS에 홍보를.
○ 지민 위원
홍보하는 거를 보여주는 거죠?
○ 관광실장 안환옥
예.
○ 지민 위원
하루, 첫째 날 이렇게 했고, 두 번째 날 이렇게 했고.
○ 관광실장 안환옥
예. 그렇습니다.
○ 지민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금방 보다가 이걸 어떻게 올렸을까 하고 확인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우리 보통 이런 걸 확인하고 하려면, 검색을 하려면 여기에 대한 제목이 한 달 여행하기잖아요. 그래서 완도에서 완도 한 달 여행하기를 검색을 해봤더니 여기는 9팀에 16명이거든요. 그러면 9팀에 대한 사진들이 올라와야 되는데 해시태그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한 사람이 올린 것밖에 안 보여요. 지금 현재 지금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SNS에 올렸을까? 이분들이 올렸던 걸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이 사업에 대해서 그냥 궁금해서 이게 1인 10만 원 이게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나중에 이거 SNS에 어떻게 올렸는지, 확인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실장 안환옥
알겠습니다.
○ 지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궁희
지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실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명사십리 제2주차장 음식문화거리 조성사업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왜 수년째 지연되고 있는지 그 문제점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실장 안환옥
힐링海 프로젝트 사업으로 음식거리 조성을 하겠다고 해서 사업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힐링海 완도 프로젝트는 총사업비가 한 102억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음식거리 조성하는 부분은 55억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1주차장 부지 내에다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3년 10월에 공모 사업으로 선정돼서 작년도 24년도에 기본 계획하고 시행계획 검토 협의회를 거쳤고 금년 전라남도 승인을 받아서 5월에 고시를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고시한 이후에 건축기획 용역을 착수하고 내년에 실시설계를 통해서 본격적인 공사는 26년 6월부터나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허궁희
그렇게 사업 설명도 없이 계속 지연이 되니까 이렇게 지역민들은 계속 행정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어요. 그리고 완도 하면 그래도 명사십리가 제일 먼저 떠오르지 않아요? 그마만큼 관광객 수요도 많고 또 그런데 먹거리가 제일 부족한 게 지금 현실이에요. 지금 오신 분들이 밥 한 끼 해결하려면 줄 서 있죠?
○ 관광실장 안환옥
예.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허궁희
그런 그곳을 오겠습니까? 우리 여덟, 일곱 위원이 전부 다 지적했습니다. 왜 관광객이 주느냐, 그 원인 중의 하나가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사십리 1주차장이 됐든 2주차장이 됐든 음식문화거리

조성 사업을 빨리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체류형 관광 기반 확충을 위해서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번도 설명 없이 이렇게 기다리게만 하고 있고 또 그 내용을 아신 분들은 계속 저한테 묻습니다. 그런데 항상 물어보면 추진 중이라는 말밖에 없어요. 언제 어떻게 시설 설계를 해서 언제 시설이 된다, 이런 내용을 이제 처음 들어본 거예요. 오늘 듣는 얘기는 확실한 겁니까?

○ 관광실장 안환옥

예. 확실한 겁니다.

○ 위원장 허궁희

꼭 이렇게 추진을 해서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관광객들이 와서 눈살 찌푸리지 않고 정말 완도 하면 “한 번 더 가자.” 이 말이 나오게 해야 됩니다. 우리 완도가 부족한 게 그런 점이 부족하다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참고해서 꼭 약속했던 그 부분은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실장 안환옥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궁희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실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감사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 활동을 종료하고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0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8인)

허궁희　박재선　박성규
지　민　박병수　조영식
최정욱　조인호

○출석공무원

기획예산실장	한희석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
관광실장	안환옥

○ 전문위원 : 박영민

○ 전문위원 : 전문희

○ 속 기 사 : 임은주

제334회 완도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11월 26일(수)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 해양치유담당관
   - 행정지원과
   - 세무회계과
   - 민원봉사과
   - 체육진흥과

부의된 안건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 해양치유담당관
   - 행정지원과
   - 세무회계과
   - 민원봉사과
   - 체육진흥과

(09시30분 개의)

○ 위원장 허궁희

시간은 좀 남았습니다마는 준비가 됐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성원이 됐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완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의 수감 대상은 해양치유담당관, 행정지원과, 세무회계과, 민원봉사과, 체육진흥과입니다. 그럼 먼저 해양치유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

겠습니다. 부서 팀장 소개 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치유담당관

○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입니다. 해양치유담당관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약산 치유의 숲 해수 온열 시설 개선 및 이관 절차 등 5건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동료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해양치유기획팀의 김남수 팀장과 정승환 주무관, 해양치유마케팅팀의 이지현 팀장과 김다은 주무관, 해양바이오팀의 김종표 팀장과 김진웅 주무관, 공단지원팀의 김재혁 팀장과 곽규환 주무관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1페이지, 허궁희 위원님께서 시정 요구하신 약산 치유의 숲 해수 온열 시설 개선 및 이관 관련입니다. 시설 점검 결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처럼 녹슨 배수관과 설비의 교체가 필요하였고 더불어 바닥 기계실 누수로 인한 전기 감전 사고가 우려되었습니다. 이에 물탱크 교체는 9월에 온열치유실 누수 문제, 전기 배관으로 빗물 유입은 10월에 보수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약산 해양치유체험센터는 올해 3월 산림휴양과와 협의하여 시설물 관리 이관을 완료하였습니다만 시설물의 하자 원인이 저희 부서에 있었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정상 운영될 때까지 협력하고 있습니다. 시설의 이관과 운영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정상 운영이 조속히 될 수 있도록 산림휴양과의 협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최정욱 위원님께서 권고하신 해양치유관리공단 경영 안정화 방안 마련입니다. 해양치유센터의 운영 안정화를 위해서는 완도해양치유관리공단의 안정화와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게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저희 과에서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단과 소통하고 업무 추진 방향과 민원 접수 사항을 공유하기 위해서 해양치유담당관과 공단 간 팀장급 이상 연석회의를 매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책임 있는 업무 처리를 위해 분기별로 복무, 예산·회계, 시설 및 물품 관리 등의 사항에 대해 관리 감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는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을 통한 센터 운영 자동화 시스템 구축으로 이용객들은 물론 관리자인 직원들의 불필요한 일을 줄여주는 등 운영 편익을 증대시키려고 준비 중에 있고 공단의 경영 수익 향상을 위해 보다 많은 이용객이 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본과 프리미엄 프로그램 외에 사전 예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2 프로그램과 기본과 프리미엄 중간 단계인 디럭스 등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수익률을 증대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공단 직원들과 함께 매주 분야별 시설 종합 점검을 실시하는 등 시설물 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최정욱 위원님께서 권고하신 고려대학교 수련원 활용 및 부지에 대한 대책 마련 사항입니다. 고려대학교 수련원은 우리 군과 고려대학교 간의 양해 각서 체결에 따라 2003년 청해진 수련관 조성이 계획되었으나 20여 년간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곳입니다. 고려대학교의 투자 계획 미이행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2024년 4월 고려대 측의 청해진 수련관에 대한 투자 입장과 양해각서 미이행에 따른 관광지 조성을 변경하겠다는 행정 절차 공문을 고려대 측에 통지하였으며 2024년 8월 고려대로부터 재정 여건

상 시설 투자가 여의치 않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2025년 5월 신지명사십리 조성 계획을 변경하여 고려대 수련원의 부지의 건축물과 주차장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 전체를 녹지 시설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지민 위원님께서 권고하신 해양치유지구 지정 추진 사항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해양수산부에서 당초 해양치유지구 지정을 2025년 중 추진하겠다는 의견에 따라 신속하게 대비하고자 관련 용역을 진행하여 지난해 말 용역을 완료하였으나 현재 해양치유지구 지정 추진 자체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연되고 있는 원인으로는 우리 군의 준비 사항이 부족한 것은 아니고 해수부에서는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는 입장입니다. 이에 우리 군의 대응 방안으로는 전국의 해양치유를 추진하고 있는 4개의 선도 지자체와 함께 해양수산부에서 분기별로 개최하고 있는 해양치유 활성화 협의체를 통해 해양치유지구 조기 지정의 필요성을 지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 협의체를 통해 해양치유지구 지정 이외에도 해양치유 프로그램 정부 공식 인증, 해양치유사 국가 자격증 도입 등 관련 제도 시행에 대해서도 신속한 추진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민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이렇게 지연되다 보면 용역을 다시 해서 군민 혈세가 다시 드는 것이 아니냐?”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안전장치를 해 두었습니다. 해수부에 기존 용역 결과가 유효하다는 답변을 받아 놓은 상태이고 용역사와도 혹여라도 수정하거나 보완 사항이 발생하더라도 우리 군의 요구에 맞춰 주겠다는 확약을 받고 용역 준공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해수부의 해양치유지구 지정 고시 내용에 따라 제안서 제출에 빈틈이 없도록 하여 해양치유지구 지정 승인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지민 위원님께서 권고하신 해양치유 전문인력 관리입니다. 지난 2023년부터 우리 지역 전문인력 양성 기관인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2년간 해양치유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했습니다. 지금까지 기본 및 고급 과정에 총 75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하였으며 전원 완도군민입니다. 총 14명이 근무하다 현재는 11명이 완도해양치유관리공단에서 근무하며 우리 군의 해양치유 산업 발전을 위해 힘을 쏟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해양치유 전문인력 관련 제도 미비에 따른 자체 교육 지속에 어려움이 있어 임시 중단한 상황으로 해양수산부에 관련 제도의 조기 시행과 전문인력 양성 교육의 필요성, 그리고 교육비 지원에 대해 지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향후 해양치유 전문인력 교육 재추진 시 교육생에 대한 안내와 감독을 철저히 하여 교육비 지원에 따른 불법 전입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치유담당관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궁희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해양치유담당관은 증인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정욱 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군민 제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치유센터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이 맞죠?

○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예, 맞습니다.

○ 최정욱 위원

그러면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는 국가재정법과 관련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도 맞죠?

○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예, 맞습니다.

○ 최정욱 위원

그런데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27조에 따라 변경 계약 시 공사를 중지하고 해양수산부 장관을 걸쳐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 처리한 후 일정 보고를 승인하고 변경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재개해야 하는데 순서대로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일정 보고 승인 후 변경 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채 선공사를 시행한 것 알고 계신가요?

○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예, 알고 있습니다.

○ 최정욱 위원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변경 승인 내에서 승인 후 설계 변경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변경을 반영하지 못했죠?

○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예, 그렇습니다.

○ 최정욱 위원

그러면 초과한 금액을 시공사로 추가로 지급했습니까?

○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예, 지급은 하였고요. 저희 자체 판단은 아니고 대한상사중재원의 판정 결과에 따라 지급을 했습니다.

○ 최정욱 위원

관련 사항의 파악을 근거 자료와 설명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예, 그러겠습니다.

○ 최정욱 위원

이어서 해양치유센터 건축을 위해 2020년에 ㈜송도건설산업 및 유호산업개발에 계약을 했었죠?

○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예, 그렇게 했습니다.

○ 최정욱 위원

계약금이 얼마죠?

○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금액이.....

○ 최정욱 위원

파악이 안 됐으면 팀장이 답변해 주세요. 일어서서 하세요.

○ 공단지원팀장 김재혁

공단지원팀장 김재혁입니다. 총사업비 변경은 당초 320억에서 354억으로 변경해서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 최정욱 위원

변경 체결을 보면 2022년에 체결했는데 계약금액은 123억 7,155만 5,910원, 약 1억 9,000 중 계약금에 따라 기성금을 몇 회까지 지급했을까요?

○ 공단지원팀장 김재혁

계약 금액은 4회까지 지급한 걸로 지금 파악했습니다.

○ 최정욱 위원

9회까지 아닌가요?

○ 공단지원팀장 김재혁

그거를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본 거는 4회까지였습니다.

○ 최정욱 위원

확인해 보시고. 그러면 9회까지 지급한 기성이 제보에 의하면 142억 2,055만 원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이것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됐겠네.

○ 공단지원팀장 김재혁

그 부분을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최정욱 위원
확인해 보고 답 주세요.
○ 공단지원팀장 김재혁
예.
○ 최정욱 위원
이렇게 되면 계약금을 초과한 금액을 기성금으로 지급하여 지방계약법을 중대하게 위반하였다는데 사실인지? 이거 사실이 맞겠죠, 이렇게 되면, 계약법에?
○ 공단지원팀장 김재혁
예, 맞습니다.
○ 최정욱 위원
그것도 한번 관련 제출해 주시고요, 자료.
○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예, 그러겠습니다.
○ 최정욱 위원
또한 해양치유센터 건축공사의 경우 법령에 따라 총사업비 승인 대상 사업으로 설계 변경에 따라 당초 승인된 총사업비를 초과했어요. 그러니까 공사를 중단해 놓고 기획재정부 승인 후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걸 위반하고 기성금을 준 것, 이것이 맞죠? 위반하고 기성금을 준 것이 맞죠?
○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총사업비에 증액된 사유에 있어서는 저희가 공사비 외에 들어가는 돈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편입 토지 보상비라든지, 주변 경관 조성, 치유센터 조성에 들어가는 돈은 맞지만 건립, 건축 비용에서는 빠지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대한상사중재원 비용까지, 이 부분은 기재부나 해수부에서 승인을 해 주는 대상은 아닙니다.
○ 최정욱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기획재정부의 공사를 금액이 추가되면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얻은 후 공사를 중단했다가 설계 변경을 해서 그 설계 변경에 의한 재계약을 해야 맞잖아요.
○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예, 일반적으로는 맞습니다.
○ 최정욱 위원
그렇죠?
○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예.
○ 최정욱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보면 법령을 우리가 위반한 거지, 맞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맞잖아요.
○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예, 맞습니다.
○ 최정욱 위원
해양치유담당관께서는 이 지적 사항에 대하여 관련 자료와 함께 설명 및 해명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예, 알겠습니다.
○ 최정욱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예, 맞습니다.
○ 최정욱 위원
잘해 주시고. 담당관님 다른 업무도 지금 다 파악이 잘 안됐죠?
○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예, 그렇습니다.
○ 최정욱 위원
그랬을 것 같습니다. 아는 대로 해 주시고 팀장들이 또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해양치유담당관에서 추진 중인 주변 공원 정비 사업과 운영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총사업비 예산을 받아서 추진 중이죠? 10억, 작년에.
○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예.

○ 최정욱 위원

거기에 보면 야간 조명 및 야외 쉼터 조성을 추진 중이고 치유센터 내부 환경 사업을 계약 체결 후 공사 중지로 돼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내부의 일부를 리모델링한 사업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저희는 당초에는 올해에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공사를 하려면 3주 정도가 걸린다고 업체하고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3주 동안 운영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요. 중대재해법이나 이용객의 안전상 문제 때문에 휴관을 하고 공사를 해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 인피니티 풀 공사를 하는 시기에 같이 하는 게 맞지 않겠냐 해서 내년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최정욱 위원

그때도 매년 우리가 실내 공사를 하니까 "왜 이렇게 매년마다 하느냐? 예산을 또 이렇게 많이 요구를 하느냐?" 했더니 시급하다고 그때는 분명히 했고 그런 정도 시일도 걸린다고 그랬는데 왜 똑같은 지금 이야기가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일은 의회 승인을 할 때 그렇게 질문을 하면 제대로 이행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아주 급한 것같이 했다가 또 이렇게 늦어졌어요. 그럼 내년 3월에 지급한다는 이야기인가요?

○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예, 같이 해서 휴관을 이중으로 하지 않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최정욱 위원

또 3월에는 확실히 완료될 수 있을까요?

○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저희는 지금 설계까지 다 마무리 돼 있고요. 착공만 하면 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 최정욱 위원

아까 3주? 3주 예상한다고 했죠?

○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예, 맞습니다.

○ 최정욱 위원

꼭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예, 알겠습니다.

○ 최정욱 위원

그리고 해양치유센터 프로그램에 사용 중인 재료에 대하여 구입 목록을 받아봤습니다. 2024년 때는 4억 8,000만 원, 2025년은 2억 3,000만 원이 재료비에 사용됐는데 자료 기준이 2025년 11월로 되어 있습니다. 2024년도와 금액 차이가 크게 나는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죠?

○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아무래도 개관 초기이다 보니까, 그리고 화장품을 제조하는 업체에 구매하는 기본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최정욱 위원

그런데 우리 홍보는 2024년보다 2025년 올해에 사람이 더 많이 왔다고 홍보를 하는데 많이 오면 재료비가 더 들어가야 맞는 거 아닌가요?

○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저희 화장품은 지하에 냉장 시설이 있는 곳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유효 기간도 1년이 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구입을 했더라도 올해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 최정욱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구입해 놓은 게 재고로 남아서 올해 더 써서 올해 작게 들어갔다는 이야기인가요?

○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예, 그리고 저희가 재고가 있는 상황에서 추가 구매는 옳지 않다, 재고부터 소진을 해서 재고의 날짜 정리를 했습니다.
○ 최정욱 위원
그래서 2024년 때 많이 구입을 했다, 이 말이죠?
○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예.
○ 최정욱 위원
그래서 2024년도 거를 2025년도에 같이 사용하니까 그렇다는 이야기죠?
○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예, 24년도에 예상보다 많이 구입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최정욱 위원
과장님, 1년에 프로그램 재료 구입으로 지출되는 구입 금액은 얼마로 보십니까?
○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지금 2024년에는 2억 7,500 정도가 됐고요. 올해는 올해도 그 정도로는 구입은 했습니다.
○ 최정욱 위원
이제는 2년 정도 해 봤으니까 금액 어느 정도 파악이 되지요?
○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프로그램을 16개의 테라피실을 운영하다 보면 수익이 나는 테라피가 있고 운영하면 수익이 적은 테라피가 있습니다. 운영 비용이 많이 드는 테라피실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정을 해야 되겠다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최정욱 위원
하여튼 이제는 2년 정도 했으면 그런 예산에 벗어나지 않게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예, 잘 알겠습니다.
○ 최정욱 위원
그리고 담당관님 지난 군정 질문 시 군수님께 "공단이 위탁이냐, 대행이냐?" 하고 본 위원이 질문을 했었습니다. 위탁사업과 대행사업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한 이유는 첫째, 사업에 관한 분쟁을 제기할 경우 누구를 피고로 해야 하는지 피고적격의 문제. 둘째, 지방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문제. 셋째, 민간의 원하청과 유사한 관계 형성에 따라 단체 교섭 등 노동 관계에서의 사용자의 문제. 넷째, 사업 수행 주체 변경 시에 종사자 고용 승계 등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집행부의 위탁사업과 대행사업의 법적 경계에 불명확한 구분에 대하여 2024년도 발표된 한양대학교 장호진 교수 논문, 지방공공기관 위탁사업 및 대행사업의 법적 근거에 따르면 위탁사업은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 · 검사 · 검정 · 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 ·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 ·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는 근거로 대행사업은 지방공기업법 제71조 제1항에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위탁과 대행에 대한 집행부의 사업 구분에 대한 명확한 인식 부족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관님?
○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위원님께서 지난 1년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저희한테 말씀하신 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방 공기업의 운영 형태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에서 결정

을 합니다. 12월에 이렇게 결정을 하는데요. 저희가 정책위에 사전 문의를 한 결과 올해는 답을 주기로 했는데 저희는 특정 공단으로 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특정 공단으로 되는 것이 기정사실화됐기 때문에 이에 맞춰서 저희 공단과의 기존에 계약 체결된 계약서상의 대행으로 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하고요. 그리고 공단의 책임과 권한에 대해서도 보다 권한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수익 사업에 대한 내용도 추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최정욱 위원

지방공기업법에 명확한 위탁과 대행업이 구분이 돼 있어요, 그렇죠?

○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예.

○ 최정욱 위원

그런데 직원은 그동안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대행업이다, 올해 업무보고에도 우리 담당관님이 대행업이라고 내가 분명히 질문했을 때 대행업이라고 했잖아요.

○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예.

○ 최정욱 위원

그런데 군수님이 갑자기 위탁이라고 했던 내용은 뭐예요, 그 이유는?

○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군수님께도 저희가 위탁과 대행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보고를 드렸고요. 애매한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 최정욱 위원

그러면 지금 다시 행정사무감사예요. 전 위원들도 있고 의회도 다 있지만 여기서 명확하게 한다면 지금 위탁이 맞는가요?

○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책위원회의 사전 답변도 받았기 때문에.

○ 최정욱 위원

맞죠?

○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예, 맞습니다.

○ 최정욱 위원

앞으로는 반드시 한 목소리가 나야 맞겠죠?

○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앞으로 이제 대행이라고 그러는 건 없을 것 같습니다.

○ 최정욱 위원

용어 자체는 이제 없겠죠?

○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예, 혼선은 없을 것 같습니다.

○ 최정욱 위원

왜 그러냐 하면 행정은 군수는 위탁인데 직원은 다 대행이다, 이게 누가 들었을 때 이거 참 부끄러운 일이 맞겠죠?

○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예.

○ 최정욱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최근에 군정 보충 질문 답변서를 받아왔는데 특정 공단이랑 위탁 운영으로 왔어요. 특정 공단으로 지금 이제 명확하게 됐는가요, 이게?

○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예, 공식 답변은 아직 아니고요. 12월에 하기 때문에 사전에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 최정욱 위원

그러면 확정은 언제나 됩니까? 11월, 12월?

○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12월에 개최를 합니다, 정책위원회를.

○ 최정욱 위원

그러면 특정 공단하고 우리 관리공단하고 다

르잖아요.

○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시설관리하고 다르죠, 예.

○ 최정욱 위원

그렇죠?

○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예.

○ 최정욱 위원

그동안에는 시설관리공단으로 많이 봤었죠?

○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예, 비중이 그쪽에 더 있었습니다.

○ 최정욱 위원

그렇죠? 시설관리공단과 특정 공단은 당연히 다르죠?

○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예, 다르죠.

○ 최정욱 위원

왜 다르냐 하면 특정 공단은 사업을 할 수가 있죠?

○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예, 맞습니다.

○ 최정욱 위원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은 안 되잖아요.

○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예, 그래서 저희가 위수탁 계약서를 수정을 조금 해야 되겠다.

○ 최정욱 위원

그럼 특정 공단으로 되면 이제 지금은 결정된 걸로 지금 보고 가는가요, 아니면 그것이 와봐야 더 아는가요?

○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행안부의 담당 직원한테 직접 들었기 때문에 저희는 사전 준비 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 최정욱 위원

그러면 군수님이 위탁으로 했을 때는 위탁계약서가 있어서 그랬을 거 아니에요?

○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위탁계약서에서.

○ 최정욱 위원

공단과 했으니까 그것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예, 그러겠습니다.

○ 최정욱 위원

그리고 행안부에 승인 결정 되면 그것도 한 번 주기 바랍니다.

○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예, 알겠습니다.

○ 최정욱 위원

그리고 바이오산업 이거는 담당관도 아마 많이 공부를 해야 될 걸로, 파악해야 될 걸로 보고 오늘은 이제 더 이상 하지 않되 다만 군정 질문 시 했던 거 그거 지금 보완하고 있죠?

○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예, 하고 있습니다.

○ 최정욱 위원

꼭 잘해서 하게끔 준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예, 알겠습니다.

○ 최정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궁희

최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영식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11쪽 해양치유 전문인력 양성에 대해 몇 가지 묻겠습니다. 사업 기간 2년에 전액 군비 4억 6,000만 원 정도 예산 세워서 했죠?

○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예, 총액은 4억 6,000 들었습니다.

○ 조영식 위원

결국 올해는 추진하지 못했네요?

○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예, 올해는 추진을 안 하고 있습니다.

○ 조영식 위원

자료를 보니까 관련 제도 미흡에 따라 중단되었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저희가 해양치유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한 건 저희 치유센터가 전국 최초로 개관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일할 종사자를 뽑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운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군비를 들여서 한 거고요. 지금 올해는 하지 않은 이유는 예산도 많이 들기는 합니다만 지금 75명이 교육을 수료했고 현재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은 10여 명 수준입니다. 그래서 공급보다 수요가 적습니다, 그렇습니다.

○ 조영식 위원

지금 현재 75명 수료한 인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이용하고 있습니까, 75명?

○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지금 현재는 저희 센터에 14명이 근무를 하다가 현재는 11명이 근무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냥.....

○ 조영식 위원

교육만 하고?

○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예, 교육 수료한 상태이고 뭐 다른 걸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조영식 위원

지난 여기 5월 운영비에 해수부에 건의했다고 했는데 해수부 답변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해수부는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해양치유사라는 자격증 국가 자격증 도입을 건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문인력이라고는 하지만 교육을 수료한 것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지 말고 국가 자격증으로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고 해수부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기를 말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조영식 위원

시기를?

○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예.

○ 조영식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중단된 이유가 관련 제도 미비 때문입니까, 순군비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복합적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교육은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교육을 해도 취업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는 잠시 보류하는 게 맞겠다, 판단했습니다.

○ 조영식 위원

보류하는 게 맞겠다고 이렇게 판단돼서 지금 중단돼서 있다, 이 말이죠?

○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예.

○ 조영식 위원

그런데 사업 시행 전에는 관련 제도 검토하고 중앙 정부 측 의견 반영은 또 기본 아니겠느냐고 생각이 드는데 동의하시죠, 그것에 대해서?

○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예, 맞습니다.

○ 조영식 위원

집행부에서 관련 사항 세밀하게 검토도 안 하고 결국 군민 세금인 군비만 버린 셈 아니겠냐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지금 수요에 비해서 공급을 많이 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 조영식 위원

그러니까 75명 수료만 시켜놓고 나머지 14명이 지금 취업하고 있고 나머지 61명은 활용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결론 아니겠습니까?

○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예.

○ 조영식 위원

그걸 자주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계속. 또한 본 위원이 보기에 향후 추진 계획도 아주 모호해요. 여기 11쪽 보면 관련 제도 보완 시 재추진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저희는 해양치유 활성화 협의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해양치유를 추진하고 있는 선도 지자체가 있거든요.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합니다. 거기에는 해양수산부도 참석을 하는데요. 그 지자체와 합동으로 저희 군만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해양치유사 자격증 국가자격증 도입이라든지, 교육비 지원, 이런 부분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 조영식 위원

혹시 관련 제도 보완 재추진 시 해양치유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하여 세부 계획 세워서 관련 내용을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영식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치유 스포츠 재활센터 건립 추진에 관련해서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현재까지 추진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현재 저희 재활센터를 건립하겠다고 해서 장비 구입 목록 2억을 추경에 반영해 주셔서 장비 구입 목록까지는 확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만 위치를 당초에는 2층 현재의 GX룸으로 했다가 1층으로 하는 것도 어떻겠냐고 추가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조영식 위원

그러면 기존에 위원님들도 2층에 한다니까 상당히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이 내고 했죠?

○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예.

○ 조영식 위원

그게 혹시 반영돼서 1층으로 다시 계획을 할 계획이십니까?

○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저희가 1층으로 검토한 이유는 해양치유센터에서는 지금 아까운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이 1층에 사무실 공간인데요. 치유공단 직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과 저희 치유담당관의 공단지원팀이 근무하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 공간의 면적이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근무하는 그곳이 상당히 아까운 공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2층에서 1층으로 변경을 검토한 또 다른 사유는 2층 프로그램을 하시는 분들이 재활이라고 생각을 하면 거동이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층 계단으로 오르내리는 게 불편하지 않겠느냐는 것도 고려를 했고 또 2층 프리미엄 이용객들하고 동선이 겹치는 부분도 좀 있고요. 그리고 그 공간은 현재 요가라든지 명상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야외 풍경이 좋기 때문에 그 공간을 이렇게 수요가 얼마가 될지도

모르는 곳의 시설로 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1층으로 검토를 추가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조영식 위원

그러니까 담당관님 본 위원들이 그때 지적하는 사항이 "재활센터인데 왜 굳이 2층에 있어요? 같은 장소가 있으면 1층에서 하지." 하는 내용을 그때 질의도 하고 지적을 했어요. 그게 반영돼서 2층에 하려다가 똑같은 공간이 있으니 1층에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한다는 말이죠?

○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예, 맞습니다.

○ 조영식 위원

아마 행정에서 바라보는 눈하고 또 밖에서, 또 위원들이 바라보는 눈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참고해서 이렇게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온다고 하니 아마 적정한 조치였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드네요.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예, 그러겠습니다.

○ 조영식 위원

그리고 그때 치료사 1명, 2명 정도만 채용하면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올해 안으로 추진되는가요, 치료사?

○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저희가 이걸 추진하다가 하나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재활이라는 용어를 못 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재활은 의료법상 제한이 된다고 해서 재활이라는 용어를 대신하는 용어를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검토하고 있는 건 컨디셔닝 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다른 지자체의 것을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사 부분은 그 부분을 해결한 다음에 현재 채용되어 있는 물리치료사로도 가능한 건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 조영식 위원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지적도 했지만 이런 부분들은 제도, 인력, 예산, 문제점 등을 검토도 안 한 채 막무가내식으로 일단 추진해 보고자 해서 발생된 문제 아니겠냐 싶기도 하네요. 담당관님도 제 말에 동의하시죠?

○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예, 신중하게 검토하고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조영식 위원

그러니까 혹시 간담회 자리가 만들어지고 그러면 하나하나 자세하고 세세한 것까지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큰 틀이 정해지면 오셔서 간담회도 하시고 이러면 서로 좋은 내용들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재활센터 설치 위치 재협의 후 추진 상황에 대해 의회에 상시 보고해 주시고 조속히 재활 훈련에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예, 알겠습니다.

○ 조영식 위원

다음은 인피니티 풀 추진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 12월에 인피니티 풀이 착공에 들어간다고 들었는데 들어갑니까, 12월에?

○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제출된 자료에는 12월로 돼 있는데요. 12월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조영식 위원

그럼 언제쯤이나 할 계획이십니까?

○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저희 아까 말했던 리모델링 공사하고 같이 해서 내년 3월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 조영식 위원

혹시 문제점은 파악된 거 없습니까, 하고자 하는 데?

○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현재의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해수를 이용한다는 부분이었고요. 하나는 이동 동선의 문제입니다. 해수 부분은 지금 담수로 변경을 해놨기 때문에 해결이 됐고. 동선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 당초 계획에 저희가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하는 1안과 2안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 둘 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기존의 안에 고정 관념을 깬 백지상태에서 검토를 다시 해 보자고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 조영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3층 옥상에 인피니티 풀이 설치가 될 거 아닙니까, 시설이?

○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예.

○ 조영식 위원

그러니까 동선이 1층 로커에서 탈의하고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환복하고 로비를 거쳐서 반대편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3층으로 올라가는 구조잖아요, 지금.

○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예, 그 안도 있습니다.

○ 조영식 위원

그 안도 있죠?

○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예, 있습니다.

○ 조영식 위원

그러면 고객이 수영복을 입고 이쪽 로비를 지나가도록 지금 되어 있거든요, 이게 이 안이라는 것은. 담당관님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아니요, 그건 맞지 않죠.

○ 조영식 위원

그렇죠?

○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예, 로비 공간하고 이용객이 들어와서의 공간은 반드시 분리돼야 된다고 봅니다.

○ 조영식 위원

그럼 이 안이 아니라면 인피니티 풀 이용자 고객들을 어떤 동선으로 할 것인가 혹시 이 자리에서, 이 안이 아니라고 하면?

○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이거 확정안은 아닌데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저희 1층에서 딸라소풀에서 2층으로 프리미엄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2층을 통해서 또 이쪽 반대편에 3층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가 있거든요. 그쪽으로 가는 안도 있고요. 아니면 거기 위에서 바로 계단을 이용해서 3층으로 올라가서 딸라소풀 옥상을 통해서 건너오는 안도 있습니다. 그런데 둘 다 이렇게 적정하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 조영식 위원

그럼 2층으로 중앙을 통해서 반대편 엘리베이터 이용하는 것도 적정하지 않고 1층 로비 그거는 아예 배제해야 되겠네요.

○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예, 1층은 아예 배제돼 있습니다.

○ 조영식 위원

오늘 이 시간부로 배제해 주시고. 2층 그 안들, 또 계단 이용하는 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심사숙고하고 그 노선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된 거는 치유센터 기본 계획 수립 때 인피니티 풀이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본 계획이다 보니까 동선까지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

아서 이런 문제가 현재 있는 것 같습니다.

○ 조영식 위원

그러니까 1안은 아주 큰, 시행 전에 운영해 보지 않아도 많은 민원이 발생할 것 같고 불만이 쇄도할 것 같고 2안도 어느 정도 아마 2층에서 서로 동선이 교차되고 하면 많이 불편함이 있을 건데 잘 판단해서 계단을 이용하는 방법, 엘리베이터 이용하는 방법을 잘 설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담당관님께 부탁을 하는데 사전에 인피니티 풀 입장하는 고객들 동선 재설계 여부와 안내 시스템 구축 여부, 로커 동선 재배치 등 실질적 대책을 세워서 의회에 또 이것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저희가 12월에 착공을 하지 않는 이유가 휴관 문제도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더 면밀히 검토해서 하려고 하는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 조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궁희

조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성규 위원

담당관님 해양치유관리공단 경영 안정화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리공단 내부 고발에 따른 이사장 자질 문제에 대해서 자체 조사를 하셨죠?

○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예, 실시한 바 있습니다.

○ 박성규 위원

그때 결과가 어떻게 나왔고 어떤 조치를 하셨습니까?

○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내부 고발에 의한 신고는 내용을 보면 이사장의 리더십이나 갑질,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내용이 있었고 또 외부 강의 미신고, 그리고 인사 발령에 대한 불만들이 섞여 있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희 군 감사팀에서 감사를 18일 동안 해서 주의 조치 하고 시정한 거 있고, 권고한 부분이 있고 그렇게 조치 완료했습니다.

○ 박성규 위원

지금 보고서에 있는 11월 말까지 조사하고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이거는?

○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이거는 또 다른 신고 건입니다.

○ 박성규 위원

다른 신고 건이요?

○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예, 작년 건 이외에도 다른 신고 건인데요. 저희 공단에서 동일인이 신고를 여러 건 했다고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정인이 동일인이고 피진정인은 이사장, 이래서 건수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도 감사원에 신고를 했고 거기가 안 되면 노동청에 하고 아니면 또 감사원에 하고 이런 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박성규 위원

주요 내용이 뭡니까, 보통?

○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 박성규 위원

거의 같습니까?

○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예.

○ 박성규 위원

공단 설립 이후 이사장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 사안에 대해서 잘 깊이 있게 생각해 주시고요. 군수님은 잘 알고 계세요?

○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 박성규 위원
보고는 수시로 합니까?
○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예, 저희 보고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 박성규 위원
완도군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여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저희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충분히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근거가 있고요. 저희가 매 분기별로 관리·감독, 쉽게 말하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연석회의도 하면서 사안이 발생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 박성규 위원
이런 문제가 자주 밖으로 나오게 되면 좋지 않죠?
○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예, 그렇습니다.
○ 박성규 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군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소통도 하고 자주 방문해서 의견도 듣고 그렇게 해서 이런 문제가 자주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예, 알겠습니다.
○ 박성규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방지책이라든지 그런 조치를 어떻게 하시렵니까?
○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지금 저희가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거의 진정인의 진정이 기각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진정인한테 주의 조치를 저희가 해야 되는 그 단계에 와 있습니다. 진정인이 거의 동일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성규 위원
이번 사안을 단순한 내부 문제로 보지 마시고요. 공단 운영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점검하여 다시는 이런 비슷한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예.
○ 박성규 위원
그리고 1일 지금 평균은 방문객은 얼마나 됩니까?
○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일일 평균 주중은 150명, 60명 수준이고요. 주말은 300명 정도 됩니다.
○ 박성규 위원
완도군민은 몇 프로나 되고 외부인은 얼마나 됩니까?
○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이게 정확한 통계는 내기는 좀 어렵습니다. 할인율로 보고 하는데요. 내년에 저희가 입장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을 하면 그 부분이 이제 정확하게 나옵니다. 남자, 여자 그리고 관내인지 관외인지 정확히 나오는데 현재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 박성규 위원
1층에 보면 건어물 판매장 있죠?
○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예, 있습니다.
○ 박성규 위원
혹시 판매는 잘 되고 있습니까?
○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예, 지금은 잘 되고 있습니다.
○ 박성규 위원

잘 되고 있어요?

○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예.

○ 박성규 위원

그거는 세를 준 겁니까? 그냥 준 겁니까?

○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저희가 신리 새마을협회에 세를 주고 있습니다.

○ 박성규 위원

얼마나 세를 주고 있습니까, 그거는?

○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계약 금액 말씀이십니까?

○ 박성규 위원

예, 전세금이요.

○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계약 금액은 지금 440만 원입니다, 연에.

○ 박성규 위원

연에 440만 원이요?

○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예.

○ 박성규 위원

그리고 식당 운영은 또 잘 되고 있습니까?

○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예, 식당은 잘 되고 있습니다.

○ 박성규 위원

잘 되고 있어요?

○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예.

○ 박성규 위원

직원들도 거기서 식사합니까?

○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아닙니다. 직원은……

○ 박성규 위원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이요.

○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근무하는 직원은 자체 비용을 이렇게 모아서 별도로 반찬 가게를 불러서 별도 공간에서 하고 있습니다.

○ 박성규 위원

그리고 신지에 기숙사가 있죠?

○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예, 있습니다.

○ 박성규 위원

기숙사 가보셨어요?

○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예, 가봤습니다.

○ 박성규 위원

몇 분이나 거기서 계십니까?

○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지금은 14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 박성규 위원

리모델링은 잘 됐죠?

○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리모델링을 4억 원 정도 들여서 했는데요. 개인에 따라 만족도는 다를 것 같습니다마는 기본적인 수준은 됩니다.

○ 박성규 위원

좀 더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예.

○ 박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궁희

박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치유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치유담당관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 서류 검토를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 위원장 허궁희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서 팀장 소개 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

○ 행정지원과장 이기석

행정지원과장 이기석입니다. 행정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남 서무팀장입니다. 김진호 행정팀장, 박준홍 교류협력팀장, 황철웅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이어서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 사항 7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박성규 위원님께서 권고하신 완도군의 효율적인 조직 관리 방안 마련입니다. 타 시군 일방 전출은 완도군에 임용된 날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자로 한정하고 있으며 이 기준은 2007년 인사 운영 기본 계획 시행 이후 지금까지 계속 적용하고 있습니다. 일방 전출에 따른 과도한 결원을 방지하기 위해 완도군 인사교류심의회를 통해 전출 인원을 엄격히 통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최정욱 위원님께서 권고하신 공직자 직무 능력 향상 프로그램 개선 방안 마련입니다. 신임 팀장 리더십 교육과 1년 이내의 신규 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을 각각 2회에 걸쳐 실시한 바 있으며 11월, 이번 달에는 기성세대와 MZ세대가 참여하는 소통 공감 워크숍을 1박 2일 일정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온, 오프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국내외 선진지 견학도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3쪽 박재선 위원님께서 권고하신 완도군 사무 민간 위탁 현황 관리 및 감사 철저입니다. 완도군 사무 민간 위탁에 대하여 위탁 사무, 수탁 기관, 위탁 기간, 위탁 금액, 결산서 검증 방식 등 현황 조사를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간 위탁 사업은 소관 부서에서 사업 결산 감사 등 관리 감독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민간 위탁 사업에 대하여 철저한 지도, 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박병수 위원님께서 권고하신 고향 사랑 기부제 목적 사업 추진 및 홍보 철저입니다. 올해는 고향 사랑 기부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활용하여 지역 내 마을 공동 빨래방 조성 및 운영비 지원 등 총 4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육아 여성의 해양치유센터 이용 지원을 위한 육아 크루 맘 편한 치유의 달 운영을 지난해에 이어 계속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에는 사업 대상자를 만 1세 영유아, 육아 여성에서 미취학 아동, 육아 부모로 확대하였으며 관내 어린이집 및 읍면 밴드를 통해 집중 홍보하여 사업을 활성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어서 박병수 위원님께서 개선 요청하신 해외 연수 참석에 따른 예산 낭비 개선책 마련입니다. 우리 군은 국외 출장 심의 절차를 통해 출장 목적, 필요성, 인원, 기간 등을 철저히 검토하고 있으며 방문 국가 기간 목적이 동일한 출장 경우 통합 추진하여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외 출장 심의위원회를 중심으로 내실 있는 심사 운영과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통해 효율적인 예산 운영 및 행정력 절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조인호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근무 성적 평정 위원회 구성 개선 방안입니다. 과거 국제도를 운영할 당시에는 11명으로 근무 성적 평가위원회를 구성하

였으나 의사결정이 복잡해지고 효율성이 저하되는 등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현재는 공무원 5인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 전원이 읍면장 근무 경험이 있으며 읍면 직원들의 성과와 고충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근무 평정은 직원들의 성과를 바탕으로 경력, 대민, 친절도, 업무 성취도 등을 반영하여 평가 요원들의 다면 평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인호 위원님께서 제안하여 주신 완도군의회 직제 개편 협조입니다. 완도군의회 직제는 기존 1과 3팀으로 구성되었으나 의정 지원 2팀을 신설하여 1과 4팀으로 지난 7월 1일 자로 조직 개편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궁희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행정지원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호 위원

과장님,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번에 제가 과장님한테 공직사회가, 예를 들어서 가족 공무원 사회가 가족 공무원들이 한 75%가 되지요, 우리 군에 현재.

○ 행정지원과장 이기석

예. 상당히 많습니다.

○ 조인호 위원

그 직원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우리 군에서 활용할 수 있는가, 용역 한번 해 보라 했는데 혹시 생각 가지고 오신 것 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이기석

가족관계 공무원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 조인호 위원

가족으로 형성된 공무원이 우리 군의 75%가 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우리 군에 운영할 수 있고 또 근무를 할 수 있는가, 그 용역을 한번 줬으면 하는데.

○ 행정지원과장 이기석

필요하면 용역을 하고요. 그런데 또 부자, 직계 존비속 간의 근무자 또 형제 간 또 사촌 이내,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부부도 있고 부자 관계도 있습니다만 같이 근무한다는 게 상당히 서로 기피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걸 가족 간의 어떤 근무를 같은 팀을 구성해서 시너지 효과를 얻는다든지 그런 것은 조금 생각을 아직 안 해 봤습니다만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 조인호 위원

우리가 인사할 때 보면 힘들죠. 가족 관계 때문에.

○ 행정지원과장 이기석

그렇죠.

○ 조인호 위원

사촌은 가족도 아니죠.

○ 행정지원과장 이기석

지금은 우리가 자료 통계를 뽑고 있습니다만 인사 배치할 때는 그것까지는 고려가 어렵습니다.

○ 조인호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앞으로 우리 군이 제대로 가려면 공모 사업이라든지 도나 중앙 정부의 우리 완도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야 하는데 완도가 그게 미비하잖아요. 예를 들어 해남이나 같은 이런 시군들이 오면 관련돼서 전출을 보내고 파견을 보내고 할 때는 신경을 많이 써서 보내더라고요. 우리는 일 배워놓으면 간다고 많이 안 보내 주고 그러잖아요. 또 기간이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도로 전출을 갈 때는 형제들이 많은 공무원들이 그리 보내 주면 나중에 우리 인적

네트워크 형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이기석

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도 전입 같은 경우는 또 공정성 때문에 시험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 일방 전출 같은 경우 5년이 경과돼야 하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형제 중의 한 사람이 간다든지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인호 위원

우선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공무원 요즘 다 시험 봐서 들어오는데 시험 보는 것도 쉽게 다 하던데.

○ 행정지원과장 이기석

상황에 따라서는 다수의 인원이 지원을 하게 되면 또 거기서 면접이라든지 그것에서 차등을 둬서 전입을 못한 경우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 조인호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군이 중앙부처나 도나 자꾸 완도 출신들을 많이 형성을 하려면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겠더라고요.

○ 행정지원과장 이기석

예. 검토하겠습니다.

○ 조인호 위원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과장님, 보조금 24 서비스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 행정지원과장 이기석

예. 정부 24시 들어가면 일반 우리 구민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항목이 쭉 나열돼 나옵니다.

○ 조인호 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군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혹시나.

○ 행정지원과장 이기석

지금 우리 군 같은 경우 초고령화 사회라 해서 노인분들이 많아서 사실상 스마트폰도 제대로 활용을 못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활용하는 비율은 낮다고 생각합니다.

○ 조인호 위원

전혀 없지요, 거의.

○ 행정지원과장 이기석

젊으신 분들은 조금 활용합니다만 나이 드신 분들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 조인호 위원

읍면에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 행정지원과장 이기석

저희가 그걸 계속 주기적으로 홍보를 하고 저희 군 같은 경우 그 목록이 53개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거기 들어가면 완도군에서 자기 인적 사항을 넣으면 나이대에 따라서 보조금 혜택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쭉쭉 나옵니다. 자기들이 어떤 청구를 안 했다 그러면 청구도 하기도 하고.

○ 조인호 위원

읍면에 보니까 비치만 해놓고 이렇게 홍보한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과장님이 새로 오시고 그랬으니까 읍면 의장 회의나 읍면에서 행사들을 많이 하잖아요, 자치위원회나. 홍보가 될 수 있게끔 교육을 시킨다든지 해야지 우리 주민들이 불이익을 안 당하게끔, 아무리 섬에 읍면에 산다고 해도 이런 부분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만 조금 신경 쓰면 된다고 생각해요. 도시들에는 잘돼 있더라고. 팀제까지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은 말을 안 하는데 이 부분을 참고해서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그마한 거라도 행정의 손길이 미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기석

예.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 조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궁희
조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병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우리 군 본청의 기술직 인사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 부서마다 건축물을 많이 짓고 있죠?
○ 행정지원과장 이기석
예.
○ 박병수 위원
실과마다. 또 건축을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대부분 보면 기술직 공무원이 아닌 전문성이 없는 일반 행정직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 행정지원과장 이기석
예. 부서에 따라서 행정직 업무를 수행하는 데도 있습니다.
○ 박병수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그래요. 사업 추진이 부진하거나 또 대책 없는 공사로 인해 통행로가 차단되거나 안전 관리가 미흡해서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내용 알고 계신가요?
○ 행정지원과장 이기석
예. 정확히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그런 사례가 있다고 판단하고요. 그리고 행정직 같은 경우 건물 같은 경우 감리 제도가 있기 때문에 또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책임 감리 제도를 활용해서 적절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박병수 위원
본청에 보면 사업 그런 공공 건축물을 지은 데가 대부분 다 연결이 돼서 있어요. 문화예술과라든가 지역개발과, 체육진흥과, 건설과 또 주민복지과, 산림휴양과 등 공공 공사를 행정 직렬 팀장이 또 많이 맡고 있어요. 그렇죠? 앞으로는 사업 부서에 대해서는 전문직인 시설직을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업무에 따라 직렬이 다 있죠?
○ 행정지원과장 이기석
예.
○ 박병수 위원
그 부서마다 직렬별로 채용을 하지 않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이기석
예.
○ 박병수 위원
전문적인 전문직이 들어가서 업무를 파악을 해서 적재적소에 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래야 업무 성과를 낼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지원과장 이기석
예. 맞습니다. 별도 건축물 같은 경우는 건축 시설 담당을 해야 하고요. 그런데 토목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경채를 해도 합격자가, 충원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그런 건축 시설들이라든지 토목 시설들을 지속적으로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병수 위원
전문 시설 분야가 건축, 토목, 지적 그렇게 3개 직렬이 포함되나요?
○ 행정지원과장 이기석
예. 시설직, 옛날 토목, 지적이 묶여 있습니다. 시설직.
○ 박병수 위원
그런 부분들은 전문적인 학교를 나오시고 자격증을 갖는 사람들이 현재 공무원에 들어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공무원들이 다른 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

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기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병수 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대부분 기술직 공무원들이 건축이나 토목은 감독 공무원으로 지정을 받죠? 감독 공무원으로 지정을,

○ 행정지원과장 이기석

예를 들어 건축물 같은 경우는 건축직 공무원들은 경리 부서에서 로테이션으로 해서 다른 부서 소관 업무도 감독 공무원으로 임명을 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박병수 위원

그렇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문성 부족으로 관리가 소홀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공공 건축물 전담팀을 조직을 해서 부실 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또 시설물 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에 따른 의견 어떠신가요?

○ 행정지원과장 이기석

조직을 늘린다는 것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총회 인건비가 또 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을 무한정 늘릴 수가 없는 부분이 있고요. 이런 부분은 인사권자인 자치단체장의 결심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전담팀을 하게 되면 인력도 충원해야 하고 또 그런 고충이 있습니다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병수 위원

그런 부분들은 새로운 집행부가 내년이면 들어서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준비를 해서 체계적인 조직이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내년에 바로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섰을 때 그때 해서 조직 개편을 한다면 늦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그런 구상을 해서 준비를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이기석

예. 좋은 의견으로 생각합니다.

○ 박병수 위원

아무튼 참고하시고요. 공공시설물 신축 관리 또 통합 관리 필요성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완도군 내에 건축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각 부서마다 그 관리 주체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통합 관리해 주라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관심을 가지고 새로운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섰을 때 한번 참고를 해서 그런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기석

예. 검토하겠습니다.

○ 박병수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군외면의 스마트 치유마을 있죠?

○ 행정지원과장 이기석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 박병수 위원

혹시 가보셨는가요?

○ 행정지원과장 이기석

가봤습니다.

○ 박병수 위원

2023년부터 민간 위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관광객이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 행정지원과장 이기석

거기가 숙소가 두 동이 있고 AI 체험 교실이 있고 하는데 손님의 규모가 적다 보니까 일반 펜션업 하시는 분들하고 경쟁해서 약간 밀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 박병수 위원
그러니까 운영이 상당히 어려워서 지금 중단 우려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행정지원과장 이기석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상근 근무자가 아마 2명 근무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인건비가 나오는 구조 정도는 돼야 하는데 그 수입 구조가 조금 취약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12월에 임차 임대 위탁 기간이 끝나거든요. 또 위탁 재공고를 했더니 기존에 운영하시는 분하고 또 별도 단체에서 위탁 공모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렵기는 하나 그래도 아마 인건비 정도는 충당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박병수 위원
108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3분기까지 방문객, 작년도 2023년 5,472명, 금년도 현재 4,622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년보다 감소를 했거든요. 감소 이유가 혹시 이유를 알고 있나요?
○ 행정지원과장 이기석
감소 이유가 건물 노후화도 있을 것이고 또 운영 미숙도 있을 것이고 아마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서 아마 감소를 한 것 같습니다.
○ 박병수 위원
숙박 인원 혹시 알고 있나요? 작년도하고 금년도에.
○ 행정지원과장 이기석
숙박 인원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 박병수 위원
파악이 안 됐어요? 그러면 금년 11월 말에 위탁이 끝납니까?
○ 행정지원과장 이기석
위탁 기간이 끝났는데 박재선 위원님께서 그 심의에 참석했습니다만 2년 위탁을 기존에 계속해 왔거든요. 2년이 너무 짧다 그래서 한 4년 정도 위탁을 해야 거기에 위탁 수탁자도 관심을 갖고 기본적인 시설 투자라든지 그런 것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4년으로 해서 재공고해서.
○ 박병수 위원
지금 위탁자는 없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이기석
현재는 기존 위탁자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 박병수 위원
지금 하고 있고 그러면 앞으로,
○ 행정지원과장 이기석
다시 공고를 12월 중에 내서,
○ 박병수 위원
공고를 해서 그러면 다시 모집을 하죠?
○ 행정지원과장 이기석
예. 4년은 위탁 기간으로 해서 다시 모집해서 저희가 선정 심의에서 심의를 거쳐서 위탁자를 정할 방침입니다.
○ 박병수 위원
지금 그러면 운영비는 얼마씩이나 지원되고 있어요, 그쪽에?
○ 행정지원과장 이기석
운영비 지원은 없고요. 저희가 20억 원으로 시설 고정 건축물을 포함해서 지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전기세만 부담을 해 주고 있는데 다음 공고 때는 전기세가 낭비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서 10% 정도는 수탁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별도 운영비 지원 없고 건물에 대규모 수선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가 예산 투입해서 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 박병수 위원
지금 VR 체험실이나 스파 체험 이런 프로그램 기기가 있죠?
○ 행정지원과장 이기석

예. 있습니다.

○ 박병수 위원

거기 보수 같은 것도 필요할 건데 보수는 어떻게 하는가요?

○ 행정지원과장 이기석

그것도 전자기기가 들어간 것이라 고장도 나고 그러다 보니 그때그때 수리를 해야 하는데 또 관리 예산이 미흡해서 제때 수리를 못 한 부분도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 박병수 위원

과장님, 방문객이 줄어든 원인을 분석을 해서 콘텐츠와 홍보 방식을 전면 재구성해서 체류형 프로그램으로서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기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궁희

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선 위원

과장님,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군청 질문 답변 때도 제가 이야기를 했었어요. 타 지역의 전출자, 책자를 보니까 의외로 많이 갔네요. 85페이지예요. 의외로 전라남도에도 많이 갔지만 시군으로도 많이 갔네요. 어떻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이기석

부부, 가족 관계 때문에 일대일 교류도 있고 일반 교류도 있고 그렇습니다.

○ 박재선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가실 때 일대일로 교류를 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이기석

일대일 교류 원칙을 저희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 박재선 위원

원칙은 행정에서 요구하는데 실질적으로 일대일 교류하면서 그게 가능했냐는 이야기죠.

○ 행정지원과장 이기석

때에 따라서는 일방 전출도 있습니다.

○ 박재선 위원

그렇죠. 제가 그때 군정 질문 답변할 때 무엇 때문에 걱정했냐 하면 우리가 계속 인원 뽑을 때도 힘들지 않습니까? 공모해서 그렇죠? 그런데 타 시군으로 갔을 때는 일대일 교류를 하고 정부 기관이나 전라남도에 갔을 때는 더 많이 갈 수 있게끔, 시험이 지금 묶여 있잖아요. 3년, 5년 그런 식으로 묶여 있잖아요. 그래서 시험 볼 수 있는 기간이 1년밖에 없어요. 가고 싶어도 사실 한 번 떨어지면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그런 구조로 돼 있죠?

○ 행정지원과장 이기석

맞습니다.

○ 박재선 위원

예. 그래서 그런 구조를 풀어 달라, 제가 요구를 했었고 지금은 시군으로 갔을 때는 일대일 교류를 하자, 그때 당시에도 이야기했는데 책자 보니까 의외로 많아서 다시 한번 제가 감사 때 지적하는 겁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기석

앞으로는 일대일 교류 원칙을 준수를 하고요. 상급 기관 전출도 너무 많은 인원이 가게 되면 또 저희 조직 관리, 인력 관리에 괴로운 부분이 또 있거든요. 그리고 아무튼 그런 부분을 적절히 조화롭게 인사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적절하게 하신다면 좋고요. 전라남도에 도에 가서 근무하시면 실질적으로 우리 완도군에 이익입니다.

우리 완도군 직원들도 군에 가서 행정을 보다 보면 그래도 인근 완도에서 근무하다가 전라남도에서 근무하고 있으니 모든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수월할 겁니다. 그런 부분을 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기석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전남도에서 전입을 받을 때 7급 같은 경우는 4년 미만 경력자만 요구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의 조건에 맞는 직원이 4년이 경과되면 도 자체 전입 시험 자체가 원천 봉쇄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 박재선 위원

보니까 타 시군에 비례하면 완도가 너무 묶여 있어서 시험 볼 기회,

○ 행정지원과장 이기석

아니요. 저희가 이런 통계를 뽑아보면 완도가 많이 가는 편입니다.

○ 박재선 위원

전라남도에 완도군에서 많이 가는 편이라고요?

○ 행정지원과장 이기석

다른 시군에 비해, 다른 시군 같은 경우 아예 원천 봉쇄해서 아예 전출 자체를 하나도 안 보내는 시군도 많습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한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박재선 위원

자료를 한번 줘 보십시오. 그래서 정부 기관이나 전라남도에 있는 공무원들도 여기서 시험 보는 기간을 좀 더 늘려서 보아서 갈 수 있으면, 기관은 저는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시군은 정식적으로 일대일 교류로 해서 전출하는 게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기석

예. 알겠습니다.

○ 박재선 위원

그 자료는 한번 저한테 주십시오.

○ 행정지원과장 이기석

예.

○ 박재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공문서 수신은 프로그램이 뭐로 돼 있어요? 완도군의.

○ 행정지원과장 이기석

공문, 어떤 프로그램이요?

○ 박재선 위원

우리 공문 주고받고 하지 않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이기석

저희는 새올, 정부에서 공통으로 쓰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 박재선 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가 있냐 하면 저희가 일반인들이 공문을 보내면 팀장이 결재하는 게 있고 과장이 결재하는 거 예전에는 같이 공유했었죠. 그렇죠?

○ 행정지원과장 이기석

그게 사무 전결 규정에 의해서 우리 행정지원과 서무팀으로 시군과 전자 문서, 새올을 쓰는 기관은 전자 문서로 옵니다. 그런데 개별 문서 같은 수기로 된 건 접수해서 저희 과에서 담당 과로 배분하는데 전자 문서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자동차 등록 통보라든지 그런 것은 담당자 전결 처리를 하고요. 그 사무 전결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과장까지 공람이 되는 거 또 팀장에서까지 되는 거, 담당자로 마무리되는 거 그렇게 주로 다 차등이 돼서 있습니다.

○ 박재선 위원

일부 옆에서 이야기를 듣자 하면 공문서가 왔는데 일반 팀장하고 팀장의 선에서까지는 알고 있는데 과장님 선에서는 모르는 사람들 많던데요.

○ 행정지원과장 이기석

그런 경우가 있다고 봐야죠. 그런데 그게 담당자,

○ 박재선 위원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이기석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안 되는데 담당자들이 판단을 해서 다수의 어떤 민원상 걸린 문제라든지 사안이 심각한 문제는 과장뿐만 아니라 군수 보고를 해야죠. 그런데 그런 판단 착오로 인해서 보고 안 된 부분이 있을 수 있죠.

○ 박재선 위원

아니죠. 일반인들이 공문을 보내고 결재를 하고 할 때는 주무관부터 팀장에서 사무관까지 과장까지 다 알게끔 해야 하죠.

○ 행정지원과장 이기석

다 해야 하는데,

○ 박재선 위원

그런데 밑에서 알고 그냥 없애버린다?

○ 행정지원과장 이기석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데,

○ 박재선 위원

그러면 안 되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이기석

그렇죠. 그런데 그게 실무적으로는 어떠냐 하면 그런 문서가 하루에도 수백 건, 어마어마하게 전자 문서 포함해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 착오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다수의 문서가 그렇게까지는 운영이 안 되고 있다고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팀장, 과장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 박재선 위원

걱정스러워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제가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만약에 행정에 공문을 보냈는데 팀장이 보고 무시할 것 같아서 과장한테 보고 않고 덮어버리면 끝이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이기석

일부러 업무가 과중하다든지 잘못된 생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재선 위원

그러면 보고 체계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 행정지원과장 이기석

그러니까 위에서는 보고를 안 하면 모르죠.

○ 박재선 위원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 행정지원과장 이기석

그런 부분은 담당 직원이 양심적으로, 양심에 맡겨야죠.

○ 박재선 위원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본적인 정부에서 요구하는 방식대로 하긴 하되 수시로 또 일반 예전에 우리가 공문서 보낼 때 수기로도 하고 많이 했잖아요. 그런 부분도 엮일 수 있으면 같이 해야 맞죠.

○ 행정지원과장 이기석

저희가 한번 그 부분은 현황 조사를 해 본다든지 또 그런 사례가 있었다 그러면 그런 친구는 징계를 조치를 한다든지 응당한 인사 조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 박재선 위원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보니까 온나라 시스템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다 돼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새올 온나라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우리가 공문서를 보낼 때 체계적으로 주무관이, 팀장이, 과장님이 다 알아야 사실은 그게 모든 게 해결이 될 건데 중간에 차단해 버리고 그 사람 말 안 해버리면 모르잖아요. 다

음에 또 보냈을 때는 과장님도 보시라고 저희가 보냈는데 안 보냈을 때는 과장님한테 또 질타를 하잖아요. 맞잖아요. 그런 문서들이 차근차근 과장님까지 싹 보고가 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기석

알겠습니다.

○ 박재선 위원

그런 부분 꼭 챙겨주십시오.

○ 행정지원과장 이기석

예.

○ 박재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궁희

박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인사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승진 인사 발령 시에 을지 배치가 우선이죠?

○ 행정지원과장 이기석

승진을 하게 되면 섬 지역 을지 근무로 배치가 됩니다.

○ 지민 위원

다자녀의 경우 갑지에 배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이기석

현재 갑지 배치는 3자녀 이상 초등학생이 있을 경우 저희가 우선 출퇴근할 수 있는 갑지로 인사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 지민 위원

세 자녀인 경우 1명이라도 초등학생이 있는 경우.

○ 행정지원과장 이기석

예.

○ 지민 위원

이게 혹시 남직원, 여직원이 다 적용이 되는 건가요?

○ 행정지원과장 이기석

그렇습니다. 남자 차별 없습니다.

○ 지민 위원

차별 없이. 7월 인사 때 이게 갑지인 군외면, 신지면, 고금면에서 근무한 여성 팀장 세 분이 본청으로 배치가 되었어요. 그런데 근무 기간이 한 1년 반 정도 만에 본청 배치를 받게 되었는데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시죠?

○ 행정지원과장 이기석

예. 알고 있습니다.

○ 지민 위원

그래서 군외면 근무 팀장은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이 있고 신지면 팀장은 중학생, 초등 고학년, 초등 저학년 그리고 고금면 팀장은 초등 저학년 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행정지원과장 이기석

예.

○ 지민 위원

그런데 상대적으로 초등 저학년 자녀가 1명인 어떤 여성 팀장은 을지인 노화읍에 1년 근무를 하고도 또다시 약산면에 발령을 받아서 지금까지 근무를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 행정지원과장 이기석

인사를 하다 보면 아까 다자녀 같은 경우 갑지 우선 배치를 하고 합니다만 또 인사를 하다 보면 이게 기본 원칙이 그렇습니다만 인사 운영상 약간 예외적인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사를 해서 적절한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지민 위원

유아인 자녀를 둔 여직원들이 섬에 배치를 받

아서 저녁이면 수시로 자녀 때문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긴 시간 출퇴근이, 우리는 기본적으로 완도 같은 경우는 한 40분에서 1시간 정도 가야 하니까 모든 직원을 배려한다는 것이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인사하실 때 관리상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한 자녀를 키우는 것이나 세 자녀를 키우는 것이나 키우는 데에서는 많이 힘들기는 하겠지만 별 차이는 없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출퇴근이 가능한 갑지에 배치를 받은 직원들의 경우 전보 제한 기간이 한 2년의 기한을 넘어서 본청에 배치되는 것이 맞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 행정지원과장 이기석

예. 적절히 검토해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민 위원

그래서 노사와 합의해서 상대적인 박탈감이 생기지 않도록 새롭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기석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 지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궁희

지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영식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가장 짧게 대답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내용이. 악성 민원인 대응 전화 녹취 시스템 들어보셨죠?

○ 행정지원과장 이기석

예. 그때 군정 질문 답변 때 말씀하셔서 예산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조영식 위원

혹시 조치나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이기석

이 자동 녹음 시스템은 예산이 또 당장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하려고 하면 전체 전화를 한다든지 최소한 민원실 근무자 정도는 녹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또 수반되는 상황이라.

○ 조영식 위원

그래서 예산 이야기하니까 본 회의장에서 군정 업무 추진 보고 시에 당시 전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니까 똑같은 과장님같이 답을 해서 옆에 계신 기획예산실장 할 때 예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답이 최대한 최단 시간에 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서 지난 군정 질문 때 민원봉사과장님한테 똑같은 질의를 했는데 예산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 현재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이거를 질문한 것 같아요, 제가. 똑같이 답을 최단 기간에 시정 조치하겠다고 했거든요. 과장님이 생각하는 최단 기간은 얼마가 최단 기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행정지원과장 이기석

예산 주기상 6개월 이내에는 해야 한다고 봅니다.

○ 조영식 위원

그러니까 전임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예산 이야기하길래 기획예산실장님한테 옆에 계시니까 어떻게 하실 거냐 그래서 "곧 조치하겠습니다." 몇 개월이 지나서 아주 많은 시간, 1년 초하고 연초하고 연말 가까이 돼서 군정 질의 때 민원봉사과장한테 질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동석하신 행정지원과장님이 최단 기간에 시정 조치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라, 또 언제 할 기회가, 내년 업무보고 시에 또 할 겁니까? 어쩝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다고 이야기하고 최단 기간에 최대한 빨리 시정 조치 한다고 개선 복구되게끔 한다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 민원봉사과장, 행정지원과장이 기획예산실장님까지도 답을 한 내용이 행정사무감사 기간 7, 8개월이 지나서 아직까지 안 된다는 것은 이건 종합적으로 행정시스템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게 봐도 되겠어요?

○ 행정지원과장 이기석

일단 최우선적으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 조영식 위원

최우선적으로 챙겨주시고요. 여기 보니까 제가 왜 이걸 갖고 지금 이야기를 하냐 하면 물론 그분도, 그 공직자도 똑같은 동료 공직자잖아요. 그런데 저 또한 이거를 세 번에 걸쳐서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데 우습기도 하지만 그러면 저만 급한 거예요? 본 위원만 급한 겁니까,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님도 행정지원과장님도 기획예산실장님도 최단 기간에 최대한 시정 조치하겠다, 우리 공직자를 보호하겠다, 이런 문제가 있으면 안 된다 하면서 했는데 아직까지, 제가 이번에 올라오면서 방금도 민원봉사과의 내년도 예산을 다 뒤져보고 왔어요. 지금 반영 안 돼 있어요. 요구도 안 돼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올라왔는데 내려가서 다시 행정지원과장님 지원과 거 한번 봐볼까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본 회의장에서 소회의실에서 행정사무감사 하는 자리에서는 꼭 연말 가기 전에 이야기를 해야 해서, 기회도 없고 또 내년 주무과에서는 예산서에 요구도 안 돼 있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으로서 모든 인사하고 일도 많겠지만 이렇게 다른 과 기획예산실, 민원봉사실 같이 서로 간에 안 좋은 부정적인 이야기 듣지 않도록 이 부분 답하셨으니까 신경 써서 최대한, 과장님이 생각하는 최대한 최단 기간이 언젠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이후로.

○ 행정지원과장 이기석

알겠습니다.

○ 조영식 위원

괜찮겠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이기석

예.

○ 조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궁희

조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서 팀장 소개 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세무회계과

○ 세무회계과장 천종실

세무회계과장 천종실입니다. 먼저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저희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팀 이승길 팀장입니다. 경리팀 김승규 팀장, 부과팀 정광현 팀장, 징수팀 김정민 팀장, 재산관리팀의 문병민 팀장입니다. 다음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 사항에 대해서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8건으로 먼저 박성규 위원님께서 개선 사항으로 요구하신 읍면사무소 노후 건축물 관리 방안 마련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사용 연수가 40년을 초과한 노후 읍면사무소가 다수 분포하고 있고 건축물의 구조적 안정과 공공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해 2025년 1월부터 11월까지 정밀

안전 진단 및 내진 성능 평가 영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최근 신축된 금일, 고금, 보길면사무소를 제외한 완도, 노화, 군외, 신지, 약산, 청산, 소안, 금당, 생일 등 9개 읍면 사무소의 영역을 완료하였으며 본청 본관동, 민원동, 별관 1동 등 3개 건물은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모든 용역이 11월 중 완료될 예정이며 결과에 따라 구조 보강이 필요한 건물은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 단계적으로 보강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생일면 사무소는 구조적 안전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금년 6월에 군비 4억 원을 투입해 구조 보강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노후 공공청사의 안전 확보와 효율적 시설 관리를 위해 정기적인 점검과 체계적인 보강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박병수 위원님께서 권고하신 수의 계약 현황 및 페이퍼 컴퍼니 운영 실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먼저 모범 사례로 경기도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가 2011년부터 시행된 것을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군도 이런 제도적 보완 장치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향후 경리팀에서 페이퍼 컴퍼니 사전 단속을 입찰 공고문에 명시함으로써 감공사의 발주 시기부터 불법 업체들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제도가 마련되면 해당 부서 그리고 관련 협회 그리고 경리 부서에서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갖추고 견실한 관급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병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관급공사 공동 계약 방안 마련입니다. 지난해 100억 미만이었던 환경수질과 소관 완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비 증설 사업의 경우 공동 도급 계약 방식으로 입찰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100억 원 이상인 사업의 경우는 공동 도급을 하도록 지방계약법 및 계약 집행 기준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 분쟁의 소지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동 계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공동 계약 방식을 활용하여 지역 건설 경기 회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민 위원님께서 개선 요구하신 직원 연말정산 지원 및 연가 보상비 과오납 개선입니다. 2023년 사례를 교훈 삼아서 연말정산 지연 처리 및 연가 보상비 과오납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업무연찬을 하고 있으며 그 결과 2024년 귀속 연말정산은 지연 없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었습니다. 또한 2025년 상반기 연가 보상비 지급과 관련해서도 5일 이상 추가 지급한 사례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업무연찬을 통해서 연말정산 지원 및 연가 보상비 추가 지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민 위원님께서 개선 요구하신 공공 조달 유류 구매 카드 적극 사용 권고입니다. 지난 감사에 대해 제기된 권고에 따라 우리 부서에서는 카드 발급 매뉴얼을 전 부서에 배부하였고, 그 결과 관용 차량 미보유 또는 전기 차량만 보유한 9개의 부서를 제외한 모든 실과소 및 읍면이 카드를 보유 중이거나 발급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3개 부서 및 2개 읍면에 대해서는 카드 발급 사용을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제도를 충분히 인지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공문을 보내고 배차 신청 시 구두 안내, 광고판 홍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예산 절감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 실적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사용률이 저조한 부서에 대해서는 추가 안내를 통해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영식 위원님께서 개선 요구하신 완도군 청렴계약 옴

부즈만 제도 실효성 및 개선책 마련입니다.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공공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2년에 완도군 청렴 계약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을 통해 청렴 계약 옴부즈만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제도와 역할이 중복되는 완도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와 계약 심의 업무 처리 규칙 등이 신설되어서 사실상 이 제도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금년 7월 31일 자로 완도군 청년 계약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 발주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제도 개선을 해 가면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조인호 위원님께서 권고하신 군유지 관리 실태 및 효율화 방안입니다. 보존 부적합 재산은 과감하게 처분하고 공유재산의 생산적 활용 방안을 강구하라는 권고 사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조치하였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에 따라서 활용도가 낮은 보존 부적합 재산을 적극 발굴하여 매각을 추진한 결과 2025년 현재 교환을 제외한 순수 매각으로 9건, 총 1억 2,200만 원의 매각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100평방미터 이하의 소규모 공유재산의 경우 일부 재산은 매각가보다 감정 평가 비용이 더 크게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공시지가의 2.5배 내지는 3배 수준으로 매각 기준을 수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전담 직원을 선정하라는 권고에 대해서는 금년 4월부로 8급 상당 일반 임기제 1명을 신규 임용하여 공유재산 전담 직원을 배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부존 부적합 재산은 신속히 처분하여 군 재정 확충에 기여하고 전담 인력을 통해 더욱 촘촘하고 생산적인 공유재산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인호 위원님께서 권고하신 본청 발주 사업 담당 공무원 본청 및 읍면 지정입니다. 본청 발주 사업의 경우 계약 체결 및 감독 공무원 임명 알림으로 도급업체, 본청 발주 부서, 감독 부서를 공사 현장, 해당 읍면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읍면 사업 담당 공무원은 시행되는 공문을 취합하여 본인 소속 읍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일원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읍면 자체 발주 사업에 군청 발주 사업까지 읍면 사업 담당 공무원에게 감독 공무원을 지정하게 되면 책임과 업무가 과중될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현행 방식을 유지하되 알림 공문을 지속 발송하고 매뉴얼 등을 마련하는 등 사업 담당 공무원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궁희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세무회계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영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요즘 지역 경제가 하반기로 갈수록 어렵다는 이야기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죠.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일거리가 없다고 아우성인데 과장님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접해 봤습니까?

○ 세무회계과장 천종실

예. 많이 듣고 있고요. 경기가 국가 전체로도 그렇고 지역 경기도 안 좋고 해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 조영식 위원

마음은 아프죠. 마음이 아픕니다. 혹시 과장님,

올해 발주한 공사 중에 입찰을 통해 계약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 세무회계과장 천종실

저희가 한 270여 건, 11월 현재 한 270여 건 정도 됩니다.

○ 조영식 위원

11월 현재까죠?

○ 세무회계과장 천종실

예.

○ 조영식 위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자격 요건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 자격 요건 등에 적합한 자만이 입찰에 참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업에서 참가 자격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입찰 민원이 발생하고 제공된 사례가 있는 것 같아요. 이는 단순한 행정착오로 보기 어려운 문제고 업무 담당자의 자격 심사 소홀과 내부 검증 체계 부재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최근 3년간 세무회계과에서 재공고한 건수와 또 무효 처리된 사례가 몇 건, 혹시 있었습니까?

○ 세무회계과장 천종실

의회에서 추가 자료를 요구했던 사항인데요. 이 부분은 추가 자료 10페이지를 보면 저희가 최근 3년간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 조영식 위원

없다니 참 다행입니다. 이번 전라남도 감사 결과를 살펴보면 노후 관광지 재생 사업도 공사와 용역이 혼재한 사업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해 지급된 게 있었죠?

○ 세무회계과장 천종실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영식 위원

정확히 파악은 됐습니까?

○ 세무회계과장 천종실

됐습니다.

○ 조영식 위원

결국 이런 사례가 업무 계약의 공정성과 신뢰를 떨어뜨리고 행정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이러한 사례가 발생한 원인이 무엇이며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세무회계과장 천종실

협상에 의한 계약 절차는 지금 보면 물품이나 용역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경리 부서에 타당성 검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경리 부서에서는 그 사업의 전문성이라든지 창의성이라든지 예술성을 고려해서 타당성 여부를 판단해서 회신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공사가 포함되면 안 됩니다. 공사는 배제하고 물품이라든지 용역에 대해서 해야 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부분은 공사가 일부 포함돼 있었는데 그 사업을 진행한 건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저희가 타당성 검사를 한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공사가 포함돼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검토해서 배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영식 위원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회계과장 천종실

예.

○ 조영식 위원

다음은 특허 물품과 특정 업체의 독점 제품 구매 과정의 부정성 집행 문제를 묻겠습니다. 특허 물품 구매는 불가피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경쟁 입찰이 제한되는 만큼 객관적 타당성 검토와 가격 적정성 확인 절차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일부 사례에서는 대체품 검토 없이 특정 제품을 지정한 게 확

인된 바 있습니다. 특허 물품 구매 시 우리 군에서는 특허권 확인 및 대체품 검토 절차를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 세무회계과장 천종실

특허 물품 구입 관계도 각 사업 부서에서 특허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그 필요성하고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저희 계약 부서에 수의계약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관련 시스템에 의해서 특허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유사 특허품 그리고 조회하고 그것을 비교해서 계약 체결을 하고 있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특허 물품 계약할 때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충분한 객관성이 있어야 하고 적정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추가적으로 저희가 앞으로 해 나갈 것은 발명 제품이라든지 기술과 계약 물품의 연계성이 있는 물품에 대해서 비교 대조표를 또 받아 보고요.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철저하게 대체품 유무 조사를 한 다음에 특허 제품 계약서 쓸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 조영식 위원

혹시 특허청 특허 정보 검색 서비스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 세무회계과장 천종실

예. 알고 있습니다.

○ 조영식 위원

거기 검색 자료를 청구하면 이러한 관련 제품의 대체품이나 특허 여부를 신속하게 또 알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데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회계과장 천종실

예.

○ 조영식 위원

특허 물품은 자칫 업무 처리를 소홀히 하면 특혜 의혹과 불공정성을 불러올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회계과장 천종실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도 철저하게 더 검증을 하고 부서에서도 할 수 있겠지만 계약 부서에서 더 철저히 검색을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조영식 위원

마지막으로 계약 업무 담당자의 업무연찬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계약과 구매 업무는 법령과 절차가 매우 복잡한 분야임에도 담당자의 교체 주기가 짧고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 업무 미수로 인한 오류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전라남도 감사 결과를 보더라도 업무 숙지 미비로 계약 절차를 누락하거나 잘못된 계약 사례가 발견되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맞습니까?

○ 세무회계과장 천종실

예.

○ 조영식 위원

시정 조치는 하셨습니까?

○ 세무회계과장 천종실

방금 두 가지 건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어차피 계약 업무라고 하는 것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근무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건이 안 된다고 하면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고 교육 등을 통해서 그런 미비한 점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조영식 위원

단순 경고로만 그치지 말고 교육이나 지도 또 제도 개선 등을 통해서 아마 집중적으로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랍니다.

○ 세무회계과장 천종실

알겠습니다.

○ 조영식 위원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상의 상황들은 단순한 행정 절차상의 실수가 아니라 군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번 감사를 계기로 입찰 및 계약 절차의 투명성을 한층 강화하고 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회계과장 천종실
알겠습니다.
○ 조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궁희
조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과장님, 전 부서 최근 2년간 물품 구매 건 중에 타 시군 외 주업체를 이용한 구매 비율과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 세무회계과장 천종실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 지민 위원
감사 자료를 보니까 타 지역 물품 구입 건수가 상당히 많아 보여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세무회계과장 천종실
타 지역 물품은 가급적이면 저희도 지역 물품을 많이 구매하고 또 장애인 그리고 여성 그리고 농공단지 이런 제품을 많이 구매하려고 하는데 불가피하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물품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구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 지민 위원
그거는 불가피한 부분이지만 큰 회사 업체라든지 이게 다 지역에 대리점이 있고 또 영업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가격도 비싸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당연히 제주도나 어디 멀리 가는 데 가면 그만큼 물품 운송비가 더 들어가니까 그렇게 비쌀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많은 양이고 군에서 하는 일이라는데 우리 지역의 업자분들이랑 가게 하시는 분들하고 협의를 하게 된다면 디스카운트도 많이 해 주고 또 타 지역에서 하는 물품은 조율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지역에서 여기도 있는데 비싸다고 타 지역에서 다 물건을 들여온다, 우리 군에서. 그런 말씀들을 항상 매년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우리 지역 업체들을 많이 이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세무회계과장 천종실
그런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민 위원
예. 꼭 해 봐 주시고 이게 우리 지역에 물품이 있는지 없는지 사전 검토도 해 봐야 하잖아요. 가격이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도 검토도 해 봐야 하고 매뉴얼이라든지 이게 있는데 타 지역에서 가격 차이 얼마 안 나는데 또 다른 데서 10개 살 수 있는 거를 완도에서는 8개밖에 못 산다고 하지만 그거를 조금 협의해서 그래도 우리 지역 거니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세무회계과장 천종실
가격 면에서 다른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으나 그런 부분은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민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꼭 구체적으로 방안도 세워 주시고 협의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회계과장 천종실
예.
○ 지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궁희
지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성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2개 읍면에서 직원 관사 없는 면이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 세무회계과장 천종실
직원 관사 없는 읍면.....
○ 박성규 위원
전혀 1동도 없는 면, 잘 모르시죠?
○ 세무회계과장 천종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지면은 관사가 전혀, 1동도 없답니다. 관사 직원. 그런데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읍면장 관사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는 육지권이다 보니까,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다 보니까.
○ 박성규 위원
그런데 약산면, 고금면 다 육지가 아닙니까? 완도읍도 마찬가지지. 그런데 왜 신지만 유독 직원 관사는 없고 면장 관사는 있어요. 그런데 직원 관사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 세무회계과장 천종실
출퇴근이 가능하고 신지면에다가 관사를 짓는다고 했을 때 실효성에 대해서 한번 판단을 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 박성규 위원
섬에는 당연히 지어 주고 그렇지만은 약산면, 고금면 다 있는데 왜 유독 신지만 없어요? 약산이나 고금이나 거리도 비슷비슷한데 군외나, 군외에도 있고 그러는데 신지만 없어요.
○ 세무회계과장 천종실
파악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성규 위원
신규 직원들 월급 얼마 안 받죠? 월급도 200만 원도 안 되는데 집세 주고 나면, 완도에 방 얻고 나면 돈 얼마 남지도 않더라고요.
○ 세무회계과장 천종실
저희가.....
○ 박성규 위원
지원을 합니까?
○ 세무회계과장 천종실
지원합니다.
○ 박성규 위원
얼마씩 지원합니까? 방세를.
○ 세무회계과장 천종실
4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 박성규 위원
40만 원씩이요?
○ 세무회계과장 천종실
예. 도서 지역은 40만 원, 육지권은 20만 원 그런 선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성규 위원
지금 섬에는 기숙사가 다 완료됐습니까? 또 지을 계획이 있습니까?
○ 세무회계과장 천종실
집이라고 하는 게 그러지 않습니까? 세월이 흘러가면 노후되고 그래서 계속 수리하고 올해는 보길 신축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 박성규 위원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신지도 한번 검토해서,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신지도 상당히 멀어요, 여기서 출퇴근하기도. 왜 다른 12개 읍면은 다 있는데 신지만 없을까. 그리고 직

원들이 불평불만도 하더라고요.

○ 세무회계과장 천종실

그 부분은 사실 보면 관사라고 하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육지권이고 해서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도서 지역을 우선시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게 필요하다면 저희가 한번 실효성이 있는지 타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성규 위원

육지권은 방금도 말했지만 약산, 고금, 군외 다 육지권이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다 있는데 신지만 유독 없어요. 다른 사업들은 대부분 신지로 많이 가는데 유독 공무원 관사만 신지가 없어요. 참고해서 점검해서 할 수 있으면 건립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세무회계과장 천종실

알겠습니다.

○ 박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궁희

박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한 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감사 자료를 보니까 지방세 과오납 정리 실적에서 지방세 과오납이 많은 이유가 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세무회계과장 천종실

지방세 과오납은 보면 소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면허세, 취득세 이렇게 과오납이 돼 있는데요. 자동차세 같은 예를 들어보면 연납을 하지 않습니까? 연납을 하는데 중간에 폐차를 한다든지 해버리면 그걸 일할 계산해서 반납을 해 줘야 하거든요. 이런 사례가 있을 수 있겠고요. 취득세 같은 경우는 매매 계약이 해지된다든지 그리고 무효가 된다든지 이랬을 때는 취득세를 더 반납을 해 줘야 하거든요. 거기에 따른 등록세가 있지 않습니까? 등록세도 그렇게 해서 반납이 되는 거고 그리고 지방 소득세 같은 경우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까? 저희 선납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연말정산을 해서 반납을 해 줘야 하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에 있어서 과오납은 불가피하게 매년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허궁희

그런데 어쩔 때 보면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것을 받아 봤는데요. 자동차 폐차를 했는데 몇 년 지나서 이게 날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젊은 사람들은 아니까 정산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나이 드시고 한 분들은 그걸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검토를 잘해야 하지 않냐,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보면 행정력 낭비도 되고 예산 낭비도 되고 여러 가지로 불필요한 민원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실과에서 한 번 더 검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 세무회계과장 천종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알림 시스템을 활용해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사례를 들어보면 취득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등기 이전을 한다든지 사망이 발생됐을 때는 사실 저희가 안내를 해 드립니다. 등기 이전을 해라. 그리고 취득세 부과를 하고 왜 그러냐 하면 사망했을 경우는 나중에 등기 이전에 하기에는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 위원장 허궁희

그렇죠.

○ 세무회계과장 천종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사전에 안내하는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그런 시스템을 한 번 가동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궁희

그렇게 예를 들면 과세 전 사전 실태 조사 및 자료 정비 횟수를 늘린다거나 아니면 비과세 감면 신고문에 대한 의무 사항은 사전에 안내를 필수적으로 해 주면 그런 불필요한 과세가 안 나올 것 아닙니까?

○ 세무회계과장 천종실

예.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궁희

그렇죠. 그리고 과세 물건에 대한 거는 다른 부서랑 필수 협의 체제도 구성을 해서 진행을 하면 그런 민원이 줄어들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한번 적극 검토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 세무회계과장 천종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궁희

앞으로 이런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회계과장 천종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궁희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과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3시까지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허궁희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서 팀장 소개 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 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

○ 민원봉사과장 김용식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용식입니다. 먼저 저와 함께 군민의 최일선에 서서 군민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저희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용 민원행정팀장님, 조대원 지적관리팀장님, 정창조 지적재조사팀장님, 이경희 부동산관리팀장님, 유주현 복합민원팀장님, 김광호 건축허가팀장님입니다. 다음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허궁희 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농어촌 빈집 정비 사업 확대 및 추진 절차 관련입니다. 우리 군은 24년도부터 현재까지 빈집 정비 보조금을 2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6년도부터는 300만 원으로 상향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 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6년 신규 사업으로 빈집 정비 등 경관 개선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국비 50%, 군비 50% 2억 5,600만 원의 사업비로 빈집을 군이 직접 철거하고 정비된 부지는 마을 주차장이나 텃밭 등 공공 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건축허가팀 조직을 법률의 전문성 확보와 신속한 민원 처리, 각종 생활 민원 등을 대응하기 위하여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행정지원과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지선 행정자치위원장님께서 권고하신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 향상 대책 마련입니다. 민원실 직원들의 잦은 인사 발령으로 민원 만족도 저하 부분에 대한 지적은 민원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을 위해 수시 인사 발령을 지향하도록 행정지원과와 협의하였으며 또한 민원 서비스 만족도 향

상을 위해 지난 4월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지연 민원 발생 시 부군수 결재를 득한 민원 지연 사유서를 받고 있습니다.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완도군 민원 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안전 가림막과 비상벨 설치, 휴대용 영상 녹화 장비, 심리 상담 및 악성 민원 대응 모의 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 서비스 향상과 만족도 제고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여 민원 서비스 종합 평가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에 대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궁희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민원봉사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선 위원

과장님, 개발행위 허가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과장님 오시기 전에 개발행위 허가에 대해서 인원이 부족하다 해서 제가 문의를 드렸었어요. 그 이후에 개발행위팀에 인원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김용식

그전에 우리 직원들이 3명 근무를 했었는데 현재는 직원이 4명으로 해서 1명 해서 총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박재선 위원

그러면 1년 동안 우리 업무량과 공무원의 일의 양하고는 다 처리가 될 수 있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김용식

현재 저희 군이 최근 3년 정도 보면 많게는 1,200건에서 600건 정도 1년에 개발행위 허가를 직원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원들이 많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또 이 직원들이 나름의 최선을 다해서 저녁 야근하면서까지 민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박재선 위원

야근하면서까지요?

○ 민원봉사과장 김용식

예.

○ 박재선 위원

그러면 민원봉사과에서만 그러는데 읍면에서도 일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읍면에서 일이 올라오면 행정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김용식

읍면에서 저희 군으로 진단이나 행정, 그런 과정을 협의를 거치는데 그럴 때도 저희가 읍면 출장을 그리고 현재 직원들이 읍면을 권역을 나눠서 그렇게 출장을 시행을 하면서 업무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박재선 위원

4명이 읍면으로 나누면 동부, 서부로 나눌 수도 있는데 일 처리가 그러면 본청에서는 못할 거 아닙니까? 읍면으로 다 가버리면.

○ 민원봉사과장 김용식

아니요. 낮에는 출장이고 밤에는 업무 처리 그런 형태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 박재선 위원

업무량이 많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1명 그러면 늘어난 상태고요. 그러면 개발행위 받는 절차가 있을 건데 그런 절차들은 어떻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김용식

개발행위는 신청이 접수되면 우선 일정 이상 규모가 됐을 때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나 또 재해영향평가를 이행해야 하고 농지는 농지 전용, 산지는 산지 전용 허가에 의해서 처리,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박재선 위원

그러면 현장에서는 읍면에서 올리면 현장은 바로 우리 군에서 의무적으로 가서 현장 접수하고 점검하고 그렇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김용식

예. 현장을 다 확인하고 와서 거기에 따라서 그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박재선 위원

절차상 우리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 업무가 차근차근 진행이 돼야 그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던 사람들도 일이 될 건데 그 지연으로 인해서, 업무적인 지연으로 인해서 빨리 행위가 이루어지지 못한 곳 있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김용식

업무 지원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심의를 저희 부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도시계획 심의나 다른 부서하고 연계해서 부서 협조를 받아야 할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법적 처리 기한이 있는데 저희가 이것은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법정 기간 내에 다 처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 박재선 위원

업무적인 개발행위 허가받았던 사람들에 한해서는 의무적으로 그 기간 안에 다 처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 민원봉사과장 김용식

예.

○ 박재선 위원

그러면 그 계기로 인해서 민원은 없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김용식

요즘 같은 경우는 바로 최근의 개발행위를 가지고 그런 상황보다는 10년, 20년 전에 이루어졌던 행위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주민들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그런 개발행위 관련해서 절차를 지금에서야 이의 제기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저도 와서 한 5개월 됐는데 10년, 20년 전 그런 민원 처리 후속 조치를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너무 힘들어하는 과정을 보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개인 대 개인 간의 사적 감정을 공공에서 이것을 풀어야 하다 보니까 그런 절차들에 굉장히 지금 행정적 낭비를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재선 위원

기존에 계속 있었던 업무들을 가지고 계속 현 시스템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민원거리도 많이 있을 거라 생각도 되고요. 또 그런 부분들이 우리 필수 절차가 돼야 하는데 예전에 어르신들이 받아 왔던 개발행위와 현재의 우리 시스템대로 방금 환경평가나 도시계획이나 다 받았던 그런 시스템하고 다른가요?

○ 민원봉사과장 김용식

이게 어떻게 보면 행정 이런 개발행위도 법이 계속해서 보완되고 하다 보니까 20년 전이나 30년 전에는 어떻게 보면 주민들끼리 이웃 간에 구두상으로 약속했던 그런 것들로 해서 절차하고 그런 사항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문서가 없다 보니 그런 거에 따라서 민원들이 자주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박재선 위원

그러면 그런 민원들이 오면 그때 당시에는 말로 해서 땅도 주고 뭍도 하고 다 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새로운 주인이 바뀌고 측량되고 하고 하면 원칙대로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김용식

행정이라는 것은 그 당시 개발행위라는 것은 당시에 이미 행정 절차를 승인을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다시 되돌려서 그것을 무효화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그런 부지 관계들은 사적으로 민사로 가는 그런 방향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 박재선 위원

해결은 할 수 있죠?

○ 민원봉사과장 김용식

어쨌거나 그것은 민사상 토지 매입을, 그전의 토지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민사상으로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관계밖에 없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재선 위원

일반적으로 저희가 보면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방금 전자 이야기했듯이 땅은 예전에는 말로 주고 승낙해 주고 했었는데 땅 주인이 바뀌고 나면 그걸 법적 다툼을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또 현재 개발행위를 받았을 때의 민원 처리하고 또 저희가 민원 처리를 그때그때 해 달라고 하면 그때 당시에도 제가 요구했듯이 업무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한정돼 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는 많은데 인원이 적어서 낮에는 현장 일 돌아보고 밤에 와서 업무를 한다. 그러면 사실 이게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인력이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 거기에 또 행정지원과에 한 번 더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 민원봉사과장 김용식

저희도 민원실 이런 민원 업무 만족도 평가나 이런 거에 대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제가 몇 개의 타 지자체를 가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지적하고 민원 이런 복합 허가 관련 건축해서 과가 2개 과로 있는 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민원과 아니면 허가과 해서. 그래서 지적이나 이런 일반 민원은 민원과에서 하고 있고 건축허가나 아니면 복합 허가 같은 경우는 허가과로 따로 해서 그렇게 파트가 나뉘어서 하다 보니까 다른 시군, 해남 같은 데도 보면 허가 1팀, 2팀이 있거든요. 1팀, 2팀이 있어서 해남 같은 데도 육지권이지만도 1팀, 2팀을 해서 그렇게 권역을 나눠서 직원들이 그렇게 나눠서 업무를 하고 있고 건축허가팀하고 같이 해서 한 과를 운영하면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업무 분산이 과 운영하는 데도 훨씬 더 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박재선 위원

그래서 우리 완도군도 마찬가지인데요. 저희가 보고 있으면 무슨 허가를 하나 받기 위해서 양식장도 마찬가지예요. 수산과, 해양정책과, 민원실 전부 다 들러야 해요. 지금도 행정시스템이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허가를 받고 무엇을 했을 경우에는 다이렉트로 한 과에서 직접적으로 다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저희가 8대 때부터 해왔었거든요. 그런데 행정적인 인사 조치는 그렇게 못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봉사과에 가면 허가에서부터 개발행위고 뭐고 다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다 이루어져야 하는데 실과에 가서 모든 것을 다 하고 또 민원실에 가서 하고 끝나면 다시 또 실과에 가야 해요. 그런 번거로움들이 많아요. 타 지역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하니 그런 경우도 한 번 더 과장님께서 관심을 더 가져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김용식

제가 현장을 보고 와서, 어떻게 보면 이게 군민들에게 가는 피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원스톱으로 하다 보면 광역이나 큰 지자체, 시 단위는 한 부서 안에 모든 업무 처리가 다 있더라고요. 그런 데를 보니까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저희 군 조직 인력상 아직까지 그렇게 가

지 못하고 또 현재 민원봉사실 건물 내에 그 많은 조직들이 근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 어떻게 보면 분과가 되지 않으면 현재 상황에서는 그런 모든 업무들을 한 과로 다 통합을 하기는 시스템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재선 위원

그렇다면 현 시스템으로 갈 수밖에 없겠네요.

○ 민원봉사과장 김용식

현재 시스템상으로는 사무실 배치부터 시작해서 통합으로 한다는 것은 현 시스템에서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박재선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현재 업무 보고 있는 실과들하고 민원실하고 잘 스킨십이 돼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업무적인 민원인이 왔을 때는 빨리빨리 일사천리 일 처리를 볼 수 있게끔 지금도 주민들이 가면 민원봉사과에 가서 일을 봐야 하는지, 실과에 가서 일을 봐야 하는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 민원봉사과장 김용식

예.

○ 박재선 위원

그런 부분들을 직원들이 업무적인 일을 봤을 때는 정상적으로 어디 과에 가서 뭘 보고 여기 다시 와서 무슨 일을 보십시오라고 이런 설명이 많이 있어야 할 것으로 저는 봅니다. 어떻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김용식

저희 민원실 창구 직원들을 저는 굉장히 존경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창구 민원 직원들이 굉장히 베테랑이더라고요. 그래서 군민들이 큰 소리를 내도 그 응대를 굉장히 친절하게 다 잘하고 해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민원실 직원들을 봤을 때 제가 가끔씩 보면 악성 민원인들이 와서 욕을 한 20분, 30분씩 직원들 앞에 하고 있는데 그래도 어느 누구 하나 그렇게 쉽게 짜증을 내지 않고 계속해서 그것을 젊은 친구들이 다 받아 주면서 그렇게 하는 거 보고 굉장히, 저 같으면 화가 나서 같이 언성을 높일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은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아서 그런 것을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그런 것을 잘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선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방금 제가 권고 사항에도 이야기했듯이 그 부분이 그겁니다. 직원이 자주 바뀌면 업무상 모르기 때문에 민원인들한테 더 과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의 시간까지 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업무를 다 알기 때문에 더 시스템이 민원들한테 더 잘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권고 사항에도 보니까 과장님하고 행정지원과하고 잘했던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도 지역민이 또 민원실에 가서 혜택을 잘 볼 수 있도록 민원 처리를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김용식

그러겠습니다.

○ 박재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궁희

박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정욱 위원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215페이지에 보면 정보 공개 및 국민 신고 처리 현황에 정보 공개가 2,254건인데 이게 1년인가요? 아니면 올해인가요? 아니면 지금까지 총 숫자인가요?

○ 민원봉사과장 김용식

작년 감사 기간 내에 1년 것입니다.

○ 최정욱 위원
1년이 이렇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김용식
예.
○ 최정욱 위원
그러면 정보 공개도 2,254건 국민 신고 이것도 2,332건인데 되면 하루 평균 한 20건씩 접수된다는 얘긴데.
○ 민원봉사과장 김용식
실질적으로 100일 정도 빼면 220일, 260일 정도.
○ 최정욱 위원
그렇죠. 주말 빼고 나면 거의 그러니까 20건씩은 들어온다고 봐야죠. 주로 정보 공개는 어떤 것들이 많이 들어와요?
○ 민원봉사과장 김용식
정보 공개는 굉장히 다양하게 들어오는데 어떻게 보면 인구수 그런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서요. 아니면 이런 건축 허가 아니면 개발행위 관련, 그런 어떤 상대의 민원이 있다 보면 그런 것을 어떤 형태로 허가를 해 줬느냐 그런 것부터 하여튼 다양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보 공개라는 게.
○ 최정욱 위원
결론은 우리 그만큼 행정을 못 믿는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이게?
○ 민원봉사과장 김용식
정보 공개라는 게 제가 와서 요즘에 최근에 그런 것을 보니까 주민 간의 사적 감정이 악화돼서 이것을 상대를 뭔가를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뭔가를 약점을 잡기 위해서 계속 그걸 가지고 다양하게 그런 것을 정보 공개를 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10건, 20건도 하신, 사례를 가지고 돌려가면서 그런 것도 있고 해서 하여튼 원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정욱 위원
정보 공개가 어떤 주민들이 청구했을 때 신뢰성이냐 아니면 금방 말한 대로 서로 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그런 건지 그게 궁금했고,
○ 민원봉사과장 김용식
신뢰성은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요즘 정보 공개에 들어온 게 그런 행정의 미스, 실수를 가지고 많이 그걸 한 것보다는 요즘은 옛날 새마을 사업, 마을 안길 도로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다양하게 민원을 정보 공개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 최정욱 위원
우리 보면 전부 공개, 부분 공개, 비공개라고 세 부분이 나뉘어 있죠?
○ 민원봉사과장 김용식
예.
○ 최정욱 위원
대부분 어떨 때 민원인들이 말하면 전부 공개를 할 부분인데 부분 공개만 한다는 이런 말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 있던가요?
○ 민원봉사과장 김용식
개인 정보 보호나 당사자가 상대가 누가 되는지 추측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기업의 이익에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가고 있고 부분 공개라는 것은 일정 부분을 공개하지 않고 공개할 수 있는 부분만 그 내용 중에서 또 공개하는 그런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 최정욱 위원
그 판단은 그러면 전부 공개, 부분 공개, 비공개라고 어떤 매뉴얼이 정해진 거예요? 아니면 어디,
○ 민원봉사과장 김용식
아니요. 그 내용이 있습니다.
○ 최정욱 위원
매뉴얼이 있죠?

○ 민원봉사과장 김용식
예.
○ 최정욱 위원
그런데 매뉴얼에 의해서 전부 공개인데 비공개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전부 공개에 해당하는 매뉴얼이 되는데 부분 공개만 한다는 그런 말이 돌거든요.
○ 민원봉사과장 김용식
그런 것은 만약에 했을 때는 정보 공개 이의 신청 들어오면 저희가 정보공개위원회가 있거든요, 심의위원회가. 전부 공개할 것을 비공개한다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개인의, 기업의 관계된 거나 상대가 어떤 제삼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삼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공개하지 않는 그런 사항은 있어도 공개해야 할 것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정욱 위원
매뉴얼에 비해서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 민원봉사과장 김용식
그렇습니다.
○ 최정욱 위원
위원회가 있죠? 그래서 안 되면 또 위원회에 의해서 거기서 결정도 하죠? 최종 결정.
○ 민원봉사과장 김용식
그렇습니다. 저희가 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저희가 이의 신청을 하면 그걸 가지고 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고 해서 위원회에서 가결하냐, 부결하냐 그렇게 심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 최정욱 위원
그러면 미결정 결의 중이라는 건 어떤 뜻이에요? 미결정.
○ 민원행정팀장 임대용
민원행정팀장 임대용입니다. 미결정이라는 것은 아직 처리 기간이 남아서 처리 중에 있는 건수를 말하는 내용입니다.
○ 최정욱 위원
그게 시간이 그렇게 걸릴 이유라도 있는가요?
○ 민원행정팀장 임대용
아직 당시 정보 공개 처리 청구 현황을 뺄 때 감사 기간 내에 제일 마지막 날짜에 걸리는 건수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매일 20여 건 이상 건수가 들어오는데 그 이상 건수에 대해서 처리 기간이 남았을 때 7일 정도 남았으면 그때 그 기간 합산돼서 76건이 처리 중에 있는 건수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건도 전부 다 정보 공개 내든지 처리 결과를 해서 안내하는 건수이기 때문에요.
○ 최정욱 위원
이런 것 빨리빨리 할 수는 없는가요?
○ 민원행정팀장 임대용
최대한 빨리빨리 서두르고 있습니다.
○ 최정욱 위원
왜냐하면 이런 것도 하나의 우리 민원 처리에 해당하니까.
○ 민원봉사과장 김용식
저희 부서만 하는 게 아니고 또 이것을 실과로 업무를 나눠주다 보니까 민원실에서 100% 다 하는 게 아니고 각 부서에서도 하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그 기간이 닥치면 저희가 지연하지 않기 위해서 고지를 하루 전날에 해 주는데 부서에서 놓치지 않게끔만 저희가 최대한 관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최정욱 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이런 것도 하나의 우리 민원이거든요. 빨리빨리 안 된다는, 그러니까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 국민 신고도 우리 군의 국민 신고죠?
○ 민원봉사과장 김용식
예. 그렇습니다.
○ 최정욱 위원

그런데 이것도 많이 들어오는데 군민 신고라면 민원 사항이라고 보는데.

○ 민원봉사과장 김용식

민원 사항도 되고 민원 사항이 아닌 것을 또 국민신문고에 올리는 경우도 있고.

○ 최정욱 위원

주로 불만을 국민 신고에 많이 올리고 행정에 대한 어떤 불신이나 또 나는 이건데 아니라고 했을 때 국민 신고를 통해서 풀어보려고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 민원봉사과장 김용식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을 가지고 국민신문고에 올리는 또 그런 사항도 있고. 다양합니다. 국민신문고에 들어오는 내용들도 보면.

○ 최정욱 위원

그러니까 국민 신고는 보통 일반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어떤 걸, 어떻게 보면 옛날 같으면 여기다 내 일을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 것도 있을 거라고요.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 민원봉사과장 김용식

그중에는 그렇게 하소연을 하신 분들도 있긴 있고 국민신문고에 올리지 않아야 할 내용을 국민신문고에 그렇게 올리는 내용도 있고 그렇게 다양합니다.

○ 최정욱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많은데, 신청 건수가. 미처리 건수라면 이건 또 어떤 걸 말해요?

○ 민원봉사과장 김용식

이것도 마찬가지로 방금 말한 것처럼 기간이 도래되지 않는.

○ 최정욱 위원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도 될 수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빨리빨리 처리함으로 인해서 조금 더 민원인이 한 발짝 더 다가갔던 모습을 보이니까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김용식

그러겠습니다.

○ 최정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궁희

최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6개 실과의 최근 위원회의 개최 실적을 조사를 해 보니까요. 대면 회의보다 서면 회의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특히 민원봉사과는 대면 개최가 5회, 서면 개최가 23회로 서면으로 운영한 것들이 월등히 많아 보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김용식

부동산 공시지가 심의회 같은 경우는 대면보다도 서면으로 거의 대부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대면보다는 서면으로 한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허궁희

그래요. 우리 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4항에 따르면 심의 안건이 경미한 경우에 한해 문서로 갈음하여 심의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원봉사과에서 처리한 모든 서면 심의 안건이 경미한 안건으로 판단하고 계신 건가요? 어떻습니까? 천천히 하세요. 팀장이 답변해도 됩니다, 준비 안 됐으면.

○ 민원봉사과장 김용식

저희가 보니까 서면 심의 하는 게 부동산 가격 공시 위원회가 많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정보 공개 같은 경우는 대면으로 2건 있었고 그 외에 경계결정이나 부동산 가격 공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연차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서면으로 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허궁희

위원회의 단순 결재 절차가 아니라 다양한 의견 수렴과 타당성 검토, 책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부 서면으로 처리했다는 것은 위원회 본연의 심의 토론 기능이 사실 약화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 민원봉사과장 김용식

그것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건축 같은 경우도 위원회에 서면으로 개최한 거 있는데 소위원회나 이런 것들은 큰 대단위 개발이나 그런 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공공 사업을 하면서 공공 행정 절차나 그런 것들은 내부적으로 충분히 서면으로 가늠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큰 민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서면으로 많이 한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허궁희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위원회는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효율성 때문에 대면 심의를 생략하는 것은 조례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민원봉사과장 김용식

저희가 연례 반복적으로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대면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궁희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현재 민원봉사과뿐만이 아니라 다수의 부서에서 대면 심의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앞으로 대면 심의를 원칙으로 운영 방침을 마련해 심의기구의 기능을 정상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김용식

그러겠습니다.

○ 위원장 허궁희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서 팀장 소개 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 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

○ 체육진흥과장 최정환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정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체육 활동을 통해 군민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체육진흥과 팀장과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체육정책팀 김범일 팀장을 대신하여 참석한 박은혜 주무관, 스포츠마케팅 백창국 팀장, 체육시설팀 장충남 팀장, 체육시설운영팀 김동환 팀장과 직원들을 함께 소개합니다. 계속해서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개선 1건, 권고 5건, 제안 1건 총 7건에 대한 조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최정욱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스포츠 강좌 이용권 활용 대책 마련에 대한 후속 조치 사항입니다. 먼저 2025년도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현황으로는 유청소년 81명, 장애인 38명, 총 119명을 지원하고 있으며, 스포츠 강좌 이용권 가맹 시설은 17개소입니다. 본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읍면장 회의 등을 통해 사업을 적극 홍보하여 읍면 담당자가 수혜 대상자를 독려하여 신청토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올해는 전년도 84명보다 40% 이상 증가한 119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지정 시설이 없는 곳은 비대면 스포츠 강좌 플랫폼 에듀핏을 활용하는 등 가능한 많은 대상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 지속적으로 홍보 추진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12월까지 2026년도 사업 대

상자 모집 중으로 적극 홍보 및 신청 독려하여 더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박병수 위원님께서 권고하신 장애인 스포츠 활성화 대책 마련에 대한 사항입니다. 먼저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확충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장애인 생활 체육 지도자 배치 기금 사업에 지도자 4명을 배치 요구하였으나 올해와 같은 2명이 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도서 지역 전담 지도자 배치를 위해 자체 예산 반영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포츠 강좌 이용권 등록 시설이 없는 도서 지역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비대면 스포츠 강좌 플랫폼 에듀핏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 홍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스포츠 강좌 이용권 수혜를 받지 않고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도 단기 골프 강좌를 운영하여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박병수 위원님께서 장애인 군민체육센터 건립 추진 절차에 대해 주문하셨습니다. 장애인 군민체육센터, 반다비 체육센터의 추진 현황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12월 공공 건축 심의회를 완료한 후로 금년 3월 건축 설계 심사위원회 개최하고 6월 문화체육관광부 기본설계 협의회를 추진하였으며 7월부터 건축 설계 용역 실시하여 2026년 2월까지 건축 설계 용역과 각종 행정 절차 이행 완료를 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12월 장애인 군민체육센터 건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장애인 이용자의 관점을 적극 반영하고 전반적인 공사 진행 상황을 협의 조정하며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예정이며 2026년 4월 착공하여 오는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쪽 조영식 위원님께서 권고하신 우수 선수 육성 관리 철저에 대한 이행 사항입니다. 완도군 우수 선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올해 초 사격 이윤리 선수를 우수 선수로 선발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각종 수당 지급 시기를 철저히 관리하여 지원 및 누락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고등학생 유망 선수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추가적인 지원 방안으로서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완도 유소년 야구단에 강사료 472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초등부, 초중등, 육상부, 역도부의 체육 용품 및 훈련비 52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고등학생 유망 선수를 우리 군 우수 선수로 발굴 육성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 조영식 위원님께서 제시한 권고 사항, 완도군 역도실업팀 홍보 전략 마련에 대한 후속 조치 사항입니다. 올해 4월 현재 완도군청 홈페이지에 역도 실업팀 홍보란을 개설하여 대회 출전 소식과 입상 내용을 홍보하고 있고 현수막 및 보도 자료를 통한 언론 홍보와 더불어 역도 실업팀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과 선수들의 인지도를 더욱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홍보 영상 제작을 위한 예산을 2026년도 본예산에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조영식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생활체육공원 내 전천후 게이트볼장 활용 방안 마련에 대한 추진 사항입니다. 먼저 위원님이 제안하신 전천후 게이트볼장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참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게이트볼장 부지에 새롭게 건축물을 신축하고 증축하는 것은 예산 반영 및 사업성에 대한 중장기 검토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완도군 체육회 및 종목별 협회

등과 협의를 통해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조인호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권고 사항 스포츠센터 주차 타워 유료화 및 관리 철저에 대한 조치 사항입니다. 2024년 11월 청해진 스포츠센터 주차 타워에 완도군 볼링장 건립 사업이 확정되어 볼링장 건립 공사 착공 시 주차 타워는 전면 통제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향후 볼링장 준공에 맞추어 공영 주차장 유료화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차장 내부 침수 및 하자 개선을 위하여 올해 7월 주차 타워 일부 보수 공사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주차장 이용 주민들의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궁희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체육진흥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중에 누가 먼저 했는가요? 조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군 체육시설 예약은 온라인 시스템 없이 전화로만 받고 있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최정환

전화하고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 조인호 위원

그러면 운영 중인 시설 목록, 예약 처리 절차나 연간 접수 건 같은 건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최정환

연간 100건 미만이고 시설은 농어민 문화 체육 센터, 공설운동장, 청해진 스포츠 센터 그리고 해신축구전용구장 5개소입니다.

○ 조인호 위원

민원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업무 시간 외에는 예약을 전혀 못 한다고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체육진흥과장 최정환

주로 전화나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 조인호 위원

사진 한번 올려 줘 보세요. 가장 유사한 규모로 다른 지자체들은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최소한 예약 가능한 일정표를 해서 공개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군은 그렇게 할 생각이 있습니까? 혹시나.

○ 체육진흥과장 최정환

다른 시군 잘된 사례를 봐서 우리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인호 위원

우리도 시대에 맞춰서 가야 하니까 과거에 폐쇄적으로 해왔던 그대로만 할 게 아니고 우리가 또 전지훈련도 유치하고 이런 거 하려면 모든 걸 투명하게 또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모든 게 설계가 돼야 해요. 그래야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보고 또 외국인, 우리가 전지훈련 유치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지금 가신 지 얼마 안 됐죠?

○ 체육진흥과장 최정환

예. 6개월 됐습니다.

○ 조인호 위원

업무 파악은 얼추 6개월이면 다 됐겠네요.

○ 체육진흥과장 최정환

예.

○ 조인호 위원

다 됐죠?

○ 체육진흥과장 최정환

위원님의 질문에 100% 답변할 수준은 아니

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조인호 위원

그러니까 체육시설도 우리 군의 공유재산입니다. 군민들이 진짜 편안하게 쓸 수 있게끔 하는 것도 공직자들, 저희가 할 일이에요.

○ 체육진흥과장 최정환

예. 알겠습니다.

○ 조인호 위원

그렇게 책임감을 가지고 군민들이 쉽게 접근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우리 행정에서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군민들의 민원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최정환

위원님이 제안하신 사항은 내년 상반기에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조인호 위원

적극 추진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궁희

조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영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역도 실업팀 홍보 영상 제작비 2026년도 본예산,

○ 체육진흥과장 최정환

본예산에 세웠으니까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관심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조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수영장 관리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완도 수영장은 군민의 여가와 건강 증진을 위해 중요한 체육시설입니다. 올해만 4만여 명이나 이용할 정도로 수영 인기가 많죠?

○ 체육진흥과장 최정환

예.

○ 조영식 위원

아주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현재 수영 강습 운영 프로그램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최정환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기초반, 초급, 중급, 상급, 연수반, 아쿠아반 그렇게 분류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조영식 위원

감사 자료를 보니 수영 강사가 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모든 프로그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최정환

예. 방금 말한 기초부터 상급, 연수까지는 강사들이 하고 주말에 운영하는 아쿠아 프로그램은 전문 강사가 와서 합니다.

○ 조영식 위원

타 지자체의 경우에는 아쿠아로빅, 수중 재활, 실버 수영 교실, 청소년 수영 아카데미 등 연령과 목적별로 세분화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프로그램도 나쁘지 않으나 어린이나 노년층까지 수영을 즐길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방법은 없을까요? 혹시.

○ 체육진흥과장 최정환

어린이나 청소년은 교육지원청에서 강습 프로그램 식으로 주로 많이 하는데 타 시군에서 우수 프로그램이 있다면 이번 정례회가 끝나면 담당자하고 가서 배워 와서 내년 상반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영식 위원

이 부분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최정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영식 위원

수영 강사 구성도를 보니까 모두가 공무적인데 하루에 몇 시간씩 강의하는가요? 이분들이.

○ 체육진흥과장 최정환
보통 하루에 2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 조영식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수업 시간 외에는 어떤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최정환
강습 전 준비도 있고 강습 후에 마무리도 해야 하고 또 수영 회원들도 관리도 하고 프로그램 보충 수업도 하고 본인들도 바쁘고 그럽니다.
○ 조영식 위원
수영 강사분들도 공직자이기 때문에 복무 점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최정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영식 위원
감사 자료를 보면 상하반기 2주간 정기 휴장 중 보수 정부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보통 물 교체 및 물탱크 청소를 하는데 업체와 계약해서 하는가요? 아니면 직원들이 하는 건가요?
○ 체육진흥과장 최정환
밀폐공간 작업은 전문 저수조 청소 업체가 하고 일반 청소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합니다.
○ 조영식 위원
또 물탱크 청소 시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니까 특히 또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최정환
알겠습니다. 사전에 교육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 조영식 위원
다음 수영장 이용객들 민원 사항을 한두 가지 제안 사항이나 말해 볼까 합니다. 방송실, 자료 한번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보이십니까? 요즘 날씨가 쌀쌀해서 수영장 실내 온도 및 물도 차갑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왼쪽 사진은 패널에 수영장 온도를 적어 놓은 우리 완도 수영장입니다. 오른쪽 사진은 전자 기계로 수시로 실내 및 물의 온도를 체크해 주는 인근의 타 시도의 수영장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 체육진흥과장 최정환
오른쪽 것이 더 좋게 보입니다.
○ 조영식 위원
그렇다면 아주 적정한 답을 하셨으니까 여기 보니까 예산도 많이 들지 않고 근무자들도 수고도 들고 이용자는 또 편리하고 또 미관상 보기에도 좋아질 것 같은데 빠른 시일 내에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최정환
예. 알겠습니다. 여기 있는 김동환 팀장님하고 올해 안에 해결하겠습니다.
○ 조영식 위원
다음 방송실, 다음 자료 한번 보내주십시오. 이거는 민원인 제안 사항입니다. 다음 사진이 없나요? 그러면 이 사진을 과장님 드리고 다 봤으면 좋겠는데 아마 수영장 전면 계단 있는 곳을 찍어 놓은 사진 같습니다. 수영장 입구인데 조명이 없어 어둡습니다. 계단까지 있어 잘못하면 넘어질 위험도 있습니다. 여기에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가로등 등 조명을 설치해 주십시오 하는 민원인 제안 사항입니다. 혹시 수영장에 이것도 돈이 얼마 안 들 것 같은데 안전을 위해서 최대한 빨리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최정환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정례회 끝나면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 조영식 위원
완도군 수영장은 완도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핵심 체육시설입니다. 운영 프로그램을 다양화 해 주시고 군민의 이용 편의를 위해 운영 시간 조정도 부탁드리면서 군민의 안전도

각별히 챙겨주시길 이 자리에 대해서 빌겠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최정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조영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궁희

조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병수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하고 과장님 한번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 관내에 조성되었거나 기획하고 있는 파크골프장이 몇 개소입니까?

○ 체육진흥과장 최정환

지금 운영 중인 것은 고금 파크골프장이고 구상 중에 있는 것은, 사업 추진 중에 있는 것은 노화 파크골프장, 청산 파크골프장입니다. 그리고 완도읍에는 구상 중에 있습니다.

○ 박병수 위원

완도읍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가요?

○ 체육진흥과장 최정환

완도읍 파크골프장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박병수 위원

그래요? 계획이 아직 없는가요?

○ 체육진흥과장 최정환

구상 중에 있습니다.

○ 박병수 위원

구상 중. 구상 중에 있다면 체도권 내에 토지가 없어서 골프장을 못 한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금년 봄이죠. 과장님하고 군외 신학지로 현장 방문한 기억이 있는데 거기 면적이 평지면서도 접근성도 좋을 뿐만 아니라 면적이 한 3만 평 규모가 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는 상당히 많은 홀이 나올 수가 있다. 전국대회도 개최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보면 거기하고 우리 화흥포 간척지하고 해서 연계시킨다면,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한번 검토를 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최정환

땅만 있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

○ 박병수 위원

지금 그쪽이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전인대 농업진흥구역으로 용도가 묶여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완도군에서 군 관리계획 변경을 제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군 관리에 반영을 해서 해제시켜서 한다고 하면 행정적으로 절차가 간소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최정환

위원님이 배려해 주신다면 가끔 우리 부서장들이 답변할 때 곤란한 경우가 있거든요. 때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위원님이 배려해 주신다면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박병수 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십시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최정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궁희

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성규 위원

수영장 관련해서 조영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저도 평상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완도 수

영장은 1일 평균 150명 정도 사용을 하죠?

○ 체육진흥과장 최정환

예.

○ 박성규 위원

인기 있는 체육시설입니다, 과장님. 수질 검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체육진흥과장 최정환

수질 검사는 분기 1회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 박성규 위원

그러면 수질 검사 결과는 군민이나 수영장 이용객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공개를 합니까?

○ 체육진흥과장 최정환

수영장 안내 게시판에 게첨하고 있습니다.

○ 박성규 위원

본 위원이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수영장 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수영장 수질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용객 대부분이 수질 검사 결과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수영장 이용객들이 안심하고 군 행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수질 검사 결과를 군 홈페이지에 수영장 이용객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개선을 해 줄 것을 제안드립니다. 어떻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최정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성규 위원

할 수 있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최정환

예.

○ 박성규 위원

그리고 수영장 관련 민원이 있어 과장님께 건의하고자 합니다. 요즘 바닷가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학생 상당수가 수영을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경우 교육청 주관으로 연간 계획에 의해 생존 수영을 배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 초등학생 생존 수영 교육 지원 조례에 의거 초등학생 생존 수영을 학교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하지 않고 있죠? 교육청 주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주관해서 직접 추진하면 하는데 그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학교는 학교대로 하고 또 필요하면 우리 체육진흥과 내에서 주관해서 직접 추진하는 것으로.

○ 체육진흥과장 최정환

관련 사항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박성규 위원

하여튼 요즘 사고도 많이 나고 그렇습니다만 우리 학생들이 수영은 기본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학교에다만 의지하지 마시고 우리 군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체육과에서 지원해서 생존 수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최정환

예. 알겠습니다.

○ 박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궁희

박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영식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방금 박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화흥포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잠깐 결과물이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각 3년 가까이 경비행장 부지 파크골프장 부지가 기획재정부, 농림부 4 대 6으로 해서 있다가 아마 올 12월에 건설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아마 완도군으로 편입이 될 것 같아요. 그것까지 최종적으로 나서 돈 지급만 남았답니다. 저희가 2025년도 12억 편성해서

그 예산 마련해서 해놨죠. 그래서 그게 확정되면 체육진흥과장님 만나서 제가 이야기하려고 그랬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건설과장님이 12월 말이나 늦어도 1월 초순까지는 된다고 확답을 주시니 그다음부터는 체육진흥과장님이 거기에 용역도 두세 차례 해서 최종 용역까지 끝났습니다. 군수님 입회하에. 그리고 거기에 드론 연습장까지 한다 하니까 최대한 빨리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래서 2026년도에 파크골프장 화흥포 예산이 안 돼 있으니까 추경이라도 만들어서 예산 반영해서 한다는 내부 행정의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신속 집행을 신속으로 적극 행정을 해 주시길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드리겠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최정환

예. 알겠습니다.

○ 조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궁희

조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완도군 우수 선수 육성 지원에 대해서 우리 조례가 있죠. 우수 선수는 어떻게 선정을 하고 몇 명이나 현재 관리하고 계시는지.

○ 체육진흥과장 최정환

지금 우수 선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연초에 선발하고 현재는 이윤리 선수 1명입니다.

○ 위원장 허궁희

1명인가요?

○ 체육진흥과장 최정환

예.

○ 위원장 허궁희

지원은 어느 정도 해 주고 계시는지.

○ 체육진흥과장 최정환

월정 수당으로 매월 200만 원씩 지급되고 훈련비, 총을 구입했을 경우 총 구입비 그런 거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허궁희

이윤리 선수는 완도를 대표하는 사격 선수입니다. 국내 대회 및 국제 대회에서도 뛰어난 성적을 내고 있어 그에 대한 대우를 해 줘야 하는 건 맞습니다. 우수 선수나 시상식 장면을 자주 볼 수 있어 우리 완도군 브랜드를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이 부분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을 우리 완도를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셨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 체육진흥과장 최정환

현재 이윤리 선수가 대회에 나가서 수상을 하게 되면 우리가 홍보 현수막을 제작해서 홍보하고 그리고 보도 자료 작성해서 언론에 배포하는데 더 좋은 홍보 방법이 있는가 머리를 싸매겠습니다.

○ 위원장 허궁희

그러면 앞으로는 이윤리 선수 외에 다른 선수를 선정할 계획은 없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최정환

연초에 또 신청받을 계획입니다.

○ 위원장 허궁희

예. 우리 완도에 우수한 선수들이 많이 있죠. 역도부도 있고 최경주, 이소미 좋은 훌륭한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유명한 선수들을 활용해서 우리 완도군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체육진흥과장 최정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궁희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최정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궁희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제 겨울철이 다가오니까 축구를 비롯해서 각종 동계훈련 선수들이 우리 지역을 찾게 되죠. 그런데 요즘 서서히 뭔 말들이 나와요. 특정인들 몇 분들이 좌지우지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될 것 아니에요? 숙소가 됐든 식당이 됐든 골고루 활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도 절대 그런 구설수에 휘말리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최정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궁희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감사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 활동을 종료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소관 부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내일 오후 2시부터는 행정사무감사 관련 현지 확인이 있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꼭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산회)

○출석위원(8인)

허궁희	조인호	박병수
박재선	지 민	조영식
박성규	최정욱	

○출석공무원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
행정지원과장	이기석
세무회계과장	천종실
민원봉사과장	김용식
체육진흥과장	최정환

○ 전문위원 : 박영민

○ 전문위원 : 전문희

○ 속 기 사 : 임은주

제334회 완도군의회(제3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11월 27일(목)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 경제교통과
   - 문화예술과
   - 해조류박람회추진단

부의된 안건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 경제교통과
   - 문화예술과
   - 해조류박람회추진단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허궁희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완도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의 수감 대상은 경제교통과, 문화예술과, 해조류박람회추진단이며 오후 2시부터는 현지 조사를 할 계획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현지 조사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서 팀장 소개 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우홍래입니다.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

습니다. 경제팀 김용석 팀장, 에너지팀 한태영 팀장, 교통팀 황춘 팀장, 소상공인지원팀 김광필 팀장입니다. 다음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허궁희 위원님의 제도개선 사항, 해양치유 셔틀버스 운행사업 노선 등 재검토입니다. 해양치유 셔틀버스는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의 일환으로 2023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운행하고 있는 노선입니다. 본 노선은 교통 소외 지역의 이동 편의 증진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 버스는 신지면 대평리 그리고 사후도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대야2구 선착장을 중심으로 수목원과 해양치유센터 등 주요 관광지를 왕복 운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야2구 정류장은 사후도 여객선 4회 운항 중 3회 연기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실질적 이동 편익을 높였습니다. 여객선 운항 외의 시간대는 해양치유센터 입장 시간을 고려해 배차를 조정하고 구내 수목원까지 포함한 노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완도군 무료버스 정책 시행과 함께 관광객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해양치유 셔틀버스 이용객도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노선은 지속적인 운행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해당 노선을 활용하여 교통 취약지역 운행을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재선 위원님의 제도개선 사항 전통시장 체계화를 위한 입점 개선 및 관리 절차입니다. 기존의 연 1회 일괄 임대 방식에서 올해에는 수시 입점 관리 체계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 현재까지 계약 16건, 해지 9건, 모집 공고 5회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실수요 중심의 유연한 입점 관리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완도읍사무소와 협력하여 정기 수시 점검체계를 마련하고 영업 소홀 등 민원 발생 점포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을 통해 개선 조치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에도 체계적인 입점 관리와 수시 점검을 지속 강화하여 전통시장의 건전한 영업 환경 조성과 공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민 위원님의 제도개선 사항 버스승강장 버스도착알림시스템 개선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주요 정류장 25곳에 버스 도착을 알리는 BI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스템은 국토교통부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착 버스가 숫자로만 표기되어 있어 승객들이 해당 버스 노선을 알기가 어렵다는 민원이 있어 한글과 숫자를 병행해서 표기하도록 협의하고 있으며 내년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민 위원님의 제도 개선 사항 5일시장 버스승강장, 버스정차선 추가 설치 검토입니다. 5일시장 인근은 유동 인구가 매우 많은 지역으로 특히 어르신들의 버스 이용이 집중되는 곳입니다. 이와 함께 승강장 주변의 상시 불법주정차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안전사고 위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버스 정차선 추가 배치를 검토하였으나 커브 길과 횡단보도 등으로 공간 확보가 어렵고 버스 정차선으로 인한 주차 공간 부족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는 오일장마다 노약자의 안전한 승하차를 돕기 위해 행복도우미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6년에는 불법 주정차 면담 요원 인건비를 반영하여 현장 상시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조영식 위원님의 제도개선 사항 장애인콜택시 확대 및 개선책 마련입니다. 장애인콜택시 위탁기관 선정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향후에는 선정 조건을 신중히 검토하고 선정위원회 구성 시 노인회, 여성단체 등 다양한 단체의 추천을 반영하여 보다 공정하게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장애인콜택시 신규 차량 1대를 추가 확보하여 현재 완도군은 법정 기준 12대 대비 총 6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기존 장애인콜택시 차량 만료에 따른 교체 1대와 신규 1대를 추가할 계획입니다. 최근 고령 인구 증가 등으로 장애인콜택시 이용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앞으로 예산 확보가 가능한 범위에서 차량을 단계적으로 확충하여 장애인 및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향상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영식 위원님의 제도 개선 사항 완도군 택시 자율감차 시행입니다. 우리 군 택시 자율감차사업은 2024년도에는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였으며 올해에는 2대분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전라남도 택시 총량 고시가 늦어짐에 따라 추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11월 현재 법인택시 1대, 개인택시 1대 총 2대의 감차를 완료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본 예산의 3대분 감차 보상금을 반영하여 상반기 중에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궁희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경제교통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약산 당목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해 주신 항춘 팀장님이나 관련 직원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며 또 해상풍력에 관련된, 어제 기사 혹시나 봤어요?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예. 오늘 새벽에 기사가 뜬 걸 봤습니다.

○ 조인호 위원

군에서 대응할 부분은 차질 없이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인호 위원

과장님, 여객선 버스에 관련돼서 군민 제보가 들어와서 질문을 하게 됐는데요. 우리 당목에서 금일에 도착하면 보통 버스 시간하고 맞아떨어지는데 한 구간이 갭이 생기는 것 같아요. 혹시나 제보받은 사항 있어요?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최근에 민원인이 경제교통과 우리 사무실을 찾아와서 이의 제기를 하신 걸 들었습니다. "가끔 금일읍에 도착을 하면 그 시간대의 버스가, 배가 약간 늦어질 수도 있는데 기다리지 않고, 한 1, 2분 정도 기다려주면 좋은데 버스가 바로 출발해 버리더라." 이런 민원을 접수했었습니다.

○ 조인호 위원

그 민원을 해결하려면 경제교통과팀하고 금일읍하고 또 대표님하고 이야기를 해야 해요. 대표와 이야기를 해서 배 시간이 1, 2분 늦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감지해서 다음부터는 그 민원이 다시 안 오게끔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예.

○ 조인호 위원

그리고 과장님, 또 군민 제보 사항인데 현재 완도군의 야간에 신호등 체계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장보고마트는 계속 24시간 신호등 체계로 가고 야간에는 진아리채 앞에는 지금 점멸,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일부 구간 수성구 앞이나 그런 쪽은 시간이 지나면 점멸로 관리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

다.

○ 조인호 위원

택시 하신 분들이 제보를 했는데요. 12시 넘으면 장보고마트 앞에 하나 정도는 정상적으로 운행하고 나머지는 상시적으로 우리가 점멸을 했으면 하는 그런 제보가 들어왔는데 과장님, 그거 혹시나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해야 하죠, 하면?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예. 우리가 임의대로 할 수는 없고요.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 부분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 곳이 어디인가를 봐서 최대한 남길 수 있는 것만 남기고, 그렇게 관리를 해 보겠습니다.

○ 조인호 위원

꼭 관심 갖고 경찰서하고 꼼꼼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인호 위원

과장님, 다른 안건은요. 완도는 다리로 지금 많이 형성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해수는 그나마 염분이 약해서 다행인데 겨울 되면 미역을 가공 공장에서 가공을 해서 염장을 해서 육지의 선별장으로 이동을 해요. 그러면 그 염분이 바다로 계속 가르면서 완도읍 아니면 마량, 강진장까지 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뒤따라가는 차들이나 옆에 배에서 정차해 있던 차들에 염분이 튀어서 차가 엉망이 돼요.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는 단속권이 없어요.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운행 중인 차량은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 조인호 위원

경찰서 소관.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경찰서 소관입니다, 예.

○ 조인호 위원

그러니까 경찰들도 꺼려하더라고, 민원이 들어가면 단속을 하고. 그래서 오토를 하신 분들이 제보를 한 사항은 겨울철 되면 그 기간만큼 제작하는 갑바로 비용이 한 500만 원 들어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들 자부담으로 너무 무리가 간다, 가공업체에서 대주는 것도 아니고. 화물 없어도 이렇게 어려운 실정인데. 그래서 군에서 보조했으면 하는 그런 제보를 작년부터 계속했는데, 제가 이정국 과장님 계실 때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또 인수인계가 안 돼 있더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방법이 있을까요?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타 시군의 비슷한 사례나 이런 부분을 직접 언론 보도로는 접한 것은 없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능하다면 조례로 제정하든지 어떻게든지 해서 해수 방류 부분이나 염장 미역에서 나오는 그런 부분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조인호 위원

우리 군이 다른 시군하고 달라서 다리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고흥 같은 경우는 금산대교 있잖아요. 거기는 물이 흐르면 통행이 안 됩니다. 통행을 못 하게 해버려요. 완도군은 전혀 그런 데 관심이 없어, 지금. 행정도 그렇고 무슨 단체든지. 만약에 그 염분이 예를 들어서 다리에 가라앉아서 그 염분이 속으로 파고들어요. 그러면 나중에는 큰 사고로 될 위험이 많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야지 다리는 자꾸 많아지는데 전혀 무관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다각도로 연구해서 올해 미역 작황도 안 좋은데 이것이라도

우리가 지원해서, 전체 해주라는 거 아니니까 자부담하게끔 해서 돈 얼마 안 들어가요. 한 회사에 버스 한 5대, 6대씩 있는데 그 정도, 미역 실어 나르는 기사들만 혜택을 주면 되거든요. 사진 찍어서 내세요. 하면 되니까. 이 부분은 꼭 과장님이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참고해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예. 위원님과 함께 좋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조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궁희

조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정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전에 조인호 위원님이 했던 건데 거기는 염장 관련이고 이건 해수, 바닷물 활어차 같은 거 도로에 빼고 다니고 흘리고 다닌 것 때문에 제보가 들어와서 질의하게 됐습니다마는 조인호 위원님이 같은 맥락에 비슷하게 했기 때문에 과장님이 행감 끝나면 전수 조사를 해보시고 해결 방법이 뭔가, 이것도 역시 지금 경찰 소관인가요, 우리 소관인가요?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운행하는 차량은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경찰서 소관이고요. 정지대 위에 있으면서 방류하는 것도 그거는 경범죄 처벌법, 마찬가지로 경찰서 소관입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협조 요청이 오면 저희들도 적극 협조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제안을 해서 계속해서 합동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 최정욱 위원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행정의 모든 걸 주민들은 보고 있고 건의를 하고 하기 때문에 경찰서와 잘해서 한번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정욱 위원

두 번째는 반사경. 각 도로마다 교차로, 곡선 구간 등 설치된 반사경 주민 안전과 직결되는 교통시설물입니다. 올해 반사경 설치 및 보수는 몇 개월이나 했을까요?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자료를 봐보겠습니다.

○ 최정욱 위원

자료 없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정욱 위원

반사경에 대해서 사고가 나 있거나 잘못돼 있으면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저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읍면에서 지원 요청이 오면 신속하게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최근에도 쓰러져 있다는 그런 제보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만 연말에 예산이 다 소진이 돼서 수리를 못 하는 부분도 있고 합니다, 지금.

○ 최정욱 위원

방송실 자료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저기에 보면 방금 과장님처럼 그렇게 했다는데 이게 아주 가까운 데가 저렇게 있거든요. 멀리 있는 데가 아니야, 시내고. 그렇다면 전수 조사를 한번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건. 말은 했다고 하지만 그냥 쉽게 누구나 볼 수 있는 장소거든요, 저게. 그러니까 아마 이거를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나요, 안 하나요? 아니면 민원이 왔을 때 처리하나요?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읍면에서 연초에 총괄적으로 신청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저렇게 사고가

났을 경우에 지원 요청이 들어오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최정욱 위원

한번 전수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해보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정욱 위원

그리고 저거 들어오면 바로 되는가요, 아니면 저것도 예산이 필요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보수하고,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어느 정도 저희들이 예산은 확보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름 지나고 가을, 겨울 돼 가면 예산이 빨리 소진되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에 들어오는 것은 처리를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 최정욱 위원

혹시 스마트폰 앱이나 GIS 기반 위치등록시스템을 통해 신고·보수할 수 있는 체계 도입을 검토한 적은 혹시 있을까요?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 최정욱 위원

이 부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예. 알겠습니다.

○ 최정욱 위원

반사경은 군민 생명과 직결된 안정장치입니다. 태풍 염해, 차량 충돌 등으로 파손되는 공구가 많기 때문에 사후 보수보다는 상시 예찰 체계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정욱 위원

그리고 49페이지 이제 간단히 해볼게요. 조업선단 유치 과장님이 와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진행되고는 있는 건지 한번 듣고 싶거든요.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전용 부두 관련해서는 제가 오면서 급랭창고나 제방장을 확충하고 그런 부분을 계획을 해서 어느 정도는 민간회사, 어떻게 보면 해상풍력 관련된 업체에서 그 부두를 활용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 향후에. 그래서 그 부분을 민간 투자로 일부분은 확답을 받았고요. 이제 내년부터는 실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자면 남동발전에서는 급랭창고 25억을 현금 출자하기로 했고요. 내년 하반기쯤에 현금으로 출자를 하기로 했고 북측 방파제는 본인들이 직접 시공하기로 그렇게 지금 협의가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쯤에 예산 확보돼서 사업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급랭창고 25억 추가 부분하고 남측 제방은 그 이후에 따라오는 기업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최정욱 위원

지금 선단 유치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그 선단 유치 부분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계속 제가 한 몇 년간 관리를 해왔던 경제팀장 때부터 해서 2개의 조업 선단을 운영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직접 완도에 가공 공약까지 만들어서 운영을 해 보겠다고 계속 협의를 해 와서 최근 구두상으로는 농공단지 입주 계약을 하겠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2월 안에 완도에 회사 법인을 새로 설립을 해서 계약을 하게끔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 최정욱 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네요. 좋은 대답인 것 같은데 꼭 그렇게 잘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외지 선단이 올 수 있게 하려면 우리 기반 시설이 필요해요.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제가 먼저 거꾸로 답변드렸습니다만 그런 시설이 필요합니다.
○ 최정욱 위원
지금 그런데 방금 전에, 남동 뭐요?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남동발전에서.
○ 최정욱 위원
남동발전에서 그 부두를 사용한다는 얘기인가요?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일부 자기들이 창고를 하나 조그맣게 짓고 기자재 보관이나 배들이 자기들이 공사를 착공하게 되면 인력이나 대형 장비는 목포 신항에서 해야 합니다마는 부수적인 것은 완도군 내의 관내 항구를 찾아봤습니다. 적당한 곳이 없어서 하게 되면 기존에 사용했던 분들하고 방해되지 않게끔. 그래서 제방을 추가로 설치를 하고 나머지 이용 부분에 대해서는 급랭창고 25억을 출현하겠다고 그렇게 지금 답변을 받았습니다.
○ 최정욱 위원
지금 거기 부두를, 남동 부두 안 그래도 좁은데 그거 하면 가능해요?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그 부분을 검토를 했습니다. 현장에서 몇 번 가봤고요. 자기들은 제방 하는 배는 몇 번 안 되지만 계속 상주할 수 있는 부분을, 북측 제방을 자기들이 만들어서 그쪽에 제방을 하겠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최정욱 위원
그건 하겠다고 우리는 무조건 들어주는 건가요?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그래서 저희들도 얻어낼 건 얻어내고요. 어차피 그 사람들은 1년 정도만 사용을 하고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온전하게 조업 선단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최정욱 위원
우리 현장 잘 한번 살펴보시고. 어렵게 그나마 저것도 만들었는데 그걸 가지고 또 다른 용도로 돼버리면. 진짜 중요한 부분은 시기가 있어요. 선단 유치가 되고 된 게 아니에요. 시기적으로 한 번 놓쳐버리면 두 번 다시 안 오는 게 선단들인데 그런 거 잘해서 해야지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예. 잘 판단하겠습니다.
○ 최정욱 위원
그리고 지금 그러면 거기를 부두로 쓰는 대신에 거기에 우리한테 어떤, 금방 말한 지원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예. 그렇습니다.
○ 최정욱 위원
어떤 지원?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북측 방파제는 본인들이 직접 시공을 해서 향후 계속 사용하게 되고요. 급랭창고,
○ 최정욱 위원
북측 방파제라는 게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신설하는, 옛날에 해경에서 활용했던 부장교 형태로 있었습니다마는 그쪽에 차량이나 드나들 수 있게끔 방파제를 신설을 합니다. 북측 방파제를 본인들이 직접 공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급랭창고 우리 군이 계획했던 50억

정도의 급랭창고 부분에 대해서 절반은 자기들이 현금으로 출자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 최정욱 위원

하여튼 부두에 피해 안 가도록 잘해서 서로 해야지 함부로는 하지 마십시오.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예.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최정욱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두 번째, 우리 중앙시장 한창 지금 시작하고 있잖아요?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예.

○ 최정욱 위원

저게 원래는 시작할 때 우리가 "교통 체증 때문에 그걸 먼저 해결하고 해라." 그랬을 때 뭐라고 했냐 하면 그 계획을 갖고 오라고 해서 옥상에다가 주차장을 하겠다고 그때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다 사라져 버리고. 시설만 좋게 해 놓으면, 교통 체증이 지금도 난리인데. 그때 당시에 그걸 그렇게 약속해 놓고 했는데 과장님 지금 간단히 말하지만 꼭 그거 해결해야 합니다.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중앙시장 부근 주차장 문제도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빨리 늘려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최정욱 위원

그때가 언제인데 지금 몇 년이 됐는데 한 건도 못 했어요. 옥상에 한 줄만 알았는데 어느새 그렇게 변경이 돼서. 전혀 주차장 계획은 하나도 없이 저렇게 해버리면 우리는 뒤로 또 하면 뭐라고 주민들한테 답하냐고요. 그렇게 해결한다고 다 했었는데. 꼭 과장님 그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예. 꼭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 최정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궁희

최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성규 위원

과장님, 우리 온누리상품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온누리상품권을 적극 권장하고 있죠?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예. 그렇습니다.

○ 박성규 위원

지난 2차 회의 때 완도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는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5분 자유발언 이후 조치사항이나 뭐 있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기존에 추진해 왔던 정책들하고 내년에도 계속해서 추가로 예산 확보해서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 박성규 위원

방송실 자료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예. 잘 안 보입니다.

○ 박성규 위원

이따 자료 줄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예.

○ 박성규 위원

광주광역시 서구청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광주 서구는 지역경제 회복해법을 골목 상권에서 찾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 지역 전체를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하고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을 카페, 식당, 병원, 주유소 등으로 대폭 확대해 주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본 할인 10% 페이백 이벤트까지 최대 20% 할인 혜택으로 온누리상품권 활성화를 꾀한 결과 상인들의 매출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서구 군민들은 올해만 해도 100억 이상 생활비 절감 효과를 체감했다고 합니다. 과장님, 완도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현황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인가.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현재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은 전통시장만 해당이 되고 6개소에서 한 120개 점포가 가입이 돼 있습니다.

○ 박성규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49개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로 전통시장에만 가입이 많이 돼 있어요. 중앙시장도 돼 있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예. 중앙시장도 가입이 돼 있습니다.

○ 박성규 위원

이 마을은 완도 군민은 온누리상품권이 시장에서만 쓰는 상품권으로 인식되어 홍보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예. 그 부분은 일반 상가들은 아직 가맹이 하나도 가입이 안 돼 있는데 조건이 조금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온누리상품권 가입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적극 홍보해서 가입을 유도해 보겠습니다.

○ 박성규 위원

일반 상인들은 전혀 지금 가입이 안 된 상태죠?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예. 그게 조건이 있어서.

○ 박성규 위원

조건이 무슨 조건이 있어야 합니까?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2,000평방미터 이내의 면적 내에서 10개의 상가 이상이 가맹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독립돼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가입이 가능한 부분을 적극 유도를 해 보겠습니다.

○ 박성규 위원

집중적으로 상가가 10개 이상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예. 그렇습니다.

○ 박성규 위원

잘 파악해서 가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상가들도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온누리상품권 적극 권장하라고 공문 같은 거는 안 내려왔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 박성규 위원

광주 서구는 2025년 참좋은지방자치 정책대회에서 골목경제119프로젝트 성과로 국무총리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과장님, 뭐 느끼신 부분 있으면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정부에서 주도하는 온누리상품권도 중요합니다만 저희들도 우리 군에서 발행하는 완도사랑상품권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 박성규 위원

우리 지역 화폐의 완도사랑상품권도 현재

15% 할인해 주고 있죠?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예. 그렇습니다.

○ 박성규 위원

그러면 온누리상품권도 함께 사용하면 추가로 최대 2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예. 현재 그렇습니다.

○ 박성규 위원

소비자도 좋고 소상공인 매출도 늘어나고 일석이조죠?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예.

○ 박성규 위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박성규 위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예.

○ 박성규 위원

완도군은 특성상 관광객 유입이 많으므로 관광지, 숙박업, 음식점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이 통용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성규 위원

그리고 광주는 가깝습니다. 광주 서구 한번 가셔서 벤치마킹 한번 해 보시고 또 시간이 되시면 같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궁희

박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영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관내에 또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관내 주유소 가격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하반기 들어서 지금 계속 유가가 상승하고 있죠?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예.

○ 조영식 위원

유가가 아무래도 상승하면 우리 군민들이나 주민들은, 서민들은 더 힘들어지겠죠?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예. 힘들어지겠습니다.

○ 조영식 위원

과장님, 혹시 오늘 아침에 휘발유 가격이, 주유소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완도?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우리 군은 한 1,700원대에서 지금 유지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조영식 위원

1,700원대니까 맞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1,710원하고 1,795원하고는 차이가 많겠죠?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예.

○ 조영식 위원

오늘 아침 완도읍의 관내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1,795원입니다. 다 똑같아요. 제가 오늘 행감 준비하면서 한 바퀴 돌아봤는데 동서 읍내를 막론하고 다 똑같더라고요. 먼저 방송실 자료 한번 띄워주십시오. 여기 보시면 완도

관내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전라남도에서 가장 비쌉니다. 또 거의 동일해요. 이런 현상이 수년째 지속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예. 알고 있습니다.

○ 조영식 위원

경제교통과장님 안 오실 때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예. 그렇습니다.

○ 조영식 위원

혹시 과장님, 이렇게 휘발유 가격이 비싸고 담합이 의심되는데도 수년째 이대로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몇 년 전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해서 답을 받았습니다마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담합을 했다는 회의록이나 내부 고발자가 있다거나 아니면 통화 내역을 확보하면 자기들이 조치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사하기가 힘들다는 답변을 받아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조치를 못 하고 있습니다.

○ 조영식 위원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인의 가격을 통제하기는 어렵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에서는 사업자 간 가격 협의, 공동 인상, 동일 가격 유지 등의 행위를 명백한 담합 행위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동일 가격 유지 행위에 대해 시장 교란 우려로 공정위 신고를 의무적으로 추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혹시 우리 군에서는 이런 법적 절차를 추진한 사례가 또 있을까요?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그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조영식 위원

그러니까 군민의 입장에서 보면 주유소 담합을 하는 것 같은데 행정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있다는 게 군민들의 불신이 커져만 가고 있다는 거예요. 또 지속적인 동일가격 체계는 공정경쟁 원리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타 지자체는 지역별로 유가 동향을 SNS나 군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매주 군민들에게 유가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까, 혹시?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고요. 주유소에서 매주 화요일에 한국석유관리원에 자기들이 가격을 신고해서 거기에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 홈페이지를 공유를 하든지 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 조영식 위원

이런 작은 부분 하나가 군민들에게 공개해야 할, 우리 행정의 신뢰도를 상당히 높여주거든요, 믿음도 생기고. 이번 사무감사를 통해서 이 부분을 시정할 계획은 또 혹시 있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예.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최근에 11월에 주유소 가격 담합 문제를 파악을 하고 전국적인 문제로 생각을 인식을 하고 공정거래위원회하고 국세청에 조사 필요성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어느 정도 이런 문제를 다룰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 조영식 위원

유독 가격 담합 의혹은 우리 군민들이 체감하는 대표적인 생활 불공정 사례라고 보입니다. 아마 이렇게 담합을 해서 장시간 동안 오랫동안 이렇게 하는 데도 드물 거예요. 그래서 다

행인 것은 며칠 전에, 오늘 아마 농협총회가 열릴 거예요. 열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며칠 전에는 농협이사회에서 또 통과된 부분이고 오늘 총회가 열리면 지난 2년간 농협과 수협 수차례 의견도 조율하고 또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그 결과물은 오늘 나올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긍정적인, 이사회는 통과를 했어요, 얼마 전에 농협이사회. 긍정적인 결과물이 나온다면 행정 절차도 신속히 해서 군민들께서 합리적이고 이해 가능한 유류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영식 위원

지자체가 직접 처벌 권한은 없더라도 적극 행정을 통해 시장을 감시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행정의 책무라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경제교통과에서는 주유소 간 가격 공시 강화, 군민 제보시스템 도입 등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영식 위원

과장님, 경제교통과에서 추진 중인 5일시장 공영주차장 시설 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 주체가 어디입니까?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경제교통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 조영식 위원

그러면 지금 5일시장 앞에 주차장이 몇 층이고 거기에 차량 주차 면수가 어떻게 됩니까, 혹시?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제가 경제팀장 할 때 준공을 해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마는 2층으로 돼 있는데 3단 주차해서 한 100면이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조영식 위원

2층이요?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예. 주차는 3단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조영식 위원

여기 63쪽 보고서에서는 3층 4단 82면이라고 돼 있는데.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전통 지금 읍사무소 옆에 돼 있는 거는, 잠깐만요. 자료를 보겠습니다.

○ 조영식 위원

완도 개포지구 주차타워 건립사업.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현재 개포지구 공사하고 있는 곳은 3층의 4단이 맞습니다.

○ 조영식 위원

예. 맞죠.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기존에 돼 있는 것은 2층의 3단이고요.

○ 조영식 위원

2층의 3단이고. 거기는 장날 5일장터 주차장이라고 합니까, 거기를 읍사무소 주차장이라고 합니까?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전통시장 주차장입니다.

○ 조영식 위원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곳은?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예. 그렇습니다.

○ 조영식 위원

혹시 거기에 처음에 설계 당시에 엘리베이터가 미설치된 이유가 있을까요?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현재 설치돼 있는 전통시장 주차장은 당시에

는 장애인분들이나 노약자분들을 배려하는 BF 인증 이게 심각하게 대두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예산 문제도 있고 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지 않은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 조영식 위원

2층이고 단층이라서 그렇나요? 고층이 아니고? 3층 이상이 아니고?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제가 답변드린 대로 장애인 인증시설 그런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지 않은 상황이어서 그때는 그런 부분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조영식 위원

타 지자체를 먼저 살펴보면 장터를 끼고 있는 공영주차장은 보통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있거든요. 주민들 즉 고령자, 장애인 또 유모차를 끌고 있는 어머님들을 위해서 이런 분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보통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도 혹시 엘리베이터 설치 계획은 없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현재 추진하고 있는 행복충전소하고 개포로 주차장은 지금 포함이 돼 있습니다. 계획은 돼 있고요. 기존에 설치돼 있던 전통시장 주차장에 대해서는 현재 실정을 파악해 보고 설치가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조영식 위원

검토해 보시고 의회에 또 보고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예. 알겠습니다.

○ 조영식 위원

과장님, 농공단지 싱크홀 올해 몇 차례 발생했죠?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어느 정도 크다고 할 수 있는 곳은 한 군데였고 나머지 세 군데가 조그맣게 있었는데 사전 조치를 먼저 했었습니다.

○ 조영식 위원

그러면 총 4건입니까?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예. 그렇습니다.

○ 조영식 위원

자주 발생하는 이유가 뭡니까?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그것을 파헤쳐 보니까요. 저희들도 그래서 공사도 지금 선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존에 설치됐던 게 강관으로 돼 있어서 오래되다 보니까 눌리기도 하고 해수가 드나들다 보니까 부식이 되기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 조영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원인이 작년에도 똑같이 배수관 노화 및 침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작년 보수 공사는 임시 복구 수준이었나요?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그 구간만 했고요. 올해는 지금 중앙로 부분을 중앙로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했고요. 2029년까지 연차적으로 바르고 콘크리트 구조물로 하는 공사를 계획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 조영식 위원

이번 싱크홀 발생해서 인명 피해는 없었죠?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다행히도 없었습니다.

○ 조영식 위원

주변에 업체 통근 차량과 주민들이 매일 다니는 구간으로 이런 상황에서 안전불감증이 조성될 우려가 또 있거든요. 농공단지 실리콘에 전수 조사할 계획은 없습니까, 혹시?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기존에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한 6개 정도는 우려가 되는 곳이 있어서 공사를 다 하긴 했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그런 우려되는 구간을 전체적으로 연차적으로 개선 공사를 해야 합니다.
○ 조영식 위원
예산을 세워서라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예.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조영식 위원
농공단지는 입주 기업이 밀집해 있어 도로, 배수관, 맨홀, 우수 시설 등 하부시설 점검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혹시 땅속 사정을 알 수 없으니까 관망도 같은 지도를 만들어보면 어떨까요?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저희들이 관망도 어느 정도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전에 민간인들이 무단으로 해서 하는 것도 굴착을 하다 보면 그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저희들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영식 위원
관망도를 그려놔야 어느 구간에 관로가 묻혀 있는지 현황 파악도 되고 원인 분석도 돼서 유지 관리하는 데 용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공단지 생긴 지가 지금 약 30여 년 됐죠?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예. 그렇습니다.
○ 조영식 위원
이 부분도 꼭 필요한 사항이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예.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영식 위원
싱크홀은 작은 균열에서 시작되지만 행정의 안일함이 반복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싱크홀 사고로 단순 보수로 끝내지 말고 시설물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예. 잘 알겠습니다.
○ 조영식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궁희
조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해상풍력에 대해서 군정 질문 답변 때도 얘기를 했었죠?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예. 그렇습니다.
○ 박재선 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라고 해서 잘 알고 계시죠?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예. 다른 지자체에서 신청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 박재선 위원
우리 군에서는 세 군데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죠, 민간 사업자가?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예. 그렇고 풍향계를 설치하는 곳도 여러 곳이 있어서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 박재선 위원
그러면 타 시군들은 계속 직접화단지를 40MW 된다고 하면 신청은 하는데 왜 완도는 그걸 뺐을까요?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군은 초기부터 민간 사업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계측기를 다 허가받고 설치를 하고 있는 상황

이어서 우리 군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박재선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기간이 정해졌습니까, 신청하는 기간이?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올해는 신청이 마감이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 박재선 위원

내년 3월에 발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가요?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예. 그렇습니다.

○ 박재선 위원

그렇죠?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추가로 공모를 할지 어떨지는 저희들도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 박재선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더 과장님께서 확인해 주십시오, 이게 올해가 마감이 되었는지. 마감이 되지 않고 연장선으로 계속 신청을 할 수 있는 부분인지, 그것도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예. 잘 알겠습니다.

○ 박재선 위원

예.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항상 그렇게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신재생에너지. “신안 사례가 좋으니 신안군을 따라서 해라.” 뉴스에도 한 번 나왔죠?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예.

○ 박재선 위원

알고 계시죠? 인근 해남은 AI로 해서 또 준비하고 있고요. 우리 완도군도 좀 더 발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예. 맞습니다.

○ 박재선 위원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주민 수용성이죠.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찬성을 해야 추진할 수 있습니다.

○ 박재선 위원

예. 그래서 주민들한테 설명도 해야 하는데 그게 우리 군에서는 신경 쓰지 않고 민간 업체들이 하다 보니까 이런 불만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예. 자금력이 부족한 회사들이 다니면서 약간 시장을 어지럽힌 부분은 있습니다.

○ 박재선 위원

그러면 우리 완도군에서는, 공공주도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예.

○ 박재선 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해야 할 부분이죠?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예.

그렇습니다.

○ 박재선 위원

맞죠? 그러면 그렇게 할 의향이 있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현재는 해역이 많이 비어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할 만한 공간을 찾아봐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해보고요. 저희들은 28년 이후에 추진한 정부주도형에 대해서, 예비지구 지정에 대해서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선 위원

그러면 민간 사업자가 현재 점 사용 허가를

받은 곳이 지금 몇 군데 정도 되는가요?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한 27개 정도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박재선 위원

지금 현재 불허된 것도 많이 있죠?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예. 그렇습니다.

○ 박재선 위원

그 불허된 것에 대해서는 따로 검토를 합니까, 아니면 미루고 있는가요?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그 부분은 주민들 반대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설치가 불가능한 공간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해경훈련구역이나 화물선이 지나가는 구역, 여객선 운항 구역 그런 걸 제외하다 보면 사업을 신청한 구간이 중복되는 곳이 많이 있었습니다.

○ 박재선 위원

이렇게 시작이 되고 나면 공공 이익이 될 거예요. 그렇죠?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예. 그렇습니다.

○ 박재선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아는 데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금일해상풍력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의 5%를 출자한다고 해서 1,500억을 출자를 하게 되면 단계별로 주민들에게 사업을 어떤 부분을 할지는 저희들이 앞으로 계획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발전이 시작이 되면, 또 정부지원금이 있습니다. 발전 지역.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주민들, 또 아니면 그게 또 4%까지 넘어야, 총사업비 4% 이상은 주민들이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근 지역 주민들까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 박재선 위원

그래요. 지금 제가 알아본 게 주민 참여를 해야 하고 조합을 만들 수도 있죠?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예. 조합 형태로 갈 겁니다.

○ 박재선 위원

조합을 만들게 되면 개개인이 투자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예. 그렇습니다.

○ 박재선 위원

그러면 개개인이 투자하면 일반 사람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투자하기가 힘들잖아요?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개인들은 투자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합비만 내고 가입을 할 수 있으면 가능할 수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박재선 위원

그렇게도 할 수 있고요. 개인이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거기 조합에 넣고 개인이 투자를 하고, 개인이 투자를 하게 되면 그게 공공 이익이 남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예. 그렇습니다.

○ 박재선 위원

그 금액에서 은행 이자를 넣고 나머지 수입은 개인이 벌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그 부분을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조합 형태로 해서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그 부분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상세하게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 박재선 위원
예.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관심을 더 가져 주시고요. 한 번 더 확인해 보십시오.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예.
○ 박재선 위원
그리고 그러면 만약에 행위를 취해지면 어업 피해가 많이 볼 것도 있잖아요?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예.
그렇습니다.
○ 박재선 위원
그러면 어업 피해는 어떻게 지금 보상이 되는가요?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어업 피해 보상은요. 해양수산부에 등록돼 있는 15개의 인증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서만 조사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최근에도 금일 해상풍력은 그 기관들을 대상으로 심의를 해서 한 군데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이 앞으로 향후 1년 이상 피해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인근 주민들이나 아니면 거기에 출조를 해서 조업을 하는 어선들, 우리 지역 어선들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분들이 자료를 증빙하면 해당 피해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박재선 위원
업체 방금 말씀하셨는데 업체는 주민이 요구할 수도 있고 업체에서 요구할 수도 있어요, 민간 사업자가. 그렇죠?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금일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업체하고 주민들 협의체하고 같이 협의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 박재선 위원
예.
그러니까 주민이 먼저 그 업체를 정할 수도 있고,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그렇습니다.
○ 박재선 위원
사업자가 할 수도 있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같이 협의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 박재선 위원
그리고 피해는 사실 우리가 해상풍력을 하게 되면 일반 피해는 없을 거예요. 연안 복합 그렇게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인근 해상 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마 피해를 많이 볼 거예요. 그분들이 더 많이 요구할 것 같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예. 그분들이 자료를 증빙할 수 있으면 해당이 됩니다.
○ 박재선 위원
그런 부분들이 공공 쪽으로 항상 우리 군에서 이제는 나서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예.
○ 박재선 위원
그렇게 이제 앞으로는 민간 사업자한테 맡기지 마시고 우리 군 주도로 한번 해보십시오.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예. 잘 알겠습니다.
○ 박재선 위원
그래서 군 주도가 돼야지만 기본 소득을 완도군에서 우리 군민에게 줄 수 있는 제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우리 군에서 참여해서 앞으로는 관심을 갖고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재선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동차 과태료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과태료는 어떻게 징수하고 있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자동차 과태료는 보통 검사를 지연하거나 주정차 위반 이렇게 부과를 해서 과태료 통지서를 합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납부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이 체납이 많이 돼 있습니다.

○ 박재선 위원

70쪽에 보면 체납이 지금 꽤 많이 돼요. 세무회계과에서도 제가 보니까 전체적인 게 한 3,000건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현재 자동차 과태료만 해도 벌써 한 1억 원 가까이 예상이 된 것 같아요.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예. 그렇습니다.

○ 박재선 위원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할 계획입니까?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저희들도 고민입니다마는 예전 같으면 차량을 폐차할 때 일시납을 해야 합니다. 됐어야 됩니다마는 이게 법령이 바뀌면서 신차를 구입할 때 똑같은 사람이 "신차로 이전해 주십시오." 하면 이전이 됩니다, 옛날 같으면. 그래서 납부율을 올릴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압류는 진행을 하고 있고요. 경매까지도 진행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 박재선 위원

불과 몇 년 전에 보니까 교통과에서 직접적으로 읍면으로 찾아다니면서도 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런데 이 근래는 그렇지 않은 걸로 보이고요. 그런 부분도 해야 하고. 그러면 결손처분은 또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어떻게 보면 차량이 훼손되거나 손실되거나 아예 찾을 수 없을 경우 아니면 소유주가 사망했을 경우 그런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저희들이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 박재선 위원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해서 결손 처리한다고 해서 무작정 없애버리면 일반 주민들은 피해를 많이 보잖아요?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예. 그렇습니다.

○ 박재선 위원

성실히 납부하고 성실히 자동차세를 잘 내는 분들은 그대로 해야 하고 아니면 자동차세 미납하고 있다가 결손 처리를 해서 행정적으로 처리해 줘 버리면 의미 없잖아요. 안 그런가요?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예. 맞습니다.

○ 박재선 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강력하게 해야 할 것 같은데. 번호판도 제대로 떼어내고. 우리 노화에도 보면 이런 선들 돌아다니고 그런 차들이 많이 돌아다녀요. 그런데도 그 차들은 그냥 다녀요, 또.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번호판이 없어요, 차에. 돌아다녀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읍면에 돌아다니면서 적극적으로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박재선 위원

그리고 우리가 과태료를 보내게 되면 지금 어떻게 우리 군민들한테 보내고 있어요?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우편으로 보냅니다.

○ 박재선 위원

우편으로 보내죠. 그러면 나이 드신 분들이나 외국인들도 차 운전을 많이 하죠?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예.

○ 박재선 위원

우편으로 사실 받고, 여기서 거주를 하지 않는 사람도 있잖아요.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그래서 주소만 두고 실거주지가 아닌 분들도 있습니다.

○ 박재선 위원

그렇죠?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예.

○ 박재선 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 우편으로만 먼저 우리 군에서는 보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받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어르신들은 또 잘 사실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주민 옆집들 가서 물어보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잘 몰랐을 때는 또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이런 경우에는 체납이 되면 실제로 방문해서 그런 사정도 알아보고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읍면 직원들하고 현장 방문을 해서 사유를 파악해 보고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선 위원

무조건 문서로 이렇게 우편으로 보내는 건 좋은데요. 우리가 지금 잘돼 있는 게, 저희 연락처는 다들 가지고 계시잖아요?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예. 있습니다.

○ 박재선 위원

SNS가 얼마나 요즘에 잘 통합니까? 그런 부분을 활용하는 것도 어떻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예. 그렇게 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선 위원

그래요. 우편으로만 보내고 그냥 무작정 놔두지 마시고요. SNS를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독촉, 또 재산 압류 이런 것도, 번호판 영치라든가 이런 부분도 더 관심을 갖고 후속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예. 인지를 하겠습니다.

○ 박재선 위원

저희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성실 납부자는 항상 피해를 본다고 생각을 해요. 일반인들은 계속 과태료를 내지 않던 사람들은 더 떵떵하게 자유롭게 더 잘 다니고 있어요.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예.

○ 박재선 위원

그런 부분들은 경제교통과에서 관심을 갖고 좀 더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박재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궁희

박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병수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두 가지 개선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완도읍 도시 구역 내 공영주차장 관리는 경제교통과가 맞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어디?
○ 박병수 위원
완도읍 도시 구역 내의 공영주차장 관리. 관리 부서는 어딘가요?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말씀하신 부분이 어디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경제교통과가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요. 도시계획 부서에서 관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 박병수 위원
지난해부터 군민 제보가 있어서 그걸 지적을 했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개선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방송실 사진 한번 올려주세요. 여기가 완도군 농협군지부 옆 주차장인데요. 해놓은 지가 오래되고 해서 차폭이 좁습니다. 차폭이 좁고 또 오른쪽에는 차들이 중, 대형화되다 보니까 문을 열 수가 없어요, 이렇게 찾아보니까. 좌측은 차선으로 몰고 있고 우측은 차선을 지키려다 보니까 차 문을 열 수가 없어서 잦은 민원이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걸 보면 이걸 간단히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예산이 들지도 않고. 저걸 보면 황색 차선만 지우면 차폭에 맞게끔 현실화시켜서 한다면 오늘 당장이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예. 내년 초에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 박병수 위원
그렇죠? 바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진 한번 올려주세요.
여기는 바로 인근입니다, 여기도. 옛날에 한평식당 그 바로 앞인데요. 주차선을 현실에 맞게 그려주지 않았는데 대각선으로 그려야 차가 들어가서 세우기가 좋은데 직사각형으로 해서 차선을 그려놨어요.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제가 알고 있습니다.
○ 박병수 위원
예. 아시는가요?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예.
○ 박병수 위원
이것도 현실화시켜서 현실에 맞게끔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예. 잘 알겠습니다.
○ 박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궁희
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해서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대표적인 정부에서 실시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인데요. 우리 군의 신청률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신청률은 1차는 98.5% 정도 됐고요. 2차는 조금 낮습니다. 96.4% 나왔습니다.
○ 지민 위원
그래서 퍼센트로 말씀을 하시니까 90%가 넘으니까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머지는 접수가 안 된 부분의 신청을 못 하신 분들의 숫자를 따져 보니까 한 3, 4,0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죠?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예. 그렇습니다.
○ 지민 위원
그래서 나머지 신청하지 않으신 분에 대해서

는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자세하게는 모릅니다만 저희들도 최대한으로 현지 마을 출장을 해서 신청할 수 있는 분들은 거의 다 했다고 파악을 합니다.

○ 지민 위원

명단 확인은 가능하죠, 신청 안 하신 분들의? 그렇지 않은가요?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대상자 명단은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 지민 위원

그래서 그중에 신청하신 분들 빼면 마지막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그렇죠. 예.

○ 지민 위원

그래서 주민들 사이에 신청 기간 홍보 미흡으로 인해서 기회를 놓치지 않았나, 이러한 민원들이 조금 있었어요. 이런 불만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그런 불만도 있었고 이의 신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최대한 저희들이 받아들이도록 노력을 했었고요. 그런 부분은 관외에 계신 분들이나 해외 체류자들 상당히 꽤 있어서 그분들이 연락이 잘 안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지민 위원

올해의 사례를 참고해서 아마 다음번에도 이러한 일이 또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미리 매뉴얼이라든가 정리를 해서 다음번은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예. 잘 알겠습니다.

○ 지민 위원

그리고 다음 질문인데, 제가 매년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과장님, 우리 버스승강장의 버스도착알림시스템 있죠?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예. 있습니다.

○ 지민 위원

사진 한번 올려주세요. 과장님, 보이세요? 101번 버스 어디 가는 겁니까? 잘 안 보이죠?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예. 잘 안 보입니다.

○ 지민 위원

곧 도착인데 아직 앞으로 42분이 남아서 도착은 안 되는데 저게 유리판으로 돼 있어서 저게 승강장 안에 있고 해가 비추는 낮 시간대에는 반사가 돼서 거의 보이지도 않아요.

보이지도 않고 제가 앉아 계신 분들한테 인터뷰를 다 했어요. “어머님, 101번 버스 42분 있다가 온다고 하는데 어디 가는 버스예요?, 엄마 집 가는 버스 몇 번이에요?” 이러고 계속 물어봤거든요. 아무도 몰라. 그래서 저 화면상에 지금 42분이라는 거 한글도 들어가 있고 곧 도착이라는 한글도 들어가 있잖아요. 작년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 101번의 완도 동부면 동부, 서부면 서부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버스에도 마찬가지로 101번에 동부, 102번에 서부 이런 식으로 조그맣게 앞면이라도 표시를 해주면 어떨까? 버스에는 고금, 신지, 약산 이렇게만 쓰여 있잖아요, 완도. 그러니까 버스에 저런 정보 시스템이 있으니까 우리 주민들이 제대로 알고 안에 앉아서 기다리다가 버스가 올 때 됐다, 저거 우리 동네 버스다. 하고 탈 수 있게끔 그런 게 또 잘 보이게. 요즘에는 저거 빨간색도 있고 막 파란색도 있고 눈에 확 띄게 점으로 된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하시다고 하면, 저건 설치는 의무 설치였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의무 설치는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지민 위원
없앨 수도 있는 거네요?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좋은 걸로도 교체를 하는 방법을 검토할 걸로.
○ 지민 위원
없애면 어떤가요, 필요하지가 않다면?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불필요한 부분은 철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이 필요하시다면 더 좋은 걸로 교체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 지민 위원
그렇죠? 이왕이면 저게 주민 편의시설이니까 또 잘 알아보고 그러면 주민들이 사용하는 데 많이 편리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작년 사무감사 때도 이걸 지적을 했었는데 올해 또 감사 결과에도 "표시하겠음"이라고 돼 있어서 1년 동안 왜 그 표시하는 게, 저거 수정하는 게 그렇게 어렵나요?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저도 그 부분을 배워봤습니다마는 기사님들이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지민 위원
이왕이면 주민들이 보기 쉽게,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또 자꾸 나와서 길가까지 나와서 오는지 안 오는지 이거를 확인을 하고 또 이동을 하고 있는 버스에 고금 표시, 신지 표시 이렇게 분간이, 시력이 또 많이 안 좋으시니까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어떻게 표시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예. 잘 알겠습니다.
○ 지민 위원
그리고 우리 버스승강장이 있어요.
이것도 버스와 관련된 이야기인데 우리 버스승강장 주변에 법적으로 주차를 못 하게 돼 있잖아요?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예. 그렇습니다.
○ 지민 위원
몇 미터입니까? 10m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10m면 제가 전체 완도읍 관내에 있는 버스정류장을 다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특히 완도 중앙시장 앞에 가보면 거기 버스정류장 표지판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아래 노면에 버스정류장이라는 노면 표시가 안 돼 있는 줄 알았어요. 항상 상시 주차가 되어 있기 때문에 노면 표시가 안 돼 있는 줄 알았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버스승강장이라는 노면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주차를 항상 이렇게 해놨는데 어차피 종점은 군청이니까 한두세 정거장만 올라가면 되지만 지금 무료버스로 된 이후에 어르신들이 걷기가 힘드니까 한두 정거장도 버스를 타시는 경우가 많아요.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그렇습니다.
○ 지민 위원
그렇죠? 그런데 다 거기에 승강장에 주차를 해 놓는 것 자체도 위법이에요.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그렇습니다.
○ 지민 위원
그런데 다른 승강장을 보니까, 제가 또 버스회사에 물어봤어요. 어르신들이 정류장에서 내려와서 주차장을 건너서 큰 도로까지 내려와서 버스가 오는지 안 오는지를 확인을 하고 버스가 저 앞에서 오면 막 손을 흔들고 있어요. 그러면 그 큰 도로에는 차들의 왕래가 엄

청 많잖아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버스회사에 “버스들은 왜 이렇게 승강장 안으로 안 들어온대?” 이랬어요. 그랬더니 “들어갈 수 있게 해줘야 들어가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확인을 해봤더니 우리가 보통 사선 주차들이 다 돼 있어요. 그런데 승강장에 노면 표시가 2개가 돼 있더라도 정차를 하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손님을 태우고 다시 나가려고 하면 사선으로 돼 있기 때문에 꼬리에 닿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빨리 시간은 맞춰야 하고 버스의 시간은 맞춰야 하고 빨리 출발해야 하고 하는데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지. 그렇죠?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예. 맞습니다.

○ 지민 위원

그런데 또 봤더니 어떤 부분은 버스승강장 노면 표시의 바로 옆에 주차선이 그려져 있어요. 우리 10m 안에 주차를 못 하게 돼 있잖아요?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예. 그렇습니다.

○ 지민 위원

그렇죠?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주차 버스정류장 부분에 그려져 있는 거 맞습니다.

○ 지민 위원

그래서 그 주차선은 10m 제한을 두고 지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 지민 위원

그리고 그렇게 지워준다고 하면 그 공간 자체가 좀 더 넓어지기 때문에 버스도 더 안으로 들어가서 정차를 하게 되고 우리 어르신들도 보고 그 안의 또 기사님들도 마찬가지, 그런 민원도 많이 들어오죠? 손님이 안에 있는데 그냥 갔다는 거?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예. 그렇습니다.

○ 지민 위원

그러니까 안에 손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이 되고 어르신들도 보기 쉽고 타기도 쉽고 큰 길가까지 안 나와도 되고. 그런 부분 확인 한번, 전체 점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지민 위원

그리고 버스승강장에 표지판이 있는데요. 그 표지판만 있는 곳이 있어요, 승강장에 없고. 그런 곳이 여러 군데 있어요. 전산망 앞에도 있고 중앙시장 앞 정면에 있는 거기 승강장에도 이 표지판만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 그늘막 있죠, 여름에 쓰는 그늘막? 그거는 통통하잖아요. 두껍잖아요. 그런데 그 두꺼운 그늘막의 옆에 동그랗게 이렇게 나무로 해서 의자를 만들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거는 우리 버스승강장처럼 자리도 많이 차지하지도 않고 신호 바뀌는 사이에 어르신들 잠깐 앉아 있으라고 그거를 만들어 놨는데 버스승강장 표지판도 우리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 승강장을 만들기에는 정말 애매한 자리잖아요.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예.

○ 지민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런 데는 약간 그런 비슷한 걸로 해서 만들어서 표지판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어떨까. 계속 버스 한 번씩 오려면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 놓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

습니다. 제가 사진은 있는데 사진 전송 한번 해 드릴게요. 자료로는 제가 준비를 못 했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예. 좋으신 제안이라고 생각하고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민 위원

그리고 작년 이맘때쯤이요, 10월에. 작년 사무감사 때 또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개성순두부에서 비석거리 들어가는 입구의 횡단보도 거리 자체가 너무 멀다, 그 중간에. 그리고 또 이게 민원에 그 주변의 상인회에서, 과장님은 안 계셨지만 상인회에서 민원이 들어왔고 이게 군수님한테 들어간 민원도 있어요. 제가 그것도 과장님께 전송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린 거는 횡단보도가 너무 길기 때문에 중간에 횡단보도 하나 설치를 해주고 그 건너편에 우리 빙그레공원 공사하는 곳 있잖아? 어차피 장날에는 거기, 지금도 평일에도 그렇고 장날에도 그렇고 그 도로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주차가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 건너편은 주차선을 만들어 주면 어떠냐, 어차피 이용을 못 하니까. 그리고 앞에 횡단보도를 만들어 주시는데 점멸등을 설치하거나 어차피 우리가 완도군 관내는 시속 40이니까 거기다가 빨리 지나가니까 속도제한카메라를 달아주면 어떻겠냐. 그리고 저녁에 제주도 배가 10시 반경에 도착을 해요. 그러면 물류 차도 많이 나오는데 그 주변에 상인들도 있지만 거기가 다 자기 건물로 안집이랑 다 같이 있는 상가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대쯤 되면 물류 차가 나오면서 일부도 있는데 수협이 있는 쪽에 신호를 받고 여기 장터 앞의 신호를 받으려고 그 큰 물류 차가 쌩하고 엄청 크게 지나간답니다. 그러면 그 저녁 시간에 땅이 흔들려요. 우리도 지금 여기 앉아 있다가 큰 차가 앞의 도로를 지나가면 흔들림이 좀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그 캄캄한 조용한 저녁 시간에 물류 차가 그렇게 지나가니까 무섭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건의를 드렸는데 이걸 작년에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다가 경찰서 올린다고 했는데 올렸나요?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그 부분은 여기.

○ 교통팀장 황춘

교통팀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지민 위원

예.

○ 교통팀장 황춘

심의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부결이 됐고요. 그 부분 지민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간이 멀긴 멉니다. 비석거리 구간하고 개성순두부 구간하고 먼데 횡단보도 설치하고 속도제한카메라 여기서 지금, 아마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고 지역개발과 업무 소관이거든요. 교통 분야에서는 저희들이 신호등, 승강장, 반사경만 관리를 하고 있고 업무 분장은 지역개발 쪽으로 지금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지민 위원

그러면 같이 협의를 해서 진행이 되는지 아니면 심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 저한테 자료 한번 주십시오.

○ 교통팀장 황춘

예. 알겠습니다.

○ 지민 위원

그리고, 많네요. 그리고 아까 저희 존경하는 최정욱 위원님께서 반사경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그것도 자료 화면을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시간을 놓쳐서 자료 화면을 못 드렸습니다, 아까. 그 반사경이라는 게 우리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를 해 놓은 거잖아요?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예. 그렇습니다.

○ 지민 위원

그런데 반사경이 사거리가 있으면 이쪽저쪽에서 오는 차를 보고 진행을 할지 말지 이렇게 보고 지나가는 건데 그 반사경 앞에다가 딱 붙여서 차를 이렇게 세워놨어요. 됩니까?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그 부분,

○ 지민 위원

안 되죠, 전혀 안 보이는데. 그러면 그 반사경에다가 투명 스티커라든지 어떠한 걸로 해서 근접 주차금지라는 그런 걸 써놓을 수 있죠?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 지민 위원

그렇게 한번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것도 주의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예.

○ 지민 위원

그리고 여기 92페이지 마지막입니다. 92페이지 해양치유 셔틀버스 운영이 있는데 이거는 신지, 군내 그리고 여기 코스가 대하리, 대평리 이렇게 있더라고요.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예. 그렇습니다.

○ 지민 위원

읍에는 안 다니죠?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예. 그 노선이 그쪽으로 돼 있어서.

○ 지민 위원

터미널에서부터만 다니죠?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예. 그렇습니다.

○ 지민 위원

왜냐하면 우리 해양치유센터 1층의 해수에서 걷기 운동을 한다는 게 어르신들 관절에도 좋고 운동하는 데 굉장히 좋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완도읍 읍내나 이런 가까운 데 계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가는 게 불편하다. 터미널을 가서 해양치유센터 버스를 타고 들어가서 가야 하니까 힘들고 또 신지 버스를 타고 가려니 신지에서 내려서 걸어서 내려가는 길이 또 한참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 번씩 가려고 하면 하루 종일 시간도 가고 큰맘 먹고 가야 한다. 가는 게 되게 힘들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도 먼저 많이 이용을 해보고 했으면 좋겠는데 길이 힘드니까 읍 쪽으로 쓱 지나가는 시간대를 정해서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검토 한번 해 주시고요.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예.

○ 지민 위원

그리고 제 생각은 계속 매년 해마다 사무감사 때 주차라든지 버스 정차라든지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모든 군민들이 그런다는 건 아니잖아요. 몇몇 분들이 자기 편하자고 그렇게 불법 주차를 해놓고 가시는데 그 몇몇 분들은 편하자고 거기에 많이 사용하시는 우리 군민들은 조금 더 덜 안전해지고 위험해지고 더 불편해지고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그렇죠.

○ 지민 위원

그래서 많은 군민들이 더 편하고 더 안전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예. 더 열심히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궁희

지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왕 늦은 김에 과장님, 제가 짧게 몇 가지만 물으렵니다. 최근 우리 기후에너지 환경부가 전라남도 전역을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했죠?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허궁희

이번 특구 지정의 의미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간단하게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정부에서는 그렇습니다.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에너지는 그 지역에서 소비하자. 이런 기조이고요. 궁극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가 많이 생산되는데 전국적으로 교통망을 연결해서 잘 활용해 보자. 그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 위원장 허궁희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산에너지 체계가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면 재생에너지 생산과 공급 여건이 우수한 지자체가 산업 입지 경쟁에서 유리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완도군의 재생에너지 여건이 전남권 전력 수요사업 유치에 경쟁력이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한번 해 주십시오.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우리 군은 해상풍력 관련해서는 경쟁력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허궁희

그렇다면 우리 군은 현재 분산에너지 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 조사나 자체 전략을 착수한 내용이 있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그거는 없고요. 전라남도 차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어서 일부분이 우리 군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궁희

예. 준비해 주십시오.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예.

○ 위원장 허궁희

AI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 수요 산업에 완도의 재생에너지를 우선 공급하기 위한 전략도 마련을 해야 할 텐데 그런 준비는 돼 있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거기까지는 아직 준비는 안 돼 있습니다.

○ 위원장 허궁희

앞으로는 준비하셔야 할 겁니다.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예.

○ 위원장 허궁희

분산에너지 특구 대응을 위해 연구용역 추진 계획이 있다면 범위와 예산, 발주와 시기, 완료 목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한번. 답변하기 어려우면 나중에 한번.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서면으로 찾아뵙고 답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허궁희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사업은 광역, 중앙정부, 에너지 기업, 전력 수요처 등과 협력이 필수적인데요. 전라남도 및 중앙부처와 실무 협의는 어느 정도 해 본 적 있는지.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어떻게 보면 전라남도에서 위탁을 주고 있는 녹색에너지연구원이 있습니다. 거기 실무진들하고 우리 군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대화를 하고 있고요. 다음 주에 한번 미팅

을 해서 실질적인 부분을 추진해 보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허궁희

예. 적극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예.

○ 위원장 허궁희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전라남도 및 중앙부처와 실무 협의는 진행하고 있다고 했죠?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허궁희

적극 해 주시고요. 민간 기업들은 에너지 수요 기업과의 접촉은 혹시 또 있었는지.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그 부분까지는 아직 없습니다.

○ 위원장 허궁희

아직까지 거기는 미치지 못했는가요?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허궁희

앞으로는 이런 것도 준비를 하셔야 할 겁니다.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궁희

완도가 단순한 에너지 생산지가 아니라 에너지 기반 미래 산업의 주도 지자체로 도약할 수 있도록 빠르고 체계적인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예. 잘 준비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궁희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서 팀장 소개 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

○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문화예술과장 한지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예술과 팀장과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문화예술팀 문송태 팀장과 문남유 주무관입니다. 문화유산팀 이학 팀장과 김진보 주무관입니다. 장보고선양팀 이인석 팀장과 문수연 주무관입니다. 도서관팀 정현숙 팀장과 문형준 주무관입니다. 이어서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안건은 모두 총 3건입니다. 먼저 1쪽 조인호 위원님께서 권고하신 고금 역사 공간 관광 자원화 사업 신속 추진 방안입니다. 현재 고금 역사 공간 관광 자원 활성화 사업 통제영 건립 공사는 주민 설명회 등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옹벽 설치를 포함하여 올해 8월 말 준공되었으며 옛 활터 및 객사 건축 공사도 마무리되었습니다. 고금 역사 공간 관광 자원 활성화 사업의 잔여 사업은 현재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 진행 중에 있으며 심의 의결 이후 실시 설계 등 추진 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쪽 조인호 위원님께서 권고하신 이순신 기념관 이용 활성화 전략 마련 방안입니다. 현재 이순신 기념관은 지속적인 홍보 및 프로그램 개선 노력을 통해 점진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용 활성화를 위해 관련 홍보 리플릿을 제작 배포하였으며 이순신 관련 단체와 기관과의 협업 및 연계 프로그램 추진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인근 고금도 해전 전승

수군 체험관이 준공되면 1개동을 교육관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순신 관련 소규모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활용 방안을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쪽 조인호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완도 가리포진 자원화 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가리포진 자원화 사업 건축 공사는 2024년 10월 계약 체결하였으나 선 공정인 토목 공사의 공법 검토로 인하여 공사 중지 상태입니다. 업체와 감리의 재검토를 통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 부지 인근 건축물 철거를 시작으로 사업을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궁희

다음은 질의답변 순입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민 위원

과장님,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는데요. 여기 군민 제안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비대면 무인 서비스 수요 증가가 하고 있어서 타 시군에는 공공 도서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책을 빌려보기 쉽게 스마트 도서관이나 무인 쉼터 개설을 많이 하는데 혹시 과장님 들어보셨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예.

○ 지민 위원

그래서 스마트 도서관을 확대한 타 시군들도 많이 있고요. 도서 대출 증가와 문화 접근성 향상 효과도 얻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우리 군에서도 생활 문화 센터나 가족 센터 그리고 도서 지역에서도 다중 이용 시설에 24시간 상시 책을 대출해서 볼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사업을 운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좋은 제안이십니다. 저희도 무인 대출 반납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저희가 10시까지 도서관을 오픈하고 있는데 거기에 시간제한을 받지 않고 책을 대여할 수 있는 방법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지민 위원

무인 시스템에 책이 없어도 미리 예약하는 시스템도 있더라고요. 가입하고 어플로 받을 수도 있고 홈페이지에 가입을 해서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이게 괜찮을 것 같아요. 자기 지역 근처에 어디 생활 문화 센터로 며칠 있다가 "제가 대출을 할 수 있게 해 주세요."라고 하면 거기에 책이 오면 또 개인 문자로도 가고 "며칟날 준비가 돼 있으니 오십시오."라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참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준비를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예. 알겠습니다.

○ 지민 위원

검토 부탁드립니다.

○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네.

○ 지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궁희

지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정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문화예술과에서 고금 역사 공간 관광 자원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네.

○ 최정욱 위원
사업 목적과 사업량 현재까지 진행 상황을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고금 덕동리는 1598년 정유년에 이순신 장군이 삼도수군통제영을 설치하시고 조명 연합수군이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끈 역사적인 공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0년부터 지금 고금 역사 공간 관광 자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1단계 사업인 활터, 객사 그리고 삼도수군통제영은 건립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잔여 사업에 대해서는 건축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마무리되면 설계를 통해서 바로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최정욱 위원
잘 진행되고 있죠?
○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예.
○ 최정욱 위원
문화예술과의 올 초 업무 보고서와 7월에 추진 실적 보고에 따르면 이 사업의 추진 배경은 정유재란의 승리를 이끈 조선과 명나라 연합군의 역사적 가치 제고라고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네.
○ 최정욱 위원
원균 장군이 칠천량 해전 패배 후 재부임 된 이순신 장군이 한산도 외 고금도로 삼도수군통제영을 옮겼고 이후 완도 고금도에서 삼도수군통제사로서 수군을 지휘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예. 맞습니다.
○ 최정욱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임진왜란은 1592년에서 1598년까지 일본의 침략 전쟁이었고 정유재란은 1597년 강화 교섭 결렬 후 일본이 재침해 1598년까지 이어진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임진왜란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정유재란까지 포함돼서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가요?
○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예. 통상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최정욱 위원
그렇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사업의 목적과 배경을 굳이 정유재란이라고 지엽적 표현보다는 임진왜란으로 표현하는 것이 전체적인 맥락이나 역사적 가치를 올바르게 평가하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향후 이 사업에 관련해서 안내서나 안내 표시판이든 제작할 것 같은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예. 알겠습니다.
○ 최정욱 위원
임진왜란 하면 명나라 장군 진린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우리 지역과도 연관이 깊습니다. 이것도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예.
○ 최정욱 위원
임진왜란 당시 조선군과 함께 참전했던 명나라 수군 지휘관인 진린 장군이 조선의 해상 전선에서 이곳 완도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사실이 알려져 있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자료나 이런 게 내용이 있을까요?
○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예. 지금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자료들이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도 있고 이충무공전서

등 여러 자료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 최정욱 위원

그런데 해당 주둔지의 구체적인 위치나 진린 대군의 주둔 실체 규명 및 활동 양상에 관해 또 그런 것도 참고적으로 알 수 있어요?

○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그런 자료들은 아직은 명확하게 나와 있는 자료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최정욱 위원

외부의 역사학도나 이렇게 말하는 데 보면 고금도가 주둔지이고 또는 우리 청산에도 주둔했다는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고금도 같은 경우는 삼도수군통제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진린 장군이 어디에 주둔했는지 부분은 조금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청산도에도 있었다는 그런 의견도 일부 있는 것 같아요.

○ 최정욱 위원

임진왜란 후 정조의 왕명으로 편찬된 것에 따르면 청산도에 진린 도독비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문화원 입구에 진린 도독비의 비문 내용이 게시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것도 알고 계신가요?

○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예. 알고 있습니다.

○ 최정욱 위원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과장님도 알다시피 최근 한국과 중국 간의 외교적, 문화적 기류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와 중국 간 교류 확대를 위해 정부는 중국인 무비자 입국 확대, APEC 정상회담 등 후속 조치 한중 우호 관계 증진 논의 등과 맞물려 역사 문화 자원의 공동 발굴 및 평화 문화 인프라 구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완도 고금도 지역이 조선 명 연합군의 주둔지였다는 한중 문화 협력 및 지역 관광 자원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재조명하기 위해서 지금 275억 규모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 최정욱 위원

어때요? 진린 장군 이쪽에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가요? 어떤 내용이나?

○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그렇죠. 왜 그러냐면 삼도수군통제영이 고금에 있었고 마지막 전쟁인 노량해전을 또 승리로 이끌면서 조명 연합 수군하고 함께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같이 맞물려서 가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최정욱 위원

진린 장군의 활동 무대가 어디인지 알 수 있는 근거는 없죠? 지금 정확한?

○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진린 장군이 정유재란에 참전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전쟁을 노량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활동 무대는 노량 해전을 했던 그 부분인데 주 부대가 어디에 주둔하고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기록이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정욱 위원

현재 많은 건 고금도와 우리 지역에서는 청산도다.

○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예.

○ 최정욱 위원
고금도와 우리 조선 수군통제와 같이 하기는 좀 비좁지 않았겠냐. 그래서 청산도에다 주둔했다. 이런 말들이 지금 구체적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거를 하려면 역사에 대한 세미나나 이런 것도 주로 더 걸쳐야 하지 않을까요?

○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저희가 2021년도에 진린 도독비 관련해서 전남대학교에서 학술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린 도독비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당위성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정확히 청산 어디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고증 절차를 거쳐야 해서 학술 용역에 필요한 예산을 도에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 최정욱 위원
준비하고 있네요?

○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예.

○ 최정욱 위원
한중 교류 확대 및 중국인 무비자 입국 활성화 등 국제 관광 흐름 속에서 한중 공동 역사 기관 마케팅이 가능해지고 완도 지역이 조선과 명나라 연합 해상 작전의 거점이라는 스토리를 갖게 된다면 완도만의 역사 관광 콘텐츠로 중국 관광객 유치와 문화 교류의 상징적 공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예. 맞습니다.

○ 최정욱 위원
아마 우리가 관광객을 역사로 인해서 유치를 했을 때 뭔가 스토리가 있어야 중국에 우리가 홍보를 할 때도 완도에 중국의 진린 장군이 우리 완도에 주둔해서 이런 역사 스토리가 있다는 걸 가지고 중국 관광객을 유치한다면 훨씬 아마 좋은 명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 최정욱 위원
이러한 노력이 우리 지역의 박물관, 기념 공원 등 역사 문화 인프라 시설과 연계한다면 완도군이 우리나라 해양 역사와 문화 거점 지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제안한 내용을 과장님께서 잘 검토하시기 바라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궁희
최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선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생활 문화 센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생활 문화 센터 구조 안전성 조사하고 있는가요?

○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아니요, 그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 박재선 위원
조사는 하지 않고 있어요?

○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예.

○ 박재선 위원
사진 한번 올려줘 볼래요? 우리가 생활 문화 센터를 지금 공연을 사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생활 문화 센터를 지금 저희들이 많이 가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 비가 좀 많이 새요. 그 이유는 뭐예요?

○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저희가 아무래도 지금 저 건물이 40년 된 건물입니다. 저게 85년 1월 4일 자로 준공이 된 건물인데 지금 40년이 되다 보니까 리모

델링을 한 번 했지 않습니까? 전체 리모델링을 군민 회관에서 생활 문화 센터로 바꾸면서 리모델링을 했는데 그게 2021년도인데 유리하고 콘크리트하고 하다 보니까 그 접촉 부분에서 아마 비가 새지 않나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방수 공사를 일부 2,000만 원 가지고 했는데 그게 부족해서 올해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끝나면 좀 잡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결과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박재선 위원

해마다 저희들이 조금씩 생활 문화 센터에 계속 보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이왕 지금 또 공사를 하고 있다 하니까 비가 새지 않고 할 수 있게끔. 그리고 또 저희들이 개관하기 한 4년 좀 넘었잖아요. 리모델링 새로 한 지가. 외관은 안 했다 하지만 실내를 많이 했을 거예요. 외관 하실 때 비가 새지 않게끔 해 주시고요. 사진이나 한 번 더 올려 줘 볼래요? 이거 과장님 이 조형물 아시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예.

○ 박재선 위원

저희들이 처음에는 피아노 넣고 참 좋게 봤었어요. 그런데 가면 저것만 보여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저거 보고 뭐를 느낍니까?

○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그러니까요, 저거를 어떻게 활용을 할 건지 지금 저희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 박재선 위원

그래요. 저것을 또 철거를 바로 한다는 것보다는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를 저는 더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예.

○ 박재선 위원

생활 문화 센터에서 공연을 많이 하고 예술인들이 많이 와요. 그렇죠?

○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예.

○ 박재선 위원

그러면 저는 공간에 저희들이 행사장에 갈 때도 덩그러니 저것만 있어요. 보기가 싫으니 저런 공간에서 누가 연주를 하든지 색소폰을 불든지 음악이 잔잔하게 나올 수 있게끔 해 주든지. 그렇잖아요. 그런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 박재선 위원

그래요. 음악이 저기 안에서 예술인들이 와서 활동할 것을 잠깐 거기에서 약간 보여주는 것도 좋고 일반인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리고 저기서 음악이 수시로 나와서 그 행사에 맞게끔 나오는 것도 좋다. 그리고 저 조형물 뒤쪽으로 보면 미로 우리가 한다고 해서 나무를 심어놨잖아요. 저 나무는 사실 저희들이 보기에 너무 덜렁 하니 보기가 좀 애매해요. 그렇죠? 처음부터 저희들이 리모델링할 때부터 저기를 지적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똑같아요. 저런 부분은 또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저게 작년에 당초 수종이 율마라는 수종입니다. 그런데 저 수종이 수분이 많이 필요한데 저게 화단 형태로 조성을 해서 하다 보니까 물 빠짐이 좋아서 많이 됐어요. 그래서 수종을 변경하기 위해서 저희가 올해 일부 지금 변경을 했고 또 예산을 더 본예산에 요구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 박재선 위원
그래요. 저기,
○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그래서 다르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 박재선 위원
정말 저희들이 다른 지역에 제주도 같은 데 가서 보면 미로 해서 참 보기도 좋게끔 많이 만들어 놨어요. 이왕 만들 거면 저대로 만들어서 어린이들이 많이 놀 수도 있게끔 해 주시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예.
○ 박재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방금 제안했던 조형물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기존에 조형물 세웠을 때의 그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죠?
○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예.
○ 박재선 위원
그분들하고도 소통 좀 해보시고 과장님께서 더 관심을 갖고 거기에 조형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걸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알겠습니다.
○ 박재선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궁희
박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청년 문화 예술 패스에 대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렵니까?
○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청년 문화 예술 패스 사업은 문체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19세 청년 그래서 2006년 출생자들에 대해서 연간 15만 원을 지원을 해서 공연이라든지 뮤지컬이라든지 국악이라든지 이런 공연들을 볼 수 있게끔 문화복지 서비스를 주는 제도입니다.
○ 위원장 허궁희
맞습니다. 과장님, 제가 작년 사업 추진 실적을 확인해 보니까 총사업비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555만 원 중에 실제 집행액이 114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률이 약 20% 수준에 머문 것인데 이는 사실상 사업이 충분히 홍보나 뭐가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사업이 저조했다면 홍보나 신청 접근성 미비, 단일 연령 대상의 한계 등이 원인일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작년 같은 경우는 순수 문화 예술 공연만 지원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너무 저조하다 보니까 문체부에서도 조금 확대를 해보자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콘서트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럼에도 실적이 저조하니까 내년에는 영화까지로 확대해 보자 이런 방안도 지금 논의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 사업이 지금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마 홍보도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홍보를 한다든지 안내를 한다든지 통해서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궁희
그럼 올해 추진 현황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요?
○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지금 저희가 대상이 120명인데 58명 정도가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작년보다는 조금 비율은 더 올라갔지만 그래도 저조한 편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학생들 대상이 2006년생이기 때문에 대학교 1학년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학생들이 도시에 살면서 본인들이 그걸 신청해서 또 공연을 선택해서 이런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신청이 저조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홍보를 할 수 있게끔 개별 홍보를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궁희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 예술 패스 자체는 전국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지만 특정 연령에만 혜택을 받고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타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청년 문화 예술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죠?

○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많이는 모릅니다. 말씀하십시오.

○ 위원장 허궁희

타 지자체에서는 문화 예술 향유권 확대를 위해 지원 대상을 폭넓은 연령대의 청년층으로 확장하는 방향으로 가고 넓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0세에서 23세 청년 대상으로 공연, 전시 이런 것을 관람할 수 있는 문화 이용권 지원을 하고 있고 부산시는 18세에서 39세까지 청년 대상으로 10만 원 문화 패스를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연령대와 계층을 지원하는 흐름 속에서 완도군의 청년 문화 예술 패스는 대상 범위가 너무 협소한 측면이 있습니다. 실제 집행도 낮아서 이 사업 실효성 확보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대상 연령 확대, 홍보 방식 개선 등 군 실정에 맞는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지금 청년 문화 예술 패스 사업은 문체부 사업입니다. 저희 지방비가 투입이 되긴 하지만 문체부 사업이고 또 문화 예술 패스라는 사이트에서 직접 혜택을 받고자 하는 청년들이 가입하고 신청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하고 동일하게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광역시 같은 경우는 청년들이 많이 있고 또 문화 예술 그 서비스를 제공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운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 청년 문화 예술 패스 사업이 어느 정도 정착이 돼서 집행률이 올라가게 되면 그 부분을 확대하는 부분은 차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궁희

그렇게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예.

○ 위원장 허궁희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조류박람회추진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서 팀장 소개 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 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조류박람회추진단**

○ 해조류박람회추진단장 김준혁

안녕하십니까? 해조류박람회추진단장 김준혁입니다. 먼저 우리 단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인욱 기획팀장님, 정상화 마케팅 팀장님, 김혜원 운영팀장님, 김황호 시설팀장님입니다. 이어서 직원들까지도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기획팀 김슬기 주무관님, 마케팅팀 김채현 주무관님, 운영팀 서혁주 주무관

님, 시설팀 김다슬 주무관님이십니다. 다음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 사항은 저희 단원 해당없음 보고 드립니다.

○ 위원장 허궁희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해조류박람회추진단장은 증인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성규 위원

전시 연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PRE 해조류박람회 전시 연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한다고 하셨죠?

○ 해조류박람회추진단장 김준혁

예. 그렇습니다.

○ 박성규 위원

몇 개 업체가 지원했습니까?

○ 해조류박람회추진단장 김준혁

5개 업체가 들어왔었고요. 거기에서 지금 주식회사 아이랩 미디어라는 서울 업체가 최종 선정이 됐습니다.

○ 박성규 위원

최종 선정이 됐습니까, 업체가?

○ 해조류박람회추진단장 김준혁

예. 그렇습니다.

○ 박성규 위원

그러면 가격 협상은 진행 중입니까, 가격도 완료가 됐습니까?

○ 해조류박람회추진단장 김준혁

저희들 평가위원회 결과에서 업체가 선정됐으니까요, 거기하고 협상을 좀 해서요, 결과에 따라서 세무회계과하고 계약을 해서 추진하기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 박성규 위원

지금 진행 중입니까?

○ 해조류박람회추진단장 김준혁

예. 그렇습니다.

○ 박성규 위원

감사 자료 전시 연출 예산이 3분의 1 수준 이하로 책정이 돼 있어요.

○ 해조류박람회추진단장 김준혁

예. 그렇습니다.

○ 박성규 위원

목표 달성을 위한 콘텐츠 구현이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장님?

○ 해조류박람회추진단장 김준혁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후 변화 위기 대응이라든지 이번에 해조류 블루카본이 선정되는 부분, 미래 식량 자원으로서의 자원 그다음에 해양 바이오 쪽으로 해서 저희들 한번 적은 예산으로도 준비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성규 위원

업체에서는 어떤 킬러 콘텐츠를 제시를 했습니까?

○ 해조류박람회추진단장 김준혁

얘들 주요 실적을 봐보니까요, 여수라든지 기흥 이쪽에 아이뮤지엄이나 롯데타운 동탄 미디어 파사드 등을 이렇게 설치를 했었고요. 핵심 역량을 봐보니까 인터랙티브 미디어라든지 디지털 전시관 설계 구축하는, 잘한다고 자기들이 자부하는 그런 회사거든요. 이런 부분을 저희들 협상 계약이 끝나면 바로 해서 어떤 식으로 전시 콘텐츠를 할 것인가를 연구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성규 위원

저번에도 이야기했듯이 박람회의 성공은 관람객을 끌어당길 킬러 콘텐츠 확보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 해조류박람회추진단장 김준혁

예. 그렇습니다.

○ 박성규 위원

전시 연출 예산이 줄었는데 첨단 미디어 아트

나 몰입형 콘텐츠 구현할 수 있을까요?

○ 해조류박람회추진단장 김준혁

예. 그런 식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이 자리에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보고만 드리고요. 군정 질문이라든지 추경 예산 설명하면서도 그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세부 실행 계획이라든지 군청 58개 부서 중점 추진 과제라든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전시 연출 운영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전반적인 것이 나오면 의회에다 따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성규 위원

단장님, 박람회 추진의 첫 단추가 박람회 기본 계획 수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해조류박람회추진단장 김준혁

예. 그렇습니다.

○ 박성규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2017년, 2021년에 이어 이번까지 같은 업체 3회 연속으로 기본 계획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해조류박람회추진단장 김준혁

기본 계획 수립 용역하는 업체 말씀이신가요?

○ 박성규 위원

기본 계획.

○ 해조류박람회추진단장 김준혁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 박성규 위원

같은 업체에 3회 연속으로 기본 계획을 수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파악을 못 하셨습니까?

○ 해조류박람회추진단장 김준혁

예.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 박성규 위원

신규 아이디어나 창의적인 연출이 제한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염려가 됩니다, 같은 업체가 계속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박람회 추진할 때 많은 업체가 참여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 경쟁의 무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조류박람회추진단장 김준혁

알겠습니다.

○ 박성규 위원

전시 예산이 제한된 만큼 규모보다는 완성도 있는 전시 연출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내년에 우리가 임시로 하기 때문에 많이 연구해서 잘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조류박람회추진단장 김준혁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궁희

박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해조류박람회추진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조류박람회추진단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부서별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 중식 후 오후 2시부터 현지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 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출석위원(8인)

조인호　박재선　박성규
지　민　박병수　최정욱
조영식　허궁희

○출석공무원

경제교통과장	우홍래
문화예술과장	한지영
해조류박람회추진단장	김준혁

○ **전문위원** : 박영민
○ **전문위원** : 전문희
○ **속 기 사** : 임은주

제334회 완도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11월 28일(금)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 가족행복과
   - 주민복지과
   - 농업축산과
   - 해양정책과
   - 수산경영과
   - 산림휴양과

부의된 안건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 가족행복과
   - 주민복지과
   - 농업축산과
   - 해양정책과
   - 수산경영과
   - 산림휴양과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허궁희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의 수감 대상은 가족행복과, 주민복지과, 농업축산과,

해양정책과, 수산경영과, 산림휴양과입니다. 그럼 먼저 가족행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서장 소개 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행복과

○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가족행복과장 박미정입니다. 가족행복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청소년 상담센터 활성화 방안 및 운영 개선, 운영 시간 개선 등 5건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부서를 이끌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은정 경로복지팀장님, 김영지 복지시설팀장님, 박영선 보육청소년팀장님, 이영술 드림아동팀장님입니다. 먼저 1쪽 청소년 상담센터 활성화 방안 및 운영 시간 개선입니다. 지민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청소년상담센터 운영 시간 개선과 관련하여 상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 중이며, 18시 이후에는 청소년 전화 1388을 통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청소년, 전라남도청소년상담센터와 연계하여 청소년 전화 1388을 통해 접수된 신청 건은 모두 대면 상담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야간시간대 대면 상담 신청 건은 안전 확보 및 상담 환경 한계로 인해 필요시 사전 예약 및 조정 절차를 통해 운영 중입니다. 다음은 2쪽, 해남 남도광역추모공원 자연장 미사용 군민 홍보 철저입니다. 지민 위원님께서 권고해 주신 남도광역추모공원 자연장은 해남군민만 사용할 수 있다는 홍보 철저와 관련해서 2024년 12월에 해남군의 자연장 문의 시 자세한 내용을 안내하도록 요청하였고, 부서 읍면장 연석회의, 읍면 이장 회보, SNS 밴드를 통해 군민들이 바르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고급요양원 재위탁 선정 및 관리 운영 철저입니다. 조영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고급요양원 선정 및 관리 운영 철저와 관련하여 2024년 11월 노인복지시설 지도 점검 계획을 수립하였고, 고급요양원은 재위탁 심의 결과 기존 한기장복지재단은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2024년 12월에 실시한 지도 점검 결과 입소자 정원 관리와 공단 청구 절차 준수 등 일부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만 지도하였고 고급요양원은 기존 한기장복지재단이 부적격 판정을 받아 수탁법인 공개 모집을 통해 완도제일사회적협동조합을 선정하였습니다. 금년 1월에는 위탁법인 변경에 따른 인수인계를 마무리하고 현재는 정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쪽 노인복지시설 관리 감독 철저입니다. 조영식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노인복지시설 지도점검 매뉴얼 재정비 및 관리 감독 개선과 관련하여 2024년 11월부터 지도 점검 계획 수립 및 노인복지시설 감사 매뉴얼을 재정비하였고, 12월에는 보조금 관리 회계 일반, 후원금 관리, 시설 안전, 인권 분야 직원 관리, 입소자 관리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입퇴소 정원 관리와 공단 청구 절차 준수 등을 지도하였고, 입소자들이 기저귀, 의복 교체 시 반드시 가림막을 사용하도록 철저히 지도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및 급식 도우미 처우 개선 마련입니다. 박재선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및 급식 도우미 처우 개선과 관련하여 급식 도우미 지원금은 일부 사업비를 추가로 보조하여 월 8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급식비는 1일 7,000원 외 방학 중에는 3,000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궁희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가족행복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조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영식 위원
과장님, 설명 저도 잘 들었습니다. 고급요양원을 11개월 가까이 운영하는데 그 직원분들하고 두 차례 이렇게 만나봤는데 아주 예전과 틀린 분위기에서 아주 잘 적응하고 있고 아주 좋아졌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아마 작년 사무감사 때 이야기했던 부분이 잘 지켜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을 빌려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13페이지 돌봄 로봇 서비스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과장님 아시는 대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저기 홀로 어르신 돌봄 로봇 서비스 지원사업은 지금 고위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음성 인식 기술을 활용해서 지금 어르신들과 대화를 나누거나 지금 일상적인 생활 지원, 이런 건강 모니터링을 함께하고 있는 그런 서비스 제도입니다.
○ 조영식 위원
사업 규모를 보니까 AI 반려로봇 100대, 군비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예.
○ 조영식 위원
그럼 100대 중에 60대만 보급되었다는 말씀인가요, 혹시?
○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예, 지금 현재까지는 60대가 지금 보급이 되었습니다. 지금 연차별로 차근차근 저희들이 지금 보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조영식 위원
사업 기간이 올해까지인데 나머지 40대는 어떻게 할 거예요?
○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올해는 올해 좀 도에서 이렇게 책정하는 과정에서 저기 사업비가 적게 책정이 돼서 40대가 지금 미비돼 있는데 내년에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추경이나 확보를 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조영식 위원
9월에 만족도 조사를 했죠?
○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예.
○ 조영식 위원
어르신들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이게 반려로봇이거든요. 반려로봇이기 때문에 요즘은 반려식물, 반려동물 그러듯이 반려로봇에 대한 애착이 어르신들이 너무 깊어요. 전체적으로 반려로봇은 음성 인식을 하면서 말벗도 되어주고 이런 활동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자기 손주 대하듯이 그 어르신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만족도는 최상입니다.
○ 조영식 위원
최상입니까? 혹시 반려로봇 대상자 생활지원사가 있죠?
○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예.
○ 조영식 위원
그분들은 어떻게 사용하고 관리하고 있습니까?
○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생활지원사들은 대부분 주 1회에서 2회 정도 해당 가구를 방문하거든요. 가구를 방문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반려로봇 이런 부분들 점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기 할머니의 전체적인 가정생활, 가정 상황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하면서 말벗도 되어주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 조영식 위원

여기 체크해 보니까 25년 올해 5월에 기계 결함 10대라고 돼 있는데 어떤 부분이 결함들입니까?

○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기계 결함 중에 주요 문제는 뭐 이렇게 작동이 안 되거나 음성 인식이 안 된다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주요 요인은 이게 인터넷으로 인해서 움직입니다, 이게 반려로봇이. 인터넷 연결로 이게 대부분이 미작동이지, 기계가 특히 결함이 있어서 된 건 아니고 만약에 기계가 결함이 있다고 하면 이게 AS센터가 잘 되어 있습니다. AS센터에 연결하는 것들을 우리 생활지원사님들이 잘하고 있어서. 그때그때 이렇게 수리가 완료돼서 이렇게 원상복구를 시켜 놓고 정상 가동되게끔 진행하고 있습니다.

○ 조영식 위원

쓰는 데는,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죠?

○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예, 이게 어르신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아주 간편하게 그냥 터치만 해도 이렇게 음성 인식을 하고 그 작동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작동이 불편한 그런 건 아닙니다.

○ 조영식 위원

향후 대책에 보면 10월에 반려로봇 확산 사업 이용자 만족도 조사 또 효과성 분석 추진을 한다고 했는데 뭐 분석은 끝났습니까, 혹시?

○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이거는 지난 11월 21일에 이 사업이 그 추진 상황에서 보듯이 그 과기부 스마트 빌리지 보급 사업 확산 사업으로 우리가 저희가 전라남도랑 같이 공모를 해서 이 사업을 지금 확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총괄을 하고 있는 게 전라남도입니다. 도 기획조정실에서 이게 스마트 정보 담당관실에서 이 부분을 지금 챙기고 있는데 그 22개 시군을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만족도 조사 지금 조사는 완료를 했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통보는 받지 않고 있어서 결과가 통보되는 대로 우리가 이렇게 효과성 분석이나 만족도 조사에 이런 부분들에 미비점이 있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정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영식 위원

예, 자료 정리되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예.

○ 조영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본 사업의 효과성을 잘 따져보고 또 내년에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결국 돌봄로봇의 성공 여부는 실제 현장에 있는 어르신과 반려로봇을 관리하는 생활지원사들의 교육을 통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있다 생각됩니다. 아무리 기계가 좋아도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사용한다면 무용지물이 아니겠습니까? 동의하시죠?

○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예, 동의합니다.

○ 조영식 위원

가족행복과장께서는 내년에는 반려로봇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보완 후 정착이 잘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예, 잘 알겠습니다.

○ 조영식 위원
다음은 궁금한 것도 있고 간단하게만 확인하고 드림스타트 효율화 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작년에 12월에 이사하고 거의 1년이 지나가고 있죠?
○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예.
○ 조영식 위원
건물은 1식은 1식만 공무직 사무실로 쓰이고 있고 다른 곳은 지금 공실로 남아 있는 거죠?
○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아니, 공실이라기보다는 드림스타트의 그 사업 특성상 프로그램실을 구비를 해놔야 되거든요. 지금 세 곳은 프로그램실로 부모 교육하고 집단 프로그램하고 사례 관리 회의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은 우리 사례관리사 3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 조영식 위원
예, 그래서 어제 우리 완도군 의회 전 직원들하고 위원님들하고 같이 그 현장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만약에 여기 드림스타트 원생들이 있다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 기기도 설치하고 또 해야 되는데 나머지 사무실 공무직 직원 세 분이 계신 데만 사무실로 쓰이고 있고 나머지는 아무리 설치를 잘해놔도 원생이 안 오고 거기 사용하는 사람이 없는데 필요가 없는 공실로 보는 거예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러지 않겠습니까? 사용자가 안 와요, 원생들이. 드림스타트를 원하는 그런 분들이 안 오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그 치료 물건들을 설치해 놔도, 장비를 설치해 놔도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 사용자가 없는데 그게 공실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공실이라는 표현은 약간 과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 조영식 위원
그럼 그 공무직 지금 세 분이 거기를 사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우리가 드림스타트 아동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를 해야 되는 아동들은 지금 현재 청소년 문화의 집에 있는 프로그램실을 이렇게 이게 거리상 오기가 어렵다고 해서 거기에다가 그 프로그램실을 마련을 해서 애들을 집중 관리를 하고 그거는 외부 강사를 초청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프로그램실은 그 중간중간 그 부모 교육, 이런 것들을 해야 돼요. 부모 교육을 매주 하는 게 아니고 그 필요시에 따라서 부모 교육을 할 때 부모님들을 이쪽으로 오라고 해서 그 부모님을 오는 데는 크게 드림스타트 사무실을 오는데 크게 큰 애들에 비해서 접근성이 낮지 않기 때문에 그쪽에서 부모 교육과 집단 프로그램 그다음에 이게 아동 사례 이게 명칭이 사례관리사거든요. 아동통합사례관리사예요. 그러면 사례 행위 같은 걸 합니다. 통합 우리 하는 그 사례관리사들이. 사례 일을 하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공실이라고 지적을 해 주시면 너무 좀 과한 표현이고 사용 빈도수는 좀 작지만 그래도 사용은 하고 있는 공간이고 구비를 해야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 조영식 위원
예, 그러면 단답형으로 대답해도 됩니다.
○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예.
○ 조영식 위원
부모 교육하고 집단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올해 11개월 동안 몇 차례 정도 했습니까?
○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자료를 잠깐만..... 지금 수치상으로는 제가 지금 이게 자료를 이렇게 잘 기억은 못 하겠고 반기별로는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기별로.

○ 조영식 위원

반기 1회요?

○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예.

○ 조영식 위원

그러면 한 번은,

○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필요하다면 필요시마다 좀 하고 있고요.

○ 조영식 위원

결국은 과장님.

○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9월에서 12월 부모 교육을 저희가 9월에서 12월 대상 부모로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 조영식 위원

하고 있습니까?

○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예.

○ 조영식 위원

그런데 원생들이 안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모님들도 많은 참여가 저조할 것 같은데.

○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 조영식 위원

그래요.

○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지금 위원님께서 지금 걱정하고 계신 분야, 걱정하고 있는 부분 저희들도 인식하고 위원님의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취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개선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게 쉽지 않아서.

○ 조영식 위원

이제 거기 계신 전자 결재 때문에 팀장님한테 그렇게 결재 이런 것을 안 한다고 또 말씀도 하시고 그러는데 사실은 근무하는 공무직 세 분은, 선생님들 세 분은 출근, 또 청해 문화의 집,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불편함을 느끼는 건 사실이겠죠? 그분들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 이야기가. “불편하다.” 공감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우리 공직자의 업무에서 ‘그 정도도 수행을 안 하면 안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합니다. 저희도 뭐 이렇게 잠깐 뭔 일이 있어도 현장 출장해야 될 사항이 사무실 안에서만 업무를 하는 사람이 극히 드물거든요. 현장 가야 되고. 이게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외부 강사가 와서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데 있어서 잘 되고 있는가, 없는가 한 번씩 확인하는 것을 우리 사례관리사님들이 불편하다고 말씀을 했다고 하면 이런 부분은 그 정도도 일을 안 하면 되겠냐는 그런 의구심은 듭니다.

○ 조영식 위원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군정 질문 때 질문을 했듯이 한 군데 모아지면 서로 속된 말로 우리가 윈윈 할 수가 있고 시간이나 운영비 면에서 상당히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군정 질문도 하고 오늘 또 사무감사 때도 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혹시,

○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예.

○ 조영식 위원

그 문화원 건물, 지금 현재 드림스타트 부분은 가족센터로 이전한다든지 다른 제안을 또 마련해 주시고 부서 관리 및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또 개선해 주기 바랍니다라고 말씀드리려고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그렇게 되면 금상첨화죠. 그런데 상황이 좀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하는, 그렇게 이끌어 가도록 저희가 소관 부서와 주민복지과와 협의도 좀 하고 부서 간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 있어서 그 내용은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양 부서가 협의를 철저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조영식 위원
예, 중간에 잠깐 또 막힘도 있었지만 아마 마지막에 멘트가 아주 듣고 싶은 멘트였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잘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예.
○ 조영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궁희
조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병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 17페이지에 보면 그 보조금 집행 현황 있죠?
○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예.
○ 박병수 위원
보조 사업이 상당히 많죠?
○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예, 저희 과가 좀 보조 사업이 많습니다.
○ 박병수 위원
그런데 대부분 사업들이 1년 치를 한꺼번에 정산을 하는 걸로 나와 있죠?
○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예.
○ 박병수 위원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지금 이게 지금 17페이지에 저희가 그 보조사업자별 보조 사업명을 보면 완도군 지역자활센터, 완도 시니어 클럽, 한국여가문화교육협회, 대한노인회 완도군 지회에 주고 있는 이런 보조금들은 그 일련의 과정이 1월부터 12월, 매년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어서 사업이 마무리를 돼야 사업 마무리가 거의 연말이거든요. 연말이 돼서 저희가 12월 정산이 좀 많습니다.
○ 박병수 위원
중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할 수는 없는 구조인가요?
○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아니요, 아니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할 수 없는 구조는 아니고 상반기에 끝나는 사업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한데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그걸 계기로 저희들도 상하반기 보조금 정산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내년에는 좀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병수 위원
그렇게 해야만 문제점이 발생한다든가 했을 때 바로바로 문제점을 찾아서 개선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들을 개선책을 한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예.
○ 박병수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읍면 마을마다 경로복지센터가 다 있죠?
○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예.
○ 박병수 위원

몇 개소나 되는가요?

○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경로복지센터는 지금 저기 경로당 해서 310개소인데 경로복지센터는 그중에서 53개소, 54개소입니다.

○ 박병수 위원

그중에 지금 현재 난방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난방은 보일러 아니면 전기, 심야 전기 이런 식으로.

○ 박병수 위원

그중에 심야 전기로 난방을 하고 있는 데는 몇 개소나 되는가요?

○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거의 그 경로복지센터는 당초 취지, 그 당시에 심야 보일러로 건축이 됐기 때문에 거의 다 심야 보일러를 하고 심야 보일러에서 문제가 되는 경로복지센터에 차근차근 저희가 그 보일러로 지금 교체 작업을 작년부터, 아니, 올부터 1, 2개소부터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 박병수 위원

지금 심야 보일러를 사용하는 데가 문제점이 많죠?

○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예, 지금 현재 문제점이 돌출이 돼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내년 예산을 지금 세워서 내년 예산은 이미 지금 편성은 됐거든요. 편성이 됐는데 위원님들께서 이걸 통과를 시켜주면 그걸 계획을 짜서 저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병수 위원

예, 아무튼 지금 상당히 심야 보일러를 쓰고 있는데 물통이 샌다거나 터진다거나 해서 이용하는 데 많이 불편하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일제히 조사를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예.

○ 박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궁희

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행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서 팀장 소개 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 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

○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주민복지과장 추교훈입니다. 먼저 저희 부서 팀장들을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김란 복지정책팀장, 황양매 장애인복지팀장, 김덕영 희망복지팀장, 이영주 통합조사팀장입니다. 그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7건입니다. 먼저 1쪽 박재선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구 보훈회관 기부채납 방안 마련입니다. 당초 보훈회관 신축 시 기부채납을 약속받았으나 구두 협의만 존재하고 행정적 근거가 남지 않았고, 이후 중앙보훈단체의 거부로 기부채납이 이행되지 못한 상황으로 행정 처리 과정에서 절차적 보완이 부족했다는 지적 사항입니다. 그동안 중앙보훈단체, 상이군경회를 비롯한 관련 기관과 지속 협의해 왔으나 아직 기부채납 승인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구 보훈회관을 무상 임대 방식으로 활용하는 계약

을 체결했고 현재는 장보고 장학회 사무실로 활용 중입니다. 앞으로는 미온적 대응을 지양하고 사전 검토와 근거 확보를 강화하여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체계를 정비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에는 보훈회관을 매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근본적인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병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4건에 대하여 차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행복복지재단 조성액 상황 및 인력 활용 대책 마련입니다. 우리 군 재단 기금 조성액은 22년도 7억 5,000만 원, 23년도 6억 2,000만 원, 24년도에는 3억 7,000만 원으로 지속 감소하고 있어 복지체감도 향상, 재단 운영 측면에서도 우려되는 사항이며, 또한 재단 사무에는 현재 3명의 직원이 상시 근무하고 있어 업무량 대비 과다 인력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남 시군 재단 운영 실적을 비교한 결과 기금 조성, 기금 배분, 재단 관리 등을 포함한 필수 업무 수행하는 최소 3명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그동안 기금 안정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연간 계획 수립을 통해 기금 조성과 배분 사업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인력 활용에 있어 기금 조성 담당, 배분 담당, 재단 관리 담당 간의 업무를 재정비해 효율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쪽 행복복지재단 배분 사업 홍보입니다. 행복복지재단 배분 사업은 지난해 해피하우스 등 일부 사업에서 실적이 없었고 의료비, 보행보조기, 재활 치료 지원 또한 기대에 미치지 못해 홍보 부족이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었습니다. 10월 기준 암 환자 치료비 12세대, 발달 재활 치료 11세대, 성인용 보조기 40세대를 지원했으며, 해피하우스 지원은 미신청 상태입니다. 이러한 실적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홍보 전략을 재정비 방안으로 지역 주간지, 재단 홈페이지, 읍면 이장회의 등을 활용해 배분 사업을 안내를 강화하고 재단 SNS를 운영하여 군민과의 소통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필요성이 낮은 3개 사업은 중단하고 다문화 가정 자격증반 운영, 창업 지원, 외국인 근로자 동반 가족 월세 지원 등 3개 사업, 신규 3개 사업을 도입해 사업 구조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군민 수요에 맞는 배분 사업 체계를 구축하고 보다 효과적인 홍보로 지원사업 참여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행복복지재단 생활 가전 지원 사후 관리 철저입니다. 생활가전 지원이 본래의 목적에 벗어나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물품 전수 조사 및 사후 관리 등 개선책을 마련하라는 사항에 따라 최근 3년간 생활가전지원 대상자 전수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총 120세대 중 112세대는 현재 사용 중이며, 8세대는 고장, 폐기, 사망 등으로 처분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앞으로 생활가전 지원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매년 대상자 전수조사 실시, 사적 처분 금지 안내, 지원 물품의 스티커 부착 등 관리 방식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 행복복지재단 보일러 긴급 지원사업 대상자 완화 검토입니다. 보일러 긴급 지원사업 추진 시 보다 많은 군민이 수혜를 보기 위해 무허가 주택자도 대상이 되도록 기준을 완화하라는 사항에 따라 24년 11월 행복복지재단 이사회를 개최하여 배분 사업 선정 기준을 완화했으며, 금년부터 무허가 주택 거주자도 지원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폭넓은 복지 정책으로 소외받는 대상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지민 위원께서 제안하신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종합 계획 수립입니다. 분야별 계획을 포함한 종합 추진 계획을 매년 수

립하여 산발적 추진을 지양하라는 권고에 따라 지난 2월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체계 구축 종합 계획과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계획에 따라 2월부터 6월까지 1인 가구 실태를 파악하였으며, 고독사 위험이 의심되는 348가구에 대하여 고립 가구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6월에는 한국전력공사 완도지사와 안부 살핌 시스템,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정보 통신 기술을 활용한 안부 확인 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이외에도 생활환경 개선 지원, 생활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무연고 사망자 유품 정리 지원 등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7쪽 지민 위원님이 제안하신 생활용품 지원 사후 관리 철저입니다. 생활용품 지원에 있어 대상자 중복 방지, 생활용품 유통기한 확인, 생활환경 보호 등 대상자 사후 관리를 개선하라는 지적에 따라 지난 3월 각 읍면 및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생활용품 지원 시 사후 관리 철저와 중복 지원 방지, 유통기한 확인 등 가구 특성을 고려해 배분되도록 조치하였으며 앞으로 생활용품 지원사업의 투명성과 복지 체감도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궁희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40페이지 여기 경력 단절 여성 경력이음바우처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전라남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구직 활동이 필요한 세대에게 50만 원을 지원하는 이렇게 바우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 지민 위원

구직 활동에 필요한 사업인데 그분들이 어떠한 자격증을 취득하면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죠?

○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예.

○ 지민 위원

혹시 우리 군 자체적으로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사업이 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자체 사업은 없고요. 도에서 시행한 취창업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순 군비 1,000만 원을 저희들이 보태서 2개 과정을, 3개 과정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지민 위원

여기 보도 자료를 보니까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해 여성 취창업 교실을 확대 운영을 했고 10명이 취업하고 1명이 창업했다고 돼 있어요. 이것도 자세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그때 취창업 교실을 운영해서요, 요양보호사 양성 교육을 저희들이 11명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하고 재가 복지 시설 자활센터 해서 10명 취업했고요. 1명 창업은 노화에 지금 있는데 커피숍을 창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지민 위원

그러면 11명이 신청을 해서 10명은 요양보호사나 이런 취업은 다 됐어요?

○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예, 다 됐습니다.

○ 지민 위원

저는 이게 관리가 안 되고 취업이 다 안 돼 있는 줄 알았어요.

○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1명만 못 하고.
개인 사유로 안 한 것 같습니다.

○ 지민 위원

그러면 만약에 안 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어떻게 계속 유도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저희들이 특별히 사후 관리는 안 하고요. 다음 해 1월까지만 저희들이 취업, 미취업을 저희들이 확인 점검하고 이렇게 끝난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 지민 위원

사업이 끝나고 다음번에 했던 취업이 안 되신 분들은 그대로 놔두네요. 다음번 사업이 있을 때까지?

○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예, 특별히 사후 관리는 저희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 지민 위원

제가 타 지역의 경력 단절을 위한 여성 정책들을 한번 봐봤어요. 그래서 행정 주도로 해서 일대일 멘티, 멘토 제도를 또 운영을 하고 있는 곳도 있고 자조 모임도 별도로 구성을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이런 것들도 저희도 접목을 해서 군에서 시행을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위원님 좋은 제안인 것 같고요. 타 지자체를 보면 새로운 일자리 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전남에서 8개 시군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지금 제안했던 부분이 잘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자리 인구, 일자리 정책실하고 협의해서 그런 사항을 논의하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 지민 위원

예, 저희 군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경력 단절에 그 사업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완도군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가 또 있잖아요.

○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예, 있습니다.

○ 지민 위원

여기 조례를 보면 주기별로 실태 조사를 하고 매년 경력 단절을 위한 정책 시행 계획 수립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 군에서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지민 위원

예.

○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그러니까 제가 못 챙겨 봤는데요. 우선 경력 단절 계획 수립해서 취업 문제나 정보 같은 걸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 지민 위원

많지는 않지만 타 시군에 살다가 주소지 이전이라든가 거주지 이전 등으로 해서 부득이하게 완도로 또 이사를 오신 분들도 있잖아요.

○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예.

○ 지민 위원

그 이사 오신 분들 중에 기존에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가 경력이 이사 오시는 바람에 경력이 단절되는 부분도 꽤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서 또 이런 부분에서 같이 취업들과 연계하는 좋은 정책이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예.

○ 지민 위원
실태조사 꼭 해서 정책 시행을 계획 수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예, 저희들이 계획 잡아서요, 내년에 혹시 추진되면 위원님한테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 지민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궁희
지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호 위원
과장님, 엊그저께 행복 복지재단 이사회 했죠?
○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예, 어제 했습니다.
○ 조인호 위원
내가 모 이사 분을 만났어요. 아니, 이사 분들을 대화가 된다고 해서. 그런데 "우리 업무 보고에 보니까 이OO, 뭔 OO 해서 실명이 거론이 안 되는데 무슨 이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렇게, 그런 거를 전혀 모르더라고요. 이사회 때 그런 이야기가 안 나왔어요, 혹시?
○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안 나왔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앞으로 위원님들, 이사님들 실명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인호 위원
실명으로 그분들이 공개를 해줘야 책임감을 가지고 또 군이 신뢰를 하고 그러지. 장보고장학회 이사들은 실명이 거론이 되고 행복복지재단 이사들은 뭐 꿍꿍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그것은 아니고요.
○ 조인호 위원
그런 것을 공개를 해 주세요.
○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예.
○ 조인호 위원
재단에서 하는 걸 공개를 해줘야 사람들이 책임감도 갖고 자부심도 갖고 이사회 활동을 더 잘하는데 이사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들은 진짜 기분 나쁘게 생각하더라고요, 공개 안 한 것을.
○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제가 하여튼 그 부분은 못 챙긴 것 같고요. 우리 실무 부서에서도 또 의회에서 이렇게 감사 자료를 또 요구하니까 또 이렇게 OO으로 한 것 같습니다.
○ 조인호 위원
위원들도 모르면 지역 주민들이 전혀 모르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은 공개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예, 바로 위원님 공개하겠습니다.
○ 조인호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우리 청각장애인 및 난청 환자들은 우리가 완도에 총 몇 분이나 계실까요, 혹시?
○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저희들이 전체 장애인이 한 4,200명 됩니다 여기서 한 600여 명 정도 청각 장애인입니다.
○ 조인호 위원
혹시나 과장님이 보이는 초인종이라고 들어봤어요?
○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처음 들어봅니다.
○ 조인호 위원
이 사업은요. 청각장애인, 난청 어르신들이 집 방문할 때 우리가 큰 소리를 친다든가 문을

두드리고 하잖아요. 그럼 주위에서 민원도 생길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타 시군에 지금 이렇게 지금 시행한 데가 있더라고요.

○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예.

○ 조인호 위원

그거 참고하시고 이 사업비는 행복복지재단 사업으로 충분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감사 끝나면 이걸 참고했다가.

○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제가 뭔 사업인가 검토해서요. 내년 사업은 지금 어제 지금 이사회가 끝났거든요. 내년 1분기 때 이사회 때 저희들이 이 사업을 검토해서 신규 사업으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인호 위원

과장님이 이 부분을 연차적으로 시범 사업을 한번 해보세요.

○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예.

○ 조인호 위원

그래서 좋으면 계속해 나가고 그거를 꼭 한번 챙겨보세요.

○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인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궁희

조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 간단하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예.

○ 위원장 허궁희

과장님, 혹시 그 복지로라고 들어보신 적 있죠?

○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예.

○ 위원장 허궁희

그 사용은 혹시 해보셨죠?

○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그 기능은 알고요. 제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은 안 했습니다.

○ 위원장 허궁희

저도 한번 들어가 보니까 본인 인적 사항만 넣으면 본인이 받지 못하는 복지 서비스도 찾을 수도 있고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더라고요.

○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예.

○ 위원장 허궁희

그런데 대부분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이것을 더욱이 복지 종사자들도 물어보면 잘 모른다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그 복지과에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한 번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우리 군 복지 대상자가 연 한 5,000에서 6,000건 이렇게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처리합니다. 그리고 현재 노령자나 이렇게 취약 계층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이렇게 많이 이렇게 활용을 안 한 것 같고요. 보육료나 아동수당, 또 교육비 같은 젊은 세대들이 지원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2, 30% 복지 포털을 지금 사용하고 신청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허궁희

예, 그래서 정기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눠서 주민들 그리고 우리 복지 종사자들에게 복지 시스템 교육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계획하신다니까 꼭 그렇게 추진해 주세요.

○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복지 포털이 회원

도 가입해야 되고 또 개인 인증도 이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내년에 하여튼 교육 계획하고 홍보 계획을 수립해서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궁희

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예.

○ 위원장 허궁희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장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쉬었다 할까요, 계속할까요?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허궁희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서 팀장 소개 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축산과

○ 농업축산과장 이정국

농업축산과장 이정국입니다. 그 농업축산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농촌 공간 재구조화 기본계획 수립 조속 추진 등 6건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축산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지원 농업정책팀장, 이병연 농업생산팀장, 최경화 농식품유통팀장, 윤한성 축산정책팀장, 이진범 동물방역팀장을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박병수 위원님께서 농촌 공간 재구조화 기본 계획 수립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권고한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올해 2회 추경에 기본 계획 수립 용역비를 확보하여 일상 감사와 협상에 의한 계획 타당성 검토 등 행정적 절차를 거쳐 평가위원 모집과 입찰 공고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에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여 농촌 공간 재구조화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완도군의 농촌 공간을 체계적으로 개발, 보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쪽입니다. 박병수 위원님께서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라는 제도 개선 사항으로 2022년 10월에 기본계획 농림식품부 승인 이후 사업 기간이 2024년까지인데, 하드웨어인 사업이 미착공된 점과 민간 조직으로 구성된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단의 전문성 미비로 인해 소프트웨어 사업 추진 실적이 저조한 점이 있었으나 현재 농촌 신활력 사업의 하드웨어 사업인 농촌치유거점센터 1차 리모델링 공사는 금년 4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70%로 내년 2월에 준공하고 2차 치유산업관은 2026년 1월에 착공하여 4월 중에 준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농촌치유거점센터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추진단의 법인화와 자립화를 위해 컨설팅을 실시하고 액션그룹의 사업 또한 자립화를 위해 사업장별 수익 모델 발굴과 참여 인원 역량 강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앞으로 다양한 특산품을 활용한 상품을 개발하여 각종 직거래 장터와 박람회 등을 통해 홍보 및 판로 개척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 완도군의 해양자원과 농업의 특산품을 활용하여 추진단이 다양하게 액션그룹을 발굴하고 일자리 창출 등 자립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금부

터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지민 위원님께서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확대 추진에 대한 제도 개선 사항입니다. 길고양이 개체 수 급증을 막기 위해서는 예산을 확대하더라도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특히 제도권 외에 도서 지역까지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2024년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예산 3,400만 원으로 170마리, 2025년에 5,500만 원, 207마리를 수술하여 전년 대비 약 62%를 증액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서 지역 지원으로 확대하여 길고양이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성화 수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4쪽입니다. 지민 위원님께서 동물보호센터 반려견 놀이터 시설 준공 후 1년 동안 보완 공사를 진행하느라 개관 지연과 안전이나 운영상 문제점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라는 개관이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조치 사항으로는 반려견 놀이터는 2023년 12월에 준공 완료되었으나 놀이터 내에 시설 옹벽 배부름 현상과 잔디 식재 불량 등이 발생하여 1년 동안 보완 공사를 실시하여 2024년 12월까지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는 반려견 훈련 프로그램 계획 수립 및 훈련 지도사 섭외 등을 완료하였고, 2026년도부터 훈련 지도사 수당을 예산에 반영하여 충실한 교육 훈련이 될 수 있도록 펫티켓 중심의 성숙한 반려견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최정욱 위원님께서 학생 승마 체험 지원 사업 관리 감독 강화를 권고한 사항입니다. 노화나 금당, 수안 등 섬 지역 학생들은 1일 2 내지 3시간 체험을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10 내지 20분 정도 말을 타고 나머지 시간은 이론 수업이나 TV를 본다고 학부모의 제보가 있어 지문 인식이나 QR코드 도입 등의 현장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으로써 올해 2025년부터 호스피아 시스템을 통한 QR코드 출결 관리와 체험 교육 확인 등 전산 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 감독 중에 있으며 계속적으로 투명한 시스템 관리로 부정 수급을 예방하고 다른 지적 사항이 없도록 더욱 현장 관리 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쪽입니다. 지민 위원님께서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효율화 방안 마련입니다. 현재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예산 국비 150만 원으로 최대 10건 지원이 가능하나 올해 3건 정도로 지원 실적이 저조하여 국비 이외의 별도 군비 예산 300만 원은 입양 용품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으로 올해부터 2025년부터는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 6건, 74만 4,000원을 추진 완료하였고 내년부터 입양비와 입양 용품 지원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유기동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 사항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궁희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농업축산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민 위원

과장님, 반려견 놀이터 조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준공을 했고 이용을 또 안 하고 있어요. 당초에는 유기견 운동장으로도 이용하고 반려견 놀이터로도 이용을 한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혹시 인원 문제로 오픈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 농업축산과장 이정국

예, 훈련 지도사라든가 이 양성들이 덜 돼서

올해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부터는 집중적으로 훈련 지도사를 수당을 지급해서 이런 부분들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민 위원

당초 본 위원이 생각을 했을 때 아무리 동물이라고는 하지만 유기견센터 내에 반려견 놀이터 조성은 안 맞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당초 목적대로 이렇게 운영을 하실 건지.

○ 농업축산과장 이정국

예.

○ 지민 위원

그리고 완공 이후에 이게 장시간 방치가 됐어요.

○ 농업축산과장 이정국

예.

○ 지민 위원

보수했던 부분도 있지만. 군민들이 사업 목적이 무엇인지조차 혼란스럽게 됐고 현재 놀이터의 기능과 역할을 다시 정리를 하고 명확한 운영 방향을 마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축산과장 이정국

예, 알겠습니다.

○ 지민 위원

지금 완도에 유기견들이 많이 돌아다닌다고 그래서 신고가 들어온 지가 좀 됐어요.

○ 농업축산과장 이정국

예.

○ 지민 위원

얼마 전에 포획 틀 설치도 했는데 성과는 좀 있었습니까?

○ 농업축산과장 이정국

앞전에 의회 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거의 시내 쪽은 많이 잡아냈습니다. 그래서 또 이 애들이 지금 농공단지나 죽청리 쪽으로 좀, 여기서 집중적으로 포획을 하니까 그쪽으로 지금,

○ 지민 위원

도망갔네.

○ 농업축산과장 이정국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농공단지와 이 구역을 지금 집중적으로 해서 지금 우두머리 격인 개 2마리와 또 어제, 그제 한 4마리 이상 그리고 또 먹잇감들이 얘들을 고급화해서 지금 집중적으로 지금 많이 잡고 있습니다.

○ 지민 위원

이게 강아지들이 이렇게 밖에 나와 있으면 주인이 있는 강아지인지, 떠돌이 강아지인지, 우리들이 육안으로 봤을 때는 이게 잘 알 수가 없잖아요.

○ 농업축산과장 이정국

예.

○ 지민 위원

그래서 주민들의 신고가 어디, 어디에 이렇게 떠돌이 강아지들이 몰려서 이렇게 다닌다는 신고가 있으면 그분들한테 먼저 확인 요청을 하지 말고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먼저 출동해서 현장을 먼저 한번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농업축산과장 이정국

예.

○ 지민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축산과장 이정국

예, 알겠습니다.

○ 지민 위원

그리고 유기견 문제는 또 우리 군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 농업축산과장 이정국

예.

○ 지민 위원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정부에서도 동물

복지 정책을 전면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반려견을 유기를 하면 얼마 정도의 벌금이 부과되나요?

○ 농업축산과장 이정국

반려견을 유기요?

○ 지민 위원

내가 데리고 키우고 있는 강아지를 버리면 벌금이 개인한테 부과가 되나요?

○ 농업축산과장 이정국

그것까지는 아직.....

○ 지민 위원

아마 500만 원 정도 부과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기 동물 등록을 하잖아요. 그런데 혹시 이게 동물 등록을 안 하면 부과되는 과태료나 벌금이 있을까요?

○ 농업축산과장 이정국

지금 구체적으로 지금 실질적으로 그 제도는 있지만 조용히 버리기 때문에 어떤 그것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못 하기 때문에 부과되는 그런 부분들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 지민 위원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잘 모르니까. 이게 동물들을 요즘에 키우면 무조건 자기 등록을 하게 돼 있잖아요.

○ 농업축산과장 이정국

예.

○ 지민 위원

그래서 그 등록을 할 수 있게끔 홍보를 많이 해주고 안 하게 만약에 안 했다가 이 동물이 버려져서 찾았을 때 이게 누구 집 강아지라는 게 밝혀진다면 벌금이 부과가 되는 거잖아요.

○ 농업축산과장 이정국

예.

○ 지민 위원

이러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를 주민들이 많이 알게끔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웬만하면 이렇게 등록을 다 할 수 있게끔 유도도 해 주시고요. 정부에서는 동물 복지 교육도 강화해서 초등학교부터 중학교에서 동물 복지 교육을 시작을 하고 2026년도부터는 고등학교에서에서도 교과 과정을 도입을 한다고 합니다. 완도군도 동물 등록과 동물 유기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군민들을 대상으로 법적 규제가 강화되었으니 적극적으로 그 법 지키고 등록을 할 수 있게끔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축산과장 이정국

내년도에 지금 저희가 지금 유기견이 발생한 것이 그 등록이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교육과 함께 등록이 철저히 될 수 있도록, 군민들에 홍보해서 유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지민 위원

동네 마을에 의장님들은 거의 다 알고 계시잖아요.

○ 농업축산과장 이정국

예.

○ 지민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해서 홍보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축산과장 이정국

예, 알겠습니다.

○ 지민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허궁희

지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병수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군수 공약사항과 관련해서 간단히 한두 가지 질문하겠

습니다. 우리 공약 사업에 보면 우리 농수산물공공급식센터 건립 사업이 있는데요.

○ 농업축산과장 이정국

예.

○ 박병수 위원

대부분 공공급식센터는 특별시나 광역시 등 시 단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의 생산량이 많은 것도 아닌데 이 사업이 우리 군의 실정에 맞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한번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축산과장 이정국

실질적으로 지금 한 30억 내지 40억 정도에 투입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진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완도군만의 어떤 농업 생산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기 때문에 해남, 완도, 진도하고 통합해서 이 먹거리에 대한, 급식에 대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센터를 한번 지어보려고 했습니다마는 진도군의 그 반대로 인해서 또 현실성으로 약간의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이 2024년도에 이것이 사업이 무산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또 먹거리 종합계획을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도군만의 어떤 생산된 부분들을 완도에서 소화해낼 수 있도록 급식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배부가 될 수 있도록 종합 플랜을 짜서 내년도에 아마 공모 사업으로 추진해서 이런 부분들이 완도에서 생산된 부분들을 소화해낼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병수 위원

예, 그러면 지금까지 뭔 성과는 없죠?

○ 농업축산과장 이정국

예.

○ 박병수 위원

성과가 없으면 이런 부분들은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 농업축산과장 이정국

예.

○ 박병수 위원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축산과장 이정국

예, 알겠습니다.

○ 박병수 위원

그리고 지금 자료에는 없지만 농식품 농식품 유통팀 사업에 농축산물 수출 장려금 지원사업이 또 있어요.

○ 농업축산과장 이정국

예.

○ 박병수 위원

우리가 그러면 농축산물 수출 농가는 있는가요?

○ 농업축산과장 이정국

지금 현재 자립적으로 지금 현재 수출하려고 하는 농가들이 지금 있습니다. 쌀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유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체적으로 수출 품목들이 있습니다.

○ 박병수 위원

지금 장려를 하고 있는 대상자는 지금 없죠? 대상자가 있는가요, 그러면?

○ 농업축산과장 이정국

지금 군에서 많이 유도를 합니다마는 대상자는 지금 현재 수출은 실질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지금.

○ 박병수 위원

하고 있어요?

○ 농업축산과장 이정국

예.

○ 박병수 위원

이런 사업비 하나라도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투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면 좋겠습니다.

○ 농업축산과장 이정국

알겠습니다.

○ 박병수 위원

앞으로는 그 실효성 있는, 실효성 없는 사업은 과감히 정리를 하시고 우리 완도군 농민들을 위해서 농업 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축산과장 이정국

예, 알겠습니다.

○ 박병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궁희

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허궁희

해양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서 팀장 소개 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 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정책과

○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예, 해양정책과장 김현란입니다. 해양정책과 소속 팀장님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제술 해양정책팀장, 김중석 기반조성팀장, 정영민 해양관리팀장, 김행준 해양환경보전팀장님을 일괄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해양정책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사항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사내, 만덕 담수호 방류 대책 마련 등 총 5건입니다. 먼저 1쪽 박병수 위원님의 제도 개선 권고 사항으로 사내, 만덕 담수호 방류 대책 마련에 대한 조치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어민 피해 민원의 신속 대응 방안 마련과 해양환경모니터링, 전문 연구기관의 연구 용역 추진, 관계 기관과 정기적인 간담회 추진 등 장기적인 대책 마련을 제안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조치 사항입니다. 사내 만덕호 수질 정보는 매월 물 관리 정보 시스템에, 도안만 수질 정보는 매 분기 해양환경 업무 지원 시스템에 공개되고 있습니다. 공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사내 만덕호의 수질은 나쁨 수준이며 담수호와 인접한 도암만 어장 환경 수질은 보통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담수호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 2월 전남도 주관 민관 협의체가 구성되었고 우리 군 공무원 및 민간 위원 등 3명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강진군과 농어촌공사의 담수 방류 시 하층 오염 물질 방류 최소화 조치로 비상 수문 활용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습니다만 올해는 집중호우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 아직까지 시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만 강진군에서는 오히려 장흥댐 방류로 인한 피해가 더 크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담수 방류에 따른 피해 조사 연구 용역은 여러 시군이 연계되어 있어서 전남도에서 추진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계 기관 및 해당 어업인들과 수시로 소통하면서 사내, 만덕호 방류에 따른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쪽 박재선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여객선 야간 운항 법적 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대한 조치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여객선 야간 운항

시 기상 악화로 인한 출항 통제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조치 사항입니다. 지난해 전남도를 통해 제도 개선을 건의하여 행안부 지방규제혁신위원회에 여객선 출항 통제 시계 제한을 500m로 완화하는 방안을 건의한 바 있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당연 통제 사유 중 하나인 가시거리 1km 이내는 현재 GPS와 선박자동식별시스템 등 월등히 발전된 기술 수준에 비해 규정 수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해수부 검토 결과 여객선 출항 통제 기준의 목적은 군민의 생명 보호에 있으므로 여객선 안전이 최우선이며, 더욱이 야간 운항의 경우에는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여객의 안전 및 운항 여건, 지역의 특성들을 고려하여 기상 악화의 기준이 현실에 맞게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다음 3쪽 조영식 위원님께서 권고하신 공터 방치 선박 처리에 대한 조치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완도읍 공터에 폐선박이 방치되어 미관 및 안전상의 문제가 있으므로 처리하고 각 읍면에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기를 제안하셨습니다. 지난해 사무감사 이후 즉각적으로 완도읍 공터에 있는 선박 소유주를 확인하여 이동 조치했습니다. 또한 매년 실시하고 있는 방치선박 처리 사업을 연초부터 조사해서 현재까지 22척을 처리했으며, 연말까지 7척을 더 처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방치선박을 전수 조사 및 처리하여 관내에 폐선박이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계속해서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사업 개선 방안 마련에 대한 검토 및 조치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사업에 섬 주민 영업용 차량의 경우도 운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침 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조치 사항입니다. 도서 및 여객선 운임 지원 대상에 영업용 차량을 포함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수부 지침 개정과 함께 국비 예산 확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수년째 해수부, 기재부, 국회 등을 방문하며 도서 및 여객선 운임 예산 증액을 건의하고 있으나 반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군 25년도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사업비는 총 35억여 원이며, 이 중 국토비 지원이 70%이고 나머지 30%는 군비로 매칭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으로는 3, 4분기를 넘기지 못하고 모두 소진됨에 따라서 부족분은 100% 군비로 충당하는 형편이며, 그 예산은 무려 매년 13, 4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현재로서는 해수부 지침을 변경하여 영업용 차량까지 운임 지원을 확대해 달라고 건의하는 것이 다소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국비 증액을 건의해서 도서 및 여객선 운임 지원사업비의 현실화를 이끌어내면서 전국적으로는 영업용 차량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쪽, 지민 위원님께서 권고하신 공유수면 점사용 및 매립 허가 철저에 대한 조치 사항입니다. 내용은 공유수면 점사용 및 매립 허가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며, 군의회에서 건의한 법률 개정안을 토대로 군민의 입장에서 해당 법을 검토하고 관련 부처와도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조치 사항입니다. 지난 9월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 면제 및 점, 사용 허가 제도 개선 건의를 전남도와 해수부에 기했었습니다. 또 올해 7월에는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설명회에 참석하여 어업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소규모 매립 시에는 간이 해양이용협

의로 매립 허가가 가능토록,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빠져 있습니다만 지난해 사무감사 이후 12월과 올해 3월에 해수부와 국토부에 각각 법령 해석 요청 공문도 보낸 바 있습니다. 내용은 공유수면법 제8조에 따라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고 그 위에 건축법 제6조에 따라 부유식 건축물 특례를 적용하여 건축물을 시설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였습니다. 아쉽게도 원하는 긍정적인 회신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올 12월 말까지로 마무리 단계에 있는 공유수면 이용 실태 조사 자료를 근거로 양성화 및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우리 군 공유수면 실태조사 결과 공유수면 불법 이용, 공유수면 불법 이용 건수는 1,158건으로 조사됐고 이 중에서 288건만 소명이 됐고 870건은 여전히 불법 이용으로 조사되고 있어서 이러한 어촌의 현실을 감안하여 제도를 현실화시켜 줄 것을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정책과 소관 조치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궁희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해양정책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성규 위원

과장님, 감용기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감용기 잘 아시죠?

○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예.

○ 박성규 위원

과장님, 지금 정책과에서 근무하신 지가 한 4년 됐습니까?

○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지금 4년째 되고 있습니다.

○ 박성규 위원

오래 근무하셨기 때문에 감용기에 대해서 잘 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용기 운영은 언제부터 진행이 되고 또 관리 주체는 어디고 몇 대를 운영하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지금 제가 알기로 감용기는 2018년에 도입을 해서 2대를 도입을 했고 군에서 직접 인력을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초에는 8명을 채용을 했었는데 감용기 운영 상황에 따라서 직원이 자연 감소되기도 했고 또 육아휴직이 1명 들어가서 현재는 4명 중에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박성규 위원

그러니까 2018년부터 시작을 했죠?

○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예.

○ 박성규 위원

그리고 공무직은 4명이고?

○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예, 그렇습니다.

○ 박성규 위원

처리기는 몇 대입니까?

○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감용기는 2대입니다.

○ 박성규 위원

2대요? 최근에 화재 난 것도 있습니까?

○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그거는 노화에 있는 고정식 감용기를 저희가 다시 시험 가동하면서 있었던 과정이었습니다.

○ 박성규 위원

이거 인허가가 안 났다는데 지금 몇십 년 됐는데 왜 인허가가 안 났습니까?

○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그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그러니까 소각 노화

에 있는 소각기를 도입하면서 과거에 썼던 감용기를 안 쓰고 있다가 지금 현재 저희가 2개, 이동식 감용기가 잘 안 되니까 노화에 있는 고정식 감용기를 다시 또 소각기도 또 여러 가지 오래되고 그래서 문제가 있어서 감용기를 고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를 조금 정상적으로 시험해 보니까 시험 가동해 보니까 성과가 있어서 그러면 정식으로 고쳐서 이렇게 제대로 합법적으로 써보자 하고 하는 과정에 지금 저것이 그 여러 가지 법적인 절차를 했어야 되는 것이 빠져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 박성규 위원

과장님, 그거는 변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20년 됐는데 지금까지 인허가가 안 나왔고 불법으로 운영했다는 거 아닙니까?

○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지금 감용기는 운영을 노화에 있는 고정식 감용기는 운영을 안 하고 그러니까 그 소각기를 도입하면서 운영이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5년, 6년 정도부터 운영을 안 하고 있다가 이번에 다시 그 감용기를 고쳐서 시험 운영하면서 정상적으로 운영해도 되겠다, 효과가 좀 있다. 이렇게 노화에 지금 쌓여진 폐스티로폼을 굉장히 많이 짧은 시간에 소각을 했기, 아니, 감용을 했기 때문에 이걸 활용하려고 차근차근 찾아보니까 법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서 지금 그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 박성규 위원

만약에 그런 데가 혹시라도 사고가 나면 큰일이지 않습니까?

○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예, 그렇습니다.

○ 박성규 위원

그러니까 인허가를 받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예, 그렇습니다.

○ 박성규 위원

절차를 밟고 있어요?

○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지금 관계 부서하고 환경 관련하고 그다음에 건축 부서하고 저 건물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을 다 검토해서 저게 양성화시킬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과정을 저희가 지금 이제 파악을 했기 때문에 조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성규 위원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예.

○ 박성규 위원

운영비와 관리비는 1년에 얼마씩이나 듭니까?

○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지금 저희가 감용기가 두 가지여서 지금 고정식 감용기 그동안,

○ 박성규 위원

고정식하고 이동식하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예, 고정식은 저희가 그동안 사용을 안 해서 이제 쓰려고 하고 이동식 감용기 2대를 위해서 저희가 한 2,800만 원 정도 연간 예산을 세워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 박성규 위원

2,800만 원 정도, 매년 들어가죠?

○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예, 그렇습니다.

○ 박성규 위원

제보 사항인데요.

감용기는 계속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요.

○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예, 그렇습니다.

○ 박성규 위원

감용기 자체 효율적이지 못하고 요즘은 압축해서 안 나오고 분쇄해서 나오죠?

○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지금 이동식 감용기가 그 성능을 개선한다고 한 번 고쳤음에도 처음에는 잘 되다가 그것도 시간이 지나니까 압축이 안 되고 가루 형태로 나와서 그래서 지금 운영을 중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박성규 위원

그러니까 압축이 돼야 되는데 이거를 분쇄해서 하면 그 하는 의미가 크지 않습니까? 하나마나 한 거 아닙니까? 압축, 분쇄만 되면? 그 압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수리해도 안 고쳐집니까?

○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지금 수리를 몇 차례 했고 또 최근에는 안 되겠어서 원래 처음에 만들어서 납품했던 대표님을 완도로 오라고 해서 그 책임을 묻기도 했어요. 기계를 제대로 안 만들어서 이런 거 아니냐. 그런데 다시 한번 저거를 고쳐서 쓰는 게 맞을지, 아니면 지금 한 7년 됐는데 그동안 당초 초기 비용이 많이 들고 인력까지 뽑았기 때문에 저걸 과감하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부분이 있어서 한 번 더 검토를 좀 심도 있게 해 봐서 정 아니다 싶으면 다른 방법으로 그 폐스티로폼 감용하는 방법을 찾아보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성규 위원

우리 공무직들이 지금 4명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지금 해양 쓰레기를 줍고 다닙니까? 어떻게 근무하고 있습니까?

○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지금 이동식 감용기나 이런 해양 쓰레기 수거나 아니면 소각기나 여러 가지 해양 환경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당초에 뽑았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해양환경관리단 이름으로 했는데 주로 이동식 감용기가 안정적으로 운영돼야 되니까 공무직으로 채용을 했었고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감용기가 제대로 기능을 못 하고 있으니까 사람을 놀릴 수는 없고 저희가 오랫동안 고민스러웠던 것이 바닷가에 방치된 폐 가두리들이 그 신지 쪽에 굉장히 많이 양성화됐어서 그게 고민이고 숙제였는데 해결 방안이 없다가 이분들을 그걸 처리하는 데 집중해서 그 마을 하나를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지에서 이렇게 명사십리 쪽으로 가는 이렇게 물하태 삼거리랄지 주요 관광지 도로에 항상 쓰레기가 이렇게 모여 있어도 그게 해결이 안 됐는데 지금 이분들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서 지금은 깨끗한 상태를 날마다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은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감용기 운영했던 인력이 지금 다른 쪽에서 일시적으로 하고 있고 이분들을 어떻게 잘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할지 또 보람되게 일할 수 있게 할지 고민을 하겠습니다.

○ 박성규 위원

원래 취지하고는 안 맞지 않습니까? 공무직은 기계를 다루고 폐스티로폼을 다뤄야 되는데 바닷가로 다니면서 그 쓰레기를 주우러 다니고 그래야 맞습니까, 그것이 공무직이?

○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말씀드렸듯이 감용기도 운영을 하고 또 해양 쓰레기도 수거할 때, 필요할 때는 수거하고 이런 업무로 저기 이렇게 채용을 한 것이 맞기 때문에 업무 외에 벗어난 일을 한 건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주목적은 감용기 운영이었다가 지금 상황이 이렇게 바뀌어서 다소 아쉬움

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 박성규 위원

감용기에 관련해서 효과 분석이나 이런 거 한 번 해 보셨습니까?

○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예, 감용기 운영 목표가 그 폐스티로폼을 현장에서 바로바로 압축해서 그 수거비도 좀 줄이고 또 폐스티로폼이 막 바람에 날리고 2차, 3차 이렇게 오염되는 것을 막아보자, 즉각에서 즉석 이렇게 해보자 하는 취지로 했지만 실제로 마땅 막상 해보니 현장에서 그렇게 기계가 365일 잘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성능이 좀 떨어져서 저희가 기대했던 예산 대비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 박성규 위원

잘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예.

○ 박성규 위원

또 하다 말다 잘 사업성이 떨어져요, 사실은.

○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예.

○ 박성규 위원

감용기도 보수비도 많이 들고. 또 실효성도 없고. 또 공무직들은 기계를 다뤄야 되는데 해안가로 쓰레기를 주우러 다니고. 이것이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용기에 관련한 사업은 전면 재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성규 위원

20년 동안 이렇게 해왔는데 그것이 효과가 없어요, 사실은. 예산만 낭비하고 인력만 또 투입되고 그렇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한번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성규 위원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마을마다 가보면 폐선박들이 많이 있죠?

○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예.

○ 박성규 위원

그러면 이렇게 수침이 돼서 물에 잠겨 있는 배들도 많고 그런데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그 군비를 세워서 그 폐어선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예, 그렇습니다.

○ 박성규 위원

그런 데 가면 선적이 있는 선박이 있고 없는 선박이 있고 그렇죠?

○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저희가 방치 선박을 처리하는 것은 공고를 해서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서 주인 없는 그 배를 쓰레기로 보고 쓰레기 처리를 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폐선박들은 거의 주인이 없는 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박성규 위원

주인이 있는 배도, 선적지 있는 것도 있거든요.

○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예.

○ 박성규 위원

각 마을마다 배가 지금 많이 남아 수침돼서 있어요. 보기도 안 좋고 그러기 때문에

○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예산을 많이 세워서 그 선적 사업 대주분들한테 상의를 해서 많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성규 위원
미관상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주인이 있는 배는 주인이 배를 처리를 해야 되는 게 의무라서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공고를 해서 주인이 안 나타나고 이거는 쓰레기다, 이렇게 보이는 것을 방치 선박으로 해서 쓰레기 처리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있는 배는 당연히 주인이 그 마땅한 그 절차를 거쳐서 비용을 들여서 처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 박성규 위원
주인이 있다 하더라도 주인한테 물어봐서 자기가 사용 안 하고 폐기 처분을 한다면 그런 배들도 폐기 처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예, 알겠습니다.
○ 박성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궁희
박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정욱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쓰레기 처리 부정부패라고 이래서 언론에 나온 거 혹시 보셨을까요?
○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예, 봤습니다.
○ 최정욱 위원
우리 지역의 쓰레기 업체는 몇 개며, 외지 업체는 몇 개나 있어요?
○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지금 저희 관내 그러니까 처리장이랑 주소를 두고 있는 업체가 네 군데 있고 주소는 여기 있고 관외에 그 처리장이 있는 업체가 한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올해부터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관내에 주소와 처리장이 있는 업체들이 주로 입찰에 참여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최정욱 위원
지금 현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우리 완도군 쓰레기 지금 처리하고 있다는 얘기죠?
○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예, 그렇습니다.
○ 최정욱 위원
외지 업체는 없겠네요?
○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지금 외지 업체는 지금 참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최정욱 위원
쓰레기 처리 업체 선정하는 과정과 예산 집행은 어떻게 하는가요?
○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지금 저희가 해양 쓰레기를 읍면에서 그 마을마다 그 어느 지점을 이렇게 위치를 정해놓고 쓰레기 해양 쓰레기를 모아 놓으면 그렇게 하고 읍면에다가 그 마을에서 얘기를 하면 저희가 군에서 지역별로, 또 권역별로 발주를 합니다. 완도읍권, 금일권 몇 개 마을씩 해서 그렇게 발주를 하면 경리계에서 입찰에 의해서 처리 업체를 선정을 하고 그럼 처리 업체로 선정된 업체에서는 그 기간 동안에, 정해진 그 처리 기간 동안 한 달 내지 두 달 사이에 그 처리를 하고 저희한테 준공 검사를 받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최정욱 위원
공식적으로 공개 입찰을 하네요, 다?
○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그렇습니다.
○ 최정욱 위원
수의 계약을 준 건 아니죠?

○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예, 수의 계약은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최정욱 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해양 쓰레기 처리 과정에 부정부패 의혹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소속 직원이 해양 쓰레기 업무 과정에 공문서를 위조하고 인건비 통장을 조작해 수년간 수억을 빼돌렸다는 것이 이렇게 부풀리기식 허위 사실이 드러났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왔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그 기사가 이번 주, 오늘도 나왔고 지난주 금요일에도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 내용을 보고 저희도 읍면에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인건비 예산을 읍면에 보내지를 않습니다. 읍면의 인건비라는 것은 해양환경미화원을 우리가 고정으로 그 직원을 채용을 해서 거의 1년 내내 그분들은 고정된 인력이 근무를 하고 계시고 옛날처럼 단기로 인건비 좀 보내서 어디 마을 하루 이틀 청소하고 이런 예산은 보내지 않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어서 저도 궁금해서 읍면에 다 확인을 해 봤는데 그런 사례를 알 수가 없었고 그 기사를 쓰신 기자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기자 분 말씀은 지난 이번 주 월요일에 통화를 했는데 “옛날에 아주 옛날에 읍면에서 있었던 일이지, 지금 일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자세한 말씀을 저한테 제가 전달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그 기사가 또 나서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러는지 저도 더 알아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지금 기사를 쓰신 기자님 통화를 시도를 했는데 통화가 안 돼서요. 그런데 일단은 그 인건비를 어떻게 할 수 있는 저희 과에서 인건비 예산을 읍면에다 보내는 그런 예산 자체가 없습니다.

○ 최정욱 위원

그런데 언론에서 이렇게 수억을 몇 년간의 인건비 부풀리기, 허위 작성 이런 걸로 해서 이렇게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있다고 이렇게 함부로 근거 없이 이렇게 냈을까 싶어서.

○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그래서 저도 그 기사를 쓰신 기자 분하고 한 번 더 접촉을 해 보고 어떤 내용에서 그런 것이 나왔는지 좀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다만 현재 지난주부터 그 기사가 났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저희 담당 업무팀하고 읍면하고 다 조사를 해봐도 지금은 그런 개연성이 발생할 수 있는 예산이 없습니다. 해양 쓰레기 처리 사업비는 거의 대부분이 시설비입니다. 33억 가까운 예산이, 조금 넘는 예산이 30, 그러니까 한 1억 정도만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해서 읍면에다가 마대도 사고 삽도 사고 이렇게 쓰레기 처리할 수 있는 비닐도 사고 이렇게 이런 내용 예산을 지원해 주지, 인건비를 지원해 주거나 그러지는 않고 그 시설비는 전부 다 군에서 소규모 입찰로 해서 그때그때 마을에서 쌓인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저희가 한 50번 정도 입찰을 합니다. 한 읍면에 치면 1년에 한 서너 번 정도 입찰을 읍면 대상 쓰레기로 하기 때문에 읍면에서도 더 쌓여 있는 기간을 짧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도 이런 기사가 나와서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알아보지 않고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일단 저희 과 예산으로는 그런 예산이 있기가 어렵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 최정욱 위원

우리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모든 게 공

개 입찰로 그때그때 하면서 처리해서 가고 읍면으로 배정해서 내려서 돈을 지원하고 이런 건 없다는 얘기죠?

○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그렇습니다.

○ 최정욱 위원

그런 게 없으면 이런 상황하고는 전혀 안 맞는 것 같아서. 확인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예, 알겠습니다.

○ 최정욱 위원

그리고 그 특정 업체 몰아주기라고도 여기가 또 나와 있어요.

○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예.

○ 최정욱 위원

혹시 그것도 다 공개 입찰이기 때문에 이것도 안 맞다는 얘기거든요.

○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그 업무 처리 절차상 저희 군에서는 이 정도 양의 쓰레기를 처리해야 되니까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해 주십시오 하고 저희가 경리 부서로 공문을 보내면 경리 부서에서 거기에 맞는 계약 절차를 가지고 업체를 선정해서 저희한테 알려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업체를 밀어주고 어쩌고 그런 부분까지 저희 과에서 관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 최정욱 위원

과장님이 거기까지는 모르겠네요. 이건 경리 업체 파트에서 하니까.

○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예.

○ 최정욱 위원

어쨌든 그거를 공개 입찰을 한다는 걸로 알고 계신다는 얘기죠?

○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예, 그렇습니다.

○ 최정욱 위원

또 여기에 보면 감사 부서가 문제를 인지했다는 얘기거든요. 인지했는데 문제가 드러나면 우리 조직 전체가 흔들린다, 그래서 이걸 유야무야 덮었다는 이런 기사들이 여기 나와 있거든요. 이건 또 어떤 걸까요? 이것도 전혀 안 맞는 얘기인가요?

○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그거는 감사 부서 이야기라서 저희도 감사 부서에 그런 게 있었냐고 뭐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있었는지 물어봤더니 감사 부서에서도 잘 모르고 있어서 알아봐야 되겠다, 이런 대답을 제가 들었습니다.

○ 최정욱 위원

지금 어쨌든 과장님은 여기 신문 내용하고는 지금 조사한 결론이나 이런 것이 없다는 얘기죠?

○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 최정욱 위원

예, 잘 살펴보시고 또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예, 잘 알겠습니다.

○ 최정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궁희

최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선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들어가면 화흥포항이 있잖아요.

○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예.

○ 박재선 위원

그런데 화흥포항이 사실 우리 노화, 보길, 소안 들어가는 제일 관문일 거예요, 항에서는.

○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예.

○ 박재선 위원

그런데 그쪽 주변으로 보면 그 적치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뭐라고 저희들이 표현을 해야 됩니까?

○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그거 어구들 쌓아져 있는 거 말씀이죠?

○ 박재선 위원

예, 그걸 뭐라고 저희들이 해야 됩니까? 그 물건을 보고 저희들이 뭐라고 판단을 해야 될 거냐는 얘기죠.

○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지금 화흥포항 가다 보면 그 어업인들이 양식 시설이 양식하는 계절이 끝나고 철거를 하면 그게 햇볕에도 말려야 되고 이물질도 떨어져야 되고 그래서 비바람에 일부러 방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보기가 싫고 어떤 것은 내년에 쓰려고 놔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은 일단 끝났으니까 놔뒀다 내년에 쓸 때 다시 버릴 거 버리고 쓸 거 쓰고 그러려고 놔뒀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난잡해서 미관상 안 좋다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 박재선 위원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이렇게 배 타고 항으로 가기 때문에, 배 타러. 그걸 수시로 만나는데 수십 년 동안 그렇게 계속해왔던 그 물건들이 지금도 계속 그렇게 비치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육지에 있으니 육지에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바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 또 해양정책과에 또 해양 쓰레기로 봐야 될 건지 그거 제가 잠깐 물어본 거고요. 저희들이 그전에 의회에서 연구 용역을 했었습니다. 연구단체에서 이것을 해양 쓰레기에 대해서 어구를 어떻게 할 건지 그 용역을 하면서도 약산에 가 보시면 당목항에 판넬로 해서 지어진 거 알고 계시죠?

○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예.

○ 박재선 위원

저희들도 그렇게 요구도 했었고 그때 당시에는 지역개발과에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역개발과하고의 해양정책과하고의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저희 일반 사람들을 봐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건지, 그런 것 또한 같이 해야 될 거라 생각하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 사진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잘 보이시잖아요.

○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예.

○ 박재선 위원

저희들이 저기 항이에요. 그런데 저런 것은 실질적으로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양정책과에 하는 게 맞겠죠?

○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예.

○ 박재선 위원

아까 전자에 물어봤던 것은 그게 전체적으로 셀터라든가 물건이 많이 있는 것은 적재라 하면 이것은 또 해양 쓰레기로 저희가 봐서는 또 말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잘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분리수거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예.

○ 박재선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올해부터 과장님

께서 각 읍면마다 분리수거를 잘하는 그런 읍면 어촌계에 따라서 많이 지금 수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따른 것은 지금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예, 맞습니다. 읍면별로 해양 쓰레기를 이렇게 보관해 놓은 장소, 마을마다 장소를 그 동네에서 정합니다. 정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가 육상 집하장 사업을 해서 그것을 깔끔하게 만들어 주는 데도 있고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못한 데는 본인들이 적정한 위치를 정해서 해 놓고 있고 거기에 주민들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분리를 다 해놔야 로프는 로프대로, 셀터는 셀터대로, 스티로폼은 스티로폼대로 해놔야 저희가 우선 수거를 해 가겠다. 이렇게 주민들이 했더니 의외로 굉장히 잘 따라주고 있어서 성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년에 비해서 같은, 예산도 늘어나긴 했습니다마는 같은 예산으로 훨씬 더 많은 양을 처리되고 있습니다. 다만 방금 사진 보여주신 것처럼 저기는 마을에서 약속하지 않은, 그러니까 주민들이 불법으로 몰래 투기한 생활 쓰레기도 붙어 있고 또 해양 쓰레기도 붙어 있고 낚시객들이 하다가 썼던 투망도 저기에 던져져 있고 이런 상황이어서 저런 문제를 저게 어디 부서 일이다 그렇게 하지는 않고 저희가 읍사무소랑 얘기를 해서 해양 쓰레기 부분은 저희가 처리를 하고 또 생활 쓰레기는 환경 쪽에서 처리하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 저런 데를 사실은 별도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도 또 관심을 갖고 계셔서 완도읍이나 각 읍면사무소로 연결해서 저런 상습 불법 투기 장소를 전수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씩 없애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화흥포항에 어지럽게 쌓여진 쓰레기, 쓰레기는 아니죠, 쓰레기 아닌데 그 부분도 어떻게 해결을 해볼까 해서 1차적으로는 큰 사업이 들어가기 전에 1차적으로는 김 양식을 철거하는 시기랄지, 아니면 뭐 이렇게 미역 양식을 철거하는 시기에 수산경영과에서 철거를 불법 투기하지 않고 잘 철거하도록 하는 지시를 하는 안내를 하는 공문을 보냅니다. 그때 육상으로 가지고 왔을 때도 미관상 어지럽지 않게 깔끔하게 보관하도록까지 저희가 안내 공문을 보내도록 협조 요청을 했고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그 시기에 저희도 같이 읍면에 또 읍면사무소에서 그런 부분을 지도 단속해서 주민들의 인식이 달라질 수 있도록 그렇게 1차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당목처럼 하는 부분은 어떤 마을 정주 여건 개선 사업이랄지 이런 차원에서 접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순 군비 사업으로 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그건 또 별도로 관련 부서랑 같이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 박재선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에 비해서 내년 예산은 어떤가요, 해양 쓰레기 예산은?

○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지금 올해 예산에 비해서 내년에 한 6억 정도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23년도, 24년도, 25년도 쭉 보니까 23년도, 21년도 이때는 20억 대였는데 지금 점점 올라가서 올해 33억 이상이 됐고 내년에는 거의 한 40억 가까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박재선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해양 쓰레기를 수거해 왔는데 지금 올해부터 읍면별로 분리수거가 잘 돼 있어서 이렇게 많은 양도 할 거고 거기 분리수거 안에 보면 그 일반 재활용 그것도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합니

까? 아니면 폐기물 처리해서 일괄적으로 처리합니까?

○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저희가 일단 그 업체에서 그 지역의 해양 쓰레기 처리하기로 계약을 했으며 거기에서 나온 재활용 물건은 또 업체에서 팝니다. 업체에서 팔아서 수익이 생기고 저희가 분리를 이렇게 쭉 해보니까 23년도, 24년도, 23년도 같은 경우는 100만 원 가지고 처리했던 그 물량이 1.46톤 정도 됐어요. 그런데 올해 1월부터 적극적으로 분리배출 안 하면 수거를 안 하겠다 하고 계속 지도를 했더니 올해는 100만 원 가지고 2톤 정도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많이 있다. 다만 아직도 일부 읍면에서는 그게 인식이 잘 안 돼서 아직도 잘 안 지켜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포기하지 않고 해 보니까 가능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추가로 친환경 정화운반선 올해 신조를 해서 그 배로 당초에는 외딴섬, 이렇게 배가 잘 안 다니는 섬에 가서 쓰레기를 실어오겠다 하고 시작을 했는데 넙도랄지, 또 소안도 북암리랄지, 이런 데서 이런 마을에서 빨리 치워줬으면 좋겠다 해서 이 배로 갔더니 한 번 가면 한 30톤 이상을 싣고 옵니다. 그러면 5톤 트럭 6대가 한 번에 갔다 온 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수거, 이동하는 수거비도 줄어들고 처리도 빨리 처리하고 저희도 예산이 절감이 돼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고 그렇게 하는 데는 진짜 100% 분리수거를 해줍니다, 주민들이. 그리고 주민들이 나서서 종선으로 와서 저희 배에다 실어주고 하니까 효과가 많이 있어서 직원들은 일이 많이 늘어나서 힘들지 모르지만 다 보람 있게 생각하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 박재선 위원

그래요. 지금 현재 읍면별로 보니까 그 분리수거를 잘해서 하는 데는 참 잘해주고 더 많은 양도 치워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 참 잘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쭉 그렇게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재선 위원

그리고 방금 보셨던 그 사진처럼,

○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예.

○ 박재선 위원

일반 쓰레기와 해양 쓰레기가 같이 뭉쳐 있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는 그 대형으로 많이 보이는 곳에는 CCTV 촬영할 그런 의향은 있습니까?

○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지금 저 위치가 제가 다른 쪽으로 또 민원이 있어서 사실은 지금 해결을 거의 했습니다. 저기가 화흥포항에서 저쪽 방조제를 따라서 대신리 방향으로 가는 그쪽에 길목에 그렇게 돼 있어서 완도읍사무소하고 지금 합동으로 해양 쓰레기 부분은 우리가 처리하고 생활 쓰레기는 환경 쪽에서 처리하고 내년에 예산 요구해서 CC 카메라 하나 달기로 읍사무소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 박재선 위원

대신리 가는 방조제 그쪽으로 보면 낚시꾼들도 많이 오시잖아요.

○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예, 그렇습니다.

○ 박재선 위원

그렇죠? 저희들은 차 타고 지나가다 보면 그게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잘 보이는 곳에 한 번 정도는 CCTV를 촬영해서 그런 부분도 상습적으로 쓰레기를 버리지 않게끔

그렇게 해주는 것도 먼저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예, 잘 알겠습니다.

○ 박재선 위원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해수부 산하에서 한국수자원자원공단에서 어구 보증금 제도라고 알고 계십니까?

○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어구.....

○ 박재선 위원

어구 보증.

○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그거는 수산경영과에서 아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재선 위원

이게 수산경영과에서 하고 있는가요?

○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예.

○ 박재선 위원

이게 어구라 하면 이게 해양 쓰레기들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이 제도가 어구를 그쪽에서 판매를 할 때 보증제 그대로 포함해서 그 금액까지 판매를 해요.

○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예.

○ 박재선 위원

그러고 나서 어민들이 사용하고 그걸 버릴 때 그대로 보증대로 그대로 또다시 환급받는 거예요, 일명. 쉽게 얘기하면.

○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예.

○ 박재선 위원

그 제도가 있습니다.

○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예.

○ 박재선 위원

그런데 그 제도를 아직 모르는 것 같은데 24년도부터 통발도 했고요. 26년도부터는 이렇게 자망, 부표 이런 걸 전부 다 한답니다. 부표가 들어가면 저희들은 해양 쓰레기로 보잖아요. 부표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26년도부터는 1월부터 한다고 합니다.

○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예.

○ 박재선 위원

그런 제도가 있어요.

○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예.

○ 박재선 위원

그렇게 한번 알아보시고 이런 제도도 우리 어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 주셔서 주민들이, 어민들이 사용하고 또 버릴 때는 정상적으로 버려서 자기 그대로 찾고 그러면 완도군에서도 해양 쓰레기가 그만큼 안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예.

○ 박재선 위원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해보십시오. 저희들이,

○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재선 위원

완도는 항상 청정 바다 수도라고 하는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항상 쓰레기는 저희들이 한 곳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바람의 영향에 따라서도 또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여간 더 특별히 관심 가져 주시고요.

○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예.

○ 박재선 위원

해양 수도, 우리 청정바다 수도 같이 깨끗한 바다를 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박재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궁희

박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호 위원

과장님 간략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생일하고 청산 야간 운행에 대해서 현재까지 추진 사항을 간략히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지금 생일을 먼저 그 항로를 확보하기 위한 어느 항로에 어떤 식으로 가야 될지 확보 면적을 확인하기 위해서 측량을 먼저 했었고 올해 또 청산도도 측량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생일도 항로에 대해서는 측량 이후에 농협하고 또 이렇게 수산청, 또 운항관리센터에 이쪽 관계된 기관하고 같이 항로 현장에 측량은 이렇게 됐는데 어느 정도 실제로 확보가 돼야 되겠는지 현장도 한번 갔다 왔는데 생일도 같은 경우 선사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선사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선사에서는 지금 배가 너무 노후돼서 이 배로는 운영할 수 없다, 이런 어려움을 얘기를 해서 빨리 되기는 또 쉽지 않겠다 하는 저희도 약간 브레이크가 걸렸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배를 좀 어떻게 적극적으로 지어보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군에도 예산 요청을 했고 또 도에다가도 예산 지원 요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본인들도 농협 선사에서도 재원을 좀 확보를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어서 그 상황을 보면서 같이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철거해야 되는 어장은 좀 있습니다.

○ 조인호 위원

어장 관련돼서 일정리 좀 걸려요?

○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제가 구체적으로는 제가 지역을 잘 몰라서. 일부 금일하고 생일 그쪽에 어장이 조금 걸리는데 그 부분은 구체화되면 저희가 주민들하고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볼 생각입니다. 배 때문에, 배가 확정이 안 돼서 괜히 일을 서두르다가 또 주민들 저기만 할까 봐 상황을 보면서 진행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 조인호 위원

그러면 배 선조 관련돼서 우리 본예산에서 얼마 요구했어요?

○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지금 6억 요구돼 있습니다.

○ 조인호 위원

6억?

○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예.

○ 조인호 위원

그럼 지금 그때 미진한데 농협 조합장이 지금 관심 많이 갖고 있어요?

○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지금 농협 지금 조합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이 배를 신조를 해 보려고 군에도 찾아오셨고 또 도지사님도 만나고 했던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 조인호 위원

도지사 실제 의원을 통해서 쪽지 하나 준 것 같던데.

○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그래요? 그 상황을 하여튼 그 배가 있어야 가능하다 하니까 지금 배가 너무 오래돼서 현재 노선 다니는 것도 낮에도 어렵다. 점점 어려

워진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상황을 지켜보면서 보조를 맞추겠습니다.

○ 조인호 위원

그러면 농협 측에서는 예산 요구를 얼마나 했어요, 군에다가?

○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농협에서는 군에서 10억, 도에서 10억, 자부담 10억, 이렇게 생각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10억이 적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 조인호 위원

예, 잘 알겠고요. 아까 해양 쓰레기 이야기 나왔는데요. 과거에는 우리가 읍면에서 할 때 하고 지금 입찰해서 할 때 하고 쓰레기 소진량이 어떤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입찰해서 한 게 훨씬 낫습니다.

○ 조인호 위원

입찰해서 한 거요?

○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예.

○ 조인호 위원

그러면 큰 문제는 없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예.

○ 위원장 허궁희

조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군정질문 때도 질문했었습니다마는 완도 해조류와 전복 특구 관련해서 그 이번 10월에 계획 변경해서 연장이 됐죠?

○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안 그래도 말씀하실 것 같아서 중기청에 오늘 또 확인해 봤는데 지금 서류를 중기청에서도 관련 부처 협의를 진행을 해야 돼서 그 진행 중이니까 기다리라고만 말씀을 하셔서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 위원장 허궁희

그런데 일부에는 또 이게 2026년까지 3년 연장으로 이렇게 저기가 저한테는 또 제보가 왔더라고요.

○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예.

○ 위원장 허궁희

그래서 변경된 사업들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그럼 제가 아직 그 정확하게 마무리가 안 됐다 하니 다음 기회에 하기로 하고 만약에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된 대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궁희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사업이 완료된 것도 있고 새로 또 이렇게 신규 사업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지금 이게 연장이 완료되면 그 민간특화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절차는 뭐 공청회랄지 여러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허궁희

예, 그래서 꼭 한번 보고해 주세요.

○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궁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해양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정책과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경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서 팀장 소개 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 사항에 대

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경영과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안녕하십니까? 수산경영과장 방현수입니다. 수산경영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수산정책팀 추영철 팀장입니다. 시장개척팀 김정삼 팀장입니다. 유통가공팀 윤세환 팀장입니다. 어패류팀 김덕준 팀장입니다. 해조류팀 이수진 팀장입니다. 다음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박성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청정 마켓 할인 이벤트 확대 등 지속적 활성화 대책 마련입니다. 완도 청정 마켓 활성화를 위해 위탁 업체인 주식회사 리얼 커머스와 협의하여 연 7회 이상 할인 이벤트 및 무료 배송 이벤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설 명절 기획전, 복날엔 전복 데이 행사, 가정의 달 행사 등 이벤트 등을 추진하여 전년 대비 약 66% 이상 주문 건수가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 더 다양한 판로 확보를 위해 전라남도 22개 시군 쇼핑몰 운영 시스템 통합 계획에 따라 전라남도 출자 기관 재단법인 남도장터에서 운영하는 쇼핑몰 시스템으로 이관할 계획입니다. 남도장터 통합 시스템에서도 다양한 할인율 또는 원 플러스 원 같은 기획전을 추진하여 입점 업체의 온라인 판매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박성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화물차를 활용한 청정 마켓 래핑 홍보 검토입니다. 지역 특산품 및 청정 마켓 활성화를 위해 관내 화물차 수요를 파악한 결과 래핑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 군 관내 전복 유통에 소속된 활어차 및 탑차 58대를 신청받아서 2025년 11월 17일부터 지금 부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스티커가 훼손되기 전에 완도 전복과 완도 청정 마켓이 함께 홍보되는 리뉴얼 디자인으로 래핑 광고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완도 청정 마켓 홍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최정욱 위원님께서 제도 개선 요구하신 화신산업 결손 처분 적극적 처리입니다. 올 4월에 전임 군수님을 방문하여 개인 명의의 주식을 완도군청으로 변경하기 위한 무상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4월과 6월 2회에 걸쳐 화신산업 개발에 완도군으로 주주 명의 변경을 요청하였으나 회사에서는 향후 절차에 따라 회사를 폐업 처리할 계획이라며 주주 명부 변경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주 명부 변경 청구 소송을 추진토록 하고, 명의 변경 후 주식 처분 등을 통해 출자금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지난 4월 지방 출자기관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실시하였는데 지금 통상에 대해서 감사를 받았는데 감사관은 지금 실익이 있는지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아직까지 지금 답변이 없는 상태입니다.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업무의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최정욱 위원님께서 제도 개선 요구하신 친환경 에너지 보급 사업 개선 및 사후 관리 강화 방안 마련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보급 사업 히트펌프 및 인버터는 매년 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전남도에 예산 반영되도록 건의하고 있습니다. 올해 해수부에서 전라남도에 배정된 물량은 히트펌프 124대, 인버터 48대였으며, 우리 군 배정은 히트펌프 35대, 인버터 38대였습니다. 사업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전남도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2월 히트 펌프 불량과 관련하여 해수부 및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하여 해수열 히트펌프 관급자재 입찰, 불량 기기 납품 업체 참여 방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다른 보증 기관 확대, 히트 펌프 성능 개선 사업 등을 건

의하였으며, 지난 8월 박지원 국회의원 간담회에서도 동 내용을 보고하였습니다. 하지만 히트 펌프 업체 선정을 사업자가 하고 불법 개조를 통해 표준가스 외 사용, 온도 센서 위치 불법 변경 등 사용자 부주의가 확인되었으며 시공사의 부도로 인해 AS가 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공급 업체의 품질 보증 및 품질 보증 검증 및 자격 요건 강화에 대해 해수부의 사업 지침 건의하였으며 이번에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부실한 업체가 선정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박성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가두리 감축 사업 추진 및 관리 대책 마련입니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가두리 감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전복 가두리가 집중되어 있는 노화, 보길 지역에 사업자를 모집한 결과 68가구에 5,933칸을 모집 후 현지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6월 29일 노화읍부터 해체를 시작하였으며, 8월 29일 56가구에 4,285칸을 철거 및 해체하였고, 폐업 지원금으로 5억 1,42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절기 사업 추진으로 악취 및 민원이 다소 발생하였으나 민원 발생 최소화를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폐기물 처리가 늦어지는 등 절차에 다소 아쉬움이 있습니다. 현재 폐스티로폼 및 PE를 폐기물 처리하고 있으며 12월 초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가두리 신규 시설 예방을 위해 감축 사업 신청 어촌계와 어업인으로부터 신규 가두리 금지 확약서, 사후 관리 이행사항 확인서를 징구하고, 매년 KMI 위성 판독 자료를 통해 신규 가두리가 재시설되지 않도록 사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쪽 최정욱 위원님께서 제도 개선 요구하신 인증 부표 지원사업 관리 철저입니다. 수산 사업 신청 서류에 대해 신청 단계에서 회의록, 참석자 명부 등 주요 서류를 어촌계장이 직접 자필로 작성하도록 담당 직원에게 지도하고 있으며, 부실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물품 검수 단계에서는 수협과 읍면이 사전 일정을 공유해 실제 납품 여부와 규격, 수량 등을 공동으로 확인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검수 과정에서 누락이나 착오가 없도록 현장 확인을 보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정산 시에는 표준화된 정산 양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제출 서류를 수시로 확인하여 서류 누락 시 즉시 보완을 요청하도록 하고 정산서가 부적합할 경우 보조금이 집행되지 않도록 e나라도움 시스템 개선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부실 사례 방지와 사후 관리를 강화하여 인증 부표 보급 지원사업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산경영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궁희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수산경영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병수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관내 김 공장 처리수 사용 현황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 박병수 위원

우리 군 관내에 지금 김 가공 공장이 몇 개소나 됩니까?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지금 저희 군 관내에 39개소가 있습니다.

○ 박병수 위원

지금 완도군 관내에 소안하고 주로 군내가 많

이 있는가요?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소안이 약 한 20개소 정도 돼서요.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완도읍하고 군내 쪽에 좀 있습니다.

○ 박병수 위원

예, 그렇죠?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 박병수 위원

지금 그러면 현재 김 가공 공장에서 사용하는 물은 어떤 물을 쓰고 있습니까?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지금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병수 위원

대부분 다 지하수를 쓰시죠?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그렇습니다.

○ 박병수 위원

K-푸드로 명성을 높이고 있는 김 공장 가공 시 상수도를 쓰면 그 원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업체에서는 대부분 상수도보다 지하수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 박병수 위원

문제는 김 가공 공장에서 중대형 관정을 굴착해서 지하수를 사용하다 보니까 지하수 오염이나 또 지하수 고갈 이런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그렇습니다.

○ 박병수 위원

군에서는 지하수 사용 시 수질 검사 지금 하고 있습니까?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지금 김 가공 공장 같은 경우는 1차 가공이기 때문에 지금 법적으로 수질 검사에 대한 의무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김 가공 공장이 뭐 CJ이라든가 뭐 대상이라든가 대기업에다가 지금 납품을 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수출이라든가. 그렇게 할 경우에는 그 해당 업체에서 그 수질 검사를 요구를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병수 위원

우리 자체적인 행정에서는 하고 있는 건 없고요?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행정 같은 경우는 그 관정을 팔 때 3년마다 한 번씩 수질 검사를 하도록 그것은 규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병수 위원

지금 해양수산부 2019년도 마른 김, 가공용수 정수시설 사업 시행 지침 혹시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알고 있습니다.

○ 박병수 위원

거기에 지침을 보면 세척 용수, 재사용수, 배출수와 관련한 용수 수질 기준이 지정돼 있습니다.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 박병수 위원

그거 혹시 읽어보셨는가요?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 박병수 위원

정수시설을 거친 용수의 수질 기준 시행 지침을 보면 첫 번째, 물김 세척 용수 재사용수는 먹는 물 수질 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 “검사 항목이 먹는 물의 수질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요. 또 배출수에 대해서는 물환경보전법 적용 “배출수 정수 시설은 물환경보전법상 배출수 수질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혹시 알고 있다고 했죠?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 박병수 위원

이렇게 했을 때 그 가공품 원료 및 가공 환경에서 안정성이나 위생, 품질 관리가 확보되지 않으면 완도군의 청정 이미지가 훼손될 수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그렇습니다.

○ 박병수 위원

또한 먹는 음식에 검증되지 않은 첨가물이 사용될 경우 혹시 이런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첨가물.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첨가물은 지금 일부 예전에 가공 공장에서 사용을 한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병수 위원

이렇게 했을 때 제품 신뢰성과 직결된 문제가 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그렇습니다.

○ 박병수 위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점검이라도 해보셔야 하는가요,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넘어가고 있는가요?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저희들이 보면 마른 김 공장 같은 경우 1차 가공을 하다 보니까 사후에 지금 어떤 검사기관에서 이렇게 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다 보면 뭐 마른 김에서 어떤 다른 원물만 나와야 되는데 어떤 첨가물이 들어갔다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위반이거든요. 그리고 또 회수를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과거 사례에서 보면. 그런데 그런 부분은 뭐 해당되지 않도록 법 위반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은 지도 계속하겠습니다.

○ 박병수 위원

참 중요한 내용이라서 이런 내용이 밖에 나가서 상당히 큰 문제가 발생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깊이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 박병수 위원

한 30여 개 된 가공 공장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알겠습니다.

○ 박병수 위원

김 가공 공장들의 용수 처리와 관련해서 정기적인 점검이나 현황을 파악을 해서 가공식품에 대한 로드맵 관리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그렇습니다.

○ 박병수 위원

김은 우리 완도군의 대표 수산품 중 하나입니다. 또 더군다나 김 제품이 K푸드로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행정에서는 이런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알겠습니다.

○ 박병수 위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 박병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궁희

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성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 우리 전복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 박성규 위원

지금 최근에 우리 가격 하락으로 해서 우리 어민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죠?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그렇습니다.

○ 박성규 위원

지금 돈 문제도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돈 문제도 아직 뭐 뚜렷하게 해결은 안 되고 있습니다.

○ 박성규 위원

그래서 이 편차라든지 돈 문제가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고 또 전복은 1년산만 사 가고 2년산은 또 사 가지도 않습니다.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 박성규 위원

그래서 어민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요즘은 수출은 조금 잘 되고 있습니까?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수출은 그나마 나름대로 지금 동남아 쪽으로 수출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성규 위원

그래서 수출도 많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요.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 박성규 위원

우리 어민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가격입니다.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그렇습니다.

○ 박성규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금 결제입니다.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 박성규 위원

그런데 물건을 사갖고 가서 대금 결제가 가장 늦은 것이 전복밖에 없습니다. 다른 물건들은 전부 다 가져가면 현찰로 가져가지 않습니까?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 박성규 위원

그런데 전복만 유일하게 많게는 2개월, 3개월도 걸리고. 우리 주식회사도 2주가 넘게 걸려요. 우리 주식회사는 여유가 있고 그러면 바로 현금 결제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식회사도 2주, 3주가 걸리고 있거든요. 그런 거를 우리 주식회사 사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주식회사는 다른 회사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이 참여한 회사이기 때문에 대금 결제를 빨리 해 주시고 이렇게 대금 결제가 2개월, 3개월 걸리면 유통업자들은 자기 돈으로 없어도 다 장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민들 물건 사다가 팔아서 다시 어민들한테 대금 결제하기 때문에 자기 리스크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유통업체하고 어업인 간에 직접적으로 거래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한다거나 그렇게 할 수는 지금 없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또 이게 각 업체들마다 그런 또 사업 운영 방식이라든가, 또 뭐 이렇게 납품을 하는 데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조금 있다 하더라고요. 그 결제 기간이 조금 이렇게 달라지는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저희들도 유통업체 협회를 통해서 대금 결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금 조속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 박성규 위원
그러니까 유통협회하고 또 어민단체라든지 우리 군하고 해서 조율해서 지금 상환하고 이자를 해야 되는데 전복을 팔아놓고 대금 결제가 안 되면 아주 긍긍합니다, 아주. 쩔쩔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회생, 파산 많이 하고 있죠?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 박성규 위원
몇 백 명이 지금 회생하려고 그렇게 서류를 다 접수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대금 결제가 이렇게 늦어지면 쓰겠어요? 옛날에는 전복 귀할 때는 선수금도 주고요.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그렇죠.

○ 박성규 위원
현찰로 다 줬지 않습니까?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그렇습니다.

○ 박성규 위원
그런데 계속해서 결제가 늦어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어민들한테 맡기지 마시고 우리 군에서도 조금 조정 역할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알겠습니다.

○ 박성규 위원
그리고 우리 전복 아니, 미역이 지금 많이 고사되고 있죠?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그렇습니다.

○ 박성규 위원
적은 데는 20%, 30%지만 많이 고사된 곳은 70%, 80%가 고사되고 있어요.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 박성규 위원
도에서는 전수조사를 하고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데 우리 완도군에서는 전수조사나 지원 방법이 있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지금 저희들이 지금 파악해 본 바로는 지금 군내 쪽은 조금 아직 미미한 수준이고 지금 금당, 신지, 고금 경우에는 한 30에서 한 50% 정도 그다음에 그 나머지는 한 60에서 80%까지 지금 고사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 지금 전체적인 양으로 봐서는 한 16만 줄 정도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지금 도에다가도 일단 이 부분은 보고를 했거든요. 저희들이 보고를 하고 저희들도 지금 계속 지금 각 읍면별로 일단 피해 물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집계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어떤 차후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또 그리고 미역 포자 자체가 지금 없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현재 다시마밖

에 없는 입장이라서 그 부분은 조금 어민들하고 의견을 나눠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성규 위원

그거 안 해도 가격 하락 때문에 어민들이 힘든데 미역이 다 이렇게 폐사, 고사돼서 미역테도 없고 앞으로 다시마테를 사야 되는데 다시마테가 지금 품귀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가격이 배가 뛰어요. 그래서 우리 어민들이 힘들기 때문에 지원 방법이 있는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알겠습니다.

○ 박성규 위원

그리고 우리 감축 사업을 했죠, 시범적으로 작년에?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그렇습니다.

○ 박성규 위원

감축 사업을 했는데 그 작년에는 우리 도비나 군비는 얼마 얼마나 들었습니까?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지금 총 15억 정도 들었는데요. 지금 감축 사업 보상비, 감축 보상금은 군비로 했었고 나머지 해체 처리하고 폐기물 처리비는 지금 도비 지원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거는 3 대 7로 해서요, 지금 다른 시군에 했던 것까지 지금 다 가져와서 지금 그게 한 10억 정도 되고요. 우리 군비는 한 5억 조금 넘게 됐습니다.

○ 박성규 위원

그 도비는 얼마 안 되고 군비가 많이 들어갔잖아요, 사실.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감축 폐기물 아니, 저 가두리 폐업 지원금이 조금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있고 폐기물 처리도 폐기물 처리비를 조금 줄여보려고 저희들이 그것을 감정평가를 해서 공매를 내놨습니다. 공매를 내놨는데 한 7차까지 유찰되다 보니까 그러면 그러면 무상으로라도 이렇게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를 취해서 일부는 가져갔는데 그것도 지금 일부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또 안 가져간 것들은 지금 폐기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박성규 위원

우리 어민들한테 보상을 칸당 얼마 줬어요? 12만 원 줬습니까?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12만 원 줬습니다. 작년에 처음 얘기할 때 한 10만 원 정도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중고 가두리에 대한 가격 그런 조사를 조금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또 한 12만 원 정도가 적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이렇게 협의가 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 박성규 위원

어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장점과 단점을 있으면 한번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지금 가두리 전복 산업 자체가 지금 어렵다 보니까 지금 또 생산량이 늘어나고 어떻게 보면 가격도 안 좋고 그런 부분 때문에 다 어민들도 좀 줄여야 된다는 데는 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 줄여야 된다는 데는 동의를 하고 있지만 또 각자 개인적인 부분으로 생각하면 당장 어떻게 보면 손해나 이런 부분, 수입의 감소라든가 이런 부분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게 지금 줄이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 박성규 위원

또 감축 사업만 해서는 또 안 됩니다.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그렇습니다.

○ 박성규 위원
가공 제품이라든지 수출이 많이 늘어나야 합니다.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 박성규 위원
그렇게 해서 함께 감축해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내년에는 도비는 얼마나, 도에서는 몇 칸이나 감축할 계획입니까?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지금 아직 내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내시 되지는 않았는데 지금 앞전에 전라남도 도지사님이 감축, 전복 가두리 관련해서 그 계획을 수립해 놓은 것을 보면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들도 또 그 지역 국회의원님이나 아니면 저기 국회라든가 해수부 기재부 쪽을 지금 방문해서 지금 계속 감축 사업에 대한 당위성이라든가 꼭 해야 될 그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건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 박성규 위원
예. 우리가 완도가 거의 전복의 70% 이상을 생산하지 않습니까?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그렇습니다.
○ 박성규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해수부, 또 도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받아서 감축이 대체로 18% 이상 감축을 해야 가격이 형성이 된다고 봅니다.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 박성규 위원
그래서 한 3만 칸 정도를 감축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우리 해양수산부에서 많이 알고 있거든요. 도에서 많이 잘 알고 계시죠?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그렇습니다.
○ 박성규 위원
그래서 우리 완도군이 많이 전복을 생산하기 때문에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고요.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 박성규 위원
또 우리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그렇습니다.
○ 박성규 위원
그래서 1인 가구들을 위해서 또 가공식품 개발에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알겠습니다.
○ 박성규 위원
그리고 감사 자료에 보면 7월부터 공매를 실시했죠?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7월에 했습니다.
○ 박성규 위원
그런데 유찰됐죠?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 박성규 위원
그러면 무안업체에서 무상으로 수거해 갔어요.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그렇습니다.
○ 박성규 위원
어떻게 활용하려고 가져갔어요, 그 사람들은?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지금 그러니까 이게 폐플라스틱이다 보니까, PE다 보니까 이걸 재활용을 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가져갔는데 아마 그렇게 자기네들도 이렇게 해서 어떤 상업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아마 그런 부분이 잘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만 지금 가져가고 그 이후로는 지금 또 안 가져가고 있습니다.

○ 박성규 위원

예전에는 다 재활용했지 않습니까?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전에는 그렇습니다, 예.

○ 박성규 위원

PE 관도 다 재활용했고. 보도 같은 경우는 다 고철로도 팔고요.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지금 실질적으로 볼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거의 녹슬어서 사용하기가 지금 상당히 해체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태더라고요, 보니까요.

○ 박성규 위원

완도 지역 경제와 직결된 만큼 내년에는 꼭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 박성규 위원

그리고 작년에는 노화, 보길에 집중이 돼 있었죠?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시범적으로 노화, 보길이 조금 집산지다 보니까 그쪽으로 지금 했었습니다.

○ 박성규 위원

주력 산업이기 때문에 완도의 주력 산업입니다, 사실 전북 산업이 무너지지만 완도 경제도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습니다.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 박성규 위원

그래서 우리 완도군 전체에 골고루 감축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알겠습니다.

○ 박성규 위원

전복이 살아야 완도가 삽니다.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 박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궁희

박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호 위원

과장님, 방금 박성규 위원님이 질문을 했는데 미역 포자에 관련돼서 바다에 몇 번이나 나가 봤습니까?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지금 저희 저는 못 가고 팀장이 19일에 금일 충도 쪽 방문해서 지금 현장을 나갔다 왔습니다.

○ 조인호 위원

어민들 반응은 어떻던가요?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어민들 반응은 지금 아무래도 지금 포자 폐사가 되다 보니까 포자가 탈락되다 보니까 지금 걱정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전복 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 조인호 위원

지금 미역이 생기고 올해가 지금 최고 지금 상황이 안 좋거든요.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 조인호 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할 일을 내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 조인호 위원

지금 내년에도 이런 상황이 또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행정에서 오늘 올해 했던, 일어났던 수온과 같은 날짜하고 모니터를 해놨다가 내년에 이 상황이 오면 대체 어떻게 할 거냐고.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지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이게 한두 해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추석 지나고 나서부터 지금 어떻게 보면 미역 이렇게 시설 시기가 계속 지금 수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어민들이 이 시설을 하고 있어요. 수온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시설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그런데 어민들은 어차피 또 먹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것을 조금 더 늦출 수 있는 그런 조금 인식이 조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조인호 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행정에서 할 일이 지금 우리 가공종자협회가 형성돼 있죠?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그렇습니다.

○ 조인호 위원

그럼 1차에 미역을 꺼내지 말고 한 주 들어가 2차까지 할 수 있는 걸 그걸 중재 역할을 행정에서 해야, 그게 행정에서 할 일이지 전부 군수님도 예를 들어서 행정 수산 전문가도 하시고 전부 수산직들 아니에요?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 조인호 위원

그러면 과거에는 우리가 조기 때 탈락하고 없어지고 그랬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성장을 했다가 없어져 버리거든. 그러면 내년부터 일어나면 대책을 어떻게 할 거예요. 강구를 해야, 수산 박사들이 할 일이에요. 그런 거 안 하고 내년 되면 잊어버리다가 내년도 되면 또 바다에 몇 번 갔다가 보고하면 끝이고 의회 의원들이 물어보면 끝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알겠습니다. 지금 내년에 그 부분은 지금 저희 종자협회 쪽하고 얘기를 해서 포자를 조금 더 생산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 조인호 위원

그리고 행정에서 어민들도 중요시 여긴다면 미역테는 없어졌어요, 그럼 다시마밖에 없는데 다시마테를 어떻게 해서 보조라도 할 방법을 이렇게 하렵니다, 하고 대안을 줘야 하는데.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그런데 지금 바로 대안을 어느 정도 이렇게 문제가 어느 정도가 있고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한 다음에 그 부분은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조인호 위원

그러니까 어민들한테 항상 어민들이 요구해서 뭘 하려 하지 말고 이 상황이 일어났으면 다시마 종자도 이렇게 테가 더 폭등하겠구나. 이걸 감지해서 이런 부분을 대책으로 세우고 있다고 미리 한번 던져주고 하면 어민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런 행정을 펼치기 바랍니다.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 조인호 위원

그리고 우리 어촌계에 관련돼서 우리 보조 사

업 있잖아요. 부표 같은 거, 예를 들어서.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 조인호 위원

이거 지금 말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과거에도 우리 고금도에서도 뭐 일이 있었고.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 조인호 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 막아낼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어촌계장님들 올해 12월이면 다 끝나죠, 임기가?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그렇습니다.

○ 조인호 위원

내년 어촌계장들이나 마을 책임자들이 선정이 되는데 교육을 단단히 시켜서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잡아주십시오.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알겠습니다.

○ 조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궁희

조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정욱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 최정욱 위원

3페이지 화신산업 지금 아까 보고 들었는데 주주는 인수가 됐네요?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지금 주식 양수도 계약은 체결을 했습니다.

○ 최정욱 위원

그러니까 일단 주주는 우리 군으로 지금 인수가 완전히 된 거죠?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그렇습니다.

○ 최정욱 위원

그런데 이거를 회사에 등록을 해야 한다는 얘기인가요?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그렇습니다.

회사에서 주주 명부를 변경을 해야 됩니다.

○ 최정욱 위원

변경을 해야죠?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 최정욱 위원

그런데 어떤가요?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지금 화신산업에서 지금 회사를 지금 실질적으로 아마 지금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폐업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지금 그렇게 지금 계속 회피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군의 입장은 충분히 전달은 했습니다, 그 회사에다가. 그런데 말 안 들으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소송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 최정욱 위원

그게 우리가 주주가 주식이 우리가 몇 프로나 되는가요, 지금 화진산업에?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저희들이 24.97%입니다.

○ 최정욱 위원

그 주로 해서 우리 화신산업을 떼어낼 수는 없는가요, 우리 회계에서? 회사를 없앨 수는 없는가요?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저희들이 현재 지금 그러니까 그 회사의 주주

로 지금 등록이 돼 있으면 어떤 나머지 대주주라든가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그 회사의 주주로 지금 현재 등록이 돼 있지는 않는 상태입니다. 지금 전임 군수님으로부터 그 양수도 계약을 받아서 그 내용은 확보가 됐지만 정식적으로 화신산업에 완도군의 이름이 지금 들어가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 최정욱 위원

그런데 내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전임 군수한테 우리가 주주를 가 있어요. 그럼 개인이거든요, 김종식이.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 최정욱 위원

개인인데 우리 군에는 주주가 전혀 없는데 왜 화신산업이 우리 군에 출자 기관으로 남아 있는지 이게 지금 내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반드시 주가 있을 때 우리 주주 명부로 남아 있어야 맞거든요.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 최정욱 위원

출자 기관으로.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 최정욱 위원

그게 뭔가 지금 있는 것 같은데 말 못 한 거 있어요, 말 못 할?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 최정욱 위원

우리가 굳이 우리 군에서 갖고 있지 못할 명분을 왜 갖고 있냐는 거예요, 화신산업을.

주가 이미 개인 김종식이한테 넘어가 버렸는데 완도군 김종식이었으면 다른데.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그런데 실질적으로 처음에 3섹터 형식으로 해서 투자를 할 때 완도군비로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 최정욱 위원

그때는 군비.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그렇죠?

○ 최정욱 위원

예.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군비로 투자를 하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명의 자체를 완도군으로 해야 되는데 완도군으로 등록이 안 돼 있고 개인 명의로 등록이 돼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 최정욱 위원

법적으로도 그게 지금 할 수가 없다는 얘기네요?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 최정욱 위원

그러면 저쪽에서 지금 안 받은 이유가 뭐라고 하던가요? 지금 안 받을 이유가 없는데.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그런데 자기네들은 회사 운영상 폐업을 할 계획이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면서 지금 저희들이 주식 변경 주식 변경 요청을 했는데도 지금 안 받아주고 있어서 지금 계속 저희들이 이제 민사상으로 그 부분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최정욱 위원

언제 이게 됐어요?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 최정욱 위원

언제쯤 주식 양도받았었냐고.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지금 저희들이 4월.
○ 최정욱 위원
4월?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4월에 저기됐습니다.
○ 최정욱 위원
왜 지금까지 그걸 안 받아주면 바로 법적 조치하지 이게 명의상 재산인데 이거 무조건 하게 돼 있거든.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 최정욱 위원
왜 바로 하시지 안 되면 법으로.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늦어진 감은 있는데요.
○ 최정욱 위원
왜 늦어지냐고, 늦어질 이유가 없는데.
이제 알았으니까요.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 최정욱 위원
바로 이거는 재산이니까 바로 할 수밖에 없어. 지금 안 받아줄 수도 없고.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바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정욱 위원
그것이 법적으로 해야 된다면 바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알겠습니다.
○ 최정욱 위원
그리고 15페이지에 보면 수산 가공 히트 상품 개발비 지원이라 해서 올해도 보니까 한 여덟 군데, 7개 회사 지원을 했죠? 이 사업이 언제부터 했던가요, 몇 년도부터?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이것이 군수님 공약 사업으로 했습니다.
○ 최정욱 위원
몇 년도에?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22년부터 했습니다.
○ 최정욱 위원
22년도에?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 최정욱 위원
혹시 여기 지원을 해 줄 때 신규 말고 계속 반복 지원되는 데도 있는가요, 회사?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그러지는 않습니다. 아마 신규로만.
○ 최정욱 위원
다 신규인가요?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 최정욱 위원
그 자료 한번 빼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지원한 업체.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알겠습니다.
○ 최정욱 위원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잘해서 새로운 업체 또 지원해서 개발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맞겠죠?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 최정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궁희
최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선 위원
과장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 박재선 위원
수출물류센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수출이 많이 늘어났죠?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그렇습니다.
○ 박재선 위원
그런데 수출에 비례해서 금액은 안 늘어났어요. 여기 82페이지 보면 책자에. 전년도에 비례해서 지금 한 2배 정도 수출량은 늘어났거든요.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 박재선 위원
이상. 그런데 금액을 보면 비슷해요.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지금 가격 자체가 아무래도 전복 가격이 조금.
○ 박재선 위원
가격이 저렴해서 수출이 많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아니면,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아무래도 그런 영향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재선 위원
아니, 중국에서 지금 많이 들어가죠?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그렇습니다. 중국은 작은 전복들을 주로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재선 위원
지금 저희들이 언론에 보면 수출이 많이 된다 했고 중국의 전복하고 또 일본과의 관계가 안 좋아서 수출이 지금 한국에 수출이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아무래도 중국 쪽하고 지금 일본하고 관계는 안 좋은 것으로 저희도 뭐 뉴스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면 그렇게는 알고 있는데 산업적으로 아마 영향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선 위원
그런데 전국적으로 보면 전 세계적으로 수출은 계속 지금 중국뿐만이 아니고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단가는 굳이 이렇게 내릴 필요가 없는데.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지금 단가를 내리는 것은 아니고 이게 지금 국내에서 형성되는 단가다 보니까 지금 그 가격 자체를 누가 예를 들어서 이게 사람이 이렇게 물론 하는 것이지만 누가 올리자고 해서 올라가고 뭐 누가 내리자고 해서 내려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단가가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 박재선 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봄에는 과잉으로 생산하다 보니까 사이즈가 그렇고 또 물량이 많이 나와서 가격이 소폭 이렇게 하락이 돼요.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 박재선 위원
그리고 명절이 지나고 난 이후에 11월부터는 사실 가격대가 평상시에도 계속 올랐거든요.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 박재선 위원
그런데 유난히 올해는 전적으로 봄 때와 더

가격을 싸게 유통이 되고 있어요.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 박재선 위원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물론 저희 같은 경우 보면 아마 전복이 예전 같은 경우는 여름 고수온기를 거친다거나, 아니면 태풍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일정 어떻게 보면 폐사가 조금 많이 되다 보니까 그래도 생산량이 조금 이렇게 조금이라도 감소가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가격이 어느 정도 지지 기반을 갖출 수가 있었는데 지금 한 3년 계속 지금 태풍도 지금 없는 상태고 작년 올해도 마찬가지였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또 여름에 수온 같은 경우도 조금 상당히 낮은 편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생산량이 더 늘었지 않았나 그렇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가격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생산량이 많다 보면 가격 지지 기반을 무너뜨리니까 그래서 지금 가격도 계속 오르지 않고 그런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 박재선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는 그 평년 대비 물량은 어떻습니까?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지금 적은 물량은 이렇게 13미, 14미부터는 지금 현재 없는 상태고 지금 그 이하로 9에서 12미까지 그 정도까지는 지금 현재 아직도 지금 적재돼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박재선 위원

평년 우리가 보면 물량은 많이 나와도 거의 비슷한 양으로서의 수요는 될 거예요.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 박재선 위원

그렇죠?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 박재선 위원

물량은 많이 나오지만 어차피 바다에서 판매하지 못하고 있는 물건도 있을 거고 어차피 유통해서 가져가서 수출과 우리 군민들한테 수요는 거의 비슷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가격이 계속 이렇게 떨어질 이유가 없는데 그래서 더 하락을 해서 계속하다 보니까 수출하는 물량은 양은 많으나 실질적으로 금액은 아무리 이렇게 두 배가 늘어나면 뭐 한답니까? 금액은 똑같은데.

그렇죠?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 박재선 위원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알겠습니다.

○ 박재선 위원

그리고 우리 물류센터에 보면 조합원이 22명이 있어요.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 박재선 위원

그게 지금 운영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지금 운영은 수출물류협동조합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위탁 식으로 해서 하고 있고요. 21년도부터 해서 26년도까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저희들이 매출이라든가 아니면 수익성을 좀 봐봤는데 아직 그렇게 수출물류센터를 활용을 하는 그런 업체라든가 그런 부분이 아직 솔직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손실 나기도 했었고 지금 또 어쩔 때는 이 수수료 조금 감면을 지금 해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나마 손실이 조금 줄어들고 있는데 활성화가 좀 많이 돼야지 어느 정도 그래도 안정적인 운영이 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 박재선 위원

군에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우리가 수출물류센터에 해주고 있죠?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그렇습니다.

○ 박재선 위원

그렇죠? 수출물류센터에 계신 조합원님들께서 잘 운영을 잘해 주셔야 되고.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 박재선 위원

또 거기에 따른 우리 일반인들도 가서 사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그렇습니다.

○ 박재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습니까?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지금 일반인하고 쉽게 말하면 일반인이 아니고 조합원이나 비조합원에 대해서 수출물류센터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제한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수수료 부분에서 일정 부분 차이는 있기는 하거든요. 수조라든가 아니면 가공동, 아니면 냉동창고, 냉각수, 이런 정도에서 이렇게 조금 차이는 있지만 그 일반 비조합원이 못 쓴다, 아니면 조합원들만 써야 된다. 그런 저기는 아닙니다.

○ 박재선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게 된다면 특혜를 준다고 하겠죠?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 박재선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좀 더 홍보도 하고 일반 어민들도 수수료를 주더라도 같이 사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알겠습니다.

○ 박재선 위원

여기 또 보면 26년 초에 끝나죠?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26년 1월 26일까지 지금입니다, 기간은.

○ 박재선 위원

기간은 거기까지인데 그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또 어떻게 할 계획인지.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지금 저희들이 사용 수익 계약 허가로 했는데 지금 조례상으로는 연장은 할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그 수출협동조합에서 아마 어떻게 보면 또 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사용 수입 허가 자체는 조합에서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조례상 돼 있거든요.

○ 박재선 위원

그러면 이 조합에서 하지 않는다고 하면 다시 조합을 다시 만들어야 됩니까?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아니면 다른 조합이라도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 공고를 하게 되면 조합에서 저기를 해야죠, 쉽게 얘기하면 그 공고를 올리면 접수를 해서 저기를 해야죠.

○ 박재선 위원

기간이 지금 한 두 달 정도밖에 안 남았잖아요.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그렇습니다.

○ 박재선 위원

그래서 그러면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이렇게 책자 보고 감사 기간에 이렇게 보니까 하는데 그것도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지만 그쪽에서 계속한다면 모르겠지만.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지금 사전 조율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 박재선 위원

그러면 뭐 할 의향은 좀 있습니까?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지금 할 의향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 박재선 위원

이 수출물류센터가 처음부터 지어질 때부터 저희 과장님과 저희들이 처음부터 같이 했었죠?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 박재선 위원

예, 그래서 관심을 갖는 것이 이 수출물류센터는 개인한테 가면 안 된다. 끝까지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고 군에서 관심을 갖고 끝까지 해줘야 된다.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 박재선 위원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감사 기간에 잠깐 본 거예요.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 박재선 위원

그래서 일반 어민이면 누구든지 다 가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조합에서 운영하는 만큼 수수료는 있더라도 어민들이 피해 보면 안 된다, 저는 그게 걱정이긴 합니다.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 박재선 위원

이 수출물류센터 처음에 지을 때부터 지금까지 운영하는 데 애로사항이 지금까지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그렇습니다.

○ 박재선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관심 갖고 또 이렇게 지켜봐 주시고 그 수출물류센터가 더 많은 그 물류를 수출하고 또 이렇게 어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알겠습니다. 관심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선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궁희

박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영상 한 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세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요즘 이렇게 로봇 기반 자동 먹이 공급과 AI 질병 예측 시스템 등 스마트 양식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건 예측을 하고 있죠?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허궁희

현재 우리 군에서는 이런 시스템이 조금이라도 도움 된 곳이 있는가요?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지금 AI까지는 아직까지는 지금 보급은 안 돼

있는 상태고요. 어떤 수온이라든가 아니면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그런 부분 CCTV로 활용을 한다거나 그런 정도, 아직 보면 조금 초보적인 그런 데는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AI 기술까지 도입해서 지금 하고 있는 데는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허궁희

예, 앞으로 타 지자체와 우리 군이 차별화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스마트 양식과 AI 기반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행정에서는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맞습니다. 앞으로는 AI 시대가 아무래도 도입이 되고 지금 현재 또 AI가 최대 핫하고 그런 부분까지 도입이 되는 것이 양식 분야에서도 도입이 돼서 경제성이라든가 아니면 자동화라든가 이런 부분이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허궁희

예. 그리고 우리 어민들도 역량 개발을 위해서는 이런 첨단 시스템을 자주 보고 익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민 대상 스마트 양식 교육과 훈련,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도 시급하게 이렇게 운영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계획도 제대로 세워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궁희

그러면 혹시 이런 사업이 있다면 우리 완도군에서 정부 공모 사업에 참여를 할 계획이신지.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그렇죠.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궁희

적극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 위원장 허궁희

이런 부분도 선제적으로 잘 파악해서 우리 어민들과 관내 수산 기업들, 이렇게 협업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과장님 현재 우리 완도군은 양식 산업 전국 1위 군입니다. 그에 반해 디지털 기반 스마트 양식 도입 속도는 더딘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나 과장님께서 생각해 놓은 방안이 있으면 한번 마지막으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저희 군에서도 지금 뭐 스마트 양식이라든가, 아니면 자동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또 저희들이 또 지금 현재 총무과에서 지금 전복 AI 관련해서 청정 바다 양식 그것도 지금 하고 있고요. 시스템으로, 지금 전복 가두리에 그런 부분은 하고 있는데 지금 보편적으로 상용화가 지금 안 돼 있지만 그런 부분만큼은 또 저희들이 최대한 관심 갖고 AI, 스마트, 자동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국비 건의도 하고 해수부나 기재부나 지역 국회의원님한테 찾아가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궁희

예, 수산경영과장께서는 스마트 양식 사업을 시급히 추진해 주시고 향후 계획도 우리 의회에 변한 사항이 있으면 보고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궁희

이상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산경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산경영과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휴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서 팀장 소개 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 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휴양과

○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산림휴양과장 박은재입니다. 먼저 산림휴양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치유팀 김준영 팀장입니다. 산림경영팀 김형인 팀장입니다. 산림보호팀 김경곤 팀장입니다. 난대수목원지원팀 김성옥 팀장입니다. 이어서 산림휴양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완도타워 전시물 조치 등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조영식 위원님께서 개선 요청하신 완도타워 전시물 개선 조치 건입니다. 완도타워 전시물 개선 사항으로 경비행기 섬 투어의 잘못된 관광지 정보 수정과 영상체험관 프로그램 보완, 안내 표지판 오류 수정 등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하고 현재 해양치유관리공단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박병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완도만의 차별화된 조림사업 대책 마련에 따른 조치 건입니다. 완도는 황칠나무의 주산지로서 산림청과 전남도의 지원을 받아 매년 20ha 규모의 황칠특화림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연간 40ha 경제수 조림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군 대표 난대수종인 북가시와, 구실잣밤나무을 지속적으로 식재하여 다양한 수종으로 건강한 산림을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완도를 대표하는 독특한 수종으로 완도호랑가시나무를 식재해 대규모 경관숲으로 조성하겠으며, 완도에서만 볼 수 있는 산림 관광자원으로 가꾸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박병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규모 목재 문화 체험장 조성 사업 적극적 추진에 따른 조치 건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은 전남도로부터 26년도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타 지역 목재 문화 체험장과의 차별화된 전략으로 우리 군의 완도 황칠이라는 우수한 산림 자원을 활용한 목재 체험 콘텐츠 개발 운영을 통해 우리 군 고유의 전통문화로 계승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박재선 위원님께서 권고하신 소나무 재선충 추가 확산 방지 및 향후 예방 대책 수립에 따른 조치 건입니다. 관내 소나무 재선충 발생지에 대해서는 고사목 제거와 예방나무 주사 등 방제 작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인근 임야의 피해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선충 확산 차단과 조기 대응을 위해 예찰 활동과 방제 작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궁희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산림휴양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기 완도타워 환경관리에 대해서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완도타운은 완도군을 대표하는 관광 랜드마크죠?

○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예, 그렇습니다.

○ 지민 위원

혹시 올라가 보셨습니까?

○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예, 자주 가고 있습니다.

○ 지민 위원
일단 사진 한번 올려주세요. 우리 저기 처음 완도타워 만들면서 저기 옆에 올라갔던 오른쪽 부분에 벽화하고 저런 조형물들을 많이 그려놨어요.
○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예.
○ 지민 위원
지금 꽤 지금 오래됐죠?
○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예, 그렇습니다.
○ 지민 위원
혹시 지금까지 있으면서 새로 수정, 보완이라든지 이런 거 하셨을까요?
○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저희 과에 이관된 이후에는 아직까지 한 번도 이렇게 보완 작업한 적은 없습니다.
○ 지민 위원
예, 이렇게 쭉 올라가다 보니까 색상도 지금 이게 카메라로 찍은 화면이다 보니까 조금 진하게 저거는 진하고 이건 연한데 많이 색깔이 바랬거든요.
○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예, 그렇습니다.
○ 지민 위원
그리고 중간에 가다 보면 저렇게 약간 볼록하게 튀어나온 이렇게 동물 형상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깨져 있어서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도 주차장에서 차를 세워놓고 걸어서 올라가는 부분인데 눈에 많이 띄니까 그래서 한번 보수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지난번에도 군수님께서 한번 지적을 하셔서 저희들이 내년 추경 예산을 확보해서 이렇게 정비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지민 위원
내년 추경이요?
○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예.
○ 지민 위원
그 관리를 수시로 이렇게 정기 관리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이렇게 정기적으로 관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예, 알겠습니다.
○ 지민 위원
수리라는 게 대표하는 곳인데 또 이게 저 상태로 또 오래간다 하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대형 시설만 이렇게 관리하지 마시고 여기 지나가는 동선이라든지 조금 조그마한 것도 꼼꼼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예, 알겠습니다.
○ 지민 위원
그리고 우리 해변공원에 이렇게 쉼터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예.
○ 지민 위원
우리 정원 박람회 하면서 새로 만들었던 구간들이 있죠?
○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예.
○ 지민 위원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저렇게 흙 같은 것도 있고 자갈도 많이 깔아놓고 했어요. 그런데 저기가 약간 이렇게 비탈지거나 이렇게 조금 계단이 딱딱딱딱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약간 오르막이 있는데 저기로 올라가려면 흙이 많이 있는 곳은 저희가 많이 미끄러지잖아

요. 그렇죠? 그래서 저 미끄러지거나 저런 부분들이 다 의자나 벤치 만들어 놓은 부분들이 다 지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거를 조금 안 미끄러지게, 내려올 때도 미끄럽고 올라갈 때도 저 위로 딱 턱으로 올라가서 또 올라가야 되니까 많이 미끄럽고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싶거든요.

○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원래 지금 저 부분은 저희들이 정원페스티벌 행사를 할 때요. 초화를 식재했던 그 공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정된 탐방로를 이용하지 않고 이게 일반 주민들이 임의로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훼손이 된 상황인데요. 저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 Pre해조류박람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봄에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민 위원

저렇게 돼 있는 곳 지정돼서 올라갈 수 있는 곳이 있어요?

○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지금 저기 우회 탐방로가 있는데요. 이용하신 분들이 가로지르기 위해서 바로 다니다 보니까.

○ 지민 위원

그러니까 저게 가다 보면 일단 저렇게 공간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빙 돌아서 반대편에 지금 길이 올라가는 계단이 있다는 거죠?

○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예.

○ 지민 위원

그 올라가는 계단도 그렇고 이쪽도 그렇고 이렇게 흙들이 다 뿌려져 있어요.

그런데 딱 올라가는 입구라는 표지판이 또 없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도 마찬가지로 이게 가깝고 올라가기가 쉬우니까 그냥 올라가지 따로 입구를 찾아서 이렇게 간다고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입구 표지를, 표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약간 저렇게 미끄러진, 또 많이 사람들이 입구 정상적인 입구가 아니다 하더라도 많이 이용을 하니 조금 덜 미끄러지니까 저게 흙이고 또 아래까지 다 뿌려지고 그러니까 조금 다른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한번 고민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한 번 더 고민을 하고요. 초화를 식재할지 안 그러면 다른 방으로 이렇게 개설을 할지 그 부분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민 위원

예, 그렇게 고민 한번 해봐 주시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궁희

지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영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방금 또 이어서 완도타워 주변 시설물 정비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방송실 자료 화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보이십니까?

○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예.

○ 조영식 위원

완도타워에 올라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보시다시피 봉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기존 정원 관리도 잘 되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이 공사를 추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저희들 그 다도해 일출공원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2008년도에 준공된 이후에 이렇게 단 한 번도 리모델링 공사가 되지 않다 보니까 현재 관객에 맞는 트렌드가 이렇게 많이 부족하고요. 또 다양한 볼거리라든지 또 휴게 공

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매년 방문객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스카이워크 설치라든지 또 아름다운 섬 경관을 조망할 수 있도록 조경수 재배치 또는 뭐 잔디 광장을 통해서 이렇게 방문객이 오랜 시간 이렇게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조영식 위원

올해 끝나는 거죠?

○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예,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 조영식 위원

8년 동안 오래 걸렸어요.

○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예.

○ 조영식 위원

사업비는 얼마나 정도 투입돼 있습니까, 이게?

○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사업비는 당초에는 저희들이 국비 50억 원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추경에 이번에 5억 포함해서 총 55억입니다.

○ 조영식 위원

본 위원은 기존 정원 관리도 잘 되어 있어서 굳이 공사가 필요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기왕 공사를 시작했으니 멋진 공간으로 바뀌길 기대하겠습니다.

○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예, 잘 알겠습니다.

○ 조영식 위원

근처에 스카이워크 공사가 마무리됐습니까?

○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지금 현재 마무리는 된 상태입니다.

상태인데 지금 현재 사업 계획 변경이라든지 변경 고시 행정 절차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전남도에서 최종 승인이 나면 빠른 시일 내에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영식 위원

개장은 언제예요?

○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지금 행정 절차는 아마 한 내년 3월쯤 예상되는데요. 저희들이 스카이워크만큼은 부분 준공이 될 수 있게끔 전남도하고 협의를 해서 빠르게 개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조영식 위원

내년 해맞이 행사는 여기서 할 수 있을까요?

○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예, 가능합니다.

○ 조영식 위원

이곳이 개장되면 또 새해 해맞이를 맞기 위해 많은 관광객들이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궁희

조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병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제 저희 위원님들이 약산 해수온열치유실 운영과 관련해서 어제 방문을 했습니다. 준비하느라 고생들 하셨는데 지금 운영 주체는 그럼 산림과로 완전히 이관이 된 거죠?

○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예, 그렇습니다. 그 운영 주체는 저희들이 3월 6일 자로 이관이 됐고요. 단지 조건부 인수 사항이 해양치유 시설물에 대해서는 정상화 때까지는 해양치유담당관실에서 책임지고 하기로 돼 있습니다.

○ 박병수 위원

지금도 아직 그러면 완전한 이관은 안 됐는가요?

○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지금 현재 그 어느 정도 정비는 완료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12월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군비, 또 이번에 2,000만 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 작업이 마무리되면 저희들이 내년 1월부터 저희 과에서 정상 운영하게끔 할 계획입니다.
○ 박병수 위원
내년부터는 그럼 정상적으로 개방한다는 이 말씀이죠?
○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예, 그렇습니다.
○ 박병수 위원
지금 의회에 들어와서 지금 그 이야기를 몇 차례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상당히 많은 기간 동안 방치되고 있어요.
지금 보면.
○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예.
○ 박병수 위원
그럼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지금 현재 그 어느 정도 문제점은 다 해결됐는데요.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 해수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바다에서 그 인수관을 설치가 됐는데요. 이 지역이 높은 파도라든지 또 태풍에 취약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 문제만큼은 차후에라도 염지하수 개발로 전환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병수 위원
예, 방송실 사진 한번 올려주세요. 이것이 지난해에 제가 현장 갔을 때 좌측의 사진이고요. 지금 보안해 놓은 정비된 우측 사진이 이렇게 됐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그 태풍이나 이렇게 했을 때, 파도가 크게 쳤을 때 뭐 견뎌 나겠다고 생각하시는가요?
○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저희들도 그런 문제 때문에 염지하수 개발을 요구했는데요. 염지하수 개발을 하면 사업비가 과다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그 앙카로 이렇게 지금 현재는 보강 공사가 된 상태입니다.
○ 박병수 위원
지금 견고하니, 이거 철사 저거 견뎌나겠냐고, 저렇게 형식적으로 해서 줄로 묶어 놓고 밴딩해놨는데 저거 태풍 한 번 와 버리면 바로 날아가 버려요. 저렇게 하지 말고 완벽하니 이왕에 돈 들여 갖고 하면서 저기 저 굴착을 지하, 저기 저 해저에 전주를 바꾼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떤가요? 이렇게 철 이렇게 바위에다가 박아서 저걸 견딜 수가 없겠다고 나는 봐요.
○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일단 해양치유담당관에서 보강 정비를 했기 때문에요. 차후에 저희들이 한 번 더 연구를 통해서 완벽하게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병수 위원
완벽하게 보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물탱크를 설치했죠?
○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예.
○ 박병수 위원
그러면 어제 방문했을 때 생활용수가 부족할 수 있다는 그런 또 말씀이 계셨는데 거기에 따른 해결 방안은 있는가요?
○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지금 현재 상수도 용량이 부족하다 보니까요. 해수온열치유실에서 물을 사용하면 저희들 산림치유센터 물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계실 지하에다가 6톤가량 물탱크를 설

치해서 지금 현재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 박병수 위원

지금 현재 탱크 시설해 놓은 것 외에 하나 더 한다는 이 말씀이세요?

○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아니요, 지금 현재 설치를 했습니다.

○ 박병수 위원

그러면 이제 사용 가능한가요?

○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예.

○ 박병수 위원

아무튼 이용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대책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예.

○ 박병수 위원

그리고 지금 해수치료실 부근에 건물이 2동이 있던데 그거는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그것은?

○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그것은 현재 산림치유 프로그램장인데요. 그 치유숲길을 거닐면서 뭐 비가 온다든지, 또 안 그러면 폭염 그럴 경우에 실내에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 박병수 위원

아니, 치료실하고 같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같이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방완도 한번 마련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이는데.

○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그래서 저희들.....

○ 박병수 위원

거기 주민들이 편의점이나 이용객들에게 특산물 판매도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한번 주민들 소득과도 연계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한 번 더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병수 위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많은 예산을 들여서 오랫동안 방치되고 있었는데 내년에는 반드시 개방이 돼서 관광객들에게 이런 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박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궁희

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휴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감사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 활동을 종료하고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내일부터 2일간 감사 서류 검토한 후에 12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부서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산회)

○출석위원(8인)

허궁희	박성규	지 민
박재선	박병수	조인호
최정욱	조영식	

○출석공무원

가족행복과장	박미정
주민복지과장	추교훈
농업축산과장	이정국

해양정책과장	김현란
수산경영과장	방현수
산림휴양과장	박은재

○ **전문위원** : 박영민
○ **전문위원** : 전문희
○ **속 기 사** : 임은주

제334회 완도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12월 1일(월)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 환경수질관리과
   - 지역개발과
   - 건설과
   - 안전총괄과
   - 농업기술센터
   - 보건행정과

부의된 안건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 환경수질관리과
   - 지역개발과
   - 건설과
   - 안전총괄과
   - 농업기술센터
   - 보건행정과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허궁희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완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수감 대상은 환경수질

관리과, 지역개발과, 건설과, 안전총괄과, 농업기술센터, 보건행정과입니다. 그럼 먼저 환경수질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서 팀장 소개 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수질관리과**

○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안녕하십니까?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의 팀장 및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경석 기후변화대응팀장, 정진희 환경지도팀장, 김정근 생활환경팀장, 김창삼 상수도팀장, 김현웅 하수도팀장을 함께 소개합니다. 이어서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총 6건입니다. 먼저 허궁희 위원님께서 권고하신 야생동물 피해 예방 포획단 관리 철저입니다. 타 지자체에서 포획단의 총기 사용에 대한 정기 교육이 시행 중이나 그동안 완도군은 정기 교육 실적이 없어 연 1회 이상 정기 안전 교육을 의무화하고 경찰서와 협력하여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안전 교육을 요청한 내용으로 금번 11월 야생생물관리협회 및 완도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포획단 31명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추진하였으며 야광 밴드 같은 식별 장치 지급을 통해 동료 엽사 간 총기 사고를 예방하고 총기 안전 수칙 및 포획 활동 주의 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 앞으로 야생동물 피해 예방 포획단 운영과 관련 정기적인 안전 교육 실시 및 포획 활동 시 준수사항을 철저히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허궁희 위원님께서 권고하신 유해 동물 피해 보상 적극적 처리입니다. 유해 야생 동물로 인한 피해 보상의 소급 적용 가능 여부 및 대처 방안과 지원책 안내, 사슴의 유해 야생동물 지정 협의 조례 시행의 실효성 확보에 대한 내용입니다.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보상을 소급 적용할 경우 그 기준에 대한 타당성과 관련 증빙 서류 미흡 등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과수와 농작물별 생육 기간에 따른 피해율 적용 기준을 차등하게 배정할 필요성이 확인되어 26년 상반기까지 관련 조례 개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유해 야생동물 지정 관련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 끝에 금년 12월 꽃사슴의 유해 야생동물 추가 지정이 예정된 상황입니다. 앞으로 관련 조례 개정 및 홍보를 통해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보상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재선 위원께서 지적하신 전기 자동차 관련 예방 대책 수립입니다. 전기 자동차 충전기 이격거리가 근접해 큰 피해가 우려됨에 충분한 거리 유지와 소방서와 연계하여 이동식 수조, 방사 장치, 질식소화 덮개 구비 등의 개선과 선박 간 전기차 화재 진압에 대한 사전 대비 내용으로 안전총괄과와 해양정책과로부터 전기차 화재에 따른 소방 연계 및 여객선에 선적된 전기차 화재 진압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안전 점검 실시 계획을 제출받는 등 소방 시설 현황 및 장비를 점검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전기차 충전 시설 이용률이 높은 지역에 화재 진압 전용 소화기 및 소화기 함을 배부하여 충전 중 화재 발생 시 조기 진압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전기차 충전기 소화 시설 여부 등을 조사하여 소화기 보급 확산 및 지속적인 점검 관리를 통해 안전한 충전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병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완도군자원관리센터 운영 관리 개선입니다. 관리 이행 계획 수립 용역 이후 기존 BTO 방식과 정부 재정 방식, 사업 방식을 비교하여 적합한 방안을 선택하고 부족한 예산

충당을 위해 추가 재원 확보 방안 및 부지 협소 문제 해결 대책, 주민설명회를 통한 의견 반영 등 사업 추진 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관리 이행 계획 수립 용역 후 재원, 사업 추진 방식 등 종합 비교 검토한 결과 손익 공유형 민간투자 사업이 가장 적합하여 의회 보고 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망남리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망석리 주민 설명회도 곧 실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 반영을 통해 민원을 최소화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민 위원님께서 권고하신 쓰레기 불법 투기 근절 대책 마련입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단 운영 검토 및 상습 투기 지역에 이동식 카메라, 양심 거울, 가로등 부착 등으로 불법 투기에 대한 근절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쓰레기 무단 투기 감시 카메라 6개소, 분리수거 집하장 12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불법 투기 8건에 대해 과태료 총 272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하여 현수막 및 이장 회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 중에 있으며 실적이 우수한 읍면에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쓰레기 불법 투기 군민 신고 포상금 제도 등을 적극 검토하여 불법 투기 근절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성규 위원께서 지적하신 보길도 상수원 및 지하 저류조 관리 감독 철저입니다. 보길도 상수원 지역에서 낚시를 하는 경우가 있어 낚시를 금지토록 하고 지하 저류조를 수원지의 수위에 맞춰 관리 감독을 강화하길 바란다는 내용으로 24년 12월부터 25년 2월까지 관내에 있는 상수원 보호구역 출입 통제 표지판을 전수 조사하여 보길 부황제와, 금당 육산제, 생일 용출제에 있는 표지판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K-water 완도수도지사에 수원지 출입 통제 시설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저류 댐 가동 상황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부황제 수위에 맞춰 시설이 운영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시설 출입 및 운영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시설물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질과 소관 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궁희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환경수질관리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호 위원

과장님, 감사 자료에 없습니다만 군민 제보가 있어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지금 저희들이 처리는 약국이나 그다음에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에 수거 용기함에 보관하고 그다음에 보건의료원에서 그것을 수거해서 저희 자원관리센터에서 소각하고 있습니다.

○ 조인호 위원

우리 주민 대부분 일반 쓰레기는 버리지만 싱크대나 변기 배출, 재활용품 수거함 투기로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그렇게 지금 관리가 잘 안되고 있죠, 현재?

○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간 인식이 부족한 걸로.

○ 조인호 위원

의약품 성분은 토양과 지하수 그대로 남아 있어 수질을 오염시키고 결국 우리 식수와 먹거

리로 되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질문하게 된 이유는 우리가 의약품 이 관계를 정확히 해서 앞으로는 우리가 우리 주민들도 그렇고 약국, 보건소 모든 단체에서 이 부분을 신경을 써서 앞으로는 불용의약품이 절대 그 시기에, 한 달 동안 보관하는가요?

○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예. 일단 한 달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약간 수거함이 만져서 이렇게 가득, 가득 차면 보건의료원에서 수거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 조인호 위원

우리 군의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 조례가 신설돼 있는지 알고 계시죠?

○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예. 알고 있습니다.

○ 조인호 위원

관리 부서가 환경수질과인데 이 부분도 알고 있죠?

○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예. 저희들이 보건의료원과 협력해서 저희 과하고 협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조인호 위원

이 부분은 보건의료원과 협력해서 다시는 의회에서 이 질문을 안 하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인호 위원

그다음 한 가지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소화전 설치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 금일해수욕장 주변에 큰불이 한 번 났죠. 알고 계십니까?

○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예. 알고 있습니다.

○ 조인호 위원

방송 자료 한번 올려주십시오. 저녁에 화재가 발생해 해수욕장 지금 좌측 반대쪽입니다. 여기가 소화전이 없어서 그날 애를 먹었어요, 진화하는 데. 그래서 만약에 이 불이 해수욕장 소나무로 번져 있으면 지금 몇십 년 동안 키워놓은 것이 전부 유실될 뻔 그런 화재였어요. 이 부분에 혹시나 소화전을 설치할 그런 하려면 법적 제도가 좀 많이 다른가요?

○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법적 제도는 없고요. 저희들이 소방서와 협의를 해서 지금 소화전을 설치하고 있고 주로 소방서에서는 주거나 상업 밀집 지역을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조인호 위원

저도 화재 나고 현장을 가봤더니 현장 가니까 소화전이 없어서 소화전까지 가려면 한참 여기서 물 쓰고 하다 보니까 중간에 많이 타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참고하시고 다른 사진 하나 올려주세요. 이거는 우리 금일읍사무소 지금 앞입니다. 여기가 금일 소재지권인데 여기도 소화전이 없어요. 여기에 혹시 만일 화재를 대비해서 소화전을 미리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저희들이 소방서와 협의를 해서 조속히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조인호 위원

최대한 조속히 해서 주민들이 불안을 안 하게끔 조치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인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궁희

조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중앙시장 횡단보도 맞은편에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이 설치되어 있어요. 알고 계시죠?

○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예. 최근에 알고 있었습니다.

○ 지민 위원

사진 한 번 올려주세요. 지금 과장님, 보시기에 어떤가요? 최근에 아셨어요?

○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예. 죄송합니다. 최근에 인지했습니다.

○ 지민 위원

저희가 관광객도 많이 지나다니고 우리 또 제주도 배 타러 가려면 제일 차량 운행이 많은 곳이에요. 그리고 또 저기가 횡단보도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리고 버스 정류장도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우리 또 천연기념물로 등재가 되어 있는 바로 주도 정면이에요. 이걸 또 하트섬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저기 서 있으면 악취도 많이 나고 또 일단 미관상 보기에 지나다니는 차들이 다 볼 수 있잖아요, 열려 있어서. 그래서 이게 완도는 또 관광으로 해서 가고 있는데 관광 우리 지역의 이미지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저 수거함이 저기에 설치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수거함이 지금 설치된 이유를 자세히 모르겠지만 현재 중앙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인해서 약간 주민들이 그쪽으로 일단 임시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지민 위원

그래도 저거 임시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사전에 먼저 검토를 한번 해 봤어야 되지 않을까. 또 어차피 거기 현대화 사업이 진행이 되더라도 일단 버리러 오려면 길을 건너서 가야 되잖아요?

○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예.

○ 지민 위원

‘그런데 길을 건너서 저렇게 통행이 많은 꼭 저런 자리에다가 오픈형으로 해서 놓을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수거의 편의성도 중요하지만 최소한의 악취나 위생 문제를 고려를 해서 시설 보완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지금처럼 저렇게 쓰레기가 노출되는 보관소는 미관상으로도, 위생상으로도 부적절해 보이는데 이걸 밀폐형으로 이렇게 수거함으로 교체나 또 위치 재조정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이런 민원을 한 번 접했었는데 즉각적으로는 저희들 상인회 가서 주민들하고도 협의를 해서 중앙시장 완도 농협 옆에 주차장 부지에 쓰레기 집하장이 하나 있습니다. 일단은 그쪽으로 옮기고 그다음에 현대화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경제교통과 하고 지역개발과를 통해서 새로운 밀폐형 용기를 담아 쓰레기 집하장을 새로운 곳에 새롭게 신설을 하고자 하겠습니다.

○ 지민 위원

그러면 그 중간에 어떠한 장소가 되기 전에 그래도 여기 관리는 해야 되잖아요?

○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예. 즉각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민 위원

거기가 많이 지저분하고 이렇게 또 눈으로도 이게 막 지저분하고 벌레 같은 것도 보여요.

그러니까 그쪽에 세척도 잘해 주시고 이게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저희들이 해야 맞습니다.

○ 지민 위원

그러죠?

○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예.

○ 지민 위원

여기까지 잘해 주시고 여기가 또 완도항과 중앙시장과 맞닿은 완도 관문인데 관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지민 위원

그리고 다음 사진 1장 올려주세요. 저거 마을 쓰레기 집하장 아닙니까?

○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지민 위원

맞죠?

○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예.

○ 지민 위원

저거 보면 저기 앞에 문이 저거 뭐죠? 케이블타이로 잠겨 있어요. 그런데 안에는 또 쓰레기가 여러 가지 쓰레기들이 막 다 버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 앞에는 분리 안 된 쓰레기가 저렇게 막 널려 있어요. 왜 저래요? 마을에서 관리가 안 된 건가요? 왜 저거 또 문은 잠가놨을까요?

○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저게 어디 마을인지 정확히 모르는.

○ 지민 위원

저기가 비석거리 아래쪽에 보이는 삼천리자전거 옆에 못 가서쯤인가 그 골목 뒤에 일방로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쓰레기 집하장을 문을 잠가놨을까? 그리고 저 안의 쓰레기들은 뭐지? 그리고 왜 쓰레기가 저렇게 앞에 있지?' 그 생각이 들어서 한번 그쪽 주변이라든가 우리 쓰레기 집하장 분의 근처들을 한번 점검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지민 위원

지금 금방 같은 게 방금 같은 그런 집하장은 주민들이 쓰레기를 분리수거해서 잘 갖다 버리라고 한 거잖아요?

○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예. 맞습니다.

○ 지민 위원

그런데 문이 잠겨 있어서 그거 한번 확인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지민 위원

그리고 또 우리 아까 여기 자료에 보니까 불법 과태료 8건이 부과가 됐어요. 올해 건가요?

○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예. 그렇습니다.

○ 지민 위원

8건밖에 안 되나요? 한 쓰레기장에 쓰레기 집하장에 한 군데만 이렇게 잘 보아도 8건은 될 것 같더라고요. 아까 주민 제보 포상금 제도도 하신다고 하셨어요. 한 가지 물어보자면 우리 종이나 신문 같은 거는 쌓아서 묶어서 버리게끔 되어 있잖아요?

○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예.

○ 지민 위원

그런데 쓰레기가 다 종이 쓰레기가 찢어진 거

를 투명 봉투에 넣어서 버리는 거는 종이 재활용입니까, 아닙니까?

○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그것은 재활용이 될 수가 없죠. 쓰레기봉투에 다.

○ 지민 위원

일반 쓰레기봉투에 버려야 되죠?

○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예.

○ 지민 위원

그런데 그렇게 버려진 쓰레기들이 좀 많이 있어요. 투명 봉지에 이것도 종이니까 다 찢어진 종이라든지 또 그것만이 아니라 많이 분리수거가 안 돼 있는데 이러한 분리수거 단속을 열심히 하셔서 이렇게 과태료라든지 이런 거 부과들을 한 한 달 정도만이라도 열심히 부과를 하시면 우리 완도 소문이 나서 덜하지 않을까, 이거 조금씩 잡혀가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거 홍보라든지 이런 제대로 버리는 방법 등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 지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궁희

지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병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군외면 관내 지하수 고갈로 인한 주민 불편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관정 업무는 지금 주관부서, 총괄 부서는 어딘가요?

○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저희 환경수질관리과입니다.

○ 박병수 위원

맞죠?

○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예.

○ 박병수 위원

지금 보면 건설과도 관정 굴착 업무를 일부는 하고 있고 소형 관정은 농업축산과 또 환경수질과 이렇게 3개 부서에서 전부 다 나뉘어 있어요?

○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예.

○ 박병수 위원

그럼 전체적인 총괄은 인허가 사항입니까, 어찌합니까?

○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지하수 개발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총괄하고 있습니다.

○ 박병수 위원

지하수 개발 건은?

○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예.

○ 박병수 위원

그럼 우리 군 관내의 총지하수는 몇 개소나 되는 거 현황 파악된 거 있습니까?

○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전체적인 파악은 못 하고,

○ 박병수 위원

전체적인 건 모르는데.

○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저희 중형 관정 이상은 약 2,000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병수 위원

많죠?

○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예.

○ 박병수 위원

그러면 신학지구 관내에 있는 것은 몇 개나 지금 있을까요?

○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신학지구 중형 관정 같은 것이 한 열몇 개 있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 박병수 위원
수목원 아래쪽 신학지구, 용계, 초평, 대문 그 쪽 일대가 중형 관정이 완전히 벌집처럼 그렇게 있습니다. 그 아래쪽 마을 하단부에는 소형 관정을 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거든요. 시설 하우스 비파나 망고, 키위 또 지금 겨울 봄동이나 마늘 재배들을 하고 있는데 김 공장에서 그런 물을 다 빼가다 보니까 농사를 못 짓겠다고 해요. 오히려 다 고갈돼 버리니까 지을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신고 사항이라고 해도 현장을 체크를 하면서 해 주라는 대로 다 해줘 버리면 그건 어떻게 그 지하수가 바닥이 날 건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저희들도 지하수의 심각성은 지금 많이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각하다는 것을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규제할 그런 솔직히 여건은 힘듭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그다음에 이용 제한 같은 경우도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지하수가 많다 보니까 그걸 전부 다 조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직까지는 미흡합니다.
○ 박병수 위원
그러니까 농업용으로 쓴다는 것이 얼마나 쓰겠어요, 농업용으로 썼을 때는. 농사철에나 쓰고 겨울철에 또 한계가 있잖아요, 쓰는 양은. 방송실에 자료 한번 올려주세요. 지금 이건 중형 관정 호수거든요. 이건 용계 쪽에서 이 호수를 빼 왔는데 이 공장이 지어진 데는 한 3, 40년 소규모입니다. 아주 오래된 공장이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5개의 중형 관정에 물이 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 4, 5년 전에 대문리 마을의 하단 바닷가에는 대형 신축 가공 공장이 들어섰는데 하루에 1,000톤 이상을 쓴다고 그래요. 이와 별개로 또 많이 그렇게 대형 관정이나 중형 그런 데서 이렇게 뺏어 가고 있으니까 소형 관정이 바닥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점검을 해 보시고 농가들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저희들이 신학지구만큼이라도 저희들 내년도 예산을 반영을 해서 전수조사를 전체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용 제한에 할 수 있는 우리가 절차들을 새롭게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 박병수 위원
자료 한번 올려주세요. 과장님, 혹시 지하수법 알고 계신가요?
○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예.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 박병수 위원
지금 자료가 글씨가 작다 보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지하수법」 제7조 3항 1호입니다. “지하수 채취로 인하여 인근 지역의 수원의 고갈 또는 지반 침하를 가져올 우려가 있으면 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취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예.
○ 박병수 위원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보시고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지하수는 우리 군민의 공공 자산입니다. 이번 신학지구 사례처럼 농업용 관정을 농수산 가공용으로 사용하면서 농가에 피해는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피해가 없어야겠죠?

○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예. 그렇습니다.
○ 박병수 위원
특정인 몇 사람이 그렇게 물을 빼가서 여러 주민들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농민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 피해가 더 이상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예.
○ 박병수 위원
즉시 행정명령을 내리든지 또 현장 점검을 통해서 농업인들의 피해가 없도록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궁희
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정욱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이거 군민 제보 사항이라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헌 옷 수거나 가전제품 회수 관련돼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대부분 헌 옷은 쓰레기 규격 봉투에 보내서 지금 버리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동의하시나요, 우리 과장님?
○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지금 헌 옷은 헌 옷 수거함이 별도로 있습니다.
○ 최정욱 위원
그렇게 돼 있죠?
○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예. 그렇습니다.
○ 최정욱 위원
그런데 대부분 지금 가서 보면 차 있거나 해소가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죠, 수거함이 있더라도. 또 수거함이 잘 보이는 데가 있어야 되는데 잘 알지 못하고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그래서 군민들이 제보를 한 것 같은데 우리 보통 수거함이 지금 몇 군데나 돼 있는가요?
○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지금 완도읍에만 국한되어 있는데 한 36군데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 최정욱 위원
완도읍에만 36군데요?
○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예. 그렇습니다.
○ 최정욱 위원
그런데 그렇게 잘 보이지 않을까? 제가 봐도 그러는데 그거 한번 원래 이게 2회 주 수거하게 돼 있는가요?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지금 월 2회 수거하게끔 돼 있는데 수거 단체가 새마을부녀회거든요. 저희들이 부녀회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협조를 해서 좀 더 신속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한번 하겠습니다.
○ 최정욱 위원
오히려 예전에는 훨씬 활발스럽게 수거가 된 걸로 아는데 또 버릴 사람도 새마을회하고 연결해서 서로 버리고 그런 걸로 아는데 요즘에 그게 오히려 더 더딘 것 같거든요. 아마 그래서 이게 지금 주민 제보가 들어왔지 않았을까 이렇게 합니다. 아마 이거를 설치할 때 잘 보이는 데다 하거나 또 이걸 가전제품 같은 경우는 버릴 때 우리 마트에서 스티커를 해서 붙여서 보내죠? 버리고 있죠?
○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예. 그렇습니다.
○ 최정욱 위원
혹시 타 지자체는 공공 폐가전 무료 수거 앱

을 개발해서 하는 거 알고 계신가요?

○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이것도 저번에 지민 위원님께서 한번 제안을 해 주셔서 대형 가구하고 회의를 한번 했는데 저희들이 앱 개발을 개발사하고 협력을 했는데 지금 완도군 실정에는 맞지 않는다는 그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 최정욱 위원

어떤,

○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도서 지역도 있고 그다음에 앱을 쓰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연령층이 아니다 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저희들 개발을 못 했었거든요. 추진을 못 했었거든요.

○ 최정욱 위원

그럼 안 하실 건가요, 이거는?

○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 최정욱 위원

만약 이게 정말 우리 지역에 안 맞다 하면 수거함이나 이런 것들이 잘될 수 있도록 또 잘 보이는 데 이런 걸 잘해야 되지 않을까요?

○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저희들이 재검토하겠습니다.

○ 최정욱 위원

개발 앱 이것 한번 잘 검토해 주시고 아니라면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정욱 위원

그리고 지금 자원관리센터 주민설명회를 하고 있다 했어요.

○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예. 하고 있습니다.

○ 최정욱 위원

지금 망남리는 했다 했죠?

○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예.

○ 최정욱 위원

그런데 지금 망석리 쪽은 보니까 플래카드가 결사반대라고 붙어 있던 것 같던데?

○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예.

○ 최정욱 위원

보셨어요?

○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예. 봤습니다.

○ 최정욱 위원

우리 망남리는 어떻게 합의가 돼 가고 있는가요?

○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망남리는 12월 총회 때 저희 주민들하고 또 협의를 해서 저희들하고 같이 다시 한번 대화를 하게 하겠고요. 망석리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거부한다는 식으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근차근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최정욱 위원

정확하게 왜 그런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죠?

○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예.

○ 최정욱 위원

망석리 주민들이 왜 결사반대를 하는지 우리 행정에서는 그 정보를 빨리 파악을 해야죠.

○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정욱 위원

그렇게 해서 절충점을 잡아가면서 주민들 이렇게 간담회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

바로 간담회에 들어가면 부딪히게 되면 이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뭐라 해도 주민 합의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어떤 신규 사업을 할 때는.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 잘해서 오래 끌지 않게끔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최정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궁희

최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수질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수질관리과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서 팀장 소개 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 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

○ 지역개발과장 오현철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오현철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기 앞서 지역개발과 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지애 도시정비팀장, 송영상 섬발전팀장, 송윤희 어촌활력팀장, 이광율 어항개발팀장입니다. 다음은 1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조영식 위원님께서 권고하신 도시계획도로 관리 철저에 대한 조치 사항입니다. 관련 부서와 사전 협의 미흡으로 아스팔트 재시공에 따른 예산 낭비 근절을 권고하셨습니다. 조치 사항입니다. 2025년도 시행한 도시계획도로 재포장 공사는 노화 이목항 일원 도시계획도로 재포장 공사로서 사업비 1억 5,000만 원으로 관련 부서인 환경수질관리과, 건설과 등과 여타 시행 계획 및 공사 기간 등을 상호 협의를 거쳐 추후 중복 포장이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2025년 6월 22일 240m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로 포장 공사 시행 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하여 재포장에 의한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허궁희 위원님께서 주의 사항으로 말씀하신 권역 단위 거점 개발 사업 관리 철저에 대한 조치 사항입니다. 권역 단위 거점 개발 사업으로 추진했던 건물들의 개방 상태와 약산 유리 온실이 방치되어 있어 사용 목적 방안 마련을 권고하였습니다. 조치 사항입니다. 권역 단위 어촌 뉴딜 사업으로 추진한 건물 활용 실태 전수 조사를 11월 하였습니다. 20개소 중 17개소는 마을복지회관과 경로당, 어민 공동 작업장, 대합실 등 주민공동시설로 사용하고 있으며 일부 카페, 복합 공간이 있는 건물은 운영비 부담과 관리인 부재로 상시 개방을 하지 않는 상태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설물의 제 기능 유지를 위해 상하반기 정기 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물 활용 등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약산 권역 유리 온실은 실내 정원, 가든 카페, 체험 운영 시설로 정비하고자 하며 내부 공간을 활용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을 위해 수익 시설 가능한 공간으로 재조성하여 운영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쪽 최정욱 위원님께서 권고하신 완도항 중앙 방파제 관리 감독 강화에 대한 조치 사항입니다. 중앙 방파제 사업 완료 후 수질 악화에 대한 추가적인 정밀 평가 실시를 권고하셨으며 주민과의 소통 창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어촌계와 어선업자 간 중재자 역할을 강화하여 완도항 수질 및 해양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관리 구축을 권고하였습니다. 조치 사항입니다. 사후 환경 영향 조사 용역은 현재 전라남도에서 추진 중입니다. 사후 환경

관리 용역 추진 기간은 2021년 3월부터 2030년 3월까지이며 용역비는 22억 8,800만 원으로 신우엔지니어링에서 진행 중입니다. 해당 용역을 통하여 중앙 방파제로 인한 해수의 흐름, 유속 변화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쪽 최정욱 위원님께서 권고하신 어촌 뉴딜 300 사업 민원 사항 적극 대응에 대한 조치 사항입니다. 어촌 뉴딜 300 사업 중 소안 부상리 마을회관 민원과 유사한 민원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대해 권고하셨습니다. 조치 사항입니다. 민원 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보강토, 옹벽, 하수 배설 설치 등 조치를 하였으나 지속적으로 반복 민원을 제기하여 민원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물 준공 및 사용 허가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 추진 시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수시로 소통하여 민원 발생에 따른 사업 지연이 발생 않도록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박병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완도읍 시가지 도로 맨홀 정비 철저에 대한 조치 사항입니다. 도로 맨홀 정비 및 노면 포장 보수 미흡과 더불어 맨홀 정비 예산 증액으로 집중적 개선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조치 사항입니다. 우선 우체국과 수궁갈비 주변 맨홀 및 노면 침하부, 주마부는 6월 부분 포장 보수를 완료하여 차량 운행 및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였습니다. 추가로 2025년도 도시계획도로 시설 정비 실적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면 총 87건 보수 정비를 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차선 규제봉 193개, 무단횡단 중앙 분리대 802m, 보도블록 123평방미터, 도로 소파 보수 20개소, 차선 도색 78평방미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맨홀 정비는 콘크리트 맨홀 뚜껑 18개를 포함하여 총 27개를 교체하였고 보행 시 안전과 밀접한 우수로 뚜껑은 23개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2026년도 본예산에 미정비된 콘크리트 맨홀 뚜껑 69개와 여타 맨홀을 집중적으로 정비하고자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6쪽 박병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완도 북방파제의 신지 강독 물하태 조명 시설 개선에 대한 조치 사항입니다. 조명 시설의 잦은 고장으로 민원이 초래되는바 부품 교체 및 개보수 시행을 제안하셨습니다. 조치 사항입니다. 2025년 6월 10일부터 30일간 조명 시설 전수 조사 후 사업비 520만 원으로 타임스위치 보수 및 전선관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분기별 점검을 시행하여 이상 발견 시 즉시 보수하는 등 시설물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궁희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지역개발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재생 사업 관련 특화 음식 개발 교육 관련해서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중앙마을 도시재생 사업으로 특화 음식 개발 교육을 진행을 했었는데 이 사업에 대해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 지역개발과장 오현철

저희가 그 교육을 시행했던 것 중 도시재생 사업 관련해서 딸그락이라는 음식점을 지금 들어오게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역량 강화 소프트웨어 사업인 일환으로 저희가 음식 개발을 해서 이 센터가 준공이 되면 바로 입점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조를 확인하기 위해서 교육을 실시했었습니다.

○ 지민 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 지역개발과장 오현철
사업비는 전체 우리 소프트 회사 사업비가 총 지금 10억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음식점 개발하는 데 들어간 비용은 제가 구체적인 숫자는 다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 지민 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진행한 특화 음식이 한 열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 지역개발과장 오현철
예.

○ 지민 위원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오현철
대부분 저희 그쪽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대규모 어떤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 아니라 퓨전하고 관련된 우리 지역의 특산물을 활용해서 퓨전에 관련된 간단한 그런 음식들이 주였습니다.

○ 지민 위원
주민들 반응은 어때요?

○ 지역개발과장 오현철
그때 당시에는 제가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시행을 안 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분위기는 직접 여기에서 이렇게 전달드릴 수 있는 부분은 못 되는 것 같고요. 보고서를 보면 그래도 어떤 그런 부분들에 매우 만족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지민 위원
그럼 아직 음식점은 입점이 안 돼서 이게 판매라든가 그런 건 안 되고 있는 거네요?

○ 지역개발과장 오현철
그렇습니다. 저희가 센터가 준공이 되면 바로 입점해서 할 수 있도록 사전 어떤 정기 작업 차원이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지민 위원
이 개발이 또 사업비 투입해서 음식을 만들고 주민들이 음식을 해서 먹는 것에만 이렇게 국한이 돼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오현철
그래서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완도의 어떤 우수한 특산품을 홍보하고 이와 관련해서 지역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도 같이 병행 추진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지민 위원
이게 음식 교육 품평회가 3차까지 이루어졌어요?

○ 지역개발과장 오현철
예.

○ 지민 위원
주민들을 위한 소득 사업으로 판매가 되거나 추진한 실적은 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오현철
지금 어떤 하드웨어 그런 부분이 구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실적은 지금 없습니다.

○ 지민 위원
이게 소득 사업하고 이어져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이런 향후 계획은 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오현철
저희들이 센터가 준공이 되면 저희가 사전에 했던 그런 부분들이 그대로 현장에서 이렇게 바로 실행될 수 있도록, 뭐냐? 센터가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와 있는 그런 부분들에서는 다시 한번 그런 부분들을 교육이라든가 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지민 위원
여기에 특화 음식 개발 관련 교육과 관련해 향후 주민들을 위한 소득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추진 사항이 있으면 보고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오현철
예. 그렇게 공유하겠습니다.
○ 지민 위원
다음 질문인데요. 우리 원도심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2023년에도 지적한 사항이었어요. 자료 사진 한번 올려주세요. 저 건물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오죠. 과장님, 여기 지역개발과장님으로 오시자마자 저하고도 같이 가봤어요.
○ 지역개발과장 오현철
그렇죠. 예.
○ 지민 위원
그런데 이게 원래 처음에는 카페가 용도였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오현철
이게 카페인데 지금 운영 이런 부분들은 약간 미흡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을 저희도 위원님과 같이 그때 확인을 했었습니다.
○ 지민 위원
지금 관리는 그러면 누가 하고 있어요?
○ 지역개발과장 오현철
관리는 지금 현재 마을 자체에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그런 부분들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저거 어떻게 활성화시키는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한번 저희가 피드백을 나눠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지민 위원
저 건물이 지어진 지가 벌써 5년이 됐어요. 제가 작년 23년도에 가봤을 때도 벌써 바닥이 패여 있고 벽이 깨져 있고 저 뒤에 보시면 또 보기도 안 좋고 옆에 나무랑 이런 거 같이 보셨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이거를 사용을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이걸 좋게 잘 쓸 수 있을까라고 고민 한번 해 보셨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오현철
그런데 일단 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개보수 그다음에 접근성이라든가 이용을 활성화시키려면 아마 다른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금 현재 하드웨어 부분 중에 어떤 시설물 노후된 부분들은 저희가 내년 예산을 들여서 보수 정비를 하고 그다음에 저게 5년이 되다 보니 지금은 저걸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이 전문가 어떤 자문이라든가 필요하다면 이런 부분들도 선행을 해서 같이 고민을 해서 어차피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소득 창출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저희가 만들어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지민 위원
저도 지역에서 많은 어떠한 제보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비석거리 마을에 굉장히 이쁘게 됐었어요. 저희가 처음에 시행이 될 때 우리 완도에도 남해 동피랑 마을처럼 이러한 마을이 생긴다. 그런데 여기를 접근을 하기가 차로써 올라갔을 때는 비스듬한 데 거기 오르막길 있잖아요?
○ 지역개발과장 오현철
예.
○ 지민 위원
그쪽으로 올라가는 것과 걸어서 가려고 하면 대중병원을 거쳐서 이렇게 걸어서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그런데 대중병원 근처에는 공원으로서 지금 조성이 참 잘 돼 있죠. 그런데 거기 내천동 올라가는 길이랑 지금 비석거리 하고 중간 사이는 개발이 전혀 안 되어 있고 그냥 일반 주택가예요. 여기 비석거리 마을을 그렇게 예쁘게 조성을 해놨는데 거기를 같이 조성을 했으면 관광객들도 올라가는 길목에 예쁜 마을도 구경을 하고 또 지금 노란색이 예쁜 카페 용도의 건물도 요즘에 문화 마을,

체험 마을, 벽화 마을 이런 거해서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 가는 길목까지 이렇게 조성을 한다면 그리고 카페도 요즘에 무인 카페, 무인 체험실 이런 거 얼마든지 많잖아요.
인원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게 많은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변 환경하고 또 급하게 때려 부수고 막 이렇게 만들려고 한다는 것보다 일단 색깔 예쁘게 칠하고 이런 걸 같이 조성을 한다고 하면 '가는 길목들이 예뻐지지 않을까? 또 그리고 거기 비석거리 마을도 같이 사람들 좀 많이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여러 가지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오현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지민 위원

다음 사진 1장 올려주세요. 이것도 23년도에 제가 지적을 한 사항이고 여기가 완도의 관문이고 들어오면서 가장 먼저 눈에 비치는 모습이에요. 여기가 또 예쁘게 또 조성이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조성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 지금 빙그레 공원도 얼마 전에 예쁘게 다시 새로 조성 사업을 또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제안을 했을 때 저 까맣게 저렇게 돼 있는 게 물이 흐르고 있는 자국이거든요. 곰팡이가 굉장히 많이 피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 청소를 물청소를 한 번 해 주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제안을 드렸는데 '올해 완도 방문의 해고 그래서 청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장보고 수산물 축제하기 전에도 저랬었고 지금 거의 완도 방문의 해가 끝나가는 이 시점에도 얼마 전에 찍은 사진인데 저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잡풀이랑 저런 거를 이왕에 보여주는 거 예쁘게 관리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 지역개발과장 오현철

그 부분은 위원님, 저희가 내년에 바로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 지민 위원

바로 어차피 내년에 봄에 축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일찍 날씨 따뜻해지면 바로 부탁드립니다.

○ 지역개발과장 오현철

예.

○ 지민 위원

그리고 다음 사진 1장 보여주세요. 저거 우리 해변 공원 분수대에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왼쪽은 가로등 밑에 저기가 막 파손이 됐고 발이 들어갈 만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저 보도블록 길게 돼 있는 데가 이게 막 굴곡진 게 보이죠. 저기가 바로 오른쪽이 분수대거든요. 요즘에는 저게 항상 우리 지역 분들이 운동을 하시거나 하고 또 여름에는 아이들이 맨발로 뛰어다닐 수도 있고 하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분수대하고 보도블록하고 있는데 차이가 또 있어요. 이게 차근차근 이렇게 뭐라 하지? 편차가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내려 꺼져가는 그런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저걸 전체적으로 다 보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반듯하게 편차가 맞게 걸어 다니다 보면 발이 또 꺾일 수도 있고 아이들은 발이 벨 수도 있고 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봤거든요.

○ 지역개발과장 오현철

위원님, 저 부분은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바로 현장을 확인하고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 지민 위원

앞면도 그렇고 중간 부분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확인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오현철
예.
○ 지민 위원
그리고 다음 사진 한 번 더 올려주실래요? 저거 보신 적 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오현철
예.
○ 지민 위원
저도 봤어요. 저거 금강에서 완도 바다, 바다 수도 완도 이렇게 돼 있는데 엄청 오래된 것 같아요. 그래서 꺼진 것도 있고 되게 지저분해 보이는 것도 있고 하는데 켜진 거 몇 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없애든지 아니면 새로 산뜻한 걸로 바꿔주시든지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지역개발과장 오현철
조치하겠습니다.
○ 지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궁희
지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병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2024년도 12월에 용역 결과 나온 군외 원동항 관광 활성화 기본계획 용역 결과 나왔죠?
○ 지역개발과장 오현철
예.
○ 박병수 위원
진행 사항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오현철
저희가 저번에도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차적으로 먼저 선행해야 될 그런 부분들을 선정을 해서 지금 일단 경관 시설 이런 부분들을 먼저 선행을 하고요. 지금 현재 올해도 저희가 신청을 도비 공모 사업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그게 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일단 경관 관련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먼저 실행을 하고요.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고 어떤 시간을 더 두고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은 연차 계획을 세워서 차츰차츰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병수 위원
지금 연차 계획이라면 작년 말에 나왔죠?
○ 지역개발과장 오현철
예.
○ 박병수 위원
그럼 금년 1년이 갔어요. 그럼 또 내년이면 2026년인데 연차면 몇 년도에 시작한다는 얘기인가요?
○ 지역개발과장 오현철
그런 연차라는 건 연 단위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먼저 선행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 박병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경관 사업은 환경녹지과입니까? 산림녹, 환경녹지과인가요? 녹지과, 산림녹지과? 산림휴양과 거기서 지금 현재 도시 기후 숲 그걸로 해서 한 33억 원 투자한 걸로 돼 있고 그 외에 별도로 또 있는가요?
○ 지역개발과장 오현철
저희들은 저기 지금 현재 완도항 일원의 덱이라든가 경관 조명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하겠다고 전남도 공모 사업을 신청했었는데 안타깝게도 이게 이번에 선정이 안 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금 먼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내년에 선행하겠다.
○ 박병수 위원
내년도에 그럼 무슨 원동 소재지권 도시재생 사업이라든가 그런 뭔 공모 계획은 없는가요, 그러면?

○ 지역개발과장 오현철
내년에 저희들이 올해 안 된 그런 부분을 다시 재도전하겠습니다.
○ 박병수 위원
아무튼 그 부분을 재도전을 하고 꼭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왜 탈락된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소홀히 대처해서 그런 것인가. 그거 해놓고 그냥 놔두면 그게 될 수가 없잖아요. 관심을 가지고 전남도라든가 중앙부처라든가 정치권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동원을 해서 그 사업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지 이걸 얼마 되지도 않은 사업인 것 같은데 지난해, 금년인가요? 도에 공모 올린 것이 탈락됐다는 것이 말이 되겠어요? 아무튼 군외 도시재생 사업 지금 내년도에 초에 올릴 수는 없는가요?
○ 지역개발과장 오현철
저번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단 노화를 저희가 내년에 신청을 하고요.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저희가 한번 계획을 수립을 해서 위원님과 교감토록 하겠습니다.
○ 박병수 위원
지금 작년에 해서 한 번 탈락이 됐어요. 지금 현재 노화읍은 노소보 사업이 집중적으로 많이 투자가 되고 있어요. 그 지역 간에, 읍면 간에 형평성 있게 균형 있게 사업도 배정을 해서 선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쪽에만 집중적으로 하고 소외받고 그런 데는 그대로 놔둘 건가요?
○ 지역개발과장 오현철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노화읍 이런 부분들은 지금 2년을 준비를 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선행이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었고 그래서 연속성을 가지고 저희가 해야 될 것 같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군외 이런 부분들도 12개 읍면 저희가 복합적으로 관리해 가면서 먼저 해야 될 부분들을 선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병수 위원
지금 박지원 국회의원님께서 지난번에 한 두 차례 완도에 오셨을 때 광주-완도 고속도로 남창까지 된다. 남창은 북평면에서는 지금 그것을 먼저 하고 있는데 군외는 뭐 하고 있냐 할 정도예요. 그 정도로 완도가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런 걸 대비를 해 줘야지 한쪽에만 그렇게 쏟아붓고 한쪽은 이렇게 뭔 소홀하면 되겠어요?
○ 지역개발과장 오현철
아무튼 저희가 12개 읍면 촘촘하게 사업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박병수 위원
그럼 내년에도 올릴 수 없다는 얘기네요?
○ 지역개발과장 오현철
예. 말씀드렸듯이 내년에는 지금 현재 저희가 2년 동안 준비했기 때문에 이런 노화를 저희가 신청을 하고요. 그게 먼저 선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 박병수 위원
참 기가 막힙니다. 예? 왜 이렇게 소외를 시켜요?
○ 지역개발과장 오현철
아니,
○ 박병수 위원
완도의 관문이고 국립난대수목원이 조성이 된다고 하면 대비를 하라고 내가 의회 들어와서부터 처음에 해서 주문했던 것이 결과물이 이거입니다. 예? 지금 4년이 다 끝나가요. 지금. 이 정도로 행정에서 이렇게 관심을 갖지 않고 소홀하게 지역 간에 편견을 두면 되겠어요?
○ 지역개발과장 오현철
위원님, 관심을 갖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박병수 위원
아니, 관심을 갖는다는 게 뭐예요, 지금? 예?
○ 지역개발과장 오현철
아니……
○ 박병수 위원
단계적으로 갔다는 것이 내년에도 안 올린다 하면 언제 올릴 겁니까, 이것이? 내년에는 수목원이 지금 첫 삽을 뜨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제가 "종합 마스터 플랜을 준비를 해라." 그렇게 주문을 했던 것인데 지금까지도 이거 내년에도 안 올린다는 얘기, 그게 무슨 이야기예요, 지금?
○ 지역개발과장 오현철
아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원동항 활성화 대책 용역은 작년에 이루어진 그런 부분들이고요. 지금 현재 노화 재생 사업 저희가 신청하는 그런 부분들은 2년의 준비를 거쳐서 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행정의 어떤 연속성이라든가 이런 거 먼저 선행해 놓은 그런 부분들을 후임작을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실행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노화고요. 그다음 저희가 그런 부분 종합적으로 군외 원동항 이런 부분들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 박병수 위원
제가 처음에 그러니까 2022년도에 내가 의회에 들어와서 이것을 주문해서 결과물이 지금 나온 거라니까요. 예? 이렇게 이거 하나 하는데 오래 걸립니까? 예? 2,000만 용역비를 들여서 해놓은 것이 그것도 지금 한 가지 것도 된 것이 없잖아요?
○ 지역개발과장 오현철
저희가 액션을 취했는데 안타깝게도 올해 선정이 안 돼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도 그런 부분들 계획 용역 결과물을 가지고 다양하게 어떤 공모 사업 먼저 선행할 수 있는 부분부터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박병수 위원
아무튼 도시재생 사업이라든가 원동 개발에 관련된 사업을 어떤 건 가닥을, 어떤 부서에서, 부처에서 할 것인가 그걸 고민을 해보시고 내년에는 꼭 그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오현철
예.
○ 박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궁희
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군민 제보가 있어서 한 가지 전달드리겠습니다. 최근 방파제에 설치된 조명이 우성 아파트로 야간에 해서 강력하게 주민들이 잠을 못 자고 있다고 제안이 들어왔는데 과장님, 이와 관련된 민원 받은 적 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오현철
예. 저희도 받았습니다, 위원님.
○ 조인호 위원
어떻게 말을 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오현철
이게 저희가 그런 부분들 지금 전남도에서 추진하는 중앙 방파제 사업 일환으로 경관 조명 야간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요청해서 20억 사업으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거의 지금 사업이 마무리돼서 안타깝게도 엊그저께 그 업체에서 최종 점검을 하면서 부주의로 인해서 전원을 끄고 가야 되는데 그 부분들을 계속 켜 놓은 상태여서 아마 그게 계속 이렇게 작동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아직 인수인계는

받지 않았습니다만 추가 점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업체 측에 강력하게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했습니다.

○ 조인호 위원

그러면 첫날 민원이 발생한 날 그 후로는 지금 이런 일이 없네요, 지금?

○ 지역개발과장 오현철

예. 그렇습니다.

○ 조인호 위원

그러면 그 스위치가 자동인 건가?

○ 지역개발과장 오현철

지금 현재 우리 해조류 박람회 추진단 내에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건 아직 저희가 인수인계를 안 받았지만 원격으로 다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그런 과정에서 아마 작업자 실수로 전원을 꺼놓지 않아서 계속 작동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 조인호 위원

다시는 군민들한테 이렇게 또 이런 제보가 안 들어오게끔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오현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 조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궁희

조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영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시재생 사업 구 문화원 건물 활용 방안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구 문화원 건물은 도시재생 사업 일환으로 리모델링 사업했죠?

○ 지역개발과장 오현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 조영식 위원

이 건물의 관리 운영 주체가 어디십니까? 어느 부서입니까?

○ 지역개발과장 오현철

저희 지역개발과입니다.

○ 조영식 위원

지역개발과 맞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오현철

예.

○ 조영식 위원

그러면 도시재생 구 문화원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 당시 추진 배경, 기간, 사업비 등 추진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오현철

예. 저희가 구 문화원 활용한 플랫폼 사업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사업비 40억 원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공모하기 위해서 2020년부터 구 문화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최종안을 마련해서 저희가 신청서를 제출했었고 그와 관련해서 그 사업이 타당하다고 해서 국토부에서 인정을 해 줬습니다. 그 사업 내용이 주로 청소년 관련된 시설이 집중적으로 한 곳에 집중해서 관리 운영한다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건물을 다 준공을 하고 막상 입주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동안 쭉 협약이라든가 다양한 협의 이런 부분을 꾸준하게 진행해 왔던 부서에서 갑자기 저기 입주를 못 하겠다는 어떤 그런 사항이 발생해서 지금 현재 저런 관리 상태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

○ 조영식 위원

그러니까 접근성도 떨어지고 주차 공간도 협소해서 거의 주민 이용이 없는 상태에 맞는 거죠?

○ 지역개발과장 오현철

지금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아마 최대 약점인 것 같습니다.

○ 조영식 위원

그러면 현재 시설 입주 현황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오현철

지금 시설 입주는 1층 우리 도시재생센터가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2층에 드림스타트가 들어와 있습니다.

○ 조영식 위원

3층은요?

○ 지역개발과장 오현철

3층은 다목적 공간이기 때문에 그 건물에 들어와 있는 시설에서 이용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 조영식 위원

그러면 1층에 도시재생센터는 지금 무상으로 쓰고 있나요?

○ 지역개발과장 오현철

저희가 이 밑에 지금 현재 판매장이 준공이 되면 거기로 이사를 가고요. 그 기간 동안 임시적으로 쓰고 있는 그런.

○ 조영식 위원

판매장이 무슨 판매장을 말하는 겁니까?

○ 지역개발과장 오현철

여기 지역은 재생 사업으로 공동 판매장입니다.

○ 조영식 위원

판매장이 되면?

○ 지역개발과장 오현철

예. 그 후로 사무실이 마련됩니다.

○ 조영식 위원

그럼 언제까지 그리 되는데요?

○ 지역개발과장 오현철

지금 12월이 준공 목표인데요. 12월까지 준공을 하고 아마 이런저런 내부 어떤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되면 빨라야 한 2월 정도면 도시재생센터는 아마 그쪽으로 입주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 조영식 위원

그럼 지난 업무보고 시 1층 급식관리센터가 입주 추진은 돼 있는데 추진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 지역개발과장 오현철

저희가 입주를 한다고 하고 현장 실사까지 했습니다마는 저희 안타깝게도 시설의 그런 부분들이 완료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발견돼서 급식관리지원센터에 최종적으로 입주를 지금 미뤘고 이와 관련된, 확보된 예산 이런 부분들은 다 반납을 하고 현재 내년에 아마 재추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그동안 문제됐던 그런 시설을 예산을 투입을 해서 정비를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급식관리지원센터 입주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조영식 위원

지금 1년 가까이 지났어요, 준공하고?

○ 지역개발과장 오현철

예. 그렇습니다.

○ 조영식 위원

사업 기간으로 보면 2020년부터 24년까지 해서 지금 25년 12월 첫날입니다, 오늘이.

○ 지역개발과장 오현철

예. 그렇습니다.

○ 조영식 위원

그러면 거의 1년 가까이를 제 역할 쉽게 말해서 공모 절차 목적과 관련 없이 지금 목표,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공실로만 남아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1층에?

○ 지역개발과장 오현철

아닙니다. 저희가 처음에 공모 신청했었을 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관련 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그 시설로 하게끔 설계라든가 모든 걸 다 갖춰져 있었습니다.

○ 조영식 위원

아니, 애당초 청소년 관련 시설만 입주하게끔 해서 했다면서요?

○ 지역개발과장 오현철

예.

○ 조영식 위원

그런데 지금 청소년은 찾아볼 수 있습니까, 그 건물에?

○ 지역개발과장 오현철

아니, 그걸 제가 위원님께 설명을 드린 그런 부분들입니다. 저희가 그렇게 했는데 관련 부서에서 입주를 못 하겠다. 일방적으로 결정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현재 저런 공실이 돼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 공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 부서에서도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어떻게 저것을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 조영식 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지역개발과장 오신 지가 한 근 5개월 되셨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오현철

예. 7월 1일 자로 왔습니다.

○ 조영식 위원

기간이 많이 부족해서 그랬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전임 지역개발과장님께 인수인계받으면서 아, 이 부분이 미진하니 이게 잘 추진해 봐야 되겠다는 의욕과 이런 게 있었을 건데 지금 과장님 오시고 나서 5개월 동안 소식이 없다 보니까 전임하고 2025년도에는 거의 추진 과정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 지역개발과장 오현철

예.

○ 조영식 위원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아마 그러다 보면 26년도 또 내년 사무감사까지 이르지 않을까 싶어서 미리 건물이라는 거는 사람이 쓰고 활용을 해야 그쪽에 보면 바로 옆이 지금 관사 있죠?

○ 지역개발과장 오현철

예.

○ 조영식 위원

직원 관사?

○ 지역개발과장 오현철

예.

○ 조영식 위원

직원 관사는 혹시 관련 부서가 아니라서 세무회계과라서 한 번도 안 들어가 봤나요? 거기 보면 뒤가 산이 있고 해서 숲이 많습니다. 1층에 가보니까 우리 전 의회 위원님들과 직원들 가봐서 1층 이게 관사인지 아마 저같이 비염이 심한 사람은 들어갈 수도 없을 정도로 곰팡이는 아주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이 지나서 내년에 혹시 누가 또 어떤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건물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사용을 해야 서로 관리도 되고 하는데 1년이 지나서 지금까지 또 과장님이 7월 1일 자로 부임하셔서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니까 지금 사무감사 때 짚은 게 아니겠어요? 관심 좀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오현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영식 위원

청소년 관련해서 공모했을 당시에는 거기가 사실 또 도서관도 앞에 있지만 상당히 청소년이 쓰기는, 입주 청소년 시설물로 쓰기는 거기가 우범지대고 상당히 쓰기가 애초부터 방향을 잘못 잡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5

년인가요?

○ 지역개발과장 오현철

예. 그렇습니다.

○ 조영식 위원

과장님께서 이 건물 활용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하셨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오현철

예.

○ 조영식 위원

활용 계획은 수반하셨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오현철

저희가 활용 계획은 지금 목적 사업을 수행하는 그런 부분들을 베이스에 깔고 추진해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저희가, 뭡니까? 지금 평생교육 이런 부분도 소음이 없는 어떤 그런 강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하고도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보편적으로 보면 소음이 발생하는 악기라든가 막 이런 부분들 율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 관련 부서에서도 되게 난감해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공간들을 활용해서 그런 것을 쓸 수 있다면 저희가 부서들하고 꾸준하게 협의해서 단기간이라도 그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 조영식 위원

아니, 청소년 관련 시설로만 쓸 수 있다고 했는데 평생교육에 청소년하고 관련 있는 학습이 있나요?

○ 지역개발과장 오현철

3층 다목적실을 활용하는 그런 부분은 그렇습니다.

○ 조영식 위원

3층이요? 그러면 1층.

○ 지역개발과장 오현철

1층은 청소년 관련 시설이 들어와야만 그런 상담실 기능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 역시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조영식 위원

어차피 장기적인 시간을 갖고 여기 시설물 활용 방안에 대해서 논의해 봐야 되겠지만 평생학습 등 청소년 관련 시설물. 지금 말한 공모사업 추진 목적과 관련 없이 청소년 관련 시설이 아니더라도 입주할 수 있다면 제가 제안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오현철

말씀 주십시오.

○ 조영식 위원

제가 오늘 세 번째 3년 동안 안전총괄과에 관리하고 있는 CCTV 관제센터를 또 다녀왔습니다. 혹시 24시간 교대근무 체제로 운영되고 있지만 소음이나 공간 협소, 근무 환경이 열악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거 알죠? 혹시 관련 부서에 안 계셔서 잘 모르겠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오현철

그런 부분들은 세심하게 제가 이렇게 알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조영식 위원

구 문화원 건물은 전망도 좋고 충분한 공간과 시설도 좋아 주차 공간만 확보하면 건물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곳을 혹시 스마트관제센터를 이전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는 것이 어쩌겠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오현철

일차적으로 목적 사업하고는 부합하지 않는 그런 사항입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국토부하고 일시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협의를 충분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

다. 단, 관련 실과에서 그런 이전을 한다는 구체적인 어떤 그런 방안이라든가 확정되면 그걸 토대로 저희가 국토부하고 협의 한번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 조영식 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금 장기적입니다. 아주 중장기 4년 동안에 제가 봐서는 또 내년도 아까 걱정했죠, 과장님하고 저하고? 걱정을 해서 저도 4년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4년 동안 목적에 관계없이 아까 3층 다목적실만 무슨 평생학습이 들어와서 청소년들 평생학습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목적과 상관없이 무슨 소음 안 나는 그런 율동이라든가 미술이라든가 이런 평생교육을 하신다 하는데 그것도 엄밀히 따지면 도시재생 사업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 지역개발과장 오현철

3층은 주민들을 위한 다목적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건,

○ 조영식 위원

상관없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오현철

예.

그렇습니다.

○ 조영식 위원

그러면 3층은 1층, 2층, 2층도 드림스타트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 취약계층 아동이 1명도 없어요. 또 1층은 무상으로 지원센터 아직 1년이 걸려서 아직도 시설 입주가 안 돼 있고 아까 도시재생센터만 무상으로 또 쓰고 있는데 곧 이주한다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비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비어 있는 공간에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지금 제안을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CCTV 관제센터를 갔다 왔는데 아주 열악합니다. 변함이 하나 없어요. 그리고 법적 기준치를 부합하지도 않게 서버가 딱딱 붙어 있어서 또 근무자들께서 고충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지금 3년 동안 강진이나 진도나 이런 부분들은 46억, 50 얼마씩 해서 CCTV 관제센터를 따로 지었거든요. 3년 동안 변함이 없어서 다시 한번 119 구급 소방대 자리에 또 제안했다가 사회단체가 들어섬으로 해서 거기는 활용하지 못할 것 같고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런 제안을 드리니 심사숙고해 주시고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오현철

예.

○ 조영식 위원

완도는 부지 확보도 어렵고 건물 짓는 비용이 수십억 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도시재생 시설 활용과 예산 절감 효과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련 법도 검토해 보시고 안전총괄과에 협의도 해 보시고 또 본 위원에게 결과를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오현철

예. 알겠습니다.

○ 조영식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궁희

조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 위원장 허궁희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

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서 팀장 소개 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 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 건설과장 김진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진원입니다. 먼저 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황신우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최진우 도로시설팀장입니다. 김상균 도로시설팀장입니다. 김봉현 하천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건설과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완도군 상습 침수 구역 관리 체계 강화 등 3건입니다. 첫 번째, 허궁희 위원장님께서 개선 요구하신 완도군 상습 침수 구역 관리 체계 강화입니다. 완도군 관내 농경지와 해양치유센터 주변 진입로의 침수 피해가 반복되고 있어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개선 요구하셨습니다. 이와 관련 신지천 준설 사업에 8,0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으나 신지천, 신지면 월부리 소하천은 공사 추진 시 흙탕물의 인수 라인 유입으로 어류 폐사의 우려가 있어 공사 추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해양치유센터 주변 진입로의 상습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자 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올해 6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시설 보강을 통해 예방 체계를 확립하고 침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침수 구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허궁희 위원장님께서 개선 요구하신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관리 철저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와 운영 실태 점검을 당부하셨습니다. 올해 3월부터 약 3개월간 일제 점검 실시한 결과 청해진 권역 등 도농교류센터는 방치하지 않고 주민 활용 공간으로 이용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시설물 정비 등 지원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첫마을 권역 다슬기체험장 및 장류 사업은 전문가 자문을 통한 운영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특히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신 약산 권역과 다시마 권역은 시설 노후화 및 이용 수요 부족 등으로 운영이 중단된 도농교류센터 등은 용도 폐지 후 매각 또는 직원 관사 등의 활용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권역별 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한 활용 방안을 발굴해 사업 효과를 지속적으로 높여 가겠습니다. 세 번째, 조영식 위원님께서 권고하신 화흥포 간척지 경비행장 부지 활용 방안 마련입니다. 화흥포 간척지 경비행장 부지 활용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광 및 휴양 시설 등 다각적인 활용 방안 마련을 요청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올해 3월 완도 화흥 간척 잔여 부지 활용 방안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경비행장 부지의 종합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어서 8월에는 국유재산 매입을 위한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기획재정부와 협의 절차에 착수하였으며 현재 국유재산 처분 승인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유재산 처분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대상 부지를 매입하여 내년 1월부터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체육 시설 등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편익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최적의 활용 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단계별 추진 상황을 면밀히 관리하여 지역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부지 활용 모델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궁희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건설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호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군민 제보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의 각 지역 보행로 파손으로 잡초로 인해 보행 불편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완도군 전체 보행로 현황 전수 조사 자료가 혹시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진원

보행로 관련해서 저희들 전수 자료는 없고요.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 보호 구역하고 노인 보호 구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조인호 위원

최근 보행로 관련된 민원 발생 사항이 있어요?

○ 건설과장 김진원

일단 인도의 보도 침하나 안전 표지판, 안전시설물 이런 쪽으로 민원이 있어서 즉시 조치한 사항은 실적은 있습니다.

○ 조인호 위원

그럼 보행로 유지 보수 우선순위가 그런 것도 없겠네요, 아직?

○ 건설과장 김진원

아니요. 국토부에 보면 보도 설치 관리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선순위가 있는데 저희들은 우선순위 상관없이 민원 들어오면 바로바로 조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조인호 위원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사진처럼 잡초 관리나 이런 건 즉시 해결이 가능한데 반드시 행정에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과장 김진원

저런 부분은 지금 노인 일자리나 공공근로 사업으로 조치해야 될 사항이고요. 일단 관련 부서하고 하든 아니면 저희 과에서 하든 지금 현대 아파트 앞인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조인호 위원

보행로 점검 방식은 민원 발생할 때 대응하지 마시고요. 군에서 분기별로나 반기별로 점검을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건설과장 김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인호 위원

그리고 유지 보수 예산 수반 사항이니까 차례차례 반영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진원

알겠습니다.

○ 조인호 위원

타 지자체 보니까 전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파손이나 위치, 정비,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한글, 엑셀로 의존하지 마시고 보행로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정기적으로 이렇게 관리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방법이 있을까요?

○ 건설과장 김진원

일단 저희들이 도로대장 전산화 작업을 해서 저희들 군도 쪽은 관리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 보호 구역하고 노인 보호 구역 이쪽은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돼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다른 지자체 사례를 파악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점 검토하겠습니다.

○ 조인호 위원

읍면을 다니다 보면 보도 경계석이나 경사로, 점자 블록 등 보행자, 보행 약자 보호 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전수 조사하여 차례차례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인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궁희

조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병수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 건설과장 김진원

고맙습니다.

○ 박병수 위원

먼저 사진 자료 한번 올려주세요. 여기는 지금 군외수목원 올라가다 보면 농촌 마을 종합개발 사업으로 2014년도에 조성된 첫마을 권역 체험장입니다. 다슬기체험장인데 여기가 지금 영업을 문 닫은 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계속 문이 닫혀서 있어요. 지금 또 문이 닫혀 있고 나머지 다음 사진 한번 올려주세요. 카라반은 전부 다 유리창이 깨지거나 뭔 구조물이 전부 다 훼손돼서 사용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지금. 혹시 가보셨는가요?

○ 건설과장 김진원

예. 최근에 한번 가봤습니다.

○ 박병수 위원

그랬어요? 보면 안에 문은 잠겨 있어서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저런 상태에서는 안이 좋다고 해도 누가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 건설과장 김진원

예. 그렇습니다.

○ 박병수 위원

또 본 시설물은 체험장으로 처음에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식당 영업이 불가능하고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 건설과장 김진원

일단 저희들이 이쪽 농촌 마을 종합 개발 사업 지난번에 허궁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올해 3월부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실태 조사를 했었는데요. 지금 운영이 안 된, 예를 들어서 첫마을 권역으로 말씀드리면 도농교류센터는 농촌 체험 마을이라고 으뜸촌으로 지정돼서 판매나 체험, 숙박 이런 쪽하고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다슬기체험장은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 박병수 위원

그러니까 운영이 불가하죠, 이렇게 되면?

○ 건설과장 김진원

현재 상태에는 그렇습니다.

○ 박병수 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군 관리계획 변경을 하고 있는데 군 관리계획에 반영해서 또 영업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변경은 불가능한가요?

○ 건설과장 김진원

일단 관련 부서에서는 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용도 변경을 다각적인 방안을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 일단 저쪽 지역이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어서 현재 상태에서는 진흥구역을 해제를 해야 식당이나 이런 용도 변경이 가능한 실정입니다.

○ 박병수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그런 것을 저런 시설을 유치를 했을 때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저렇게 건물을 짓고 했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데 활용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더군

다나 많이 건물이 오랜 기간 동안 방치되고 활용을 안 하다 보니까 또 주민들이 흉물처럼 방치되고 하니까 상당히 미관을 해치고 있다. 또 주변에 물놀이 시설이 있어요.

○ 건설과장 김진원

예.

○ 박병수 위원

그러면 또 관광객들이 어린이를 데리고 와서 이용을 하고 불량 청소년들이 우범 지역으로 변질될까 우려스럽다는 그런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안 있으면 내년부터 국립난대수목원이 첫 삽을 뜬다고 하지요?

○ 건설과장 김진원

예. 그렇습니다.

○ 박병수 위원

또 도로변이 관문입니다, 수목원 들어간 진입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런 부분도 군에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 건설과장 김진원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이 현재 저희 시설은 보조금이 투입된 시설이지 않습니까? 일단 부동산 이쪽은 처분 기간이 10년이고 카라반 이쪽은 5년으로 지금 처분이 5년으로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게. 두 시설 다 10년이 넘었으니까 매각 처분도 가능하거든요. 일단 매각 처분보다는 내년 저희들이 용역을 준비 중에 있는데 내년 추경에 예산 용역비를 반영해서 다각적인 활용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 박병수 위원

지금 현재 관리 주체는 어디로 돼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진원

첫마을관광타운영농조합법인이라고 있거든요. 이쪽이 첫마을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운영위원회하고 협약 체결되어 있어서 그쪽에서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 박병수 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하고 그럼 저런 카라반 같은 것은 폐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안 되나요?

○ 건설과장 김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5년이 지났으니까 처분할 수는 있습니다.

○ 박병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민자본이 일부 한 20% 정도 투입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 건설과장 김진원

예.

○ 박병수 위원

그렇죠?

○ 건설과장 김진원

예. 8 대 2로 했습니다.

○ 박병수 위원

그 지분이 지금 군에서 8 민자 민간인들이 2입니까?

○ 건설과장 김진원

예.

○ 박병수 위원

그건 등기가 나 있는가요?

○ 건설과장 김진원

등기는 그렇게 나 있습니다.

○ 박병수 위원

등기, 지분 등기가 나 있어요?

○ 건설과장 김진원

예.

○ 박병수 위원

아무튼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 저렇게 방치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 방안을 찾아서 주변 미관도 개선되고 또 주민들이 소득과도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진원

그렇게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박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궁희

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시간도 있고 해서 제가 간략하게 질문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도로 관리에 대해서 몇 말씀만 질의하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한 내용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지금 대개 보면 국가 지원 도로 국지도가 이렇게 꺼져 있고 패여 있고 이런 도로들이 많이 있어요.

○ 건설과장 김진원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허궁희

이런 경우는 우리 건설과에서 이렇게 조사를 해서 건의를 합니까?

○ 건설과장 김진원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민원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저희들이 분기별로 반기별로 이렇게 점검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도로관리청이 도 도로안전관리사업소에다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허궁희

그런 부분을 한번 점검해서 연말 지나기 전에 이렇게 보수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더라고요. 여러 군데가 그렇게 지금 이렇게 신지에서 쭉 들어가다 보면 물하태 삼거리 못 가서도 쭉 꺼져서 차들이 많이 승용차들이 찍힌 저기가 있고,

○ 건설과장 김진원

예.

봤습니다.

○ 위원장 허궁희

안 도로 들어가서도 몇 군데 있고 그리고 그런 걸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궁금한 내용은 우리 통신 매설 뚜껑이랍니까?

○ 건설과장 김진원

맨홀 뚜껑 말씀,

○ 위원장 허궁희

예.

○ 건설과장 김진원

예.

○ 위원장 허궁희

그런 게 우리 도로 표면하고 원래는 안 맞아야 됩니까?

○ 건설과장 김진원

맞아야 맞습니다.

○ 위원장 허궁희

그렇죠?

○ 건설과장 김진원

예.

○ 위원장 허궁희

그러면 그게 움푹 들어가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 중앙선을 넘어서 운전한 그런 차량들이 많아요. ‘이런 것도 한번 재점검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시간도 있고 해서 이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한번 우리 군 자체에 이렇게 매설돼 있는 통신 뚜껑들이나 꺼져 있는 부분들을 점검해서 군민들이 피해 입지 않도록 한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진원

일단 첫 번째 위원장님 말씀하신 구간은 저희들이 실태를 파악해서 도로관리사업소에 건의해 놓은 상태고요. 일단 올 연말에는 아마 예산이 어려워서 내년 초에는 정비가 될 걸로 생각합니다. 맨홀 뚜껑에 대해서는 어차피 법정도로, 국도나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는 저희들이 담당하고요. 지역개발과는 도시계획도로 이쪽을 담당하니까 관련 부서하고 협의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궁희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궁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잠시 감사 자료 검토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허궁희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서 팀장 소개 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 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

○ 안전총괄과장 이홍용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홍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을 하고 있는 동료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전정책팀의 박상신 팀장과 지승준 주무관입니다. 중대재해팀의 정기호 팀장과 전현민 주무관입니다. 자연재해팀의 조성영 팀장과 도승환 주무관입니다. 사회재난팀의 윤소라 팀장과 황주관 주무관을 소개합니다. 저희 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CCTV 통합 관제 센터의 이전 및 관제 요원 전문화 대책 등 총 3건입니다. 먼저 1쪽 허궁희 위원장님께서 CCTV 통합 관제 센터 이전 및 관제 요원 전문화 대책 마련을 요청하셨습니다. 통합 관제 센터 이전 부분은 2021년도에 구 119 안전센터를 활용한 이전 계획으로 공모 사업을 신청하였으나 해당 공모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이전 추진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선 개선이 가능한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올 8월 관제 센터 고도화 사업 추진으로 영상 서버, 항온 항습기, 무정전 전원 장치, 관제용 컴퓨터, 모니터 등 장비 확충 개선을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관제 요원 전문화 대책 일환으로 2025년 2월 CCTV 관제 교육 센터에 의뢰하여 전문 강사를 초빙 특별 보호 및 인증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관제 요원 채용 시 영상정보관리사 자격증 소지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해 줄 것을 관련 부서인 행정지원과에 요청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국가 공인 영상정보관리사 시험에 관제 요원 25명 중 17명이 응시하였으나 합격자는 아쉽게도 없었으며 지속적인 자격증 취득을 하여 전문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신지 권역 해양 치유 센터 CCTV 신규 설치 등 방안 마련에 대한 관련 사항입니다. 우선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신 지역의 범죄 예방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25년도 사업을 반영하여 각 사업별로 다음과 같이 설치를 추진하였습니다. 상반기에 해양 치유 센터 입구와 신지면 신리 센텀하우스 삼거리 구간에 CCTV를 신규 설치하여 유동 인구와 교통량이 많은 곳으로 주민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신지 회전 교차로 구간에 CCTV를 설치하여 범죄 예방과 교통사고 예방을 강화하였습니다. 어린이 안전 예방을 위한 신지초

등학교와 신지중학교 구간에 어린이 보호 구역 CCTV를 설치하여 통학 시간대 어린이 안전 보호를 확보하였으며 아울러 장보고 대교에 CCTV를 신규 중간에 설치하여 안전거리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최정욱 위원님께서 집중 호우 시 침수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청하셨습니다. 지난해 7월과 9월 국지성 집중 호우로 인하여 주로 도로, 상가 및 주택에서 다수의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과에서는 침수 예방 대책을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상습 침수 구역 내에 모래주머니함을 설치하여 주민들이 응급 시 사용토록 하였으며 기상 특보 상황에 맞춰 보다 신속하고 빠른 침수 방지 시설을 위하여 이동식 물막이판 설치를 위해 설치 대행 계약 체결을 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배수로의 근본적인 배수 능력 개선 사업을 위해 사업비 8,000만원을 투입 우수관로 준설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유관 기관인 지역개발과는 우수관로 관리, 건설과는 하천 관리, 환경수질과는 군내 지구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 지역 침수 예방 사업 등 부서 간 종합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집중 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발생 반복되지 않도록 군민 생활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궁희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안전총괄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안전총괄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43페이지 스마트 마을 방송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스마트 마을 방송이 2019년도에 시작해서 현재까지 8년이 되었어요.그렇죠?

○ 안전총괄과장 이홍용

예.

○ 지민 위원

그런데 8년이 된 현재에도 매년 이렇게 가입률과 관련해서 또 질문을 하게 되는데 올해도 또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스마트 마을 방송 시스템 구축 사업을 보면 마을별 가입률이 좀 저조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안전총괄과장 이홍용

지금 저희 스마트 마을 방송을 가입률을 하려면 약 세 가지 정도 필수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각 개인들의 개인 정보 동의서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기존의 2G 폰은 사용이 불가하고 스마트폰으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장님들이 고령화되고 그래서 앱 사용을 해서 해야 하는데 여기에 따른 관심도도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지민 위원

요즘에 2G 폰 많이 쓰는 거 거의 없잖아요. 거의 다 스마트폰으로 다 바꿨던데.

○ 안전총괄과장 이홍용

그렇습니다.

○ 지민 위원

그렇죠?

○ 안전총괄과장 이홍용

예.

○ 지민 위원

그러니까 2G 폰 또 나이가 고령화가 됐다고 해서 요즘에 스마트폰 사용법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굉장히 많이 시켜요. 그리고 사용을 또 많이 하다 보니까 웬만한 거는 다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 안전총괄과장 이홍용

예.

○ 지민 위원

그렇죠? 그리고 작년 군정 질문 때 29%였는데 올해 38%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홍보를 보통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안전총괄과장 이홍용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을 인지를 하고요. 가입률 제고를 위해서 첫 번째는 읍면 이장님들의 관심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매년 수시로 교육 일정을 잡고 또 읍면 담당자들 교육 그리고 또 어르신들에 대한 노인 대학 개강식이랄지 지역 사회단체 행사랄지 또 그런 다각적인 방법을 지금 강구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2022년도에 최초였죠. 한 3%로 좀 저조하게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재 11월까지 한 39%는 앞으로 재고율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지민 위원

이게 요즘에는 지역 주민들을 만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지역 축제라든지 지역 행사라든지 이런 데 아니면 또 특히 이거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개인 정보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혹시 이러이러한 제도가 있으니, 이건 솔직히 이장님도 편하고 우리 지역 주민들도 편하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이홍용

그렇죠.

○ 지민 위원

우리가 어떠한 정책이 있었을 때 이거 못 들었다, 방송을 못 들었다 하는 것보다는 개별로 다 전화가 가고 또 방송이 계속 반복을 해서 나와서 들을 때까지 이게 계속 전화가 가잖아요. 그래서 두 분 다 편할 것 같은데. 또 제가 저번에 어느 이장님께서 핸드폰에 이거 어플을 까니까 핸드폰이 못 쓰게 되더라.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 달라고 했거든요. 그거 어떻게 됐는지.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이홍용

저희들이 3G망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KT에 의해서 3G망을 사용하고 있는데 KT에서 3G망으로 쉽게 말해서 단종이 됐습니다. LTE급으로 해서 지금 해야 하는데 지금 저희가 246개 마을인데 마을 개소당 한 150만 원 정도를 해서 업그레이드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또 지금 한 44개소 정도는 교체를 했는데 내년에도 연차적으로 계속 특히 도서 지역이랄지 섬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교체를 해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하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550번에 9100번으로 들어가는 문자하고 방송이 나가는 게 있는데 어르신들이나 일반 주민들이 보면 이게 보이스피싱으로 오해하는 소지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 자체를 550에 9100번으로 하지 않고 완도군 재난 마을 방송, 스마트 마을 방송 이런 문구를 통신료가 좀 부과가 됩니다마는 그것도 호환을 해서 문자가 떴을 때 모르는 번호는 안 받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재난 마을 방송이라는 문구를 앞에 띄우면 '이게 재난 마을 방송이구나.' 하는 것을 인식을 하는 그런 호환 효과도 해서 이런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지민 위원

그러면 아까 3G에서 LTE급으로 업그레이드를 안 해서 핸드폰이 못 쓰게 된다. 그럴 수도 있다는 건가요? 전혀 그건 상관이 없는 거죠? 옛날 3G였을 때도 어플을 깔아도 핸드폰에 별 지장은 없는 거고.

○ 안전총괄과장 이홍용
그렇습니다.
○ 지민 위원
지금 LTE로 됐으면 더 좋지 더 안 좋을 리는 없는 거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이홍용
그렇습니다.
다만 2G를 썼을 때는,
○ 지민 위원
2G는 조금 그런, 있을 수 있지만.
○ 안전총괄과장 이홍용
그렇습니다.
○ 지민 위원
그래서 이장님들이 일단 먼저 본인들이 먼저 해보고 깔고 또 자기 마을에 홍보도 열심히 해서 다 가입을 할 수 있게끔. 아파트 같은 데는 쉬워요. 아파트 관리실에 놓고 방송 한 번 해 주면 되니까.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 와서 또 개인 정보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서로한테 다 좋은 것이고 또 급한 일이 있거나 재난이 있을 시에는 더 필요한 거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이홍용
그렇습니다.
○ 지민 위원
그래서 담당과 직원분들이나 또 이장님들이나 읍면에 또 관계되시는 분들이 직접 다니시면서까지라도 사람들 많이 만나서 가입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행정 전화번호 550에 9100번. 우리 완도군에 사시는 분들이 550국을 아직도 보이스피싱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나요? 보통 550이라 하면 무조건 행정 전화라고 생각을 거의 안 하시나요?
○ 안전총괄과장 이홍용
고령 되시는 분들은 일단은 모르는 전화는 안 받는 그런 경향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이장님들이 휴대폰에다가 재난 마을 방송을 하면 9100번으로 나가는 것이 있고 재난 마을 방송에 앱이 있습니다. 이장님이 그 앱을 활용을 해서 본인이 문자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약간 이장님들보다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이장님들도 그걸 잘 활용을 잘 안 하고 단순하니 휴대폰으로만 방송을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내년 연초부터는 이장님이 또 바뀌신 이장님들도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연초부터는 공격적으로 스마트 마을 방송 시스템에 대한 홍보와 함께 가입률 제고에 최선의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민 위원
그리고 이장님들 일대일 교육을 꼭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홍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지민 위원
잘 쓰는지 안 쓰는지 확인까지도 꼭 해 주세요.
○ 안전총괄과장 이홍용
예.
○ 지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궁희
지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정욱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풍수 보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최근 행정사무감사 제보를 통해 완도군 풍수 재해 보험 지원 비율이 타 지자체에 비해 현저히 적어서

타 지자체처럼 확대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행안부 공개 자료를 보면 전남 다수 자치 단체의 평균 가입률보다 완도군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우리 군 풍수해 보험 가입 실적이 지금 어느 정도 되시는지 한번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홍용

지금 2024년도에 풍수해 보험은 저희들이 한 463건이고요. 올해 2025년도는 569건으로 해서 전년 대비해서는 약 30% 정도는 증가한 실정입니다. 아직 타 시군과 비교하면 충분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최정욱 위원

풍수해라고 하면 여기 답변서에도 보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 해일, 주택이나 온실, 비닐하우스 다 이렇게 포함된 건데 어떻게 보면 자연재해를 모든 게 속한다고 보죠?

○ 안전총괄과장 이홍용

그렇습니다.

○ 최정욱 위원

그런데 이렇게 가입률이 낮다는 것은 단순히 주민 선호 문제가 아니라 홍보라든지 지원 체계라든지 재정 지원 구조 등 행정적 요인이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은 하지 않으신지.

과장님 어떠세요?

○ 안전총괄과장 이홍용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물론 가입률이 낮은 이유는 주민들이 풍수해에 대한 선호도만이라고 설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것처럼 행정적인 요인도 일부 저희들은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까지는 홍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올해부터는 홍보 교육하고 교육 체계를 전면 개선을 해서 읍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이랄지 이장 회의를 통한 설명회 확대랄지 또 저희들이 재해 위험 지구가 지정이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경제 취약 계층에 대한 보험비를 지원을 상향한다든지 다각적인 방법으로 지금 전환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최정욱 위원

어쨌든 이 자연재해가 이상 기온으로 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예측 불허의 어떤 재난이 많이 올 거라고 생각하죠?

○ 안전총괄과장 이홍용

그렇습니다.

○ 최정욱 위원

그렇다면 뭐라 해도 이게 굉장히 우리 지역에 필요하지 않는가요?

○ 안전총괄과장 이홍용

예. 맞습니다.

○ 최정욱 위원

그렇다고 생각하죠?

○ 안전총괄과장 이홍용

예. 그렇습니다.

○ 최정욱 위원

뭔가가 실적이 저조하다고 보면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이 그건 파악하고 계시죠?

○ 안전총괄과장 이홍용

예. 그렇습니다.

○ 최정욱 위원

올해도 보면 2건밖에 지금 보상을 받지 못했네요.

○ 안전총괄과장 이홍용

예. 지급이 됐어요.

○ 최정욱 위원

홍수 보험 가입 실적이 저조한 이유로는 보험비가 비싸다고 보는데 비싸서 가입률이 낮다고도 생각하고 주민들 역시 가장 많이 호소한

부분이거든요.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 안전총괄과장 이홍용

아까 사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몇 가지 구조적 요인이 함께 작용하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풍수해 보험이 주요된 태풍, 호우, 대설 이런 종류인데 최근에 태풍이나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태풍이 전혀 오지를 않았고 또 큰 태풍이라고 2012년도 볼라벤 이후에는 조그마한 태풍이 있었지 큰 피해는 없는 것이 있었고 그래서 약간 군민들이 풍수해 보험이라는 체감 위험도가 좀 낮아지지 않았냐 하는 그것도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고 또 두 번째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보험료에 대한 저희들이 전복이랄지 여러 가지 보험 지원율이 있습니다마는 자부담에 대한 심리적인 저항이 있지 않나 이러한 부분이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을 홍보하고 이런 거는 당연한 것이고 군비 지원을 위해서 도비도 확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최정욱 위원

실제로 순천시나 여수 등을 보면 시비를 더 투입해서 최소 80%까지 지원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 안전총괄과장 이홍용

예. 알고 있습니다.

○ 최정욱 위원

알고 있죠? 우리 군은 55%가 맞죠?

○ 안전총괄과장 이홍용

그렇습니다.

○ 최정욱 위원

인근 순천이나 이런 게 지원하면 훨씬 방향이 우리 지원액이 작다고 보죠?

○ 안전총괄과장 이홍용

예.

○ 최정욱 위원

이런 거 보더라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재해재난 이런 거는 순천시보다 우리 같은 지역이 한번 크게 오면 제일 많이 다가오거든요.

그건 알고 계시죠?

○ 안전총괄과장 이홍용

예. 그렇습니다.

○ 최정욱 위원

그래서 아마 더 신경 써야 할 것이고. 지금 보험사를 통해서 개인 개별로 하는 거 있고 지자체를 통한 단체 가입도 있거든요.

○ 안전총괄과장 이홍용

그렇습니다.

○ 최정욱 위원

그렇죠?

○ 안전총괄과장 이홍용

예.

○ 최정욱 위원

우리는 지금 개별 가입인가요?

○ 안전총괄과장 이홍용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쉽게 표현드리자면 보험 상품별로 보고 있습니다. 보장 금액이 80% 보장되는 거, 70% 보장되는 거, 주택만 하는 것 그다음에 저희들이 온실 그다음에 소상공인들 이런 분야로 저희들이 지금 분야별로 해서 보장 금액에 따라서 개인별로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순천이나 여수 일부 지역에서는 한 80% 하고 저희들은 현재 55%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군비 부담률도 높이고 도비를 저희들이 확대를 지원해서 내년 연초부터는 저희들도 최대 80%까지 지원을 해 주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고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도비를 도에서 저희들이 신청

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비 확보하면 내년 추경 때부터 해서 소급분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최대한 80%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 최정욱 위원

과장님이 미리 아시고 준비하셔서 다행이고 특히나 우리가 재난이 태풍이나 이런 것들이 한참 안 와서 그러지만 한번 오면 아마 이상기온에 의해서 대기에 오지 않을까. 그때 가서 이런 피해를 이런 구조의 우리가 보험을 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이거거든요, 그런 큰 피해가 왔을 때. 그러니까 잘해서 풍수 보험이 단순한 보험 지원 정책이 아니라 완도군의 재난 사각지대를 없애는 필수 안전망이라고도 생각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시죠?

○ 안전총괄과장 이홍용

예. 동의합니다.

○ 최정욱 위원

꼭 그렇게 해서 도청과 해서 아니면 군비를 통해서라도 미리 우리가 재난을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또 언제 어느 때 우리가 불허 예측의 어떤 재난이 올지 모르니까 깊이 있게 하여튼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홍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정욱 위원

전국적으로도 국지성 호우, 태풍 피해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타 지자체는 보험 가입 확대를 재난 예산 절감 전략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방금 본 위원이 말하다시피 타 지자체도 이걸 미리미리 다들 예측 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적극적인 예산 검토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홍용

예. 알겠습니다.

○ 최정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궁희

최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영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작년에도 우리 허궁희 위원님께서 관제 센터에 대해서 또 사무 감사 때 질문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저도 이번에 CCTV 관제 센터에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 CCTV가 몇 대인가요?

○ 안전총괄과장 이홍용

저희들이 총 1,277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조영식 위원

본 위원이 2022년도 군정 질문했을 때는 1,079대로 약 3년 만에 200대가 증대됐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홍용

예. 그렇습니다.

○ 조영식 위원

군민의 안전을 위해 CCTV 관제 센터가 필요하죠?

○ 안전총괄과장 이홍용

예. 필요합니다.

○ 조영식 위원

현재 관제 요원은 정원 24명으로 6명씩 4조 3교대로 근무하고 있죠?

○ 안전총괄과장 이홍용

그렇습니다.

○ 조영식 위원

우리 군 CCTV 관제 센터 시설 환경은 어떤가요?

○ 안전총괄과장 이홍용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교육지원청에 290대

그리고 구 경찰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CCTV 해서 10년 전에 2015년부터 추진해서 2016년도에 완도군 스마트 관제 센터가 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버 노후화하고 시설 협소 이런 게 현실적으로는 열악한 그런 상황입니다.

○ 조영식 위원

열악하죠?

○ 안전총괄과장 이홍용

그렇습니다.

○ 조영식 위원

혹시 우리 군 CCTV 관제 센터 신축이나 이전 계획이 있나요?

○ 안전총괄과장 이홍용

저희들이 2021년도에 완도소방서가 결성이 되면서 구 119, 현재 119 완도소방서 자리하고 현재 완도소방서 자리를 부지를 교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지금 구 119 소방서 자리를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공모 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그놈을 리모델링해서 CCTV 관제 센터를 거기에도 이사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해당 공모 사업이 없어지고 예산이 저희들이 리모델링 사업 이설비 이렇게 전반적으로 예산이 그때 당시에 한 20억 가까이 규모가 크게 소요된다는 판단이 있었는데 예산 확보가 안 돼서 추진이 지금 지지부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조영식 위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계획은 아직은 없죠? 이전이나 신축 계획은? 우리 군.

○ 안전총괄과장 이홍용

예. 그렇습니다.

○ 조영식 위원

행정안전부 지자체 영상처리기기 통합 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기준에 따르면 관제 요원 1인 모니터 50대 기준으로 메인 서버 간 앞뒤 간격이 1.5m 옆 간격 50cm, 모니터와 서버 간 거리 2m 이상 되어야 하고 CCTV 600대 이상은 80~100평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 CCTV 1,270대를 운영 중에 있으며 약 50평으로 관제 센터 운영 기준 표준 평수 100평 이상 되어야 함에도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이홍용

예.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한 56평 정도로 돼 있고 해년마다 저희가 CCTV 수요는 많고 그러다 보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CCTV 대수는 늘어나고 행정안전부 기준에 못 미치는 것이 현실입니다.

○ 조영식 위원

현 관제 센터는 장소 협소로 인해 더 이상 서버와 모니터 등 장비가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인구 증가와 관계없이 군민의 편익과 안전을 위해 장비는 지속해서 증가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동의하시죠?

○ 안전총괄과장 이홍용

동의합니다.

○ 조영식 위원

관제 요원이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적극 검토하여 시행되도록 힘써 주시고 방범, 방제 활동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해지고 있는 시점에 군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관제 요원들에게도 근무 수칙 및 사생활 침해 시점 차단의 일환으로 직무 교육이나 서약서 등 철저히 지도 감독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홍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영식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궁희

조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우리 지민 위원님이 방금 질의를 했어요. 스마트 마을 방송.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더 질문드리렵니다. 지금 스마트폰 스마트 마을 방송을 하게 되면 어떤 지원이 있습니까? 우리 군에서. 행정에서.

○ 안전총괄과장 이홍용

마을입니까?

○ 위원장 허궁희

예.

○ 안전총괄과장 이홍용

마을에는 지원이 없고요. 저희들이 유지 보수를 하고 사용료는 저희들이 군에서 부담을 하고.

○ 위원장 허궁희

부담을 하죠?

○ 안전총괄과장 이홍용

그렇습니다.

○ 위원장 허궁희

그러면 그러지 않는 마을에는 어떤 보상이 없죠? 스마트 방송을 안 한 마을.

○ 안전총괄과장 이홍용

예.

○ 위원장 허궁희

그래서 일전에 우리 약산에 한 번 그런 예가 있었지 않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이홍용

예.

○ 위원장 허궁희

재래식 방송이었는데 고장이 났는데 선이 끊겼는지 원인을 못 찾았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런 수리를 하는 업자들이 많이 있어서 쉽게 수리가 가능했어요. 요즘은 마을 방송 수리나 위탁을 하는 이런 업체들이 없다 보니까 쉽게 수리를 못 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예산은 별도로 있는 건지. 없으면 확보를 해야 하지 않나.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지금 마을들이 마을 방송 외에는 전체 마을에 이렇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다든지 요즘은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재해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마을 방송이 제일 중요한데 그게 안 되게 되면 어쩝니까?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이홍용

지금 위원장님 스마트 마을 방송을 저희들이 유지 보수 업체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일정 금액을 주고 저희들이 유지 보수를 합니다. 그런데 물론 주장치 같은 전원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비를 세워서 예산을 해서 업그레이드를 하고요. 그다음에 공공 운영비랄지 회선 사용료랄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소규모 본체에 대한 거기에 대한 하자 보수랄지 선로가 뭐 할지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유지 보수 업체를 합니다. 그런데 대규모로 들어간 거 그 유지 보수 업체가 있는데 이게 저희가 244개 전체 마을이다 보니 이게 어느 정도 대규모로 할 때 이게 정보 통신 파트 행정에서 해서 저희들한테 과로 이관된 거라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도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예산을 어느 정도 유지 보수비는 있는데 시설 개선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소규모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규모로 했을 경우에 그게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은 개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허궁희

꼭 그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택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할 건데 안 된 마을들을 물었어요. “방송이 안 되면 어떻게 민원 해결합니까?” 하니까 “주변에다 전화를 해서 일일이 그렇게 해결을 했다.” 이런 애로 사항을 털어놓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스마트 마을 방송이 아닌 재래 방송을 하고 있는 지역 관리도 좀 해줘야 하겠더라. 그걸 이렇게 방법을 한번 찾아서 홍보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홍용

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수 조사를 한번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마을 방송의 혜택이 미치지 않는 마을이 있는지 또 거기에 대해서 유지 보수를 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는 정기적으로 해서 신설할 부분은 예산을 확보해서 신설할 부분은 더 추경하고 유지 보수를 하는 부분에서는 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궁희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홍용

예.

○ 위원장 허궁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서 팀장 소개 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 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최광윤

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최광윤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센터 담당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고영권 기술담당관입니다. 추성우 농촌지원팀장입니다. 최석찬 인력지원팀장입니다. 최준석 식량작물팀장입니다. 황근영 소득작물팀장입니다. 강경진 특화연구팀장입니다. 주홍무 기술개발팀장입니다. 계속해서 지난해 우리 센터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허궁희 위원님께서 시범 사업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항은 종결된 시범 사업에 대하여 사례를 분석하여 판로 안정화 및 실질적 지원 방안 강구가 필요하고 새로운 작목 전환 시 농가의 초기 투자 부담과 수익 안정화를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는 주문이었습니다. 이에 우리 센터에서는 농업인 연구회를 통한 의견 수렴을 강화하고 시범사업심의위원회에 농업인 대표 참여를 확대하는 등 지역 특성과 농업인 요구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기술 지원과 컨설팅을 통해 지속적인 농가 재배 안정화 강화에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양한 농업인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방안을 보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박병수 위원님께서 국화 전시회 조형물 설치와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항은 국화 전시회장에 설치된 조형물이 특정 종교의 상징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우리 센터에서는 금년에 특정 종교의 상징물 오해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우리 군을 상징하는 완도 타워 터널 아치 등 국화 조형물 18종 154점을 설치하여 군민은 물론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박성규 위원님께서 농기계 임대사업장 운영 관련 농민들 수요에 따른 농기계 관리 대수 조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항은 농민들 수요에 맞춰 임대 횟수에 비례하여 농기계 수급 조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센터에서는 농기계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농기계 구입 시 지역 수요에 따라 농기계 구입 배치하고 본소와 분소 간 조정 배치를 통하여 효율적인 농기계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성규 위원님께서 농기계 임대 사업장 홈페이지 개설 및 적극 활용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농기계 임대 사업장 홈페이지가 센터 홈페이지를 경유해야만 연결되는 불편함이 있고 활용 또한 미흡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홈페이지 접속은 네이버에서는 센터 홈페이지 서브 메뉴로만 연결되고 다음 포털에서는 직접 접속이 가능하여 농가에게 가급적 다음 포털을 이용하도록 안내하였으며 관리 업체를 통해 네이버에서도 직접 접속이 가능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업인에게 정확한 정보가 빠르게 제공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지민 위원님께서 농업인 교육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항은 매년 정형화된 교육이 아닌 농가 수요를 반영하고 연령대별로 청년 농업인의 특수 작목이나 창의적인 농업 분야 교육 개설이 요구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센터에서는 새해 농업인 실용 교육, 완도군 농업인 대학, 신규 농업인 기초 영농 기술 교육 등을 통해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신 농업 기술 및 가공 교육 위주 컨설팅 제공을 위해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의 육성을 독려하고 청년 4H 회원, 신규 농업인을 위한 현장 실습 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장 중심, 실습 중심 창의적인 농업 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궁희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증인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성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사업 및 예산 집행에 관련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내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있죠? 감사원 감사에도 집중 다룬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최광윤

예. 그렇습니다.

○ 박성규 위원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마는 또 의회의 역할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보조 사업 선정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가 연속적으로 선정된 사례가 있죠? 그리고 동일 세대, 동일 가족 또 친인척 연속 혹은 번갈아서 선정된 건이 여러 건이 있죠? 잘 알고 계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최광윤

예.

○ 박성규 위원

이 관련해서 과장님이 할 말씀이 있으면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최광윤

일부 언론을 통해서 우리 군민들이나 또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로 인해서 금년 한 해 동안 도 감사는 물론 감사원 감사 또 국무총리실 또 일부 사업의 특정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 중이기 때문에 여기서 상세히 설명은 좀 드리기가 뭐 하고요. 아무튼 일부 부분에 대해서 그런 오해의 소지는 있습니다마는 또 특정 작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중, 삼중으로 이렇게 한 부분은 없고요. 예를 들어서 비파를 하고 유자를 하고 작목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일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성규 위원
보조 사업 심의 과정 그리고 선정 사유 이유서에 대해서 서류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최광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박성규 위원
여기서 공개하기 힘들면 서류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노화읍 주민 한 분이 보조 사업 선정된 것 알고 계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최광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박성규 위원
그런데 본인이 원하는 물품을 가져가야 하는데 기술센터에서 맞지 않는 물품을 가져가라고 해서 사업 포기한 적이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최광윤
그 부분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박성규 위원
이 부분도 서류와 포기 이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최광윤
예. 제가 알기로는 본인이 자진해서 포기를 했고요. 저희들 5,000만 원 이상이면 입찰로 선정을 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행정 절차나 법적인 절차는 다 따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 박성규 위원
자기가 원하는,
○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최광윤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박성규 위원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물품을 구입해야 하는데 꼭 기술센터에서 이 물품을 구입하라니까 포기한 거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최광윤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박성규 위원
관련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요. 매년 실험실 예산 1억 원씩 씨감자 생산 관련에만 쓰인 사실이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최광윤
생산 관련해서가 아니라 금년 같은 경우에 시범 사업으로 해서 예전 같으면 우리가 벼농사를 하면 보리농사를 대출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벼농사만 하고 겨울철에는 논농사를 휴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우리가 겨울 감자를 생산하면 가능하지 않겠냐. 김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에 시범으로 저희들이 한번 하고자 지금 예산 편성을 하고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성규 위원
금년만 한 것이 아니고 매년 이렇게 1억씩 씨감자에 대해서 예산을 소요를 하고 있다는데 올해가 처음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최광윤
그건 우렁 종자 보급 사업을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 박성규 위원
이 부분도 실험실 또 인건비, 재료비, 운영비 등 항목별로 집행 내역을 연도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최광윤
예. 알겠습니다.
○ 박성규 위원
그리고 씨감자를 유독 고집했던 사유 또 구매해서 보고할 수도 있는데 왜 직접 생산 방식을 고집한 이유가 뭔지 또,
○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최광윤

위원님께서,

○ 박성규 위원

다른 품종과 비교한 효과 분석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최광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성규 위원

이 부분도 알고 있으면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최광윤

그 부분에 어떤 의도로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저 나름대로 해석을 하다 보면 생산비 보급하는 데 조금 가격 차이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일부 제가 여기 와서 그 내용을 잠시 들었습니다, 보고를 받고. 처음부터 우리가 시험 포장부터 해 나가면 우리가 예산이 조금 과대하게 집행이 되기 때문에 종포를 사다가 우리가 실험하는 그렇게 개선을 해 가고자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성규 위원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국화 축제 및 꽃묘 사업 예산 중 인건비 집행이 잘못되었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최광윤

잘못된 건 아니고요. 일부에서는 그렇습니다. 방금 씨감자 생산 시험포 운영 같은, 처음부터 국화를 생산하게 되면 인건비가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모종을 사서 우리가 여기서 육성을 하게 된다면 인건비가 좀 절감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함께 개선 방안을 의논을 하고 얘기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모종을 사서 육성을 하고 그러면 인건비가 한 3분의 1 정도 줄어들지 않겠냐. 그만큼 더 구입을 해서 더 화려하게 하면 관광객들에게도 또 볼거리가 더 확대되지 않겠냐. 그런 차원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박성규 위원

투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최광윤

예. 알겠습니다.

○ 박성규 위원

꽃묘 재배 방식이 비용 절감이 아니라 특정 인건비 확보 수단이라는 의혹이 있어요. 이 부분도.

○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최광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 박성규 위원

전혀 그렇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최광윤

예.

○ 박성규 위원

그리고 국화를 하우스에서 키운 것보다 사서 갖다 놓은 것이 비용이 덜 든다고 하는데 그러면 왜 하우스에서 키우고 있습니까? 비용은 덜 들고 인건비는 들고.

○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최광윤

일부는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시설이 조금 열악한 것은 현실적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성규 위원

하우스에다 키운 것은 우리 직원들이 키우고 하는 것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키운 거 아닙니까, 사실은?

○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최광윤

그건 아니고요. 그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우리가 사서 했을 때는 우리가 화분으로 벽걸이나 이런 부분들 도로변에 설치한 부분

들은 충분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현재 금년 국화 전시회장같이 조형물을 만들고 완도 타워 조형물을 만들어서 그놈을 엮어 가려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키워가면서 수형을 잡아가야 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구입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성규 위원

이와 관련해서도 5년간 인건비 집행 내역과 실제 고용된 인원, 근무 기록 일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최광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궁희

박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정욱 위원

소장님, 농기계 임대 사업장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완도군에 운영하는 농기계 임대 사업소는 세 군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최광윤

예. 그렇습니다.

○ 최정욱 위원

본점, 고금, 노화. 맞죠?

○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최광윤

예.

○ 최정욱 위원

여기에 보통 지금 관리하는 농기계는 몇 대 정도 되죠?

○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최광윤

지금 제가 알기로는 43종에 한 300여 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정욱 위원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최광윤

예.

○ 최정욱 위원

여기에 지금 완도 본점에는 몇 명, 고금은 몇 명, 노화는 몇 명씩 이렇게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최광윤

지금 완도읍이 정식 지도사 한 분하고 공무직 한 분 계시고요. 고금이 기간제만 있다가 금년 10월에 공무직으로 전환해서 기간제 2명 그렇게. 노화읍은 공무직 2명에서 한 분이 지금 휴직 중에 있어서 한 분 그래서 총 다섯 분이 근무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박성규 위원

지금 고금도도 지금 공무직으로 전환됐는가요? 기간제,

○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최광윤

예. 10월에 됐습니다.

○ 박성규 위원

그랬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최광윤

예.

○ 박성규 위원

2명 중에 수리는 어떤 분이 하죠? 농가로 다니면서 수리 한 번씩 하죠?

○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최광윤

그 부분은 별도 또 인원이 있습니다.

○ 박성규 위원

별도 인원이 사무실 어디서 오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최광윤

아닙니다. 교관이 한 분 계시고요.

수리 보조로 기간제 한 분이 같이 해서 두 분이 연중 계속 마을을 순회하면서 일반 농업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를 고쳐주고 하는 그런 업무입니다.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 박성규 위원

그럼 그 인원 어디서 근무하는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최광윤

우리 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 박성규 위원

센터에서?

○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최광윤

예.

○ 박성규 위원

센터보다 여기 가 있는 게 안 나은가요? 임대 사업소에?

○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최광윤

우리 센터 소속인데요. 임대 사업장에 사무실 같이 쓰고 공용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 박성규 위원

본점에 4명이 있네요, 그러니까 그 팀하고 하면? 그 인원하고 같이,

○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최광윤

거기서 상주하고 근무하는 데는 네 분이고요. 두 분은 거의 출장을 읍면으로 다니다 보니 두 분만 상주해서 임대 사업장을 관리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 박성규 위원

관리만 다르다는 얘기네요. 소속이.

○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최광윤

예. 읍면 출장을 안 가게 되면 같이 서로 지원도 해 주고 같이 업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 박성규 위원

잘해서 아마 그전에 거기를 임대 사업장 본점도 2명도 부족하다 해서 그때 인원을 1명 추가했던가요? 그랬을 겁니다, 그게. 그런데 지금 인원 부족한 그런 문의는 없는가요? 그때도 부족하다는 말이 많이 나왔었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최광윤

위원님께서 줄곧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됐고 또 줄곧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 와서 그 부분을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저 나름대로. 예전 속기록을 또 찾아보고 하니까 의회에서도 농기계 배달 서비스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기록도 있고요. 해서 그걸 한번 추진을 하려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듯이 인원 부분 그런 부분들이 다소 애로 사항이 있어서 현재 행정지원과하고 그 부분을 농업이 더 취약하기 전에 이런 부분부터 우리가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하지 않겠냐 해서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소한 3명 이상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성규 위원

그리고 타 지자체는 지금 임대를 현장까지 가서 주고 싣고 오는 걸로 또 많이 하고 있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최광윤

저도 거기에 대해서 적극 추진할 의향이 있습니다.

○ 박성규 위원

우리 군은 왜 그러냐 하면 대농가가 아니라 소농가예요, 다들. 소농가에 나이들이 다 연령층이 높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위험도 따르고 또 그렇게 직접 와서 빌려 가는 빈도가 쉽지도 않고. 그래서 타 지자체도 아마 그렇게 지금 흘러가는 게 많이 있거든요. 지금 직접 배달하고 직접 가져오고. 사고 그런 일 때문에도. 우리도 이제는 우리 기술센터가 그런 일의 본연이거든요. 그런 걸 해서 농가들이 어떻게 하면 농사짓는 데 불편한가 이런 거 하는 일에 좀 더 열심히 해줘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최광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박성규 위원

그리고 또 그런 거 한번 잘 검토해 주시고 농

가들을 위해서 필요한 인원은 꼭 행정과 해서 잘하시기 바랍니다. 인원이 부족하면 아무래도 서비스가 그만큼 뒤처진다는 얘기예요. 예전에 보면 2명 하니까 1명 어디로 가거나 1명 있다가 뭔 일에 다른 사람 만나고 사람이 없어서 그냥 돌아온 길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걸 봤기 때문에 그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최광윤

알겠습니다.

○ 박성규 위원

잘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최광윤

예.

○ 박성규 위원

그리고 농민들이 사용한 농기계는 어떻게 세척하고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최광윤

저희들이 농업인 분들이 임대하고 가서 사용을 하고 사용을 하게 되면 논에서 했다고 하면 흙 같은 이런 먼지들이 묻을 겁니다. 그러면 1차 거기서 세척은 아니지만 일단 흙 같은 거 먼지 좀 털고 센터로 오게 되면 센터에 세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좀 더러운 부분들 또 수리 어디 고장 났는가 이런 부분들을 세척하면서 거기서 최종적으로는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 박성규 위원

센터에서 주로 세척하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최광윤

예.

○ 박성규 위원

전남 도내 임대 사업장 절반 이상이 세척장과 오폐수 처리 시설을 갖추지 않아 행정이 사실상 환경을 방치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많이 있는 거 아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최광윤

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 박성규 위원

우리 군은 지금 몇 개의 세척장하고 오폐수 시설이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최광윤

지금 우리 군은 방금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본소하고 고금도 동부지소, 노화에 서부지소와 이렇게 세 군데 운영되고 있습니다. 완도읍에 지금 설치돼 있는 본소는 완결하게 지금 오폐수 설치는 다 돼 있고 고금 동부지소는 금년 6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준공을 하면서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그 시설까지는 못했고요. 내년에 예산을 예산계하고 얘기를 해서 지금 편성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의회서 좀 도와주신다면 내년 농번기 전까지는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서부지소 부분에 대해서는 23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마는 지반이 조금 약하다 보니 침하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원천적으로 그 침하 부분을 그때 당시 설계했던 그 설계 사무소하고 우리 행정하고 또 건축사하고 해서 원인을 먼저 파악을 한 다음에 보강 사업하고 같이 결부해서 추진을 해야 하겠다,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 박성규 위원

농기계 세척장은 농기계 유지 관리뿐만 아니라 잔류 농약, 기름, 비료 성분으로 인한 토양 오염과 하천 오염을 막기 위한 필수 인프라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지금 그 부분이 아직 덜 됐는데 잘해서 다음 혹시 언론이라는 게 언제 또 우리한테 올지 모르니까 그 전에 미리 대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최광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성규 위원

농기계 세척수는 자동차보다 훨씬 오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세척수는 잔류 농약, 비료, 기름 찌꺼기, 토양 전염균 등 복합 오염 물질이 포함돼 환경과 인체에 더 큰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척장과 정화 시설 설치를 기존에 안 돼 있는 데를 꼭 잘해서 준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최광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박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궁희

최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과 남았으니까 바로 해버리죠.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서 팀장 소개 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 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

○ 보건행정과장 정계창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정계창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기 전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보건행정과 팀장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팀 이희승 팀장, 최연정 주무관, 의학관리팀 박현옥 팀장, 성장희 주무관, 감염병대응팀 이미영 팀장, 양영란 주무관, 감염병예방팀, 문재우 팀장, 신수빈 주무관, 진료팀 고현미 팀장, 김금행 주무관, 노화보건지소팀 황정미 팀장입니다. 다음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민 위원님께서 개선 요구하신 의료 인프라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입니다. 현재 의료 취약지 지원 사업을 통하여 대성병원을 지원하여 의료 인프라 개선에 노력하고 있으나 주민들이 타 지역으로 진료를 받으러 다녀 불편하므로 공모 사업 등 가능한 재원을 동원하여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조치 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 공모 사업으로 2025년 대성병원에 의료 취약지 인공 신장실 및 취약지 응급 의료 기관 보안 인력 인건비로 1억 2,0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여 의료 서비스 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 소멸 대응 기금으로 인공 신장실 확충 사업을 추진 중이며 도서 지역 주민들의 의료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 의료 기관 및 보건 기관과 협력하여 원격 협진 진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료 인프라 구축과 서비스 질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허궁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보건의료원 예방 접종 시간 및 주민 홍보 철저입니다. 예방 접종을 오후 3시 이후에 받지 못하여 불만이 발생된 상황입니다. 조치 사항입니다. 예방 접종은 접종 후 환자 이상 반응을 관찰하고 이상 반응 발생 시 의료진 상담 및 의료 기관 방문에 필요한 시간 확보 등을 위해 09시부터 15시까지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시간을 변경하기는 어려우나 언론, 읍면 이장 회의와 읍면 밴드 등의 예방 접종 운영 시간을 안내하고 있으며, 교육청 및 관내 학교에도 예방 접종 운영 시간 협조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민 불편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신속한 감염병 관리 방안 마련입니다. 2024년 10월 완도군 학교에 백일해가 발생하여 급속하게 유행하였는데 감염병 발생 대응에 발 빠르게 대처하지 못하여 민원이 발생된 내용입니다. 조치 사항입니다.

독감 등 법정 감염병 확인은 전문 의사가 있는 병원급에서 검사 시약을 상시 배치하고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대성병원에서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집단 전염병 감염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집단 전염병 발생 시에는 보건의료원에서 긴급하게 검사를 실시하는 대응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국가 유행 감염병 발생 동향은 매주 발표된 질병관리청 감염병 포털에서 확인하고 언론 및 각종 홍보 매체 등을 통하여 예방 수칙 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대응 능력 향상을 통하여 전염병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보건의료원 처방 약봉투 개선입니다. 보건의료원에서 약을 처방할 때 종이봉투에 담고 또 비닐봉지에 담아서 주고 있어 공공에서 일회용 봉투를 제공하는 것은 맞지 않으므로 친환경 봉투 등으로 제공하라는 사항입니다. 조치 사항입니다.
현재 약 처방 시 종이봉투만 지급하고 일회용 비닐봉지는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비닐봉지 요구 시 장바구니 사용을 안내하고 있으며 약 처방량이 많거나 거동 불편자 등 꼭 필요한 경우만 친환경 비닐봉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궁희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호 위원

과장님, 56페이지 인공 신장실 확충에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추진 실적 보고 때 본 위원이 질문했죠?

○ 보건행정과장 정계창

예. 그렇습니다.

○ 조인호 위원

최근 현장을 지나가다 보면 아직도 암반 작업 중인데 사업이 이렇게 지연된 이유가 당초 계획된 대로 안 되는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 한 번 해 주시죠.

○ 보건행정과장 정계창

당초 암 발파 공법을 진행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도시 지역 내에 산후조리원 인근이어서 암 발파는 어려웠고요. 암 파쇄 공법으로 약 두 달간 공사를 또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암을 제거하고 보니까 암 제거 부분하고 특히 토사 부분이 토사로 이루어지지 않고 자갈층에 돌이 많이 있습니다. 경사도는 현재 한 41, 2도밖에 안 되지만 붕괴 위험 요지가 있어서 재해 방지 대책을 위해서 추경에 약 5,000만 원을 추가로 확보를 했고요. 추가로 지금 당초에는 직수 상수도 이입관을 사용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입을 하고 나서 보니까 수압이 낮습니다. 그래서 가압 펌프와 약 8톤의 물 저장 탱크가 필요해서 그럴 경우에는 구조 검토와 설계 변경이 필요해서 약 한 두 달 정도 지금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초 3월 말에 준공을 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두 달이 더 추가돼서 한 5월 말쯤으로 계산하고 있는데 동절기 콘크리트 양성 과정 부분까지 검토하면 아마 공정은 좀 더 늦춰질 걸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 조인호 위원

보건행정과에는 시설직이 혹시 근무하고 있는가요?

○ 보건행정과장 정계창

예. 건축직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조인호 위원

어떤 업무를 하고 있어요, 지금 시설직이?

○ 보건행정과장 정계창

지금 보건의료원에는 보건의료원 외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각 건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설물 전반적인 관리를 하고 있고요. 현재

인공 신장실 관련 건축 분야는 전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 조인호 위원

시설직인 만큼 공사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게 관리 감독 잘하십시오. 감사 자료를 보면 2026년 3월 준공 예정이 돼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내년 6월까지도 준공이 안 되겠던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보건행정과장 정계창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조인호 위원

사업이 진척이 전혀 없던데?

○ 보건행정과장 정계창

암 발파 공법 변경 때부터 현재까지 거의 진척은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까지는 인공 신장실에 들어가는 혈액 투석기까지는 최종적으로 검토를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 공정이 당초 암부터 많이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척이 늦은 것에 대해서는 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조인호 위원

일을 거꾸로 하고 있네. 건물이 지어져야 투석기가 필요하지. 그럼 투석기 먼저 도착하면 어디다 보관할 거예요?

○ 보건행정과장 정계창

아니요, 일정은 거기에 맞추고.

○ 조인호 위원

그러면 준공 이후 운영 인력은 어떻게 확보할 계획입니까?

○ 보건행정과장 정계창

현재 준공 후에 당초 기부 채납 대성병원에서 지금 인공 신장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 그대로 운영이 현재 가능합니다. 저희가 올 하반기에 경남 창녕에 우리하고 비슷한 인공 신장실을 운영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현장을 다녀왔고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점이 없고요. 현재 우리 군에는 신장 장애인이 약 9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투석 대상이 최소 한 70명, 80명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는 수요가 충분히 가능할 정도의 병상 확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계획했던 보호자나 환자 휴게실 같은 게 부족해서 내년에는 그 점을 검토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 조인호 위원

과장님, 우리 환자들이 광주나 목포로 가면 왕복 한 3시간 반, 4시간씩 걸렸습니다. 그리고 강진이나 인근 해남으로 가도 역차별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완도군에서 하는 사업 중에 인공 신장실을 운영하는 게 제일 잘하는 사업 같아요. 투석을 안 하면 생명이 단축되니까.

○ 보건행정과장 정계창

예. 그렇습니다.

○ 조인호 위원

그러니까 책임감을 갖고 하루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장 정계창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조인호 위원

다음은 의료원 인사 관련돼 간략하게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완도군 인사 정기 발령이 나고 나면 보건의료원 인사는 의료원을 따로 하죠?

○ 보건행정과장 정계창

예. 보건의료원은 사무 분장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 조인호 위원

과장님, 6급 승진하면 읍면으로 가죠?

○ 보건행정과장 정계창

예. 6급 무보직 승진했을 경우에도 저희도 인력에 한계점이 있어서 신규자라든가 7급 승진

자라든가 6급 승진자까지 섬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 조인호 위원

그러면 6급 승진할 때 가고 또 6급 보직을 받을 때도 읍면으로 가지요?

○ 보건행정과장 정계창

보직은 군에서 보직을 저희가 의료원에서 분장하는 형태는 아니고요. 군의 인사과 인사부서에서 보직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 조인호 위원

그런데 이걸 보면 본청하고 인사 형평성이 좀 안 맞은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보건행정과장 정계창

본청은 각 직렬별인데 직군별에 읍면 순환 보직이 가능한데요. 저희 보건의료원에는 군청, 본청 같이 단일 직군에 하는 운영 형태는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6급 승진을 해서 읍면을 내려가지 않으면 그 승진 대상자가 되기 전까지는 순환 보직이 어렵기 때문에요, 오랜 기간 적체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없어서 2018년도에 저희 보건의료원에 자체적으로 내부 사무 분장 규정을 마련해서 현재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 조인호 위원

현재 6급 무보직은 몇 분 정도 될까요?

○ 보건행정과장 정계창

11명입니다.

○ 조인호 위원

11명?

○ 보건행정과장 정계창

예.

○ 조인호 위원

본청보다는 좀 많은 편이죠, 직렬이?

○ 보건행정과장 정계창

많기도 하지만 보직도 한 3년 6개월 정도 걸려서 본청보다 한 두 배 정도 늦습니다.

○ 조인호 위원

공무원의 꽃이 승진인데 정체가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찾아오는 우리 군민들한테 이렇게 마음적으로 열려서 행정 서비스가 되겠어요?

○ 보건행정과장 정계창

전문가다 보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조인호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노조하고도 협의해서 본청하고 의료원하고 격차를 줄여 나가야 해요. 그래야 우리 직원들이 편안하게 승진하는 맛도 있고 근무도 열심히 하고 그러지. 그런 거 아니겠어요?

○ 보건행정과장 정계창

예.

○ 조인호 위원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 좀 쓰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궁희

조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 52페이지를 보면 보건의료원은 진료 인원이 24년이나 25년 조금 증가하거나 비슷한데요.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진료 인원이 월등히 감소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보건행정과장 정계창

주 현재 감소 사유는 물론 인구 감소 요인도 있겠습니다마는 보건지소보다는 진료 과목이 다양하고 또 전문 의료 장비가 많은 아마 민간 의료 기관을 많이 이용하는 상황으로 현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허궁희

그 말씀은 맞는 것 같고요. 그래도 우리 지역 주민들 고령층에게는 이렇게 취약 계층이나 이런 분들은 또 의료원을 많이 찾아요.

○ 보건행정과장 정계창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허궁희

제가 보기에는 전문 인력이나 의료 서비스 부족 그리고 노후화가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비한 준비 내용이나 그런 과정이 있는가요?

○ 보건행정과장 정계창

현재 보건지소 부분에 대해서는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중보건의사도 대부분 대학을 바로 졸업한 일반의가 오는 형태도 있고요. 또 금번 같은 경우는 대학을 졸업하고라도 병원은 실무 경험이 한 3년 정도 지난 인턴 3년 차들이 오는 경우에는 서비스 질이 좋기도 하지만 그래서 그런 불확실한 부분이 꽤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저희는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보건지소 진료소의 의약품의 만성 질환에 대한 의약품에는 최고의 약품을 넣으려고 하고 있고 질적인 개선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허궁희

그리고 감사 자료 60페이지를 보면 진료 실적에서 군외, 약산 지역만 이용률이 완전히 낮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고?

○ 보건행정과장 정계창

2024년부터 공중보건의사가 감소 배치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부득이하게 의료 수요가 적고 인근 접근성이 높은 약산하고 군외에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하지 못하고 고금하고 신지에서 화요일, 목요일 주 2회를 순회 진료를 하면서 만성 질환자에 대한 질병 진료 밖에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타 의료 기관을 이용하기 때문에 월등히 적은 부분은 있습니다.

○ 위원장 허궁희

그래서 지난 군정 추진 실적 보고에서도 한 번 지적을 했듯이 해당 지역은 꿀 발령지라고 우리 보건의료원에서는 소문까지 났다고 하는데요. 보건소 운영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지역 주민 이용률이 감소한다면 뭔가 홍보 강화나 이동 진료 확대 등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는가요?

○ 보건행정과장 정계창

보건의료원에서는 현재 수액 부분 처방이라든가 만성 질환자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많이 높아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지소의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공중보건의사라든가 이런 역할적인 부분 때문에 현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마는 특히 민간 의료 기관이 없는 약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택 의료 진료를 확대 서비스해서 방문해서 진료하는 형태로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섬 지역에 금당, 생일, 청산 같은 경우에 위원급이 없는 지역에는 현재 물리치료실을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당, 생일은 운영 중에 있고 청산면은 내년 상반기 안에 개원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궁희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민간 병원과는 비교해서는 의료 만족도나 서비스 품질에 대한 만족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 상황에 대해 책임을 느끼시고 대책을 잘 세워서 활성화 계획을 내년부터 추진해서 실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장 정계창

완도군의 특성이 섬으로 이루어진 게 큽니다. 그래서 가장 저희 보건의료원에서 하는 부분은 섬 지역 응급 의료 서비스가 1번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는 보건복지부 국가 정책에도 부합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공중보건의사가 더 줄어들 거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신지, 고금까지도 배치되지 않을 상황까지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반의 1명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일반의 1명을 더 채용하려고 본예산에 요구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내년에 최적 조건의 의료 서비스를 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의료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궁희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감사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 활동을 종료하고 내일 감사 서류 검토 및 현지 확인 후 오후 2시에 계속해서 부서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8인)

허궁희　박성규　지 민
박재선　박병수　조인호
최정욱　조영식

○출석공무원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
지역개발과장	오현철
안전총괄과장	김진원
안전총괄과장	이홍용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광윤
보건행정과장	정계창

○ 전문위원 : 박영민

○ 전문위원 : 전문희

○ 속 기 사 : 임은주

제334회 완도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12월 2일(화)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 건강증진과
   - 시설관리사업소
   - 해양치유관리공단

부의된 안건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 건강증진과
   - 시설관리사업소
   - 해양치유관리공단

(14시00분 개의)

○ 위원장 허궁희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서 팀장 소개 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 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

○ 건강증진과장 김현주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현주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강정책팀 정우자 팀장, 방문보건팀 이수민 팀장, 치매관리팀 박경자 팀장, 정신건강팀 김현미 팀장, 건강생활지원센터팀 김진희 팀장을 소개합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완도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개선 등 4건입니다.

먼저 1쪽 조영식 의원님께서 완도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의 예산이 불용 되고 있어 개선 주문하신 사항에 대해 조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난임 부부의 부담을 경감하고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11월에 완도형 난임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제안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주요 지원 내용으로는 난임 시술에 따른 원거리 교통비를 시술 차수당 5만 원, 연 10회를 지원하도록 했고 완도형 시술비 지원은 동일 또는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그 지원액의 차액에 대해 지급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제도를 협의 완료했고 앞으로 조례가 공포되면 확대 사항에 대해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난임 부부가 혜택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지민 의원님께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이 티머니 교통카드로 지원되고 있어 활용도가 낮아 개선 주문하신 사항에 대해 조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5월에 조례를 개정해 티머니 교통카드로 지원하던 교통비를 현금 지원으로 변경 시행하고 있으며 대상은 완도 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에게 2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홍보를 더욱 철저히 하여 임산부들의 산전 진료 시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지민 의원님께서 우리 군만의 차별화된 모자 보건 사업 추진 개선 주문하신 사항에 대해 조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부터 시행한 해양치유센터 해캉스 치유의 달 프로그램을 기존 24개월 미만 양육 모에서 금년도에는 만 6세 미만 양육 모로 확대하였고 산후 우울증 선별 검사도 병행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와 함께 참여하는 도서 지역 찾아가는 임산부 건강 교실을 노화읍과 고금면에서 진행했습니다. 또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연계해 임산부 간담회를 통한 자조 모임, 태교, 스트레스 완화 운동 건강 교실을 8회 운영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모자 보건 사업 추진을 위해 더욱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4쪽 허궁희 의원님께서 출산 장려금을 현재보다 더 확대 지급하는 것을 검토 권고하신 사항에 대해 조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출산 장려금은 첫째 500만 원, 둘째 1,000만 원, 셋째 1,300만 원, 넷째 1,500만 원으로 각각 차등 지급 중에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여 넷째아 기준인 1,500만 원을 첫째아부터 동일하게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금년 초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신청하였고 12월 현재까지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협의 결과에 따라 조례 개정과 예산 확보 후 증액하여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궁희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정욱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도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증진과 출산,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설치되었죠?

○ 건강증진과장 김현주

예, 맞습니다.

○ 최정욱 위원

전라남도 내에 공공산후조리원이 몇 개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현주

전남 도내에 해남하고 강진, 그리고 저희 완도하고 나주, 순천 이렇게 해서 5개소가 있습니다.

○ 최정욱 위원

우리 군이 2019년 세 번째로 설치 운영됐죠?

○ 건강증진과장 김현주

예, 세 번째입니다.

○ 최정욱 위원

우리 군 공공산후조리원의 산모 수용 인원은 몇 명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현주

지금 공공산후조리원의 산모실이 10실로 되어 있어서 10명이 수용 가능하고 영아는 최대 12명까지 수용이 가능합니다.

○ 최정욱 위원

여기 산후조리원의 운영 지원 실적을 보면 올해 이용료 감면을 받은 인원은 86명으로 도비 지원은 59명, 군비 지원은 27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도비와 군비 지원 차이는 무엇일까요?

○ 건강증진과장 김현주

도비 지원은 둘째아부터 지원이 가능하고요. 차상위 계층이나 취약 계층, 미혼모나 또는 장애인 등과 같은 취약 계층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7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비는 도비에서 지원하지 않는 첫째아에 대해서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최정욱 위원

우리는 첫째아만 해당하네요?

○ 건강증진과장 김현주

예, 그렇습니다.

○ 최정욱 위원

그래서 차이가 나고?

○ 건강증진과장 김현주

예.

○ 최정욱 위원

그리고 우리 군 임산부 등록 현황을 보면 136명인데 이용료 감면받은 인원은 86명으로 63.2%가 혜택을 받았고 나머지 50명 36.8% 임산부는 지원을 못 받은 이유가 거기에 해당하는 건가요, 이것도?

○ 건강증진과장 김현주

50명 지원 못 받은 사람들은 집에서 산후조리를 받고 있는, 산모 신생아 건강 관리사 지원을 한 16명이 받았고요. 그중에서 34명 그러니까 50명 중의 34명은 민간에서 이용하는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 최정욱 위원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기간은 보통 2주죠?

○ 건강증진과장 김현주

예, 그렇습니다.

○ 최정욱 위원

운영 기관 형편에 따라 다른 기관과 타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이 가능하면 우리 군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실적 수치가 적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강증진과장 김현주

일단 수용 시설의 100%가 다 차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개인적인 형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를 임신했을 경우에는 임신에 대한 불안과 공포가 많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본인이 산전 진찰을 받았던 도시의 병원에서 나중에 출산하고 또 출산하게 된 가까운 인근에 있는 연계된 민간에 있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케이스가 있고요. 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모 신생아 건강 관리사 지원을 받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그쪽에 비용이 또 적기 때문에 경제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도서 지역 같은 경우는 둘째아는 해남이나 강진 같은 경우도 도에서 설립한 공공산후조리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둘째아를 출산하게 되면 아마 그쪽에

가서 지원을 받는 케이스가 있고요. 나머지는 친정집이 관외에 있어서 친정집에 가서 산후조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 완도군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찾지 않는 것 같습니다.

○ 최정욱 위원

혹시나 우리 조리원이 시설 부족이나 또 애를 여기서 낳고 산후 조리하기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지금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이야기가 있어서 질의도 하게 되었는데 어떤가요?

○ 건강증진과장 김현주

2023년부터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서 그것을 이용하셨던 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설문조사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 개선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았고 감면료를 인상해 주면 좋겠다. 저희들도 생각할 때 감면료가 인상이 되면 방금 말했던 산모 신생아 건강 관리사 지원을 받던 사람이 그리 올 수도 있고 저희가 군비 지원이 50%다 보니까 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최정욱 위원

뭘 해도 우리가 안 했으면 모르는데 이왕 설치한 거 운영하고 있는 거 정말 지역민들을 위해서 저걸 조리원을 했는데 혜택을 보게끔 해야 하지 않겠어요?

○ 건강증진과장 김현주

예.

○ 최정욱 위원

그리고 요즘은 예전하고 달리 아이들 배에서 가지기까지도 어렵고 아기 낳는 것까지도 굉장히 신경들을 많이 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이 좋지 않거나 또 불안하거나 이러면 이용을 안 하게 돼 있겠죠. 그런 면에서 더 그런 거는 기왕 하면서 우리가 그런 말은 듣지 않게 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많은 인원도 가면 갈수록 애를 갖는 수치도 작아지고 그러니까 더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현주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내년에는 벤치마킹을 통해서 시설 개선을 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설문조사에서 나왔던 것처럼 감면료 인상을 해서 이 사람들이 더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정욱 위원

과장님,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출산 후 우리 군 소재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을 위해서는 민간 산후조리원에 대비 경쟁력 확보가 우선시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 건강증진과장 김현주

예, 맞습니다.

○ 최정욱 위원

공공산후조리원이 민간산후조리원보다 깨끗하고 안전하며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고 시설 이용 제고를 위해서 우리 군민만의 특별한 혜택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지원 제도 등을 적극 홍보하여 주시고 임산부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특별한 지원 방안 등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 건강증진과장 김현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 최정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궁희

최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강증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임산부와 영유아 건강관리 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임산부와 만 2세 미만 영유아기 가정을 방문해서 모성 건강 간호, 육아 교육, 산후 우울 등 고위험 가정에 대한 건강한 출발을 지원하는 생애 초기 건강 관리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현주

예, 그 사업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 지민 위원

2020년도 7월에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 사업을 시작했고 22년도 생애 초기 건강관리 사업이 전국적으로 또 확대가 되었어요. 그리고 25년 현재 15개 시도 73개 보건소에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전라남도에서 추진 중인 시군이 몇 개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현주

전라남도에서는 12개 시군이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지민 위원

그렇죠?

○ 건강증진과장 김현주

예.

○ 지민 위원

우리 군과 또 여건이 비슷한 인근 시군의 해남, 강진, 진도, 신안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군에서는 아직 추진을 하고 있진 않아요. 이유가 있을까요?

○ 건강증진과장 김현주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는 생각이 됩니다만 이 사업은 또 공모 사업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어야지만 할 수가 있는 사업이고 또 간호사 등에 대한 전문 인력이 있어야 합니다. 전문 인력이나 예산이 수반되어야 어느 정도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수 있는데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여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추진을 못 했었던 것 같습니다.

○ 지민 위원

저희 지역이 또 인구 소멸 지역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군의 경우라면 이런 임산부나 영유아에 대한 생애 초기 건강관리 사업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 건강증진과장 김현주

맞습니다.

○ 지민 위원

어떻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현주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 지민 위원

임산부나 영유아 건강관리 사업이 여기 책 29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분야별로 여러 사업들이 많아요. 하지만 임신 전이나 임신 중이나 출산 후 여러 사업 중에 임산부의 출산 후 바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또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공모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면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과장님.

○ 건강증진과장 김현주

예, 맞습니다.

○ 지민 위원

우리 군에서도 저출산 대응 및 인구 유입을 위해 인구 늘리기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그중에서 생애 주기별 저출생 대응 완도형 신규 시책 발굴, 인구 정책 기본 조례 개정 등으로 저출산 및 인구 유입 정책에 더욱 노력해 주시는 걸로 알고는 있어요. 그래서 이와 더불어서 임산부와 영유아 건강관리 신규

사업을 더욱더 많이 발굴해서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에 도움이 되는 정책들이 많이 나와서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현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지민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궁희

지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영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민의 알 권리와 행정사무감사 취지에 맞게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최근 도 감사에서 우리 군의 예산 편성 및 민간 위탁 사업 추진 과정에 절차 위반과 부정적인 집행이 확인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 별표 11은 민간 보조 사업을 민간 위탁금으로 편성할 수 없고 지방보조금법 제2조는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이 수행하는 사업을 원활히 지원할 경우 지방 보조금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증진과의 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은 보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민간 위탁금으로 편성하고 급여는 지방 보조금 방식으로 집행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과장님 인지하고 계시죠?

○ 건강증진과장 김현주

예, 알고 있습니다.

○ 조영식 위원

이는 예산 편성 단계부터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데 민간 위탁금으로 편성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현주

제가 처음 작년 사업 시작하면서 이 사업을 민간 위탁금으로 편성했던 것은 조례의 규정에 보면 업무의 위탁이라는 규정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사무의 일부나 또는 전부에 대해서 법인이나 단체에 민간 위탁을 할 수가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근거를 해서 처음에 저희가 예산을 그렇게 편성했던 것입니다.

○ 조영식 위원

조례에 근거해서 했다고요?

○ 건강증진과장 김현주

예.

○ 조영식 위원

또한 완도군 사무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 6조에서는 의회의 동의, 공개 모집,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 기준 공고 등 절차를 필수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 결과는 의회 동의 없음, 공개 모집 없음, 심사 위원회 미구성, 배점 기준 미공고 등 절차 대부분이 생략되고 특정 법인을 이미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한 부서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현주

작년에 이 사업을 처음 추진하면서 민간 위탁 사업 추진에 대한 경험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관련 법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행정 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잘 이행했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미흡했던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러한 미흡했던 부분들을 보완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의회 동의 받고 공개 모집하고 그다음에 심사 기준에 대해서도 공고를 하고 평가위원도 구성해서 행정 절차대로 올해는 보완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조영식 위원

금액이 아주 작아서 별 질의도 직고도 안 하

려 했는데 그래도 사무 감사 취지에 맞게 몇 가지 확인하고 있으니까 또 그게 개선돼서 올해 잘 추진됐다니 아주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지방계약법은 청렴 계약서 제출,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 조치 의무, 위탁 조례 관리 조례는 연 1회 이상 감사 및 시정 조치를 규정하고 있지만 감사 결과는 안전 조치 위반, 인건비 또 내부 거래 6건. 총금액은 아주 소액입니다. 474만 5,000원입니다. 부적정 집행 그리고 정산 검증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비록 소액이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 건강증진과장 김현주

예, 맞습니다. 철저히 관리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영식 위원

이번 사안은 법령 위반, 절차 생략, 관리 감독 부실이 중첩된 문제입니다. 재발 방지 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현주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 철저히 하고 정산할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잘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영식 위원

특히 올해 또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잘 대처하고 있다니 천만다행입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현주

열심히 하겠습니다.

○ 조영식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궁희

조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서 팀장 소개 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 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사업소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수호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수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설관리사업소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운영팀 박국종 팀장입니다. 장보고유적시설팀 이문기 팀장입니다. 해양관광시설팀 오문석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민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해조류센터 내 고장 전시물 개선 조치 사항입니다. 해조류센터 전시관에 설치된 AR 콘텐츠 업데이트 유지 보수 비용이 많이 소요되며 관람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지 못함에 따라 운영을 중단하고 뒷배경만 활용하여 바닷속 이미지만 연출하고 있습니다. AR 콘텐츠가 설치되었던 위치는 2026 Pre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전시 콘텐츠 개선 작업에 포함하여 진행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지민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해양생태전시관 시설물 관리 철저입니다. 25년 2월에 전문 청소 업체에 의뢰하여 외벽 유리창 청소를 완료하였고 1층 체험 프로그램 터치 폴 앞에 안내판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 지민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시설관리사업소 관리 시설물 총괄 홈페이지 구축입니다. 24년 2월 홈페이지 구축 관련 행정지원과와 협의하여 분산되어 있던 장보고기념관 등 홈페이지를 완도군청 공식 홈페이지로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인 시설물 관리로 관람객 맞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치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궁희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은 증인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영식 위원

소장님, 시설관리사업소 관리 중인 장보고 놀이공원 정비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소장님, 군정 질문 답변 시 장보고 놀이공원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혹시 기억나시죠?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수호

예.

○ 조영식 위원

레일 자전거 수리 완료했다고 했는데 잘 작동됩니까?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수호

예, 지금 잘 작동되고 있습니다.

○ 조영식 위원

어제 의회 직원하고 또 소장님하고 팀장님들하고 같이 둘러봤는데 질문을 이렇게 하게 되니 의아합니다마는 지속적인 관리 잘 부탁드립니다, 아주 잘 되고 있어서 어제. 그리고 향후 고장이 났을 때도 팀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원거리에 있는 수리 업체가 서울에만 있어서 하는데 완도 자체적으로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리를 부리면서 잘 대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어제 드렸는데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드립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수호

예, 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조영식 위원

혹시 인라인스케이트장 이용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수호

연 한 400여 명이 이용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조영식 위원

연 400여 명. 언제부터 시설이 돼서 몇 년째 통계입니까, 그게?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수호

그게 보면 23년 1월에 준공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여름철하고 겨울철에는 이용률이 극히 저조한 반면에 봄철하고 가을철 그때 이용객이 많이 있는데 개월 수로 따지면 6개월 정도 저희들이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 조영식 위원

6개월이면 약 400명이라고 하면 한 달에 한 60명 정도 그렇게 되겠죠?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수호

예.

○ 조영식 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여름에는 더워서, 겨울에는 또 추워서 봄가을에는 또 비가 많이 와서 또 그러는데 아마 다른 문제도 분명히 활성화 방향을 찾으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이용객들은 각자 개인 장비 착용 후 이용하고 계시는 거죠?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수호

예, 그렇습니다.

○ 조영식 위원

다 개인 장비요? 장비를 소지하고 계신 분들이 별로 없을 거라 생각되는데 소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수호

예.

○ 조영식 위원

제가 인라인스케이트장 이용 활성화 방안으로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장비 대여 방안을 제안합니다. 헬멧, 어깨 보호대, 무릎 보호대, 신발 등 장비 일체를 무료 대여하는 방안입니다. 1인당 약 11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1세

트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며 사이즈별 많지도 않습니다. 아까 뭐 한 달에 한 5, 60명 한다니까 100세트 해 놓으면 예산도 얼마 안 들 거로 생각되지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수호

그렇게 한다면 이용객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조영식 위원

한번 시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인라인스케이트장 이용 활성화 방안도 마련해 주시고 방금 말씀하신 장비 대여 방안에 대해 검토 후 시행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며 시행 시에는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수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영식 위원

좋은 방법도 제안했으니 그걸 시행하게 되면 아마 여기를 이용하는 청소년들한테 홍보도 많이 해야 할 거라 생각돼요. 그래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수호

예, 알겠습니다.

○ 조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궁희

조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호 위원

소장님,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 중인 장보고공원 국유재산 대부료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 한번 띄워주십시오. 소장님, 이거 어디인지 알겠습니까, 위치를?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수호

장보고 한상 수석 공원.

○ 조인호 위원

이 땅 주인이 어디입니까? 재정부 땅이죠?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수호

예.

○ 조인호 위원

화면에 나와 있는 장보고공원 빼고 나머지는 다 재정부 땅입니다. 완도읍 빼고 나머지는 우리 군 소유입니다. 2018년에 310만 원, 2019년에서 2022년까지 350만 원, 2023년, 2025년까지 450만 원 총 3,600만 원이 납부되어 있습니다. 땅을 군에서 매입하지 않고 계속 대부료만 납부하는 이유를 소장님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수호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파악해서,

○ 조인호 위원

파악해서 따로 보고 한번 해 주십시오.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수호

예,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조인호 위원

우리 군에서 관심만 가지면 대부료를 안 주고 매년 대부료를 안 주고 군으로 확보해서 우리가 내일모레 해양수산박물관 들어오지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수호

예.

○ 조인호 위원

그와 연계해서 주변 환경 정비도 하고 해서 군 땅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개인한테 이걸 한 게 아니고 지자체에서 한 땅은 사기가 쉽죠?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수호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조인호 위원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이걸 확인해서 바로 군에서 매입할 수 있도록 소장님 책임지고 해

주시고 관련된 사항은 의회에 보고 한번 해 주십시오.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수호

예, 알겠습니다.

○ 조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궁희

조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소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 중인 장보고 기념관 앞에 달빛 거리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20년 완도군 청해진 달빛 거리가 장보고 기념관 앞 한 500m 거리에 조성이 돼 있죠?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수호

예.

○ 위원장 허궁희

화면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보시면 타 지자체와 차이가 많이 나죠?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수호

예.

○ 위원장 허궁희

화면 보시고 달빛 거리 달 모형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둥근 달 모형 표면에 달 지도가 있었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 아무 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냥 전구 개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 혹시 가까이서 한번 보신 적 있으십니까?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수호

본 적은 있습니다만 자주 봐서 뇌리에 딱 스며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한번,

○ 위원장 허궁희

그냥 전구 다마죠?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수호

예.

○ 위원장 허궁희

이걸 계속 이렇게 유지를 할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택하실 건지 어떻게 그런 거 구상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수호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허궁희

이건 분명히 한 번 더 검토해야 옳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타 지자체를 보더라도 달 모형이 이렇게 작은 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방금 비교해 봐도 그렇죠?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수호

예.

○ 위원장 허궁희

그리고 달 모형을 대형으로 변경해서 콘텐츠도 살고 포토 존으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수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궁희

그리고 빔 프로젝터도 지금 고장 나 있죠?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수호

장보고 기념관 빔 프로젝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 위원장 허궁희

예.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수호

그거 지금 사용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허궁희

그러면 보수한 건가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수호

예.

○ 위원장 허궁희

그런 것이 고장이 나면 그때그때 조치를 빨리 해서 관광객들 트렌드에 맞추도록 고민을 많이 해야 할 겁니다, 앞으로.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수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궁희

그러면 앞으로 달빛 거리와 빔 프로젝터 이런 걸 점검을 수시로 해서 관광객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구상을 해보신 적 있으시면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수호

변화된 트렌드에 맞게끔 각 시설물도 마찬가지겠지만 장보고 기념관은 특히 많은 관광객들이 오시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해서 그때그때 트렌드에 맞게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궁희

꼭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수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궁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치유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서 팀장 소개 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 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치유관리공단

○ 해양치유관리공단이사장 이채빈

안녕하십니까? 완도 해양치유관리공단 이사장 이채빈입니다. 완도 해양치유관리공단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공단 직원 관리 및 역량 강화 대책 마련 등 5건입니다. 보고에 앞서 공단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은정 경영지원팀장님, 박준원 차장님, 이승화 차장님, 박용선 주무관입니다. 먼저 1쪽 허궁희 의원님께서 권고하신 공단 직원 관리 및 역량 강화 대책 마련 관련입니다. 공무직 간의 갈등 원인을 분석하여 해소하고자 24년 11월 20일에서 22일 3일간 직원 소통 화합 워크숍 및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25년 7월 공단 노사협의회를 구성하여 근무 평정 등을 포함한 공무직들의 다양한 의견을 실시간으로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아울러 법정 공휴일 근무자들에게 휴일 수당을 지급하고 법정 공휴일 미 근무자에게도 휴무를 보장하는 등 직원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최정욱 의원님께서 권고하신 해양치유센터 운영 및 공단 경영 개선 방안 마련입니다. 해양치유센터의 운영 비용 절감 및 수익 증대 등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자 공단 운영의 전반 사항에 대해 공단과 해양치유담당관 간 연석회의를 주 1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해양치유담당관에서 실시한 에너지 진단 용역 결과에 따라 공조기 스케줄 제어, 공기열 히트펌프 유지 보수, 열교환기 관리 등 에너지 효율성 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25년 4월에는 기존 210명을 수용할 수 있던 기본 프로그램을 기본 1과 2로 분리하여 개편 운영하여 총 540명까지 330명 증원 수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약 3,600명이 방문하는 등 전년 대비 방문 인원과 수익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박병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해양치유센터 연간 홍보 및 마케팅 전략 수립 추진 관련입니다. 저희 공단에서는 수익성 제고를 위하여 해양치유담당관 홍보 마케팅 정책 방향에 따라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관 1주년 할인, 완도 방문의 해 기념 세일, 동계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마케팅 등 치유의 유치에 힘쓰고 있습니다. 더불어 청산도, 제주도, 목포 해상 케이블카 탑승권 할인 홍보물 제작 및 여기 어때 업무 제휴 계약을

통해서 플랫폼 상품 판매 등 외부 협력을 통한 마케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조영식 의원님께서 권고하신 해양치유센터 관리 철저 및 수익 창출 방안 마련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이벤트 할인이 연말까지 진행 중인 사항들이 대부분으로 공단과 군 연석회의 검토를 통해 할인 이벤트 일몰제를 추진하여 2026년부터는 마일리지, 쿠폰 등의 시스템을 도입하여 이벤트를 개편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상품 구성 다양화를 위하여 기본 프로그램을 명상 풀 이용 여부에 따라 기본 1과 기본 2 프로그램으로 개선 운영하여 더 많은 이용객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2층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분들을 위해 디럭스 프로그램을 추가 운영하여 고객 편의성을 증진하고 더 많은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더불어 교육 프로그램과 기본 2 프로그램을 연계 운영하고 디럭스 콤보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는 등 상품 구성 다양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 조인호 의원님께서 권고하신 해양치유관리공단 주차장 통제 대책 마련입니다. 치유 환경 보전과 고객 편의를 위한 유연한 요양을 위해 일부 주차 공간을 통제하였으나 모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재는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자체 주차 공간 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내부 직원은 상부 주차장이 아닌 하부 주차장 쪽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해양치유센터 인근 100면의 주차장을 관광실과 협조하여 치유센터 부설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주차 민원의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하며 치유 시설의 본연 공간 유지로 그 취지를 잃지 않도록 관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완도해양치유관리공단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궁희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해양치유관리공단 이사장은 증인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정욱 위원

이사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단 현황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사장님 해양치유담당관에서 공단에 대한 위탁 운영을 한다고 보고하였거든요. 아마 예전에 우리가 대행업으로 서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위탁으로 이번 최종 군수님 답변과 행정사무감사 때도 정식 위탁이라고 보고를 했는데 이거 알고 계신가요?

○ 해양치유관리공단이사장 이채빈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최정욱 위원

이걸 언제 어떻게 아셨던 건가요?

○ 해양치유관리공단이사장 이채빈

저희 공단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치유센터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시설물과 위수탁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완도 해양치유센터는 완도군 해양치유 시설 관리와 운영 조례에 따라서 관리와 운영되고 있고 또 이용료나 수익금은 전액 완도군 세외수입으로 입금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독립 사업체이기 때문에 공단 경영에 관한 사항들은 행정안전부 공기업 평가원으로부터 매년 경영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최정욱 위원

위탁 사업 계약서가 있나요?

○ 해양치유관리공단이사장 이채빈

위수탁 계약서가 있습니다.

○ 최정욱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위탁과 대행업에 대해 책임

한계를 이사장님 잘 알고 계신가요?

○ 해양치유관리공단이사장 이채빈

일반 공기업에서 위탁과 대행에 대한 용어가 혼재돼서 사용되고는 있지만 법률적으로는 영역에 대한 범위가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공단의 위탁 계약서상으로는 그러한 위탁이나 대행업에 대한 권한이나 범위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진 않습니다.

○ 최정욱 위원

이렇게 보면 위탁 사업은 지자체의 시설 업무를 공단이 운영 그러니까 운영은 공단 이사장 중심으로 해서 운영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반면에 거기에 대한 책임도 공단 이사장한테 있다는 얘기고 대행업은 지자체의 사무를 공단이 대신 수행, 그러니까 행정 중심의 관리를 한 것이거든요. 그렇다 보면 책임 한계가 명확하거든요, 이게. 그것도 제대로 아시는지 이사장님. 거기에 대한 또 그게 있고 해양유치 관련 시설물 위탁이라고 이렇게 계약이 돼 있는 것 같은데,

○ 해양치유관리공단이사장 이채빈

맞습니다.

○ 최정욱 위원

맞습니까?

○ 해양치유관리공단이사장 이채빈

예.

○ 최정욱 위원

시설물 위탁이라는 거는 공단 이사장님의 권한이 있는 게 아닌데 사업 프로그램이나 사업 활성화하는 방법 이런 거 어때요?

○ 해양치유관리공단이사장 이채빈

그런 사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독립 사업체이기 때문에 1억 이하의 범위 내에서는 저희가 군과 협의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최정욱 위원

위탁도 어떤 위탁이냐에 따라 다른데 여기는 시설물 위탁이라고 이렇게. 이게 알고는 계시죠, 된 거?

○ 해양치유관리공단이사장 이채빈

예, 맞습니다.

○ 최정욱 위원

계약할 때 이렇게 했죠?

○ 해양치유관리공단이사장 이채빈

예.

○ 최정욱 위원

"위탁 기간은 우리가 2024년 7월 1일부터이며 만료일은 군과 공단의 별도 해약의 의사 표시가 있을 때까지."라고 돼 있는데 이런 것도 알아요?

○ 해양치유관리공단이사장 이채빈

예, 맞습니다.

○ 최정욱 위원

지금 우리 공단이 특정 공단으로 이번에 된 것 알고 계신가요?

○ 해양치유관리공단이사장 이채빈

예.

○ 최정욱 위원

이사장님 아마 이제부터는 위탁으로 명시가 되면서 위에서 바라본 눈도 또 이사님에 대한 기대나 이런 게 아마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식 위탁으로 될 때는 모든 책임은 이사장님한테 간다는 걸 잘 아시고 활성화돼서 많이 노력해야 한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 계획은, 생각은 갖고 있으세요?

○ 해양치유관리공단이사장 이채빈

예. 최대한 군의 정책 방향을 저희가 존중하면서 또 군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면서 지금까지의 부족한 부분들을 좀 더 채워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최정욱 위원
올해는 그러면 위탁 계약을 다시 해야 하지 않는가요? 지금 시설물 위탁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보는 거하고 의회에서 보는 거하고 전혀 다르거든요, 위탁 개념이? 다시 계약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이사장님의 위탁은 우리가 보면 위탁 내에 권한이 속하면서 책임도 따른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시설물 관리로 하면 그게 또 달라요, 위탁이. 그러니까 의회에서 보는 눈은 정식 위탁으로 볼 거예요. 이것도 숙지하고 계세요?

○ 해양치유관리공단이사장 이채빈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이 계약서상에 미흡한 부분들이 있다면 군과 협의해서 그 범위를 다시 한번 더 세밀히 살피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약서의 어떤 조정이 필요하다면 또 군과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정욱 위원
그 점은 명심하시고 이사장님 하여튼 공단에 대한 책임과 함께 치유센터에 대한 활성화, 이런 것에 많은 노력해야 할 겁니다.

○ 해양치유관리공단이사장 이채빈
알겠습니다.

○ 최정욱 위원
그 점 명심하시기 바라고 또 관리공단의 직원 인력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 해양치유관리공단이사장 이채빈
저희 직원이 10월 말 현재 정원 40명 중에서 지금 임원 1명 그리고 일반직 8명 그리고 공무직 23명을 포함해서 총 3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원 대비해서 9명이 결원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완도군에서 공단에 팀장급 1명 그리고 차장급 1명, 완도타워에 청원 경찰 1명으로 총 3명이 파견 나와 있고요. 그리고 12월 9일에는 일반 행정 7급 3명이 첫 출근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기간제 근로자가 24명으로 총근무 인력은 58명이 되고 있습니다.

○ 최정욱 위원
50?

○ 해양치유관리공단이사장 이채빈
58명.

○ 최정욱 위원
58명. 공단의 이직률이, 신규 직원들 채용하는 것이 이직률 때문에 채용을 지금 하고 계시고 다 했나요?

○ 해양치유관리공단이사장 이채빈
예, 아무래도 공단 초기에 일부 직원들의 이직이 많아서 저희도 우려에 공감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 이직 사유를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대부분은 개인적인 사정에 따른 것으로 본인의 주소지로 복귀한다거나 또 타 공공기관의 근무 또 개인 사업의 개시를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저희가 참작해서 공단에서도 조직 안정과 지역 연계의 강화를 위해서 지난 10월 설립 이후 최초로 신규 직원 3명을 채용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완도 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들로서 지역 정착 의지와 공단 비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습니다. 신규 직원들은 각 부서별로 실무 담당자와 멘토를 지정해서 현장 적응과 직무 숙련을 지원하고 있고요. 특히 해양치유센터의 업무가 서비스 비중이 높기 때문에 민원 응대하고 고객 서비스 이러한 부분들의 사전 교육을 체계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규 직원들의 근무 만족도와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내부 소통을 강화하여 이직률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 최정욱 위원
직원들 신규 직원들하고 교육은 하셨나요, 1차?

○ 해양치유관리공단이사장 이채빈

예, 실무 담당자들하고 일대일 대응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최정욱 위원

그럼 아무래도 처음 직원들의 근무는 기대와 자기들의 일하는 것과 맞지 않아서 이직률이 많다는 얘기인가요? 어떤 문제가 있는 건 아니죠?

○ 해양치유관리공단이사장 이채빈

예, 개인적인 사정에 따른 것이 많았고 공단 초기에 아무래도 저희가 타지에서 오신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이직률이 높습니다.

○ 최정욱 위원

교육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이직률이 많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치유관리공단이사장 이채빈

잘 청취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정욱 위원

그리고 이사장님 해양치유센터 이용 계획을 보면 2024년도와 25년도 입장객 수를 보면 크게 차이가 없거든요. 그런데 홍보하는 데는 올해가 사람이 많이 왔다고 이렇게 홍보하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 해양치유관리공단이사장 이채빈

해양치유센터가 24년의 입장객 수를 보면요. 1월부터 12월까지 4만 9,853명이고 또 25년 입장객 수는 1월부터 10월까지 5만 5,670명으로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24년 대비 11%가 증가해서 차이가 없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이용률 분석을 해보면 여름 성수기를 보면 2024년에는 5,366명입니다. 2025년에는 1만 191명으로 전년 대비 90% 이상으로 큰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추석 연휴에는 7일 동안 3,600명이 다녀갔고 전년 방문객 1,800명 대비 100% 이상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고요. 또 하루, 1일 678명의 최다 방문객 수를 갱신하였습니다. 공단 입장에서는 치유센터의 방문객 수가 기업 성과를 평가하는 핵심 지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욱 초기 공단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방문객 수 증가 홍보는 센터 운영 성과는 물론이고 잠재적인 고객 유치와 완도군 브랜드 홍보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매우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방향에서 저희가 적극 홍보를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최정욱 위원

올 연말까지 얼마 정도 보나요, 입장객 수를?

○ 해양치유관리공단이사장 이채빈

현재보다 2개월 정도면 12만 명 가까이.

○ 최정욱 위원

아니 올해, 2025년.

○ 해양치유관리공단이사장 이채빈

25년에요?

○ 최정욱 위원

예.

○ 해양치유관리공단이사장 이채빈

저희가 6만 명 정도 넘고 7만 명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 최정욱 위원

7만이요?

○ 해양치유관리공단이사장 이채빈

예.

○ 최정욱 위원

하여튼 많이 신경 써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사장님 말에 의하면 해마다 발전이 돼 간다고 보네요.

○ 해양치유관리공단이사장 이채빈

맞습니다.

○ 최정욱 위원

다음 23페이지 프로그램 중에 수중 재활 입장객 수가 개관 일부터 51명밖에 안 되거든

요. 이렇게 적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 해양치유관리공단이사장 이채빈

51명의 수치는 해양치유관리공단이 출범하기 전인 2024년 1월부터 4월까지 수중 재활 프로그램 이용객 숫자입니다. 수중 재활 프로그램은 실제 관련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시행해야 하지만 공단이 출범하기 전에 민간 위탁 운영 업체에 자격을 갖춘 인원이 우리 공단 인력보다 많았습니다. 그래서 공단 운영 인력이 부족하여 전문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또 수중 재활 프로그램의 특성상 일대일로 전담을 해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운영 효율성이 낮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 출범 이후에 일대일 전담 프로그램을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는 형태의 수중 재활로 전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결과로 인해서 24년보다 25년에 396%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문 수중 재활 프로그램들이 조례에 따르면 단일 상품으로 5만 원에서 9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센터를 이용하시는 고객님들은 단일 상품보다는 더 복합적인 프로그램들을 원하는 성향이어서 고객들에게 인기가 많지 않은 이유도 있습니다.

○ 최정욱 위원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할 건가요?

○ 해양치유관리공단이사장 이채빈

앞으로는 저희가 더 많은 인원을 그러니까 일대일 전담이 아니라 한 분의 강사가 여러 사람을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그리고 저희 현재 딸라소 풀에 다양한 수압 마사지 기기라든가 또 머드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수중 재활 프로그램에 포함이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더 저희가 각인을 시켜서 수중 재활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정욱 위원

하여튼 방문객이 연중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면 공모 사업도 하게 돼 있죠, 공단이?

○ 해양치유관리공단이사장 이채빈

예, 별도 저희가 공모 사업도 1억 이하는 직접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최정욱 위원

공모 사업으로 인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해서 활성화시킨다면 우리가 자금도 받아서 할 수 있고 군비뿐만 아니라 할 수 있는데 왜 이걸 1건도 실적이 없고 전혀 뭐가 없네요. 해 봤나요, 한 번이나?

○ 해양치유관리공단이사장 이채빈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공단 설립 초기부터 계속 고민하고 있었던 사안이지만 저희 현 조직 운영상 조직의 체계라든가 조직 문화를 조성해야 하는 공단 초기의 상황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사업을 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는 1년이 어느 정도 저희가 조직의 안정화가 이루어지고 나면 이런 기금 사업에 대한 공모도 저희가 군과 협조해서 함께 실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최정욱 위원

아직도 직원 안정화가 안 됐을까요? 2년이 넘었는데. 그것 해서 이런 것들을 하루하루 잡아가야 공단의 취지와도 맞다고 보는데 관심은 갖고 지금 계획은 갖고 있죠?

○ 해양치유관리공단이사장 이채빈

예, 맞습니다.

○ 최정욱 위원

앞으로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특정 공단과 아까도 말했지만 시설관리공단과 다른지 이사장님 아시죠?

○ 해양치유관리공단이사장 이채빈

예, 맞습니다.

○ 최정욱 위원
특정 공단으로 돼 있으면 환경, 관광, 교통, 개발, 복지 향상 등 폭넓은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게 특정 공단이거든요. 시설공단은 시설관리, 유지 관리, 운영만 하는 게 시설공단이고. 그동안은 아마 이게 애매하니 서로 그런 게 잘 안됐다고 하면 이제 특정 공단으로 확실하게 됐으니까 아마 이사장님 이런 거 인지 잘하시고 공단에 대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치유관리공단이사장 이채빈
열심히 해서 특정 공단이 또 저희가 해양치유 산업의 특정이기 때문에 이 분야를 좀 더 발전시켜 나가고 사업으로 연계해서 지역 경제에 공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최정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궁희
최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성규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MOU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MOU 현황을 보면 26개 기관 단체가 MOU를 체결했어요.
○ 해양치유관리공단이사장 이채빈
완도군에서 저희가 57개 기관 단체와 또 공단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6개 기관 단체와 MOU를 체결해서 총 83개의 기관 단체와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 박성규 위원
완도군에서도 많이 MOU 체결했습니까, 기관에서?
○ 해양치유관리공단이사장 이채빈
예, 완도군에서는 57개 기관,
○ 박성규 위원
57개요?
○ 해양치유관리공단이사장 이채빈
예.
○ 박성규 위원
그러면 MOU 체결만 하고 방문한 기관은 몇 군데나 됩니까?
○ 해양치유관리공단이사장 이채빈
일단 MOU 체결을 위해서 방문하셔서 거의 체결하기 때문에 방문 횟수에 따라서 차등은 있겠지만 MOU 기관은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센터를 방문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박성규 위원
MOU 체결만 하고 방문 안 한 단체도 많죠?
○ 해양치유관리공단이사장 이채빈
방문 횟수가 차별이 있습니다.
○ 박성규 위원
한 번씩은 다 왔습니까?
○ 해양치유관리공단이사장 이채빈
최소 한 번은 오셔야, 저희가 또 현장에서 거의 MOU 체결하고 있거든요.
○ 박성규 위원
그러면 완도 시니어클럽이라든지 완도 중학교 학생들도 많이 옵니까?
○ 해양치유관리공단이사장 이채빈
예, 맞습니다. 올해 들어서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약을 통해서 초중고 또 유치원생까지 현장 체험 학습으로 치유 시설을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기업 고객이 많은 방문을 하고 계십니다.
○ 박성규 위원
완도고등학교나 또 수고 같은 경우는 MOU 체결이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 해양치유관리공단이사장 이채빈
완도수고는 저희가, 완도수고하고도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 박성규 위원

혹시 체결하고 재방문이나 여러 번 온 단체, 기관은 어디입니까?

○ 해양치유관리공단이사장 이채빈

지금.....

○ 박성규 위원

시내에는 완도군이나 관외나 자주 방문한, MOU 체결하고 자주 방문한 기관, 단체.

○ 해양치유관리공단이사장 이채빈

잠시만요. 저희 MOU 체결 기관 중에 인재개발원에서 현장 체험 학습을 많이 오고 계십니다.

○ 박성규 위원

인재개발원에서요?

○ 해양치유관리공단이사장 이채빈

예.

○ 박성규 위원

몇 번이나 왔어요? 여러 번 왔어요?

○ 해양치유관리공단이사장 이채빈

예.

○ 박성규 위원

우리가 MOU 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방문할 수 있도록 유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치유관리공단이사장 이채빈

예, 알겠습니다.

○ 박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궁희

박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선 위원

이사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해양치유관리공단이 운영이 잘 되고 있다니까 좋고요. 거기에 완도타워가 해양관리공단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해양치유관리공단에 설립하기 위해서는 완도타워가 들어가 있는데 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현실에서는 완도타워가 필요한가요?

○ 해양치유관리공단이사장 이채빈

공개적인 자리에서 제가 필요성을 언급하기에는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잘 아시다시피 타워가 저희가 수익을 목적으로 해서 운영되는 기관이기보다는 공단 설립의 과정에서 저희가 맡게 된 시설인데요. 실질적으로 수익 창출보다는 완도의 랜드마크적인 역할을 하는 상징적인 기관입니다. 실질적인 수익 창출보다는 완도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서비스 차원에서 운영이 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관리나 운영 면에 있어서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 박재선 위원

그래서 처음에 공단 설립할 때는 타워가 들어가야지만 된다고 해서 그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완도타워는 지금 완도 마크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둘레에 있는 모든 것은 산림휴양과에서 하고 있는데 달랑 타워만 공단에서 한단 말이에요. 굳이 저희들이 설립하는 과정에서는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완도군에서 산림휴양과에서 이용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공단하고 상관없이. 별개는 가능한가요, 아니면 공단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서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는 건가요?

○ 해양치유관리공단이사장 이채빈

이 부분을 저희 이사님들께서도 한 번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안건을 가지고 우리가 분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의견을 한 번 나눈 적이 있는데 가능하다고 말씀하셔서 그러면 구체적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이사회 안건으로 저희가 한번 올려서 토의할 예정입니다.

○ 박재선 위원

그래요. 저희들이 보고 있으면 해양치유관리공단은 이사장님께서 열심히 노력해서 또 거기 부분 해 주시고 타워 부분은 완도군에서 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관리가 잘 된다고 하면 분리가 되면 관리공단에서도 유용할 것 같아요. 타워는 그러면 근무는 지금 몇 분이 하고 계십니까?

○ 해양치유관리공단이사장 이채빈

지금 저희가 공무직 두 분이 파견돼 계시고 그전에 저희가 팀장 체제로 운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현재는 팀장이 파견돼 있지 않습니다. 공무직 두 분으로도 저희가 운영이 가능한 상태고 또 저희 센터를 관리하는 시설팀 차장님이 같이 업무를 겸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두 분이 파견돼 계시고 군에서 청원 경찰 한 분이 더 지원 파견이 돼 계셔서 총 세 분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 박재선 위원

그럼 팀장은 언제 빠졌나요?

○ 해양치유관리공단이사장 이채빈

팀장님이 빠진 지는 하반기에 빠졌습니다.

○ 박재선 위원

그래요? 그러면 관리공단 이사진들하고 가능하다 하니까 그거 한번 검토해 주시고 된다고 하면 타워 같은 경우는 완도군에서 하는 게 제가 봐서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사장님께 말씀드린 겁니다.

○ 해양치유관리공단이사장 이채빈

적극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박재선 위원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치유관리공단이사장 이채빈

감사합니다.

○ 박재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궁희

박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치유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치유관리공단 이사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치유관리공단이사장 이채빈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궁희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 활동을 마치고 현장 확인 점검 및 개별 감사 결과 정리를 위한 내일 감사 일정을 마지막으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기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과 관계기관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국민 중심의 의정 활동을 통해 사전에 준비하신 자료와 현지 조사 그리고 집행부에서 제출된 감사 자료 등을 바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질의 답변을 통해 잘못된 점은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고 군정 발전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사항은 함께 고민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해 오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적 사항에 대해 국민의 뜻으로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 완도군의 소관 업무가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이후에 진행할 예산 심의 과정에서 감사 결과를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 기간 동안 제출하신 지적 사항을 포함한 결과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및 관계 기관 직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 활동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산회)

○출석위원(8인)

허궁희 박성규 지 민
박재선 박병수 조인호
최정욱 조영식

○출석공무원

건강증진과장	김현주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수호
해양치유관리공단이사장	이채빈

○ **전문위원** : 박영민

○ **전문위원** : 전문희

○ **속 기 사** : 임은주

회 의 록 서 명

(제334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지방자치법」 제84조제2항 및 「완도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서명함.

직 위	성 명	서 명	비 고
의 장	김 양 훈		
서명의원	조 영 식		
서명의원	조 인 호		
사무과장	최 영 미		